



함평군사 제4권





함평군사 제4권 차례

제12편 함평군의 씨족 정착사(定着史)

| 제1장 | 우리나라 성씨 / 10

제1절 우리나라 성씨(姓氏)의 유래 _ 10	1. 동족 동본의 동성 _ 20
제2절 우리나라 성씨의 관련 기록 _ 13	2. 이족 동본의 동성 _ 21
제3절 우리나라 성씨별 인구 조사 _ 14	3. 동족 이본의 동성 _ 21
제4절 우리나라 성씨별 분포 순위 _ 16	4. 이족 동본의 동성 _ 21
제5절 본관(本貫) _ 19	5. 동족 동본의 동성 _ 21
	6. 이족 동본의 동성 _ 21

| 제2장 | 광주·전남의 성씨 / 22

제1절 광주·전남의 토박이 성씨 _ 22	제2절 100가호 이상이 살고 있는 광주·전남의 성씨 _ 33

| 제3장 | 함평군의 성씨 / 37

제1절 개요 _ 37	2. 시조가 미확인된 성씨 _ 108
제2절 함평군의 본관별 30대 성씨(姓氏) _ 54	1) 함평곽씨(咸平郭氏)
제3절 함평을 본관으로 쓰고 있는 성씨 _ 55	2) 함평김씨(咸平金氏)
1. 시조가 확인된 성씨 _ 57	3) 함평노씨(咸平盧氏)
1) 함평노씨(咸平魯氏)	4) 함평문씨(咸平文氏)
2) 함평모씨(咸平牟氏)	5) 함평박씨(咸平朴氏)
3) 함평오씨(咸平吳氏)	6) 함평서씨(咸平徐氏)
4) 함평이씨(咸平李氏)	7) 함평신씨(咸平申氏)
5) 함평정씨(咸平鄭氏)	8) 함평류씨(咸平柳氏)
6) 함평임씨(咸平任氏)	9) 함평윤씨(咸平尹氏)
	10) 함평장씨(咸平張氏)



| 제3장 | 함평군의 성씨 / 31

- 11) 함평전씨(咸平全氏)
- 12) 함평정씨(咸平程氏)
- 13) 함평조씨(咸平曹氏)
- 14) 함평조씨(咸平趙氏)
- 15) 함평최씨(咸平崔氏)
- 16) 함평함씨(咸平咸氏)

제4절 객반(客班)성씨 본관별 함평군 정착사

- 128

1. 강씨(姜氏) _ 128
진주강씨(晋州姜氏)
2. 고씨(高氏) _ 130
1) 장흥고씨(長興高氏)
2) 제주고씨(濟州高氏)
3. 공씨(孔氏) _ 132
곡부공씨(曲阜孔氏)
4. 곽씨(郭氏) _ 133
현풍곽씨(玄風郭氏)
5. 구씨(具氏) _ 134
1) 능성구씨(綾城具氏)
2) 창원구씨(昌原具氏)
6. 국씨(鞠氏) _ 135
담양국씨(潭陽鞠氏)
7. 권씨(權氏) _ 136
안동권씨(安東權氏)
8. 기씨(奇氏) _ 137
행주기씨(幸州奇氏)
9. 김씨(金氏) _ 139

- 1) 강릉김씨(江陵金氏)
- 2) 경주김씨(慶州金氏)
- 3) 고성김씨(固城金氏)
- 4) 광산김씨(光山金氏)
- 5) 금녕김씨(金寧金氏)
- 6) 김해김씨(金海金氏, 수로계)
- 7) 김해김씨(金海金氏, 우록김씨)
- 8) 나주김씨(羅州金氏)
- 9) 낙안김씨(樂安金氏)
- 10) 도강김씨(道康金氏)
- 11) 부안김씨(扶安金氏)
- 12) 상산김씨(商山金氏)
- 13) 선산김씨(善山金氏)
- 14) 안동김씨(安東金氏)
- 15) 언양김씨(彦陽金氏)
- 16) 연안김씨(延安金氏)
- 17) 영광김씨(靈光金氏)
- 18) 영산김씨(永山金氏)
- 19) 울산김씨(蔚山金氏)
- 20) 원주김씨(原州金氏)
- 21) 진주김씨(晋州金氏)
- 22) 청도김씨(淸道金氏)
- 23) 청풍김씨(淸風金氏)
- 24) 해남김씨(海南金氏, 당악김씨)
10. 나씨(羅氏) _ 170
1) 금성나씨(錦城羅氏))
2) 나주나씨(羅州羅氏)
11. 남씨(南氏) _ 173
의령남씨(宜寧南氏)



| 제3장 | 함평군의 성씨 / 31

12. 노씨(盧氏) _ 174
 - 1) 광주노씨(光州盧氏)
 - 2) 풍천노씨(豐川盧氏)
13. 마씨(馬氏) _ 177
 - 장흥마씨(長興馬氏)
14. 문씨(文氏) _ 178
 - 남평문씨(南平文氏)
15. 민씨(閔氏) _ 180
 - 여흥민씨(驪興閔氏)
16. 박씨(朴氏) _ 181
 - 1) 무안박씨(務安朴氏)
 - 2) 밀성박씨(密城朴氏)
 - 3) 밀양박씨(密陽朴氏)
 - 4) 반남박씨(潘南朴氏)
 - 5) 순천박씨(順天朴氏)
 - 6) 진원박씨(珍原朴氏)
 - 7) 충주박씨(忠州朴氏)
 - 8) 함양박씨(咸陽朴氏)
17. 방씨(房氏) _ 190
 - 남양방씨(南陽房氏)
18. 배씨(裴氏) _ 191
 - 1) 경주배씨(慶州裴氏)
 - 2) 달성배씨(達城裴氏)
 - 3) 성주배씨(星州裴氏)
19. 백씨(白氏) _ 194
 - 수원백씨(水原白氏)
20. 서씨(徐氏) _ 195
 - 1) 달성서씨(達城徐氏)
 - 2) 이천서씨(利川徐氏)
21. 선씨(宣氏) _ 198
 - 보성선씨(寶城宣氏)
22. 성씨(成氏) _ 199
 - 창녕성씨(昌寧成氏)
23. 손씨(孫氏) _ 200
 - 1) 경주손씨(慶州孫氏)
 - 2) 밀양손씨(密陽孫氏)
24. 송씨(宋氏) _ 202
 - 1) 김해송씨(金海宋氏)
 - 2) 남양송씨(南陽宋氏)
 - 3) 신평송씨(新平宋氏)
 - 4) 여산송씨(礪山宋氏)
 - 5) 은진송씨(恩津宋氏)
 - 6) 홍주송씨(洪州宋氏)
25. 신씨(辛氏) _ 206
 - 1) 영산신씨(靈山辛氏)
 - 2) 영월신씨(寧越辛氏)
26. 신씨(申氏) _ 208
 - 1) 고령신씨(高靈申氏)
 - 2) 평산신씨(平山申氏)
27. 신씨(愼氏) _ 210
 - 거창신씨(居昌愼氏)
28. 심씨(沈氏) _ 211
 - 1) 청송심씨(靑松沈氏)
 - 2) 풍산심씨(豐山沈氏)
29. 안씨(安氏) _ 213
 - 1) 광주안씨(廣州安氏)
 - 2) 순흥안씨(順興安氏)
 - 3) 신 죽산안씨(新 竹山安氏)
30. 양씨(梁氏) _ 217
 - 1) 남원양씨(南原梁氏)
 - 2) 제주양씨(濟州梁氏)
31. 어씨(魚氏) _ 220
 - 함종어씨(咸從漁氏)



| 제3장 | 함평군의 성씨 / 31

32. 여씨(呂氏) _ 221
함양여씨(咸陽呂氏)
33. 염씨(廉氏) _ 222
파주염씨(坡州廉氏)
34. 오씨(吳氏) _ 223
 - 1) 나주오씨(羅州吳氏)
 - 2) 낙안오씨(樂安吳氏)
 - 3) 동복오씨(同福吳氏)
 - 4) 보성오씨(寶城吳氏)
 - 5) 해주오씨(海州吳氏)
 - 6) 화순오씨(和順吳氏)
35. 옥씨(玉氏) _ 227
의령옥씨(宜寧玉氏)
36. 우씨(禹氏) _ 227
단양우씨(丹陽禹氏)
37. 류씨(柳氏) _ 228
고흥류씨(高興柳氏)
38. 유씨(兪氏) _ 230
 - 1) 기계유씨(杞溪兪氏)
 - 2) 무안유씨(務安兪氏)
39. 류씨(劉氏) _ 232
 - 1) 강릉류씨(江陵劉氏)
 - 2) 거창류씨(居昌劉氏)
40. 윤씨(尹氏) _ 233
 - 1) 남원윤씨(南原尹氏)
 - 2) 파평윤씨(坡平尹氏)
 - 3) 해남윤씨(海南尹氏)
41. 이씨(李氏) _ 245
 - 1) 경주이씨(慶州李氏)
 - 2) 고부이씨(古阜李氏)
 - 3) 고성이씨(固城李氏)
 - 4) 공주이씨(公州李氏)
 - 5) 광산이씨(光山李氏)
 - 6) 광주이씨(廣州李氏)
 - 7) 성주이씨(星州李氏)
 - 8) 양성이씨(陽城李氏)
 - 9) 연안이씨(延安李氏)
 - 10) 원주이씨(原州李氏)
 - 11) 전의이씨(全義李氏)
 - 12) 전주리씨(全州李氏)
 - 13) 한산이씨(韓山李氏)
42. 임씨(林氏) _ 260
 - 1) 나주임씨(羅州林氏)
 - 2) 선산임씨(善山林氏)
 - 3) 예천임씨(醴泉林氏)
 - 4) 장흥임씨(長興林氏)
 - 5) 평택임씨(平澤林氏)
43. 임씨(任氏) _ 265
 - 1) 장흥임씨(長興任氏)
 - 2) 풍천임씨(豐川任氏)
44. 장씨(張氏) _ 268
 - 1) 안동장씨(安東張氏)
 - 2) 인동장씨(仁同張氏)
 - 3) 흥성장씨(興城張氏)
45. 전씨(全氏) _ 275
 - 1) 나주전씨(羅州全氏)
 - 2) 천안전씨(天安全氏)
46. 전씨(田氏) _ 278
담양전씨(潭陽田氏)
47. 정씨(鄭氏) _ 279
 - 1) 경주정씨(慶州鄭氏)
 - 2) 고성정씨(固城鄭氏)
 - 3) 광주정씨(光州鄭氏)
 - 4) 나주정씨(羅州鄭氏)
 - 5) 동래정씨(東萊鄭氏)



함평군사 제4권 차례

| 제3장 | 함평군의 성씨 / 31

- 6) 연일정씨(延日鄭氏)
- 7) 온양정씨(溫陽鄭氏)
- 8) 진주정씨(晉州鄭氏)
- 9) 초계정씨(草溪鄭氏)
- 10) 하동정씨(河東鄭氏)
- 11) 해주정씨(海州鄭氏)
48. 정씨(丁氏) _ 296
압해정씨(押海丁氏)
49. 정씨(程氏) _ 298
하남정씨(河南程氏)
50. 조씨(趙氏) _ 298
 - 1) 김제조씨(金堤趙氏)
 - 2) 밀양조씨(密陽趙氏)
 - 3) 옥천조씨(玉川趙氏)
 - 4) 풍양조씨(豐陽趙氏)
 - 5) 한양조씨(漢陽趙氏)
51. 조씨(曹氏) _ 303
창녕조씨(昌寧曹氏)
52. 주씨(朱氏) _ 304
신안주씨(新安朱氏)
53. 주씨(周氏) _ 305
상주주씨(尙州周氏)
54. 지씨(池氏) _ 306
충주지씨(忠州池氏)
55. 진씨(陳氏) _ 308
여양진씨(驪陽陳氏)
56. 차씨(車氏) _ 310
연안차씨(延安車氏)
57. 채씨(蔡氏) _ 311
평강채씨(平康蔡氏)
58. 천씨(千氏) _ 312
영양천씨(潁陽千氏)
59. 최씨(崔氏) _ 313
 - 1) 간성최씨(杆城崔氏)
 - 2) 경주최씨(慶州崔氏)
 - 3) 낭주최씨(郎州崔氏)
 - 4) 수성최씨(隨城崔氏)
 - 5) 수원최씨(水原崔氏)
 - 6) 전주최씨(全州崔氏)
 - 7) 탐진최씨(耽津崔氏)
 - 8) 해주최씨(海州崔氏)
 - 9) 화순최씨(和順崔氏)
60. 편씨(片氏) _ 322
절강편씨(浙江片氏)
61. 한씨(韓氏) _ 323
청주한씨(淸州韓氏)
62. 함씨(咸氏) _ 324
강릉함씨(江陵咸氏)
63. 허씨(許氏) _ 325
 - 1) 김해허씨(金海許氏)
 - 2) 양천허씨(陽川許氏)
64. 홍씨(洪氏) _ 327
 - 1) 남양홍씨(南陽洪氏)
 - 2) 풍산홍씨(豐山洪氏)
65. 황씨(黃氏) _ 329
 - 1) 상주황씨(尙州黃氏)
 - 2) 장수황씨(長水黃氏)
 - 3) 창원황씨(昌原黃氏)



제13편 인물(人物)

| 제1장 | 고대인물(古代人物) / 336

◆ 강귀지(姜貴知) _ 336	◆ 안국상(安國相) _ 381
◆ 나 각(羅 珪) _ 353	◆ 장 강(張 綱) _ 438
◆ 모 경(牟 慶) _ 363	◆ 차계생(車繼生) _ 483
◆ 박계손(朴繼孫) _ 370	◆ 편대순(片大順) _ 486
◆ 서 간(徐 諫) _ 375	◆ 한홍석(韓弘錫) _ 486

| 제2장 | 현대인물(現代人物) / 487

◆ 강경호(姜京昊) _ 487	◆ 안강순(安鋼淳) _ 578
◆ 나간채(羅看采) _ 530	◆ 장건식(張健植) _ 647
◆ 동래정씨(東萊鄭氏) _ 549	◆ 차영주(車榮柱) _ 693
◆ 모강인(牟康仁) _ 549	◆ 탐진최씨(耽津崔氏) _ 698
◆ 박경학(朴京學) _ 553	◆ 파평윤씨(坡平尹氏) _ 699
◆ 서강석(徐康碩) _ 564	◆ 한갑웅(韓甲雄) _ 699

| 제3장 | 효·열(孝·烈) / 702

1. 효행(孝行) _ 707	2. 열행(烈行) _ 754
1) 효자(孝子)	
2) 효부(孝婦)	

부 록 / 776

1. 연표(年表) _ 778	3. 함평군사편찬위원회 _ 834
2. 관직해설 _ 811	4. 편찬일지 _ 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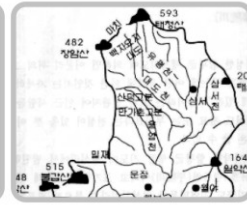
C o n t e n t s

제1장	우리나라의 성씨	10
	집필 / 신영호	
제2장	광주·전남의 성씨	22
	집필 / 신영호	
제3장	함평군의 성씨	37
	집필 / 신영호	



제12편 함평군의 씨족 정착사

제1장 우리나라 성씨(姓氏)



제1절 우리나라 성씨의 유래와 보급

성(姓)은 혈족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것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인류사회가 시작되는 원시시대부터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원시사회가 혈연을 기초로 해 모여 사는 집단체로 조직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를 낳은 모(母)만 확실히 알고 부(父)는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인류 사회는 혈연에서 출발하고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했기 때문에 원시 시대부터 씨족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했다. 자기 조상을 숭배하고 동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씨족의 명예를 위하여 노력했다. 그리고 각 씨족은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각기 명칭이 있었을 것이며, 그 명칭은 문자를 사용한 뒤에 성으로 표현되었다.

동양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자를 발명한 중국이었으며,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명인 산명(山名), 강명(江名)으로 성을 삼았다.

신농씨(神農氏)의 어머니가 강수(姜水)에 있었으므로 성을 강씨(姜氏)라 하고, 황제의 어머니가 회수(姬水)에 살았으므로 성을 회씨(姬氏)라 하였으며, 순(舜)임금의 어머니가 요허(姚虛)에 있었으므로 성을 요씨(姚氏)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성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 문화를 수입한 뒤에 사용한 것임은 틀림없다.

우리나라에 성씨가 최초로 발생한 것은 삼국시대로 보인다.

먼저 고구려를 살펴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건국 시조 주몽(朱蒙)은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기에 고(高)씨라고 하였으며, 주몽은 충신들에게 사성(賜姓)했는데, 재사(再思)에게 극(克)씨, 무골(武骨)에게 중실(仲室)씨, 묵거(默居)에게 소실(小室)씨를 하사했다고 전해온다.

또 유리왕이 사성하였다는 위(位), 우(羽)씨, 또 대무신왕이 사성하였다는 낙(絡), 부정(負鼎), 대실(大室)씨 등이 나온다. 또 제 3대 대무신왕 때의 을두지(乙豆支), 송옥구(松屋句)를 비롯하여 이후 재상급만도 목도루(穆度婁), 고복장(高福章), 명림답부(明臨答夫), 을파소(乙巴素), 고우루(高優婁), 명림어수(明臨於漱), 음우, 창조리, 을지문덕, 연개소문 등의 이름이 있고, 왕비나

왕모의 성으로 예(禮), 송(松), 우(于), 연(椽), 주(周)씨 등이 나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씨 중에서 고구려에 연원을 두는 성씨는 극히 드물다. 고(高)씨는 고주몽의 후손이 강원도 횡성 지방에 약간 산재한다고 전해지고, 그 외의 고씨는 모두 탐라, 즉 제주 고씨계이다. 오직 강(姜)씨가 고구려의 장군이였다는 강이식(姜以式)을 시조로 하고 있다.

백제는 왕실의 성을 처음엔 우씨(宇)에서 여(余)라 했다가 뒤에 여씨(餘氏) 또는 부여씨(夫餘氏, 扶餘氏)로 썼다. 이는 시조인 온조왕(溫祚王)이 고대 국가인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한다.

백제 초기에 왕권은 이른바 8대 성의 귀족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았다. 그 8대 성이란 사(沙), 연(燕), 이, 해(解), 진(眞), 국(國), 목(木), 백 백제8족을 말한다. 이외에 백제에는 '혈(屹)'씨가 있었고, 목리만치, 조미결취, 제증결루, 고이만년, 흑치상지 등의 이름이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여러 역사서, 특히 후한서, 삼국지, 진서 등에는 백제의 왕명을 쓸 때 모두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기록하다가 13대 근초고왕부터 27대 위덕왕까를 말여(餘)씨로, 29대 무왕부터 부여(扶餘)씨로 기록하고 있다.

현재에 남아있는 백제 계통의 성씨로는 온조(溫祚)를 따라 남하하여 백제 건국에 공을 세우고 십제공신(十濟功臣)이 되었다는 전섭(全聶)과 마여(馬黎)가 있다. 또 개루왕 때의 인물인 도미(都彌)를 선계로 하는 성주 도씨(星州都氏)가 있으며, 백제가 망하자 당나라로 망명하여 당 고종으로부터 서(徐)씨로 사성(賜姓)받고 웅진도독이 되어 귀국했다는 부여융(夫餘隆)을 시조로 하는 부여 서씨(夫餘徐氏)가 있다.

한편 이 외에 백제 8대 성과 같은 성으로 진씨, 연씨, 국씨가 현재도 있기는 하나 그 연원이 분명치 않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은 아무래도 통일국가인 신라에서 연원한 것이 많다. 신라 계통의 대표적인 성은 박(朴), 석(昔), 김(金) 3성과 이(李), 최(崔), 손(孫), 정(鄭), 배(裴), 설(薛)의 6촌성이다. 그러나 3성과 6촌성이 처음부터 이러한 한자식의 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후대에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중국식 성을 사용하게 되면서 각각 계보를 소급하여 붙인 것이라고 한다.

그 예로 네 곳의 진흥왕의 순수비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수행자 명단을 보면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성이 없으며, 대신에 그 사람의 출신부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진지왕 때 세워진 대구의 무술오작비(戊戌塲作碑)나 진평왕 때 세워진 경주의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으로 신라에서 7세기 초까지만 해도 아직 성씨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 왕실에서는 24대 진흥왕 무렵부터 김씨라는 성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양서(梁書)》의 <신라전(新羅傳)>에는 "신라왕 모태(募泰)가 처음 사신을 보내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태란 23대 법흥왕을 가리킨다. 그러다가 《북제서(北齊書)》에 진흥왕을 김진흥(金眞興), 진평왕을 김진평(金眞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밖의 6촌성들은 이보다 훨씬 뒤인 중기에야 비로소 등장하며,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이



르려서야 많은 새 성의 등장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삼국 시대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추정해 보면

고구려는 장수왕시대(413~490)부터, 고(高), 을(乙), 예(芮), 송(松), 목(穆), 간, 주(舟), 마(馬), 손(孫), 동(董), 채, 연(淵), 명림(明臨), 을지(乙支) 등이 사용되었으며, 백제는 근초고왕시대(346~375)부터, 여, 사, 연, 협, 해, 진, 국, 목, 의 팔족과 왕, 장, 사마, 수미, 고이, 흑치 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진흥왕시대(540~576)부터 성을 쓴 것으로 기록에서 추정한다.

박, 석, 김 3성과 이, 최, 정, 손, 배, 설의 육부의 6성과 장, 비 등이 있고, 왕실의 성인 고(高), 여(餘), 김(金)을 쓴 사람이 가장 많았다. 삼국시대에도 성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 주로 중국에 왕래한 사신들과 유학자와 장보고와 같이 무역을 한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였으며, 일반 민중은 신라 말기까지 성을 쓰지 않았다.

성씨의 이러한 변천과정을 지켜볼 때 우리나라의 성씨는 고려시대부터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말기 후삼국의 대동란을 당하여 평민으로서 각지에서 일어난 상주의 원종(元宗) 애노(哀奴), 죽주(竹州), 죽산의 기명(箕莫), 복원(原州)의 량길(梁吉)-良吉, 태봉왕 궁예의 부장인 홍언(弘彦) 명귀(明貴), 후백제왕 견명(甄莫)의 부장인 관흔(官昕) 상귀(相貴) 상달(尙達) 웅환(熊煥), 고려 태조 의 부장인 홍술(弘述), 백옥(白玉), 삼웅산(三熊山), 복사귀(卜沙貴) 등은 모두 성을 쓰지 않았다.

이 중에 고려 태조의 부장인 홍술, 백옥, 삼웅산, 복사귀는 고려 태조를 추대한 개국공신 홍유(洪儒), 배현경(裴玄慶), 신승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의 초명으로서 그들이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으로 개명한 것은 고려 건국 후 그들이 귀의하게 된 뒤의 일이며, 아마 태조로부터 사성되었을 것이다.

고려 태조는 사성한 예가 많이 있다.

지금의 강릉지방을 관장하고 있던 명주장군 순식(順式)이 귀순하자 태조는 왕(王)씨의 성을 주고, 발해 태자(渤海太子) 대광현(大光顯)이 귀순하자 또한 왕(王)씨의 성을 주고 있다.

신라인 김신(金辛)이 태조를 보필하여 공이 많음에 권씨(權氏)의 성을 주어 안동권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또 《동국흥지승람(東國興地勝覽)》에 의하면 고려 태조가 개국한 뒤 목천(木川) 사람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므로 태조는 이를 미워하여 우(午), 마(馬), 상(象), 돈(豚), 장(獐), 과 같은 짐승의 뜻을 가진 성(姓)을 주었는데, 뒤에 우(午)는 우(于), 상(象)은 상(尙), 돈(豚)은 돈(頓), 장(獐)은 장(張)으로 고쳤다는 설이 있다.

이는 어찌 됐든 고려 초기부터 성을 쓰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 귀족, 관료 계급은 성을 쓰지 아니한 사람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려 중기 문종(文宗) 9년(1055)에 성을 붙이지 아니한 사람은 과거에 급제할 자격을 주지 아니하는 법령을 내린 것을 보면, 문종시대까지도 성을 쓰지 않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종 9년의 이 법령은 실로 우리나라 성의 한 시기를 긋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성이 보편화 되었으나, 노비 등 천인 계급에 이르러서는 조선 초기까지도 성을 쓰지 않았다.

조선초기 성은 양민에게 까지도 보편화 되었으나 노비와 천민계급 등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09년 새로운 호적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성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를 기회로 성이 없던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담당 한 동(洞)서기나 경찰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 주기도 하고, 머슴의 경우 자기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문집안의 성씨를 모방하여 성을 정했다.

따라서 성씨의 종류와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됐다.

1930년 국세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성씨는 많아 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성의 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있다.

1486년(성종)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277성

영조대에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성

1908년(고종)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496성

1930년 국세조사에서는 250성

1960년 국세조사에는 258성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74성

200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86개의 성씨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일제식민 통치하에서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의 일환으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한 1939년의 창씨개명은 1945년 해방과 1946년 10월 23 일 미군정이 공포한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에 따라 우리나라 성씨 역사의 가장 큰 수난기였다.

이후에도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귀화 등으로 새로운 성씨와 본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제2절 우리나라 성씨의 관련 기록

성씨를 연구하는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단종 2년 (1454)에 간행한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며, 다음이 중종 25년(1530) 간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고, 그 다음이 권문해(權文海, 1415~1482)가 쓴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郡玉)의 성씨조를 모본으로 삼아 편찬했다는 증보문헌고(增補文獻考, 1782)다.

본관별 성씨를 연구하는데 이들 기록은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기록이다.

이들 기록 외에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이 쓴 도곡총설(陶谷叢說),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쓴 앙엽기(盎葉記), 정조 때 사람 박경가(朴慶家)가 쓴 동성고(東姓考), 조중운(趙仲耘)이 쓴 씨족원류(氏族源流), 정시술(鄭時述)에 쓴 제성보(諸姓譜, 동국만성보-東國萬姓譜), 현종 때 간행된 청구씨보(靑丘氏譜), 철종조에 간행한 노상직(盧相稷)이 쓴 동국씨족고(東



國氏族攷), 한말의 잠영보(簪纓譜)와 전고대방(典故大方), 이만운(李萬運)이 쓴 보정동국은헌비고(補訂東國文獻備考)~1924년에 윤창현(尹昌鉉)이 펴낸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1931년에 동아인쇄소에서 간행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등이 있다.

제3절 우리나라 성씨별 인구 조사

시대의 변천에 따라 성씨의 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265성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 영조 때 도곡 이의현(李宜顯)이 지은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성, 조선 정조 때 아정 이덕무(雅亭李德懋)가 쓴 "양엽기(盎葉記)"에는 486성, 영조 46년에 편찬된 정조 6년에 증보를 시작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조선초에 무려 4,296성이 있었던 것이 임진, 병자란을 겪은 후에는 289성으로 줄어들었으며 다시 496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성씨에 대해 조사한 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한국의 성씨 조사 내역

조사년월일	성씨수	특 징	참 고
1930. 10. 01	250	성씨 및 본관을 처음으로 조사	
1960. 12. 01	258	전인구의 성씨를 한자로 기입. 현지 조회 불충분. 한글 만 기입한성씨 한자로 미확인. 인구수 및 가구수 집계	미확인 11개 성씨 포함
1969.		함평군 자체 본관별 성씨 조사	
1975. 10. 01	249	가구주의 성씨만 한자로 기입. 가구수만 집계	
1985. 11. 01	275	전인구의 성씨와 본관 조사. 성씨는 한자로, 본관은 한글로 기입. 현지 확인 보완. 인구수와 가구수 집계	
2000. 11. 01	286	"	

위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근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성씨 및 본관별 인구를 조사한 것은 1930년 일제 강점기였으며 250개 성씨가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60년 조사에서 258개 성씨로 1930년 조사 때 보다 8개 성씨가 늘어났으나 여기에는 미확인 11개 성씨가 포함되었었다.

1975년 조사에서 처음에 932개 성씨가 조사되었으나 확인 결과 684개 성씨가 동음이자(同音異字) 표기여서 실제상 성씨는 249개 성씨로 1960년 조사에 비해 9개 성씨가 줄었었다.

1960년 조사와 1975년 조사와 비교하여 1960년에 조사된 성씨 중 석(碩), 염(鹽), 형(刑)의 3개 성씨가 없어지고 1960년에 미확인되었던 사(舍), 순(淳)씨가 현존하는 성으로 확인되었으며 1975년 조사에서 송(松), 영(影)씨가 새로이 조사되었다.

1985년 조사에서는 1975년 조사에 비해 26개 성씨가 늘어 275개 성씨, 본관별로는 3,349개 본관이 조사되었다.

1985년 조사에서 새로 조사된 성씨는 양(襄), 묘(苗), 어금(魚金), 교(橋), 부(傅), 단(端), 담(譚), 영(榮), 재(齋), 난(灤), 강절(綱切), 영(影), 후(候), 십(辻), 호(鎬), 환(桓), 두(頭), 강전(岡田), 누(樓), 장곡(長谷), 저(邸), 소봉(小奉), 초(初), 춘(椿), 흥(興)이며, 이 중 강전, 뇌, 누, 장곡, 저, 소봉, 초, 춘, 흥 9개 성씨는 인구 1명만의 성씨여서 본인이 바로 시조인 것이다.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00년에 이루어 졌다.

당시 조사로 2000년 11월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286개 성씨(귀화인 제외), 4,179개 본관으로 85년 이후 신규 성씨는 없으며, 신규본관은 15개로 나타났다.

2000년 조사시 신규 발견된 830개 본관 중 85년 이후에 나타난 신규 본관은 15개이며, 815개 본관은 85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이 나타난 15개 본관은 한양 강씨(漢陽 姜氏), 장지 김씨(장지 金氏), 태백(太白 金氏), 덕산 박씨(덕산 朴氏), 하화 박씨(하화 朴氏), 웅천 방씨(웅천 方氏), 제천 백씨(堤川 白氏), 한발 서씨(한발 徐氏), 태안 석씨(泰安 石氏), 홍주 석씨(홍주 昔氏), 대전 여씨(大田 呂氏), 익산 염씨(益山 廉氏), 달성 임씨(達城 林氏), 달성 범씨(達城 苑氏), 강화 증씨(江華 曾氏) 등이다.

2000년 조사에서 새로이 발견된 11개 성씨는 京(경), 氷(빙), 杉(삼), 肖(소), 葉(엽), 乂(예), 宇(우), 苑(원), 辻(즙), 增(증), 曾(증) 등으로 이들 성씨는 이미 85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2000년 조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 상위 5대 성씨가 차지하는 비율은 54.0%로 절반 이상을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대 성씨가 차지하는 비율은 64.1%로 85년(64.5%)에 비해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286개 성씨 중 상위 20대 성씨의 인구비율은 78.2%이며, 100대 성씨(99.1%)가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별 성씨별로 보면 김씨가 9,925,949명(21.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씨 6,794,637명(14.8%),朴씨 3,895,121명(8.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상위 10대 성씨의 순위는 85년 순위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위 20대 성씨의 순위는 85년에 비해 吳씨(13위→11위), 安씨(18위→17위)의 순위는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韓씨(11위→12위), 申씨(12위→13위), 宋씨(17위→18위)는 낮아졌다.(표2 참조)



<표 2> 한국의 5대(大) 성씨

2000. 11.1 통계청 자료에 의함

성 씨	가 호 수	비 율(%)	인 구 수	비 율(%)
전 국 합 계	14,326,224		45,985,289	
5대 성씨 합계	7,734,500	53.98	24,795,528	53.92
김(金)	3,102,537	21.65	9,925,949	21.58
이(李)	2,113,007	14.74	6,794,637	14.77
박(朴)	1,215,918	8.48	3,895,121	8.47
최(崔)	676,773	4.72	2,169,704	4.71
정(鄭)	626,265	4.37	2,010,117	4.37

인구 100명 이하의 희성은 42개 성씨다. (4절 우리나라 성씨별 분포 순위 참조)

제4절 우리나라 성씨별 분포 순위

2000년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0명 이상인 성씨가 244개 성씨고, 인구 100명 이하인 성씨가 42개 성씨이다. 1985년 11월 1일 경제기획원 통계조사국 조사 당시 우리나라의 성씨가 275개 성씨로 조사되었던 반면 2000년 조사에는 286개 성씨로 조사되고 있어 약 11개 성씨가 추가 조사되었다.

또한 1985년에는 인구 100명 이하의 성씨가 52개 성씨로 조사되었던 반면 2000년 조사에는 42개 성씨가 조사되었다. 다음은 우리나라 성씨별 인구수 순위이다.

<표 3> 한국의 성씨별 인구수 순위

순위	성씨	가구	인구	순위	성씨	가구	인구
	전국	14,326,224	45,985,289	145	좌(左)	1,008	3,130
1	김(金)	3,102,537	9,925,949	146	노(路)	973	3,048
2	이(李)	2,113,007	6,794,637	147	반(班)	919	2,955
3	박(朴)	1,215,918	3,895,121	148	팽(彭)	918	2,825
4	최(崔)	676,773	2,169,704	149	승(承)	762	2,494
5	정(鄭)	626,265	2,010,117	150	공(公)	741	2,442
6	강(姜)	325,288	1,044,386	151	간(簡)	753	2,429
7	조(趙)	306,022	984,913	152	상(尙)	702	2,298
8	윤(尹)	294,708	948,600	153	기(箕)	684	2,294
9	장(張)	287,195	919,339	154	국(國)	669	2,182
10	임(林)	237,145	762,767	155	시(施)	675	2,121
11	오(吳)	219,548	706,908	156	서문(西門)	554	1,861
12	한(韓)	218,821	704,365	157	위(韋)	600	1,821
13	신(申)	217,591	698,171	158	도(陶)	536	1,809
14	서(徐)	215,412	693,954	159	시(柴)	563	1,807
15	권(權)	204,013	652,495	160	이(異)	531	1,703

순위	성씨	가구	인구
16	황(黃)	201,121	644,294
17	안(安)	197,668	637,786
18	송(宋)	196,641	634,345
19	유(柳)	186,610	603,084
20	홍(洪)	161,403	518,635
21	전(全)	153,208	493,419
22	고(高)	135,488	435,839
23	문(文)	132,811	426,927
24	손(孫)	129,780	415,182
25	양(梁)	120,534	389,152
26	배(裨)	115,900	372,064
27	조(曹)	113,326	362,817
28	백(白)	109,677	351,275
29	허(許)	93,490	300,448
30	남(南)	80,239	257,178
31	심(沈)	78,229	252,255
32	유(劉)	75,192	242,889
33	노(盧)	68,776	220,354
34	하(河)	65,965	209,756
35	전(田)	58,895	188,354
36	정(丁)	58,431	187,975
37	곽(郭)	58,396	187,322
38	성(成)	57,248	184,555
39	차(車)	56,106	180,589
40	유(兪)	54,953	178,209
41	구(具)	55,540	178,167
42	우(禹)	55,256	176,682
43	주(朱)	55,180	176,232
44	임(任)	53,637	172,726
45	나(羅)	53,828	172,022
46	신(辛)	52,427	167,621
47	민(閔)	48,935	159,054
48	진(陳)	44,457	142,496
49	지(池)	43,696	140,824
50	엄(嚴)	41,520	132,990
51	원(元)	36,712	119,356
52	채(蔡)	35,099	114,069
53	강(康)	34,697	109,925
54	천(千)	32,229	103,811
55	양(楊)	29,558	93,416
56	공(孔)	25,969	83,164
57	현(玄)	25,457	81,807
58	방(方)	25,472	81,710
59	변(卞)	24,539	78,685
60	함(咸)	23,588	75,955
61	노(魯)	20,829	67,032
62	엄(廉)	19,807	63,951
63	여(呂)	17,498	56,692
64	추(秋)	17,142	54,667
65	변(邊)	16,236	52,869
66	도(都)	16,235	52,349

순위	성씨	가구	인구
161	호(胡)	522	1,668
162	채(采)	564	1,666
163	강(强)	531	1,620
164	진(眞)	444	1,579
165	빈(彬)	484	1,548
166	방(邦)	481	1,547
167	단(段)	437	1,429
168	서(西)	395	1,295
169	견(甄)	340	1,141
170	원(袁)	343	1,104
171	방(龐)	314	1,080
172	창(昌)	328	1,035
173	당(唐)	302	1,025
174	순(荀)	308	1,017
175	마(麻)	300	998
176	화(化)	286	945
177	구(邱)	282	894
178	모(毛)	272	879
179	이(伊)	274	860
180	양(襄)	263	823
181	종(鍾)	263	816
182	승(昇)	239	810
183	성(星)	265	808
184	독고(獨孤)	257	807
185	옹(邕)	227	772
186	빙(冰)	222	726
187	장(莊)	221	648
188	추(鄒)	209	642
189	편(扁)	204	633
190	아(阿)	198	632
191	도(道)	181	621
192	평(平)	189	608
193	대(大)	194	606
194	풍(馮)	175	586
195	궁(弓)	183	562
196	강(剛)	169	546
197	연(連)	163	532
198	견(堅)	153	519
199	점(占)	163	516
200	흥(興)	141	462
201	섭(葉)	154	450
202	국(菊)	123	405
203	내(乃)	114	377
204	제(齊)	106	373
205	여(汝)	119	358
206	낭(浪)	113	341
207	봉(鳳)	101	327
208	해(海)	102	322
209	판(判)	87	290
210	초(楚)	74	281
211	필(弼)	72	251



순위	성씨	가구	인구
67	석(石)	14,282	46,066
68	신(愼)	14,232	45,764
69	소(蘇)	12,270	39,552
70	선(宣)	12,094	38,849
71	주(周)	12,018	38,778
72	설(薛)	11,931	38,766
73	방(房)	11,033	35,366
74	마(馬)	11,076	35,096
75	정(程)	10,220	32,519
76	길(吉)	10,340	32,418
77	위(魏)	8,908	28,675
78	연(延)	8,521	28,447
79	표(表)	8,896	28,398
80	명(明)	8,304	26,746
81	기(奇)	7,541	24,385
82	금(琴)	7,184	23,489
83	왕(王)	7,239	23,447
84	반(潘)	7,224	23,216
85	옥(玉)	7,288	22,964
86	육(陸)	6,666	21,545
87	진(秦)	6,636	21,167
88	인(印)	6,389	20,635
89	맹(孟)	6,230	20,219
90	계(諸)	6,140	19,595
91	탁(卓)	6,023	19,395
92	모(牟)	5,838	18,955
93	남궁(南宮)	5,675	18,743
94	여(余)	5,741	18,146
95	장(蔣)	5,557	17,708
96	어(魚)	5,476	17,551
97	유(庾)	5,292	16,802
98	국(鞠)	5,182	16,697
99	은(殷)	4,892	15,657
100	편(片)	4,655	14,675
101	용(龍)	4,320	14,067
102	강(彊)	4,375	13,228
103	구(邱)	4,137	13,241
104	예(芮)	3,968	12,655
105	봉(奉)	3,528	11,492
106	한(漢)	3,696	11,191
107	경(慶)	3,464	11,145
108	소(邵)	3,096	9,904
109	사(史)	3,047	9,756
110	석(昔)	2,907	9,544
111	부(夫)	2,984	9,470
112	황보(皇甫)	2,887	9,148
113	가(賈)	2,824	9,090
114	복(卜)	2,663	8,644
115	천(天)	2,668	8,416
116	목(睦)	2,493	8,191
117	태(太)	2,546	8,165

순위	성씨	가구	인구
212	궤(鵄)	74	248
213	근(斤)	69	242
214	사(舍)	72	227
215	매(梅)	72	222
216	동방(東方)	70	220
217	호(鎬)	56	210
218	두(頭)	70	208
219	미(米)	64	199
220	요(姚)	63	198
221	옹(雍)	57	192
222	야(夜)	62	180
223	묵(墨)	65	179
224	자(慈)	48	178
225	만(萬)	50	172
226	운(雲)	49	169
227	범(凡)	40	157
228	환(桓)	59	157
229	곡(曲)	42	155
230	탄(彈)	47	155
231	종(宗)	43	146
232	창(倉)	48	144
233	사(謝)	43	135
234	영(永)	40	132
235	포(包)	43	129
236	엽(葉)	40	127
237	수(水)	30	124
238	애(艾)	37	123
239	단(單)	40	122
240	부(傅)	35	122
241	순(淳)	40	121
242	순(舜)	40	120
243	돈(頓)	38	115
244	학(郝)	31	101
245	비(丕)	25	90
246	개(介)	29	86
247	영(榮)	26	86
248	후(候)	27	83
249	십(십)	28	82
250	난(欒)	23	80
251	뇌(雷)	26	80
252	춘(椿)	30	77
253	수(洙)	24	75
254	준(俊)	20	72
255	초(肖)	23	70
256	운(芸)	23	68
257	내(奈)	17	63
258	묘(苗)	17	61
259	담(譚)	18	57
260	장곡(長谷)	17	52
261	강전(岡田)	12	51
262	어금(魚金)	21	51

순위	성씨	가구	인구
118	지(智)	2,100	6,748
119	형(邢)	2,078	6,640
120	피(皮)	1,968	6,303
121	계(桂)	1,958	6,282
122	전(錢)	1,883	6,094
123	감(甘)	1,910	5,998
124	음(陰)	1,802	5,936
125	두(杜)	1,755	5,750
126	진(晉)	1,824	5,738
127	동(董)	1,731	5,564
128	장(章)	1,753	5,562
129	온(溫)	1,548	5,081
130	송(松)	1,493	4,737
131	경(景)	1,454	4,639
132	제갈(諸葛)	1,354	4,444
133	사공(司空)	1,360	4,307
134	호(扈)	1,322	4,228
135	하(夏)	1,251	4,052
136	빈(賓)	1,142	3,704
137	선우(鮮于)	1,103	3,560
138	연(燕)	1,065	3,549
139	채(菜)	1,067	3,516
140	우(于)	1,057	3,359
141	범(范)	1,010	3,316
142	설(僎)	1,037	3,298
143	양(樑)	960	3,254
144	갈(葛)	956	3,178

순위	성씨	가구	인구
263	삼(森)	13	49
264	저(邸)	14	48
265	군(君)	22	46
266	초(初)	16	45
267	교(橋)	15	41
268	영(影)	15	41
269	순(順)	9	38
270	단(端)	9	34
271	후(后)	10	31
272	누(樓)	7	24
273	돈(敦)	3	21
274	소봉(小峰)	4	18
275	너(賴)	2	12
276	망절(網切)	1	10
277	원(苑)	2	5
278	즙(辻)	2	4
279	증(增)	1	3
280	증(曾)	2	3
281	삼(杉)	1	2
282	경(京)	0	1
283	빙(氷)	1	1
284	소(肖)	0	1
285	예(父)	0	1
286	우(宇)	1	1
	기타.	96	1,054
	미상.	1,156	7,900

제5절 본 관(本貫)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씨가 점차 늘어나면서 같은 성씨라 하더라도 계통이 달라 그 근본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자 동족여부(同族與否)를 가리기 위해 생긴 것이 본관이다.

본관(本貫)이란 보통 시조의 출신지를 말하며 본(本) 관향(貫鄉) 관(貫) 또는 선향(先鄉)이라고도 하는데 원래의 관은 돈을 말하는 것이다. 돈을 한주에 꿰어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친족이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 본적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姓)의 종류가 적어 성을 가지고 동족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상의 출신지에 성을 붙여서 동족임을 표시했다. 성씨와 본관제도는 계급적 우월성과 신분을 나타냈으므로 왕실, 귀족, 일반지배계급, 양민, 천민의 순으로 정착되었다.

시조(始祖)나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 혹은 정착세거지(定着世居地)를 근거로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봉군(封君 : 고려 때 종 1품, 조선 때 2품 이상의 공로자에게 주는 작위) 칭호를 따라 정하는 경우, 그리고 성씨와 같이 임금이 공신(功臣)이나 귀화인(歸化人)들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관(賜貫)이라고 한다.

고려초에 확립된 한국의 성씨와 본관제도는 당나라 때의 제도를 따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 초부터 조선시대까지는 백정이나 노예를 제외하고 양·천민 구별 없이 모두 본관을 가지고 있었다.

15세기 초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성씨조항에 기록된 성의 수는 약 250여 개, 본관 수는 1500여 개가 되었다. 그리고 성이 없었던 백정과 노비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본관이 생겼는데, 그것은 신라 이후 군현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 와서 군현제도의 개편작업과 함께 공신들에게 각각 토성을 나누어주어 마치 본관이 국가에 의해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본관은 그 바탕이 된 구역에 따라 격차가 있었고, 신분·지역에 따라 본관이 갖는 의미도 서로 달랐다. 국가세금을 부담하는 양민들은 그 거주 지역을 본관으로 해서 편호(編戶)되었는데, 고려·조선시대에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본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도 현재나 마찬가지로 인민을 파악하는 데는 항상 혈연적·지연적인 방법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본관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을 지역별·계층별로 호구를 파악하여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또 징세·조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것은 일정한 지역에 주민을 묶어둠으로써 백성의 이동을 방지하고 직역의 부과는 물론 관리를 임용하거나 군인을 뽑는 데도 활용했다. 이러한 성과 본관제도는 고려 후기 이래 사회적 변동에 따라 지역적인 편제와 신분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변혁을 가져왔다. 즉 임내(任內)의 승격·이속(移屬), 향·소·부곡의 승격·소멸, 군현 구획의 개편·폐합 등으로 인해 15세기말부터 종래 세분화되었던 본관이 점차 주읍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갔다. 이후 15세기까지 전에 있었던 본관이 상당수 없어지고 일반 민중들 가운데 일부가 현거주지에서 다시 편호됨으로써 새로운 본관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성과 본관의 우열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지금도 남아 있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욱 심했다. 이러한 등급의 차이는 씨족들을 결속시키고 나아가 그들이 가진 지위를 유지하는데 큰 몫을 했다.

본관과 성씨의 관계

1. 동족동본의 동성(同族同本同姓)

성과 본관이 같은 경우를 말하며, 근친혼(近親婚)의 불합리성과 윤리적 가치관 때문에 혼인을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점차 해소(解消) 시킬 방침이다.

2. 이족동본의 동성(異族同本同姓)

이는 성(姓)과 본(本)이 같지만, 그 근원은 전혀 달라 사실상 혈통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양홍씨(南陽洪氏)는 당홍(唐洪: 당나라로부터 온 홍은열(洪慰悅)을 시조로 함)과 토홍(土洪: 홍선행(洪先幸)을 시조로 함)으로 구분되어, 전혀 공통점이 없이 계통(系統)을 달리하고 있다.

3. 동족이본의 동성(同族異本同姓)

시조도 다르고 본도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강릉김씨(江陵金氏)와 광주김씨(光州金氏)는 시조와 본이 다르지만 같은 김알지(金閼智)계통이며, 고부최씨(古阜崔氏)와 경주최씨(慶州崔氏)도 마찬가지로 시조와 본을 달리하지만 같은 최치원(崔致遠)계통이다.

4. 이족이본의 동성(異族異本同姓)

대성(大姓)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한 예로 김해김씨(金海金氏)와 경주김씨(慶州金氏)등과 같이 같은 성을 쓰면서도 조상이 달라 아무런 계통관계가 없는 것이다.

5. 동족의 동본이성(同族同本異姓)

조상과 본을 같이 하면서도 성씨만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예로 김해김씨(金海金氏)와 김해허씨(金海許氏)의 경우인데, 같은 김수로왕(金首露王)의 후손으로서 성만 달리하므로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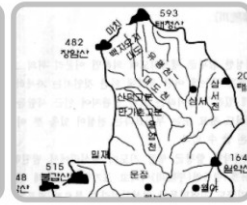
6. 이족의 동본이성(異族同本異姓)

이런 경우는 허다하다. 예를 들어 경주이씨(慶州李氏)와 경주김씨(慶州金氏), 경주손씨(慶州孫氏), 그리고 안동장씨(安東張氏)와 안동권씨(安東權氏), 안동김씨(安東金氏) 등의 경우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같은 본(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족(同族)마을이 있었다. 이들은 문벌(門閥)을 소중히 여기고 자치적으로 상호 협동하여 집안일을 해결해 나가는 특이한 사회조직의 한 형태를 이룬다.

수많은 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파를 지양하고 한 민족의 핏줄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족동본의식으로 오천년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다.

제2장 광주·전남의 성씨



제1절 광주·전남의 토박이 성(姓)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된 광주·전남의 토박이 성을 시·군 별로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으며, 토박이 성씨별로 토박이 지역을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고, 광주·전남지역을 본관을 으로 하는 현존 성씨는 <표 6>과 같다.

위의 두기록에 등재된 성시는 고려조와 조선조 초기에 지역을 움직였던 토반세력이며, 이들 토반세력의 성씨는 본관별 성씨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다.

<표 4> 시, 군별 토박이 성

* 속성(續姓)은 조선조 건국 후 입주한 성씨며, 망성(亡姓)은 조선조 건국 후 없어진 성시고, 내성(來姓)은 조선조 건국 이전에 옮겨온 성씨다.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현 행정 구역
나주목 羅州牧	나주 : 김(金), 나(羅), 오(吳), 정(鄭), 진(陣) 손(孫), 남(南), 박(朴), 유(柳) 영산(榮山)현·속성(續姓) 윤(尹) 압해(押海)현·박, 주(朱), 정(丁), 강(江), 남(南) 반남(潘南)현·홍(洪), 조(曹), 박, 채(蔡), 손(孫) 회진(會津)현·양(梁), 임(林), 신(申), 조(曹) 안로(安老)현·김, 서(徐), 차(車), 전(全) 복룡(伏龍)현·조(曹), 박, 구(仇), 유(庾) 화(化) 속성·범(汎-范) 여황(餘皇)현·조(趙), 조(曹), 화(化), 주(朱) 속성·전(全, 향리) 장산(長山)현·남, 김, 채(蔡) 종남(從南, 從義)향·박, 홍(洪) 거평(居平)부곡·사마(司馬), 유(柳), 임(任) 극포(極浦)부곡·윤 임성(任城)부곡·유(兪) 망성·윤 고군산(古群山)부곡·유 망성·윤 금마(金磨)부곡·망성·하(河) 손리(孫利)향·망성·오(吳)	본주 : 지리지와 동일 영산 : 윤, 황(黃) 박, 주(朱, 周라고 한곳도 있음) 정, 강, 남, 고(固) 홍, 조, 박, 채, 송(宋), 주(朱) 양, 임, 신, 조, 서(徐) 지리지와 동일 " 내성(來姓) : 범(汎) 지리지와 동일 김(金): 전(全)이라 한데도 있다. 남, 김, 채, 임(任), 장(張) 지리지와 동일 " " 박, 유 유, 윤 하 오 수다소(水多所) : 방(邦), 유(兪), 이	나주시 " 신안군 나주시 " " 광산구 " 나주시 영암군 나주시 무안군 " " 영암군 광산구 나주시
남평현 南平縣	남평현 : 조(曹), 오(吳), 유(兪), 황(黃), 정(丁) 문(文) 철야(鐵冶)현·반(潘), 노(盧), 서(徐), 양(楊)	문, 황, 조, 정, 오, 유, 김(金) 반, 노, 서, 양, 하(河), 김, 방(方) 도민(道民)부곡 : 하(何)	나주시 나주·화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현 행정 구역
해남현 海南縣	해남 : 정(鄭), 윤(尹), 차(車), 김(金), 전(全), 갈(葛) 속성(續姓)·승(承) 황원현 영암군 향을 볼 것 옥천현 : 영암군 향을 볼 것	지리지와 동일 속성에 대한 기록은 없음 황원(黃原)현 : 황(黃), 윤, 종(宗) 또는 송(宋), 갈(葛) 죽산(竹山)현 : 윤, 박, 송, 전(全), 문(門) 유천(紐川)소 : 전(全) 사라(紗羅)향 : 조(曹), 송, 윤, 오, 조(趙) 구량산(仇良山)소 : 최(崔), 백(白) 진산(珍山)향 : 최, 김 팔마(八馬)부곡 : 문(文), 김 옥천(玉泉)현 : 김, 윤, 신(愼), 안, 박	해남군 " " ? 해남군 ? 해남군 " "
진도군 珍島郡	진도 : 임(任), 김(金), 이(李), 한(韓) 망성(亡姓), 정(鄭) 가흥(嘉興)현·조(曹), 여(呂), 평(平), 유(兪), 정(丁) 속성·김(金, 향리) 임회(臨淮)현·배(裴), 박(朴) 의신향(義新鄕)·속성 나(羅), 임(任)	임, 김, 이, 한, 정(鄭) 지리지와 동일 " 임, 김, 이, 나	진도군
영암군 靈岩郡	영암 : 최(崔), 박(朴), 주(周), 백(白), 혜(穉), 육(陸) 곤미(昆眉)현·허(許), 유(庾), 배(裴), 전(田), 종(鍾) 황원(黃原)현·황(黃), 윤, 송(宋, 종-宗이라 된 곳도 있다), 갈(葛) 옥천(玉泉)현·전(全, 김-金이라 된 곳도 있다) 윤, 신(愼), 안, 박 북평(北平)현·조(曹) 송지(松旨)향·김, 전(全) 회의(懷義)부곡·전(全, 김-金이라 된 곳도 있다) 심정(深井)부곡·전(金-金이라 된 곳도 있다) 진남(鎭南)향·혜(穉) 망성 오(吳)	지리지와 같음 허, 유, 배, 전, 종, 유(柳) *해남현을 볼 것 *해남현을 볼 것 지리지와 같음 " " " " 혜, 오, 육(陸)	영암군 "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 영암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靈光郡	영광 : 김, 전(田), 조(曹), 송(宋), 윤(尹), 정(丁) 속성 박(진원-珍原에서 옴), 이(이, 홍주-洪州에서 향리로 왔다) 삼계(森溪)현·주(周), 최, 손, 성(成), 공(公), 전(田) 육창(六昌)현·조(曹), 안, 갈(葛), 정(丁), 빈(賓) 임치(臨淄)현·이, 김, 황, 박 진양(陳良)부곡·송(宋) 홍농(弘農)부곡·망성 정(丁), 김, 유(兪) 공야(貢牙)부곡·망성 진(陳)	김, 전, 조, 송, 윤, 정, 국(鞠) 이, 서(徐), 신(申), 박<모두 내성 來姓이다> 조, 최, 손, 성, 공, 전, 김, 이(李) <모두 내성이다> 유(柳), 조, 갈, 정, 빈, 안 김, 황, 박, 양(楊), 이 윤, 송, 박 정(丁), 김, 유(兪) 임(任), 옥(玉) 조지(造紙)부곡 : 이, 서 망운(望雲)향 : 노(盧), 김, 이 대안(大安)부곡 : 송(宋)	영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영광군 " " " 무안군 영광군
강진현 康津縣 도강현 道康縣	도강현 : 김, 조(趙), 황, 임(任) 망성 : 표(表) : 배(裴)로 된 곳도 있다. 탐진(耽津)현·최, 조(曹), 유(兪), 안, 정(鄭), 하(河) 내성(來姓)·강(康, 해주에서 옴), 박(朴, 영암 에서 옴) 평덕(平德)향·망성 박 수운(水雲)부곡·망성 조(曹), 오(吳) 영가(永可)부고·망성 신(申) 대곡(大谷)소·속성(續姓) 조(曹) 대구(大口)소·속성 서(徐) 칠량(七良)소·속성 백(白)	김, 조, 황, 임, 표(表), 박(朴), 현(玄) 지리지와 같음 안(安), 박 조, 오, 최(崔) 신, 김(金) 조 서 백	강진군 " " " " " "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현 행정 구역
함평현 咸平縣	함풍(咸豐)현:임(任).노(魯),이(李),문(文),공(孔),정(鄭) 속성·강(姜.금변에 행리로 왔는데 어디서 온지는 모름)	지리지와 같음	함평군
	모평(모평)현 : 오(吳),정(鄭),모(牟) 망성·갈(葛. 일부는 창-倡, 일부는 창-昌으로 바꿈) 속성·김(金. 향리-鄉吏)	오,정,갈,모,김(속성)	함평군
	해제(海際)현·노(盧),이(李),반(潘),양(楊),신(辛) 영풍(永豐)향·유(兪),이(李),박(朴),정(鄭) 망성 정(丁)	노,이,반,양,신,임(任),최(崔) 내성·유,정(程),이,박,정(鄭)	무안군 함평군
	다경(多慶)부곡·망성 유(兪),윤(尹)	유,윤	무안군
무안현 務安縣	무안:정(丁),박(朴),유(兪),조(曹),윤(尹) 수다(水多)소·유(兪),이(李), 망성·방(邦)	지리지와 같음 나주목을 볼 것	무안군 나주시
장성현 長城縣	장성 : 이(李),서(徐),유(兪),공(孔),노(魯)	지리지와 같음	장성군
진원현 珍原縣	진원:오(吳),박(朴). 망성·문(文) 속성·이(李. 보령-保寧), 김(金.장흥-長興) 김(金. 향리로 왔는데 온 곳은 모름) 마량(馬良)부곡·신(申)	박,오,안(安),문,이(보령) 김(장흥) 속성:정(鄭) 지리지와 같음	" "
구례현 求禮縣	구례:장(張),도(陶),손(孫),전(全. 일부는 진-진으로 바꿈),임(任) 내성(來姓)·양(梁) 속성·박(朴. 온 곳 모름),황(黃. 義昌-의창에서 향리로 옴) 사등촌(沙等村)부곡·임(任). 속성·정(鄭.향리) 남전(南田)소·망성 임(林) 방광(放光)소·망성 유(劉)	장,도,손,전,임,진 속성:박,황(의창),서(徐) 내성:양 지리지와 같음 임 유	구례군
곡성현 谷城縣	곡성:임(任),신(申),여(呂),오(吳) 망성·박(朴) 속성·이(李. 향리) 율곡(栗谷)부곡·하(河)	신,임,여,오,박 이(속성) 지리지와 같음	곡성군
옥과현 玉果縣	옥과:김,조(趙),송(宋),문(文),황(黃) 속성·박(朴. 밀양에서 향리로 옴) 흥복(興福)향·망성 문 금산(金山)부곡·망성 문,황	김,조,송,황,문,전(全) 박(密陽) 문 문,황	곡성군
광양현 光陽縣	광양:김,서(徐),전(田),정(鄭),이(李),유(柳) 강(康),신(辛),박,황보(黃浦) 골약(骨若)소·차(車),김 아마대(阿麻代)부곡·김 망성·차(일부 최-崔로 바꿈) 본정(本井)향·차, 최	지리지와 같음 차,김(속성) 김,차,최 지리지와 같음	광양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현 행정 구역
장흥 長興 도호부 都護府	장흥:조(曹),오(吳),혜(嵯),임(任),정(丁) 내성·이(李, 덕은-德恩),송(송.능주-綾州), 최(崔, 탐진-耽津) 망성·최(화순에서 오) 회령(會寧)현·마(馬),형(邢),이(李),주(周),성(成) 내성·백(白, 직산-稷山) 장택(長澤)현·임(林),고(高),윤(尹),오(吳) 내성·선(宣, 보성-寶城) 수령(遂寧)현·위(魏),박,조(曹),함(咸) 두원(豆原)현·오,허(許),유(庾),신(申),종(鍾) 내성·노(盧, 서경-西京),박(朴,보성-寶城) 이(李, 남양-南陽)	조,오,혜,임,정 속성:이(덕은),송(염주-鹽州) 최(탐진,화순),고,박,송(乘) 마,형,이(李, 계-季라고도 썼다) 주,성,백(직산) 지리지와 같음 지리지와 같음 기록없음 안양(安壤)향 : 박,백 어산(語山)향 : 임(任) 유치(有恥)향 : 표(表) 정화(丁火)향 : 신(申)	장흥군 보성군 장흥군 " 고흥군 장흥군 " " "
담양 潭陽 도호부 都護府	담양:이(李),전(田),전(全),국(鞠) 원율(原栗)현·박,이,문(文),배(裴),오(吳) 정석(貞石)부곡·망성 현(玄),신(辛),속성 김	이,전(田),전(全),국,박,현 김: 모두 외지에서 왔다. 지리지와 같음 김	담양군
창평현 昌平縣	창평 안(安),조(曹),신(辛),정(丁),김(金),탁(卓) 서울에서 온 성·이(李),함(咸),정(鄭) 속성·문(文, 개성에서 향리로 왔다) 장평(長平)부곡·신(辛),현(玄),김(金),원(元) 망성·박(朴) 갑향(甲鄕)현·진(陳),승(昇)	안,조,신,정,김,탁 내성:전(全),성(成),이, 함, 정 신,김,유(柳, 박-朴이라고도 함) 현,원 지리지와 같음	담양군
순천 順天 도호부 都護府	순천:장(張),박,김,강(康) 망성·도(陶) 내성·임(林, 풍산) 속성·이(李, 향리) 여수(麗水)현·박,신(辛),백(白) 망성·도 내성·김 부유(富有)현·현(玄),김,심(沈),이 내성·박,고(高) 속성·임(林, 향리) 돌산(突山)현·정(鄭),윤,정(丁),석(石),노(盧) 삼일포(三日浦)향·박,전(田) 내성·강(康,경주-慶州), 이(이,광주-光州)	장,전(全),강,도,박,김,신(辛) 임(林),황,임(任) 차(車):속성 내성:임(林) 김,박,신(辛),임(任),백,도,김: 모두 내성이다 *기록이 없음 지리지와 같음 " 지리지와 같음	순천시 여수시 순천시 여수시 "
순천 順川 도호부 都護府	정방(正方)향·김 속성·박(朴, 향리) 두잉지(豆仍只)소·박,신(辛) 가음(嘉音)부곡·임(任),여(呂) 내성·박(朴, 승주-昇州) 이촌(梨村)부곡·망성 백(白),임(林) 죽정(竹靑)부곡·도(陶) 율촌(栗村)부곡·김,강(康),박,탁(卓) 진례(進禮)부곡·전(田),박,신(申), 망성·김 적량(赤良)부곡·박,신(辛) 소라포(召羅浦)부곡·박,백 망성·전(田),신(辛) 하이사(下伊沙)소·임(林) 별량(別良)부곡·박,도,황	전(全),박,김 지리지와 같음 조(曹),백,박,신(辛) 이평(梨坪):가음과 같다 지리지와 같음 김,강,박,차(車) 김,전,박,신 현(玄),정(鄭),박,신 조(曹),박,신,전,백 지리지와 같음 " 두평(豆坪)소:임(任),여(呂) 송림(松林)부곡:백,임(林)	순천시 ? 순천시 " " 여수시 " " " 순천시 " 여수시 ?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현 행정 구역
낙안군 樂安郡	낙안:박,오(吳),영(寧),이,김 속성·임(任) 가용(加用)소·속성 이(李, 향리) 품어(品魚)소·오(吳, 향리) 군지(軍知)부곡·백(白, 향리)	지리지와 같음 속성 : 김, 이 지리지와 같음 "	순천시 보성군 순천시 보성군
무진군 茂珍郡 광산현 光山縣	무진:탁(卓),이,김,채(蔡),노(盧),장(張),정(鄭) 박(朴),진(陳),허(許),반(潘),성(成),승(承) 촌성(村姓)·유(庾) 속성·김(金,개성-開成),정(鄭,금산-錦山) 신(辛,고흥-高興),최(崔,강진-康津) 모두 향리(鄉吏) 양고(良瓜)부곡·김 경지(慶旨)부곡·김 벽진도(碧津渡)·망성 김	지리지와 같다. 지리지와 같음 " 김	광주시
보성군 寶城郡	보성:박(朴),오(吳),강(康),선(宣),화(和) 속성·지(智,제천-堤川에서 왔고 향리다) 복성(福城)현·문(文),노(盧),임(林),혁(革) 망성·도(陶) 남양(南陽)현·송(宋),이(李),변(邊),김(金) 태강(泰江)·조(曹),한(韓),정(鄭),정(丁),임(任) 도화(道化)소·오,신(申) 풍안(豐安)소·오,신(申)	지리지와 같음 문,노,임, 국(鞠, 혹은 도-陶 또는 혁-革이라 한다) * 홍양현조에 있음 " " "	보성군 " 고흥군 보성,고흥 고흥군 "
보성군 寶城郡	사어(沙於)향·신(申), 망성·유(庾,일부는 오-吳로 남고 유는 없어지다) 야촌(也村)부곡·표(表) 저천(紆川)부곡·변(邊) 고다산(古多山)부곡·손(孫)	오,신 지리지와 같음 * 홍양현조 서천을 볼 것 * 홍양현조를 볼 것 조양(兆陽)현:소(蘇),유(庾) 임(林),전(全) 미력(彌力)소:이(李)	보성군 " 고흥군 " 보성군 "
고흥현 高興縣 홍양현 興陽縣	고흥:신(申),유(柳) 속성·한(韓,향리) 조양(兆陽)현·송(宋)의 보성군 조양현조와 같음 충곡(蔥谷)부곡·망성 오(吳)	홍양현:유,신,한 *보성현조에 있음 전(全) 도화(道化)현:오,신 풍안(豐安)현:도와와 같음 남양(南陽)현:송,이,변,김 도양(道陽)현:신(申) 태강(泰江)현:조,한,정(鄭) 정(丁),임 두원(荳原)현:오,허,유(庾) 신(申),종(鍾),노(盧,서경-西京) 박(寶城),이(南陽),정(丁) : 내성이다. 서천(紆川)부곡:변 가을평(加乙平)향:신(申) 고다산(古多山)부곡:손(孫)	고흥군 보성군 고흥군 " " " " 고흥,보성 고흥군 " " "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현 행정 구역
화순현 和順縣	화순현:배(裴),최(崔),오(吳),윤(尹),하(河) 속성·박(朴.순천),김(金.진주).김(金.무진. 향리)	지리지와 같음	화순군
능성현 綾城縣	능성현:구(具),정(鄭),문(文),조(曹),채(蔡),주(朱) 속성·강(姜.진주),김(金. 온 곳 모름. 향리)	지리지와 같음	"
동북현 同福縣	동북현:오(吳),성(成),박(朴),선(宣),화(和)	오,성,박,선,화,지(池) 속성 : 김	"

<표 5> 광주·전남의 토박이 성과 토박이 지역

*"전남본관성씨연구. 김정호 지음. 1996.1.25. 향토문화진흥원 발행" 에서 옮긴
가·나·다 순 ()안은 고을의 속현, 향, 소, 부곡과 성씨의 입향 내역임

성	지 역
갈(葛)	영광(육창현), 해남(황원현), 함평(모평현)
강(康)	순천시(삼일향-현 여수시. 경주강씨), 여수(율촌부곡),보성, 탐진(현 강진군. 내성), 광양
강(姜)	함평(속성), 능성(현 화순군 속성)
강(江)	압해현(현 신안군 망성)
고(高)	순천(부유현 내성) 장흥(속성), 장택(현 장흥군)
공(公)	영광(삼계현-김포공씨. 현 장성군)
공(孔)	함평, 장성
구(具)	능성(현 화순군)
구(仇)	나주(북령현. 창원구씨)
국(鞠)	담양, 영광(속성), 보성(북성현. 망성)
김(金)	순천(부유현-현 순천시, 여수현-현 여수시, 진례부곡-현 여수시, 율촌부곡-현 여수시, 정방향-현 순천시), 무진(양고, 벽진, 경지부곡), 영암(송지향, 심정부곡, 양의 부곡), 나주(안노현, 장산현), 남평(속성, 철야현-현 나주시와 화순군 일부-속성), 담양(정석부곡 속성), 장평(장평부곡), 옥과, 영광(삼계현 속성, 임치진, 망운향, 홍농부곡), 함평(모평현), 진원(속성), 능성(내성), 화순(속성), 동북(속성), 진도(가흥현 속성, 의신향), 해남(진산향, 팔마부곡, 옥천현), 강진(영가부곡), 광양(암마대부곡, 골약소), 고흥(남양현)
나(羅)	나주, 진도(의신향)
남(南)	나주(장산현, 압해향-현 신안군)
노(魯)	함평(함풍현), 장성
노(盧)	무진, 순천(돌산현-현 여수시), 남평(철야현-현 나주시, 화순군), 영광(망운향-현 무안군), 함평(혜제현-현 무안군), 보성(북성현), 고흥(두원현)
도(陶)	순천(망성), 순천(여수현 망성. 현 여수시), 구례, 순천(별량, 죽청부곡 속성)
마(馬)	장흥(회령현)



성	지 역
모(牟)	합평(모평현)
문(門)	해남(죽산현 망성)
문(文)	담양(원율현), 곡성(옥과현), 합평(합평현), 장성(진원,망성), 보성(복성현), 화순(능성현), 해남(팔마부곡)
배(裴)	화순, 진도(임회현), 담양(원율현), 영암(곤미현)
백(白)	순천(여수현, 소라포부곡-현 여수시, 송림부곡, 이평부곡), 낙안(군지부곡. 현 순천시), 장흥(회령현, 안양현), 강진(칠양소,속성), 해남(구량산소)
박(朴)	순천(부유현-속성, 여수현, 삼일항-현 여수시, 진례부곡-현 여수시, 별량부곡, 적량부곡-현 여수시, 울촌부곡-현 여수시, 소라부곡-현 여수시, 두이지소, 정방항-속성, 가음부곡-내성), 광산, 낙안-현 순천시, 영암, 나주(중의항-현 영암군, 반남현, 복령현, 압해현-현 신안군, 임성부곡-현 무안군), 담양(원율현, 창평현의 장평부곡), 곡성(곡성현 망성, 옥과현), 영광(영광-속성, 임치진-현 무안, 신안군, 진량부곡), 합평(영풍향), 장성(진원현), 보성, 화순(화순-속성, 동북), 진도(임회현), 해남(죽산현, 옥천현), 무안, 장흥(장흥-속성, 회령현, 안양현), 강진(도강현, 탐진현-내성, 평덕항-내성), 광양, 구례(속성), 고흥(두원현)
반(潘)	광산, 나주(철야현-현 나주시봉황면과 화순군 일부), 합평(해제현-현 무안군)
방(方)	나주(철야현)
방(邦)	무안(수다소-현 나주시 다시면)
범(范)	나주(복룡현-현 광산구)
변(邊)	고흥(남양현, 서천부곡)
빈(貧)	영광(육창현)
사마(司馬)	나주(거평부곡)
서(徐)	나주(회진현, 안로현, 철양현), 영광(조지부곡), 장성, 강진(대구소-속성), 광양, 구례
서(西)	영광(속성)
석(石)	순천(돌산현-현 여수시)
선(宣)	보성, 화순(동북현-현 화순군), 장흥(장택현-속성)
성(成)	광산, 담양(창평-속성), 영광(삼계현- 현 장성군), 장흥(회령현)
소(蘇)	고흥(조양현-현 보성군)
손(孫)	나주, 영광(삼계현-현 장성군), 고흥(고다산부곡)
송(宋)	나주(반남현, 곡성(옥과현), 영광(진양부곡, 대안부곡), 장흥(내성), 고흥(남양현), 해남(황원현, 죽산현, 사라향)
승(承)	광산, 해남(속성)
승(昇)	담양(창평현의 감향현)
승(乘)	장흥(속성)
신(辛)	순천(순천, 여수현-현 여수시, 적량부곡-현 여수시, 소라향 망성-현 여수시, 두잉소, 가음부곡), 담양(정우부곡-망성, 창평현의 장평부곡), 광양, 합평(해제현-현 무안군)
신(申)	순천(진례부곡-현 여수시), 광산(속성), 나주(회진현), 곡성, 영광(속성), 고흥(홍양현, 도화현, 도양현, 두원현, 가을평향, 풍안향), 장흥(정화소), 보성(사어향)
신(愼)	해남(옥천현)
심(沈)	순천(부유현)

성	지 역
안(安)	강진(탐진현, 평덕향)
양(梁)	나주(회진현), 구례
양(楊)	나주(철야현-현 나주시 봉황면, 화순군), 영광(임치현-현 무안군 신안군), 함평(해제현-현 무안군)
여(呂)	순천(하이사, 가음부곡, 두평소-현 여수시)
영(零)	낙안(현 순천시)
오(吳)	낙안, 낙안(품어소-현 순천시), 보성, 화순(동북현), 영암(진남향), 나주(손리향-현 광산구, 남평현), 담양(월율현), 곡성, 함평(모평현), 장성(진원현), 장흥, 고흥(도화현), 보성(어사향), 해남(사라향), 장흥(장택현), 강진(수운부곡)
옥(玉)	영광(공아부곡)
원(元)	담양(창평현의 장평부곡)
위(魏)	장흥(수령현)
유(柳)	영암(곤미현), 나주(거평부곡), 담양(창평현의 장평부곡), 영광(육창현), 광야, 고흥(홍향현)
유(兪)	장성, 무안, 강진(탐진현), 나주(군산부곡-현 무안군, 남평현), 무안(수다소-현 나주시 다시면), 영광(홍농부곡-망성), 함평(영풍향, 다경부고 망성-현 무안군), 진도(가흥현)
유(劉)	구례(방광소-망성)
유(庾)	무진(광산촌), 영암(곤미현), 나주(북룡현-현 광산구), 고흥(조양현-현 보성군, 두원현), 보성(사어향)
육(陸)	영암(영암, 진남향)
윤(尹)	순천(돌산현-현 여수시), 나주(영산현-속성, 군산부곡 망성-현 무안군, 극포부곡-현 무안군), 영광(영광군, 진양부곡), 함평(다경부곡-현 무안군), 화순, 해남(황원현, 죽산현, 사라향, 옥천현), 무안, 장흥(장택현)
이(李)	순천(부유현, 삼일포향-현 여수시), 광산, 낙안(가용소-현 보성군), 무안(수다소-현 나주시), 담양(원율현, 창평현-속성), 곡성(속성), 영광(영광군-내성, 삼계현 속성-현 장성군, 임치현-현 무안군·신안군, 조지부곡, 망운향-현 무안군), 함평(해제현-현 무안군, 영풍향), 장성(장성현, 진원현), 화순, 진도(의신향), 보성(미력소), 장흥(회령현), 광양, 고흥(두원현)
임(任)	순천(순천부, 하이사, 두평소-현 여수시, 가음부곡), 낙안(속성-현 순천시), 영광(공아부곡), 나주(장산현-속성), 함평(함평현, 해제현-현 무안군), 진도(의신향), 장흥(어산향), 강진(도강현), 구례(사등초부곡-속성), 고흥(태강현-현 고흥, 보성군)
임(林)	순천(순천부-내성, 부유현, 여수현-현 여수시, 하이사, 이평부곡-망성), 나주(회진현, 거평부곡, 곡성, 장흥(장택현))
장(張)	순천, 광산, 나주(장산현), 구례
전(全)	순천(정방향), 영암(송지향-현 해남군), 나주(안로현, 여황현-현 광산구), 담양(담양부, 창평현), 곡성(옥과현), 고흥(저양현-현 보성군), 해남(죽산현, 옥천현), 구례, 고흥(총곡부곡)
전(田)	순천(삼일포향-현 여수시, 진례부곡-현 여수시), 영암(곤미현), 담양, 영광(영광군, 삼계현-현 장성군), 광양
정(鄭)	순천(돌산현-현 여수시, 적량부곡-현 여수시), 광산, 나주, 담양(창평현), 함평(모평현, 영풍향), 장성(진원현-속성), 화순(능성현), 진도(망성), 해남, 강진(탐진현), 광양, 고흥(태강현-현 고흥, 보성군), 구례(사등초부곡-속성)
정(丁)	순천(동산현-현 여수시), 나주(압해현-현 신안군, 남평현), 담양(창평현), 영광(영광군, 육창현, 홍농부곡-망성), 함평(영풍향-망성), 진도(가흥현-망성), 무안, 장흥, 고흥(태강현-현 고흥, 보성군, 두원현-내성)
정(程)	광산(속성), 함평(영풍향)
조(曹)	순천(소라포부고-여수시, 가음부곡), 영암(북평향-현 해남군), 나주(회진현, 반남현, 북룡현-현 광산구, 여황현-현 광산구, 남평현), 무안, 담양(창평현), 영광(육창현), 화순(능성현), 장흥(수령현), 강진(탐진현의 대구소-속성, 수운부곡), 고흥(태강현), 진도(가흥현), 해남(사라향-속성)



성	지 역
조(趙)	나주(여황현-현 광산구), 곡성(옥과현), 강진(도강현), 해남(사라향)
중(鍾)	영암(곤미현), 고흥(두원현)
주(周)	영광(삼계현-현 장성군), 장흥(회령현), 영암
주(朱)	나주(반남현-속성, 여황현-현 광산구, 압해현-현 신안군), 화순(능성현)
지(池)	화순(동북현-속성)
지(智)	보성(속성)
진(陳)	광산, 나주, 담양(창평현의 갑향현), 영광(공아부곡-망성), 구례
차(車)	순천(율촌부곡-현 여수시), 나주(안로현), 해남, 광양(아마대부곡, 본정향, 골약소)
채(蔡)	광산, 영암(곤미현), 강진(도강현), 고흥(두원현)
최(崔)	광산(속성), 영암, 영광(삼계-현 장성군), 함평(해제현 내성-현 무안군), 화순, 해남(구양산소, 진산소), 장흥(내성), 강진(탐진현의 수운부곡), 광양(아마대부곡-망성), 광야(본정향)
탁(卓)	광산, 담양(창평현)
평(平)	진도
표(表)	보성(아촌부곡)
하(河)	나주(금마부곡-현 영암군, 남평현의 철야현-속성, 도민부곡), 곡성(율곡부곡), 화순, 강진(탐진현)
한(韓)	진도, 고흥(태강현)
함(咸)	담양(창평현), 장흥(수령현)
허(許)	광산, 영암(곤미현), 강진(도강현), 고흥(두원현)
현(玄)	순천(부유현, 적량부곡-현 여수시), 담양(담양부-속성, 정석부곡-망성, 창평현의 장평부곡), 강진(도강현)
형(邢)	장흥(회령현)
혜(淮)	영암(진남향), 장흥
화(化)	나주(복룡현-현 광산구, 여황현-현 광산구)
화(和)	보성, 화순(동북현)
홍(洪)	나주(종의향, 반남현)
황(黃)	구례(속성), 순천(별량부곡), 나주(영산현, 남평현-속성), 곡성(옥과현, 옥과현의 금산부곡), 영광(임치현-현 무안, 신안군), 해남(황원현), 강진(도강현)
황보(黃甫)	광양

<표 6> 광주·전남 고을을 본관으로 하는 현존 성씨

현재 시·군 이름의 가·나·다 순 배열

시군명	성씨(姓氏)	시조 이름	생존 연대	1985. 11. 1 조사 통계			
				전 국		전 남	
				가호수	인구수	가호수	인구수
광 주	광산김(金)씨	흥광(興光)	신무왕의아들	174,192	750,701	35,687	163,998
	" 승(承)씨	개(愷)	고려 정종조	140	648	37	185
	" 이(李)씨	종금(宗金)	궁예의6세손	7,112	31,118	2,954	13,111
	" 탁(卓)씨	지엽(之葉)	고려 선종조	3,672	15,196	292	1,325
	광주노(盧)씨	1세조:만(蔓)	고려 후기	8,201	34,281	2,246	9,601
	" 반(潘)씨	?		1,311	5,415	63	289
	" 정(鄭)씨	신호(臣扈)	충선, 충숙왕조	4,391	23,418	887	3,925
강진군	강진이(李)씨	완(完)	신라남해왕조	1,488	6,998	141	824
	동강김(金)씨	희조(希祖)	1124년 출생	5,208	21,981	1,118	4,751
	탐진안(安)씨	원린(元隣)	고려말기	2,399	10,023	426	2,076
	" 유(兪)씨	보(寶)	공민왕조	3,540	15,805	290	1,576
	" 최(崔)씨	사전(思全)	이자겸란평정	14,906	61,541	4,985	21,916
고흥군	고흥유(柳)씨	영(英)	고려 충렬왕조	15,296	64,465	3,150	13,292
	조양임(林)씨	세미(世味)	고려말	5,456	23,668	820	3,621
	홍양오(吳)씨	광휘(光輝)	현필의 아들	416	1,730	9	26
	" 이(李)씨	언림(彦林)	고려 의종조	3,450	13,829	783	3,192
광양시	광양김(金)씨	황원(黃元)	1045년생	143	631	7	49
곡성군	곡성임(任)씨	?		432	1,957	4	49
구례군	구례손(孫)씨	정택(正澤)	고려조	254	1,042	2	7
	봉성장(張)씨	악(岳)	고려 문종조	2,591	11,630	202	1,060
나주시	금성나(羅)씨	충례(聰禮)	고려 조	9,490	39,903	3,130	13,150
	" 범(范)씨	승조(承祖)	노국공주배행	701	2,962	351	1,596
	" 정(鄭)씨	성(盛)	1330년생	2,037	8,976	626	2,843
	나주김(金)씨	운발(雲發)	경순왕의손자	9,780	41,257	1,136	4,794
	" 나(羅)씨	부(富)	고려 의종조	23,284	99,189	3,800	17,150
	" 박(朴)씨	병목(柄默)	고려조	743	3,719	133	747
	" 손(孫)씨	광유(光裕)	고려조	81	366	7	48
	" 양(梁)씨	인(認)	조성 중종조	49	240	11	57
	" 오(吳)씨	숙규(淑珪)	고려 고종조	6,003	26,244	2,113	8,935
	" 이(李)씨	철우(哲祐)	조선 세조조	1,886	9,383	162	1,018
	" 임(林)씨	비(庇)	충렬왕조	62,205	262,862	8,949	39,237
	" 임(任)씨	?		524	2,391	63	326
	" 장(張)씨	세동(世東)	조선 인조조	2,640	12,429	355	1,963
	" 전(全)씨	나경(羅卿)	고려충렬왕조	3,961	17,687	326	1,698
	" 정(鄭)씨	응도(應道)	822~893	13,110	55,684	961	13,213
	" 정(丁)씨	해(諧)	고려 중엽	15,211	62,554	1,214	5,070
	" 진(陳)씨	온(溫)	고려조	570	2,539	116	492
	남평문(文)씨	다성(多省)	신라자비왕조	82,052	343,655	12,879	56,324
	" 반(潘)씨	유현(有賢)	고려말	318	1,302	162	657
	" 이(李)씨	동말(東秣)	조선 초	249	1,306	31	203
	반남박(朴)씨	응주(應珠)	고려 중엽	28,305	118,838	1,752	7,419
	안로김(金)씨	지경(之敬)	고려 초엽	168	633	6	33

시군명	성씨(姓氏)	시조 이름	생존 연대	1985. 11. 1 조사 통계			
				전 국		전 남	
				가호수	인구수	가호수	인구수
담양군	담양국(鞠)씨	양 (樣)	고려 인종조	3,581	14,858	675	2,874
	" 김(金)씨	삼준(三俊)	조선 성종조	177	986	11	91
	" 이(李)씨	덕명(德明)	고려 인종조	363	1,643	39	196
	" 전(田)씨	득시(得時)	고려 의종조	26,641	135,992	1,626	7,007
	창평김(金)씨	석규(錫奎)	조선조	177	986	11	91
무안군	무안박(朴)씨	진승(進昇)	고려 현종조	15,740	64,695	4,285	17,971
	무안유(兪)씨	순직(舜稷)	고려조	2,870	12,696	119	520
보성군	보성선(宣)씨	윤지(允祉)	1382년귀화	7,643	33,077	2,535	11,740
	보성오(吳)씨	현필(賢弼)	고려 명종조	12,341	52,543	454	2,036
순천시	낙안김(金)씨	수징(粹澄)	고려조	1,141	4,299	159	598
	" 오(吳)씨	사룡(士龍)	고려충렬왕조	1,774	7,410	374	1,507
	순천김(金)씨	충 (摠)	궁예의 손자	11,092	45,622	1,092	4,644
	" 도(陶)씨	구원(球元)	1296년 귀화	112	442		
	" 박(朴)씨	영규(英規)	견훤의 사위	18,296	75,888	1,797	7,950
	" 장(張)씨	천로(天老)	고려 인종조	2,308	9,399	104	504
	" 현(玄)씨	원고(元羔)	고려 명종조	722	3,393	28	185
신안군	압해박(朴)씨	인규(仁規)	고려조	2	13		1
	" 정(丁)씨	덕성(德盛)	800~893년	12,688	55,893	4,010	18,329
여수시	여수박(朴)씨	윤 (倫)	?	2	12		
영광군	영광김(金)씨	심언(審言)	?~1018	6,689	28,443	1,804	7,721
	" 유(柳)씨	자택(資澤)	고려말	228	964	16	69
	" 전(田)씨	종회(宗會)	고려개국공신	394	1,847	58	284
	" 정(丁)씨	열도(烈道)	819~905	6,296	26,529	2,731	11,830
영암군	낭주최(崔)씨	흔 (昕)	신라말	2,764	11,723	1,345	5,714
	영암김(金)씨	숙 (淑)	고려 명종조	579	2,469	34	144
	" 박(朴)씨	항 (恒)	고려 인종조	1,380	5,670	31	151
장성군	장성서(徐)씨	능 (稜)	고려 고종조	1,472	6,381	150	713
	진원박(朴)씨	진문(進文)	고려조	4,679	19,982	2,375	10,434
장흥군	장흥고(高)씨	복림(福林)	고려공민왕조	9,877	41,641	3,370	14,227
	" 마(馬)씨	육침(陸沔)	백제말기	5,758	23,803	1,268	5,437
	" 오(吳)씨	천우(天佑)	현필의6세손	876	3,897	59	288
	" 위(魏)씨	경 (鏡)	신라태종조귀화	5,528	23,290	1,922	8,283
	" 임(林)씨	분 (賁)	고려 우왕조	1,549	6,580	383	1,713
	" 임(任)씨	호 (灝)	고려정종조귀화	8,060	35,293	3,100	13,609
진도군	진도김(金)씨	국빈(國賓)	283년 백제에 귀화	315	1,303	12	54
함평군	함평김(金)씨	?	평남대동군에 집단거주	223	943	15	70
	" 노(魯)씨	목 (穆)	고려 인종조	8125	25282	1895	7908
	" 모(牟)씨	경 (慶)	고려 예종조	3652	15531	755	3254
	" 오(吳)씨	잠 (岑)	고려 원종조	747	3282	59	272
	" 이(李)씨	언 (彦)	고려 광종조	24776	103696	6416	26940
	" 임(任)씨	진미(眞美)	고려 중기	25	116	6	39
	" 정(鄭)씨	언겸(彦謙)	고려 인종조	1462	6425	110	547
해남군	당악김(金)씨	낙 (樂)	고려개국공신	407	1662	162	451
	해남윤(尹)씨	존부(存富)	고려 중기	11518	48780	5933	25814



시군명	성씨(姓氏)	시조 이름	생존 연대	1985. 11. 1 조사 통계			
				전 국		전 남	
				가호수	인구수	가호수	인구수
화순군	능성구(구)씨	존유(存有)	1224년귀화	31139	128757	2056	9024
	동복오(吳)씨	녕 (寧)	고려고종조	11977	50648	4362	19109
	신안주(朱)씨	잠 (潛)	고려고종조귀화	35791	147988	5138	22752
	화순오(吳)씨	원 (元)	고려 고종조	664	2888	187	803
	화순최(崔)씨	세기(世基)	고려 중기	8628	27517	820	3579

제2절 10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광주 · 전남의 성씨

10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광주 · 전남의 성씨는 성씨다.

이 가운데 조(曹), 나(羅), 노(魯), 선(宣), 위(魏), 기(奇), 방(房), 모(牟), 정(程), 범(范), 탁(卓)씨는 전남 거주자가 제일 많다.

〈표 7〉 10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전남의 성씨

전국순위 1975(1985)	성 씨	전 국		전 남	
		1975년 조사	1985년 조사	1975년 조사	1985년 조사
1(1)	김(金)	1,475,880	2,080,768	175,096	197,230
2(2)	이(李)	1,004,946	1,418,948	85,840	96,906
3(3)	박(朴)	571,939	815,237	73,652	84,213
4(4)	최(崔)	321,597	454,697	33,378	38,117
5(5)	정(鄭)	298,291	422,246	36,956	42,227
6(6)	강(姜)	160,977	227,097	18,869	21,603
7(7)	조(趙)	151,999	207,896	14,796	16,609
8(8)	윤(尹)	139,107	198,252	14,916	16,999
9(9)	장(張)	136,347	192,842	15,632	17,919
10(10)	임(林)	114,004	159,376	14,557	16,243
11(11)	한(韓)	106,005	149,511	9,433	10,898
12(12)	신(申)	108,960	147,714	11,678	13,191
13(13)	오(吳)	104,348	147,169	12,943	14,744
14(14)	서(徐)	102,183	144,335	13,662	15,483
15(15)	권(權)	97,048	136,890	3,437	3,588
16(16)	황(黃)	94,923	134,359	8,513	9,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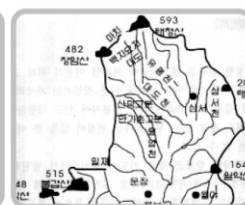
전국순위 1975(1985)	성 씨	전 국		전 남	
		1975년 조사	1985년 조사	1975년 조사	1985년 조사
17(17)	송(宋)	92,980	131,904	10,769	12,285
18(18)	안(安)	93,527	131,864	7,364	8,357
19(19)	유(柳)	100,707	120,907	8,267	8,536
20(20)	홍(洪)	78,523	109,489	5,775	6,493
22(21)	전(全)	62,816	103,060	5,209	7,277
21(22)	고(高)	64,045	91,402	8,414	9,989
24(23)	문(文)	62,576	88,967	11,515	13,291
23(24)	손(孫)	62,801	88,002	5,757	6,263
25(25)	양(梁)	62,027	81,189	10,997	12,296
26(26)	배(裴)	54,370	77,580	5,547	6,532
27(27)	백(白)	51,535	73,856	5,321	6,218
28(28)	조(曹)	45,757	73,206	9,611	11,032
29(29)	허(許)	44,113	63,039	3,857	4,322
30(30)	남(南)	37,534	53,016	2,637	3,040
31(31)	심(沈)	35,962	52,085	2,549	3,414
32(32)	노(盧)	34,536	47,252	3,423	3,795
33(33)	하(河)	30,844	44,508	2,288	2,645
34(34)	유(劉)	28,891	41,933	3,637	4,417
48(35)	유(兪)	20,442	39,424	1,338	2,042
36(36)	곽(郭)	26,419	39,150	3,415	3,860
38(37)	성(成)	26,419	38,882	1,468	1,764
41(38)	정(丁)	24,853	38,722	8,104	9,164
35(39)	차(車)	27,029	38,127	2,819	3,363
37(40)	구(具)	26,961	37,598	2,063	2,296
40(41)	우(禹)	25,181	37,327	2,476	1,344
39(42)	주(朱)	25,809	36,869	4,476	5,208
42(43)	나(羅)	24,308	35,392	5,867	6,977
44(44)	전(田)	22,421	35,130	1,589	1,903
45(45)	임(任)	22,269	34,670	3,758	4,515
43(46)	민(閔)	23,497	33,725	2,086	2,427
50(47)	신(辛)	19,481	33,062	811	1,180
46(48)	지(池)	21,678	29,782	1,577	1,795
47(49)	진(陳)	21,284	29,414	2,366	2,609
49(50)	엄(嚴)	19,902	27,566	686	778
51(51)	원(元)	18,049	24,877	483	527
52(52)	채(蔡)	16,717	23,418	2,185	2,425
53(53)	천(千)	15,930	23,185	2,140	2,468
62(54)	양(楊)	9,007	19,462	399	654
54(55)	방(方)	14,359	19,330	657	694
55(56)	현(玄)	12,671	17,302	425	473

전국순위 1975(1985)	성 씨	전 국		전 남	
		1975년 조사	1985년 조사	1975년 조사	1985년 조사
56(57)	공(孔)	12,213	17,209	1,444	1,618
59(58)	강(康)	11,221	16,771	296	234
57(59)	함(咸)	11,773	15,686	466	520
58(60)	변(卞)	11,685	15,290	660	693
68(61)	노(魯)	6,709	13,064	2,026	2,376
61(62)	염(廉)	9,125	12,825	1,200	1,406
60(63)	변(邊)	9,533	12,514	871	838
63(64)	여(呂)	8,499	11,729	698	816
64(65)	추(秋)	7,811	11,622	1,195	1,387
65(66)	도(都)	7,791	11,191	195	211
66(67)	신(愼)	4,961	9,787	277	391
67(68)	석(石)	7,114	9,706	119	162
73(69)	소(蘇)	6,802	9,361	809	895
69(70)	설(薛)	5,587	8,179	571	725
74(71)	주(周)	4,937	7,789	548	759
70(72)	선(宣)	5,500	7,768	3,548	2,548
71(73)	마(馬)	5,158	7,404	1,245	1,412
72(74)	길(吉)	5,243	7,362	184	220
75(75)	표(表)	4,326	5,833	434	435
76(76)	위(魏)	3,950	5,729	1,751	1,952
77(77)	명(明)	3,840	5,494	928	1,042
79(78)	기(寄)	3,765	5,454	1,237	1,415
82(79)	방(房)	3,144	5,376	866	979
80(80)	번(番)	3,548	5,151	297	399
81(81)	옥(玉)	3,293	4,913	157	207
78(82)	왕(王)	3,791	4,815	293	297
83(83)	맹(孟)	2,928	4,196	293	282
84(84)	제(諸)	2,927	4,128	185	205
85(85)	탁(卓)	2,856	4,048	269	308
(86)	장(蔣)		3,937		112
88(87)	모(牟)	2,198	3,761	663	760
86(88)	국(鞠)	2,348	3,730	567	703
87(89)	은(殷)	2,246	3,303	153	194
89(90)	편(片)	2,220	3,181	210	240
90(91)	용(龍)	1,757	2,876	130	269
91(92)	봉(奉)	1,700	2,469	339	414
92(93)	유(庾)	949	2,403	112	229
93(94)	정(程)	861	2,174	431	690
(95)	부(夫)		2,094		138

전국순위 1975(1985)	성 씨	전 국		전 남	
		1975년 조사	1985년 조사	1975년 조사	1985년 조사
(96)	진(晉)		2,059		137
(97)	사(史)		2,000		101
94(98)	형(邢)	729	1,291	169	182
(99)	채(菜)		1,161		112
(100)	제갈(諸葛)		867		104
95(101)	범(范)	243	714	150	353



제3장 함평군의 성씨



제1절 함평군의 씨족 정착사 조사 정리

함평군의 씨족 정착사 정리는 지난 1984년 함평군사를 펴낼 때 필자가 김해김씨 등 75개 본관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한 바가 있으며, 1996년에 역시 필자가 시조가 확인된 토반 6개 본관과 함평군내에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객반 100개 본관의 성씨를 조사하여 함평문화원에서 「함평군의 씨족 정착사」를 간행한 바 있다.

1969년 함평군에서 자체 조사한 씨족 자료에 의하면 99개 성씨 234개 본관이 살았고, 김해김씨가 2,201 가구로 본관별 씨족 순위1위를 차지하였다.

본관별 거주 내역을 보면 단 1가구가 살고 있는 본관이 40여개 본관이었고, 10가구 미만인 120여개 본관에 이르렀다. (표 8, 표 11을 볼 것)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사는 성씨는 275개 성씨 3,349개 본관이며, 함평군에는 89개 성씨 728개 본관이 살고 있으며 김해김씨가 1,860가구 7,835명으로 계속 본관별 성씨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관별 거주 내역을 보면 가구가 살지 않고 자기만 와서 살고 있는 본관이 297개 본관이며,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411개 본관이고, 단 1가구가 사는 본관이 141개 본관, 5가구 이상이 175개 본관, 10가구 이상이 122개 본관, 15가구 이상이 100개 본관이다. (표 9를 볼 것)

1969년에 살았던 경(景), 목(睦), 범(范), 봉(奉) 부(夫), 사(謝), 승(承), 은(殷), 인(印), 장(蔣), 장(章), 제(諸), 창(昌), 탁(卓), 피(皮)의 16개 성씨는 함평을 모두 떠났고, 1985년 조사에서 강(康), 금(琴), 변(卞), 석(石), 아(阿), 왕(王)의 6개 성씨가 함평군에 입향한 것이 확인되었다.

1984년까지 발간된 함평현읍지·군사에 나타난 본관별 거주상황을 알기 쉽게 표로 만들었다. (표 10을 볼 것)

이번 함평군 씨족 정착사편은 아래와 같은 함평군사편찬위원회 내규에 의해 집필하였다.

1. 씨족 정착사에 수록할 본관별 성씨는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서 5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175개 본관으로 한다.
단, 5가구 이하라도 1984년 함평군사에 오른 성씨는 수록한다.
2. 함평노씨 등 함평을 본관으로 하는 토반성씨(土班姓氏)와 진주강씨 등 타 지역에서 함평군에 이주해 온 객반성씨(客班姓氏)로 나누어 수록하고, 매열은 성씨와 본관명의 가·나·다 순에 의한다.



3. 1999. 10. 10까지 문중에서 족보 또는 수록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제공한 본관을 수록한다.
4. 함평군에서 배출한 씨족의 인물은 13편 인물편 수록 대상자 규정에 의하되 호(號), 생년월일, 세수(世數), 최종경력 만을 요약하여 기재하며, 배열은 통일하지 않고 제공된 자료의 성격에 따라 세순위(世順位), 생년월일 순위로 한다.

〈표 8〉 함평군의 본관별 성씨 분포

1985년 조사통계. 숫자는 가구수

성 씨	본 관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	계
강(姜)	진주(晋州)	97	46	5	16	8	13	44	50	21	300
경(景)	해주(海州)					1					1
고(高)	장흥(長興)		14		53	6		18	1	6	98
	제주(濟州)	26		3		3	7		26		59
	평택(平澤)				11						11
공(孔)	고부(古阜)		4	3							7
곽(郭)	선산(善山)	1		1							2
	전주(全州)						2				2
	청주(淸州)	5	1								6
	현풍(玄風)					3	12	1	1	20	37
구(具)	능성(綾城)	4			16	2			2		24
국(鞠)	담양(潭陽)	5		1		6					12
권(權)	안동(安東)	36	2		1	1	5	2	3	9	60
기(奇)	행주(幸州)				10			4	2	9	25
길(吉)	해평(海平)								1		1
김(金)	경주(慶州)	12	162			2		13			189
	고성(固城)				34	25					59
	광산(光山)	231	175	95	192	65	172	134	132	221	1,417
	김녕(金寧)	60	10	10							80
	김해(金海)	521	325	293	157	84	407	159	134	121	2,201
	나주(羅州)		2		38	86	28	3			157
	낙안(樂安)	1									1
	상산(商山)		2	4	5		12	189		8	220
김(金)	선산(善山)					12		102			114
	안동(安東)	20				2			11		33
	연안(延安)							1			1
	영광(靈光)		5						12		17
	영산(永山)			20							20
	영선(永善)					4					4
	용궁(龍宮)					1					1
	울산(蔚山)				4						4
	청풍(淸風)				1		15				16
	해남(海南)				9						9

성 씨	본 관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	계
나(羅)	금성(錦城) 나주(羅州)	177	30	5	55	23	16	16	3	14	339
남(南)	영양(英陽) 의령(宜寧)	4	22	1		4	5	4	1		4 37
노(魯)	함평(咸平)	122	22	40	279	2	14	3	11	30	513
	광산(光山)	57		39	1	26	11	54	41	16	244
	교하(交河)								1		1
	대구(大邱)					7					7
	서해(西海)			1							1
	선산(善山)		8								8
	오산(烏山)				5						5
도(都)	팔창(八菴)		1			1			1		3
마(馬)	장흥(長興)		1	1					1		3
명(明)	서촉(西蜀)					1					1
모(牟)	함평(咸平)	82	61	95	2	11	4	10	1	9	275
목(睦)	사천(四川)	1									1
문(文)	남평(南平)	93	16	5	23	7	7	35	7		193
	문화(文化)					1					1
민(閔)	해남(海南)					1			1		2
박(朴)	무안(務安)	151	5	13	169	59	51	13	21	7	489
	밀성(密城)	20				30					50
	밀양(密陽)	298	185	49	141	56	154	125	99	19	1,126
	반남(潘南)							2		6	8
	순천(順天)					3					3
	진원(珍原)							6			6
	함양(咸陽)				9	1	6			4	20
반(潘)	거제(巨濟)	1									1
방(方)	온양(溫陽)	2									2
방(房)	남양(南陽)	7	2			3					12
배(裵)	경주(慶州)	7									7
	달성(達城)	4	75	39	10	11	15			15	167
백(白)	수원(水原)	22	89	6		2		8	2		129
	전주(全州)					1					1
범(范)	나주(羅州)				1						1
변(邊)	장성(長城)			3					1		4
봉(奉)	하음(下陰)				1						1
부(夫)	제주(濟州)		1								1
사(謝)	진주(晋州)							2			2
성(成)	창녕(昌寧)	11							3		14
손(孫)	경주(慶州)	2									2
	밀양(密陽)	45	30	3	2		8	2			90
송(宋)	신평(新平)							17	17		34
	여산(礪山)	7	16	6	11	9	15	5			69
	은진(恩津)	6		1	1						8



성 씨	본 관	합평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	계
승(承)	양주(楊洲)								1		1
신(申)	고령(高靈)					46	2	3			51
	영광(靈光)			1							1
	평산(平山)	63	24	6	49	3	52	3	1		201
신(辛)	영산(靈山)			2				45	3		50
	영월(寧越)		4	1		4				4	13
신(愼)	거창(巨昌)					1			6		7
심(沈)	청송(靑松)	5	10	115	2	1	16	1	31	13	194
서(徐)	달성(達城)	23									23
	이천(利川)	46	19	20	161	82	6	24	52	10	420
선(宣)	보성(寶城)		1								1
설(薛)	순창(淳昌)				1						1
소(蘇)	진주(晉州)	1							1		2
안(安)	순흥(順興)				15	2					17
	죽산(竹山)	11	19	13	3	1	5	170	34	150	406
양(梁)	남양(南陽)					6					6
	남원(南原)		15	3	86					9	113
	영안(永安)					2					2
	제주(濟州)	29	15	8	34	12	4	21	3		120
어(魚)	함중(咸從)				19						19
엄(嚴)	영월(寧越)							1	1		2
오(吳)	나주(羅州)	11		1					5		17
	낙안(樂安)				73			8	2		83
	동복(同福)				21						21
	보성(寶聖)	2			3						5
	천안(天安)						11				11
	해주(海州)	33	16	4	19	7		8		11	98
옥(玉)	반성(伴城)	5				1					6
	의령(宜寧)							2	2		4
	진주(振周)					1					1
우(禹)	단양(丹陽)	11		1					1	3	16
위(魏)	수녕(遂寧)								1		1
원(原)	원주(原州)	1	1								2
유(兪)	고령(高靈)	1									1
	기계(杞溪)			1	1	1	5	40	10		58
류(柳)	고흥(高興)							23	5	4	37
	문화(文化)	19		5	10	5	5	3			36
	서산(瑞山)		2								2
유(庾)	무송(茂松)			2							2
	진주(晉州)						5				5
	평산(平山)	4							1		5
유(劉)	강릉(江陵)	5	20	7	5	1			3		41
	충주(忠州)					3					3
	풍산(豊山)						1				1
윤(尹)	과평(坡平)	72	52	47	143	93	2	20	284	17	730
	해남(海南)	2		2		5	3				12
은(殷)	태인(泰仁)	4									4

성 씨	본 관	합평	손불	신광	학교	업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	계
이(李)	강양(江梁)			1							1
	경주(慶州)	224	46	91	27	4	25	94			510
	고성(固城)		8	37							45
	공주(公州)		18	1							19
	광주(廣州)			14							14
	양성(陽城)		27	21	18						66
	영주(瀛州)		2								2
	원주(原州)				1						1
	전주(全州)	202	149	39	119	62	96	52	82	167	968
	한산(韓山)			3							3
	합평(咸平)	350	110	78	103	44	272	282	146	230	1,615
인(印)	절강(浙江)				3						3
임(任)	남평(南平)					1					1
	장흥(長興)	20									20
	풍천(豊川)	4	35	21	75	3		14	5	8	165
임(林)	나주(羅州)		130	25	38	47				9	249
	옥천(玉川)						8				8
	울진(蔚珍)					1					1
	장흥(長興)							4			4
	평택(平澤)	31	15	6	3				46		101
장(張)	안동(安動)	4									4
	영동(營童)	11									11
	인동(仁同)	189	35	36	44	99	34	34	24	200	669
	흥성(興城)		10	28	14	11	3	3			62
장(蔣)	아산(牙山)							2			2
장(章)	거창(據昌)							2			2
제(諸)	철원(鐵原)	1									1
전(田)	담양(潭陽)	2				2	6	1			11
	태산(泰山)			7	1						8
전(全)	성주(星州)					1					1
	전주(全州)	3									3
	정선(旌善)	2									2
	천안(天安)		202	16	66	2	7	6	11	130	440
정(丁)	고성(固城)				3						3
	나주(羅州)			2	1	55					58
	영성(靈聖)		23	19	44	66		25	30	7	214
	창원(昌原)	31									31
정(程)	하남(河南)									2	2



성 씨	본 관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	계
정(鄭)	경주(慶州)	27			18	48	6				99
	고성(固聖)					46					46
	광산(光山)		45	1				22			68
	나주(羅州)	73		16	7	78		67	31	154	426
	동래(東萊)			3				15	49	170	237
	연일(延日)			2				4			6
	온양(溫陽)					1					1
	진주(晉州)	38	61	29	241		46	60	211	520	1,176
	초계(草系)							3			3
	하동(河東)	32	10	8	25	8	7	7	1	11	109
	해주(海州)					1		14			15
조(曹)	창녕(昌寧)	99	20	12	19	10	3	2	10		175
조(趙)	한양(漢陽)	52	31	33	58	41	127	20	13	12	387
	함안(咸安)					1					1
주(周)	상주(尙州)		1		1				7		9
주(朱)	나주(羅州)			1							1
	능주(綾州)					1					1
	신안(新安)	8		12	19	5	8	9	4		65
지(池)	충주(忠州)	2	7		86	87					182
진(陳)	나주(羅州)	1									1
	삼척(三陟)	1									1
	여양(驪洋)	5	2			2	4	20	51		95
차(車)	연안(延安)	1	6		3	3	2	8			23
창(昌)	창녕(昌寧)							1	1		2
채(蔡)	평강(平康)	3	7	41	58	1	2		1		113
천(千)	영양(潁陽)	3	4	1		54			5		67
최(崔)	경주(慶州)		145	2	3		42	13			211
	삭녕(朔寧)							1			1
	수성(隨城)		3								3
	수원(水原)			1	15	7		1			24
	영암(靈岩)							3			3
	임평(任平)					2					2
	전주(全周)	90		1	5	13		8	1	15	133
	진주(晉周)				11						11
	담진(耽津)				15	14	4	2			35
	해주(海州)	66	15	26		3	2	21	8	5	146
	화순(和順)			6							6

성 씨	본 관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업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	계
추(秋)	양지(陽智)	5									5
	추계(秋系)				1						1
	해남(海南)					1					1
편(片)	무송(茂松)				1						1
	밀양(密陽)		3								3
	절강(浙江)	1			3	1		8			13
표(表)	달성(達城)							5			5
	신창(新昌)		2		1						3
탁(卓)	광산(光山)		1								1
피(皮)	당진(唐津)	2									2
하(河)	진주(晋州)	8	3			1					12
	하동(河東)		9			1		2			12
한(韓)	나주(羅州)			1							1
	청주(廳周)	33	22	16	63	2	22	3			161
	충주(忠州)					2					2
함(咸)	강릉(江陵)	2									2
허(許)	양천(陽川)	3	3			2		3			11
	태인(泰仁)									3	3
현(玄)	순천(順天)					1					1
	연주(延州)			1							1
홍(洪)	남양(南陽)	9	14	3	25	11					62
	풍산(豊山)	2		12			15	10			39
황(黃)	장수(長水)				17	7	5				29
	창원(昌原)	31	6	1		9		5			52
황보(黃浦)	영천(永川)						5				5

〈표 9〉 함평군의 본관별 성씨 분포

2000. 1. 1 통계청 조사자료에 의함. 성씨별 순위는 가나다 순으로 함.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김 (金) 97 본	김해 ①	1,860	7,835	김 (金)	永山	3	17	김 (金)	영암	1	2	김 (金)	한산		1
	경주	278	1,143		고성	33	119		온양		1		금정	1	6
	광산	1,195	1,940		용궁	2	10		파평		2		보성	1	2
	김녕	56	236		금산	2	8		서산		1		연산		1
	안동. 구	47	193		성산	10	44		선성		2		남평		1
	의성	4	19		풍산		1		영동	9	55		해동	1	2
	강릉	5	22		원주	5	23		해남	3	15		제주		1
	선산	67	284		충주	1	1		교하	1	3		예산	1	1
	청풍	7	38		공주		3		동래	1	1		염포	1	1
	삼척		4		상주	1	10		성은		1		강동		1
	연안	15	58		영양		1		고산	1	2		사창	1	8
	청도	14	65		정선		1		靈山		1		곡성		1
	상산	189	742		천안	2	17		청송		1		김해 ②	10	93
	전주	3	10		해주	1	7		문화		1	이 (李) 74 본	전주	923	3,772
	부안	6	33		강화	2	7		홍주		1		경주	271	1,077
	순천	3	15		김제		2		이천		2		성주	5	17
	나주	129	502		경산		2		도광		2		광주	35	148
	언양	7	23		양군		1		능주	3	11		연안	5	17
	울산	11	39		사천	3	15		적성	2	6		한산	9	37
	영광	15	77		수안		1		금평		1		전의	13	54
	청주	2	14		덕수	1	1		담양		2		함평	1,196	4,561
	서흥	4	19		해평	2	5		인동		1		합천	3	7
	도강	25	109		낙안	7	36		안로		2		寧川	1	5
	광주	3	9		남해		3		광양		1		고성	41	171
	개성	1	5		통천		4		죽산		1		성산	1	7
	진주	5	27		안성		3		장연		1		여주	2	6
	안산	2	9		강진	1	5		은진		1		인천	1	6
	고령	1	7		양산		1		연주	1	1		진보		2

이
(李)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최 (崔)	영양	1	1	정 (鄭)	대구		1	조 (趙)	김제	5	18	장 (張)	목천	1	3
	영암		1		전주	4	17		양주	4	9		구례	3	8
	아산		1		함평	5	12		밀양	5	37		순천		3
	연풍		1		광산	14	71		평산	2	11		옥구		1
	상현		1		청산		4		함양		1		창녕	1	3
	김해		1		정주	1	6		직산		1		부안		3
	한남	1	2		예천	1	1		경주		1		절강		1
	우봉	2	2		창원		2		영산		2		진주		1
	삼진	2	6		영광	1	12		진주		2		전주		2
	남원		1		안동		1		함평		1		예산		1
	제주		1		곤양		1	윤 (尹)	과평	612	2,250		진천		1
	과주		2		연안		1		해남	26	114		청송		1
	남양		1		동해		1		칠원	1	10		동래	1	1
	함평		1		광상		2		남원	15	64		광주	1	3
	선산	1	2		진영		1		해평	1	2		장수	1	2
	해남		1		함양		1		무송	1	4		대구		1
	보령	2	2		남원		1		함안	1	6		충주	1	4
	동래	95	414		천안		2		태평		1	임 (林)	나주	264	1,250
	경주	91	415		보성	2	5		예천		1		평택	39	192
	연일	10	44		원주	1	4		영천	1	5		예천	5	19
정 (鄭)	진주	796	3,087	강 (姜)	진주	293	1,235	본	함평		1		천안		4
	하동	173	715		경주	1	4		청산		1		조양		2
	초계	7	31		제주	1	2		남평		1		선산	5	23
	나주	357	1,505		대전		1		진주		1		장흥	6	27
	야성		5		보천		4		평창		1		안동	1	3
	청주	2	7		나주	2	2		고령		1		풍천		2
	해주	14	53		수원		1		인동	469	1,962	20 본	전주		1
	온양	6	24	조 (趙)	한양	309	1,268	장 (張)	안동	9	43		보성	1	3
	오천		1		함안		8		홍성	85	389		진주	1	2
	봉화		4		풍양	8	48		안양		3		단월	1	2
	光州	70	240		백천	2	12		결성		3		해주		6
	서산	2	6		옥천	7	25		덕수	1	6		해진	3	11
	고성	33	130		평양		6		나주	3	28		성산		1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임 (林)	교동		1	오	순흥		1		남양	7	33	류	서산	1	4
	무안	1	1		달성	26	123		김해	5	32		강릉	2	8
	예산		1		이천	365	1,494		합천		1		문안		2
한 (韓) 3본	창주	134	592	서 (徐)	남양	4	23		연안 ①	1	4	(柳)	고령		1
	곡산		7		부여		1		회덕		1		창원		5
	경주		1		장성	1	11		청주	1	7		연안		3
신 (申) 8본	평산	178	684	10 본	연산	1	3	송 (宋)	홍주	5	28	홍 (洪)	청주		1
	고령	68	282		남평	3	13		문경	3	12		풍산	83	235
	이주	1	5		인천	2	9		덕산	1	8		남평 토	63	268
	영월		3	권 (權) 2본	경주		1	(宋)	양주		2	10 본	남평 당		2
	청송		1		밀양		2		밀양		1		홍주		8
	영원	1	1		안동	64	255		심평	1	5		밀양	1	3
	광산		1	황 (黃) 18 본	예천	1	2	안 (安) 13 본	산평 ①		2	전 (全) 12 본	담양		1
	함평		1		창원	36	175		철원		1		홍산	1	2
	해주	61	303		장수	37	166		신안		1		니주	1	3
	보성	7	30	송 (宋) 22 본	평해		5	류 (柳) 9본	광주		2	고 (高) 3본	함안		1
	동북	27	104		우주	1	7		산평 ②		1		남평	1	1
	고창	3	16		덕산	3	12		홍양	1	1		천안	276	1,129
	니주	56	238	안 (安) 13 본	상주	7	24	안 (安) 13 본	순흥	30	154	전 (全) 12 본	옥천	2	8
	함양		5		회적	1	4		廣州	5	38		용궁		1
	군위	1	5		성주		6		죽산	254	920		니주	14	54
오 (吳) 20 본	낙안	48	150	송 (宋) 22 본	황주	2	6	안 (安) 13 본	탐진	1	7	고 (高) 3본	경주	1	8
	금성	10	37		창녕	1	1		죽산 신		3		옥산		2
	장흥	1	2		장성		2		태원		3		성산		4
	함평	2	10	송 (宋) 22 본	해주		1	안 (安) 13 본	평안		1	전 (全) 12 본	죽산	1	5
	회순	13	44		청주		1		안동		1		완산	1	1
	진주		4		밀양		1		양산		1		감천	2	10
	평해		1	송 (宋) 22 본	천안		1	안 (安) 13 본	정주		1	고 (高) 3본	성주	2	5
	연일		1		충주		1		해주	1	4		정선	1	6
	제주	1	2		여산	79	348		평산		1		제주	99	391
	해조		1	송 (宋) 22 본	은진	6	33	류 (柳) 9본	파평	1	5	문 (文)	장흥	33	157
	남원		1		예산	2	8		고흥	48	200		고창		1
	서산		1		진천	1	3		전주	1	4		남평	176	743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문 (文) 7본	감천		4	조 (曹) 7본	창녕	141	600	유 (兪) 8본	기계	62	255	나 (羅) 임 (任) 7본	군위		1		
	정선	3	13		창양		1		강진	1	11		경주		2		
	함평		1		안동	1	1		무안	5	25		풍천	103	427		
	나주		1		화순	1	1		창원	1	7		장흥	32	159		
	안동		1		영암		1		고령	4	14		나주	2	7		
	능성		1		함평	1	2		인동		1		관산		1		
손 (孫) 8본	밀양	68	262	남 (南) 3본	강릉		1	정 (丁) 7본	금산		2	전 (田) 5본	풍산	1	5		
	경주	6	37		의령	34	130		고흥		1		함평		1		
	안동	1	4		영양	1	5		나주	16	79		순천		1		
	평해		3		고성	3	14		압해	208	827		담양	18	73		
	청주	1	9		청송	185	757		영성	84	381		남양		4		
	진주		1		삼척	2	8		창원	1	3		연안		2		
양 (梁) 5본	보성		4	심 (沈) 4본	풍산	5	16	곽 (郭) 5본	진주		1	신 (辛) 5본	영광	2	5		
	전주		1		남원		2		무안	1	3		전주		2		
	남원	116	438		강릉	50	215		영산	2	6		민 (閔)	여흥	5	18	
	제주	155	635		거창	13	47		성 (成) 2본	창녕	25		117	지 (池) 3본	영산	17	62
	남양		3		백천		2		현풍	54	256		영월		8	31	
	청주		1		남원		1		창주	4	14		영주		22	86	
경주		1	광산	188	703	곽 (郭) 5본	성산		1	경주	1	4					
경주	42	232	교화	3	18	포산		2	영광	1	1						
배 (裴) 5본	성주	6	23	노 (盧) 14본	풍천	10	34	차 (車) 구 (具) 2본 우 (禹) 주 (朱) 4본	전주	1	1	진 (陣) 9본	충주		91	362	
달성	105	477	장연			1	연안		18	58	청주			1	단양		3
성산		1	곡산		3	12	창원		5	18	엄 (嚴)		여양	94	378		
곤양		2	만경		1	3	능성		21	85			영양		5		
수원	134	602	안동		2	7	단양		8	40			나주		1		
남포		1	해주		2	11	신안		60	262			경주	1	1		
대흥		1	신창	1	6	능성	1	3	여주			1					
허 (許) 6본	김해	11	48	하 (河)	나주		1	나 (羅) 5본	신흥	1		1	엄 (嚴)	의령		1	
	양천	12	55		창녕	1	3		해주		2	남해			2		
	하양	1	5		연일		3		나주	112	513	인동			1		
	태인	2	6		함평		1		금성	239	863	해주		1	4		
	청주		1		광진		1		안정	1	3	영월		3	10		
	제주		1		진주	20	72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성씨	본관	가호	인구
원 (元)	원주	2	20	함 (咸)	경주		1	여(呂)	단양	1	1	마(馬)	장흥	5	23
채 (蔡)	평강	91	382	변 (卞)	초계	1	5	추(秋)	전주	4	22	2본	목천	1	2
3본	인천	2	17	3본	밀양	3	5	2본	추계		1	위(魏)	장흥	2	10
	평산		2	3본	부용		1	도(都)	성주		1	명(明)	서촉	1	4
	영양	51	215	염	파주	3	30	2본	전주		1		거제	1	2
천 (千)	진주		1	(廉)	용담		1	신(愼)	거창	7	38		광주		2
5본	영천		3	3본	나주		1	석(石)	충주	1	2	방 (房)	남양	12	41
	해남		2		함평	362	1,388	소(蘇)	진주	4	17	4본	남원		1
	나주	1	1	노 (魯)	강화	6	10	설(薛)	순창	4	14		온양	1	1
방(方)	온양	2	18	5본	?州	5	20	2본	경주		1		밀양		4
2본	남원		1		밀양	1	2	선(宣)	보성	9	35	기(奇)	행주	24	79
공(孔)	곡부	8	35		경주		1		상주	9	33	금(琴)	봉화		1
현玄	성주	1	7	변 (邊)	원주		4	주 (周)	초계	1	4	왕(王)	개성	4	11
2본	순천	2	9	3본	황주	4	12	4본	철원	4	18	2본	거제		1
강(康)	신천	1	4		장연		1		안의		1	옥(玉)	의령	10	29
2본	재령		1	여	함양	5	20	길(吉)	해평	1	8				
함(咸)	강릉	10	50	(呂)	성주	4	20	2본	경주		1				
3본	강남		1	4본	성산		1		신창	3	15				

미조사 성씨 : 편(片)·모(牟)·국(鞠)·어(魚)·유(庾)·정(程)·아(阿)

〈표 10〉 함평현 · 읍지에 기록된 본관별 성씨 거주 내역 분석표

참고 ↔ 전과 통일, × 기록되지 않음
2000년 조사 본관 내역은 앞 〈표 9〉 함평군 본관별 성씨 분포를 볼 것
2000년 본관은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도 포함시킴

성씨	1874년간행함평 현읍지에수록된 본관(本貫)	1899년간행 구진에추가 된본관	1907년간행 군지에다시 추가된본관	1930년간행 군지에다시 추가된본관	1969년 간행군지에추가 된 본관	1983년 현재거주 본관수	1985년경 제기획원조 사본관수
강(姜)	진주(晋州)	←			→	7	1
강(康)	×	×	×	×	×	2	×
경(景)	×	×	×	×	해주(海州)	×	1
고(高)	×	×	×	장흥(長興)	제주(濟州)	4	3
공(孔)	×	×	×	×	고부(古阜)	1	1
곽(郭)	×	×	×	현풍(玄風)	선산(善山)청주(淸州) 전주(全州)	5	4
구(具)	×	×	×	×	능성(陵城)	2	1
국(鞠)	×	×	×	×	담양(潭陽)	1	1



성씨	1874년간행합평현읍지에수목된본관(本貫)	1899년간행군지에추가된본관	1907년간행군지에다시추가된본관	1930년간행군지에다시추가된본관	1969년간행군지에추가된본관	1983년현재거주본관수	1985년경제기획원조사본관수
권(權)	×	×	안동(安東)	←→	→	2	1
금(琴)	×	×	×	×	×	1	×
기(寄)	×	×	×	행주(幸周)	←→	1	4
길(吉)	×		×	×	해평(海平)	2	1
김(金)	선산(善算) 광산(光山) 김해(金海) 상산(商山)	영광(영광)	↔	경주(慶州) 청풍(淸風)영산(永山) 청도(淸道)나주(羅州) 도강(道康)안동(安東) 낙안(樂安)금녕(金寧)	울산(蔚山)연안(延安)고성(固聖)해남(海南) 금성(錦城) 영선(永善) 용궁(龍宮)	97 도강, 청도 있음	19 도강 청도 는 없음
나(羅)	금성(錦城)	←→		→	나주(羅州)	5	2
남(南)	×		×	의령(宜寧)	영양(英陽)	3	2
노(魯)	합평(咸平)	←→			→	5	1
노(盧)	×	×	광산(光山)	↔	선산(善山) 서해(西海)대구(大邱) 오산(吾山)교하(交河)	14	6
도(都)	×	×	×	×	팔창(八昌)	2	1
마(馬)	×	×	×	×	장흥(長興)	2	1
명(明)	×	×	×	×	서촉(西蜀)	1	1
모(牟)	합평(咸平)	←→			→	1	1
목(睦)	×	×	×	×	사천(泗川)	×	1
문(文)	×	×	남평(南平)	↔	문화(文化)	7	2
민(閔)	×	×	×	×	해남(海南)	1	1
박(朴)	함양(檻羊)	밀양(密陽)	반남(潘南)	무안(務安)나주(羅州) 진원(珍原)	순천(順天) 밀성(密城)	46 나주있음	7 나주없음
반(潘)	×	×	×	×	거제(居濟)	2	1
방(方)	×	×	×	×	온양(溫陽)	2	1
방(房)	×	×	×	×	남양(南陽)	3	1
배(裵)	×	×	대구(大邱)	↔	경주(慶州)달성(達城)	6	3
백(白)	×	×	×	수원(水原)	전주(全州)	3	2
범(范)	×	×	×	×	나주(羅州)	×	1
변(邊)	×	×	×	×	장성(長城)	3	1

성씨	1874년간행합 평현읍지에수록 된 본관(本貫)	1899년 간행구진 에 추가된 본관	1907년간행 군지에다시 추가된본관	1930년간행군지 에다시추가된본 관	1969년 간행군지에추가된 본관	1983년 현재거 주본관 수	1985년 경제기획 원조사본 관수
변(卞)	×	×	×	×	×	3	×
봉(奉)	×	×	×	하음(下陰)	↔	×	1
부(婦)	×	×	×	×	제주(濟州)	×	1
사(謝)	×	×	×	×	진주(晋州)	×	1
성(成)	×	×	×	창녕(昌寧)	↔	2	1
손(孫)	밀양(密陽)	←	→		경주(慶州)	8	2
송(宋)	×	×	×	여산(麗山)신평(新平)	은율(恩律)	22	3
승(承)	×	×	×	×	양주(揚洲)	×	1
신(申)	×	×	평산(平算)	고령(高靈)	영광(靈光)	8	3
서(徐)	×	달성(達城) 이천(利川)	↔	대구(大邱)	↔	10	3
석(石)	×	×	×	×	×	1	×
선(宣)	×	×	×	×	보성(寶城)	1	1
설(薛)	×	×	×	×	순창(肅瘡)	2	1
소(蘇)	×	×	×	×	진주(晋周)	1	1
심(沈)	청송(靑松)	←	→			4	1
신(辛)	영산(靈山)	←	→		영월(寧月)	3	2
신(愼)	×	×	×	×	거창(巨昌)	1	
아(阿)	×	×	×	×	×	1	×
양(梁)	×	×	×	제주(濟州)남원(南原)	남양(南陽)영안(永安)	5	4
안(安)	죽산(竹山)	←	→	순흥(順興)	↔	13	2
어(魚)	×	×	×	함중(咸從)	↔	1	1
엄(嚴)	×	×	×	×	영월(寧越)	1	1
여(呂)	×	×	×	함양(咸陽)	창녕(昌寧)	4	2
여(廉)	×	×	×	×	서원(瑞原)	3	
오(吳)	×	×	×	금성(鎭城)해주(海州) 낙안(樂安)	동북(同福)보성(寶城) 천안(天安)	20	6
옥(玉)	×	×	×	×	반성(班城)진주(晋州) 의령(宜寧)	1	3



성씨	1874년간행함 평현읍지에수록 된 본관(本貫)	1899년간 행구진에 추가된본 관	1907년간행 군지에다시 추가된본관	1930년간행군 지에다시추가된 본관	1969년 간행군지에추가된 본관	1983년 현재거주 본관수	1985년 경제기획 원조사본 관수
왕(王)	×	×	×	×	×	2	×
우(禹)	×	×	×	단양(丹洋)	↔	1	1
위(魏)	×	×	×	×	달성(達城)	2	1
원(元)	×	×	×	×	원주(原州)	1	1
유(乳)	기계(杞溪)	↔			고령(高靈)	8	
류(柳)	×	전주(全州)	↔	문화(文化)고흥(高興) 서산(瑞山)	↔	9	3 진주없음
유(庾)	×	×	×	×	평산(平山)진주(晋州) 무송(茂松)	1	3
유(劉)	×	×	×	강릉(江陵)	풍산(豊山)충주(忠州)	4	3
윤(尹)	파평(坡平)	↔			해남(海南)	16	2
은(殷)	×	×	×	×	태인(泰仁)	×	1
이(李)	양성(陽城) 함평(咸平) 전주(全州) 경주(慶州)	↔	고성(固城)	재령(載寧)연안(延安) 광주(廣州)광산(光山) 공주(公州)	한산(韓山)강양(江陽) 영주(羆州) 원주(原州)	74 재령, 연안 광산있음	11 재령, 연안 광산없음
인(印)	×	×	×	×	×	×	1
임(任)	×	×	×	풍천(豊川)	장흥(長興)남평(南平)	7	3
임(林)	×	×	×	나주(羅州)평택(平澤)	울진(蔚珍) 옥천(玉泉)장흥(長興)	20	5
장(張)	흥덕(興德) 인동(仁同)	↔			영동(永同)안동(安東) 흥성(興城)	24	5
장(蔣)	×	×	×	×	아산(牙山)	×	1
장(章)	×	×	×	×	거창(巨昌)	×	1
제(諸)	×	×	×	×	칠원(漆源)	×	1
전(田)	×	×	×	담양(潭陽)	태산(泰山)	5	2
정(丁)	×	×	×	영성(靈城)임해(任海)		8	1
전(全)	×	천안(天安)	↔		정선(旌善)전주(全州) 성주(星州)	12	4
정(程)	×	×	×	×	하남(河南)	1	1

정(鄭)	진주(晋州) 동래(東萊) 나주(羅州) 광산(光山)	↔	하동(河東) 해주(海州)	경주(慶州)	연일(延日)고성(固城) 온양(溫陽)초계(草溪)	38	11

성씨	1874년간행함 평현읍지에수 록된 본관(本貫)	1899년간 행구진에 추가된본 관	1907년간행 군지에다시추 가된본관	1930년간행군 지에다시추가된 본관	1969년 간행군지에추가된 본관	1983년 현제거주 본관수	1985년 경제기획 원조사본 관수
조(曹)	×	×	창녕(昌寧)	←	→	7	1
조(趙)	한양(漢陽)	←		→	함안(咸安)	16	2
주(朱)	×	×	×	신안(神安)	나주, 능주(陵州)	4	3
주(周)	×	×	×	×	×	4	
지(池)	×	×	×	충주(忠州)		3	1
진(陳)	여양(驪陽)	←		→	나주, 삼척(三陟)	9	3
차(車)	×	×	×	연안(延安)	↔	1	1
창(昌)	×	×	×		창녕(昌寧)	1	1
채(蔡)	×	×	평강(平康)	←	→	1	1
천(千)	×	×	×	영양(潁陽)	↔	5	1
최(崔)	해주(海州)	↔		수성(隨城)수원(水原) 전주(全州)경주(慶州) 담진(耽津)	화순(和順)임평(任平) 삭령(朔寧)영암(靈岩) 진주(晋州)	44	11
추(秋)	×	×	×	×	양지(陽智)추계(秋溪) 해남(海南)	2	3
편(片)	×	×	×	절강(浙江)	밀양(密陽)무송(茂松)	1	3
표(表)	×	×	×	×	대구, 달성(達城) 신창(新昌)	1	3
탁(卓)	×	×	×	×	광산(光山)	×	1
피(皮)	×	×	×	×	당진(唐津)	×	1
하(河)	×	×	×	×	하동(河東)진주(晋州)	1	2
한(韓)	×	×	×	청주(淸州)	나주, 충주(忠州)	3	3
함(咸)	×	×	×	×	강릉(江陵)	3	1
허(許)	×	×	×	×	태인(泰仁)양천(陽川)	6	2
현(玄)	×	×	×	×	순천(順天)연주(延州)	2	2



홍(洪)	남양(南陽) 풍산(豊山)	←			→	10	2
황(黃)	×	×	×	장수(長水)	창원(昌原)	16	2
황보(黃甫)	×	×	×	×	영천(永川)	×	1
계 99	×	×	×	×	136	728	없어짐7 현 234

제 2절 함평군의 본관별 30대 성씨(姓氏)

2000년 통계청 조사 자료와 1969년 함평군 자체 조사 자료에 의해 함평군의 본관별 30대 성씨 뽑아보면 <표 11> 과 같다.

객반(客班) 성씨인 김해김씨와 광산김씨가 순위 1, 2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토반(土班)인 함평이씨가 3위인데, 10위까지의 대성씨에 토반은 함평이씨만 유일하게 끼었다.

토반인 노(魯)씨가 11위, 모(牟)씨가 22위로 객반성씨가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69년과 2000년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14위였던 이천서씨가 9위로, 20위였던 나주임씨가 15위로, 13위였던 나주정씨가 10위로, 28위였던 경주김씨가 17위로 올랐고, 9위였던 함평노씨가 11위로, 10위였던 경주이씨가 19위로, 12위였던 천안전씨가 18위로, 21위였던 광산노씨가 29위로, 25위였던 평산신씨가 30위로 내렸다.(고칠 것)

모든 성씨가 1965년에 비해 2000년이 크게 줄었는데 경주김씨는 189가구에서 278가구로, 해주최씨는 146호에서 173가구로, 하동정씨는 109호에서 173가구로 늘어났다.

불과 16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까닭이 무엇일까?

외지에서 많이 이거하여 오지 않고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데 집단으로 이거해 온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1969년 조사에서 다른 본관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1985년 조사에서 위에 언급한 본관으로 정정하여 대답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리고 위의 본관들은 다른 본관별 성씨에 비해 고향을 떠난 비율이 적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표 11> 함평군의 30 대성씨

*2000년 순위 : 인구수를 기준으로 함
*1969년()속의 숫자 : 당시순위

순위	성 씨	2000년 조사		1969년 조사 가구수	참 고
		가구수	인구수		
1	김해김(金海金)씨	1,524	3,278	2,021(1)	
2	광산김(光山金)씨	941	2,509	1,417(3)	
3	함평이(咸平李)씨	756	1,897	1,615(2)	
4	밀양박(密陽朴)씨	847	2,459	1,126(5)	

순위	성 씨	2000년 조사		1969년 조사 가구수	참 고
		가구수	인구수		
5	전주리(全州李)씨	697	1,933	968(6)	
6	진주정(晋州鄭)씨	525	1,363	1,176(4)	
7	파평윤(坡平尹)씨	427	1,073	730(7)	
8	인동장(仁同張)씨	378	975	669(8)	
9	이천서(利川徐)씨	284	742	420(14)	
10	나주정(羅州鄭)씨	255	728	426(13)	
11	함평노(咸平魯)씨	250	622	513(9)	
12	압해정(押海丁)씨	121	310	306(17)	
13	무안박(務安朴)씨	237	622	489(11)	
14	한양조(漢陽趙)씨	258	693	387(16)	
15	나주임(羅州林)씨	151	449	249(20)	
16	진주강(晉州姜)씨	208	587	300(18)	
17	경주김(慶州金)씨	208	617	189(28)	
18	천안전(天安全)씨	225	633	440(12)	
19	경주이(慶州李)씨	226	619	510(10)	
20	죽산안(竹山安)씨	174	440	406(15)	
21	금성나(錦城羅)씨	176	406	219(23)	
22	함평모(咸平牟)씨	166	460	275(19)	문중 조사 자료에 의함
23	경주최(慶州崔)씨	150	417	211(24)	
24	청송심(靑松沈)씨	142	375	194(26)	
25	남평문(南平文)씨	139	368	193(27)	
26	상산김(商山金)씨	125	324	220(22)	
27	해주최(海州崔)씨	117	277	146(29)	
28	하동정(河東鄭)씨	126	315	109(30)	
29	광산노(光山盧)씨	83	209	244(21)	
30	평산신(平山申)씨	111	295	201(25)	

제 3절 함평을 본관으로 쓰고 있는 함평군의 토박이 성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성씨별 본관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함평군에는 89개의 성씨가 살고 있고, 함평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22개 성씨가 있는데(함평이씨와 함풍이씨를 동일 본으로 본수임) 이들 본관성씨 중에는 함평군에 단 1명도 살고 있지 않은 성씨가 많다.

이 들 22개 성씨 중 시조와 문벌을 파악한 성씨는 노(魯) ·모(牟) ·오(吳) ·이(李) ·정(鄭)씨며 임(任)씨는 시조만 알고 문벌은 아직 조사 못했으며, 함평김씨는 후손이 필자와 연락이 되었으나 상면하지 못해 정확한 조사를 못한 실정이다.

그 지방의 토박이 성을 알아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토성조(土姓條)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기록의 군·현의 성씨를 학자들은 본관(本貫)으로 이해하고들 있다.

이 두 기록 중 함평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성씨는 다음과 같다.



현명(縣名)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현 행정 구역
함 평 현 咸 豐 縣	토성(土姓) : 6. 임(任). 노(魯) 이(李).문(文).정(鄭).공(孔) 속성(續姓):1. 강(姜)-향리로 왔는데 어디서 온지는 모른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같음	현 : 함평읍 일부, 손불, 신광, 대동면 지역
모 평 현 牟 平 縣	토성 : 3. 오(吳).정(鄭).모(牟) 속성 : 1. 김(金)-향리 망성(亡姓) : 1. 갈(鵞)-일부는 창 (瑯). 일부는 창(昌)으로 바꿈	토성 : 4. 오. 정. 모. 갈 속성 : 1. 김	현 : 해보, 나산, 월야면 지역
영 풍 향 永 豐 鄉	토성 : 4. 유(兪).이(李).박(朴) 정(鄭) 망성 : 1. 정(丁)	토성 : 5 유. 이 . 박 정(鄭). 정(程)	현 : 함평읍 성남, 자풍 만흥, 장교, 옥산 가동, 석성, 장년리
해 제 현 海 際 縣	토성 : 5. 노(盧).이(李).반(潘) 양(陽). 신(申)	토성 : 5. 노. 이. 반. 양. 신 내성(來姓) : 2. 임(任).최(崔)	현 : 무안군 해제면
다경부곡 多慶部曲	망성 : 2. 유(兪). 윤(尹)	토성 : 2. 유. 윤	현 : 무안군 현경면

해제현과 다경부곡은 1906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안군에 이속된 곳이지만 500여년이 넘게 함평군에 속해 있었으므로 함평군의 토박이 성을 알아보는 데는 같이 포함시켜야 하는 지역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편찬할 때 세종실록 지리지를 참고하였고 지리지는 고려시대 이래의 구문서(舊文書)를 근거로 하였다는 학설이 있어 여기서의 토성은 고려때부터의 토성임을 알 수 있다.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본관별 조사통계에 따르면 현재 함평을 본관으로 쓰고 있는 성씨는 22개 본관이다.

곽(郭) : 35가구·· 173명	김(金) : 223가구·· 943명
노(魯) : 6,125가구·· 25,582명	노(盧) : 67가구·· 278명
모(牟) : 3,656가구·· 15,539명	문(文) : 158가구·· 850명
박(朴) : 60가구·· 312명	서(徐) : 5가구·· 36명
신(申) : 18가구·· 108명	오(吳) : 747가구·· 3,282명
유(柳) : 27가구·· 151명	윤(尹) : 198가구·· 910명
이(李) : 26,263가구·· 110,855명	임(任) : 25가구·· 116명
장(張) : 23가구·· 107명	전(全) : 18가구·· 70명
정(程) : 5가구·· 24명	정(鄭) : 1,462가구·· 6,425명
조(趙) : 44가구·· 203명	조(曹) : 22가구·· 125명
최(崔) : 37가구·· 190명	함(咸) : 20가구·· 104명

이들 성씨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성과 비교해 볼 때 지리지와 승람에 기재된 성씨 중 지금까지 함평을 본관으로 쓰고 있지 않은 성씨는 공(孔)·갈(鵞)·유(兪)·반

(潘)·양(楊)·신(辛)·강(姜)씨의 7개 성씨며 지리지나 승람에 기재되지 않은 성씨로 함평을 본관으로 답한 성씨는 신(申)·서(徐)·함(咸)·전(全)·조(趙)·조(曹)·장(張)·곽(郭)·유(柳)씨의 10개 성씨다.

1985년 조사 당시 응답자가 무식하여 자기 본관을 모르고 자기 출생지를 본관으로 답한다거나 무관심 속에서 그저 자기 살던 곳을 본관이라고 응답하여 통계에 잡힌 본관이 허다하다는 지적도 있고, 이 지적에 대해 수궁이 가지만 1985년 조사가 우리 나라 본관 성씨 조사로는 그 규모나 조사 내용에 있어 이를 넘을 만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함평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의 시조와 문벌을 찾기 위해 여러 해 애를 썼으나 아직도 많은 성씨를 조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함평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의 개략을 적어본다.

1. 시조가 확인된 성씨

1) 함평노(魯)씨

노씨의 본관은 문헌에 64개 본이라 되어 있으나 1985년 11월 1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조사된 본관을 보면, 함평 6,125가구, 강화 3,248가구, 광주 2,689가구, 밀양 423가구, 경주 149가구, 진주 67가구, 함흥 36가구, 만경 21가구, 함흥 20가구, 충주 19가구, 고환 18가구, 규환 15가구, 광만 5가구인데 100가구미만의 노씨는 조사 당시 응답자의 불성실함과 무식에 기인한 통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노씨는 본래 중국 주(周)나라 때 백이(伯夷)가 노(魯)에 봉해지므로 하여 후에 후손들이 성을 "魯"로 하였다고 하며, 기자(箕子)가 동으로 올 때 노계(魯啓)가 8백 의사와 함께 이 땅에 왔으며, 강화도(江華島)에 정착하여 강화노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지만 강화노씨의 보첩에 기록된 인물로 고려사에 나오는 사람은 장(璋) 뿐으로 전해오는 문헌이 없어 혈연과 계보 등을 알아볼 수가 없다.

장은 고려 명종 4년(1174)에 도관 원외랑(都官員外郎)으로 금나라에 갔던 사신의 한 사람이다.

함평(본래 함풍-咸豐)노씨는 보첩에 강화노씨에서 분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시조 목(穆)의 상대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강화노씨 유(唯)의 행장에 "삼중대광도첨의 금자광록대부 상서좌복야(三重大匡都僉議金紫光祿大夫尙書左僕射)를 지냈으며, 묘소는 광주 초부 성림동(廣州草富成林洞)에 있으며 묘갈이 있다. 만성보(萬姓譜)에 의하면 학사공 충국(學士公忠國)으로부터 복야공 유(僕射公唯)에 이르기까지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유의 아들이 함평노씨의 시조로 되어 있으나 이는 후일에 다시 널리 조사 연구해야 할 일이다." 라고 부연하고 있다.

시조 목은 삼가현감(三嘉縣監)을 역임했으며 고려 인종(仁宗, 재위 1123~1146) 때에 이자겸(李資謙)의 난(1126)을 평정한 공으로 공신록(임진왜란 때 분실했다고 함)에 오르고 함평군에 봉해졌으



며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렀다고 하니 인종 전후에 걸쳐 생존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함평이씨 보첩에 고려 성종(成宗, 재위 981~997) 목종(穆宗, 재위 997~1009) 전후의 인물로 추산되는 함평이씨 3세손 상문(尙文)의 아내가 정조호장(正朝戶長)을 지낸 함풍노씨 용신(龍臣)의 딸로 기록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용신은 고려왕실이 강화로 쫓길 때 공을 세운 강화노씨(江華魯氏)의 중시조로, 따라서 함평이씨의 보첩에 기록된 함평노씨를 강화노씨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함평노씨는 목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함풍이라 했으나 그 후손이 바로 함풍에 정착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시조 목이 함풍군에 봉작되고 또 4세 관도(貫道)가 함풍군에 봉작되었으며 7세 신(愼, 처음 이름 철-哲, 1336년생)이 음사로 감무(監務, 조선조 현감에 해당하는 관직)가 된 후 공민왕 8년(1359)에 흥건적을 물리친 공으로 1등공신으로 함풍군에 봉작되는 등 함평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9세 창문(彰文)은 부인이 나주 손(孫)씨고, 딸은 당대 전라도 서남부의 명문으로 등장한 광산김씨 김심(金深, 주정-周鼎의 아들)에게 출가시켜 아들 김승사(金承嗣)가 도원수가 되는 등 전라도와 깊은 인척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함평의 정착 기록은 신에게서부터 나오고 있다.

조선왕조가 개국하자 역성 혁명에 불만을 품은 신이 40명의 동지와 함께 보봉산(寶鳳山) 아래서 두문불출하다가 채읍인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지변(月岳里池邊)으로 내려와 원래의 이름 "철(哲)"을 "신(愼)"으로 고쳐 "신종(愼終)"의 뜻을 표시했고 처음의 호인 "귀은(歸隱)"을 "악은(岳隱)"으로 고쳐 송악(松岳)을 잊지 않으려고 했으며 매월에 한 번씩 송도 쪽을 향해 곡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함평노씨가 월야면의 월악에서 전국 여러 곳으로 퍼져나간 큰 줄기를 보첩에 의해 알아보면 시조 목으로부터 6세손 여희(汝姬)까지는 독자로 내려왔고 7세손 신이 세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 성안은 기장현감(機張縣監, 현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지냈으며, 그의 손을 "나주파(羅州派)"라고 부르는데 성안의 외아들 세기(世麒)가 나주시 문평으로 옮겨갔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의 후손이 나주시 문평면, 다시면, 노안면 일대에 퍼져 살고 있다

성균관 생원을 지낸 둘째 아들 희안의 묘가 당시 무안현 금동면(金洞面, 현 함평군 대동면 마당-馬塘, 현재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는 복천리-伏泉里-일원)에 있으며 그 후손을 "무안파(務安派)"라 부르고 있고 그 후손이 주로 함평군 학교면과 대동면, 무안군 해제면에 살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 사헌부 집의 등의 벼슬을 한 셋째 아들 유안의 묘가 월야면 월악리에 있으며 그의 후손을 "함평파(咸平派)"라 하는데 진주정(鄭)씨 함평 입향조며 함종현감(咸從縣監)을 지낸 정함도(鄭咸道)를 사위로 맞고, 함평이씨 효우공파조 이접(李摺)을 손녀사위로 맞는 것을 보아 이때는 이미 명실공히 함평의 명문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유안의 후손들은 함평읍 진양리와 대동면 운교리, 신광면 유천리, 월야면에 많이 살고 있다.

시조의 11세손이며 함평파인 생원 사주(思周, 정랑 안충-安忠-의 아들)가 화순군 능주로 이거하여 그 후손이 화순군에 퍼져 살며, 시조의 11세손이고 역시 함평파인 생원사관(思寬, 장사랑 안서-安恕의 아들)이 영암군 금정면으로 이거 정착했다.

시조의 17세손이며 함평파인 응상(應上, 동원-東元의 아들, 권-權-의 현손)이 임진왜란때 대동면 운교리에서 거금도(居金島, 현 고흥군 금산면-鎭山面)로 피란을 갔다가 그곳에 정착하여 그 후손이 고흥군내에 퍼져 살게 되었다.

시조의 12세손인 무안파인 돈효(敦孝)가 세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 세홍(世弘)이 전북 고창으로 이거하여 그 후손이 전북에 퍼졌고, 넷째 아들 세평(世宏)이 나주시 동강면으로 이거하여 손이 번성하였다.

시조의 18세손이며 무안파인 중림찰방(重林察訪)을 지낸 유성(有聖)이 대동면 향교리 고시에 서 해제면으로 이거 정착하였고, 그의 큰아들 주백(周伯)의 둘째 아들 한(漢, 시조의 20세손, 1667년생, 아내 진주강씨)과 셋째 아들 해(海, 1669년생, 아내 여양박씨·밀양박씨)가 1701년 무안의 해제면에서 경남 초계군 백암면 다현동(현 의령군 청계-淸溪)으로 이거하여 그 후손이 경남 일대에 퍼져 살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평노씨의 함평 정착은 고려말로부터 조선조 초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조 목, 4세 관도, 7세 신이 연이어 함평군에 봉해지는 것을 보면 함평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고려 명종 때 무신정변(武臣政變)을 맞아 현존하는 우리나라 성씨가 많이 생긴 것을 생각할 때 이 집안도 같은 경로를 밟았으며 명종 2년(1172)에 함평에 중앙관인 감무를 배치한 후 이 집안의 한 사람이 함평의 감무가 아니었을까하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이 추측에 따른다면 2세 몽필(夢弼)은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 3세 인후(仁厚)는 문과급제, 4세 관도는 함평군 봉작, 5세 창문의 진라도 혈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세 몽필이 정변에 참여한 무장(武將)을 감무로 배치했던 점과 또 시기적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인물일 것으로 생각되나 전하는 기록이 없어 확증하기 어렵다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함평노씨는 전국적으로 6,125가구 25,582명이며 함평군에는 362가구 1,388명이 살고있고 군내 본관별 씨족 순위 11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군내에서는 학교면 복천리·마산리·죽정리, 함평읍 진양리, 신광면 유천리, 대동면 금곡리·운교리, 월야면 월악리 등에 자작일촌을 이루는 마을이 있으며 함평군 이외의 지역으로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전남 나주시 : 문평면 동원리 등 군내에 75가구 306명
- 무안군 : 해제면 대사리 등 군내에 198가구 785명
- 영광군 : 126가구 522명
- 영암군 : 서호면 방풍리 등 군내에 62가구 231명
- 장흥군 : 57가구 253명
- 화순군 : 이양면 춘양면 등 군내에 34가구 138명
- 전북 고창군 : 상하면 장호리 성내면 등 군내에 209가구 891명
- 김제군 : 백구면 반월리 등 군내에 63가구 249명
- 경남 의령군 : 봉수면 등 군내에 44가구 173명
- 경북 성주군 : 선남면 등 군내에 207가구 724명

함평노씨의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조사자료에 의함
 *함평노씨가 1명도 살지 않는 시군
 강원도 동해시·명주군, 충북 옥천군, 경북 영양군, 경남 사천군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6,125	25,582	부산	강서	1	8		동두천	21	88		횡성	1	6
	소계	1,527	8,417		소계	408	1,662		양주	1	12		원성	1	7
서울	종로	49	185	대구	중구	35	129	경기	남양주	17	91	강원	영월	2	8
	중구	29	115		동구	36	157		여주	5	23		평창	1	5
	용산	61	229		서구	206	849		평택	17	63		정선	5	22
	성동	136	574		남구	71	271		화성	15	69		철원	1	11
	동대문	145	615		북구	39	163		시흥	16	66		화천	3	9
	성북	94	387		수성	19	93		파주	14	52		양구	3	12
	도봉	143	833		소계	126	515		고양	25	91		인제	5	17
	은평	69	283		중구	7	24		광주	14	55		고성	1	5
	서대문	66	233	인천	동구	9	37		연천	7	29		양양		2
	마포	90	329		남구	40	187		포천	12	38		삼척	5	19
	강서	72	347		북구	70	267		가평	2	7	충북	소계	43	162
	구로	108	467		소계	54	212		양평	2	14		청주	24	90
	영등포	67	296	대전	동구	22	88		이천	3	20		충주	5	13
	동작	71	320		중구	28	100		용인	7	32		제천	5	17
	관악	112	500		유성	6	24		안성	3	13		청원	1	7
	강남	87	365		소계	589	2,569		김포	4	25		보은	1	8
부산	강동	128	539	광주	동구	120	507		강화	3	9		단양	2	5
	소계	316	1,371		서구	226	1,107		웅진		4		영동	2	4
	중구	7	35		북구	176	747		반월	7	46		진천		1
	서구	16	63		광산	87	298		과천	5	34		괴산		3
	동구	32	125	경기	소계	486	2,039	강원	소계	56	241	충남	음성	1	5
	영도	12	50		수원	42	169		춘천	4	19		증원	2	8
	부산진	49	218		성남	79	313		원주	7	21		제원		3
	동래	67	311		의정부	40	161		강릉	3	15		소계	42	197
	남구	41	174		안양	37	146		태백	7	31		천안	4	21
	북구	45	207		부천	58	224		속초	1	7		금산		2
	해운대	23	87		광명	25	131		춘성	3	16		대덕	1	4
	사하	23	93		송탄	5	15		홍천	1	9		연기	4	12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충남	공주	5	27	전남	소계	1,306	5,339	경북	안동	4	14	경남	창원	9	47
	논산	6	34		목포	131	599		구미	16	82		진해	7	31
	부여		2		여수	36	145		영주	2	5		충무	3	13
	서천	2	9		순천	15	63		영천	1	6		삼천포	2	3
	보령	1	6		나주	15	63		달성	9	60		김해	2	9
	청양	1	6		담양	15	51		군위		2		진양	2	6
	홍성	3	9		곡성	6	29		의성	3	10		의령	44	173
	예산	2	7		구례	1	1		안동	2	9		함안		7
	서산	7	29		광양	2	18		청송		4		창녕	3	15
	당진	2	3		여천	1	18		문경		4		밀양	7	30
	아산	1	11		승주	6	27		영덕	1	5		양산	10	40
	천원	3	15		고흥	25	100		영일	4	15		울주	1	5
전북	소계	594	2,533	전남	보성	2	11	경북	월성	2	6	경남	김해군	3	12
	전주	57	239		화순	34	138		영천군	5	20		의창	3	12
	군산	47	186		장흥	57	253		경산	2	23		통영	2	7
	이리	41	201		강진	10	46		청도		1		거제	7	35
	정주	30	152		해남	11	57		고령	14	54		고성		1
	남원시	1	7		영암	62	231		성주	207	724		남해	3	7
	완주	10	57		무안	198	785		칠곡	27	130		하동	3	10
	진안	3	12		나주군	75	306		금릉	3	10		산청		1
	무주	2	4		함평	262	1,338		성산	4	18		함양	2	8
	장수		2		영광	126	522		성주	2	10		거창	8	32
	임실	1	9		장성	79	322		예천	8	36		합천	12	51
	남원	11	38		완도	5	18		영풍		1	제주	소계	23	92
	순창	11	40		진도	6	14		봉화		3		제주	12	49
	정읍	29	112		신안	19	80		울진	1	5		서귀포	5	22
	고창	209	891		여천	7	34		울릉		2		북제주	4	13
	부안	56	252	경북	소계	336	1,341	경남	소계	221	892		남제주	2	8
	김제	63	249		포항	8	51		울산	44	162				
	옥구	7	20		경주	4	15		마산	30	121				
	익산	16	59		김천	6	17		진주	14	54				



함평에 있는 관련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수존재 (修存齋)	신광면 백운리	종곡(鍾谷), 급(汲)
오사재 (五思齋)	함평읍 진양리 화동	정란(廷鸞)
효자각 (孝自閣)	" " 대진	허(栩)
제 실 (祭 室)	" 장년리	주번(周藩)
유남정 (悠南亭)	학교면 복천리	유태(愔鐸)
효 자 정 러 문	" " 장동	영훈(榮勳)
존경각 (存敬閣)	" " 내동	일유(一儒), 문국(文國)
영모재 (永慕齋)	" " 장동	희명(懷明), 홍(弘), 대성(大成), 대임(大任), 대용(大容)
육영재 (育英齋)	" " 두동	태신(泰臣)
재 각 (齋 閣)	" "	
귀후재 (歸厚齋)	" 고막리	몽호(夢虎)
제 단 (祭 壇)	월야면 월악리	신(愼)
월악정사(月岳精舍)	" "	신
재 각 (齋 閣)	대동면 금곡리	권(權)
영사재 (永思齋)	" 백호리	희안(希顔)
무 재 (無 齋)	" 금곡리 나막	권(權)

배출인물

노 목(魯 穆) : 함평노씨 시조. 이자겸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문하시중에 오르고 함풍군(咸豐君)에 봉작되었다.

노몽필(魯夢弼) : 목의 아들. 고려조에서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를 지냈다

노인후(魯仁厚) : 몽필의 아들 고려조에서 문과에 장원하였고 판예부상서 좌복야(判禮部尙書左僕射)로 은청광광록대부에 올랐다.

노관도(魯貫道) : 인후의 아들 고려조에서 문하시랑평장사에 오르고 함풍군 군봉을 받았다.

노창문(魯彰文) : 관도의 아들. 고려조에서 전객령 밀직사사(典客令密直司事)를 지냈다

노여희(魯汝姬) : 창문의 아들. 고려조에서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보문각 직제학을 지냈다.

노 신(魯 愼) : 1336~? 호 귀은(歸隱) 또는 악은(岳隱). 감무로 출사하였고, 1359년 난, 1363년 김용(金鏞)의 반을 평정한 공으로 1등공신에 오르고 함풍군 군봉을 받았다. 고려가 망하고 월야면 월악으로 내려와 송악을 그리며 여생을 보냈다.

노성안(魯成顔) : 신의 맏아들. 기장현감(機張縣監)을 지냈다.

노희안(魯希顔) : 신의 둘째 아들 성균관 생원을 지냈다.

노유안(魯有顔) : 1374~? 신의 셋째 아들 1398년 문과에 급제하여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냈다.

노세기(魯世麒) : 성안의 아들. 조선조에서 성균관 진사·장악원정(掌樂院正)을 지냈다.

- 노세린(魯世麟) : 회안의 아들.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용강현령(龍岡縣令)을 지냈다.
- 노득평(魯得平) : 유안의 아들. 1419년 문과에 급제하여 의정부 사인(舍人)을 지내다가 단종의 폐위에 불복하고 귀향하여 사인정(舍人亭)을 짓고 단종을 그리며 여생을 보냈다.
- 노안충(魯安忠) : 득평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을 지냈다.
- 노흥의(魯興義) : 시조의 11세손. 공주목사를 지냈다.
- 노흥도(魯興道) : 시조의 11세손. 용양위 대호군을 지냈다.
- 노흥례(魯興禮) : 흥도의 아우. 소강절제사(所江節制使)를 지냈다.
- 노사민(魯思敏) : 안충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정랑을 지냈으며 유안으로부터 4세에 내리 문과에 급제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 노사주(魯思周) : 안충의 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 노사관(魯思寬) : 시조의 11세손.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 노돈효(魯敦孝) : 흥의의 아들. 방어사(防禦使)를 지냈다.
- 노성지(魯誠之) : 흥도의 아들. 성균관 생원을 지냈다.
- 노중손(魯仲孫) : 사민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회령도호부사(會寧都護府使)를 지냈다.
- 노세홍(魯世弘) : 돈효의 아들 이조참의를 지냈다.
- 노회명(魯懷明) : 성지의 아들. 내금위 보공장군 부사과(副司果)를 지냈다.
- 노회성(魯懷誠) : 호 경모재(敬慕齋). 시조의 13세손.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 노 영(魯 榮) : 중손의 아들. 고창훈도(高敞訓導)를 지냈다.
- 노몽호(魯夢虎) : 회명의 아들.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 노희운(魯熙胤) : 호 기호(箕湖). 영의 아들.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 노희찬(魯熙贊) : 1513~1602 호 괴정(槐庭). 영의 아들. 1549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 노팽홍(魯彭鴻) : 호 금곡(錦谷). 시조의 14세손.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 노 홍(魯 弘) : 몽호의 아들. 부장을 지냈다.
- 노 허(魯 栩) : 1545~1581. 희찬의 아들, 효로 1636년 정려가 내려졌다.
- 노 희(魯 喜) : 팽홍의 아들. 호조정랑을 지냈다
- 노철수(魯哲秀) : 1531~1609 호 지은(芝隱). 1607년 어사 한준겸(韓浚謙)이 효로 천거하여 순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불취하였고, 수직으로 첨지중추사에 올랐다.
- 노덕원(魯德元) : 1564~1636 호 무민당(無閔堂). 철수의 아들 임진·정유왜란 때 이순신 휘하에서 한산·노량 싸움에서 크게 전공을 세웠고 이조정랑을 지냈다.
- 노사성(魯思聖) : 1612~1675 호 죽헌(竹軒). 덕원의 아들. 병자호란 때 신성(信聖), 유성(有聖) 두 동생과 함께 창의하였다.
- 노흥국(魯興國) : 시조의 19세손. 통덕랑을 지냈다
- 노계동(魯啓東) : 1691~1754시조의 20세손. 판관을 지냈다.
- 노동삼(魯東三) : 1720~1792 호경재(敬齋). 시조의 21세손. 문학으로 이름 높았고



- 향도에서 천거하여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 노태신(魯泰臣) : 1752~1826 호 옥영재(育英齋). 시조의 22세손. 옥영재를 지어 문중과 지역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온 정성을 쏟았다.
- 노영식(魯榮植) : 1792~1871 호 만회(晩悔). 1867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 노영훈(魯榮勳) : 1807~ 1858 호자 정려가 내려다.
- 노세탁(魯世鐸) : 1810~ 1860 호 기은(箕隱). 효로 동몽교관에 제수 되었다.
- 노영덕(魯榮德) : 1817~1868호 매곡(梅谷) 시조의 24세손. 성균관 생원을 지냈다.
- 노영렬(魯榮烈) : 1832~1876 시조의 24세손. 1892년 호자 정려가 내려다.
- 노형탁(魯亨鐸) : 1879~1909 시조의 26세손 1906~1907년까지 김태원 의병부대에서 공을 세웠고. 1909년 무안군 일로 싸움에서 순국하였다.
- 노기상(魯麒相) : 1843~1912 호 고산(高山). 시조의 26세손. 돈녕부 도정(都正)을 지냈다 김해김씨(金海金氏):1856~1941 노연복(1825~1889. 시조의 25세손)의 아내로 함평향교모성공회에서 열부비를 세우게 하였다
- 노학탁(魯學鐸) : 1856~1913 호자로 향도의 천장을 받았다.
- 노봉근(魯封根) : 1891~1962 호 죽계(竹溪). 시조의 26세손 서당을 열어 후학 양성에 힘을 썼고 제자들이 문집을 발간하였다.
- 노민표(魯玟杓) : 1892~1950. 호 강재(綱齋). 성명학(性命學)에 밝았고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어 수학하였다.
- 노선표(魯璿杓) : 1902~1946 호 용암(庸菴). 시조의 26세손. 예서(隸書)에 능했으며 유필이 호남 각처에 전한다.
- 노숙표(魯璿杓) : 1905~1972 호 도퇴(陶退). 시조의 26세손. 예서에 능했으며 호남 각처에 유필이 전 한다
- 노상근(魯相根) : 1932. 8. 14호 남파(南坡) 광주 대신건설 사장 역임
- 노상룡(魯相龍) : 1932. 9. 17 시조의 26세손. 농수산부 농업통계사무소장 역임하였다
- 노경상(魯卿相) : 1948. 8. 17 호 포마(浦馬). 시조의 26세손. 한국화 화가. 1987년 한국미술대전에서 특선. 전라남도·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노광수(魯匡洙) : 1874~1935 호 정암(正菴). 시조의 27세손. 1906~1907년까지 의병진에 가담하여 항일운동을 하였다.
- 노지수(魯智洙) : 1885~1962호 해몽(海夢). 시조의 27세손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노기수(魯基洙) : 1885~1944 호 송호(松湖). 시조의 27세손. 일제강점기에 학교면장을 지냈다.
- 노익수(魯益洙) : 1903. 12. 29 호 금사(錦沙). 시조의 27세손. 목포시 호적과장을 지냈다.
- 노준수(魯峻洙) : 1921. 2. 16 호 학포(學圃). 시조의 27세손. 조흥은행 서울 및 5개 도시 지점장을 지냈고 화천기공(貸泉機工)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 노남수(魯南洙) : 1927. 1. 11 호 남파(南波). 시조의 27세손. 위술사령부 문관·과장을 지냈다.

- 노병설(魯炳僎) : 1927. 8. 19 호 남창(南蒼). 숙표의 맏아들. 광주 전주 청주 지방법원 사무국장을 지냈다.
- 노봉수(魯鳳洙) : 1927. 9. 16 시조의 27세손 함평노씨대종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 노경춘(魯炅春) : 1933 7. 27 시조의 27세손. 육군 소령 예편. 포항제철 운송 부장 역임
- 노병룡(魯炳龍) : 1935 11. 5 시조의 27세손. 인하대학교 교수
- 노홍수(善洪洙) : 1936. 12. 3 시조의 27세손. 전매청 기좌 역임
- 노강수(魯康洙) : 1937 7. 23 시조의 27세손. 전남도청 여성국 가정복지계장 등을 역임했다.
- 노승행(急勝行) : 1939. 12. 20 호 몽룡(夢龍) 시조의 27세손 광주검찰청장을 지냈고 변호사업을 하고 있다.
- 노승길(魯勝吉) : 호 성재(省齋). 시조의 27세손. 전라남도농업진흥원장을 역임하였다.
- 노승재(魯勝在) : 1944. 3. 11 시조의 27세손. 조선대학교 교수
- 노병유(魯炳裕) : 1944. 8. 14시조의 27세손. 기독교방송국 보도부장을 역임하였다.
- 노병숙(魯炳淑) : 1945. 2. 4 숙표의 셋째 아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총무소장을 역임했다
- 노영남(魯英男) : 1945. 10 .3 시조의 27세손. 인천광역시 북구청 세무과장을 역임하였다
- 노방수(魯芳洙) : 1945. 10. 10 시조의 27세손. 의학박사. 내과전문의.
- 노군수(魯窘洙) : 1946, 8. 28시조의 27세손. 고려시멘트 품질관리과장을 지냈다.
- 노창수(魯昌洙) : 1947. 11. 15 시조의 27세손. 문학박사. 평론가.
- 노영대(魯榮大) : 1953. 9, 8 시조의 27세손. 제 2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역임
- 노병한(魯炳漢) : 1954. 12. 5 시조의 27세손 호 월영(月影). 지역개발 박사.
- 노생수(魯生洙) : 1956. 5. 26 시조의 27세손. 한라그룹 과장 역임
- 노인수(魯仁洙) : 1956. 11. 2 시조의 27세손. 제 24회 행정고시, 제 27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고, 부장검사 역임 현재 변호사 개업
- 노반영(魯飯榮) : 1957. 6. 21 시조의 27세손. 목포대학교 교수.
- 노영기(魯英琦) . 1959. 3. 19 시조의 27세손. 문리학 박사. 교도관 재직.
- 노영길(魯英吉) : 1960, 12. 2 시조의 27세손. 금호그룹 인사과장 역임
- 노후근(魯厚根) : 1909~1978 시조의 28세손 호 지은(芝隱). 일제강점기에 함평군청 과장을 지냈다.
- 노근후(魯根厚) : 1909~작고. 호 을산(乙山). 시조의 28세손. 독서회원으로서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했고, 학다리중앙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노윤근(魯潤根) : 1915. 1. 17 호 남강(南岡). 시조의 28세손. 학교면의회 의장을 지냈다
- 노인숙(魯仁塾) : 1915. 4. 12 호 만계(晩溪). 시조의 28세손. 여러 군의 농산물검사소 출장소장을 지냈다.
- 노연근(魯璉根) : 1917. 8. 28 호 향포(香圃) 시조의 28세손. 농림부 통계사, 우체국장을 지냈다.
- 노봉근(魯奉根) : 1919. 9. 29 호 청포(淸浦) 시조의 28세손. 학교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노근선(魯根璇) : 1920.~1979 시조의 28세손 재일거류민단 강산현(岡山縣)단장을 역임하였고 귀국 후 고향발전에 힘씀
- 노예근(魯禮根) : 1923. 8. 12~작고. 시조의 28세손 여러 군의 재무과장을 역임하였다.
- 노종기(魯宗基) : 1924. 2. 24 호 송정(松亭) 시조의 28세손. 학다리중앙초등학교등 교장을 지냈다.
- 노부근(魯富根) : 1925. 4. 26시조의 28세손 광주시 산수동장을 지냈다.
- 노창규(魯昌奎) : 1925. 6. 15 시조의 28세손.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노인근(魯仁根) : 1928. 3. 17 호 강파(崗波) 시조의 28세손.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노운숙(魯允塾) : 1928, 11. 12 호 송악(松岳) 시조의 28세손. 서울신문광주지사장을 지냈다.
- 노광숙(魯洗塾) : 1930. 9. 29 호 인산(仁山). 시조의 28세손 함평군신용협동조합이사장 역임
- 노민식(魯敏植) : 1932. 3. 16 호 혜천(慧泉). 시조의 28세손.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아내 임온순(林溫順)이 1984년 대한노인회 효부상을 받았다.
- 노근열(魯根烈) : 1934. 7. 28 호 호당(豪堂). 시조의 28세손 약학박사 광주에서 남영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 노흥숙(魯興塾) : 1937. 4. 10 호 송암(松菴). 시조의 28세손. 남양주시 공보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 노삼근(魯三根) : 1937. 5 30 시조의 28세손. 경감으로 퇴직하였다.
- 노삼영(魯三英) : 1940. 1. 10 호 경암(敬菴). 시조의 28세손. 학교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노평근(魯平根) : 1941. 3. 29 시조의 28세손. 전자공학 박사
- 노우정(魯祐征) : 1942. 9. 17 시조의 28세손 육군 소령 예편
- 노찬숙(魯贊塾) : 1944. 2. 27 시조의 28세손. 육군 중령 복무 중.
- 노근안(魯根安) : 1948. 6. 23 시조의 28세손. 극동정치연구원 사무관으로 재직하고있다
- 노철근(魯哲根) : 1948. 7. 26 시조의 28세손. 농협중앙회 광주대인동 지점장 역임.
- 노금노(魯金廬) : 1949. 10. 26 시조의 28세손. 제 2대 함평군의원을 지냈다.
- 노차근(魯且根) : 1951. 1. 7 시조의 28세손. 인천광역시 북구청 세무과장 역임
- 노원근(魯元根) : 1951. 10. 5 시조의 28세손. 기업은행 차장 역임
- 노두근(魯斗根) : 1952. 3. 21 시조의 28세손. 함평군청 과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 노동규(魯東圭) : 1956 1. 13시조의 28세손. 전남대학교 대학병원 외과전문의로 있다.
- 노희근(魯熙根) : 1960. 4. 13 시조의 28세손. 박사
- 노형규(魯煥圭) : 1960. 6. 30 시조의 28세손. 경제학 박사
- 노강규(魯岡圭) : 1963. 4. 4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있다.
- 노정연(魯貞妍) : 1967 2. 6 승행의 딸.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경기도 성남지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 노혁준(魯赫俊) : 1970. 8. 9 승행의 맏아들. 사법고시에 합격하였고 군 복무중이다.
- 노만진(魯萬進) : 1921. 9. 3 시조의 29세손. 학교면장·학교면의회 의장을 지냈다.

- 박정순(朴貞順) : 1927. 1. 23 노철환(魯喆煥, 시조의 29세손)의 아내. 효부로 1983년 도의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노만인(魯萬仁) : 1930. 6. 4 호 휘당(徽堂) 시조의 29세손. 수의학 박사. 남평에서 금성동물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 노국환(魯國煥) : 1932. 6. 10 호 송정(松亭). 시조의 29세손 광주광역시에서 사무관을 지냈다.
- 노갑문(魯甲文) : 1936. 4. 16 시조의 29세손.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을 역임하였다.
- 노갑중(魯甲中) : 1937. 7. 8 시조의 29세손. 공학박사 수원시 소재 공간건축사무소소장으로 있다.
- 노갑진(魯甲珍) : 1942. 9. 2시조의 29세손. 약학박사 광주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 노갑부(魯甲富) : 1945. 7. 8시조의 29세손. 동양의료기기회사 사장으로 있다.
- 노갑호(魯甲好) : 1945. 12. 26 시조의 29세손. 이학박사
- 노형갑(魯亨甲) : 1946. 7. 24시조의 29세손 약학박사
- 노용희(魯龍熹) : 1946. 8. 19시조의 29세손. 경제학박사. 제일방송 이사직에 있다
- 노만형(魯萬馨) : 1946. 12. 8. 시조의 29세손. 화순우체국장 역임
- 노행환(魯幸煥) : 1947. 1. 5시조의 29세손. 육군 대령을 지냈다.
- 노동환(魯東煥) : 1947. 11. 13 시조의 29세손 경제학박사. 축협 전남양돈협회감사 역임
- 노진곤(魯鎭坤) : 1949. 1. 2 종기의 아들. 법학박사. 송원대학 교수
- 노정환(魯禎煥) : 1949. 4. 9시조의 29세손. 이학박사. 교수
- 노승희(魯承熙) : 1949. 10. 9 시조의 29세손. 제일은행 광주지점 차장 역임
- 노장갑(魯章甲) : 1950. 2. 3 연근의 아들. 공군 중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노갑수(魯甲洙) : 1950. 4. 10시조의 29세손. 공학박사. 쌍용그룹연구소 근무.
- 노한진(魯翰鎭) : 1950. 6. 26시조의 29세손. 은행 차장 역임
- 노명환(魯明煥) : 1952. 5. 18시조의 29세손. 박사. 교수
- 노갑순(魯甲淳) : 1952. 5. 20시조의 29세손. 육군 대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노진환(魯振煥) : 1952. 8. 7 시조의 29세손. 지질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 노재원(魯宰源) : 1952. 9. 2 시조의 29세손. 의학박사. 내과전문의. 광주시내에서 내과병원을 개업하고 있다.
- 노완석(魯琬錫) : 1953. 1. 1 시조의 29세손. 천주교광주교구청 교육국장 역임
- 노만석(魯萬碩) : 1953. 3. 4시조의 29세손. 고려증권 차장 역임
- 노만상(魯萬尙) : 1954. 7. 20 시조의 29세손. 토지개발공사 목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노필성(魯畢省) : 1957. 4. 7 시조의 29세손. 해군 중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노 준(魯 俊) : 1957. 8. 15 시조의 29세손. 의사. 장성보건소장 등 역임
- 노승담(魯承潭) : 1957. 8. 24시조의 29세손. 해군 중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노석홍(魯錫洪) : 1958. 9. 24 시조의 29세손. 기아산업 엔진연구과 대표 역임



- 노윤갑(魯允甲) : 1959. 9. 4시조의 29세손. 한국방송공사 연출가로 근무하고 있다
- 노준갑(魯準甲) : 1962. 6. 10 시조의 29세손. 공군 중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노재호(魯宰昊) : 1962. 9. 27 시조의 29세손. 경감으로 재임하고 있다.
- 노갑석(魯甲錫) : 1963. 2. 2 일명 경선(旻宣) 시조의 29세손. 1982. 8. 7 세계주니어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 노창욱(魯昌旭) : 1947. 1. 30시조의 30세손. 경제학박사 경기대학교 교수
- 노종구(魯宗九) : 1948. 5. 10 시조의 30세손. 공학박사. 농업진흥공사 과장 역임
- 노영구(魯永九) : 1949. 11. 18 시조의 30세손. 1970. 8. 30 무공훈장 받음
- 노광을(魯光乙) : 1952. 9. 28 시조의 30세손. 경기도 성남시에서 노광을산부인과의원을 경영하고 있다
- 노몽구(魯夢九) : 1953. 1. 15 시조의 30세손. 베르린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취득후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 노경광(魯旻光) : 1971. 6. 1 시조의 30세손. 문학박사. 조선대학교 근무
- 노봉오(魯鳳五) : 1946. 9. 5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2) 함평모(咸平牟)씨

문헌비고에는 모평(牟平), 영평(永平 남평-南平) 기성(箕城. 함풍의 별호), 함풍(咸豐), 무안(務安)모씨가 나오지만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조사한 전국의 본관별 씨족 집계에서는 함평 3,656가구, 15,539명과 진주 29가구 129명 2개 본으로 나와 있는데 진주에는 함평 모씨 순(恂)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 응답자의 무성의와 무식으로 인한 집계로 보면 모(牟)씨는 함평 단일본(單一本)이다.

문헌 비고의 모친과 기성 함풍은 모두 함평군 지명이고 무안과 영평은 인근 지역으로 모두 함평으로 합본한 것 같다.

함평모씨는 함평군 본관별 씨족 중 22위로 200여 가구, 1천여 명이 살고 있다.

시조는 경(慶)이며 중국 관서(關西)의 홍농(弘農) 사람으로 송나라 흠종(欽宗. 재위 1125~1127) 때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내고 대사마 대장군(大司馬, 大將軍)에 올랐다

고려 인종 4년(1126)년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을 때 사신으로 고려에 와서 난을 평정하는데 힘써 1등공신에 서훈되었으며 이 무렵 금(金)나라 군대가 송(宋)의 서울에 침입하였으므로 귀국할 길이 막혀 고려에 머물러 살게 되었으며 모평군(牟平君. 함평의 옛 지명 모평현)이란 작위와 평장사(平章事)라는 직첩을 받았고 묘가 현재는 실전이나 기록에는 모평의 임천산(林泉山) 간좌원(艮坐原)에 있다고 되어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함평모씨는 시조 때부터 현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모평(옛 모평현 치소) 일대에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6세 여장(汝長. 1265~1343), 7세 호(皓)가 평장사를 지냈다고 보첩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평에서 서쪽으로 1.5km 가량 떨어진 나산면 우치리에 평장동(平章洞)이란 마을이 있는데 지명

의 유래가 고려 때 평장사를 배출한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함평모씨의 세거지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기록과 전설이 부합되는 점으로 미루어 함평모씨의 최초 정착지는 우치리 평장동을 중심으로 한 인근 모평 일대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조의 10세손 순(恂. 1373~1459)이 아들 둘을 두었는데 익천(諡阡. 1392~1478)은 함평에 살았고, 수천(秀阡)은 경남 진양에 살아 그 손이 함평과 진양에서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모평에서 세거하던 익천의 후손들은 조선조에 이르러 새로 이주한 파평윤씨의 세에 몰려 새 터 자리를 찾아 떠나야했다.

그 새 터 자리가 족보상에 15세손 난(蘭. 1469~1545)이 개촌했다는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 마을과 난의 아우 인(蘭)의 손자인 학영(鶴泳. 시조의 17세손. 1529~1605)이 정착한 대동면 향교리다.

학영의 증손 응록(應祿. 시조의 20세손. 1599~1682)이 신평면 월암리 연천으로 옮겨 살았고 그 후손이 다시 덕천리에 정착하여 세거하였으며, 난의 6세손 세빈(世彬. 1630~1693)이 외대화에서 손불면 양재리 모랑에 이거하여 그 후손이 지금도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군외로 떠난 익촌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인의 둘째아들 경직(敬直. 1513~1604. 시조의 16세손)이 교동수사(喬洞水使)로 지내다가 충남 홍주(洪州)로 귀양가 귀양지에서 정착하여 그 후손이 번성하였고, 또 셋째아들 효원(孝元. 1516~1567)이 충남 서산군으로 이거하여 정착하였으며, 난의 증손 한룡(漢龍. 진서-進瑞-의 손자. 시조의 18세손)이 임진왜란을 피해 신안군 고이도(古耳島)로 피란하여 정착하였고, 그 후손이 영광, 무안군에 퍼졌으며, 학영의 손자며 임란공신 정(禎)의 셋째아들인 극심(克謹. 시조의 19세손)이 1600년대경 충북 청주로 옮겨 문과 급제자가 연이어 배출되는 등 후손이 크게 번성하였다.

시조의 21세손 중 신천(信天. 1677~1725. 세빈의 셋째아들)이 영광군 군남면으로, 또 관천(寬天. 1666~1713. 세명-世明-의 아들)이 나주시 남평읍으로, 방천(芳天. 1698~?. 세만-世萬-의 아들)이 무안군 망운면으로 이거 정착하였으며, 시조의 '21세손 상삼(尙三. 1692~?. 연수-彦守-의 아들)이 보성군 도촌면으로 옮겨갔다.

오늘날 군내에서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거나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신평면 삼덕리 덕천·좌야, 손불면 양재리 모랑, 함평읍 수호리며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 오산을 비롯 도내에 466가구, 1,917명

충 남 : 홍성군 홍성읍, 서산군을 비롯하여 도내에 232가구 1,071명

경 남 : 진주시와 진양군을 비롯 도내에 189가구 805명,

전 북 : 장수군 산서면 건지리 남원을 비롯하여 도내에 350가구 1,597명

전 남 : 함평군과 무안군을 비롯 도내에 756가구 3,255명이다.

이러한 이동과 성쇠과정에 따라 시조로부터 6세까지의 묘는 실전 되었고3) 7세 호(皓. 1265~?)의 묘가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마감산에 있으며 그의 현손 순(해보면 상곡리출신)의 묘가 경남 진양군 사봉면 등건리(登乾里)에 있다. 여기에 부기(附記)해 두고자하는 것은 김정호(金井昊)의 흥미 있는 제언이다.



"이 집안은 경상도로 옮긴 자손과 전남북 서부를 중심으로 사는 수가 거의 같은 수효를 보이고 있다.

"옛날 성(姓)이 출신 지역의 이름이었음을 생각할 때 고창(高敞)의 백제 이름이 모양부리(毛良夫里)라고 이두식으로 표기했던 점, 그 고을의 마한 때 부족국가 이름은 모노비리(牟盧卑離)였을 것이라는 점 등과 관련해 현존한 모씨들이 주로 토반세력으로 살았던 모평과 인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 「예향」 1987. 7월호. 192쪽

모평현의 치소였던 모평 마을과 인접한 금계리 구수동과 월현에 24기, 산내리 한글과 노적에 27기, 상곡리 운곡에 21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고 모평의 남서쪽 1.5km 지점인 나산면 초포리 사촌의 돌널무덤에서 1987년 2월에 청동기시대 유물 26점을 발굴한 사실과 이 일대에 무수히 독무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곳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고 고창에 비정하고 있는 모노비리와 아직 정확히 위치비정을 못하고 있는 모수국(牟水國)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모평의 고려 때 별호가 모양(牟陽)인데 고창의 읍성을 모양성(牟陽城)이라고 한 점도 연구해야 할 과제며 중국 산동의 모평현(牟平縣)과 임치(臨淄), 모산(牟山), 홍농(弘農) 등 우리와 수없이 일치하는 중국의 지명과 백제의 요서 점거, 장보고의 신라방(新羅坊) 설치 등 우리 전남의 서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문점도 풀어야하며 이 의문점이 풀릴 때 함평모씨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함평에 있는 관련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덕 천 사(德 川 祠)	신광면 삼덕리 덕천	창설 : 1947년 주벽 : 모순(牟恂). 배위 : 모유추(牟有秋)
금석당 영당(金石堂 影堂)	"	창건 : 1758년 중건 : 1886년 모유추의 영정을 모신 당
의 동 정 사(義 洞 精 舍)	"	
석 옹 루(石 翁 樓)	" 좌야	모일성(牟一成)
수 정 재(守 靜 齋)	손불면 양재리 모량	모세택(牟世澤)
효 열 각(孝 烈 閣)	"	
수 연 재(水 蓮 齋)	엄다면 화양리	모익룡(牟翼龍). 모세무(牟世茂) 모세번(牟世蕃). 모윤천(牟潤天)
삼 강 문(三 綱 門)	함평읍 성남리	



함평모씨의 전국 분포

시 도	가 호	인 구	시 도	가 호	인 구	시 도	가 호	인 구
전 국	3,656	15,539	광주·전남	756	3,255	전 북	350	1,597
서 울	946	3,837	경 기	466	1,917	경 북	158	708
부 산	172	741	강 원	34	147	경 남	189	805
대 구	72	287	충 북	91	392	제 주	21	89
인 천	169	693	충 남	392	1,071			

배출인물

모 경(牟 慶) : ?~1143 송나라 원부(元符) 때(1098~1100) 병부상서로 호북경서 선무사(湖北京西宣撫使)를 지냈고, 고려 인종 때 귀화하여 인종(仁宗)의 부마(駙馬)가 되었다. 함평모씨의 시조.

모광정(牟光旌) : 시조 경의 아들. 115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평장사를 지냄

모정린(牟挺麟) : 광정의 아들. 1182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삼중대광 보국광록대부 문하시중에 올랐다.

모원기(牟元機) : 정린의 아들. 1215년에 진사, 이어 문과에 급제하여 평장사를 역임 하였다

모진로(牟震老) : 원기의 아들 1241년 문과에 급제하여 시중을 지냈다

모여장(牟汝長) : 진로의 아들 1274년 문과에 급제하여 평장사를 지냈다.

모 호(牟 皓) : 여장의 아들 1306년 문과에 급제하여 평장사를 지냈다.

모시영(牟時靈) : 호의 맏아들. 1335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전서·평장사를 지냈다.

모시경(牟時敬) : 호의 둘째 아들. 135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영동정(令同正)을 지냈다.

모세택(牟世澤) : ?~1418 호 송암(松菴). 시영의 아들. 1360년 문과에 급제하여 군기시 첨정을 지냈으며 고려가 망하자 임천산(林泉山, 모평의 뒷산)에 내려와 은거하였다.

모 순(牟 恂) : 1373~1459 호 절강(截江). 세택의 맏아들 1417년 문과에 급제하여 대마도 체찰부사·수판사재감사(守判司宰監事)를 지냈다.

모익천(牟諡阡) : 1392~1478 호 월탄(月灘). 순의 아들 1412년 문과에 급제하여 좌찬성을 지냈다.

모수천(牟秀阡) : 호 지정재(止靜齋). 순의 아들 1430년에 성균관 진사가 되어 첨정을 지냈다.

모 규(牟 珪) : 1414~1481 익천의 아들. 1432년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다.

모수진(牟受璉) : 1429~1492 호 석정(石汀). 규의 아들. 1460년 문과에 급제하여 순천·안주 목사를 지냈다.

모방양(牟方良) : 1446~? 호 침락(攄樂). 수진의 맏아들. 1470년 성균관 진사에 입격하였다.



모방선(牟方善) : 수진의 둘째 아들 1480년 성균관 진사에 입격하였다.

모방익(牟方益) : 1454~1516 수진의 셋째 아들. 1474년 성균관진사에 입격하였다.

모 형(牟亨) : 방선의 아들 1514년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에 올랐다.

모 인(牟 蘭) : 1482~1544 호 죽계(竹溪). 방익의 아들. 151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판윤을 지냈다.

모진권(牟進勸) : 1501~1587 호 운곡(雲谷). 시조의 16세손. 1541년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모웅걸(牟雄傑) : 형의 아들. 명종조에 정자(正字)를 지냈다.

모태산(牟泰山) : 1510~1600 호 지곡(智谷). 인의 맏아들. 1532년 문과에 급제하여 선무랑을 지냈다.

모경직(牟敬直) : 1513~1604 인의 둘째 아들. 교동수사(喬洞水使)를 지냈다

모학영(牟鶴泳) : 1529~1605 호 지효재(至孝齋).刻산의 아들. 1550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70세 나이에 아버지가 타계하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한 효자였다.

모세인(牟世仁) : ?~1636 호 송곡(松谷). 시조의 17세손. 사마시에 입격함

모익룡(牟翼龍) : 1541~1627 호 화암(華菴) 시조의 18세손 1556년 무과에 급제하여 두모포만호(斗毛浦萬戶)를 지냈다.

모변룡(牟變龍) : 1544~1585 호 운암(雲菴). 익룡의 아우. 1560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호군을 지냈다.

모 정(牟 禎) : 1551~1598 호 덕암 학영의 아들. 정유재란 때 창의하여 순천의 예교(曳橋) 전투에서 큰공을 세웠으나 1598년 전사하였다 후일 병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모극심(牟克謹) : 1574~? 호 월담(月潭). 정의 아들. 아버지와 창의하여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모수남(牟秀南) : 1575~1610 호 경현(敬軒). 정의 아들. 1596년 문과에 급제하여 통훈대부에 올랐다

모계현(牟戒賢) : 1595~1656시조의 20세손. 1634년 문과에 급제하여 참의를 지냈다

모계도(牟戒道) : 1597~1649 계현의 아우. 1640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모계하(牟戒夏) : 1599~1638 계도의 아우. 감찰을 지냈다.

모계은(牟戒殷) : 1601~1645 계하의 아우. 주부를 지냈다.

모계직(牟戒直) : 계은의 아우. 인조·효종조에 수사(水使)를 지냈다.

모응록(牟應祿) : 1599~1682 호 구오재(九五齋). 수남의 맏아들. 1678년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고 수직으로 동지중추부사를 제수 받았다.

모응기(牟應棋) : 1602~1664 응록의 아우. 1629년 통덕랑에 올랐다.

모세무(牟世茂) : 1625~1693 호 송계(松溪). 시조의 20세손. 1675년 문과에 급제하여 유곡찰방 등을 역임했다.

모세번(牟世蕃) : 1628~1695 호 죽계(竹溪). 세무의 아우. 1669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양현감·상운찰방·등을 역임했다.

모세빈(率世彬) : 1630~1693 호 화계(華溪). 세번의 아우. 통덕랑을 지냈다.

- 모수명(牟秀明) : 1630~1705 시조의 20세손. 현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용양위 호군을 지냈다.
- 모유년(牟有年) : 1627~1671 호 국포(菊圃). 응록의 맏아들. 1658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략장군 부호군을 지냈다.
- 모유추(牟有秋) : 1637~1709 호 금석당(金石堂). 응록의 둘째 아들. 1662년 무과에 급제하여 양덕현감·성천진관 병마절제도위를 지냈다.
- 모유하(牟有夏) : 1648~1730 응록의 셋째 아들. 1676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산첨사·부호군을 지냈다.
- 모유영(牟有穎) : 1652~1717 응록의 넷째 아들. 과의교위 사과(果毅校尉司果)를 지냈다.
- 모서천(牟瑞天) : 1672~1738 세빈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모윤천(牟潤天) : 1674~1735 호 성암(省菴). 세빈의 둘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모윤흥(牟潤興) : 1655~1735 호 석정(石汀). 유추의 아들. 1676년 무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에 올랐다.
- 모태성(牟泰成) : 1666~1702 호 송은(松隱). 유년의 아들. 1695년 무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에 올랐다.
- 모경성(牟景成) : 1674~1719시조의 22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군자감 판관을 지냈다.
- 모일성(牟一成) : 1678~1747 호 석옹(石翁) 1705년 무과에 급제하여 진해현감·김해진관절제도위를 지냈다.
- 모국성(牟國成) : 1679~1758 유추의 둘째 아들. 1733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호군을 지냈다.
- 모옥성(牟沃成) : 1696~1756 유추의 넷째 아들. 1730년 무과에 급제하여 고성현감 등을 지냈다.
- 모여절(牟汝節) : 1684~ 1729 윤흥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 모인후(牟仁后) : 1688~1760 태서의 둘째 아들 1729년 통덕랑에 올랐다.
- 모경관(牟景觀) : 1709~1782 호 심재(心齋). 시조의 23세손. 1750년 문과에 급제하여 통례원 좌통례를 지냈다.
- 모수익(牟壽益) : 1724~1780 옥성의 아들. 1758년 통덕랑에 올랐다.
- 모달겸(牟達兼) : 1749~1821 호 두암(蠹庵). 경관의 아들. 1789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장령·제주 대정현감 등을 지냈다.
- 모한영(牟漢榮) : 1776~1848 호 야암(野菴). 시조의 25세손. 문행과 효성이 뛰어났고 문집이 전한다.
- 모응삼(牟應三) : 1783~1837 호 춘사(春史) 달겸의 아들. 1814년 성균관 생원시에 장원 입격하였다.
- 모대규(牟大奎) : 1930~1899 시조의 25세손. 효행이 출천하여 1947년 효자비를 세웠다.
- 모순풍(牟順豐) : 1893~1974 호 풍천(豐泉). 시조의 28세손. 「풍천시고(豐泉詩稿)를 간행하였다.
- 모남기(牟南基) : 1907~1981 일명 남식(南植). 호 양성(陽城). 시조의 28세손. 함평성애원을 설립하는 등 사회공익사업에 앞장서 일했다.



모귀기(牟貴基) : 1931. 7. 28호 수전(穗田). 시조의 28세손. 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모종일(牟鍾一) : 1927. 10. 22 호 석암(石菴). 남기의 아들 합평군청 과장을 역임 했다.
 모봉수(牟奉洙) : 1938. 8. 27 호 석헌(石軒). 시조의 29세손. 합평읍장을 지냈다.
 모일원(牟鎰源) : 1910~1967 호 섬석(蟾石). 시조의 30세손. 대전철도국 공전과장을 지냈다
 모찬원(牟贊源) : 1916. 11. 17 호 남천(南川) 시조의 30세손. 서예가.
 모봉섭(牟奉燮) : 1931. 9. 12 시조의 30세손.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모계원(牟桂源) : 1933. 6. 21 호 시몽(匙夢). 시조의 30세손. 호남대학교 과장을 역임하였다.
 모지영(牟志暎) : 1964. 6. 23 아시안게임(86) 필드하키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모상회(牟相會) : 1945. 1. 3 육군 중령
 모일성(牟一成) : 영암군청 등 과장 역임
 모상담 : 문학가

3) 함평오(咸平吳)씨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씨조를 보면 모평현의 토박이 성에 오씨가 나와 있다. 이로 미루어 함평오씨는 모평(牟平)의 토박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5. 11. 1에 실시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씨족별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함평군에 2가구 10명이 살고 있을 뿐이며 일찍이 세거지를 충남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방교리로 옮겨 공주군에 148가구 573명이 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47가구 28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증보문헌 비고에 따르면 함평오씨의 시조는 모평현감을 지낸 순민(舜民)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함평오씨는 시조를 잠(岑)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묘소가 공주시 웅진동에 있었으나 실전 되었다고 보첩에 기록되어 있다.

잠은 오씨의 비조(鼻祖) 침(臚)의 25세손으로 현보(賢輔)의 넷째 아들이며 고려 원종(元宗 제위 1260~1274) 때 문과에 급제하여 태자태사 문하시중(太子太師門下侍中)을 역임하였고, 좌명공신으로 함풍군(咸豐君)에 봉해져 해주최씨에서 분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씨의 대동보에 따르면 도시조 침은 신라 22대 지증왕(智證王. 제위 500~513) 때 중국에서 우리 나라에 건너왔고 그가 중국으로 돌아갈 때 아들 응(膺)이 함양(咸陽)에 남아 살았다.

그 후 응의 13세손 광우(光佑)가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의 현손 연룡(延龍)이 고려 문종 30년(文宗. 1076)에 우리 나라에 건너와 정착하여 오씨의 증시조가 되었다.

연룡의 6세손 수권(守權)의 큰아들 현보는 해주군에 봉해져 해주오씨(海州吳氏)의 시조가 되고 둘째 아들 현좌(賢佐)는 동복(同福)오씨, 셋째 아들 현필(賢弼)은 보성(寶城)오씨의 시조가 되었다.

해주오씨는 함평, 울산, 낙안, 고창, 평택오씨로 분관되었고, 동복오씨는 군위, 보성오씨에서 화순, 함양, 장흥, 홍양오씨가 분적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오씨는 164 또는 210본이라고 하지만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자료에 따르면 69개본이며 전국적으로 500가구가 넘는 본은,

·해주	90,845가구	377,016명	·보성	12,342가구	52,444명
·동북	11,977가구	50,648명	·고창	6,381가구	27,77B명
·나주	6,003가구	26,245명	·함양	5,354가구	22,158명
·군위	5,069가구	21,724명	·낙안	1,774가구	7,410명
·금성	1,178가구	5,204명	·장흥	876가구	3,898명
·함평	747가구	3,282명	·화순	664가구	2,888명
·울산	660가구	2,696명으로	함평오씨는 오씨 중에서 11위의 씨족이다.		

함평오씨들이 그들의 텃자리인 모평을 언제 떠났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다만 3세 사총(思總)이 모평군에 군봉되고 족보에 6세조 적(迪)의 공주 거주 형(衡)의 전주 거주를 적고 있으니 5세조까지 모평에 세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적의 아들인 7세 헌(憲)이 고려말경 중랑장을 지냈고 조선조 개국과 함께 출사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사양했다고 하였으니 7세조 활동기로 보아 함평오씨는 1390년대 이전에 모평을 떠났다고 볼 수 있다. <제11편 읍·면 마을사 해보면 모평을 볼 것.>

함평현읍지에 가끔 함평오씨 인물이 적혀 있을 뿐 조선조에는 특출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다 세가 적인 것도 현달한 인물이 후대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함평의 모평을 떠나 충남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에 정착한 함평오씨들은 전국에서 공주군을 제외하고는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는 곳이 없으며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서울 211가구 887명, 전북 86가구 380명, 경기·인천 100가구 425명, 광주·전남 59가구 372명 이다

함평오씨의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747	3,282	부산	북구		4	경기	성남	6	31	강원	춘천	2	9
	소계	211	887		해운대	2	5		의정부	1	7		원주	1	7
	종로	9	28		사하		3		안양	19	23		강릉	1	1
	중구	3	8		강서		4		부천	14	56		동해		1
서울	용산	2	11	대구	소계	29	124	경기도	광명	4	15	강원	태백		2
	성동	19	77		중구	1	7		송탄		6		춘성	1	7
	동대문	25	113		동구	1	6		동두천		2		홍천	2	4
	성북	15	66		서구	2	24		양주	1	1		원성		5
	도봉	19	88		남구		4		남양주	4	14		평창	1	3
	은평	14	51		북구	3	13		여주	1	2		철원		2
	서대문	7	41		수성		4		평택	3	12		화천		2
	마포	8	40		소계	29	124		화성	5	21		양구		1
				인천	소계	29	124								



부산	강서	19	85	대전	중구	2	10	충북	시흥	1	9	충남	인제	1	4
	구로	14	87		동구	1	4		고양	1	7		고성		2
	영등포	16	57		남구	14	43		광주	5	17		명주	1	2
	동작	10	36		북구	12	67		연천	2	8		삼척		2
	관악	11	44	대전	소계	23	133		포천		3	충북	소계	11	41
	강남	5	26		동구	9	54		양평		6		청주	6	11
	강동	15	89		중구	13	73		이천		1		충주	1	6
	소계	20	95	광주	유성	1	6		용인	3	8		제천		2
	중구		3		소계	17	81		안성	1	6		청원	1	5
	서구	2	14		동구	4	20		김포	1	9		영동	1	4
	동구	1	2		서구	4	25		강화	1	1		진천	1	4
	영도		3	경기	북구	6	21		용진	1	6		괴산	1	5
	부산진	8	28		광산	3	15		반월	2	11		음성		2
	동래	5	17		소계	71	301		과천		1		충원		1
	남구	2	12		수원	4	18	강원	소계	10	54		제원		1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충남	소계	190	749	전북	순창	1	7	전남	완도	2	15	경남	소계	22	98
	천안	1	8		정읍	1	7		진도	3	5		울산	2	16
	금산		1		고창	2	17		신안	2	5		마산	3	6
	대덕	3	10		부안	3	8		여천 시		1		진주		2
	연기	8	26	전남	김제	13	55	경북	소계	11	67		창원	4	12
	공주	148	573		옥구	1	6		포항	1	4		진해		1
	논산	5	23		익산	1	16		경주		1		충무	2	8
	부여	1	3		소계	42	191		김천	2	7		삼천		2
	서천	1	3		목포	9	27		안동		3		김해		1
	보령		1		여수	1	6		구미	2	8		진양	1	3
	청양	14	60		순천	1	5		영주	1	4		창녕	1	6
	홍성	2	6		나주		1		영천	1	5		밀양		1
	예산	2	6		담양		3		달성		1		양산		1
	서산	2	5		곡성	1	4		안동 군	1	2		울주	1	5
	당진		3		광양	3	13		영양		2		의창		1
	아산	2	9		여천	1	8		영일	1	5		사천		5
	천원	1	7		승주		3		월성		1		남해		2

전북	소계	80	380		고흥	1	7		경산		3		하동	4	8
	전주	32	144		보성		2		청도		1		산청	2	10
	군산	6	24		화순		1		고령		1		거창		1
	이리	8	38		장흥		2		성주		2		합천		6
	정주	1	5		강진	2	4		칠곡	1	3	제주	소계	3	23
	남원	2	10		해남	1	8		금릉		4		제주 시	2	10
	완주	8	36		영암		2		선산		3		서귀 포	1	5
	진안	1	1		무안	1	8		상주		1		북 제주		2
	무주		1		나주 군	1	3		문경		1		남 제주		6
	장수		1		함평	2	10		영풍	1	2				
	임실		1		영광	6	27		봉화		1				
	남원		3		장성	5	21		울릉		1				

배출인물

오 잠(吳 岑) : 함평오씨의 시조. 고려 원종 때(재위 1260~1274) 문과에 급제하여 태자태사 문하시중에 오르고 함풍군(咸豐君) 군봉을 받음

오진후(吳進厚) : 잠의 아들 고려조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 정3품)를지냈다.

오사충(吳思攄) : 진후의 아들. 고려조에서 문과에 급제하였고 모평군(牟平君, 현 함평군의 일부)에 봉작되었다.

오손계(吳孫啓) : 잠의 5세손. 직제학(直提學)을 지냈다.

4) 함평이(咸平李)씨

함평이씨는 함평군내 성씨 중 득관 연대가 가장 오래된 성씨며 시조묘가 함평읍 성남리와 자풍리 경계에 있고 5세 광봉(光逢)의 설단이 시조묘의 인근인 만흥리 초동(草洞)에 있으며 많은 선대의 묘들이 곤봉(坤峯) 인근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텃자리가 이곳 일대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함평현, 해제현, 영풍향의 토성조(土姓條)에 모두 "이(李)"씨가 나오나 본관 별 성씨에는 함평이씨(원래 함풍-咸豐-이씨)만 있는 것을 보면 모두 한 갈래의 손(孫)이었던 것 같다.

함평이씨의 시조는 언(彦)이다.

그는 고려 광종 때(光宗, 재위 950~975) 신호위대장군(神虎衛大將軍, 종3품)으로 함풍군(咸豐君, 함평의 옛 이름)에 봉해져 후손들이 함평이씨라 하였다

고려 광종조 이후 함평이씨의 세(勢)는 대단했던 것 같다



그것은 2세 화(和)의 아내가 함평임씨(咸平任氏)의 시조 진미(珍美)의 딸이고 3세 상문(尙文)의 아내가 개경에서 세력이 대단했던 강화노씨(江華魯氏)의 시조 용신(龍臣)의 딸로 당시에 신흥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세력들이 함께 인척 관계를 맺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후손 중 5세 광봉(光逢)이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정 1품)로 함평부원군(咸豐府院君)에 봉해졌으며 5세에서 림(琳)의 상의직장 동정공파(尙衣直長同正公派)와 광봉의 부원군파로 나누었으며 다시 림(琳)의 6세손에서 종수(從遂)의 참판공파(參判公派)와 덕생(德生)의 지평공파(持平公派), 공(兢)의 기성 군파(箕城君派), 접(摺)의 효우공파(孝友公派), 도(禱)의 현령공파(縣令公派)로 나누어졌으며 11세손에서 감정공파(監正公派) 등 27개파로 분파되었는데 27개파 중림의 후손이 24개파, 광봉의 후손이 3개파로 림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였고 광봉의 후손들은 주로 영광과 함평에 살고 있다.

함평이씨는 이씨의 237본 중 8위를 차지하는데 전국적으로 26,263가구 110,859명(함평으로 본관이 집계된 성씨를 동본으로 보고 포함시킨 수)이다

함평이씨보다 인구가 많은 이씨는,

전주	558,019가구	2,379,537명	경주	291,121가구	1,217,280명
성주	37,251가구	153,146명	광주	28,316가구	141,831명
연안	30,274가구	126,569명	한산	28,471가구	119,180명
전의	26,970가구	112,088명	의 7개본이다.		

함평군 씨족으로는 김해김씨 1,860가구 7,835명, 광산김씨 1,195가구 4,940명에 이어 1,196가구 4,561명으로 3위며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자작일촌을 이루거나 집성촌을 이룬 곳이 많은데 함평군에서는, 함평읍 대덕리 대천, 성남리 성북, 대동면 덕산리 고산, 향교리 중교, 나산면 초포리 사산 초포, 해보면 문장리 귀밀 등이며 군단위로 140가구 이상이 사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군 177가구, 728명

평택시 포승면, 현덕면 운정리를 비롯 시내에 779가구, 3,117명

(함평군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살고 있음)

화성군 양갑면 대양리를 비롯 군내에 218가구 972명

강원도 홍천군 185가구 770명

충 남 논산군 204가구, 870명 부여군, 369가구, 1,538명

경 남 밀양군 175가구, 651명

전 북 정주군 내장면 송사리를 비롯 군내에 140가구, 657명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해리면 왕촌리를 비롯 475가구, 1,978명

전 남 나주시 다시면을 비롯 655가구, 2,525명

영암군 군서면 송평리를 비롯 267가구, 1,019명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를 비롯 366가구, 1,587명

영광군 308가구, 1,309명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를 비롯 군내에 290가구, 1,201명이 살고 있다

함평이씨의 손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바를 족보에 의해 대략을 살펴보면 함평에 이어 전국에서 함평이씨가 많이 살고 있는 평택시의 입향조는 시조의 9세손인 중길(中吉, 5세손 림-琳의 현손)이다.

그의 아버지 온이 고려말 좌리공신 개성부윤(佐理功臣開城府尹)을 지냈는데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는 지조에, 고려조를 끝까지 지키며 협력하다가 강화도 해상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다.

이에 화가 자손에까지 미칠까 염려하여 둘째 아들인 중보(中寶)는 고향인 함평에 은거하였고 맏아들인 중길은 현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은곡(隱谷)으로 피하여 숨어살았으며 후에 조선왕조의 융화정책에 따라 출사하여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지냈고 그 후손이 번창하였다.

따라서 함평이씨의 평택 입향은 1390년대다.

함평이씨의 이주 정착 내역을 간략히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함 평 군

읍면명	이 명	미을 이름	입 향 연 혁			참 고
			세손	입향조 명	입향연대	
함평읍		소제지 일원	17	인걸(仁傑)	1608	함평, 기각, 내교리
	대덕리	대천 (大泉)	14	급(岾)	1550	
	수호리	대등 (大等)	17	덕인(德仁)	1580	
	가동리	가동 (佳洞)	19	여상(汝相)	1668	
손불면	동암리	봉동 (鳳洞)	18	복문(福門)	1830	
	양재리	장재 (長才)	24	재서(在緒)	1770	
신광면	함정리	연화 (蓮花)	24	진서(振緒)	1799	
학교면	복천리	장동 (壯洞)	16	상겸(尙謙)	1610	갑오동학 때 모두 떠남
	"	복산 (伏山)	25	돈희(敦喜)	1879	
	죽정리	호암 (虎岩)	25	돈암(敦巖)	1899	
엄다면	송로리	노상 (露上)	18	만춘(萬春)	1701	
	덕산리	고산 (高山)	18	덕림(德林)	1755	
대동면	"	아차 (衙次)	22	두삼(斗三)	1690	
	용정리	구룡 (九龍)	16	이현(以玪)	1650	
	금산리	감산 (坎山)	11	와(蛙)	1451	
	향교리	향교 (鄉校)	16	은(崧)	1450	
	우치리	우치 (牛峙)	16	춘수(春秀)	1390	
나산면	초포리	사산 (射山)	13	순지(舜枝)	1485	
	"	초포 (草浦)	13	순화(舜華)	1489	
	구산리	구산 (九山)	18	시정(時挺)	1616	
	용산리	백토(白土)	17	시태(時泰)	1620	
해보면	문장리	구밀(求密)	17	시길(時吉)	1620	
	대창리	창서(倉西)	18	원명(元明)	1630	
	대각리	오두(烏頭)	22	사영(師永)	1710	
	"	안인(安仁)	17	곤옥(崑玉)	1590	
	정산리	서촌(西村)	22	영배(永培)	1775	
월야면	용암리	용수(龍岫)	24	영서(永緒)	1840	



광 주 광 역 시

구 명 (區名)	동 이름	입 향 연 혁			참 고
		세손	입향조 명	입향연대	
북 구	오치동(梧峙洞)	14	계인(繼仁)	1520	
	용봉동(龍鳳洞)	16	백춘(百春)	1557	
광산구	등임동(登臨洞)	13	중우(從愚)	1505	
	동산동(東山洞)	22	광운(光運)	1750	

전 라 남 도

구 명 (區名)	면리·마을 이름	입 향 연 혁			참 고
		세손	입향조 명	입향연대	
나주시	다시면 양동리 초동(草洞)	9	자보(自寶)	1370	
	" 문동리 회문	10	극해(克諧)	1410	
	" 죽산리 죽지(竹池)	14	유근(惟謹)	1580	
	" 운봉리 회두	15	지완(止完)	1600	
	" 문동리 반계(潘溪)	16	선용(先茸)	1630	
	" 동당리 동백(冬栢)	16	광선	1610	
	" 동곡리 동촌(東村)	17	현(炫)	1650	
	" 영동리 흑암(黑岩)	22	태운(泰運)	1820	
	" 동곡리 대곡(大谷)	24	함서	1830	
	" 월대리 월명(月明)	24	용서(庸緒)	1875	
	" 월대리 월명(月明)	24	기서(寄緒)	1880	
	문평면 송림(松林)	14	계형(桂亨)	1560	
	" 죽곡리 죽고(竹谷)	16	장영(長榮)	1550	
	" 죽곡리 죽고(竹谷)	24	경서(京緒)	1880	
	" 안곡리 안곡(安谷)	26	정헌(正憲)	1930	
	삼도동 도청(都淸)	12	백원(伯源)	1450	
	영산포 관정동(官停洞)	19	진휴(晉休)	1650	
	공산면 금곡리 월비(月扉)	23	정규(鼎圭)	1680	
	" 남창리 남창(南昌)	20	기조(基祚)	1680	
	노안면 오정리 석정	22	현우(顯佑)	1738	
	" 양천리 계양(桂良)	16	덕경(德敬)	1570	
	" 영평리 목자(木子)	15	신(紳).경(經) 결(結)	1550	
	왕곡면 신원리 신원(新院)	28	성헌(成憲)	1870	
	세지면 벽산리 벽류(碧流)	21	달웅(達膺)	1730	
	봉황면 용정리 용정(龍井)	25	민권	1810	
	" 용전리(龍田里)	18	수성(受省)	1580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 연화(蓮花)	19	강(壙) 동(垆)	1697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슬산(瑟山)	13	김손(儉遜)	1597	
	" 산길리 구등(舊嶺)	21	정일(政鎰)	1697	
	" 신정리 고읍(古邑)	23	유경(儒卿)	1767	
	일로읍 월암리 덕산(德山)	12	세항(世恒)	1547	
	삼향면 맥포리 맥포(麥浦)	16	선복(先馥)	1567	
	현경면 마산리 마산(馬山)	21	정(挺)	1647	
보성군	화천면 벽교리 신리(新里)	24	극서(極緒)	1817	

구 명 (區名)	면리·리·마을 이름	입 향 연 혁			참 고
		세손	입향조 명	입향연대	
영광군	대마면 남산리 남산(南山)	16	만영(萬榮)	1530	
	" 금산리 금산(金山)	16	장영(長榮)	1530	
	백수읍 천장리 천기(天機)	21	원로(元魯) 현로(賢魯)	1660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평장(平章)	12	돈(墩)	1460	
	미암면 미암리 미촌(美村)	14	천재(天材)	1500	
	덕진면 영보리 냉천(冷泉)	16	수경(遂慶)	1430	
	학산면 은고리 가마골	18	석영(石英) 백영(百英)	1586	
	도포면 구학리 상리(霜里)	19	기령(琪齡)	1630	
장성군	삼서면 가산리 가산(佳山)	12	흥매(興枚)	1510	
	" 두월리 두동(斗洞)	13	세화(世華)	1540	
	" " 이문(利文)	18 23	몽린(夢麟) 유일(儒一)	1580 1810	
	" 수양리 마르리	23	유집(裕集)	1802	
	" " 안정(雁亭)	26	모(模)	1894	
	동화면(東化面)	16	동영(東榮)	1540	
	" 용정리 가정(柯亭)	16	익빈(益彬)	1644	
	" 구림리 통안(通安)	17	경화(敬華)	1670	
	장흥군 용산면 월림리 월림(月林)	20	인형(寅衡)	1740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신계(新溪)	23	유택(儒宅)	1810	

전 라 북 도

시군명	면리·리·마을 이름	입 향 연 혁			참 고
		세손	입향조 명	입향연대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수동(水洞)	12	원형(元亨) 원순(元淳) 원신(元愼)	1560	
	" 왕촌리 용반(龍盤)	18	복(馥)	1600	
	무장면 장자	16	조영(兆榮)	1530	
	부안면 수양리 용현(龍峴)	17	후망(後望)	1670	
	삼원면 고전리 고전(高田)	17	진복(鎭福)	1650	
	성내면 왕재리 월봉(月峰)	18	홍의(弘誼)	1597	
	공음면 예전리 예전(醴田)	19	만(晩)	1600	
부안군	성서면(上西面)	16	억영(億榮)	1530	
	백산면 거룡리 산전(山田)	24	종서(種緒)	1906	
	변산면 마포리 유유(孺遊)	24	덕서(德緒)	1907	
정읍시	송산동(送山洞)	19	호(豪)	1715	

충 청 남 도

시군명	면리·리·마을 이름	입 향 연 혁			참 고
		세손	입향조 명	입향연대	
천안시	성거면 천흥리(天興里)	11	희림(熙林)	1400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장승(長承)	15	관(瓏)	1500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원덕(元德)	12	공(恭)	1490	
부여시	규암면 합정리 합정(合井)	18	기문(起文)	1650	
서천군	문산면 북산리 북향(北向)	19	정연(挺然)	1590	



논산시	노성면 가곡리 가곡	14	지원(之溫)	1624	
	상월면 주곡리 숫골	18	사길(師吉)	1659	

충 청 북 도

시군명	면리·리·마을 이름	입 향 연 혁			참 고
		세손	입향조 명	입향연대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공재	16	태수(泰壽)	1650	

경 기 도

시군명	면리·리·마을 이름	입 향 연 혁			참 고
		세손	입향조 명	입향연대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정문(旌門)	9	중길(中吉)	1390	
여주군	대신면 장풍리 장풍(長豐)	13	업(鄴)	1577	
광주군	분원면 오룡동(五龍洞)	14	세방(世芳)	1500	
남양주	퇴계원읍 토계원리 뱃이	16	배원(培元)	1580	
하남시	천현동(泉峴洞)	16	백복(伯福)	1600	
양평군	양서면 등동리(登東里)	18	제현(霽賢)	1700	
화성군	양감면 신왕리(新旺里)	21	항십	1650	

경 상 남 도

시군명	면리·리·마을 이름	입 향 연 혁			참 고
		세손	입향조 명	입향연대	
밀양군	부북면 오례리 오례(五禮)	16	선지(先智)	1580	
	" 퇴노리(退老里)	17	호(琥)	1630	
창녕군	계성면 달촌리(達村里)	17	기(琦)	1637	

강 원 도

시군명	면리·리·마을 이름	입 향 연 혁			참 고
		세손	입향조 명	입향연대	
춘천시	동면 만천리 만일(萬一)	21	수량(壽亮)	1780	
	입향읍 임천리(林泉里)	17	춘령(春齡)	1550	
원주시	만종(萬種)	27	계원(啓源)	1820	
홍천군	남면(南面)	13	운(崙)	1450	
강릉시	하남(下南)		형신(衡臣)	1780	
	입점(笠店)		휘사(彙師)	1780	
평창군	봉평(蓬坪)		형달(衡達)	1780	
횡성군	횡성읍(橫城邑)		종우(鍾瑀)	1830	

함평이씨의 시조묘와 바로 인근에 5세 광봉(光逢)의 제단(祭壇)이 있는 이곳은 고려시대에는 영풍향(永豐鄉)으로 나주에 속했고 고려 말 공양왕 3년(1391)에 함풍현(咸豐縣)에 속하게 되었으며 조선조 때 영풍면(永豐面)이다가 1906년에 현 함평읍에 속했다

함평이씨의 시조묘에서 200M 남쪽에 "골샘"이라 부르는 샘이 있고 주위 논에서 기왓장이 많은 것으로 영풍향의 치소가 이곳이라 보며. 자풍리의 노송(老松)에 5기, 신평(新豊)에 12기, 비아에 11기, 만흥리 국산(國山. 옛 국당-國堂 꼭대기)에 1기, 초동에 4기의 대형고인들이 산재해 있어 선사시대에 사람이 많이 살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곁에 바다를 끼고 있고 큰 내(川)가 있으며 평야가 있어 옛날에는 교통 또한 편리했을 곳이 영풍향 일대다

세증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영풍향의 토성이 이(李), 유(兪), 정(鄭), 정(程), 박(朴)이라고 했다

이들 성씨 중 함평정(鄭)씨는 1126년 이후에야 이주 정착했고 정(程)씨와 박씨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성씨조사에서 영풍과 함평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있으나 현재 함평군에는 단 1호도 살지 않으며 유(兪)씨는 함평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아예 없다.

따라서 영풍을 중심으로 함평과 해제현에서 크게 세(勢)가 불어난 함평이씨는 비록 1천여 년 전인 고려조의 언(彦)을 시조로 하고 있지만 그 선계(先系)가 이 땅의 선사인(先史人)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함평의 토박이 중 토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영풍향의 설치가 함평이씨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가며, 함평현과 해제현의 토성 이(李)씨가 영풍에서 퍼져나간 한 갈래란 것도 더욱 신빙성이 있다.

시조묘 바로 곁에 있는 마을을 근대에는 지성(支城)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원래는 기성동(箕城洞)이라 했다

기성은 고려 때인 1018년부터 부른 함평현의 별호며 조선조 세종 때 함평이씨 공(兢)이 기성군(箕城君)에 봉해진 바 있다.

시조묘 바로 곁에 있는 마을이 시조의 세거지였기 때문에 공이 기성군에 봉작된 것 같다.

함평군에 있는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송 파 정(松坡亭)	함평읍 성남리	현범(賢範)
영 파 정(潁波亭)	" 기각리 기산	안(岸). 영수정 또는 관덕정
세 심 정(洗心亭)	" 함평공원	동범(東範)
삼세설단(三世設壇)	" 성남리	화(和). 상문(尙文). 순지(順之)
경 모 재(景慕齋)	" "	언(彦)
청 절 재(淸節齋)	" "	곤(崧)
시당정사(時塘精舍)	" 수호리	돈옥(敦玉)
영 모 재(永慕齋)	손불면 동암리	경(敬)
풍 서 재(豐西齋)	" "	덕추(德樞)
원 모 재(遠慕齋)	학교면 죽정리	상겸(尙謙)
구 곡 정(九曲亭)	대동면 용성리	돈(敦)
반 환 정(盤桓亭)	대동면 덕산리 고산동	유찬(儒讚)
죽 백 재(竹柏齋)	" " "	희맹(希孟), 희증(希曾)
보진영당(保眞影堂)	" 향교리	세추(世樞)
월산사지(月山祠址)	" "	덕일(德一)
사 산 사(射山祠)	나산면 초포리 사산	언(彦), 춘수(春秀), 종생(從生), 주(稠), 공(兢)
기 양 재(箕陽齋)	" 구산리	안(岸)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영 사 재(永 思 齋)	" 삼축리	운창(云昌), 운향(云鄉)
송 우 재(松 隅 齋)	" 초포리	순지(舜枝)
후 모 재(後 慕 齋)	"	여립(汝霖)
호 은 재(湖 隱 齋)	"	시태(時泰)
돈 목 재(敦 睦 齋)	" 우치리	
추 원 재(追 遠 齋)	" "	
사 괴 정(四 槐 亭)	" 초포리 초포	
진 수 당(進 修 堂)	" " "	순화(舜華)
수 각(水 閣)	" " "	"
세 이 정(洗 耳 亭)	해보면 금계리	영헌(穎憲)
취 석 정(醉 石 亭)	"	돈형(敦炯)
충 의 재(忠 義 齋)	"	
사 매 당(四 梅 堂)	" 용산리	삼거(三擧)
운 담 재(雲 潭 齋)	월야면 계산당	계성(啓性), 계동(啓東), 계순(啓淳)
정 산 정(靖 山 亭)	" 정산리	계화(啓華)
삼 일 정(三 一 亭)	" 용암리 용수	

합평이씨의 전국 분포

·안동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평이씨가 1가호 1인도 살지 않는다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24,776	103,697	서울	소계	655	2,754	인천	소계	827	3,382	경기	광명	153	660
	소계	7,615	31,481		중구	15	65		중구	53	211		송탄	85	371
서울	종로	239	972		서구	36	178		동구	68	305		동두천	28	144
	중구	130	572		동구	42	150		남구	351	1,407		양주	42	172
	용산	238	982		영도	42	157		북구	355	1,459		남양주	177	728
	성동	601	2,042		부산진	97	421	대전	소계	439	2,019		여주	79	356
	동대문	783	3,070		동래	158	671		동구	141	657		평택	779	3,117
	성북	451	1,923		남구	110	435		중구	291	1,324		화성	218	972
	도봉	729	2,984		북구	84	274		유성	7	38		시흥	103	400
	은평	323	1,046		해운대	41	171	광주	소계	2,113	10,190		파주	76	299
	서대문	361	1,556		사하	42	294		동구	397	1,864		고양	95	413
	마포	322	1,340		강서	8	28		서구	855	3,783		광주	123	492
	강서	492	2,040		소계	145	618		북구	673	2,901		연천	31	138
	구로	508	2,116	대구	중구	14	59	경기	광산	388	1,642		포천	36	137
	영등포	363	1,431		동구	30	124		소계	4,000	16,554		가평	37	154
	동작	382	1,559		서구	46	117		수원	301	1,338		양평	134	569
	관악	518	2,159		남구	26	110		성남	349	1,404		이천	71	325
	강남	538	2,269		북구	18	87		의정부	97	367		용인	93	382
	강동	679	2,704		수성	31	121		안양	314	1,248		안성	51	237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경기	김포	37	178	충북	괴산	11	51	전북	고창	475	1,978		안동	8	34
	강화	25	112		음성	9	43		부안	102	393		구미	17	92
	용진	13	28		증원	8	43		김제	63	264		영주	3	13
	반월	53	216		제원	18	71		옥구	26	131		영천		2
	과천	59	218		단양	8	35		익산	27	136		달성	2	10
강원	소계	770	3,219	충남	소계	1,566	6,772	전남	소계	4,303	16,750	경북	군위		6
	춘천	118	468		천안	68	310		목포	287	1,277		의성		4
	원주	68	272		금산	5	17		여수	66	292		청송	1	6
	강릉	42	187		대덕	18	88		순천	53	219		영양		5
	동해	17	57		연기	23	106		금성	146	888		영덕	1	6
	태백	16	59		공주	106	471		담양	78	322		영일	10	33
	속초	19	120		논산	204	870		곡성	15	64		월성	3	12
	춘성	32	165		부여	369	1,538		구례	16	72		영천	1	6
	홍천	185	770		서천	86	367		광양	13	54		경산	10	41
	횡성	46	185		보령	95	438		여천	4	17		청도	3	14
	원성	14	62		청양	101	419		승주	29	183		고령	1	7
	영월	13	61		홍성	94	361		고흥	21	68		성주	4	11
	평창	18	87		예산	119	490		보성	27	113		칠곡	5	20
	정선	19	98		서산	108	468		화순	28	110		금릉	2	7
	철원	19	89		당진	106	512		장흥	27	113		선산		4
	화천	7	33		아산	42	222		강진	25	110		상주	8	39
	양주	10	37		천원	22	995		해남	51	197		문경	6	33
	인제	22	84		소계	1,330	5,778		영암	267	1,019		예천	1	7
	고성	8	34		전주	159	709		무안	366	1,587		영풍	3	16
	양양	53	225		군산	93	410		나주	655	2,525		봉화	1	3
	명주	21	74		이리	95	443		함평	1,196	4,561		울진	11	40
	삼척	13	52		정주	140	657		영광	308	1,309		울릉	6	20
충북	소계	234	1,015	전북	남원	7	35	경남	장성	290	1,201		소계	539	2,196
	청주	87	356		완주	22	105		완도	16	65		마산	58	267
	충주	34	135		진안	1	13		진도	6	26		진주	16	57
	제천	22	93		무주		5		신안	58	257		창원	38	155
	청원	16	88		장수	8	35		여천	25	101		울산	130	525
	보은	4	21		임실	8	20	경북	소계	182	761		진해	31	122
	옥천	6	27		남원	10	39		포항	57	209		충무	1	6
	영동	2	13		순창	20	81		경주	13	45		삼천포	3	10
	진천	9	39		정읍	74	324		김천	4	16		김해	10	36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경남	진양		5	경남	김해군	6	25	경남	하동	3	12	제주	소계	58	208
	의령		3		의창	5	13		산청	1	12		제주	42	135
	함안	1	6		통영	1	4		함양	6	23		서귀포	10	45
	창녕	15	58		거제	18	100		거창	1	5		북제주	2	16
	밀양	175	651		고성		1		합천	3	18		남제주	4	12
	양산	9	36		사천		5								
	울주	8	37		남해		4								

함풍이씨(咸豐李氏)전국 분포

·함풍은 함평의 고호(古號)이므로 함평 본관과 합산하여야 할 것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1,487	7,162	부산	소계	32	160	인천	소계	39	199	경기	부천	24	85
	소계	507	2,270		중구		1		중구	1	5		광명	12	45
	종로	20	62		서구	1	7		동구	5	21		송탄		2
	중구	22	99		동구	4	18		남구	14	84		동두천	4	26
	용산	18	77		영도	3	14		북구	19	89		양주	4	10
	성동	36	175		부산진	8	28	광주	소계	303	1,512		남양주	11	56
	동대문	32	177		동래	10	34		동구	51	247		여주		1
	성북	37	170		남구	5	27		서구	108	523		평택		4
	도봉	45	209		북구	1	15		북구	78	385		화성	4	14
	은평	18	91		해운대		5		광산	66	357		시흥	6	22
서울	서대문	24	107	대구	사하		7	대전	소계	4	21		파주	6	24
	마포	23	92		강서		4		동구	3	7		고양	6	22
	강서	31	127		소계	7	30		중구	1	13		광주	5	17
	구로	37	173		중구	3	4		유성		1		연천	3	13
	영등포	18	75		동구	1	7	경기	소계	453	670		포천	1	8
	동작	34	131		서구	1	6		수원	13	43		가평	2	8
	관악	36	173		남구	1	5		성남	22	112		양평	2	10
	강남	34	153		북구		4		의정부	3	17		이천	2	13
	강동	42	188		수성	1	4		안양	15	74		용인		6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경기	안성		2	충남	소계	5	38	전남	소계	290	1,448	경북	소계	5	23
	김포	2	9		아산	1	2		영광	48	226		포항	3	14
	강화		5		청원	1	6		장성	27	141		김천	1	1
	반월	5	19		천안	2	7		완도	5	20		안동	1	1
	과천	1	3		연기		2		진도		1		구미		3
강원	소계	16	72		부여		3		목포	40	180	경남	영주		1
	춘천	2	9		서천		1		여수	4	16		달성		1
	원주	3	10		보령		2		순천	5	13		영천		1
	강릉		1		청양		1		나주	15	89		월성		1
	태백	2	8		예산	1	9		담양	14	68		소계	14	76
	춘성		2		서산		5		곡성	5	17		울산	4	20
	홍천	2	7		소계	84	545		구례	1	7		마산	4	15
	원성		1		고창	42	245		광양	2	12		진주		2
	영월	1	5		부안	4	22		여천	2	3		창원	4	13
	양구	1	4		전주	5	29		승주	1	4		김해		1
	명주	2	8		김제	2	14		고흥	1	3		진해		4
	평창	1	6		옥구	3	16		보성	1	1		밀양		1
	정선		4		군산	5	35		화순	12	53		양산		4
	철원	2	8		이리	9	35		장흥	1	8		김해 군		1
	화천		1		정주	6	43		강진	2	4		울주		2
충북	소계	7	40	전북	남원	2	11	제주	해남	3	33		거제	2	8
	음성		3		완주	1	4		신안	6	29		사천		3
	증원	1	2		진안	3	11		여천		2		거창		1
	청주	3	13		장수		1		영암	14	82		하동		1
	충주	3	12		임실		1		무안	52	276		소계	11	51
	제천		2		남원		2		나주	13	68		제주	7	29
	청원		3		순창	2	17		함평	16	92		서귀 포	1	6
	보은		2		정읍	10	59						북제 주	2	11
	옥천		1										남제 주	1	5
	진천		1												
	괴산		1												



배출 인물

고대인물(1909년까지 타계한 인물)

- 이 언(李彦) : 함평이씨 시조. 고려 광종(光宗, 재위 950~975) 때 신호위대장군(神號衛大將軍)을 지내고 함풍군(咸豐君, 함평의 옛 이름)에 봉해졌다
- 이 화(李和) : 언의 아들. 고려 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신호위대장군을 역임하였다.
- 이상문(李尙文) : 화의 아들. 고려조에 신호위대장군을 역임했다.
- 이순지(李順之) : 상문의 아들. 고려조에 검교위위(檢校威衛)대장군을 지냈다.
- 이 림(李琳) : 순지의 맏아들.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상의직장 동정(尙衣直長同正)을 지냈다.
- 이광봉(李光逢) : 순지의 둘째 아들. 충숙왕 11년(忠肅王, 1324)에 삼사사(三司事, 정3품재정담당)에 오르고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책록되어 함풍부원군군봉을 받았다.
- 이 요(李堯) : 임의 아들. 고려조에 사순위(司巡衛) 부호군을 지냈다.
- 이 연(李延) : 광봉의 아들.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빈시사(禮賓寺事)를 지냈다.
- 이인원(李仁元) : 요의 맏아들. 고려조에서 첨서사사(詹書司事)를 지냈다.
- 이인관(李仁琯) : 요의 둘째 아들.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빈경(禮賓卿)을 지냈다.
- 이인계(李仁桂) : 요의 셋째 아들. 고려조에 영동정(令同正)을 지냈다.
- 이인검(李仁儉) : 요의 넷째 아들. 고려조에 영동정을 지냈다.
- 이인문(李仁問) : 요의 다섯째 아들. 조선조 태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제학(密直提學)을 지냈다.
- 이안저(李安抵) : 연의 맏아들.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진현관학사(進賢館學士)를 지냈다.
- 이안상(李安相) : 연의 둘째 아들. 고려조에서 검교동정(檢校同正)을 지냈다.
- 이 동(李童) : 인원의 맏아들. 고려조에서 밀직사사를 지냈다.
- 이현우(孝玄雨) : 인관의 아들. 조선 정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동정을 지냈다.
- 이 온(李溫) : 인계의 아들. 좌리공신으로 개성부윤을 지냈다.
- 이지화(李之華) : 인검의 아들. 상호군을 지냈다.
- 이 번(李蕃) : 인문의 맏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감사(監司)를 지냈다.
- 이 양(李襄) : 인문의 둘째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감사를 지냈다.
- 이 숙(李淑) : 안저의 아들. 고려말에 정순대부 예부전서 겸 춘추관사(春秋館事)를 지냈다.
- 이 습(李襲) : 안상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지냈다.
- 이당경(李唐敬) : 시조의 8세손. 선공감정(繕工監正)을 지냈다.
- 이 협(李鉾) : 동의 아들. 검교동정을 지냈다.
- 이자보(李自寶) : 1347~? 현우의 아들. 고려조에서 모평감무·비순위정용랑장(備巡衛精勇郎將)을 지냈다.
- 이중길(李中吉) : 온의 맏아들. 조선조에서 사재감정을 지냈다. 함평이씨 평택 입향조다.

- 이계윤(李繼允) : 지화의 아들. 병사(兵使)를 지냈다
- 이삼길(李三吉) : 번의 아들. 정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 이삼언(李三言) : 양의 아들. 정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경주부윤을 지냈다.
- 이인좌(李仁佐) : 숙의 아들. 고려조에 좌우위보승 중랑장을 지냈다.
- 이준성(李俊成) : 습의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집의(執義)를 지냈다.
- 이 이(李 貽) : 자보의 맏아들. 성균관 생원·현감을 지냈다.
- 이극해(李克諧) : 자보의 둘째 아들. 함성군(咸城君)에 봉작되었다
- 이극명(李克明) : 1388~1454 자보의 셋째 아들. 전략장군 호귀위 호군을 지냈으며 함평군(咸平君)에 봉작되었다
- 이춘수(李春秀) : 삼길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응교·전라수사(全羅水使)를 지냈다.
- 이손수(李孫秀) : 삼길의 아들. 단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담양부령을 지냈다.
- 이영발(李永發) : 삼언의 둘째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다.
- 이천주(李天柱) : 인좌의 아들. 고려말에 증원대부 전객령(典客令)을 지냈다.
- 이 영(李 英) : 준성의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이승년(李崇年) : 연의 아들. 사재감정을 지냈다.
- 이동백(李東白) : 시조의 11세손.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이백당(李伯棠) : 이의 아들. 성균관 생원·운봉현감을 지냈다
- 이덕생(李德生) : 시조의 11세손. 지평(持平)을 지냈다.
- 이 주(李 倬) : 손수의 맏아들.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남평현령을 지냄.
- 이 와(李 洼) : 손수의 넷째 아들.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지냈다
- 이 공(李 兢) : 1389~1433 춘수의 아들. 1405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1427년 중시에 급제했으며 이조판서에 올라 기성군(箕城君 함평의 별호)에 봉해졌다.
- 이 접(李 摺) : 1439~? 공의 아우. 예조정랑·현감 등을 제수했으나 취임하지 않고 우치리에 사괴정(四槐亭)을 짓고 후학양성에 힘썼다.
- 이종생(李從生) : 1423~1495 극명의 아들. 1464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이시에 난때 선봉장으로 나아가 평정하여 적기공신에 책록되고, 여진족 토벌에도 큰 공을 세웠으며,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등의 관직을 역임했고 함성군(咸城君)에 봉해졌다
- 이종수(李從遂) : 1424~1483 극명의 둘째 아들. 충좌위 부사과를 지냈다.
- 이숙연(李宿然) : 시조의 11세손 병사를 지냈다
- 이 종(李 種) : 영발의 맏아들. 목사(牧使)를 역임했다
- 이희림(李熙林) : 천주의 아들. 청주목 판관(淸州牧判官)을 지냈다.
- 이손무(李孫茂) : 호 기와(箕窩) 영의 아들.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양근(楊根. 현양평군)현감을 지냈으며 제1의 목민관으로 칭송을 받았다.
- 이연손(李連孫) : 시조의 11세손. 사직(司直)을 지냈다.
- 이득순(李得順) : 덕생의 아들. 부호군을 지냈다.



- 이백원(李伯源) : 공의 맏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제주도 판관을 지냈다.
- 이숙문(李叔汶) : 공의 둘째 아들. 전주판관을 지냈다.
- 이중하(李仲河) : 공의 셋째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이계강(李季江) : 공의 넷째 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 이운경(李雲卿) : 1465~? 접의 둘째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며 사직을 지냈다.
- 이석림(李碩林) : 와의 둘째 아들. 현감을 지냈다.
- 이유번(李有蕃) : 종의 아들 참판을 지냈다
- 이승안(李承顔) : 손무의 맏아들.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용궁현감을 지냈다.
- 이계림(李桂林) : 연손의 아들 군수를 지냈으며 청백리에 뽑혔다.
- 이검손(李檢孫) : 1489~155B 득손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창락찰방(昌樂察訪)을 지냈다
- 이승손(李承遜) : 149f~1553 득손의 둘째 아들 승지를 지냈다
- 이 안(李 岸) : 1414~? 호 영파(穎波). 시조의 13세손. 1432년 사마시에 입격하였고 단종 폐위에 불복하고 함평에 내려와 영파정을 짓고 후학양성에 힘을 썼다.
- 이 강(李 綱) : 1514~1546 시조의 13세손.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 이수공(李守恭) : 시조의 13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 이순지(李舜枝) : 운경의 맏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인효로 이름 높았다.
- 이순화(李舜華) : 운경의 둘째 아들 중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어모(禦侮)장군을 지냈다
- 이 곤(李 崑) : 안의 아우. 단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상의직장(尙衣直長)을 지내다가 단종의 폐위에 불복 형과 함께 함평에 내려와 살았다.
- 이세번(李世蕃) : 종생의 손자. 무과에 급제하여 김해도호부사를 지냈다.
- 이 화(李 華) : 유번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을 지냈다.
- 이호인(李好仁) : 승안의 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 이호의(李好義) : 시조의 13세손. 첨지를 역임했다.
- 이 척(李 滌) : 1508~1568 검손의 맏아들 찰방을 지냈다.
- 이 복(李 福) : 1518~1562 승손의 아들. 사재감정을 지냈다.
- 이여백(李汝白) : 시조의 14세손 부호군을 지냈다
- 이 금(李 鎭) : 1526~1594 검손의 넷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찰방을 지냈다.
- 이여림(李汝霖) : 순지의 맏아들.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문장으로 이름 높았다
- 이여주(李汝舟) : 순지의 셋째 아들. 철원교수를 지냈다.
- 이여정(李汝貞) : 순지의 막내아들 낙안교수를 지냈다.
- 이계정(李繼貞) : 순화의 아들. 장악원정을 지냈다.
- 이계형(李桂亨) : 안의 둘째 아들. 성종 때 충좌위 부사직을 지냈다
- 이계방(李桂芳) : 곤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典籍)을 지냈다.
- 이문간(李文幹) : 호인의 둘째 아들 남원교수를 지냈다.

- 이 익(李 益) : 호의의 아들 생원을 지냈다.
- 이우춘(李遇春) : 1554~1597 금의 맏아들. 임진란 때 창의하여 행주전에서 큰 공을 세워 예빈시 직장에 올랐고 정유재란 때 순천 예교 싸움에서 부자와 동생이 함께 전사 하였다. 선무원종공신 2등에 책록 되었다
- 이수춘(李遂春) : 1556~1597 금의 둘째 아들. 정유재란 때 예교전투에서 전사하였고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 이 식(李 軾) : 여림의 맏아들. 이황(李滉)과 함께 성균관 진사시험에 합격했다.
- 이 관(李 琯) : 여림의 둘째 아들. 부장을 지냈다.
- 이 주(李 軸) : 시조의 15세손. 사재감정을 지냈다.
- 이 원(李 轅) : ?~1592. 호 남강(南崗). 여정의 맏아들. 임진란 때 동생가·영과 함께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우고 금산전에서 순국하였다
- 이 령(李 軫) : ?~1592 여정의 셋째 아들. 형 원과 함께 임진란 때 창의하였고 금산전에서 순국하였다.
- 이 가(李 軻) : ?~1592 여정의 넷째 아들. 형 원·영과 함께 임진란 때 창의하였고, 금산전에서 순국하였다.
- 이의제(李依堤) : 문간의 맏아들. 생원을 지냈고 효자로 이름 높았다
- 이의번(李依蕃) : 문간의 둘째 아들. 1537년 문과에 급제하여 무안현감을 지냈다.
- 이의수(李依樹) : 1508~1564 문간의 셋째 아들. 생원시험에 합격하였다.
- 이의정(李依楨) : 1511~1563 호 남애(南崖). 문간의 넷째 아들. 생원을 지냈고 행이로 이름 높았다.
- 이준업(李遵業) : 시조의 16세손 사복시정을 지냈다.
- 이충인(李忠仁) : 1526~1597 호 청송(聽松) 식의 아들 이순신 휘하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였다.
- 이충례(李忠禮) : 1528~1580 식의 둘째 아들. 어사 홍천경(洪千璟)이 효행을 알려 예조정랑에 제수되었다
- 이 은(李 崧) : 1529~1608 의정의 맏아들. 동추를 지냈다.
- 이효원(李效元) : 1550~1629 시조의 16세손 호 장포(長浦). 1585년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에 올랐으며 임진란 때 왕을 호종하여 호종1등공신에 책록되었다.
- 이충립(李忠立) : 1566~1618 시조의 16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도총부 경력·명천부사를 지냈고, 임진·정유왜란 때 무공으로 선무원종공신에 올랐다.
- 이충달(李忠達) : 관의 아들. 낙안교수·황산훈도(黃山訓導)를 지냈다.
- 이충실(李忠實) : 1542~1598 호 성와(誠窩). 시조의 16세손. 1566년 무과에 급제하여 봉사를 지냈고, 임진·정유왜란을 만나 이순신 휘하에서 공을 세웠으며 1598년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였다.
- 이이숙(李以淑) : 1576~1618 우춘의 양아들 무과에 급제하였다.
- 이충직(李忠直) : 1550~1613 시조의 16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예빈시경을 지냈다



이척경(李爆敬) : ?~1592 호 난와(蘭窩). 시조의 16세손.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큰아버지 원(輿)과 함께 금산진에서 순국하였다.

이영홍(李永弘) : 1530~1597 시조의 16세손. 부장을 지냈다.

이 급(李 岌) : 1533~1597 호 삼회(三悔). 의수의 아들 훈도를 지냈고 문학으로 이름 높았고, 정유재란 때 이순신 군진으로 가 당포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이춘란(李春蘭) : ?~1597 세현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을 지냈으며 임진·정유왜란 때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 1등훈에 책록되었다.

이우신(李又新) : 1585~1642 시조의 16세손 부호군을 지냈다.

이 역(李 巖) : 1635~1682 의제의 맏아들. 생원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득원(李得元) : 시조의 16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를 지냈다.

이대성(李大成) : 시조의 16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사과를 지냈다

이원개(李元愷) : 1548~1623 혼 원재(遠齋). 충달의 아들. 임진왜란 때 호남모속사(湖南募粟使)로 군량미 보급에 힘써 부호군에 제수되었다.

이극성(李克誠) : 호 문헌(文軒). 시조의 17세손. 함평현감을 지냈으며 정유재란때 창의하여 이순신 휘하로 들어가 당포 싸움 등 여러 해전에서 공을 세웠다. 고향에 남았던 딸 셋이 침입한 왜적을 꾸짖다가 무참하게 살해되었으며 정려가 내려다.

이강옥(李岡玉) : ?~1585 시조의 17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봉사를 지냈다.

이곤옥(李崑玉) : 1562~1639 시조의 17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를 지냈다

이덕룡(李德龍) : 1556~1597 호 장은(牆隱) 시조의 17세손. 종제 덕일과 함께 이순신 군진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전사했다.

이덕경(李德敬) : 시조의 17세손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때 중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창의하여 이순신 군진에 합류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였고 선무원종공신에 올랐다.

이덕일(李德一) : 은의 아들. 호 칠실(漆室). 1594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문무를 겸비하였으며 임진·정유재란 때 이순신 군진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통제영 우후가 되었다 광해조의 난정에 나라를 근심하는 「우국가(憂國歌) 28장」을 지어 오늘에 전한다.

이덕행(李德行) : 1559~1642 호 농암(壟菴) 급의 아들. 1594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를 지냈다.

이계남(李繼男) : 1577~1652 충직의 양아들 주부를 지냈다.

이홍복(李弘福) : 1590~1666 춘방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병마우후를 거쳐 동지중추부사 겸 우림위장(羽林衛將)을 지냈다.

이 양(李 讓) : 시조의 17세손. 칠곡부사를 지냈다.

이시첨(李時瞻) : 1609~? 시조의 17세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이득견(李得堅) : 1620~1680 호 영은(穎隱) 우신의 아들 지평을 지냈다.

- 이사급(李思偁) : 척경의 아들. 이조좌랑을 지냈다
- 이 준(李 俊) : 대서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다.
- 이시정(李時挺) : 1586~1650 호 용계(龍溪). 시조의 18세손. 당세에 문행으로 이름높았으며 기산사(箕山祠)에서 배향하였다.
- 이대홍(李大弘) : 1576~1638 덕룡의 아들. 군기감정을 지냈다
- 이수온(李守溫) : 1587~1661 호 삼회재(三悔齋). 시조의 18세손. 병자호란 때 창의를하였다.
- 이시우(李玲佑) : 1596~1684 호 용암(龍岩) 시조의 18세손. 1623년 함평향교를 다시 세우는 데 공이 크며 정묘·병자호란 때 창의를하였다
- 이수공(李守恭) : 1600~1669 시조의 18세손. 문행으로 이름 높았고 찰방을 지냈다.
- 이시태(李時泰) : 1608~1664 호 호은(湖隱). 시조의 18세손. 학행과 문장으로 당세에 이름 높았고 병자호란 때 창의를하였다
- 이진문(李振門) : 1573~1630 호 후재(後齋). 원개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고 1619년 5월부터 관서지방 국경 방비에 나가 있던 1년간의 일기 「봉사부군일기(奉事府君日記)」가 전한다.
- 이양형(李揚馨) : 1610~? 곤옥의 맏아들. 부호군을 지냈다.
- 이수익(李受益) : 1639~1709 시침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도총부 도사·함평현감을 지냈다.
- 이백익(李白益) : 1651~1706 시침의 둘째 아들. 제주 판관을 지냈다.
- 이경일(李慶一) : 1672~1742 호 경재(警齋). 시조의 18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다.
- 이복문(李福門) : 호 오헌(梧軒). 사급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영장(營將)을 지냈고 병자호란 때 창의를하였다.
- 이갑생(李甲生) : 시조의 18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를 지냈다.
- 이사길(李師吉) : 1639~1703. 양의 아들. 사산감역(四山監役)을 지냈다.
- 이사형(李斯馨) : 1634~1696 득견의 아들. 부호군을 역임했다
- 이 석(李 碩) : 극성의 맏아들. 첨중추를 지냈다
- 이 보(李 寶) : 극성의 둘째 아들. 첨중추를 지냈다.
- 이양렬(李揚烈) : 덕일의 둘째 아들 정사원종공신(靖社原從功臣)이며 용양위부사과를 지냈다.
- 이건중(李建中) : 1556~1625 호 성재(誠齋). 시조의 15세손. 첨정을 지냈다
- 이득창(李得昌) : 1609~1547 대홍의 아들. 장락원정을 지냈다.
- 이연백(李淵白) : 1615~1707 호 등아재(藏蘿齋). 시조의 19세손. 부호군을 지냈다.
- 이직견(李直堅) : 1624~? 갑생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 이유천(李有天) : 1632~1698 시조의 19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 이유인(李有仁) : 1635~1705 호 파우(破愚) 시조의 19세손. 숙종 때 학행으로 선릉참봉에 제수되었고 당시 호남에서 이름 높은 유학자였다.
- 이지모(李之模) : 1661~1746 수익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지발(李之發) : 1677~1737 백익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국배(李國培) : 시조의 19세손 절충장군을 지냈다.
- 이배인(李培仁) : 1625~1709 호 장육당(藏六堂) 진문의 아들.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집 뒤 산 등성이에 "장육당"이란 액호의 집을 짓고 학문에 전념했고, 당대 문장가 박광일(朴光一)이 기문을 지었으며, 84세로 타계하니 승정원좌승지를 추증하였다
- 이이장(李以章) : 1632~1707 시조의 20세손. 황해중군(黃海中軍)을 지냈다.
- 이의장(李宜章) : 1636~1714 이장의 아우.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좌랑을 지냈다.
- 이정화(李正華) : 1613~ 1696 시조의 20세손.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했다.
- 이태항(李泰恒) : 1637~1685 시조의 20세손.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주부를 지냈다
- 이두정(李斗挺) : 가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을 지냈다.
- 이수방(李守芳) : 시조의 20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 이수명(李守明) : 직견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을 지냈다
- 이수강(李守綱) : 직견의 둘째 아들. 동몽교관을 지냈다
- 이국화(李國華) : 1701~1781 신조의 20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부호군을 지냈다
- 이원형(李元亨) : 1738~? 시조의 20세손. 찰방을 지냈다.
- 이천룡(李天龍) : 시조의 20세손. 무과에 급제하였다.
- 이덕추(李德樞) : 시조의 20세손. 효로 참봉이 제수되어 통덕랑을 지냈다.
- 이회년(李檣年) : 1651~1730 배인의 맏아들.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다.
- 이준림(李俊林) : 1673~1733 호 매음당(梅陰堂). 시조의 21세손 1715년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이휴명(李休命) : 1680~1762 의장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일함(李一咸) : 1702~1768호 죽강(竹岡). 시조의 21세손.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 이덕림(李德林) : 1738~1794 시조의 21세손 통덕랑을 지냈다.
- 이경지(李慶智) : 1761~? 원형의 넷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을 지냈다
- 이지혁(李之赫) : 덕추의 맏아들. 군자감정을 지냈다.
- 이사광(李師光) : 1665~1716 호 죽파(竹坡) 시조의 21세손. 성균관진사·사헌부감찰을 지냈다.
- 이두삼(李斗三) : 1677~1728 시조의 22세손. 1703년 문과에 급제하여 양산군수·결성현감을 지냈다
- 이세추(李世樞) : 1677~1758 호 보진당(保眞堂). 시조의 22세손.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문집 3권이 전한다.
- 이세식(李世植) : 1679~ 1758 호 농묵재(壟默齋). 세추의 아우.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 이홍직(李弘程) : 1705~1796 호 개석헌(介石軒). 1735. 8. 29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司談)을 지냈다
- 이홍적(李弘稷) : 1709~1767 호 둔헌(遯軒). 시조의 22세손. 통덕랑을 지냈다.
- 이정렬(李挺烈) : 1712~1788호 양파(陽坡) 시조의 22세손.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 이삼운(李三運) : 1817~1866 시조의 22세손. 호군을 지냈다.
- 이명룡(李命龍) : 1708~1789 호 계일헌(戒逸軒). 순화의 10세손. 1759년 문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으며 1760년 12월부터 2년간 관청에서 처리한 사항을 기록한 일록(日錄)이 전한다.
- 이진희(李晉禧) : 1710~ 1773 두삼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 이중권(率中權) : ?~1795 시조의 23세손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을 지냈다.
- 이보영(李普榮) : 1751~1783 경상와(耕桑窩). 홍직의 아들. 1774년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를 지내고 33세로 조졸하였다. -
- 이유홍(李儒洪) : 1855~1902 시조의 23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 이중직(李中直) : 1757~1811 정렬의 셋째 아들. 도정을 지냈다.
- 이병서(李秉緒) : 시조의 24세손. 진사를 지냈다.
- 이기주(李基疇) : 1729~1805 호 기암(箕菴). 시조의 24세손. 진사를 지냈다.
- 이규서(李奎緒) : 1734~1775 명룡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 이진서(李振緒) : 1760~1803 호 송정. 참봉을 지냈으며 진흥가로 주민이 송덕비를 세웠다.
- 이진각(李鎭珪) : 1674~1750 호 연경(蓮景). 시조의 25세손. 전주병마절제도위를 지냈다.
- 이진악(李鎭岳) : 1746~1834호 경당(景堂). 기주의 맏아들. 군자감정을 지냈다
- 이진운(李鎭運) : ?~1793 기주의 넷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돈현(李敦賢) : 1761~1810 호 삼회재(三悔齋) 규서의 맏아들 1798년 문과에 급제하여 시장원 설서(說書)를 지냈다.
- 이돈상(李敦相) : 1767~1810 규서의 둘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돈하(李敦夏) : 1770~1834 호 휴와(休窩). 돈현의 아우. 1807. 4. 7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은을현감 등을 지냈다
- 이강산(李江山) : 1874~1910 일명 돈익(敦益). 한말 항일 의병장 김태원, 조경환 전해산 의병부대에서 활동하다가 독립부대를 창설 함평·영광을 중흥하며 왜병들을 무찔렀다. 1909년에 체포되어 1910년 6월 6일 교수형으로 순국하였으며 1977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 이돈우(李敦友) : 시조의 25세손.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이돈학(李敦學) : 1824~1906 시조의 25세손. 통덕랑을 지냈다.
- 이경헌(李慶憲) : 1721~1792호 남은(南隱) 시조의 26세손.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 이길수(李吉洙) : 1778~1810 호 성경(誠京). 진악의 맏아들. 좌랑을 지냈다.
- 이장헌(李章憲) : 1779~1848 호 모암(慕庵). 시조의 26세손. 효행으로 예조에서 정려가 내려졌다. -
- 이동헌(李東憲) . 1782~ 1834 호 사휴옹(四休翁) . 돈현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 이광헌(李匡憲) : 1787~ 1848 돈상의 맏아들. 효행으로 정려가 내려졌다.
- 이유헌(李裕憲) : 1791~? 돈상의 둘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백헌(李百憲) : 1802~1876 돈하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달헌(李達憲) : 1804~1852 돈상의 셋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만헌(李萬憲) : 1805~1881 돈하의 둘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병헌(李丙憲) : 1810~1886 호 남재(南齋). 시조의 26세손. 동몽교관을 지냈다.
- 이방헌(李邦憲) : 1824~1862 시조의 26세손. 1862년 정한순(鄭翰淳) 등과 함평농민항쟁을 주도하였고 동년 교수형을 받았다.
- 이경헌(李敬憲) : 1825~1855 시조의 26세손. 승지를 지냈다.
- 이찬홍(李贊弘) : 1827~1873 시조의 26세손. 1872년 진도진관 남도만호(南島萬戶)를 지냈다
- 이익헌(李翼憲) : 1839~1892 호 기은(箕隱). 시조의 26세손.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 이경인(李景寅) : 1851~1895 시조의 26세손 1876년 고창현감을 역임했다.
- 이경헌(李敬憲) : 1860~1910호 후암(厚菴). 시조의 26세손.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 이계옥(李啓郁) : 1809~1878 호 오후(五侯) 시조의 27세손. 돈현(敦賢)의 손자로 학문이 뛰어났으며 초시의 시권과 고강단자(考講單子), 문집이 전한다.
- 이계익(李啓益) : 1812~1889 호 관덕재(觀德齋). 광헌(匡憲)의 아들 1855년에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며, 3,000석 부를 누렸다.
- 이계송(李啓松) : 1841~1884 경헌(警憲)의 맏아들로 1871년 무과에 급제하여 첨주를 지냈다
- 이남규(李南奎) : 1867~1907. 11. 7 시조의 27세손. 1894년 조선조에서 마지막 시행한 사마시(司馬試)에서 진사과에 입격한 문무를 겸비한 인재며, 김태원(金泰元) 의병장의후군장(後軍將)으로 활약하다가 순국하였고, 1977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 이계선(李啓善) : 1863~1905 시조의 27세손. 교관(敎官)을 지냈다.
- 이계선(李啓先) : 1869~1909 호 매성(梅城) 시조의 27세손. 1909년 의병 토벌대의 만행에 분개하여 사촌 동생 계중(啓仲)과 창 의 모병하여 나주 금성산(錦城山) 전투에서 동생과 함께 순절하였다.
- 이계중(李啓仲) : 1887~1909 호 매곡(梅谷). 시조의 27세손. 1909년 의병토벌대의 만행에 분개하여 사촌형 계선(啓先)과 함께 창 의 모병하여 금성산 전투에서 형과 같이 순절하였다
- 이계옥(李啓玉) : 시조의 27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를 지냈다.
- 이계백(李啓栢) : 시조의 27세손.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이계균(李啓均) : 1841~1894 호적명 태형(泰亨) 시조의 27세손 무과에 급제 고군산첨절제사를 역임하였고, 이화진과함께 동학운동에 가담하여 많은 활약을 하다가, 이경인(李景寅)이 밀고하여 1894년 12월 25일 나주에서 형사하였다.
- 이형범(李亨範) : 1869~1894 계송(啓松)의 둘째 아들. 은률군수 동범(東範)의 아우.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宣傳)을 지냈다.
- 이재형(李載馨) : 1853~1905 호 반송헌(伴松軒) 시조의 29세손. 함평향교 전교(典校)를 지냈다.
- 이계번(李係蕃) : 신증동국여지승람 명환조(名宦條)에 "현감이되어 청렴하여 욕심이 없고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형립(李亨立) :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이대휘(李大彙) : 생원과에 입격하였다.
 이대옥(李大玉) : 생원과에 입격하였다.
 이 변(李 邊) : 고창현감을 지냈다.

현대 인물

이인서(李寅緒) : 1840~1912 호 화락당(華樂堂). 오위장을 지냈다
 이돈현(李敦炫) : 1925. 11. 17 호 설암(雪岩). 광주시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을 지냈다.
 이돈상(李敦相) : 1927. 2. 29 시조의 25세손 광전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지평공파 종친회장을 역임했다.
 이돈길(李敦吉) : 1930. 8. 29 농학박사. 전남농촌진흥원 시험국장, 전남대학교수를 역임했다.
 이돈창(李敦昌) : 1928. 2. 15 시조의 25세손. 인류학박사. 미국 조지아 주립 대학교수 역임
 이돈매(李敦培) : 1939. 6. 21 시조의 25세손. 생리학박사. 대학교수
 이구헌(李龜憲) : 1860~1935 호 낙포(洛圃).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이주헌(李周憲) : 1870~ 1923 호 상실암(尙實菴). 문학과 성리학으로 이름 높았다.
 이두헌(李斗憲) : 1878~1936 호 국파(菊坡). 시조의 26세손. 1908년 전수용(全垂鏞)의병부대의 참모장으로 불갑산 전투 등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길헌(李吉憲) : 1882~1965 호 청파(淸波). 효행과 문행으로 이름 높았으며 여러권의 문집이 전한다.
 이명헌(李明憲) : 1894~작고. 호 우송(友松). 해보면장을 지냈다.
 이영헌(李瑛憲) : 1905~ 1992 호 면와(勉窩). 함평향교 전교를 지냈다
 이인헌(李麟憲) : 1905~작고. 호 청파(淸波). 시조의 26세손. 농림부 기사·도과장을 지냈다
 이영헌(李永憲) : 1912. 2. 12 호적명 천구(千九). 함평향교 전교를 지냈다
 이택헌(李宅憲) : 1922~1975 시조의 26세손. 엄다면장을 지냈다.
 이봉헌(李鳳憲) : 1923. 10. 1~작고. 호 녹파(祿波). 송정남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이주헌(李周憲) : 1924. 3. 10 광산남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이기헌(李奇憲) : 1924. 4. 8 시조의 26세손. 호 단개(檀价) 학교남 초등학교등 교장을 지냈다.
 이창헌(李昶憲) : 1925. 8. 8 시조의 26세손. 사무관을 역임했다.
 이국헌(李國憲) : 1928. 10 .13 1956년 호남신문 신춘문에 시부 당선. 시인.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이남헌(李南憲) : 1934. 1 6 동방생명 부장을 역임
 이부헌(李富憲) : 1936. 1. 6 엄다면농업협동조합장·제 3대 함평군의원 역임함
 이공헌(李孔憲) : 1936 9. 23 시조의 26세손. 한의학박사. 전국한의사협회 이사 역임하였다.
 이성헌(李成憲) : 1936. 12. 5 나주시 송월동장을 역임했다.
 이시헌(李時憲) : 1938. 7. 16 동아일보 사회부장·논설위원을 지냈다



- 이용헌(李龍憲) : 1938~ 1996 교육행정학박사. 동신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 이정령(李正寧) : 1938. 4. 24 문태중학교장 ..목포신명여자상업학교장 역임
- 이광헌(李光憲) : 1941. 6. 18 시조의 26세손. 육군대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이우헌(李禹憲) : 1941. 9. 12 공군소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이년헌(李年憲) : 1943. 3. 17 시조의 26세손. 문화방송국 제작국장..이사를 역임함
- 이갑헌(李鉉憲) : 1949. 10. 1 시조의 26세손. 서기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 이지헌(李洙憲) : 1950. 3. 13 돈현의 아들. 화순중앙병원장
- 이창헌(李昌憲) : 1953. 6. 8 시조의 26세손. 조선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역임
- 이주헌(李周憲) : 시조의 26세손.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장을 역임
- 이계은(李啓殷) : 1852~1924 방헌의 아들. 1914년 군수서리를 역임하였다.
- 이계순(李啓筍) : 1853~1916 호 취석헌(醉石軒). 시조의 27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사천현감을 지냈다.
- 이계준(李啓準) : 1855~ 1932 감찰을 지냈다
- 이철규(李喆奎) : 1873~1935 경인의 아들. 성균관 생원을 지냈다
- 이계종(李啓琮) : 1887~1955 호 서호(西湖) 대야면장을 지냈다.
- 이계동(李啓東) : 1893~작고. 호 월담(月潭). 시조의 27세손. 1919. 4. 8 문장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 이계수(李啓壽) : 1896~1932 호 죽상(竹箱) 일제 착취에 항거하여 일어난 농민운동의 나주·함평지방 군집장(群集長)으로 활동하였다.
- 이계윤(李啓潤) : 1892~1977 제 3대 함평면장을 역임했다.
- 이계후(李啓厚) : 1908~작고. 호 후계(後溪) 광주시체청 정수과장 겸 회계과장을 지냈다.
- 이계부(李啓富) : 1919. 7. 10 목포 등 전매서장을 지냈다.
- 이계손(李啓孫) : 1922. 5. 20 시조의 27세손. 민선 함평면장을 역임했다.
- 이계춘(李啓春) : 1923. 8. 7 호 청헌(晴軒). 지방의회의원당선. 광주시청근무 등 공무원 20년
- 이계수(李啓水) : 1929. 2. 20~1995 영헌의 아들. 전남대학교 자연대학장·대학원장을 지냈다.
- 이계백(李啓百) : 1931. 5. 18 주월십자군 전공 국가유공자 포상 받음
- 이계선(李啓善) : 1931. 7. 17 시조의 27세손. 육군대학 군수처장을 지내고 육군중령으로 예편했다
- 이계선(李啓善) : 1934. 10. 18 호 복산(福山).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서기관)을 지냈으며 함평이씨 광주종친회장직을 맡고 있다.
- 이계국(李啓國) : 1936. 9. 16 전매공사 완도·목포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 이계문(李啓文) : 1935. 4. 4~ 1982 시조의 27세손. 광주시 북구청 세무과장..광주시 공원관리소장을 지냈다.
- 이계춘(李啓春) : 시조의 27세손. 해보면장을 지냈다.

- 이계섭(李啓燮) : 1942. 10. 5 영광백수읍장을 지냈다.
- 이계운(李啓煥) : 1943. 11. 20 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 이계문(李啓文) : 1952 11. 25 광주전신전화국 제1과장 역임.
- 이계인(李啓仁) : 1955. 10. 12 기현의 맏아들. 청호그룹 전자부장 역임
- 이계흥(李啓興) : 1957 12. 20 기현의 둘째 아들. 경희한의원 경영
- 이계인(李啓仁) : 시조의 27세손 국회사무처 계장 역임
- 이계운(李啓雲) : 월야면장을 지냈다.
- 이계원(李啓元) : 공군중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이계번(李啓繁) : 삼성전업사 이사를 역임했다.
- 이계혁(李啓赫) : 수원시에서 치과의원을 경영하고 있다.
- 이영태(李永台) : 송원대학 교수
- 이동범(李東範) : 1869~1940 호 석암(石菴)·만경(萬頃). 계송의 맏아들. 1902년 만경군수·은률군수를 지냈다.
- 이화범(李和範) : 한말 동복군수를 지냈다.
- 이용범(李瑑範) : 1875~1932 계순의 맏아들. 의관(議官)을 지냈다.
- 이권범(李權範) : 1875~191956 호 성천재(成千齋). 시조의 28세손 1906년부터 김태원 의병부대에 가담 영광 오동촌 전투 등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 이도범(李燾範) : 1884~ 1950 호 동운(東雲) 손병희를 도와 3·1운동을 일으켰으며 체포되어 3년간 옥살이를 한 후 만주·상해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였다.
- 이양범(李陽範) : 1896~작고. 1919. 4. 8 문장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 이완범(李玩範) : 1884~1937. 계순의 아들. 함평면장을 지냈다.
- 이철범(李喆範) : 1915. 10 15 호 화석(華石) 해보면장을 지냈다.
- 이록범(李祿範) : 1923. 4. 20 제 1대 함평군의원을 역임했다.
- 이현범(李賢範) : 1924. 4. 16 한국노총전남협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 이석범(李昔範) : 1927. 10. 11 의학박사. -
- 이광범(李光範) : 1928. 3. 6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이오범(李五範) : 1928. 6. 28 호 은정(隱亭) 한국미술대전 등 초대작가. 제8회 한국미술제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 이옥범(李玉範) : 1934. 12. 10 계윤의 아들. 미국에서 의원 개업.
- 이균범(李鈞範) : 1934. 12. 19 시조의 28세손. 경찰대학장·감사원 감사위원·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였다.
- 이주범(李周範) : 1936. 10 26 천일공업사 회장·유니온물산주식회사 대표를 역임했다.
- 이명범(李明範) : 1937 2. 12 시조의 28세손. 한국생산성 본부 실장·삼진특수인쇄 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했다.
- 이수범(李洙範) : 1937. 5. 28 육군중령으로 예편하였다.



- 이승범(李承範) : 1937. 11. 12 군범의 아우. 한국전력공사 강원도지사장을 지냈다.
- 이요범(李堯範) : 1938. 1. 12 시조의 28세손. 남해화학 생산부장으로 1978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이수범(李受範) : 1938. 7. 27 시조의 28세손. 의사.
- 이달범(李達範) : 1939. 1. 27~작고. 계운의 둘째 아들 대한항공 기장(機長)을 지냈다.
- 이상범(李祥範) : 1943. 2. 29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였다.
- 이원범(李元範) : 1947. 8. 27 국방부 행정사무관·조달청 외자총괄과장을 지냈다.
- 이백범(李伯範) : 1952. 7. 3 호 경제(敬齋). 현대건설 이라크 현장관리부장·바레인지점 경리부 차장 등을 역임함
- 이종범(李鍾範) : 1953. 7. 30계수의 아들. 조선대학교수·동대학박물관장으로 있다.
- 이근범(李根範) : 1953. 8. 8 육군중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이형범(李炯範) : 1961. 12. 24 서울에서 이형범치과의원 개업.
- 이승범(李承範) : 1963. 4. 22 전남매일신문사 경제부장을 지냈다.
- 이상룡(李相龍) : 1967. 9. 10 1990년 제 3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 이강범(李康範) : 시조의 28세손.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이인범(李仁範) : 주식회사 인정공영 대표를 역임함
- 이선웅(李善雄) : 경기도 성남시에서 동장을 지냈다.
- 이수남(李秀南) : 시조의 28세손. 목포에서 맹수한의원을 개원하였다
- 이재남(李載男) : 1889~1974시조의 29세손. 나산면장을 지냈다.
- 이재학(李載學) : 1893~1941 호 만산(晩山). 대동면장을 지냈다.
- 이재혁(李載赫) : 1893~1992 호 죽하(竹下). 동범의 둘째 아들. 건국준비위원회 함평군위원장·함평군 초대 노인회장을 지냈다.
- 이성우(李成佑) : 1897~1965 시조의 29세손 호 동포(東圃) 대한민국제헌국회의원을 지냈다.
- 이재두(李載斗) : 1908. 2. 26 호 월담(月潭). 군산상선(商船)상공자매회사 전무이사·함평이씨 초대 서울충친회장을 역임하였다.
- 이자원(李子元) : 1914 길범의 맏아들.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이재동(李載東) : 1915~1969 호 수봉(壽峰) 완범의 아들. 광주시 행정관리담당관을 지냈다.
- 경주최씨 : 1917. 6. 22 이재석(李載石)의 아내. 효열부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 이재철(李載哲) : 1920, 6.20 한국전력 전주지사 서무부장을 지냈다.
- 이재봉(李載鳳) : 1961년 대동면장을 지냈다.
- 이재호(李載鎬) : 1922. 1. 27 시조의 29세손. 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 이재관(李載寬) : 1925. 3. 17 호 중산(重山) 일신종합건설 대표이사·재광함평군향우회장을 역임하였다.
- 이재욱(李載郁) : 1925. 5. 1 호 풍산(豊山). 풍산학원 광주문성중·고등학교 설립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 이재욱(李在旭) : 1925. 8. 22 해남·강진 세무서 과장을 지냈으며 세무사업을 하고있다.
- 전주이부례(全州李富禮) : 이재록(李載緣, 1926~1981)의 아내. 군수로부터 효부표창을 받았다
- 이재권(李載權) : 1930. 4. 23 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 이재승(李載承) : 1930. 4. 23 시조의 29세손. 해남문내초등학교 등 교장을 역임하였다.
- 이재건(李載建) : 1930. 12 14 육군대령으로 예편하였고, 금강산업주식회사 논산사업소장을 지냈다.
- 이재승(李載昇) : 1931. 4. 7 전남임상(全南臨床)수의학회 회장을 지냈다.
- 이재일(李載日) : 1932. 10. 11 양평군수·내무부지방행정연구원 전문위원을 지냈다.
- 이재연(李載連) : 1933. 6. 28 함평군축산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이재후(李載厚) : 1934. 12. 8 월야면장을 지냈다.
- 이청우(李清友) : 1937 6. 13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장학사·광주과학연구소 연구관을 지냈다.
- 이재실(李載實) : 1937. 10. 12 대마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이재병(李載炳) : 1938. 7. 27 공군대령으로 예편하였다.
- 이재욱(李載旭) : 1938. 광주광역시 계림 2동장을 지냈다
- 이재환(李載煥) : 1938. 12. 28 육군중령으로 예편하였다.
- 이재원(李載沅) : 1945. 3. 6 육군대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이재황(李載晃) : 1940 11 26 한국학술원 연구발표에서 1등상 총화상(總和賞)을 받았다.
- 이재화(李載花) : 1942. 8. 10 제 2대 함평군의원을 지냈다.
- 이재봉(李載奉) : 1947. 1. 29 Sony 한국현지법인 무역과장
- 이재산(李載産) : 1948. 10 23 시조의 29세손. 한일은행 남대문지점장 역임
- 이재진(李載鎭) : 1952. 12. 6 석범의 맏아들. 의사
- 이흥용(李興湧) : 1954. 7. 19 호 인재(仁齋). 시조의 29세손. 광주 기독교병원 안과과장 역임
- 이재석(李載錫) : 1955. 5. 10 광주과학기술대학원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 이재열(李載烈) : 1557. 6. 16 석범의 둘째 아들 의사
- 이경엽(李旻燁) : 1960. 4. 19 호 의재(義齋). 전문의.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 이재태(李載泰) : 1961. 3. 15 주범의 맏아들. 전북 신성여객주식회사 기획실장 역임
- 이재연(李載淵) : 공학박사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이재윤(李載潤) : 의학박사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이재진(李載珍) : 정읍초등학교 등 교장 역임
- 이재열(李載烈) : 내무부에서 사무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 이재봉(李載鵬) : 경기도 안산 대봉전자회사 사장으로 있다.
- 이재엽(李載燁) : 의학박사. 성심병원 마취과장 역임
- 이태길(李泰吉) : 서양화가. 숭실대학교 교수.
- 이영배(李永培) : 송정여자중학교장을 역임함



- 이 길(李 吉) : 서울특별시 중구청 세정과장을 역임함
- 이중수(李鍾洙) : 시조의 29세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장을 역임함.
- 이성연(李聖淵) : 시조의 29세손. 한일은행 전주지점장을 역임하였다.
- 이근행(李謹行) : 1898~1958 호 회정(晦延). 시조의 30세손 함평향교 전교를 지냈다
- 이인행(李仁行) : 1898~1967 호 삼역(三亦) 함평·문장만세운동을 주동하는 등 항일운동에 앞장섰으며 198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 이용근(李龍根) : 1908~작고. 시조의 30세손.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이덕행(李德行) : 1910~1982 나산면장을 지냈다
- 이갑수(李甲洙) : 1911. 1. 10 시조의 30세손. 1대 전남도위원을 지냈다.
- 이상영(李祥永) : 1911. 9. 6 시조의 30세손.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이호연(李浩衍) : 1917. 2. 24 시조의 30세손. 광주시 출장소장을 지냈다
- 이정행(李正行) : 1917. 8. 5~작고. 재혁의 아들. 단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농림수산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벼종자 "만경"을 육종하였다.
- 이철행(李哲行) : 1919~1948 재남의 둘째 아들 구례경찰서장을 역임했다
- 이 학(李 鶴) : 1922. 6. 20 전 국무총리 진의중(陳懿鍾)의 부인. 11대 신사임당(申師任堂) 상을받았다.
- 이태웅(李泰雄) : 1922. 12. 2 호 화정(和亭). 나산북초등학교 등 교장 역임
- 이두행(李斗行) : 1924. 10. 26 서울시청 사회과장·시민과장 등을 지냈다.
- 이준행(李俊行) : 1928. 9. 30신의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이일행(李一行) : 1931. 12. 5 성우의 맏아들. 함평군번영회장·함평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를 지냈다.
- 이석행(李鉅行) : 1933. 2. 25신광서초등학교 등 교장을 역임했다.
- 이윤행(李倫行) : 1934. 5. 4 시조의 30세손. 육군대령으로 복무중이다.
- 이단행(李丹行) : 1934. 11. 15 나산면장을 지냈다.
- 이이행(李以行) : 1934. 12. 5 시인. 1996년 전남시문학상을 받았다.
- 이문행(李汶行) : 1935. 5. 15 시조의 30세손. 나산면장을 지냈다.
- 이남행(李南行) : 1935. 12. 12 장흥·함평보건소장을 지냈다.
- 이경훈(李京勳) : 1936. 7. 13 서울 효제서무서·중량세무서장을 지냈다.
- 이남경(李南京) : 1938. 시조의 30세손. 제 3대함평군의원·군의회 부의장.
- 이행만(李行萬) : 1938. 친. 친 석성·영창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이채홍(李采洪) : 1939. 1. 19 시조의 30세손 국가보훈처 의료계장을 역임함
- 이연행(李連行) : 1939. 6. 23 성우의 둘째 아들. 전라남도위원을 역임함
- 이영일(李榮一) : 1939. 11. 17 재동의 맏아들. 제 11·12·15대국회의원·현재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 이기행(李箕行) : 1940. 3. 28 시조의 30세손. 경감

- 이윤행(李倫行) : 1941. 12. 19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사무관을 지냈다.
- 이홍길(李洪吉) : 1942. 3. 10 시조의 30세손. 박사.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장만순(張萬順) : 1946. 5. 5 이덕행(李德行, 1941년생)의 아내. 효부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 이우행(李友行) : 1944. 6. 15 재욱의 아들. 함평군변영회장을 역임했다.
- 이문광(李文光) : 1944. 5. 15 통일민주당 노동국장·초대 서울시의원을 지법
- 이국행(李國行) : 1948. 12. 31 이학박사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이춘배(李春培) : 1949. 1. 10 시조의 30세손. 육군 중령
- 이봉수(李奉洙) : 1949. 9. 18 시조의 30세손. 소아과전문의. 광주에서 이봉수 소아과의원 경영.
- 이승행(李勝行) : 1957. 6. 8 재관의 아들. 행정학박사 호남대학교 부교수.
- 이덕행(李德行) : 1960. 9. 20 재일의 아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토통일원에서 사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 이양호(李亮昊) : 1964. 3. 23 시조의 30세손.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 이기순(李期順) : 1966. 8. 15 핸드볼 여자 국가대표로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음
- 이국행(孝國行) : 내무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 이건행(李健行) : 광주광역시에서 동장을 역임함.
- 이신행(李信行) : 경감으로 복무하고 있다.
- 이민행(李敏行) : LG 광주사장으로 있다.
- 이방형(李方衡) : 시조의 30세손. 나산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이윤형(李允衡) : 시조의 30세손. 군무사무관으로 있다.
- 이우진(李玆珍) : 시조의 30세손. 한의학박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교수.
- 이성행(李聖行) : 해보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이동주(李東柱) : 시조의 30세손. 해보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이건영(李建榮) : 1915. 4. 14 시조의 31세손 함평·광산경찰서장·광진교통 대표이사를 지냈다.
- 이건풍(李建豐) : 1919. 2. 16 함평향교 전교를 지냈다.
- 이건성(李建成) : 1936. 4. 14 용근의 셋째 아들 광주세무서 직세과장을 지냈다.
- 이건홍(李建洪) : 1936. 4. 15 서울 금광운수 사장.
- 이행구(李幸久) : 시조의 31세손 구영종합건설 사장.
- 이건회(李建會) : 1943. 2. 16 육군중령 예편 국방부 정보처에서 사무관으로 근무중이다.
- 이건철(李建哲) : 1944. 4. 11 용근의 넷째 아들.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였다.
- 이건환(李建煥) : 1947. 7. 28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이건조(李建朝) : 1951. 4. 8 경기도청 인사계장 역임
- 이용섭(李庸燮) : 1951. 8. 11 시조의 31세손. 재경경제원 국장(이사관)을 역임함.
- 이철환(李喆煥) : 1953. 10. 21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 사업소 개소.
- 이건명(李建命) : 1956. 1. 8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있다.



이건업(李建業) : 1957. 6. 11 광주화정동에서 이건업한의원 개원.

이건리(李建莅) : 1963. 6. 11 단행의 맏아들. 제 26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원곤(李原坤) : 1964. 10. 16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건명(李建明) : 1968. 1. 1 공학박사.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원 연구원 충북대학교 조교수.

이건일(李建鎰) : 목포도시가스 사장.

이호성(李浩聖) : 1946. 1. 26 건풍의 아들. 시조의 31세손. 수원지방법원 민사과장을 지냈다.

이진웅(李進雄) : 전남대학교 대학병원 내과에 근무하고 있다

5) 함평정(咸平鄭)씨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모평, 함평, 영평의 토성에 정(鄭)씨가 들어있고 문헌비고에 모평정(牟平鄭)씨 영평정(鄭)씨가 나오는데 함평정씨 배출인물에 정현수(鄭賢守. 영풍부원군-永豐府院君), 정함(鄭緘. 함성군-咸城君)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한 집안인 것 같다.

함평정씨의 시조는 언겸(彦謙)이다

그는 신라 개국공신이며 6부 촌장인 지백호(智伯虎)의 38세손이다. 고려 때 병부상서(兵部尙書) 겸 문하시중을 역임하였고 고려 인종 4년(1126) 척준경(拓俊京)의 난때 모평에 퇴거하여 살았다 그 후 후손들이 초계정(草溪鄭)씨에서 분적하여 함평을 본관으로 하였다.

1931년에 후손 재학(在學)이 쓴 "족보유원안설(族譜流源按說)"에 따르면 큰 화재로 구보(舊譜)가 소실되어 14세 이전의 선계(先系)가 문헌의 증거 불충분으로 남아 있었는데, 함경남도 이원군 동면 효우리에서 살았던 석학 을계 강필동(栗溪姜必東)이 집대성한 "만성씨계첩(萬姓氏系牒)"에 상계(上系)가 기록되어 있어 여러 문헌과 비교 검토하여 바로 잡았다고 적고 있다.

2세 형(洞)이 공부시랑 평장사(工部侍郎平章事), 3세 현수(賢守)가 호부상서 문하시중(門下侍中), 4세 신량(臣良)이 예부상서, 5세 함(緘)이 호부상서 문하시중으로 함성군(咸城君. 일부 기록 함풍군-咸豐君)에 봉작되고, 6세 공민(恭敏)과 공밀(恭密) 형제가 병부상서 문하시랑과 병부상서 문하시중을 지냈고, 7세 을룡(乙龍)이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당문학 진현관 대제학(政堂文學進賢館大提學), 8세 안의(安義)가 문과에 급제하여 공양왕 때 보문각 대제학(寶文閣大提學)을 지내다가 1392년 고려조의 패망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와 은거하였다고 하였으니 시조 이하 8세까지 대대로 고려조에서 큰 인물을 배출한 명문으로 중앙귀족화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조에 들어서도 9세 지유(知遊)가 호조전서(戶曹典書), 10세 구명(耇明)이 태종 太宗甲申年. 1404)에 진사가 되어 출사하여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함평정씨가 충남 당진군에 정착하게 된 연유는 11세 숙윤(叔倫)의 둘째아들 효창(孝昌)이 먼 천(沔川. 당진의 고호-古號)군수를 역임한 후 정착하였고 일가들까지 이거하여 후손이 퍼져 당진군과 서산군 운당면 수당리에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씨족조사집계에 의하면 함평군에는 5가구 12명이 살고 있고 광주와 전남에 152가구 737명인데 비하여 서산군에는 운산면 수당리를 비롯하여 135

가구 614명이며, 당진군에는 224가구 1,063명이 살고 있어 전국에서 함평정씨가 가장 많이 사는 군이다.

인천, 경기도에도 288가구 1,135명이 살고 있으며 서울에는 419가구 1,743명이 살고 있다.

함평정씨는 정씨122본관 중 수효에서 18위를 차지하는데 전국적으로 1,462가구 6,485명이다. 정씨의 본관별 가구 수 순위를 17위까지 적어보면,

동래	98,423가구	414,785명	경주	70,670가구	300,808명
연일	57,504가구	237,219명	진주	56,464가구	231,289명
하동	33,864가구	142,418명	초계	20,215가구	83,311명
나주	15,147가구	64,669명	영일	11,434가구	46,922명
청주	8,802가구	36,380명	해주	8,427가구	34,736명
온양	6,889가구	24,134명	오천	5,150가구	22,033명
봉화	4,939가구	20,468명	광산	4,371가구	19,028명
서산	3,287가구	13,819명	고성	2,296가구	10,853명
전주	1,538가구	6,957명			

배출인물

정언겸(鄭彦謙) : 함평정씨 시조. 신라개국공신 지백호의 38세손. 문과에 급제하여 병부상서 문하시중(중 1품)을 역임하였고 1126년 척준경의 난 때 모평(牟平)으로 퇴거하여 살았고 후손이 본관을 함평으로하여 시조가 되었다.

정 형(鄭 炯) : 언겸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공부시랑 평장사(平章事)를 지냈다.

정현수(鄭賢守) : 형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호부상서 문하시중을 지냈으며 영풍부원군(永豐府院君. 현 함평읍의 일부 지명)의 작위를 받았다

정신량(鄭臣良) : 4세손. 병부원의랑, 예부상서를 지냈다

정 함(鄭 緘) : 함(滴)으로도 쓴다. 5세손. 문과에 급제하여 호부상서 문하시중, 우정승(右政臺)을 지냈고 충렬왕 때 함성군(咸城君)의 작위를 받았다

정공민(鄭恭敏) : 함의 맏아들. 병부상서 문하시랑을 지냈다.

정공밀(鄭恭密) : 함의 둘째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상호군, 병부상서 문하시중 첨의평리(表講評理)를 지냈다.

정을룡(鄭乙龍) : 7세손. ?~1370. 시호 충정(忠貞). 공민의 아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당문학 진현관대제학을 지냈다.

정안인(鄭安仁) : 8세손. 을룡의 맏아들. 진사로 출사하여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냈다.

정안의(鄭安義) : 8세손. 호 청유(靑遊). 을룡의 둘째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전법판서를 거쳐, 공양왕 때 문하 찬성사, 보문각 대제학을 지내고 1392년 고려조의 패망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살았다.

정지유(鄭知遊) : 9세손. 안의의 아들. 진사로 출사하여 호조전서를 지냈다.

정구명(鄭壽明) : 태종조인 1404년에 진사가 되고 판선공감시사(判繕工監寺事),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정효창(鄭孝昌) : 12세손. 숙윤(叔倫)의 둘째아들. 면천(현 당진)군수를 지냈고 면천에 정착하였다

함평정씨의 전국 분포

*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1,462	6,425	대구	동구	1	6	경기	시흥	3	15	강원	양양	1	3
	소계	419	1,743		서구	2	11		파주		7		삼척		2
서울	종로	12	57		남구	2	12		고양	3	17	충북	소계	8	42
	중구	16	46		북구	3	17		광주	3	16		청주	4	17
	용산	16	65		수성	1	3		연천	1	4		충주	1	7
	성동	26	102	인천	소계	135	524		포천	3	15		제천	1	7
	동대문	39	148		중구	1	28		가평	1	5		청원	1	2
	성북	25	112		동구	19	68		양평	4	12		옥천		1
	동봉	23	121		남구	68	280		이천	1	7		영동		1
	은평	20	104		북구	42	148		용인	10	27		진천	1	2
	서대문	20	77	광주	소계	51	230		안성	1	4		괴산		2
	마포	19	80		동구	7	46		김포	5	11		증원		2
	강서	35	157		서구	16	79		강화		3		제원		1
	구로	47	190		북구	19	65		용진		1	충남	소계	465	2,173
	영등포	27	26		광산	9	40		반월	1	6		금산		2
	동작	17	64	대전	소계	32	145		과천	2	9		대덕	4	14
	관악	25	111		동구	11	47		소계	29	112		연기	2	11
	강남	24	102		서구	19	89		춘천	3	13		공주	2	5
부산	강동	28	110		유성	2	9		원주	3	13		논산	6	25
	소계	28	133	경기	소계	153	611	강원	강릉	2	10		부여	1	3
	중구	4	13		수원	17	61		동해		4		서천		3
	서구	1	5		성남	11	65		태백		2		보령	8	39
	동구		1		와평부	4	15		속초	2	6		청양	18	93
	영도	1	3		아양	21	75		춘성	1	2		홍성	16	56
	부산진	8	29		부천	28	108		홍천	2	12		예산	15	91
	동래	5	29		광명	12	42		횡성	6	17		서산	135	614
	남구	5	27		송탄	3	15		원성		1		당진	224	1,063
	북구	2	13		동두천		1		영월	1	4		아산	17	94
	해운대	1	10		양주	3	13		평창	2	9		천원	2	7
	사하	1	2		남양주	4	15		정선	2	6		천안	15	83
	강서		1		여주	2	6		철원	2	4	전북	소계	18	104
대구	소계	9	52		평택	6	23		화천	1	1		이리	1	4
	중구		3		화성	4	23		고성	1	3		정주		3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북	남원		1	전남	승주			경북	경주	2	6	경남	진주	1	4
	완주	1	7		고흥	2	13		김천	2	5		창원	3	10
	무주		1		보성		1		구미		5		진해	2	9
	남원시		1		화순		1		영주		1		충무	1	5
	순창	1	4		장흥	2	10		달성	1	1		김해시	1	1
	정읍		4		강진	1	4		군위		1		진양		1
	고창	3	5		해남		3		영덕		1		창녕	1	2
	부안	1	6		영암	3	13		영일	1	6		양산		1
	김제	1	7		무안	7	30		월성	1	5		김해	2	8
	옥구		3		나주		7		영천	1	8		거제		1
	익산	2	14		여수	4	15		경산	2	8		사천	1	3
	전주	7	34		함평	5	12		성주		2		산청		3
	군산	1	10		영광	11	53		칠곡	1	1		함양		2
전남	소계	59	217		장성	4	22		상주		1		거창		1
	순천		1		안도	4	13		예천		3		합천		4
	나주	2	17		진도		1		영풍	1	1	제주	소계	9	48
	담양		6		신안	1	12		봉화	1	2		제주	1	11
	곡성		1		여천시	1	3		울릉		1		서귀포	5	21
	구례		1		목포	11	68		소계	28	110		북제주	2	15
	광양		1	경북	소계	19	81	경남	울산	9	34		남제주		1
	여천	1	7		포항	6	23		마산	7	21				

6) 함평임(咸平任)씨

함평 임씨의 시조는 진미(眞美)이다

시조의 행장이나 득관(得貫)에 관한 기록이 없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으나 함평이씨의 보첩에 2세조 이화(李和)의 아내가 함평임씨 길반하대정 진미(吉班下隊正眞美)의 딸로 기록되어 있어 이로 미루어 보면 득관의 연대가 함평이씨와 거의 같은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평읍 함평리 거주 이재혁(李載赫, 1989년 당시 95세)의 증언에 의하면 함평임씨의 세거지가 함평리였으며 1930년대에 모두 함평을 떠났다고 하였다.

198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5가구 116명으로 임씨 23본 중 11위고 함평군에 1명이 산다고 되어 있으나 만나보지 못했다.



함평임씨의 전국 분포

*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28	116		소계	3	13	대전	소계		1		목포	1	6
	소계	4	25		수원		1		동구		1		담양		2
	성동	1	21		성남	1	2		소계	2	2		광양	1	6
	동대문		3		안양	1	1	충남	연기	1	1	전남	무안	1	3
	성북		3		남양주	1	2		서천	1	1		함평		1
	도봉		1	경기	화성		1		소계	6	21		진도		2
	은평		1		시흥		1		전주	1	3		신안	1	1
서울	서대문		1		파주		2		이리		1	경북	소계	1	7
	마포		1		고양		1		군산		2		포항	1	2
	강서	1	1		가평		1	전북	남원	2	6		김천		5
	구로	1	4		양평		1		고창	2	7		소계		2
	관악		2		소계	2	6		부안	1	1	경남	울산		1
	강동	1	6	강원	원주	1	2		김제		1		진해		1
	소계		2		평창	1	4		소계	1	9				
부산	부산진		1		소계		3	광주	서구	1	4				
	강서		1		보은		1		북구		3				
인천	소계	1	4	충북	증원		1		광산		2				
	북구	1	4		제천		1	전남	소계	5	21				

2. 시조가 미확인된 성씨

1) 함평곽(咸平郭)씨

1985년 11. 1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9가구 173명이 살고 있어 곽씨 24본관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252가구 704명이 조사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5년 조사에서는 광주 전남에 14가구 75명이 살며 함평에는 단 1명의 거주자도 없다고 되어 있으나 2000년 조사시에는 함평에 4가구 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1985년 조사가 상당히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곽씨는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및 기록에 토성으로 기록되지 않은 성씨다.

따라서 1985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불성실이나 무지에서 함평에 살았던 다른 본관의 곽씨들이 자기들이 전에 살았던 함평을 본관이라고 응답하여 집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함평곽씨의 전국 분포

*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35	173	부산	해운대		1	충남	금산		1	전남	광양	1	3
서울	소계	6	26	대구	소계		1		아산		1		승주		1
	종로	1	1		남구		1		소계	6	18		고흥		1
	중구	1	1	인천	소계		6	전북	군산	2	4		보성		1
	성동		1		동구		1		이리		1		장흥		8
	동대문		3		남구		3		정주		1		해남	1	1
	성북		1		북구		2		남원		1		무안		5
	동봉		1	경기	소계	3	16		고창	1	1		나주	1	1
	서대문		2		수원	1	4		부안	1	5		영광		1
	마포	1	1		성남	1	8		김제		1		장성		4
	강서	1	7		광명	1	1		익산	1	4		진도	1	7
	영등포	1	1		평택		1	광주	소계	7	27		신안	1	1
	동작		2		시흥		1		동구	2	7	경북	소계		1
	강남	1	3		용인		1		서구	3	10		경산		1
	강동		2		소계	1	3		북구	2	8		소계		4
	소계	5	18	강원	원주	1	2		광산		2	경남	밀양		2
부산	영도	1	1		평창		1	전남	소계	7	48		남해		2
	부산진	1	4		소계		3		목포	2	9	제주	소계	1	1
	동래		1	충북	청주		1		여수		3		제주	1	1
	남구	2	9		괴산		1		나주시		1				
	북구	1	2		소계		2		담양		1				

2) 함평김(咸平金)씨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속성(續姓)으로 기록된 김씨가 이 집안인 듯하다. 전에 함평 김씨가 북한에 많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1998년 6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함평김씨 후손이라며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있었다.

평남 대동군에서 살다가 6·25 한국전쟁 때 10여 세대의 친족과 함께 남으로 피란하였으며, 대동군에 300여 세대, 황해도 해주에 50여 세대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고 했다.

피란길이라 족보는 가져오지 못했고 가승은 지니고 있다는 말과 함께 관향(貫鄉)인 함평을 친족들과 함께 찾아가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아직 오지 않아 함평김씨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다.

198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함평김씨는 223가구 943명이 살고 있어 김씨 282본관 중 114위며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 많이 살고 있고, 함평군에는 단 1명도 살지 않으며 광주·전남에는 4가구 25명뿐이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502가구 1,6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함평에는 2가구 1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래

시조 : 김구정(金九鼎)

김구정(金九鼎)은 남산김씨 시조 김수(金需)의 22세손으로 함평군(咸平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 뒤 후손들이 남산김씨에서 분관하여 그를 시조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 경순왕의 넷째 아들의 12세손인 동정公 김철명(金哲明), 신라 45대 신무왕의 후손으로 전해 오는 김취실(金就實), 마의태자(麻衣太子)의 후손 등을 시조로 전하는 문헌도 있다.

과거급제자(조선시대)

김춘남(金春男, 1593 癸巳生) : 무과(武科) 인조15년(1637) 별시 병과(丙科)
 김대진(金大進, 1598 戊戌生) : 무과(武科) 인조15년(1637) 별시 병과(丙科)
 김귀영(金貴永, 1593 癸巳生) : 무과(武科) 인조15년(1637) 별시 병과(丙科)
 김 활(金 ○, 1634 甲戌生) : 무과(武科) 현종1년(1660) 증광시 병과(丙科)
 김경록(金景○, 1593 癸巳生) : 무과(武科) 인조15년(1637) 별시 병과(丙科)
 김경립(金京立, 1603 癸卯生) : 무과(武科) 인조15년(1637) 별시 병과(丙科)
 김대홍(金大弘, 1603 癸卯生) : 무과(武科) 인조15년(1637) 별시 병과(丙科)
 김희득(金希得, 1613 癸丑生) : 무과(武科) 인조15년(1637) 별시 병과(丙科)
 김득룡(金得龍, 1603 癸卯生) : 무과(武科) 인조15년(1637) 별시 병과(丙科)
 김차영(金次永, 1603 癸卯生) : 무과(武科) 인조15년(1637) 별시 을과(乙科)

등 모두 13명의 과거 급제자가 있다.

(무과 10명, 사마시 3명)

함평김씨의 전국 분포

*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223	943	인천	중구	2	11	충북	괴산	1	2	전남	해남		1
	소계	92	361		동구	1	5		충원	2	5		무안	2	9
	종로	2	5		남구	6	20		소계	17	88		나주		1
	중구	2	7		북구	7	25		천안	1	5		장성	1	2
	용산	2	12	경기	소계	30	126	충남	대덕		1	광주	소계	9	39
	성동	10	21		수원	1	7		공주	3	11		동구	1	6
	동대문	15	51		성남	2	11		논산	1	3		서구	6	21
	성북	2	6		와정부	1	8		부여		1		북구	2	12
	도봉	6	33		안양	2	9		청양		2	경북	광산	2	6
	은평	3	21		부천	7	29		홍성	1	5		소계	13	63
	서대문	4	14		광명	3	13		예산		1		포항	1	7
	마포	5	16		양주	1	2		서산	1	5		경주		1
	강서	8	34		김포	1	5		당진	4	27		안동		1
	구로	7	24		반월	1	2		천원		4	전북	구미	2	3
	영등포	1	12	강원	소계	14	55		소계	7	27		영원시		1
	동작	3	14		원주	1	4	대전	동구	1	6		의성	1	3
	관악	3	11		태백		1		중구	6	21		영천	1	5
	강남	10	40		동해		3	전북	소계	5	27		경산		1
	강동	10	30		속초		1		전주	3	15		선산	1	1
	부산	소계	5	26	홍천	3	10		군산	1	15		상주	1	7



대구	중구	1	2	충북	횡성	1	6	전남	장수		1	경남	문경	2	12
	서구		3		평창		1		임실		1		예천	2	14
	부안		2		정선	3	9		남원		1		영풍	1	1
	동래	3	8		철원	1	3		순창		1		봉화	1	4
	남구		1		화천	2	7		정읍		2		소계	3	20
	북구		4		양구	2	7		고창	1	4		울산	1	6
	사하	1	6		고성		1		소계	4	25		마산	1	6
	소계	8	33		명주	1	1		금성		1		진주		1
	동구	4	10		삼척		1		목포	1	6		창원		2
	서구	2	9		소계	4	13		담양		1		김해		1
인천	남구		1	충북	청주	1	2	전남	여천		1	경남	밀양		1
	북구	1	8		청원		1		고흥		1		거제		1
	수성	1	5		영동		1		보성		1		하동		1
	소계	16	61		진천		1		장흥		1		합천	1	1

3) 함평노(咸平盧)씨

노(盧)씨는 500여년간 함평 땅이었던 해제현(海際縣, 현 무안군 해제면)의 토성이었다. 해제노씨라 하지 않고 함평노씨라고 하는 까닭이 현재는 무안군이지만 이곳이 500여년간 함평 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국씨족고(東國氏族考, 철종 때 노상직-盧相稷-지음)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1924년 윤창현-尹昌鉉-펴냄)를 보면 함평노씨의 시조를 노극창(盧克昌)으로 적고 있다.

극창은 시조의 17세손 중륜(仲崙)의 현손(玄孫)으로 중종 갑술년(1514)에 문과에 급제하여 남원부사 등을 역임했고 1540년대에 나산면 송암리에 이거 정착했다.

그런데 중륜의 손자며 통덕랑을 지낸 성연(成連)이 1470년경 함평군 월야면에 입향하여 아들 시(僖)는 첨사, 손자 길상(吉祥)이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판윤을 역임하는 등 가문이 번성하였다.

따라서 극창을 함평노씨 시조로 기록한 위의 두 기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같은 노(盧)씨인 동국씨족고의 저자가 자기 집안에 대해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전거(典據)가 있어서 극창을 시조로 기록했을 것으로 여기나 그에 대한 기록은 물론이고, 족보에도 극창계열이 함평노씨로 분적했을 가능성을 보이는 기록이 없어 증빙할 수 없다.

현재 극창계열의 후손은 광산노(광주노)씨로 본관을 정리하고 있다.

198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평노씨는 전국적으로 67가구 278명이 살고 있어 노(盧)씨 42 본관 중 18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24가구·전북 8가구 순위이다. 광주와 전남에는 3가구 22명이 살고 있으며, 본향인 함평에는 1명이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전국에 1,604가구에 5,131명이 살고 있고, 함평에는 17가구 36명이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이 어떤 계열에서 분적된 함평노씨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시험관련 사항]

왕/년도 : 중종(中宗) 9년

과거시험연도 : 1514 갑술

시험명 : 별시(別試)

등위 : 병과14(丙科14)

[인적 사항]

성명(姓名) : 노극창(盧克昌)

자 : 영경(榮卿)

본관(本貫) : 함평(咸平)

거주지(居住地) : 미상(未詳)

[이력 및 기타 사항]

전력(前歷) : 유학(幼學)

관직(官職) : 사성(司成)

[가족사항]

부(父) : 노상지(盧尙枝)

[기타사항]

국증본에는 본관이 함평(咸平)으로 되어 있다.

[시험관련 사항]

왕/년도 : 현종(顯宗) 7년

과거시험연도 : 1666 병오

시험명 : 식년시(式年試)

등위 : 병과25(丙科25)

[인적 사항]

성명(姓名) : 노삼석(盧三錫)

자 : 명여(命如)

본관(本貫) : 함평(咸平)

거주지(居住地) : 함평(咸平)

[이력 및 기타 사항]

전력(前歷) : 유학(幼學)

관직(官職) : 예조/좌랑(禮曹/佐郎)

[가족사항]

부(父) : 노득성(盧得聖)



처부(妻父) : 이선근(李宣謹) (陽城)

[기타사항]

본관이 광주(光州) 또는 복성(福城)이라는 기록도 있음.

함평노(盧)씨의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67	278	서울	은평	1	1	부산	소계	3	15	대구	서구	7	26
서울	소계	24	83		서대문	1	3		영도	1	1		남구	3	9
	종로		3		마포	2	3		부산진	1	4		북구		1
	중구	1	1		강서	2	5		동래		3		수성	4	11
	용산		1		영등포	2	11	대구	남구	1	5	인천	소계	1	8
	동대문	6	23		동작	2	6		사하		2		동구		2
	성북	4	15		관악		1		소계	17	52		남구		1
	도봉	2	5		강동	1	2		중구	3	5		북구	1	5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대전	소계	1	1	광주	소계		7	전북	전주	2	10	전남	나주군		3
	중구	1	1		동해		1		군산	3	5		함평		1
광주	소계		2		태백		1		이리	4	6		영광	1	1
	동구		1	충북	원성		1		정주		1	경북	소계		8
	서구		1		영월		2		남원		2		김천		1
	소계	6	20		양양		1		완주	1	3		구미		1
경기	수원	2	2		명주		1	전남	정읍		1		영덕		1
	성남	1	4	충남	소계		3		고창	1	6		월성		2
	안양		1		청주		1		김제		1		고령		1
	부천		1		충주		1		소계	3	20		상주		1
	남양주		1	충남	충원		1	경남	목포		1		문경		1
	여주	1	3		소계	1	12		여수	1	4		소계	3	12
	평택		2		논산		1		담양		2		마산	2	5
	화성		1		보령		4		승주		1		밀양		1
	광주	1	2		청양		1		장흥	1	3		의창		1
	양평		1		서산		1		해남		1		하동		2
	용인		1		아산	1	5		영암		2		합천	1	3
	안성	1	1	전북	소계	8	35		무안		1				



4) 함평문(咸平文)씨

문씨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함평현의 토성으로 기록된 성씨다. 1985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함평문씨는 전국적으로 158가구, 850명이 살고 있어 문씨 43본관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000년에 통계청 조사에는 전국적으로 612가구에 2194명이 거주하며, 함평에는 단 1명만이 거주하고 있어 함평 거주 인구는 1985년 조와 똑같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에 26가구 137명이 살고 있고, 광주와 전남에는 24가구 152명이 살고 있으며 함평군에는 단 1명이 살고 있다.

본적 내역과 계보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함평문씨의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158	850		용산	2	6		도봉	6	30		강서	5	23
서울	소계	61	282	서울	성동	4	25	서울	은평	3	13	서울	구로	4	12
	종로	2	9		동대문	6	35		서대문	2	10		영등포	3	14
	중구	1	7		성북	8	29		마포	1	4		동작	2	9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서울	관악	4	15	경기도	광명		3	충남	보령		2	전남	함평		1
	강남	6	25		송탄	1	3		예산	1	3		영광		5
	강동	2	17		동두천		1		서산		8		장성		2
	소계	11	47		양주	1	5		당진		4		완도	1	3
부산	서구	1	2	경기도	남양주	4	14	전북	아산		2	경북	진도	1	7
	동구	2	5		평택	1	5		천원		1		신안		4
	영도	1	4		화성	1	4		소계	18	73		여천시		1
	부산진		4		시흥		6		전주	3	18		소계	2	29
	동래	3	15		파주	2	8		군산		2		포항		6
	남구	1	7		고양	2	11		이리	1	4		안동시		2
	북구	2	6		광주	1	1		정주	1	5		구미		2
	해운대	1	2		연천		1		남원	1	5		달성		1
	사하		2		포천	1	1		장수		1		군위		1
	소계		8		이천	1	3		임실	1	1		안동		1
대구	중구		1		안성		5		남원군		2		영천		1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동구		1		김포		1		순창	1	4		경산		1
	남구		4		강화	1	3		고창	2	9		청도		1
	북구		1		웅진		1		부안	3	18		성주		1
	수성		1		반월		1		김제	2	2		금릉	1	4
인천	소계	7	33		소계	1	13		옥구		1		선산		1
	동구	1	2		춘천		2		익산	1	3		상주		1
	서구	4	20		원주	1	1		소계	14	93		예천		1
	북구	2	11		태백		1		목포	3	14		영풍		1
대전	소계	1	15	강원	속초		1		여수		3		봉화	1	4
	동구		4		홍천		1		순천		1		소계	5	26
	중구	1	11		정선		1		나주시		1		울산	1	3
광주	소계	10	59		철원		2	전남	곡성	1	4	경남	마산		3
	동구	3	12		삼척		4		구례		2		진주	2	5
	서구	4	25		소계	2	10		광양	2	9		창원		3
	북구	2	12		청주	1	4		여천		23		진해		1
경기	광산	1	10	충북	청원	1	3		승주		7		충무		6
	소계	28	137		진천		1		고흥	1	7		김해	1	1
	수원	1	8		단양		1		보성		2		밀양	1	1
	성남	2	10		충주		1		장흥	1	15		양산		2
	의정부		1	충남	소계	1	21		해남		4	제주	고성		1
	안양	2	12		공주		2		영암		2		소계	1	4
	부천	5	20		서천		1		무안	1	1		제주	1	4

5) 함평박(咸平朴)씨

박씨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영풍향(永豊鄕)의 토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씨다.

영풍향은 현 함평읍 성남리에 치소가 있었던 특수행정구역이다

함평박씨는 1985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0가구 312명이 살고 있어 박씨 127본관 중 66위다. 2000년 조사에는 251명에 808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향인 함평에는 1985년 2명으로 조사되었던 것이 2000년 조사에는 가구를 이루지 않고 1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1명은 이주했거나 타계한 것으로 보인다.

본적 내역이나 계보는 아직 알 수 없다.

함평박(朴)씨의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60	312	대구	소계	2	6	경기	시흥		1	전북	진안		1
서울	소계	25	114		동구		1		고양		2		정읍		1
	종로	2	7		서구	2	4		광주	1	1		고창	1	2
	중구		3		남구		1		포천	1	1		김제	1	4
	용산		4	인천	소계	2	15	강원	과천	1	3		옥구		1
	성동	2	10		중구		1		소계		4	전남	익산		1
	동대문	1	4		남구	2	10		춘천		1		소계	2	10
	성북	1	3		북구		4		강릉		1		목포		2
	도봉	3	12	대전	소계		2	충북	태백		1		여수		1
	은평		2		중구		2		정선		1		순천		1
	서대문	1	5		소계	8	33		소계	1	4		나주		2
	마포		3		동구		4		충주	1	1		담양		1
	강서	2	8	광주	서구	6	12		청원		1		광양		3
	구로	2	10		북구	1	11		보은		1		보성	1	1
	동작	5	13		광산	1	6		증원		1		화순		1
	관악	2	11	경기	소계	9	32	충남	소계	1	13		강진	1	4
	강남	1	5		수원	1	3		부여		5		해남		1
	강동	3	14		성남	2	11		서천		2		영암		1
	소계	1	8		안양		1		홍성	1	5		무안		1
부산	중구		2	경기	부천	2	5	전북	예산		1		나주		2
	동래		1		광명		1		소계	5	23		함평		2
	남구	1	4		평택	1	2		전주	1	6		영광		1
	북구		1		화성		1		이리	2	7		장성		2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남	완도		1	경북	영천시		1	경북	상주		1	경남	차원		1
	진도		2		군위		1		봉화		1		양산	1	2
경북	소계	2	11		영일		1	경남	소계	1	5	제주	소계	1	4
	포항		1		경산		1		울산		1		제주	1	4
	구미	1	1		청도	1	3		진주		1				

6) 함평서(咸平徐)씨

서씨는 함평의 옛 기록에 토성이나 속성, 또는 망성으로 기록되지 않은 성씨다

1985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가구 36명이 살고 있어 서씨 54 본관 중 4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 조사에는 서씨 57개 본관중 80가구 235명이 거주하고 있어 4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85년 조사가 상당히 부정확했음을 알 수 있다. 본향인 함평에는 2가구 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시대 무과급제자 가운데 함평서씨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1614년 갑인생(甲寅生)인 서의방(徐義方)¹⁾으로 1644년(인조 22)별시 병과(兵科)에 합격한 것이다.

그에 관한 인명만 소개 될 뿐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으나 이 기록으로 미루어 함평서씨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유서 깊은 성씨임을 알 수 있다.

함평서씨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한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5	36	서울	강동		1	강원	양양		1	전남	소계		4
서울	소계	2	13	부산	소계		3	대전	소계		1		담양		1
	동대문		1		해운대		3		동구		1		여수		1
	성북		1	대구	소계	1	1	전북	소계		4		영광		1
	도봉		1		서구	1	1		남원		2		진도		1
	은평		1	경기	소계		2		부안		1	경남	소계	1	4
	구로		1		남양주		1		익산		1		울산		1
	영등포		1		평택		1		소계		2		합천	1	1
	동작	1	2	강원	소계	1	2	광주	동구		1		마산		1
	강남		1		원주	1	1		서구		1		진주		1

7) 함평신(咸平申)씨

신(申)씨는 함평의 옛 기록에 토성이나 속성, 그리고 망성에 기록되지 않은 성씨다.

1985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8가구 108명이 살고 있어 신씨 52 본관 중 39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통계청의 인구조사에는 함평신씨는 총 105가구 37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신씨 가운데 40위로 나타났다.

함평군에는 3가구 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함평신씨는 분적이나 계보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1) 서의방에 관한 인명은 1644(음)년 간행된 <甲申別試文武科榜目>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인터넷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함평신씨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18	108	서울	북구		1	경기	수원		1	전남	소계	1	2
	소계	6	36		해운대	1	3		성남	1	3		금성	1	3
	용산		1		사하	1	2		안양	1	3		해남		2
	동대문	1	5		소계	1	7		광명		2		무안		1
	성북		3		서구	1	5		용인	1	6		나주		1
	도봉		2		남구		1		반월		1		함평		1
	은평		1		수성		1	강원	소계		1	경북	신안		1
	강서	1	5		소계	1	4		철원		1		소계		2
	구로	2	5	대전	충구	1	4	충북	소계		2		월성		1
	영등포		2		소계	2	10		충원		2		고령		1
	관악	1	7		동구		1	충남	소계	2	12	경남	소계		1
	강남		1		서구		2		천안		1		창원		1
	강동	1	4		북구	1	5		금산	1	4				
	소계	2	8		광산	1	2		서산	1	6				
부산	부산진		2	경기	소계	3	16		당진		1				

8) 함평유(咸平柳)씨

함평의 각종 기록에 토성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씨다.

1985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함평유씨는 전국적으로 27가구 121명(52본 중 39위)이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북 4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고 광주와 전남에는 2가구 14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단 1명도 사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00년 조사시는 전국에 180가구에 54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56본(기타, 미상 제외) 가운데 38위로 나타났다. 함평에 거주하는 함평유씨 또한 2가구 5명인 것으로 나타나 1985년 조사보다 상승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함평유씨 또한 성씨의 내력이나 분파에 관해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함평유씨(咸平柳氏)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27	121	서울	도봉	1	3	서울	영등포	1	4	부산	영도	1	2
	소계	8	41		은평		2		동작	1	3		동래		1
	중구		1		서대문		1		강남		2		북구	1	1
	성동	1	7		마포	1	1	부산	강동	1	6	대구	소계	2	4
	동대문		1		강서		4		소계	3	9		서구	2	4

	성북		2		구로	2	4		중구	1	5	인천		1	3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인천	중구		1	경기	부천		1	충남	소계		4	전남	보성		3
	북구	1	2		광명	1	3		천안		2		영광	1	3
대전	소계		2		평택		2		공주		1		신안		1
	동구		1		화성		1	전북	당진		1	경남	소계	1	9
	중구		1		시흥		1		소계	4	12		울산		1
광주	소계	1	3	강원	양평	1	1		전주	1	8		마산	1	2
	서구	1	2		소계		1		정읍	1	1		진주		1
	북구		1		동해		1		고창	2	3		창원		4
경기	소계	3	13	충북	소계	2	5	전남	소계	1	11		함양		1
	수원		1		충주	1	2		금성		1				
	성남		2		옥천		1		광양		1				
	안양	1	1		영동	1	2		고흥		2				

9) 함평윤(咸平尹)씨

윤씨는 다경부곡(多慶部曲, 현 무안군 현경면. 조선조 함평현)의 토성으로 후손들이 본관을 함평으로 할 수 있는 성씨다.

1985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함평윤씨는 전국적으로 198가구910명(44본 중 12위)으로 서울에 59가구 광주와 전남에 46가구, 경기도 30가구, 전북에 24가구 순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 조사에서는 1985년의 조사 내역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1,369가구에 4,49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려 25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1985년 전산시스템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조사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체 윤씨 46본(기타, 미상 제외) 가운데 10위에 해당되는 많은 성씨에 해당된다. 또한 1985년 조사에서 본향인 함평에는 단 1명만이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5가구 6명이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함평윤씨 또한 성씨의 내력이나 분파에 관해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함평윤씨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198	910	서울	은평	4	17	서울	강동	2	14	부산	해운대	1	2

서울	소계	53	224	부산	서대문	4	15	부산	소계	12	49	대구	사하		2
	종로	2	8		마포	2	7		서구	1	1		소계	6	20
	중구	1	5		강성	3	16		동구	2	11		서구	1	5
	용산	1	11		구로	3	11		영도		2		남구	1	3
	성동	8	30		영등포	1	6		부산진	1	4		북구	2	8
	동대문	4	13		동작	4	14		동래	2	10		수성	2	4
	성북	2	13		관악	4	14		남구	3	10	인천	소계	9	42
	도봉	7	25		강남	1	5		북구	2	7		중구	1	3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인천	동구		2	강원	태백	1	4	전북	군산	3	9	전남	영광	1	3
	남구	3	18		홍천		4		이리	3	9		장성	1	11
	북구	5	19		원성		1		정주	1	3		진도	2	3
대전	소계	1	13		화성		1		남원	1	1		신안	2	7
	동구		3		인제	1	1		진안		1	경북	여천시		2
	중구	1	10		명주		1		무주		1		소계	2	24
광주	소계	23	102	충북	삼척		2		임식	2	5		포항		1
	동구	2	15		소계	2	20		순창		1		경주		1
	서구	9	35		청주		1		정읍	2	9		아동		1
	북구	9	39		충주		1		고창	4	17		구미		3
	광산	3	13		청원	2	8		부안	1	8		달성		1
	소계	30	130		보은		2		김제	2	5		군위	1	3
경기	수원	3	6	충남	옥천		1	전남	옥구	2	6		월성		1
	성남	3	10		영동		1		익산	3	5		영천		2
	의정부		1		괴산		1		소계	23	123		경산		2
	안양	4	15		음성		3		목포	3	20		칠곡		1
	부천	1	6		증원		2		여수		4		상주		2
	광명	1	7		소계	6	41		순천	1	3	경남	문경		1
	송탄	2	4	충남	천안		2		나주시	1	4		영동		1
	양주	1	1		금산		1		담양	3	10		울진		2
	남양주	3	9		연기		1		곡성		1		울릉	1	2
	여주		2		공주	1	7		구례	1	4		소계	3	20
	평택	3	11		논산		2		광양	1	4		울산	1	7
	화성	1	9		부여		3		여천		1		창원		2
	시흥	2	13		서천		2		승주	1	6		김해		5
	파주	1	4		보령	1	7		고흥		4		창녕		2
	고양		1		청양	1	2		보성		5		밀양		3
	광주		11		홍성		4		화순	1	4		거제	1	1

	연천		1		예산	2	3		장흥		2		남해		1
	양평		1		서산	1	1		강진	1	1		산청	1	1
	이천		3		당진		2		해남		2		합천		1
	용인	1	4		아산		2		영암	1	7	제주	소계		1
	안성	1	11		천원		2		물나	3	9		제주		1
강원	소계	4	16	전북	소계	24	85		나주군		5				
	원주	2	2		전주		5		함평		1				

10) 함평장(咸平張)씨

함평장씨는 1985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3가구 107명(67본 중 47위)으로 광주와 전남에 8가구 24명이 살고 있고 본향인 함평에는 단 1명도 거주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2000년 통계청 기록에는 전국적으로 132가구에 447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함평 또한 1가구에 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함평장씨에 관한 내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함평장씨 장득신(張得信, 1600 庚子生)이 무과(武科) 인조14년(1636) 별시 병과(丙科)에 급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이로 미루어 함평장씨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거주하던 오랜 성씨라 할 수 있다.

함평장(咸平張)씨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23	107	부산	소계		1	경기	성남		1	전북	전주		2
서울	소계	4	35		부산진		1		의정부	1	1		군산	1	4
	종로	1	2	대구	소계	1	4		부천		1		정주		1
	중구		3		수성	1	4		양주	1	2		장수		1
	용산		2	인천	소계	1	5		평택		1		부안		2
	성동		3		남구	1	4		고양		1		임실		1
	동대문		3		북구		1	포천	1	2	전남	소계	2	6	
	성북		1	대전	소계	1	1	소계	1	3		신안	1	2	
	도봉		1		중구	1	1	태백	1	3		화순		1	
	은평	1	5	광주	소계	6	18	충북	소계			1		무안	

2) 1636(음)년 간행된 <丙子別試文武科榜目> 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		1		동구	1	2		청주		1		장성	1	1
	마포		2		서구	3	8		소계		3		완도		1
	강서		4		북구	2	7		청양		1		소계	3	9
	구로		4		광산		1		예산		1		달성	1	3
	관악	1	1		소계	3	11		서산		1		의성	1	5
	강남	1	3	경기	수원		2	전북	소계	1	10		칠곡	1	1

11) 함평전(咸平全)씨

전씨는 옛 함평의 기록에 토성으로 되어 있지 않은 성씨다.

1985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평전씨는 전국적으로 18가구 70명으로 전씨 66본 중 54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7가구, 경기 3가구, 경북 3가구 순위며 함평군에는 1명도 살지 않고 전남에는 2명이 거주한다고 조사되었다.

2000년 조사된 통계청 조사 기록에는 147가구에 507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1985년 조사의 불확실성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0년 조사 결과 전씨 74본(기타, 미상 제외) 가운데 46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평전(咸平全)씨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18	70	서울	강동	2	4		고양	1	4		목포		1
	소계	7	27		소계	2	3	경기	광주	1	3	전남	신안		1
	종로		1	부산	부산진	1	2		김포	1	3		해남		1
	성동	1	1		해운대	1	1	충북	소계	1	3		소계	1	4
	마포		2		소계		1		청원	1	3	경북	영일	1	2
	강서	1	6	대구	서구		1		소계	1	6		상주		2
서울	구로		2		소계		1	충남	금산		1		소계	3	8
	영등포	1	4	인천	남구		1		천원	1	5		울산	1	3
	동작		1		소계	3	13		소계		1	경남	진주	1	2
	관악	2	6	경기	안양		2	전북	군산		1		창원	1	2
	강남		2		부천		1	전남	소계		3		의령		1

12) 영풍정(永豊程)씨

정씨(程氏)는 예전 함평 기록에 영풍향(永豊郷)의 토성으로 되어 있다.

현 함평읍 성남리에 치소(治所)가 있었던 특수 행정구역 영풍향의 영풍을 그대로 본관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문세(門勢)는 약화될 대로 되었으나 뿌리는 확고한 집안이다.

1985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영풍정씨는 전국적으로 5가구 24명뿐이며 정씨 13본 중 7위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1985년 조사에서는 앞서 밝혔듯이 뿌리가 확고한 집안치고는 가세(家勢)가 너무 빈약함을 알 수 있다.

2000년 조사에는 총 99가구 32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순위는 정씨 14본(기타, 미상 제외) 가운데 7위로 나타났다.

1985년 조사에서는 전남에 3명이 거주하고 있고 함평군에는 단 1명도 거주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영풍정씨의 보첩을 확인한다면 영풍향에 대해 풀지 못하고 있는 여러 의문점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풍정(永豊程)씨 전국 분포

시도	가호	인구	시도	가호	인구	시도	가호	인구	시군	가호	인구
전국	5	24	부산	1	2	강원		1	충남		2
서울	3	14	경기	1	2	충북		1	전남		2

13) 함평조(咸平曹)씨

조씨(曹氏)는 옛 함평의 기록에 토성으로 기록되지 않은 성씨다.

1985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22가구 125명(20본 중 9위)이 살고 있고 광주 전남에 5가구 39명이 살고 있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사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함평에는 1가구 2명이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00년 조사에서는 전국에 586가구에 1794명으로 나타났다. 순위 또한 정씨 20본(기타, 미상 제외) 가운데 4위로 나타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씨 또한 1985년 조사 당시 조사되지 않았던 가구와 인구들이 2000년에는 모두 조사된 것이다.

함평에는 3가구 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조씨 또한 가문의 내력이 전해진 바 없다.

함평조(咸平曹)씨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22	125		남구		1		영동	1	3		순천		2
서울	소계	4	21	대구	북구		1	충북	음성		1	전남	고흥		1
	종로	1	1		수성	1	4		증원		1		보성		1
	용산		1		소계		1		소계		2		강진		1
	성동		1	대전	중구		1	충남	천안		1		무안		1
	동대문	2	7		소계	3	22		논산		1		함평	1	2
	도봉		5	광주	동구	1	8	전북	소계	1	10		영광		1
	서대문		1		서구	1	6		전주		1		완도	1	3
	강서		1		북구	1	8		군산		1	경북	소계	2	6
	구로		3		소계	2	8		이리		1		포항	1	1
	강남	1	1	경기	수원	1	2		정주		1		김천	1	2
부산	소계	1	4		평택	1	3		완주		1		달성		1
	부산진		1		용진		2		고창	1	3		성주		1
	해운대	1	2		화성		1		부안		1		문경		1
	사하		1		소계		2		익산		1	경남	소계		2
대구	소계	3	20	강원	평창		1	전남	소계	2	17		거제		1
	중구		4		삼척		1		담양		2		하동		1
	동구	1	6	충북	소계	2	8		광양		1	제주	소계	2	2
	서구	14			청주	1	3		목포		2		서귀포	2	2

14) 함평조(咸平趙)씨

함평의 옛 기록에 조씨(趙氏)는 토성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예전부터 함평에는 손불면 지역에 조씨가 피난한 지역이라해서 조피곡(趙避谷)이라 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조씨가 마을 터를 잡았다는 마을들의 설화 또한 전해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씨가 함평의 토박이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 지역에 전해오고 있었다.

이렇듯 설만 무성하던 것이 1985년의 경제기획원 조사 자료에 의해 함평조씨가 있음이 나타났다. 하지만 문중의 보첩을 확인하지 못해 조씨의 내력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1985년 조사에 따르면 함평조씨는 전국에 44가구 203명(56본 중 32위)이 살며 서울에 13가구, 경기 7가구, 광주와 전남에 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0년 자료에 의하면 586가구에 1,794명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함평조씨들이 살고 있음이 나타났다.

1985년 조사에서 본향인 함평에는 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2000년 조사에는 3가구 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조(咸平趙)씨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44	203	부산	서구		2	경기	수원		1	충북	소계		4
	소계	13	5		동구		1		성남	2	5		청주		1
	중구		2	대구	소계	3	14		안양		3		제천		1
	성동		1		동구	1	4		부천	2	4		영동		1
	동대문	2	7		서구	2	9		광명		1	충남	괴산		1
	성북	1	2		북구		1		송탄		1		소계	4	11
	도봉	11	1	인천	소계	2	10		평택	2	8		천안	1	2
	은평		5		동구	2	1		화성		1		대덕	1	1
	서대문		3		남구		7		고양		1		청양	1	2
	마포		1		북구		2		광주	1	3		아산	1	6
	강서	1	3	광주	소계	3	14	강원	포천		1	전북	소계	3	10
	영등포	2	6		동구	2	6		과천		1		전주	1	3
	동작	1	3		서구	1	7		소계	2	6		이리	1	1
	관악	2	8		북구		1		동해	1	1		정주		1
	강남	1	5	대전	소계		4		영월		2		완주		1
	강동	1	3		중구		3		양구	1	1		남원		1
	소계		4		유성		1		양양		1		김제		1
	중구		1		경기	소계	7	30	삼척		1		익산		1
부산	중구		1	경북	소계			경북	울진	1	7	경북	월성		2
	중구		1		소계				포항		1		상주		1
전남	고창		1	전남	승주	1	1	경북	구미	1	4	경남	영풍		1
	소계	4	15		강진	1	2		영천	1	3		소계	1	4
	장성		1		함평		1		의성		1		울산	1	3
	완도		2		영광		1		영일		2		합천		1
	목포	1	6	경북	소계	3	25								
	순천	1	1		봉화		3								



15) 함평최(咸平崔)씨

최씨는 옛 함평 문헌에 해제현의 내성(來姓)으로 기록되어 있다

1985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평최씨는 전국에 37가구 190명(127본 중 78위)이 살며 전남에 10가구, 서울 10가구 경기 5가구 순이었다.

2000년에 통계청에서 다시 조사한 자료에는 140가구 465명으로 나타났으며, 함평에는 4가구 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함평최씨 또한 내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유명 체육인 가운데 1명이 함평최씨인 것으로 알려져 보첩을 확인하면 내력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함평최씨 전국 분포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시도	시군	가호	인구
전국	총계	37	190	부산	동래		5	경기	성남	1	2	충북	청원		1
	소계	10	62		남구		1		안양		1		보은		1
서울	용산	1	3		북구	1	1		광명		1		영동	1	1
	성동		4	대구	소계	3	13		송탄		3	충남	단양		1
	동대문	1	8		서구	2	10		양주		1		소계		6
	성북	3	9		수성	1	3		남양주		1		천안		1
	도봉		3	인천	소계		2		여주		1		공주		1
	은평	1	3		남구		1		파주	1	2		논산		2
	서대문	2	13		북구		1		광주	1	6		예산		1
	마포		2	대전	소계	1	6		안성	1	1		당진		1
	강서		3		동구	1	6		김포		2	전북	소계		4
	구로		1		소계	2	8		반월		1		완주		1
	관악	1	4	광주	동구		2	강원	소계	1	5		순창		3
	강남		2		서구	1	2		춘성	1	3	전남	소계	8	27
	강동	1	7		북구	1	2		원성		1		목포	1	7
	소계	2	9		광산		2		양구		1		여수	1	3
부산	중구	1	1	경기	소계	5	28	충북	소계	1	5		순천	1	1
	서구		1		수원	1	6		청주		1		담양		1



시도	시군	가구	인구	시도	시군	가구	인구	시도	시군	가구	인구	시도	시군	가구	인구
전남	곡성	1	1	전남	함평		1	경북	구미	1	1	경남	영풍	1	4
	보성	1	3		영광		2		의성	1	2		소계	1	4
	장흥	1	2		완도		1		경산		1		울산	1	2
	해남	1	2	경북	소계	3	11		성주		1		거창		1
	무안	1	3		포항		1		칠곡		1		합천		1

16) 함평함(咸平咸)씨

함씨는 옛 함평의 기록에 토성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씨다.

1985년 자료에 의하면 함평함씨는 전국에 20가구 104명(12본 중 5위)이 살며 서울에 6가구, 전남 3가구, 충북 2가구, 순이고 본향인 함평에는 1명도 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00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28가구 1,15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함씨 20본 가운데 6위이며 본향인 함평에는 1가구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함씨 전국 분포

*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함

시도	시군	가구	인구	시도	시군	가구	인구	시도	시군	가구	인구	시도	시군	가구	인구
전국	총계	20	104	대구	소계	2	8	강원	영월		1	전남	승주		1
서울	소계	6	33		서구	1	3	충북	소계	2	3		강진	1	3
	종로	1	2		남구	1	5		청주	1	1		무안	1	2
	중구		1	인천	소계		2		충원		1		나주		1
	용산	2	4		동구		1	충남	보은	1	1	경북	소계	1	5
	성동		3		북구		1		소계	1	10		달성	1	3
	동대문		2	경기	소계	1	14		서천		1		칠곡		1
	성북		2		수원		1		서산		1		예천		1
	도봉		1		성남		2	전북	천원	1	8	경남	소계	1	5
	은평	1	1	강원	양주	1	5		소계	2	4		울산	1	3
	강서		2		남양주		4		전주		1		마산		1
	구로		1		양평		1	전남	군산	1	1		의령		1
	영등포		2	강원	강화		1		김제	1	2	대전	소계	1	8
	관악	1	3		소계		3		소계	3	10		중구	1	7
	강남	1	4		춘천		1		목포	1	2		유성		1
	강동		5		동해		1		구례		1				



제4절 객반(客班)성씨 본관별 함평군 정착사

1. 강 씨 (姜氏)

2000. 11. 1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씨는 33본으로 1985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자료인 32본보다 1본이 추가되었다.

전국에 325,288가구 1,044,386명이 살고 있어 한국 씨족 순위 6위며 100호 이상인 본관은 27본관이며 그 중에서도 1,000호 이상인 가구도 진주(진양) 300,724가구 966,710명, 전주 5,383가구 17,579명, 강릉 3,998가구 11,794명, 경주 2,927가구 9,120명, 평양 1,972가구 5,953명, 제주 1,468가구 4,798명, 나주 1,336가구 3,395, 곡성 1,134가구 3,418명의 8개 본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65,409명, 경기도가 52,957명, 경남이 35,072명, 부산이 31,969명 등의 순이다. 남한의 전체 인구 중 2.27%로 김(21.59%) >이(14.78%) >박(8.47%) >최(4.72%) >정(4.37%) 다음으로(2.27%) 인구가 많은 성씨이다.

함평군에는 14개 본관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가구를 이루면서 가족들이 모여 사는 본관은 10개 본관으로 진주 208가구 587명, 불갑 12가구 27명, 나주 5가구 18명, 전주 4가구 9명, 경주 3가구 6명, 강릉 2가구 4명이며 남양, 밀양, 인동, 제주 등 4가구는 1가구씩만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가구는 거주하지 않고 사람만 거주하는 본관은 4개 본관이다.

1) 진주강(晉州姜, 진양강-晉陽姜)씨

진주 강씨(晉州 姜氏)는 진양 강씨(晉陽 姜氏)라고 하기도 한다. 진양군은 진주군 진주읍이 1939년 진주부로 승격 분리되면서 진주군을 개칭한 것으로, 1995년 시·군 통합 시 소멸한 명칭이다.

시조는 고구려때 도원수를 지낸 강이식(姜以式) 장군이다. 그는 597년 고구려 영양왕 8년 수나라의 문제(文帝)가 지성과 충절을 소홀히 한다는 내용의 국서를 고구려에 보내자, "칼로써 대답하자"고 주장하며, 598년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임유관(臨榆關)에서 30만 수군을 대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612년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장군과 함께 큰 공을 세운 명장이다.

강씨가 진주에 세거한 것은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통일신라 때 그의 후손 강진(姜縉)이 신라(헌강왕)때 태중대부판내의령(太中大夫判內議令)으로 재임 중에 진양후(晉陽侯)로 봉해 지면서 본관을 진주(晉州, 진양, 진산으로 불리기도 함)로 하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의 명칭이 '진양 강씨(晉陽 姜氏)'인 것도 7대손 강진(姜縉)이 진양후(晉陽侯)로

봉해졌기 때문이다.

1392년 고려말 우왕의 사위였던 강희계의 형인 강희백이 조준, 정도전 등과 함께 정몽주 일파에게 탄핵을 당해 진양에 귀양을 간 계기로 진주를 세거지로 삼았다는 설도 있다.

함평으로의 입향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함평현조에 내성(來姓)으로 강씨를 적고 향리로 왔다고 적혀 있다. 이 강씨는 함평 입향이 고려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그 후손이 지금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향 내역을 알 수가 없다.

손불면 북성리, 나산면 나산리 등 군내 및 마을에 강씨가 5~600년 전에 들어와 터를 잡아 살았다는 전설이 있고, 선무원종공신록에 2등훈으로 기록되고 옛 함평현읍지에도 기재된 강귀지(姜貴知)가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강씨의 후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진주강씨는 파조 계옹(啓庸)의 박사공파, 파조 위옹(渭庸)의 소감공파(少監公派), 파조 원로(元老)의 관서공파(關西公派), 파조 민첨(民瞻)의 은열공파(殷烈公派), 파조 감찬(邯贊)의 인헌공파(仁憲公派)의 5파로 크게 나눈다.

함평군에 살고 있는 진주강씨는 1969년 조사에서는 300호, 1985년 조사에서는 293호 1,235명으로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16위(1969년 1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가 박사공파이다.

함평 입향조는 선공감역(繕工監役)을 지낸 혼수(欣壽, 1491~1553)다.

그는 사평(司評)을 지냈고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4~1506) 때 영광으로 유배되어 사망한 학손(鶴孫)의 일곱째 아들로 박사공파(博士公派) 파조 계옹(啓庸)의 11세손이며, 감역공파의 파조이기도 한데, 족보에 자는 자열(子悅)이고 호는 구봉산인(九峯山人)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구봉은 현재의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구봉이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영광군에서 함평군으로 편입된 지역이다.

호가 구봉산인인 것은 구봉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함평군 입향으로 보는 것이다. 입향 연대는 아버지의 유배와 사망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유배된 아버지를 따라 영광으로 왔고, 아버지의 유배지에 정착했던 형제들과 분가했을 나이를 생각 할 때 대략 152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입향조 혼수의 손자인 몽룡(夢龍)이 손불면으로 이거 정착하여 후손이 퍼졌다. 11세손 재담(在談), 재헌(在憲) 형제가 함평읍 장교리에 이거 정착했으며, 12세손인 의회(義會, 1791년생)가 1813년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로 이거하여 후손이 번성했다.

배출 인물

강혼수(姜欣壽) : 함평군 입향조. 선공감역을 지냄

강 정(姜 鼎) : 자 형천(亨天). 혼수의 셋째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강귀지(姜貴知) : 선무원종 2등공신에 책록되었다고 옛 함평현읍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자세한 행장은 전하지 않는다.

강량수(姜亮秀) : 자 여서(汝瑞). 다경진(多慶鎭, 현 무안군 운남면에 있던 수군진지) 수군만호를 지냈다.



강화수(姜華秀) : 자 봉서(鳳瑞). 목포 수군만호를 지냈다.

강성용(姜聲裕) : 육군대령 예편

강운기(姜雲奇) : 함평, 화순교육장 역임

강응대(姜應大) : 1947. 3. 27 제 12회 행정고시에 합격

강길봉(姜佶奉) : 1946. 5. 21 수원지법 판사 역임. 변호사

강운태(姜雲太) : 1948. 10. 15 내무부지방기획과장, 광주광역시장. 농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을 역임함

강형채(姜炯燾) : 1943, 4, 15 서예가. 전남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강형주(姜炯周) : 1959. 12. 23 제 23회 사법고등고시에 합격. 서울지방법원판사 역임

2. 고 씨 (高氏)

고씨는 원래 탐라(耽羅, 제주)의 지배 씨족으로 고, 양(良), 부(夫) 3성의 시조는 한라산 북쪽 산기슭의 모흥혈(毛興穴)에서 솟아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삼성혈에서 나온 고을라(高乙那)가 고씨의 근원이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발상지인 제주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으나, 후손이 번창함에 따라 세거지(世居地) 또는 조상의 작호에 따라 분적되었는데,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51본관으로 전국에 135,488가구에 435,839명이 살고 있어 우리나라 성씨 중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1000가구가 넘는 본관은 제주 100,954가구, 장흥 19,316가구, 개성 3,710가구, 횡성 1,289가구, 강릉 1,583가구, 장택 1,157가구 등 6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군 자체 조사에서는 장흥 83가구, 제주 59가구, 장택 15가구, 평택 15가구였으나 1985년 조사에서는 제주 99가구, 장흥 33가구의 2개 본관으로 줄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이와는 확연히 달라지는데 장흥이 59가구며 제주가 26가구로 기록되어 있어 이들 두 본관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장흥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1985년을 포함한 그 이전의 조사가 얼마나 부정확한 조사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용담(龍潭), 옥구(沃溝), 횡성(橫城), 담양(潭陽), 의령(宜寧), 고봉(高峰), 금화(金化), 토산(兔山), 회령(會寧), 평택(平澤), 장택(長澤) 등의 여러 본관이 농어촌 이주현상으로 함평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현재 함평에는 장흥 고씨를 포함한 18개 본관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3개 본관이 가구를 이루며 살고 있다.

참고로 문헌에 의해 고씨의 본관을 살펴보자.

시조 을라의 45세손 자견왕(自堅王)의 태자 말로(末老)는 제주고씨를 계승하였고,

말로의 증손 공익(恭益)은 청주고(淸州高)씨

” 증손 영신(令臣)은 개성고(開城高)씨

- ” 후손 종필(宗弼)은 연안고(延安高)씨
- ” 10세손 복림(福林)은 장흥고(長興高)씨
- ” 16세손 응섭(應涉)은 안동고(安東高)씨로 분적했다.

1) 장흥고(長興高)씨

행주기씨, 충주박씨와 함께 '기(奇) 고(高) 박(朴)'으로 일컬어지는 등 전라남도 일대의 명문가 중 하나로 불리는 장흥고씨의 시조는 복림(福林)이다.

그는 시조의 45세손인 자견왕의 태자 말로의 10세손이며 장흥(長興, 원래 장택)에 세거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장흥으로 본관을 하였다.

함평에 처음 입향한 선조는 시조의 27세손 시원(時元)으로 1680년경 무안에서 엄다면 신로동(新老洞, 현 송로리)에 이주 정착했다.

그의 아들 후진(垺鎭)이 대동면 백호리 보화촌으로, 손자 제수(濟壽)가 학교면 석정리로 이주하여 군내에 퍼져 살게 되었으며 집성촌은 석정리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평군에는 59가구 148명이 살고 있어 고씨 본관 성씨 가운데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본관이다.

배출 인물

고시원(高時元) : 장흥고씨 함평군 입향조

고일석(高逸錫) : 학다리중학교장 역임

고유창(高裕昌) : 1992년 제 34회 사법고시에 합격

2) 제주고(濟州高)씨

제주고씨는 고씨의 원류로 시조는 고을라(高乙那)며 시조로부터 45대손인 자견왕까지 군주국으로 세습해 내려왔다.

1세조는 말로(末老)며 그는 고려 태조 21년(938)에 고려에 합류하였고, 그의 아들 유(維), 강(綱), 소(紹)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육지에 진출하였으며 그 때부터 후손들이 제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제주고씨는,

성주공파(星州公派) : 파조 · 말로의 15세손 인단(仁旦)

전서공파(典書公派) : 파조 · ” 13세손 신결(臣傑)

영곡공파(靈谷公悟) : 파조 · ” 15세손 득종(得宗)

장흥백파(長興伯派) : 파조 · ” 11세손 중연(中筵 일명 福林)

화전군파(花田君派) : 파조 · ” 12세손 인비(仁庇)

문정공파(文禎公派) : 파조 · ” 13세손 택(澤)



상당군파(上堂君派) : 파조 · " 4세손 공익(恭益)

양경공파(良敬公派) : 파조 · " 4세손 영신(令臣) 등으로 분파 되었으며 영국공파가 후손이 가장 많다.

제주고씨는 고려조에서 상서(尙書) 9명, 한림 12명을 배출하였고, 조선조에서도 도덕·문장·학행·의열에서 특출한 인물이 많이 나와 명문의 터전을 잡았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합평군에는 26가구 83명이 살고 있다.

3. 공씨(孔氏)

공씨는 합평현의 토성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온다. 하지만 그 후손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에 따르면 공씨는 곡부 단일 본관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따르면 8개 본관으로 17,207가구 72,382명에 살고 있어 한국 성씨 순위 56위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는 10개 본관이 조사되었으며 대표적인 공씨인 곡부공씨인 경우 22,758가구나 거주하고 있고 산동 본관을 가진 1가구만을 제외하고 9개 본관 모두가 100가구를 넘고 있었다. 산동 본관의 경우 중국에서 귀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 현재 공씨는 25,969가구에 83,164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 1985년도와 같은 56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합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 곡부 7가구의 1개 본관, 1985년 조사에서는 곡부 8가구 35명, 성주 1가구 7명, 순천 2가구 9명의 3개 본관으로 나타났었다.

2000년 현재 9가구에 21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부 6가구 13명, 전주 2가구 5명, 고산 1가구 2명, 창녕 1명이 거주하고 있다.

1) 곡부공(曲阜孔)씨

원조는 공자(孔子)며 중시조는 소(紹, 원래는'昭'였는데 고려 광종의 휘가 '昭'이므로 '紹'로 바꿈)다.

곡부는 중국 산동성 제령도(濟寧道)에 속한 고을로 공자의 고향이며 중국 공씨의 세거지다.

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씨의 연원은 공자의 53세손 완(浣)의 맏아들 사희(思晦)는 중국에서 세거하고, 둘째 아들 소가 원나라 순제(順帝) 때 한림학사로서 고려 충렬왕 원년(1274)에 노국공주(공민왕비)를 수행하고 입국하여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후 회원군(檜原君)에 봉해지고 창원(昌原)을 사적(賜籍) 받았다고 한다.

이에 후손들이 본관을 공자의 고향이며 중국 공씨의 세거지인 곡부로 하고, 소를 중시조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달한 인물은 고려조에서 중시조의 아들 여(佖)가 평장사, 그의 아들 부(俯)가 집현전 태학

사(太學士)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성길(成吉)이 한성부판윤, 기(頤)가 대사성, 종주(宗周)가 호조판서, 제로(梯老)와 익(翼)이 영의정을 지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7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8가구 35명, 2000년에는 6가구 13명이 살고 있다.

4. 곽 씨 (郭氏)

곽씨의 시조는 중국 송나라 사람인 경(鏡)이다. 고려 인종때 7명의 학사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와 벼슬을 하고 포산군에 봉해졌다.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시조의 봉호(封號)를 따라 포산곽씨(苞山郭氏)라고 많이 쓴다. 현풍은 경북 달성군의 옛 지명이다.

곽씨 중에 경을 도시조로 하지 않는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청주는 신라 헌강왕 때 곽상(郭祥)의 후손인 곽원(郭元)을 중시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문헌에는 52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4개 본관이며 전국에 58,396가구 187,322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37위를 차지하고 있고,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현풍 43,626가구, 청주 5,601가구, 선산 1,743가구, 포산 1,641가구의 4개 본관이다.

함평에는 1969년 조사에서 현풍 37가구, 선산 7가구, 청주 6가구, 전주 2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는 본관이 현풍 54가구, 256명, 청주 4가구 14명, 전주 2가구 1명이며,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이 선산 1명, 포산 2명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통계청 조사에는 현풍이 48가구 132명, 함평곽씨가 4가구에 6명, 청풍이 3가구에 6명, 경주가 2가구에 4명이 거주하며, 단일 가구에 1명씩 거주하는 본관이 선산, 여미, 진주, 포산, 현량 등 5가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이 고흥, 밀양, 성산, 청주, 해미 등 5개 본관, 8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0년 현재 곽씨는 함평에 모두 62가구 16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현풍곽(玄風郭)씨

시조는 경(鏡)이다.시조 경(鏡)은 원래 송나라 관서지방 홍농사람으로 1133년(고려 인종11년)에 귀화하여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에 이르렀고 금자광록대부의 작위와 포산군에 봉해짐으로써 본관을 포산(苞山)으로 했다.

조선시대에 포산이 현풍으로 개편되어 현풍으로 개칭하였다. 그 외에도 선산, 해미, 봉산 등 여러 본관이 있으나 1976년에 현풍으로 합본하였다. 현풍은 경상북도 달성군에 속한 지명이다 함평에 거주하고 있는 파는 주로 참판공파며 입향 연대는 1893년이고, 입향지는 나산면 월



봉리 안영동이며 입향조는 시조의 27세손인 호섭(鎬涉), 호석(鎬石), 호현(鎬玄) 3형제며,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64위다.

입향조 호섭의 묘소는 나산면 월봉리 안영동 후록에 있다.

배출 인물

곽호섭(郭鎬涉) : 함평 입향조. 훈련원 주부를 지냈다.

5. 구 씨(具氏)

구씨는 문헌에 32본관으로 되어있으나 1985년 조사에 의하면 18본관이며 전국에 37,598가구 157,68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조사에는 22본관에 55,540가구에 178,16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씨족 순위 40위를 기록하고 있는 성씨다.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능성 37,706가구, 능주 7,807가구, 창원 4,391가구, 강릉 1,202가구의 4개 본관이다.

창원구씨는 원래 창선 구(仇)씨 인데 조선조 정조 때 "具"씨로 사성되었다.

함평군에는 1969년 군자체 조사에서 능성구씨만 24가구가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985년 조사에서는 능성 21가구, 창원 5가구의 2개 본관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00년 조사에서는 모두 20가구 4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능주가 9가구 26명, 능성 8가구 13명으로 이들 두 본관이 구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본관으로는 공주, 달성, 제주 등이 있으며, 가구를 이루지 않고 있는 본관으로는 강릉 3명, 창원 1명 등이 있다.

1) 능성구(綾城具)씨

시조는 존유(存裕)이다.

그는 고려 고종(高宗. 재위 1214~1259) 때 문과벽상 삼한중대광 검교상장군(文魁壁上三韓重大匡檢校上將軍)의 관직에 올랐었다.

능성구씨는 조선조 때 왕비 1명, 부마 4명, 문과 55명, 무과 363명을 배출한 명족이었고, 청계공파(淸溪公派) 등 10여파로 분파되었다.

현재 함평군에 거주하는 능성구씨는 청계공파인데 교석(敎錫)이 1888년 10월경 나주시 다시면에서 학교면 학교리 영화촌에 이거 정착하여 그 후손이 번성하였으며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9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입향조 교석의 묘소는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산 83번지에 있다.

배출 인물

구제학(具濟學) : 시조의 32세손. 초등학교 교장 역임

2) 창원구(昌原具)씨

시조는 성길(成吉)이며 기1세조(起一世祖)는 설(雪)이다.

시조 성길은 원래 구(仇)씨로 한(漢)나라 때 높은 벼슬을 지낸 구람(仇覽)의 후손으로 고려에 들어와 혜종 2년(慧宗. 945) 서경(西京)에서 공을 세워 의창군(義昌君, 창원의 옛 이름)에 봉해졌고 찬성사(贊成事)에 올랐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창원을 본관으로 삼고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1세조 설은 생원을 지냈으며 그의 아들 종길(宗吉, 1363년생)은 세종 때 직제학(直提學)을 지냈다.

원래의 성 "仇"씨를 "具"씨로 바꾼 것은 정조 15년(正祖, 1791)이다.

1791년 정조(正祖)가 장용영(壯勇營) 초관(哨官)을 임명하면서 훈련도감집사(訓練都監執事)인 구시창(仇始昌)이 후보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구성(仇姓)이 비록 오래 되었으나 구자(具字) 성(姓)이 더 좋으니 구자(具字)로 고쳐라"하고, 연교문(筵敎文)보냈는데, 더 확실한 문적(文蹟)이 필요하다고 구문(仇門)에서 상서(上書)를 하니, 1798년에 일성록(日省錄) 및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사성(賜姓) 사실을 기록하고 확증되었다.

창원구씨는 종길의 아들 대에서 4파로 갈리는데 맏아들 복한(復漢)의 부사공파(府使公派), 둘째 동설(東薛)의 진사공파(進士公派), 셋째 동직(東直)의 승지공파(承旨公派), 넷째 석훈(錫勳)의 처사공파(處士公派)다.

2000년 조사에서 5가구 18명이 함평군에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한 가구도 거주하지 않고 1명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6. 국 씨 (鞠氏)

문헌에는 담양·영광·북정(福城, 보성)·부령·대구·진주의 6개 본관이 기록되어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도 6개의 본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담양 4,892가구 15,774명·북성 86가구 255명·영광 83가구 232명·대구 59가구 194명·진주 33가구 124명·부령 19가구 6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182가구 16,697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98위를 차지하고 있다.

담양 국씨가 전국 국씨의 94.5%를 차지한다. 함평에는 담양국씨만이 10가구 35명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광국씨가 가구 없이 1명이 거주하고 있다.



1) 담양국(潭陽鞠)씨

시조는 양(堧)이다.

그는 송나라 사람으로 고려 인종 5년(仁宗, 1128)에 귀화하여 감정관(監正官)을 지내면서 공을 세우니 인종이 국화(菊花)와 상통하는 국(鞠)으로 사성(賜姓)하고 추성군(秋城君, 담양의 옛 이름)을 봉했으며, 병부상서를 지냈다.

그의 아들 유(儒)가 최영장군(1316~1388)과 제주의 난군을 치는 등 공을 세워 병부상서검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으나 고려가 망하면서 두문에 들어가 죽음으로써 충절을 지켰으며, 그의 세 아들 무(賦), 성(城), 황(瑄) 대에 담양에 자리를 잡아 세거함으로써 담양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담양 국씨는 크게 나누어 담양 중심의 무 집안과 전북 완주 중심의 황 집안으로 나눌 수 있다.

황은 벼슬과 담을 쌓은 담양집과는 달리 벼슬길에 나아가 사간원의 헌납(獻納)을 지냈고, 그의 현손 경례(經禮)는 문종 원년(1451)에 문과에 급제하여 세조 때 사간(司諫)을 지냈으며, 그의 여섯 아들도 모두가 크게 현달했다.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3,581가구 14,858명에 살고 있어 국씨 6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담양국씨의 46.77%인 1,675가구 2,874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 12가구, 1985년 조사에서 10가구, 2000년 조사 역시 10가구이다.

배출인물

국문권(鞠文權) : 1839~1909. 동학 집주

7. 권 씨 (權氏)

문헌에 56 본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조사에 따르면 11개 본관이며 전국에 204,013가구 652,495명이 살고 있어 한국 씨족 순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안동 196,566가구, 강릉 1,619가구, 예천 1,512가구, 경주 1,180, 안성 1,075가구 등 모두 5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군 자체 조사에서는 안동권씨만 60가구가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안동 64가구 255명, 예천 1가구 2명으로 2개 본관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는 안동이 36가구 122명, 안성이 2가구 2명 등 2개의 본관이 거주하며, 가구 없이 사람만 거주하는 본관이 강릉 3명, 광산 1명, 전주 1명, 청주 1명 등이었다.

예천권씨의 시조는 혼섬(昶暹)인데 고려 충목황의 이름이 혼(昶)이므로 왕의 이름과 같은 성

씨를 볼 수 없다하여 나라에서 외가의 성인 “權”을 사성하고 세거지인 예천을 본관으로한 성씨다.

권섬의 아버지 혼승단(昶昇旦)은 안동권씨 백서(伯譜)의 사위였다.

1) 안동권 (安東權)씨

시조는 행(幸)이다.

그는 신라왕실의 후예로서 본래의 성은 김씨였다.

안동권씨 대동백계도(大同百系圖)에 의하면 행은 신라말에 고창군(古昌郡. 지금의 안동군)의 별장을 지내던 중 후백제의 견훤군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웠다. 또한 왕건을 도와 고려 개국에 온 힘을 쓰니, 고려 태조 13년(930) “능히 기미에 밝고 권도에 통달하였다. (능연기달권-能煙機達權)”이라 치하하고 ‘權’성을 내린 후 삼한벽상아부공신 삼중대광태사(三韓壁上亞父功臣 三重大匡太師)의 벼슬과 함께 고창군을 식읍으로 하사했다.

그 후 고창군이 안동부로 바뀔에 따라 후손들이 안동을 본관으로 했다.

안동권씨는 10세를 전후하여 종파(宗派),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추밀공파(樞密公派), 복야공파(僕耶公派), 좌윤공파(佐尹公派) 등 14개 파로 갈렸는데 추밀공파, 복야공파, 좌윤공파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함평군에는 주로 추밀공파가 살고 있다.

추밀공파의 파조는 수평(守平)이며 추밀원부사(정 3품)에 올랐고, 그의 손자 단(旦)은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 정 3품), 단의 아들 부는 주자학의 대가로 또 청백리로 이름 높았고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에 봉군되었으며, 그의 아들 준(準)은 고창부원군, 종정(宗頂)은 광복군, 고(皐)는 영가군, 왕후(王煦)는 계림부원군, 겸(謙)은 복안부원군의 군봉을 받았으며, 사위 이재현(李齋賢)은 계림부원군, 왕숙(王穉)은 정순부원군, 왕순(王珣)은 회안대원군의 군봉을 받아 9봉군(九封君)으로 유명했다.

추밀공파의 함평 입향조는 양삼(良三)으로 1880년경 나주에서 대동면 향교리에 이주 정착하였으며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55위다.

입향조 양삼의 묘소는 대동면 향교리 고산골에 있다.

배출 인물

권양삼(權良三) : 함평군 입향조

8. 기 씨 (奇氏)

기씨 족보에 따르면 기씨는 중국의 하남(河南)에서 시작된 성씨로 연원을 기자조선(子箕子朝鮮)에 두고 있다.



기원전 1122년 중국 은나라 주왕(周王)의 숙부인 기자가 우리나라에 건너와 기자조선을 세우고 그의 41세손 기준(箕準) 때에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의 전북 익산시 금마(金馬)에다 도움을 정하여 마한(馬韓)을 세우고 한왕(韓王)이 되었다.

기준의 7세손 기훈(箕勳)이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우성(友誠)은 덕양기(德謨寄)씨, 우량(友諒)은 상당한씨(上黨韓)씨, 우평(友平)은 북원선우(北原鮮于)씨가 되었다.

문헌에 우리 나라 기씨는 행주, 풍양(豐壤), 서원(西原. 청주의 옛 이름), 단양(丹陽) 등 20개 본관이 있다고 전하나 모두가 행주기씨의 세거지 이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씨는 행주, 경주, 장성 등 3개 본(本)이며 전국에 7,541가구에 24,38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행주가 6,660가구에 21,536명이 거주하고 있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경주가 547가구에 1,696명, 장성 331가구에 1,118명이 거주하고 있다.

함평군에는 행주 8가구 21명, 장성 2가구 5명에 경주가 가구 없이 1명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286개 성씨 가운데 8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 행주기(幸州奇)씨

세계상(世系上)의 1세조는 고려(高麗) 인종조(仁宗朝)에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를 지내신 순우(純祐)다. 선대(先代)를 제쳐놓고 순우(純祐)를 1세로 치는 이유는 한때 선대의 세계를 잃었기 때문이다.

고세계본(古世系本)을 선조(宣祖)때 영의정을 지낸 자헌(自獻)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괄의 난에 재화(災禍)를 당해 피난하는 바람에 잃고, 1688년 숙종 14년에 무진보(戊辰譜)를 수보할 때 선대(先代)를 정확히 계대할 수 있는 기록으로 가정(稼亭) 이곡(李穀)이 지은 기황후(奇皇后)의 아버지 영안왕(榮安王) 기자오(奇子敖)의 행장(行狀)을 따라서 영안왕의 5대조 순우(純祐)를 1세조로 하여 기록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우성의 덕양기씨는 덕양이 행주이므로 행주기씨라 부르게 되었다.

행주기씨는 고려 때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는데 특히 전남 장성 문중이 주를 이룬다.

1세조의 9세손인 먼(勉)은 공조전서를 지냈고, 그의 아들 건(虔)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올랐으며 청백리에 뽑혔다.

12세손인 찬(贊)은 응교(應敎)를 지내다가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함에 장님을 가장하고 여러번 불렸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으며, 14세손 대승(大升)은 성리학의 대가로 대사간을 지냈고, 광국(光國) 3등공신으로 덕원군(德原君)에 봉해졌다.

응세(應世)의 아들 자헌(自獻)은 영의정을 지냈고, 한말에 삼연(三衍)은 의병을 일으켜 호남 창의 대장으로 일제와 싸웠으며, 정진(正鎭)은 성리학의 6대가로 명성이 높았다.

2000. 11. 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행주기씨는 전국에 6,660가구 21,536명이 살고 있고 함평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25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24가구 79명이 살고 있었으며, 최근의

조사인 2000년에는 8가구 21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로 학교면과 월야면에 살고 있다.

9. 김 씨(金氏)

한국 제1위의 성씨 인구를 가진 김씨의 본관은 문헌상 623본이나 나타나 있으나, 이 중 시조가 뚜렷한 것은 100본 미만이다. 이들 여러 김씨는 거의 모두가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을 시조로 하는 김해김씨계와 신라의 알지(閼智)를 시조로 하는 경주김씨계의 어느 한쪽에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갈래로 대별된다.

김해김씨로 대표되는 수로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알이 동자(童子)로 변하여 가락국의 임금 이 되었다는 인물이다. 이 수로왕 후손 가운데에는 김해김씨 외에 허씨(許氏) 및 인천이씨(仁川李氏)와 함창김씨(咸昌金氏) 등이 있고, 진주김씨(晋州金氏)·수원김씨(水原金氏)·영동김씨(永同金氏) 등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중 허씨는 수로왕의 두 아들에게 비(妃)인 허왕후의 성을 계승하게 한 것이므로 이성(異姓)이면서 혈족이 된다. 이 허씨의 후손인 기(奇)가 신라 때 사신으로 당나라에 갔다가 천자로부터 이씨로 사성(賜姓)을 받아 뒷날 인천에 관적(貫籍)하게 되어 인천이씨가 되었는데, ‘가락중앙중친회’에서는 이들 허씨와 인천이씨를 중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동성동본이지만 이족(異族)인 김해김씨도 있는데, 신라 경순왕의 제7대손인 시흥(時興：金寧君)의 후손 김녕김씨(金寧金氏)와 임진왜란 때 왜병 3,000명을 이끌고 항복, 귀화하여 김해김씨로 사성된 왜장 사야가(沙也可：金忠善)의 후손이 그것이다. 김녕김씨는 처음에 김해김씨와 혼동되어 ‘선김(先金)’ ‘후김(後金)’이라 하다가 조선 고종 때 김녕김씨로 확정되었다.

경주김씨계의 원조인 김알지는 65년(신라 탈해이사금 9) 경주 계림(鷄林)의 소나무가지에 걸려 있던 금궤에서 나왔다 하여 탈해왕이 ‘김’이라 지어 주었다고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 전하고 있는데, 신라 초기의 김씨왕인 미추이사금(味鄒尼師今)이 알지의 제7대손이 된다.

알지계는 신라·고려·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600여 관향(貫鄉)으로 분종(分宗)되고 《김씨대종사(金氏大宗史)》에도 266본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중 뚜렷이 현존하는 본관은 대략 50여 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헌강왕계(憲康王系)의 광산, 무열왕계(武烈王系)의 강릉, 신무왕계(神武王系)의 영동김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경순왕의 후손으로 되어 있다.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에게는 아들 9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넷째 은열(殷說)의 후손이 가장 번창했던 듯하며, 구안동(舊安東)·청풍(淸風)·김녕(金寧)·도강(道康)·전주·양근(楊根·益和)·영광·안산 등이 모두 은열의 후손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밖의 경주김씨계로는 선산(善山)·의성·언양(彦陽)·울산·나주·상산(商山)·수원·안로(安老)·연안·순천(順天)·고령·양근 등을 들고 있다. 고로(古老)들은 흔히 명문(名門)을 말할 때 ‘연이(延安李氏)·광김(光山金氏)·달서(達城徐氏)...’ 식으로 명문의 서열을 꼽아 많은 김씨 가운데서도 ‘광김’을 으뜸으로 꼽았는데, ‘금관자(金貫子)가 서 말’이라는 안동김씨를 비롯, 청풍·연안·경주 김씨 등 지난날 이름을 떨친 명문이 많이 있다.

김씨 중 조선시대의 문과급제자 수를 보면 안동이 315명, 광산 265명, 경주 202명, 연안 163명, 김해 123명, 청풍 110명, 강릉 96명, 의성 96명, 선산 60명, 상산 55명의 순이다. 또한 3정승 중 김씨는 52명으로 이씨의 68명 다음인데, 이 중 신안동(新安東)이 15명, 청풍이 8명, 연안·경주가 각 6명, 광산이 5명, 구안동 4명의 순이다. 또 명문의 척도로 삼았던 대제학(大提學:文衡)은 광산이 7명으로 전주·연안 이씨와 더불어 전체 씨족 중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신안동 6명, 청풍 3명, 의성 1명이다. 61명의 김씨공신 중 구안동이 9명, 광산·청풍이 각 6명, 김해·경주·연안이 각 4명이다. 조선 역대왕비 가운데는 경주·신안동이 각 3명, 청풍이 2명, 연안·광산이 각 1명으로 모두 10명이다. 대대손손 더없는 영예로 알았던 문묘(文廟)에 배향된 김씨는 광산김씨의 장생(長生)·집(集) 부자와 울산김씨의 인후(麟厚), 서흥김씨(瑞興金氏)의 평필(宏弼) 등 4명이다.

김씨의 본관은 증보문헌비고에는 499본, 조선씨족통보에는 623본으로 되어 있다.

1960년도 국세조사에서는 94만 9642가구에 인구 544만 275명으로 성별순위는 258성 중 제1위였으며,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조사한 성씨 자료에 의하면 282본, 2,080,768가구, 8,785,341명으로 역시 씨족 순위 1위며 전국 인구의 20%를 웃돌고 있다.

이 중 서울에 34만 가구, 부산·경남에 29만 3000가구, 대구·경북에 24만 7000가구, 광주·전남에 19만 9000가구의 순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천 가구 이상의 본관은 김해(수로김) 892,330호, 경주 361,189호, 광산 174,912호, 김녕 102,901호, 안동(신평계) 95,736호, 의성 53,633호, 강릉 35,816호, 김해(충선계) 26,902호, 선산(일선계) 29,512호, 청풍 20,189호, 연안 16,689호, 삼척 16,624호, 청도 15,594호, 상산 14,070호, 전주 12,437호, 부안(부령) 11,263호, 순천 11,092호, 나주 9,780호의 18개 본이며 함평김씨는 114위였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384본, 3,102,537가구에 9,925,949명으로 조사되어 여전히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21.7%를 차지하고 있다.

10만 가구 이상인 본관만도 김해(수로계) 1,295,080가구 4,124,934명, 경주 542,018가구 1,736,798명, 광명 258,936가구 837,008명, 김녕 162,204가구 513,015명, 안동(구) 132,645가구 425,264명으로 5개 본관으로 이들 5개 본관만 합쳐도 2,390,883가구 7,637,019명으로 전국 9위의 인구를 자랑한다.

함평군에 거주하는 김씨는 1969년 조사에서는 21본으로 조사되었으나 1985년 조사에서는 97본이며 10호 이상 거주하는 본관이 김해(수로계) 1,860호, 광산 1,195호, 경주 278호, 상산 189호, 나주 129호, 선산 67호, 김녕 56호, 안동(신평계) 47호, 고성 33호, 도강 25호, 연안

15호, 영광 15호, 청도 14호, 울산 11호, 성산 15호의 15개 본이었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가구가 있는 본관이 78가구, 가구 없이 사람만 거주하는 본관이 36본으로 모두 114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에서도 가장 많이 거주하는 본은 역시 김해(수로계) 1,381가구 3,946명이었으며 다음으로 광산 941가구 2,509명, 경주 208가구 617명 순이었다.

1) 강릉김(江陵金)씨

시조는 주원(周元)이다.

그는 알지(閼智)의 21세손으로 신라 혜공왕 13년(惠恭王. 777)에 이찬(伊漣)이 되었고, 선덕왕(善德王)이 후사가 없이 죽자 대신회의에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가 입궐하려 할 즈음에 큰 비가 내려 알천(閼川)의 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자 이는 하늘이 나의 즉위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위를 포기하였다.

비가 개이고 새로 즉위한 원성왕(元聖王)이 그에게 즉위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끝내 사양하고 강릉으로 이거하여 살았다.

이에 탄복한 원성왕이 그에게 명주군왕(溟洲郡王. 강릉의 옛 이름)을 봉하고 명주, 익령(翼嶺) 등 5개 군을 식읍으로 하사하였다.

시조 주원은 3형제를 두었는데 장자(長子) 종기(宗基)의 손자 양(陽)의 자손은 전하지 않고 둘째 헌창(憲昌)은 822년(헌덕왕 14) 일으킨 김헌창의 난으로 인해 후손이 없다. 셋째 신(身)만이 유일한 강릉김씨로 셋째아들에서부터 분파가 이루어진다.

강릉김씨는 고려조와 조선조에 기라성 같은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고려조에 평장사를 지낸 사람만도 상기(上琦), 인존(仁存), 고(沽), 영운(永胤), 광을(光乙) 등이 있고, 조선조에서는 상철(尙喆. 1712~1791)이 영의정을 지냈고, 판서를 지낸 사람만도 추(鍾. 공조판서), 첨경(添慶. 1525~1583. 예조판서), 시혁(始赫. 1676~1750. 공조판서), 시형(始炯. 1681~?. 병조판서), 상중(尙重. 1700~?. 공조판서), 상성(尙星. 1703~1755 호조·예조판서), 상집(尙集. 1723~?. 병조·공조·예조판서) 등이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52,050가구 165,963명이 살고 있어 김씨 348개 본관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5가구 16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경주김(慶州金)씨

경주김씨는 신라왕실의 3성 가운데 하나며 시조는 알지(閼智)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알지는 신라 탈해왕 때 경주지역 시림(始林: 鷄林)의 금궐짜에서 태어났다.

탈해왕은 알지를 하늘에서 내려준 아들이라 하고 금궐짜에서 태어났다 하여 성을 김(金)이라



지어주었다. 이리하여 알지가 경주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알지의 7대손이며 13대왕인 미추왕(味鄒王) 이후 김씨가 왕위에 올라 신라 56명의 왕 중 38명이 김씨였다. 알지계는 이후 600여 관향으로 나누어졌는데 뚜렷이 현존하는 본관은 약 50여 개다.

이중에서도 신라 29대 무열왕의 6세손인 김주원(金周元)을 시조로 하는 강릉김씨와 신라 45대 신무왕의 셋째 아들 김흥광(金興光)을 시조로 하는 광산김씨, 신무왕의 후손인 김영이(金令貽)를 시조로 하는 영산(永山 : 永同)김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가 신라 56대 경순왕의 후손이라 할 수 있다.

경순왕에게는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넷째인 은열(殷說)의 후손이 가장 번창했다.

첫째 일(鎰)은 마의태자라 불리며 망국의 한을 안고 입산해 했고, 둘째는 나주김씨, 셋째는 경주김씨 영분공파(永芬公派), 넷째는 경주김씨 은열공파(殷悅公派), 다섯째는 의성김씨, 여섯째는 강릉김씨, 일곱째는 언양김씨, 여덟째는 삼척김씨, 아홉째는 울산김씨의 1세조가 되었다. 그 밖에도 구안동(舊安東)·청풍(淸風)·김녕(金寧)·도강(道康)·전주(全州)·양근(楊根)·영광(靈光)·안산(安山) 김씨 등이 그의 후손으로 전하고 있다. 그 외에 선산(善山)·상산(商山)·수원(水原)·안로(安老)·연안(延安)·순천(順天)·고령(高靈) 김씨 등이 경주김씨계이다.

그리고 알지계에서 다른 성으로 갈라져나간 성씨도 있다. 김행(金幸)은 안동권씨로, 김순식(金順式)은 강릉왕씨로, 궁예의 후손 순백(珣白)은 광산이씨로, 궁예의 17세손 세광(世光)은 감천문씨(甘泉文氏)로, 경순왕의 아들 은열(殷悅)의 13세손 영규(永奎)는 수성최씨(隋城崔氏)로 분리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주김씨의 기원은 경순왕의 셋째·넷째 아들부터며 그 후손이 번창하여 현달한 인물. 그리고 세거지역을 중심으로 분파(分派)되었는데 대표적인 파는 아래와 같다.

영분공파(永芬公派) : 파조는 명종이며 경주군(慶州君)에 봉해졌으며 8세손 의진(義珍)이 평장사, 12세손 인경(仁鏡)이 중서시랑 평장사를 지냈다.

대안군파(大安君派) : 파조는 은열이며 공부시랑을 지냈다.

판도판서공파(版圖判書公派) : 파조는 장유(將有)며 고려말에 충청도 보은으로 이거 학문에 전념하였다.

태사공파(太師公派) : 파조는 인관(仁琯)이며 고려 인종 때 검교태자태사에 올랐다.

대장군파(大將軍派) : 파조는 순웅(順雄)이며 상장군을 지냈다.

병판공파(兵判公派) : 파조는 덕재(德栽)며 은열의 12세손으로 조선개국에 공을 세워 보좌공선에 오르고 병조판서를 지낸 후 함경도 정평(定平)으로 이거 정착했다.

장사랑공파(將士郎公派) : 파조는 준일(存一)이며 은열의 16세손으로 고려말 장사랑을 지냈다.

계림군파(鷄林君派) : 파조는 균(綸)이며 조선 개국공신이며 의정부 좌찬성을 지낸 후 계림군군봉을 받았다.

문기공파(文起公派) : 파조는 문기며 은열의 17세손으로 단종 때 이조판서에 올랐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사육신과 함께 피살되었다.

2000년 통계청조사에서는 전국에 542,018가구 1,736,79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에는 15,131가구에 4697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 189호, 1985년 조사에서 278호 1,143명이 살고 있었고 2000년 조사에서는 208가구 61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불면 공산리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함평군 입향조는 문기의 7세손 한형(翰亨)이며 1675년에 경남 안음(安陰)에서 월야면 외치리에 이거 정착하였고, 입향조 한형의 묘소는 월야면 외치리 칠봉산 줄기의 구릉에 있다.

함평에 있는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충의사(忠毅祠)	나산면 덕림리 죽림	창건 : 1919년경. 주벽 : 김문기(金文起) 배위 : 김현석(金玄錫), 김정호(金定浩), 김응무(金應武), 김 당(金 鎭), 김태원(金泰元)

배출인물

김한형(金翰亨) : 문기의 7세손. 1675년 경남 안음에서 월야면 외치리로 이거하여 경주김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김태원(金泰元) : 1870. 9. 16~1908 4. 25. 일명 준(準). 태중(太仲), 참봉(參奉). 호 죽봉(竹峯). 나주시 문평면 갈마리(渴馬里)에서 태어나 함평군 나산면 수상리에서 자랐다. 향일의병장.<제 1권 조선시대의 향일의병. 제 4권 고대인물을 볼 것>
 김 울(金 聿) : 1881~1908. 4. 25. 태원의 아우<제 1권 조선시대의 향일의병. 제 4권 고대인물을 볼 것>
 김희남(金喜南) : 1922. 6. 18 손불면 월천리에서 태어남.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69년 서울고법 부장 판사. 변호사
 김갑제(金鉉濟) : 태원의 손자. 무등일보 편집부국장 대우. 논설위원

3) 고성김(固城金)씨

시조는 김말로왕(金末露王)이다. 西紀42년 김수로왕(金首露王)이 가락국(駕洛國) 금관가야(金官伽倻)의 왕이 될 때 그는 소가야국(小伽倻國)을 세워 왕이 되었다고 한다. 이른바 육가야(六伽倻)의 하나다.

“정미보(丁未譜)”에는 그가 금란(金卵)으로부터 태어났기에 자손들이 김씨 성을 얻게 되었고 또 도읍(都邑) 지명을 따 관향(貫鄉)을 삼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시조 김말로왕은 김수로왕과 함께 구지봉(龜旨峰)에서 탄강(誕降)한 여섯 동자(童子) 중 막내로 소가야국을 세웠다. 도읍은 지금의 경남(慶南) 고성(固城)이어서 후손들이 본관을 고성(固城)으로 定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오보(丙午譜)” 金能百選文에는 “固城金氏は 小伽倻國王이 固城에 도읍을 定하므로써 성(姓)과 관(貫)을 固城金氏로 하였다” 고 적혀있다.

고성은 본래 가야국(伽倻國)이었다. 신라(新羅)가 빼앗아 고자군(古自郡)을 설치하였고 경덕왕 때 고성으로 개칭했다. 성종조에 고주자사(固州刺史)로 하였고, 현종조에는 거제(巨濟)에 소속시켰으며 원종때 주(州)로 승격시켰다.

시조 김말로왕(金末露王) 이래 52세손(世孫)의 대(代)까지 그 묘형(墓塋)이 경남 고성(固城)의 금봉(金封)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고성김씨(固城金氏)의 선계(先系)는 그곳을 세거(世居)의 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34세손의 대에 이르러 김빈길(金賓吉)의 자손들은 전북 고창(高敞)에 옮겨가 자리 잡았고, 김현(金賢) 김분(金憤)의 자손들은 양주(楊州) 고양(高陽) 등 경기도와 황해도 해주(海州) 등지에 살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35世孫 김원량(原亮)의 자손들 중에서 맏아들 김자경(金自卿)의 후계(後系)가 전남 무안(務安)과 함평(咸平)에 나뉘어 살았고, 둘째 아들 김진경(金進卿)의 후계(後系)는 37세 김경현(金慶賢)이 함북 경성(鏡城)으로 이거((移居)한 사실이 “기해보(己亥譜)”에 있으므로 이때부터 함북 명천군(明川郡) 일대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째아들 김익경(金益卿)의 후손(後系)이 고창(高敞)에서 무안(務安) 성주(星州) 등을 거쳐 고성에 안착하였다고 믿어진다.

한편 김원량의 동생 김희량(金希亮)의 자손들은 고창에서 살았고, 아래 자손들은 38세 김세진(金世珍)의 대를 전후하여 순천을 비롯한 승주군 일원에 정착했던 것 같고, 40세 대의 이후에 일부가 광양으로 이거(移居)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량(金文亮)의 자손들은 39세 김만서(金萬胥)의 대 이후에 나주의 남평에 세거(世居)해 온 것 같다.

그밖에 41세 김선(金繕)의 후계가 전남 승주의 락안에 정착하였고, 김미(金璽)의 후계(後系)는 대체로 42세손의 대부터 2대에 걸쳐 황해도 송화(松禾), 충남 부여, 충북 청주, 강원도 홍천 등지로 옮겨가 살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1930년 당시 고성김씨는 전남 승주, 무안, 강진, 나주군 일원과 경남 고성군 고성읍, 경기도 강화군, 당진, 청주, 순천 일원에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있었다.

함평군 학교면에 터를 잡게 됨은 36세손 익경(益卿)으로 자(字)는 공삼(公三), 호(號) 창강(滄江)으로 성종(成宗) 계사년(癸巳年)에 급제하고 적순부위(迪順副尉) 훈련원참군(訓練院參軍)과 여산부사(礪山府使)를 역임하고 연산조(燕山朝)에 고창으로 퇴임하여 지내다 무안(현 함평군) 반송동(盤松洞)으로 옮겼다. 새로이 제방과 정자를 축조하고 연못을 만들고 소나무를 심어 여유롭게 거처를 삼았다. 소나무 모양이 반석처럼 생겨서 반송정(盤松亭)이라 이름했다.

학교면 학교리에 정착은 53세손 병두(炳斗 高宗 丁酉 8月 7日生)의 대(代) 엄다면(嚴多面) 신계리 53세 병진(炳軫) 본가에서 정착하게 되어 현재 9호(戶)가 거주하고 있다.

계파는 강화파(江華派), 고성파(固城派), 고창파(高敞派), 공주파(公州派), 광양파(光陽派), 낙안파(樂安派), 남평파(南平派), 당진파(唐津派), 명천파(明川派), 무안파(務安派), 문화파(文化派),

부여파(扶餘派), 부천파(富川派), 송화파(松禾派), 순천파(順川派), 안산파(安山派), 양주파(楊州派), 오천파(汚川派), 옥구파(沃溝派), 청주파(淸州派), 평택파(平澤派), 함평파(咸平派), 홍천파(洪川派) 등이 있다.

2000년 현재 전국적으로 3,709가구에 11,888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남에는 444가구에 1,324명이 함평에는 21가구 45명이 거주하고 있다.

배출인물

김자경(金自卿) : 자 공현(公玄). 호 우도재(憂道齋). 시조의 36세손. 이조정랑 원량(原亮)의 아들로 1471년에 생원시에 입격했다.

김익경(金益卿) : 자 공삼(公三). 호 창강(滄江). 자경의 아우. 1473년 무과에 급제. 여산부사(礪山府使)사를 지냄

김 명(金 明) : 1478~? 처음 이름 질통(質通). 생원 자경의 양아들. 학행이 사림의 사표가 되었으며 1523년(중종 18) 문천훈도(文川訓導)에 제수됨

김영통(金鈴通) : 1479~? 익경의 둘째아들. 이조참의를 지냈고 경북 성주(星州)로 이거했다.

김 혁(金 赫) : 1493~? 자 광보(光甫). 호 남암(南巖). 명(明)의 아들. 시조의 38세손. 1546년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김수정(金粹精) : 1519~? 자 윤구(允九). 호 중암(中菴). 혁의 아들. 1567년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김승규(金承奎) : 1935. 11. 24 호는 학천(鶴泉) 함평읍, 영암읍 부읍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 승진. 광역시에서 지방서기관을 지냈다.

김덕규(金德奎) : 1944. 4. 6(음)호는 옥현(玉軒) 아현산업정보학교, 성동공업고등학교교장, 국무총리 표창, 녹조근정훈장, ND : YAG 레이저를 이용한 A1 6061의 용접조건 연구.

김동규(金東奎) : 1950. 8. 27(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김동규안과의원 개원.

김종구(金鍾九) : 1950. 12. 12 한국전력공사 부장 재직.

김종윤(金鍾潤) : 1953. 4. 2 육군대령 예편. 대통령 표창, 보국훈장 삼일장.

김종팔(金鍾八) : 1958. 10. 2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서 한빛안과의원을 개원.

김종철(金鍾徹) : 1971. 6. 10 제44회 사법고시합격.감사원,인천지청,부천지청,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재직.

4) 광산김(光山金)씨

시조는 흥광(興光)이다. 신라 신무왕(神武王)의 셋째아들로 장차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을 예견하고 무진주 서일동(西一洞)으로 피하여 학문을 닦으며 살았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은 무진주가 광산으로 개칭되었기 때문에 광산으로 하였다.

그의 손자 길(佺)이 고려 창업 공신으로 많은 공을 세워 삼중대광 사공(三重大匡司空)에 이르



고, 그 후 8대에 걸쳐 평장사가 배출되어 그곳을 평장동(平章洞. 현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평장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 왕조에는 양대 명현을 위시하여 266명의 대과 급제자와 5명의 정승, 8명의 대제학과 그 외 왕비, 공신, 청백리 등을 배출시킨 명문으로 문정공 · 문숙공 · 낭장공·양간공의 네 파로 분파되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거족이며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 1,417호로 본관별 씨족 거주순위 3위를 차지했고 1985년 조사에서는 1.195호 4,940명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에는 전남에 23,231가구에 69,394명이 거주하고 있고 함평군에는 951가구에 2,50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785년에 비해 50% 가깝게 줄어들고 있어 광산김씨 또한 농촌의 노령화와 이농현상의 현대 현상을 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광산김씨 중 함평군에 제일 먼저 입향한 파는 양간공파(良簡公派)며 입향조는 시조의 20세손인 경온(景溫)으로 태종조에 이조좌랑을 지냈고 1450년경 아들 3형제를 데리고 경남 창녕에서 당시 무안현 좌촌면(佐村面. 현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으로 이거 정착하였으며 장남 자분(自芬)은 종성부사, 차남 자보(自普)는 병조좌랑, 삼남 자궤(自贊)는 이조좌랑을 지내 좌촌면의 이름을 좌랑면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으며 뒤에 자분은 학교면 금송리 금산으로, 자보는 대동면 금곡으로. 자궤는 장흥(長興)으로 분가 이거했다.

금송리로 이거한 자분의 후손은 집성촌을 이루었고 그의 후손 중 김수연(金壽淵)은 정유재란 때 의병을 일으켜 남원 전투에서 아들 5형제와 함께 순국하였고, 수연의 아내 김해김씨와 큰며느리 동래정씨가 남편들을 따라 자결하였기로 숙종 19년(1693)에 금산마을에 금우사(錦宇祠)와 삼강문을 내려 1문 2세 1층 5호 2열을 기리게 하였는데 1868년에 훼손하였고 "세적비"와 "김수연의 충절단"이 전한다.

1981년 경온이 입향한 월산리에 미군통신부대(현 항만무선표식소)가 들어서므로 유허비만 세우고, 자보 후손의 세거지인 대동면 금곡리 양동에 월산리에 있던 월산재(月山齋)를 옮겨 영모재(永慕齋)라 개칭함과 동시에 경온, 자보, 성옥(成玉), 함(涵), 성리(成利)의 5세를 설단 향사하고 있다.

양간공파로 시조의 23세손인 김보(金寶)가 전북 무장에서 1540년경 대동면 덕산리에 이거 정착하였고, 그 자손이 번성하여 6세손 우현(遇珉. 시조의 28세손. 원량-원량-의 아들)이 1680년 경 함평읍 진양리로 이거하였고, 그의 손자 세욱(世沃. 보의 8세손. 만석-萬錫-의 셋째아들)이 1750년경 손불 대전리로 옮겨 정착하였다.

보의 6세손 응삼(應三. 시조의 28세손. 시량-시량-의 넷째아들)과 일삼(鎰三. 시량의 여섯째 아들) 형제가 1730년대에 월야면으로, 7세손 빈(毗. 응삼의 둘째아들)이 1760년경 월야면에서 나산면으로, 7세손 찬(瓚. 응삼의 셋째아들)이 월야면에서 해보면으로 옮기는 등 손이 군내에 퍼졌다.

보의 9세손 광우(光宇. 시조의 31세손. 도식-道植-의 아들)가 1790년경 무안군 현경면으로, 10세손 태열(兌說. 시조의 32세손. 응구-應九-의 아들)과 12세손 기홍(箕洪. 상빈-相斌-의 셋째아들)이 1890년경 영광군 불갑면으로, 역시 12세손인 기승(箕昇. 상윤-相尹-의 맏아들)이 영광군 염산으로 옮겨 손이 번창하였다.

보의 7세손이며 시조의 29세손인 만철(萬哲. 우기-遇琦-의 둘째아들)이 전북 고창군 대산면으로, 9세손 광찬(光燦. 시조의 31세손. 도증-道增-의 맏아들)이 1780년대에 전북 고창군 흥덕면으로, 12세손 기호(箕浩. 시조의 34세손. 상인-相仁-의 맏아들)가 1850년경 전북 김제시로 이거하였다.

양간공파 영리(英利)의 11세손 김득남(金得男)이 1620년경 당시 함평군이었던 해제면에 입향하여 그 후손이 번성했고, 시조의 29세손이며 영리의 13세손인 대연(大衍)이 무안읍 고절에서 1740년경에 학교면 회춘동으로 이거 정착했는데 회춘동은 대연의 호 회춘당(回春堂)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전한다.

양간공파 다음으로 입향한 파는 문정공파(文正公派)다.

파조 태현(台鉉. 시조의 15세손)의 12세손인 몽성(夢成)이 1600년경 영광군 대마면 남산에서 해보면 금덕리에 정착하였고 그 후손들이 이룬 마을이 유정자(柳亭子)이다.

문숙공파(文肅公派)는 파조 주정(周鼎. 시조의 14세손)의 12세손 유(瑜)가 1610년 나주시 향교동에서 신광면 월암리 연천에 피란 하다가 백운리 저동에 정착하여 그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었다.

또 파조의 14세손 취상(就商)이 1670년경 나주시 문평면 죽곡에서 신광면 함정리에 피란하였다가 그의 조카 구일(九一)이 1705년에 정착한 손불면 죽장리 담골에 합류하여 그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었으며 충·효·열을 많이 배출했다.

맨 마지막에 입향한 파는 낭장공파(郎將公派)다.

파조 규(珪. 시조의 14세손)의 12세손인 응명(應鳴), 채명(彩鳴) 형제가 장성군 삼서면에서 신광면 함정리 무송에 정착하였다.

함평에 있는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금우사(錦宇祠)	학교면 금송리 금산	1693년 창건. 1868년 훼손. 1989년 복설. 주벽 : 수연(壽淵) 배위: 몽룡(夢龍). 몽필(夢弼). 몽령(夢齡). 몽업(夢業)
영모재(永慕齋)	대동면 금곡리 양동	1981년에 세움. 학교면 월산리의 월산재를 옮김. 성옥(成沃). 경온(景溫). 자보(自普). 함(涵). 성리(成利) 5세 설단 배향
삼일사(三一祠)	손불면 죽장리 담골	1983년 창건. 두삼(斗三). 규일(珪駟)

배출인물

김경은 : 시조의 20세손. 대사성 성옥의 둘째아들. 태종조에 이조좌랑을 지냈고 1450년경 경남 창원에서 학교면 월산리로 이거 정착하여 광산김씨 함평 입향조가 됨
김자분 : 1419~1481 자 희포(希圃). 좌랑 경온의 맏아들. 1438년 문과에 급제. 종성부사를 지냄



- 김자보 : 1421~1484 경은의 둘째아들. 병조좌랑을 지냄
- 김자래 : 1424~1494 자 공포(功圃). 경은의 셋째아들. 이조좌랑을 지냄
- 김영진(金永璣) : 1438~1499 자 좌공(佐功). 자보의 아들. 성균관 진사.
- 김 보 : ?~1570 자 현여(現汝). 호 덕암(德巖). 1537년 성균관생원.
- 김 혼(金 潘) : 1458~1534 자 점실(点悉). 시조의 23세손. 세준(世俊)의 아들. 문과 급제. 보령. 진해현감을 지냄
- 김기서(金奇瑞) : 1455~1487 자 권경(權卿). 영진의 아들. 진사시에 입격함
- 김수연 : 1533~1597. 호 금은(錦隱). 현감 혼의 아들. 1559년(명종 14) 무과에 급제. 임진란 때 아들 5형제와 함께 의병을 이끌고 이북남의 휘하로 들어가 남원전에서 전사. <제 1권 조선시대 임진란, 제 4권 고대인물을 볼 것>
- 김응영(金應榮) : 1490~1551 자 영화(榮和). 시조의 24세손. 기서의 아들. 진사를 지냈다.
- 김경록(金景祿) : 1559~1630 자 달경(達卿). 시조의 25세손. 참봉 수해의 아들.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주부를 지냈다.
- 김 해(金 海) : 자 시망(時望). 훈도 천중(天鍾)의 아들. 1587년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임진란 때 선조대왕을 호종하였고 부녕전(富寧殿)에서 왜군에게 빼앗은 칼이 전한다.
- 김영수(金永守) : 자 덕보(德保).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을 지냈다. 이순신 휘하에서 전공을 세우고 순절하였고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 김몽성(金夢成) : 시조의 26세손. 1576년 무과 급제. 주부, 판관을 지냄. 문정공과 함평 입향조다.
- 김광하(金光夏) : 몽성의 손자. 1636년 무과 급제. 부호군을 지냄
- 김진하(金振夏) : 몽성의 손자. 1642년 무과 급제. 병마절도사를 지냄
- 김기하(金器夏) : 몽성의 손자. 1649년 무과 급제. 안주부사를 지냄
- 김상택(金相澤) : 1763~1848 시조의 31세손. 자 군원(君源). 호 지족당(知足堂). 학행과 효성이 지극하였고 1893년에 효로 정려가 내려졌다.
- 김두삼(金斗三) : 1844~1931 1조의 33세손. 자 태겸(兌兼). 호 영빈(穎濱). 죽장리에서 태어났고 성리학과 문장에 밝았으며 영빈유고가 전한다. 삼일사(三一祠)에서 배향한다.
- 김기택(金箕澤) : 1900~?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 1919. 4. 8 문장만세를 주도하였고 3년간 옥고를 치름. 건국유공자 표창 받음
- 김재수(金在壽) : 1891~1941 시조의 35세손. 자 여옥(汝玉). 호 백계(栢溪). 기면(箕冕)의 아들. 조국광복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름
- 김재곤(金在崑) : 1900. 9. 7~1976 시조의 35세손. 호 옥산(玉山). 기수(箕粹)의 맏아들로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 1919. 4. 8문장 만세운동을 주도함
- 김영태(金永太) : 1927. 5. 16 시조의 37세손. 호 백열(白悅).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수현(修鉉)의 아들. 서양화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김종달(金鍾達) : 1950. 8. 21 나산면 용두리에서 출생. 1978년 기술고시 합격. 국방부 방산

국 무기실장 역임

- 김재수(金在洙) : 1939. 8. 29 시조의 35세손. 육군대령 예편
- 김용현(金龍鉉) : 1902~1954 호 운석(雲石). 시조의 36세손.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 재육(在勳)의 아들. 1919.4. 8 문장만세운동을 주도함
- 김강현(金康鉉) : 1930. 11. 2 호 평석(平石). 시조의 36세손. 재화(在化)의 맏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태어남.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문교부 법무관, 장학관을 지냄
- 김영진(金泳鎭) : 1931. 7. 10 호 석산(石山). 시조의 36세손. 규태(珪台)의 맏아들로 손불면 죽암리에서 태어남. 목포대학교 총장. 전라남도교육위원을 지냄
- 김영희(金永熙) : 1933. 10. 17 호 만석(晩石). 시조의 36세손. 규태의 둘째아들. 문교부전문대학 학무과장 역임
- 김회현(金回鉉) : 1947. 10. 24 시조의 36세손. 재상의 둘째아들. 육군대령 예편
- 김영배(金永培) : 1932~1985 시조의 37세손. 명현(明鉉)의 다섯째 아들로 대동면에서 태어남. 경찰 총경을 지냄
- 김영중(金永鍾) : 1942. 7. 4 시조의 37세손. 대현(大鉉)의 둘째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태어남. 행정서기관을 지냄.
- 김영춘(金永春) : 1952. 4. 20 시조의 37세손. 보현(甫鉉)의 둘째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태어남. 육군대령으로 있다.
- 김관휴(金官休) : 1939. 2. 26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장을 지냄
- 김민일(金敏一) : 1941. 1. 6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김경수(金穎洙) : 1958. 10. 10 포시콤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다.
- 김원기(金原基) : 1962. 1. 6 대동면 백호리에서 출생. LA올림픽레슬링에서 금메달
- 김완중(金完重) : 1963. 9. 12 주 일본대사관 3등서기관 역임
- 김환수(金煥洙) : 1966. 5. 20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있다.
- 김영관(金永官) : 1947. 1. 28 조선대학교 교수

5) 김녕김(金寧金)씨

시조는 시흥(時興)이다.

그는 알지의 39세손으로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은열(殷烈)의 9세손이다. 고려 인종 때 묘청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이 커 김녕군(金寧君)에 봉해졌으며, 명종때 조위총(趙位寵)의 난 당시 공을 세워 식읍을 하사 받았다.

2세 상(尙)은 인종 때 병부상서를 거쳐 평장사를 지냈으며 상의 아우 순(珣)은 찬성사에 올랐고, 사의 증손 귀갑(貴甲)은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사사를 지내고 고려가 망하자 자결하는 충절을 보였으며, 6세손 정병(挺丙)은 공민왕 때 병부상서를 지낸 물론 홍건적을 평정한 공으로 분성군(盆城君)에 봉해졌으며, 광저(光儲)가 대사헌을 지내는 등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김녕은 김해의 밋 이름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김해로 본관을 하면서 선김(先金.수로왕계),



후김(後金, 시흥계)으로 각각 분별해 왔었다.

그러나 자손들이 변창함에 따라 양김의 후손들 간에 어느 쪽 자손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폐단이 일어났다. 헌종(憲宗) 때에 이르러 이조일관(二祖一貫)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김녕군의 후예는 다시 김해의 및 이름인 김녕으로 본관을 삼았다.

옛 함평읍지에 임진왜란 때 조방장 김언공(助防將金彦恭)과 함께 서울을 방어했으며 밤중에 적진으로 잠입하여 적 수십 명을 참획하는 공을 세웠으나 그도 전사했다. 조정에서는 그 공을 높이 사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고, 함께 책록된 김송(金松)이 김녕김씨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그의 후손들이 함평에 사는 사람이 없어 입향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위 기록으로 볼 때 임진란 전에 김녕김씨가 입향한 것은 사실이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김녕김씨는 전국에 162,204가구에 513,015명이 살고 있고, 전남에는 7,645가구에 22,903명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점암면 모용리·두원면 관덕리, 무안군 해제면 학송리, 광양시 진월면 방덕리 등에서 김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현재 함평군에 살고 있는 김녕김씨는 대사성공파(大司成公波)가 함평읍 장년리, 손불면 대전리에 많이 살며, 충희공파(忠憲公派)가 함평읍 수호리에 살고 있다. 1969년 조사에서는 전군에 80호였으며 1985년 조사에서는 56가구 23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는 51가구 12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녕김씨 또한 이농현상으로 인해 함평에서도 인구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함평 입향조는 대사성공파의 기인(琪仁, 시조의 17세손)이며 1710년경 경남 고령군에서 함평읍 장년리 백연동(白蓮洞)으로 이거했고 그의 묘소는 장년리 산 60번지에 있다.

배출인물

김규섭(金圭燮) : 1945. 12. 1 함평읍 장년리에서 출생. 1974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6) 김해김(金海金, 수로계)씨

김해김씨는 수로왕(首露王)을 시조로 하고 있다.

김해의 지명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는데 고려 후기에 이르러 김해부가 설치됨으로써 김해를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 후손이 변창함에 따라 수로왕의 13세손인 김유신을 중시조로 하여 150여개로 분파되었다. 이중에서 고려 때의 목경(牧卿)을 1세조로 하는 경파(京派 : 永堅·永瑞·永貞·永純)와 아우 익경(益卿)을 1세조로 하는 사군파(四君派 : 克己·完·汝水·世器)와 관(管)을 1세조로 하는 삼현파(三賢派 : 克一·駟孫·大有)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도강김씨는 경순왕의 후손인 김희조(金希祖)를 시조로 하고 그가 고려 말기에 도강백(道康伯)에 봉해졌던 것이 근거한다. 부안김씨는 경순왕의 큰아들인 마의태자를 시조로 하고 그의 후손이 부안부원군에 봉해졌던 것에 근거한다. 상산김씨는 경순왕의 후손인 김수(金需)를 시조로 하고 그의 후손이 상

주에 세거하여 상산부원군에 봉해졌던 것에 근거한다. 서흥김씨는 은열의 후손인 김보(金寶)를 시조로 하고 그의 손자가 서흥군에 봉해졌던 것을 근거로 한다. 선산김씨는 알지의 후손인 김선공(金宣弓)을 시조로 하고 그가 고려초에 선산군에 봉해졌던 것에 근거한다. 또 같은 선산김씨가 있는데 이는 경순왕의 여덟째 아들인 김추(金鍾)를 시조로 하고 있다. 안동김씨는 알지의 후손인 숙승(叔承)을 시조로 하고 고려시기의 장군인 김방경(金方慶)을 중시조로 하고 있다. 본관을 같이 하면서도 시조를 달리하는 안동김씨가 있는데(新安東金氏), 고려의 개국공신인 김선평(金宣平)을 시조로 하고 조선 중기에 도정을 지낸 김극효(金克孝)를 중시조로 하고 있다. 신안동김씨는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로 유명하다. 연양김씨는 경순왕의 일곱째 아들 김선(金鐔)을 시조로 하고 그의 후손인 취려(就礪)가 고려시대에 연양군에 봉해졌던 것에 근거한다. 연안김씨는 알지의 후손인 김섬한(金暹漢)을 시조로 하고 있다. 영광김씨는 은열의 손자인 김심언(金審言)을 시조로 하고 고려 때 오성군(鎭城君 : 영광의 옛 이름)에 봉해진 것에 근거한다. 울산김씨는 경순왕의 아홉째 아들인 김덕지(金德摯)를 시조로 하고 있다. 의성김씨는 경순왕의 다섯째 아들인 김석(金錫)을 시조로 하고 그가 고려 태조의 외손으로 의성군에 봉해진 것에 근거한다. 청도김씨는 은열의 후손인 김지대(金之岱)를 시조로 하고 오산군(鰲山君 : 청도의 옛 이름)에 봉해진 것에 근거한다. 청풍김씨는 은열의 후손인 김대유(金大猷)를 시조로 하고 그가 청풍부원군에 봉해졌던 것에 근거한다. 풍산김씨는 경순왕의 후손인 김문적(金文迪)을 시조로 하고 그가 고려시대에 풍산백에 봉해졌던 것에 근거한다. 이들 본관중 안동·광산·경주·연안·김해·청풍·강릉·의성·선산·상산 김씨가 유명한 인물을 다수 배출했다. 김씨는 전국에 걸쳐 거주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영남에 다수 거주하고 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씨 및 본관 집계결과에 따르면, 가구수 310만 2,537호와 인구수 992만 5,949명으로 성씨 중에서 인구 순위 1위이다.

김해김씨는 수로(首露)왕을 시조로 하고 있다.

가락국(駕洛國)의 9간(九干)들이 구지봉(龜旨峰)에서 금함(金盒) 6개를 발견하여 곧 열어보니 여섯 동자가 나왔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수로를 가락국의 왕으로 추대하고 나머지는 5가야(五伽倻)에 봉했다.

수로는 금함에서 나왔다하여 성을 김(金)으로 하고 제일 먼저 나왔다하여 이름을 수로(首露)하였다.

후손들이 본관을 김해로 한 것은 가락국의 고도(古都)가 지금의 김해인데 김해는 금관국(金官國), 금관군(金官郡), 금관소경(金官小京), 임해현(臨海縣), 금주(金州), 김녕부(金寧府) 등으로 바뀌었으나 고려 충선왕 때 김해부(金海府)를 설치함으로써 "김해"가 되었다.

김해김씨는 우리나라 본관별 씨족 중 가장 수가 많으며, 전국에 걸쳐 거주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영남에 다수 거주하고 있다.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성씨 및 본관 집계결과에 따르면, 가구 수 310만 2,537호와 인구 수 992만 5,949명으로 성씨 중에서 인구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함평군에도 1969년 조사에서 2,201호로 본관별 씨족 중 1위였고, 1985년 조사에서도 1,860호, 7,835명으로 1위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도 1,381가구에



3,946명이 거주하고 있어 역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해김씨는 오랜 씨족 중의 하나이나 분본(分本)된 예가 없으며, 후손이 번창함에 따라 김녕군파(金寧君派, 파조 목경-牧卿)를 비롯 수로왕의 13세손인 김유신을 중시조로 하여 150여개로 분파되었다.

그 중에서 목경계의 경 4파(京四派)³⁾가 제일 수효가 많으며, 목경의 아우 익경계(益卿系)의 4군파(四君派)⁴⁾와 관계(官系)의 3현파(三賢派)⁵⁾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앞 김씨 항에서 말했지만 김해김씨에서 타성으로 바뀐 성씨는 김해허씨, 인천이씨이고 동성동본을 쓰면서도 시조를 달리하는 충선계(忠善系)는 일본인 사야가(沙也可)가 귀화하여 사성 받은 계파이다.

함평군에 살고 있는 김해김씨는 경파, 3현파, 문경공파(文敬公派)가 주류를 이루며 4군파가 그 뒤를 잇는다.

김해김씨 중 함평군에 제일 먼저 입향한 파는 경파며 입향조는 맹리(孟理)인데 세종 때인 1450년경 나산면 구산리에 정착했다. 고의 6세손인 광립(光立)이 1624년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이 되고 1635년에는 황주판관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 속(漣)이 부산진수군절제사가 되었으며 속의 아들 7명이 모두 무과에 급제했다.

입향조 맹리의 묘소는 나산면 원선리 앵소산에 있다. <3권 앵소산의 전설을 볼 것>

문경공파(파조 탁-琢, 고려 때 첨의평리시중-僉議評理侍中-을 지냄)는 파조의 9세손인 대기(大器), 광기(匡器) 형제가 1534년(중종 29)에 입향했는데 대기는 함평읍 옥산리 옥산에, 아우인 병조좌랑 광기는 함평읍 대덕리 백곡에 정착했고 그 후손이 함평읍 수호리 평호로 분가하여 세거하고 있다.

문경공파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함평읍 대덕리 백곡, 학교면 학교리 영화촌, 나산면 구산리, 월야면 용정리 등이다.

4군파는 파조 익경의 8세손인 식(湜, 판서공파 파조)의 9세손 영태(齡泰)가 1876년 손불면 죽장리 담골에 정착하여 그 후손이 세거하고 있다.

함평에 살고 있는 3현파는 모두 일손계이다.

첫 입향자는 일손의 5세손인 세동(世東, 1602년 생), 세경(世慶, 1604년 생), 우경(佑慶)의 3형제며 1630년경 영광군 군남면 동현리(東現里)에서 신광면 송사리 삼천동으로 이거 하였다.

그 후 우경의 손자인 대한(大漢, 1687년 생)이 1710년경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로 이거 정착하였고, 세동의 손자인 광재(先載, 1721~1786)가 1750년경 손불면 대전리 저전에 입촌하였으며 세경의 손자 해봉(海奉, 1664년 생)이 1690년경 손불면 학산리에 정착 그 후손이 세거하고 있다.

세동의 묘소는 신광면 송사리 갈마등에 있다.

3) 영건(永堅)·영서(永瑞)·영정(永貞)·영순(永純)

4) 극조(克祧)·완(完)·여수(汝水)·세기(世器)

5) 극일(克一)·일손(駟孫)·대유(大有)

배출인물

- 김맹리(金孟理) : 1450년경 나산면 구산리에 이거 정착한 김해김씨 함평군 입향조
- 김몽웅(金夢熊) : 세조조에 문과에 급제
- 김덕희(金德希) : 명종 때 순천부사를 지냄
- 김몽호(金夢虎) : 중종 때에 목사(牧使)를 지냄
- 김익웅(金翼熊) : 호 월포(月圃).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성 남문 창의에 앞장섰다.<제1권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볼 것>
- 김희눌(金希訥) : 선조 때에 문과에 급제
- 김 수(金 遂) : 선조 때에 문과에 급제
- 김 송(金 松) :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 김광립(金光立) : 자 현재(顯哉). 1618년(광해 10년).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이 커 진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고, 1636년에 동래수사를 지냈다.
- 김사수(金泗秀) : 자 군숙(君淑).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 김 속(金 涑) : 광립의 아들. 부산진 수군절제사를 지냈다. 속의 아들인 승구(昇九)·석구(錫九)·상구(象九)·해구(海九)·창구(昌九)·남구(南九)·경구(景九)의 일곱 아들이 모두 무과에 급제했다.
- 김승필(金陞弼) : 1774~1840 호 용곡(龍谷). 탁영의 9세손. 효자로 나라에서 정려가 내려졌다.
- 김석훈(金錫勳) : 철종 때 재령군수를 지냈다.
- 김용우(金溶祐) : 고종 때 무과에 급제하였다.
- 김규룡(金奎龍) : 고종 때 무과에 급제하였다.
- 김봉수(金鳳守) : 1916~작고. 전라남도위원을 지냈다.
- 김창헌(金昶憲) : 1927. 10. 19 손불면 궁산리 출신. 검사를 지냈다.
- 김용일(金龍日) : 1933. 5. 3 엄다면 엄다리 출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을 역임했다.
- 김녕호(金寧鎬) : 1937. 신광면 백운리 출신.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되었다.
- 김중천(金鍾千) : 1949. 1. 20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 육군소장.
- 김영남(金永南) : 1960, 6, 15 대동면 용성리에서 출생. 1988년 서울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
- 김중신(金鍾信) : 1970. 5. 17 함평읍 석성리에서 출생. 바르셀로나 올림픽 레슬링에서 은메달.
- 김남곤(金南坤) : 중앙관서 서기관 역임
- 김명섭(金明燮) :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 문교부 사무관을 역임함

7) 김해김(金海金. 우록김-友鹿金. 충선계)씨

시조는 김충선(金忠善, 1571~1642, 자는 선지, 호는 모하당)으로 본래 일본인이며 일본 이름은 사아가(沙也可)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21세의 나이로 일본군 가등청정(加藤清正, 가토요 기요마사)의 좌선봉장(左先鋒將)으로 삼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4월 13일 부산 동래에 상륙 했다.

조선의 문물과 인정, 풍속에 감탄하여 상륙한지 1주일만인 4월 20일 경상도 병마절도사 박진(朴晉)과 김응서(金應瑞)에게 "내가 못난것도 아니요, 나의 군대가 약한 것도 아니나 조선의 문물이 일본에 앞서고 학문과 도덕을 숭상하는 군자의 나라를 짓밟을 수 없어 귀순하고싶다."라는 편지를 보내 귀순의 뜻을 밝힌 후 귀순했다.

귀순 후 조선의 장수로 울산과 경주, 영천 등지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특히 그는 조선에 화포와 조총을 만드는 법과 사용술을 보급했고, 18개 지역의 왜적의 성을 탈환하는 등 눈부신 업적과 전공을 세우자 권율장군과 어사 한준겸(韓浚謙)이 왕에게 간청하여 정이품 자헌대부에 올랐으며 선조가 그를 친히 불러 이름을 김충선으로 하사 하였다.

1603년(선조 36년) 북방에서 여진족이 국경을 어지럽히자 국경방어를 자청하여 10년간 국경을 지키다 물러났고,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다시 출정해 부장(副將) 서아지(徐牙之)의 목을 베어 평정에 공을 세웠다.

1627년(인조 5년)의 병자호란 때에는 의병을 모아 경기도 광주의 쌍령(雙嶺)에서 매복작전으로 대승을 거두어 무훈을 떨쳤다.

그는 서른살이 되던 해 진주 목사(晋州牧使) 장춘점(張春點)의 딸을 아내로 맞아 경북 달성군 가창면 우록동(友鹿洞)에 뿌리를 내리고 충효의열(忠孝義烈)의 가풍(家風)으로 살다가 1642년(인조 20년) 72세로 세상을 마쳐 가창골에 세워진 녹동서원(鹿洞書院)에 배향되었고, 정헌대부 지중추부사(正憲大夫 知中樞府事),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김충선은 슬하에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장남 김경원(金敬元)이 상호군(上護軍)을 거쳐 병조참판(兵曹參判)에, 둘째 김경신(金敬信)은 공조참판(工曹參判)에 각각 추증되었고, 셋째 김우상(金右祥)은 상호군(上護軍)을, 넷째 김계인(金繼仁)은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했으며, 막내 김경인(金敬仁)은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어 가문을 크게 일으켰다.

가문을 빛낸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경원의 둘째 아들 김진영(金振英)이 승정원 좌승지(承政院 左承旨) 겸 참찬관(參贊官)을 역임했고, 김여삼(金汝三)은 노모가 죽자 삼성산(三聖山)에 여막(廬幕)을 짓고 3년간이나 시묘(侍墓)를 극진히 하여 "효행록(孝行錄)"에 실렸으며, 김용하(金龍河)는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벼슬을 사직하여 충효의열(忠孝義烈)의 가풍을 지켰다.

지금 그의 후손들은 경북 달성군 가창면에 많이 살고 있으며 우록동에 살았기 때문에 우록김씨라고도 불리운다.

묘소는 경북 달성군 가창면 우록동 삼성산에 부인의 무덤과 나란히 있다.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충선계의 김해김씨(우록김씨)는 전국에 26,902가구 125,277명이 살고 있어 김씨 285개 본관 중 8 위를 차지했으며, 2000년 통

계청 조사에서는 총 59,880가구 199,54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에는 3,588가구 11,27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함평군에는 143가구에 406명이 거주하고 있다.

8) 나주김(羅州金)씨

시조는 운발(雲發)이다. 그는 신라 경순왕의 손자다. 경순왕은 아홉 아들을 두었는데 경순왕과 왕비 죽방부인(竹房夫人) 자이에 마의태자와 둘째 황(惶)이 있었다.

경순왕이 왕건에게 양국하자 마의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가고, 황은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범공(梵空)스님이 되었는데, 황이 입산 전에 낳은 두 아들을 고려조에서 예우했고, 맏아들 운발이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러 나주군에 봉해지니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나주로 하였으며, 대대로 자손들이 번성하고 현달하였다.

고려조에서는 대경(臺卿)이 충숙왕 13년인 132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보문각 대제학(종2품)에 올랐고 문장이 뛰어나 「동문선(東文選)」에 그의 시가 실려 있으며, 조선조에 이르러 그의 손자 정준(廷僞)이 종2품 도총부 부총관, 그의 현손 경석(景錫. 1491~1574)이 무과로 강계부사를 지냈고, 종질(從姪)인 적(適. 1507~1579)이 문과에 급제하여 광주목사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충수(忠秀. 1538~1597)가 온양군수를 지내다가 정유재란 때 사포(沙浦)에서 순절해 선무원종 1등 공신에 올랐고, 후손들이 무안군 몽탄면과 함평군 학교, 엄다면에서 살며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나주김씨들은 2세에서 갈려나간 중륜(重輪)의 자손과 인륜(仁輪)의 자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중륜계의 자손은 충남 공주, 전북 군산지방에 퍼져 살고 있다.

현재 나주김씨의 대부분은 인륜계인데 10세 때 극순(克淳)과 극청(克淸) 두 집안으로 갈렸으며, 극청의 자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수가 줄었고, 극순의 자손들이 그의 5세손 대경(臺卿)의 가계를 이어받아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경의 증손 대에 이르러 증(增)의 화성파(華城派), 도(堵)의 정읍파(井邑派)로 갈리고, 큰아들 양(壤)의 자손이 경근(敬近)의 안악파(安岳派), 우운(祐雲)의 무안파(務安派), 이첨(以瞻)의 청양파(靑陽派)로 갈렸다.

대경계 집안 외에 그의 상대 조부 때 갈린 처연(處淵)의 집안이 있는데 주로 평북과 제주지방에서 살고 있다.

2000년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나주김씨는 전국에 14,387가구 46,420명이 살고 있고 전남에는 850가구 2,437명이 살고 있으며, 함평군에는 100가구 235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 입향 내역이 기록된 문헌은 전하지 않는다.

원(遠. 시조의 22세손)의 6세손인 구점(九漸. 시조의 27세손. 1692년 생)이 무안군 몽탄에서 엄다면 신계리로 1710년대에 이거 정착했고, 7세손인 광서(廣瑞. 1721년 생)가 1740년대에 역시 신계리로 옮겼으며, 7세손 양서(陽瑞. 1733년 생)가 1750년대에 학교면 죽정리에 정착했다.



또 선(選, 시조의 22세손, 원의 아우, 다섯 아들 중 막내)의 7세손인 남서(南瑞, 1813년 생)가 1830년 대에 학교면 일호리에 이거 정착했다.

배출인물

김상문(金相文) : 1836~1900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김박환(金璞煥) : 1856~1929 한말에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김우환(金瑀煥) : 1803~ 1909 진사를 지냈다.

김용언(金用彦) : 1900. 12. 21~1922 1920년 함평만세 사건 주동자.

김의택(金義澤) : 1909~1983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 3· 4· 5· 8대 국회의원. 신민당 총재권한대행, 민권당 총재. 제2대 대통령에 입후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김병기(金炳淇) : 1905~작고. 엄다면장을 지냈다.

김인구(金仁九) : 1914. 7. 23 충주경찰서장 역임

김두천(金斗千) : 1915. 4. 22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 목포경찰서장 역임

김우근(金禹根) : 1927. 12. 29 나주군 재무과장 등 역임

김우중(金禹鍾) : 1934. 10. 24 국회의원비서관, 한국재생공사 전남지사장 역임

김우창(金禹昌) : 1936. 10. 7 고려대학교수

김주형(金柱衡) : 1950. 5. 26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김양기(金良基) : 함평부군수 역임

9) 낙안김(樂安金)씨

시조는 수징(粹澄)이다.

그는 신라 경순왕의 셋째아들 명종(鳴鍾)의 12세손으로 감무로 있으면서 국란을 평정한 공으로 낙안군(樂安君)에 봉해져 후손들이 본관을 낙안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시조의 둘째 아들 광습(光襲)은 명종(明宗)~신종조(神宗朝)에 금오위대장·좌승상에 올랐고, 그의 아들 윤견(允堅)은 이부장서를 지냈다.

윤견의 아들 지겸(之謙)이 충렬왕 때 문하평리(門下評理)를 역임했고, 익대공신(翊戴功臣)에 책록되었으며 낙안군에 봉군되었다.

또 지겸의 아우 남정(南正)이 충목왕 때 대제학·병부상서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규(糾, 시조의 5세손)가 예문관 제학, 수(隨)가 문하시중에 오르고 낙천군(洛川君)에 봉해졌다.

규의 아들 주(湊)가 문과에 급제 우왕 때 대사헌을 지냈으며, 조선 태조 때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궁궐조성도감(宮闕造成都監)"을 맡았고 성곽경영 전문가가 되었다.

화(華)는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향리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했으며, 여광(麗光)이 호조판서를 지내는 등 크게 이름을 떨쳤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076가구에 3,47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44가구 128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6가구 23명이 거주하는 것

으로 집계되었다.

10) 도강김(道康金)씨

도강 김씨(道康金氏)의 시조(始祖) 김희조(金希祖)다.

신라경순왕(敬順王)의 넷째 아들로 김은열(金殷說)의 7대손이다. 김희조는 고려말에 문하시중(門下侍中)과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낸 후 도성부원군(道城府院君)에 봉해졌다. 도강백에 봉해지자 관향(貫鄕)을 도강(道康)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후대에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면서 전북정읍으로 이거 정착한 원경(原卿)을 파조로 하는 태인사정공파(泰仁司正公派), 도암 석천마을에 안착한 을경(乙卿)을 파조로 하는 강진시직공파(康津侍直公派), 전공조사(典工曹事) 일(鎰)을 파조로 하는 강진조사공파(康津曹事公派), 팔도 병사(八道兵使) 을상(乙祥)을 파조로 하는 인천병사공파(仁川兵使公派) 등 크게 4개파로 나뉜다.

비교적 조선조(朝鮮朝)에서 명문(名門)의 지위를 굳혀온 도강 김씨(道康金氏)는 개국일등공신(開國一等功臣) 김희련(金懷鍊)이 공주(公州).해주 목사(海州牧使)를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 양관 대제학(兩館大提學; 홍문관. 예문관의 정2품 벼슬)을 역임하여 크게 명성을 떨쳤고 김남우(金南祐)는 연산군(燕山君)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내며 가문의 전통을 이었다.

강계부윤(江界府尹)을 지낸 김서열(金瑞說)은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을 토평(討平)하는 데 공(功)을 세워 적개원종공신(敵愾原從功臣)에 녹선(錄選)되었으며, 김세보(金世寶)는 성종(成宗)때 생원(生員)으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가 피화(被禍)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억울함을 상소(上疏)하는 기개(氣概)를 나타냈다.

한편 명종(明宗) 때 청백리(淸白吏; 청렴결백한 벼슬아치)에 오른 김약묵(金若默)은 한산 군수(韓山郡守)로 재임시 선정(善政)으로 표창(表彰)을 받았으며, 학자(學者) 김후진(金後進)은 석학(碩學) 이항(李恒)의 문하에서 경서(經書)와 역서(易書)를 연구하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이귀(李貴)와 함께 장성(長城)에서 의병(義兵)을 일으켜 군량(軍糧) 보급에 앞장섰다.

선조(宣祖) 때 문과(文科)에 급제한 김중우(金重羽)는 사예(司藝)와 이조참의(吏曹參議)를 거쳐 과천 현감(果川縣監)으로 나가 난민구제에 진력하였으며, 무과(武科)에 급제한 김지백(金知白)은 충청도 병마우후(忠淸道兵馬虞候)를 지냈다.

그외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으로 명망이 높았던 정(澮)은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득룡(金得龍)은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순절하여 진주 영장(晉州營將) 득수(得壽). 강진현감(康津縣監) 김응성(金應城). 함평현감(咸平縣監)김광준(金光俊). 해주 판관(海州判官)김광수(金光秀)와 함께 가문을 빛냈으며, 관(灌)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하(門下)에서 글을 읽고 1615년(광해군 7) 진사(進士)가 되었으나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모론(廢母論)의 부당함을 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학문에만 전심했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6,639가구에 21,274명이 거주하고 있고, 함평군에는 10가구 18명이 살고 있다.



함평에 살고 있는 파는 일(鎰)을 파조로 하는 전공조사공파(典工曹事公派)인데 입향 내역이 들고 나감이 반복되어 다른 본관 씨족에 비해 복잡하다.

입향조는 파조의 8세손인 원형(元亨)이며 1530년대에 무안군 몽탄면에서 함평의 식지면(食知面, 현 나산면의 고막원천 동부)에 이거 정착했다.

그의 현손에 응규(應奎)와 응벽(應壁)이 있었는데 응규가 다시 무안으로 이거 하였고, 응벽의 손은 함평에 그대로 살았으나 현손인 익동(益銅, 파조의 15세손)의 대에서 손이 끊겼다.

1680년경 무안으로 떠나 세거하던 응규의 현손 용(壘, 파조의 15세손)이 다시 나산으로 들어와 정착하여 그 후손이 살고 있으며 용의 아우 지(墀)의 후손은 무안에서 그대로 살았는데 그 현손인 사영(師英)이 1810년경 함평읍 진양리 대진으로 이거 했고, 뒤이어 형의 아들인 석구(錫九, 사문-師文-의 아들), 석직(錫直, 사길-師吉-의 아들), 동생의 아들인 기연(基衍, 사일-師一-의 아들)이 이거해 와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있다.

입향조 원형의 묘소는 나산면 나산리 후록에 있다.

배출 인물

김원형(金元亨) : 1514~? 자 원명(元命). 시조의 15세손. 1531년 성균관진사. 1530년대 함평에 이거 정착, 도강김씨 함평 입향조.

김 류(金 流) : 1530~? 자 환겸(環兼). 원형의 아들. 1549년 과거에 급제하여 절제사를 지냈다.

김요수(金堯壽) : 1550~1600 자 운장(雲長). 류의 아들. 1574년 문과에 급제하여 계공랑을 지냈다.

11) 부안김(扶安金, 부령김-扶寧金)씨

시조는 일(鎰, 마의태자)이며 1세조는 경수(景修)이다.

시조 일은 신라 경순왕의 맏아들로 신라가 망하자 어머니 죽방왕후(竹房王后)와 부인 김씨 세 사람이 금강산으로 들어가 삼베옷을 입고 풀뿌리와 나무껍질, 그리고 산열매를 먹으면서 생을 마치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마의태자 불렀다.

일의 증손 경수가 고려 선종(宣宗) 때 세상에 모습을 들어내고 문과에 급제하여 이부상서를 지낸 후 부안에 정착하였으며, 그의 아들 춘(春)이 부령군에 봉해지니, 후손들이 부안을 본관으로 하고 경수를 1세조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부안김씨가 배출한 인물로는, 6세손 구(丘)가 열 두 살 때인 1222년(고려 고종 9)에 성균관진사가 되고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시랑 재임시 원나라에 다녀와 「북정록(北征錄)」을 지었다.

그의 아들 4형제가 모두 등과 하였는데 맏아들 여우(汝孟)는 충렬왕이 불모로 원나라에 가 있을 때 잘 보호한 공으로 형부상서에 올랐고, 둘째 종우(宗孟)는 전교시 부령(典校寺副令), 셋째 숙우(叔孟)는 서도판관(西都判官), 넷째 승인(承印)은 대사성(大司成)을 지냈다.

여우의 아들 각(恪)이 이부상서를 거쳐 문하시중평장사에 올랐고, 그의 아우 식(軾)이 이부상



서를 지냈으며, 조선조에 들어와 계(啓)가 명종 7년(155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판을 지내는 등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7,391가구에 58,3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290가구 919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3가구 1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2) 상산김(商山金)씨

시조는 수(需)다. 그는 경순왕의 후예로 고려 대 벼슬이 시중에 이르렀다. 여러 대 상주(尙州- 당시 상산-商山)에 세거하였고 5세 비궁(匪躬)이 상산부원군(商山府院君), 9세 일(鎰)이 상락군(上洛君. 상주), 10세 녹(祿)이 상성군(商城君)에 봉해져 후손들이 본관을 상산으로 하게 된다.

또 고려 때 보문각 제학(寶文閣提學)을 지낸 조(祥)를 시조로 하는 상산김씨가 있다.

조의 딸이 수의 9제손 일(鎰)의 아내였다고 하니 수계(需系)와는 동성동본이면서 이족(異族)이다.

2000년 조사에서 19,921 가구에 63,528 명으로 성씨내의 순위는 14위이며 함평에 살고 있는 상산김씨는 수를 시조로 하고 있으며 11세에서 영중추공파(領中樞公派, 파조 운보-云寶), 상서공파(尙書公派), 상산군파(商山君派) 등 10여 파로 갈렸다.

함평군내에 거주하는 상산김씨들은 영중추공파며 1969년 조사에선 220호, 1985년 조사에서는 189호, 742명이었으며, 2000년 조사에서는 125가구 32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 입향조는 시조의 13세손인 중명(仲明)으로 담양부사를 지냈으며, 1440년경 나산면 이문리 증산마을에 이거 정착했다. 현재도 상산김씨는 나산면 이문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입향조의 묘소는 해보면 상곡리 월양산 남쪽 기슭에 있다.

함평군에 있는 유적

유적명	소재지	관 련 인 물
증산사(甞山祠)	나산면 이문리 증산	창건 : 세종조. 1597년 소실. 1693년재건 1868년 훼손. 1873년복설 주벽 : 덕생(德生) 배위 : 한로(漢老). 중선(重璿)

배출 인물

김중명(金仲明) : 1400~? 태종조 좌명공신 덕생(德生)의 양아들 문과 급제. 담양부사 등 관직을 거쳤으며, 1440년대에 나산면 이문리 증산 마을로 이거 정착하여 상산김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김오정(金五鼎) : 1439~? 시조의 14세손 중명의 둘째아들, 생원, 진사 양과에 입격하였고, 진산군수(珍山郡守) 등을 지냄.

김몽희(金夢禧) : ?~1592 호 경봉(景峰). 임진란 때 아우 몽서(夢瑞)와 함께 조헌(趙憲)의 군진으로 달려가 청주, 금령(金嶺) 싸움에서 크게 공을 세우고 금산전에서 아우와 같이 전사하였으며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 되었다.

김한로(金漢老) : 1649~1687 호 선계당(善繼堂). 중간공 덕생의 8세손. 1675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 겸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지냈으며 1933년 유림의 발의로 증산사에서 배향한다.

김중선(金重璿) : 1659~1702. 덕생의 9세손. 효성이 지극하였고 성리학에 밝았으며 향음주례 등을 행하여 향속(鄉俗)의 개화에 힘썼다. 1933년 유림의 발의로 증산사에서 배향한다.

김중태(金重泰) : 호 수줄재(守拙齋).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정랑 등을 역임했다.

김관흠(金觀欽) : 호 이소재(履素齋). 영조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지냈다.

김우해(金宇海) : 호 나천(擎天). 영조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충청도사, 춘추관 기주관을 지냈다.

김수광(金守光) : 정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황해도 수군 우후를 지냈다.

김상유(金相有) : 순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좌수군 우후를 지냈다.

김유원(金有源) : 학교면장, 함평향교 전교를 역임함.

13) 선산김(善山金)씨

시조는 선궁(宣弓)이다. 그는 득성조 알지(闕智)의 30세손으로 신라 김씨 왕 세대 마지막 왕손인 체의(體誼. 신라 46대 문성왕의 7세손)의 아들로 선산군에서 태어나 완전동(莞田洞. 지금의 군청터)에서 살았으며 왕건을 섬겨 고려 창업을 도왔고 벼슬이 고려개국 벽상공신 삼중대광영 문하시중 전주백(高麗開國壁上功臣三重大匡領門下侍中善州伯)이었고, 시호는 순충공(順忠公)이다.

약관 15세에 왕건의 원정군에 가담하여 단 번에 큰공을 세워 명장이 되니 태조 왕건이 활을 하사하고 이름을 선궁(宣弓)이라 고쳐 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선산김씨는 다른 문중에 뒤질세라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는데 고려조에서는 시조의 맏아들 봉술(奉術)이 문하시중, 둘째 봉문(奉文)이 삼사우윤(三司右尹)을 지냈고, 봉문의 아들 흥림(興林)이 대호군을 지냈으며, 5세손 임남(任南)이 상장군을 지냈다.

주(澍)는 우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공양왕 3년(1392)에 예의관서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조선조에서 참판 이상을 지낸 사람만도 길덕(吉德)은 호조참판, 효정(孝貞)이 1402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판서·집현전·홍문관 대제학을 지냈고, 지경(之慶)이 1438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1474년에 호조참판에 올랐고, 종직(宗直. 1431~1492)이 1459년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참판·형조판서를 지냈고,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 영남학파의 종조(宗祖)가 되었으며, 응기(應箕. 1455~1519)가 5조(五曹)의 판서를 두루 거쳐 중종 8년(1513년)에 우의정에 제수되었으며, 뒤에 승진하여 좌의정에 올랐고, 세림(世濂. 효원-孝元-의 손자. 1593~1646)이 광해군 때 문과에 급제하

여 도승지·호조판서를 역임했으며, 이원(履元. 1553~1614)이 병조판서·관충추부사, 덕기(德基)가 호조참판을 지냈다.

천일(千鎰)은 함평현감을 지내 함평과 연을 맺었다.

함평 입향조는 시조 선공의 18세손인 석규(石圭)다. 그는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사헌부 집의를 지내고 있던 중 무오사화에 스승 김종직이 화를 입자 1500년경 나산면 용두리 선박(船泊. 당시 지명 용암-龍岩)으로 이거 정착했다.

후손들이 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번성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몽복(夢福), 몽성(夢成) 등 많은 충신이 나왔다.

대대로 여러 명의 무과 급제자를 배출하였으며 또 어느 가문보다 효자 효부가 많은 명족(名族)을 이루었다.

1969년 함평군 조사 통계에 의하면 군내 거주 가구가 114호로 김씨 중, 김해·광산·상산·경주·나주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였으며, 1985년 11월 1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의하면 67호 284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34,422가구에 109,682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함평에는 35가구 73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함평에 있는 관련 유적

유적명	소재지	관련인물
선호사(船湖祠)	나산면 용두리 선박	창건 : 1730년. 훼손 : 1868년 복설 : 1993년 주벽 : 석규(石圭) 배위 : 몽복(夢福) · 몽성(夢成) · 몽득(夢得) · 몽룡(夢龍) · 여정(汝淨) · 선창(善昌)

배출인물

김석규(金石圭) : 시조의 18세손. 호 용암(龍岩). 사헌부 집의를 지냄. 선산김씨 함평 입향조. 1730년부터 선호사에서 배향한다.

김 준(金 俊) : 호 기은(箕隱). 석규의 아들. 호조정랑을 지냈다.

김몽복(金夢福) : 1553~1598. 시조의 23세손. 호 죽포(竹圃). 군기시 주부 덕수의 아들. 1584년 무과에 급제.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였고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김몽성(金夢成) : 1562~1598. 호 송포(松圃). 덕수의 아들. 1588년 무과에 급제. 임진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휘하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였고 선무원종 2등공신에 책록되었다. 선호사에서 배향함

김몽룡(金夢龍) : 1563~1651 호 춘담(春潭). 시조의 23세손. 1591년 무과에 급제하여 전주판관을 지냈다. 선호사에서 배향한다.

김몽득(金夢得) : 1564~1654 호 남은. 시조의 23세손. 효우로 당세에 이름이 높았으며 음사로 출사 통정에 올랐다. 1730년부터 선호사에서 배향한다.



- 김여정(金汝淨) : 1590~1662 호 삼석재(三惜齋). 시조의 25세손. 미수 허목의 문하생으로 당세에 덕행과 문행으로 이름 높았고 문집이 전한다. 선호사에서 배향한다.
- 김선창(金善昌) : 1650~1701 호 모석재(慕惜齋). 여정의 아들. 허목의 문하생이며 학행과 효행이 뛰어났으며 문집이 전한다. 선호사에서 배향한다.
- 김치백(金致伯) : 1711~? 시조의 29세손. 자 사순(士純). 무과에 급제하여 부사과를 역임했다.
- 김병규(金秉圭) : 1868~1935 호 만성재(晩惺齋). 시조의 32세손. 1891년 성균관 진사에 합격하여 수학하던 중 어머니의 병환에 낙향하여 손가락을 찌어 피를 넣어드리는 효성을 보였다. 문집이 전한다.
- 김교현(金敎炫) : 처음이름 교락(敎洛). 시조의 32세손. 광복단에 입단하여 함평, 나주등지에서 독립자금을 모집하였다. 1917년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9년간 옥고를 치루었으며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 김봉석(金鳳錫) : 1893~1974 호 죽계(竹溪). 시조의 32세손. 함평향교 전교를 지냈고 1972년 선산김씨 호남종친회장을 역임했다.
- 김중석(金重錫) : 1920. 8. 9 호 석채(石齋). 시조의 33세손. 선산김씨 호남종친회장, 대종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 김영택(金泳澤) : 1936. 10. 29 호 송암(松岩). 시조의 34세손. 봉석의 아들. 문학박사. 동아일보 출판국 차장, 동 기획실 기획위원을 지냈고, 「5·18 민주항쟁」 「광주사태 5대 의혹」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 김재동(金載棟) : 1912~1973 시조의 35세손. 흥필의 둘째아들.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하였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음.
- 김옥동(金玉棟) : 1930. 7. 29 시조의 35세손. 건설교통부 철도청 과장, 원주, 안양역장을 지냈다.
- 김이동(金利棟) : 시조의 35세손. 흥빈의 둘째아들. 전라남도청 과장을 지냈다.
- 김영환(金永煥) : 시조의 35세손. 국렬의 둘째아들. 중소기업은행 차장을 역임하였다.
- 김용빈(金龍彬) : 1959. 11. 13 시조의 36세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로 재임하고 있다.
- 김승범(金承範) : 1939. 3. 21. 재동의 아들. 중등학교장, 교육부 교육연구관을 역임했다.
- 김태서(金泰瑞) : 1947. 10. 13 재동의 아들. 건설부 기사를 거쳐 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 사업처장을 역임했다.
- 김정완(金貞完) : 1954. 1. 7 재동의 아들. 법학박사.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김병도(金炳道) : 1943. 2. 1.3 자 승일(勝一). 시조의 36세손. 조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김원기(金源基) : 시조의 37세손. 의학박사. 광주한국병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14) 안동김(安東金. 구-舊)씨

안동김씨에는 시조를 달리하면서 본관을 안동으로 하는 두 김씨가 있다.

경순왕의 손자인 숙승(叔承)을 시조로 하는 안동김씨 구(舊)와 고려 개국공신이며 고창(古昌. 안동의 옛 이름)의 성주였던 선평(宣平)을 시조로 하는 안동김씨 신(新)이 있다.

함평에 거주하는 안동김씨는 주로 구 안동김씨이며, 신 안동김씨는 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숙승을 시조로 하는 구 안동김씨는 삼별초와 왜구를 정벌하는데 공이 컸고, 관직이 도원수에 이르고 상락군 개국공(上洛君開國公)에 봉해진 방경(方慶)을 중시조 1세로 하고 있다.

안동김씨에는 대호군공파(大護軍公派), 밀직사사공파(密直司使公派) 등 여러 파가 있는데 함평군에는 대호군공파가 거주하고 있고 파조 유(儒)는 중시조 방경의 6세손으로 고려의 정용장군(精勇將軍) 대호군을 지냈다.

2000년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구 안동김씨가 132,645가구에 425,264명이 거주하고 있고, 신 안동김씨는 15,068가구에 47,70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함평군에는 구 안동김씨가 1969년 조사에서는 33호, 1985년 조사에서는 47호 193명이 살고 있고 함평읍과 해보면 대창리에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구 안동김씨가 31가구에 71명이, 신 안동김씨는 1가구에 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 입향조는 중시조의 11세손 숙(淑)이며 1550년경 나주시 금천면에서 해보면 대창리에 이거 정착했고 그의 묘소는 나산면 원선리 쌍령 해좌(亥坐)에 있다.

배출인물

김 숙(金 淑) : 자 사현(士賢). 1517년 문과에 급제하여 통례원 봉례를 지낸 수준(守濬) 아들. 감찰을 지냈다. 안동김씨 함평군 입향조다.

15) 언양김(彦陽金)씨

시조는 선(鎭)이다.

그는 알지의 28세손인 경순왕의 일곱째 아들이며 고려 때 언양군(彦陽君)에 봉해졌기 때문에 후손들이 본관을 언양으로 하고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집안에서 배출한 인물로 고려조에는 시조의 손자 정보(精寶)가 호부상서, 증손 경숙(鏡淑)이 상장군, 정보의 손자 언연(彦連)이 신호위 중랑장(神號衛中郎將)을 역임했다.

취려(就礪)는 언양김씨가 가장 사랑하는 인물인데 대장군으로 고종 때 거란의 침공을 막고 다지(多知)의 반란을 내정하여 금자광록대부 태사태자 문하시중평장사, 상주국(上柱國)을 지냈으며, 아들 전(詮)도 문하시중평장사 상장군에 올랐고, 손자 양감(良鑑)은 상장군으로 언양군 군봉



을 받았으며 양감의 동생 변(賁)은 첨의평리(僉議評理)를 지냈다.

양감의 셋째 아들 문연(文衍)이 찬성사를 거쳐 연양군에 봉해졌고, 변의 아들 윤(倫)이 좌정승을 거쳐 역시 연양군 군봉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 경직(敬直)이 문하시중을 지내고 연양백에 봉해져 가문을 빛냈다.

조선조에서는 숙보(叔甫)가 병조판서를 거쳐 연양군에 봉해졌으며, 그의 아들 관(攽)이 문종 1년(1451)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 정랑으로 있던 중 이시애란(李施愛亂)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 2등공신(敵愾二等功臣)에 올랐고 이어 강원도 황해도·관찰사를 거쳐 연양군에 봉군되었다.

연침(彦琛)은 영의정, 광필(匡弼)·석중(石重)·취련(取鍊)은 병조참판을 지냈고, 천일(千鎰)은 임실현감을 지냈으며, 1592년 임진란이 일어나자 창의 대장이 되어 여러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진주성 싸움에서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1,818가구 38,383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남에는 692가구 1,984명이 살고 있으며, 강진군과 장흥군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5가구 9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6) 연안김(延安金)씨

시조는 섬한(暹漢)이다.

그는 알지의 후손으로 왕자였으나 왕에게 바른말을 잘하다가 노여움을 받아 이름이 전하지 않는 그의 형은 북빈경(北濱京)으로, 그는 시염성(豉鹽城, 연안의 고구려 때 이름)으로 유배되었다.

유배생활을 하던 그는 명나라로 들어가 과거에 급제하였고, 명종 때 고려에 들어와 사문박사(四門博士, 정8품)를 지냈으므로 후손들이 연안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연안김씨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는데 특히 조선조에서 영의정이 많이 나온 집안으로 유명하다.

고려조에서는 시조의 5세손인 도(濤)가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을 지내고 공민왕 20년(1371)에 명나라에 건너가 과거에 급제 동창부 구현승(東昌府丘縣丞)이란 벼슬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귀국하니 왕이 크게 아꼈다.

그에게 아들 4형제가 있어 조선조에서 크게 현달하였으니, 맏아들 자지(自知)가 형조판서, 둘째 여지(汝知)가 공조·예조판서·의정부 참찬, 셋째 치지(致知)가 예빈시윤(禮賓寺尹), 넷째 학지(學知)가 해주목사를 거쳐 자헌대부에 이르렀다.

원신(元臣)은 세조 때 원종공신으로 영의정에 올랐고, 우신(右信)은 지중추부사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3형제가 크게 현달했는데, 맏아들 심(謹)은 성종10년(1479) 문과 증시에 급제하여 병조판서, 둘째 혼(訥)은 문과별시에 급제 직제학·공조참의, 막내 전(詮)은 성종 20년(1489)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중종 15년(1520)에 영의정에 올랐으며 청백리에 뽑혔다.

근사(謹思, 부사 면-勉-의 아들)가 영의정, 감(勘)이 중종반정 2등공신으로 병조판서 연창(延昌) 부원군에 봉군되었고, 안로(安老)가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 그의 아들 희(禧)가 효

혜공주(孝惠公主)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고 영의정에 올랐다.

조선조 후기에는 익(熾)이 정조 때 영의정, 그의 아들 재찬(載贊)이 순조 때 영의정, 재찬의 손자 유연(有淵)이 고종 때 우의정을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살고 있는 연안김씨는 22,215가구 79,788명이며, 전남에는 445가구 1,299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7가구 3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영광김(靈光金)씨

시조는 심언(審言. ?~1018)이다.

그는 염(廉. 경순왕의 손자)의 아들로 영광 출신이며, 당대 실권 세력이었던 상시 최섬(常侍崔暹)의 눈에 띄어 그의 사위가 되고, 문과에 급제하여 장인 섬의 후원으로 출세 가도를 달려 오성군(鎭城君. 영광의 옛 이름)에 봉군되어 영광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손자 행경(行瓊)이 평장사, 행경의 손자 극검(克儉)이 사공태자소사(司空太子少師), 극검의 아들 영부(永夫)가 평장사를 지내는 등 광양김씨와 함께 전라도 지방의 2대 문벌이 되었으나 극검의 큰아들 보당(甫當. ?~1173)이 무신란을 일으킨 정중부를 타도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다가 이의민(李義旼)에게 패해 문중이 풍비박산이 되었다.

이후 충렬왕 때에 벼슬길에 올랐으나 상계를 실전하여 영광파(靈光派)·경파(京派)·장흥파(長興派)·사경파(思敬派)·양사파·문경파의 6파가 각각 기1세조(起一世祖)를 세우는 바람에 계촌이 어렵게 되었다.

각파별 대표적인 인맥을 살펴보면, 경파(京派)인 정부(正父)가 고려 충렬왕때 금오위별장을 역임했고, 후손들이 경기도 파주 및 화성시와 충청도 홍성군 일대에 많이 살고 있다.

태용(台用)을 파조로 하는 장흥파는 그의 증손 찬과 필이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전한과 이조참판을 각각 지냈는데, 이들 형제는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린 후 장흥으로 낙향한 절신으로 후손들이 오늘날 장흥지방에 집중세거하고 있다.

연(衍)을 파조로 하는 영광파는 호남의 영광군과 정주군 지방에 집중세거하며, 연의 손자 해(該)가 세종 때 갑산 병마절제사와 보공장군을 겸하였으며, 해의 손자 개(溉)는 홍문관 교리를 지냈으며 효행과 학문이 출중하여 문하에서 많은 제자가 배출되었다.

무장파조 효민은 고려에서 서경 유수를 역임하였고, 그의 16세손 성현은 영조 때 이조정랑을 지냈다.

양사파의 광찬은 고려조에서 좌찬성을 역임하였고, 그의 아들 호는 조선때 한성부 우윤을, 손자 맹수는 현령을 역임하여 지평을 지낸 학중과 함께 가문의 대를 이었다. 용강파 에서는 파조 중보가 호조참판을 지냈고, 아들 효홍은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현손 희걸은 아들 몽학과 함께 통정대부에 올라 절충장군에 오른 무지와 더불어 가문을 빛냈다. 삼화파의 무수는 황해도 해주에 살다가 평안도삼화로 이거하여 삼화파를 이루었으며, 예부상서 문경으로 이어지는 강계파는 손자 홍이 목사를 지냈고, 현손 보원이 부사파를, 6세손 서는 공조전서를 역임했다.



과조를 중심으로 파보를 해오던 영광김씨는 1977년 영광읍의 기천사(岐川祠) 제향을 계기로 대동보를 발간하자는 의견이 일치를 보아 1980년에 4권으로 된 대동보를 내고 한 집안의 혈의를 다지게 되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974가구에 32,412명이 영광 김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에는 10가구 31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18) 영산김(永山金. 영동-永同)씨

시조는 영이(令胎)다.

그는 신라 제 31대 신라 신문왕의 넷째 아들 김익광의 후손이다. 고려조에 전객사령(典客寺令)을 지내고 뒤에 동덕보사공신(同德保社功臣)으로 영산군(永山君)에 추봉되었으며 아들 길원(吉元)이 홍건적을 토벌한 공으로 영산부원군(永山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래서 후손들이 본관을 영산으로 하게 되었으며 영광파(靈光派), 영동파(永同派), 보은파(報恩派) 등 다수의 파가 있고 함평에는 영광파가 거주하는데 영광파는 시조의 9세손인 영우(盈宇)가 영광군수로 부임함으로써 후손들이 불갑면에 살게 되었으며 함평에는 15세손 황(璜)이 신광면 함정리에 이거 정착하였다.

함정리는 1914년 이전에는 영광군 불갑면에 속했었다.

2000년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영산김씨는 전국적으로 5,349가구에 17,12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에는 86가구 27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에는 1969년 자체조사에서 20호, 1985년 경제기획원조사에서는 9호, 55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6가구 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향조 황의 묘소는 신광면 함정리에 있고, 함정리와 손불면에 살고 있다.

배출인물

김재목(金載睦) : 충훈부 도사(都事)를 역임했다.

김 철(金 澈) : 1986~1934. 6. 29 이명 김중청(金重淸). 김영택(金永澤). 호 일강(一江). 상해 임시정부 교통차장, 국무원회계검사원 검사장, 군무장, 재무장, 국무원비서장을 역임했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 받았다.<자세한 활동 상황은 인명편을 볼 것>

김 석(金 哲) : 1910~1983. 2. 25 이명 김광초(金光初). 호 구봉(九峯). 숙부 김철과 함께 항일독립운동을 펼쳤고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폭탄 투척 때 폭탄제조 책임을 맡았다.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았다.<자세한 행장은 인명편을 볼 것>

김덕근(金德根) : 1912~1980. 3. 17 이명 김원근(金元根). 호 오봉(五峯). 숙부 김철과 함께 항일독립운동을 펼쳤다. 1977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병남(金炳南) : 1939. 8. 18 신광면 함정리에서 태어남. 육군중령 예편.

19) 울산김(蔚山金)씨

시조는 덕지(德摯)다.

그는 경순왕의 아홉째 아들로 신라가 망하자 마의태자를 따라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고도 하고, 일설에는 해인사로 들어가 중이 되었다고도 하나 행적의 기록이 없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의 후손 환(環)이 고려 때에 삼중대광과 영도첨의사(領都僉議事)를 지내고 학성군(鶴城君. 고려 때의 울산 별호)에 봉해졌기에 후손들이 본관을 울산으로 하고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가문을 빛낸 인물을 살펴보면 고려 때에는 환의 아들 계흥(季興)이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고, 조선조에서는 환의 증손 은(櫟)이 정종 2년(1400)에 좌명공신에 책록되어 여산군(麗山君) 군봉을 받았다.

장성군 출신인 인후(麟厚)는 1540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부수찬을 역임했고, 당시 을사사화로 권력 다툼이 일자 고향으로 돌아와 성리학, 천문학, 지리 등의 학문에 힘써 향교에서 배향하는 현인(賢人)이 되었다.

근세에 와서 기중(祺中)은 1932년에 현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했으며, 병로(炳魯)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성수(性洙)는 1950년에 제 2대 부통령에 취임했고, 상엽(相燁)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사는 울산김씨는 11,270가구 36,225명이었으며, 전남에는 1,003가구 2,861명이 살고 있고 특히 장성군에서 많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4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11가구 39명이 살고 있었으나 2000년에는 1가구 1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 원주김(原州金)씨

시조는 거공(巨公)이다.

그는 경순왕의 여덟째 아들 추(鍾)의 8세손으로 고려 인종 20년(1142)에 금나라에 다녀와 이부상서·호부상서 등을 역임하고 원성백(原城伯)에 봉해졌기에 후손들이 원주로 본관을 삼고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시조의 아들 윤간(允侃)이 고려 때 정승을 지냈고, 조선조에 들어와 11세 연지(連枝)가 공조판서를 지냈다.

응남(應南. 병마절도사 말손-末孫-의 증손)이 선조 1년(1568)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대사헌을 거쳐 이조참판을 지냈고, 준룡(俊龍)은 병자호란 때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재임하면서 관군과 전라도 의병을 거느리고 광교산(光敎山. 현 서울 용산) 전투에서 청태조의 사위 백양고라(白羊高羅) 등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덕원(德遠)은 현종 3년(1662)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숙종 15년(1689)에 우의정에 올랐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458가구 10,978명이 살고 있으며, 전남



에는 58가구 185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85년 조사에서 5가구 23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2000년 조사에서는 3가구 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1) 진주김(晉州金)씨

진주김씨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이면서도 연원(淵源)을 달리 하는 두 계통이 있다.

첫째 계통은 신라 대보공(大輔公) 김알지(金閼智)의 후손으로 경순왕의 여덟째 아들인 김추(金鍾)이다. 그는 고려조에서 삼한찬문공신(三韓贊文功臣)으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문하시중(門下侍中) 참지부사(參知府使)를 지내고 진성군(晉城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관향(貫鄉)을 진주(晉州)로 삼았다. 그런데 《신라대보공김알지선원계보(新羅大輔公金閼智璿源系譜)》에 의하면 김추의 후손들이 모두 진주를 관향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김추의 큰 아들 김위옹(金渭翁), 8세손 김지제(金志梯)의 세 아들 중 김정휘(金正暉)의 현손에서 김충신(金忠信)의 후손이 진주김씨로 이어지고 있다.

다른 한 계통은 가락국(駕洛國) 김수로왕(金首露王)의 13세손 김유신(金庾信)의 둘째 아들인 김원술(金元述)이 672년(신라 문무왕 12) 당(唐)이 말갈군(靺鞨軍)과 연합하여 신라를 침공했을 때 출전하여 격전 끝에 담릉(淡陵)의 만류로 후퇴한다.

그 후 그는 왕명을 어기고 가훈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태백산에 들어갔다가, 675년(문무왕 15)에 매소성(買蘇城)에서 당군(唐軍)을 크게 섬멸하였으나 끝내 어머니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김원술은 이를 한탄하여 진주(晉州)에서 일생을 마쳤으므로 후손들이 본관(本貫)을 진주(晉州)로 하게 되었다.

함평군에는 시조를 추로 하는 계통이 살고 있는데, 후손 무진(茂珍)이 고려 충혜왕 때 집현전 태학사(太學士)를 지내고 진양부원군에 봉해졌으며 그의 아들 태(兌)가 좌찬성을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무진의 손자 중국(重國)이 호조참의, 증손 귀민(貴敏)이 호조참관을 지냈다.

전남에서는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에 진주김씨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진주김씨는 전국에 6,096가구 총 19,79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8가구 2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2) 청도김(淸道金)씨

시조는 지대(之岱)다.

그는 경순왕의 넷째 아들 은열(殷烈)의 8세손이며, 고려 고종 4년(1217)에 거란군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우고 이듬해 문과에 급제한 후 전라도 안찰사가 되었고, 원종 때 중서시랑 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 올랐고 오산군(鰲山君, 청도의 옛 이름) 군봉을 받았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청도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청도김씨 가문이 배출한 인물을 가려 뽑아보면 고려조에서는 시조의 아들 선장(善莊)이 충혜왕 1년(1340)에 조직(曹頤)의 난이 일어나 원나라에 불리어 갔을 때 대호군으로서 왕을 잘 모셔 1등 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증손 복기(福基)는 함문지후(閤門紙後)를 지냈다.

복기의 손자 한귀(漢貴)는 1362년 병마사가 되어 최영(崔瑩) 장군과 함께 홍건적 토벌에 공을 세워 공신록에 올랐고, 밀직부사를 거쳐 전라도 순문사(巡問使)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8세손 점(漸)이 계종 때 형조·호조판서를 지냈고, 12세손 난상(鸞祥)이 1537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선조 때 대사성을 지냈다.

정호(正浩)는 지도 제작에 뜻을 품고 36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조사하여 1861년에 대동여지도를 완성했다.

통계청이 집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1월 1일 현재 청도김씨는 23,675가구에 75,567명으로, 본관별 인구순위로 100위이며, 전남에는 463가구 1,352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1가구 3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3) 청풍김(淸風金)씨

청풍김씨는 마의태자의 차남인 대장군공 순웅(順雄)의 12세손 고려 말의 문하시중 대유(大猷)를 시조로 하고 있다. 그는 고려말에 문하시중을 지내고 청성(淸城)부원군에 봉해졌다. 그 후 후손들이 청풍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청풍김씨는 조선조에서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정승 8명과 대제학 3명, 왕비 2명, 수 십명의 판서를 배출한 세도가문으로 유명하다.

시조의 7세손 길통(吉通)은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성종 2년(1471)에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록되고 월천군(月川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아들 순명(順命)은 이시애란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敵愾) 2등공신으로 청릉군(淸陵君) 군봉을 받았으며 황해도관찰사를 지냈다.

권(權, 대사성 식-湜-의 손자)은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인조 때 호조·공조·형조판서를 두루 역임했다.

시국(蓍國)은 광해군 때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대사간을 역임했고, 육(堉, 식의 5세손)은 대동법을 실시하고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그의 아들 좌명(佐明)은 공조·예조·병조판서를 지냈고 청풍부원군에 추증되었으며, 우명(佑明)도 청풍부원군에 봉해지고 영동령부사를 지냈다.

석연(錫衍)은 형조판서, 징(澄)은 전라도관찰사, 그의 아들 구(構)는 숙종 29년(1703)에 우의정에 올랐고, 유(楸, 구의 아우)는 대제학을 지냈다.

재로(在魯)는 숙종 36년(1710)에 문과에 급제하여 영의정을 역임하였고, 성응(聖應)은 병조판서, 재로의 아들 치인(致仁) 또한 영의정에 올랐다. 영조 때에는 상로(尙魯)가 영의정, 취로(取魯)가 호조판서, 중정(鍾正)이 이조판서, 시묵(時默)이 병조판서를 지냈으며, 정조 때에는 중수(鍾秀)가 좌의정, 기후(基厚)와 희화(熙華)가 공조판서, 약로(若魯)가 우의정, 동헌(東獻)·학



성(學性)·만식(晩植)이 예조판서, 원식(元植)이 형조판서를 지냈다.

2000년 인구조사에서 청풍김씨는 29,527가구에 94,46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에는 564가구 1,651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 16가구, 1985년 조사에서 7가구 38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년 조사에서는 4가구 1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거주지는 대동면이다.

24) 해남김(海南金. 당악김-棠岳金)씨

시조는 인(忍)이다.

해남김씨의 족보에는 고려말 병부상서를 지내던 시조 인이 조선왕조 건국 때 해남에 은거하다가 아들 인경(仁敬)이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구업(龜業)으로 이거하여 살았기 때문에 해남김씨 또는 당악(棠岳. 해남의 조선조 때 별호)김씨라 한다고 했고, 시조 인이 조선조에서 오위도총관을 지냈고 태종 때 원종공신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오위도총부가 1466년(세조 12)에 신설되었으니 족보에 기록된 시조의 관직은 실직이라고 볼 수 없다.

시조의 손자 중(棕)이 정언(正言), 4세 구(臼)가 수군 우후(虞侯. 정4품, 부사령관)를 지냈다.

정언을 지낸 중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박순(朴淳. 1523~1589)의 외할아버지이다.

4세 구(박순의 큰외숙부)의 자손들은 충남 보령에서 집단으로 살고 있으며, 후(侯. 박순의 막내외숙)의 자손은 신안군 하의도로 이거 번성했으나 김해김씨로 이적했다.

가운데 집안인 두의 집안이 오늘날 해남김씨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두의 손자(시조의 6세손)인,

원경(元慶)의 손 : 나주 왕곡, 전북 정읍에 많이 살고 있다.

원복(元福)의 손 : 장흥 유치, 나주 동강·세지·문평, 함평군 학교면 송산에 많이 살고 있다.

원록(元祿)의 손 : 나주 왕곡과 전북 진안·장수에 많이 살고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당악 1,743가구 5,464명, 해남 765가구 2,455명으로 집계되었다.

함평군에는 당악이 5가구 15명, 해남이 1가구 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나 씨 (羅氏)

문헌에는 46본으로 나타나 있으나 2000년 11월 1일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타와 미상을 뺀 19본으로 전국에 53,828가구 172,02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호 이상인 본관은 나주 33,600호, 금성 12,869호, 안정 2,216호, 수성 1,752호, 경주

1,417호의 5개 본관이다.

안정, 군위, 수성의 본관은 금성나씨와 일족(一族)이다.

2000년 조사에서 가구를 이루지 않고 있는 나씨는 경주 4명과 진주 1명이 있었다. 함평군에는 금성 176가구 406명, 나주 78가구 250명으로 이들 두가구가 나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2가구 3명의 전주와 있고, 1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구가 김해, 비안, 안정, 해주 4가구로 앞의 나씨 가구들과 합치면 모두 260가구 67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금성나(錦城羅)씨

시조는 총례(聰禮)다.

그는 삼한벽상(三韓壁上) 1등 공신이다.

총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금성나씨의 원조는 중국 축융(祝融)의 후예인 운성(耘姓)이었으나 춘추시대인 주나라 평왕 12년에 나국(羅國)에 봉해짐으로써 나씨가 되었다.

그 후 주공(珠公)이 한 고조에게 공이 있어 예장군(豫章君)에 봉해져 예장나씨가 되었다가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침입하려고 하자 지강(至強)이 이를 만대하다가 우리나라에 망명하여 발라군(發羅郡, 현 나주시 일부)에 정착한 후 신라에 이르러 벼슬이 좌승상(左丞相)에 이르렀고 그 후손인 경(敬)이 신라 효공왕(孝恭王, 재위 897~911) 때 나주사찬(羅州沙漣)으로 봉해져 관을 나주로 했었다.

그러나 고증이 거의 유실되어 총례를 시조로 하고 있다.

나주에는 "나(羅)"성을 쓰고 있는 두 씨족이 있는데, 총례를 시조로 하는 나씨와 부(富)를 시조로 하는 나씨다.

부를 시조로 하는 나씨는 본래 여황현(餘皇縣, 현 광주광역시 분양동·임곡동 일대)에 살고 있어 여황나씨라 했다. 고려 성종 때 여황이 나주군에 병합되어 나주로 본관을 바꾸게 된다.

관을 같이하는 이종(異宗)이 한 고을에 수 백년간 같이 세거하다가 총례를 시조로 하는 나씨가 나주의 옛 이름이자 시조가 금성군(錦城君)에 봉해진 것을 연유로 금성으로 본관을 바꾸었다.

그러나 총례를 시조로 하면서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후손들이 지금도 관을 나주로 쓰고 있는 계통이 있고, 안정·군위·수성으로 본관을 바꾼 계통도 있다.

금성나씨에도 여러 파가 있다.

그러나 함평에는 시조의 18세손 옥(郁)의 둘째아들인 세찬(世贊)의 손인 이조판서공파(吏曹判書公派)와 셋째아들 세장(世章)의 후손인 청백리공파(淸白吏公派, 파조 은제-殷制)가 살고 있다.

함평군에 먼저 입향한 입향조는 청백리공파 세장이다.

그는 시조의 19세손이며 1500년경 나주시 문평면에서 함평읍 가동리로 이거 정착했고, 그 후손이 함평읍 성남리 소등, 수호리 송정·대등·진양리 중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

이조판서공파의 입향조는 세찬의 손자인 시조의 21세손 덕원(德元)이며 나주시의 문평면에서 일시 무안군 삼향면에 옮겨 살다가 1580년경 학교면 금송리에 이거 정착했다.



함평군에는 1965년 함평군 자체조사에서 219가구로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23위였으며, 1985년 통계기획원 조사에서는 239호 863명이 살고 있어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2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후 2000년 11월 통계청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12,869가구에 40,49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함평군에는 176가구 406명이 거주하고 있다.

입향조 세장의 묘소는 함평읍 가동리 가동 후록에 있다.

함평에 있는 관련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가천사(佳川祠)	함평읍 가동리 가천	창건 : 1989년 배향 : 나세장(羅世章)

배출인물

나세장(羅世章) : 금성나씨 함평군·입향조. 자 질부(質夫). 옥(郁. 1443년생)의 셋째아들. 장사랑(將仕郎)을 지냈다.

나덕원(羅德元) : 1548~? 호 사담(沙潭). 시조의 21세손. 1573년 사마시에 입격. 함창현감(咸昌縣監)을 지냄. 유고 '사담집'이 전한다.

나 각(羅 珏) : 1374~1644 호 승과(松坡). 시조의 22세손. 1608년 효행으로 창릉참봉을 제수 받았으며 병자호란 때 사위 이시우(李時佑)와 창의했고 유고 '송과록'이 전한다.

나위한(羅緯漢) : 1581~1659 호 청류(淸流). 시조의 23세손. 당대 호남에서 이름 높던 문장이었고, 왕으로부터 소학과 황옥촉(黃玉燭) 1쌍을 하사 받았다.

나위추(羅緯樞) : 1663년(현종 4)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을 지냈다.

나위순(羅緯淳) : 1663년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나홍순(羅弘淳) :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나병연(羅炳連) : 1927. 12. 3~작고. 함평군교육청 학무과장을 지냄.

나승포(羅承布) : 1942. 8. 13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내무부지방행정 연수원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나병삼(羅炳三) : 1944. 10. 12 서울대학교 졸업. 명지대학 교수로 있다.

나간채(羅看衆) : 1948. 10. 1 고려대학교 대학원졸업.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있다.

나남채(羅楠埰) : 1949. 3. 1 함평군청 기획예산실장 등을 역임.

나홍채(羅紅埰) : 1952. 6. 2 함평군청 기획예산실장.

2) 나주나(羅州羅)씨

시조는 부(富)다.

나씨는 원래 중국 백익(白益)의 후손으로 우(虞)나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주나라 때 대라(大羅)씨가 되었고, 성왕 때에 이르러 국가에 공훈을 세워 나(羅) 땅에 봉해짐으로써 나씨가 되었다.

그 후 굴(屈)씨를 멸하고 예장(豫章)나씨가 되었다가 당 태종 때에 이르러 수찬관을 지낸 부가 정란을 피하여 또는 풍랑에 배가 밀려 나주 회진에 상륙한 후 세거하면서 부를 세조로 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 세계가 실전 되어 득승(得蠅)을 중조로 기일세조(起一世祖)하고 본관을 나주로 하여 계대(繼代)하고 있다.

득승의 증손 수영(守永)이 5형제를 두어 전서공·시랑공·금양군·연안군·진사공파로 갈랐다.

함평군에는 진사공파가 살며 입향조는 기시조의 14세손 덕무(德懋)다.

그는 1597년 정유재란을 피하여 홍소(弘素)·돈소(敦素)·승소(承素) 3형제를 거느리고 나주 읍 보산리(현 나주시 향교동)에서 신광면 함정리 구봉(九峯)에 이거 정착했고 묘소는 구봉산 말봉 경좌(庚坐)에 있다.

배출 인물

나덕무(羅德懋) : 1565~1635 호 은봉(隱峯). 공천현감(矜川, 현 시흥시) 사율(士慄)의 아들. 함평군 입향조. 통덕랑을 지냈다.

나병규(羅炳珪) : 전라남도 민방위과장을 역임했다.

11. 남 씨 (南氏)

남씨의 시조는 민(敏)이다.

그는 중국 봉양부 여남(汝南) 사람으로 원래 김충(金忠)인데 당나라 현종 때 안렴사(安廉使)로 일본에 다녀오다가 태풍을 만나, 경덕왕 14년(755)에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죽도(竹島)에 표착(漂着)한다. 그는 신라에서 살기를 청했고, 신라는 이 사실을 당나라에 알려 허가를 받은 후 여남 사람이므로 "남(南)"씨 성을 내리고 영양현(英陽縣)을 식읍으로 하사했다.

문헌에 의하면 60여 본관이 있다고 하였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2개 본관이며 1000가구가 넘는 본관은 의령 46,529가구·영양 21,969가구·고성 3,108가구·경주 2,279가구·남양 1,213가구의 5개 본관이며 모두 동조동근(同祖同根)이다.

남씨는 고려 중엽에 시조의 후손 3형제가 기1세조(起一世祖)가 되며 아래와 같이 분관 되었다.

영양(英陽)남씨 : 1세조. 맏아들 홍보(洪甫)



의령(宜寧)남씨 : 1세조. 둘째 아들 군보(君甫)
고성(固城)남씨 : 1세조. 셋째 아들 광보(匡甫)
그 외의 남씨는 이들 본관에서 모두 분적했다.

1) 의령남(宜寧南)씨

1세조는 군보(1186~1264)다.

그의 증손 을번(乙蕃. 1320~1395) 을경(乙敬), 을진(乙診)의 집안이 크게 현달하였다. 을번은 고려조에서 밀직부사를 지내다가 조선개국 초에 보국승록대부 문하시중을 역임했고, 그의 아들 재(在)가 정승 반열에 올랐다.

재의 손자 휘(暉)는 태종의 넷째 딸 정선공주(貞善公主)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고 의산군(宜山君)에 봉해졌으며, 지(智)는 도승지를 지냈다.

휘의 손자 이(怡. 1441~1469)는 이시애란과 건주위의 여진족을 토평한 공으로 27세에 병조판서를 역임했으나 유자광(柳子光)의 모함으로 예종 즉위년에 젊은 나이로 애석하게 주살되었다.

지의 증손 섭원(燮元)은 성종의 딸 휘정옹주와 결혼하여 선천위에 봉해졌고, 치원(致元)은 성종의 딸 경순옹주와 결혼 선성위에 봉해졌다.

효온(孝溫)은 생육신(生六臣)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하며, 이응(以應)은 선조조에 좌의정, 이흥(以興)은 대사헌과 공조판서를 지냈고, 이공(以恭. 1565~1640)은 곤재 정개청(困齋鄭介淸)의 문하생으로 엄다면 엄다리 윤암정사에서 수학한 후 1590년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우의정을 역임했다. 용익(龍翼)은 예조판서, 구만(九萬)은 문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고, 용익의 증손인 유용(有容)은 봉조하(奉朝賀)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 공철(公撤. 1760~1840)이 1823년에 영의정에 오르는 등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2000년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의령남씨는 전국에 46,529가구 150,394명이 살고 있어 남씨 중 1위며, 전남에는 2,068가구 6,362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37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34호 130명이 살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는 29가구 79명이 살고 있었다.

12. 노 씨(盧氏)

노씨는 문헌에 137본관으로 나와 있으나 2000년 통계청 조사 자료를 보면 52개본 68,776가구, 220,3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000가구가 넘는 본관은 교하 16,561가구, 광주 15,265가구, 풍천 12,183가구, 광산 8,747가구, 장연 2,672가구, 경주 2,057가구, 강화 1,609가구, 만경 1,608가구, 함평 1,604가구 등 모두 9개 본관인데 광산은 광주와 같은 본관이므로 8개 본관이다.

노씨 성은 주나라 건국공신姜太公(姜太公)의 후예 혜(僊)가 제(齊)나라 노현(盧縣)에 봉해짐

으로서 연유가 되었고, 우리나라 노씨의 도시조 수(穗)는 중국 범양(范陽)사람으로 안록산(安祿山)의 난을 피해 신라 효성왕 7년(孝成王. 755)에 아들 9형제와 정착했다.

그의 아들 9형제 중 해(垓)는 광주(광산), 오(塢)는 교하(交河), 지(址)는 풍천(豐川), 구(坵)는 장연(長淵), 만(壩)은 안동, 곤(坤)은 안강(安康), 증(增)은 연일, 판(坂)은 평양, 원(垣)은 곡산(谷山)에 본관을 삼고 분관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광산(광주) 244가구, 선산 8가구, 대구 7가구, 오산 5가구. 서해와 교하가 각각 1가구로 6개 본관이었다. 1985년 조사에서는 광주(광산) 188가구 703명, 교하 3가구 18명으로 2개 본관이 살고 있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광주(광산) 112가구 262명, 함평 17가구 36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함평에서 거주하는 노씨는 모두 147가구에 345명이 분포하고 있다.

1) 광주노(光州. 光山盧)씨

광주노씨는 세거지가 광산이어서 처음에는 광산노씨라 했다. 하지만 당시의 세거지가 지금은 광주광역시라 됐으므로 광주노씨라 부르고 있다.

광주노씨는 수(穗)를 시조로, 해(垓)를 득관조, 만(蔓)을 기 1세조(起一世祖)로 하고 있다. 득관조 해는 수의 맏아들이며 신라조에서 광산백을 봉군 받았다.

그 후 후손들이 광산을 본관으로 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대(繼代)가 실전되어 고려 때 정승을 지내고 광주군(光州君)에 봉해진 만을 1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광주노씨로 현달한 사람을 살펴보면, 고려조에서 천유(遷孺)가 병부상서, 아조(阿祚)가 문하시랑을 지냈으며, 승(嵩. 1337~1414)은 1365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창왕 1년(1389)에 전라도 도관찰사(都觀察使)가 되어 나주의 영산창(榮山倉)을 제웠고, 조선개국원종공신에 올랐으며 태종 때 우의정을 지냈다.

수신(守愼)은 1543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으로 있다가 을사사화 때 파직되어 진도에서 19년간 유배생활을 했고 선조 때 다시 기용되어 1585년에 영의정이 되었다.

함평군에는 만의 19세손인 성연(成連. 중륵-仲嶺-의 손자)이 1470년경 광주시의 우치에서 대야면(大野面. 현 월야면 일부지역)에 이거하였고 그 후손이 해보면 모산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 20세손인 상지(尙枝. 중륵의 증손)가 1490년 아들 극창(克昌)을 데리고 광주의 우치에서 나산면 송암리로 이거 정착한 후 후손이 번성했다.

성연의 묘는 월야면 서당동에 있고, 상지의 묘는 나산면 송암리 송계에 있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 함평군에는 112가구 20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출 인물

노성연(盧成連) : 기시조 만의 19세손. 광주노씨 함평군 입향조

노 시(盧 僖) : 성연의 아들. 연산군 때 첨사를 지냈다.

노상지(盧尙枝) : 의흥위 호군(義興衛護軍)을 지냄



- 노길상(盧吉祥) : 기시조 만(曼)의 21세손의 맏아들. 중종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판윤을 지냈다.
- 노극창(盧克昌) : 1482~1568 자 영경(榮卿). 호 송계(松溪), 상지의 아들. 1514. 9. 1문과에 급제하여 광주목사를 역임했다.
- 노원손(盧元孫) : 길상의 맏아들. 생원시에 입격했다.
- 노원혁(盧元赫) : 길상의 둘째아들. 선조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옥구현령 등을 역임했다.
- 노철남(盧鐵男) : 극창의 맏아들. 진사시에 입격했다.
- 노옥남(盧玉男) : 1510~1565 자 중보. 극창의 셋째아들. 성균관 생원시에 입격했다.
- 노충복(盧忠復) : 철남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을 지냈으며 전북 고부로 이거했다.
- 노현충(盧顯忠) : 원혁의 아들.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 노경원(盧慶元) : 1571~1610 자 언서(彦瑞). 시조의 24세손. 인조 때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 노찬원(盧贊元) : 1579~1642 자 찬서(贊瑞), 경원의 아우. 인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용양위 부사직을 지냈다.
- 노대유(盧大猷) : 만의 24세손. 첨사를 지냈다.
- 노사종(盧嗣宗) : 시조의 25세손.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동래부사, 한성판윤을 지냈다.
- 노삼석(盧三錫) : 1626~1684 호 후계(後溪). 1666. 3. 9 문과에 급제하여 천안현감, 청주목사 등을 지냈다.
- 노경덕(盧憬德) : 1562~1612 호 영포(潁圃). 사종의 손자. 문장이 뛰어났으며 임진란 때 함평성 수성장으로 활약했고, 소실된 함평 향교를 세우기 위해 영건도유사를 맡았으며, 자기 집 노복을 향교의 교직으로 삼게 하는 등 향교 재건에 갖은 애를 썼다.
- 노전기(盧銓璣) : 1846~1913 호 가송(柯松), 효정과 학식이 고명하였고 만년에 육영재(育英齋)를 지어 후생을 교육했다. 문집이 전한다.
- 노인규(盧寅圭) : 학교면에서 출생. 광주 노인규외과의원 원장

2) 풍천노(豐川盧)씨

득관조는 지(址)며 1세조는 유(裕)다.

지(址)는 도시조 수의 셋째 아들로 고려조에서 풍천백에 봉해졌고, 그의 후손인 유가 국자진사(國子進士)로 풍천에 세거했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1세조로 해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집안에서 현달한 사람으로는 숙동(叔仝. 1403~1483)이 세종 때 「치평요람(治平要覽)」 편찬에 참여해 문명을 날렸고, 대사간을 지냈으며 청백리에 올랐다.

또 진(鎭, 1518~1578)은 관찰사·대사헌을 지내고 예조판서에 올랐으나 사퇴했는데 「연려실기술(鍊藜室記述)」의 「선조조 명신전」에 "30여 년간 벼슬을 살았고, 영호남감사를 두 번이나 역임했으나 들에 밭이 없고 서울에 집이 없는 청백리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손자 형하

(亨夏)는 인조 때 사림(士林)의 존경을 받아 "팔미군자(八美君子)"란 별호를 받았다.

광주(光斗)는 호조참판을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풍천노씨는 전국에 12,183가구 39,397명이 살고 있어 노(盧)씨 52개 본관 중 3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풍천노씨의 687가구 2,096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5년 조사에서 10가구 3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4가구 10명으로 줄어들었다.

13. 마 씨 (馬氏)

1981년에 간행한 「마씨대동보」에 의하면 마씨는 원래 중국 성씨였으나 기자(箕子)가 한국에 건너올 때 중국에 살던 마완(馬浣)의 아들 마장(馬莊)이 함께 건너와 한국의 성씨가 되었다.

그러나 시조는 백제본기에 나오는 여(黎)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고구려에서 살다가 온조(溫祖)와 함께 남하하여 십제(十濟)를 건국한 10신(臣) 중의 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세계가 실전되어 백제가 망할 때 천안군 목천면 성거산에서 끝까지 싸운 육침(陸沈)을 중조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마씨의 구보(舊譜)에는 삼한시대 부족국가에서 발원된 우리나라 토착 성씨로 마한의 첫 군주였던 겸(謙)이 한국 마씨의 시조며, 그의 증손자 환(桓)이 천안군 직산에 있던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 우두머리)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중국 마씨는 원래 성이 영이었으나 이 씨족 중에 '사라'라는 사람이 말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 '마복군(馬服君)'이란 관작을 받아 성을 “마(馬)”로 바꾸었으며, 목천마씨(木川馬氏)의 시조는 종 9품직 잡직대정(雜職隊正)을 지낸 점중(占中)이고, 장흥마씨(長興馬氏)의 시조는 국자감박사(國子監博士)를 지낸 지백(智伯)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점중은 오늘날 마씨들이 중조로 내세우고 있는 육침의 10세손이며, 지백은 오늘날 장흥마씨들이 기1세조로 내세우고 있는 혁인(赫仁)의 7세손이고, 목천마씨 점중의 8세손이다.

증보문헌비고에는 34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11개 본관 11,076가구 35,096명이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장흥의 8,985가구 1가구뿐이었다. 참고로 마씨들의 주요 분포를 살펴보면 목천이 941가구, 개성 534가구, 의성이 425가구, 장안이 168가구 등이다.

마씨는 1971년 대동중친회를 창립하고 기존의 본관을 파(派)로 정리하여 「마씨대동보」를 간행한바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장흥 3가구의 1개 본관이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장흥 5가구, 목천 1가구의 2개 본관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모두 5가구 1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흥이 4가구 12명, 개성이 1가구 3명이며, 장안이 가구 없이 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장흥마(長興馬)씨

시조는 여(黎), 증조는 육침(陸沈), 관조(貫祖)는 혁인(赫仁)이다.

마씨의 족보에 예가 백제 건국에 공이 있어 백제 때 “마사량현(馬斯良縣)”이라 불렀던 지금의 보성군 회천면(1914년까지 장흥군에 속함) 일대를 식읍으로 주어 그 자손들이 장흥마씨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백제가 전남 일대를 완전 복속한 것이 5세기말이었음을 볼 때 합리성이 부족하다. 백제가 망한 후 신·당연합군의 반항세력이었던 성거산의 마씨와 그 추종자들이 일부는 일본으로, 일부는 장흥의 회진, 보성의 회천에 옮겨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일신라가 장흥을 마읍현(馬邑縣)이라 부른 것이 아닐까한다.

가문에서 현달한 인물은 고려조에서는 혁인의 손자 의유(義裕)가 의종(毅宗, 재위 1146~1170)때 문과에 급제하여 홍주목사를 지냈고, 그의 아들 희원(希援)이 희종(熙宗, 재위 1204~1211) 때 평장사를 지냈고 혁인의 7세손 지백(智伯)이 보문각 학사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치원(致遠)이 태종 때 관산군(冠山君)에 봉해지고 중령산성을 보수하여 왜구를 막는데 공을 세웠다.

보성군 회천면에서 태어난 천목(天牧)은 제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좌명공신 3등에 책록되었고 초대부터 전라도 병마절제사를 두 번 역임했다. 그는 현 강진군 병영면에 전라병영성을 축성하였으며, 또 세종 원년(1419) 북방에 6진을 개척하여 여진족의 침입을 막도록하는 건의를 올렸고 장흥부원에 봉해졌다.

그의 맏아들 승이 세종과 단종 때 안주목사·이조참판 등을 지내며 청백리에 올랐으며, 단종의 폐위에 불복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충절을 지켰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장흥마씨는 전국에 8,985가구 28,337명이 살고 있어 마씨 11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1,039가구 2,953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3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5가구 23명 2000년 조사에서는 4가구 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4. 문 씨(文氏)

문헌에 131본관으로 나와 있으나 2000년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45개본 132,811가구 426,91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1000가구 이상인 가구의 본관은 남평 118,491가구, 강릉 1,493가구 감천 1,367가구로 남평문씨가 문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 남평 193가구, 문화 1가구로 2개 본관이 살았고,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남평 176가구 743명, 정선 3가구 13명의 2개 본관이고,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이 감천 4명, 함평·나주·안동·능성에 각 1명으로 5개 본관, 합하여 7개 본관이 살고 있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총 155가구 41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시 남평이 139가구 236명이 거주하고 있어 함평에 거주하는 문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장흥이 5가구 6명, 나주가 4가구 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1가구이거나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

감천문씨의 시조는 원길(原吉)인데 그의 선대는 경주김씨였다고 한다.

그런데 선대에서 중국에 들어가 문장으로 이름을 날려 "문(文)"성을 사성 받았으며, 정선문씨 역시 원래는 전씨(全氏)였으나 감천문씨와 같이 중국에 선대가 들어가 문장으로 이름을 날려 사성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 문씨는 남평문씨에서 분적한 것으로 알려오고 있다.

1) 남평문(南平文)씨

시조는 다성(多省)이며 중시조는 익(翼)이다.

시조 다성의 출생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나주시 남평면에 장자지(長者池)라는 연못이 있고 그 못 가에는 큰 바위가 솟아 있다.

신라 자비왕 15년(慈悲王. 472) 2월 장자지에 자색의 서기가 있어 왕이 현주(縣主)를 시켜 살피게 했더니, 못 가에 있는 바위에 오색구름이 감돌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다리를 가져오게 하여 바위 위에 올라가 보니 돌로 만든 껍데가 놓여 있고 그 속에 갇난아이가 들어 있었으며, 또 함면(函面)에는 "문(文)"자가 씌어 있었다.

왕은 하늘이 나를 돕기 위해 보낸 것이라 기뻐하며 "문"씨로 사성하고 궁중에서 기르게 했다.

이 아이는 나이 불과 다섯 살에 문무가 출중하였고 사물의 이치를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다성(多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지증왕 1년(智證王. 500)에 중시아찬(中侍阿飡)이 되고, 진흥왕 1년(眞興王. 540)에 태국사(太國師), 진지왕 2년(眞智王. 577)에 대안찬 대국사가 되어 식읍 3천호를 받았다.

후손들이 그가 태어난 남평을 본관으로 했으며 높이 5m쯤 되는 장자지의 바위에 "문암(文岩)"이란 비를 세워 시조의 강탄처(降誕處)로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남평은 660년대 초까지 백제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72년에 신라 땅으로 서술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만 105세에 대아찬 태국사가 되었다고 한 부분 역시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중시조 익은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우산기상시(右散騎常寺)에 올라 상주국(上柱國)으로 풍산군(楓山君)에 봉해졌다.

남평문씨 중 현달한 인물은 고려조에서 익의 넷째 아들 공유(公裕)가 명필가로 묘향산 보현사의 창사비문(創寺碑文) 등을 남겼고, 그의 아들 극겸(克謙)이 1183년에 문하시랑평장사·1187년에 권판상서이부사(權判尙書吏部事)에 올랐으며, 손자 유필(惟弼)이 고종 때 판례부사(判禮部事)에 올랐다.

익점(益漸. 1329~1398)은 우문관 제학을 지냈으며 원나라에 갔다 돌아오면서 붓대 속에 묵화



씨를 감추고 돌아와 우리나라 의복의 혁명을 일으켰다.

조선조에서는 희성(希聖)이 광해군 때 광주목사를 역임했고, 재도(載道)가 경상도수군절도사를 지냈다.

함평에 살고 있는 파는 경숙공파(敬肅公派), 참의공파(參議公派), 순평군파(順平君派), 목사공파(牧使公派) 순으로 많이 살며 2000년 조사에서 139가구 36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 제일 먼저 입향한 파는 순평군파며 시조의 24손인 명희(命羲)가 1590년대에 나산면 삼축리 분토동에 이거 정착했고, 다음으로 참의공파인데 시조의 24세손 상주(尙周, 1676~1740)가 1700년경 무안에서 함평읍 옥산리로 들어왔다.

경숙공파는 시조로부터 34세손인 백(伯)이 순조 때인 1800년경 나산면 구산리 냉천동에 자리를 잡았고, 함평읍 옥산리에 참의공파, 나산면 삼축리 분토동에 순평군파, 함평읍 만흥리에 경숙공파, 엄다면 학야리에 목사공파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입향조 명희의 묘소는 나산면 삼축리에 있다.

배출 인물

문명희(文命羲) : 함평군 입향조

문극경(文克慶) : 선조 때 무과에 급제

문 세(文 世) : 선조 때 무과에 급제

문주현(文周顯) : 선조 때 무과에 급제

문경학(文慶鶴) : 고종 때 무과에 급제

문제술(戈濟述) : 광산교육장,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초등교육과 장학관 등을 역임했다.

문태수(文泰洙) : 광주석산고등학교장 역임

문창수(文昌洙) : 1938. 3. 25 광주시장, 충청남도부지사,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했다.

문성식(文成植) : 전라남도임업협동조합장, 재광함평군향우회장을 역임했다.

문정구(文正九)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문홍규(文洪圭) : 보건사회부 서기관 역임

문홍덕(文弘德) : 전남대학교 교수

문길주(文吉周) : 1954. 4. 9 공군중령

문연호 : 함평읍 만흥리 육군중령

15. 민 씨 (閔氏)

민씨는 중국 농서현(隴西順, 감숙성 난산도)에서 배출한 성씨다.

문헌에 우리 나라 민씨는 여흥·황려·영주·대전·해남 등 32개 본관으로 되어있으나,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따르면 11개 본관 33,706가구 141,328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46위며, 100가구가 넘는 본관은 여흥 32,857가구·여주 262가구의 2개 본관인데 여흥이 여주의 옛 지명이므로 같은 본관이고, 대전 82가구·해남 42가구·영운 34가구, 그 외는 20가구 미만이며 또 한 뿌리이기에 세거지명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12개 본관 48,935가구 159,05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여흥이 48,887가구에 142,572명이 거주하고 있어 민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여흥민(驪興閔)씨

시조는 청도(稱道)다.

그는 공자의 10제자 중 한 사람인 민손(閔損, 자 자건, 노나라 현인)의 후손으로 고려 중엽에 우리 나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귀화하여 상의봉어(尙衣奉御)를 지냈으며 여흥(여주의 옛 이름)에 정착하였다.

이에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여흥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가문에서 현달한 사람은 고려조에서 시조의 증손 영모(令謨)가 고려 명종 때 문하시랑평장사(정 2품)를 거쳐 태자태사에 올랐으며, 안부(安富)는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하여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켰다.

조선조에서는 여익(汝翼)이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호조판서에 올랐고, 제(齋)는 태종의 국구(國舅)로 좌의정을 지낸 후 좌명공신에 책록되어 여흥부원군에 봉해졌다.

효증(孝曾)이 중종 때 좌찬성을 지냈고, 그의 증손 몽룡(夢龍)이 우의정, 기(箕)가 선조 때 우의정을 지냈으며, 그는 또 문장에 능하여 「석담야사(石潭野史)」, 「대학도(大學圖)」의 저서를 남겼다.

형남(馨男)이 우찬성, 응협(應協)이 참판, 그의 아들 희(熙)가 좌의정, 유중(維重)이 숙종의 국구가 되는 등 기라성 같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자료에 따르면 여흥 민씨는 전국에 32,857가구 137,314명이 살고 있어 민씨 본관 중위를 차지하며, 2000년 조사에서는 전남에 여흥민씨가 1,416가구 4,203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 2가구, 1985년 조사에서 5가구 18명이 그리고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는 4가구 2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 박 씨 (朴氏)

박씨는 모두 신라 박혁거세(朴赫居世)왕을 시조로 하고 있다.

진한(辰韓)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박(표-瓢)을 박(朴)이라고도 하므로 혁거세는 박에서 나왔다하여 성을 “朴”으로 했고, 혁연(赫然)히 세상을 살았다하여 이름을 “혁거세”라 하였다고 한다.

본관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신라왕실 중 박씨의 왕을 여기에 열거하면 1대 혁거세왕, 2대 남해왕(南解王. 혁거세의 맏아들) 3대 유리왕(儒理王. 남해왕의 맏아들), 4대 석탈해왕(昔脫解王. 석파사국-音波沙國- 왕자로 박씨가 아님), 5대 파사왕(波沙王. 유리왕의 둘째 아들), 6대 기마왕(祗摩王. 파사왕의 맏아들), 7대 일성왕(逸聖王. 유리왕의 맏아들), 8대 아달라왕(阿達羅王. 일성왕의 맏아들), 53대 신덕왕(神德王. 아달라왕의 후손. 혁거세의 28세손), 53친대 경명왕(景明王. 신덕왕의 맏아들), 55대 경애왕(敬哀王. 신덕왕의 둘째아들), 모두 10왕이다.

박씨는 문헌에 314개본으로 나와 있으나 2000년 통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134개 본관 1,215,918가구가 살고 있어 한국 성씨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00가구 이상인 본관만도 밀양(밀성포함) 946,307가구, 반남 43,300가구, 순천 27,296가구, 고령 12,301가구, 무안 24,746가구, 죽산(죽주) 16,816가구, 함양 38,788가구로 7개 본관이다.

함평박씨는 251가구 1,862을 차지하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 밀양(밀성 30가구 포함) 1,156가구, 무안 489가구, 함양 20가구, 반남 8가구, 진원 6가구, 순천 3가구의 6개 본관으로 조사되었으며, 1985년 조사에서는 47개 본관으로 집계되었으나 무안과 면성이 같은 본관이므로 46개 본관이며, 5가구 이상이 사는 본관은 밀양(밀성 포함) 1,052가구 4,396명, 무안(면성 6가구 포함) 310가구 1,286명, 함양 34가구 153명, 반남 26가구 107명, 순천 15가구 52명, 충주 10가구 38명, 진원 5가구 14명의 7개 본관이었다.

2000년 조사에서 함평에는 1199가구에 3,43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가구 이상은 밀양(密陽)이 837가구, 무안이 237가구 622명, 함양이 21가구 79명, 명성이 21가구 31명, 반남이 20가구 85명, 순천이 11가구 38명으로 6개 본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1) 무안박(務安朴)씨

시조는 진승(進昇)이다.

그는 혁거세왕의 29세손인 신라 54대 경덕왕의 8왕자 중 여섯째인 완산대군 언화(完山大君彦華)의 9세손이며 벼슬이 국자제주(國子祭酒)에 이르고 무안을 식읍으로 하사 받아 정착하면서 본관을 무안으로 하였다.

이 집안에서 현달한 사람을 들어보면, 고려조에서 시조의 아들 섬(暹)이 문종 6년(1052)에 명신으로 각상(閣上)에 도형(圖形)되었으며, 섬의 증손 승중(昇中)이 중서시랑평장사를 지냈다.

부(琿)가 나주목사, 문연(文衍)이 공부상서, 문정(文正)·윤구(允球)가 호조판서, 단(檀)이 예부상서, 문오(文晤)가 정승에 이르렀다.

조선조에서는 증룡(增龍)과 호(壕)가 호조판서, 의룡(義龍)이 호조·병조·형조판서를 두루 역임하였고, 윤유(允瑜)가 무안군(務安君) 군봉을 받았으며 성손(誠遜)이 대제학을 역임했다.

함평군에는 1985년 조사에서 310가구 1,280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인구 순위 13위(1969년 조사 1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237가구 622명이 거주하고 있어 박씨 본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파는 무안파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경파(京派), 음죽파(陰竹派), 군수공파(郡守公派), 해남파(海南派)가 살며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학교면 복천리다.

함평에 제일 먼저 입향한 선조는 무안파의 언휘(彦徽)로 1507년 학교면 복천리 내동에 정착하였고 그 후손이 번창하여 군내에 퍼져 살게 되었다.

그의 묘소는 학교면 복천리 내동에 있다.

배출 인물

박언휘(朴彦徽) : 1488~? 함평군 입향조. 1513년 사마시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박언후(朴彦後) : 임진정유왜란 때 공을 세우고 순국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박영근(朴永根) : 1585. 9. 15~1910. 7. 23 항일의병장. <조선시대 항일의병 항을 볼 것>

박천재(朴千載) : 1913~1995.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1959~1960년 전라남도의회부의장을 지냄

박태영(朴泰永) : 1935. 11. 23 원광대학교 교무처장, 대학원장을 역임함. 화랑무공훈장, 인현무공훈장을 받음

박효명(朴孝明) :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역임

2) 밀성박(密城朴)씨

밀성은 밀양의 옛 이름이다.

198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본관을 조사할 때 밀성을 밀양에 포함하여 조사했으나 밀성을 본관으로 쓰는 박씨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밀양과 밀성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밀성박씨의 시조를 알리는 의미에서 따로 기술하고자 한다.

밀성박씨는 시조를 혁거세의 37세손인 언상(彦祥)으로 하고 있다. 그는 밀양 박씨의 시조 언침(彦沈)의 8세손 찬행(贊行)의 둘째 아들로 고려 문종(文宗, 재위 1047~1082) 때 도평의사(都評議事)를 지냈다.

혁거세의 29세손 신라 경명왕의 아들이 분관할 때, 큰아들 언침이 밀성군(密城君)에 군봉되었기 때문에 밀성박씨라 하다가 밀성의 지명이 밀양으로 바뀔에 따라 그 후손들에 오늘날 밀양을 본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밀양에서 분관한 언상의 후손들은 밀양의 옛 이름 밀성을 그대로 하여 밀성박씨라고 하고 있다.

함평군에는 백우당공파(柏友堂公派)와 눌헌공파(訥軒公派)가 살고 있는데 함평군 입향은 백우당공파가 빠르며, 입향 계열은 언상의 14세손 완원(完元)의 후손들이다.

백우당공파의 함평군 입향은 족보에 기록은 없지만 분묘의 분포로 보아 수온의 증손인 상경(尙敬, 언상의 16세손)이 대략 1580년대에 장성군에서 나산면 신평리로 이거한 것 같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현손 엄(淹)대에 이르러 모두 나주시의 문평, 봉황, 노안면으로 떠났다.

보첩상 이거의 기록이 있고 후손이 함평군에 살고 있는 계열은 완원의 5세손이며 시조 언상



의 17세손인 윤률(允栗. 1585~1652), 윤중(允中. 1586~1653) 형제로 이들은 거창현감을 지낸 상근(尙謹. 상경의 아우 1543~1620)의 다섯째와 여섯째의 아들이며 임진란을 피해 가족이 흩어지면서 대동면으로 피란하여 정착하였고, 그 후손이 학교면으로 퍼졌다.

완원의 11세손이며 시조 연상의 24세손인 전옥(全郁. 1704~1813)이 1790년경 장성에서 월야면으로 이거 정착하여 그 후손이 해보면 등에 퍼져 살고 있다.

상경의 묘소는 나산면 신평리 연대산 정좌(丁坐)에 있고, 은률의 묘는 대동면 구수동 간좌(艮坐)에 있다

눌헌공파의 함평군 입향조는 시조 연상의 25세손인 선규(善奎)며 1810년경 나주에서 엄다면 화양리 쌍촌에 이거 정착하여 그 후손들이 군내에 50여 가구가 살았으나 지금은 20가구 미만이며 집성촌은 화양리다.

배출 인물

박상경(朴尙敬) : 1540~1597 호 오산(燕山). 낙안도 찰방, 창평현령을 지냈으며 정유재란 때 순국하였다.

박윤진(朴允鎭) : 1595~? 상경의 셋째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병마 우후(處候)를 지냈다

박만영(朴萬永) : 1630~? 윤진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병조좌랑을 지냈다.

박용조(朴龍祥) : 1674~? 만영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철성부사(鐵城府使)를 지냄

박 엄(朴 淹) : 1704~? 용조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광주중군(廣州中軍)을 지냄.

박말갑(朴末甲) : 1922. 3. 3 함평, 영광교육장, 광주시교육회장 등을 역임함

박양구(朴良求) : 1941. 1. 13 세무서 4급 역임

박광웅(朴光雄) : 1944. 7. 27 시조의 66세손, 호 황원(晃院) 모범공무원상과 함평군민의상을 수상 함평대동향교초등학교 교장 역임

박래옥(朴來玉) : 1947. 3. 21 시조의 66세손 호 수덕(修德) 해보농업협동조합장, 전라남도의회의원 연임, 시멘트가공업협회 회장, 민주당전남도당 부위원장 <자료 제공. 시조의 29세손. 박란구(朴蘭求). 해보면 문장리>

3) 밀양박(密陽朴)씨

시조는 언침(彦沈)이다.

그는 박씨의 원조인 혁거세의 30세손이며 경명왕의 아홉 아들 중 맏아들이며, 밀성군에 봉해졌기에 후손들이 밀양(전 이름 밀성)으로 본관을 하였으며 박씨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밀양박씨 10세손인 항(恒)이 영암(靈岩)박씨, 14세손 응주(應珠)가 반남(潘南)박씨, 15세손 취생(就生)이 나주(羅州)박씨 등 10여개의 본관으로 분적했다.

밀양박씨의 분파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상대에서 갈린 파는 8세손 언상(彦祥)의 도평의사공파(都評議事公派), 10세손인 원(元)의 진사공파(進士公派), 16세손인 현(鉉)의 규정공파(糾正公派)

등 12개 파로 크게 나누어졌고, 후대로 내려오면서도 여러 파로 갈렸다.

이들 파 중 도평의사공파는 밀성박씨로 분관(分貫)하였다.

함평에 거주하는 파는 진사공파와 규정공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함평군 입향은 진사공파가 이른다.

진사공파의 입향조는 시조 언침의 22세손(혁거세의 5세손)인 석주(石柱)로 1518년 함평읍 수호리 송정에 이거 정착했으며, 그의 묘소는 함평읍 성남리 소등 후록에 있다.

그의 둘째아들 대양(大陽)이 장성군 삼계면 사창으로 옮겨 살았고, 대양의 손자 애남(愛男, 근-瑾-의 아들)이 무안군 해제면으로 이거 그 후손이 무안과 영광에 퍼져 살게 되었다.

또 석주의 증손 형상(亨祥, 시조의 25세손)이 정유재란 때 적을 피해 영광군 서진산 용암리로 피난하여 피난지에서 정착하였고, 그의 후손들이 신안군의 섬으로 퍼져 살게 되었으며, 현손 의현(義賢, 이상-李祥-의 아들)이 나산면 용두리로 이거 그 후손이 나산, 해보면에 퍼졌고, 7세손이며 시조의 27세손인 석빈(碩彬, 민호-敏昊-의 아들)이 진북 운봉으로 이거하여 그 후손이 진북에 퍼졌으며, 8세손 수강(秀綱, 시조의 28세손)이 1680년경 손불면 북성리 차경동으로 이거하여 정착하였다.

규정공파의 입향조는 파조의 9세손이며 시조의 24세손인 춘우(春雨)가 1550년경에 함평읍 옥산리 옥산에 이거 정착하여 세거하였으며, 파조의 14세손인 승률(承栗, 시조의 2세손, 안민-安民-의 여섯째아들)이 광해조 말 영의정을 지낸 종형 승종(承宗)과 경기도 관찰사를 지낸 조카 자흥(自興)이 1623년 인조반정에 의하여 광해군의 측근으로 몰려 자결하고 집안이 모두 화를 입자, 화를 피해 경기도에서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으로 옮겨 잠시 머물다가 연암리 수현(水峴)에 정착하였고, 시조의 34세손(승률의 6세손)인 광혁(光赫), 우혁(右赫), 현혁(賢赫)이 동면 용성리 금성동으로 이거하였으며, 광혁의 6세손 병도(炳道)가 경기도로 옮겨 손이 번성하였고, 우혁의 아들 중석(重碩, 파조의 20세손)이 익산으로 이거 그 손이 전북에 퍼졌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1,126가구로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5위를 차지했고, 1985년 조사에서는 1,052가구 4,396명이 살아 4위로 올라섰으며, 함평읍 옥산리, 대동면 용성리, 나산면 삼축리, 함평읍 석성리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함평에 있는 관련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영사재(永思齋)	대동면 용성리 원통	승률(承栗)
열녀각(烈女閣)	" " 금성동	연진(連鎭)의 아내 남원양(南原梁)씨

배출 인물

박석주(朴石柱) : 1518년 성균관 상상(上庠)으로 있다가 함평읍 수호리로 이거 정착함

박대운(朴大雲) : 석주의 맏아들 생원·진사과에 입격함



- 박대양(朴大湯) : 석주의 둘째아들. 생원·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박 근(朴 瑾) : 1568~1592. 호 남일재(南一齋). 대양의 아들 금산전에서 순국. 선무원종공신에 올랐다.
- 박이상(朴以祥) : 1561~1597 호 환학정(喚鶴亭). 무과에 합격하였고 정유재란때 이억기 휘하에서 공을 세우고 순국함. 선무원종 2등공신에 올랐다.
- 박의남(朴義男) : 1574~? 이상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 박의현(朴義賢) : 1576~1598 이상의 둘째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으며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올랐다
- 박의선(朴義善) : 1578~? 이상의 셋째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익위사(翊衛司), 발포 만호(鉢浦萬戶)를 지냈다.
- 박계손(朴繼孫) : 시조의 27세손. 의현의 아들. 성균관 생원을 지냈다.
- 박세빈(朴世彬) : 1624~? 의선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병절교위를 지냈다.
- 박석빈(朴碩彬) : 1702~? 1730년에 병절교위. 후에 훈련원 부사직을 지냈으며 이인좌(李麟佐) 정희량(鄭希亮)의 반역 때 함양전에서 반군을 토벌하는 데 공이 컸다.
- 박문경(朴文景) : 1632~1696 무과에 급제하여 용양위 부사과를 지냈다
- 박사현(朴嗣賢) : ? ~1592 군자관감을 지냈으며 임진란 때 조현의 휘하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청주싸움에서 순국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 박광조(朴光祖) : ?~1592 호 지봉(砥峯).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역임하였고, 임진왜란 때 아우 광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고경명 휘하로 들어가 많은 공을 세우고 금산전에서 순국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 박광종(朴光宗) : 광조의 아우.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 박응주(朴應柱) : ?~1592 1586년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고 금산전에서 순국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 박이상(朴以祥) : 1586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우수사 이억기 휘하에 배속되어 많은 공을 세웠고 1597년 한산전에서 순국함.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 박의남(朴義男) : 이상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 박의현(朴義賢) : 이상의 둘째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수군 만호를 지냈고 1598년 노량 해전에서 순국하였다.
- 박형산(朴亨山) : 호 가천(佳川). 고창현감을 지냈다.
- 박지화(朴枝華) : 정선현감을 지냈다.
- 박동근(朴東根) : 호 계촌(溪村). 효자. 나라에서 정문이 내려 손불면 북성리 승선마을 앞에 삼강문을 세웠다.
- 박준환(朴準煥) : 1860~1938. 사헌부감찰을 지켰다.
- 박정순(朴程淳) : 1917. 11. 20 함평읍장, 함평문화원장을 역임했다.
- 박일배(朴日培) : 호 야은(野隱).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키우고 또 진흙가로 이름높았다.
- 박정래(朴正來) : 1925. 9. 3 옥구군 부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박왕규(朴王圭) : 1937. 9. 24 외무부 주영공사(2급) 등을 역임함

박정규(朴正圭) : 1937. 5. 16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박영순(朴暎淳) : 1939. 4. 28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졸업. 원광대학교수 역임

4) 반남박(潘南박)씨

시조는 응주(應珠)며 묘소는 나주시 반남면 소재지인 흥덕리에 있다.

반남박씨들의 선대 묘들이 백제 때 반내부리로 불렸던 반남에 집중된 것을 보면 응주의 생존대에 반남의 호족세력이었으며, 시조를 응주로 하고 있으나 그 선대는 고대 마한으로 이어지고, 현재 반남에 산재해 있는 대형고분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많다.

6세 은(崧. 1370~1422)은 고려 말의 대학자 이색(李穡)의 내종(內從)조카로 아버지 상충(尙衷)이 정도전(鄭道傳), 임박(林撲) 등과 함께 이인임(李仁任) 등에 대항해 신흥 중국세력인 천명론을 주장하다가 장살되자 6세에 고아가 되어 외숙 집에서 자랐다.

외숙 이색은 조선왕조 개국에 반대하고 끝까지 고려왕조에 충성을 다하였으나 그는 조선왕조 건국에 동조하였고, 1401년 제 2차 왕자란에 공을 세워 3등 공신이 되고, 태종의 신임을 두텁게 받아 우의정·좌의정을 지냈다.

그 후 조선왕조에서 반남박씨들은 정승 7명, 왕비 2명, 부마 5명이라는 명문을 이뤘다.

은이 중앙 정계의 기틀을 닦은 반남박씨의 중조라면 학문으로는 소(紹. 1493 ~1534)이다.

그는 시조의 11세손으로 조광조(趙光祖)의 제자며 경상남도 합천에 은거했는데 아들 다섯을 두었고 그 아들들이 모두 현달하였다.

말아들 응천(應川) 가문에서 세당(世堂. 1629~1703), 정양(定湯. 1841~1904. 한말 개화파의 기수),

넷째 아들 응복(應福) 가문에서 세채(世采. 1631~1695. 문묘 배향), 지원(趾源. 1737~1805. 실학자), 규수(珪壽. 1807~1876 개화 사상가), 영효(泳孝. 1861~1938. 한말 개혁파) 등을 배출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43,300가구 139,438명으로 박씨 132개 본관 중 2위며, 전남에는 2,028가구 6,209명이 살고 있다

1930년 조선총독부 성씨조사 자료에 전남지방에서 20가구 이상 살고 있는 동족 마을을 옮겨 보면,

순천군 황전면 대기리(현 순천시 황전) 20가구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20가구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25가구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8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26가구 107명이, 2000년 조사에서는 20가구 8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농으로 인해 인구가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5) 순천박(順天朴)씨

시조는 영규(英規)다

그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甄萱)의 사위로 후백제 대장군이 되었다가 견훤과 함께 고려에 투항하여 개국공신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올라 순천박씨의 득관조가 되었다.

문헌 비고에 시조의 증손으로 기재된 난봉(蘭鳳)은 정승으로 평양군에 봉군되었으며 순천김씨 시조 김충(金攄)과 함께 순천고을의 성황신(城隍神)으로 모셔왔다.

중시조라 할 수 있는 숙정(淑貞)은 충숙왕 때 경포대 경호정(鏡湖亭), 고성 사선정(四仙亭) 등을 건립했고 보문각 대제학을 지냈으며, 석명(錫命, 1370~1406. 시호 문숙-文肅)은 태종조의 좌명공신 3등훈으로 평양부원군에 봉군되고 지의정부사(知議政府使)를 지냈다.

그의 셋째 아들 거소(去疎)는 세종대왕과 동서간으로 청송 심온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고, 부지돈녕부사(副知敦寧府使)를 지냈으며, 거소의 아들 중선(仲善, 1435~1481)은 세조 때에 이조판서로 이시애란을 평정한 공으로 정난공신 1등훈에 올랐다.

원상(元象)의 손자 중림(仲林, ?~1456. 사육신 행년의 아버지) 또한 이조판서를 지냈고, 중선의 아들 원종(元宗)은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공신에 책록대고 중종 4년(1509)에 영의정이 되는 등 고려와 조선조에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순천박씨는 크게 중선계와 평년계 나눌 수 있다.

이 두 집안은 중시조 숙정의 아들 때 갈렸다.

숙정에게는 원룡(元龍), 원호(元虎), 원구(元龜), 원린(元麟), 원상의 5형제가 있어서 중선은 큰아들 원룡의 6세손이다. 행년(1417~1456)은 막내집 원상의 증손자인데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일가 8명이 화를 입어 멸문이 되었다. 아들 하나가 몸중에 의해 목숨을 건져 후손이 번졌고 주로 경상도에 많이 살고 있다.

전남지방에 많이 살고 있는 순천박씨는 중선의 넷째 손자 문겸(文謙)의 자손과 중선의 아우 숙선(叔善)의 자손으로 문겸의 자손들은 주로 순천지역, 숙선의 자손은 나주와 고창 등에 많이 살고 있다.

2000년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27,209가구 87,631명이고 전남에는 959가구 2,941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3호, 1985년 조사에서는 15호 52명이 2000년 조사에서는 11가구 3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순천박씨 또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6) 진원박(珍原朴)씨

시조는 진문(進文)이다.

그는 고려 때 대장군이며 진원군(珍原君)에 봉해져 후손들이 본관을 진원이라 하였다. 또 진원이 백제 때 구사진혜현(丘斯珍兮縣)이었으므로 진원고읍(珍原古邑)을 구진읍이라고도 하였기

때문에 구진박씨라고도 한다.

범박씨 자료에는 진문은 박혁거제의 42세손이고 밀양박씨 시조 언침(彦沈)의 11세손 태화(太和)의 둘째 아들 한(翰)이라고 했다.

그러나 1981년에 발행한 「진원박씨 대동보」에는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진원박씨 전남 세가의 증조는 시조의 8세손 희중(熙中)으로 그는 순천박씨 이공(而恭)의 사위며, 조선조 태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직제학(藝文官直提學)을 지냈다. 외교행례에 밝아 일본에도 다녀왔으며, 김제의 벽골제(碧骨堤)를 만들 때 경차관으로 공사를 감독하여 완공을 보았고, 홍문관 제학 겸 대사간(大司諫)으로 있을 때 하연(河演)의 비례를 상소한 뒤 벼슬을 버리고 진원으로 귀향하여 일생을 마쳤다.

그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맏아들 휘생(暉生)은 성균관 생원으로 보성선씨인 처가를 따라 보성으로 옮겨가 보성종파(寶城宗派), 곤생(坤生)은 장성중파(長城中派), 진생(進生)은 장성계파(長城季派) 파조가 되었다. 보성종파는 11세에 이르러 흥원(興原, 성균관 진사)은 보성종파를 계승하고, 계원(繼原, 성균관 진사)은 보성중파, 윤원(胤原, 성균관 생원)은 보성계파가 되었다.

진원박씨중 가장 번성한 파는 보성중파며 1,370가구이고, 파조 윤원의 증손 광전(光前, 1529~1597)은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임진·정유왜란 때 창의한 의병장으로 또 학자로 추앙 받는 명현이다.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진원박씨는 전국적으로 7,403가구 23,839명으로 나타났다. 전남에는 26가구 72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나산면에 6가구가 살았고 1985년 조사에서는 5가호 14명이 2000년 조사에서는 8가구 2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충주박(忠州朴)씨

시조는 영(英)이다.

그는 신라 54대 경명왕(景明王, 재위 917~924)의 다섯째 아들인 언창(彦昌)의 11세손이자 고려 조에서 첨의정승(僉議政丞)에 오른 원정(元挺)의 둘째 아들로 부정(副正)에 올랐다. 중원(中原, 충주의 옛 이름)에 세거했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충주로 삼았다.

이 집안에서 현달한 사람은, 고려조에서는 시조의 아들 신(臣)이 검교신호위 대장군(檢校神號衛 大將軍), 증손 득승(得升)이 첨의평리(僉議評理)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효함(孝誠)이 여러 고을 목사를 거쳐 강릉부사에 올랐고 표리(表裏)를 하사 받았으며, 형무(衡武)가 충청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상(祥, 1474~1530)은 1501년 식년 문과에 급제한 후 1526년 문과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나주목사가 되었다. 청백리에 뽑혔고, 성현(成俔), 신광한(申光漢) 황정욱(黃廷彧), 서거정(徐居正) 이후의 대문장가 4명 중 1인으로 칭송되고 있다.

우윤(右尹)을 지낸 우(祐)의 아들인 순(淳, 1523~1589)은 1553년 문과에 장원하여 1572년에 영의정이 된 후 14년간이나 재직해 명덕재상(明德宰相)으로 손꼽힌다.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충주박씨는 전국에 8,559가구 27,486명이 살고 있고 전남에는 352가구 1,065명이 살고 있다.

충주박씨의 함평 입향은 다른 성씨에 비해 아주 늦다.

시조 영의 24세손인 귀환(貴桓, 1895~1929)이 1920년대 초에 광산구 선암동에서 함평읍 함평리로 이거 정착했다.

배출인물

박세영(朴世榮) : 1949. 7. 16 족보명 광준(光竣). 군청 과장 역임.

8) 함양박(咸湯朴)씨

함양박씨는 신라 시조 혁거세의 29세손 경명왕의 셋째아들 언신(彦信)의 후예이나 소목(昭穆)이 미상하여 고려 때 예부상서를 지낸 선(善)을 시조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그의 8세손에 이르러 6파로 나뉘어졌는데 문원공파 중 언(彦)의 아들 성건(成乾)이 1472년 문과에 급제하여 장수현감을 지내다가 영암군 구림으로 남하하여 오한공파(五恨公派)의 파조가 되었다.

그의 8세손 순검(淳儉), 순곤(淳坤) 형제가 1650년경 강진군 성전면 우창동에서 월야면 용암리 은암 마을에 정착하여 후손이 번창했다.

순검의 손자 이완(履完, 1705~?)이 1740년경 신광면 원산리 학동에 이거하여 학동파 동면 가덕리에 세거하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20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34가구 153명이 살고 있고 2000년 조사자료에는 21가구 7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 인물

박성오(朴省吾) : 호 조양헌(朝陽軒). 병사직 역임.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 2등훈에 올랐고 병자호란 때 많은 공을 세웠다.

17. 방씨(房氏)

방씨는 원래 중국 요(堯)임금의 아들 단주(丹朱)가 방읍후(房邑侯)에 봉해져 “방”을 성으로 삼게되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 “방(房)”씨는 당나라 방현령(房玄齡)의 7세손 계홍(季弘)이 고구려의 요청으로 동래하여 남양에 정착하여 살면서 남양방씨로 사성되었다고 하며, 문헌에 남양·수원을 비롯 23개 본관이 있다고 했으나, 수원방씨의 시조 정유(貞儒)가 계홍의 손자이듯 모두 남양에서 분적했다고 한다.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씨는 전국에 11,033가구 35,365명이 살고 있고, 200가구 이상인 본관은 남양 7,038가구, 남원 933가구, 온양 2,567가구, 밀양 240 등 4개 본관이다.

전남에는 769가구에 2,242명의 방(房)씨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남양방(南陽房)씨

시조는 계홍(季弘)이며 벼슬이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삼중대광보국(삼중대광보국)에 이르렀다.

그의 아들 의강(儀康)은 고려에서 중서문하평장사, 손자 진유(珍儒)는 예부상서·직제학 등을 역임했다.

또 규(珪)는 경주부윤을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구달(九達)이 태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군자부정(軍資副正)을 지냈고, 계현(繼賢)이 영해부사, 옥정(玉精)이 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 문학(文學), 귀온(貴溫)이 중종 19년(1519)에 문과에 급제 정언(正言)을 지냈다.

2000년 조사에서 전남에 살고 있는 남양방씨는 124가구 355명이며, 함평군에는 8가구 27명이다.

18. 배 씨(裴 氏)

시조는 기타(祗沱)다.

그는 신라 개국 이전의 6촌 촌장의 한 사람인 금산가리촌장(金山加利村長)으로 신라 개국 1등공신이 되었다.

그러나 연대가 오래되어 고증이 실전되어 그의 후손인 현경(玄慶)을 중조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경은 왕건을 도와 고려를 개국하고 1등 공신이 되었는데, 왕건을 같이 도왔던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知謙), 유검필(庾黔弼)과는 형제의 우의가 있어 그 후손은 현재에도 동족으로 부르고 있고 혼인도 하지 않는다.

배씨는 시조의 세거지인 한기부(漢祗部)가 경주로 바뀜에 따라 경주배씨로 본관을 하였다.

그러나 경주를 본관으로 하는 계통과 달성(대구)으로 하는 계통이 있다.

또 분성(盆城), 성산(星山), 흥해(興海)배씨도 있다.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59개 본관 115,900가구 372,064명이 살고 있고, 10,000호가 넘는 본관은 성주 27,829가구, 분성(김해) 22,564가구, 달성 18,831가구, 성산 11,293가구로 모두 4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달성 167가구, 경주 7가구의 2개 본관이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달성(대구 7가구 포함) 105가구 477명(대구 44명 포함)명, 경주 42가구 232명, 성주 6가구 23명의 3개 본관이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는 135가구에 42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달성배씨가 104가구에 320명이 거주하고 있어 전체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대구가 7가구, 성주가 6가구, 경주가 5가구, 나주가 4가구, 분성(김해)이 2가구이며 나머지는 1가구이거나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배씨는 갑오 대동보(甲午大同譜)에 의해 상계(上系)를 세웠으나 이를 부정하고 다르게 수보(修譜)한 계과도 있다.

1) 경주배(慶州裴)씨

도시조는 지타, 중조는 현경이고 그는 고려개국 1등훈으로 서훈되었으며 도통병마사대장(都統兵馬使大將)에 이르러 경주라는 본관을 썼다.

경주배씨는 배씨의 원류이다.

중조 현경의 13세손 극렴(克廉, 정절공 성주백-星州伯)은 조선 태조를 도와 조선개국원훈(朝鮮開國元勳)에 올랐고, 21세 응록(應祿)은 무과에 급제하여 돈녕부 주부를 지냈으며,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하여 선무원종공신이 되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함평읍에 7가구가 살고 있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42가구 232명이 살고 있었으나 현재는 5가구 15명만이 살고 있을 뿐이다.

2) 달성배(達城裴, 대구배-大邱裴)씨

시조는 기타(祗沱), 중조는 현경(玄慶)이고, 1세조는 현경의 6세손 운룡(雲龍)이며, 달성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달성배씨로 하였다.

영조 40년(英祖, 1764)에 분성·달성·홍해·대구의 4개 본관이 갑신합보(甲申合譜)를 편찬할 때 운룡을 달성 본관의 시조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고려 공민왕 때 달성군에 봉해진 천경(天慶)의 아버지 정지(廷芝)의 비문에 나타난 계대를 밝히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달성배씨 중 현달한 사람은, 고려조에서 운룡의 아들 숙(淑), 증손 문진(問晉)이 평장사를 지냈다.

정지(廷芝)는 탐라의 김성(金成) 모반사건을 평정한 공으로 상장군이 되었고, 그의 아들 3형제가 모두 현달했는데, 맏아들 성경(成慶)은 충선왕 4년(1312)에 문과에 급제하여 판통례문하사(判通禮門下事)로 있다가 홍건적란에 순절하였고, 둘째 아들 천경(天慶)은 공민왕 때인 1354년 왕을 호종한 공으로 단성강절공신(端誠康節功臣)이 되어 금자광록대부로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으며, 셋째 아들 함경(咸慶)은 검교장군(檢校將軍)에 올랐다.

고려말에 문우(文佑)는 직제학, 을균(乙均)은 상장군, 을서(乙瑞)는 예부상서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맹달(孟達)이 세조때 병조판서를 지내고 곤산군(昆山君)에 봉해졌고, 을보(乙甫)는 직제학에 올랐으며, 사원(師元)은 세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에 올랐다.

함평군에는 아직도 대구를 본관으로 쓰고 있는 가구가 7가구가 있으나 여기서는 달성에 포함하였다.

함평에 거주하고 있는 파는 회음공파(晦陰公派), 판서공파(判書公派), 청정공파(淸靖公派)가 살고 있는데 판서공파의 세가 가장 약하다.

신광면 유천리, 손불면 양재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함평에 제일 먼저 입향한 선조는 회음공파의 위(緯)로 그는 중시조 현경의 22세손이며 1590년경 장흥군 용산면 장전리(長田里)에서 신광면 유천리에 정착하였고 묘소는 손불면 월천리 비천동에 있다.

달성배씨는 함평에 거주하고 있는 배씨 가운데 가장 많은 가구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 현재 104가구 32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인물

배 위(裴 緯) : 1558~? 통덕랑을 지냈다.

배상오(裴相五) : 1928. 12. 15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3) 성주배(星州裴, 성산배-星山裴)씨

1세조는 위준(位俊)이다.

그는 고려 때 삼중대광으로 벽상공신(壁上功臣)에 올랐으며, 그의 현손 인경(仁敬)이 충선왕 때 추밀원사(樞密院事)를 지낸 후 흥안군(興安君, 성주의 옛 이름)에 봉해져 후손들이 성주를 본관으로 하고 세대를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영조 40년(1764)에 간행한 갑신합보(甲申合譜)에는 중시조 현경의 현손인 사혁(斯革, 삼중대광)의 둘째 아들 천룡(天龍)을 1세조로 기록하고 있는데, 소목(昭穆)이 미상하여 위준을 1세조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이 있다.

인경의 아들 문적(文迪)과 무적(武迪)의 손이 번성하고 현달했는데 문적의 손자 진손(晉孫)이 고려말에 판추밀원사를 지내고 조선조 개국공신이 되어 공조판서를 지냈으며, 진손의 아우 진후(晉后)가 세종조에 좌사간에 올랐고 청백리에 뽑혔다.

삼한벽상공신 무적의 6세손 극렴(克廉)은 조선조 개국 1등공신이 되어 문하좌시중을 역임했고 성산백(星山伯)에 봉해졌다.

숙(璠)은 명종 때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지은 대학자며, 덕문(德文)은 한성부윤을 거쳐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성주 탈환에 공을 세워 선무원종 2등공신에 책록되었고, 시량(時亮)이 효종 때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200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평군에는 6가구 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9. 백 씨(白氏)

문헌에 백씨의 근원은 황제(黃帝)의 후손인 백을병(白乙丙)의 후예라고 기술되어 있다.

을병의 원손인 우경(宇經)은 소주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이부상서를 지냈으나 간신의 모략으로 당을 떠나 선덕왕 원년(780)에 귀화하여 계림 자옥산 밑에 영월당, 만세암(萬歲菴)을 짓고 정착하여 우리 나라 백씨의 시조가 되었다.

백씨는 문헌에 184개 본관, 또는 157개 본관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모두가 수원백씨에서 분적하였으며,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4개 본관 109,677가구 351,275명이 살고 있고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수원 98,748가구, 남포 1,816가구, 경기 1,530가구, 광주 1,020가구의 4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수원 129가구, 전주 1가구로 집계되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있는 본관이 수원 134가구 602명 1개 본관이고,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이 남포 1명, 대흥 1명의 2개 본관으로 모두 3개 본관으로 나타났었다.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는 93가구 29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수원이 87가구 279명이 거주하고 있어 백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수원백(水原白)씨

시조는 우경(宇經)이다.

그는 중국 소주(蘇州) 사람으로 황제 현원(軒轅)의 16세손 을병(乙丙)의 후손이다.

780년 신라의 자옥산(紫玉山) 아래에 정착 신라조에서 벼슬을 하였다.

수원 백씨는 신라의 경명왕(景明王. 재위 971~923)때 중랑장(中郎將)을 지낸 창직(昌稷)을 중시조 1세로 하고 있다.

본관의 유래에 대해서는 중시조의 증손 휘(揮)가 고려 때 대사마 대장군(大將軍)으로 수원군(水原君)에 봉해졌다는 설과 중조의 9세손인 천장(天藏)이 중국에서 이부상서를 지내고 우승상으로 수성백(隋城伯)에 봉해지고 고려에서는 수원백으로 봉해졌으므로 본관을 수원으로 했다는 설이 있다.

수원백씨로 현달한 사람은, 고려조에서 이정(頤正)은 안향(安珦)의 문하생으로 충렬왕 때 연경(燕京)에 들어가 주자학을 연구하고 돌아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전파했으며, 조선조에서는 인견(仁健)이 선조 때에 우참찬(右參贊)을 지냈고 청백리에 뽑혔으며, 그의 아들 유함(惟咸)이 광해군 때 직제학을 지냈고, 광훈(光勳)과 광홍(光弘)은 선조시대에 문필가로 이름이 높았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87가구 279명이 살고 있고, 거의가 정신재공파(靜愼齋公派)다.

함평 입향조는 중시조의 23세손 술(述)이 1640년대에 장흥에서 손불면 학산리 지호(芝湖)에 정착했으며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

입향조의 묘소는 학산리 산 104-2 번지에 있다.

배출인물

백 술(白 述) : 효자로 이름 높았고 수원백씨의 함평 입향조이다.

백흥재(白興載) : 1687~1770 시조의 25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냄

백길성(白吉成) : 나산고등학교장 역임

20. 서 씨(徐氏)

원래 서씨는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奇準)이 위만에게 쫓겨 지금의 이천 땅 서하역(徐河域)에 자리 잡고 산 것이 시초라고 한다.

기자와 관련이 있는 성씨는 서씨 외에 청주한씨, 대원 선우씨(鮮于氏), 행주기씨 등이 있다.

모든 서씨들은 신일(神逸)을 원조로 하고 있다.

문헌에 서씨는 165개 본관으로 되어있으나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57개 본관 215,412가구 693,954명으로 1,000가구가 넘는 본관은 달성 132,270가구, 이천 53,407가구, 대구 7,645가구, 부여 4,486가구, 연산 1,980구, 경주 1,637가구, 장성 1,540가구로 모두 7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이천 420가구, 달성 23가구의 2개 본관이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이천 368가구 1,494명, 달성 26가구 123명, 남양 4가구 23명, 남평 3가구 13명, 인천 2가구 9명, 장성 1가구 11명, 연산 1가구 3명으로 7개 본관이며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이 밀양 2명, 경주, 부여가 각 1명으로 3개 본관 합하여 10개 본관이 살고 있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 서씨들은 330가구에 892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이천서씨가 284가구, 달성서씨가 19가구로 두 본관이 함평 거주하는 비율이 91.8%에 달한다. 나머지는 나주가 9가구, 인천이 4가구, 경주가 3가구, 함평이 2가구이고 그 외 1가구씩 거주하는 본관이 9개 본관, 가구없이 거주하는 본관이 9개 본관으로 나타났다.

1) 달성서(達城徐. 大邱徐)씨

시조는 한(閑)이다.

그는 고려 때 조봉대부 군기소윤(朝奉大夫軍器少尹)을 지냈으며 2~5세까지는 세계가 실전되어 알 수 없다.

서거정(徐居正) 등 많은 인물을 배출한 명문으로 달성(대구의 옛 이름)에 후손이 세거했기 때문에 본관을 달성이라 해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함평에는 사가공파(四佳公派. 파조 유달-惟達)가 살고 있는데 입향조는 시조의 13세손인 세방(世芳)이며 1589년 기축옥사 때 서울에서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에 이거 정착했으며 그 후손이 무안, 해남군으로 번져갔고, 2000년 조사에 따르면 19가구 63명이 살고 있고 많이 살고 있는 곳은 함평읍 내교리다.



세방의 묘소는 함평읍 기각리 산 7-1번지에 있다.

배출인물

서세방(徐世芳) : 1538~? 사간원 헌납을 지냄. 함평군 입향조

서통망(徐統望) : 시조의 14세손. 세방의 아들. 호조참의를 지냈다.

서상국(徐相國) : 1897~작고. 대한야구협회장. 제 2대 국회의원을 지냄

서 인(徐 仁) : 해군대령으로 예편하여 인천해경대장을 지냈다.

2) 이천서(利川徐)씨

서씨 중 원종(元宗)으로 일컬어 오고 있으며 시조는 신일(神逸)이다.

그는 신라 효공왕(孝恭王) 때 아간(阿干) 벼슬을 지내다가 국운이 다한 것을 알고 이천의 효양산록(孝養山麓)에 머물며 후진 양성에 전력하였다.

후손들이 시조의 은거지인 이천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1985년 조사에 의하면 함평군에 365가구 1,494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9위로 상위에 속한다.

함평에는 원숙공파(元肅公派)와 강호공파(江湖公派), 그리고 정암공파(正巖公派)가 사는데 강호공파의 손들이 번성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다.

원숙공파의 함평군 입향은 고려조로 거슬러 올라가 함평의 토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객반 성씨로는 인동장씨에 이어 두 번째로 입향의 연대가 빠르다.

원숙공파의 함평 입향조는 희찬(希贊)이다.

그는 시조의 11세손으로 고려 고종 때 등과하여 이부시랑, 이어 기성군(箕城君)에 본작 되는 등 중추적인 인물이었는데 충렬왕 때 정국이 혼란함을 보고 환멸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1290년경 갈동면(葛洞面. 현 월야면 용월, 양정리 일대)에 이거 정착했다.

그의 현손 중 맹원(孟源)이 1380년경 강진으로 이거하여 그 후손이 강진과 해남으로 번졌다. 묘소는 월야면 오수산에 있다.

강호공파(파조 연-演. 중조 인-麟-의 8세손)의 함평 입향은 원숙공파 보다 300여년 후이다.

중조 인의 10세손인 경춘(景春. 간-諫-의 다섯째 아들로 막내)이 1580년경 무안의 몽탄에서 엄다면 성천리 성암으로 이거 정착했으며, 경인(景仁. 간의 둘째아들)이 1590년경 대동면 백호리에 이거하였으나 그의 후손이 모두 무안과 영광으로 이거하여 번성하였으며, 경인의 7세손 중 몽철(夢喆)이 1750년대에 영광군에서 다시 대동면 백호리 보화촌으로 돌아왔고, 8세손 중 명추(命樞. 중조의 12세손)가 1750년대에 몽탄에서 함평읍 자풍리 비아로 이거 정착했다.

중조의 9세손이며 간의 동생인 인(訥)이 아들 경개(景介)와 함께 1590년경 대동면 금곡리에 이거 정착했으며, 증손 중 필인(必仁)이 나주의 문평으로 옮겨 정착했다.

정암공파(파조 승로-崇老. 시조의 23세손)는 시조의 33세손인 명택(命宅. 1780~1836)이 1800년 경에 무안군 몽탄에서 신광면에 이거하였고, 그의 증손 광인(洸仁)이 청계면으로 옮겨 그의 후



손은 모두 함평군을 떠났다.

이어 시조의 34세손인 치상(致祥)이 1830년경 영광군 군남면에서 나산면 구산리에 이거 정착하여 그 후손이 번성하였고, 시조의 35세손인 윤옥(崙玉)과 성옥(成玉, 1834~1877) 형제가 1850년대에 무안군 몽탄면에서 해보면 금계리로 이거하여 그 후손이 번성하였다.

군내에서 1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곳은 엄다면 성천리, 학교면 월산리, 대동면 금곡리, 백호리, 신광면 가덕리, 나산면 구산리, 해보면 금계리이다.

배출인물

원속공파

서희찬(徐希贊) : 1239~? 호 기은(箕隱). 시조의 11세손. 20세에 무과에 급제 이부시랑(吏部侍郎)을 지냈고 홍문계(洪文繼), 송송례(宋松禮)와 함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기성군(箕城君)에 봉작되었다. 서씨 함평군 입향조다.

서 간(徐 諫) : 1307~? 시조의 13세손. 희찬의 손자. 문과에 급제하여 병부시랑을 지냈다.

서윤무(徐允武) : 1389~? 호 용곡(龍谷). 시조의 16세손. 상주목사를 지냈다.

서 호(徐 顥) : 1456~1524 시조의 18세손. 대언(代言, 후에 승지-承旨-로 바뀜)으로 있다가 연산군의 혼정에 환멸을 느껴 귀향하였다.

서 묵(徐 默) : 1520~1588 호 효재(孝齋). 시조의 21세손. 이조좌랑을 지냈다.

서덕숭(徐德崇) :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통영성을 지키다가 순국하였다.

서상지(徐尙志) : 1623~1678 호 신재(新齋). 시조의 23세손.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을 지냈다.

서전회(徐甸淮) : 1654~1689 시조의 24세손. 효로 천거되어 지평을 지냈고 1689년 서인 축출 때 오두인(吳斗寅), 박태보(朴泰輔)와 함께 불고문까지 당한 후 노량에 유배되고 유배지에 도착하여 타계하였다.

서민국(徐敏國) : 1763~1815 호 효우당(孝友堂). 시조의 27세손. 시호 양정(襄靖). 문행으로 출사하였고 난을 평정한 공으로 함풍군(咸豐君)에 봉작되었다.

서봉관(徐鳳寬) : 1839~? 호 동강(東岡). 승정원 좌승지. 이조참판을 지냈다.

강호공파

서경인(徐景仁) : 중조 인(麟)의 10세손. 명종조에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강호공파 함평군 입향조이다.

서경춘(徐景春) : 경인의 아우. 병조좌랑을 지냈으며 정유재란 때 양곡과 군기를 싣고 의주행재소로 가던 중 왜적을 만나 포로가 되어 일본 대판성으로 끌려가 영광의 강항(姜沆) 등과 함께 포로생활을 하다가 3년만에 귀국하였고 선무원종 2등공신에 올랐다.

서국보(徐國寶) : 1629~1658 중조 인의 12세손. 전략장군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지냈다.

서국빈(徐國賓) : 1632~1692 국보의 아우. 허미수의 문하생. 1678년에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1681년 성균관 전적을 역임했다.



서윤수(徐潤洙) : 1917 준조 인의 21세손. 함평농림중학교장을 지냈다.

서윤택(徐潤澤) : 1921. 10. 29 중조의 21세손. 육군공병학교장, 육군공병감을 역임하였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 국가보훈처차관을 지냈다.

서인택(徐仁澤) : 1928. 3. 14 중조의 21세손. 한국통신공사 서광주전신전화국장을 역임했다.

서창호(徐暢護) : 1941. 6. 4 호 운봉(雲峰). 중조의 21세손. 목포대학교수로 재직중이다.

서영수(徐永洙) : 1941. 7. 19 호 삼성(三省). 유성섬유 회장, 재경함평군향우회장을 역임했다.

서상균(徐相均) : 1928. 1. 18 호 유당(柳塘). 중조의 22세손. 국회의원 비서관, 중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서동립(徐東立) : 1947. 2. 18 중조의 22세손. 노동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

서백규(徐栢珪) : 1948. 4. 19 중조의 22세손. 문학박사. 대학교수

서상숙(徐相淑) : 1955. 8. 8 중조의 22세손. 현 육군중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서상동(徐相童) : 1963. 4. 25 중조의 22세손. 의학박사. 의사

서희환(徐喜煥) : 1933. 9. 17~작고. 호 평보(平步). 중조의 23세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 수상, 세종대학교 교수역임.

서형종(徐炯種) : 1940. 5. 21 호 풍산(豊山). 중조의 23세손. 세무서 직세과장을 역임했다.

서영출(徐永出) : 1952. 9. 23 중조의 23세손. 육군중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정암공파

서성규(徐聖奎) : 1959. 2. 19 공학박사. 국립여수수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1. 선 씨(宣氏)

선씨는 중국 시평(侍平. 협서성 관중도 흥평현)에서 계출된 성씨로 노(魯)나라 대부 선백(宣伯)의 후예로 전한다.

2000. 11 통계국 조사 자료에 보성 10,821가구, 광주 521가구, 밀양 430가구, 전주 181가구, 이천이 134가구이며 미상이 7가구로 모두 12,094가구에 38,849명이 전국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보성선(寶城宣)씨

시조는 윤지(允祉)다.

그는 명나라 문연각 학사(文淵閣學士)로 우왕 8년(禡王. 1382)에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귀화하여 전라도 안렴사(按廉使)가 되어 해안지방에 침입하는 왜구를 섬멸하고 민생을 안정시켰으며, 조선이 개국되자 벼슬을 버리고 보성에 은거하면서 육교진흥과 인재양성에 힘쓰니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보성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본관을 같이하면서도 고려말에 예의판서와 우문각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원지(元祉)를 시조로 하는 계통과 평장사를 지낸 천계(天桂)를 시조로 하는 계통이 있었는데 모두 한뿌리임이 밝혀져 1978년 합의에 의해 합보를 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 문무왕(文武王. 재위 661~681) 조(條)에 장군 선극(宣極)이 나오고, 「고려사」에는 고종(高宗. 재위 1213~1259) 때 내시소경(內侍少卿)을 지낸 선인열(宣仁烈)과 그 이후에 선종계(宣宗桂), 선지철(宣之哲), 선천주(宣天柱) 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 보성선씨와 다른 계통의 선씨가 우리 나라에 먼저 있었던 것 같다.

보성선씨는 크게 여섯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도촌파(道村派) : 파조·원지(元祉) → 조도파(鳥島派)라고도 하며 200여 가구가 된다.* 이하 다섯 갈래는 윤지(允祉)의 손자대에서 갈렸다. 윤지의 큰아들 안경(安景)은 구령·학령 두 아들을 두었고, 둘째 아들 안혁(安赫)은 광유·명유·청유의 세 아들을 두었다.

부사공파(府使公派) : 파조·구령(龜齡) → 영변부사를 지냈다. 전체 선씨의 60%를 차지하며 주로 장흥과 보성군에 살고 있다.

선전공파(宣傳公派) : 파조·학령(鶴齡) → 선전을 지냈다. 전체 선씨의 10%를 차지하며 주로 보성군에 살고 있다.

참판공파(參判公派) : 파조·광유(光裕) → 참판을 지냈다. 전체 선씨의 20%를 차지하며 주로 보성·남원·광산·강릉에 살고 광주선씨라 했던 문도(文道)의 후손이 포함되어 있다.

참의공파(參議公派) : 파조·명유(明裕) → 공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주로 고창·구례군에 살고 있다.

순무사공파(巡撫使公派) : 파조·청유(淸裕) → 순무사를 지냈다. 주로 경남 김해·전북 무주에 살고 있다.

전남에는 1,686가구 4,657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0가구 23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2. 성 씨(成氏)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씨는 전국에 15개 본관에 57,248가구 184,544명이 살고 있고, 창녕이 52,058가구, 강릉이 1,061가구로 이들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개 본관 이외는 모두 500가구 미만이 거주하고 있다.

전남에는 1,407가구에 4,435명이 거주하고 있고 함평군에는 20가구 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창녕성씨가 16가구, 강릉이 2가구, 나주가 1가구, 예산이 1가구가 살고 있다.

1) 창녕성(昌寧成)씨



시조는 인보(仁輔)다.

그는 고려 때 호장중윤(戶長中尹)을 역임한 창녕 토반이며, 고종 때(재위 1213~1259) 창성(創姓)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녕읍에서 서북 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그의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전설이 내려온다.

어느 해 겨울에 송경에서 지방관리의 하례 모임이 있었는데 그 곳에 갔다가 병사하자, 문하시중직에 있던 아들 송국(松國)이 아버지의 시신을 남쪽으로 운구할 때 현풍현(玄風縣)에서 유숙하는데, 밤사이에 눈이 내렸다. 시신의 주위에 호랑이 발자국이 있어 그 발자국을 따라 가니 호랑이 발자국이 끊긴 곳에 묘자리 넓이만큼 눈이 녹아 있어 그 자리에 묘를 쓰게 되었다.

창녕성씨는 시조의 손자 공필(公弼)·한필(漢弼) 대에 크게 두 파고 갈리고, 6세손에 내려와 판서공파(判書公派, 파조 기-紀)를 비롯 13개파로 갈렸다.

창녕성씨로 현달한 사람은 고려조에서 시조의 아들 송국이 문하시중, 손자 공필리 전객부령(典客副令), 한필이 찬성사(贊成事)를 지냈다.

여완(汝完)이 1336년 문과에 급제하여 우왕 때 정당문학상의(政堂文學商議)에 올랐으며 조선이 개국되고 태조가 검교문하시중 직을 내렸으나 사퇴하고 충절을 지켰다.

석린(石璘)은 고려 우왕 때 밀직제학을 지냈으며 조선개국에 참여하였고, 1415년에 영의정에 올랐으며, 아우 석용(石琿)은 대제학, 석연(石烟)은 형조·호조판서를 지냈다.

석용의 아들 달생(達生, 1376~1444)은 함길도 병마절제사·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석연의 아들 억(抑)은 공조판서·우찬성을 지냈다.

사달(士達)은 대제학, 승(勝)은 동지중추원사에 올랐고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사형되었다.

봉조(奉祖)는 창성부원군 우의정을 지냈고, 삼문(三問)은 좌부승지를 역임하였고, 집현전의 대학자로 손꼽혔으나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사형된 사육신 중 한 사람이다.

임(任)은 공조판서, 간(侃)은 집현전 박사, 준(俊)은 영의정, 현(僉)은 대제학, 희안(希顔)은 중종 8년(1513)에 영의정에 올랐고, 중엄(中淹)은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세창(世昌)은 우의정, 세장(世章)은 예조 등 여러 판서를 역임했고, 혼(渾)은 조선조의 대학자로 문묘에 배향되었고, 영(泳)은 이조판서, 우길(佑吉)은 호조판서, 원묵(原默)은 예조판서 등 어느 문종보다 학자와 높은 벼슬의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다.

200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 사는 창녕성씨는 전국의 2.03%에 해당하는 1,163가구 3,652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11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25가구 117명이 살고 있었고 2000년 조사에서는 16가구 5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3. 손 씨(孫氏)

손씨의 특성조는 서라벌 6촌 중의 하나인 무산 대수촌(茂山大樹村)의 촌장이었던 구례마(俱禮

馬)며 손씨로 사성(賜姓) 받은 것은 유리왕 9년(儒理王. 32)이었다.

문헌에는 118개 본관으로 나와 있으나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5개 본관 129,780가구 368,744명이 살고 있고, 1000가구 이상이 사는 본관이 밀양 85,333가구, 경주 24830가구, 안동(일직계) 7,714가구, 평해 4,104가구, 경기 1,772가구, 달성 1,279가구의 6개 본관이다.

이 중 안동은 손씨로 쓰고 있으나 계보를 달리하는데 원래 순(筭)씨였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밀양 90가구, 경주 2가구의 2개 본관이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는 본관이 밀양 68가구 262명, 경주 6가구 37명, 안동 1가구 4명, 청주 1가구 9명의 4개 본관이고,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살고 있는 본관이 보성 4명, 평해 3명, 진주·전주가 각각 1명으로 4개 본관, 합하여 8개 본관이었다.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는 71가구 216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밀양이 59가구, 경주가 7가구로 손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보성이 2가구, 남원이 1가구, 안동(일직)이 1가구 해주가 1가구를 차지하고 있고, 가구 없이 거주하는 본관으로 김해, 나주, 창녕, 평해 등 4개 본관이 있었다.

1) 경주손(慶州孫)씨

시조는 순(順)이다.

그는 신라 흥덕왕 때 살신성효(殺身成孝)한 국효(國孝)였는데 후대가 실전되어 고려때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지낸 경원(敬源)을 기1세조로 세대를 이어오고 있다.

경주손씨 중 현달한 인물은 1세조의 증손 사성(士晟)이 조선조 세종 때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 계성군(鷄城君)에 봉해졌다.

그의 아들 소(昭)는 세조 5년(1459) 문과에 급제하여 이시애란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적개(敵愾) 2등공신이 되고 안동부사와 진주목사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중돈(仲墩)이 1489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와 이조판서, 대사간 등을 역임했다.

번(蕃)은 전시 문과에 급제하여 편수사(編修事)가 되어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대사성에 올랐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2가호, 1985년 조사에서는 6가구 37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2000년 조사에서는 7가구 1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밀양손(密陽孫)씨

시조는 순(順)이다.

그의 선계는 신라 6촌 중 대수촌의 촌장 구례마며 그가 득성조다.

득성조부터 순에 이르는 세계는 실전되었고 시조 순은 신라 흥덕왕 10년(興德王. 835)에 효자로서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손자 익감(翼減)이 공을 세워 응천군(凝川君. 밀양의



옛 이름)에 봉해짐으로서 후손들이 본관을 밀양으로 하였다.

중흥조인 공훈(兢訓. 시조의 7세손)은 고려개국공신으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오르고 광리군(廣理君)에 봉해졌고, 그의 9세손 변(抃)은 상서좌복사(尙書左僕射)를 지냈다.

효려(孝麗)는 평장사, 빈(斌)은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충혜왕 복위 1년(1340)에 일어난 조적(趙迪)의 난을 평정하여 금자광록대부에 올랐고 상장군을 거쳐 밀성군에 봉해졌다.

함평군에 거주하는 파는 거의 나주와 보성파며 68가구 232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거주 씨족 순위 52위로 중상위를 차지한다.

나주와 보성파의 파조는 모구 현감 중견(仲堅)의 증손인 책(策)의 아들이다.

책은 고려왕조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수주목사(樹州牧使)에 이르렀는데 조선왕조가 개국되자 이에 반대하여 처형되었다.

그의 아내 원주이씨가 3형제를 데리고 호남으로 왔는데 장자 검경(儉敬)은 나주, 둘째 유경(有敬)은 보성, 셋째 계경(季敬)은 정읍에 살아 각각 파조가 되었다.

함평 입향조는 검경의 8세손이며 시조의 28세손인 술(述)이 숙종 9년(肅宗. 1683)에 나주에서 함평읍에 이거하여 살므로써 함평 세거가 시작되었고, 후에 보성파의 후손이 손불면 석창리 해창에 옮겨와 정착했고, 후손이 석성리로 퍼졌다.

입향조 술의 묘소는 함평읍 수호리 대등에 있다.

배출인물

손창환(孫昌煥) : 1909~작고. 1950년대 초 서울 적십자병원장을 지내고 1957. 6 ~ 1960. 4 까지 보건사회부장관을 역임했다.

24. 송 씨(宋氏)

송씨 상계보(上系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송씨의 도시조는 당나라에서 호부상서를 지낸 주은(柱殷)인데 귀화의 내역은 자세히 전하지 않는다. 그의 7세손 순공(舜恭)의 후손 자영(自英)이 세 아들을 두었는데 큰 아들 유익(惟翊)은 여산(礪山), 둘째 천익(天翊)은 은진(恩津), 셋째 문익(文翊)은 서산(瑞山)송씨의 비조(鼻祖)가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본관으로 분관되었으나 분관된 시조가 모두 이들의 후손들이다.

문헌에는 172개 본관이 있다고 하였으나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55개 본관 196,641가구 634,345명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여산이 72,763가구, 은진 64,590가구로 송씨 전체 가구의 69.8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두 본관이 송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여산 69가구, 신평 32가구, 은진 8가구의 3개 본관이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여산 79가구 348명, 남양 7가구 33명, 은진 8가구 33명, 김해 5가구 32명, 홍주 5가구 28명, 문경 3가구 12명, 예산 2가구 8명, 덕산 1가

구 8명, 청주 1가구 7명, 신평 1가구 5명, 연안 1가구 4명, 진천 1가구 3명, 홍양 1가구 1명으로 13개 본관이며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살고 있는 본관이 양주 신평(구진-구진-의 후손), 광주가 각각 2명, 함천, 회덕, 밀양, 철원, 신안, 신평(자은-자은-의 후손)이 각각 1명으로 9개 본관, 합하여 22개 본관이 살고 있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여산 75가구, 신평 17가구, 은진 7가구, 신평 6가구, 홍주 4가구, 나주, 남양, 남평, 연산이 각기 3가구, 문경, 청주가 각기 2가구, 광주, 김해, 마산, 밀양, 예산, 의성 등이 각기 1가구씩 거주하고 있고,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은 강음, 남원, 여주, 은율, 전주, 진천, 회덕 등 모두 7개 본관이다. 따라서 함평에 거주하는 본관은 모두 24개 본관이다.

1) 김해송(金海宋)씨

시조는 천봉(天逢)이다.

그는 충숙왕 17년(1330)에 문과에 급제하여 우왕 때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첨서밀직사사(僉書密直司事)에 올랐고, 김해군(金海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김해를 본관으로 세계를 이어오나, 그의 손자 자교(子郊)의 아들 이름이 실전되어 조선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참의와 경상도 순찰사를 지낸 길정(吉貞, 자교의 손자)을 중흥조로 하여 계대하고 있다.

길정의 맏아들 중문(仲文)은 문종 때 급제하여 동래부사를 역임했고 이시애란을 평정한 공으로 원종(原從) 1등공신에 올라 오위장을 지냈고, 둘째 아들 인문(仁文)은 목사를 역임했다.

중문의 아들 희명(熙明)은 무과에 급제하여 진주 병마절도사를 지냈고, 부호군 덕립(德立)의 손자 규상(奎祥)이 한성판윤을 지냈다.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김해송씨는 전국에 1,204가구 3,8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가구 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곳에 김해송씨를 싣는 이유는 1984년 군사와 1999년 군사에 김해송씨가 실어있기 때문이다.

2) 남양송(南陽宋)씨

시조는 규(奎)이다.

그는 당나라 한림학사였는데 간신의 모함을 입자 신라 경애왕 3년(926)에 7학사와 함께 동래하여 경순왕의 후대로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냈으며, 신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남양 송주동(宋主洞, 현 화성군 남양면 송림리)에서 여생을 마쳤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남양을 본관으로 삼고 세대를 이어오고 있다.

남양송씨는 크게 나누어 고려말에 감찰대부를 지내고 남양군에 봉군된 세보(世輔)를 파조로 하는 도촌파(道村派)와 문하시랑을 지낸 공절(公節)을 파조로 하는 안서파(雁西派)로 갈렸고, 안서파에서 파조의 증손인 안례(安禮, 청도군수를 지냄)가 서호파(西湖派)의 파조가 되어 갈렸다.

남양송씨로 현달한 사람은, 고려조에서 세보의 아들 경화(景華)가 평장사, 손자 백문(伯文)이



판삼사사(判三司使)를 지냈고, 공절의 아들 침(琛)이 문하시중을 역임하고 남양군에 봉군되었으며, 손자 인(寅)이 고려말에 문하시중을 역임했다.

조선조에서는 천생의 현손 세충(世忠)이 사헌부 감찰을 지냈고, 임진·정유왜란 때 덕린(德麟), 덕일(德駟) 등이 의병과 관군을 이끌고 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3구 1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3) 신평송(新平宋)씨

원래 신평·홍주송씨는 여산송씨와 시조를 같이하였으나, 여산에서 분적하였는데 까닭은 병란으로 인하여 신평·홍주송씨가 보첩을 잃어 계대를 밝힐 수가 없어 홍주송씨는 평(桴)을 시조로 하고, 신평송씨는 다시 구진(丘進)과 자은(自殷)을 시조로 하는 계열로 나뉘어졌다.

함평에 살고 있는 신평송씨는 시조를 구진으로 하는 계열이다.

시조 구진은 연산(連山)에서 세거하였고, 고려 때 서운관정 겸 습사도감판관(書雲觀正兼 習射都監判官)을 역임했으며 후손들이 시조의 선계가 살던 신평(홍주의 속현)을 본관으로 하였다.

신평송씨는 진광공(震光公), 해남공(海南公), 노송공(老松公), 참판공파(參判公派)로 분파되었고, 현달한 인물로는 조선조에서, 병조참판 구(龜)의 증손 흠(欽)이 성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중종 때 이조·병조판서와 우참찬을 역임하였고, 태(泰)의 아들 순(純)은 선조 때 대사헌·우참찬을 지냈다.

진우(鎭禹)는 한말 독립운동가며 동아일보 사장을 지냈다.

함평군 입향조는 참판공파의 승은(承殷)이다.

그는 시조의 16세손으로 1650년경 나산면 삼축리 상축에 이거 정착하였다.

2000년 현재 신평송씨는 17가구 4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배출인물

송승은(宋承殷) : 1614~? 호 영사정(詠四亭). 시조의 16세손. 금천찰방(金川察訪)을 지냈으며 1637년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와 있다가 1650년경 나산면 삼축리상축으로 이거하여 정착했다.

4) 여산송(礪山宋)씨

시조는 유익(惟翊)이다.

그는 고려조에 은청광록대부 추밀원부사(銀靑光祿大夫樞密院副使)에 추증되었으며 그의 4세손이고 중시조인 송례는(松禮)는 고려 원종(元宗, 재위 1260~1274) 때 문하시중 상장군(上將軍)을 역임 여양(礪良, 여산의 옛 이름) 부원군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여산으로 하였다.

시조의 아들 숙문(淑文)이 고려 원종 때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고, 증손 송례(松禮)가 문하시중·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에 올라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에 봉작되었으며, 그의 손자 대에 운(惲)을 파조로 하는 원윤공파(元尹公派), 방영(邦英)을 파조로 하는 밀직공파(密直公派), 원

미(元美)를 파조로 하는 소윤공파, 인(璘)을 파조로 하는 지신공파, 서(瑞)를 파조로 하는 정가공파(正嘉公派)의 5개 파로 갈렸는데 함평에서 살고 있는 파는 소윤공(少尹公), 지신공파(知申公派)며 1985년 조사에서 79가호 348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씨족 순위 50위로 나타났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75가구 21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산송씨의 함평군 입향은 다른 성씨에 비해 늦은 편이다.

소윤공파가 먼저 들어왔는데 입향조는 시조의 22세손인 신옥(臣玉)으로 1800년경 무안군에서 나산면 덕림리에 이거하여 정착하였고, 묘소는 덕림리 석곡산 갑좌에 있다.

지신공파의 입향조는 시조의 22세손인 치옥(致玉)이며 1820년경 대동면 금곡리에 이거 정착하였는데 후손이 번창하여 먼저 들어온 소윤공파 보다 가구가 많다.

배출인물

송신옥(宋臣玉) : 1760~? 신평송씨 함평군 입향조

송기옥(宋基沃) : 1932. 10. 27 상공부 서기관을 지냈다.

5) 은진송(恩津宋)씨

시조는 대원(太原)이다.

그가 고려조에서 판원사(判院事)를 지내고 은진군(恩津君)에 봉해짐으로 하여 후손들이 은진을 본관으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의 상대는 자영(自榮)의 둘째 아들 천익(天翊)의 손으로 전하나 선계를 고증할 문헌이 전하지 않는다.

그의 증손 명의(明宜)가 공민왕 11년(1362)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집단(司憲府執端)에 올랐는데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충남 대덕군 동면 신촌리(新村里)에 낙향하여 살았다.

인수(麟壽, 세량-世良-의 아들. 1487~1547)가 대사헌·한성부 좌윤을 지냈으며, 기수(麒壽, 세충-世忠-의 아들. 1506~1581)가 대사헌·이조판서를 역임했고, 시열(時烈. 1607~1689)과 준길(浚吉. 1606~1672)은 성리학의 대가로 문묘에 배향되었고, 능상(能相. 1710~1758)은 영조 때 이조판서와 우찬성을 지냈으며, 치규(稹圭. 1759~1838)는 당대의 거유로 형조판서를 지냈고, 근수(近洙. 1818~1902)는 고종 때 좌의정을 지냈다.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은진송씨는 전국에 64,590가구 208,816명이 살고 있어 송씨 55개 본관 중 2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922가구 3,044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8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6가구 38명이 그리고 2000년에는 7가구 19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6) 홍주송(洪州宋)씨

시조는 평(枰)이다.

홍주송씨의 선계는 여산송씨의 시조 유익(惟翊)의 12세손 말선(末善)이 홍주의 신평에 살면서



여산송씨에서 분적하였는데 그 후의 세계를 실전하여 후손들이 홍주와 신평으로 분관했다.
시조 평은 조선조 세조 때 세자익위사 익위(世子翊衛司翊衛)를 지내고 말년에 전남 담양으로 이거하여 여생을 마쳤다.

후손들이 선계의 세거지였던 홍주로 본관을 삼고 세계를 어어왔으며, 시조의 손자대에서 이락당공(二樂堂公), 우유당공(優遊堂公), 청심헌공파(淸心軒公派)의 3개 파로 갈렸다.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홍주송씨는 전국에 2,340가구 7,778명으로 송씨 51개 파 중 10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416가구 1,21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4가구 1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5. 신 씨(辛氏)

본래 중국의 성씨다.

천보년간(天寶年間. 742~755)에 신시랑(辛侍郎)이 엄시랑(嚴侍郎)과 함께 사신으로 신라에 왔다가 정착해 살게 되었고, 벼슬이 파락사(派樂斯)에 올랐다고 하나 그 이름과 세계가 실전되었다.

근세에 영산신씨의 1세조인 경(鏡)의 4세손 몽삼(夢森)의 묘소에서 지석(誌石)이 나왔는데 태사공 영주신공지묘(太師公寧州辛公之墓)라고 기록되어 있어 중도에서 분관된 영산과 영주의 본을 합본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실현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1개 본관 52,427가구 167,621명이 살고 있고, 1,000호가 넘는 본관은 영산 26,274가구, 영월 20,902가구, 평창 1,802가구, 경주 1,659가구 등 4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영산 50가구, 영월 13가구의 2개 본관이었으며 1985년 조사에서는 영주 22가구 86명, 영산 17가구 62명, 영월 8가구 37명의 3개 본관인데 영주와 영산이 같은 본관이므로 2개 본관이 있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1) 영산신(靈山辛)씨

경(鏡)을 1세조로 하고 있으며 원래 영주신씨였다.

그는 중국 8학사(八學士)의 한 사람으로 고려에 들어와 인종 16년(仁宗. 1138) 문과에 급제하여 문하시중 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지냈으며, 그가 살았던 중국의 강서성 대유현(大庾縣)에 있는 천축산(天竺山)과 생김새가 비슷한 창녕 영취산(靈鷲山) 아래에 뿌리를 내렸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지금의 경남 창녕군 영산면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의 9세손에 와서 3파로 갈렸다.

덕제공파(德濟公派) : 파조는 천(藏)이며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지냈으며 추밀원사를 지낸 지화(至和)의 아들이다.

초당공파(草堂公派) : 파조는 혁(革)이며 좌찬성을 지내고 영산부원군 군봉을 받았다.

중정공파(中正公派, 상장군파) : 파조는 성렬(成烈)이며 중정대부를 지냈고 공근(恭根)의 아들이다. 부원공파와 판서공파는 영월로 분관하였다.

친의 아들 인거(引裾)가 충목왕 때 정당문학을 역임했고, 9세손 경행(景行)이 선조 때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한산군수로 나갔다가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청란(淸亂) 3등공신에 올라 영성(靈城)부원군에 봉해졌다.

혁의 손자 예(裔)가 충목왕 때 첨의평리를 지내고 취성(鷲城)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유정(有定)은 조선개국공신에 올라 야인정벌군의 부원수가 되었고, 그의 아들 인손(引孫)이 형조판서예문관 대제학에 올랐으며, 인손의 아들 석조(碩祖)가 대사헌과 개성유수를 지냈다.

함평군 입향조는 경의 15세손인 함(諱)이다.

그는 고창현감을 지내다가 연산군의 폭정에 환멸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전국을 돌다가 1500년경 나산면 송암리에 터를 잡아 정착했다.

2000년 현재 함평군에는 23가구 4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송암리와 신평리에 많이 살고 있고 입향조 함의 묘소는 송암리에 있다.

배출인물

신 함(辛 諱) : 고창현감, 익산군수를 지냈고 영산신씨 함평군 입향조다.

신유장(辛裕章) : 성균관 진사를 지냈고 송암사에서 배향하였다.

신시만(辛時萬) : 유장의 아들.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신동욱(辛東旭) : 1870~1942 호 심사(心史). 김태원·전수용·심수택·정원집 의병장들과 항일의병을 거의한 바 있으며, 한일합방 후 소련제 무기를 수입 의거를 꾀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신동화(辛東華) : 1875~1946 호 춘송(春松). 동욱의 아우. 행장은 형과 같다

신호열(辛鎬烈) : 1914~작고. 호 우전(雨田) 한국의 대표적인 한학자로 동국대학교대학원 고려대학교대학원에 출강했고 대동야승 등 많은 고전을 국역했다.

신대규(辛大奎) : 광주향교 전교 역임

신기하(辛基夏) : 1941. 4. 27 ~1997 사법고시 합격. 목포지법 판사, 12~15대 국회의원 당선,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 등 역임

2) 영월신(寧越辛)씨

영산에서 분적했으며 시조는 경(鏡)이다. 크게 2파로 나누는데,

부원군파(府院君派) : 파조는 온(溫)이며 문과에 급제 영월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영산신씨 지화(至和)의 셋째 아들이다

판서공파(判書公派) : 파조는 한(爓)이며 이부판서를 지냈고 영산신씨 지화의 넷째 아들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4가구 38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6. 신 씨 (申氏)

신씨의 선계에 대해 곡주신씨보(谷州申氏譜)에 대청(大清)이 세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 춘관(春寬)은 고령신씨의 선계가 되고, 둘째아들 춘복(春福)은 곡주신씨, 셋째아들 곤(崑)은 평산신씨의 선계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씨는 문헌에 155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54개 본관 217,591가구 698,171명이 살고 있고, 평산 154,312가구, 고령 36,250가구다. 이들 두 본관의 합계가 190,862가구로 87.7%를 차지하고 있어 신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함평을 본관으로 하는 함평신씨는 전국에 105가구 371명이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평산 201가구, 고령 51가구 영광 1가구의 3개 본관이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평산 176가구 684명, 고령 68가구 282명, 아주 1가구 5명, 영원 1가구 1명으로 4개 본관이며,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살고 있는 본관이 영월 3명, 청송·광산·함평이 각 1명으로 4개 본관, 합하여 8개 본관으로 나타났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는 신씨는 모두 186가구에 46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함평 역시 전국의 신씨 분포와 같이 평산 111가구, 고령이 54가구로 이들 두본관이 함평에 거주하는 본관 88.7%를 차지하고 있다.

1) 고령신(高靈申)씨

시조는 성용(成用)이다.

그는 고려 때 문과에 급제했고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역임했다.

선대는 누대에 걸쳐 신라의 공족(公族)이었고 고려에 세거했으며, 본래부터 세거지였던 고령을 후손들이 본관으로 삼고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시조의 8세손 숙주(叔舟)가 영의정에 오르고 고령부원군에 봉해졌으며, 그의 다섯째 아들 준(俊)이 대사헌을 거쳐 고양부원군(高陽府院君)에 봉군되었고, 손자 종호(從濩)가 경기도 관찰사, 잠(潛)이 성종의 부마가 되었다

관찰사 면(漣)의 아들인 용개(用概)가 좌의정을 지내는 등 가문을 빛냈다.

함평군에는 귀래정파(歸來亭派)와 문충공파(文忠公派)가 살고 있는데 1969년 조사에서는 51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68가구 282명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는 54가구 12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 먼저 함평군에 입향한 사람은 귀래정파의 영(冷)이다

그는 시조의 11세손으로 1550년경 경기도 양주에서 학교면 금송리에 이거 정착했고, 그의 후손이 군내에 퍼져 함평에 거주하는 고령신씨의 주종을 이루며, 많이 살고 있는 곳은 금송리 반송과 나산면 구산리고, 문충공파는 학교면 죽정리에 사는데 모두 10가구 미만이다.

입향조 영의 묘소는 금송리 산 50번지에 있다.

배출 인물

신 영(申 冷) : 1506~1562 호 정양재(靜養齋) 고령신씨 함평군 입향조. 여절교위, 부사직(副司直)을 역임했다.

신 격(申 激) : 현감을 지냈다.

신영수(申永守) : 임진왜란 때 순국하였고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신세장(申世長) : 1691~1770 오위청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다.

신계륜(申溪輪) : 1954, 8. 1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 평산신(平山申)씨

시조는 승겸(崇謙)이다.

그는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태어났고 배현경 등과 함께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국을 세운 개국공신으로 개국원훈 대장군(開國元勳大將軍)이 되었다.

왕건과 함께 평주(平州, 평산)에 사냥을 나갔을 때 높이 떠서 날아오는 기러기 세마리를 보고 왕건이 “저 기러기를 누가 쏘아 떨어뜨릴 것이냐?”고 물었다.

이 때 승겸이 자원했고 왕건이 맨 뒤에서 날아오는 기러기를 맞추라고 하였다

명령대로 맨 뒤에서 날아오고 있는 기러기를 명중시켰으며 이에 감복한 왕건이 기러기가 날았던 땅 300결(結)을 하사하고 본관을 평산으로 삼게 하였다고 전한다.

고려조에서 중전(仲全)이 상호군에 올라 은산백(恩山伯)에 봉해졌으며, 윤공(允恭)이 예의판서, 아(雅)가 우왕의 국구(國舅)가 되었다.

조선조에서 효창(孝昌)이 호조판서, 상(商)이 세종 때 형조·예조판서 등을 역임했고, 개(槩)가 1447년 좌의정에 올랐고 세종의 묘정에 배향되는 등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평산신씨는 16개파로 나뉘어 있는데 함평군에는 사간공(思簡公), 문희공파(文僖公派)가 살고 있다. 1969년 조사에서는 201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176가구 684명이 살고 있었고, 2000년 조사에서는 111가구 29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내 집성촌은 대동면 연암리, 학교면 석정리다.

함평군 입향은 사간공파가 빠르며 입향조는 시조의 11세손인 반(磐)으로 1585년경 아들 옥련(玉連)과 함께 전북 남원에서 대동면 연암리 옥련동에 정착했다.

그의 현손 봉한(鳳翰, 명하-命夏-의 넷째 아들, 시조의 25세손)이 1590년대에 충남 은진으로 이거하여 그 후손이 충남 여산 등으로 퍼졌으며, 7세손 치만(致晩, 연창-鍊昌-의 아들, 시조의 27세손)이 1780년경 광주광역시 본양동으로, 8세손 광중(光中, 경대-慶大-의 둘째아들, 시조의 28세손)이 1800년경 전북 고부로, 9세손 재원(在元, 광섭-光涉-의 맏아들)이 1800년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으로 이거하여 모두 후손이 번창했다.

입향조 반의 묘소는 대동면 연암리 수현 장등에 있다



배출 인물

- 신 반(申 磐) : 1541~1597 시조의 21세손. 1585년경 함평군에 이거 정착함
- 신옥련(申玉連) : 정유재란 때 유지경(柳持敬)의 뜻을 좇아 의병을 일으켜 예교(曳橋)싸움에 참가하여 순국했다.
- 신광섭(申光涉) : 1757~1835 시조의 28세손 순조 때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유고 3권이 전한다.
- 신경정(申景禎) : ?~1636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진의 김수권 취하에 들어가 12월 말 경 광교산(光敎山, 현 서울 용산)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1937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했다.
- 신태권(申泰權) : 1881~1961 함평향교 직원(현 전교)을 역임했다.
- 신헌상(申鉉相) : 1914~ 1983 함평향교 직원을 역임했다.

27. 신 씨 (愼氏)

신씨는 중국 천수(지금 감숙성 우천도에 속한 지명)에서 계출된 성씨이다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신씨는 5개 본관 14,232가구 45,764명이 살고 있다. 거창 13,623가구, 황산 254가구, 서산 179가구, 진주 166가구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청송은 가구의 분포 없이 1명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송은 다소 의심스럽다.

2000년 현재 함평에서의 신씨 분포는 거창이 5가구 9명, 황산이 2가구 4명이 거주하고 있다.

1) 거창신(巨昌愼)씨

시조는 수(修)다.

그는 중국 개봉부(開封府) 출신으로 고려 문종 22년(文宗. 1068)에 송나라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귀화 정착하였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첨지정사(僉知政事. 종 2품)에 올랐다.

그의 7세손 집평(執平)이 고려 고종 때 몽고군이 침입하여 강화도로 천도할 때 신호위대장군에 올라 서해의 외딴 섬인 죽도(竹島)에서 몽고군에 대항하다가 전사하자 군기감을 지내던 아들 성(成)이 벼슬을 버리고 경남 거창군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다.

이 때문에 후손들이 수를 시조로 하고, 거창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거창신씨는 조선조 초에 판이주현사(判利州縣事)를 지낸 이충(以忠)의 세 아들 대에서 3파로 갈렸다.

백파(伯派) : 파조 · 기(畿) → 성주목사 · 전라도관찰사를 지냈다.

중파(仲派) : 파조 · 언(言) → 서령(署令)을 지냈다.

계파(季派) : 파조 · 전(詮) → 호조참의 · 황해도관찰사를 지냈다

이 집안에서 현달한 인물은 승선이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임영대군(臨瀛大君)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 세조 때 문과중시에 장원급제하였으며, 연산군의 장인이 되어 영의정을 지냈다.

그의 아들 수근(守勤)은 연산군의 처남이자 중종(中宗)의 장인으로 좌의정을 지냈으며, 수영(守英)은 형조판서를 지냈으나 모두 중종반정 주역들에게 살해되는 비운을 맞았다.

승선의 증손 희복(希復)이 우참찬을 지냈고, 당대의 대학자로 명망이 높았으며 기의 현손 희남(喜南)이 시와 글씨에 능하였고, 선조 때 종부시정(宗簿寺正)이 되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병조참의를 지냈다.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거창신씨는 전국에 13,623가구 43,890명이 살고 있어 신씨 4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325가구 952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5가구 9명이 살고 있다.

28. 심 씨 (沈氏)

문헌에 63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6개 본관 78,229가구 252,25541명이 살고 있으며, 1000가구가 넘는 본관은 청송 65,744가구, 삼척 4,003가구, 풍산 3,397가구, 경주 1,595가구의 4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청송 194가구 1개 본관이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는 본관이 청송 185가구 757명, 풍산 5가구 16명, 삼척 2가구 8명의 3개 본관이고, 가구를 이루고 살지 않는 본관이 남원 2명의 1개 본관, 합하여 4개 본관이 살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기록인 2000년 조사 자료에는 152가구에 40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송이 142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정선 2가구 외에 경주, 남원, 삼척, 전주, 청산, 청주, 풍산, 홍성 등 8개의 본관이 1가구씩 살고 있다. 그리고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살고 있는 본관은 밀양, 의령, 충주 등 3개의 본관이다.

1) 청송심(靑松沈)씨

시조는 홍부(洪孚)이다.

그는 고려 때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역임했으며 그의 4세손 덕부(德符)가 고려 충숙왕 때 왜구를 무찌르는데 공을 세웠고 공민왕 때 문하시중이 되어 청성충의백(靑城忠義伯. 청송의 옛 이름)에 봉해져 후손들이 본관을 청송이라고 했으며 조선조에서 정계를 주름 잡은 10대 문중의 하나다.

상신(相臣)을 13명이나 배출하였고, 그 중 9명은 영의정이었고 3대 상신을 지낸 집안도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194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185가구 757명이 살고 있었고, 2000년에는 142가구 375명이 거주하고 있다.

함평군에 살고 있는 파는 감찰공파(監察公派. 파조 연-연)며 입향조는 안평(安桴)이다.

그는 파조 연의 현손이며 1600년경 장성에서 신광면 북흥리 북치로 이거 정착했으며 묘소는 신광면 백운리 산 정상에 있다

그의 후손이 신광면 동정리 냉천, 백운리 백오, 대동면 운교리, 해보면 금덕리 유정자 등으로 퍼져나갔다.



이 가문에서는 충신과 효자를 많이 배출했는데 현재 보존된 삼강비각에는 3충신 7효자 3호부 6열녀의 행적이 기록되어 귀감이 되고 있다.

함평군에 있는 유적

유적명	소재지	관련인물
삼강비각 (三綱碑閣)	신광면 복흥리 복치	
산정사지 (山亭祠址)	"	배향 : 심안평.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에 의해 철거된 후 복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배출 인물

심안평(沈安桴) : 호 규암(葵菴). 함평군 입향조, 1587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도시정(司導寺正) 훈련원 부정을 거쳐 1640년에 수찬, 지제교(知製敎), 1654년에 봉사(奉使)로 중원을 다녀왔다.

심일민(沈逸民) : 1600~? 시조의 12세손. 충의교위(忠毅校尉)를 지냈고 병자호란 때 창의를했다.

심수택(沈守澤) : 호 남일(南一). 한말 항일의병장.

심상국(沈相國) : 수택의 아들. 아버지를 따라 한말 항일의병에 가담하여 공을 세웠고, 3·1운동에도 가담하는 등 독립운동에 힘썼다. 여러 번 옥살이도 했다.

심종섭(沈鍾燮) : 연예인. 예명 심철호

심연섭(沈演燮) : 1924. 11. 20 한일은행 본점 차장을 지냄

심기환(沈淇煥) : 1953. 5. 23 한국정신문화원 관리과장을 지냄

심병섭(沈炳燮) : 1943. 12. 2 육군중령 예편

2) 풍산심(豊山沈)씨

시조는 만승(滿升)이다.

그는 중국 오흥(吳興, 지금의 절강성 일부) 사람으로 고려 예종 5년(睿宗, 1110)에 동료 호종단(胡宗丹), 유재(劉載), 안신지(安愼之) 등과 같이 장사배를 따라 동래하여 태백산 아래 풍산현에 정착하였고, 예종의 총애를 받아 상서봉어(常書奉御)를 거쳐 태자첨사부첨사(太子詹事府詹事)를 지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풍산에 세거하면서 본관을 풍산으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의 8세손 승경(承慶)이 상호군을 지내다 고려말에 향리로 내려와 여생을 마쳤으며, 승경의 아들 귀령(龜令)이 상장군으로 태종의 1, 2차 왕자의 난에 참여하여 좌명공신에 올랐고, 태종 8년(1408) 조전절제사(助戰節制使)로 전라도 연안에 침입한 왜구를 격파하는 큰공을 세웠다. 그의 아들 응(膺)은 이시애란을 평정하여 적개 2등공신으로 풍산부원군에 봉해졌고, 그의 아들 형(亨)은 역시 적개공신으로 풍창군(豊昌君) 군봉을 받았으며 정(貞)은 좌의정에 올라 가문을 빛냈다.

2000. 1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풍산심씨는 전국에 3,397가구 10,990명 살고 있어 심씨



16개 본관 중 3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전국 풍산십씨의 1.47%에 해당하는 50가구가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가구 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9. 안 씨 (安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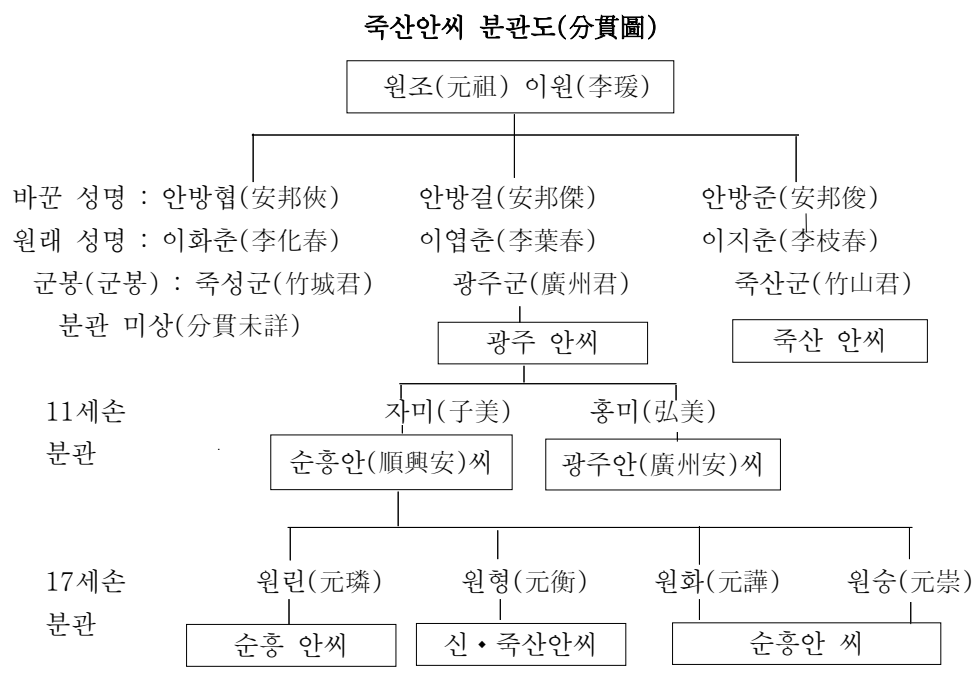
안씨는 태원안(太原安)씨를 제외하고는 원조가 이원(李瑗)이다.

그는 중국 사람으로 신라 애장왕 7년(哀莊王. 808)에 우리 나라에 들어와 송악산 아래서 살았다.

그의 아들 3형제가 경문왕 4년(景文王. 864)에 왜구를 평정한 공으로 "안(安)"이라는 성씨를 받게 되었는데 "안"을 사성한 까닭은 편안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뜻에서였다고 전한다.

아래 본관도에서 보듯이 원의 장자 이지춘은 안방준으로 개명되어 죽산군에 봉작되어 죽산안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둘째 이엽춘은 안방걸로 바뀌어 광주군에 봉작되어 광주안씨 시조가 되었고, 셋째 이화춘은 안방협으로 바뀌어 죽성군에 봉작되었는데 이제열의 관은 알 수 없다.

광주안씨는 원조의 11세에서 자미(子美)를 시조로 하여 순흥안(順興安)씨가 갈려 나가고, 순흥안씨는 시조의 17세손에서 탐진·신 죽산안씨로 또 갈려 나갔다.





문헌에는 109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1985. 11.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5개 본관 131,864가구 558,429명이 살고 있었다. 최근의 조사인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41개 본관 197,668가구에 637,78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0가구가 넘는 본관은 순흥 145,254가구, 죽산 17,357가구, 광주(廣州) 13,517가구, 강진 3,764가구, 탐진 3,558가구, 신 죽산 2,407가구, 경주 1,848가구, 수원 1,558가구, 안동 1,496가구의 9개 본관인데 탐진과 강진이 같은 본관이므로 8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5년 조사에서는 신죽산 406가구, 순흥 17가구였으며,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신 죽산 254가구 923명, 순흥 30가구 154명, 광주 5가구 38명, 탐진 1가구 7명, 파평 1가구 5명, 해주 1가구 4명의 6개 본관이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죽산이 155가구 380명, 순흥이 33가구 100명, 김해가 25가구 46명, 신 죽산이 19가구 80명, 주천이 10가구 17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모두 4가구 이하이거나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들이었다.

1) 광주안(廣州安)씨

시조는 방걸(邦傑)이다.

그는 안씨의 도시조 원(瑗)의 둘째 아들로 광주군에 봉해져 후손들이 본관을 광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고려조에서 시조의 아들 국신(國信)이 문하시중, 손자 여중(礪中)이 문하시랑을 역임하였고, 18세손 기(器)가 공민왕 때 문과증시에 급제하여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그의 아들 성(省)이 문과에 급제하여 상주판관을 지내다가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종 때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했으며 청백리에 뽑혔다.

진주목사를 지낸 처선(處善)의 둘째 아들 엄경(淹慶)은 세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공조판서를 역임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안씨는 전국에 13,517가구 43,609명이 살고 있어 안씨 41개 본관 중 3위며, 전남에는 전국 광주안씨의 3.176%인 159가구 432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25가구 46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순흥안(順興安)씨

시조는 자미(子美)다.

그는 광주안씨 방걸의 맏아들로 고려 때 흥위위 보승별장(興威衛保勝別將)을 지냈으며 광주안씨에서 분적했다.

그의 장남 영유(永儒) 후손을 1파 : 파조·4세 향(珦)

둘째 영린(永麟) 후손을 2파 : 파조·5세 문개(文凱)

셋째 영화(永和) 후손을 3파 : 파조·5세 석(碩)의 3파로 크게 나눈다.

4세손 향은 처음 이름이 유(裕)며 우리 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로 문묘에 배향되고 있는 인물이며, 그의 아들 우기(于器)는 대사헌·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를 지내고 순평군(順平君)에 봉해졌다.

축(軸)은 충렬·충선·충숙왕 3조의 실록을 편찬하는데 주역을 맡았으며 「관동별곡(關東別曲)」, 「죽계별곡(竹溪別曲)」을 남겨 유명하고, 흥녕군(興寧君)에 봉해졌다.

시조의 7세손 천보(天保)는 세종왕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외조부로 좌의정을 지냈다.

당(塘)은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좌의정에 올랐는데 그의 처가 죽었을 때 장사지낼 쌀이 없어 남에게 빌려 쓸 정도로 청백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순흥안씨는 전국에 145,254가구 468,8271명이 살고 있어 안씨 41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순흥안씨의 2.10%인 3,058가구 9,425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학교면에 15가구 엄다면에 2가구, 합계 17가구였으며, 1985년 조사에서 30가구 154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2000년 조사에서는 33가구 1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3) 신·죽산안(新竹山安)씨

함평에 살고 있는 안씨들은 광주안씨에서 갈린 순흥안씨계며 여기서 자미를 시조로 원형을 1세로 하여 다시 분관한 신죽산안씨다.

1세조 원형은 고려 충혜왕 때인 134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문하시중 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에 올랐고, 죽성군(竹城君. 죽산의 옛 이름)에 봉작되었다.

그래서 후손들이 신죽산으로 본관을 삼았다.

2000년 조사에 의하면 함평군에는 155가구 38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함평에 거주하고 있는 신죽산안씨는 이재공파(伊齋公派)며 입향조는 시조 자미의 14세손인 충달(忠達)이다.

그는 광주광역시 방하동에 살았는데 당시 남원부사를 지내던 노극창(盧克昌)을 따라 나산면 송암리에 와서 과거 준비를 하였고, 입신 후 말년에 나산면 나산리에 정착하여 그 후손이 번창하고 5홍 6백(五紅六白)을 배출하는 군내의 대표적인 문중이 되었다.

입향조 충달이 1534년(중종 29)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병조좌랑을 역임하는 등 벼슬길에 있다가 말년에 나산리에 정착했으니 나산리의 정착은 대략 1550년대가 된다.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는 마을은 나산면 나산리, 월야면 예덕리며 입향조 충달의 묘소는 나산면 신평리 구절봉에 있다.



함평군에 있는 유적

유적명	소재지	관련인물
이인전(里仁亭)	나산면 나산리 대정	창건:1694. 마을 뒷산 기슭. 건립자:죽산안씨 문중 이진, 중수:1724년 북안(北巖) 아래로 이진. 1759년 중수. 1832년 현재 장소로 이진. 1948년 중수. 1981년 현재 건물 방향으로 개향(改向)
나산사(羅山祠)	나산면 나산리 413-2 " " 414	창건:1722년 배향 : 안충달(安忠達)·안여해(安汝諧)·안여기(安汝器)· 안치택(安致宅) 1868년 훼손. 아직 복설 못함
사현각(四賢閣)	나산면 나산리 대정	창건:1908년. 위의 나산사 배향위를 배향하기 위해 건립.
안절부 노유인 비각 (安節婦盧儒人碑閣)	" " "	건립:1973년 광산노씨:안천섭(安千燮)의 아내. 광산 노우석(盧禹錫)의 딸
효자죽산안공 항식 기적비각	" " "	건립:1991년 효자:안항식(安恒錫)

배출 인물

안충달(安忠達) : 호 하곡(荷谷). 1534년 이황(李滉)과 함께 문과에 급제 병조좌랑을 역임했으며, 죽산안씨 함평 입향조다.

안사활(安士姑) : 충달의 셋째 아들. 1592년 임진란이 일어나자 김상충(金尙忠) 등과 창의했고,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안 빈(安 磧) : 호 외리정(外里亭). 임진란에 창의하여 김천일 휘하에서 무공을 세웠고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하였다.

안희적(安希勣) : 1587~1626 호 권유자(捲遊子).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안국재(安國宰) : 1618~1665 호 초정(草亭). 1652년 사마시 생원과에 입격하였다.

안여지(安汝止) : 1628~1686 1654년 문과에 급제하여 설서(說書)를 지냈다.

안여기(安汝器) : 1637~1694 호 보진당(保進堂) 1660년 진사과, 1669년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좌랑, 고령, 만경, 은률 등 수령을 지냈다.

안여해(安汝諧) : 1657~1691 호 이병재(理病齋), 효성이 지극하였고 1682년 사마시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안치량(安致亮) : 1687~1761 호 향양헌(向陽軒). 1713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안치택(安致宅) : 1702~1777 호 무은재(無隱齋). 1739년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 사간(司諫)등을 역임했다. 영조대왕이 "나라를 걱정하는 성의가 강호에 중엄(仲淹)한 자로 50여 년간 임금 앞에 임하면서 처음부터 실질(實質)을 보았고 숨김이 없는 바를 위한 자였다. 그러기에 호를 무은재라 한다"는 하교를 내린바 있다

- 안봉윤(安鳳胤) : 1715~1792 호 용곡(龍谷) 1832년 효행과 학행으로 나산리에 정려가 내렸다.
- 안정로(安挺魯) : 1770~1842 호 시암(市岩). 1842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 안지환(安志煥) : 1774~1833 호 태허재(太虛齋). 문장으로 이름 높았고 "태허재유고"가 전한다.
- 안지양(安志養) : 1811~1873 호 인재(忍齋). 효행으로 예조의 천을 받았다.
- 안정환(安靜煥) : 1830~1886 호 야은(野隱). 효행으로 천을 받았다.
- 안중변(安鍾卞) : 1911~1959 광주학생독립운동 시위를 주도하였고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1년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 받았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상을 추서 받았다
- 안동숙(安東淑) : 1922. 4. 4 호 오당(吾堂). 한국화 화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장,대학원장, 국전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 안학수(安鶴洙) : 1923. 2. 6 농학박사. 조선대학교, 이리농과대학 교수 역임.
- 안석두(安錫斗) : 1924. 8. 11 강진교육장, 광주서립초등학교장 등 역임.
- 안중남(安鍾南) : 1929. 6.25 한국전쟁 때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 안태수(安泰流) : 1930. 6. 20 의학박사. 1978년 해군준장 예편 안태수내과의원장
- 안인수(安寅洙) : 1931. 함평군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고 1987년 함평군민의상을 수상했다.
- 안종일(安鍾一) : 1932. 10. 25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무안교육장,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지냈다.
- 안병남(安柄南) : 1935. 6. 22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 중령 예편.
- 안영동(安永東) : 1933. 5. 4 연세대학교 졸업. 동양서적 사장 역임.
- 안석규(安錫奎) : 1937. 3. 1 동력자원부 서기관. 전기안정공사 기획이사 역임.
- 안수웅(安秀雄) :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냄
- 안병균(安秉均) : 1948. 4. 28 나산그룹 회장 역임
- 안문수(安文洙) :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환경부 서기관 역임
- 안평수(安平流) : 서울대학교 졸업. 대우전자 차장 역임
- 안춘수(安春洙) : 현대전자 차장 역임
- 안철기(安哲琪) : LG건설 차장 역임

30. 양 씨 (梁氏)

비조(鼻祖)는 양을라(良乙那)이며 그는 제주의 삼성혈(三姓穴)에서 역사 이전에 강생하여 모라국(毛羅國, 탐라국-耽羅國)을 세워 그 후손이 9백년간 섬나라를 이끌었다.

개성조(改姓祖)는 탕(宕)이다.

그는 양을라의 원손(遠孫)이고 탐라국의 귀족이었는데 광순사(廣巡使)라는 직명을 가지고 신



라에 입조했다.

신라의 왕이 그를 국민으로 대우하였고 "성주왕자(星主王子)"라는 작호를 내리고 신라의 조복(朝服)을 갖추게 했다.

또 이 때 "양(良)"을 "양(梁)"으로 기록한 것이 양씨가 된 까닭이 되었다.

당의 후손 순(洵)과 우량(友諒)이 신라 후기에 제주와 남원으로 각각 득관해 분적했다.

2000. 11. 1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양씨는 전국에 32개 본관 120,534가구 389,152명이 살고 있다.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남원 67,691가구, 제주 41,169가구, 청주 5,649가구, 남양 2,173가구, 경주 1,990가구의 5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제주 126가구, 남원 113가구, 남양 6가구, 영안 2가구의 4개 본관이 조사되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제주 155가구 635명, 남원 116가구 438명의 2개 본관이고,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이 남양 3명, 청주 1명, 정주 1명으로 3개 본관이며, 합하여 5개 본관이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모두 16개 본관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는 본관은 제주의 119가와 남원의 66가구가 있으며, 나머지 본관은 5가구 미만의 소규모 가구이거나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

1) 남원양(南原梁)씨

득관조는 우량(友諒)이다.

그는 당의 후손으로 신라 경덕왕 16년(景德王, 757)에 큰공을 세워 남원백(南原伯)에 봉해짐으로서 후손들이 본관을 남원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문헌이 없어 상계를 고증할 수 없고 다만 병부공파(兵部公派)에서는 능양(能讓), 용성공파(龍城公派)에서는 주운(朱雲), 장영공파(章榮公派)에서는 윤위(潤渭)를 1세조로 하여 계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집안을 빛낸 사람들로는 고려조에서 견(堅)이 정당문학·진현관 대제학(進賢館 大提學), 우(祐)가 집현전 대제학을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성지(誠之)가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대제학을 지냈으며, 임진왜란 때 구신(久信), 대박(大樸), 홍주(弘澍), 몽열(夢說), 황(槐) 등의 의병장을 배출했다.

함평에는 병부공파가 살고 있다.

함평 입향조는 1세조의 18세손 근(堦)이 경기도 시흥의 부곡에서 학교면 월호리 용호동(龍湖洞)에 정착했고, 그 후 손이 용호동, 손불면 대전리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2000년 현재 66가구 13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향조 근의 묘소는 월호리 망월동 뒷산에 있다.

배출 인물

양 근(梁 堦) : 호 시암처사(鵝巖處士). 경주목사 사준(思俊)의 셋째 아들이며 효로 천거되어

만호, 공조정랑을 지냈으며 1592년 임진란을 피하여 월호리 용호동에 정착했다.

양우연(梁禹延) : 1553~1624 득관조의 20세손. 사간원 정언(正言)을 지냈다.

양주헌(梁柱憲) : 1799~1883 호 농은(壟隱). 효자로 아들 하환(河煥)과 함께 나라에서 쌍효자(雙孝子) 정문을 내렸다.

양관옥(梁官玉) : 심계원 사무관을 역임했다.

양성우(梁性宇) : 1943. 11. 1 시인. 13대 국회의원.

2) 제주양(濟州梁)씨

시조는 탐라국을 세운 양을라(良乙那)며, 득성조(得姓祖)는 양궁(良宮), 득관조(得貫祖)는 순(洵)이다.

득성조 양궁이 탐라국 왕자로 신라 내물왕(奈物王. 재위 356~401) 때 사신으로 예방하니 내물왕이 많은 상을 주고 "양(梁)"성을 내렸다

그 후손 순이 신라 신문왕 2년(神文王. 682)에 신라에 입국하여 왕에게 표문(表文)을 올려 국학(國學)에 입학하였고 한림학사가 되었다.

그러나 대신들이 외국인 고관을 꺼려하여 승진을 못하게 되자 국왕이 한라군(漢拏君)을 봉했고 제주양씨로 득관하였다.

후손 중 섭천(涉川)은 성주왕(星主王)의 작위를 받았다.

제주양씨는 크게 나누어 4개 파가 있다

유격장군파(遊擊將軍派) : 파조·섭천의 후손 보숭(保崇). 고려 명종조에 출생했고 유격장군을 지냄

사직공파(司直公派) : 일명 제주가락파(濟州嘉樂派). 파조·호(浩)의 후손 유탐(有探)

천호공파(千戶公派) : 일명 제주가령파(嘉嶺派) 파조·호의 후손 중덕(仲德)

중랑장파(中郎將派) : 일명 제주명일파(明日派). 파조·호의 후손 홍(鴻)

함평군에 거주하는 파는 유격장군파가 주종을 이루며 입향조는 파조 보숭의 17세손인 몽奎(夢奎)이다.

그는 파조 보숭의 11세손인 팽손(彭孫)의 셋째 아들 응정(應鼎. 세파-世派-인 송천공파-松川公派-의 파조)의 맏아들 산해(山海)의 현손(玄孫)이며, 그의 아들 운거(雲舉)가 1681년생인 것으로 보아 대략 1670년대에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에서 월야면 용정리 복룡(伏龍. 당시 냉천동-冷川洞)에 이거 정착하여 후손이 함평군내에 퍼져 살고 있다.

이어 응정의 넷째 아들인 산축(山軸)의 6세손 재원(載源. 1729년생. 파조 보숭의 18세손)이 1750년대에 현 광주광역시 본양동에서 학교면 마산리로 이거 정착하여 그 후손이 함평군과 무안군 현경, 해제면에 퍼져 살고 있다.

1969년 조사에서는 군내에 126가구가 살았고 1985년 조사에서는 155가구 631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31위로 상위에 속했다.



2000년 조사에서는 119가구 2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향조 몽규의 묘소는 나산면 수하리 국사봉(國駟峰) 묘좌에 있다.

배출 인물

양운거(梁雲舉) : 1681~1742 파조 보숭의 18세손. 어버이 상에 6년간 시묘살이를 하여 효자로 이름 높았다.

양재원(梁載源) : 1729~1792 호 죽당(竹塘). 파조의 18세손. 돈녕부 도정(都正)을 지냈다.

양달도(梁達道) : 1756~1840 통덕랑을 지냈다.

양회철(梁會喆) : 1914. 2. 16~작고. 보숭의 24세손. 대전지법 부장 판사, 변호사 역임

양재동(梁在東) : 보숭의 24세손. 광산부군수 역임

양동일(梁東日) : 보숭의 27세손. 육군본부 공병감실 공사과장 역임. 대령

양정조(梁政造) : 보숭의 28세손. 한국증권거래소 경리과장 역임

양정자(梁貞子) : 1944. 3. 30. 서울가정법원 판사 역임

31. 어 씨 (魚氏)

어씨는 중국에서 비롯된 성씨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어씨는 전국에 5개 본관 5,476가구에 17,551명이 살고 있다. 100가구 이상인 본관은 함종 4,158가구 13,321명, 충주 883가구 2,893명, 함흥 241가구 766명, 경흥 190가구 542명의 4개 본관이다. 하지만 함흥과 경흥은 북한지방 관향(貫鄉)이어서 그 세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여기서 강서를 본관으로 하는 어씨들이 전국에 2가구 5명이 거주하는데 이들은 1990년대 이후 새로이 나타난 본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평에는 3가구 13명이 거주하는데 3가구는 모두 함종이며 2명이 가구 없이 거주한다. 1명은 충주고 1명은 미상이다.

1) 함종어(咸從魚)씨

시조는 화인(化仁)이다.

그는 남송(南宋) 사람으로 난을 피하여 우리나라에 건너와 강원도 강릉부에 살았으며, 고려 명종 때 인장동정(仁長同正)을 지냈고, 후손들이 평남 함종면에 세거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화인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함종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달한 인물은 시조의 11세손 변갑(變甲)이 태종 8년(太宗, 1408)에 문과에 급제하여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지내다가 향리인 함안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며 학문에 전념했다. 그의 아들 효첨(孝瞻)은 세종 11년(世宗, 1429)에 문과에 급제했고,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짓

는데 참여했다. 그는 이조판서까지 지냈으며, 그의 맏아들 세겸(世謙)이 세조 때 좌의정에 올랐고 학문 또한 당대의 으뜸이었다.

변갑의 12세손 유봉(有鳳)은 김창협(金昌協)의 문하생으로 거유(巨儒)로 유명하다.

함중어씨는 전국에 4,158가구 13,321명이 살고 있어 어씨 5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함중어씨의 1 18%에 불과한 44가구 195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 학교면에 19가구가 살았고, 2000년 현재는 3가구 1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 입향조는 어진열로 무안현감을 지낸 후 당시 무현현 땅이었던 학교면 학교리에 정착했다.

배출 인물

어진열(魚震說) : 1665~ 1669년까지 무안현감을 지냈다.

32. 여 씨 (呂氏)

우리나라의 여씨는 중국 산둥성 내주(萊州) 여씨에 원조(遠祖)를 두고 있다.

고문헌에는 40개 본관으로 나와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5개 본관이며 전국에 17,498가구 56,692명이 살고 있다.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함양 8,040가구 25,667명, 성주 3,395가구 11,012명, 성산 2,438가구 7,795명의 3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30년 발간 군지에서 함양여씨가 보이며 2000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며 살고 있는 본관이 함양 3가구 11명, 성주 3가구 12명 등 2개의 본관과 함께 단양, 성산, 함녕, 함안, 해영 등 5본관이 1가구를 이루고 있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있는 본관도 안동과 밀양의 2개 본관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함평에서의 여씨는 모두 11가구에 3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함양여(咸陽呂)씨

시조는 어매(御梅)다.

함양여씨 세보(世譜)에 따르면 그는 중국 산둥성의 내주여씨로 4형제 중 셋째아들(맏아들 어계-御桂, 둘째 어단-御檀, 넷째 어춘-御椿)이었는데 당나라 한림원 학사로 있다가 877년(당 희종 4년, 신라 헌강왕-憲康王- 3년) 황소의 난(黃巢亂)을 피하여 신라에 들어와 여러 관직을 거쳤고 고려조에는 전서(典書, 대장군을 지냈다고 기록된 곳도 있음)를 지냈으며, 아들 임청(林淸)도 현달하여 대장군을 지냈고, 후손들이 함양에 세거하였기 때문에 본관을 함양이라고 하였다.

함양여씨는 고려 중엽부터 조선조말까지 영의정, 좌의정, 판서 등 문무백관을 많이 배출하였다.

현재 함양여씨는 함양군에서 성씨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함양여씨는 세거지를 파명(派名)으로 쓰고 있는데 합평군에 살고 있는 파는 장흥파(長興派)로 입향조는 규용(圭用, 1880년생)이며 1900년경 장흥에서 해보면 금계리로 이거 정착했다.

33. 엄 씨 (廉氏)

엄씨는 중국에서 계출한 성씨며 우리나라 엄씨는 파주 외에 광주(廣州)·개성·순창·담양 등 80여 본관이 문헌에 나타나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엄씨는 22개 본관으로 19,807가구 63,95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가구가 넘는 본관은 파주(서원) 12,099가구·용담 271가구·파평 143가구의 3개 본관이며, 여타는 보성 33가구, 창녕 22가구·나주 19가호, 광주 5가구·개성 5가구, 문헌에 나와 있는 담양 순창은 1가구도 없다.

합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파주 4가구 1개 본관이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파주 6가구 1개 본관이며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이 용담·나주 각 1명으로 2개 본관 합하여 3개 본관이었다.

2000년 현재 파주가 6가구, 나주 3가구, 보성, 창녕이 각기 1가구이며 개성, 신천이 가구를 이루지 않고 각기 1명씩 거주하고 진주가 가구를 이루지 않고 2명이 거주하고 있다.

1) 파주엄(坡州廉)씨

시조는 형명(邢明)이며 기1세조는 제신(悌臣)이다.

시조 형명은 중국 교목세가(喬木世家)의 후손으로 후당(後唐)의 정국이 어지러움을 개탄하고 신라에 들어와 대사도(大司徒)를 지냈다.

시조의 5세손 한(漢)이 고려 문종 때 북쪽에서 침범해온 동번족(東蕃族)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워 병부상서·상주국(上柱國)을 지냈으며, 시조의 12세손 승익(承益)이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을 지냈다.

기1세조 제신은 시조의 14세손으로 원나라에 들어가 태정황제(泰定皇帝)의 신임을 받아 정동성랑중(征東城郎中)의 관직을 받고 돌아와 공민왕 3년(恭愍王, 1354)에 좌정승을 지내고 신돈(辛旽) 등의 모함을 받았으나 왕의 신임이 더 두터워졌으며, 우왕때는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를 지내고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에 봉해졌다.

후손들이 형명을 시조, 기1세조를 제신으로 하고, 본관을 봉성(峰城)이라 했다가 봉성이 곡성(曲城)으로 바뀌고, 다시 서원(瑞原)으로 바뀌에 따라 서원엄씨라 하였으며 연산군 때 서원이 파주로 바뀌자 파주엄씨로 고쳤다.

1세조 제신의 맏아들 국보(國寶)가 공민왕 때 대제학을 지냈고, 서성군(瑞城君)에 봉해졌으며, 둘째 흥방(興邦)이 충목왕(忠穆王) 때 삼사좌사(三司左使)에 오르고 형과 함께 서성군에 봉해졌고, 셋째 정수(廷秀)가 공민왕 때 대제학을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증(憎)이 공조판서, 상항(尙恒)이 단천부사(端川府使)를 지냈다.

과주염씨는 전국에 16,628가구 53,539명이 살고 있어 염씨 22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과주염씨의 5.82%에 해당하는 968가구 2,796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4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6가구 30명이 살고 있었으며 2000년 현재 6가구 13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34. 오 씨 (吳氏)

1962년에 간행한 오씨 대동보에 따르면 모든 오씨의 도시조는 첨(瞻)이며 그는 신라 지증왕(知證王, 재위 500~513) 때 중국에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살다가 왕명으로 다시 중국으로 갔는데 그의 둘째아들 응(膺)이 그대로 함안(咸安)에 남아 살았다.

응의 12대손 광우(光佑)가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의 현손 연충(延寵)이 고려 문종 30년(文宗, 1076)에 우리나라에 다시 건너와 살므로써 전국 오씨의 중조가 되었다.

연충의 6세손 수권(守權)이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 현보(賢補)가 해주군(海州君)에 봉해져 해주오씨가 되었고, 해주오씨에서 나주·울산·낙안·함평·평해오씨가 분관되었다. 둘째 아들 현좌(賢佐)는 동복군(同福君)에 봉해져 동복오씨의 시조가 되었고, 여기에서 군위오씨가 분적해 나갔다. 셋째아들 현필(賢弼)은 보성군(寶城君)에 봉해져 보성오씨의 시조가 되고 여기서 화순·함양·장흥·홍양오씨가 분적되었다.

문헌에 146개 본관, 또는 210개 본관으로 나와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71개 본관 219,548가구 706,908명으로 전국 성씨별 순위 13위로 상위에 속한다.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이 해주 131,399가구, 보성 18,229가구, 동복 17,317가구, 함양 8,270가구, 나주 7,916가구, 군위 7,025가구, 고창 5,285가구, 낙안 2,787가구, 강화 2,178, 경주 1,949, 금성 1,480가구, 장흥 1,092가구, 동부 1,088가구의 13개 본관인데 나주와 금성이 같은 본관이므로 12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는 모두 18개 본관이 가구를 이루며 거주하고 있었는데 해주 48가구, 나주 41가구, 낙안 25가구, 동복 22가구, 금성 15가구, 화순 10가구 등의 6개 본관이 10가구 이상의 가구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나머지 12개 본관은 4가구 미만의 가호를 이루며 거주하고 있었으며, 13개 본관은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살고 있었다. 따라서 함평에 거주하고 전체 본관은 31개 본관이다.

1) 나주오(羅州吳)씨

시조는 숙규(淑圭)이다.

그는 해주오씨 동정공파보(同正公派譜)에는 현보의 둘째 아들로 적혀있고 1989년에 발간한



나주오씨대동보에는 상계를 알 수 없어 숙규의 5세손이며 중랑장을 지낸 언(偃)을 후1세(後一世)로 삼는다고 적혀 있다.

언의 묘지 아래에 계진(季眞)의 묘가 있고 그 자손이 번창해 종가 구실을 해왔으나 근래 동강면을 중심으로 자손이 번진 탁진(卓眞)이 장자로 인정되었으며 공산면에 자손이 번진 경진(敬眞)도 한 집안으로 포함했다.

계진의 손자 대에 신교(愼交), 신중(愼中), 신의파(愼儀派)로 갈렸다.

신교파는 조선조에 금산·정선·진안 등지에 퍼졌으며, 신중의 아들 자치(自治)는 1467년 이시애난 때 시애의 동생 이시합(季施合)을 잡은 공으로 나성군(羅城君)에 봉군되었고, 손자 겸(謙)이 전라관찰사, 이조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에 오르는 등 현달했다.

2000년 조사에 의하면 나주오씨는 국내 71개 본관 중 5위로 9,396가구(4.27% 금성오씨 포함) 30,454명이 살며, 전남에는 1,499가구(15.95% 금성오씨포함) 5,101명이 살고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평군에 41가구 102명이 살고 있다.

2) 낙안오(樂安吳)씨

시조는 사룡(士龍)이다.

그는 도시조 담의 32세손으로 고려 때 북변의 오랑캐와 왜구 토벌에 공을 세워 낙안군에 봉해졌으며 후손들이 해주 오씨에서 분적하여 낙안을 본관으로 했다.

2000년 조사에서 함평군에는 25가구 7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함평군 입향조는 시조의 4세손인 철검(哲儉)으로 1500년경 전북의 고산에서 대동면 월송리 동암에 이거 정착했고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배출 인물

오 우(吳 瑀) : 산음교수를 지냈다.

오정기(吳廷驥) :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다.

오만식(吳萬植) : 1905~작고. 학다리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이사의 한 사람이며 초대 교장(1945~1948), 5대 이사장을 지냈다.

오기동(吳基棟) : 1921. 8. 4 학다리중·고등학교 이시장을 지냄

오석진(吳錫珍) : 1928. 4. 25 대졸, 중학교 교장을 역임함

오용선(吳龍鄴) : 1936. 4. 5 교육청 장학사, 교장을 지냈다.

3) 동복오(同福吳)씨

시조는 영(寧)이다

그는 도시조 첨(瞻)의 24세손인 현좌(賢佐)의 맏아들이며, 고려 고종 때 거란군을 물리친 공으로 동복군에 봉해져 그의 후손들이 본관을 동복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의 동

생 숙귀(淑貴)는 군위오(軍威吳)씨의 시조이다.

2세 중환(仲環)은 호장, 3세 대승(大陸)은 시중(侍中), 4세 광찰(光札)은 충렬왕 6년(1280)에 종2품인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으로 명인전 시위장군(明仁殿侍衛將軍)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 선(璿)은 정2품인 찬성사, 선의 맏아들 잠(潛)이 충숙왕 때 찬성사를 지냈다.

동북오씨의 계파를 요약해 보면 대승이 낳은 4형제가 주종을 이루는데 특히 맏아들 광찰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여러 파로 갈린다.

문재공파(文齋公派) : 광찰의 맏아들 선의 후손이며 주로 전북 운봉에 퍼져 살고 있다.

문명공파(文明公派) : 광찰의 맏아들 선의 둘째 아들 잠의 후손이며, 잠의 현손 정(시조의 9 세손)이 호조참의, 시조의 12세손 억령(億齡, 1552~1613, 징의 현손)이 호당에 들어 명문을 이루었고 세분하여 이 집안을 만취공파(晩翠公派)라고 한다

묵재공파(默齋公派) : 억령의 동생으로 이조참판을 지낸 백령(百齡, 1560~1633)의 후손이며 조선조에 여덟 명의 판서를 배출하였고 가장 수효가 많으며 주로 대전과 공주에 많이 살고 있다.

승지공파(承旨公派) : 선의 셋째아들 인(寅)의 후손으로 해남 계곡에 많이 살고 있다.

소윤공파(少尹公派) : 선의 다섯째 아들 진(璉)의 후손 집안으로 근세에 현달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다.

주서공파(注書公派) : 억령의 윗대에서 갈라진 가인(可仁)의 집안

감찰공파(監察公派) : 가인의 동생 가의(可義)의 집안

매암공파(梅庵公派) : 가의의 증손 언태(彦台)의 후손으로 고흥, 광양, 보성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

금위공파(禁衛公派) : 가인의 셋째 동생 가찰(可札)의 집안

재신공파(宰臣公派) : 대승의 둘째 아들 광명계(光明系)로 주로 해남군 북평을 중심으로 번져 살고 있다

대승의 셋째 아들 광식(光植)과 넷째 아들 광봉(光棚)의 후손은 황해도 용진을 중심으로 퍼져 살고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동북오씨는 전국에 17,317구 55,517명이 살고 있어 오씨 중 3위를 차지한다.

4) 보성오(寶城吳)씨

시조는 도시조 침의 24세손 현필(賢弼, 1174~1216, 일명 응남)이다.

그는 보성오씨보에 의하면 보성군수를 지내다가 형들을 따라 글안 토평에 참가한 뒤 보성군 군봉과 화순군 군봉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현필에게 숙부(淑富)와 양(良)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양의 5세손 광휘(光輝)가 함양오씨로 분적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함양오씨들은 그들 시조 광취가 양의 동생에 원(元)이 있었고 그의 4세손이 광취라고 하여 계대(系代)가 다르다.



상계에 서로 문제점이 있지만 보성오씨에서 함양오씨 외에 화순·장흥·홍양오씨가 분적해 나갔다.

보성오씨는 크게 숙부의 집안과 양의 집안으로 나누며 숙부의 집안은 사렴계(思廉系)의 문의파(文義派)와 사충계(思忠系)의 공주파로 갈렸고, 문의파가 현달했으며, 충북 청원군에 많이 살고 있다.

양의 자손들은 주로 전남북에 번져 사는데 10세 예(豫)가 천을(天乙)·충을(忠乙)·몽을(蒙乙)·신을(信乙)의 네 아들을 두었는데 천을은 대제학, 손자 적(積)이 순천부사를 지냈으며, 보성군 조성면을 비롯 고흥·광양·하동 등지에 퍼져 살고 있다.

몽을은 조선조 개국에 공을 세워 대장군으로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고 아들 자경(子慶)이 적개공신(敵愾功臣)으로 보산군(寶山君) 군봉을 받았으나 정도전파로 지목되어 정종 즉위년인 1398년에 반역죄로 몰려 향반으로 몰락했으며, 후손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퍼져 살고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8,229가구 59,914명이 살고 있어 오씨 중 2위며, 함평군에는 4가구 13명이 살고 있다.

5) 해주오(海州吳)씨

시조는 인유(仁裕)다.

그는 원래 중국 송나라 사람으로 명성을 떨쳤던 대학사로 984년에 고려에 들어 와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지냈으며, 해주에 정착하여 세거하게 되니 후손들이 본관을 해주로 하고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가문을 빛낸 인물을 보면 고려조에서, 7세손인 연충(延寵)이 여진족을 토벌하여 용맹을 떨치고 문하시중 평장사에 올랐고, 그의 사촌 광정(光廷)이 공조판서, 한경(漢卿)이 찬성사를 역임했다.

조선조에서는, 15세손 윤겸(尹謙)이 인조 때 영의정을 지냈으며, 숙종 때 두인(斗寅)이 형조판서 그의 손자 원(瑗)이 영조 때 대제학, 원의 아들 재순(載純)이 또한 대제학을 지냈다.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131,399가구 422,735명이 살고 있어 오씨 71개 본관 중 1위며 함평군에는 48가구 172명이 살고 있다.

6) 화순오(和順吳)씨

시조는 원(元)이다.

그는 보성오씨의 시조 현필(賢弼)의 셋째 아들이다.

홍양오씨와 함양오씨가 시조로 하고 있는 광휘(光輝)는 화순오씨의 4세로 기록되어 있다.

영광군 백수면에 주로 살며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948가구 3,032명이 살고 있으며 함평군에는 10가구 20명이 살고 있어 오씨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35. 옥 씨 (玉氏)

옥씨는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성씨로 우리나라 옥씨는 고구려의 요청에 의하여 당나라에서 파견된 8재사(八才士)의 한 사람인 옥진서(玉眞瑞)가 신라에서 국학교수(國學教授)를 지내고 의춘군(宜春君)에 봉해져 경남 의령(宜寧)에 살게 되면서 시원을 이룬다.

옛 문헌에는 17개 본관으로 나와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11개 본관이 조사되었고 7,298가구 22,964명이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본관은 6,157가구의 의령옥씨로 전체 옥씨의 84.48%를 차지하며 함평군에는 12가구 2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 의령옥(宜寧玉)씨

시조는 진서(眞瑞)다.

그러나 시조 이하의 계보가 실전되어 고려 때 창정(倉正)을 지낸 은종(恩宗)을 기1세조로 하는 계통, 평장사를 지낸 여(汝)를 기1세조로 하는 계통이 있으며 현달한 인물로는 고려조에서 규(珪)가 평장사를 지냈고, 조선조에서는 고(沽)가 1399년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 교리를 역임하였으며 여(礪), 경련(景鍊), 병관(秉觀) 등이 문과에 급제했다.

2000년 조사에서 의령옥씨는 6,157가구 19,36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남에는 148구(전국의 2.4%) 471명이 살고 있으며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11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10가구 29명, 2000년 조사에서는 12가구 24명이 주로 함평읍에 살고 있다.

배출 인물

옥상호(玉相鎬) : 국가정보원 요직을 역임하였다 .

36. 우 씨 (禹氏)

원래 중국의 하나라 우왕(禹王)의 후예라고 하지만 세계(世系)는 알 수 없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3개 본관 55,256가구 176,682명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단양이 50,789가구로 우씨 13개 본관 가운데 91.91%를 차지해 우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단양 16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단양 8가구 40명이었으며, 2000년 현재 2가구 7명으로 줄었다.



1) 단양우(丹陽禹)씨

시조는 현(玄)이다.

그는 고려 때 우리 나라에 와서 현종 5년(顯宗, 1014) 문과에 급제하여 정조호장(正朝戶長)을 지냈고 단양에 대대로 살았다.

그의 10세손 현보(玄寶)가 공양왕 때 삼사사(三司使)로 단양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단양으로 삼았다.

단양우씨는 10세와 11세손에서 크게 13파로 갈라졌는데 10세 현보의 다섯 아들이 갈린,

대제학공파(大提學公派) : 파조 홍수(洪壽)

예안군파(禮安君派) : 파조 홍부(洪富)

안정공파(安靖公派) : 파조 홍강(洪康)

집의공파(執義公派) : 파조 홍득(洪得)

판서공파(判書公派) : 파조 홍명(洪命)의 5개 파와 시정공파(寺正公派), 참판공파(參判公派), 정평공파(靖平公派)가 주류를 이룬다.

함평 입향조는 경구(璟駒)며 다른 본관 성씨에 비해 입향이 늦다.

그는 탁(倬)의 18세손이며 대구에서 낳았는데 1910. 8. 29 한일합방의 비보를 듣고 울분하여 일본 영사관에 불을 지르고 목포, 무안 등지로 피신하다가 1919. 3. 17 신광면 송사리 산중에 숨어살다가 1924년 함평읍 만흥리에 정착했다.

묘소는 만흥리 뒷산에 있다.

배출 인물

우경구(禹璟駒) : 단양우씨 함평 입향조. 항일운동가.

37. 유 씨 (柳氏)

유씨 중 계열이 다른 유씨는 문화유(文化柳)씨다.

문화유씨의 시조 차달(車達)은 차무일(車無一)의 38세손으로 그의 5대조 차승색(車承穡)이 신라 애장왕 때 좌상으로 애장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헌덕왕을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유주 구월산(儒州九月山)에 숨어살면서 할머니의 성인 "양(楊)"씨를 모방하여 "유(柳)"씨라 변성을 했다고 한다.

문헌에는 131개 본관으로 나와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56개 본관 186,610가구 603,08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문화 87,186가구, 전주 19,008가구, 진주 18,685가구, 고흥 16,872가구, 강릉 11,772가구의 5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현재 82가구에 24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구를 이루

고 살고 있는 본관이 11개 본관이 집계되었는데, 문화 32가구, 고흥 25가구, 강릉 8가구로 이들 3본관이 가장 많은 가구를 이루며 살고 있다. 나머지 8개 본관은 3가구 미만이 모여살고 있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 또한 9개 본관이 있다.

1) 문화유(文化柳)씨

시조 유차달(柳車達)은 원래 차(車)씨이며 차무일(車無一)의 38세손이다.

유차달의 5대조상인 차승색은 신라 애장왕 때 벼슬이 좌승상이었는데 809년(신라 애장왕 10년) 애장왕의 숙부 김언승(金彦昇, 41대 헌덕왕)이 애장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차승색은 애장왕의 복수를 위해 좌승상의 벼슬을 버리고 아들 차공숙과 함께 헌덕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령이 내려진다. 그는 차공숙을 데리고 도피하여 유주(문화의 당시 지명) 구월산 목방동에 들어가 숨어 살면서 할머니의 성인 양(楊)씨를 모방하여 유씨로 성을 바꾸고 이름도 색으로 고쳤다.

아들 공숙도 숙으로 이름을 바꾸어 정착해 살았다. 그 후 유차달에 이르러 그 지방의 호부가 되었다.

유차달은 고려 태조 왕건이 견훤을 정벌할 때 군량보급이 어려움을 알고 재산을 털어 차 천량을 제작하고 군량을 보급해준 공으로 익찬 벽상공신에 서훈되고 벼슬이 대승에 올랐다. 그의 조상에서 성을 바꾼 사실을 안 태조가 "차씨의 공을 잊을 수 없고 유씨로 성을 바꾼지 6세가 지났으니 유씨도 없앨 수 없다."하며 유차달의 첫째 아들 효전에게 차씨를 계승하게 하여 연안 차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둘째 아들인 효금에게는 유주에 살면서 유씨를 계승하게 했다.

유주가 문화로 지명이 바뀌면서 본관을 문화로 했다.

2) 고흥유(高興柳)씨

시조는 영(英)이다.

그는 신라의 호족이었으나 신라 말 나라가 혼란하자 흥양(興陽, 현 고흥의 일부)으로 이거하여 고려가 개국하자 호장(戶長)을 지냈다.

그의 7세손 청신(淸臣)이 고흥부원군에 봉해져 그 후손들이 고흥유씨라 했다.

2000년 조사에 의하면 함평군에는 25가구 7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흥 유씨의 함평 입향은 단양유씨와 함께 가장 늦다.

장사랑공(將士郎公), 예빈공, 양장공, 대호군공, 호안공파로 대별하는데 함평군에는 장사랑공파가 살며 시조의 24세손인 상봉(相鳳)이 1924년 나산면 월봉리 월평에 이거 정착했다.

배출 인물

유종필(柳鍾秘) : 1957. 9. 1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서울시의원,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함



38. 유 씨 (俞氏)

유씨는 신라 때 아찬 벼슬을 한 삼제(三帝)를 원조로 하고 있고 기계유씨가 대종(大宗)을 이룬다.

문헌에는 97개 본관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32개 본관 54,953가구 178,209명이 살고 있어 우리나라 성씨별 순위 39위로 상위권이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기계 34,984가구, 고령 2,905가구, 고흥 2,836가구, 진주 2,477가구, 창원 2,442가구, 무안 2,092가구, 강원 1,501의 7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기계 58가구, 고령 1가구의 2개 본관이었고,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기계 62가구 255명, 무안 5가구 25명, 고령 4가구 14명, 강진 1가구 11명, 창원 1가구 7명의 5개 본관이었다.

2000년 현재 60가구 15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기계 47가구, 고흥 7가구, 무안 2가구며 고령, 달성, 안성 풍산은 1가구씩만 거주하고 있어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7개 본관이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은 경주 2명, 강화·단양 각 1명으로 3개 본관이다.

1) 기계유(杞溪俞)씨

시조는 신라 때 아찬을 지낸 삼제(三宰)이다.

그의 후손 의신(義臣)이 신라를 무너뜨린 고려에 불복하므로 기계현(杞溪縣, 경주의 속현) 호장(戶長)으로 복무케 했다.

후손들이 이곳에 세거하며 본관을 기계로 했다.

기계유씨의 대표적 인물로는 응부(應孚)를 들 수 있다.

그는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당한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평안도 절제사와 동지증추원사를 지냈다.

여림(汝霖)은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판서에 올랐고, 그의 아들 강(緯)은 호조판서, 손자 홍(泓)은 좌의정을 지냈다.

강의 5세손 철(徹)은 경기도관찰사·대사헌을 지냈고, 철의 손자 척기(拓基)는 영의정, 최기(最基, 척기의 중형)는 우참찬, 최기의 조카 언호(彦鎬)가 좌의정을 역임하는 등 가문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함평군에는 20005년 조사에서 47가구 117명이 살고 있으며, 함평군에 살고 있는 파는 기계유씨 15개파 중 하나인 파조 성리(成利)의 군기시사공파(軍器寺事公派)다. 입향조는 파조의 4세손인 성의(誠意)로 1480년경 아내의 고향인 나산면 석령(石嶺)에 이거 정착했으며 군내 집성촌은 월야면 용월리, 나산면 용두리·월봉리, 해보면 산내리 등이다.

입향조 이하 4대의 묘가 실전되어 설단 배향한다.

배출 인물

유성의(俞誠意) : 파조의 4세손. 1466년 문과에 급제하여 현령, 전서(典書)를 역임하고 1480년 경 나산면 석령에 이거 기계유씨 함평군 입향조가 됨. 아내는 수사 함평 이춘수(水使李春秀)의 딸이며 조선 세종조 명신 공(兢, 1398년생)의 누이생동이다.

유경지(俞敬止) : 성의의 아들. 사마시 진사과에 입격했다.

유계종(俞繼宗) : 1470~1503 경지의 아들. 진산군수(珍山郡守)를 지냈다.

유신종(俞愼宗) : 계종의 아우. 함평현감을 지냈다.

유세익(俞世翊) : 성의의 손자. 무과에 급제하여 내금위에서 봉직했다.

유대린(俞大麟) : 세익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유언검(俞彦儉) :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란 때 금산에서 전사함.

유언량(俞彦良) : 1548~1592 호 경재(敬齋). 조현의 문하생으로 조현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순국하였으며, 선무원종공신에 올랐다.

유언득(俞彦得) : 1564~1598 호 인재(仁齋). 언량의 아우. 정응(鄭鷹)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이순신 휘하에서 공을 세워 주부를 지냈고 노량해전에서 순국했다.

유 경(俞 景) : 1567~1592 양팽손(梁彭孫)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고 임진란 때 조현의 막하에서 공을 세우고 금산전투에서 순국했다.

유홍관(俞鴻觀) :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유병기(俞炳琪) : 호 초당(樵堂) 서예가

유 윤(俞 潤) : 1917. 5. 30 중학교 교장을 지냈고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유재기(俞在奇) : 시인. 1986년 현대시학 추천.

2) 무안유(務安俞)씨

시조는 천우(千遇)다.

그는 고려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공을 세워 원종 때 정당문학이 되었으며, 충렬왕 때 찬성사에 올랐고 그가 죽은 뒤에 무안부원군에 추봉되니 후손들이 본관을 무안으로 했다.

그리고 고려 때 삼중대광 검교소부소감(檢校小府少監)을 역임하고 공을 세워 장사군(長沙君)에 봉해진 장사유씨의 시조 순직(舜稷)이 그의 고조부로 되어 있으니 장사유씨에서 분적한 것이다.

무안유씨의 대표적 인물은 고려조에서 시조 천우의 아들 영원(永元)이 은자광록대부에 올라 이부상서, 좌복야(左僕射) 등을 역임하였으며, 손자 윤수(允粹)가 문하시랑평장사·우문관 대제학(右文館大提學)을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성리학의 대가인 희익(希益)의 증손자 세호(世豪)가 세조 때 홍문관제학을 역임했다.

2000. 11. 1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2,092가구 6,629명이 살고 있어 유씨 중



6위며 전남에는 33가구 110명이 살고 있다.

주로 서울, 경기, 충남지방에 많이 살고 있다.

2000년 조사에 의하면 함평군에는 2가구 8명이 살고 있다.

39. 유 씨 (劉氏)

유씨는 원래 중국 제요(帝堯)의 후손이 「유(劉)」, 땅에 봉해지면서 「劉」 씨로 성을 받은 것이 시초이다.

그 후 수천 년을 지나 초한(楚漢)시대에 이르러 유방(劉邦, 한고조-漢高祖)이 중원을 통일하고 한제국(漢帝國)을 창건함으로서 유씨가 크게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 나라 유씨의 도시조인 전(筌)은 한고조의 41세손으로 도학과 문장이 뛰어났고 송조(宋朝)에서 벼슬이 병부상서에 이르렀다.

그는 1082년 8학사의 일원으로 고려에 들어온 후 경북 영일군에 정착 세거했으며 공민왕 때에 이르러 그를 위하여 특명으로 사우가 건립되고 고려 태조와 함께 7왕을 모신 숭의전(崇義殿)에 배향되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47개 본관 75,192가구 242,889명이 살고 있어 우리나라 성씨별 순위 32위며 1,000가구가 넘는 본관은 강릉(한양 포함) 55,464가구, 거창 6,081가구, 진주 2,937, 백천 2,051가구 4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강릉 41가구, 충주 3가구, 풍산 1가구의 3개 본관이었고, 2000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강릉 41가구 127명, 강남 4가구 8명의 2개 본관이 대부분을 이루고, 나머지 5개 본관은 2가구 미만의 가구를 이루며 살고 있다.

1) 강릉유(江陵劉)씨

강릉유씨는 거창유씨에서 갈려나온 계통으로 도시조는 전(筌)이며 시조는 승비(承備)다.

그는 도시조 전의 9세손으로 고려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좌복야에 이르렀고, 그의 증손 창(敞)이 조선개국 2등공신으로 옥천군(玉川君, 강릉의 옛 이름)으로 봉작되었기에 후손들이 강릉을 본관으로 했다.

창의 동생 방(方)이 대사간, 치(治)가 태종 때 병조판서를 지냈다.

한량(漢良)은 효성이 뛰어났고 무장현감을 역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어 칭송을 받았으며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순국했다.

인길(仁吉)이 판서, 지주(智周)가 이조참판, 응량(用良)이 병조참판, 인덕(仁德)이 예조참판, 인(認)이 대사성을 지내는 등 현달한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함평군에는 2000년 현재 47가구 117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파조 한량(漢良)의 은재공파(隱齋公派)와 파조 세분(世玢)의 낙헌공파(樂軒公派)가

살고 있다.

은재공파에서 먼저 함평에 들어왔는데 파조의 5세손 후평(后平)이 1720년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에서 손불면 죽장리에 이거 정착하였고, 그 후손이 손불면 죽암리 석령, 신평면 계천리 실산, 해보면 등지로 퍼져나갔다.

낙헌공파는 파조의 11세손 현원(鉉源, 1794년 생)이 1840년경 아들 병세(秉歲)와 함께 영광으로부터 손불면 동암리 초동에 정착했다.

입향조 후평의 묘소는 손불면 죽장리 호두산 서쪽에 있다.

2) 거창유(巨昌劉)씨

시조는 전(筵)이다.

그는 유방(劉邦)의 41세손으로 송나라에서 병부상서를 지냈으며 8학사의 일원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경북 지방에 정착하여 살았고, 그의 장남 건규(堅規)가 거타군(居陀君, 거창의 옛 이름)에 봉해져 후손들이 본관을 거창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건규의 동생 견규(堅矩)가 대사헌, 그의 아들 웅열(雄悅)이 판전리사로 아림군(娥林君)에 봉작되었고, 견규의 손자 성(成)이 대장군 그의 아들 찬(贊)이 대사헌을 지냈다.

한우(旱雨)는 예조판서를 지냈는데 그가 재직 중일 때 중국 황제가 기우제관(祈雨祭官)으로 불러 3일간 기우제를 지내니 중국 땅에 흠족한 비가 내렸고 이 공으로 병부상서를 제수했다고 전한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거창유씨는 전국에 6,081가구 19,419명이 살고 있어 유씨 47개 본관 중 2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거창유씨의 1.06%에 해당하는 65가구 201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80년대까지 13가구 47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현재는 한 가구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한가구도 거주하지 않음에도 거창유씨를 수록하는 이유는 1999년 군사에 실려 있어서 신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40. 윤 씨 (尹氏)

파평윤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남(海南, 시조 존부-存富), 해평(海平, 시조 군정-君正), 무송(茂松, 시조 양비-良庇), 칠원(漆原, 시조 시영-始榮)을 제외한 윤씨는 파평윤씨의 시조 신달(莘達)의 후손에서 분관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남원, 함안 야성, 신녕은 이미 파평으로 본관을 바꾸었으며, 양평(楊平, 시조 덕방-德方), 영천(永川, 시조 공생-功生), 예천(醴川, 시조 충-忠) 등은 아직 본관을 달리하고 있다.

문헌에 149개 본관으로 되어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47개 본관 294,794가구에 948,600명이 살고 있다.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파평(파주) 221,477가구, 해남 17,366가구, 칠원 16,829가구, 남



원 10,117가구, 해평(선산) 8,225가구, 무송 4,119가구, 가평 3,807가구, 함안 1,784가구, 양주 491가구, 태평 1,647가구, 함평 1,3698가구의 9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통계청 조사 자료에 477가구 1,21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파평(파주)이 427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89.51%나 차지하고 있다.

가구를 이루며 거주하는 본관은 파평 427가구, 해남 30가구, 함평 5가구, 가평과 태평이 각 3가구, 남원, 칠원, 해평(선산)이 각 2가구, 고령, 고창, 신녕이 각 1가구를 이루며 살고 있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이 강릉, 기계, 무송, 문화, 밀양, 수원, 진주, 팔판, 해주의 9개 본관이 있다.

1) 남원윤(南原尹)씨

시조는 위(威)다.

그는 파평윤씨의 시조 신달(莘達)의 8세손으로 고려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국자학 박사를 거쳐 신종 3년(1200)에 안렴사(安廉使)가 되어 호남에 갔을 때 남원에서 복기남(卜寄男)의 반란이 있었고 이를 평정시켜 남원백(南原伯)군봉을 받으니 후손들이 파평윤씨에서 분적하여 남원을 본관으로 했다.

시조의 아들 돈(敦)이 문하시중에 올라 함안백(咸安伯)에 군봉되고, 5세손 수균(守均)이 평리(評理), 8세손 효손(孝孫)이 광국 2등공신으로 용성부원군(龍城府院君)에 올랐으며 그의 손자 계(槩)가 남양부사를 지내는 등 가문을 빛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남원윤씨는 전국에 10,117가구 32,731명이 살고 있어 윤씨 47개 본관 중 4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남원윤씨의 6.78%에 해당하는 789가구 2,220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85년 조사에서 15가구 64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2000년 현재 2가구 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파평윤(坡平尹)씨

시조는 신달(莘達)이다.

그는 신라 51대 진성왕 7년(眞聖王. 893) 8월 15일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눌로리(訥老里) 용연(龍淵)의 돌배에 떠오른 금빛 찬란한 돌궤에서 나와 노파윤온(老婆尹溫)의 손에 자라 「尹」으로 성(姓)을 하였고 태사삼중대광(太師三重大匡)에 올랐다.

그의 5세손 관(瓘)이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1107년 여진(女眞)을 정벌한 공으로 영평 개국백(鈴平開國伯. 파평의 첫 이름)에 봉해져 후손들이 본관을 파평으로 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730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612가구 2,250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7위(1969년 역시 7위)이다.

2000년 현재 427가구 1,07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작일촌을 이루고 사는 마을은 해보면 상곡리 모평, 대동면 상옥리 옥동, 엄다면 엄다리 성산이며 한림공파(翰林公派)와 대언공파(代言公派)가 살고 있다.

한림공파의 함평 입향조는 길(吉)이다.

그의 행장에 의하면 시조의 15세손으로 고려 우왕 12년(1386)에 야은과 함께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이 되고 탐라 병사로 봉직하다가 1392년에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평산의 영풍 상운봉(永豊祥雲峰)에 집을 지어 송도를 사모한다는 뜻으로 모송당(慕松堂)이라 편액하고 매양 송도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충절을 보였고 두문의 선비와 사귀었으며, 세조 2년(1457) 절재 김종서의 제문(祭文)에 "공은 죽을 곳에 죽었도다 천년의 긴 역사가 공으로 하여금 다시 밝아지리라.(公死於死 千載之下 春秋之史 由公更明)"이라 한 것이 세조의 노여움을 사 90세의 나이로 제주도에 귀양갔다.

귀양이 풀려 돌아오던 길에 해보면 상곡리에 이르러 산명수려(山明秀麗)함에 흠취하여 뒷산을 임천산(林泉山), 앞산을 자양산(紫陽山), 서쪽 산을 월양산(月陽山), 그 계곡을 운곡(雲谷)이라 이름 짓고 내를 무이천(武夷川)이라 부르게 하였으며 주자를 제사지낼 사당(祠堂. 후에 자양서원-紫陽書院-이 됨)을 세우고 여생을 보냈다고 했다.

그의 손자 완(莞. 덕생-德生-의 둘째 아들)이 단성현감을 지낸 후 함양에 머물러 경남에 손이 퍼졌으며, 8세손 섭(涉. 시조의 22세손)이 1560년대에 신광면 삼덕리로 이거 정착했다. 8세손 제(濟. 형정-衡楨-의 아들)가 무안군 청계면 태봉에 이거하여 잠시 머물다가 1580년대에 엄다면 엄다리 별외로 이거 정착하여 후손이 자작일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8세손 덕(德. 예형-禮衡-의 둘째 아들)이 1570년경 광주광역시 대촌으로 옮겼고, 8세손 철(澈, 형우-衡佑-의 넷째 아들)이 담양군 창평면으로 이거하여 손이 번창했다.

9세손 정은(廷閏. 사-嗣-의 둘째 아들)이 장성군 삼계면으로 이거하였으며, 9세손 희철(希哲. 시조의 23세손. 1586~1647)이 대동면 서호리로 옮겼고, 그의 손자 형은(亨殷. 1647~1707)이 대동면에서 무안군 해제면으로 이거하여 정착했다.

입향조 길의 묘소는 해보면 사창 후록에 있다.

대언공파(파조. 시조의 12세손 안적-安謫)의 입향조는 시조의 16세손인 처중(處中)이다.

그는 이조정랑으로 재직할 때 직언을 잘하여 권신들의 미움을 사 능주로 귀양되었다가 귀양이 풀린 1500년경 대동면 상옥리 옥동으로 이거 정착했다.

입향조 처중의 8세손(시조의 23손) 빈(賓)이 신안군 지도면으로 옮겨갔으며, 8세손인 헌(憲)이 영암군 시종면으로, 9세손 상민(相民)이 영광군으로, 10세손 응동(應東)이 장성군으로, 10세손 제(掣), 11세손 주복(周福), 주옥(周玉)이 나주시 문평면으로 이거하는 등 여러 곳으로 손이 퍼졌다.

함평군의 파평윤씨들은 문무과는 물론 수많은 충신을 배출하였고 특히 선조조에는 무과 급제자가 10명이나 되어 가문은 물론 함평을 빛냈고 지금도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다



함평군에 있는 관련 유적

유적명	소재지	관련인물
수벽사(修闢祠)	해보면 상곡리 모평	관(璫). 1957년 창건.
창남정사(滄南精舍)	" 용산리 창서	
임천정사(林泉精舍)	" 상곡리 모평	길(吉). 덕생(德生). 형필(衡弼)
동여정(東余亭)	" " "	
열녀각(烈女閣)	" " "	신천강씨(信川康氏)
유허비(遺墟碑)	" 용산리 대성	성산사 유허비. 영상(榮商). 형필(衡弼)
월양재(月陽齋)	" 상곡리 모평	
수정재(守貞齋)	엄다면 엄다리 성산	제(濟)
저존재(箸存齋)	신광면 삼덕리 덕산	
사매당(四梅堂)	해보면 용산리 소성	삼거(三擧)
귀후재(歸厚齋)	엄다면 영흥리	
청계정(聽溪亭)	해보면 상곡리 모평	
석천재(石泉齋)	나산면 우치리 계동	
귀영재(歸潁齋)	해보면 상곡리 모평	
동호정(東湖亭)	" " "	
효자정려(孝子旌閭)	엄다면 엄다리 성산	동명교관
임계정사(林溪精舍)	해보면 상곡리 모평	
추당재(秋塘齋)	" " "	
영양재(潁陽齋)	" " "	
열녀각(烈女閣)	대동면 상옥리 옥동	대구배씨(大邱裴氏)
삼현정(三賢亭)	" " "	황(越). 길(趙). 제민(濟民)

배출 인물

윤길(尹吉) : 1368~1462 시조의 15세손. 목은(牧隱)의 제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에 오름. 파평윤씨 함평군 입향조

윤덕생(尹德生) : 1396~1469 길의 아들. 권근(權近)의 문하생으로 1420년 사마시에 합격. 지평(持平)을 제수했으나 단종을 그리는 마음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윤처중(尹處中) : 시조의 16세손.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을 지냈으며 파평윤씨 대언공파 함평군 입향조다.

윤만(尹蔓) : 1418~1491 덕생의 아들. 감찰을 지냈다.

윤완(尹莞) : 1425~1489 덕생의 아들. 단성현감(丹城縣監)을 지냈다.

윤은경(尹殷柳) : 시조의 17세손.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윤자중(尹自中) : 1450~1511 음사로 출사하여 좌랑을 지냈다.

윤승문(尹承文) : 1466~1545 자중의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사과(司果)를 지냈다.

윤훤(尹諄) : 1468 시조의 17세손 윤처중의 아들로 주부(主簿)를 지냈다.

윤열(尹說) : 시조의 19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윤척(尹滌) : 은경의 아들.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윤언상(尹彦商) : 1481~1551 승문의 아들. 성주, 파주 등 13군의 수령을 지냈다.

윤희상(尹希商) : 1487~1555 승문의 셋째 아들. 별제(別提)를 지냈다.

윤사상(尹思商) : 1498~1568 승문의 넷째 아들. 장흥부사 등 9개군의 수령을 역임했다.

- 윤천승(尹天承) : 시조의 20세손.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하여 2등공신에 올랐고 1615년 무과에 급제하여 교동부사(喬桐府使)를 지냈다.
- 윤시형(尹時衡) : 1534~1597 척의 아들. 사첨시 주부(司瞻寺主簿)를 지냈다.
- 윤인형(尹仁衡) : 1517~1580 사상의 맏아들. 경흥부사(慶興府使) 등 7개군 수령을 지냈다.
- 윤형우(尹衡佑) : 1520~1587 영상의 둘째아들. 시조의 21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을 지냈다.
- 윤형수(尹衡袖) : 1521~1587 호 임곡(林谷.) 회상의 맏아들. 김인후의 문하생으로 검상(檢詳)을 지냈으며 당대 석학으로 이름 높았다.
- 윤예형(尹禮衡) : 1522~1592 호 임천(林泉). 사상의 둘째아들. 무과에 급제하였고 1589년 명천부사(明川府使)로 부임하여 재직하고 있던 중 임진란이 일어나자 경기감사 심대(沈垓)의 종사관으로 공을 세워 부원수에 올랐으며 삭녕, 칠원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순국하였다 선무원종 2등훈에 책록되었다.
- 윤은형(尹隱衡) : 1528~1586 사상의 넷째아들. 부장을 지냈다.
- 윤형필(尹衡弼) : 1529~1609 호 성호(城湖). 시조의 21세손. 1586년 무과에 급제하여 김제군수를 역임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의주까지 호송했고, 남하하여 가재를 포함 군량미 1천여 석과 의병 700명을 모아 서해를 통해 행재소에 도착하였으며 안변 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 1등훈에 올랐다.
- 윤형임(尹衡任) : 1532~1610 호 동계(東溪). 형필의 아우. 1555년 나주의 달량(達梁)에 침입한 왜적을 이후발(李後潑)을 도와 토벌하여 통례원 찬의(贊議)에 올랐고 임진왜란 때는 형과 함께 활동했으며 난이 평정되자 학문에 전념했다.
- 윤형록(尹衡祿) : 1536~1582 시조의 21세손. 사과를 지냈다.
- 윤 근(尹 瑾) : 1517~1593 호 퇴은(退隱). 선조조에 사마시에 입격하였으며, 임진란이 일어나자 80세의 고령임에도 김천일 군진에 참여하여 진주성 싸움에서 성이 함락되자 유서를 남기고 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해보면 산내리 송산에 충열각을 세워 거룩한 뜻을 기렸다.
- 윤 황(尹 越) : 1538~1597 호 노파(老坡). 시형의 아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성 남문에서 창의하였고, 정유재란 때 의병을 규합 무안의 울도포에 이르렀을 때 적과 만나 적 수십급을 베었으나 중과부적으로 체포되고 항복하라는 악형을 가했어도 왜적을 꾸짖으며 순절했다. 아내 대구배씨(大邱裴氏)는 남편의 순절 소식을 듣고 자결하려 했으나 이미 적이 침입하여 체포되자 그들의 만행을 꾸짖다가 적의 칼에 허리가 동강나 순절하였으며 14세된 딸이 어머니 몸을 막다가 그도 비참히 죽었다. 이 순절 사실이 「신속삼강행실(新續三綱行實)」에 실리고, 1681년 정려가 내려졌다.
- 윤 발(尹 潑) : 1545~1597 호 송산재(松山齋). 근의 아들. 아버지의 전사 소식을 듣고원수를 갚기 위해 광재우 군진으로 들어가 공을 세워 수문장에 올랐고, 정유재란 때 이순신 휘하에 들어가 한산도 싸움에서 분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 윤 길(尹 越) : 1564~1615 호 몽파(夢坡). 시형의 둘째 아들. 1589년 무과에 급제하여 병



조정랑, 공주통판(公州通判) 때 대동법(大同法)을 제정하여 백성의 세금을 덜어 주는 등 많은 치적을 남겼으며 구성부사 북평평사(北平評事)등을 역임했다.

윤 의(尹 猗) : 1538~1591 형수의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윤 섭(尹 涉) : 1538~1605 호 성암(城巖). 시조의 22세손. 숙부 형필과 함께 의병과 군량을 행재소에 운송하였고, 유진장에 올랐다.

윤 함(尹 涵) : 1541~1600 호 죽포(竹圃). 형우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군자감 판관을 지냈다.

윤 해(尹 海) : 1541~1597. 9. 19 형수의 둘째아들. 병절교위 우부장(右部將)을 지냈으며 1597년 왜적이 모평에 침입하여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 때 아내가 남편을 호위하여 손으로 칼을 막다가 순절하고, 그도 전신이 찢리는 죽음을 당했다. 1822년에 정려가 내려졌다

윤 덕(尹 惠) : 1543~1609 호 유정(抑亭). 예형의 둘째아들. 남해현감(南海縣監)을 지냈다.

윤 옥(尹 沃) : 1545~1593 호 송파(松坡). 형우의 아들. 1590년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숙부 형필과 함께 왕을 호종하였고, 안변 전투에서 전사에 남을 공을 세웠으나 이 전투에서 적탄에 맞아 순국했다. 절충어사(折衝御使)가 제수 되었으며 선무원종공신 1등훈에 올랐다.

윤 추(尹 湫) : 1549~1598 형임의 아들 주부를 지냈다.

윤 혜(尹 惠) : 1551~1627 은형의 아들(시조의 22세손). 주부를 지냈다.

윤 봉(尹 鵬) : 1553~1605 형록의 아들. 1590년 무과에 급하여 거제부사를 지냈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李舜臣) 휘하에서 함대 지휘관인 일령장(一領將)으로 당항포, 좌도 등 싸움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 진도의 울돌목 해전에서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선무원종공신 2등훈에 올랐다.

윤 급(尹 汲) : 1561~1626 시조의 22세손. 감찰(監察)을 지냈다.

윤 제(尹 濟) : 1562~1645 호 수정(守貞). 시조의 22세손. 곤재 정개청(鄭介淸)의 문하생으로 당대 호남에서 석학으로 이름 높았으며 유고 「교재집(喬梓集)」이 전한다.

윤 사(尹 嗣) : 1568~1643 호 석포(石浦). 형필의 양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첨정(僉正)·태창(泰昌)을 거쳐 1620년 동추(同樞)에 올랐다.

윤 귀(尹 貴) : 호 삼휴당(三休堂). 시조의 22세손 조광조의 문하생으로 선조 때 진사과에 입격했다.

윤경간(尹敬幹) : 귀의 아들 주부를 지냈다.

윤정생(尹挺生) : 1556~1617 의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첨추(僉樞)를 지냄.

윤덕훈(尹德勳) : 1565~1627 섭의 아들. 호조 정랑을 지냈다.

윤준량(尹俊良) : 1568~1630 시조의 23세손. 생전의 부모공양은 물론 어버이상에 시묘를 살았다. 이 효의 정신이 아들, 손자, 조카에 이르러 나라에서 마을 이름을 "사효동(四孝洞)"이라 명명했다.

- 윤덕봉(尹德鳳) : 1575~1672 호 해은(海隱). 함의 맏아들 1647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에 올랐으며 98세의 장수를 누렸다.
- 윤정호(尹挺豪) : 1582~1619 제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을 지냈다.
- 윤정규(尹廷圭) : 1599~1663 시조의 23세손. 효행으로 출사하여 군자관관을 지냈다.
- 윤정우(尹挺宇) : 1603~1690 호 송돈(松墩). 제의 둘째아들. 아버지에게서 곤재의 학문을 이어 받았고 당대 호남의 석학으로 이름 높았다. 유고 「교재집(喬梓集)」이 전한다.
- 윤정간(尹廷侃) : 1604~현종조 졸. 사의 아들. 사의(司議)를 지냈다.
- 윤신립(尹信立) : 1568~1653 호 야은(野隱). 덕의 아들 사마시 진사과에 입격했다.
- 윤 헌(尹 憲) : 1644~1726 시조의 23세손. 부호군을 지냈으며 도사 정상룡(鄭祥龍)과 함께 송시열의 신원 상소를 올렸다.
- 윤지임(尹之任) : 1608~1635 시조의 24세손. 1629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正字)를 지냈다.
- 윤지중(尹之重) : 1609~1699 시조의 22세손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
- 윤 선(尹 瑄) : 1608 - 시조의 23세손 지발의 아들로 통덕랑 역임
- 윤 재(尹 宰) : 1622~1667 시조의 23세손 지성의 아들로 통덕랑 역임
- 윤 혜(尹 蕙) : 1644~1726 시조의 23세손 지성의 넷째아들로 부원군과 증 호조참판 역임
- 윤재민(尹齋民) : 1634~1690 시조의 24세손 완의 아들로 진사입격, 고전 한시작가, 사헌부감찰, 용안현감 역임
- 윤은로(尹殷老) : 1612~1686 시조의 24세손. 호 월곡(月谷). 감역을 지냈으며, 병자호란 때 창의했다.
- 윤지원(尹之元) : 1615~1647 호 기와(箕窩). 시조의 24세손.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왕을 호종하였으며 몇 번의 전투에서 공을 세워 병조좌랑 겸 독전관을 제수받았다.
- 윤지망(尹之望) : 1619~1660 호 청송(靑松). 지원의 동생. 병자호란 때 형, 친척 윤은로, 윤유삼 등과 의병을 일으켰다.
- 윤 혼(尹 忻) : 1628~1708호 노와(老窩). 시조의 24세손.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다.
- 윤제민(尹濟民) : 1634~1690 호 잠정자(岑鼎子). 시조의 24세손. 19세에 진사시에 입격했으나 "과거에 합격하는 것은 선비의 불행이다."라며 끝내 대과를 치루지 않았다. 성균관 선비들의 추천에 의해 출사하여 사헌부감찰, 양성현감을 지냈으며 호남의 문장가로 꼽혔다. 「잠정자 시집」이 전해온다.
- 윤원빈(尹元賓) : 시조의 24세손. 정간의 맏아들. 숙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 윤지간(尹之幹) : 1638~ 1676 정규의 맏아들. 사평 (司評)을 지냈다.
- 윤수민(尹壽民) : 1638~1707 시조의 24세손. 선무랑을 지냈다.
- 윤석민(尹碩民) : 1641~1721 시조의 24세손. 첨추를 지냈다.
- 윤하민(尹夏民) : 1648~1720 시조의 24세손. 재(宰)의 맏아들로 진사과에 입격했다.
- 윤유삼(尹有三) : 1575~1648 호 선양당(善良堂). 은경의 아들. 병자호란 때 안방준의 격문을



받고 창의했다.

윤갑민(尹甲民) : 1688~1749 시조의 24세손 혜의 아들로 단암 윤보암 문하생.

윤유징(尹有徵) : 1626~1686 은로의 둘째아들. 학식과 덕망이 높아 효종대왕이 선비 30인을 뽑을 때 그 중 1인으로 뽑혔다.

윤유달(尹有達) : 은경의 셋째아들. 인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윤유형(尹有亨) : 1664~1726 은경의 넷째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사평을 지냈다.

윤삼거(尹三擧) : 1644~1718 호 사매당(四梅堂). 시조의 25세손. 송시열의 문하생으로 당시 호남에서 손꼽히는 학자였고, 판서 김진규가 "호남의 숨은 와룡-臥龍"이라 극찬하였다.

윤상로(尹商輅) : 숙종 때 문과에 급제했다.

윤상선(尹相宣) : 1725~1785 호 설암(雪菴). 시조의 25세손. 생원시에 입격했다.

윤세태(尹世泰) : 시조의 25세손. 진사과에 입격했다.

윤주간(尹周幹) : 1688~1756 체(掣)의 아들. 성균관 생원을 지냈다

윤 순(尹 巡) : 1716~1801 시조의 26세손. 첨추를 지냈다.

윤성희(尹聖希) : 1666~1689 시조의 26세손. 첨추를 지냈다.

윤징채(尹徵採) : 1675~1764 시조의 26세손.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윤 해(尹 諧) : 시조의 26세손. 영조 때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윤취가(尹就可) : 1690~1775 시조의 27세손.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윤천교(尹天敎) : 1737~1810 삼거의 손자. 승지(承旨)를 지냈다.

윤광렬(尹光烈) : ?~1809 호 송당(松堂). 시조의 28세손. 음사로 출사하여 1807년 도사에 올랐다.

윤원훈(尹元勳) : 호 지재(智齋). 시조의 28세손. 철종조에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윤성호(尹聖浩) : 1765~1825 천교의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이조 좌랑을 지냈다.

윤광의(尹光義) : 1755~1825 호 용강(龍岡) 시조의 28세손.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지냈다.

윤도진(尹道鎭) : 1772~1838 시조의 30세손. 효행이 탁월하였으며 사과를 지냈다.

윤종진(尹鍾鎭) : 1827~1885 시조의 30세손. 호조좌랑을 지냈다.

윤성진(尹聖鎭) : 1810~1852 호 만포(晩圃). 시조의 30세손. 184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직, 성현도찰방(省峴道察訪)을 지냈다.

윤자화(尹滋華) : 1825~1884 호 국포(菊圃)·귀영재(歸穎齋). 시조의 31세손. 1885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 사헌부 사간 등을 거쳐 대사헌(大司憲)에 올랐다. 유고집이 전해온다.

윤태완(尹泰完) : 1903~작고. 시조의 31세손. 1920. 4. 26 함평만세운동에 주동자로 징역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옥고를 치루었다.

윤항식(尹恒植) : 1855~1916 호 추당(秋塘). 시조의 32세손. 학자, 문인 「추당유고」 가전한다.

윤병남(尹炳南) : 1868~1916 시조의 32세손. 효자. 머슴살이를 하여 아버지의 학비를 마련했

- 고 아버지 병환 때 절지 주혈(切指注血)했다.
- 윤상래(尹相來) : 1908~작고. 호 을산(栗山). 시조의 32세손. 학다리, 학교남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 윤인식(尹仁植) : 1922. 9. 23 시조의 32세손. 7·8·9·10대국회의원, 국회 내무분과·무공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 윤한식(尹漢植) : 1927. 5. 15 인식의 아우. 사회사업가·아동문학가 함평군민의 상·국민포장 수상.
- 윤용상(尹龍相) : 1935. 1. 30 SBS 방송국장을 지냈다.
- 윤 표(尹 杓) : 1942. 4. 14 호 경산(耕山). 시조의 32세손. 1 2대 함평군의원, 4대 함평군의회 의장을 지냈다.
- 윤건병(尹乾炳) : 1888~1941 호 퇴은(退隱). 시조의 33세손. 김태원(金泰元) 의병부대에 가입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 윤재병(尹在炳) : 1910~1951 시조의 33세손. 광주고보 4학년 때 광주학생운동에 가담하여 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어 금고 4개월, 5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윤항병(尹恒炳) : 1911. 12. 2~1969. 호 송포(松浦) 시조의 33세손. 광주부시장을 지냈다.
- 윤병진(尹炳振) : 1917. 1. 2 시조의 33세손. 사회사업가. 광주시의원, 파평윤씨 호남종친회장을 지냈다.
- 윤길병(尹吉炳) : 1921. 8. 22 시조의 33세손. 농수산부 부이사관으로 경기도 농촌진흥원장을 지냈다.
- 윤기술(尹奇述) : 1923. 5. 30 시조의 33세손. 담양 한재초등학교 등 교장을 역임했다.
- 윤갑병(尹甲炳) : 1924. 7. 14~작고. 호 금계(錦溪). 시조의 33세손. 토목기정으로 광주시건설과장을 지냈다.
- 윤용병(尹用炳) : 1925. 4. 18 호 성암(星菴). 시조의 33세손. 금성화랑무공훈장·무성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윤해병(尹海炳) : 1931. 11. 7 시조의 33세손. 조흥은행 이촌·안국동 지점장을 역임했다.
- 윤도병(尹棹炳) : 1932. 5. 2 호 청송(靑松). 시조의 33세손. 사무관을 역임함
- 윤병주(尹炳注) : 1934. 2. 10 호 우지(愚智). 시조의 33세손. 서예가. 함평·화순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하였다.
- 윤준병(尹駿炳) : 1934. 11. 8 시조의 33세손. 농수산부 서기관으로 종자시험장을 지냈고 축협중앙회 이사로 있다.
- 윤병오(尹炳五) : 1936. 5. 3 호 옥정(玉汀). 시조의 33세손. 목포시교육청 교육장·전라도교육청 장학과장을 역임했다.
- 윤갑현(尹甲鉉) : 1938. 8. 23 시조의 33세손. 해군대령 역임
- 윤관종(尹寬宗) : 1939. 12. 9 호 성담(性潭). 고려시멘트(주)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 윤 기(尹 基) : 1942. 10. 8 시조의 31세손 치호의 맏아들로 사회복지사업가 목포공생원원장, 서울한남직업훈련학교 이사장, 호암상 수상, 현재 일본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 윤양성(尹穰聖) : 1942. 2. 20 인식의 아들. 안전기획부 부이사관을 역임하였다.
- 윤오상(尹五相) : 1943. 8. 20 시조의 32세손 육군대령으로 예편
- 윤경상(尹炅相) : 1943. 10. 19 시조의 33세손 육군중령으로 예편
- 윤동상(尹東相) : 1943. 1. 10 시조의 32세손 육군중령으로 예편
- 윤석규(尹錫圭) : 1948. 1. 2 시조의 34세손 외무부 사무관, 필리핀 대사관 근무
- 윤형기(尹炯基) : 1954. 7. 10 인식의 셋째아들. 공학박사로 열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다.
- 윤형의(尹炯義) : 1957. 5. 23 한식의 맏아들. 아시아나항공 차장 역임.
- 윤형신(尹炯信) : 1965. 10. 3 한식의 둘째아들. 내과전문의로 여수 윤내과의원에 근무하고 있다.
- 윤필중(尹弼重) : 1918. 호 청파(淸波). 시조의 34세손. 종로경찰서장·서울시경 경무국장등을 역임했다.
- 윤하중(尹河重) : 1918~작고. 시조의 34세손. 문평중학교 교장·함평군교육청 교육장을 지냈다.
- 윤완중(尹完重) : 1920. 7. 23~작고. 청파(淸波), 시조의 34세손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장·전남지적협회장을 지냈다.
- 윤홍중(尹洪重) : 1926 호 성촌(星村). 시조의 34세손. 단양 음성·천원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 윤우중(尹雨重) : 1929. 6. 9 호 초원(草原). 시조의 34세손. 함평교육청 교육장을 지냈고 함평군민의 상을 수상하였다.
- 윤원중(尹沅重) : 1930. 12. 5 호 해성(海星). 시조의 34세손 해군중령 예편
- 윤관중(尹寬重) : 1931. 12. 2 시조의 34세손. 1급기능사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 윤경중(尹炅重) : 1937. 8. 16 호 남파(南城.) 시조의 34세손. 서예가. 문학가.
- 윤경중(尹慶重) : 1938. 9. 5 병진의 맏아들. 순천·여수경찰서장을 역임했다.
- 윤창중(尹倉重) : 1940. 9. 20 시조의 34세손. 육군중령
- 윤병훼(尹炳毀) : 1941. 6. 16 시조의 33세손 농업기반공사 함평지사장 역임
- 윤은중(尹銀重) : 1942. 7. 10 호 묵여. 후병(厚炳)의 아들. 감사원 관리관으로 국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감사원 차장으로 있으며 장패상(長牌賞),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 윤해중(尹海重) : 1944. 5. 2 시조의 34세손. 주중상해총영사와 인천시 자문대사를 지내고 주일본공사로 재직하고 있다.
- 윤대중(尹大重) : 1945. 1. 25 호 평산(平山). 후병의 아들. 국영부국신용금고 이사 역임
- 윤원중(尹源重) : 1945. 12. 15 병진의 셋째아들. 현재 15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윤필중(尹弼重) : 1946. 4. 18 시조의 34세손. 육군대령을 역임함
- 윤이중(尹二重) : 1947. 10. 6 시조의 34세손.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 윤태중(尹泰重) : 1949. 1. 11 호 사공. 후병의 셋째아들. 총무처 서기관으로 과장직에 있다.
- 윤범중(尹汎重) : 1949. 12. 3 항병의 셋째아들. 상업은행 부국장을 역임함

- 윤 영(尹 瑛) : 1953. 3. 25 호 일송(一松). 대한교육보험 경인지역 총본부장을 역임함
- 윤왕중(尹旺重) : 1958. 10. 12 병주의 아들. 공학박사.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윤길중(尹吉重) : 1962. 12. 26 시조의 34세손. 사법고시에 합격하였고 현재 변호사로 있다.
- 윤 양(尹 錫) : 1922. 5. 13 호 성석(醒石). 시조의 35세손. 통신기좌로 광주 체신청 기술과장을 지냈다.
- 윤종열(尹鍾悅) : 1924. 9. 29 호 화원(和園). 시조의 35세손. 광주시·인천시 등 경찰서장을 지냈다.
- 윤석언(尹錫彦) : 1924. 10. 24 호 용암(龍岩). 시조의 35세손. 2개 시·6개군의 초등학교교장을 지냈다.
- 윤 철(尹 鐵) : 1926. 9. 20 호 성재(醒齋). 시조의 35세손. 전남매일신보 편집국장, 광주은행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 윤 현(尹 鉉) : 1933. 7. 18 호 연정(蓮汀). 시조의 35세손 사무관을 지냄.
- 윤석태(尹錫台) : 1935. 12. 2 시조의 35세손. 전남대학교 교수로 있다.
- 윤석택(尹錫澤) : 1937. 4. 22 시조의 35세손. 해보초등학교, 기산초등학교 등 교장을 역임.
- 윤석규(尹錫圭) : 1938. 10. 25 호 춘광(春光). 시조의 35세손. 한국선교총회 신학대학교학생처장 역임.
- 윤석기(尹錫基) : 1947. 6. 24 시조의 35세손. 건설회사 사장·대전시의원을 역임했다.
- 윤석기(尹錫基) : 1952. 2. 11 시조의 35세손. 데이콤회사 부회장으로 있었다.
- 윤석근(尹錫根) : 1954. 3. 16 시조의 35세손 기능사(技能士).
- 윤관석(尹寬錫) : 1954. 10. 10 시조의 35세손. 현재 육군 중령으로 재직하고 있다.
- 윤석윤(尹錫允) : 1955. 5. 25 시조의 35세손. 부이사관으로 인천시개발단장 역임.
- 윤석춘(尹錫春) : 1960. 6. 19 시조의 35세손. 건축 기술사 시험 합격. 육군소령 예편.
- 윤여상(尹汝尙) : 1941. 5. 25 시조의 36세손. 공인회계사. 한국증권사 이사.
- 윤여은(尹汝垠) : 1945. 5. 27 시조의 36세손. 제 1대 함평군의원. 2대 함평군의회의 의장.
- 윤여윤(尹汝潤) : 1947. 2. 19 호 임천(林泉). 제일은행 지점장 역임.
- 윤여성(尹汝誠) : 1947. 5. 28 양의 맏아들. 계리사(計理士).
- 윤정수(尹浬洙) : 1947. 9. 17 종열의 맏아들. 영신증권회사 지부장 역임.
- 윤춘수(尹春洙) : 1948. 12. 9 종열의 아들. 화천기업주식회사 이사 역임.
- 윤의수(尹義洙) : 1950. 3. 7 시조의 36세손. 공주사범대학교 교수로 있다.
- 윤광수(尹光洙) : 1953. 2. 23 의수의 아우. 농업진흥공사 부장 역임.
- 윤익수(尹益洙) : 1953. 11. 30 시조의 36세손. 쌍용그룹 실장 명예회장을 역임하였다.
- 윤영수(尹永洙) : 1954. 1. 18 종열의 아들. 선경그룹 부장으로 있다.
- 윤여선(尹汝善) : 1960. 6. 20 석택의 아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도청 과장으로 있다.
- 윤승철(尹承哲) : 1966. 3. 18 시조의 36세손. 회계사(會計士).
- 윤병무(尹炳茂) : 1940 육군중령 예편.



윤맹식(尹孟植) : 1944. 7. 20 삼성조선소 의외부장 역임.

윤정섭(尹正燮) : 1949. 7. 9 동양맥주 판매부장 역임.

3) 해남윤(海南尹)씨

시조는 존부(存富)며 그는 고려 중엽 때 사람이다.

상계는 실전되고 중조인 8세 광전(光典)이 7품 벼슬인 직장(直長) 자리에 있다가 고려가 망할 무렵에 강진군 도암면 덕암(德庵)에 은거하였고, 단봉(丹鳳) 단학(丹鶴)의 두 아들을 두었는데 단학의 손자 경(耕)이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사간(司諫)을 지내다가 해남으로 옮겼으며, 그의 막내 아들 효정(孝貞, 1476~1543)이 화원면 수동(壽洞)의 초계정씨 외동딸과 혼인하여 다섯 아들을 낳아 그들이 현달하면서 해남윤씨라 했다.

해남윤씨는 크게 강진계와 해남 연동계로 나눌수 있고 오늘날 수효는 연동파·죽사동파·부춘파의 순이며 강진계는 아래에 열거한 파로 나뉜다.

장파(長派) : 파조 단봉

죽사동파(竹寺洞派) : 파조 종(種)

지석파(支石派) : 파조 효인(孝仁). 무인을 많이 배출했으며 임진왜란 때 윤(輪)과 신(紳)의 형제와 그의 조카 치경(致敬)·동철(東喆) 등이 달마산에서 창의하여 전공을 세우고 병치 싸움에서 순절했다.

부춘파(富春派) : 파조 효의(孝義). 파조의 증손 용(容, 1708~?)이 초계군수를 지냈고, 그의 아들 봉경(鳳慶)과 익경(益慶)이 정유재란 때 양근(楊根)에서 창의했다가 순절했다.

정촌파(頂村派) : 파조 효례(孝禮). 파조의 손자 세필(世弼, 1487~1550)이 순천 부사를 지냈다.

용산파(龍山派) : 파조 효원(孝元)

해남계의 연동파 : 파조 효정 .

그는 중조 광전의 둘째 아들 단학의 후손으로 시조의 12세손이며 6형제를 두었다. 맏아들 구(衢, 1495~1549)는 조광조와 동기생으로 신진사류로 이름이 날려 남곤(南袞)이 천거한 호당(湖堂) 22명 중 한사람이나 1519년 을묘 사화 때 숙청되어 유배생활을 했으며, 셋째 아들 행(行)은 나주목사, 넷째 아들 복(復)은 충청도 관찰사를 지냈다. 구의 아들 의중(毅中)이 정2품인 좌참찬, 의중의 아들 유기(唯幾, 1554~1619)가 병조 참의, 유기(唯幾)의 양아들 선도(善道, 1587~1671)가 예조참의를 지내 명문으로 발돋움했다.

선도의 증손 두서(斗緒, 1688~1766. 화가)가 아홉 아들을 두었는데 다섯째 아들 덕열(德烈)의 딸이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어머니다.

이 연유로 정씨가문은 물론 해남윤씨 가문에는 천주교 신봉자가 많아 한때 수난을 당한다.

또한 일찍이 고향을 떠난 파조 효지(孝智)의 평양파, 파조 은서(恩瑞)의 충남파가 있는데 이들의 세는 미약한 편이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해남윤씨는 전국에 윤씨의 5.86%에 해당하는



17,366가구 55,627명이 살고 있어 윤씨 47개 본관 중 2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해남윤씨의 22.33%인 4,345가구 12,426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30가구 81명이 살고 있다.

배출 인물

윤근환(尹謹煥) : 1929. 1. 28 농학박사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 농협중앙회장 · 농수산 장관을 역임했다.

41. 이 씨 (李氏)

이씨의 계열에는 전주리씨의 리한(李翰)계, 신라 6부 촌장의 한 사람으로 신라 유리왕 9년(儒理王. 32)에 "이(李)"씨로 사성 받은 알평(謫平)계, 중국에서 귀화한 고성이씨계, 당나라에서 신라에 귀화한 연안이씨계, 김수로왕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의 성을 따서 "허(許)"씨로 했다가 현종(顯宗)으로부터 사성 받은 이허겸(李許謙)계, 원나라에서 귀화한 이지란(李芝蘭)계 등이 있고, 재령·아산·가평 등 대다수의 본관은 경주에서 분적되었다.

이씨는 증보문헌비고에는 451개 본관, 조선씨족통보에는 546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75개 본관 2,113,007가구 6,794,637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2위며 10,000가구 이상인 본관이 전주 808,511가구. 경주 446,598가구, 성주 58,134가구, 광주(廣州) 48,811가구, 연안 44,799가구. 한산 42,005가구, 전의 41,071가구, 함평 38,852가구, 영천(寧川) 36,781가구, 함천 36,411가구. 벽진 28,733가구. 고성 26,286가구, 성산 23,729가구. 여주 22,517가구, 인천 21,448가구, 진보(진성) 20,890가구, 원주(신우-신우-의 후손) 20,787가구, 평창 20,718가구, 재령 16,112가구, 덕수 15,711가구, 월성 14,452가구, 양성 13,721가구, 함안 11,8032가구, 광산 11,416가구, 청주 10,951가구, 공주 10,764가구, 신평 10,241가구의 27개 본관이다.

이 조사에서 별개의 본관으로 "함풍" 2,025가구가 조사되었는데 "咸豐"은 함평의 옛 이름이므로 함평과 합산해야 할 것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함평 1,615가구, 전주 968가구, 경주 510가구, 양성 66가구, 고성 48가구, 공주 19가구, 광주(廣州) 14가구. 한산 3가구, 영주 2가구, 강양 원주 각 1가구의 11개 본관이 조사되었다.

1985년 조사에서는 모두 74개 본관이며, 그 중 3가구 이상이 사는 본관은 함평(함풍 포함) 1,212가구 4,653명. 전주 923 가구 3,772명, 경주 271가구 1,077명, 양성 54가구 236명, 고성 41가구 171명. 광주 35가구 148명, 원주(신우계) 13가구 58명, 전의 13가구 54명, 광산 12가구 60명, 한산 9가구 37명, 고부 6가구 24명, 공주 5가구 31명, 성주·연안 각 5가구 17명, 진주 3가구 20명, 덕수 3가구 13명, 가평 3가구 10명, 함천·서림 각 3가구 17명의 19개 본관이며 1~2가구가 20개 본관.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이 35개 본관이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모두 75개 본관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가구 이상을 이루



고 있는 본관은 함평(함풍 포함)이 918가구 2,282명, 전주 697가구 1933명, 경주 226가구 619명, 양성 42가구 146명, 고성 29가구 83명, 광주(廣州) 26가구 65명, 완산 15가구 35명, 원주 11가구 38명, 광산 10가구 36명, 진주 10가구 23명, 전의 9가구 31명, 공주 6가구 16명, 성산 4가구 8명, 연안 3가구 12명, 나주 3가구 11명, 청주 3가구 10명 태원 3가구 3명의 순으로 모두 18본관이었다.

1~2가구를 이루고 있는 본관은 모두 29개 본관이었으며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은 28개 본관이었다.

함평군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입향했고, 5대에 걸쳐 많은 인물을 배출하며 번성했던 고부이씨가 개촌한 자작일촌의 마을은 폐허가 되고 지금은 군내에 2가구 7명만 사는 하위권 씨족이 되었다.

1) 경주이(慶州李)씨

시조는 알평(謁平)이다.

그는 신라 6촌장의 한 사람으로 다른 촌장과 함께 8.C 57년 박혁거세를 신라 초대 임금으로 추대하였고, 그 공으로 아찬(阿飡) 벼슬을 하였으며, 유리왕 9년 양산촌(陽山村)을 급량부(及梁部)로 고치고 "이(李)"씨로 사성 받았다.

시조의 발상촌이 경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관을 경주라 하였고, 경주의 옛 이름이 월성이기 때문에 "월성이씨"라고도 한다.

경주이씨는 평리공(評理公), 익재공(益齋公), 이암공(怡暗公), 국당공파(菊堂公派) 등 8개 파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함평군에는 평리공, 익재공, 국당공파가 살고 있으며 평리공파가 주를 이룬다.

1969년 조사에서는 510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271가구 1,077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19위(1969년 10위)를 차지하여 상위권에 속한다.

함평군 입향은 평리공파가 빠르며 첫 입향조는 평리공파 중 호군공파인 천수(天壽. 중조 거명-居明-의 21세손)다.

그는 1469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있다가 1480년경 나산면 덕림리 백양동에 이거 정착했다.

그의 10세손 중 기원(起元. 수흥-綏興-의 맏아들)이 1760년경 영남으로 옮겨갔고, 또 10세손 중 지창(之昌. 회원-會元의 일곱째 아들)이 1710년경 서울로 옮겨 정착했다.

평리공파중 사직공파며 중조 거명의 21세손인 문화(文華)가 단종의 왕위 박탈에 불복하여 나주시 문평면에 낙향하여 살 던 문중을 떠나 1500년경 해보면 대각리 회화정으로 이거 정착했다.

그의 증손 결(潔)이 1600년 초 함평읍 내교리 내대화에 정착했고 결의 손자 눌(論. 이배-以배-의 맏아들)이 신평면으로 옮겼고 증손 영휘(永輝. 세형-世衡-의 맏아들)가 나주시 동강면으로 이거 정착했으며 현손인 대운(大運. 1666년생. 중조의 31세손. 천혁-天赫-의 양 아들)이 1690년경 함평

읍 장교리 칠언으로 옮겨 자손이 번창했다.

군내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신광면 월암리 연천, 나산면 덕림·구산리, 함평읍 장교리 칠언이다.

입향조 천수의 묘소는 월야면 영월리 세동에 있고, 문화의 묘소는 해보면 대각리 안인동에 있다.

함평군에 있는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구충사(舊忠祠) (연천사-燕川祠)	신광면 월암리 연천	죽암 이송제(竹庵李松濟), 눌헌 이창석(訥軒李昌碩), 애오제 이태희(愛吾齋李泰熙), 농은 이치오(農隱李致五) 1868년 훼손. 현재 복설하지 않음

배출 인물

이천수(李天壽) : 중증시조 거명(居明)의 21세손. 1649년 문과에 급제. 경주이씨 함평군 입향조.

이 성(李 晟) : 거명의 23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전략장군을 지냈다.

이문화(李文華) : 거명의 24세손. 진사 맹(孟)의 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으며 나주시 문평면에서 해보면 대각리 회화정으로 옮겨 살았다.

이희방(李熙芳) : 호 신재. 문화의 아들. 진사과에 입격했다.

이청수(李清秀) : 거명의 26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어모장군을 지냈다.

이 암(李 巖) : 거명의 26세손. 정랑(正郎)을 지냈다.v

이언심(李彦謹) : 1538~? 호 신평(信圃). 거명의 26세손. 1585년 무과에 급제하여 용양위대호군에 올랐고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하였으며 선무원종공신에 올랐다.

이 결(季 潔) : 거명의 27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호분위 부호군(虎賁衛副護軍)을 지냈으며 임진왜란 때 사성 우전(司成禹傳)과 함께 창의하였다.

이우백(李友栢) : 청수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이의훈(李義勳) : 1595~? 언심의 둘째 아들. 1633년 사마시에 입격하여 직장(直長)을 지냈고 병자호란 때 승지 임동(任棟)과 함께 창의하였다.

이경훈(李景勳) : 1606~? 언심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이수적(李綏迪) : 의훈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을 지냈다.

이수춘(李綏春) : 1644~? 호 둔계(遯溪). 의훈의 넷째 아들. 1677년 무과에 급제하여 병조정랑을 지냈다.

이서운(李緒胤) : 1632~? 경훈의 양아들. 인효로 천거되어 예조 좌랑을 지냈다.

이유진(李惟進) : 결의 아들. 주부를 지냈다.

이이배(李以培) : 우백의 맏아들. 선교랑(宣敎郎)을 지냈다.



- 이경배(李敬培) : 1597~1669 우백의 둘째 아들. 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을 지냈다.
- 이득신(李得新) : 거명의 28세손. 첨지중주부사를 지냈다.
- 이수흥(李綏興) : 거명의 28세손.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
- 이회원(李會元) : 1659~1720 호 백곡(白谷). 서윤의 아들. 1687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좌승지를 지냈다.
- 이형원(李亨元) : 서윤의 둘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복원(李復元) : 서윤의 셋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지하(李之夏) : 1687~? 회원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지필(李之秘) : 거명의 30세손. 무과에 급제하였다.
- 이지담(李之禪) : 회원의 넷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이지창(李之昌) : 회원의 일곱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영장(營將)을 지냈다.
- 이지온(李之溫) : 1773~? 거명의 30세손.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 정랑, 좌승지를 역임했다.
- 이석희(李碩禧) : 지온의 아들. 효우로 출사하여 통덕랑을 지냈다.
- 이민우(季玟愚) : 1822~? 호 취헌(醉軒). 거명의 33세손. 효행과 학식이 뛰어났으며 「양지록(養志錄)」, 「정심명(正心銘)」을 지었다.
- 이집호(李集鎬) : 1804~? 호 묵재(默齋). 거명의 34세손.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 경기도사(京畿都事)를 지냈다.
- 이규방(李圭方) : 거명의 36세손.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 이종문(李鍾文) : 1874~1909 규방의 셋째 아들. 항일전을 떠다가 1909. 4. 11에 순국했다.
- 이춘풍(李春豊) : 정유재란 때 노복 10여명과 함께 이북남 휘하로 들어가 남원전에서 공을 세우고 전사했다.
- 이 정(李 艇) : 감찰을 지냈다.
- 이 호(李 浩) : 정의 아들. 1615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고 병자호란 때 전라병사 김준룡(金俊龍)과 광교산 전투에서 청나라 장군을 살해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 이송제(李松濟) : 호 죽암(竹庵). 신광면 월암리 구충사(舊忠祠)에서 배향했다.
- 이창석(李昌碩) : 호 눌헌(訥軒). 송재의 아들. 1711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병조좌랑 재임시 이인좌란(李麟佐란)이 일어나자 평정에 참여 진무원종공신에 올랐다.
- 이치오(李致五) : 호 농은(農隱). 구충사에서 배향했다.
- 이신희(李頤熙) : 정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을 지냈다.
- 이태희(李泰熙) : 호 애오재(愛吾齋). 정조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1868년에 훼손한 구충사에서 배향했었다
- 이규정(李圭正) : 1893. 8. 18~작고. 일본 명치대학교 법학부 졸업. 제2대 광주지방법원장국 제변호사 역임.
- 이남우(李南雨) : 1896~1963 거명의 38세손. 항일운동을 하다가 1940년 체포되어 6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다.

이종표(李鍾杓) : 1908. 12. 1~작고, 1949년 사법관 시보에 합격하여 제주·청주·전주지방 법원장을 역임했다.

이상수(李相遂) : 1910. 9. 26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이종성(李鍾成) : 1915. 3. 29~1950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이종만(李鍾萬) : 작고. 광주방송국 국장을 지냈다.

이필형(李弼炯) : 1931. 12. 16 의학박사.

이진섭(李鎭燮) : 1942. 4. 30 제2대 함평군의회원을 지냈다.

이관일(李貫一) : 1943. 12. 13 의학박사.

이정인(李正仁) : 1944. 5. 18 수협 전라남도 차장을 지냈다.

이원형(李元炯) : 1946. 3. 5 국방부 사업조정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육군 소장 재임.

이상선(李相善) : 1946. 7. 20 국방부 군수처장을 역임했고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이석형(李錫炯) : 1958. 11. 7 광주·전남 프로듀서연합회장을 역임했고 민선 1,2,3대 함평 군수를 연임했다.

2) 고부이(高阜李)씨

시조는 경조(敬祖)다.

그는 고려 문종 때 사람으로 시호는 문헌(文憲)이며 구재학당(九齋學堂)인 문헌공도에서 수학하였고, 문종 18년(1064) 동당시(東堂試)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거쳐 문하평장사에 이르렀다.

1071년 김제(金梯)와 함께 서장관으로 송나라에 다녀왔고 숙종조에 이르기까지 5대를 섬긴 공으로 추중보정공신(推忠輔靖功臣)이 되어 여산군(礪山君)에 봉해지고 검교좌정승(檢校左政丞)을 지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의 생장지인 고부를 본관으로 삼고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고부이씨가 배출한 인물은 시조의 손자 양빈(陽賓)이 서북명마사로 윤관(尹瓘) 장군과 함께 여진족을 토벌하였으며, 그의 동생 양승(陽升)이 명종 때 상장군을 지냈고, 5세손 의(儀)가 대장군을 지냈다.

고부이씨의 함평 입향조는 진사공파(進士公派. 파조 서-瑞. 시조의 10손)의 희삼(希參)이다.

그는 파조 서의 현손으로 진원현감을 지냈으며, 1520년경 연(連), 건(建) 형제를 데리고 전북 정읍에서 손불면 동암리 삼괴동(三槐洞)에 정착하였고 후손이 현달하고 번성했다.

희삼의 6세손 진사 세영(世漢)이 1670년경 죽장리 당피(堂山. 현 응암)로 옮겨 5대를 번성하게 살았는데 후손들의 퇴거로 전성기의 기왓장만 문혀 있고 2000년 조사에 의하면 2가구 7명이 살고 있을 뿐이다.

배출 인물

이희삼(李希參) : 시조의 21세손 진원현감을 역임했으며, 고부이씨 함평군 입향조이다.



이기성(李奇聖) : 연의 아들. 진사를 지냈다.

이세영(李世漢) : 시조의 26세손. 진사를 지냈다.

3) 고성이(固城李)씨

시조는 황(璜)이다.

그는 이반(李槃)의 24세손으로 전해오고 있다.

반은 한나라 문제(文帝) 때 중서사인(中書舍人) 벼슬에 있었는데 문제가 우리나라에 침입할 때 총사령관으로 출정했다가 돌아가지 않고 귀화한 사람이다.

시조 황은 고려 덕종(德宗, 재위 1031~1034) 때 생원과에 입격한 후 은둔하고 있다가 1033년 거란이 침입해 오자 왕의 경호 장교인 좌우위맹교위(左右衛猛校尉)가 되어 전공을 세워 왕명을 출납하는 밀직부파(密直副使)에 오르고 1063년(문종 17)에 호부상서에 올라 철령군(鐵嶺君, 고성의 옛 이름)에 봉작되었기에 후손들이 고성을 본관으로 했다.

고성이씨가 배출한 걸출한 인물로는 고려조에서 시조의 7세손 존비(尊庇)가 판밀직사사, 그의 아들 우(隅)가 병부상서로 철성부원군에 봉해졌고, 우의 아들 암(嶠)이 우정승을 지냈으며 글씨에 뛰어났고, 그의 동생 교(嶠)가 공민왕 때 형부상서에 올랐다.

조선조에서는 암의 둘째 아들 숭(崇)이 태조 때 대제학, 손자 원(源)이 세종조에 좌의정을 지냈고, 원의 일곱 아들이 모두 현달하여 가문을 빛냈다.

이 외 척(則)이 대사성·충청감사, 육(陸)이 대사헌·한성부 우윤, 육의 아우 백(栢)이 대사간, 원의 증손 주(胄)가 성종 19년(1488)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뽑힌 인재였고, 명규(命圭)가 명종 때 병조판서를 지냈다.

고성이씨는 안정공(安靖公), 도촌공(挑村公), 둔재공파(鈍齋公派) 등 10개 파가 있는데 함평군에는 둔재공파만 살고 있다.

함평군 입향조는 시조의 14세손인 완(琬)이다.

그의 출생 연대는 전하지 않으나 형인 필(泌)이 1505년생이며, 역(1473년생)의 네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으니 태어난 해가 1510년 전후로 볼 수 있다.

부사(府使),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후 무안현감을 지냈던 연유로 1550년대에 경기도 광주에서 당시 무안현 땅이던 엽다면 화양리 포향정으로 이거 정착했다.

함평 입향조 완의 9세손 후발(厚發)이 하남(河南)으로 이거하여 인근 비아로 손이 번졌고, 12세손 득년(得年)이 광주 광역시 본양동, 우계(友桂)가 해제면으로, 우송(友松)이 신광면 원산리로, 우매(友梅)가 학교면 금송리로, 화림(華林)이 학교면 마산리로, 14세손 재병(在柄, 시조의 27세손)이 자풍리로 이거 정착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46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41가구 119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80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입향조 완의 묘소는 엽다면 화양리 포향정 앞 족박표(足朴橋, 원래 표교-瓢橋) 뒷산 묘좌에 있다.

배출인물

- 이 완(李 琬) : 시조의 14세손. 무안현감·대사헌을 지냈으며 고성이씨 함평군 입향조
- 이 결(李 傑) : 완의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병사(兵使)를 지냈다.
- 이흥제(李興悌) : 결의 아들. 함양군수를 지냈다.
- 이계반(李桂攀) : 흥제의 아들. 찰방을 지냈다.
- 이 규(李 圭) : 계반의 아들. 생원과에 입격하였다.
- 이인번(李仁蕃) : 규의 아들. 생원과에 입격하였고 어모장군을 지냈다.
- 이기남(李箕南) : 인번의 아들. 군기시 첨정(僉正)을 지냈다
- 이준길(李俊吉) : ?~ 1664 시조의 21세손. 1603년 무과에 급제하여 어유윤첨사(魚遊潤僉使)·상주영장(尙州營將)을 지냈다.
- 이선업(李善業) : 준길의 아들. 선교랑(宣敎郎)을 지냈다.
- 이후발(李厚發) : 시조의 22세손. 통정대부에 올랐다.
- 이철암(李哲黯) : 1641~1732 시조의 22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사과(司果)를 지냈다.
- 이운구(李雲九) : 1684~1717 시조의 23세손. 선업의 맏아들. 진사과에 입격했으며 시집 「잠두록(蠶頭錄)」이 전한다.
- 이운대(李雲大) : 시조의 23세손. 선업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다.
- 파평윤씨: 1857~ 1933 윤칠(潤七, 1846~1905, 시조의 28세손)의 아내. 열행으로 삼강록에 올랐다.
- 이용철(李榕哲) : 1940. 1. 15시조의 30세손. 박사. 대학교수.

4) 공주이(公州李)씨

시조는 천일(天一)이다.

그는 신라 때 사람으로 학행이 높아 중국에 초선(招選)되어 18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사마대장군(司馬大將軍)이 되고, 그 후 흥노 정벌에 공을 세워 요동백(遼東伯)이 되었다.

병으로 귀국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문하시중 평장사에 이르고 공산(公山, 공주-公州)부원군에 봉해졌다.

그래서 후손들이 공주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의 후손 중 첨의정승(僉議政丞)을 지낸 사손(思孫)의 손자 대에 7개 파로 분파되었는데 그 중 셋째 파인 공숙공파(恭肅公派, 파조 명덕-明德)가 함평군에 입향했다.

입향조는 파조의 13세손인 화백(華伯)이 아들 계휘(啓暉)와 함께 1720년경 공주에서 손불면 죽장리로 이거 정착하였으며, 1969년 조사에서는 19가구가 살았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6가구 16명이 살고 있을 뿐이다.

손불에서 번창하던 공주이씨가 줄어든 큰 까닭은 1894년 동학운동 때 화진(化辰)이 대접주로 활동하다가 실패하고 체포되어 처형되자 후환이 두려워 집안들이 뿔뿔이 흩어진 데 있다.

입향조 화백의 묘소는 신광면 삼덕리 덕산 안산에 있다.



배출 인물

이화진(李化辰) : 본명 경진(景鎭). 호 두암(斗庵). 함평군의 동학대접주로 동학운동을 주도했다.

5) 광산이(光山李)씨

도시조(都始祖)는 정(靖)이다.

그는 신라 왕통(王統)의 김알지(金閼智) 원손으로 정리하고 있다.

광산이씨는 정을 도시조로 하면서도 그의 7세손인 순백(珣白)·숙백(淑白)·승백(升白) 3형제를 각각 보1세(譜-世)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막내인 승백은 7세에서 세계가 불명 상태로 끊겨있다

순백계 : 5세손 선제(先齋. 1399~1454)가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지냈으며 정인지(鄭麟趾)·김종서(金宗瑞)와 더불어 고려사를 편찬했다.

그에게는 시원(始元)·조원(調元)·한원(翰元)·찬원(贊元)·형원(亨元)의 5형제가 있었으며 모두 현달했다.

그 중 막내인 형원의 자손이 더욱 현달한 인물을 배출했는데 형원은 부제학 4 달선(達善)은 대사성 → 공인(公仁)은 부제학 → 중호(仲虎)는 전라감사 → 발(潑. 1544~1589)이 대사간(大司諫)으로 이어지는 전남의 명문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집안은 1589년 기축옥사 때, 발이 정여립(鄭汝立)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모함을 받아 국문을 받다가 장살된 후 벼슬과는 담을 쌓게 되는 비운을 맞았다.

후손들이 주로 광주에 많이 살고 있다.

숙백계 : 대구 등 영남으로 많이 번져나갔으며 청주정씨 구(逯), 양천허씨 적(積)을 사위로 맞는 등 명문 가계를 이어 갔다.

광산이씨는 전국에 11,416가구 36,741명이 살고 있어 이씨 본관 중 24위며, 전남에는 광산이씨의 14.61%에 해당하는 1,837가구 5,368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0가구 36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6) 광주이(廣州李)씨

도시조는 자성(自誠)이다.

그는 신라 내물왕(奈勿王. 재위 356~401) 때 내사령(內史令)을 지냈다.

그러나 세계가 실전되어 알 수 없으므로 고려 말기에 생원을 지낸 당(唐)을 시조로 하고 있으며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를 지낸 집(集)을 1세조(一世祖)로하여 계대하고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 집의 세 아들을 비롯 수많은 문·무과 출신을 배출했고 특히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는 영의정 극배(克培) 등 8명의 종형제(從兄弟)가 조정에서 활약하여 “8극조정(八克朝廷)”이란 말까지 들은 명문을 이루었다.

20005년 통계기획원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이씨는 전국에 48,811가구 158,249명이 살고 있어 이씨 본관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에는 광주이씨의 3.12%인 1,677가구 4,947명이 살고 있고 특히 보성군에 많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14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35가구 148명이, 2000년에는 26가구 65명이 살고 있으며 주로 신광면에 많이 살고 있다.

7) 성주이(星州李)씨

도시조는 순유(純由)이며 그는 신라 경순왕 때의 명신(名臣)이다.

그러나 세계가 실전되어 도시조의 12세손 장경(長庚)을 중시조로 하고 있다.

중시조 장경은 고려 고종 때 도첨의 정승 지전리사사 상호군(都僉議政丞知典理司事上護軍)에 오르고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군 되었다.

그의 손자 승경(承慶)이 원나라에서 등과하고 요양성 참지정승(遼陽省參知政丞)을 지내면서 공을 세우니 원제(元帝)가 그의 조부를 농서군공(隴西郡公)에 추봉했다.

중시조가 농서군공에 추봉되었으므로 농서이씨라고도 하였으나 고려 충렬왕 때 개칭된 성주목(星州牧)을 본관으로 했다.

성주이씨는 중시조 장경의 아들 5형제 대에서 크게 5개 파로 갈려 고려와 조선조에 걸쳐 명문의 지위를 지켰다.

밀직공파(密直公派) : 파조· 장경의 맏아들 백년(百年)

참지공파(參知公派) : 파조· 장경의 둘째 아들 천년(千年)

시중공파(侍中公派) : 파조· 장경의 셋째 아들 만년(萬年)

유수공파(留守公派) : 파조· 장경의 넷째 아들 억년(億年)

문열공파(文烈公派) : 파조· 장경의 다섯째 아들 조년(兆年)

2000년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58,134가구 186,188명이 살고 있어 이씨 본관중 3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성주이씨의 1.73%에 해당하는 1,059가구 3,234명이 살고 있으며, 함평군에는 2가구 9명이 살고 있다.

8) 양성이(陽城李)씨

시조는 수광(秀匡)이다.

그는 고려 문종 때 사신으로 송나라에 가서 공을 세워 금오위대장군 삼중대광보국양성군(金吾衛大將軍三重大匡輔國陽城君)에 봉해져 후손들이 본관을 양성으로 하여 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고려조에서 시조의 아들 신정(臣靖)이 이부상서, 손자 원의(元義)가 충렬왕 때 밀직부사, 증손 영주(英柱)가 첨의평리를 지내고 양성군에 봉작되었고 그의 아들 5형제가 모두 현달했다.

조선조에서는 맹상(孟常)이 세종 때 병조판서, 승소(承召)가 예조판서를 지냈는데 그는 왕명으로 "명황계감(明皇誠鑑)"을 한글로 번역하는 등 명문장가였으며, 세영(世英)은 대사헌·개성



유수를 지냈고 편수관으로 있을 때 "성종실록"을 편찬했으며, 영남(英男)은 1584년 무과에 급제하여 정유왜란 때 조방장(助防將)으로 명량해전에서 공을 세우고 이순신과 같이 순절하여 선무원종 1등공신이 되었다.

양성이씨는 시조의 7세손에서 일시중공파(一侍中公派), 이시중공파(二侍中公派), 삼시중공파(三侍中公派), 상서공파(尙書公派) 등 13개파로 갈렸다.

양성이씨는 전국에 13,721가구 44,402명이 살고 있어 이씨 241개 본관 중 22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양성이씨의 6.62%에 해당하는 1,025가구 2,942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66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54가구 236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65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함평군에는 삼시중공파(三侍中公派. 파조 광부-光富)가 입향했고, 입향조는 파조의 현손인 암손(岩孫)이 1450년대에 교수직을 사임하고 손불면 죽장리에 이거 정착하여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었고, 현달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서울·완도·정읍 등지로 퍼져나갔다.

입향조 암손의 묘소는 손불면 동암리 산 30-1번지에 있다.

배출 인물

이암손(李岩孫) : 시조의 11세손. 남평현감 중신(仲臣)의 아들로 교수를 지냈으며 양성이씨 함평군 입향조다.

이 선(李 宣) : 암손의 맏아들. 성종 때에 금화사 별좌(禁火司別坐)를 지냈다.

이 보(李 寶) : 암손의 둘째 아들. 1525년(중종 20)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이성인(李成仁) : 선의 아들. 중종 때에 상장(上將)을 지냈다.

이성의(李成義) : 선의 둘째 아들. 세자 익위사 위솔(世子翊衛司衛率)을 지냈다.

이성헌(李成憲) : 1506~1565 호 학수(鶴秀). 선의 셋째 아들. 정읍현감·한성부 판관을 지냈다.

이 준(李 遵) : 성인의 아들. 명종 때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올랐다.

이 진(李 進) : 성인의 둘째 아들. 형 준과 함께 원종공신에 올랐다.

이희복(李希福) : 성의의 맏아들. 장례원 사평(司評)을 지냈다.

이을복(李應福) : 성의의 둘째 아들. 첨지(僉知)를 지냈다.

이덕남(李德男) : 준의 맏아들. 선조 때 주부를 지냈고, 1614년 익사원종(翼社原從) 2등 공신에 올랐다.

이덕린(李德麟) : 준의 둘째 아들. 첨지를 지냈다.

이덕림(李德林) : 진의 아들. 선조 때에 만호를 지냈고 1614년 익사원종 1등공신에 올랐다.

이원상(李元祥) : 1561~? 호 취금헌(翠琴軒). 희복의 아들. 선조 때에 무과에 급제했고, 임진란 때 왕을 호종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올랐고 이산군수(理山郡守)를 지냈다

이경상(李景祥) : 희복의 둘째 아들. 주부를 지냈다.

이덕수(李德秀) : 응복의 아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봉사(奉事)를 지냈다

이 빈(李 黼) : 시조의 16세손. 인조 때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 이 함(李 鎰) : 1598~? 경상의 아들. 1627년 식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 이 필(李 秘) : 1608~? 덕수의 양아들.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다
- 이무경(李茂慶) : 1603~? 봉훈랑(奉訓郎)을 지냈다.
- 이 후(李 垸) : 1661~1737 시조의 17세손. 1699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 등을 역임했다.
- 이 욱(李 郁) : 1689~1759 시조의 18세손 6조의 정랑·황해도사(黃海都事)를 지냈다.
- 이 주(李 胄) : 통덕랑을 지냈다.
- 이양태(李陽泰) : 1704~1775 후의 넷째 아들. 1743년(영조 9)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냈다.
- 이의철(李宜喆) : 1716~1751 시조의 18세손. 1744년 식년 문에 급제하여 성균관전적 등을 역임했다.
- 이휴삼(李休三) : 1650~? 주의 셋째 아들. 1689년(숙종 15) 증광시 진사과에 입격했다.
- 이석삼(李錫三) : 1652~1704 시조의 19세손. 주의 넷째 아들. 1689년 형 휴삼과 함께 진사과에 입격한 후 문과에 급제하여 황해도사를 지냈다.
- 이경윤(李景潤) : 1671~1755 호 환취당(環翠堂). 시조의 20세손. 행의로 여러 차례 도천(適薦)을 받았고 수직으로 중추부사에 올랐다.
- 이안섭(李安燮) : 1933. 3. 20 의학박사. 이안섭외과의원 원장

9) 연안이(延安李)씨

시조는 무(茂)다.

그는 원래 당나라 사람으로 당나라 고종 때 중랑장을 지내다가 신라 무열왕 7년(660) 나당연합군 대총관 소정방의 부장으로 참전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한 공으로 제후에 봉해졌으며, 그 후 신라에 귀화하여 살게 되었으므로 그를 시조로 하고, 식읍으로 하사한 연안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상계가 실전되어 정확한 계대를 알 수 없어 후손들은,

태자첨사공파(太子詹事公派) : 파조 습홍(襲洪)

판소부감공파(判小府監公派) : 파조 현려(賢呂)

대장군공파(大將軍公派) : 파조 원주(元柱)

통례문부사공파(通禮門副使公派) : 파조 지(漬)

예부상서공파(禮部尙書公派) : 파조 핵(核)

이부시랑공파(吏部侍郎公派) : 파조 분양(汾陽)

진법판서공파(典法判書公派) : 파조 방(昉)

영광군사공파(靈光郡事公派) : 파조 계연(季衍) 등으로 갈려 세계를 이어왔으나 현재는 4파로 합쳤다.

연안이씨는 조선조에 와서 명문대가를 이룬 씨족이다.



습흥의 6세손 귀령(貴齡)과 귀산(貴山)이 세종 때 좌의정과 관찰사를 지냈고, 귀산의 7세손 광정(光庭)이 증광(增廣)문과에 급제하였고, 이조판서를 역임할 때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를 가져와 한국의 지리관(地理觀)에 대전환기를 일으켰다.

현려의 9세손 석정(石亭)이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아 보국승록대부에 오르
고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봉작되었으며, 그의 현손 정구(廷龜)가 좌의정에 올랐고 또 문장
가로 이름 높았다. 아들 명한(明漢)이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냈으며 인격과 시재(詩才), 효행의
삼절(三絶)로 불리었고, 그의 아들 일상(一相)이 대제학을 지내 삼대 대제학을 배출한 영광을
안았다.

귀(貴)가 인조반정의 1등공신에 올랐고, 그의 아들 시백(時白)이 효종 때 영의정을 지냈다.

지의 후손으로는 6세손 숙기(淑琦)가 이조판서, 그의 증손 호민(好閔)이 예조판서·대광보국
승록대부에 올랐다.

후정(后定. 1631~1689)은 1675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함평현감을 지내 함평과 인연을 맺었고,
헌납(獻納)에 올랐으며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정운이 정조 때 형조판서, 그 아들 명적(明迪)이 이조판서를 지내는 등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연안이씨는 전국에 44,799가구 145,440명이 살고
있어 이씨 275개 본관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연안이씨의 1.83%인 835가구
2,661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3가구 12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0) 원주이(原主李)씨 <신우계-伸佑系>

원주이씨에는 시조를 춘계(春桂)로 하는 원주이씨와 시조를 신우(伸佑)로 하는 원주이씨가 있
는데, 함평군에 살고 있는 원주이씨는 시조를 신우로 하는 원주이씨다.

시조 신우는 진한의 양산촌장(楊山村長) 알평(諱平)의 원손이며, 경주이씨의 1세조 거명(居明)
의 12세손으로 고려 목종 7년(穆宗. 1004)에 문과에 급제하여 문종 때 병부상서를 지내고 나
라에 공을 세워 경흥군(慶興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신우를 시조로 하고 경주이씨에서 분적하여 본관을 원주로 했다. 원주이
씨는 크게 판도공파(版圖公派), 월성군파(月城君派), 대장군공파(大將軍公派), 시랑공파(侍郎公
派)의 4개파로 나눈다.

시조 신우의 16세손인 영화(英華)가 강릉도호부사를 지내다가 단종의 폐위 소식을 듣고 벼슬
을 버린 뒤 해남으로 이거 정착하면서 전남에 후손이 퍼져 살게 되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20,787가구 66,603명이 살고 있어 이씨
275개 본관 중 13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원주이씨의 11.92%에 해당하는 2,788가구 7,941명
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1가구 38명이 살고 있다.

배출 인물

이경식(李景植) : 작고. 함평읍에서 제생의원(濟生醫院)을 경영하였다.

이현하(李炫夏) : 1939. 1. 2 경식의 맏아들. 공학박사 캐나다 원자력연구소 근무

이현국(李炫國) : 1946. 11. 1 경식의 아들. 전자공업박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이현추(李炫秋) : 경식의 아들. 부산에서 의원을 경영하고 있다.

11) 전의이(全義李)씨

시조는 도(棹)다.

그는 고려 태조가 견훤(甄萱)을 정벌하고자 남하하여 금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이 범람하자 태조를 도와 무사히 건너게 해주었으므로 태조가 "棹"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통합삼한 삼중대광 태사 익찬공신(統合三韓三重大匡太師翊贊功臣)의 벼슬을 내리고 전의후(全義侯)에 봉했다.

그 후 도는 전의 이성산(李城山) 아래로 이거하여 정착했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전의로 하고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전의이씨의 대표적 인물로는 고려조에서 시조의 7세손 천(仟)이 고종 때 수군 200명을 거느리고 아산(牙山)에서 몽고군과 싸워 크게 이겼고, 그의 둘째 아들 혼(混)이 원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첨의정승(僉議政丞)에 올랐고 예안(禮安)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언충(彦冲)이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충숙왕 때 예문관 대제학에 올랐고, 조선조에서는 시조의 11세손 정간(貞幹)이 강원도관찰사를 지냈으며 80세의 고령으로 102세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를 보였다

탁(鐸)이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영의정을 역임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41,071가구 133,237명이 살고 있어 이씨 275개 본관 중 7위이며, 전남에는 전의이씨의 1.62%에 해당하는 733가구 2,166명이 살고 있고, 함평군에는 9가구 31명이 주로 해보·월야면에 살고 있다.

12) 전주리 (全州李)씨

시조는 한(翰)이다.

그는 신라 문성왕(文聖王. 재위 839~856) 때 사공(司公) 벼슬을 지냈다.

시조의 22세손인 성계(成桂)가 고려의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 잡고 민심을 얻어 배극렴(裴克廉) 등 52인의 추대에 의해 조선왕조를 창건하고 중시조가 되었다.

이리하여 왕이 되기 이전의 선대를 선원선계(璿源先系)라 하고, 역대의 왕계를 선원세계(璿源世系)라 하는데 이는 성계가 왕위에 오른 뒤 목(穆)·익(翼)·탁(度)·환조(桓祖)의 4조(祖)를 대왕에 추존함으로써 목조로부터 조선조 말까지의 왕계를 말하는 것이다.

본관의 유래는 시조의 묘소가 전주에 있고, 시조로부터 18세손인 안사(安社)에 이르기까지 전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본관을 전주(全州, 옛 완산-完山)로 한 것이다.



과계를 말하면 왕은 "불감조기조(不敢祖其祖)"라하며 조상이지만 조상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왕후 소생인 "대군(大君)"이나 후궁 소생인 "군(君)"을 파조로 세계를 이었다.

시조로부터 목조 이전에 분파된 파는 시조 한의 15세손인 단신(端信)의 시중공파(侍中公派), 16세손인 거(据)의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 18세손인 영습(英襲)의 주부동정공파(主簿同正公派)의 3파가 있다.

추존된 4조의 자손 가운데 18개 파가 있고, 태조 이후의 왕자들의 파가 105개 파로 합하면 126개 파가 된다.

그러나 입양 관계로 두 파가 한 파로 된 경우가 있어 그 수가 줄어든다.

전주리씨는 전국에 808,511가구 2,609,890명이 살고 있어 이씨 275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본관별 성씨로는 김해김씨에 이어 두 번째로 번성한 성씨다.

전남에는 전주리씨의 4.59%인 39,374가구 120,034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968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923가구 3,772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5위(1969년 6위)로 상위권이며, 1982년 함평군사를 발간할 당시 10가구 이상이 살고 있던 파는 완풍대군(完豐大君) 450여호, 효령대군(孝寧大君) 150여호, 덕천군(德泉君) 80여호, 근령군(謹寧君) 60여호, 양령대군(讓寧大君) 50여호, 완원군(完原君) 30여호, 능창대군파(綾昌大君派) 10여호의 7개 파였다.

지금도 순위는 변함이 없으며 10호 미만이 사는 파가 13개 파가 된다.

군내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손불면 양재리 장재동, 손불면 산남리, 월야면 정산리, 학교면 석정리, 엄다면 신계리다.

함평군에 제일 먼저 입향한 파는 덕천군파다.

입향조는 정종대왕의 왕자 덕천군의 현손인 봉수(鵬壽)며 1530년경 서울에서 월야면 정산리에 정착했다.

이어 환조대왕의 왕자 완풍대군의 6세손 홀(鵠)이 담양에서 1550년경 함평읍 함평리에 입향하였고, 완풍대군파 극의(克義. 1628년생)가 1650년경 장성군 삼서면에서 월야면 월악리로 옮겨 세거하다가 그 후손인 문일(文日. 1736년생)이 1760년경 손불면 양재리로 옮겨 후손이 번성했다

효령대군파는 대군의 15세손인 진구(鎭求)가 1800년경 나주에서 엄다면 신계리로 이거 정착하였고, 능창대군파는 대군의 5세손인 무림군 당(茂林君塘)이 1800년경 해남에서 학교면 월호리에 정착했다.

입향조 봉수의 묘소는 해보면 해보리 모산에 있다.

함평군에 있는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이화각(李花閣)	함평읍 내교리	

배출 인물

- 리봉수(李鵬壽) : 1507~1556 화림부수(花林副守). 처음 이름 구수(龜壽). 창선대부(彰善大夫)에 올랐고 함평군 입향조다.
- 리 인(李 仁) : 1536~1606. 봉수의 맏아들. 보신대부(保信大夫)를 지냈다.
- 리 의(李 義) : 1539~1607. 봉수의 둘째아들. 자신대부(資信大夫)에 올랐다.
- 리만근(李萬謹) : 완풍군의 8세손. 홀의 아들. 충위위 절충장군을 지냈다.
- 리종복(李從福) : 1556~1621 인의 둘째 아들.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죽숙 이억기(李億祗)회하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 리춘봉(李春鳳) : 1575~1648 의의 맏아들. 문행으로 이름 높았고 1602년 음사로 출사하여 우윤(右尹)을 지냈다.
- 리덕번(李德番) : 문과에 급제하여 찬성(贊成)을 지냈다.
- 리 관(李 寬) : 문과에 급제하였고 도총관을 지냈다.
- 리장길(李長吉) : 호 어은(魚隱). 하계군 진의 손자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하였으며 전의현감(全義縣監)을 지냈고 선무원공공신에 올랐다.
- 리 번(李 潔) : 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 리 당(李 塘) : 1717~1784 군호 무림군(茂林君.) 완원군(完源君)의 아들. 현록대부에 올랐고 1800년경 학교면 월호리에 이거 정착했다.
- 리진두(李鎭斗) : 1750~1830 당의 맏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현감을 지냈다.
- 리병항(孝秉沆) : 1804~1882 능창군의 7세손. 음사로 출사하여 감역·동돈녕(同敦寧)을 지냈다.
- 리봉옥(李鳳玉) : 고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충무위 부사과를 지냈다.
- 리현정(李鉉正) : 1899~1950 호 일우(一愚). 완풍대군 21세손. 항일운동가. 광복 당시 만주의 서남지역 왜병의 무장 해제를 지휘했다.
- 리용연(李龍淵) : 1912~작고. 완풍대군 22세손 광주학생운동 주동자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 리선재(李善宰) : 1916. 8. 20 변호사.
- 리강수(李康壽) : 1918~1983 함평군·고흥군 교육장을 지냈다.
- 리인찬(李寅燦) : 함평우체국장을 지냈다.
- 리현채(李賢宰) : 1922. 9. 12 육군 중령 예편.
- 리용헌(李龍憲) : 1923. 4. 15 1대 함평군의원을 지냈다.
- 리초연(李超淵) : 1926. 12. 3 호 기촌(箕邨). 현정의 둘째 아들. 1981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리진연(李震淵) : 1931. 11. 18 호 두정(頭亭). 현정의 셋째 아들. 제 9·10·1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 리승연(李昇淵) : 1934. 9. 30 호 죽성(竹城). 현정의 넷째 아들. 목포방송국장을 지냈다.
- 리명재(李明宰) : 1939. 3. 25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문리과대학장·사회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리현석(李炫石) : 1937. 6. 6 1994년 전남향토문화대상, 1997년 제 13회 향토문화대상(서울신문)을 받았고 전라남도향토사연구협의회장을 지냈다.

리길재(李佺宰) : 1927. 4. 2 기산초등학교 등 교장을 역임했다.

리기노(李基老) : 작고. 제 1대 함평군의원을 지냈다.

리만근(李萬根) : 1941. 8. 2 제 2대 함평군의원을 지냈다.

리정재(李正宰) : 나산면 나산리에서 출생, 이학박사.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역임.

리경배(李耕培) : 1943. 10. 25 인찬의 맏아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교수 역임

리기홍(李基洪) : 1947. 2. 11 무등일보 사회부장, 나산그룹 문화이사를 역임했다. 저서 「호남의정치」가 있다.

리상재(李尙宰) : 1949. 1. 6 원광대학교 교수 역임

13) 한산이(韓山李)씨

시조는 윤경(允卿)이다.

그는 고려 숙종 때 지방 호족으로 권지호장(權知戶長) 직에 있었으며 그의 7세손 목은 이색(牧隱李穡)이 1348년 원나라에 들어가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원의 관직에 등용되었다가 귀국하여 대사성을 비롯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1362년 홍건적의 난에 왕을 호종하여 공을 세워 한산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본관을 한산으로 했다.

목은의 손자 대에 11개 파로 분파되었는데 판중추공파의 파조 맹진(孟珍)의 8세손 흥록(興錄. 호 추옹-秋翁)이 1633년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 이조정랑을 역임하였으며 추옹공파의 파조가 되었다.

그의 6세손 임직(荏植)이 1850년경 무안군 망운면에서 대동면 용성리 구룡으로 이거 정착했고, 윤직(胤植. 1820~1883)이 1860년경 나산면 용두리 선박에 정착했다.

한산이씨는 전국에 42,005가구 136,615명이 살고 있어 이씨 275개 본관 중 6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한산이씨의 0.87%에 해당하는 376가구 1,190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가구 9명이 살고 있다.

배출 인물

이임직(李荏植) : 함평군 입향조

42. 임 씨 (林氏)

임씨들은 나주임씨를 제외하고는 그들 선조가 중국에서 유사 이전인 은나라 때부터 살았고, 우리 나라에는 팔급(八及. 팔-八 이라고도 함)이 들어와 손을 펴뜨린 동근(同根)씨족이라고 하고 있다.

팔급은 신라 경순왕(敬順王, 재위 927~935) 때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고, 또 중국 당나라 문종(文宗, 재위 827~839) 때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신라 6대 지마왕(祗摩王, 재위 112~134) 때 임권(林權)이란 인물이 나오고, 진덕여왕(眞德女王, 재위 647~654) 때 임종(林宗)이란 인물이 벼슬을 한 기록이 나온다.

이들 인물이 기록에 보이는 것을 볼 때 팔급은 훨씬 후대의 인물인 것이다.

임씨의 본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나주(羅州, 전에는 회진-會津)임씨는 원조(遠祖)를 비(庇)로 하고 있고, 평택임씨는 임씨의 도시조 팔급을 시조로 하고 있다.

그 외 조양·선산·은진·회성·장흥·진주·옥구·익산·울진·예천·부안·순창·경주·양양·밀양·안의·임천·임피·전주·보성·안동·임하를 본관으로 하는 임씨들은 모두 팔급의 후예라하여 평택임씨로 바꾸려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임씨들의 본관을 볼 때 전라도 특히 전라북도에 대다수의 본관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임씨들은 1960년대에 들어 다른 성씨들처럼 전국 종친회를 만들었는데 나주임씨들은 동성일뿐 동족이 아니라며 대종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임씨는 「문헌비고」에는 226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117개 본관 237,145가구 762,767명으로 국내 성씨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나주 73,556가구, 평택(평성) 65,015가구, 부안 19,537가구, 예천 18,301가구, 조양 9,889가구, 풍천 5,722가구, 울진 4,996가구, 장흥 4,681, 경주 4,281가구, 선산 3,169가구, 은진 2,945가구, 장흥 2,877가구, 안동 2,084가구, 전주 1,328가구, 상산 1,042가구의 15개 본관이다.

한편 이외에 회진의 505가구 따로 집계되어 있는데 나주와 회진은 하나의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나주 249가구, 평택 101가구, 옥천 8가구, 장흥 4가구, 울진 1가구의 5개 본관이었다.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는 본관이 나주 264가구 1,250명, 평택 39가구 192명, 장흥 6가구 27명, 선산 5가구 13명, 예천 5가구 19명, 해진 3가구 17명, 안동·보성 각 1가구 3명, 전주·단월 각 1가구 2명, 무안 1가구 1명의 11개 본관이며,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이 해주 6명, 천안 4명, 조양·풍천 각 2명, 전주·성산·교동·예산 각각 1명의 9개 본관, 합해 20개 본관이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는 본관 가운데 3가구 이상을 이루고 있는 본관은 나주 151가구, 평택(평성) 40가구, 장흥 11가구, 해진 9가구, 해주 5가구, 풍천 4가구, 선산 3가구 등 7본관이었으며, 1~2가구를 이루고 있는 본관은 모두 17개 본관이었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은 14개 본관으로 따라서 함평에는 38개 본관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44가구에 723명이 거주하고 있다.



1) 나주임(羅州林)씨

원조(遠祖)는 비(庇)인데 그의 상계는 실전되어 알지 못한다.

비는 고려 때 벼슬을 하였는데 충렬왕 7년(忠烈王, 1281)에 왕을 호위하고 원나라에 다녀온 공으로 하여 시종좌공신(侍從佐功臣) 2등훈에 책록되고 대장군에 올랐다.

득관조(得貫祖)는 탁(卓)이다.

그는 비의 8세손으로 해남감무(海南監務, 조선조의 현감과 같은 고려말 지방 수령)를 지내다가 조선조가 개국되자 이에 불복하여 벼슬을 버리고 회진현(會津縣, 현 다시면의 일부)에 들어와 은둔생활을 하여 두문동 72현(賢)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된 절의의 사람이다. 때문에 후손들이 본관을 회진이라 하였는데 회진현이 나주에 병합되므로 하여 본관을 나주로 고쳤다.

그런데 비의 활동 연대와 탁의 활동연대가 불과 100여 년간인데 두 사람 사이가 8세 간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탁의 5세손 평(坪 1462~1122)이 전라도 병마우후(兵馬虞候, 종3품)를 지냈고, 그의 아들 봉(鵬, 1480~1553)이 문과에 급제 광주목사를 지냈다. 봉의 네 아들 중 맏아들 익(益, 1508~1547)이 장수현감, 둘째 복(復, 1521~1576)이 승정원 정자, 셋째 진(晉, 1526~1587)이 5도(五道) 병마절도사를 지내 집안을 명문이 되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나주임씨는 탁의 손자대에서 갈려나간 도정공파(都正公派, 파조 유소-有巢)와 봉의 네 아들이 각각 파조가 되어 5개 파로 갈렸는데, 익의 손을 장수공파(長水公派), 복의 손을 정자공파(正子公派), 진의 손을 절도공파(節度公派), 몽(蒙)의 손을 첨지공파(僉知公派)라 한다.

정자공파(복계) : 복의 맏아들 서(1570~1624)가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고, 그의 아들 담(1616~1652)이 이조판서, 그의 4촌 위(瑋)가 집의, 그의 증손 상덕(象德, 1683~1719)이 이조판서·대사간을 지냈고, 담의 현손 한호(漢浩, 1752~1827)가 1821년에 우의정에 올랐다. 또 실원(實元)은 인조반정의 2등공신에 책록되었고,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일유(一儒)의 아들 영(泳, 1649~1696)은 전라도 관찰사 대사간을 지내는 등 이 집안이 가장 현달한 집안으로 손꼽힌다.

절도공파(진계) : 진의 맏아들 제(悌, 1549~1587)가 풍류남아로 이름 높은 문인이며 그의 외손자 허목(許穆)이 숙종 때 우의정을 지냈다. 조선조에 문과에 급제한 임씨 성을 가진 사람 수가 124명인데 그 중에서 54명이 나주임씨니 임씨의 중심 세력이 나주임씨임을 알 수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249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264가구 1,250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15위(1969년 20위)로 상위권에 속하는 별족한 문중이다. 함평군에는 장수공파와 정자공파가 살고 있는데 장수공파의 입향이 빠르며 입향조는 파조 익의 아들 열(悅)인데 그는 1550년대 초반에 무안군에서 손불면 대전리에 이거 정착했으며, 또 익의 5세손인 언(鴈)이 선조 : 1년(1608)에 무안현 동창에 정착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창이 무안군 몽탄면 봉산리(1952년 150여 가구 거주)와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1982년에 20여 가구 거주)로 갈렸다.

정자공파는 인조반정의 2등공신인 실원이 1650년경 신광면 복흥리 복치에 이거 정착했으며 자손이 현달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나주 태생으로 전라관찰사와 대사간·개성유수를 지낸 영이 말년을 함평읍 내교리 수산에서 보낸 것 같다.

그것은 1696년에 사거(死去)한 그를 배향한 수산사(水山祠)가 역시 그를 배향한 나주의 창계사(滄溪祠)보다 1년 앞서 1709년에 함평에 세워졌고, 선조의 묘소가 북흥리와 내교리 외대화에 있으며, 그의 시에 「수산정(水山亭)」이란 시가 있으며, 「수산정」의 건립자가 누구인가는 알 수 없으나 「수산사」와 「수산정」의 이름은 영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주임씨들이 군내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손불면 대전리, 엄다면 영흥리, 신광면 북흥리다.

배출 인물

임 열(林 悅) : 1529~1612 호 은곡. 시조의 17세손. 전생서 주부를 지냈으며 함평군 입향조다.

임 첩(林 堞) : 1545~1606 열의 아들.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임정립(林廷笠) : 1563~1647 첩의 아들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임실원(林實元) : 인조반정 2등공신이며 정자공파의 함평군 입향조다.

임 영(林 泳) : 호 창계(滄溪). 첨지중추부사 일유(一儒)의 아들. 대사간을 지냈고, 말년에 함평읍 수호리 수산에서 살았던 것으로 본다. 수산사(수산봉과 만봉사이의 옛 도로 곁에 세웠었음. 서원 첼폐령에 의해 1868년 훼철)에서 배향했다.

임종태(林鍾泰) : 함평군 교육청 교육장을 지냈다.

임희택(林喜澤) : 조달청 내자과장 역임.

임만택(林萬澤) : 육군 대령 예편.

임경남(林璟男) : 1928. 9. 27 한국자원재생공사 전남지사장을 지냈다.

임인택(林仁澤) : 1933. 3. 3 제 2·3대 함평군의원, 제4대 함평군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임유광(林柳光) : 1939. 3. 12 호 성재(省齋). 농촌지도자협회 전국 부회장. 광주·전남농우회장·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임채영(林采榮) : 1940. 1. 29 농어촌진흥공사 담양·함평군지소장을 지냄.

임채을(林采乙) : 1941. 2. 5 광주연초제조창 작업과장을 역임했다.

임동오(林東午) : 1942. 12. 24 서강전문대·목포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역임.

2) 선산임(善山林)씨

시조는 양저(良貯)로 신라 경순왕의 왕자 정현(貞顯)의 사위며 태사(太師)를 지냈다.

그러나 그 후 세계가 실전되어 후손 만(蔓)을 기1세조(起一世祖)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가문에서 배출한 인물로는 해남 출신 억령(億齡)이 조선조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명종 때 강원도관찰사를 지냈고, 그의 동생 백령(百齡)이 1519년 문과에 급제하여 1545년에 호조판



서·우찬성을 역임했으며 승선부원군(崇善府院君)에 봉작되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선산임씨는 전국에 3,169가구 10,042명이 살고 있어 임씨 117개 본관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선산임씨의 13.33%인 478가구 1,339명이 살고 있고, 함평군에는 3가구 9명이 살고 있다.

3) 예천임(醴泉林)씨

시조는 춘(椿)이다.

그는 고려 때 평장사를 지낸 계미(季美)의 후손으로 고려 의종 때 진사를 지내다가 동왕 24년(1170)에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자 예천읍 천서리(川西里)로 피신하여 정착하니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예천으로 했다.

고려조에서 순연(舜連)이 우문관 대제학(右文館大提學)에 올랐으며, 조선조에서 자번(自蕃)이 단종 때 정란공신에 올라 배양군(裴陽君)에 봉해졌고, 문근(文根)이 예조참판을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예천임씨는 전국에 18,301가구 58,403명이 살고 있어 임씨 117개 본관 중 4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예천임씨의 0.37%인 62가구 211명이 살고 있고, 함평군에는 단 1가구 1명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4) 장흥임(長興林)씨

시조는 분(賁)이다.

그는 고려 우왕 때 전한(典翰)으로 있으면서 우왕이 이성계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자 이를 저지하다가 섬으로 유배당했으며, 공양왕 2년(恭讓王. 1390)에 귀양이 풀리고 문하시중이 되었는데, 조선이 개국되자 장흥의 억부산(億夫山) 아래로 옮겨 살며 태조가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사후에 세종(世宗)이 장흥군(長興君)을 추봉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평택임씨에서 분적하여 본관을 장흥으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시조의 아들 이(頤)가 조선 태조 때 대제학, 이의 맏아들 득이(得莢)가 병조전서(兵曹典書), 둘째 득유(得蓀)가 세종 때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흥임씨는 전국에 2,877가구 9,355명이 살고 있어 임씨 117개 본관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에는 장흥임씨의 12.58%인 426가구 1,177명이 살고 있으며, 함평군에는 1965년 조사에서는 나산면에 4가구가 살았고, 1985년 조사에서는 6가구 27명이 살고 있었고, 2000년에는 11가구 32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5) 평택임(平澤林)씨

도시조는 팔급(八及)이며 1세조(一世祖)는 세춘(世春)이다.

평택임씨 족보에 의하면 도시조 팔급은 당나라 문종 때 한림학사였는데 간신들의 참소가 있자 8학사의 한 사람으로 신라에 들어와 이부상서 벼슬을 하였는데, 변방을 침략하는 적병을 토벌하고 평성(平城, 평택의 첫 이름)의 용주방(龍珠坊)에 세거했다고 하나 확실한 고증이 없어 고려 말에 세자전객령(世子典客令) 겸 연희궁부사(衍禧宮副使)를 역임한 세춘을 1세조로 하고 누대 세거지였던 평택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 오고 있다.

현달한 인물로는 1세조의 맏아들 재(粹)가 고려조에서 예의판서와 보문관 대제학을 지냈으며 조선조에서 둘째 아들 보(祹)가 공조판서, 정(整)이 태종 때 예조판서에 올라 성종 때 청백리에 뽑혔고, 5세손 명산(命山)이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12세손 경업(慶業)이 광해군 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으며 병자호란 때 병마절도사겸 안주목사로 있으면서 도처에서 적군을 크게 무찔러 영웅적인 장수로 추앙받았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평택임씨는 전국에 65,015가구 210,089명이 살고 있어 임씨 117개 본관 중 2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평택임씨의 3.05%인 2,121가구 6,415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101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39가구 192명, 2000년 조사에서는 40가구 115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충정공파(忠貞公派)가 살고 있으며 입향조는 파조의 14세손인 우배(宇培)로 1760년대에 나주에서 학교면 월산리에 이거 정착했으며, 월산리와 대동면 향교리 고시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입향조 우배의 묘소는 학교면 화산 후록에 있다.

배출인물

임우배(林宇培) : 1743~1837호 석산(石山). 평택임씨 함평군 입향조.

임채원(林采遠) : 1817~1874 돈녕부 부도정을 지냈다.

임상필(林相弼) : 1858~1928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평택임씨 : 1827~1893. 함평이씨 상서의 아내로 효부로 이름 높아 남편과 함께 향도 천양을 받았다.

임기열(林基烈) : 1937~작고. 자 춘평(春平). 의학박사. 임피부과의원 원장

43. 임 씨 (任氏)

문헌에는 120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9개 본관 53,637가구 172,726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44위며, 1,000가구 이상의 본관은 풍천 30,974가구, 장흥(정안) 7,652가구, 나주 9,046가구, 곡성 1,771가구의 4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풍천 165가구, 장흥이 함평읍에 20가구, 남평 1가구였다.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있는 본관이 풍천 103가구 427명, 장흥 32가구 159명, 나주 2가구 7명, 풍산 1가구 5명의 4개 본관으로 나와 있다.

2000년 현재 함평의 임씨는 154가구 39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풍천 79가구, 나주 54가구, 장흥(정안) 12가구로 이들 3본관이 145가구로 함평에 거주하는 본관의 94.1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1~3가구를 이루는 본관이 5개 본관,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이 9개 본관으로 모두 17개 본관이 함평에 거주하고 있다.

1) 장흥임(長興任)씨

시조는 호(灝)며 1세조는 의(懿. 1041~1117)이다.

시조 호는 중국에서 건너와 전남 장흥군 천관산 아래 임씨도(任氏島)에 정착했고, 아들 의가 고려 문종 24년(文宗. 1070) 과거에 급제하여 문하시랑평장사(정 2품)를 지내 벼슬길을 열었으며, 근래에는 중국임씨의 109세조가 바로 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의 손녀(원후-元厚-의 딸)가 인종왕비가 되고, 인종왕비 공준태후(恭潛太后)의 소생 세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 의종(毅宗)·명종(明宗)·신종(神宗)이다.

임태후의 조카 딸(부의 딸)이 무인정권의 대표자격인 최충현의 둘째 부인이 되는 등 고려 중기의 척신 귀족 반열에 올랐다.

1세 의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원후(元厚)는 인조대왕의 장인으로 수상직을 지냈으며 그 후손이 오늘날 620가구이고, 전남과 경기도 지방에 많이 살고 있다.

원숙(元淑)은 평장사를 지냈으며, 그의 10세손 근(謹. 1494~1548)이 7형제를 두었고 오늘날 그 후손이 830가구 가량 퍼졌다.

원순(元順)은 형의 외손자인 의종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었다.

그러나 그 후손이 번성하여 풍산임씨의 65%를 차지하며 그 후손을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그의 8세손 득창(得昌)의 손, 4세 효명 때 갈려나간 방수(邦壽)의 손으로 주로 진도에 살고 있고, 득창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에 갈려나간 존(存)과 석복(錫福)의 손으로 장흥군 성자동과 강진군 평촌에 많이 살고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흥임씨는 전국에 7,652가구 24,523명이 살고 있어 임씨 29개 본관 중 3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장흥임씨의 21.29%인 1,874가구 5,221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2가구 50명이 주로 함평읍에서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풍천임(豐川任)씨

시조는 온(溫)이다.

그는 중국 소흥부 자계현(紹興附慈溪縣) 사람으로 고려에 귀화하여 관작이 은자광록대부(銀紫

光祿大夫)에 올랐다.

그의 6세손 주(澍, 1250~1300)가 고려 충렬왕 때(忠烈王, 재위 1275~1308) 감문위대장군(監門衛大將軍)이 되고 풍천(豐川)으로 사적(賜籍)되었다.

그러나 그의 생존 연대와 경상도 안찰사를 지낸 연대 및 지식 등에서 잘못된 것이 밝혀져 그의 선대들이 이미 국내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고려조에서 주의 아들 자송(子松)이 충숙왕 때 조적(曹頤)의 난에 왕을 호종하여 1등공신에 올랐고, 자순(子順)이 민부전서(民部典書)·개성부사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자송의 6세손 원준(元濬)이 세조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좌찬성을 지냈고, 그의 아들 사홍(士洪)이 도승지를 역임했으며, 사홍의 아들 광재(光載)가 예종의 부마, 승재(崇載)가 성종의 부마가 되었다.

온의 13세손 유겸(由謙)이 중종 때 형조·공조판서, 그의 맏아들 추(樞)가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참판, 둘째 권(權)이 예조판서·좌참찬, 셋째 병(柄)이 병조좌랑을 지냈고 글씨에 뛰어났다

추의 아들 호신(虎臣)이 형조판서, 보신(補臣)이 형조참의를 지냈다.

자순의 5세손 수성(守城)이 형조판서를 지냈고, 그의 아들이 임진란 때 승병대장으로 공을 세운 본명 응규(應圭)인 서산대사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풍천임씨는 전국에 30,974가구 99,986명이 살고 있어 임씨 249 본관 중 1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풍천임씨의 2.45%인 847가구 2,451명이 살고 있고,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165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103가구 417명, 2000년 조사에서는 79가구 190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함평군에 살고 있는 파는 부제학공파(副提學公派)에서 분파한 명고공파(鳴臯公派)와 남보공파(南浦公派)다.

함평에 맨 먼저 입향한 사람은 남보공파의 세열(世烈)이다.

그는 시조의 19세손이며 1690년대에 나주시 금천면에서 손불면 동암리로 이거했고 1710년 경에 다시 신광면 가덕리 가덕으로 옮겨 정착했다.

명고공파는 파조 전(鉉)의 7세손 상문(相文, 1775년생, 시조의 23세손)이 1800년경 아들 3형제를 데리고 손불면 죽장리 수철동에 입향했다.

그의 아들 중 맏아들 태철(泰喆)은 대동면 향교리로, 태신(泰信)은 그대로 수철동에 남고, 태초(泰初)는 죽림리로 옮겨 정착했는데 대략 1820년경이다.

입향조 세열의 묘소는 손불면 동암리에 있다.

배출 인물

임세열(任世烈) : 1672~1753 호 덕재(德齋). 시조의 19세손 감역을 지냈으며 풍천임씨 함평군 입향조다.

임민화(任珉華) : 1928. 3. 15 육군소령 예편. 함평농지개량조합장 역임



44. 장 씨 (張氏)

장씨는 중국의 거성(巨姓) 중 하나며 우리 나라 여러 장씨의 기원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 나라 장씨는 덕수(德水)·절강(浙江)을 제외한 인동·홍성(또는 홍덕) 안동·순천·구례·봉성·단양·목천·울진·결성·하산·여흥·부안장씨들은 모두 정필(貞弼)을 도시조로 하고 있다.

정필은 본래 중국 절강성 소흥부 용흥(蘇興府龍興) 사람인데 888년에 출생하여 다섯 살 때 난을 피하여 아버지 원(源)을 따라 강릉으로 와 살다가 경북 인동 노전(盧田)으로 이거하여 살았다.

18세 때에 사신과 함께 당(唐)에 들어가 24세 때 대과에 급제하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후학 양성에 힘쓰다가 천자의 지엄한 부름에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내던 중 김남석(金南錫)의 무고에 벼슬을 버리고 신라로 돌아왔다.

고려 태조 13년(930) 안동김씨의 시조 김선평(金宣平), 안동권씨의 시조 권행(權幸)과 향명을 모아 안동에서 후백제 견훤군을 격파한 공을 세웠고, 935년에는 신라를 공략하여 삼한 통합에 이바지했다.

이 공으로 옥산(玉山, 인동의 옛 이름) 부원군에 봉해지고 녹권을 하사받았다.

덕수장씨의 시조 순룡(舜龍)은 고려 고종 때 원나라 제국공주의 시종관으로 우리나라에 건너와 정착하였고, 절강장씨의 시조 해빈(海濱)은 정유재란 때 입국하여 정착했다.

신라, 백제, 태봉, 발해 때 인물 중 장보고(張保皋), 장변(張辯), 장건영(張建榮), 장빈(張彬), 장분(張奔), 장희암(張希巖), 장무일(張茂一), 장일(張一), 장문휴(張文休) 등 명장 거유가 나오는데 이들의 출생지나 관향 계통은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장씨는 모두 76개 본관으로 287,195가구 919,339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 중 9위며 10,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인동 184,863가구·안동 25,552가구·홍성 14,023가구·단양 10,541가구의 4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인동 669가구·홍성 98가구·안동 4가구 3개 본관, 1985년 조사에서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인동 469가구에 1,962명·홍성 85가구 389명·안동 9가구 35명·나주 3가구 28명·구례 3가구 8명·덕수 1가구 6명·홍주 1가구 4명·광주·목천·창녕이 각각 1가구 3명·장수 1가구 2명·동래 1가구 1명으로 12개 본관,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이 안양·결성·순천·부안이 각각 3명·전주 2명·절강·진주·예산·진천·청송·대구가 각각 1명으로 12개 본관 합해 24개 본관이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495가구 1,29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가구 이상은 인동이 378가구 975명, 홍성(홍덕)이 80가구 196명, 안동이 10가구가 살고 있어, 이들 세 본관이 94.5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5가구 아래로 21개 본관이 가구를 이루며 살고 있고, 9개 본관이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

1) 안동장(安東張)씨

시조는 정필(貞弼)이다.

그의 행적은 앞 항 장씨에서 언급했다.

가문의 대표적 인물로는 시조의 15세손 사길(思吉)이 조선개국에 공을 세워 1등공신에 책록 되었고, 1398년 제 1차 왕자란에 방원을 도아 정사 2등공신으로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셋째 아들 철(哲)도 정사 2등공신으로 화산군(化山君)에 군봉되고, 영흥부사(永興府使)를 지냈다.

중효(仲孝)가 목사, 세곤(世鵬)이 관찰사를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안동장씨는 전국에 25,552가구 83,961명이 살고 있어 장씨 76개 본관 중 2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안동장씨의 2.43%인 585가구 2,043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0가구 32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인동장(仁同張)씨

인동장씨는 도시조를 정필(貞弼)로 하는 동원(同源)이면서 시조를 달리하는 세 계통이 있다.

상장군 김용(金用)을 1세조로 하는 계통, 직제학 계를 1세조로 하는 계통, 용서를 1세조로 하는 평북용천계이다.

함평군에서 살고 있는 인동장씨는 김용을 1세조로 하는 계통이다.

김용은 고려 때 신호위 상장군(神號衛上將軍, 정 3품)을 지냈으며, 옥산군(玉山郡)에 세거했기에 후손들이 본관을 옥산이라 했으나, 조선조 말엽에 옥산이 인동으로 바뀌어 따라 본관을 인동으로 바꿨다.

그러나 인동에서 살고 있는 일부의 자손들은 옥산에서 일어났다 하여 지금도 옥산을 본관으로 쓰고 있다.

이 가문에서 현달한 인물로는 김용의 아들 선(善)이 고려 문종 26년(文宗, 1072)에 거신(巨身)의 모반을 고변하여 금오위 상장군을 지냈고, 4세손 국신(國伸)이 역사를 편수하는 직사관(直史觀)을 역임했으며, 6세손이며 함평군 입향조인 백림(百林)이 우참찬을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인동장씨는 전국에 184,863가구 593,315명이 살고 있어 장씨 76 본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인동장씨의 4.84%인 9,630가구 28,750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378가구 975명이 살고 있다.

인동장씨에는 종파(宗派, 일명 중리파-中里派), 함평파(咸平派, 참찬공파-參贊公派), 무안파(務安派, 진가파-進佳派) 등 19개 파가 있는데 함평에 살고 있는 파는 참찬공파인 함평파와 진가파인 무안파가 살고 있는데 참찬공파가 함평읍 진양리 양림과 월야면 정산리에, 진가파가 엄다면 영흥리



와 나산면 구산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위 2개과 중 입향이 빠른 과는 함평과인데 입향조는 시조 김웅의 6세손 백림(百林)이다.

그는 1123년생으로 115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참찬에 이르렀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진도로 유배되고 3년 후에 유배형이 풀려 송도로 가던 중 함평에 이르러 산수가 그윽함을 보고 눌러 살게 되었다고 족보에 기술하고 있다.

함평에 입향한 객반성씨(客班姓氏) 중 입향이 제일 빠르다.

그의 넷째 아들 효익(孝翼)이 평함 안주(安州), 5세손 기(紀)가 경남 하동으로, 8세손 을중(乙仲. 시조의 13세손)이 진도군 의신면으로, 10세손 종하(宗河. 시조의 15세손)가 개성으로 이거했다가 평북 안주에 정착했고, 11세손 응(膺. 시조의 16세손)이 장흥 군으로, 11세손 시수(始岫)가 영광군 진양면(현 법성면의 일부)으로, 11세손 지(志)가 해남군 화원면으로, 11세손 추(錐)가 고창군 무장으로, 12세손 연(連. 시조의 17세손)이 경남 창녕군으로, 13세손 인훈(仁勳. 시조의 18세손)이 영암군 서면으로, 13세손 진호(建昊)가 경기도 오산으로 이거하는 등 후손이 여러 곳에 퍼져 살게 되었다.

무안과의 입향조는 백림의 형인 세림(世林. 벼슬 동정-동정)의 13세손 부개(傅飢)이다.

그는 1488년(성종 19)에 헌납(獻納)에 오르고 보국숭록대부 영돈녕부사(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使)를 지냈으나 연산조에 극간을 하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 엽다면 영천리 영천(永川)에 부처되고 유배가 풀렸으나 서울로 가지 않고 눌러 살았으며, 그의 현손 명신(明臣. 시조의 22세손)이 완도군 약산면(藥山面)으로, 8세손 익봉(翼鳳. 시조의 26세손)이 나산면 구산리로 이거하여 퍼져 살게 되었다.

백림의 묘소는 대동면 향교리 뒷산인 약마산(躍馬山)에 있다는 기록이 전할 뿐 실전하여 함평읍 진양리 양림에 설단하였고, 부개의 묘소는 무안군 몽탄면 마산(馬山)에 있다.

함평군에 있는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원모사(遠慕祠)	함평읍 진양리 양림	창건:1649년. 훼손:1868년 복설:1958년. 장백림 배향 사우

배출 인물

장백림(張百林) : 1123~? 호 원모재(遠慕齋). 벼슬 우참찬. 인동장씨 함평군 입향조.

장효온(張孝溫) : 시조의 7세손. 백림의 맏아들. 진사를 지냈다.

장효검(張孝儉) : 백림의 셋째 아들. 직장동정(直長同正)을 지냈다.

장 주(張 儔) : 효원의 아들. 판통례원사(判通禮院事)를 지냈다.

장 준(張 俊) : 시조의 8세손. 지현사(知縣事)를 지냈다.

장한숙(張漢淑) : 시조의 9세손. 주의 아들로 당대 문명이 높았고, 봉익대부부지밀직사사(副知

密直司事)에 올랐다.

장천숙(張天淑) : 시조의 9세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을 역임했다.

장 온(張 溫) : 한숙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3품직에 올랐다.

장 련(張 練) : 시조의 10세손. 고려조에 생원을 지냈다.

장만창(張萬昌) : 시조의 11세손. 고려조에 진사를 지냈다.

장만일(張萬鎰) : 시조의 11세손.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장 지(張 止) : 시조의 12세손. 길재(吉再)와 친한 벗이었고, 문하시랑을 지내다가 낙향하여 향리에 은둔했다.

장 게(張 揭) : 시조의 12세손. 진사를 지냈다.

장 제(張 堤) : 시조의 12세손. 만일의 아들. 영동정(令同正)을 지냈다.

장한량(張漢良) : 시조의 12세손. 문하시랑을 지냈다.

장안국(張安國) : 시조의 13세손. 호 자성재(自省齋). 고려말 문과에 급제하여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를 지냈으며 조선개국 후 태조가 한성판윤에 제수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장안도(張安道) : 게의 아들. 해주목사를 지냈다.

장을중(張乙仲) : 시조의 13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수군절도사를 지냈고, 선무원종공신에 올랐다.

장중달(張仲達) : 호 일원당(一元堂). 안국의 아들.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장중하(張仲夏) : 시조의 14세손. 조선조 초에 첨정(僉正)을 지냈다.

장인성(張仁晟) : 시조의 14세손. 옥화군(玉華君)에 봉작되었으며 개성서원(開城書院)에서 향사했다.

장 현(張 眩) : 호 인재(仁齋). 중달의 아들.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장 강(張 鏞) : 중달의 둘째 아들.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장문기(張文紀) : 시조의 15세손. 조선조 초 무과에 급제하여 병절교위에 올랐다.

장 방(張 昉) : 중하의 아들.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장 웅(張 雄) : 현의 아들. 성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경주부윤을 지냈다.

장기주(張基周) : 현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을 지냈다.

장기항(張基杭) : 1455~1536. 강의 둘째 아들. 예빈시 첨정을 지냈다.

장 준(張 俊) : 강의 셋째 아들. 내수사 별제(內需司別提)를 지냈다.

장시수(張始岫) : 강의 넷째 아들. 덕원부사(德原府使)를 지냈다.

장 추(張 錐) : 호 송암(松菴). 방의 아들.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승정원 좌승지를 지냈다.

장맹준(張孟駿) : 응의 맏아들.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장익준(張益駿) : 응의 둘째 아들.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장 연(張 連) : 기주의 맏아들. 문과에 급제하였다.

장 진(張 進) : 기주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사과(司果)를 지냈다.



- 장부개(張傅凱) : 호 출암(黜庵, 1452~1508) 시조의 18세손. 1488년 헌납에 올랐다. 무안파의 함평 입향조이다.
- 장시언(張時彦) : 부개의 아들. 가선대부 남병사(南兵使)를 지냈다.
- 장 예(張 藝) : 1517~1598 호 광화당(光化堂). 시조의 19세손. 홍문관 직제학을 역임했다.
- 장사길(張士吉) : 1536~1585 호 일암(逸菴). 예의 아들로 홍문관 수찬을 지냈다.
- 장 연(張 演) : 호 모원재(慕遠齋). 시언의 아들. 1489년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 장경립(張景立) : 1605~1627 시조의 20세손. 1623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인조반정에 참여 정사공신에 올랐고 부호군을 지냈다.
- 장세기(張世麒) : 연의 둘째 아들. 사마시에 입격했다.
- 장덕수(張德守) : 1575~1635 호 죽정(竹亭). 시조의 21세손. 1592년 무과에 급제하여 이순신 휘하에서 의곡을 운반하고 한산도, 안골포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며 이항복의 장계로 사복시 주부에 올랐다.
- 장덕춘(張德春) : 1577~1636 호 송와(松窩). 덕수의 아우. 형과 함께 이순신 휘하에서 싸웠고, 무과에 급제하여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을 지냈다.
- 장세린(張世麟) : 1545~1637 호 양파(陽坡). 시조의 21세손. 남평현감(南平縣監)을 지냈다.
- 장우한(張宇翰) : 1572~1654 호 경재(警齋). 시조의 21세손.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고, 임진란 때 이순신 휘하에서 한산, 노량해전에서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 장창윤(張昌胤) : 1610~1686 호 임은(林隱). 우한의 아들. 절충장군 부호군을 지냈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 장남비(張南駢) : 1638~1711 호 고암(鼓庵). 창윤의 맏아들. 송시열의 문하생이며 침랑(寢郎)으로 있을 때 숙종의 폐비에 대한 반대상소를 올리고 낙향해 후진양성에 힘을 쏟았다.
- 장남기(張南驥) : 1645~1725 호 경軒(警軒). 창윤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부호군을 지냈다.
- 장남훈(張南訓) : 호 신암(信庵). 창윤의 셋째 아들. 1675년 진사시에 입격하였으며 문행과 학행으로 이름 높았고 문집 3권이 전한다.
- 장 한(張 漢) : 시조의 23세손.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장해령(張海齡) : 시조의 25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대장을 지냈다.
- 장원식(張源植) : 1859~1916 호 남파(南坡). 시조의 31세손. 1891년 진사과에 입격했다.
- 장시환(張時煥) : 1894~1979 호 계산(桂山). 원식의 둘째 아들. 김기택(金箕澤) 등과 모의하여 1919. 4. 8 문장만세운동을 일으켰다.
- 장건식(張建植) : 1906~작고. 목포시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 장기문(張杞文) : 1890~1955 호 술재(述齋). 함평군의 거부. 흉년에 가난한 이웃을 많이 도와 군민이 송덕비를 세웠다.
- 장남규(張南圭) : 1912~1988 호 성재(省齋). 시조의 30세손.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장수복(張壽福) : 작고.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장연섭(張璉燮) : 1919. 1. 8 시조의 32세손. 함평향교 전교를 역임했다.

장권표(張權杓) : 1924. 3. 3 호 영파(穎波). 시조의 31세손. 2대 전남도의원을 지냈다.

장계섭(張啓燮) : 1923. 10. 15 호 목향(木香). 시조의 32세손. 전남도과장, 도축산시험장장을 역임했다.

장주옥(張周玉) : 1926. 4. 24 시조의 34세손.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전북경찰국장을 역임했다.

장용석(張龍錫) : 1929. 9. 11 호 우송(又松). 중고등학교장을 지냈다.

장현규(張炫圭) : 1932. 1. 8 호 정현(靜軒). 시조의 33세손. 은행감독원장을 지냈다.

장우중(張羽鍾) : 1935. 7. 23 시조의 33세손. 서울병원장으로 있다.

장기중(張琦鍾) : 1936. 시조의 33세손.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장행훈(張幸勳) : 1937. 11. 3 호 송헌(松軒). 시조의 32세손. 동아일보 편집국장·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장승옥(張升鉦) : 1941. 2. 23 시조의 33세손. 1995. 12. 31 외무부 특2급으로 퇴직했다.

장풍혁(張豐赫) : 1943. 9. 20 호 제헌(濟軒). 시조의 32세손. 공군 대령으로 예편했다.

장행환(張幸煥) : 1945. 10. 20 호 매은(梅隱). 시조의 32세손 대한무역공사 계획과장·주중 부관장을 역임했다.

장기옥(張基玉) : 1947. 2. 25 호 경재(敬齋) 시조의 33세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했다.

장성환(張成桓) : 1947. 3. 20 호 성암(成菴). 시조의 31세손. 육군 중령

장기영(張基永) : 1948. 7. 27 호 지수(止修). 시조의 33세손. 경영학 박사. 미국 시티은행 서울지점 근무

장현수(張現洙) : 1952. 10. 25 시조의 35세손. 의학박사. 이비인후과병원장

3) 흥성장(興城張. 興德張)씨

시조는 유(儒)다.

흥성과 함께 흥덕장씨도 유를 시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명이 바뀐데서 오는 차이이다.

인동장씨 중에서 인동의 고호인 옥산을 그대로 본관으로 쓰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예로 고호인 흥성을 그대로 쓰고 있는 흥성장씨와 새 이름인 흥덕을 본관으로 하는 흥덕장씨가 있는 것이다.

함평군에는 흥성장씨가 많이 살고 있으며, 월야면에 흥덕을 본관으로 하는 장씨가 30여호 살았으나 지금은 10호 미만이다.

시조 유는 상질현(尙質縣. 흥성의 전 이름) 사람으로 신라 말기에 난을 피하여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말을 배웠으며, 고려가 개국한 뒤에 귀국하여 광종(光宗. 재위 950~975) 때 예빈성(禮賓省)에 근무하며 중국 사신을 접대했다.

시조 유가 흥성 사람이었고 그의 6세손 기(機)가 흥산군(興山君. 흥성의 별호)에 봉해졌기에 본관을 흥성(興城. 현 전북 고창군 흥덕면)이라 했다.



시조 유의 선계는 정필(貞弼)이라고 하나 명확치는 않다.

흥성장씨에는 참봉공(參奉公), 직장공(直長公), 야우공(野憂公), 송정공파(松亭公派)가 있는데 함평군에는 직장공파와 야우공파가 살고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평군에는 80가구 19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의 두 파는 거의 같은 시기에 함평군에 입향하였다고 보는데 야우공파가 약간 빠르다.

야우공파의 입향조는 이길(以吉)인데 그는 중조 영(英)의 8세손으로 중종 24년(1529)에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있다가 1580년대에 나주에서 신허면 계천리 사천(沙川)으로 이거해 정착했으며 1595년에 타계했다.

사천에서 타지로 이거한 이길의 후손은 손자 안의(安義)가 전북 고창으로, 현손 사린(士麟)이 영암군으로, 현손 애린(愛麟)이 순창군으로, 7세손 증복(宗復, 중조의 14세손)이 나주시 노안면으로, 7세손 종서(宗緒)가 부안군 변산으로 옮겨 정착했다.

직장공파의 입향조는 호(琥)인데 그는 임진란의 충신 경홍(景弘, 1594년 홍양에서 전사)의 아들이며 1576년생이다.

아버지가 전사한 후 나주에서 었다면 송로리 노상(路上)으로 이거하였다고 하니 1594년 이후가 된다.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야우공파가 신허면 계천리 사촌에 30여호, 직장공파가 었다면 송로리 노상에 10여호이다.

야우공파의 파조며 함평군 입향조인 이길의 아들 득생(得生)과 만생(晩生)이 무과에 급제했고, 손자인 안도(安道)와 안민(安民)이 역시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증손 용한(用漢)이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내리 4대에 걸쳐 과거에 급제하는 영예를 안았고 철종 때 인택(仁澤)이 문과에 급제하여 명문으로 꼽히게 되었다.

함평군에 있는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숫 대 터	신허면 계천리 사천	사천출신 과거 급제자
장공삼·옥삼·공삼선생 공적비	신허면 계천리 사천	1996년 세움

배출 인물

장이길(張以吉) : 1529~1595 호 야우(野憂). 1560년 문과에 급제하여 1594년 공홍도(公洪道) 관찰사를 거쳐 1595년 이조참판 겸 오위도총관에 올랐다. 함평군 입향조.

장만생(張晩生) : 1587~ 1637 호 인성(仁省). 중조의 9세손. 이길의 둘째 아들.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사복시 부정을 지냈다.

- 장득생(張得生) : 1589~1661 호 덕암(德庵). 이길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부호군을 지냈다.
- 장안도(張安道) : 1599~1623 호 낙전자(樂全子). 중조의 10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부정을 지냈다.
- 장안민(張安民) : 1623~1655 무과에 급제하여 오위장(五衛將)을 지냈다.
- 장안용(張安容) : 1629~1676 중조의 10세손. 통례원 인의(引儀)를 지냈다.
- 장용한(張用漢) : 1648~1709 중조의 11세손. 호 만사(晩沙). 1705년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관 부정자를 지냈다.
- 장지원(張志元) : 1806~1879 중시조의 16세손. 부모상에 6년간 시묘를 살았으며 등천되었다.
- 장헌규(張獻圭) : 1842~1894 중시조의 18세손. 자 경삼(敬三).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여 잡주를 맡았고 1894. 12. 9 함평현에서 옥사했다.
- 장동규(張同圭) : 1851~1985 헌규의 아우. 자 옥삼(玉三).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고 1985.2. 17일 함평현에서 형사(刑死)했다.
- 장응규(張應圭) : 1854. 1895 동규의 아우. 자 공삼(公三).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 1895.2. 17 형 동규와 함께 함평현에서 형사했다.
- 장재수(張再洙) : 1923. 4. 2 중시조의 20세손. 원불교 중앙본부 법위(法位) 법사(法師)
- 장원석(張源碩) : 1941. 8. 8 호 근암(謹菴). 사업가. 많은 사재를 회사하여 고향 개발에 열정을 쏟았다.

45. 전 씨 (全氏)

모든 전씨들은 백제의 개국공신 섭(聶)을 도시조로 하고 있다.

환성군(歡城君) 섭은 백제 시조 온조가 남하할 때 거느리고 온 10명의 막료 중 1인으로 백제 건국을 도왔다.

전씨는 문헌에 178개 본관으로 나와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73개 본관 153,208가구 493,419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21위로 상위에 속하며, 4,000가구가 넘는 본관은 정선 44,316가구·천안 40,740가구이다. 이들 2본관을 제외한 14개 본관이 1,000가구를 넘고 있었으며 나머지 57개 본관이 전국적으로 1,000가구 미만의 가구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 73개 본관 중 함평전씨가 있었는데, 함평을 본관으로 하는 전씨는 149가구 507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244가구 68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천안이 225가구 92.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5가구 미만으로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13개 본관, 가구를 이루지 않고 있는 본관이 12개 본관으로 모두 26개 본관의 전씨들이 거주하고 있다.



1) 나주전(羅州全)씨

시조는 경(卿)이다.

그는 도시조 섭의 30세손으로 고려 충렬왕 때 국자제주(國子祭酒)를 역임하고 충혜왕(忠惠王) 때 조적(曹頤)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나성군(羅城君)에 봉군되었다.

그래서 후손들이 나주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경의 아들 보초(輔初)가 지중추부사, 8세손 천수(天壽)가 부호군을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주전씨는 전국에 1,629가구 5,169명이 살고 있어 1,000가구 이상인 전씨 본관 중 14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4.73%인 85가구 245명이 살고 있고 함평군에는 4가구 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천안전(天安全)씨

도시조는 섭(聶)이며 득관조는 낙(樂)이다.

도시조 섭은 백제의 개국공신이며 환성군(歡城君, 천안의 옛 이름)에 봉해졌으며 득관조 박은 섭의 원손(遠孫)으로 고려 개국공신으로 삼사좌복야(三司左僕射)에 올라 천안군(天安君)에 봉해져 후손들이 천안을 본관으로 했다.

천안전씨는 고려조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홍술(洪述)과 그의 아들 충우(忠佑)가 문하시중평장사를 지냈으며, 낙의 5세손 인양(仁亮)이 희종 7년(희종, 1211)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부상서에 올랐고 천양군(天陽君) 군봉을 받았으며, 아들 단(旦)이 지공거(知貢舉)를 지냈다.

신(信)은 충렬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충혜왕 때 상의회의독감사(商議會議督監事)를 역임했고, 낙의 9세손 윤장(允藏)이 공민왕 때 찬성사(贊成事)를 지냈다.

함평군에는 대제학공(大提學公), 수완공(壽完公), 판관공(判官公), 판서공파(判書公派)가 살고 있으며 1969년 조사에서는 440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276가구 1,129명으로 1969년에 비해 가구는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자료에 따르면 225가구 633명을 차지하고 있어 함평에 거주하는 전씨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평군 입향은 대제학공파가 빠르다.

시조의 44세손이며 파조의 21세손인 응충(應忠)이 1560년경 무안에서 함평읍 성남리 초동에 이거 정착했으며 자손이 현달하고 번성했다.

판관공파는 시조의 47세손인 이제(以悌)가 1660년경 나주에서 월야면 양정리에 이거 정착했다.

한말 진안 출신 전해산(全海山)이 그의 의병사를 주로 함평군에서 장식했던 것은 이 집안이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완파는 시조의 48세손인 만상(萬祥)이 30세 때인 1678년 나주시 문평면 남산리에서 손불면 산남리 감남 마을로 옮겨와 살았고, 그 후손이 손불면 월천리, 신평면 등으로 퍼졌다.

판서공파는 시조의 48세손인 경후(景厚)가 1680년대에 전북 태인에서 학교면 고막리 광진에 정착하였고, 군내의 천안전씨 집성촌은 손불면 산남리 감남, 월천리 신기, 어전(늘밭), 학교면 고막리, 월야면 양정리 양지 등이다.

입향조 응충의 묘소는 엄다면 동산 방축제 사자좌(四子坐)에 있다.

배출인물

전응충(全應忠) : 1540~1610 일명 응량(應良). 호 운산(雲山). 문과에 급제하여 함평현감·정주목사를 지냈으며, 임진란 때 왕을 호종하여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천안전씨 함평군 입향조다.

전계신(全繼信) : 1560~1650 응충의 아들. 호 운송(雲松). 1587년 무과에 급제했고, 임진·정유재란에 공을 세워 선무원종 1등공신에 올랐으며, 1617년 임진란 포로송환 전권대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남녀 포로 100여명과 함께 귀국했다.

전의생(全義生) : ?~1593 임진란 때 고종후(高從厚) 복수장과 함께 진주성 싸움에 참전하여 많은 적을 참살하고 아들과 함께 전사하였으며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전여한(全汝翰) : 1600~1673 호 운봉(雲峰). 계신의 아들. 전서주부(典書主簿)를 지냈다.

전여핵(全汝翮) : 1604~1663 계신의 셋째 아들. 선전관을 지냈다.

전여시(全汝時) : 1605~1699 흥 송촌(松村). 계신의 넷째 아들. 무안협감·장흥도호부사를 지냈다.

전여상(全汝翔) : 1607~1672 계신의 다섯째 아들. 선전관을 지냈다.

전경후(全景厚) : 시조의 48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전상회(全相繪) : 상회의 조카

전성섭(全晟燮) 성섭의 아우. 위 세 사람은 의병장 전해산 부대에 참가 영광 오동

전관섭(全貫燮) 촌 전투 등에서 큰 공을 세웠다.

전갑성(全甲成) : 1938. 12. 7 공군 중령을 지냄.

전명남(全明男) : 1940. 3. 3 국제장애자애호협회장·함평고등학교 설립자 겸 초대 이사장·함평영화학교장을 역임함.

전광웅(全光雄) : 1940. 12. 1 대학교수.

전병두(全炳斗) : 1942. 5. 4 서울경찰청 보안 2과장 역임.

전중갑(全鍾甲) : 1921. 6. 30 경찰 총경을 지냈다.

46. 전 씨 (田氏)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씨는 전국에 50개 본관 58,895가구 188,354명으로 전국 씨족별 가구 순위 45위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담양 39,912가구·천안 3,224가구·단양 1,859가구·강화 1,663가구·연안 1,633가구·남양 1,456가구·정산 1,484가구의 7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 자료에 18가구 5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조사에서 담양 11가구, 천안 5가구였으며, 남원과 남양이 각각 1가구씩 모두 18가구가 조사되었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이 강화·밀양·연안·영광·추성의 5개 본관이다.

남양전씨는 중국의 송림학사 풍(豐)을 시조로 하고 있으나 후손들이 왕조실록과 국조방목 등 여러 문헌을 살핀 바 왕(王)씨가 고려가 패망하고 살육되고 핍박을 받자 변성(變姓)한 것으로 밝혀졌고, 하음(河陰)과 연안전(延安田)씨는 담양전씨에서 분적했다.

1) 담양전(潭陽田)씨

시조는 득시(得時)다.

그는 고려 때 누대에 걸쳐 담양에 토착 세거해온 고을 향리의 아들로 고려 의종 9년(毅宗, 1155)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복야 참지정사(左僕射參知政事)에 오르고 담양군(潭陽君)에 군봉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담양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담양전씨는 시조의 6세손 희경(希慶)의 3형제 대에서 3파로 갈린다.

야은공파 : 파조 녹생(祿生) . 정당문학· 문하평리(門下評理)를 지냄

뇌은공파 : 파조 귀생(貴生). 두문동 72현 중의 1인

경은공파 : 파조 조생(祖生). "

고려조에서 자존(子存)이 이부상서, 승윤(勝允)이 판삼사사(判三司事), 공일(公逸)이 문하시랑 평장사, 희경이 첨의사인(僉議舍人· 지영주사(知榮州事)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녹생의 아들 항(恒)이 판서, 귀생의 후손 구주(九疇)가 춘추관지제교(春秋館知製敎)로 문명을 떨쳤고, 조생의 후손 균(均)이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에 오르고 하음군(河陰君) 군봉을 받았다.

담양전씨는 2000년 조사에서 전국에 39,912가구 128,007명이 살고 있어 전씨 50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1,165가구(담양전씨의 2.65%) 3,403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11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18가구 73명, 2000년에는 11가구 36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47. 정 씨 (鄭氏)

정씨의 원조는 신라 6촌 중의 하나인 자산 진지촌(紫山珍支村)의 촌장 지백호(智伯虎)다.

문헌에는 210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36개 본관 626,265가구 2,010,117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인구 순위 5위다.

경주정씨가 큰집이며, 정씨 중 지백호의 계열이 아닌 정씨는 서산(瑞山), 낭야정(瑯琊鄭)씨로 서산정씨는 중국 금화부 포장현 절강(浙江) 사람 정응충(鄭應沖)의 증손 신보(臣保)가 시조며, 낭야정씨는 명나라 사람 정선갑(鄭先甲)이 시조다.

선갑은 청군에게 포로가 되어 심양에 있을 때 병자호란의 인질로 그곳에 가있던 봉림대군(鳳林大君. 孝宗)과 친히 지내다가 우리나라로 와 살게 되어 귀화하였고, 그의 후손들이 본향인 낭야를 본관으로 한 것이다.

정씨 중 10,000가구가 넘는 본관은 동래 137,524가구·경주 94,465가구·진양(晉陽. 晉州) 74,777가구 · 연일 67,418가구·하동 49,440가구·영일 32,326가구·초계 29,264가구·나주 29,068가구·청주 12,271가구· 해주 10,998가구의 20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0가구 이상인 가구는 진주 525가구·나주 255가구·하동 126가구·경주 76가구 · 동래 67가구·광주(광산) 61가구·영성 30가구·고성 23가구·금성 12가구·해주 11가구의 10개 본관이다. 2000년 현재 정씨는 함평에서 1,234가구에 3,34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함평이 본관인 함평정씨는 1985년까지 5가구가 살고 있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2000년 현재는 1가구 6명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조의 12세손 효창(孝昌)이 충남 면천군수(현 당진군)를 지낸 후 정착하여 후손들이 당진군에서 번성한 일족을 이루며 살고 있다.

1) 경주정(慶州鄭)씨

시조는 진후(珍厚)다.

그는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평장사 등을 역임하고, 월성군(月城君. 경주의 옛 이름)에 봉해져 후손들이 본관을 경주로 했다.

문헌공(文獻公), 충렬공(忠烈公), 팔송공(八松公), 노송공(老松公), 양경공파(良景公派)로 대별되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99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91가구 415명이 살고 있었고 2000년 현재는 76가구 235명으로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44위다.

함평군 입향조는 재조(載肇)며 입향지는 함평읍 자풍리였고, 후손들이 주로 엄다면에 많이 살고 있으며 입향조의 묘소는 자풍리 산 91번지에 있다.

배출 인물



정재조(鄭載肇) : 경주정씨 함평군 입향조

2) 고성정(固城鄭)씨

시조는 가물(可勿)이다.

그는 고려말에 영동정(令同正) 벼슬을 하였으나 사적(事蹟)과 행장이 없어 잘 알 수 없다. 선대로부터 철성(鐵城, 고성의 옛 이름)에 토착한 호족으로 후손들이 본관을 고성으로 했다.

함평군 입향조는 선조 때의 대학자며 기축옥사(己丑獄死)에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경원(慶源)으로 유배되어 유배지에 도착하자 타계했던 개청(介淸)이다.

그는 나주 동강에서 이사를 할 때 신광면 계천리 연천을 지목했으나, 다시 엄다면 엄다리 제동(濟洞)을 택하여 정착했으며 대략 1567년경으로 보고 있다.

그의 묘소는 무안군 몽탄면에 있으며 엄다면 제동에 천문을 관찰했던 천문단과 사후에 세워져 당쟁의 소용돌이에 뜬기고 세우는 수난을 반복하였던 사액 자산서원(賜額 紫山書院)이 6번째 복설되었고, 저서인 우득록(愚得錄) 각판이 전남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관되고 있다.

함평군에 있는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자산서원(紫山書院)	엄다면 엄다리 제동	창건 : 1618년, 6차 복설 시작 : 1987년 배향 : 개청, 대청(大清)
우득록 각판	"	개청의 저서, 숙종 때 왕명으로 국가에서 발간. 전남 유형문화재 146호
천문단(天文壇)	"	개청이 천문을 연구하던 곳

배출 인물

정개청(鄭介淸) : 1529~1590. 호 곤재(困齋). 시호 문청공(文淸公). 조선 선조 때의 대학자. 고성정씨 함평군 입향조.

정대청(鄭大清) : 1532~1603. 호 관재(寬齋). 개청의 아우. 예학(禮學)의 대가. 사액 자산서원에 배향됨.

정민흥(鄭敏興) : 1554~1622. 송화현감(松禾縣監)을 지냈다.

정섭헌(鄭燮憲) : 1674~1754. 폐위부호군(廢衛副護軍)을 지냈다.

정태수(鄭泰洙) : 작고. 광주적십자병원 사무국장·고성정씨 대종회장을 지냈다.

정래수(鄭來洙) : 1934. 3. 16 새마을운동 무안군지부장·고성정씨대동회장을 역임함

정 중(鄭 鍾) : 1962. 5. 18 해군중령 복무 중.

정성환(鄭成煥) : 1969. 8. 12. 1991년 제 35회 행정고시에 합격

3) 광주정(光州鄭. 光山鄭)씨

시조는 신호(臣扈)다.

그는 광주에서 세거한 토족으로 신라 6부 총장의 한 사람인 지백호의 후예 극중(克中)의 후손이다.

극중은 고려조에 금자광록대부 첨지정사를 지냈으며, 신호는 고려 충숙왕 때 판도사사 상호군 또는 봉은시 진전적으로 삼중대광 문하 찬성사에 추증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광산으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으며, 광산이 광주에 편입되므로 하여 광주로 개명했다.

시조의 6세손에 이르러 12개로 분파하였고, 함평군에는 정랑공파(正郎公派)가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68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84가구 311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48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조의 9세손(파조 질-질-의 증손)이며 경남 덕천군수를 지낸 인근(仁謹)이 1560년경 나주에서 손불면 동암리로 이거하였고, 그의 자손 중에 4세 6호 2열이 배출되어 소동(巢洞)이란 마을 이름이 효동(孝洞)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뒤를 이어 인근의 숙부인 사(獅)가 성균관 진사로 있다가 을사사화 때 나주로 피신했다가 1570년경 나산면 용두리 선박에 정착했으며,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또 파조의 10세손인 광언(光彦. 1711~1781)이 1750년경 광주시 대촌에서 나산면 월봉리에 이거 정착했다

입향조 인근의 묘소는 신평명 월암리 산 106번지에 있다.

배출 인물

정 사(鄭 獅) : 1514~1581 호 후은당(後隱堂). 시조의 8세손. 1534년 성균관 진사.

정인근(鄭仁謹) : 1532~1591 호 둔헌(遯軒) 경남 덕천군수를 지냄. 광주정씨 함평군 입향조.

정인방(鄭仁方) : 1562~1625. 1588년 진사시에 입격했다.

정인영(鄭仁榮) : 1569~1627 정유재란 때 창의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워 충의교위(忠毅校尉)에 제수되고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정 준(鄭 浚) : 1564~1625 진사시에 입격했다.

정경중(鄭京重) : 1965. 3. 11 의과대학 졸업. 의사

정우중(鄭祐重) : 1970. 10. 24 1995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4) 나주정(羅州鄭)씨

시조는 고려 중엽 때 사람 해(諧)다.

그의 선세계(先世系)는 고증이 없어 알 길이 없다.

그의 증손 가신(可臣. 1224~1298)이 고려 대 문과에 급제하여 벽상삼한 삼중대광수사도(壁上



三韓三重大匡守司徒)를 지냈으므로 시조가 군기감(軍器監)에 추증되었다.

가신은 나주 동강면 시중동(侍中洞)에서 태어났고, 처음 이름은 흥(興)이라 했으나, 원나라에 들어가 "가위인신(可謂人臣)"이라는 평을 들어 원나라 세조가 "可臣"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원나라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며, 만년을 나주시 노안면의 금안동에서 살았는데 그 이름의 유래도 원나라에서 백마와 금안장(金鞍裝)을 선물 받은 데 기인하고 있다.

가신의 후손들이 나주와 함평에 살면서 번창해 지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자 해를 시조로 하고 나주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나주정씨는 7개파로 대별하는데 함평군에는 파조를 가신의 셋째 아들 전(健)으로 하는 대호군파(大護軍派)와 여섯째 아들 억(億)을 파조로 하는 지유공파(指諭公派)가 살고 있다.

함평군에 첫 입향한 사람은 지유공파의 지아(之雅)로 시조 해의 11세손, 파조 억의 6세손이며, 서울 남산 밑 입점동(笠店洞)에서 태어나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 호남경차관을 지냈고,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던 아버지 훈(勳)이 거사 전에 발각되어 남해(南海)로 귀양되자 귀양지까지 따라가 봉양하다가 10년만에 귀양이 풀려 관악산으로 집을 옮겼으며, 아버지가 타계한 후 3년 복을 마친 다음 1475년에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과 가까운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에 이거 정착하였고, 후손들이 월야면과 해보면에 200여 가구 살고 있다.

이 가문에서 임진·정유왜란 때 응(鷹)·홍(鴻)·진(縉)·회(繪)·민수(民秀) 등 다섯명의 충신과 응의 아내 광산정씨, 홍의 아내 광산김씨, 진의 아내 옥천설씨 등 3명의 열부가 나와 문중과 사회의 귀감이 되었다.

지아의 손자 이하(以夏, 익주의 넷째 아들)가 1545년에 무안의 월천리(月川里, 현 무안읍 성남리)로 이거하여 무안군 입향조가 되었으며, 이하의 손자 황수(凰壽, 시조의 15세손 지주의 둘째 아들)가 말년에 부모의 선산과 가까운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송촌으로 옮겨 그 후손들이 엄다면과 학교면에 50여 가구 살고 있다.

대호군 파는 시조의 17세손이며 파조 전의 12세손인 홍주(弘宙, 응시의 둘째 아들)가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식지에 이거 정착하였고 그 후손들이 이문리에 50여 가구, 신광면 동정리에 10여 가구 살고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주정씨는 전국에 29,068가구 93,845명으로 그 성세가 정씨 본관 중 7위며, 전남에는 나주정씨의 8.50%인 2,609가구 7,980명이 살고 있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255가구 728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 있는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오산사 (鰲山祠)	월야면 용월리	창건 ' 1778년. 훼손 1868년. 복설 : 1929년 주벽 '가신, 배위 훈, 응, 홍, 진 회 민수
삼강문 (三綱門)	양정 리	충신 응, 효자 진복, 열부 :죽산안씨(진복의 아내)
돈성재 (敦誠齋)	나산면 이문리	원대, 영규, 채환의 재실
삼강문 (三綱門)	엄다면 송로리 송촌	충신 : 황수, 효자 .봉징, 열부 :순천박씨(선종의 아내)

배출 인물

- 정지아(鄭之雅) : 1421~1494 호 일암(逸巖). 시조의 11세손. 1450년 문과에 급제. 이조정랑·호남경차관을 지냄. 나주정씨 함평군 입향조.
- 정익종(鄭益宗) : 1456~1586 호 묵와(默窩). 지아의 아들. 1578년 사헌부 감찰에 올랐다.
- 정이주(鄭以周) : 1490~1528 호 경암(敬菴). 익종의 아들. 성리학에 밝았으며 훈원원부정을 지냄.
- 정이은(鄭以殷) : 1495~1535 호 일재(逸齋). 익종의 아들 충좌위 사정(司正)을 지냈다.
- 정이하(鄭以夏) : 1507~1550 호 해은(海隱) 익종의 아들. 1543년 무과에 급제하여 고성현감·천성보 만호(天城堡萬戶)를 지냈다.
- 정원주(鄭元柱) : 1512~1578 이주의 아들. 충좌위 사정을 지냈다.
- 정국주(鄭國柱) : 1514~1555 호 영은(穎隱). 이은의 아들. 6년간 아버지 상에 시묘살이를 한 효자였고 무과에 급제하여 은진현감을 지냈다.
- 정철주(鄭鐵柱) : 1544~1597 호 매헌(梅軒). 이하의 아들. 1594년 무과에 급제하여 군기시주부를 지냈다
- 정 응(鄭 鷹) : 1562~1598 호 애죽헌(愛竹軒). 원주의 아들 1588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고 임진·정유 왜란에 창의하여 이억기 휘하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노량해전에서 순국했다.
- 정 홍(鄭 鴻) : 1565~1598 호 애송헌(愛松軒). 응의 아우. 1588년 무과에 급제. 임진·정유재란 때 형과 함께 창의 이억기 휘하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노량해전에서 순국했다.
- 정사현(鄭士賢) : 1534~1584 국주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훈원원판관·용양위 부호군을 지냈다.
- 정황수(鄭凰壽) : 1562~1628 호 월봉(月峯). 이하의 아들. 1591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내다 어머니 병환에 귀향하여 있던 중 왜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임치진을 지켰고 후에 충청방어사를 지냈다.
- 정민수(鄭敏秀) : 1569~1592 호 월암(月菴). 임진왜란 때 삼종형 회와 창의하여 조현과 함께 금산전에서 순국하였고 선무원종 3등공신에 올랐다.
- 정 계(鄭 繼) : 1594~1646 응의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 정 유(鄭 維) : 1620~? 홍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다. 자세한 행적은 전하지 않는다.
- 정 회(鄭 繪) : 1564~1592 호 송계(松溪) 임진란이 일어나자 삼종제 회와 창의하여 금산전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순국하였다. 선무원종 3등 공신에 올랐다.
- 정 진(鄭 縉) : 1551~1598 호 고정(高亭). 1588년 무과 병과에 급제하였고 사재감정을 지내다 1589년 기축옥사에 환멸을 느껴 낙향해 있던 중 임진란이 일어 응·홍과 창의하였고, 정유재란 때 정기수(鄭麒壽)와 함께 벽파정(碧波亭) 싸움에서 크게 이겼고, 이순신과 함께 노량해전에서 순국했다.
- 정 기(鄭 紀) : 1590~1650 호 천파(天坡). 황수의 아들. 1624년 왕이 공주로 피신하자 의병을 모아 왕을 호종하였고 수사교위(修士校討)를 지냈다.



- 정홍주(鄭弘宙) : 호 심채(心齋). 시조의 17세손. 수제용감 부정(守濟用監副正)을 지냈다.
- 정요경(鄭堯卿) : 1569~1592 진의 아들. 서공감판관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 아버지와 함께 금산싸움에서 순국했다.
- 정우경(鄭禹卿) : 진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봉사를 지냈고 1624년 이괄의 난때 안현싸움에서 전몰했다.
- 정세윤(鄭世胤) : 1624~1668 호 양촌(陽村). 민수의 손자. 1650년 진사시에 입격했다.
- 정동계(鄭東啓) : 1630~1698 호 설강(雪岡). 시조의 19세손. 사도시 첨정(司徒寺僉正)을 지냈다.
- 정봉징(鄭鳳徵) : 1682~1733 호 남파(南坡) 시조의 19세손. 효자로 이름 높으며 1721년 진사시에 입격했다.
- 정태후(鄭泰后) : 1694~1754 호 화산처사(花山處士) 시조의 20세손. 숙종44년(肅宗. 1718)에 진사시에 입격했다.
- 정 즈(鄭 泐) : 1715~1782 호 사춘재(四春齋). 시조의 20세손. 이름난 효자로 예조에서 펴낸 "해동삼강실록(海東三綱實錄)"에 효행 사실이 실려있다.
- 정 진(鄭 肆) : 1719~1791 호 만은(晩隱). 시조의 20세손. 1762년(영조 25)에 문과에 급제하여 통례원 좌통례·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 정형시(鄭亨時) : 1720~1788 효자로 정려문이 내렸다.
- 정재교 : 1735년 문과에 급제하여 화순현감 등을 지냈다.
- 정진복(鄭震福) : 1782~ 1815 효자로 정려가 내렸다.
- 정지영(鄭智榮) : 1839~1909 시조의 24세손.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 정수영(鄭洙英) : 1843~1883 시조의 25세손. 효자로 정려가 내렸다.
- 정윤면(鄭胤勉) : 1851~1908 호 인재(仁齋). 시조의 26세손. 기삼연·김태원과 창의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82년 건국공로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 정헌면(鄭憲冕) : 1868~1944 호 후죽당(後竹堂) 시조의 26세손. 김태원·전수용·의병부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건국 공로 훈장이 추서되었다.
- 정동근(鄭東根) : 1869~1954 호 만오재(晩傲齋) 시조의 26세손. 김교락(金敎洛)과 함께 독립군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15형을 언도 받았고, 1977년 대한민국건국훈장을 추서 받았다.
- 정용태(鄭鎔兌) : 1866~1930 호 침천채(枕泉齋). 시조의 26세손 중추원 의관(護官)을 지냈고 한일합방 후 두문불출했다.
- 정석면(鄭錫冕) : 1887~1907 호 의재(義齋). 시조의 26세손. 김태원 의병 부대에서 혁혁한전공을 세웠으며 1907년 4월 29일 백양사 전투에서 순국했으며 1968년 건국공로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정방면(鄭方冕) : 1933. 7. 18 호 청강(靑岡). 시조의 26세손 신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다.
- 정병기(鄭炳基) : 1935. 3. 27 호 신명(信明). 시조의 27세손. 국제라이온스 한국복합지구총재 협의회장·신명그룹 회장 역임. 무궁화사자대상 금장·석탑산업훈장을 받음.
- 정병율(鄭炳律) : 1944. 10. 21 시조의 27세손. 담양경찰서장 역임.

정병국(鄭昞國) : 1934. 2. 29 시조의 27세손. 서울외환은행 지점장을 지냈다.
 정병관(鄭炳冠) : 1925~1980 호 영락(永樂). 시조의 27세손. 지방의회 의장을 역임 했다.
 정육연(鄭六衍) : 1931. 8. 29호 자운(紫雲). 시조의 28세손.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정출연(鄭出行) : 1927. 9. 3 호 연당(衍堂). 시조의 28세손. 연합군 유엔 훈장을 받았다.
 정경훈(鄭敬勳) : 1959. 호 이정(意諄) 병기의 맏아들. (주) 신명건설, (주) 현대페인트공업 대표이사 역임 .
 정상훈(鄭湘勳) : 1967. 5. 23 병기의 둘째 아들 호 송정(淞井). (주) 현대건설, (주) 신명무역 대표 이사 역임.
 정삼연(鄭三衍) : 1954. 6. 24 시조의 28세손 공군 중령.
 정학연(鄭學衍) : 1931. 4. 6 시조의 28세손. 군 농촌지도소장을 역임했다.
 정흔연(鄭忻衍) : 1950. 1. 17 시조의 28세손. 검찰사무관 역임.
 정일연(鄭一衍) : 1933. 1. 10 시조의 28세손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 역임.
 정충홍(鄭忠弘) : 1942. 호 석균(浙均). 시조의 29세손. 진안세무서장 역임.
 정차범(鄭次範) : 1956. 9. 13 시조의 30세손. 제 31회 사법고시 합격.
 정부진 : 1963. 5. 16 86아시안게임 필드하키 금메달.

5) 동래정 (東來鄭)씨

시조는 지원(之遠)이다.

그는 회문(繪文)의 원손으로 전해오나 확실한 세계가 없다.

그는 고려조에 보윤호장(甫尹戶長)을 지냈으며, 후손들이 현달함에 따라 세거지인 동래를 본관으로 했다.

동래정씨에는 전서공(典書公), 도사공파(都事公派) 등 여러 파가 있는데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파는 도사공파가 주종을 이루며 2000년 조사에서 67가구 169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에 거주하는 정씨 본관별 거주 순위 4위이고 월야면에 주로 많이 살고 있다.

함평군 입향조는 운길(雲吉)이다.

그는 선조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도사에 이르렀으며, 임진란이 일어나자 상주(尙州)에서 정기룡과 함께 왜적과 싸워 공을 세웠고, 1595년경에 가족을 동반하고 외가인 월야면 월악리 지변 마을에 정착했다.

이 가문에서는 입향조 운길과 그의 아내 함양오씨, 아들 돈(燾)이 정유재란에 충절을 보였으며, 그 후에도 많은 효자, 효부를 배출하여 귀감이 된 바 있다.

입향조 운길의 묘소는 월야면 외치리 도옹동(道翁洞)에 있다.

배출 인물

정운길(鄭雲吉) : 1536~1597 시조의 18세손. 의금부도사를 지냈으며 1597. 8.29(음) 현장성군 삼서면 우치에서 의병을 이끌고 왜적과 싸우다 순국했다.



- 정 돈(鄭 燾) : 1557~1597 윤길의 아들. 아버지와 함께 우치에서 왜적과 싸우다 순국했다.
- 정재흥(鄭再興) : 1587~1626 호 언호. 돈의 아들. 11세의 몸으로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다가 봉명사 송운선사(奉命使松雲禪師)를 만나 15세에 귀국했다.
- 정여숙(鄭汝淑) : 1605~1654 호 청송재(聽松齋) 돈의 손자. 병자호란 때 정색(鄭穡) 정적등과 창의했다.
- 정동후(鄭東後) : 효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다.
- 정화석(鄭華錫) : 1731~1816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을 지냈으며 또 효자로 이름 높았다
- 정진우(鄭鎭雨) : 1914. 12. 30 1960~1961 민선 월야면장을 지냈다.
- 정진팔(鄭鎭八) : 1919. 3. 28 광주봉주초등학교장 등을 지냈다.
- 정진감(鄭鎭坎) : 1921. 7. 27 호 인회(忍悔). 해남중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정수모(鄭壽謨) : 1922. 6. 5 시조의 30세손 1954~1956 민선 월야면장을 지냈다.
- 정창연(鄭昌衍) : 1923. 1. 10 나주 동강초등학교장 등 역임.
- 정진명(鄭鎭溟) : 1925. 7. 2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했다.
- 정진갑(鄭鎭甲) : 1926. 5. 14 동강대학장을 지냈다.
- 정관영(鄭觀泳) : 1926. 5. 20 서울에서 국민은행 지점장을 지냈다
- 정진숙(鄭鎭淑) : 1927 8. 15 전남체육회 사격연맹 이사 (주) 그랜드호텔 감사를 역임했다.
- 정진재(鄭鎭在) : 1928. 5. 15 호 안곡(安谷). 월야농업협동조합장·월야면장을 지냈다.
- 정진희 : 1929. 7. 19 광주광역시 사격연맹 회장 (주) 그랜드호텔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 정화영(鄭花泳) : 1932. 2. 11 와이즈맨클럽 남부지구 총재·광주동양종합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 정진두(鄭鎭斗) : 1936. 3. 26 고등학교장 전라남도교육청 과학기술과장을 지냈다.
- 정강영(鄭江泳) : 1937. 7. 9 광산구 청소행정과장·월곡 1동장을 지냈다.
- 정진형(鄭鎭炯) : 1938. 6. 13 농어촌진흥공사 부기사·한얼기술단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 정한영(鄭漢泳) : 1938. 7. 10 조선대학교 사무처장 역임.
- 정태영(鄭兌泳) : 1940. 2. 28 시조의 32세손 서울시청 서기관을 역임했다.
- 정근호(鄭根鎬) : 1940. 8. 1 전남대학교 사범대학교수·동 대학원장 역임.
- 정진오(鄭鎭午) : 1943. 7. 8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함평군수 내무부공기업과장 역임.
- 정진섭(鄭鎭燮) : 1944. 3. 10 원광대학교 공과대학장을 지냈다.
- 정방우(鄭方愚) : 1946. 3. 10 시조의 33세손. 한국은행 실장을 지냈으며,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 정근욱(鄭根旭) : 1949. 3. 16 함평군청 과장·월야면장을 역임함.
- 정창영(鄭昌泳) : 1949. 7. 11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전남대학병원 기획실장을 역임함
- 정승우(鄭承愚) : 1950. 6. 9 충남 부여 정산부인과의원 원장.
- 정우섭(鄭愚燮) : 1952. 1. 9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정우남(鄭禹南) : 1953. 9. 25 호 근정(槿亭). 기계공학 박사. 전남대학교 교수로 있다.

정상영(鄭湘泳) : 1954. 9. 15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전남대학병원 소아과장 역임.
 정남수(鄭南洙) : 1955. 4. 8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광주지방법원판사를 지냈고, 변호사로 있다.
 정석진(鄭錫鎭) : 1957. 10. 28 시조의 31세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를 지냈고, 곡성군에서 정석진방사선의원을 개업했다.
 정필우(鄭畢愚) : 1958. 10. 9 의학박사 전북 고창읍 정내과의원장.
 정경선(鄭警善) : 1964. 7. 28 시조의 31세손. 경감으로 경찰대학 교관직에 있다.

6) 연일정(延日鄭. 迎日鄭)씨

연일정씨는 연원은 같으면서도 소목(昭穆)을 밝히지 못하는 두 계열이 있다.

습명(襲明)을 1세조로 하는 지주사공파(知奏事公派)와 극유(克儒)를 1세조로 하는 감무공파(監務公派)이다.

지주사공파의 1세조 습명은 고려 예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인종 때 은청광록대부로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를 지냈으며, 감무공파의 1세조 극유는 고려조에서 감무를 역임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연일정씨는 신라 6부시대의 취산 진지촌장(嘴山珍支村長) 지백호(智伯虎)가 유리왕 9년(서기 32)에 “鄭”씨를 사성 받았고, 그의 원손 종은(宗殷)이 신라 때 간관(諫官)으로 직언을 하다가 인동의 약목현(若木縣)에 유배된 후, 후손 의경(宜卿)이 연일로 이거하여 호장을 지냈으며, 연일현백(延日縣伯)에 봉해져 후손들이 연일로 본관을 했다.

1913년에 연일이 영일로 지명이 바뀐에 따라 영일로 본관을 하는데, 지금도 80%가 넘는 후손들이 연일로 본관을 쓰고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일정씨는 전국에 99,744가구(영일 32,326가구 포함) 316,773명으로 정씨136개 본관 중 3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연일정씨의 2.35%인 1,619가구(영일 282가구 포함) 7,348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6가구, 1985년 조사에서 10가구 44명, 2000년 조사에서는 9가구 2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7) 온양정(溫陽鄭)씨

시조는 보천(普天)이다.

그는 고려 때 은청광록대부 호부상서(銀靑光祿大夫戶部尙書)를 지냈으며, 그의 선계는 실전되어 알 수 없으나 문헌에 의하면 고려 태조가 탕정(湯井, 온양의 옛 이름)에 왔다가 고을 관리의 공을 가상히 여겨 누대가 토착 세거한 정씨 일가에게 호장을 제수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온양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가문에서 현달한 사람은 고려조에서 시조의 아들 작진(作珍)이 찬성사, 증손 자준(自準)이 간의대부(諫議大夫), 6세손 달존(達尊)이 찬성사. 그의 아들 응휴(應休)가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



하여 감찰어사(監察御使)를 지냈다.

조선조에서 백봉(百崩)이 판서, 순봉(順崩)이 명종조에 우의정에 오르고 온양부원군 군봉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 작(碓)이 초서와 예서에 능하였고 좌랑을 지냈으며 동의보감 편찬에 참여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온양정씨는 전국에 7,599가구 24,897명이 살고 있어 정씨 136개 본관 중 11위며, 전남에는 온양정씨의 1.18%인 96가구 294명이 살고 있으며, 함평군에는 3가구 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함평군 입향조는 희찬(希贊)이다.

그는 진사며 춘천교수를 지냈던 호(顥)의 아들로 중림도찰방(重林道察訪)을 지냈으며 연산군의 혼정에 화를 피하려고 1500년경 세거지인 온양에서 엄다면으로 이거 정착했다.

배출 인물

정희찬(鄭希贊) : 호 호은(湖隱). 중림도찰방을 지냈으며 온양정씨 함평군 입향조다.

정응덕(鄭應德) : 1558~? 희찬의 손자. 군자감 판관을 지냈다.

정성화(鄭成化) : 1942. 1. 7 호 학전(鶴田) 1대 함평군의원 동의회 부의장·3대 함평군의원 역임.

8) 진주정(晋州鄭)씨

원조는 신라 6촌 중의 하나인 본피부 자산 진지촌(珍支村)의 촌장 지백호(智伯虎)다.

그러나 그 후의 세계가 전하지 않아 시조를 달리하는 파가 8파가 된다

근래에 영정공 예(藝)를 비조로 하여 대동보를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8정이 모두 예의 후손인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진주정씨를 크게 분류하면

예 계(藝 系) : 시조를 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조로부터 제학공 시양(時陽)까지 세계가 미상하여 시양으로부터 또는 시양의 아들 유(裕)로부터 기1세하여 대를 이어 오고 있다. 또 유(裕)의 6세손 수(需)나 그의 아들 수규(守珪)를 중조로 하는 파가 있다. 수(需)의 7세손 이오(以吾. 기시조 시양의 12세손)는 고려 공민왕 때 양관대제학·찬성(兩館大提學贊成)을 지냈고, 그의 아들 분(苯)은 조선 조 단종 때 우의정을 지냈으며 충장공파의 파조가 되었다.

자우계(子友系) : 호장을 지냈으며 6세손 신열(臣烈)이 고려 현종 때 진양부원군에 봉해졌다.

장 계(莊 系) : 그는 고려말에 통정 첨지중추원사(通政僉知中樞院事)를 지냈다.

억 계(憶 系) : 그는 고려말에 문하시랑 평장사를 지냈고, 진산부원군(晋山府院君)에 봉해졌다.

이 외에도 효안(孝安), 지원(知源), 지정(之貞) 등 여러 계보가 있으나 근원을 상고할 수가 없다 함평군에 살고 있는 진주정씨는 모두 예계로 충장공 황파(璜派)와 충장공 분파(苯派)의 2개파

며, 2000년 조사에서 525가구 1,363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씨족 거주 순위 5위(1969년 4위)로 상위권에 속하고 황파는 월야면과 해보면, 분파는 학교면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함평군 입향조는 황파의 함도(咸道)다.

그는 정종 2년(1400) 함중현령(咸從縣令)을 마지막 관직으로 봉직하고 1405년경 장성군 삼서면에서 월야면 월악리 내동에 이거 정착하였고, 아들 3형제가 모두 현감을 지내 4인정(四印亭)을 세워 기념했고, 대를 이어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크게 현달하며 번창하고 있다.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는 마을은 월야면 외치리 백야, 월야리 순촌, 내동, 해보면 해보리 월현 마을이다.

함평에서 외지로 이거한 손들을 보면, 입향조 함도의 맏아들 유(維)가 영광군 불갑면 순용리로 이거 정착했고, 주(紬)가 영광읍, 7세손 중요(宗堯)가 나주시 봉황면, 종순(宗舜)이 영광군 대마면, 8세손 득일(得一)이 전북 고창군 대산면으로 이거했다.

충장공 분파의 입향조는 기시조 시양의 15세손인 지소(之韶)다.

그는 단종 때인 1453년에 우의정을 지낸 분(苯, 분파의 파조)의 손자로 단종이 폐위되자 아버지 광로(光露)를 따라 장흥으로 이거했다가 1480년대에 대동면 금곡리 동막으로 옮겨왔다.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학교면 마산리 표산, 죽정리 정자동, 학교리 이암 마을이다.

함평군에 있는 관련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백야사(百野祠)	월야면 외치리 백야	창건 : 1750년. 훼손 1868년 복설 : 1950년. 주벽 : 도성(導誠)
월호사(月湖祠)	월야면 월야리 순촌	창건 : 1804년. 훼손 1868년 복설 : 1986년 주벽 : 정경득(慶得) 부벽 : 희득(希得)
상곡사(上谷祠)	학교면 죽정리 정자동	창건 1870년 주벽 : 현보(賢輔)
표산사(杓山祠)	" 마산리 표산	창건 1935년 주벽:분(苯) 부벽:갑(臧)
해강사(海岡祠)	" 죽정리 정자동	창건 1970년 주벽 : 윤경(允京)
충신문(忠臣門)	" 마산리 표산	건립 : 1868년 선무원종 1등공신 갑.

배출 인물

정함도(鄭咸道) : 1353~1421 기시조의 14세손. 함중현령을 지낸 진주정씨 황파 함평군 입향조.

정 유(鄭 維) : 함도의 맏아들 고산현감을 지냈다.

정 면(鄭 綿) : 함도의 둘째 아들. 강원도 횡성현감을 지냈다.

정 주(鄭 紬) : 함도의 셋째 아들 무안현감을 지냈다.

정지소(鄭之韶) : 기시조 시양의 15세손. 우의정 분(苯)의 손자 분파의 함평군입향조.



정삼근(鄭三謹) : 유의 아들 상호군을 지냈다.

정덕신(鄭德新) : 면의 아들 중령부 사직(中領府司直)을 지냈다.

정계동(鄭繼童) : 덕신의 아들. 의정부 좌찬성을 지냈다.

정현보(鄭賢輔) : 1546~1597 기시조의 17세손. 1576년 사마시에 입격했고, 정유재란 때 무안현에 의병청을 설치하여 향토방위에 힘썼으며 목포전투에서 순국했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정현계(鄭賢繼) : 시조의 17세손. 생원과에 입격했다.

정곤석(鄭崑石) : 계동의 아들 용궁현감을 지냈다.

정운석(鄭崙石) : 계동의 둘째 아들. 시흥도(始興道)찰방을 지냈다.

정청석(鄭靑石) : 계동의 셋째 아들 보공장군(保功將軍)을 지냈다.

정 감(鄭 臧) : 1562~1593 호 신재(愼齋). 현계의 아들. 1588년 사마시에 합격했고, 정유재란 때 백부인 현보와 함께 무안을 중심으로 한 향토방위에 힘쓰다가 김천일(金千鎰), 양산숙(梁山穉) 등과 진주성 싸움에서 크게 공을 세우고 순국했으며 선무원종1등공신에 올랐다.

정세거(鄭世据) : 곤석의 아들. 부장을 지냈다.

정 억(鄭 億) : 윤석의 아들. 중종조에 사마시에 입격했고, 수운판관(水運判官)을 지냈다.

정 신(鄭 伸) : 윤석의 둘째 아들 부장을 역임했다.

정승정(鄭承貞) : 1527~1560 청석의 맏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좌랑을 지냈다.

정송정(鄭松貞) : 청석의 둘째 아들. 훈련원주부를 역임했다.

정우손(鄭友遜) : 기시조의 19세손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냈다.

정종요(鄭宗堯) : 억의 맏아들. 병절교위 부장을 지냈다.

정종순(鄭宗舜) : 1515~1582 억의 둘째 아들. 수군절제사를 지냈다.

정종필(鄭宗弼) : 신의 아들. 장례원 사평(司評)을 지냈다.

정충량(鄭忠良) : 1556~1614 호 송계(松溪) 기시조의 20세손. 정유재란 때 이억기 휘하에서 노량해전 등 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며 선무원종2등공신에 올랐다.

정득량(鄭得良) : 1569~1598 임진란이 일어나자 사촌형 충량과 함께 창의하여 한산도 전투등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과 함께 순국했다. 선무원종 2등공신에 올랐다.

정주일(鄭主一) : 종순의 아들. 부장을 지냈다.

정덕일(鄭德一) : 1544~? 종순의 셋째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참의를 지냈다.

정태일(鄭泰一) : 1554~1615 종순의 다섯째 아들. 선무랑을 지냈다.

정 옥(鄭 昱) : 좌랑을 지냈다.

정함일(鄭咸一) : 1536~1612 종필의 아들. 청암도(靑巖道)찰방을 지냈다.

정대명(鄭大鳴) : 1584~1647 호 지곡(芝谷). 충량의 아들 병자호란 때 창의한 6호장(六虎將) 중 한사람으로 청나라 부마 백양골라(白羊骨羅)를 사로잡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 정윤진(鄭胤晉) : 1625~1689 호 망우옹(忘憂翁). 기시조의 21세손. 1870년 효자정려가 내려졌다.
- 정 절(鄭 幟) : 1536~1597 호 월촌(月村) 주일의 아들. 별제를 지냈으며 임진왜란 때 장성 남문창의를 주도했고, 1598년 목방포에서 적에게 잡혀 항복하라는 적의 권유를 뿌리치고 침략자의 만행을 꾸짖다가 두 팔이 잘리고 끝내 죽임을 당했다.
- 정경득(鄭慶得) : 1569~1630 호 호산(湖山) 함일의 맏아들. 정유재란 때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 아와주(阿波州)로 끌려갔는데 적장을 감화시켜 3년만에 귀국했고, 일기 "만사록(萬死錄)"을 후세에 남겼다.
- 정희득(鄭希得) : 1572~1640 호 월봉(月峯) 경득의 아우. 정유재란 때 형과 같이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 아와주로 끌려갔고, 적장을 학식과 시문으로 감동시켜 3년만에 환국하였고 일기 "해상록(海上錄)"을 후세에 남겼다.
- 정민득(鄭敏得) : 1577~1597 기시조의 22세손. 1595년 무과에 급제하여 도총부도사를 지냈고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다가 순국했다.
- 정 근(鄭 瑾) : 1606~1672 대명의 셋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정귀현(鄭貴顯) : 1660~? 기시조의 22세손. 1684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 정효득(鄭孝得) : 함일의 둘째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 정덕린(鄭德麟) : 기시조의 22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 정호인(鄭好仁) : 1579~? 호 은와(隱窩). 절의 아들. 정유재란 때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 아와주로 끌려갔는데 일인들이 글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거절 하자 15일간 굶기는 등 박해를 가했으나 끝내 한국 선비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 3년 만에 귀국했고 일기 "정유피란기(丁酉避亂記)"를 후세에 남겼다.
- 정호례(鄭好禮) : 1581~1643 호 운곡(雲谷) 호인의 아우 형과 함께 일본에서 포로생활 3년간을 겪었고 정묘호란 때 왕을 호종하였으며 양성현감을 지냈다.
- 정 색(鄭 穡) : 1590~1652 경득의 아들 병자호란 때 이흥발(李興淳) 등과 창의했다.
- 정 직(鄭 稷) : 1595~1641 호 묵우(默愚). 병자호란 때 안방준(安邦俊) 등과 창의했다.
- 정 적(鄭 檣) : 1607~1675 호 쌍풍(雙楓). 희득의 셋째 아들. 종형 색과 함께 병자호란 때 창의했다.
- 정 목(鄭 穆) : 기시조의 23세손. 진사과에 입격했다.
- 정익성(鄭益成) : 옥(昱)의 아들. 무과에 급제했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왕을 호종했다.
- 정익창(鄭益昌) : 1576~? 호 송원(松原). 옥의 아들. 익성의 아우. 1637년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를 지냈다.
- 정대주(鄭大周) : 1574~1655 기시조의 24세손. 부호군을 지냈다.
- 정상주(鄭相周) : 1622~1672 직의 아들. 1660년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 정 즙(鄭 湑) : 1627~1713 기시조의 24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 정택주(鄭宅周) : 1633~1716 호 한취당(寒翠堂) 직의 넷째 아들 1676년 무과에 급제했다.
- 정봉주(鄭封周) : 1647~1689 기시조의 24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사옹원 주부를 지냈다.



- 정건주(鄭建周) : 1712~1795 호 야은(野隱). 기시조의 234세손. 1753년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을 지내다가 봉당에 환멸을 느끼고 낙향했다.
- 정사의(鄭思義) : 1651~1720 기시조의 25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해산진병마절도사·만호를 지냈다.
- 정덕휴(鄭德休) : 1664~1752 호 만양(晩養). 상주의 아들. 1699년 사마시에 입격했고, 후학양성에 온 힘을 기울였다.
- 정시현(鄭時賢) : 1692~1750 기시조의 25세손.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다.
- 정시홍(鄭時洪) : 기시조의 25세손. 진사과에 입격했다.
- 정덕기(鄭德基) : 1658~1717 기시조의 26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면산현감·도총부 경력을 지냈다.
- 정영신(鄭英臣) : 1676~1750 1726년 사마시에 입격했다.
- 정용신(鄭龍臣) : 1681~1754 호 우재(迂齋). 기시조의 26세손. 1735년 사마시에 입격했고 문집 3권이 전한다.
- 정익신(鄭翊臣) : 1694~1751 기시조의 26세손. 1733년 무과에 급제하여 도총부 경력·우후를 지냈다.
- 정필신(鄭弼臣) : 1712~1783 호 만포(晩圃). 기시조의 26세갈. 1756년 무과에 급제하여 4개 읍 수령을 지냈다.
- 정 식(鄭 植) : 1749~1833 기시조의 26세손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 정수성(鄭守誠) : 기시조의 27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사과를 지냈다.
- 정형명(鄭亨明) : 수성의 아들. 절충장군 중추부사를 지냈다.
- 정석좌(鄭錫佐) : 1731~1770 익신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다.
- 정 유(鄭 濡) : 1734~1790 기시조의 28세손. 1768년 무과에 급제하여 정조때 이조좌랑·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 정화규(鄭樞奎) : 1823~1900 호 지촌(之村) 기시조의 29세손. 돈녕부 돈녕·학부협판(學部協辦)을 지냈다.
- 정종악(鄭鍾岳) : 1819~1885 호 석뢰(石瀨) 기시조의 30세손. 1858년 문과에 급제, 1876년 증시에 급제했고, 승정원 우부승지를 지냈다.
- 정도성(鄭導誠) : 호 삼근당(三近堂). 백야사에서 배향한다.
- 정계충(鄭繼忠) : 정조 때인 1780년에 문과에 출제하여 공조참의를 지냈다.
- 정경식(鄭慶植) : 1845~1889, 호 애굴재(愛橋齋). 당대 원근에 널리 알려진 학자였고 "애굴 재유고"가 전한다.
- 정화영(鄭華榮) : 1860~1922 호 월로(月老) . 돈녕부 돈녕을 지냈다.
- 정종빈(鄭鍾斌) : 1868~1918 호 지파(芝坡). 기시조의 30세손. 훈령원 주부를 지냈고 한일합방 후로는 두문불출했다.
- 정 부(鄭 拊) : 1911. 12. 8 광주보건대학장·동대학 상임이사장 역임.
- 정춘헌(鄭春憲) : 1917. 5. 9~1950 호 광산(光山). 경감을 지냄.

- 정규선(鄭圭善) : 1919. 4. 9 호 월고(月高). 1955년 녹조소성훈장(綠條素星勳章)을 받았다.
- 정충섭(鄭忠燮) : 1921. 12. 5 호 죽천(竹泉). 기시조의 33세손. 광주서광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정지병(鄭址炳) : 1922. 1. 23 기시조의 34세손. 육군 중령 예편.
- 정동수(鄭東秀) : 1925. 1. 23 광주광역시에서 동장을 역임함.
- 정태선(鄭泰善) : 1926~작고. 월야면장을 지냈다.
- 정양선(鄭痒善) : 1928. 10. 20 호 춘파(春坡). 시·군 내무과장을 지냈다.
- 정원강(鄭元强) : 1929. 2. 17 제 4대전남도의원·민선 1대 함평군수를 지냈다.
- 정규거(鄭圭炬) : 1929. 9. 23 호 월계(月溪). 시조의 34세손. 서문여자고등학교장·서울시교육감을 역임했다.
- 정동주(鄭東柱) : 1930. 7. 20 호 행촌(杏村) 부군수 역임.
- 정남혁(鄭南赫) : 제 5대 전남도위원을 지냄.
- 정봉곤(鄭琫坤) : 1935. 1. 16 제 2대 함평군의원 제5대 함평군의회 의장을 지냈다.
- 정석규(鄭錫奎) : 1936. 1. 14 육군 중령 예편.
- 정우철(鄭宇哲) : 1936. 12. 17 세무과장을 지냈다.
- 정항곤(鄭杭坤) : 1937. 12. 14 기시조의 34세손. 육군 중령 예편.
- 정봉택(鄭奉澤) : 1938. 1. 20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장을 역임하였다.
- 정동희(鄭東熙) : 1939. 5. 15 호 청운(靑雲). 기시조의 33세손. 농림부 연구관 역임.
- 정재석(鄭在浙) : 1939. 6. 11 호 광재(光齋). 전라남도교육청 중등장학사·월야고등학교장을 역임했다.
- 정병섭(鄭炳燮) : 1939. 11. 2 목포부시장·나주시장을 지냈다.
- 정광선(鄭光善) : 1940. 2. 28 여천군수·전남도지방연수원장을 지냈다.
- 정한기(鄭漢基) : 1942. 10. 9 호 행당(杏堂). 시조의 36세손. 국세청 감사관을 역임했다.
- 정주현(鄭註鉉) : 1943. 4. 26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있다.
- 정양섭(鄭穰燮) : 1946. 1. 3 기술고시 합격. 상공부 특허청 부이사관 역임.
- 정병렬(鄭秉烈) : 1947. 5. 7 국립중앙과학기술처 사무관.
- 정동진(鄭東鎭) : 1948. 1. 22 대전 서광외과의원 원장.
- 정은환(鄭銀煥) : 1948. 12. 3 창원지법진주지원장·서울민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 정상웅(鄭祥容) : 1950. 1. 5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 정재윤(鄭在潤) : 1950. 2. 7 의학박사. 정형외과학 학술상 수상.
- 정현석(鄭炫錫) : 1951. 3. 15 LG화학 나주공장 공장장 역임.
- 정재강(鄭在康) : 1952. 5. 14 박사. 조선대학교 교수로 있다.
- 정광주(鄭尙柱) : 1952. 대한민국 서예대전 대상 수상. 금초서예연구원장.
- 정재현(鄭在玆) : 1953 . 1. 1 박사. 충북대학교 교수.



정태석(鄭泰錫) : 1954. 3. 8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재무부 예산계장·한남투신 대표이사 역임.
 정국환(鄭國煥) : 1955. 6. 24 박사. 정보통신부 전산원 실장.
 정국환(鄭局煥) : 1956. 11. 18 한국통신공사 부장.
 정권수(鄭權洙) : 1957. 7. 15 순천대학교수.
 정철진(鄭哲鎭) : 1957. 1. 8 시조의 35세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갑환(鄭甲煥) : 1957. 2. 15 치의학 박사. 치과의원장.
 정익환(鄭益煥) : 1958. 8. 10 육군 중령.
 정영호(鄭永鎬) : 1960. 6. 17 금호타이어 생산부장 역임.
 정재창(鄭載昌) : 1964. 9. 24 공학박사 국립과학원 근무.
 정계석(鄭桂錫) : 1966. 8. 17 86아시안게임 필드하키 금메달.
 정홍배(鄭洪培) : 1970. 3. 4 국립의료원 의사.
 정용호(鄭鏞昊) : 작고. 함평읍 선광병원장.
 정현두(鄭鉉桓) : 의학박사. 광주에서 병원 개업.
 정진안(鄭鎭安) : 의학박사.
 정창선(鄭昌先) : 공군대령 예편.
 정홍규(鄭洪奎) : 육군 대령.
 정양진(鄭良鎭) : 법무부 법무관 역임.
 정윤철(鄭允哲) : 제 1대 함평군의원을 지냈다.

9) 초계정(草溪鄭)씨

시조는 배걸(倍傑)이다.

그는 초계산성에 살았으나 그의 선세계는 실전되어 알 수가 없다. 그는 고려 현종 8년(顯宗, 1017)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문종 때 예부상서를 지냈으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12공도(公徒)"의 하나인 "홍문공도(弘文公徒)"를 이루어 유가(儒家)의 대가요 백세의 존사(尊師)라 일컬었다.

개부의동 삼사수태위 문하시중 상주국광유후(開府儀同三司守太尉門下侍中上柱國光儒候)에 오르고 초계군에 봉해졌으며, 이리하여 후손들이 초계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가문을 빛낸 사람들은 고려조에서 아들 문(文)이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종 때 형부상서·정당문학을 지냈고, 조선조에서 창(昌)이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수찬을 역임했고 세조가 등국하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숨어 살았으며 문익(文翼)이 광해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인조 때 충청도 관찰사를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계정씨는 전국에 29,264가구 93,586명이 살고 있어 정씨 136개 본관 중 6위며 전남에는 1.83%인 556가구 1,717명이 살고 있고,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3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7가구 31명, 2000년에는 4가구 14명이 사

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0) 하동정(河東鄭)씨

하동정씨로 본관을 하면서도 서로 계통이 다른 3계파(三系派)가 있다.

도정계(道正系) : 삼한 말기에 하동으로 향관(鄉貫)하고 단련향병(團練鄉兵)으로 이 지방을 지키다가 고려 초 호장이 되어 향병을 이끌고 고려조에 합류해 평장사에 오른 도정을 시조로 하는 계열이다.

함평군에 살고 있는 하동정씨는 모두 이 계열이다.

그런데 이 계열에서도 금성(錦城)으로 본관을 쓰고 있는 계열이 있다.

금성정씨의 시조는 성(盛)이며 그는 고려 충숙왕 17년(忠肅王, 1330)에 문과에 급제하여 공을 세워 금성군에 봉해졌기에 후손들이 하동정씨에서 분적했다.

응 계(膺 系) : 고려 개국 초에 하동지방의 장(長)으로 민병을 다스리던 사족(士族)의 후손이며 덕종 때 문과에 급제 공을 세운 응을 시조로 하고 있다.

손위계(孫位系) : 하동정씨 계열의 원류(元流)로 지백호의 40세손이며 문하시중을 지내고 하동백에 봉해진 손위를 시조로 하고 있다.

함평군에 살고 있는 도정계의 하동정씨는 2000년 조사에서 126가구 315명이 살고 있으며 많이 살고 있는 곳은 함평읍 자풍리와 성남리, 학교면 금송리 방우동이다.

함평군 입향조는 시조의 11세손이며 산음현감을 지낸 수(攄)다.

그는 고려말 왜구 토벌에 공이 많은 지(地)의 손자며 1450년경 광주의 분토동(현 광주시 청옥동)에서 함평읍 자풍리 금곡에 터를 잡아 정착했다.

배출 인물

정 수(鄭 攄) : 시조의 11세손 관찰사 정(正)의 아들 산음현감을 지냈으며 하동정씨 함평군 입향조다.

정 남(鄭 楠) : 1438~1486 수의 아들. 1471년 진사과에 입격했다

정예홍(鄭禮弘) : 1474~1555 시조의 14세손. 무과에 급제

정기린(鄭麒麟) : 1570~1593 1585년 무과에 급제하여 사복내승(司僕內乘)을 지내다가 귀향해 있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오르고 1649년 정려가 내려다.

정종악(鄭宗岳) : 1737~1784 호 모재(慕齋) 호자로 조정에서 정문이 내려다.

11) 해주정(海州鄭)씨

시조는 숙(肅)이다.

그의 선계는 문헌이 실전되어 알 수 없고 다만 그의 선계가 해주 수양산 밑에서 여러 대에



걸쳐 호족으로 살았고 고려 때 "鄭"씨 성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그의 후손으로 소부소윤(小府少尹)을 지낸 언(愼)과 대장군을 지낸 초(礎)를 1세조로 하는 2개 파가 있다.

가문에서 배출한 인물은 고려조에서 언의 장남 윤규(允珪)가 정용낭장(精勇郎將)을 지냈으며, 둘째 윤경(允卿)이 정당문학을 지냈고, 조선조에서 역(易)이 태종 때 호조판서, 세종 때 의정부찬성을 지냈으며, 언의 5세손 중(悤)이 문종의 딸 경혜공주(敬惠公主)와 결혼하여 영양위(寧陽尉)에 봉해지고 단종 때 형조판서가 되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해주정씨는 10,998가구 35,434명이 살고 있어 정씨 136개 본관 중 10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2.82%인 337가구 1,002명이 살고 있고, 함평군에는 11가구 24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48. 정 씨 (丁氏)

정씨의 도시조는 덕성(德盛)이다.

그리고 정씨대동종안보(丁氏大同宗安譜)에는 본관이 압해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압해로 통일되는 본관은 정(丁)씨들 간에 상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전국에 22개 본관 58,431가구 187,975명이 살고 있어 전국 성씨별 순위 3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0가구가 넘는 본관이 나주 25,786가구·진주 7,661가구 · 영광 6,839가구·창원 4,989가구·영성 3,279가구·곡성 2,984 · 해주 1683가구의 8개 본관인데 영광과 영성이 동일 지명으로 같은 본관이기 때문에 7개 본관이 된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274가구 74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0가구 이상인 본관은 영성 92가구, 나주 73가구, 진주 59가구, 압해 23가구의 4개 본관이다.

이 가운데 가구를 이루고 있는 본관이 12개 본관,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이 창녕과 창원 2개 본관으로 각각 1명씩이다.

함평군에 살고 있는 정씨들은 기실 영성이 주종을 이루는데 압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영성정씨 중에서 "정씨대동종안보"에 따라 압해정씨로 대답한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이다.

본 군사(郡史)에서는 "정씨대동종안보"에 따라 나주정(羅州丁)·압해정(押海丁)·영성정(靈城丁)씨로 분류하지 않고 압해정씨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1) 압해정(押海丁)씨

정씨들은 그들 도시조 덕성(德盛, 800~893)은 원래 중국 당나라에서 정승을 살아 대양군(大陽君)이란 군봉을 받았으나 직소(直疏)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문성왕 15년(853)에 압해도로 귀

양오는 몸이 되었고, 유배 20년간의 기한을 마쳤으나 귀양지인 압해도에서 여생을 마쳐 한국 정씨의 도시조가 되었다고 정리하고 있고, 그의 묘소는 신안군 압해면 가룡리(駕龍里) 정승등(政丞燈)에 있다.

정씨의 본관을 살펴보면,

(1) 영성(靈城. 영광)

1세조 열도(烈道. 819~905) : 덕성의 맏아들로 신라 헌안왕 때 공을 세워 오성군(箕城君 영광의 옛 이름)에 봉해졌고, 그의 후손 찬(贊)이 고려와 조선조에 걸쳐 공이 지대하여 영성군에 봉해져 후손들이 영성정씨라 했다.

(2) 나주(羅州)

1세조 응도(應道. 822~909) : 덕성의 둘째 아들로 금성군(錦城君)에 봉해졌고, 그의 후손 윤종(允宗)이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이 되므로 후손들이 나주정씨라 했다.

(3) 창원(昌原)

선창원(先昌原) : 1세조 연방(衍邦)·나주정씨의 1세조 용도의 후으로 의창군(義昌君. 창원의 옛 이름) 군봉을 받음

후창원(後昌原) : 1세조 관(寬)·영성정씨 1세조 열도의 후손 찬의 아우

의 성(義城) : 1세조 영손(令孫)·연방의 후손으로 조선 개국에 협력하여 의성군에 봉해짐

위와 같이 모두 덕양의 후손이므로, 따라서 정씨의 본관은 파(派)로 이해하면 옳을 것이다.

함평군 입향조는 시조의 33세손인 희도(希道. 부사공 12세손)며 1670년경 무안읍 용월리 평교에서 엄다면 성천리 용흥동에 정착했다.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엄다면 성천리 용흥·성암, 학교면 금송리 향동, 해보면 대창리 창서이다.

배출 인물

정희도(丁希道) : 1642~1694 호 모재(慕齋). 압해정씨 함평군 입향조

정극순(丁克淳) : 풍천부사(豐川府使)를 지냈다.

정영호(丁永浩) : 1934. 1. 15 압태중학교 등 교장을 역임했다.

정영배(丁永培) : 1935. 4. 12 여수수산대학교 교수 역임.

정영탁(丁永卓) : 1935. 7. 21 함평군청과장 ..전남도청 청소년계장 등 역임.

정영승(丁永昇) : 1941. 6. 15 보건사회부 사무관 역임.

정광균(丁廣均) : 1943. 3. 26 캐나다 토론토 영사관(부이사관) 역임.



49. 정 씨 (程氏)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4개 본관 10,220가구 32,519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 순위 106위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동래 3,321가구, 한산 2,340가구, 하남 2,355가구의 3개 본관이다.

영풍(永豊. 현 함평읍 일부 지역) 본관이 5가구 24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토반성씨에서 언급했다.

1) 하남정 (河南程)씨

우리 나라에 건너와서의 시조는 사조(思祖)다.

그는 노국공주가 입국할 때 같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공민왕 1년(1352) 한산군(韓山君)에 봉해졌다.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받들며 중국 하남의 본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의 선계는 황제 헌원(軒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제의 후손 백부(伯符)가 원조(遠祖)며 백부의 45세손 원담(元潭)이新安정씨(新安程氏)의 중시조다.

원담의 31세손인 우(羽)가 하남정씨로 분적했다.

사조는 우의 18세손이며, 원담의 48세손이고 황제 헌원의 138세손이 된다.

함평군에는 1982년 군사를 발간할 즈음에 14가구가 살았으나 지금은 3가구 7명으로 줄었다.

1984년 군사에 수록된 성씨이기 때문에 5가구 미만이지만 수록했다. 함평군 입향조는 문백(文伯)이며 월야면 외치리 어용동에 정착했으며 묘소도 어용동에 있다.

배출 인물

정문백(程文伯) : 하남정씨 함평군 입향조다.

50. 조 씨 (趙氏)

본래 조씨는 중국의 성인데 사략(史略)에 따르면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서언왕(徐偃王)을 정벌할 때 조부(趙父)가 공을 세워 조성(趙姓)에 봉해지므로 하여 "趙"라는 성을 썼다고 전해 온다.

문헌에는 210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68개 본관 306,022가구 984,913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 순위 7위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

은 한양 95,206가구 · 함안 81,048가구 · 풍양 35,009가구·백천 20,734가구·옥천 15,346가구·평양 12,720가구·양주 7,437가구·순창 5,669가구·김제 4,501가구·함양 3,478가구·임천 3,476가구·창원 1,880가구 · 강서 1,760가구 · 나주 1,680가구 · 형성 1,648 · 경주 1,251가구 · 직산 1,072의 17개 본관이 된다.

조사된 조씨 가운데 함평조씨는 455가구 1,487명으로 집계되었다.

조씨는 동성동본은 물론 세계가 다른 본관이라 해도 혼인하지 않는 관례를 가지고 있으며,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285가구 78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한양조씨가 258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90.5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본관은 모두 10가구 미만으로 옥천이 6가구, 함안, 한양, 함평이 각각 3가구를 차지하고 있었다.

1) 김제조(金堤趙)씨

시조는 연벽(連壁)이다.

그는 고려 고종 18년(高宗, 1231)에 몽고군이 침입하자 대장군으로 부장 김유후(金允侯)와 함께 처인성(處仁城. 현 경기도 용인)에서 몽고군을 소탕한 공으로 상장군이 되고, 벽성군(碧城君. 김제의 옛 이름)에 봉해졌기에 후손들이 본관을 김제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가문의 대표적 인물로는 고려조에서 시조의 맏아들 기(岐)가 대호군, 둘째 서(瑞)가 좌승지. 셋째 간(簡)이 충렬왕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검교첨의평리(檢校僉議評理)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수량(遂良)이 단종의 시종신으로 충절을 지켰고, 필달(必達)이 포도대장, 인조 때 시준(時俊)이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풍성군(豐城君)에 추봉되었고, 덕술(德述)이 호조참의를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김제조씨는 전국에 4,501가구 14,509명이 살고 있으며, 전남에는 김제조씨의 1.81%인 81가구 263명이 살고 있고, 함평군에는 가구없이 5명이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밀양조(密陽趙)씨

시조는 홍사(洪祀)다.

가문의 인물로는 영조 44년(英祖, 1768)에 문과에 급제한 언혁(彦赫)이 있다. 1930년 국세조사 통계에 황해도 해주에 162가구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밀양조씨는 전국에 794가구 2,666명이 살고 있고, 전남에는 22가구 102명이 살고 있으며 함평군에는 가구없이 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3) 옥천조(玉川趙)씨



시조는 장(璋)이다.

그는 중국 사람으로 언제 우리 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모르며, 고려에서 광록대부 검교 대장군(檢校大將軍)·문하시중을 지냈다.

그의 4세손 원길(元吉)이 정몽주(鄭夢周), 설장수(偁長壽) 등과 함께 공양왕을 옹립한 공으로 1등공신에 올라 옥천(玉川, 전북 순창의 옛 이름)부원군에 봉해졌기 때문에 후손들이 장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옥천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가문을 빛낸 사람으로는 고려조에서 시조의 아들 홍규(洪珪)가 판도판서, 손자 전(埈)이 삼한 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옥천부원군에 봉해졌고, 원길의 아들 영(瑛)이 전공판서(典工判書), 유(瑜)가 전농시부정(典農寺副正)을 지냈으며, 조선이 개국되고 원길을 비롯 그의 아들들을 태조가 등용하려 했으나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사양했다.

조선조에서는 유의 아들 숭문(崇文)이 무과에 급제하여 병마절도사를 지내다가 단종의 복위운동에 가담하여 죽임을 당했고 단종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조의 8세손 침(琛)이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제학을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옥천조씨는 전국에 15,346가구 49,847명이 살고 있으며 전남에는 전국에서 옥천조씨가 가장 많이 사는 도로 21.32%인 3,460가구 10,632명이 살고 있으며 함평군에는 6가구 18명이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풍양조(豐壤趙)씨

시조는 맹(孟)이며 1세조를 지린(之蘭)과 신혁(臣赫)으로 하는 두 계통이 있다.

시조 맹은 원래 이름이 바위(巖)였는데 만년에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에 공을 세워 상주국 삼광 문하시중평장사(上柱國三匡門下侍中平章事)에 올랐고 "孟"이란 이름을 하사 받았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세거지인 풍양(경기도 양주의 옛 이름)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으나, 시조 이하의 세계가 실전되어 1세조를 달리하는 두 계파로 이어오고 있는데, 시조의 6세손까지 실전한 전직공파(殿直公派)는 고려 때 전직을 지낸 지린을 1세조로 하여 계대하고 있고, 몇 대까지 실전했는지 모르는 평장공파는 신혁을 1세조로 하고 있다.

전직공파는 파조의 6세손 염휘(炎輝)의 아들 4형제 대에서.

호군공파(護軍公派) : 파조·염휘의 맏아들 사충(思忠)

회양공파(淮陽公派) : 파조· " 둘째 아들 신(愼)

금주공파(錦州公派) : 파조· " 셋째 아들 임(祗)의 3파로 갈렸고,

평장공파는 남원공파(南原公派)로 바뀌어 4개파가 되었다

조선조에서 풍양조씨는 세도 가문으로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20005.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풍양조씨는 전국에 35,009가구 113,798명이 살고 있어 조씨 68개 본관 중 3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풍양조씨의 1.47%에 해당하는 559가구 1,678명이 살고 있으며, 함평군에는 5가구 17명이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한양조(漢陽趙)씨

시조는 지수(之壽)다.

그가 언제 우리 나라에 건너왔는지는 모르며 고려 때 조순대부 첨의중추서사(僉議中樞書事)를 지내고 영흥군 운곡면 운흥리 용진(龍津, 현 고원군)에 세거하였다.

6세손 온(溫), 연(涓) 등이 조선조 건국에 공을 세우고 한양으로 이거하여 번창하므로 한양을 본관으로 하였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95,206가구 307,746명이 살고 있어 조씨 68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한양조씨의 4.84%에 해당하는 5,047가구 14,908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387가구, 1985년 조사에는 309가구 1,286명, 2000년에는 258가구 693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씨족 거주 순위 13위(1969년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성촌은 대동면 운교리, 신광면 유천리 미출, 엄다면 삼정리이다.

함평군에는 6세에서 분파한 사평군파(司評君派, 파조 갱-廣)와 덕천군파(德川君派, 파조 연-涓)가 살고 있는데 사평군파가 먼저 입향했다.

사평군파의 함평 입향조는 시조의 9세손인 맹생(孟生)과 그 아우 계생(季生)인데 그들은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의 화를 피해 1546년경 벼슬을 버리고 경남으로 갔다가 바로 손불면 북성리 사기 마을에 은거하였고, 군유산에 맹생이 숨어 살았다하여 "조피굴(趙避谷)"이라 부르는 계곡이 있다.

맹생의 아들 호(瑚)와 계생의 아들 용정(龍精)이 손불면에서 대동면 운교리 판교로 이거하여 자손이 번성하였고, 호의 넷째 아들 의손(漪孫)이 동면 서호리 은행정에 이거하여 후학을 길렀으며, 그의 손자 몽룡(夢龍)과 몽린(夢麟)이 엄다면 성천리 성암으로 옮겨 후손들이 삼정리를 비롯하여 일대에 퍼져 살게 되었고,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계생의 증손 언기(彦麒, 한종-漢宗의 둘째 아들)가 나주시 문평면으로 이거하여 그 후손이 나주에 퍼져 살게 되었다.

덕천공파 입향조는 시조의 13세손인 사경(士景)이 1610년경에 4대째 살던 임곡의 광산동(廣山洞, 현 광주광역시 임곡동)에서 신광면 유천리 미출(米出, 사랑굴)에 이거하여 손이 뿌리를 내리게 한 후 그는 장릉(莊陵) 참봉을 봉직하고 장성군 북일면 성덕으로 전거(轉居)하였다.

그의 후손들이 신광면, 손불면 등에 퍼져 살고 있다.

입향조 맹생의 묘소는 손불면 북성리 사기 마을 뒷산에 있으며, 사경의 묘소는 임곡 양림산(養林山)에 있었으나 실전했다.

함평군에 있는 관련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충효회관(忠孝會館)	신광면 유천리 미출	1985년 준공, 후손 충효교육 도장

배출 인물



- 조맹생(趙孟生) : 시조의 9세손. 이조정랑을 지냈으며 한양조씨 함평 입향조다.
- 조계생(趙季生) : 맹생의 아우. 충자위부사직을 지냈으며 형과 함께 함평군에 정착했다.
- 조 호(趙 瑚) : 맹생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다.
- 조용정(趙龍精) : 계생의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사헌부 집의를 지냈다.
- 조언기(趙彦麒) : 시조의 12세손. 예조정랑을 지냈으며 임진왜란에 창의하여 왜적과 싸우다 전몰했고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 조충서(趙忠恕) : 1527~1588 시조의 13세손. 주부를 지냈다 .
- 조몽린(趙夢麟) : 시조의 13세손.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란 때 이순신 휘하에서 많은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 조준령(趙峻齡) : 1556~1610 충서의 아들.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휼하는 덕을 쌓아 주민들이 적선비를 세웠다.
- 조광지(趙光智) : 1581~1662 시조의 14세손. 음사로 출사하여 한성부 좌윤을 지냈다.
- 조 환(趙 瓚) : 1607~1698 호 월정(月亭). 시조의 14세손. 첨주를 지냈다.
- 조 식(趙 湜) : 1589~1651 준령의 둘째 아들. 문장과 덕행으로 천거되어 사헌부 집의를 지냈다.
- 조원규(趙源奎) : 1775~? 시조의 15세손. 아버지 상에 6년간 시묘를 사는 등 효심이 깊어 도친을 받았다.
- 조일신(趙日新) : 1688~1752 문장과 글씨가 뛰어 났고 효심이 깊어 1778년 정려가 내려졌다.
- 조진형(趙晉衡) : 1719~1784시조의 18세손.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을 지냈다.
- 조영춘(趙瑛春) : 1786~? 호 회당(悔堂). 시조의 19세손. 당대에 학행으로 이름났고 교수를 지냈으며 문집 7권이 전한다.
- 조시욱(趙時昱) : 1772~1851 호 송재(松齋) 시조의 20세손 재예가 뛰어났으며, 1883~1834년대 흥년에 많은 사람을 구하니 현감이 추천하여 벼슬이 내렸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조정윤(趙正潤) : 1826~1905 시조의 20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오위장(五衛將)을 지냈다.
- 조효원(趙孝元) : 1884~1966 호 덕운(德雲). 시조의 23세손. 유림이 천거하여 종사랑에 올랐고 아버지의 횡액에 혈서를 써 억울함을 풀었다.
- 조병팔(趙炳八) : 1922. 1. 27 호 송암(松岩). 시조의 24세손 대동면장을 지냄.
- 조남형(趙南衡) : 1908~1943호 덕인(德仁) 시조의 25세손. 함평향교 전교를 지냈다.
- 조판형(趙判衡) : 1911~1985 호 백양(白羊). 시조의 25세손. 8도장사로 이름이 났으며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을 왕래했다.
- 조한형(趙漢衡) : 1918. 6. 19 호 난계(蘭溪). 시조의 25세손. 광주중흥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조성도(趙成都) : 1923. 9. 25 호 을정(栗亭). 시조의 26세손. 엄다면장을 지냈다.
- 조성수(趙成洙) : 1926. 6. 5 호 화계(花溪). 시조의 26세손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 조성하(趙成夏) : 1930. 9. 16 호 송산(松山). 시조의 26세손 광주광역시 대금동장 등 역임.

조용성(趙用成) : 1932. 12. 7 호 학송(鶴松). 학다리중앙초등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조종연(趙鍾淵) : 1937. 10. 2 신광면장을 지냈다.
 조성욱(趙成郁) : 1938. 10. 8 호 인지재(忍止齋). 시조의 26세손. 1961년 사법고등고시에 합격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조성택(趙成澤) : 1942. 4. 16 시조의 26세손. 화랑무공훈장을 받았고, 제5대 전남도의원을 역임했다.
 조충희(趙忠熙) : 1956. 3. 5 호 춘원(春園). 시조의 27세손. 1급 임업기사. 과장 재직 중.

51. 조 씨 (曹氏)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개 본관 113,326가구 362,817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28위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창녕 105,282가구·청양 1,271가구·강릉 1,219가구의 3개 본관뿐이다. 나머지 18개 본관은 많게는 함평의 586 가구, 가흥(진도) 566가구의 2본관부터 청도의 97가구까지이다.

한편 함평조씨가 586가구 1,794명이 조사되었으나 함평조씨에 관련된 문헌이 없어서 조사치 못했다. 현재 함평군에는 3가구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함평조씨에 대해 밝히는 것은 차후 숙제로 남겨야 될 것 같다.

1) 창녕조(昌寧曹)씨

시조는 계룡(繼龍)이다.

그는 신라 진평왕(眞平王, 재위 579~631)의 사위였으며 탄생 설화는 이렇다. 그의 어머니는 창녕현 고암촌(鼓巖村)에서 한림학사 이광옥(李光玉)의 딸로 태어났는데, 혼기에 이르렀을 때 우연히 배에 청룡질(靑龍疾)을 얻어 백약이 무효인데 산승(山僧)의 말에 따라 화왕산(火旺山) 용담(龍潭)에서 기도를 드리고 목욕을 한 후 병은 말끔히 나았으나 그때부터 태기가 있어 진평왕 48년(626)에 아들을 낳았다.

아이를 당기 전 꿈에 금관을 쓰고 옥대를 두른 남자가 나타나 말하기를,

"나를 아이의 아버지는 동해 용왕이다. 아이를 잘 길러라. 크면 공후가 될 것이며 자손도 번창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용모가 수려했으며 겨드랑이 밑에 "조(曹)"자가 붉게 찍어 있었다.

이광옥이 기이하게 여겨 왕에게 알리자 왕도 신기하게 여기며 성은 "曹", 이름은 "계룡(繼龍)"이라고 특사했다.

그리고 사위로 삼았으며 후에 금자광록대부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이르렀다.

창녕이 그의 세거지였기 때문에 후손들이 본관을 창녕이라고 했다.

함평군에는 대별하여 화순(和順) 밀직사공(密直司公), 창산군파(昌山君派)가 살고 있는데,



2000년 조사에서 105가구 319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32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가장 먼저 입향한 파는 화순파며 입향조는 시조의 35세손인 정(挺)이다.

그는 인조 20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현의 현감을 역임했고. 1660년경에 화순군 화순읍 지곡리에서 함평읍 수호리 해동으로 이거 정착했으며, 그의 손자 석학(錫學)이 1820년경에 백호리로 옮겨 세거하고 있다.

창산군파는 시조의 37세손인 상선(尙燾)이 1749년 신안에서 낳아 장성한 후 신광면 보여리 보전에 이거하여 1792년에 아들 석운을 낳았다고 전하니 이거 연대는 대략 1780년대로 볼 수 있다.

석운은 1820년경 함평읍 만흥리로 분가하여 후손이 번창했다.

배출 인물

조 정(曹 挺) : 1610~1681 인조 20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고을 현감을 지냈고 창녕·조씨 함평군 입향조다.

조홍직(曹弘直) : 1695~1788 효행으로 이름 높았고 수직으로 동지중추부사를 제수받았다.

조상호(曹相鎬) :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대한체육회장을 역임했다.

조기근(曹基根) : 1924. 9. 15 학다리중앙초등학교 등 교장을 역임했다.

조삼현(曹三鉉) : 1922~1980 광산군청 농산과장 등 역임

조영재(曹永在) : 1941. 3. 29 육군소령을 지냈다.

조준현(曹準鉉) : 1955. 2. 10 송원대학 교수 역임

52. 주 씨 (朱氏)

주씨는 능주·나주·전주·함흥 등 많은 본관을 써오다가 1902년 의정부 찬정(贊政) 주석면(朱錫冕)의 상소로 선조의 본향인 신안(新安)으로 본관을 통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다수의 주씨들이 종전의 본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씨는 2000년 조사에서 전국에 30개 본관에 55,180가구 176,232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42위를 차지하고 있다.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이 신안 47,551가구·능성 1,384가구의 2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44가구 13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안 38가구로 86.3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주 4가구, 공주와 해주 각각 1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은 강릉, 광주, 남원, 능성, 밀양, 신흥, 안동, 영주 등 모두 8개 본관이다.

1) 신안주(新安朱)씨

시조는 회(熹), 중시조는 잠(潛)이다.

회는 주자(朱子)의 본명으로 그는 남송의 유학자로 성리학을 대성한 사람이며 잠은 그의 증손이다.

그들은 신안(新安) 사람이다.

신안은 중국 양자강 하류 밀 회하(淮河) 유역의 안휘성 휘주부(徽州府)에 있는 현(縣)이다.

잠은 송나라 사직이 위태롭게 되자 아들 여경(餘慶)을 데리고 고려 고종 때 우리나라에 망명해와 금성(錦城, 나주의 옛 이름)에 세거하였다고 조선씨족통보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원나라에서 송나라 유민을 압송하려 했을 때 이름을 적덕(積德)이라고 고치고 화순군 능주면 고정리(考亭里)에 은거하였다가 후손들이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현달한 인물은 고려조에서 여경의 아들 열(悅)이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나주·장흥 등의 수령을 거쳐 충렬왕 때 도첨의부사(都僉議府使)에 올라 능성군(綾城君)에 봉해졌다.

그의 맏아들 인장(仁長)이 예부상서, 둘째 인원(仁遠)이 병부상서, 셋째 인환(仁還)이 첨의부사를 역임했고, 인장의 아들 의(義)가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이부상서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향도(恒道)가 숙종 때 좌승지·부총관을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신안주씨는 전국에 47,551가구 151,227명이 살고 있어 주씨 27개 본관 가운데 1위며 전남에는 신안주씨의 8.11%인 3,987가구 12,270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학교·신광면에 많이 살며 1969년 조사에서는 65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60가구 262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2000년 조사에서는 38가구 11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출 인물

주상섭(朱相燮) : 1920. 9. 8 경정으로 퇴임 여수경찰서장 역임.

주일도 : 초등학교 교장을 지냄.

주동철(朱洞鐵) : 1955. 2. 5 육군소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53. 주 씨 (周氏)

상주 주씨를 제외한 초계·칠원·안의 주씨 등은 근원을 중국에 두고 있다.

초계주씨의 시조 황(璜)은 주(周)나라 왕손의 후예로 당나라에서 한림학사를 하다가 신라 효공왕 11년(孝恭王 907)에 오계(五季)의 난을 피해 우리나라에 와 경남 함천군 초계에 정착하여



초계정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철원주씨의 시조 사옹(士雍)은 황의 12세손이며, 안의주씨 시조 서(瑞)는 황의 13세손으로 모두 같은 계열이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씨는 전국에 19개 본관 12,018가구 38,778명으로 한국 성씨별 순위 72위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상주 5,745가구·초계 2,026가구의 2개 본관이며 다른 본관은 대체적으로 100여 가구에서 900여 가구에 이르는 가구이다.

함평군에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철원 8가구 18명·상주 3가구 12명·능주 3가구 8명과 경주·장흥·진주가 각각 1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은 삼계(영산)·천안·초계의 3개 본관이며 모두 합쳐 9개 본관 53명이 거주하고 있다.

1) 상주주(尙州周)씨

시조는 유(瑜)다.

그는 고려말에 진사를 지내다가 조선이 개국되자 길재(吉再) 등과 함께 벼슬을 버리고 초계현에 은거하여 절의를 지켰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선조가 세거해온 상주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달한 인물은 조선조에서 시조의 5세손 세봉(世鵬)이 중종 17년(中宗. 1522) 문과에 급제하여 명종 때 호조참판을 거쳐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했고 청백리에 뽑혔으며, 우리나라의 최초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워 학풍을 진작했고, 시문에도 뛰어나

「태평곡(太平曲)」, 「6현가(六賢歌)」, 등 4편의 장가(長歌)와 「군자가(君子歌)」 등의 단가(短歌) 8수(首)를 남겼다.

그의 아들 박(博)이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사예(司藝) 등을 지내고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허준(許浚)의 제자였던 명신(命新)은 「의문보감(醫門寶鑑)」을 남겼고, 재성(宰成)은 「용학강의(庸學講義)」, 「경의집록(經義輯錄)」 등을 저술했으며, 시경(時經)은 한글의 문법과 맞춤법을 체계화한 선구적인 한글학자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주주씨는 전국에 5,745가구 18,384명이 살고 있어 주씨 16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상주주씨의 5.56%에 해당하는 259가구 745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985년까지 9가구 33명이 살고 있었으나 2000년 현재 3가구 12명이 거주하고 있다.

54. 지 씨 (池氏)

조선씨족통보에 의하면 지씨는 충주를 비롯하여 단양(丹湯), 광주(廣州) 등 89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충주지씨를 제외한 나머지 본관은 세거지명(世居地名)에 불과하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씨는 전국에 15개 본관 43,696가구 140,824명

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48위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충주 36,937가구·청주 2,732가구·경주 1,662가구의 3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충주 58가구 153명이다.

1) 충주지 (忠州池)씨

시조는 경 (鏡)이다.

그는 중국 홍농(弘農) 사람으로 고려 광종 11년(光宗. 960)에 태학사(太學士)로 우리나라에 건너와 평장사에 이르렀고, 6세손 종해(宗海)가 문하시랑평장사에 올라 충원백(忠原伯. 충주의 옛 이름)에 봉해지고 세거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본관을 충주로 했다.

충주지씨는 고려조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는데 용수(龍壽)가 공민왕 때 서북면병마사(兵馬使)로 홍건적을 물리치고 1등공신에 올랐으며, 복룡(福龍)이 문하찬성사 윤(蘊)이 우왕 때 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를 거쳐 서북면도원수, 용기(湧奇)가 예의판서를 거쳐 문하평리(門下評理)를 지냈다.

조선조에 이르러 문중에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 때 많은 탄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뒤 조선조의 융화정책으로 계취(繼灌. 서흥부사), 유용(有容. 충청도 안무사. 목사), 봉원(逢源. 절제사) 등 다수가 벼슬길에 나섰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58가구 153명이 살아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46위다.

함평군 입향조는 시조의 26세손인 경생(敬生), 해생(海生) 형제가 1640년 경에 충북 보은군에서 엽다면 학야리(당시 무안현 땅)에 정착하였고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은 엽다면 학야리 야리·대천동. 학교면 월산리 송정·사거리 경화동 죽정리 둔기 등이다.

입향조 경생의 묘소는 학교면 사거리 원초장동에 있다.

배출 인물

지경생(池敬生) : 1623~1696 호 청파(淸坡). 충주지씨 함평군 입향조.

지상운(池象胤) : 1825~1896 현감·만호를 지냈다.

지춘상(池春相) : 1832. 10. 9 전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문화체육부 문화재위원을 지냈고, 문화훈장을 받았다.

지영휴(池永休) : 경찰서장을 지냈다.

지상용(池相龍) :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대전 세무서 총부과장 등을 역임함.

지인상(池仁相) : 광주광역시에서 과장을 역임함.

지명호(池明浩) : 1918. 7. 21 경감으로 퇴임했다.



55. 진 씨 (陳氏)

문헌에는 120여 본관으로 되어 있으며, 여양(驪陽), 삼척(三陟), 나주(羅州), 강릉(江陵), 덕창(德昌), 양주(楊洲) 본관의 진씨는 충후(寵厚)의 후예이기에 같은 뿌리이므로 합보하여 파(派)로 통일하고 있다.

2000. 11. 1 통계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47개 본관 44,457가구 142,496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49위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여양 30,492가구·영양 2,774가구·삼척 2,178가구·강릉 1,384가구·나주 1,217가구·경주 1,149가구의 6개 본관인데 삼척·강릉·나주가 여양과 합본했으므로 합하면 3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여양 59가구, 영양 5가구, 나주 3가구와 경주 및 온양이 각각 2가구, 그리고 부여, 신광, 양주, 연안, 진산이 각각 1가구를 이루며 살고 있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은 밀양 3명, 강릉 2명과 여흥, 진주, 충주, 평산이 각기 1명씩 거주해 모두 16개 본관 76가구 216명이 거주하고 있다.

1) 여양진(驪陽陳)씨

시조는 충후(寵厚)다.

그는 고려 예종 때(睿宗. 재위1106~1122) 신호위대장군(神號衛大將軍)에 올랐으며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을 토평한 공으로 여양군(驪陽君. 현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봉해져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여양으로 했다.

시조 충후의 선계는 중국이며 송나라 때 복주(福州) 출신인 진수(陳瑒)가 우윤(右尹) 벼슬을 지내다가 국란이 일어나자 우리나라에 건너와 여양현 덕양산(德陽山) 아래에 살았는데 그의 후손이며 세계는 실전되었다.

함평군에 살고 있는 파는 모두 예빈경파(禮賓卿派)인데 첫 입향조는 시조의 12세손인 중경(仲卿)이다.

그는 성종 24년(成宗 1493)에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맹경(孟卿.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1492년에 여산군수를 지냄)의 아우인데 1510년경 나주에서 대동면 향교리에 이거 정착하였고, 그 후손이 학교면 등으로 퍼졌다.

맹경의 손자 흠(欽. 사손-四孫-의 둘째 아들)이 나주에서 해보면 대각리에 이거 정착했는데 그는 온양현감을 지냈으며, 입향 연대는 대략 1540년경이다.

또 맹경의 손자 함(涵. 이손-二孫-의 둘째 아들)이 역시 나주에서 대동면 향교리로 1550년경 옮겨왔으며, 진사를 지냈다.

맹경의 현손(玄孫)인 중선(從善 시조의 15세손)이 1600년경 나주에서 나산면 신평리로 이거했으며 성균관 '생원 호선(好善. 1569~1635)의 아우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59가구 161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43

위며 10가구 이상 사는 곳은 나산면 신평리. 해보면 대각리다.

배출 인물

진중경(陳仲卿) : 시조의 11세손. 1493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을 지냈고, 여양진씨 함평군 입향조다.

진중손(陳從孫) : 중경의 아들. 어모장군 의흥위 부호군을 지냈다.

진 함(陳 涵) :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진 흠(陳 欽) : 1487~1583 호 금호(錦湖) 시조의 13세손. 1510년 사마시에 입격했고 온양 현감을 지냈다.

진경후(陳敬厚) : 함의 맏아들. 1536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을 지냈다.

진관후(陳寬厚) : 함의 둘째 아들. 1534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을 지냈다.

진덕후(陳德厚) : ?~1597 호 금재(錦齋). 참봉 홍(洪)의 아들. 1594년 무과에 급제했고 정유 재란 때 왜적과 싸우다 순국하였다.

진 상(陳 詳) : 시조의 14세손. 어모장군을 지냈다.

진 송(陳 松) : 상의 아우. 1594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사용(副司勇)을 지냄.

진 개(陳 玠) : 시조의 15세손.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진계휼(陳季兪) : 1585~1625 시조의 15세손. 1607년 무과에 급제 용양위우부장을 지냈다.

진동안(陳東安) : 시조의 16세손 군자감정을 지냈다.

진수격(陳守格) : 시조의 17세손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군수를 지냈다.

진시찬(陳時燦) : 수격의 아들. 정주목사를 지냈다.

진정후(陳廷后) : 1694~1744 시조의 19세손. 1740년 성균관 생원시에 입격했다.

진만재(陳晩宰) : 1650~1695 호 봉동(鳳洞). 시조의 19세손. 1681년 문과에 급제. 1684년 예조좌랑을 지냈으며 효성이 깊었다.

진익상(陳益祥) : 시찬의 아들. 성균관 생원을 지냈다.

진박하(陳博夏) : 1842~1921 호 묵재(默齋). 시조의 24세손. 인근에서 이름 높은 학자로 많은 후학을 길렀다.

진영희(陳永熙) : 나주·함평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진동범(陳東範) : 무안군청 등 과장 역임.

진용범(陳琿範) : 1927. 사법고시에 합격하였고 여수경찰서 등 서장을 지냈다.

진일범(陳日範) : 1937. 전남도교육위원회 장학관을 지냈다.

진용주(陳庸周) : 남원경찰서장을 지냈다.

진용옥(陳庸玉) : 영희의 아들. 박사.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진웅진(陳庸珍) : 1957. 육군 소령으로 예편했다.



56. 차 씨 (車氏)

차씨의 원조(遠祖)는 중국 사람으로 단군조(檀君朝)에 귀화한 왕조명(王朝明)이었다고 하나 뚜렷한 세계는 알 수 없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6개 본관 56,106가구 180,589명이 살고 있고 한국 성씨별 순위 39위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연안 50,168가구·경주 1,990가구의 2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연안 10가구·경주 3가구의 2개 본관이 가구를 이루며 거주하고 있고, 나주·남해·대전 3개 본관이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살고 있다. 따라서 5개 본관 13가구 4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연안차(延安車)씨

시조는 효전(孝全)이다.

문화유씨 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안차씨와 문화유씨는 이성동족(異姓同族)이다. 시조 효전은 유차달(柳車達)의 큰아들이고 유차달은 차승색(車承穡)의 6세손이다.

이는 효전의 세조인 차승색이 신라 애장왕(哀莊王) 때 좌상으로 있었는데 헌덕왕(憲德王)이 애장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자 아들 공숙(恭叔)과 함께 전왕의 원한을 풀기 위해 헌덕왕을 암살하려다가 발각되어 황해도 유주(儒州, 신천군 문화면)로 피신해 살면서 성은 할머니의 성 "양(楊)"을 모방하여 "유(柳)"로 자기 이름은 "환(桓)" 아들 이름은 "숙(叔)"으로 바꾸었다.

그의 6세손인 유차달이 고려 태조를 도와 개국공신이 되고 벼슬이 승상에 올랐으며, 아들 형제도 높은 벼슬을 했는데 이 때에 왕이 변성한 것을 알고 "본성인 차씨의 공도 크고, 변성한 유씨의 공도 크니 장자는 옛 성을 찾아 차씨로 하고, 차자는 변성인 유씨를 계승하라."고 분부했다.

이 때 효전에게 연안백(延安伯)이 봉작되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연안을 본관으로 썼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0가구 34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95위다.

연안차씨에는 상장군공(上將軍公), 문절공파(文節公派) 등 20여 파가 있는데 함평군에는 문절공파만 살고 있다.

입향조는 문절공 원부의 24세손인 계생(繼生)이다.

그는 전주에서 살다가 손불면 궁산리 신평으로 이거하여 살다가 아내와 자손만 신평에 두고 다시 전주로 가서 호군을 지냈으며 그의 후손이 지금 10세손에 이르고 있다.

5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곳은 나산면과 손불면이며 입향조 계생의 묘소는 손불면 궁산리 석령(石嶺)에 있다.

배출 인물

차계생(車繼生) : 호군을 지냈고 연안차씨 함평군 입향조다.

차영주(車榮柱) : 1996년부터 신한국당 함평·영광지구당 위원장으로 있었다.

57. 채 씨 (蔡氏)

채씨는 원래 중국 주(周)나라 문왕이 아들에게 채후(蔡侯)를 봉함으로서 창성(創姓)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다.

문헌에는 49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2개 본관 23,418가구 97,650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52위이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평강 31,373가구·인천 11,415가구의 2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평강 67가구 177명·전주 2가구 17명·경주 1가구 2명의 3개 본관,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이 인천·평양·해주의 각기 1명 3개 본관이다.

따라서 함평에 거주하는 본관은 모두 6개 본관에 70가구, 199명이 모여살고 있다.

1) 평강채 (平康蔡)씨

시조는 송년(松年)이다. 그의 선계는 증빙할 문헌이 없어 알기 어렵다.

그는 고려 고종 17년(高宗. 1230)에 최향(崔珦)의 난이 일어나자 병마사로 이를 평정해 대장군이 되고, 문하시랑평장사·상호군·태자태사(門下侍郎平章事上護軍太子太師)를 지냈으며, 평강군(平康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평강을 본관으로 정해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달한 사람은 고려조에서 시조의 맏아들 정(禎)이 문하시랑평장사, 5세손 하중(河中)이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司事) 평강부원군에 올랐다.

조선조에서는 세걸(世傑)이 대사헌, 세영(世英)이 공조·호조판서·좌참찬을 지냈다.

시조의 두 아들 중 정이 정선공파(靖宣公派), 화(華)가 평장공파(平章公派)로 갈렸고, 후대에 이르러 다시 고성군파(固城君派), 진천공파(鎭川公派) 등 10여 파로 분파되었다.

정선공파가 함평이란 지명과 연을 몇게 된 것은 시조의 13세손인 경(卿)때부터다.

경은 이조참의를 지냈는데 1520년경 경기도 양주에서 당시 함평현 땅이었던 현 무안군 해제면(海際面 1906년 무안군에 편입됨)에 이거 정착하여 장손 구령(九齡)이 비변사 선전, 차손 우령(禹齡)이 무안현감을 지냈고 선무원종공신에 오르는 등 가문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따라서 우령 등 많은 인물이 여러 문헌에 함평의 배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데 본 항에서는 현 함평군 입향조의 후손 인물만 가려 뽑았다.

함평군 입향은 고성군파가 빠르데 시조의 21세손인 덕린(德麟, 두명-斗明-의 다섯째 아들)이



1760년경 무안군 망운면에서 신광면 보여리로 이거 정착했고, 그의 묘소는 손불면 대전리 수문 마을 오른편 저수지 위쪽에 있다.

정선공파의 입향조는 시조의 15세손인 구령(九齡)의 후손들이다.

먼저 입향한 사람은 익천(翼天)의 아들인 영하(榮夏, 1754 ~?)와 영희(榮禧) 형제로 시조의 22세손이며 해제면에서 1780년경 학교면 월산리에 정착하였고, 그 후손이 군내 여러 곳으로 퍼져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영희의 묘소는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 안산에 있다.

이어 영관(榮觀)의 셋째 아들 이묵(以默, 시조의 23세손)이 무안군 삼향면에서 1810년경 함평읍에 이거하여 그 후손이 해보와 나산면으로 퍼졌으며, 넷째 아들 홍묵(洪默, 1786 ~?)이 1810년대에 학교면 월산리에 이거 정착했다.

진천공파는 근세에 입향하였는데 수명(洙明), 수옥(洙玉) 형제가 1894년 동학운동 때 무안군 삼향면에서 손불면 죽장리 담골로 피신하였다가 정착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67가구 177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45위며 군내에 10가구 이상이 사는 곳은 학교면 월산리, 신광면 보여리, 손불면 죽장리다.

배출 인물

채덕린(蔡德麟) : 1739~1805 시조의 21세손 효자로 1863년 정려가 내렸고 평강채씨 함평군 입향조이다.

채영희(蔡榮禧) : 1759~1802 시조의 22세손 효자로 도전을 받았다.

채이묵(蔡以默) : 1778~1815 시조의 23세손. 효자로 도전을 받았다.

채경식(蔡京植) : 1929. 12. 7 시조의 27세손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다

58. 천 씨 (千氏)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97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46개 본관 32,229가구 103,811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53위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영양 23,014가구·언양 1,611가구·예양 1,366가구의 3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영양 31가구 74명·강릉 2가구·언양 3가구와 경주·나주·인천의 각기 1가구 6개 본관이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이 강화·단양·예양·온양·충주·해남 등 6개 본관이다.

따라서 함평에는 12개 본관 38가구 99명이 2000년 현재 거주하고 있었다.

1) 영양천 (潁陽千)씨

시조는 암(巖)이다.

그는 중국 서측의 천고봉 만인암(千古峰萬仁巖)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지명을 따서 성을 "千" 이름을 "巖" 이라고 하였으며, 명나라 홍무 1년(洪武, 1368)에 도총장(都總將)을 지내며 공을 세워 판도승상(版圖丞相)에 이르렀고, 대대로 영양(潁陽)에 세거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영양을 본관으로 하였다.

중시조인 만리(萬里)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병의 영량사(領糧使) 겸 총독장(總督將)으로 아들 상(祥)과 희(禧)를 데리고 참전했다.

그는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운 후 귀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귀화했다. 나라에서 그의 공을 치하하여 화산군(花山君)에 봉했다.

송암공(松庵公), 처사공파(處士公派) 등 10여 파가 있는데 함평군에는 송암공파만 살고 있으며 1969년 조사에서는 67가구, 1985년 조사에서는 51가구 215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66위로 중위권에 속하며 주로 엄다면에 살고 있다.

함평군 입향조는 중시조 만리의 손자 태진(泰進)이며 1636년 병자호란 때 전북에서 엄다면 엄다리 불암으로 이거 정착했다.

입향조 태진의 묘소는 불암 후록에 있다.

배출인물

천태진(千泰進) : 1603~1672 호 둔암(遯庵). 통덕랑을 지냈으며 영양천씨 함평군 입향조다.

천석화(千錫華) : 1770~? 정조 때 오위장을 지냈다.

천보배(千寶培) : 1903~1984 사업가.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장. 동일실업고등학교 설립이사장·엄다중학교 설립.

천채욱(千採旭) : 월야북초등학교 등 교장 역임.

천갑록(千甲錄) ; 심계원 2과장을 역임.

천기길(千冀吉) : 축산협동조합 전라남도지부장을 지냈다.

천학실(千鶴實) : 1910~작고. 전라남도지정 인간문화재(남도노동요).

천병화(千炳華) : 1940. 5. 15 엄다중학교 이사장을 지냄.

59. 최 씨 (崔氏)

최씨들의 원조는 서라벌 6촌장의 한 사람인 돌산 고흥촌(突山高墟村)의 소별도리(蘇伐都利)다.

소별도리의 24세손인 최치원(崔致遠) 윗대에서 갈린 본관은 개성·삭녕(朔寧)·동주(東州, 철원)·전주(군옥계) 등이 있고 치원 이후에 갈린 본관은 수성 함양·청주·영흥(永興)·용강(龍岡)·부안 강릉·강화·동천(通川)·양천·화순 원주 등이 있고, 해주·진주·탐진·전주는 지손(支孫)에서 분관되었다.



문헌에 최씨는 326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159개 본관 676,773가구 2,169,704명으로 전국 성씨별 순위 4위다.

10,000가구가 넘는 본관은 경주 304,722가구·전주 122,147가구·해주 56,592가구·강릉 44,704가구·탐진 21,191가구·수성 15,964가구·삭녕 12,055가구의 7개 본관이다.

함평최씨도 조사되었는데 140가구 465명으로 최씨 159개 본관 중 83위다. 현재까지 발견된 문헌에 나오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함평최씨의 파악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할 것 같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모두 56개 본관 558가구 1,15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33개 본관,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은 23개 본관이 거주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하는 본관은 역시 경주로 150가구, 다음부터는 해주 117가구, 전주 112가구, 탐진 61가구, 수성 26가구, 수원 22가구, 낭주 10가구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50개 본관은 화순의 7가구를 비롯, 모두 7가구 미만의 소가구가 분포하고 있다.

1) 간성최(杆城崔)씨

강릉최씨에서 분적하였으며 시조를 무동(茂東)으로 하는 계열과 지순(之洵)으로 하는 두 계열이 있는데 무동계열이 주를 이룬다.

무동은 고려 태조의 부마로 대경(大卿)을 지내고 강릉군에 추봉된 혼봉(欣奉)의 20세손이며, 지순은 강릉최씨 필달(必達)의 후손으로 고려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조에서 첨의평리를 지내고 조선조에서 호조참판을 역임한 후 간성군에 봉해졌다.

지순계는 함북 은성군과 함남 단천군에 주로 살고 있으나 그 수효는 많지 않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2,096가구 6,363명이 살고 있어 최씨 159개 본관 중 19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4.6%인 91가구 293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1가구 1명으로 줄어들었다.

2) 경주최(慶州崔)씨

시조는 치원(致遠. 857~961)이다.

그는 득성조 소별도리의 24세손으로 전해오며 열 두 살 되던 해인 869년에 당나라에 건너갔고, 17세에 당에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선주 율수현위(宣州漂水縣謝)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승무랑 시어사내공봉(承務郎待御使內供奉)을 지냈다.

헌강왕 10년(憲康王. 884)에 귀국하여 한림학사가 되고 수병부 시랑(守兵部侍郎)을 거쳐 태산(泰山. 태인의 옛 이름), 부성(扶城. 부여의 옛 이름)의 대수를 지냈다.

후대인들이 그의 깊고 밝은 학문을 추앙하고 있으며, 1022년 문창후(文昌候)에 봉해졌고, 득성조로부터 대대로 경주에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본관을 경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달한 인물로는 승우(承祐)가 893년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여 문장으로 명성을 날렸고, 언위(彦僞)가 885년에 당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고려 개국 후 평장사를 지냈다. 승로(承老)가 988년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에 오르고 청하후(清河儀)에 봉해졌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경주최씨는 304,722가구 976,820명이 살고 있어 최씨 159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에는 경주최씨의 2.83%인 9,144가구 27,729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50가구 417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23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경주최씨는 판서공, 충렬공, 문숙공, 문밀공파(文密公派) 등 26개 파가 있는데 함평군에 살고 있는 파는 문밀공파며 시조의 25세손인 만희(萬熙)가 영광군 금정에서 1680년경 손불면 석창리 석계(石溪)로 이주했다.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석창리와 대동면 서호리며, 입향조 만희의 묘소는 석창리 가장동(可長洞)에 있다.

배출 인물

최만희(崔萬熙) : 시조의 25세손. 경주최씨 함평군 입향조다.

최팔균(崔八均) : 작고. 국민회의 함평·영광지구당 부위원장 역임.

최덕균(崔德均) : 작고. 자유총연맹 함평군지부장 역임.

최병보(崔炳輔) : 1945. 8. 4 남북대화 사무국 공보관, 통일연수원 교수부장(2급)을 지냈다.

최권진(崔權鎭) : 1961 아동문학가 시인.

3) 낭주최(浪州崔)씨

시조는 혼(昕)이며 기 1세조는 희소(希沼)다.

시조 혼은 낭주(전남 영암군의 옛 이름)에 토착한 사족(士族)의 후예로 신라말에 원보(元輔)를 지내고 낭주에 정착하여 후손이 번창함에 후손들이 낭주를 본관으로 하고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시조 혼의 아들 지몽(知夢. 907~987)은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사람으로 천문·경사(經史)·복서(卜筮)에 능통했으며, 18세 때 고려 태조가 그의 명성을 듣고 그를 불러 꿈을 점치게 했더니 "길조(吉兆)를 얻어 반드시 삼한을 통일하여 다스릴 것이요."라고 답함에 태조가 기뻐하며 "知夢"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고 공봉직(供奉職)에 등용했으며 경종(景宗) 때 주국(柱國)이 되고 성종(成宗) 때 상주국(上柱國)에 올라 홍문숭화치리공신(弘文崇化致理功臣)을 받았고 사후에 경종의 묘정에 배향되는 영광을 안았다.

고려 초기에 왕건을 도와 건국에 공을 세웠던 낭주최씨들은 왕실의 주도권을 신라계가 장악하자 정권의 정상에서 밀려 현달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세계가 실전되어 고려말기의 희소를 기 1세조로 계대(繼代)하고 있다.

그의 4세손이며 낭주최씨의 중조(中祖)인 안우(安雨. 1332 ~?)가 문과에 급제하여 재신(宰臣)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영평(永平. 현 나주군 봉황면) 도성산(道成山)에 은거



하며, 시냇가에 대를 심고 충절을 기리면서 호를 죽계(竹溪)라 칭하고 종신(終身)했다.

그의 아들 운(雲)이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두 명은 손이 끊기고, 네 명의 형제가 파조가 되어 오늘의 낭주최씨를 만들었다.

봉직공파(奉直公派) : 파조·양(養, 1395~?) → 운의 맏아들 봉직량을 지냈으며 이 가문이 가장 번성하여 1,800여 가구에 이르고 구림과 전북 고창군에 많이 살고 있다.

현령공파(縣令公派) : 파조·창(漲, 1400~?) → 운의 둘째 아들 창평현령을 지냈으며 후손이 나주에 주로 살고 300여 가구가 된다.

녹사공파(綠事公派) : 파조·상(湘, 1409~?) → 운의 셋째 아들. 계공랑 녹사를 지냈으며 주로 장흥군 부산면에 살며 1,000여 가구가 된다.

찰방공파(察訪公派) : 파조·영(溟, 1411~?) → 운의 넷째 아들. 찰방을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낭주최씨는 전국에 4,427가구 14,264명으로 최씨 159개 본관 중 15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낭주최씨의 18.87%인 1,002가구 2,693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10가구 18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 있는 관련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건 모 재 (建慕齋)	학교면 곡창리	

4) 수성최 (隋城崔)씨

시조는 영규(永奎)다.

그는 신라 경순왕의 13세손으로 김씨였다.

그는 고려 원종 2년(元宗, 1261)에 문과에 급제하여 보문각 대경(寶文閣大卿)을 지냈으며, 충렬왕 때 수주(水州, 수원의 옛 이름) 일대가 풍속이 극히 퇴폐하여 있던 중 자진하여 호장으로 취임했다. 효제(孝悌)로 백성을 다스리고 선도하여 취임 1년만에 효제의 고을로 바뀌니 그 공을 높이 사, 수성백(隋城伯, 수원의 옛 이름)에 봉하고 ‘崔’씨 성을 내리니 후손들이 본관을 수성으로 했다.

수성최씨는 영규계와 거경계가 있는데 함평군에 거주하는 수성최씨는 모두 거경계며, 시조의 후손 유춘(有椿)부터 거경(居經)까지 7세가 실보(失譜)되어 고증할 문헌이 없어 사실이 명확한 순(淳)을 기1세조로 하여 세계를 정리하고 있다.

순은 경기도 과천에서 나주시 다시면으로 이거하여 정착했고, 조선조 세종 때 중직대부경차관(中直大夫敬差官)을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수성최씨는 전국에 15,964가구 51,780명이 살고 있어 최씨 159개 본관 중 6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수성최씨의 4.40%에 해당하는 841가구

2,279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1969년 조사에서는 24가구, 1985 조사에서는 33가구 123명, 2000년에는 26가구 72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79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수성최씨는 삼주공(三洲公), 경재공, 청재공(淸齋公), 학곡공, 무숙공파(武肅公派)가 있는데 함평군에는 무숙공, 삼주공, 청재공파 순위로 입향했다.

무숙공파의 함평군 입향조는 순의 7세손 인장(仁峰)이다.

그는 두(料)의 셋째 아들로 1670년대에 나주시 다시면에서 나산면 덕림리로 이거 정착했으며, 묘소는 나산면 구산리 주동산(舟東山) 간좌에 있다.

족보에 그의 생몰년(生沒年)이 기록되지 않았다. 1670년대 입향으로 본 것은 그의 만형인 인강(仁崗)이 1642년생이고, 그의 아들인 일(溢)이 1684년생인 점으로 미루어 추정한 것이다.

삼주공파의 입향조는 순의 10세손인 대(待. 1708~1756)며 1730년경 나주시 다시면에서 대동면 연암리로 이거하였고, 후손이 신평면으로 퍼져 살게 되었다.

청재공파의 입향조는 순의 13세손 성한(成翰. 1795~?)이며 1820년경 전북 순창군에서 손불면 월천리로 옮겨 정착했다.

배출 인물

최인장(崔仁峰) : 기시조의 7세손. 수성최씨 함평군 입향조다.

최학한(崔鶴翰) : 1830~ 1877 호 성와(省窩). 효로 천장을 받았다.

최근휴(崔謹休) : 1956. 12. 25 무등일보 논설위원을 지냄

5) 수원최(水原崔)씨

수원최씨는 경주최씨와 한 뿌리며, 동성동본(同姓同本)이면서 시조를 달리하는 두 계통이 있다

(1) 시조를 정(靖)으로 하는 계통

정은 고려 때 산원동정(散員同正)을 역임하였으며 현달한 후손으로는, 원(原)이 고려 때 신호위 보승별장(保勝別將)을 역임 중 조선이 개국되고 금부도사에 임명되었으나 취임을 거부하다가 길주에 유배되었고, 정(澄)이 조선조 태종 때 원종공신에 올랐으며, 숙정(淑井)이 태종 때 호분위부장·세종 때 대호군을 지냈고, 계근(契根)이 경원부사, 유정(有井)이 중종 때 정국공신에 책록되고 길성군(吉城君) 군봉을 받았다.

(2) 시조를 상저(尙翥)로 하는 계통

상저는 고려 예종 때 수주(水州. 수원의 옛 이름) 호장을 지냈으며, 현달한 후손으로는 고려조에서 아들 누백(累伯)이 한림학사, 후손 사위(士威)가 목종 때 형부상서를 지내고 현종 1년(顯宗



1010) 통군사(統軍事)로 거란의 침입을 방어했다. 1021년에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에 오르고 청하현 개국백(淸河縣開國伯)에 봉해졌으며, 1023년에 태자태사가 되고 사후 현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자성(滋盛. 1065~1143)은 중서시랑평장사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우경(遇慶)이 첨정, 창국(昌國)이 중종 때 병조좌랑을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수원최씨는 전국에 3,976가구 13,156명이 살고 있어 최씨 159개 본관 중 12위를 차지한다. 전남에는 수원최씨의 7.22%인 310가구 951명이 사는데 장성군과 완도군에 주로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2가구 71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6) 전주최(全州崔)씨

전주최씨는 동본(同本)이면서 시조를 달리하는 4계통이 있다.

시조 : 순작(純爵) → 고려 정종(靖宗) 때 문과에 급제하고 문하시중에 올라 완주개국백(完州開國伯)에 봉해짐.

시조 : 군옥(君玉) → 고려 때 삼중대광 문하시랑평장사에 오르고 완산부원군에 봉해짐.

시조 : 균(均) → 고려 인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명종 4년(1474)에 동북로도지휘사(東北路都指揮使) 올라 조위총(趙位寵) 난에 순절하였고 완산군에 추봉됨.

시조 : 아(阿) → 충숙왕 때 문하시중에 올라 완산군에 봉해졌으며 순작의 7세손. 함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는 순작을 시조로 하는 계열이다.

현달한 인물은 시조의 아들 숭(崇)이 고려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인종 때 호부·예부상서를 지냈고, 그의 아들 남부(甫敷)가 고려 의종(毅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문종(文宗) 때 공부상서·대장군에 올라 전주백(全州伯)에 봉해졌고, 그의 아들 전(詮)이 고려 희종(熙宗) 때 비서소윤(秘書少尹)을 지내는 등 고려조에서 수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주최씨는 전국에 122,147가구 392,548명이 살고 있어 최씨 159개 본관 중 2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전주최씨의 10.27%인 7,151가구 21,862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12가구 336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35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순작계의 전주최씨는 판서공, 위정공, 군수공, 도사공파(都事公派) 등이 있는데 함평군에는 도사공파만 살고 있다.

함평군 입향조는 순작의 14세손 제남(悌男)으로 1580년대에 전북 금구에서 학교면 금송리에 이거 정착하였고, 그 후손들이 엄다면 송로리, 월야면 등으로 퍼져 살고 있다.

그의 묘소는 그가 정유재란 때 남원전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에 시신을 거두지 못해 엄다면 영흥리 담머리에 설단하여 배향하고 있다.

배출 인물

최제남(崔梯男) : 1556~1597 호 남일(南一) 임진란 때는 이순신 휘하에서 당포전 등에서 공을 세웠고, 1597년 8월 16일 이복남(李福男) 등과 함께 남원 전에서 순국했다.

최 필(崔 弼) : ?~1592 안골포 전투에서 손자 흘(屹)과 함께 순국했다.

최 흘(崔 屹) : ?~1592 안골포 전투에서 순국했고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7) 탐진최(耽津崔)씨

시조는 사전(思全)이다.

그는 해주최씨의 시조 온(溫)의 증손이라고 한적이 있으나 일제강점 초기에 발굴된 그의 묘지명에 할아버지는 상락국직장(尙樂局直長)을 지낸 철(哲)이고 아버지는 기술직인 장작감(將作監)을 지낸 정(靖)으로 되어 있어 해주최씨와는 무관함이 밝혀졌다.

사전은 이자점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병부상서에 오르고 이어 수태위(守太衛)문하시랑평장사에 올라 탐진백(耽津伯, 현 강진읍 남쪽 지역)에 봉해지고 사후 인종 묘정에 배향되는 영광을 입어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탐진으로 했다.

그러나 후손의 소목(昭穆)이 불분명하게 넘어와 조선시대에 20여 파로 나뉘었는데 각 계파간에 서로 계촌(計寸)이 불가능하여 같기 파조를 기1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 오고 있다.

이 20여 파는 크게 경기파·강진파·광주파(光州派)로 나눌 수 있으나 아직 대동보를 한 적이 없어 각 파간의 세대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기파(京畿派) : 파조·응규(應奎)→화성, 영평, 봉산 등지에 번져 살고 있다. '

강진파(康津城) : 파조·준량(凌良)→강진, 장성, 부여, 안의, 임피, 청양, 거창, 개성, 해주 등지에서 살고 있다. 강진파에는 준량 외 파조를 달리하는 파가 있다

석조파(碩祚派)→항동(巷洞), 봉시파(奉時派))성동(城洞)

윤덕파(潤德派)→회덕(懷德)

광주파→파조를 달리하는 다음의 파가 있다.

광주파→파조·윤덕(允德), 서외파(西外派) : 파조·구상(龜祥)

보촌파(液村派)→파조·홍건(弘建), 당부파(當夫派). 파조 한홍(漢洪)

나주파(羅州派)→파조·정원(井元. 부-傳-의 할아버지)

보성파(寶城派) : 파조·충(聰)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탐진최씨는 전국에 21,191가구 68,127명이 살고 있어 최씨 159개 본관 중 5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탐진최씨의 10.29%인 2,419가구 7,012명이 거주한다.

함평군에는 61가구 150명이 살고 있어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55위를 차지하고 있다.

8) 해주최(海州崔)씨

시조는 온(溫)이다.



그는 해동공자로 널리 알려진 충(沖)의 아버지다.

온은 해주 목민관으로 있을 때 어진 정사를 베풀어 이름을 떨쳤고, 문명(文名)도 높았으며, 뒤에 판리부사(判吏部事)를 지냈다.

이 모든 것이 해주에서 이루어졌고, 여러 대에 걸쳐 해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본관을 해주로 했다.

현달한 인물은 시조의 아들 충이 고려 목종 8년(穆宗, 1005)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1047년에 문하시중, 1053년에 문하시중 상주국치사(上柱國致仕)가 되고 유학자 양성에 힘을 기울이니 모두들 그를 해동공자라 추앙했으며,

그의 아들 유선(惟善)이 1030년(현종 21)에 문과에 급제하여 1061년 문하평장사가 되고 이어 문하시랑에 이르렀으며 그의 아들 사제(思齋)가 판리부사 상주국을 지냈다.

충의 둘째 아들 유길(惟吉)이 1077년(문종 31)에 수사공 첨상서령(守司空攝尙書令)에 올랐고, 그의 맏아들 사랑(思諒)이 참지정사(參知政事), 둘째 아들 사추(思誡)가 문하시중을 지내는 등 헤일 수 없는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해주최씨는 전국에 56,592가구 181,842명이 살고 있어 최씨 159본관 중 3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해주최씨의 2.16%에 해당하는 1,221가구 3,940명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17가구 277명이 살고 있어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27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함평군에는 어사공(御使公), 승지공파(承旨公派)가 살고 있으며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어사공파는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승지공파는 학교면 월산리, 나산면 수하리, 월야면 정산리 장동이다.

승지공파의 입향조는 천두(天斗, 1499~1545)이고 1520년대 화순읍 다리(茶里)에서 해보면 산내리 송산에 이거하여 잠시 살다가 해보면 금덕리 고두로 옮겨 정착했다.

그의 묘소는 해보면 금덕리 산 9-1 번지(고두 마을 옆)에 있다.

어사공파의 입향조는 시조의 16세손인 옥성(沃晟)이며 전북 무장에서 1592년 임진란때 함평읍 석성리 성재로 옮겨 잠시 살다가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에 정착했고, 아들 용수(龍壽)와 금수(錦壽)가 무과에 급제하고, 금수의 두 아들 이형(以亨)과 이급(以岾)이 역시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그들의 아들 경헌(景憲)과 유헌(裕憲)이 또 무과에 급제하는 등 3세에 걸쳐 내리 10여명의 무과 급제자를 내어 무과 집안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입향조 옥성의 묘소는 함평읍 대덕리 백곡 뒷산에 있다.

함평군에 있는 관련 유적

유 적 명	소 재 지	관 련 인 물
고양사 유허비 (高陽祠 遺墟碑)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창건 : 1737년 월철, 1868년 배향 : 최금수 최경헌

배출 인물

- 최옥성(崔沃晟) : 시조의 16세손. 해주최씨 어사공파 함평군 입향조다.
- 최금수(崔錦壽) : 호 만은(晩隱). 옥성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했다.
- 최용수(崔龍壽) : 옥성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다.
- 최이원(崔以元) : 1531~1605 금수의 맏아들 첨정을 지냈다.
- 최이형(崔以亨) : 1539~1581 금수의 둘째 아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부사과를 지냈다.
- 최이급(崔以岾) : 1542~? 금수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 최이정(崔以貞) : 1544~1605 금수의 넷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장사랑을 지냈다.
- 최이신(崔以信) : 1571 ~ 1604 용수의 아들. 돈녕부 도정(都正)을 지냈다.
- 최준남(崔竣南) : 1559~1599시조의 18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 최경헌(崔景憲) : 1556~1600 호 매헌(梅軒). 이원의 맏아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을 지냈다.
- 최유헌(崔裕憲) : 이형의 맏아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을 지냈다.
- 최준헌(崔竣憲) : 이형의 둘째 아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을 지냈다.
- 최길헌(崔吉憲) : 1585~1628 준남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 최복수(崔福壽) : 1588~? 준남의 둘째 아들. 전력부위(展力副尉)를 지냈다.
- 최석만(崔錫萬) : 1932 9, 1 손불·함평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최중호(崔琮昊) : 1939. 12. 29 조선대학교 교수 역임

9) 화순최(和順崔)씨

시조는 세기(世基)며 기1세조는 계(桂)이다.

시조 세기는 득성조 소벌도리의 후손으로 고려조에 평장사를 지냈고 오산군(烏山君, 화순의 옛 이름)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화순을 본관으로 하고 세계를 계승하고 있는데 시조의 후계가 실전되어 판관을 지낸 언(堰), 또는 평장사를 지낸 계신(繼臣)을 기1세조로 하였으나, 조선 개국 후 밀양 부사를 지낸 자해(自海, 1363~1421)의 묘갈명에 의하여 1984년에 간행한 「화순최씨대동보」 부터 고려 때 검교군기감을 거쳐 평장사를 지낸 계를 기1세조로 하고 있다

3세조 계신의 맏아들 영호(永浩)의 손은 인천과 강화에 많이 살고 있고, 둘째 아들 영유(永濡, ?~1361)는 해주목사 때 홍건적에게 쫓겨 순절했다.

그의 맏아들 원지(元之)가 경상안렴사를 지낸 후 고려가 망하자 경북 금릉군 구성(龜城)에 정착했고, 둘째 아들 준(潛)은 감찰어사를 지내고 고려가 망하자 남원에 은거하였으며 그의 손들이 남원과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다.

9세 운(漚)이 황윤현감을 지내다 을묘사화 때 조광조의 문인이란 이유로 유배되어 죽었다. 그의 맏아들 경행(慶行)이 선대의 고향을 찾아 내려와 나주시 봉황면 유곡(柳谷)에 정착했으며,



셋째 직린(直麟)은 황해도 재령에 뿌리를 내렸다

원지의 둘째 아들 자하(自河)의 집안이 가장 번성하여 2,000여 가구에 이르며, 경북 금릉, 충남 공주, 충북 보은에 많이 살고 있고, 셋째 아들 자강(自江)의 후손은 충남 대전, 경남 거창·영예에 많이 살고 있다.

9세손 한정(漢禎, 1427~1456)이 이조 및 예조 참의를 지냈고 6명의 아들이 있었다.

1589년 기축옥사 때 억울하게 죽은 "호남 5신(湖南五臣)" 중의 한 사람인 영경(永慶, 1529~1590)은 한정의 셋째 아들 중홍(重洪)의 증손이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화순최씨는 전국에 9,572가구 31,173명이 살고 있어 최씨 159개 본관 중 8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화순최씨의 2.0%에 해당하는 216가구 625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8가구 27명이 살고 있다.

60. 편 씨 (片氏)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편씨는 전국에 24개 본관 4,655가구 14,675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98위며, 100가구가 넘는 본관은 절강 3,436가구, 경주 483가구, 나주 238가구, 통진 103의 4개 본으로 절강이 주종을 이룬다.

함평군에는 절강 6가구, 경주 2가구의 2개 본관 8가구 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절강편(浙江片)씨

우리나라에 정착한 시조는 갈송(碣頌)이다.

그의 선계는 중국 절강 사람인데 고조(高祖)는 명조에서 태자태사를 지냈고, 증조는 절강백에 봉해졌다.

시조 갈송은 임진왜란 때 이여송(李如松)의 유격장(遊擊將)으로 우리나라에 왔으며, 평양에서 공을 세우고 귀국했다가 정유재란 때 마귀(麻貴)의 휘하 중군도독(中軍都督)으로 다시 입국하여 직산, 울산 등지에서 전공을 세운 후 경주의 금오산에 머물러 살았다.

그가 우리나라에 머물자 아들 풍세(豐世), 풍원(豐原), 산보(山甫) 삼형제가 뒤를 이어 왔고, 아버지가 타계하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한 후 산보는 만경(萬頃). 풍세와 풍원은 나주의 곡강(曲江, 현 나주시 동강면)으로 이거 정착했다.

함평군 입향조는 시조의 9세손 운태(雲泰)며 1800년경 나주의 곡강에서 나산면 구산리에 이거 정착했다.

함평군에는 1969년 이후 15가구가 살았으나 지금은 6가구 10명으로 줄었으며 나산면에 많이 살고 있다.

입향조 운태의 묘소는 1970년대 나주로 이장했다.

배출 인물

편운태(片雲泰) : 정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을 지냈으며, 절강편씨 함평군 입향조다.

편대순(片大順) : 운태의 아들. 생원시에 입격했다.

편무경(片茂景) : 호 덕포(德圃). 16세 때 전해산 의병부대의 전령으로 활약했고 1924~1925년에는 편덕렬(片德烈)과 함께 함평·나주에서 임시정부자금을 모집했다.

편호익(片鎬翊) : 1910년 한일합방의 비보를 듣고 울분하여 자결했다.

61. 한 씨 (韓氏)

문헌에 131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42개 본관 218,821가구 704,365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11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1,000가구가 넘는 본관은 청주 199,642가구·충주 3,608가구·강릉 2,937가구·곡산 1,562가구·경주 1,2632가구의 5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96가구 29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청주가 8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충주 5가구·나주 3가구·강릉 2가구를 이루고 있고, 강화·수원·정주는 1가구가 함평에 거주하고 있다.

본관을 이루지 않고 거주하는 본관은 남양 3명, 경주·한양 2명, 금괴 1명 등이다.

1) 청주한(淸州韓)씨

시조는 난(蘭)이다.

그는 고려 태조가 건원을 정벌할 때 용맹과 지혜로써 도와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에 서훈되었다.

한씨 세보에 따르면 난은 기자(箕子)의 원손이라고 한다.

한씨들은 연원을 기자의 41세손 애왕(哀王. 준-準)이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와 금마(金馬. 현 전북 익산시의 금마면)에 마한을 세우고 스스로 "한왕(韓王)"이라고 했다.

위만에게 억류된 준의 왕자 및 친척들이 성을 "韓"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준왕 이전에 '韓'으로 성을 쓴 것이 입증되었다.

마한 말기의 원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마한이 망하고 나서, 우평(友平)은 고구려에서 벼슬을 지냈고 북원선우(北原鮮于)씨가 되었다.

우성(友誠)은 백제에서 벼슬을 살며 행주기씨(幸州奇氏. 덕양기씨-德陽奇氏)가 되었고, 우량(友諒)은 한씨(상당-上堂. 청주)를 계승했다.

그의 31세손 지원(知原)의 셋째 아들 난을 시조로 하여 기세(起世)한 후 그가 살던 청주의 지명을 본관으로 한 것이다.



후손이 번성하면서 평산, 한양 등 여러 한씨로 분관하였으나 "청주한씨 무진삼교보(戊辰三校譜)"를 편찬할 때 거의 청주한씨로 합쳤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한씨는 전국에 199,642가구 642,992명이 살고 있어 한씨 42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청주한씨의 3.46%인 7,477가구 22,251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83가구 247명이 살고 있고 학교면에 많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양혜공(襄惠公), 문양공(文襄公), 찬성공(贊成公), 문정공파(文靖公派) 순으로 입향하여 살고 있다.

양해공파의 입향조는 철이(轍履)며 1790년경 나주에서 학교면 고막리에 이거 정착했고 손이 제일 많이 퍼졌다.

문양공파는 봉섭(鳳變)이 1890년대에 학교면 월산리 송정에 정착했고, 찬성공파는 대동면 강운리에, 문정공파는 해보면에 정착했다.

배출 인물

한철이(韓轍履) : 1843년 진사시에 입격했고, 청주한씨 함평군 입향조다.

한규흥(韓圭興) : 함평향교 직원(현 전교직)·학다리중고등학교 이사장을 지냈다.

한원섭(韓元燮) : 대한노인회 함평군지부장을 역임했다.

한기혁(韓基赫) : 1926. 10. 5 육군소령 예편.

한상준(韓相俊) : 1936. 무안읍에서 의원 개업.

한재관(韓在寬) : 1940. 11. 9 서울 삼양동에서 이비인후과 개업.

한승국(韓承局) : 1947. 4. 15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한상빈(韓相彬) : 1947. 8. 30 목포 동산외과의원장.

62. 함 씨 (咸氏)

모든 함씨는 원조를 혁(赫)으로 하고 있어 동원(同源)에서 분관됨이 확실하며, 조선씨족통보에 66개 본관을 기록하고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개 본관 23,588가구 75,955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59위를 차지한다. 1,000가구가 넘는 본관은 강릉 17,662가구·양근(양평) 3,312가구의 2개 본관인데 강릉과 양근이 같은 본관이므로 1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강릉 10가구 24명, 함평·강남·양근(양평) 1가구씩 3개 본관이며,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이 양주와 창원의 1명씩으로 모두 5개 본관 13가구 33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함평함씨가 328가구 1,153명이 전국에 거주하고 있고, 함평에 1가구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시대 증보문헌비고에 나타난 기록으로 시조나 연원 등을 찾을 수 없어 이 또한 추후의 연구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1) 강릉함(江陵咸. 양근함-楊根咸)씨

원조는 혁이며 시조는 규(規)다.

함씨의 원조 혁은 첫 삼한 초에 한강을 중심으로 부족 소국이 형성될 때 양근(楊根. 현 양평군 옥천면 상무)의 용문산 서쪽에 성을 쌓고 웅거한 소국왕으로 제칭 "함왕주악(咸王周鑄)"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양근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는데, 15세손 신(信)이 신라 원성왕 1년(元聖王. 785)에 강릉김씨의 시조인 김주원(金周元)을 따라 강릉에서 살게 되어 본관을 강릉으로 바꾸었다.

시조 규는 원조 혁의 21세손으로 고려개국에 공을 세워 익찬(翊贊)개국공신으로 광평시랑(廣評侍郎)을 지내고, 몽고군이 침입했을 때 대장군으로 출전하여 적병을 물리쳐 평란좌명공신이 되었다. 이 때문에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달한 인물로는 규의 5세손 덕후(德候)가 상의봉어동정(尙衣奉御同正), 그의 아들 유일(有一)이 인종 때 서경반란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으며, 유일의 맏아들 순(淳)이 고려 인종 때 문과에 급제했고 대문장가였다.

규의 14세손 부림(傅霖)이 조선개국 3등공신이 되었고, 태종 때인 1408년 형조판서에 올랐으며, 그의 맏아들 우치(禹治)가 성종 때 형조판서를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강릉함씨는 전국에 17,662가구 56,718명이 살고 있어 함씨 12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강릉함씨의 1.94%인 358가구 1,103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10가구 24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주로 대동면에서 살고 있다.

63. 허 씨 (許氏)

모든 허씨들은 가락국의 김수로왕과 허황후 손으로 근원을 같이 한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허씨는 32개 본관 93,490가구 300,448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29위며,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양천 40,260가구·김해 37,788가구·하양 5,081가구·경주 2,199가구·태인 2,170가구의 5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김해 7가구 18명·양천 13가구 41명·태인 2가구 8명·양주(양산) 1가구 5명·영천 1가구 2명·하양 1가구 1명으로 6개 본관이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본관은 경주·의성·진주·청주가 있다.



따라서 함평에 거주하는 허씨는 모두 10개 본관 25가구 81명이다.

1) 김해허(金海許)씨

시조는 염(琰)이다.

그는 가락국 수로왕비 허황후의 35세손이다.

조선씨족통보에 의하면 그는 고려 문종 때 출생하여 벼슬을 하면저 공을 세워 삼중대광으로 가락군(駕洛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시조의 세거지인 김해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김해허씨는 전국에 37,788가구 300,448명이 살고 있어 허씨 30개 본관 중 2위며 전남에는 김해허씨의 1.40%인 1,287가구 4,215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7가구 18명이 살고 있다.

김해허씨는 가락군 인전파(駕洛君仁全派), 호은공 기파(湖隱公麒派), 중승공 인파(中承公麟派), 전직공 인부파(典直公仁副派), 증성군 구년파(甌城君龜年派), 판서공 언룡파(判書公彦龍派), 상서공 상파(尙書公相派)의 7개파로 크게 나눈다.

현달한 인물은 유전(有全)이 고려 원종 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충렬왕 때 전라도안렴사를 지내고, 충숙왕 때 정승이 되고 가락군에 봉해졌으며, 웅(邕)이 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백기(伯琦)가 중종 14년(1519) 문과에 급제하여 동지중추부사에 올랐고 수겸(守謙)이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正字)로 왕을 의주까지 호종하고 후에 공주목사를 지냈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7가구 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양천허(陽川許)씨

시조는 선문(宣文)이다.

그는 가락국 김수로왕비 허황후의 30세손이다.

그는 공암촌(孔岩村, 김포군 양천)에 살았고, 농사에 힘써 많은 양곡을 비축했다. 왕건이 견훤군과 싸울 때 군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격자 군량을 보급해 견훤군을 항복하게 했다.

이에 태조 왕건이 그 공을 높이 사 공음을 식읍으로 하사했다. 그 후 후손들이 본관을 양천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달한 인물로는 고려조에서 시조의 손자인 원(元)이 목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태자사의(太子司議)를 지냈고, 증손 정(正)이 예부상서·태자태보(太子太保)를 역임했고, 그의 아들 재(載)가 문하평장사·호부상서를 지냈다.

공(功)이 고종 말기에 문과에 급제하여 충렬왕 때 첨의중찬(僉議中贊)을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종(琮)이 세조 3년(1457)에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판서에 올랐고, 그의 아우 침(琛)이 성종 6년(1475)에 문과에 급제하여 좌의정을 지내고 청백리에 뽑혔다.

엽(曄)이 명종 1년(1546)에 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대사헌에 올랐고, 그의 딸 난설현(蘭雪軒)은 조선조 삼대여류 문인으로 꼽힌다. 난설현의 아들 균(均)은 선조 27년(1594)에 문과에 급제하여 좌참찬에 올랐고, 개혁사회를 부르짖은 소설 "홍길동전(洪吉童傳)"을 지어 유명하다.

목(穆)은 학문·문장·그림 서예에 뛰어 났으며 특히 전서(篆書)는 동방의 제1인자로 일컬었으며 벼슬은 우의정에 이르렀다.

적(積)은 인조 15년(1637)에 문과에 급제하여 숙종 때 영의정을 지냈다.

준(浚)은 명의로 이름 높으며 불후의 의서(醫書)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저술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양천허씨는 전국에 40,260가구 114,863명이 살고 있어 허씨 32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한다.

전남에는 양천허씨의 5.05%에 해당하는 1,964가구 5,808명이 살며, 함평군에는 13가구 41명이 살고 있다.

64. 홍 씨 (洪氏)

문헌에는 59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41개 본관 161,403가구 518,635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20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은 남양(당홍계) 117,638가구·풍산 11,222가구·남양(토홍계) 9,250가구·남영 7,081가구·부림 3,701가구·강릉 2,741가구·남해 1,174가구·남원 1,000가구의 8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풍산 46가구·남양(토홍) 42가구·남영 7가구와 나주·강릉·담양·남양(토홍계)의 2가구, 밀양·풍천의 1가구가 가구를 이루며 살고 있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본관은 남해 5명, 경주·남원·부림이 각 2명, 곡부·남평·대전·제주·창원이 각 1명씩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함평에 거주하는 홍씨는 18개 본관 105가구 293명이 거주하고 있다.

1) 남양홍(南陽洪)씨

남양홍씨에는 시조를 달리하는 두 계열이 있다.

당홍계(唐洪系) : 시조·홍천하(洪天河) → 고구려 영유왕(榮留王) 때 8학사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건너옴

토홍계(土洪系) : 시조·홍선행(洪先幸) 당홍 측에서는 "당홍(唐洪)"이라고 하는 것은 "당성(唐城). 남양의 옛 이름)홍씨"를 줄여 부른 이름이며 남양홍씨(당홍과 토홍)를 구분하기 위해 "토홍지"라는 이름이 생겼고, 토홍 보다 10대나 앞서며 홍학사가 우리 나라에 오기 전에는 우리 나라에 홍씨라는 성씨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토홍도 홍학사의 후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토홍측에서는 전혀 혈통을 달리하는 씨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함평군에 살고 있는 남양홍씨는 선행을 시조로 하는 토홍계다.

그의 선계는 전하는 문헌이 없어 알 수 없으며 그는 남양(옛 당성)에 대대로 살아온 호족의 후예며, 고려 고종(高宗. 재위 1214~1259) 때 금오위별장동정(金吾衛別將同正. 7품)을 지냈고, 가세가 크게 번창했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삼고 본관을 남양이라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달한 인물은 고려조에서 숙(叔)이 검교장군(檢校將軍), 순(淳)이 상의직장(尙衣直長), 덕의(德義)가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시조의 8세손 자경(子敬)이 고려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조선조 초에 호조참관을 지냈고, 그의 아들 익생(益生)이 문과에 급제하여 목사를 거쳐 좌익원종공신(左翼原從功臣)을 역임했다. 익생의 맏아들 귀해(貴海)가 무과에 급제하여 충좌위 대호군, 셋째 아들 귀연(貴演)이 역시 대호군에 올랐다.

언필(彦弼)이 1507년 문과에 급제하여 영의정을 지냈고, 숙(櫨)이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참관을 지내고 남계군(南溪君)에 봉작되었으며, 그의 맏아들 봉조(鳳祚)가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지증추부사를 역임했고, 둘째 아들 용조(龍祚)가 충주목사·삼화부사(三和府使)를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남양홍씨(토홍계)는 전국에 9,250가구 30,662명이 살고 있어 홍씨 40개 본관 중 3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남양홍씨(토홍계)의 1.83%인 177가구 563명이 살고 있다.

남양홍씨 토홍계는 문희공(文僖公), 정효공(貞孝公), 참의공(參議公) 주부공(主簿公), 대호군공파(大護軍公派)로 대별하는데 함평군에는 파조를 귀연(貴演)으로 하는 대호군공파가 살고 있다. 2000년 조사에서 42가구 117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57위다.

함평군 입향조는 파조의 17세손인 여준(汝俊)이며 1700년경 경기도 양주에서 대동면 금산리 감산으로 이거하여 정착했으며, 집성촌을 이룬 곳은 손불면 산남리이고, 입향조의 묘소는 함평읍 장년리에 있다.

배출 인물

홍여준(洪汝俊) : 1640~1721. 파조 귀연의 17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안의현감을 지냈고, 보사공신(保社功臣)에 책록 되었다. 남양홍씨 함평군 입향조다.

홍치기(洪致基) : 1692~1754 여준의 아들. 감찰을 지냈다.

홍만중(洪萬鍾) : 1722~1810치기의 아들 동추(同樞)를 지냈다.

홍종후(洪淙厚) : 1940. 5. 5 하와이 총영사·파키스탄 3급공사(부이사관)를 역임했다.

2) 풍산홍(豊山洪)씨

시조는 지경(之慶)이다.

그의 선계는 문헌이 실전되어 상고할 수 없다.

그는 고려 고종 29년(1242)에 문과에 장원하여 국학직학(國學直學)을 역임했으며, 풍산(豊山).

안동의 속현)에 정착 세거하였기에 후손들이 본관을 풍산으로 했다.

가문에서 현달한 사람은 이상(履詳)이 조선조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개성유수를 지냈고, 그의 넷째 아들 영(羹)이 광해군 때 공조참판·지중추부사를 지냈다.

만선(萬選)은 현종 때 진사시에 입격하여 장악원정(掌樂院正)을 지냈으며 주자학에 반기를 들고 실용후생(實用厚生)의 학문을 일으켰고, 농업·의약·구황의 저서 「산림경제(山林經濟)」를 남겼다.

만조(萬朝)는 현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숙종 때 형조판서를 지냈고, 만용(萬容)은 현종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1666년 문과중시에 역시 장원급제하여 이조판서·우참찬(右參贊)을 지냈다.

현보(鉉輔)가 예조판서를 지냈고, 그의 아들 봉한(鳳漢)이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영의정을 지냈고 그의 딸이 사도세자의 세자빈이 되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풍산홍씨는 전국에 11,222가구 36,420명이 살고 있어 홍씨 40개 본관 중 2위를 차지한다. 전남에는 풍산홍씨의 7.15%인 903가구 2,605명이 살고 있고, 함평군에는 42가구 117명이 살고 있다

풍산홍씨는 남평공(南平公), 생원공(生員公), 사정공(司正公), 만은공파(晚隱公派)로 대별하며 지파는 모두 34개 파가 있다

함평군 입향조는 시조의 8세손인 한신(漢信)이며 입향지는 신광면 유천리다. 군내 에서 10가구 이상이 사는 곳은 유천리, 대동면 금산리, 엄다면 신계리다.

배출 인물

홍한신(洪漢信) : 풍산홍씨 함평군 입향조다.

홍희준(洪希俊) :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란 때 권을 휘하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홍덕희(洪德喜) : 전라남도 운수과장 역임.

홍남희(洪南喜) : 1928. 9. 13 법원 서기관을 역임.

홍양희(洪陽喜) : 사업가. 재경 함평군향우회장을 역임.

홍상희(洪相熹) : 1945. 11. 27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홍기우(洪起禹) : 1946. 10. 21 의학박사. 한림의과대학 교수.

홍규태(洪圭泰) : 1948. 9. 22 육군소령 예편.

65. 황 씨 (黃氏)

황씨의 원조(遠祖)는 중국 후한(後漢) 사람인 낙(洛)으로 전해오고 있다.

그는 유리왕 때 사신으로 교지국(交趾國)에 가다가 동북해에서 풍랑을 만나 평해(平海, 현 경북 울진군 월송)에 표착하여 그곳에 자리잡고 살았으며 그의 맏아들 갑고(甲古)의 후손 온인(溫仁)



은 평해황씨, 둘째 을고(乙古)의 후손 경(瓊)은 장수(長水)황씨, 셋째 아들 병고(丙古)의 후손 충준(忠俊)은 창원(昌原)황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지만 문헌이 실전되어 상고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문헌에 163개 본관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78개 본관 201,121가구 644,294명이 살고 있어 한국 성씨별 순위 16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1,000가구 이상인 본관이 창원 78,894가구·장수 45,567가구·평해 43,207가구·우주 6,199가구·강릉 3,576·경주 2,643가구·회덕 2,264가구·상주 2,173가구·평양 1,717가구·덕산 1,097가구·황해 1,028가구의 11개 본관이다.

함평군에는 2000년 조사에서 가구를 이루고 사는 본관이 장수 37가구 104명, 창원 35가구 103명, 강릉 3가구 8명, 경주·나주 각 2가구 3명, 광주·상주·우주·청해 각 1가구 2명, 밀양·전주 각 1가구 1명이다.

가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본관은 해주 2명, 동래·순흥·의주·장흥·창녕·청주·평해·풍산·항주의 각 1명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함평군에 거주하는 황씨는 21개 본관 85가구 246명이다.

1) 상주황(尙州黃)씨

원조는 중국 후한 사람 낙(洛)이며 기1세조는 석주(石柱)로 고려조에서 상주국(上柱國)을 지냈다.

상주황씨 족보에 의하면 석주의 4세손 을구(乙耆)가 상주에 정착하여 후손이 세거했으므로 후손들이 석주를 1세조로 하고 본관을 상주로 했다고 한다.

현달한 사람은 석주의 7세손 효원(孝源)이 조선조 세종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찰사·우참찬을 지냈고, 우한(佑漢)이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에 올랐으며, 징(徵)이 현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좌도 수군절제사를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주황씨는 전국에 2,173가구 7,031명이 살고 있어 황씨 78개 본관 중 8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상주황씨의 12가구 43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1가구 2명이 살고 있어 심각한 이농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2) 장수황(長水黃)씨

시조는 경(瓊)이다.

그는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부마로 시중을 지냈다.

그런데 그의 18세손 석부(石富)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또 실전되어 알지 못하여 석부를 기1세조로 하고 있으며, 다만 경의 10세손에 해당하는 공유(公有)가 고려 명종(明宗) 때 전중감(殿重監)으로 있다가 이의방(李義方)의 난 때 장수에 낙향했음이 밝혀졌다.

기1세조 석부는 시조의 18세손이고 참의를 지냈다.

현달한 사람은 고려조에서 기1세조 석부의 손자 군서(君瑞)가 판강릉부사(判江陵府使), 그의 맏아들 중수(中粹)가 판중추부사를 지냈다.

조선조에서는 군서의 둘째 아들 희(喜)가 우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관으로 있다가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들어가 은거했으나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조선조에 출사하여 세종 때 영의정을 지냈으며 청백리로 유명하다.

그의 맏아들 치신(致身)이 호조판서·판중추부사, 둘째 아들 보신(保身)이 소윤, 셋째 아들 수신(守身)이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정옥(廷彥)이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1등이 되어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에 봉해지고, 예조·병조판서를 지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수황씨는 전국에 45,567가구 146,575명이 살고 있어 황씨 78개 본관 중 2위며 전남에는 장수황씨의 7.43%에 해당하는 3,666가구 10,773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37가구 104명이 살고 있다.

장수황씨의 함평군 입향은 다른 성씨에 비해 아주 늦다.

입향조는 상묵(尙默)이며 1850년경 나주에서 대동면 백호리에 터를 잡아 현재 4대에 이르고 있고, 10가구 이상이 사는 곳은 백호리 뿐이다.

입향조 상묵의 묘소는 나주시 문평면 청정리 본촌에 있다.

배출인물

황상묵(黃尙默) : 1825~? 장수황씨 함평군 입향조다

황성주(黃聖周) : 제 1대 대통령선거인단 당선.

3) 창원황(昌原黃)씨

창원황씨는 원조 낙(洛)의 후손으로 창원백에 봉해진 병고(丙古)의 후손이면서 계대를 달리하는 3파가 있다.

회산군파(檜山君派) : 파조·석기(石奇) → 고려 충정왕 때 문하평장사에 오르고 회산군군봉을 받음.

시중공파(侍中公派) : 파조·충준(忠俊) → 시중을 지냄. 토황(土黃)으로 부르며, 1세조를 관윤을 지낸 신(信)으로 하는 계통과 대(吳)로 하는 두 계통이 있다.

호장공파(戶長公派) : 파조·양충(亮沖) → 호장을 지냄.

현달한 인물로는 회산군파에서 파조 석기의 맏아들 상(裳)이 고려 충혜왕 때 문하찬성사 서강도원수(西江都元帥)를 지냈고, 회산부원군(檜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석기의 5세손 형(衡)이 조선조 성종 때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공조판서를 지냈고, 그의 아들 기(琦)가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경기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신(愼)은 선조 때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광해군 때 호조 공조판서를 지냈고 회원부원군에 봉



해졌으며, 일호(一皓)는 인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진주목사를 지냈고 병자호란 때 청 태종을 암살하려다가 발각되어 살해되었다.

시중공파에서는 채(梓)가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부제학·호조참판을 지냈고, 그의 맏아들 인검(仁儉)이 형조판서를 지냈다.

호장공파에서는 사우(士祐)가 중종 때 문과에 급제 예조·이조판서, 우찬성을 역임했다.

2000. 11. 1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창원황씨는 전국에 78,894가구 252,814명이 살고 있어 황씨 78개 본관 중 1위를 차지하며, 전남에는 창원황씨의 4.26%인 3,521가구 10,770명이 살고 있다.

함평군에는 35가구 103 명이 살고 있어 함평군 본관별 거주 씨족 순위 56위를 차지하고 있고, 함평읍과 엄다면에 많이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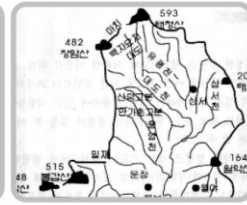


제1장	고대인물(古代人物)	336
	집필 / 최권진	
제2장	현대인물(現代人物)	487
	집필 / 최권진	
제3장	효 · 열(孝 烈)	702
	집필 / 최권진	



제13편 인 물 (人 物)

제1장 고대인물(古代人物)



◆ 강귀지(姜貴知)

본관 진주. 선무원종 2등 공신에 책록되었다고 옛 함평현 읍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자세한 행장은 전하지 않는다.

◆ 강양수(姜亮秀)

본관 진주. 자 여서(汝瑞). 다경진(多慶鎭.현 무안군 운남면에 있던 수군진지) 수군 만호를 지냈다.

◆ 강 정(姜 鼎)

본관 진주. 자 형천(亨天). 기시조의 12세손. 혼수(欣壽)의 셋째 아들로 진사를 지냈다. 아내는 안동김씨다.

◆ 강화수(姜華秀)

본관 진주. 자 봉서(鳳瑞). 목포 수군만호를 지냈다.

◆ 강흔수(姜欣壽)

1491~1553. 본관 진주. 자 열(悅). 호 구봉(九峰). 사평(司評) 벼슬에 있다가 연산조 때 영광군 불갑면에 유배되어 사망한 학손(鶴孫)의 일곱째 아들로 선공감역(繕工監役)을 지냈다. 유배된 아버지를 따라 당시 영광군이었던 구봉(九峰)에 이거 정착하였고 호를 구봉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봉이 영광군 불갑면에서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에 속하니 사평공파의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이랑(吏郎)을지낸 안동 권경유(權景裕)의 딸이다.

◆ 고시원(高時元)

본관 장흥. 1759~? 자 원보(元甫). 호 석촌(石村). 시조의 27세손. 언(愼)의 셋째 아들. 효성이 지극하여 향리에서 칭송을 받았으며 1780년경 무안읍 약곡에서 엮다면 송로리로 이거 정착하여 장흥 고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이천서씨 종욱(宗旭)의 딸이다.

◆ 국문권(鞠文權)

1839~1909 본관 담양. 자 원흥(元興). 호 화곡(華谷). 신광면 송사리 출신. 1876년에 흥년과 겹쳐 전염병이 극성이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전염병에 걸렸다.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병석에 있던 그가 기를 쓰고 일어나 손가락을 으깨어 주혈하여 어머니가 회생했다. 하늘이 효심에 감동하였던지 사경에 있던 그도 병을 이겨냈다. 향·도에서 이 사실을 감영에 알렸고 감영에서 예조에 천거하여 정려의 은전이내렸다. 아내는 죽산 안만식(安萬植)의 딸, 밀양 박재근(朴在根)의 딸이다.

◆ 권양삼(權良三)

1854~? 1880년경 나주에서 대동면 향교리로 이거하여 안동권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 김경구(金景九)

본관 김해. 속의 일곱째 아들. 숙종조 무과에 급제, 아내는 남평문씨 적순위 광필(匡弼)의 딸이다.

◆ 김경록(金景祿)

1559~1630 본관 광산. 자 달경(達卿). 시조의 25세손. 참봉 수해(遂海)의 아들로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며 주부(主簿)를 지냈다.

◆ 김경온(金景溫)

본관 광산. 시조의 20세손. 대사성 성옥(大司成成玉)의 둘째 아들. 태종조에 이조좌랑을 지냈고 1450년경 경남 창령에서 학교면 월산리로 이거 정착하여 광산김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전 주희씨 승철(承哲)의 딸이다.

◆ 김계선(金啓先)

본관 선산. 호 노석(老石) 나산면 용두리 선박에서 출생. 김태원 의병부대에서 활동하였다.

◆ 김관흠(金觀欽)

본관 상산. 호 이소재(履素齋). 영조 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지내며 각종 서적을 집대성하는데 공헌하였다.

◆ 김광립(金光立)

본관 김해. 자 현재(顯哉). 증 참의 사눌(思訥)의 아들. 원래 힘이 세었고 1618년(광해 10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1624년 안주(安州)의 도원수 장만(張晩) 막하에서 참적(斬賊)한 공이 많아 진무원 중공신(振武原從功臣)에 책록되었고 1636년 일본사신으로 갔다가 1637년 2월 돌아와 병자호란 때 동래수사(東萊水使)로 관군 수천을 이끌고 북상하던 중 청주에 이르러 강화조약 소식을 듣고 귀대하였다.

◆ 김광하(金光夏)

본관 광산. 몽성의 손자. 시조의 28세손. 1636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부호군을 지냈다

◆ 김광혁(金光赫)

1764~1833 본관 광산. 자 사빈(士彬). 시조의 31세손. 도온(道溫)의 둘째 아들로 효우가 돈독하였고 박학하였으며 과거를 폐하고 오직 후학을 기르는데 힘써 사림의 모범이 되었다. 아내는 풍산홍씨 연호(連浩)의 딸이다.

◆ 김 괴(金 瑰)

본관 선산. 자 옥여(玉汝). 시조의 20세손. 부사과 준(俊)의 아들. 전략장군(宣略將軍)을 지냈다. 아내는 고령신씨(高靈申氏) 부원군 암헌(府院君 岩軒)의 딸이다.

◆ 김구정(金九鼎)

본관 상산. 시조의 14세손. 함평입향조 중명(仲明)의 맏아들. 사옹원 참봉(司饔院參奉)으로 출사한 후 마도 만호(馬島 萬戶)를 역임하였다.

◆ 김규룡(金奎龍)

본관 김해. 고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 김기봉(金箕鳳)

본관 광산. 철종조(哲宗朝). 자 성규(聖奎). 호 덕헌(德軒). 생원 신형의 후예. 천성이 온공하여 능히 경장과 애친의 도리를 알았고 근검 치산하여 유후(裕後)의 계책을 강구하였다.

◆ 김기서(金奇瑞)

1455~1487 본관 광산. 자 권경(權卿). 시조의 23세손. 진사 영진의 아들로 진사를 지냈다. 아내는 남평문씨 현감 구수(龜壽)의 딸이다.

◆ 김기서(金麒瑞)

본관 낙안. 자는 경여(慶汝)요 호는 농은(壘隱)이니 양해공 빈길의 후예다. 현종조(顯宗朝)에 학문이 순수하고 의지와 행실이



단아하고 맑아 세상에서 중하게 대접받았으며 문집이 있다.

◆ 김기인(金琪仁)

1680~? 본관 김녕. 처음 이름 기린(麒麟). 자 세서(世瑞). 시조의 17세손. 선전관 서현(序賢)의 아들. 1710년경 경남고령군에서 합평읍 장년리 백연동에 이거 정착하여 대사성공과 합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이천서씨 상택(相澤)의 딸이다.

◆ 김기하(金器夏)

본관 광산. 몽성의 손자. 시조의 28세손. 1649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교위, 안주부사를 역임했다.

◆ 김남구(金南九)

본관 김해. 속의 여섯째아들. 숙종조 무과에 급제

◆ 김남식(金南式)

본관 고성. 본관 고성. 자는 내직(乃直)이요 호는 숭정처사(崇禎處士)이니 문재 명(明)의 후예요 신독재 문인이다. 인조조(仁祖朝)에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춘추로 강론하면서 천상(天象)과 인사(人事)에 대한 법도와 사물의 법칙에 대한 저서를 남겼다.

◆ 김대성(金大聲)

1733~? 본관 광산. 자 서명(瑞明). 시조의 30세손. 첨추 명옥(命沃)의 둘째 아들. 감찰을 지냈으며 아내는 달성배씨 진사 문익(文益)의 딸이다.

◆ 김대연(金大衍)

1714~1783 본관 광산. 자 범숙(範叔) 호 회춘당(回春堂). 시조의 29세손. 하상(夏相)의 넷째 아들. 평소 효성이 지극함은 물론 문장이 숙성(夙成)하였고 어버이상에 시묘를 살았으며, 1740년경 무안읍 고절리에서 학교면 학교리 회춘동으로 이거하여

양간공과 합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이천서씨 유경(有景)의 딸이다.

◆ 김덕관(金德觀)

1611~1650 자 군현(君玄). 호 색은(穢隱). 홍문관 교리 수(遂)의 둘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해주 최관(崔寬)의 딸이다.

◆ 김덕문(金德聞)

1622~1657 본관 김해. 자 군승(君昇). 호 가은(稼隱). 시조의 64세손. 홍문관 교리 수(遂)의 넷째 아들. 신독재(愼獨齋)의 문하생이며 당대의 명현이었던 청음 김상헌(淸陰金尙憲)과 교유가 깊어 춘추로 창수(唱酬: 시를 서로 주고 받음)하였으며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 김이화(金履華)의 딸이다.

◆ 김덕생(金德生)

1560~1592 본관 김해. 자 성문(成文). 호 약재(藥齋) 또는 모재(慕齋). 장성 남문창의(南門倡義)를 주도한 익웅(翼熊)의 아들로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으며 아버지를 따라 장성 남문창의에 참여하였고 아버지가 왜적에게 화를 당하자 원수를 갚기 위해 출전하여 평양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장성 오산사(鰲山祠)에서 배향한다.

◆ 김덕수(金德秀)

본관 선산. 자 탁윤(卓允). 호 영암(穎庵). 시조의 22세손. 정국(定國)의 셋째 아들. 군기사 주부(軍器寺主簿) 겸 부호군(副護軍)을 지냈으며 임진란을 당하여 팔도가 적에게 유린되자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의병을 모아 여러 전투에서 용전을 하였고 끝내 강릉 전투에서 순국하니 초혼하여 선영의 묘소에 장례하였다. 아내는 남평서씨 참봉 관(灌)의 딸이다.

◆ 김덕희(金德希)

본관 김해. 명종조에 순천부사를 지냄

◆ 김도련(金道鍊)

1805~1849 본관 선산. 자 양여(良汝). 호 성재(省齋). 시조의 30세손. 치방(致邦)의 맏아들. 부모를 섬기되 뜻으로 섬겼으며 아버지 상에 6년 동안 죽을 먹으며 예를 다하였고 행의로 천거되어 경릉(敬陵)참봉이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 사실이 읍지와 도지에 실려 있다. 아내는 남평문씨 재도(在道)의 딸이다.

◆ 김두규(金斗奎)

1827~1891 본관 광산. 호 화암(華庵). 문숙공 19세손. 시조의 32세손. 익수의 양아들. 생부 진수. 신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여러 달 100리 밖에서 약수를 길러다 복용케 하여 병을 낫게 하였고 그 샘을 “효천(孝泉)”이라 불렀다.

신병이 재발하자 10개월동안 약탕을 끓이지 않았으며 상을 당하자 3년간 조식으로 성묘하였다. 손불면 동암리 삼귀동에 효자비를 세웠다. 아내는 영성정씨 재준(丁載俊)의 딸과 청주한씨 형이(韓滢履)의 딸이다.

◆ 김두식(金斗植)

김태원 의병부대에서 활동하였다.

◆ 김두흥(金頭興)

?~1598 본관 김해. 자 언백(彦伯). 참봉 경유(景維)의 아들. 천성이 강개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임진란때 백의로 이순신(李舜臣)을 도와 예교(曳橋) 전투. 돌산(突山) 전투에서 수많은 적을 참살하였다. 1598년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였으며 아들 팔옥(八鉦)은 병자호란 때 백의로 의병을 이르켰다.

◆ 김득남(金得男)

본관 광산. 호 매죽헌(梅竹軒). 인조조인 1621년 무과에 급제하여 1623년에 선전에

제수되었으며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에 책록되었다. 1624년 이괄의 난으로 왕이 공주에 파천을 할 때 호종하였고 병자호란 때는 동궁과 함께 전주로 내려와 있다가 타계하였다. 1828년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 김 류(金 流)

1530~? 본관 도강. 자 환겸(環兼). 파조 일(鎰)의 9세손. 성균관진사 원형(元亨)의 아들. 1549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절제사를 지냈다. 아내는 경주정씨(慶州鄭氏) 방준(邦俊)의 딸이다.

◆ 김맹리(金孟理)

본관 김해. 1450년경 나산면 구산리에 이거 정착

◆ 김 명(金 明)

1478~? 본관 고성. 처음 이름 질통(質通). 시조의 37세손. 생원 자경(自卿)의 양아들. 생부 익경(益卿), 학행이 사림의 사표가 되었으며 1523(중종 18)년에 문천훈도(文川訓導)로 제수되어 4년간 진력을 다했으며 1527년 임실(任實)현감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향리에서 유유자적하였다. 1552년에 이조 정랑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함평노씨(魯氏) 경장(敬長)의 딸이다.

◆ 김몽득(金夢得)

1564~1654 본관 천산. 자 천빈(天賓). 호 남은(南隱). 시조의 23세손. 주부 덕수(德秀)의 셋째아들. 효우로 당세에 이름이 높았고 음사로 통정에 올랐으며 정유재란에 몽복, 몽성, 두 형이 노량해전에서 순국하니 초혼하여 장례를 치루었고 부모와 친척을 배로 피신시켜 무사하게 하였으며 91세에 타계하였다. 1730년 선화사에 배향되고 1816년에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함평이씨 직장 세현(直長世賢)의 딸이다.



◆ 김몽령(金夢齡)

1563~1597 광산. 대사성 성옥(成玉)의 7세손. 집의 수연(壽淵)의 넷째 아들. 정유재란 때 남원성 싸움에서 아버지를 따라 형 몽룡, 몽필, 아우 몽업과 함께 전라병사 이복남(李福男)의 막하에서 성을 지키다 모두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고 1693년 금우사(錦宇祠, 학교면 금송리 금산소재)를 창건하여 배향하였으며 마을 앞에 “양세충절비(兩世忠節碑)”가 세워졌다.

◆ 김몽룡(金夢龍)

1558~1597 본관 광산. 자 용화(龍和). 시조의 25세손. 대사성 성옥(成玉)의 7세손. 집의 수연(壽淵)의 맏아들로 1583년(선조 16)에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도 지휘사(指揮使)를 지냈다. 정유재란 때 아버지와 함께 5형제가 의병을 일으켜 남원성을 사수한 전라 병사 이복남(李福男)의 막하로 들어가 형제가 용감히 싸우다가 모두 순절하였다. 아내 정씨(鄭氏)도 “내 어찌 충신의 아내가 되지 않으랴”며 목매어 자결했다.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고 1693년 금우사(錦宇祠, 학교면 금송리 금산소재)를 창건 배향했다.

◆ 김몽룡(金夢龍)

1563~1651 본관 선산. 자 인숙(仁淑). 호 춘담(春潭). 시조의 23세손. 현릉참봉 형길(亨吉)의 아들. 1591년(선조 24) 무과에 급제 하여 전주판관(全州判官)을 지냈으며 임진왜란을 당하자 가족을 나산면 원선리 논골(沓洞)로 피난 시키고 삼종형 몽성(夢成)과 함께 창의하여 군무(軍務)를 도왔다. 노량해전에서 삼종형 몽성과 몽복이 순국함에 그는 힘을 다해 싸워 수차에 걸쳐 승리를 거두어 형들의 원혼에 보답하였다. 난이 평정되자 귀향한 후 은둔하며 천수를 다했다. 1730년 선호사(船湖祠, 나산면 용두리 소재)에 배향되고 1816년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광산김씨 상호(相鎬)의 딸이다.

◆ 김몽린(金夢麟)

1559~1597 본관 광산. 대사성 성옥(成玉)의 7세손. 집의 수연(壽淵)의 둘째 아들. 정유재란 때 형 몽룡과 몽필 등 세 아우와 함께 창의하여 이복남의 막하로 들어가 남원성을 지키다가 아버지와 4형제가 함께 같은 날 전사하자 시신을 거두어 귀향하였다. 1693년 금우사(錦宇祠, 학교면 금송리 금산 소재)를 창건하고 배향하였다.

◆ 김몽복(金夢福)

1553~1598 본관 선산. 자 천신(天伸). 호 죽포(竹圃). 시조의 23세손. 군기시 주부 덕수(德秀)의 맏아들. 나이 20에 이미 병서에 달통하였고 1584년(선조 17) 무과에 급제하여 한성 참군을 거쳐 병조참의에 승진되었으며 1591년 고향에 내려와 있던 중 이듬해 임진왜란이 나자 나주성 수성장으로 양곡을 운반하고 병력을 조련하는데 힘을 다하였으며 토적(土賊)이 일어나자 이를 쳐 평정하였고 정유재란에 이순신이 남쪽 바다에서 고군분투할 때 동생 몽성(夢成)이 참의(參議)로 벽파진(碧波津)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에 이순신 군진을 돕기 위해 의병 수 백명을 모아 출진하였는데 부대에 이르기 전에 왜선 100여척을 만나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군사는 거의 물에 빠지고 그도 적의 칼에 이빨과 입술이 일그러지는 등 크게

상처를 입자 적을 호되게 꾸짖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바람에 의해 해안으로 표류되어 명나라 장수 진린의 구원을 받아 살아나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소대산(小大山)에 이르렀는데 이 때는 이미 충무공 이순신과 그의 동생 몽성이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뒤였다. 그는 양친 통곡하고 적진에 뛰어들어 독전하다가 이날 순국하였으며 초혼하여 나산면 월현에 장례를 치렀

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고 1730년 선평사(船湖祠) 나산면 용두리 소재)에 배향되었으며 1816년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 김몽서(金夢瑞)

?~1592 본관 상산. 몽희(夢禧)의 아우. 임진란에 형과 거의하여 중봉 조헌(重峯趙憲)의 막하로 들어가 청주(淸州), 금령(金嶺) 싸움에서 연이어 이겼고 금산(金山)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 김몽성(金夢成)

1562~1598 본관 선산. 자 천보(天輔). 호 송포(松圃). 시조의 23세손. 군기시 주부 덕수(德秀)의 둘째 아들. 1588년(선조 21)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 정읍현감을 역임하였고 임진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군진에 들어가 전좌(前佐)로 거제싸움에서 적 수십급을 베고 또 원균(元均)을 구하는 등 전공을 올리자 충무공이 그를 항시 내막(內幕)에 두었다. 1593년 왕이 환도하고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하여 옥중에 갇히는 몸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이순신이 삼도통제사로 부임하여 벽파진(碧波津)에 유진하고 있을 때 주위의 장정을 거느리고 합류한 후 다음날 고금도(古今島)에서 군량을 확보하였으며 1598년 10월 21일에는 양강(楊江)에 있는 육지의 적을 격멸하고 22일에는 고도(姑島)의 적선을 격파하였으며 25일에는 첨산(尖山, 소대산)

의 적을 쳐 대승하였다. 11월 노량 해전에서 충무공과 함께 적선을 격파하다가 탄환에 맞아 전사하니 동생 몽득(夢得)이 초혼하여 나산면 용두리 선박 마을 앞 선산에 장례하였다. 1604년 선무원종 2등 공신에 올랐고 1730년 선평사에 배향되었으며 1816년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광산이씨 참봉 공한(公漢)의 딸이다.

◆ 김몽성(金夢成)

본관 광산. 시조의 26세손. 1576년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판관과 주부를 역임했다. 문정공과의 함평 입향조이다.

◆ 김몽업(金夢業)

1565~1597 광산. 대사성 성옥(成玉)의 7세손. 집의 수연(壽淵)의 다섯째 아들로 정유재란 때 남원성에서 아버지를 따라 형 몽룡 등 네형제와 함께 이복남(李福男) 막하에서 성을 지키다가 모두 순절하였다. 선무원종 공신에 녹훈되고 1693년 금우사(錦宇祠)를 창건하여 배향하였다.

◆ 김몽웅(金夢熊)

본관 김해. 선조조에 문과에 급제

◆ 김몽필(金夢弼)

1561~1597 본관 광산. 자 필화(필화). 대사성 성옥(成玉)의 7세손. 집의 수연(壽淵)의 셋째 아들. 정유재란 때 형 몽룡, 몽린, 아우 몽령, 몽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전라병사 이복남의 막하로 들어가 남원성에서 적과 용전 분투하다가 모두 장열히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고 1693년 금우사(錦宇祠), 학교면 금송리 금산 소재)를 창건하고 배향하였다.

◆ 김몽호(金夢虎)

본관 김해. 중종조에 목사를 지냈다.

◆ 김몽희(金夢禧)

?~1592 본관 상산. 자 중부(仲膚). 호 경봉(景峰). 아우 몽서(夢瑞)와 함께 거의하여 김건재(金健齋), 고제봉(高霽峰) 등과 더불어 피를 마시고 동맹을 맹서하였으며 조헌(趙憲)의 군진으로 달려가 청주 싸움과 금령(金嶺) 싸움에서 연이어 크게 이겼다. 이 공으로 병조 정랑(正郎)이 제수되었으나 금산전(金山戰)에서 아우 몽서와 함께 전사한 뒤였다. 초혼(招魂)하여 장례를 지냈고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 김 보(金寶)

?~1570 본관 광산 자 현여(現汝). 호 덕암(德巖). 시조 23세손. 부호군 수년(壽年)의 아들로 1537년(중종 32)에 성균관생원이 되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1540년대 전북 무장(茂長)에서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德山里)로 이거 정착하여 광산 김씨 양간공파(良簡公派) 함평입향조가 되었으며 사후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해주황씨(黃氏) 군수석일(錫一)의 딸이다.

◆ 김사수(金泗秀)

본관 김해. 자 군숙(君淑). 선무공신 겸 사복(司僕) 송(松)의 아들. 1624년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 김사영(金師英)

1785~? 본관 도강. 자 달겸(達兼). 호 송정(松亭). 파조의 19세손. 환(環)의 아들. 아버지가 3년동안 병석에 누었을 때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였고 상을 당하여 상복을 벗지 않고 여막에서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도 유림에서 천거하였고 도백이 효자라며 쌀을 상으로 내렸다. 1810년경 무안에서 함평읍 진양리 대진으로 이거하여 정착하였다. 아내는 행주기씨 창은(昌殷)의 딸이다.

◆ 김상구(金象九)

본관 김해. 속의 셋째 아들. 숙종조 무과에 급제

◆ 김상유(金相有)

본관 상산. 순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 좌수군 우후를 지냈다.

◆ 김상택(金相澤)

1763~1848 본관 광산. 자 군원(君源). 호

지족당(知足堂). 시조의 31세손.

세옥(世沃)의 둘째 아들. 효우가 순독(純篤)하고 학행이 뛰어났으며 1893년에 효로 정려가 내리고 사헌부 감찰을 증직 받았다. 아내는 함평이씨 종채(宗彩)의 딸이다.

◆ 김석구(金錫九)

본관 김해. 속의 둘째 아들. 숙종조 무과에 급제.

◆ 김석규(金石圭)

본관 선산. 시조의 18세손. 자 경립(敬立). 호 용암(龍岩). 장사랑 자렴(自廉)의 아들. 점필재 김종직(佔畢齋金宗直)의 문하생이며 한훤당(寒暄堂), 일두(一蠹)와 교의를 맺었고 사헌부 집의(執義)를 지냈다. 1498년 무오사화(연산군 4)때 화를 피하여 함평군 나산면 용암(현 용두리 선박)으로 이거 정착하여 호를 용암이라 하고 선비들과 시와례(詩禮)를 강론하며 향촌의 교화에 힘썼다. 1730년에 선호사(船湖祠, 나산면 용두리 선박 소재)를 창건하고 배향하였으며 묘소는

월야면 양정리 어언동(於焉洞) 간좌(艮坐)에 있다.

◆ 김석환(金錫煥)

본관 김해. 자 장숙(章淑). 호 지송(遲松). 문민공 일손의 후예. 최면암 문인. 유고가 전한다.

◆ 김석훈(金錫勳)

본관 김해. 철종조에 재령군수를 지냄.

◆ 김선일(金善一)

본관 선산. 자는 복화(復和). 호는 성현(省軒). 간의 우유(右繆)의 후손이요 미수 허목의 문인. 경사의 이치에 밝았고, 문집이 전한다.

◆ 김선창(金善昌)

1650~1701 본관 선산. 자 경보(慶甫). 호

모석재(慕惜齋). 시조의 26세손. 여정(汝淨)의 아들. 허목의 문하생으로 학행과 효행이 뛰어났으며 후진양성에 온 힘을 썼다. 문생록과 문집이 전하며 1730년 선호사(船湖祠. 나산면 용두리 소재)에 배향되고 1816년 효행으로 동몽교관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나주정씨 내형(來亨)의 딸이다.

◆ 김세동(金世東)

본관 김해. 선조조(宣祖朝). 자 안여(安汝). 호 남은(南隱). 문민공 일손의 후예. 일찌기 문행(文行)으로 드러나 경사(經史)를 널리 섭렵하고, 숲 속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많은 저서를 남겼다.

◆ 김세추(金世秋)

1670~? 본관 전산. 자 내삼(乃三). 시조의 28세손. 태경(泰卿)의 아들. 효로 천거되어 동몽교관을 지냈다. 아내는 전주리씨 득수(得秀)의 딸이다.

◆ 김세필(金世弼)

1473~? 본관 상산. 자 은경(殷卿). 호 모당(慕堂). 시조의 15세손. 군수 오정(五鼎)의 아들로 중종 때 절충장군 용양위 대호군(折衝將軍 龍驤衛 大護軍), 통정대부 장예원 판결사(掌隸院 判決事)를 지냈다. 아내는 창녕조씨(曹氏) 진사 영평(永平)의 딸이다.

◆ 김 속(金 涑)

본관 김해. 광립(光立)의 아들. 부산진 수군절제사를 지냈다.

◆ 김 송(金 松)

본관 김녕. 임진란때 수도 서울을 방비하다가 밤에 기습한 왜병과 싸워 여러 명을 죽이고 그도 전사하였다.

◆ 김 수(金 遂)

1673~1646 본관 김해. 자 성재(成哉). 호

화죽당(花竹堂). 시조의 63세손. 팽우(彭祐)의 넷째 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 출생하였고, 1606년에 사마시에 입격하였으며, 1613년(광해 5)에 문과 급제하였으나 당시 조정이 혼란하여 귀향하였다. 인조 반정 후인 1624년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고, 정묘호란 때 김류(金瑬)와 더불어 왕을 호종하였으며 정란(靖亂) 후 무장(茂長), 보령현감, 고성현령을 거쳐 사헌부지평, 장령, 사간원 정언(正言), 경상도사, 1638년에 홍문관 교리 겸 경연춘추관사(經筵春秋館事)를 지냈다. 아내는 도사(都事) 함평 노희(魯禧)의 딸, 장사랑 과평 윤잉(尹仍)의 딸이다.

◆ 김수광(金守光)

본관 상산. 정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황해도 수군 우후를 역임했다.

◆ 김수연(金壽淵)

1533~1597 본관 광산. 호 금은(錦隱). 시조의 24세손. 대사성 성옥(成玉)의 6세손. 현감 혼(潘)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침착하고 담력이 뛰어났으며 1559년(명종 14)무과에 급제하여 1560년 사헌부 집의(執義)에 특진되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비분을 이기지 못해 6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모아 아들 5형제 모두를 앞세우고 전라병사 이복남(李福男)의 막하로 들어가 남원성(南原城)을 방어하다가 이복남이 전사하고 성이 함락될 위기에 이르자 손수 병사들을 격려하며 분전, 많은 적을 사살하였으나 그도 수십군데 상처를 입고 순절하였으니 1597년 음 8월 16일이었다. 그의 아들들인 몽룡, 몽린, 몽필, 몽령, 몽업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결사적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노호와 같이 싸웠으나 힘이 다하여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 그의 부인 김해김씨가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나라를 위해, 아들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죽었다. 어찌 나라고 살기를 바랄



것이나.“며 1주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죽었으며, 며느리 정씨(鄭氏, 몽룡의 아내) 또한 “나 혼자 충신의 아내가 안되어서는 안된다.”며 목매어 죽었다. 1문 2세 1충 5효 2열(一門 二世 一忠 五孝 二烈)을 낳았다하여 세인들이 크게 추앙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전국에서도 드물것이다. 1693년(숙종 19) 금우사(錦宇祠, 학교면 학교리 금산 소재, 후에 금산사(錦山祠)로 개칭)를 세워 제향(祭享)하므로써 그들의 빛나는 우국충절을 보답하였다.

◆ 김수정(金粹精)

1519~? 본관 고성. 자 윤구(允仇). 호 중암(中庵). 시조의 39세손. 혁(赫)의 아들. 식견이 명민하였고 1567년(명종 22) 사마시에 입격하였으며 희릉(禧陵) 참봉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정씨(鄭氏) 성채(成采)의 딸이다.

◆ 김 숙(金 淑)

본관 안동. 자 사현(士賢). 시조의 11세손. 151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통례원 봉례(通禮院奉禮)를 지낸 수준(守濬)의 아들.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1550년경 나주시 금천면에서 해보면 대창리(大倉里)로 이거 정착하여 안동김씨 합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나주나씨 영규(永圭)의 딸이다.

◆ 김승필(金陞弼)

1774~1840 본관 김해. 호 용곡(龍谷) 탁영의 9세손. 진안(鎭安)의 맏아들. 부모님 병환 때 대변을 맛보아가며 극진히 간호했고 부친의 병이 위독하자 절지주혈(切指注血)했다. 흥년에 자선사업도 많이하여 나라에서 정려(旌閭)를 내리고(손불면 대전리 은곡마을 앞) 호조참의에 증직했다.

◆ 김 씨(金 氏)

본관 김해. 달운(達運)의 딸로 나주정씨 규영(鄭奎榮, 1811~1832, 시조의 24세

손)의 아내며 남편이 병이 들자 남편 대신 자기가 죽게해 달라고 하늘에 빌었으나 남편이 타계하자 같이 따라 가려고 하였으나 늙으신 시어머니가 있어 마음을 돌리고 극진히 시어머니를 봉양했으며 시어머니가 병이나 사경을 헤매자 허벅지의 살을 베어 약으로 드려 회생케 한 바 있는 효부로 이 사실이 삼강록에 실렸다.

◆ 김 씨(金 氏)

? ~ 1702 본관 영광. 상연(尙璉)의 딸로 학교면 복천리 합평 이한익(李漢翊)과 20세에 결혼하여 남편이 26세 때 괴질에 걸려 타계하니 조사한 남편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거의 매일 마을에서 2km지점인 호암골 묘소를 찾았고 유복자 성린을 키우며 수절하였다. 아들 성린이 15세 되던 해 남편의 기일을 맞아 다른 해와 다름없이 제사를 지낸 후 새벽에 “어머니가 너만을 믿고 수절하다가 이제 너의 아버지 곁으로 간다. 이승에서 못다한 정을 저승에 다하고 또 외롭게 성장하는 너를 아버지와 힘 모아 저승에서 돕고자 하니 슬퍼 말고 훌륭한 일꾼이 되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15세 된 성린이 장례를 후히 지내고 3년 시묘살이를 하였다. 군에서 열녀 표창을 하였고 이를 삼강비에 새겨 대대로 전승하게 하였다.

◆ 김 씨(金 氏)

본관 광산. 참봉 김중구(金重九)의 딸로 합평 이정좌(李廷佐, 1712 ~1768, 시조의 21세손)의 아내다. 시아버지의 병환에 의원이 구렁이 고기가 약이라고 알려주었으나 겨울이라서 구할 수가 없어 슬피우니 홀연히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들어 삶아드려 효과를 보았고 시어머니 병환에 단지(斷指)하여 3일간 연명케 하였고, 남편 병환에 허벅지의 살을 베어 간호하였으나 천명을 다하자 밤에 자결하였다. 이 사실이

현읍지와 삼강록에 실려있다.

◆ 김언부(金彦富)

본관.김해. 자 대원(大元), 불기(不欺). 진사 종엽(宗曄)의 손자. 문장으로 이름이 높고 지략이 뛰어났다. 임진란 때 고경명(高敬命)이 의병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노비 10여명과 마을 장정 30여명, 그리고 군량미 20여석을 모아 고경명의 막하로 가던 도중에 적을 만나 용전분투하여 많은 적을 참살하였으나 적의 칼에 오른 팔이 잘려 상처를 싸매고 돌아와 스스로 호를 불기(불기)라 하였다.

◆ 김여정(金汝淨)

1590~1662 본관 선산. 자 광중(光中)호 삼석재(三惜齋). 시조의 25세손. 우안(友顔)의 양아들. 생부 우민(友閔). 임진정유란 공신 몽복(夢福)의 손자. 미수허목(眉叟許穆)의 문하생으로 당세에 덕행과 문행으로 이름 높았으며 벼슬에는 뜻이 없이 오로지 후학을 기르는데 힘썼고 문생록과 문집이 전한다. 1730년선호사(船湖祠. 나산면 용두리 소재)에 배향되었고 1816년 동몽교관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서산유씨(瑞山柳氏) 엽(曄)의 딸이다.

◆ 김여현(金汝玄)

1634~1713. 본관 선산. 자 휘중(輝仲). 호 월암(月巖). 시조의 25세손. 우민(友閔)의 둘째 아들로 허목의 문하생이다. 돈녕부 도정(都正)을 지냈다. 우민의 아들 5형제가 모두 당대에 학행이 뛰어나 사람들이 이들이 사는 마을을 “오룡동(五龍洞)”이라 불렀다. 아내는 광산 김씨 엽(曄)의 딸이다.

◆ 김 열(金烈)

1789~1866 본관 광산. 자 무백(武伯). 호 후암(後庵). 시조의 32세손. 광수(光洙)의 아들로 당세에 시부(詩賦)로 명성이 높았다. 아내는 남양홍씨 태연(泰淵)의 딸이다.

◆ 김영수(金永守)

본관 광산. 자 덕보(德保). 문안공 양감(文安公 良鑑)의 후손. 지략이 뛰어나고 병법에 능통하여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한 후 수문장(守門將)이 되었다. 임진란때 이순신(李舜臣)을 도와 싸웠고 특히 명량(鳴梁)싸움에서 많은 적을 참살하는 전공을 세웠으나 적탄에 맞아 순절하였으며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 김영진(金永璣)

1438~1499 본관 광산. 자 좌공(佐功). 시조의 22세손. 좌랑 자보(自普)의 아들. 성균관진사를 지냈다.

◆ 김영통(金鈴通)

1479~? 본관 고성. 호 명여(鳴汝). 시조의 37세손. 여산부사 익경의 둘째 아들. 문예가 뛰어났으며 종종 때 장사랑에 천거된 후 이조참의를 지냈다. 함평에서 경상도 성주(星州)로 이거하였다. 아내는 안동권씨 상열(尙烈)의 딸이다.

◆ 김영환(金永煥)

1854~? 본관 광산. 자 하숙(河淑). 호 송암(松庵). 시조의 37세손. 효자 용현(龍鉉)의 아들. 부호군(副護軍)을 지냈으며 아내는 밀양박씨 기주(淇柱)의 딸이다.

◆ 김영환(金永煥)

본관 광산. 철종조(哲宗朝). 자 하숙(河淑). 호 송암(松庵). 지평 하상의 후예. 천자가 고명하고 재예가 뛰어나 문장이 성취되니 과문(科文) 6체를 줄줄이 외우며 후학을 길러내니 사림(士林)이 흠모하고 추앙하였으며 문집이 있다.

◆ 김오정(金五鼎)

1439~? 본관 상산. 자 대기(大器). 시조의 14세손. 함평 입향조 중명(仲明)의 둘째 아들. 생원, 진사 양과에 합격하였으



며 사온서직장(司鹽署直長), 진산군수(珍山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나주 정씨(鄭氏) 영광군수 관(冠)의 딸이다.

◆ 김요수(金堯壽)

1550~1600 본관 도강. 자 운장(雲長). 파조의 10세손. 절제사 유(流)의 아들. 157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계공랑(啓功郎)을 지냈다. 아내는 영산신씨(辛氏) 참봉 자당(自堂)의 딸이다.

◆ 김용우(金溶祐)

본관 김해. 고종조에 무과에 급제

◆ 김용현(金龍鉉)

1823~? 본관 광산. 자 치중(致仲). 호 농은(農隱). 시조의 36세손. 재황(在璜)의 맏아들. 천성이 순후하고 효심이 깊어 아버지 상 6년동안 술과 고기를 멀리하며 시묘살이를 하였고 유림의 천장이 전한다. 이 사실이 무안 삼강록에 실려있다. 아내는 밀양박씨다.

◆ 김우해(金宇海)

본관 상산. 호 나천(擎天).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충청도사(忠淸都事), 춘추관 기주관(記主官)을 역임했고 왕으로부터 “충효장원(忠孝壯元)”이란 네자를 하사받았다.

◆ 김원형(金元亨)

1514~? 본관 도강. 자 원명(元命). 파조의 8세손(시조의 15세손). 조정랑 날(埒)의 아들. 1531년 성균관진사시에 입격하였고 1530년대에 무안의 몽탄에서 함평의 식지면에 이거 정착하여 도강김씨 함평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함평이씨 경홍(慶洪)의 딸이다.

◆ 김 위(金渭)

본관 김해. 우수사 이억추 휘하에서 무공을 세우고 억추와 함께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 김 유(金瑜)

본관 광산. 자 내헌(乃獻). 시조 왕자 공홍광의 25세손. 부호군 부성의 아들. 선교랑. 사복시 주부. 문숙공파의 함평 입향조로 1610년경 나주시 향교동에서 신광면 백운리에 이거 정착했다. 아내는 제주 양씨다.

◆ 김 율(金聿)

1881~1908. 4. 25. 본관 경주. 형 태원(泰元)의 우국충정어린 권고에 기삼연 의병 부대에 가담하여 처음에는 군사(軍士)에 불과하였으나 일찍이 많은 한서(漢書)를 탐독하였고 문필과 담력이 뛰어나 기삼연이 사망한 후 그를 계승하여 호남창의대장이 되었다. 일인의 기록인 “전남폭도사(全南暴徒史)”에 그가 거괴(巨魁)로 수록되어 있고 그를 처단 하고 난보고문에

“-전략- 연령 27세. 한서를 읽고 다소 문필에 능하다. 스스로 박사라 칭하고 성품이 완미(頑迷)하고 항상 배일사상을 품고 조선의 대관이 일본에 아부하여 3천년 예의의 고국(古國)을 판다고 개탄. 융희 원년(1907) 11월 거괴 기삼연 및 형 김태원 등과 호응하여 도당을 모아 그 세력이 한창일 때는 부하가 200여명에 이르렀다. 1908년 3월 함평군 죽산(竹山, 현 월야면 월야리 대매)에서 우리 토벌대와 싸워 크게 패해 세력이 약화되었고 드디어 광주군 소지면(所旨面,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서 생포되었는데 4월 25일 도주를 꾀하다 총살되었다.”라고 하였다. 그의 의병활동을 간추려 보면(이하 월일 중 음력 표시 외는 모두 양력임), 1908년 1월 3일, 부

하 100여명을 이끌고 함평주재소를 습격 순사 2명, 우편 취급소장 및 채류 일인 2명과 교전 그들을 학교면까지 쫓았으며 소지품을 모두 노획하고 응원부대가 도착하자 나산으로 피해 다시 격전을 벌이다가

잠적하였다. 폭도사에 “1월 상순부터 중순까지 함평, 영광에 집단이 배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집단이 바로 그의 부대로 보고 있다. 1월 상순. 배일 격문을 돌리고 일인 관민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다. 이후 수 십차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적에게 타격을 주었다. 1월 22일. 김태원부대와 연합하여(부대원 400여명) 재차 함평주재소를 습격 8시간 동안 교전하여 파다야(波多野, 하다노) 순사를 살해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리고 절골(현 함평읍 대사동)쪽으로 빠져 잠적하였다. 1월 1일(음). 창평 무동촌(舞童村)에서 김태원의 의병토벌대장 길진(吉田)을 살해한 후 그 부대원 100여명과 교전중일 때 구원하여 그들을 물리쳤다. 3월. 월야면 월야리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다. 3월 29일. 오후 1시 금촌(今村, 이마무라), 이웅(伊熊, 이마구) 양 중위가 이끄는 토벌대와 광주군 소지면 정동(鼎洞,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송정동)에서 1시간 동안 교전을 하다 소지면 신기리(新基里)에서 적에게 사로 잡혔다. 4월 25일. 박산(博山)마을의 어등산(魚等山)에서 적에게 사살된 형 태원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연행되던 중 도주를 기도하다가 적에게 사살되었다. 그는 형 태원의 그늘에 가려 지금껏 그의 공적이 널리 알려진바 없는데 형의 공적에 비해 손색이 없는 의병장으로 후세에 널리 추앙되어야 할 것이다.

◆ 김응량(金應良)

본관 천안.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하였으며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 김응명(金應鳴)

1731~1791 본관 광산. 호 송수(松叟). 파조 규(派祖 珪)의 12세손. 시조의 25세손. 효로 통정대부에 증직되었고 1760년경 동생 채명과 함께 장성군 삼서면에서 신평면

함정리 무송으로 이거 정착하여 낭장공파(郎將公波)의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 김응영(金應榮)

1490~1551 본관 광산. 자 영화(榮和). 시조의 24세손. 진사 기서(奇瑞)의 셋째 아들로 진사를 지냈다.

◆ 김의생(金義生)

?~1592. 임진왜란 때 금산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 김익경(金益卿)

본관 고성. 자 공삼(公三). 호 창강(滄江). 시조의 36세손. 정랑 원량(原亮)의 둘째 아들. 1473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적순부위(迪順副尉), 훈련원 참군, 여산부사(礪山府使)를 지냈으며 연산군 때인 1500년경 형 자경과 함께 전북 고창에서 학교면 금송리에 이거 새로이 정자를 짓고 못을 팠는데 못가의 소나무가 반형(盤形)이어서 마을 이름을 반송정(盤松亭)이라 지었다고 전한다. 1543년(중종 38)에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무안정씨(務安丁氏) 참봉 열(說)의 딸이다.

◆ 김익웅(金翼熊)

본관 김해. 호 월포(月圃). 이율곡(李栗谷)의 문하생이며 정 철(鄭 澈), 고경명(高敬命)과 도의로 사귀었으며 1592년 임진란이 일어나고 장성 남문(長城南門)에 창의소가 설치되자 음 8월 19일에 합세하였고 12월 19일 직산(稷山) 싸움, 1593년 1월 10일 용인(龍仁) 싸움에서 적을 크게 무찔렀으며 이후 귀향하였다. 정유재란 때는 아들 덕생(德生)과 함께 창의하여 무등산(無等山) 싸움에서 크게 공을 세웠으며 사후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 김자경(金自卿)

본관 고성. 자 공현(公玄). 호 우도재(憂道齋). 시조의 36세손. 이조정랑 원량(原



亮)의 맏아들. 1471년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동생 익경과 함께 1500년경 전북 고창에서 학교면 금송리에 이거하였다.

◆ 김자궤(金自箕)

1424~1494 본관 광산. 자 공포(功圃). 호 지현(芷軒). 시조의 21세손. 좌랑 경온의 셋째 아들. 이조좌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한산이씨 정진(廷震)의 딸이다.

◆ 김자보(金自普)

1421~1484 본관 광산. 시조의 21세손. 좌랑 경온의 둘째 아들. 병조좌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언양김씨 정권(鼎權)의 딸이다.

◆ 김자분(金自芬)

1419~1481. 본관 광산. 자 희포(希圃). 시조의 21세손. 좌랑 경온(景溫)의 맏아들. 1438년 문과에 급제하여 종성부사를 지냈으며 사후 좌승지로 증직되었다. 아내는 경주최씨 경렬(景烈)의 딸이다.

◆ 김재목(金載睦)

본관 영산. 충훈부 도사(都事)를 역임했다.

◆ 김재성(金載聲)

1853~1900 본관 선산. 처음 이름 교환(敎煥). 자 상숙(尙淑). 호 양천(楊川). 시조의 32세손. 진용(振容)의 아들. 당세에 효성이 지극함이 인근에 널리 알려졌고 이를 기리기 위해 마을에서 충효문을 세웠다. 나주군지, 도지에 이 사실이 실려 있다. 아내는 전주리씨 돈희(敦希)의 딸이다.

◆ 김재신(金在臣)

본관 광산. 순조조(純祖朝). 자 윤필(允弼). 호 수현당(守玄堂). 한평군 태율의 후손. 조연재 문인. 성리학을 전심하였고 문집이 전한다.

◆ 김재정(金載精)

1767~? 본관 광산. 자 실지(實志). 호 농은(農隱). 시조의 31세손. 일성(日聲)의 아들. 문장과 학행이 뛰어났으며 주부를 지냈다. 아내는 창원황씨 목사(牧使) 신명(信明)의 딸이다.

◆ 김정구(金鼎九)

본관 김해. 속(涑)의 맏아들. 숙종조 무과에 급제

◆ 김종도(金宗道)

본관 광산. 1571~? 자 중백(重伯). 호 죽촌(竹村). 시조의 26세손. 군수 경성(慶成)의 아들.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의 문하생이며, 장사랑(將仕郎)으로 병자호란 때 아우 종지(宗智)와 함께 창의하여 청주(淸州)에 이르렀으나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 귀향하였다. 아내는 금성나씨 수사 채암 대용(羅大用)의 딸이다.

◆ 김종익(金宗益)

1616~1675 본관 광산. 자 익언(益彦). 호 양곡(陽谷). 시조의 26세손. 효자 득지(得祉)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가난한 이웃을 많이 도우니 촌민들이 비를 세워 송덕하였다. 아내는 경주이씨 성(晟)의 딸, 인동장씨 천각(天角)의 딸이다.

◆ 김종진(金宗晉)

본관 광산. ?~1598 자 자명(子明) 호 의두(依斗). 시조의 26세손. 주부 경록(景祿)의 아들로 벼슬은 통덕랑(通德郎)이다. 정유재란 때 장인 나치용(羅致用)과 의병을 규합하여 이순신의 막하로 들어가 울돌목,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공을 세우고 순절하였다.

◆ 김 준(金 俊)

본관 선산. 호 기은(箕隱). 시조의 19세손.

집의(執義) 석규(石圭)의 아들. 호조 정랑(正郎), 부사과(副司果)를 지냈다. 아내는 완산(完山, 전주)리씨 생원 지의(之義)의 딸이다.

◆ 김중명(金仲明)

1400~? 본관 상산. 태종조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태종의 경호를 담당했던 덕생(德生)의 양아들로 생부는 우생(佑生)이다. 세종조에 아버지 덕생의 은공으로 관직에 등용되어 봉직하던 중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직을 거쳐 담양부사(潭陽府使)가 되었다. 재직시 사민(士民)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함은 물론 농상(農桑)에 힘을 써 그가 움으로써 모든 백성이 따뜻한 은혜를 입었다는 칭송이 자자했다. 관직을 떠난 1440년대에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증산(甌山, 시루되)에 이거 정착하여 상산김씨 함평입향조가 되었다.

◆ 김중선(金重璿)

1659~1702 본관 상산. 호 최락당(最樂堂). 중간공 덕생의 9대손.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7세 때 어머니가 병이 나 위급하자 단지(斷指)하였고 돌아가신 뒤에 3년을 하루 같이 시묘(侍墓)하니 주위에서 증민(曾閔)의 효에 비길만하다고 하였다. 학문에도 뜻이 깊어 침랑 이유인(寢郎 李有仁)과 함께 성리학 연구에 전심하는 한편 여러 선배들과 향음주례(鄉飲酒禮) 등을 행하여 향속(鄉俗)의 개화에 이바지하였다. 1933년 유림들의 발의에 의해 증산사(甌山祠)에서 배향한다.

◆ 김중태(金重泰)

본관 상산. 호 수拙齋. 숙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고성현령, 예조정랑을 역임했다.

◆ 김지수(金止洙)

1795~1849 본관 광산. 호 모현(慕軒). 문숙공 18세손. 시조의 31세손. 의식의 아

들. 16세 때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자 절지주혈(切指注血)하였고 37세 때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자 또 단지(斷指)하였으며 5리 밖에 묘를 쓰고 3년간 조석으로 성묘하니 묘앞에 꿇어 었던 자리가 오목히 패이고 흘린 눈물로 풀뿌리가 말라 죽었다. 난와 오계수의 찬으로 효자비를 세웠다. 아내는 전주리씨 이경(李以經)과 연안김씨 일연(金一淵)의 딸이다.

◆ 김진하(金振夏)

본관 광산. 몽성의 손자. 시조의 28세손. 1642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 김찬용(金燦容)

1847~1893 본관 선산. 처음 이름 두용(斗容). 자 성진(聖珍). 호 적계(翟溪). 시조의 31세손. 백련(百鍊)의 아들. 효우돈목하고 성리학에 밝았으며 향리에 덕을 베풀어 마을 사람들이 이를 기리기 위해 비를 세웠으며 1876년 효로 등천되어 감찰을 제수 받았다. 아내는 경주이씨 규한(圭翰)의 딸로 남편 보다 '더 효심이 강하여 천장을 받았으며 이 사실이 나주읍지와 도지에 실려 있다.

◆ 김창구(金昌九)

본관 김해. 속의 다섯째 아들. 숙종조 무과에 급제.

◆ 김치백(金致伯)

1711~? 본관 선산. 자 사순(士純). 시조의 29세손. 득추(得秋)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부사과(副司果)를 지냈다. 아내는 평택 임씨(平澤林氏)다.

◆ 김치현(金致玄)

본관 선산. 정종조(正宗朝). 자 덕승(德承). 호 우재(遇齋). 용암 석규의 후예. 15세에 벌써 증용에 능하여 정밀한 경지에 이르러 기상이 넘쳐흐르니 세인이 점필재



의 행적을 닮았다고 칭송했다. 그가 안성에 들어갔을 때 민승천(閔承天)이 의병을 일으켜 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진이 합세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경기의진(京畿義陣)은 이천을 중심으로 크게 뭉쳐 민승천을 창의대장으로 추대하고 그는 선봉장이 되었다.

◆ 김태원(金泰元)

본관 경주. 1870.9. 16~1908. 4. 25 일명 준, 태중(準, 太仲). 참봉(參奉) 호 죽봉(竹峯). 나주시 문평면 갈마리(葛馬里)에서 태어나 함평군 나산면 수상리(水上里)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지략과 용맹이 뛰어났으며 벼슬은 순릉참봉(順陵參奉)에 그쳤으나 국운이 기울어져 때 국사(國事)에 부심하였다. 동학(東學)에 적양척외(斥洋斥外) 사상이 있어 일시 참여하였으나 민폐가 자심하자 아우 율(律)과 함께 수원(水原)에 피해 살았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이 내려지자 김하락(金河洛), 조성학(曹性學), 구연영(具然英), 신용희(申龍熙) 등과 함께 이천(利川)으로 내려가 그 곳의 화포군 도영장 방춘식(火砲軍都領將方春植)과 상의하여 포군(砲軍) 100여명을 모았다. 그들을 나누어 거느리고 양근(陽根), 지평(砥平), 광주(廣州), 안성(安城), 음죽(陰竹) 등지로 나가서 군사를 더 모았다.

1896년 1월 17일(음 12. 3)에 관군의 내침이 있었다. 그는 구연영, 김귀성, 신용희 등과 1초군씩을 거느리고 관군이 오는 길을 앞질러 가서 백현(魄峴)을 중심으로 매복하였다가 포위 공격하였다.

전략이 주효하여 관군은 패주하였다. 관군을 쫓아 광주의 장항(獐項) 장터까지 추격하여 무기, 군량 등 많은 물품을 노획하여 이천으로 귀환하였다.

장항전에서 승리한 후 이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의병진의 전세는 크게 확장되었으며 그는 이들을 독려하여 한편으로 전투

훈련을 하면서 이현(梨峴), 원적산(元寂山), 여주(驪州), 양지(陽智) 등 요새지를 엄중히 지키고 경기의진은 26일 격문을 각 도, 각 군으로 돌려 함께 의병을 일으켜 국난을 구원하자고 호소하였다.

1896년 2월 13일(음 1895. 12. 30)

이현에서 악천후 속에 관군 200여명을 맞아 크게 싸웠으나 타격을 받고 의병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2월 25일 경기의진들이 다시 이현으로 모이게 되었다 그는 구연영, 전귀석과 함께 광주, 이천, 양근 지방의 포수, 민군(民軍)들을 결집하여 이현에 도착했다. 이 때 김하락이 여주 의병장 심상희(沈相禧)와 타협하고 여주 의진의 일부를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연합 병력이 2천여명에 이르렀으므로 진중의 의기가 충천하였으며 박준영(朴準英)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그는 선봉장이 되었다. 새로이 부서를 정하고 2월말 경진을 광주의 남한산성으로 옮겼으며 그는 남문을 수어하는 책임을 맡았다. 남한산성은 천혜의 요새며 군수물자도 풍부하였으나 대장 박준영이 관군의 유혹에 넘어가 성문을 열어주어 결국 함락되고 말았다. 그는 약간의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면서 제천(堤川)의진과 합세하여 관군과 전투를 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국정이 일제에 의해 이루어지자 그는 아우 율과 함께 1907년 7월 호남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1907년 9월 그는 성재 기삼연(省齊奇三衍)이 장성에서 거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친척인 전참봉 김돈(金燾)과 의논하여 군사를 이끌고 합세하여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의 선봉장이 되었고 의병의 근거지는 장성군 동화면(당시 함평군 대화면)의 수연산에 있는 석수암(石水庵)과 삼계면 수옥리에 있는 왕녀봉이었다. 9월 9일 고창의 일군을 무찔렀으며 의진의 전세를 확장할 목적으로 성재와 영역을 달리하여 활동 할 것을 결의하였다.

10월 4일에는 몽암 신덕순(夢庵申德淳)과

정읍 내장사에서 만나 창의하는 일을 의논하여 덕순은 도독, 그는 선봉이 되고, 아우 율(律)은 호군이 되었다. 이 때 의병이 이미 수백명이 되었으므로 광주(光州)의 영(營)을 무찌르고 목포도 깨뜨릴 계획으로 광주에 격문을 띄웠다. 그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순창(淳昌)의 회문산(回文山)으로 들어가 무기를 감추어 두었던 곳으로 갔으나 이미 일군에게 빼앗긴 뒤였다. 회문산에서 회군하다가 쉬고 있을 때 적의 기습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신덕순은 체포되어 井邑으로 압송되고 의진은 일시에 무너졌다. 10월 31일(음 9. 25)에 무장(茂長)에 진격하여 적장을 살해하는 전과를 올렸고, 12월 7일(음 11. 3) 밤 10시경 법성포(法聖浦)에 나아가 적 10여명과 일인집 10여채를 불

살랐다. 이 전투를 마치고 기삼연의 권유에 따라 기삼연 부대의 종군관(從軍官)인 전해산(全海山, 후에 독립부대 창설) 김익중(金翼中), 후군장(後軍將)인 이남규(李南奎), 그리고 김두식(金斗植), 김연석(金鍊石), 김경화(金景和), 이주현(李周鉉), 김재원(金在元), 조덕관(曹德官), 이규동(李奎東), 이상인(李象仁), 김상민(金相閔), 정인면(鄭仁勉), 임규하(林圭夏), 임종풍(林鍾豐) 등과 함께 독립부대를 창설하였는데 부대원의 수는 200명에서 400명에 이르는 때가 있었다.

1907년 12월 중순부터 1908년 4월까지 그는 나주, 함평, 장성, 무안 등지를 신출귀몰하듯 휩쓸었다. 함평주재소를 습격하여 일인순사를 사살하고(1908. 1. 22) 수차례에 걸쳐 토벌대와 접전하였으며 이들 전투에서 적의 지휘자 천단조장(川端曹長)과 부하들을 사살하는 등 타격도 크게 가졌지만 그의 의병진도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빛나는 전과는 1908. 1. 1(음) 창평(昌平)의 무동촌(舞童村)에서 의병 토벌에 악명이 높던 8척 장신 길전승삼랑(吉田勝三郎)을 살해한 것이

다. 이 전투를 요약하면 음력 선달 그믐날 창평의 지곡(芝谷)에 도착하여 하루를 쉬고 무동촌으로 진군하던 중 길전의 기마병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는 무동촌에 도착하여 자신과 정포

조덕관(精砲曹德官)외 1명이 돌담 사이에 매복하였다. 길전은 의병의 동태가 조용해지자 망원경으로 근처를 둘러본 다음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마을로 들어왔다.

매복조가 정확히 조준하여 총을 쏘았고 말에서 떨어지자 조덕관이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다. 이 때 목숨이 붙어있던 길전이 권총으로 조덕관을 쏘아 전사하였으며, 그가 달려가 칼로 찔려 죽었다. 이어 대접전이 벌어 졌고 김율의 군사와 협공하자 대장을 잃고 사기가 저하된 100여명의 토벌대가 도주했으며 길전의 쌍안경과 권총 그리고 다수의 총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조덕관의 강길환(姜吉煥)이 전사했다. 또 이날 싸움에 이운선(李雲善)이 참여하였는데 그가 전사할 때까지 활약하다가 조경환(曹京煥)의 부대가 되었으며 1909년에 체포되어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무동촌에서 장성 월평(月平)에 유진한 그는 토천(土泉) 뒷산에 돌로 성을 쌓아 적병을 유인

적장 철도삼전(鐵道三田)을 사살하였다. 이날밤 영광으로 진군하다가 낭월산(郎月山)에서 적을 만나 도포장 최동학(崔東鶴)이 죽고 많은 사상자를 냈다. 1908년 2월 20일(양)에는 장성 토정리(土亭里)에서 적병 50여명 사상시켰고, 3월(양)초 함평의 나산시장(羅山市場)에 진군하여 일군과 정면으로 충돌 20여명을 살해하고 수십명을 부상시켰으며, 3월 20일에는 장성군 남삼면 월암리(南三面月岩里, 현 황룡면 황룡리 월암)에서 6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5시간 동안 교전하여 전중(田中), 말연(末延)을 부상시켰고, 3월 21일(양)에 장성군 광곡에서 부하 80여명을 이끌고 잠복활동을 하다가 토벌대의 공격을 받고 암굴에 숨었다



가 밤에 탈출하였으며 그 후 10여 차례 공격을 받았

다. 1908년 4월 25일(양) 함평군 오산면 박산동(烏山面博山洞, 현 광주광역시 임곡동 오산리 박산)에서 지병인 요통(腰痛)을 치료하던 중 기병(騎兵) 및 특별 순사대로 편성된 토벌대에게 발견되어 교전하다가 오후 4시경 부하 13명과 함께 어등산(魚等山)에서 순국하였다. 일인들의 기록인 “전남폭도사(全南暴徒史)”에 실린 이날의 보고문을 보면, “-전략- 1907년 11월 동생 율(律)과 기삼연(奇三衍) 등이 호응하여 의병을 일으켜 그 세력이 한창일 때는 부하가 200여명이 넘었다. 나주 부근을 본거지로하여 함평, 장성, 영광, 담양 등 각 군에 횡횡하면서 교묘하게 관헌의 손을 피했는데 1907년 2월 우리 토벌대와 장성군 서이면(西二面, 현 황룡면 일부)에서 크게 패한 후 점차 세력이 쇠퇴하였다. 동년 4월 25일 박산동(博山洞)에서 우리 토벌대와 싸워 드디어 전멸 했다.” 라고 하였다.

그의 부하들 중 체포 당한 사람들의 재판 기록을 보면 나주에서 미국상을 하던 34세의 조정인(趙正仁)은 수백 명과 함께 400여정의 총기를 휴대하고 나주, 함평, 장성 등지에서 일군과 전투한 혐의로 1908년 6월에 체포되어 교수형을 선고 받았고, 18세의 심수근(沈守根)은 조정인의 명을 받아 나주 가산(佳山)의 탄환 제조소를 지키다 4월에 체포되어 교수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윤원거(尹元擧)는 무안군 금동면 옥동(玉洞, 현 함평군 대동면)에서 살던 사람으로 1907년 12월 14~15일경(양력) 그의 부대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때 이응문(李應文)으로부터 돈 23관을 기탁 받았고 물론 이 돈은 그의 거사 자금의 일부였다.

선열유목첩에 그의 친필 편지가 소개 되었는데 그 필력이 웅경할 뿐 아니라 내용이

애국 충정에 절절하여 이은상(李殷相)이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국가의 안위가 경각에 있는데 의기 남아가 어찌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겠느냐? 진충갈력(盡忠竭力)하는 것이 의(義)에 마땅한 일이요 창생을 건지는데 뜻이 있을진데 명예를 위하는데 있지 않다.

병(兵)은 죽을 곳에 웃음을 머금고 들어가는 것이

옳으리라.” 동생 율(律)에게 의거할 것을 종용한 편지다. 30세의 젊은 나이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움에 순국한 그를 기리기 위해 함평공원에 공적비가 세워지고, 광주광역시 농성동과 담양 남초등학교 교정에 동상이 세워졌으며, 정부에서 1962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그의 아내는 외아들 경천(敬天)을 기르다가 고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아들을 문중에 만기고 그날 밤에 자결하였다.

어등산에 묻혔던 체훈(體魂)은 1959년 국립묘지 77호에 이장하였으며 1919년에 창건한 충의사(忠毅祠, 나산면 덕림리 덕림소재)에서 배향한다.

◆ 김한로(金漢老)

1646~1687. 본관 상산. 호 선계당(善繼堂). 충간공 덕생(德生)의 8대손.

1675년(숙종 원년) 식년(式年)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용강현령(龍岡縣令)을 지내다가 내직으로 들어와 병조좌랑을 거쳐 예조좌랑겸 춘추관 기주관(春秋館 記注官)을 겸임하였다.

1686년 민정중(閔鼎重)을 비롯하여 당대명사인 16명과 함께 휘헌대왕비(徽憲大王妃) 작품인 소병(素屏) 한 벌씩을 하사받았다. 1933년 유림의 발의로 증산사(甌山祠, 나산면 이문리 증산소재)에서 향사한다.

◆ 김한형(金翰亨)

본관 경주. 문기(文起)의 7세손. 1675년 경남의 안음에서 월야면 외치리로 이거 정착하여 경주김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 김 해(金 海)

본관 광산. 자 시망(時望). 문숙공 주정(文肅公 周鼎)의 후손. 훈도 천종(訓導天鍾)의 아들. 1587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主簿)를 지냈다. 임진란때 선조대왕을 호위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으며, 환궁 후 부하들을 인솔하여 부녕(富寧)에서 적과 접전하여 많은 적을 참살했으며 당시 빼앗은 왜적의 칼이 전해온다. 아내 이씨는 권봉산(拳峰山)에서 적을 만나 굴하지 않고 항전하다 자결하였고 이에 이곳을 사람들이 서기등(瑞氣嶺)이라 한다.

◆ 김해구(金海九)

본관 김해. 속의 넷째 아들. 숙종조 무과에 급제

◆ 김 혁(金 赫)

1493~? 본관 고성. 자 광보(光甫). 호 남암(南巖). 시조의 38세손. 명(明)의 아들.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1546년에 사마시(司馬試)에 입격하여 숙릉(淑陵)참봉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 경휘(敬輝)의 딸이다.

◆ 김혁련(金赫鍊)

1746~1802 본관 선산. 처음 이름 용려(用礪). 자 공호(公浩). 호 영모재(永慕齋). 시조의 30세손. 치달(致達)의 둘째 아들. 성재 허전(性齋許傳)의 문하생으로 1781년에 대흥년을 만나 기아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조정에 알려 특히 백미 3천석을 내리게 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이 공으로 도정(都正)을 제수 받았다. 아내는 파주염씨(坡州廉氏) 낙기(洛基)의 딸이다.

◆ 김현병(金顯炳)

1829~? 본관 김해. 호 신재(愼齋). 금령군 21세손. 인식의 아들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 앞에서 절대 난색을 표한 일이 없고 아버지 병환에 단(壇)을 쌓고 쾌차하기를 기원하니 노루가 나타나 잡아서 간호했다. 상을 당해서는 3년간 시묘살이를 했으며 신광면 원산리(元山里)에 묘가 있다.

◆ 김 혼(金 混)

1458~1534 본관 광산. 자 점실(点悉). 시조의 23세손. 세준(世俊)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보령, 진해현감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김씨 득강(得强)의 딸이다.

◆ 김희눌(金希訥)

본관 김해.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

◆ 나 각(羅 珪)

1574~1644 본관 금성. 자 연보(連寶). 호 송파(松坡). 시조의 22세손. 충순위 시남(詩男)의 아들로 문장에 천재성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병환에 손가락을 깨어 피를 넣어드리고 똥 맛을 보고 시묘살이를 하는 등 효행이 참으로 지극하였고 이에 1608년 나라에서 효행으로 창릉(昌陵) 참봉을 제수하였다. 50세에 이르렀을 때 북방 변방에 금인(金人)들이 자주 침입하자 장만의 휘하에서 변방을 지켰으며 병자호란 때는 사위 이시우(李時佑)와 의병을 일으켜 출전하던 중 전주에서 강화가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한 후 돌아왔다. 은거중이던 그에게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이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가천사(佳川祠). 함평읍 가동리 소재)에서 배향하며 유고 “송파록(松坡錄)”이 전한다. 아내는 면성(綿城. 무안)박씨 언순(彦純)의 딸이다.

◆ 나덕무(羅德懋)

1565~1635 본관 나주. 자 면지(勉之). 호



은봉(隱峯). 금천현감(鎭川. 현 시흥) 사울(士慄)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정유재란을 피하여 아들 3형제를 거느리고 나주시 향교동에서 신평면 함정리 구봉으로 이거 정착하였다.

아내는 영광정씨(丁氏) 진사 세린(世麟)의 딸이다.

◆ 나덕원(羅德元)

1548~? 본관 금성. 자 이건(以健). 호 사담(沙潭). 시조의 21세손. 참봉 열(悅)의 아들. 곤재 정개청(困齋鄭介淸)의 문하생이며 학문과 덕행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1573년 사마시에 입격하여 세마(洗馬)에 임명되었다.

1580년경 잠시 이거하였던 무안군 삼향에서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錦松里. 당시 무안현)로 이거하여 금성나씨 이조판서공과 함평입향조가 되었다. 임진란때 소모사(召募使)로 의병을 모집 황진(黃進)의 막하로 보내고 다시 의병 천여명을 모아 여산(礪山)으로 들어가 각처에서 모인 의병과 합세하여 의주(義州)로 출병하려다가 왕이 환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지하였다.

1594년 오수(樊樹)찰방에 제수되고 겸하여 군량을 보내는 것을 감독하였고 이어 함창현감(咸昌縣監) 겸 운량차사(運糧差使)로 임명되어 명군(明軍)의 군량을 보급하였다. 또 모두포(毛豆浦)에 주둔한 가등청정(加藤清正)을 공격하기 위하여 찬획사 황신주(贊劃使黃愼周)와 함께 군사를 인솔 유곡역으로 들어가 있다가 명장 마귀를 도와 울산에 진격하였으나 가등청정이 화평이 되자 포위망을 풀었다. 화평 후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아우 덕립(德立)은 울산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문집 “사담집(沙潭集)”이 전하며, 아내

는 청주곽씨(淸州郭氏) 문양공 추(文良公樞)의 후손이다.

◆ 나무회(羅茂檜)

본관 금성. 1645년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에서 대동면 향교리로 함평향교를 옮겨 지을 때 영건 별감(營建別監)을 맡았다.

◆ 나세장(羅世章)

본관 금성. 자 질부(質夫). 시조 19세손. 옥(郁. 1443년생)의 셋째 아들로 장사랑(將仕郎)을 지냈으며 1500년경 나주시 문평에서 함평읍 가동리 가동으로 이거하여 정착했다. 아내는 밀양박씨 현감 형산(亨山)의 딸이다.

◆ 나위순(羅緯淳)

본관 금성. 1663년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 나위추(羅緯樞)

본관 금성. 1663년(현종 4)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을 지냈다.

◆ 나위한(羅緯漢)

1581~1659 본관 금성. 자 탁이(卓爾), 호 청류(淸流) 또는 타우(打愚). 시조의 23세손. 선무랑 창서(昌緒)의 양아들(생부 茂松)로 판서 조강중(趙綱仲)이 두보(杜甫)에 비길만한 문장가라고 칭송 할 만큼 당대 호남에서 이름 높던 문장가로 인조조에 조산대부 동몽교관(朝散大夫童蒙敎官)을 제수 받았으며 왕으로부터 소학(小學) 일부 및 황옥촉(黃玉燭) 1쌍을 하사받았다.

아내는 영광김씨 여진(汝珍)의 딸이다.

◆ 나정양(羅廷良) 1788~1849

나정우(羅廷佑) 1789~1837

나정륜(羅廷倫) 1792~1839

본관 금성, 득일(得一)의 아들들이다. 3형제는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자 서로 앞 다투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에 넣어드렸고 상을 당하자 여막에서 같이 생활했다.

어머니를 모시되 3형제가 한 집에서 같이 모시고 상을 당해서는 전과 같이 시묘를 살았다. 평생동안 따로 살지 않고 같이 살았으며 만형 정량은 통덕랑(通德郎), 둘째 정우는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증직되고 정운은 송강재와 증유하였으며 함평읍 가동리에 3효자비를 세워 그들의 효우정신을 기리고 있다.

◆ 나홍순(羅弘淳)

본관 금성. 고종 때 문과에 급제

◆ 노 씨(盧氏)

본관 광산. 죽산 안천섭의 아내로 나산마을 앞에 열부비를 세웠다.

◆ 노경덕(盧憬德)

1562~1612 본관 광산. 자 사원(士元). 호 영보(穎甫). 시조의 27세손. 동래부사(東萊府使) 사종(嗣宗)의 손자. 참봉 언명(彦明)의 아들. 그는 문장이 뛰어나고 용력과 충효의 정신이 투철하였으며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국가가 무사할 때 벼슬을 탐내어 부모를 잇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직이 위태로울 때 삶을 탐내어 임금을 버림 또한 옳은 일이 아니다”

라며 의병을 모아 함평성(咸平城)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함평현감 이극성(李克誠)이 의병 수천을 이끌고 영남으로 떠나며 경덕의 적기충정(敵愾忠情)한 의기를 보고 수성장(守城將)을 맡겼다.

그는 군기와 군량을 모으고 기산성을 튼튼히 하는데 힘을 기울이던 중 팔양치(八良峙)의 관군과 의병들이 식량이 끊겨 매우 위급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성장을 김전재에게 맡긴 후 아들 원명(遠命), 원치(遠致), 원발(遠發)과 가동(家僮) 수십명, 그리고 의병 수백명과 함께 팔양치로 군량을 운반하고 그들 군사와 합세하여 여러 차례 승전을 하여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불행하게도 함평성읍 전체가 적에게 분탕되어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 후 그는 왜적의 손에 의해 불타고 노복들이 모두 도망친 함평 향교(당시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 소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영건 도유사(營建都有司)를 맡아 자비로 제향을 받들고 자기집 노복들을 교직(校直)으로 삼게하는 등 향교 재건에 온 힘을 썼다. 이러한 공으로 후일 병조판서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都總管)에 증직되었다.

◆ 노경원(盧慶元)

1571~1610 본관 광산. 자 언서(彦瑞). 시조의 24세손. 통덕랑 대수(大壽)의 맏아들. 인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宣傳)을 지냈다. 아내는 기계유씨(兪氏)다.

◆ 노계동(魯啓東)

1691~1754 본관 함평. 자 농시(農始). 시조의 20세손. 주관(周觀)의 둘째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판관(判官)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이씨 지번(之蕃)의 딸, 진주정씨 진사 현(楨)의 딸이다.

◆ 노관국(魯寬國)

본관 함평. 영조조(英祖朝), 자는 율경(栗卿)이니 정국(定國)의 아우이다. 문장이 뛰어났으며, 형 정국과 함께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였고 유고가 있다.

◆ 노관도(魯貫道)

본관 함평. 시조 목(穆)의 증손. 인후(仁厚)의 아들. 시호 문안공(文安公). 처음 이름은 관도(寬道)며 고려조에 수문전태학사 문하시랑평장사(修文殿太學士門下侍郎平章事)를 지냈으며 함풍군(咸豐君)에 군봉되었다.

◆ 노구채(魯龜采)

본관 함평. 정종조(正宗朝). 자 화여(華汝).



호 송촌(松村). 진사 성지의 후예로 육영재 태신의 아들. 자질이 범상치 않았고 효우(孝友)를 타고나 처세와 접인(接人)에도 뛰어나니 모두가 감탄하고 경복했다.

◆ 노극창(盧克昌)

1482~1568. 본관 광산. 자 영경(榮卿). 호 송계(松溪). 만의 21세손. 호군 상지(尙枝)의 아들. 뛰어난 조행(操行)과 기절(氣節)이 있어 부모상에 3년의 시묘살이를 하였고 중종 9년(1514) 9월 1일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사성(司成), 남원부사(南原府使),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역임했는데 재직시 치적이 많아 송덕비가 세워졌다.

김모재(金慕齋), 김하서(金河西), 송규암(宋圭庵), 송지지당(宋知止堂), 나송재(羅松齋), 임석천(林石川) 등과 도의의 벗을 삼았는데 그들이 써준 시가 있다.

1490년경 아버지를 따라 광주시 우치(牛峙)에서 나산면 송암리에 이거 정착하였으며 87세의 수를 누렸다.

1884년에 창건한 송계사(松溪祠. 나산면 송암리 소재)에서 배향한다.

아내 신평송씨는 33세에 조졸하고 영광정씨(丁氏)는 58세에 졸하였다.

◆ 노길상(盧吉祥)

본관 광산. 호 월봉(月峯). 만의 21세손. 첨사 시(僖)의 아들. 생원, 진사과에 입격한 후 중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으며 아내는 전의(全義)이씨다.

◆ 노대유(盧大猷)

본관 광산. 시조의 24세손. 무과 급제 진충(盡忠)의 아들. 첨사(僉使)를 지냈으며 아내는 장택고씨 군수 진(震)의 딸이다.

◆ 노덕원(魯德元)

1564~1636 본관 함평. 자 여건(汝建). 호 무민당(無閔堂). 시조의 17세손. 효자 철수(哲秀)의 맏아들로 중봉 조현(趙

憲)의 문하생이며 임진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금산에 이르렀을 때 조현이 이미 전몰한 뒤라 의병들을 이끌고 이순신의 휘하로 들어가 한산, 노량 싸움에서 대첩을 거두는 전공을 세웠으며, 1627년 정묘호란 때 사계 김장생(金長生)이 천거하여 이조정랑을 지냈다.

아내 전주최씨 두(斗)의 딸은 정유재란 때 왜적에게 피살되었고, 후배는 경주이씨 우백(友栢)의 딸이다.

◆ 노돈효(魯敦孝)

본관 함평. 시조의 12세손. 목사 홍의(興義)의 아들. 방어사(防禦使)를 지냈으며 아내는 반남박씨다.

◆ 노동삼(魯東三)

1720~1792 본관 함평. 자 원서(元瑞).

호 경재(敬齋). 시조의 21세손. 속(涑)의 아들로 문학으로 이름 높았고 향도에서 여러 차례 천거하여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아내는 함평이씨 동길(冬吉)의 딸이다.

◆ 노득평(魯得平)

본관 함평. 시조의 9세손. 문과 급제 유안(有顔)의 아들. 1419년(세종 원년)에 문과(경연과-慶宴科)에 급제하여 예조정랑, 홍문관 응교(應敎), 장령, 사간(司諫)을 거쳐 의정부 사인(舍人)에 이르렀는데 단종의 폐위에 불복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여 월악에 정자를 짓고 북망통곡하니 사람들이 그 정자를 사인정(舍人亭)이라 불렀으며 그 유지(遺址)가 지금도 남아있다.

◆ 노 목(魯 穆)

함평노씨 시조(始祖). 생졸 년대는 미상이며 고려조에 삼가 현감(三嘉縣監. 현 경남 함천군에 있던 현)을 역임하였고 1126년 이자겸(李資謙)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랐으며 가수군(嘉樹君) 후에 함풍군(咸豐君 함평의 옛 이름)으로 이봉(移封)되었고 공신록을 하사받았다. 이

에 후손들이 본관을 함평으로 하였다.

묘는 삼가현 북면 시죽전(矢竹田, 합천군 봉산면 대평-大坪)이라 기록되어 있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 주택 조사통계에 의하면 그의 후손이 전국에 6,125 가구 25,582명이 살고 있다.

◆ 노몽필(魯夢弼)

본관 함평. 시조 목의 아들. 고려조에 전 중내급사(殿中內給事)를 역임하였으며 묘소가 광주(廣州)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전하였다.

◆ 노몽호(魯夢虎)

본관 함평. 시조의 14세손. 부사과 회명(懷明)의 아들. 성균관진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서흥(瑞興)김씨다.

◆ 노사관(魯思寬)

본관 함평. 다른 이름 석관(碩寬). 시조의 11세손. 장사랑 안서(安恕)의 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영암군 금정면으로 이거 정착하여 함평노씨 영암군 입향조가 되었다.

◆ 노사민(魯思敏)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정랑 안충(安忠)의 맏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정랑을 지냈으며 증조 유안(有顔)으로부터 4세에 내리 문과에 급제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아내는 김씨다.

◆ 노사성(魯思聖)

1612~1675 본관 함평. 자 희급(希級). 호 죽헌(竹軒). 시조의 18세손. 정랑 덕원(德元)의 맏아들. 병자호란 때 두 동생과 함께 창의하여 전주에 이르렀을 때 강화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한 후 돌아와 임천에 묻혀 살았다. 아내는 면성(綿城)박씨다.

◆ 노사종(盧嗣宗)

본관 광산. 시조의 25세손. 대방(大方)의

아들. 증중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직장, 동래부사,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다. 아내는 경주이씨 현감 영배(永培)의 딸이다.

◆ 노사주(魯思周)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정랑 안충(安忠)의 둘째 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아내는 김씨며 화순의 능주로 이거하여 함평노씨 화순군 입향조가 되었다.

◆ 노상지(盧尙枝)

1461~1547 본관 광산. 자 자양(自陽). 만의 20세손. 과의교위(科毅校尉) 언과(彦果)의 아들. 성종 때 어회장군 행(行) 의흥위 호군(義興衛護軍)을 지냈으며 1490년경 아들 극창과 함께 광주시 우치에서 나산면 송암리 송계로 이거하였다. 아내는 보성김씨 병절교위 보남(寶男)의 딸이다.

◆ 노석남(盧石男)

1504~1562 본관 광산. 만의 22세손 극창의 둘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상산김씨 덕신(德信)의 딸이다.

◆ 노성니(魯省尼)

?~1592. 임진왜란 때 금산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 노성안(魯成顔)

본관 함평. 시조의 8세손. 신(愼)의 맏아들. 기장(機張)현감을 지내다가 함길도(咸吉道) 행궁의 시종을 자청하여 봉직하다가 타계하였다. 아내는 예천(醴泉)서씨 이며 묘는 나주시 문평면 마전동(麻田洞) 후록에 있다.

◆ 노성연(盧成連)

1421~? 본관 광산. 만(蔓)의 19세손. 진사 구경(九經, 1421년생) 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1470년경 광주의 우치에서 월야면으로 이거 정착하여 광산노



씨 합평 입향조가 되었다.

◆ 노성지(魯誠之) .

본관 합평. 시조의 12세손. 대호군 흥도(興道)의 아들. 성균관생원을 지냈으며 아내는 고양기씨(高陽奇氏)며 묘는 대동면 금곡리 마당골에 있다.

◆ 노세기(魯世麒)

본관 합평. 시조의 9세손. 현감 성안(成顔)의 아들. 성균관진사, 장락원정(掌樂院正)을 지냈다.
나주시 문평면으로 이거하여 합평노씨 나주 입향조가 되었다.

◆ 노세린(魯世麟)

본관 합평. 시조의 9세손. 생원 희안(希顔)의 아들.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용강현령(龍岡縣令)을 지냈다.

◆ 노세탁(魯世鐸)

1810~1860 본관 합평. 자 군집(君執). 호 기은(箕隱). 시조의 24세손. 재익(在益)의 둘째 아들로 효심이 지극하였고 어머니의 병환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에 넣어 드려 3일간 연명케 하였으며 효로 동몽교관을 제수받았다. 아내는 무안박씨 창정(昌鼎)의 딸이다.

◆ 노세홍(魯世弘)

본관 합평. 시조의 13세손. 방어사 돈효(敦孝)의 맏아들 가선대부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지냈으며 학교면 북천리에서 고창군 상하면으로 이거 정착하여 합평노씨 고창군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전주리씨다.

◆ 노수홍(魯洙鴻)

1800~1875 본관 합평. 처음 이름 계원(槩源). 자 중평(仲平). 호 호은(湖隱). 시조의 24세손. 명신(命臣)의 양아들. 생부 상신(商臣). 씨족간의 돈목은 물론 굶주리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 행의(行誼)로

이름이 높았으며 이 사실이 무안, 합평지에 실려 있다.

아내는 파평윤씨 향(洸)의 딸, 의성김씨 대원(大源)의 딸이다.

◆ 노시(盧 僊)

본관 광산. 만의 20세손. 합평 입향조 통덕랑 성연(成連)의 아들. 연산조에 첨사(僉使)를 지냈다.

◆ 노신(魯 愼)

1336~? 본관 합평. 첫 이름 철(哲). 호 귀은(歸隱) 또는 악은(岳隱). 시호 무열공(武烈公). 시조의 7세손. 여희(汝姬)의 아들. 공민왕 초에 음사로 감무(監務. 조선조의 현감과 같은 직책)에 배명되고 이어 정윤상호군(正尹上護軍)을 역임했는데 마음이 곧고 일에 거짓이 없어 조정에서 유능한 관리로 여겼다.

1359년(공민왕8) 홍건적이 모거경(毛居敬)을 장수로 침입하여 의주, 서경(西京. 평양)을 빼앗고 왕이 복주(福州)에 피신함에 이성계(李成桂), 안우경(安遇慶)과 함께 적과 싸워 적장 사유관(沙劉關)을 비롯 많은 적병을 사살하는 공을 세우고 난을 평정, 1등공신에 올랐으며 1360년 김용(金鏞)의 난 때는 경성을 수복한 공으로 1등공신에 책록되고 함풍군(咸豐君)에 봉작되었다. 이태조(李太祖)가 등극하자 그는 40명의 동지와 보봉산(寶鳳山) 아래서 관복을 벗고 두문불출하였다.

판서 김충한(忠漢)이 남원으로 귀양감에 오히려 부럽다는 시를 부치고 민농은(閔農隱)에게도 글을 보낸 뒤 채읍인 합평으로 돌아와 월야면 월악리에 거주하였는데 “철(哲)”이라는 처음 이름을 “신(愼)”으로 고쳐 “신종(愼終)”의 뜻을 표했고 처음의 호인 “귀은(歸隱)”을 “악은(岳隱)”으로 고쳐 송악(松岳)을 잊지 않으려 했고 매월 한 번씩 송도 쪽을 향해 곡배 하였다.

그가 타계하자 조정에서 시호를 내렸고 수찬 방귀온(房貴溫)이 행장을 지었으며 개성의 경현사(景賢祠), 나누시 문평의 거평사(居平祠), 무안군 해제면의 학산사(鶴山祠), 영암군 서호면의 관봉사(冠峰祠)에서 배향하였다. 묘는 월악에 있다고 하였으나 실전하고 1960년에 아들 유안(有顔)의 묘소를 새로 꾸미면서 좌상편에 설단 하였다.

◆ 노신성(魯信聖)

1615~1683 본관 함평. 자 희준(希俊). 호 송와(松窩). 시조의 18세손. 덕원(德元)의 둘째 아들. 형 사성(思聖)과 아우 유성(有聖)과 함께 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전주에 이르렀을 때 강화가 성립되어 귀향하였고 평생 죄인을 자처하며 살았다. 장락원정(掌樂院正)을 증직하였다. 아내는 선산김씨 우회(友會)의 딸이다.

◆ 노안충(魯安忠)

본관 함평. 시조의 10세손. 사인 득평(得平)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김씨다.

◆ 노언명(盧彦明)

1524~? 본관 광산. 자 여명(汝明). 시조의 26세손. 한성판윤 사종(嗣宗)의 아들. 사복시정(司僕侍正)을 지냈으며 아내는 진주강씨 극문(克文)의 딸이다.

◆ 노여희(魯汝姬)

본관 함평. 시조 목(穆)의 6세손. 창문(彰文)의 아들. 고려조에 진사과에 합격하였고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을 지냈고 사후 동지추밀원부사(同知樞密院副使)에 추증되었다.

◆ 노연단(魯淵壇)

1829~? 본관 함평. 자 원행(元行). 시조의 25세손. 영택(榮宅)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하였고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 상에 6년간 시묘살이를 하

였으며 향토에서 번갈아 천하였다. 아내는 경주정씨, 양성이씨 명구(明九)의 딸이다.

◆ 노영(魯榮)

본관 함평. 시조의 13세손. 정랑 중손(仲孫)의 맏아들. 음사로 장사랑이 되어 통정대부 고창훈도(高敞訓導)를 지냈다. 묘가 함평읍 진양리 대진마을 뒷산 동쪽 기슭에 있는데 이 묘로 보아 그를 대략 1500년경에 대진에 정착한 입향조로 보고 있으나 그의 상대 묘가 모두 실전되어 대진의 입향조는 상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 아내는 밀양박씨 현감 형산(亨山. 함평읍 옥산리 출신)의 딸이다.

◆ 노영덕(魯榮德)

1817~1868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종석(宗奭). 자 대집(大集). 호 매곡(梅谷). 시조의 24세손. 이채(頤采)의 아들. 성균관 생원을 지냈으며 아내는 창녕 창(昌)씨 계강(啓綱)의 딸이다.

◆ 노영렬(魯榮烈)

1832~1876 본관 함평. 처음 이름 봉렬(奉烈). 자 태서(泰瑞). 시조의 24세손. 이해(以楷)의 아들로 함평노씨 보첩에, “아버지의 병환에 엄동설한임에도 설단(設壇)을 하고 하늘에 완쾌되기를 빌었는데 두 마리의 노루가 나와 목놓아 울자 어름을 깨고 두 마리의 잉어가 솟아올랐다. 이 잉어를 고아드려 여러 달 연명하였으며 돌아가시자 3년간 시 묘를 살았다. 그가 타계하자 3년간 묘동(墓洞)에 하얀꽃이 피었으며 이에 마을 사람들이 ‘노효동(魯孝洞)’이라 불렀고 누차 효천되어 1892년 정려가 내렸다”라고 기술되어있다. 아내는 언양김씨 수해(壽海)의 딸이다.

◆ 노영석(盧永錫)

1673~1746 본관 광산; 처음 이름 영석



(永碩). 자 호여(浩汝). 호 영상(嶺上).
시조의 26세손. 호자 진영(震榮)의 아들.
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김씨 진사 시규(時圭)의 딸이다.

◆ 노영식(魯榮植)

1792~1871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영조(榮祖). 자 명집(命集). 호 만회(晩悔).
시조의 24세손. 석채(碩采)의 맏아들.
맹자에 달통하여 별호를 노맹자라 하였으며

1867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871년 1월에 통정대부로 가자되고, 3월에 기노사에서 공조참판을 특별가자(加資)하였으며 12월에 별세하였다. 아내는 수원최씨 치환(致煥)의 딸이다.

◆ 노영훈(魯榮勳)

1807~1858 본관 함평. 호 석천(石泉).
시조의 24세손. 효채의 셋째 아들.

한 때 청운의 뜻을 품고 과거에 응시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수신제가하여 사람된 본분을 다할 것을 결심했다.
두형들과 협심하여 부모를 섬기고 논밭을 일구며 여가에 학문을 닦았다.

성인이 되어 가정 형편상 앞마을 장동(壯洞)으로 분가했는데 사친(思親)의 정에 색다른 음식을 보면 본가로 가져와 부모께 드렸고 아침 저녁 문안을 거르지 않았다. 그래서 두 마을사이에 있는 산에 새길이 생겼다. 40세 되던 해 어머니가 별세하자 외로운 아버지를 위로하고 즐겁게 해드렸는데 집으로 모시면 형들이 모셔가고 모셔갈 때마다 3형제가 몸소 가마를 매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사후 나라에서 효행과 학문을 가상히 여겨 동몽교관을 내리고 효자각을 세우라 하명하였다.

유고 “석천집(石泉集)”이 있으며 1890년 학교면 복천리 장동 마을 앞에 효자각을 세웠다. 아내는 평택임(林)씨 우배(宇培)의

딸이다.

◆ 노옥남(盧玉男)

1510~1565 본관 광산.자 중보. 만의 22세손. 극창의 셋째 아들로 성균관생원에 합격하였다. 아내는 청주한씨다.

◆ 노원손(盧元孫)

본관 광산. 만의 21세손. 한성판윤 길상(吉祥)의 맏아들.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 노원혁(魯元赫)

본관 광산. 만의 22세손. 한성판윤吉祥의 둘째 아들. 선조조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옥구현령(沃溝縣令)을 지냈으며 아내는 순흥안씨 사필(思弼)의 딸이다.

◆ 노유성(魯有聖)

1621~1698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인성(仁聖). 자 희길(希吉). 호 서은(西隱).
시조의 18세손. 정랑 덕원(德元)의 셋째 아들, 형 사성, 유성과 함께 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전주에 이르렀을 때 강화가 성립되어 귀향하였고 1654년(효종 5)에 복별을 고대하는 상소와 함께 군량으로 100석을 나라에 바치니 효종이 기뻐하며 중림찰방(重林察訪)을 제수하였다. 대동면 향교리고시에서 무안군 해제면으로 이거하여 정착했다. 아내는 함평이씨 홍상(弘祥)의 딸이다.

◆ 노유안(魯有顔)

1374~? 본관 함평. 시조의 8세손. 신(愼)의 셋째 아들. 1398년(태조 7)에 문과 급제하여 호당 한림학사(湖堂 翰林學士), 사헌부 집의, 오위도총부 부총관(副摠官)을 지냈다.

묘는 월악에 있다하였으나 실전하였는데 1960년 마을 사람들의 전설을 기초로 탐문 조사한 결과 발견하여 봉분을 다시 쌓았다.

◆ 노인후(魯仁厚)

본관 함평. 시조 목(穆)의 손자. 몽필(夢弼)의 아들. 고려조에 장원하였으며 예부원의랑(禮部員外郎)을 거쳐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으며 판예부상서좌복사(判禮部尙書 左僕射)로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에 이르렀고 묘소는 .광주(光州) 선고묘 좌록(左麓)에 있다고 하였으나 실전하였다.

◆ 노정안(魯廷顔)

1531~1586 자 자겸(子兼). 시조의 15세손. 계공랑 팽령(彭鵠)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하음봉씨(河陰奉氏)다.

◆ 노중손(魯仲孫)

본관 함평. 시조의 12세손. 정랑 사민(思敏)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회령도호부사(會寧都護府使)를 지냈다. 아내는 문화유(柳)씨 감찰 준(俊. 감사 수강-壽剛-의 아들)의 딸이다

◆ 노진영(盧震榮)

1627~1703 본관 광산. 자 자인(子仁). 호 문재(文齋). 시조의 25세손. 찬원(贊元)의 셋째 아들. 어머니의 병환에 마을 앞 구산의 장암(場岩)위에 단을 쌓고 밤이면 하늘에 축원함에 머리에 가득히 서리가 가득하였다. 정조때 예조에서 천하여 승정원좌승지를 증직하였다. 아내는 진주강씨 응망(應望)의 딸이다.

◆ 노찬백(魯纘伯)

1739~1815 본관 함평. 자 성술(聖述). 호 포은(圃隱). 시조의 22세손. 윤대(胤大)의 맏아들. 예서(禮書)에 밝았으며 아버지 상에 3년간 시묘를 살았고 향도에서 여러번 천거하였으며 사후 사복시정(司僕侍正)을 증직하였다. 아내는 대구배씨 계택(啓澤)의 딸이다.

◆ 노찬원(盧贊元)

1579~1642 본관 광산. 자 찬서(贊瑞). 시조의 24세손. 통덕랑 대수의 둘째 아들. 인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 절충장군 용양위 부사직(副司直)에 올랐고 정조때 장악원정(掌樂院正)으립 증직되었다. 아내는 김해김씨 좌랑 몽웅(夢熊)의 딸이다.

◆ 노창문(魯彰文)

본관 함평. 시조 목(穆)의 5세손. 관도(貫道)의 아들. 고려조에 중정대부(中正大夫)로 전객령 밀직사사(典客令密直司事)를 지냈다. 아내는 나주손씨로 아버지는 유백(遺白), 외할아버지는 한남백 왕기(漢南伯王杞)다. 사위는 광산김씨 화평부원군 충숙공 김 심(忠肅公 金深)으로 심의 아버지는 문숙공 주정(文肅公 周鼎)이다.

◆ 노철남(盧鐵男)

본관 광산. 만의 22세손. 광주목사 극창(克昌)의 맏아들.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 노철수(魯哲秀)

1531~1609 본관 함평. 자 군준(君濬). 호 지은(芝隱). 시조의 16세손. 겸(謙)의 아들로 효성이 출천(出天)하였다. 67세 때인 1597년 정유재란 8월 4일에 아버지가 91세로 별세하자 시묘살이를 하는데 왜적이 쳐들어왔다. 이 때에 큰 새가 수없이 날아와 여막을 에워싸며 날아 화를 면했으며 여묘를 마치기까지 3년간 새의 보호가 계속되었다.

이 까닭에 사람들이 “노지은치(魯芝隱峙)”라 불렀으니 지금의 “노치(魯峙)”다.

1607년 어사 한준겸(韓浚謙)이 장계하여 특별히 순릉참봉에 제수하였으나 불취하였고 수직(壽職)으로 첨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아내는 광산김씨 나수(羅受)의 딸, 그리고 김해김씨인데 김해김씨는 정유재란



때 어린이 두 명과 함께 대천(大川)으로 피하였다. 때에 남편이 여막에서 왜적에게 살해되었다는 잘못 전해진 소식을 듣고 혼자서 살아서 무엇하느냐며 물속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이 사실이 함평지에 실려 있다.

◆ 노철수(盧澈秀)

본관 광산. 자는 영일(瑩一). 호 백천(百泉). 예학에 더욱 밝아 몸소 실천하며 세속을 다스렸으며 유고가 있다.

◆ 노충복(盧忠復)

본관 광산. 시조의 23세손. 남원부사 극창(克昌)의 손자. 진사 철남(鐵男)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을 지냈으며 나산면 송암리에서 전복 고부(古阜)로 이거하였다.

◆ 노태신(魯泰臣)

1752~1828 본관 함평. 자 원직(元直). 호 육영재(育英齋). 시조의 22세손. 중삼(重三)의 넷째 아들. 성정이 강직하고 엄하였으며 문장 또한 뛰어났다. 육영재를 지어 인근 어린이는 물론 문중의 인물을 기르는데 온 힘을 쏟았다. 아내는 김해김씨 응일(應日)의 딸, 화순오씨 석주(碩周)의 딸이다.

◆ 노팽홍(魯彭鴻)

자 희망(希望). 호 금곡(錦谷). 시조의 14세손. 참봉 권(權)의 둘째 아들. 성균관진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화순오씨 계삼(啓三)의 딸이다.

◆ 노 허(魯 栩)

1545~1581 본관 함평. 자 극화(克和). 시조의 15세손. 희찬(熙纘)의 셋째 아들. 그는 갓난아기 때 어머니를 여의고 자랐는데 서모(庶母)를 섬기기를 친어머니 같이 하였으며 눈보라가 치는 추운 날에도 방죽 얼음을 두들겨 깨고 잉어를 잡아 어버이를 봉양하였고 아버지가 중병에 들어 사경을

헤맬 때 혈지(血指)로써 희생케하여 40년을 더 사시게 하였다. 또 춘궁기를 맞아 끓일 양식이 없어 갓 나온 보리 모개를 만지며 울었는데 어인 일인지 일찍 여물이 들어 위급을 면한 일이 있다. 부모님께 드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불귀의 객이 되었으며 이 소식이 나라에 전해져 1636년 정려를 세우라는 은전이 내렸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함평읍 진양리 대진(大津, 하느리)마을 앞에 효자각이 있다.

◆ 노현충(盧顯忠)

본관 광산. 시조의 23세손. 현령 원혁(元赫)의 아들. 성균관진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성주이씨 명성(命成)의 딸이다.

◆ 노형탁(魯亨鐸)

1879~1909. 3. 7 본관 함평. 자 황숙(黃淑) 시조의 26세손. 재범(在範)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하였다. 1906~1907년까지 김태원 의병부대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1909년 3월 7일 무안군 일로 싸움에서 중과부적으로 순국하였다. 아내는 수성최씨 윤조(潤操)의 딸이다.

◆ 노 홍(魯 弘)

본관 함평. 시조의 15세손. 자 관중(寬仲). 진사 몽호(夢虎)의 아들. 전략장군 부장(部將)을 지냈다. 아내는 양성이씨 정랑 수의(守義)의 딸이다.

◆ 노회명(魯懷明)

본관 함평. 시조의 13세손. 대호군 성지(誠之)의 아들. 내금위 보공장군 부사과(副司果)를 지냈으며 아내는 남양반(潘)씨다.

◆ 노회성(魯懷誠)

본관 함평. 자 명지(明之). 호 경모재(敬慕齋)시조의 13세손. 구산(邱山)의 아들로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창녕조씨다.

◆ 노흥국(魯興國)

본관 함평. 시조의 19세손. 일성(一聖)의 넷째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함평 모씨 현감 세번(世番)의 딸이다.

◆ 노흥도(魯興道)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사인 인호(仁浩)의 둘째 아들. 중직대부 용양위 대호군(大護軍)을 지냈다.

◆ 노흥례(魯興禮)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사인 인호(仁浩)의 셋째 아들. 통훈대부 소강절제사(所江節制使)를 지냈다.

◆ 노흥의(魯興義)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봉사 인호(仁浩)의 맏아들. 통정대부 공주목사(公州牧使)를 지냈으며 아내는 청주양(梁)씨다.

◆ 노 희(魯 喜)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원기(元機). 시조의 15세손. 진사 팽홍(彭鴻)의 맏아들. 호조정랑(戶曹正郎)을 지냈고 아내는 기계유(兪)씨 호인(好仁)의 딸이다.

◆ 노희운(魯熙胤)

본관 함평. 자 달승(達承). 호 기호(箕湖). 시조의 14세손. 훈도 영(榮)의 아들로 성균관진사를 지냈으며 대동면 고시로 이거하여 그 후손이 번성했다. 아내는 함평이씨 판관 흥지(興枝)의 딸이다.

◆ 노희찬(魯熙贊)

1513~1602 본관 함평. 자 언승(彦承). 호 괴정(槐庭) 시조의 14세손. 훈도 영(榮)의 아들로 1549년 생원시에 입격하였으며 묘는 옥산리 산 47 번지에 있다. 아내는 순천박씨 부사직 정(澄)의 딸이다.

◆ 모 경(牟 慶)

?~1143. 함평모씨 시조. 시호 충정(忠正). 고양씨(高陽氏)의 먼 후손. 송나라에서 태어났으며 원부(元符) 때(1098~1100) 병부상서(兵部尙書)로 호북경서 선무사(湖北京西 宣撫使)를 겸직하던 중 금(金)나라 양(亮, 제4대왕)이 임안(臨安) 땅을 쳐들어오자 3만 군대로 애산(崖山)에서 무찔러 승전하였다.

1124년 휘종(徽宗)의 명에 의해 고려에 사신으로 와 있던 중 1126년 이자겸(李資謙)의 난이 일어났고 그는 본국의 재상 정지상(鄭知常)과 협의하여 난을 평정하였으며 이 공으로 고려에서 벽상(璧上) 1등공신에 평장사를 제수했다.

같은 해인 1126년(송 정강-靖康-원년)에 흙중(欽宗)이 그를 대사마 대장군(大司馬大將軍)으로 승진시켜 홍농후(弘農侯)에 봉했으나 그가 귀국했을 때는 휘종, 흙중이 금군에게 사로 잡혀오국성(五國城, 지금의 함경북도 북단)을 돌아 금나라 서울로 압송되던 중이었다. 1127년(송 고종 원년)에 고려의 힘을 빌려 두 황제를 구하라는 고종의 명을 받고 형부상서 양응성(形部尙書 楊應誠)과 함께 고려로 왔으나

고려가 금나라를 두려워하여 불응하자 양은 돌아가고 그는 머물며 간곡히 청하던 중 사신으로 온 장지충(張志忠)으로부터 두 황제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코자 했으나 고려 사람들의 안무(安撫)로 고려에 머물러 살기로 하였고, 인종(仁宗)은 그를 부마(駙馬)로 삼고 모평군(牟平君, 함평의 옛 이름)에 봉하였다. 묘는 해보면 상곡리 모평 뒷 임천산 간좌(林泉山 艮坐)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전하였다. 1409년(태종 9) 함평현과 모평현을 합해 함평현(咸平縣)을 만드니 후손들이 본관을 함평으로 하였다.

◆ 모 겸(牟 謙)

선조19년 1586~1635 본관 함평. 자 위백(爲伯). 호 서은(西隱). 절충장군 익룡의



아들. 우계 성혼의 문인이다. 부친상을 당하여 천리 분상(奔喪)을 하였으며 성리학에 몰입할 뿐 과거 할 생각을 버리고 오직 후진양성에 힘쓰고 시(詩)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으며, 합평 명륜당을 대화로 옮길 때에 유림을 선도하였기로 그 이름이 명륜당상량문에 실려 있다.

◆ 모경관(牟景觀)

1709~1782 본관 함평. 자 무숙(茂淑). 호 심재(心齋). 시조의 23세손. 성경(聖耕)의 둘째 아들로 1750년(영조26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직, 봉상시 판관, 제주목 판관 및 제주진관 병마절제도위, 통례원 좌통례를 지냈다. 아내는 현풍 곽중태(郭重泰)의 딸이다.

◆ 모경성(牟景成)

1674~1719 본관 함평. 자 경운(景雲). 시조의 22세손. 유명(有明)의 맏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선무랑 군자감 판관을 지냈다. 아내는 연안김씨 딸이다.

◆ 모경직(牟敬直)

1513~1604 본관 함평. 자 자겸(滋兼). 시조의 16세손. 한성판윤 인(蔭)의 둘째 아들로 교동수사(喬洞水使)로 있다가 충남 홍주로 유배되었다가 유배가 풀린 후 정착하였다. 아내는 안동김씨다.

◆ 모계도(牟戒道)

1597~1649 본관 함평. 자 관일(貫一). 시조의 20세손. 극심(克謹)의 둘째 아들로 1640년 성균관진사, 문과에 급제하였다. 아내는 경주김씨다.

◆ 모계은(牟戒殷)

1601~1645 본관 함평. 자 상지(尙之). 시조의 20세손. 극심(克謹)의 넷째 아들로 주부(主簿)를 지냈다.

◆ 모계직(牟戒直)

본관 함평. 자 원지(元之). 시조의 20세손. 극심(克謹)의 다섯째 아들. 인조와 효종조에 경력, 첨정, 수사(水使)를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다.

◆ 모계하(牟戒夏)

1599~1638 본관 함평. 자 경지(敬之). 시조의 20세손. 극심(克謹)의 셋째 아들로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파평 윤백영(尹白永)의 딸이다.

◆ 모계현(牟戒賢)

1595~1656 본관 함평. 자 성지(聖之). 시조의 20세손. 극심(克謹)의 맏아들로 1634년 문과에 급제하여 경력, 참의를 지냈다. 아내는 보성 오동혁(吳東赫)의 딸이다.

◆ 모광정(牟光烜)

본관 함평. 자 광현(光炫) 시조 경(慶)의 아들. 1154년(고려 예종 8)에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부사(密直府事) 평장사를 지냈다. 아내는 함중임씨(咸從任氏) 시랑 정우(鼎佑)의 딸이다.

◆ 모국성(牟國成)

1679~1758 본관 함평. 자 성보(成甫). 시조의 22세손. 부사 유추(有秋)의 둘째 아들로 1733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호군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 이동수(李東秀)의 딸, 함평 노종주(魯宗周)의 딸이다.

◆ 모 규(牟 田圭) 규

1414~1481 본관 함평. 자 사헌(士憲). 시조의 12세손. 좌찬성 익천의 아들로 1432년 문과에 급제하여 개성윤(開城尹),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다. 아내는 밀양 박경홍(朴慶洪)의 딸이다.

◆ 모극심(牟克謹)

1574~? 본관 함평. 처음 이름 계남(啓南). 자 수천(秀千). 호 월담(月潭). 시조의 19세손. 정(禎)의 셋째 아들. 정유재란 때 아버지와 함께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며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고 난이 평정된 후 대동면 향교에서 충북 청주로 이거 정착하였다.

아내는 초계 변시영(卞時靈)의 딸이다.

◆ 모달겸(牟達兼)

1749~1821 본관 함평. 자 선보(善甫). 호 두암(蠹庵), 중심당(中心堂). 시조의 24세손. 좌통례 경관(景觀)의 맏아들. 1789년(정조 13년) 문과에 급제하여 경양(景陽)찰방, 1792년 성균관 전직, 1793년 봉상시 주부 1801년 사예(司藝), 1806년 직강, 사헌부 장령, 통례원 좌통례를 역임하고 3년간 제주도 대정현감을 지낸 후 귀향하였다.

아내는 나주 정 제(鄭悌)의 딸이다.

◆ 모대규(牟大奎)

1830~1899 본관 함평. 자 기서(琪瑞). 호 성효(誠孝). 시조의 25세손. 조년(祚年)의 둘째 아들로, 효행이 출중하여 아버지 상에 6년간 시묘를 살았으며 1947년에 효자비를 세웠다

아내는 창녕 조석운(曹錫雲)의 딸이다.

◆ 모방선(牟方善)

본관 함평. 자 익화(益化). 시조의 14세손. 목사 수진(受璉)의 둘째 아들로 1480년 성균관진사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광산김씨다.

◆ 모방양(牟方良)

1446~? 본관 함평. 자 양지(良之). 호 담락(湛樂). 시조의 14세손. 목사 수진(修璉)의 맏아들로 1470년 성균관진사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김해김씨다.

◆ 모방익(牟方益)

1454~1516 본관 함평. 일명 방현(方賢). 시조의 14세손. 목사 수진(受璉)의 셋째 아들로 1474년 성균관진사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달성 서순원(徐順元)의 딸이다

◆ 모변룡(牟變龍)

1544~1585 본관 함평. 자 응서(應瑞). 호 운암(雲菴). 시조의 18세손. 윤명(胤命)의 둘째 아들로 1560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호군을 지냈다. 아내는 서흥 김일청(金一淸)의 딸이다.

◆ 모서천(牟瑞天)

1672~1738 본관 함평. 자 성래(聖來). 시조의 21세손. 세빈(世彬)의 맏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경주 김시헌(金時憲)의 딸이다.

◆ 모세무(牟世茂)

1625~1693 본관 함평. 자 군성(君盛). 호 송계(松溪). 시조의 20세손. 겸(謙)의 맏아들로 1675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교검(校檢), 박사, 유곡찰방(幽谷察訪)을 지냈다. 아내는 이천 서정식(徐廷奭)의 딸이다.

◆ 모세번(牟世蕃)

1628~1695 본관 함평. 자 군식(君植). 호 죽계(竹溪). 시조의 20세손. 겸(謙)의 둘째 아들로 1669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직, 홍양현감, 상운찰방(祥雲察訪), 제주목 교수 등을 역임했다. 아내는 광산김씨다.

◆ 모세빈(牟世彬)

1630~1693 본관 함평. 자 군영(君永). 호 화계(華溪). 시조의 20세손. 겸(謙)의 셋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진사 김해 김종옥(金宗玉)의 딸이다.

◆ 모세인(牟世仁)



?~1636 본관 함평. 자 운집(雲集). 호 송곡(松谷). 시조의 17세손. 정자 웅걸(雄傑)의 아들로 사마시(司馬試)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전주리씨다.

◆ 모세택(牟世澤)

?~1418 본관 함평. 자 유행(由行). 호 송암(松菴). 시호 문열공(文烈公). 시조의 9세손. 평장사 시영(時靈)의 아들. 1360년 문과에 급제하여 군기시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이도은(李陶隱), 정포은(鄭圃隱), 길야은(吉治隱)과 도의의 교를 맺었으며 고려조가 망하자 두문동 여러 선비와 치제(致祭)한 후 벼슬을 버리고 임천산(林泉山)에 내려와 은거하였다. 이 사실이 동국문헌록에 있다. 아내는 팔계정씨(八溪鄭氏) 경중(敬重)의 딸이다.

◆ 모수남(牟秀南)

1575~1610 본관 함평. 자 경례(敬禮). 호 경현(敬軒). 시조의 19세손. 정(禎)의 아들로 1596년 문과에 급제하여 통훈대부에 올랐다. 아내는 서산 김용구(金用九)의 딸이다.

◆ 모수명(牟秀明)

1630~1705 본관 함평. 자 군실(君實). 시조의 20세손. 상신(尙新)의 아들로 현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용양위 호군(護軍)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 김인겸(仁兼)의 딸이다.

◆ 모수익(牟壽益)

1724~1780 본관 함평. 자 백양(伯陽). 시조의 23세손. 현감 옥성(沃成)의 맏아들로 1758년 통덕랑에 올랐다. 아내는 함평 이상규(李相奎)의 딸이다.

◆ 모수일(牟秀逸)

영조31년 1755~1830. 본관 함평. 자 화수(化秀). 호 은수(隱岫). 야은 창만의 아들. 지조가 청렴하고 언변이 명쾌하며 재

주가 탁이하여 문장이 저명하니 세인의 숭배를 받았다.

◆ 모수천(牟秀阡)

자 문옥(文玉). 본관 함평. 호 지정재(止靜齋). 시조의 11세손. 지간원 순(恂)의 아들로 1430년 성균관진사에 입격하였고 첨정을 지냈다. 후손이 경남 진주에서 세거한다. 아내는 삼군도총제 경주 김종행(金宗行)의 딸이다.

◆ 모 순(牟 恂)

1373~1459 본관 함평. 자 순지(恂之). 호 절강(截江). 시조의 10세손. 첨정 세택(世澤)의 맏아들로 모평현 모양리(牟陽里. 현 해보면 상곡리)에서 태어났으며 1396년 생원,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1417년(태종 17) 문과에 급제하였다.

문하주서(門下注書), 교감(校勘)을 거쳐 1427. 2. 29(세종 9) 거창현감에 제수되고, 1435. 2. 1 좌헌납(左獻納), 1439. 12. 18 사헌부 장령에 제수되고, 사인(舍人), 군기감정(軍器監正)을 역임하고 1443. 7. 7 대마도 체찰부사(對馬島 體察副使), 1444. 1. 12 사헌부 집의(執議), 동년 2월 7일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전제소 별감(田制所 別監), 회양부사(淮陽府使)를 지냈고, 1446. 2 수판사재감사(守判司宰監事)에 제수되는 등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자료 발췌〉

단종 폐위에 불복하고 귀향하여 임천산 아래 모양에서 은거하며 눈물지었으며 사육신이 화를 입은 후 체포되었다가 풀려나 경남 진주로 이거 타계하였다.

그는 충성심 뿐 아니라 효성도 지극하여 하루는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가는데 큰 비가 와서 냇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돌연히 비가 멎어 건널 수가 있었고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상여를 모시고 가는데 또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자 하늘을 우러러 외치니 비가 멎고 강물이 줄었다. 이리하여 그를 절강(截江)이라 불렀고 그의 호가 되었다.

이러한 말을 전해들은 세조가, “절강이라는 한 이름이 해동을 밝히고 종산(종산. 순이 살던 곳의 지명)의 한 머리칼이 수양산과 함께 푸르리라 <截江一名明於海東 鍾山一髮 首陽同青>”는 시를 지어 보냈다.

1531년(중종 26)에 정려의 은전이 내리고 덕천사(德川祠. 신광면 삼덕리 덕천 소재)에서 배향한다.

아내 지평 남양 이희(李僖)의 딸은 묘가 해보면 월양산에 있고, 대제학진양 정존(鄭存)의 딸은 진주 상사면 괘종산(掛鍾山) 갑좌 남편묘와 합장하였다.

◆ 모시경(牟時敬)

본관 함평. 시조의 8세손. 평장사 호(皓)의 둘째 아들. 135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영동정(令同正)을 지냈다.

◆ 모시영(牟時靈)

본관 함평. 자 중직(重直). 시조의 8세손. 평장사 호(皓)의 맏아들. 1335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전서, 평장사를 지냈다. 묘는 해보면 월양산 해좌에 있으며 아내는 안동권씨다

◆ 모여장(牟汝長)

본관 함평. 자 내윤(乃潤). 시조 경(慶)의 6세손. 진로(震老)의 아들. 1274년(고려 원종 15)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대아찬(大阿餐), 평장사를 지냈다.

묘는 경남 창녕의 용장사(龍藏寺) 뒷묘좌(卯座)에 있고 아내 여주이씨는 시중 만영(萬榮)의 딸이며 합장하였다.

◆ 모여절(牟汝節)

1684~1729 본관 함평. 자 운익(雲益). 시조의 23세손. 무과 급제 윤흥(潤興)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 김석필(金錫弼)의 딸이다.

◆ 모열진(牟烈鎭)

1832~1871. 본관 함평. 자 찬일(贊一). 호 졸와(拙窩). 금석당 유추의 후손. 유집(遺集) 1권이 있고, 통정대부 참찬(參贊)에 증직되었다.

◆ 모옥성(牟沃成)

1696~1756 본관 함평. 자 옥처(郁處). 시조의 22세손. 부사 유추(有秋)의 넷째 아들로 1930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금위전총(禁衛千總), 웅천제포(熊川濟浦) 만호, 고성현감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 이호덕(李好德)의 딸, 나주 정선보(鄭善甫)의 딸이다.

◆ 모웅결(牟雄傑)

본관 함평. 자 명해(名海). 호 죽은(竹隱). 시조의 16세손. 통정 형(亨)의 아들로 명종조에 교서, 정자(正字)를 지냈다. 아내는 김씨다.

◆ 모원기(牟元機)

본관 함평. 자 경승(京勝). 시조 경(慶)의 증손. 정린(挺麟)의 아들. 1215년(고려 고종 2)에 성균관진사, 이어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전서, 평장사를 역임했다.

아내는 경주이씨 시중 성보(聖輔)의 딸이며 묘소는 경기도 광주 북면 시랑동 손좌(巽坐)에 있고 합장하였다.

◆ 모유년(牟有年)

1627~1671 본관 함평. 자 화숙(化淑). 호 국포(菊圃). 시조의 21세손. 응록(應祿)의 맏아들로 우암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생으로 문무를 겸전하였으며 1658년 무과에 급제하여 사과, 전략장군 부호군을 지냈다. 아내는 밀양 박덕해(朴德海)의 딸이다.

◆ 모유영(牟有穎)



1652~1717 본관 함평. 자 영원(永元). 시조의 21세손. 응록(應祿)의 넷째 아들로 1680년 과의교위 사과(果毅校尉司果)에 올랐다. 아내는 창녕 조득창(曹得昌)의 딸이다.

◆ 모유추(牟有秋)

1637~1709 본관 함평. 자 영숙(永淑). 호 금석당(金石堂). 시조의 21세손. 응록(應祿)의 둘째 아들. 1662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1669년부터 청나라 연경에 네 번이나 서장관으로 다녀왔고 청나라 장수와 힘과 기(技)를 겨루어 언제나 이겼기에 청왕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았다. 1694년 사근(沙斤)찰방, 1699년(숙종 25) 양덕현감, 1701년 성천진관병마절제도위를 지냈으며 무과 급제 때 받은 어사화와 1709년과 그 이전에 그린 영정 2폭이 전해온다.

아내는 광산 김용린(金龍麟)의 딸, 광평 전호겸(廣平田好謙)의 딸, 전주 리동기(李東耆)의 딸이다.

◆ 모유하(牟有夏)

1648~1730 본관 함평. 처음 이름 명숙(明淑). 자 영은(永殷). 시조의 21세손. 응록(應祿)의 셋째 아들로 1676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副將), 선전관, 훈련원 주부, 해남도(海南島) 만호, 부산첨사, 부호군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 김귀옹(金貴翕)의 딸이다.

◆ 모운천(牟潤天)

1674~1735 본관 함평. 자 인원(仁元). 호 성암(省菴). 시조의 21세손. 세빈(世彬)의 둘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전주 리시우(李時雨)의 딸이다.

◆ 모운흥(牟潤興)

1655~1735 본관 함평. 처음 이름 희성(熙成). 자 윤경(潤卿). 호 석정(石汀). 시조의 22세손. 부사 유추(有秋)의 맏아들로

1676년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主簿)를 거쳐 통정대부에 올랐다.

아내는 금성 나봉익(羅鳳翊)의 딸이다.

◆ 모응기(牟應棋)

1602~1664 본관 함평. 자 응침(應添). 시조의 20세손. 문과 급제 수남(秀南)의 둘째 아들로 1629년 통덕랑에 올랐다. 아내는 함평이씨다.

◆ 모응록(牟應祿)

1599~1682 본관 함평. 자 성침(聖添). 호 구오재(九五濟). 시조의 20세손. 문과 급제 수남(秀南)의 맏아들. 1678년 기노사(耆老社)에 들어가고 동지중추부사(同之中樞府事)직에 제수되었다. 아내는 제주 양유택(陽有澤)의 딸, 인동 장춘조(張春祚)의 딸이다.

◆ 모응삼(牟應三)

1783~ 1837 본관 함평. 자 덕오(德五). 호 춘사(春史). 시조의 25세손. 장령 달겸(達兼)의 아들로 1814년 성균관 생원시에 장원 합격하였다. 아내는 함평 이진형(李鎭衡)의 딸이다.

◆ 모익룡(牟翼龍)

1541~1627 본관 함평. 자 응운(應雲). 호 화암(華菴). 시조의 18세손. 윤명(胤命)의 맏아들로 1556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 용양위 부호군, 두모포 만호(豆毛浦萬戶)를 지냈다. 아내는 금성나씨다.

◆ 모익천(牟益旰)

1392~1478 본관 함평. 자 중옥(仲玉). 호 월탄(月灘). 시조의 11세손. 지간원 순(恂)의 아들 1412년 문과에 급제하여 좌찬성(左贊成)을 지냈다.

◆ 모인(牟 蘭)

1482~1544 본관 함평. 자 파일(華一). 호 죽계(竹溪). 시조의 15세손. 방익(方益)

의 아들 1516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다. 아내는 부사 파평 윤화로(尹華老)의 딸이다.

◆ 모인후(牟仁厚)

1688~1760 본관 함평. 자 의집(義集). 시조의 23세손. 무과 급제 태성(泰成)의 둘째 아들. 1729년 통덕랑에 올랐다. 아내는 인동 장계한(長啓漢)의 딸이다.

◆ 모일성(牟一成)

1678~1747 본관 함평. 자 원서(元瑞). 호 석옹(石翁). 시조의 22세손. 부호군 유하(有夏)의 둘째 아들. 1705년 문과에 급제하여 부장(部將), 내첨시(內瞻侍) 주부, 언양현감, 진해현감, 김해진관절제도위, 원주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아내는 찰방 연안 차재문(車載文)의 딸, 진사 이천 서영현(徐永鉉)의 딸이다.

◆ 모 정(牟 禎)

1551~1598 본관 함평. 자 국포(國圃). 호 덕암(德巖). 시조의 18세손. 문과 급제 학영(鶴泳)의 아들로 충성심이 남달리 강하였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주위에 의분과 적개심을 불러 일으킨 후 “모두들 나라를 구하러 가자.”고 호소 의병을 모집하고 집안의 노복들을 모두 참여시켜 전투부대를 편성 한 후 “소의장군(沼義將軍)”이라 부르게 하고 대동의 교항을 출발 동으로 진군하여 순천의 예교(曳橋)에서 적을 만나 지략과 용맹으로 일격에 적을 쳐부수고 거제 지방에 이르어 여러 번 큰 싸움에서 이겼다. 나라에서 전공을 치하하여 군기감 참봉을 제수했으며 1598년 아깝게 전사하였다. 후일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군수 수원 백상운(白祥雲)의 딸이다.

◆ 모정린(牟挺麟)

본관 함평. 자 천로(天露). 시조 경(慶)의

손자. 광정(光烜)의 아들. 1182년에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전서(典書), 삼중대광 보국광록대부 문하시중(三重大匡輔國光祿大夫門下侍中)을 역임했다. 아내는 평강채씨 인지(仁智)의 딸이다.

◆ 모진권(牟進勸)

1501~1587 본관 함평. 자 부인(夫仁). 호 운곡(雲谷). 시조의 16세손. 난(蘭)의 맏아들로 1541년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청주한씨다.

◆ 모진로(牟震老)

본관 함평. 자 도유(道儒). 시조 경(慶)의 5세손. 원기(元機)의 아들. 1241년(고려 고종 28)에 문과에 급제하여 전서, 시중을 지냈다. 아내는 함양박씨 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 원규(元揆)의 딸이며 묘소는 함평읍 수호리 수산 중록(水山 中麓)에 있고 합장하였다.

◆ 모태산(牟泰山)

1510~1600 본관 함평. 처음 이름 경성(敬性). 자 신겸(信兼). 호 지곡(智谷). 시조의 16세손. 한성판윤 인(蘭)의 맏아들. 1532년 문과에 급제하여 선무랑을 지냈다. 아내는 첨정 연일 정필(鄭泌)의 딸이다.

◆ 모태성(牟泰成)

1666~1702 본관 함평. 자 태향(台鄉). 호 송은(松隱). 시조의 22세손. 부호군 유년(有年)의 맏아들로 1695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에 올랐다. 아내는 광산김씨 기려(起麗)의 딸이다.

◆ 모학영(牟鶴泳)

1529~1605 본관 함평. 처음 이름 환형(還亨). 자 내서(來棲). 지효재(至孝齋). 시조의 47세손. 선무랑 태산(泰山)의 아들. 1550년 문과에 급제하여 헌릉 참봉을 지냈으며 1600년 아버지가 91세로 병환 중일 때 똥 맛을 보아가며 치료하였고 손가



락을 찢고, 허벅지의 살을 베어 약으로 드리는 등 극진히 간호를 하였고 상을 당하여 70세의 나이에 3년간 시묘를 살았다. 시묘살이를 할 때 주위의 온갖 새들이 날아와 조의를 하였고 양 쪽에서 호랑이가 호위를 하였다고 족보에 기술하고 있다. 아내는 현감 평산 신수(申銖)의 딸이다.

◆ 모한영(牟漢榮)

1776~1848 본관 함평. 자 성옥(成玉). 호 야암(野菴) 시조의 25세손. 주진(周鎭)의 넷째 아들로 문행과 효성이 뛰어났고 문집이 간행되어 세상에 전한다. 아내는 상산 김후(金后)의 딸, 그리고 광산김씨다.

◆ 모형(牟亨)

본관 함평. 자 원일(元一). 시조의 15세손. 진사 방선(方善)의 아들. 1514년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를 지냈다. 아내는 달성서씨다.

◆ 모호(牟皓)

1265~1343. 본관 함평. 자 서숙(瑞淑). 호 충모재(忠慕齋). 시조의 7세손. 평장사 여장(汝長)의 아들. 1306년(충렬왕 32)에 문과에 급제하여 교관을 역임하고 그 직이 차차 올라 삼군도총제 부원수(副元帥)가 되었으며 원(元)나라 군사가 고려에 침입하자 부원수로서 원의 군사를 쳐부수고 나라를 평정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으며 이 공으로 평장사에 올랐다. 묘는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마갑산(馬甲山)에 있다. 아내는 김해김씨다.

◆ 문세(文世)

본관 남평. 선조 때 무과에 급제.

◆ 문경학(文慶鶴)

본관 남평. 고종 때 무과에 급제함.

◆ 문극경(文克慶)

본관 남평. 선조 때 무과에 급제

◆ 문명희(文命羲)

본관 남평. 1600년경 나산면 삼축리 분토동에 이거 정착하여 남평문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함평이씨 지번(技蕃)의 딸이다.

◆ 문주현(文周顯)

본관 남평. 순조 때 무과에 급제

◆ 박계손(朴繼孫)

1596~? 본관 밀양. 자 윤빈(允斌). 시조의 27세손. 선전관 의현(義賢)의 아들로 성균관생원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 추백(秋白)의 딸이다.

◆ 박광조(朴光祖)

?~1592 본관 밀양. 자 시영(市榮). 호 지봉(砥峯). 정랑 번의 아들. 1588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주부를 지냈다. 임진왜란에 아우 광종(光宗)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초토사 고경명(招討使 高敬命) 휘하로 들어가 금산 싸움에서 아우와 함께 전사하였다.

그의 부인 김씨가 두 명의 노비와 함께 그의 시체를 찾았는데 작은 종이 조각이 상투 속에 매여 있었다. 살펴보니 그것은 그가 손수 써넣은 성명이었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 박광종(朴光宗)

본관 밀양. 정랑 번(蕃)의 아들. 광조(光祖)의 아우. 임진란이 일어나자 형 광조와 창의하여 고경명의 휘하로 들어가 금산전에서 형과 함께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 박근(朴瑾)

1568~1592 본관 밀양. 자 도보(道寶). 호 남일재(南一齋). 시조의 24세손. 진사 대양(太陽)의 아들. 문무를 겸비하였

으며 임진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이끌고 거제도와 한산싸움에 참전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웠으며 금산으로 옮겨 고경명군과 합세하였는데 중과부적으로 진중에서 고경명과 함께 순국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고 충북 옥천사에서 배향한다.

◆ 박논선(朴論善)

1724~1796 본관 밀양. 자 영서(永瑞). 호 굴지당(屈指堂). 시조의 30세손, 성길(聖吉)의 아들. 문장이 뛰어났으며 의영고주부(義盈庫主簿)를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 성백(聖伯)의 딸이다.

◆ 박대양(朴大陽)

본관 밀양. 시조의 23세손. 생원 석주의 둘째 아들. 성균관생원, 진사에 입격하였으며 함평읍 수호리에서 장성군 삼계면 사창으로 이거 정착하였다. 아내는 안동권씨 승지 집일(集一)의 딸이다.

◆ 박대운(朴大雲)

본관 밀양. 시조의 23세손. 성균관생원 석주(碩柱)의 맏아들. 문장이 탁월하여 현종조에 어린 나이로 성균관생원,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함평이씨 습득 유(輶)의 딸이다.

◆ 박동근(朴東根)

1788~1834 본관 밀양. 호 계촌(溪村). 충신 이상(以祥)의 8세손.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여 잉어가 약이 된다하므로 엄동설한이나 못 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더니 얼음장이 갈라지고 잉어가 솟아올라 그 잉어를 잡아 봉양하니 병이 낫게 되어 모두들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기적이라고 하였다. 증손대에 까지 효열이 이어져 나라에서 정문이 내려 손불면 복성리 승선마을 앞에 삼강문을 세웠다. 정려의 은전이 내린 사람은 그의 맏아들 권문(權文, 1867~1887. 호) 둘째 손자 준엽

(準燁, 학행과 효행), 준엽의 아내 천안전씨(天安全氏, 1836~1911 호부), 준엽의 며느리 김해김씨(효와정절)다.

◆ 박만성(朴萬成)

1834~1884 본관 밀성. 자 순칠(順七). 시조 언상의 26세손. 담수(淡秀)의 맏아들로 도정(都正)을 지냈다. 아내는 천안 전상서(全相瑞)의 딸이다.

◆ 박만영(朴萬永)

1630~? 본관 밀성. 일명 취한(就漢). 자 사유(士裕). 시조 언상(彦祥)의 18세손. 우후 윤진(允鎭)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병조 좌랑을 지냈다. 아내는 진의이씨 언광(彦光)의 딸이다.

◆ 박문경(朴文景)

1632~1696 본관 밀양. 자 문숙(文淑). 시조의 28세손. 업(業)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용양위 부사과(副司果)를 지냈다. 아내는 김해김씨 순성(純聖)의 딸이다.

◆ 박 번(朴 蕃)

본관 밀양. 정랑을 지냈다.

◆ 박사현(朴嗣賢)

?~1592 본관 밀양. 호 운봉(雲峰). 군자관감을 지냈으며 임진란이 일어나자 자진하여 의병장 조현의 휘하에 들어가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청주싸움에서 전사하였고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 되었다.

◆ 박상경(朴尙敬)

1540~1597 본관 밀성. 자 이효(以孝). 호 오산(鰲山). 시조 언상(彦祥)의 16세손. 현감 사우(思愚)의 맏아들로 1580년대에 장성군에서 나산면으로 이거 정착했다. 정철(鄭澈)의 문하생이며 경학으로 천거되어 원제용감 참봉, 장락원 사평(司評), 낙안도찰방, 창평현령을 지냈으며 임진란에 창의하여 웅치(熊峙) 싸움에서 공을 세웠고, 정



유재란 때 광재우 막하에 들어가 10월 12일 화왕산성(火旺山城) 싸움에서 순절하였다. 이 사실이 “웅치일록” “설산동맹록(雪山同盟錄)”에 실려 있다. 아내 창녕 조씨는 아들 딸이 없으며 광산김씨는 장해(長海)의 딸이다.

◆ 박석빈(朴碩彬)

1702~? 본관 밀양. 자 관일(貫一). 호 용재(勇齋). 시조의 27세손. 민호(敏昊)의 셋째 아들로 함평에서 전북 운봉으로 이거 정착하였다. 1730년(영조 6)에 병절교위 용양위 부사과, 여절교위 훈련원판관, 부사직(副司直)에 올랐다. 이인좌(李麟佐)와 정희량(鄭希亮)이 반역하여 함양의 팔양치(八良峙)에 이르렀을 때 그가 본진영장 손명대(孫命大)와 같이 21명의 정예를 통솔하고 나아가 수천의 반역도를 포획하고 함양을 토평한 후 관군을 인솔하여 영남에서 개설했다. 이 사실이 국사와 운성지(雲城誌)에 실려 있다. 아내는 청도김씨 사과 필중(必仲)의 딸이다.

◆ 박석주(朴石柱)

본관 밀양. 시조 언침의 22세손. 성균관진사 세번(世蕃)의 아들. 중종 무인년(1518)에 성균관 상상(成均館上庠)으로 있다가 함평읍 수호리로 이거하여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후손이 아주 번창하였다. 아내는 장흥고씨 부사 자겸(府使自謙)의 딸이다.

◆ 박선규(朴善奎)

1788~? 본관 밀성. 자 대유(大有).

호 효우당(孝友堂). 무과 급제 필경(弼敬)의 아들. 효심이 깊었으며 1810년경 나주에서 엽다면 학야리 쌍촌에 이거 정착하여 밀성박씨 눌헌공파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으며 묘소는 나주시 문평면 신평리에 있다.

아내는 김해김씨다.

◆ 박성오(朴省吾)

본관 함양. 호 조양헌(朝陽軒). 병사(兵使)직을 역임하였고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훈에 책록되었으며 이괄의 난 때는 왕을 공주까지 호송하였다. 병자호란 때 왕이 남한산성에 피하자 그도 남한산성에 머물며 성 밖으로 나아가 청나라 군사와 여러번 싸워 장수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사후에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 박세빈(朴世彬)

1624~? 본관 밀양. 자 군겸(君兼). 시조의 27세손. 만호 의선(義善)의 맏아들로 무과 을과에 급제하여 병절교위(秉節校尉)를 지냈다. 아내는 대구배씨 선덕(善德)의 딸이다.

◆ 박수기(朴壽麒)

1545~1598. 본관 밀양. 호 남포(南浦). 김천일(金千鎰) 휘하의 의병으로 참전하여 진주성 싸움에서 공을 세웠으나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투신 자결하였으며 후에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 박승률(朴承栗)

1594~? 본관 밀양. 처음 이름 윤률(允栗). 자 경여(敬汝). 호 기현(箕軒). 시조의 29세손. 안민의 여섯째 아들. 1623년 인조반정의 화를 피해 경기도에서 대동면 연암리 수현으로 들어와 은거 정착하였다. 아내는 광산김씨 광옥(光玉)의 딸이다.

◆ 박 씨(朴 氏)

1717~1756 본관 순천. 호자 창석(昌碩)의 딸. 나주 정선중(鄭選中. 1716~1755. 시조의 20세손)의 아내로 천성이 단아하고 한결 같이 부인의 도리를 다하였다. 남편이 죽자 무자녀인 것을 한탄하였고 또 남편의 뒤를 따르는 것이 부도라고 생각하고 남편 소상에 제수를 돌보는 등 혼연히 소

상을 마치고 나서 의상을 단정히 하고 품에 돌을 안고 앞 샘으로 걸어 나가 투신 자결하였다.

1757년(영조 33)에 현감 이항조(李恒祚)가 보고하고 전라감사 이창수(李昌壽)가 장계하여 삼강문의 정려 포장이 내려지며 국조삼강록에 사실이 실렸다.

삼강문의 주인공은 임진란 충신 황수(鳳壽), 효자 봉징(鳳徵, 황수의 玄孫), 열부 순천박씨(황수의 5세손부)다.

1892년 무안의 월천에 세워진 삼강문이 후손의 이거로 돌보는 사람이 없어 퇴락한 것을 황수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송촌으로 이거하였고 겸하여 삼강문 곁에 정려문도 새로 세웠다.

◆ 박 씨(朴氏)

학생 서윤중(徐允仲)의 아내인데 지아버가 죽으매 상중의 예를 극진히 하였고 복을 마치게 되어서도 오히려 상복을 벗지 않았다. 어머니가 정절을 지키려는 뜻을 빼앗으려 하니 머리를 자르고 중이 되었고, 어머니가 죽으매 도로 머리를 길렀는데 나이가 벌써 68세였다.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서 정려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박 씨(朴氏)

학생(學生) 서중원(徐中元)의 아내인데 지아버가 범에게 잡혀가게 되자 범을 때려 쫓고 지아버를 구했으나 역시 범에게 다쳐서 곧 죽었다.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서 정려(旌閭)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박언후(朴彦後)

본관 무안. 임진란때인 1592년 7월 영동(永同), 황간(黃澗)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 진주성(晋州城)을 사수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남강(南江)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宣武原從功臣錄)에 책록되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 박언휘(朴彦徽)

1488~? 본관 무안. 1513년(중종 8)사마시 진사과에 입격하여 경릉(敬陵) 참봉을 지냈다.

◆ 박 엄(朴淹)

1704~? 본관 밀성. 처음 이름 시매(時邁). 자 윤길(胤吉). 시조 언상의 20세손. 부사 용조(龍祚)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광주 중군(廣州中軍)을 지냈으며 1720년대에 나산면에서 나주시 봉황면으로 이거 정착하였다. 아내는 광산김씨 상언(相彦)의 딸이다.

◆ 박용조(朴龍祚)

1674~? 본관 밀성. 일명 세룡(世龍). 자 이장(以章). 시조 언상의 19세손. 좌랑 만영(萬永)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철성부사(鐵城府使)를 지냈다. 아내는 광주(廣州)이씨 세성(世成)의 딸이다.

◆ 박원상(朴元祥)

1563~1597 본관 밀양. 처음 이름 언(彦). 자 득서(得瑞). 시조의 25세손. 참봉 수연(水淵)의 셋째 아들. 정유재란 때 방어사 정황수(鄭凰壽)를 따라 절영도(絶影島)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나타난 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였다. 아내는 광산김씨 경수(景秀)의 딸이다.

◆ 박윤진(朴允鎭)

1595~? 본관 밀성. 자 방실(邦實). 시조의 17세손. 현령 상경(尙敬)의 셋째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병마 우후(虞候)를 지냈다. 아내는 한산 이원량(李元良)의 딸이다.

◆ 박응주(朴應柱)

?~1592 본관 밀양. 자 무정(茂亭). 호 송암(松菴). 현감 춘(春)의 손자. 참봉 길손(吉孫)의 아들로 1586년 무과에 급제



하여 주부를 지냈다.

임진왜란에 금산으로 출전하여 많은 적을 참살하고 분전했으나 끝내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 박의남(朴義南)

1574~? 본관 밀양. 자 준여(俊汝).

시조의 26세손. 첨정 이상(以祥)의 맏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주부를 지냈으며 공신록에 오른 자손이라하여 도총부 도사(都事)에 특채하였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아내는 광산김씨 참봉 부행(副行)의 딸이다.

◆ 박의선(朴義善)

1578~? 본관 밀양. 자 경여(慶汝). 시조의 26세손. 첨정 이상(以祥)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익위사 만호(翊衛司萬戶)에 올랐으며 같이 등과한 민효선(閔孝善), 백경선(白慶善)을 이름 끝에 “선(善)”자가 붙었다하여 호남의 “삼선(三善)”이라 불렀다. 정유재란 때 순국한 아버지와 동생의 원수를 기필코 갚겠다는 맹세를 이루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나주나씨 현감 덕함(德咸)의 딸이다.

◆ 박의현(朴義賢)

1576~1598 본관 밀양. 자 충여(忠汝). 시조의 26세손. 첨정 이상(李祥)의 둘째 아들. 임진란이 일어나자 17세의 나이에 방어사 정황수(鄭鳳壽)를 따라 목포, 다경(多慶)싸움에서 공을 세우고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에 임명되었으며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순신 휘하로 달려가 적과 여러번 싸웠으며 노량해전에서 그도 순국하였고 선무원종 공신록에 올랐다.

아내는 이씨(李氏)다.

◆ 박이상(朴以祥)

1561~1597 본관 밀양. 자 득후(得厚). 환학정(喚鶴亭). 시조의 25세손. 참봉 수연

(水淵)의 아들. 1591년 무과에 합격하여 훈련원 주부를 역임했고 임진란을 당하여 의병 수십명을 모집하여 조방장 곽영(助防將郭嶸)을 도와 공을 세우고 이순신 군진으로 들어가 첨정(僉正)이 되었다. 정유재란에 이역기 군진에 들어가 온라도(溫羅島)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며 선무원종 2등 공신에 책록되었다. 아내는 직장 김자건(金自建)의 딸, 진주강씨 진사 숙(淑)의 딸이다.

◆ 박인화(朴麟和)

본관 무안. 현종조(憲宗朝). 자 평서(平瑞). 호 해산(海山). 진사 언휘의 후손. 재질이 뛰어나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고 경사의 이치를 탐구하여 향리의 인재를 길러 내니 사람이 추앙했다.

◆ 박지화(朴枝華)

본관 밀양. 정선(旌善)현감을 역임하였다.

◆ 박형산(朴亨山)

본관 밀양. 호 가천(佳川). 고창현감을 역임했으며 그의 호가 가천이어서 가동리(佳洞里)를 지금도 가천이라고 부르고 있다.

◆ 방덕린(房德麟)

본관 남양. 중종조(中宗朝). 자는 수운(秀雲). 호 상재(常齋). 학문과 행실이 가려 뽑은 듯 뛰어나고 필법(筆法) 또한 팔묘(八妙)하여 명종 병오 1546년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니 당나라 장수 심유경이 공의 풍모와 거동을 살펴보고 도사(道士)의 의관과 복대(腹帶)로써 예를 갖추어 증명하였다.

◆ 배 위(裴緯)

1558~? 본관 달성. 중조 현경(玄慶)의 22세손. 벼슬은 통덕랑 이었고 1590년경 장흥군 장전에서 신팡면 유천리에 이거 정착하여 달성배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 백술(白述)

1620~ 본관 수원. 자 자기(子記). 호 송파(松派). 중시조의 23세손. 유철(惟哲)의 아들. 문학과 행의가 뛰어났으며 1640년경에 장흥에서 손불면 학산리 지호로 이거하여 함평 입향조가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흥의 선산은 멀므로 손불면 장재동 호암등에 장사하고 3년 동안 예를 다하였다. 아내는 인동장씨다.

◆ 백흥재(白興載)

1687~1770 본관 수원. 자 흥보(興甫). 시조의 25세손. 유(流)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아내는 청주한씨 사망(士望)의 딸이다.

◆ 서간(徐諫)

1307~? 본관 이천. 자 우열(尤烈). 시조의 13세손. 사인 중계의 아들. 과거에 급제하여 병부시랑을 지냈다. 아내는 여산송씨 충원(忠元)의 딸이다.

◆ 서경개(徐景介)

1582~? 본관 이천. 자 현보(賢甫). 호 경재(敬齋). 중조의 10세손. 인(訥)의 아들. 1590년대에 아버지와 함께 무안에서 현 함평군대동면 금곡리 금곡으로 이거 정착하였고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역임하였다. 아내는 수원최씨로 예조정랑 진원현감을 지낸 희열(希烈)의 딸이다.

◆ 서경돈(徐敬惇)

1575~1633 본관 이천. 자 여진(汝震). 시조의 22세손. 참봉 대근(大謹)의 둘째 아들로 돈녕부 돈녕(敦寧)을 지냈으며 빈궁한 사람들을 널리 구제하였다. 아내는 기계 유응룡(兪應龍)의 딸이다.

◆ 서경인(徐景仁)

본관 이천. 중조 인의 10세손. 간(諫)의 둘째 아들. 명종조에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1570년경 무안에서 대동면 백호리로 이거 정착하였다. 아내는 무안박씨 참의 문룡(文龍)의 딸이다.

◆ 서경춘(徐景春)

1558~1630 본관 이천. 자 사원(士元). 중조의 10세손. 진사 간(諫)의 다섯째 아들이며 음사로 출사하여 사재감판사(司宰監判事), 병조좌랑을 지낸 후 명리를 버리고 향리에 돌아와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던 중 임진란이 일어났고 이어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노모의 허락을 받고 양곡과 군기를 싣고 서해를 통해 행재소로 가던 중 적을 만나 힘껏 싸우다 중과부적으로 포로가 되어 일본 대판성(大判城)으로 끌려가 영광의 강항(姜沆) 등과 함께 동고의 포로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절개를 지켜 적장 해위(海威)를 감동시켜 3년만에 강항, 박간(朴侃)과 같이 귀국하였으며 선무원종공신 2등훈에 책록되었다.

아내 광주이씨(廣州李氏)는 거(据)의 딸로 무손 조사(早死)하였고, 광산 김씨는 목사 덕숭(德崇)의 딸로 1남을 낳았으며 함평노씨(魯氏)는 2녀를 낳았다.

◆ 서국보(徐國寶)

1629~1658 본관 이천. 자 중경(重卿). 중조 인(麟)의 12세손. 영조(榮祖)의 둘째 아들로 선략장군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지냈다. 아내는 고흥 유계룡(柳啓龍)의 딸이다.

◆ 서국빈(徐國賓)

1632~1692 본관 이천. 자 흥경(興慶). 호 난파(蘭坡). 중조 인(麟)의 12세손. 영조(榮祖)의 셋째 아들. 미수 허목(眉叟 許穆)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678년에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며 동년 겨울에 선조조의 대학자 곤재 정개청(困齋 鄭介淸)의 서원에 사액(賜額)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12월 5일에 재가를 얻고 1679. 4.3에



자산서원(紫山書院)이란 사액이 내리고 치제(致祭)하게 되었다.

1681년에 성균관 전적(典籍)을 역임하였으며 아내는 과평 윤개업(尹繼業)의 딸이다.

◆ 서국주(徐國柱)

1618~1671 본관 이천. 자 백경(백경). 호 애일헌(愛日軒). 중조의 12세손.

윤조(胤祖)의 맏아들로 봉훈랑 도사(都事)를 지냈다.

아내는 함평 이상운(李祥雲)의 딸이다.

◆ 서기강(徐基江)

1688~1904 본관 이천. 자 성거(聖舉). 호 모헌(慕軒). 시조의 30세손. 봉관(鳳寬)의 맏아들로 기송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의금부 도정(都正)을 지냈다.

아내는 행주 기찬현(奇讚鉉)의 딸이다.

◆ 서대근(徐大謹)

1552~1597 본관 이천. 자 신립(新立). 호 죽천(竹泉). 좌랑 목(默)의 아들로 이율곡(李栗谷)의 문하생이며 조현과는 도의의 교를 맺었으며 장성 훈도, 현릉(顯陵) 참봉을 지냈다.

정유재란 때 함평의 기산성 수성장(守城將) 김전제를 도와 침입한 왜적과 힘을 다해 싸웠으나 성이 함락되고 수성장과 함께 그도 전사하였다.

◆ 서덕숭(徐德崇)

본관 이천. 선조조 무과에 급제하였고 통영성을 지키다 순국하였다.

◆ 서맹원(徐孟源)

1351~1521 본관 이천. 자 형원(亨元). 호 탁청재(濯淸齋). 시조의 15세손.

후상(後祥)의 맏아들로 찬성사(贊成事)를 지냈으며 1580년경 강진으로 이거하여 그 후손이 강진과 해남으로 번졌다.

아내는 함평이씨 지(芝)의 딸이다.

◆ 서 목(徐 默)

1520~1588 본관 이천. 자 평보(平輔). 호 효재(孝齋). 시조의 21세손. 찰방 인형(仁亨)의 아들로 이조 좌랑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 김세염(金世琰)의 딸이다.

◆ 서민국(徐敏國)

1763~1815 본관 이천. 자 선보(善甫). 호 효우당(孝友堂). 시조의 27세손.

치린(致麟)의 둘째 아들. 송성담(宋性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문행으로 정조 때 참봉으로 출사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고 난을 평정한 공으로 함풍군(咸豐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양정(襄靖)이고 고종조에 정려가 내려졌다.

아내는 영광 정필국(丁弼國)의 딸, 평산 신필흙(申弼欽)의 딸이다.

◆ 서봉관(徐鳳寬)

1839~? 본관 이천. 자 이행(仁行).

호 동강(東岡), 존성재(存誠齋). 시조의 29세손. 응록(應錄)의 아들로 최익현(崔益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기송사(奇松沙)와 친한 벗이며 성리학에 밝았다.

1880년에 장릉 참봉으로 출사하여 사헌부 지평, 승정원 좌승지를 거쳐 이조참판에 올랐으며 1894년 동학란 때 각 고을에 안정을 도모할 것을 권유하는 글을 보냈다. 사후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문충(文忠)의 시호를 받았으며 사림이 동강사(東岡祠)를 세워 배향하였다.

아내는 선산 김도련(金道鍊)의 딸이다.

◆ 서상기(徐相基)

1846~? 본관 이천. 처음 이름 상풍(相豐). 자 호경(浩卿). 호 쌍정(雙亭).

중조 인(麟)의 19세손. 성유(成儒)의 둘째 아들. 효행과 문학이 당세에 뛰어났으며 돈녕부 도정(都正)을 지냈다.

아내는 과평 윤의진(尹宜鎭)의 딸, 광주 이정회(李正會)의 딸이다.

◆ 서상지(徐尙志)

1623~1678 본관 이천. 자 자수(子守). 호 신재(新齋). 시조의 23세손. 경돈(敬惇)의 맏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 좌랑을 지냈다. 아내는 청송 심문민(沈文珉)의 딸이다.

◆ 서세방(徐世芳)

1538~? 본관 달성. 시조의 13세손. 사간원 헌납(獻納)으로 출사하다가 1589년 기축옥사에 환멸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서울에서 함평읍 가락리 구기산에 이거 정착하여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 서숙원(徐叔源)

1354~1407 본관 이천. 자 인숙(仁淑). 호 월암(月菴). 시조의 15세손. 후상(厚祥)의 둘째 아들로 음사로 출사하여 의정부 검상(檢詳), 사인(舍人)을 지냈다. 아내는 반남 박인왕(朴仁枉)의 딸이다.

◆ 서순지(徐順止)

1426~1480 본관 이천. 자 여장(汝長). 시조의 17세손. 목사 윤무(允武)의 아들로 사헌부 장령(掌令)을 지냈다. 아내는 담양 전종생(田種生)의 딸이다.

◆ 서언유(徐彦儒)

1804~? 본관 이천. 자 내홍(乃弘). 호 둔옹(遯翁). 중조 인(麟)의 18세손. 성영(聖榮)의 아들. 어머니가 겨울에 부종이 났는데 의원이 개구리가 치료약이라 이르자 눈을 헤치며 호곡하니 약으로 쓸 개구리가 나와 치료하였고 상을 당하여 3년간 죽을 먹으며 슬퍼하였다. 이 효행으로 동몽교관에 증직되었으며 아내는 제주 양회인(梁會寅)의 딸이다.

◆ 서윤무(徐允武)

1389~1452 본관 이천. 자 윤신(允信). 호 용곡(龍谷). 시조의 16세손. 사인 숙원

(叔源)의 아들로 상주목사(尙州牧使)를 지냈다. 아내는 충주 박인홍(朴仁弘)의 딸이다.

◆ 서윤옥(徐崙玉)

1822~1895 본관 이천. 처음 이름 진옥(振玉). 자 옥윤(玉允). 시조의 35세손. 몽현(夢賢)의 아들. 효행으로 이름 높아 현읍지, 삼강록, 환여승람에 이름이 실렸으며 1850년경 무안군 몽탄에서 해보면 금계리로 이거 정착하여 그 후손이 번창했다. 아내는 밀양박씨 진사 해룡(海龍)의 딸이다.

◆ 서인형(徐仁亨)

1490~1551 본관 이천. 자 대언(大彦). 호 기봉(奇峰). 시조의 19세손. 대언(顥)의 아들. 김모재(金慕齋)의 문하생이며 효로 천거되어 찰방(察訪)을 지냈다. 아내는 참봉 광산 김영년(金永年)의 딸이다.

◆ 서재대(徐載岱)

1705~1770 본관 이천. 자 중지(重之). 호 영일재(迎日齋). 중조 인(麟)의 15세손. 선취(善最)의 맏아들로 사복시정(司僕侍正)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 정봉의(鄭鳳儀)의 딸이다.

◆ 서전일(徐甸一)

1644~1720 본관 이천. 자 계백(啓伯). 시조의 24세손. 좌랑 상지(尙志)의 맏아들로 사과(司果)를 지냈다. 아내는 영광 정순조(丁詢祖)의 딸이다.

◆ 서전회(徐甸淮)

1654~1689 본관 이천. 자 이중(以仲). 시조의 24세손. 좌랑 상지(尙志)의 둘째 아들로 민노봉(閔老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효로 천거되어 지평(持平)을 지내던 중 1689년 서인 축출 때 오두인(吳斗寅), 박태보(朴泰輔)와 함께 투옥되고 불 고문가



지 당한 후 노랑에 유배되었는데 유배지에 도착하여 타계하였다.
아내는 남평 문호량(文好良)의 딸이다.

◆ 서주기(徐周基)

1839~? 본관 이천. 자 명신(命新). 호 야은(野隱). 증조의 19세손. 명유(明儒)의 양아들로 정릉 참봉으로 출사하여 중추원 의관(議官)을 지냈다. 아내는 금성 정태신(丁泰信)의 딸이다.

◆ 서중계(徐仲桂)

1269~? 본관 이천. 자 원지(元祉). 시조의 12세손. 기성군 회찬의 아들. 검교사인(檢校舍人)을 지냈으며 아내는 안동권씨 하주(夏周)의 딸이다.

◆ 서치상(徐致祥)

1809~1892 본관 이천. 자 응사(應士). 시조의 34세손. 호자 명선(明先)의 아들. 수직으로 용양위 부호군을 제수 받았으며 1830년경 영광군 군남에서 나산면 구산리로 이거 정착하여 그 후손이 나산면 일대에 퍼져 살고 있다. 아내는 화순오씨 도삼(道三)의 딸이다.

◆ 서통망(徐統望)

본관 달성. 시조의 14세손. 세방의 아들.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역임했다.

◆ 서 호(徐 顥)

1456~1524 본관 이천. 자 운호(雲浩). 시조의 18세손. 장령 순지(順止)의 아들이며 대언(代言. 승지-承旨-로 바뀜)으로 있다가 연산조의 혼정에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아내는 함안 박세광(朴世光)의 딸이다.

◆ 서후상(徐後祥)

1329~1409 본관 이천. 자 경심(敬心). 시조의 14세손. 시랑 간(諫)의 아들. 추밀원사(樞密院事), 이부시랑을 지냈다.

아내는 원주이씨 윤(允)의 딸이다.

◆ 서희찬(徐希贊)

1239~? 본관 이천. 자 희언(希彦). 호 기은(箕隱). 시조의 11세손. 중정대부선(瑄)의 아들. 학문을 좋아하였고 20세에 등과하여 이부시랑(吏部侍郎)을 지냈으며 홍문계(洪文繼), 송송례(宋松禮)와 함께 난을 토평한 공으로 기성군(箕城君)에 봉작되었다.

충렬왕 때 국정이 문란함을 보고 환멸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갈동면(현 월야면) 용월, 양정리 일대)으로 내려와 정착하였다. 아내는 여양진씨 감정 석룡(監正錫龍)의 딸이다.

◆ 손 술(孫 述)

본관 밀양. 시조의 28세손. 1683년 나주에서 함평읍으로 이거하여 밀양손씨 함평입향조가 되었다.

◆ 송승은(宋承殷)

1614~? 본관 신평. 자 학열(學說). 호 영사정(詠四亭). 시조의 16세손. 만령(萬齡)의 아들. 효학 절의 검비하였고 1633년에 선무랑을 제수 받았은 후 승진하여 금천찰방(金川察訪)을 지냈으며 1637년에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여 정사(精舍)를 짓고 산수 풍월과 더불어 살았다. 유고집 1권이 전하며 아내는 금성(나주)박씨 언준(彦俊)의 딸이다.

◆ 송신옥(宋臣玉)

1760~? 본관 여산. 자 화업(化業). 시조의 22세손. 지윤(持潤)의 아들. 1800년경 무안에서 나산면 덕림리로 이거하여 신평송씨 함평입향조가 되었다.

◆ 송 타(宋 柁)

1567~1597. 9. 23 본관 홍주. 호 화암(花菴). 아버지는 곤재 정개칭 문하생 제민(齋民)이며 어머니는 충주박씨다. 학교면

곡창리 사포에 집을 짓고 백일홍 나무를 많이 심어 세칭 “백일홍당(百日紅堂)”이라 하였으며, 대곡 마을 앞 득랑골 벼랑에 현재까지도 층층이 쌓인 바위들이 있는데, 이 바위들을 해전(海戰)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적의 배를 격침시키기 위해 타가 주도하여 쌓았으므로 사람들이 “송장군 바위”라 불렀다고 전한다.

1597년 9월 5일에 왜적 수군 7,000여명이 사포에 상륙하여 이곳 일대에서 무안·함평의 의병들과 대접전을 벌였고 불행히 의병들이 패한 바 있다.

이 무렵 밤에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한산(閑山) 바다까지 끌려갔고, 배안 사람들과 밀모하여 적의 무기를 빼앗아 모두 베었으나 적 하나가 부상한 채 피하여 이 사실을 알리자 왜선 수십 척이 몰려들었다.

그는 “나는 광주에 사는송해광(宋海狂, 제민의 호)의 아들 타다.”라고 크게 외치고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이 일을 같이 배에 탔던 평창(平昌) 사람 진사 이 신(李紳)이 일본에서 영광 사람 수은 강항(睡隱姜沆)에게 알렸고, 강항이 1600년에 귀국하여 송씨 가문에 전했다. 초혼(招魂)하여 학교면 곡창리 대곡 마을 앞산의 묘좌에 있는 부인 성주김씨 묘 곁에 장례하였고, 정조 12년인 1788년에 사헌부 지평에 증직되었으며 운암사(雲巖祠)에서 배향하였다.

여러 수의 시조가 「화암수록(花菴隨錄)」

에 실려 있는데 한 수만 옮긴다.

“꼬아자란 층석류(層石榴)요 트러지는 고사매(古槎梅)라⁶⁾ 삼봉괴석(三峰怪石)에 달린 솔이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풍경(花菴風景)이 너뿐인가하노라“

〈화암수록, 일곡(一曲)〉

◆ 신경록(申慶祿)

1730~1807 본관 평산. 처음 이름 성

(晟). 자 여순(汝純). 시조의 27세손. 사랑(思亮)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광산김씨 규탁(奎鐸)의 딸이다.

◆ 신경정(申景禎)

?~1637 본관 평산.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진의 김수권 막하에 들어가 12월 말경 광고산(光敎山, 현 서울의 영등포 부근)에 도착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1637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벌어진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나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신광섭(申光涉)

1757~1835 본관 평산. 자 성즙(聖楫). 시조의 28세손. 통덕랑 경록(慶祿)의 아들. 순조조에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며 유고 3권이 전한다. 아내는 평택임(林)씨 천사 상렴(尙濂)의 딸이다.

◆ 신몽남(辛夢男)

1462~1541 본관 영산. 시조의 16세손. 군수 함(諫)의 맏아들. 통덕랑(通德郎)을 지냈으며 아내는 함양박씨 경술(慶述)의 딸이다.

◆ 신 반(申 磐)

1541~1597 본관 평산. 자 군경(君卿). 시조의 21세손. 시직정(侍直挺)의 손자. 세형(世衡)의 아들. 1585년경 전북 남원에서 대동면 연암리에 이거 정착하여 평산신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그는 음사(蔭仕)로 참봉에 오르고 임진란 때 창의하였으며 정유재란 때 다시 의병을 모아 금산(錦山)의 의병진과 합류하기 위해 가던 중 적을 만나 접전하다가 적탄을 맞고 팔이 부러져 말에서 떨어져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를 수행하던 18세된 아들 옥련(玉璉)이 아버지 대신 죽기를 자청하니 이를 의롭게 여기고 놓아주었다.

아내는 해주박씨, 광산김씨 생원 선(煽)의 딸이다.

6) 고사매 : 오래된 매화나무의 그루터기



◆ 신사남(辛賜男)

본관 영산. 시조의 16세손. 군수 함(誠)의 둘째 아들. 몽남의 아우며 통덕랑을 지냈고 아내는 곽씨(郭氏)다.

◆ 신세장(申世長)

1691~1770 본관 고령. 오위청 용양위 부호군(副護軍)을 지냈는데 이를 증명 할 1764년에 발부한 교지를 후손 도수(道秀)가 보관하고 있다.

◆ 신시만(辛時萬)

본관 영산. 진사 유장(裕章)의 아들. 성균관진사를 지냈다.

◆ 신언백(申彦伯)

본관 평산. 임진왜란 때 순국하였다.

◆ 신 영(申 泠)

1506~1562 본관 고령. 자 경윤(景允). 호 정양재(靜養齋). 시조의 11세손. 우참찬이며 청백리인 공제(公濟)의 아들. 여절교위(勵節校尉), 부사직을 역임했고 1550년경 학교면 금송리에 이거 정착하여 고령 신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전주리씨 만형(晩馨)의 딸이다.

◆ 신영수(申永守)

본관 고령. 자 윤지(允之). 현감 격(激)의 아들. 임진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휘하에 들어가 많은 전공을 세우고 전사하였으며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 되었다.

◆ 신옥련(申玉璉)

1561~1635 본관 평산. 자 정보(成甫). 시조의 22세손. 참봉 반(磐)의 아들. 정유재란 때 창의한 아버지를 따라 금산으로 가던 중 적을 만나 접전하다가 아버지가 적탄에 맞아 팔이 부러져 말에서 떨어져 사로잡히자 아버지 대신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청하며 적이 이를 의롭게 보고 놓아

주었으며 다시 유지경(柳持敬)의 뜻을 좇아 의병을 일으켜 예교(曳橋) 싸움에 참가하여 순절하였다. 아내는 김해김씨 가동(可東)의 딸이다.

◆ 신유장(辛裕章)

본관 영산. 성균관진사를 지냈으며 1847년 소암사를 창건하고 배향하였으나 1868년 훼철하고 아직 복설하지 않았다.

◆ 신 함(辛 誠)

본관 영산. 시조의 15세손. 부사 효돈(府使 孝敦)의 아들. 고창현감, 익산군수(益山郡守)를 지냈고 익산군에 유애비(遺愛碑)가 있으며 연산군의 폭정에 벼슬을 버리고 진국을 돌다가 1500년경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松岩里)에 정착하여 영산신씨 함평입향조가 되었다.

대곡 성운상(大谷成運相)과 친하였고 서로 시를 많이 주고 받았는데 “대곡집(大谷集)”에 그 시가 실려있다. 아내는 도강(道康)김씨다.

◆ 심안평(沈安枰)

본관 청송. 호 규암(葵菴). 시조의 11세손. 부사 직전(副司直鱣)의 아들. 1587년(선조 20)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도시정(司道侍正), 훈련원부정(副正)을 거쳐 1640년에 수찬(修撰), 지제교(知製敎), 1654년에 봉사(奉使)로 중원을 다녀왔다. 1610년경 장성에서 함평군 신광면 복흥리(伏興里)로 이거 정착하여 청송 심씨 함평입향조가 되었다.

산정사(山亭祠. 신광면 복흥리 소재. 현재는 터만 남음)에서 배향하였고 아내는 신평송씨 진사 관(觀)의 딸이다.

◆ 심우민(沈禹民)

본관 청송. 시조의 12세손. 수찬 안평(安枰)의 둘째 아들. 장사랑 순민(將仕郎舜民. 1593년생)의 아우로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진주강씨 참봉 극검(克儉)의 딸이다.

◆ 심유대(沈有大)

본관 청송. 숙종조(肅宗朝). 자 여효(汝孝). 호 효당(孝堂). 청송백 덕부의 후예. 흥년에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제하며 효당(孝堂)을 짓고 후진을 가르치며 거상(居喪)에 슬픔이 지나쳐 피골이 상접하니 원근(遠近)이 칭송하였다.

◆ 심일민(沈逸民)

본관 청송. 1600~? 자 정국(正國). 호 성재(惺齋). 시조의 12세손. 수찬 안평의 넷째 아들로 지기(志氣)가 강개하였고 충의교위(忠毅校尉)를 지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남한산성의 광을 도우려 출병하였으나 도중에서 강화의 소식을 듣고 통곡 귀향하였다. 아내는 현풍곽씨다.

◆ 안국상(安國相)

1617~1678 본관 죽산. 자 방보(邦寶). 희적의 둘째아들. 통훈대부 사복시정(司僕侍正)을 지냈다. 아내는 평택임씨(平澤林氏) 생원 광윤(光胤)의 딸이다.

◆ 안국재(安國宰)

1618~1665 본관 죽산. 자 군평(君平). 호 초정(草亭). 사면의 증손. 1652년에 사마시의 생원과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서산유씨(瑞山柳氏) 진사 태익(泰翊)의 딸이다.

◆ 안기일(安基一)

본관 죽산. 철종조(哲宗朝). 호 경암(景菴). 문혜공 원형의 후예. 가난한 살림에 노부모를 모시면서 나무하고 고기잡아 맛있는 음식을 떨구지 않았으며 부친 상중에 주육(酒肉)을 불식하니 향리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 안봉윤(安鳳胤)

1715~1792 본관 죽산 자 중모(仲毛).

호 용곡(龍谷). 치량의 아들. 도암이재(陶菴李緯)의 문하생이며 도암 문집의 교정을 보았다. 1832년에 효행과 학행으로 나산리에 정려가 내렸다.

아내는 이천서씨 도길(道吉)의 딸, 흥덕장씨 국한(國翰)의 딸이다.

◆ 안 빈(安 磧)

본관 죽산. 호 외리정(外里亭). 임진란 때 창의하여 김천일 휘하에서 군공을 세웠고 진주 싸움에서 전몰하였다.

◆ 안사활(安士활)

본관 죽산. 자 활재(활哉). 충달의 셋째 아들. 1592년 임진란이 일어나자 김상충(金尙忠)등과 창의하여 김천일(金千鎰)휘하에서 무공을 세웠고 진주 싸움에서 김천일과 함께 같은 날 전사하였다.

아내는 양성이씨 선(璿)의 딸이다.

◆ 안시악(安時嶽)

1834~1885 본관 죽산. 자 자성(子成). 호 광헌(光軒). 지립(志立)의 아들이며 돈녕부 도정(都正)을 지냈다.

아내는 파평윤씨 동지(同知) 경(檠)의 딸이다.

◆ 안여기(安汝器)

1637~1694 본관 죽산. 자 경부(敬夫). 호 보진당(保眞堂). 국상(國相)의 맏아들. 1660년에 진사과에 합격하고 1669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병조좌랑, 고령, 창평, 만경, 은율 등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1799년 나산사(羅山祠). 나산면 나산리 소재)에 배향되었는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손되고 지금까지 복설을 못하고 있다. 아내는 동래정씨 여숙(汝淑)의 딸이다.

◆ 안여지(安汝止)

1628~1686 본관 죽산. 자 경부(敬夫). 사면(士勛)의 현손. 효종 때인 1654년 문



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正字), 설서(說書)를 지냈다.

아내는 합평이씨 경현(敬玄)의 딸이다.

◆ 안여해(安汝諧)

1657~1691 본관 죽산. 자 중화(仲和). 호 이병재(理病齋). 생원 국재(國宰)의 넷째 아들. 6세 때 어머니 상(喪)을 당하여 애도함이 남을 놀라게 하였고, 7세 때 아버지가 병환 중일 때 밤이 깊은 자시(子時)에 의원을 찾아가 약을 구해오는 등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고, 송시열의 문하생으로 학문 또한 뛰어났다.

1682년 사마시의 진사과(進士果)에 합격하였으나 대과에는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1722년에 나산사(羅山祠). 나산면 나산리 동신 소재)를 창건하고 독향(獨享)하다가 1794년 문중의 결의에 의해 5세조 충달(忠達)을 주벽(主壁)으로 그와 여기, 치택(致宅)을 부벽으로 배향하였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고 지금까지 복설을 못하고 있다. 아내는 제주양씨 우회(禹會)의 딸이다.

◆ 안정로(安挺魯)

1770~1842 본관 죽산. 자 찬증(贊曾). 호 시암(市岩). 업윤의 양아들. 생부 형각. 성담 송환기(性潭宋煥箕)의 문인이며 1842년 생원과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경주최씨 풍지(楓之)의 딸, 나주오씨 상덕(相德)의 딸이다.

◆ 안정환(安靜煥)

1830~1886 본관 죽산. 처음 이름세환(世煥). 자 치호(致浩). 호 야은(野隱). 수정(秀貞)의 아들. 효행으로 천을 받았다.

아내는 나주임씨(林氏) 정상(定相)의 딸이다.

◆ 안지양(安志養)

1811~1873 본관 죽산. 자 여현(汝賢).

호 인재(忍齋). 정로의 양아들. 효행으로 예조의 천을 받았다.

아내는 무안박씨 중행(重行)의 딸, 나주정씨(鄭氏) 규복(圭福)의 딸, 진주장씨 재위(在渭)의 딸이다.

◆ 안지환(安志煥)

1774~1833 본관 죽산. 자 덕윤(德潤). 호 태허재(太虛齋). 여도의 6세손이다. 송치규의 문하생이며 문장으로 이름 높았고 “태허재유고”가 전한다.

아내는 과평윤씨 세복(世福)의 딸이다.

◆ 안충달(安忠達)

본관 죽산. 자 효언(孝彦). 호 하곡(荷谷). 현감 인(麟)의 아들. 중종조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에서 태어났고 문장과효행으로 당세에 이름 높았으며 1525년에 사마시 생원과에 입격하고 1534년에 이황(李滉)과 더불어 문과에 급제하여 강원도사(江原都事) 병조정랑(兵曹正郎)을 역임하였고 이황과는 과거에 같은 해에 합격한 인연으로 우호가 깊었다. 말년에 나산면 나산리 방하(芳荷)에 정착하여 죽산안씨 합평군 입향조가 되었으며 1799년에 나산사(羅山祠). 나산리 동신

소재)에서 배향했는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손된 후 아직 복설을 못하고 있다.

아내는 광산노씨(盧氏) 극창의 딸로 극창이 남원부사로 있을 때 나산면 송암리의 집에 오다가 극락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그를 만나 용의가 단정하고 장자(長者)의 기풍이 있는 것을 보고 사위를 삼았다고 전한다.

◆ 안치량(安致亮)

1687~1761 본관 죽산. 자 명숙(明叔). 향양헌(向陽軒). 만옥의 둘째 아들. 1713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남양홍씨 생원 누(樞)의 딸이다.

◆ 안치택(安致宅)

1702~1777 본관 죽산. 자 거광(居廣). 호 무은재(無隱齋). 만우(晩遇)의 둘째 아들. 1729년 사마시의 생원과에 합격하였으며 1739년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 정언, 지평, 사간(司諫) 등을 역임하는 등 벼슬이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영조대왕이 “나라를 걱정하는 성의가 강호에 중

엄(仲淹)한 자로 50여년간 임금 앞에 임하면서 처

음부터 실질(實質)을 보았고 숨김이 없는 바를 취

한 자였다. 그러기에 호를 무은재라 한다.”는 하

교(下敎)를 내린 바 있다.

1799년부터 나산사(羅山祠). 나산면 나산리 소재)에서 배향했는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된 후 지금까지 복원을 못하고 있다.

아내는 仁川채씨(蔡氏) 범휴(範休)의 딸, 경주김씨 유국(維國)의 딸, 진주장씨 정복(貞復)의 딸이다.

◆ 안희직(安希勣)

1587~1626 본관 죽산. 자 무중(懋仲). 호 권유자(倦遊子). 충달의 증손. 강항(姜沆)의 문하생으로 진사과에 입격 하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학문을 닦는데 힘을 써 사림의 표상이 되었다.

아내는 광주(廣州)이씨 정(挺)의 딸, 함양박씨 문헌(文憲)의 딸이다.

◆ 양 근(梁 謹)

본관 남원. 처음 이름 근우(謹宇). 자세춘(世春). 호 시암처사(鳴巖處士). 득관 조의 18세손. 경주목사 사준(思俊)의 넷째 아들로 동몽교관에 제수되고 만호, 공조정랑을 역임했으며 임진란을 피하여 경기도 시흥시 부곡에서 학교면 월호리 용호동으로 이거 정착하여 그의 후손이 번창하였다.

아내는 김해김씨 성일(性一)의 딸이다.

◆ 양우연(梁禹延)

1593~1624 본관 남원. 자 군보(君甫). 득관 조의 20세손. 운수의 아들. 효성이 지

극하였고 사간원 정언(正言)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 성해(性海)의 딸이다.:

◆ 양운수(梁運壽)

1574~1619 본관 남원. 자 임년(任年). 호 죽사(竹史). 득관 조의 19세손. 공조정랑 근의 아들. 지용을 검비하였으며 임진란이 일어나자 약관의 나이로 이순신 휘하로 가려고 하였으나 아버지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618년(광해 10)에 건주위(建州衛)가 모반하자 이를 정벌하기 위해 김응하(金應河) 막하로 들어갔고 1619년 3월, 3천의 군사로 적군 6만과 격전이 벌어져 많은 적을 사살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김응하와 함께 순국하였고 후에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나주임씨(林氏) 생원 한유(翰有)의 딸이다.

◆ 양주헌(梁柱憲)

1799~1863 본관 남원. 호 농은(韓隱). 도수의 아들. 아버지의 병환에 곁을 떠나지 않고 극진히 간호했으며 할지주혈(割指注血)하여 20여일간 더 연명케 하였다. 3년간 시모를 사는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며 어머니 상에도 전과 같이 하였다.

그의 아들 하환(河煥. 1827~1869)도 아버지에 지지 않는 효자로 이름이 났다. 나라에서 부자 쌍효자(雙孝子)의 정문(旌門)이 내려져 학교면 월호리 용호동에 정려를 세웠다.

◆ 어진열(魚震說)

본관 함중. 1665. 8~1669. 5 까지 무안현감을 지냈다.



◆ 어한명(魚漢明)

본관 함평. 임진왜란 때는 경기좌도 판관으로 재직했으며 병자호란 때 청병과 싸워 많은 공을 세웠다.

◆ 오계손(吳啓孫)

본관 함평. 잠(岑)의 후손. 고려조에 직제학(直提學)을 지냈다.

◆ 오사충(吳思攄)

본관 함평. 잠(岑)의 후손.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모평군(牟平郡 - 함평의 옛 이름)에 봉작되었다.

◆ 오우(吳瑀)

본관 낙안. 산음교수(山陰敎授)를 지냈다.

◆ 오잠(吳岑)

함평오씨 시조. 비조 첨(瞻)의 25세손. 현보(賢輔)의 넷째 아들. 고려 원종(재위 1260~1274) 때 문과에 급제하여 태자태사 문하시중(太子太師 門下侍中. 종1품)을 지냈고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함풍군(咸豐郡. 함평의 옛 이름)에 봉해져 해주오씨에서 분관(分貫)하여 함평오씨의 시조가 되었다.

그의 후손은 현재 함평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충남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와 방교리에서 집성촌을 이루고있다.

◆ 오정기(吳廷驥)

본관 낙안. 용양위 부호군(副護軍)을 지냈다.

◆ 오진후(吳進厚)

본관 함평. 잠(岑)의 후손.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 정 3품)를 지냈다.

◆ 오철검(吳哲儉)

본관 낙안. 1500년경 전북 고창에서 대동면 월송리 동암으로 이거 정착하여 낙안오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동암사(東巖祠. 대동면 월송리 동암 소재)에서 배향하였는데 1868년 훼손하고 복설을 하지 않았다.

◆ 오헌(吳憲)

본관 함평. 잠(岑)의 후손. 고려조에 중랑장(中郎將. 정 5품)을 지냈다.

◆ 유경(兪景)

1567~1592 본관 기계. 자 군일(君日). 호 길재(吉齋). 손(遜)의 아들. 학포 양팽손(學圃 梁彭孫)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고 임진란때 의병을 일으켜 중봉 조현(重峯 趙憲)의 막하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나 전세가 악화되어 최후까지 분전하다가 전사하였다.

◆ 유경신(兪敬信)

1465~? 본관 기계. 함평 입향조 성의(誠意)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하동정씨 동옥(東郁)의 딸이다.

◆ 유경지(兪敬止)

본관 기계. 성의의 아들. 사마시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유계종(兪繼宗)

1470~1503 본관 기계. 자 도우(道禹). 함평 입향조 성의의 손자. 진사 경지(敬止)의 아들로 진산군수(珍山郡守)를 역임하였다.

아내는 광산탁씨(卓氏) 참판 결(潔)의 딸이다.

◆ 유대린(兪大麟)

본관 기계. 함평 입향조 성의의 증손. 무과 급제 세익(世翊)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主簿)를 지냈으며 아내는 파평윤씨다.

◆ 유성의(兪誠意)

본관 기계. 파조의 4세손. 군수 원기(元器)의 아들. 1466년(세조 11) 문과에 급제하여 현령, 전서(典書) 등을 역임하였고 1480년경 나산면 석령에 이거 정착하여 기계유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함평이씨 수사 춘수(水使 春秀)의 딸로 세종조의 명신 판서(判書) 공(兢, 1398년생)의 누이동생이다.

◆ 유세익(兪世翊)

본관 기계. 함평 입향조 성의의 손자. 통덕랑 경신(敬信)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내금위(內禁衛)에서 봉직했다.

◆ 유순인(兪舜仁)

본관 기계. 명종조에 덕행과 학행으로 호남에서 이름이 높았다.

◆ 유신중(兪愼宗)

본관 기계. 처음 이름 신중(愼終). 함평 입향조 성의의 손자. 진사 경지의 둘째 아들. 군수 계종(繼宗, 1470년생)의 아우로 봉직랑(奉直郎), 함평현감(咸平縣監)을 역임했다.

아내는 경주이씨다.

◆ 유언검(兪彦儉)

본관 기계.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란때 금산전에서 순국하였다.

◆ 유언득(兪彦得)

1564~1598 본관 기계. 자 경보(景甫). 호 인재(仁齋). 참봉 희식(希軾)의 아들. 언량(彦良)의 아우로 임진란에 월야면의 정웅(鄭鷹)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이순신 휘하에서 여러번 적과 싸워 공적을 세웠으며 주부(主簿)를 지냈다.

노량해전에서 용전분투하다 적탄에 맞아 바다로 투신하여 순절했다.

◆ 유언량(兪彦良)

1548~1592 본관 기계. 자 선숙(善菽). 호 경재(敬齋). 참봉 희식(希軾)의 아들. 중봉 조 헌(重峯 趙憲)의 문하생으로 임진란이 일어나자 중봉과 함께 의병을 이르켜 금산(錦山)에서 싸우다 순국하였으며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 유홍관(兪鴻觀)

본관 기계.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 유후평(劉后平)

1688~? 본관 강릉. 1720년경 고창에서 손불면 죽장리 장전(長田)에 이거 정착하여 강릉유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 윤갑진(尹甲鎭)

본관 파평. 현종조(憲宗朝). 수정처사 제(濟)의 후손. 의표가 고상하고 언행이 과묵하여 임전에서 근신하였으니 문집이 있다.

◆ 윤경간(尹敬幹)

본관 파평. 시조의 22세손. 진사 귀(貴)의 아들. 주부를 지냈으며 아내는 연일정씨 승지 원(源)의 딸이다.

◆ 윤경생(尹慶生)

1574~1617 본관 파평. 자 한경(漢慶). 시조의 23세손. 주부 추(湫)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김해 김씨다.

◆ 윤경중(尹敬中)

본관 파평. 자 대영(大永). 시조의 18세손. 현감 완(莞)의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안동 김씨다.

◆ 윤광렬(尹光烈)

?~1809 본관 파평. 자 운경(雲卿). 호 송당(松堂). 시조의 28세손. 응호(應昊)의 둘째 아들로 음사로 출사하여



1807년 도사(都事)에 이르렀고 1809년
가선으로 승직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아내는 광산김씨 경조(鏡祚)의 딸이다.

◆ 윤광의(尹光義)

1755~1825 본관 파평. 자 의숙(義淑).
호 용강(龍岡). 시조의 28세손. 사복시정
(司僕侍正)을 지냈다.
아내는 금성나씨, 진주정씨다.

◆ 윤귀(尹貴)

본관 파평. 호 삼휴당(三休堂). 시조의
22세손. 형보(衡輔)의 아들. 정암 조광조
(靜菴趙光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선조
조에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며 아내는 광산
김씨 참봉 기서(奇瑞)의 딸이다.

◆ 윤근(尹瑾)

1517~1593 본관 파평. 호 퇴은(退隱).
선조조에 사마시에 입격하였으며 임진란이
일어나자 7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앞
아서만 볼 수 없으며 김천일(金千鎰) 창의
소로 달려가 그의 원숙한 지략과 재능을
발휘하여 여러 차례 승전하는 공을 세웠
다. 김천일과 진주성을 지키려고 분전 하
였으나 성이 함락되는 비운을 맞았다.

그는 “80세의 고령에 군진에 뛰어든
그 뜻이
나라에 보답하는데 있지 공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옳음을 취하고 어짐을 이루라는 진실한 가
훈에 따
름이니 이 몸 부끄러움 없이 강물에 뛰어
드노라

(襄年八十投兵陣 志在報君不在功 此身無愧
下江中)”
라는 글을 남기고 남강에 몸을 던져 자결
하였다.

후에 병조참판에 증직되고 정려(旌閭)
의 은전이 내려 해보면 산내리 송산(松山)
에 충열각을 세워 거룩한 뜻을 기렸는데
지금금은 오래되어 헐리우고 없다.

◆ 윤급(尹汲)

1561~1626 본관 파평. 자 수경(修綆).
시조의 22세손. 감역 형복(衡福)의 아들로
감찰(監察)을 지냈다.
아내는 여양진씨 인후(仁厚)의 딸이다.

◆ 윤기진(尹璣鎭)

본관 파평. 호는 국과(菊坡)요 임곡(林谷)
형수의 후예이다. 기노사와 종유하며 경의
(經義)를 깊이 연구하고 영달을 꾀하지 않
았으며 사후 승지에 증직되고 유고(遺稿)가
있다.

◆ 윤길(尹吉)

1368~1462 본관 파평. 호 둔옹(遯翁).
시조의 15세손. 상서성 좌복야 탁(尙書省
左僕射 鐸)의 아들. 목은(牧隱)의 문하생이
며 아버지와 절친했던 정몽주(鄭夢周)가 그
의 맑은 천성을 보고 칭찬하며 특히 귀애
하였다. 1368년(禡王 12) 야은 길재(治隱
吉
再)와 문과에 같이 합격하여 벼슬이 한림
(翰林)이 되고 이어 탐라(제주)병마사로 있
다가 1392년 고려가 망하자 통곡하며 벼
슬을 버리고 평산(平山)의 영풍(永豐) 상운
산(祥雲山)에 집을 짓고 송도(松都)를 사모
하는 뜻에서 모송당(慕松堂)이라 편액하고
매양 송도 쪽을 바라보며 망곡하고 살았
다.

1457년(세조 2년) 김종서(金宗瑞)의 제문
(祭文)에 “공은 죽을 땅에서 죽었도다. 천
년 후의 역사가 공으로 하여금 다시 밝혀
지리라.

(公死於死 千年之下 春秋之史 由公更明)”
고 한16자 때문에 세조의 노여움을 사 제
주로 귀양갔다가 귀양이 풀려 돌아오는 길
에 해보(海保)에 이르러 임천(林泉)과 자양
산(紫陽山, 나산면 우치리 계동 뒷산) 사이
에 무이(武夷)가 흐르는 것을 보고 정착하
여 파평윤씨의 함평 입향조가 되었으며 정
사를 짓고 주자(朱子)의 제사를 지내는 것

을 즐거움으로 삼고, 나라에서 여러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두문(杜門)의 제현들과 더불어 사귀면서 절개를 지켰다.

1750년 유림들이 뜻을 모아 임천사(林泉祠, 해보면 상곡리 모평 소재)를 창건하고 배향하였는데 고종 때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손된 후 지금까지 복설을 못하고 있다.

아내는 강능함씨 사공 영수(司空 永壽)의 딸이다.

◆ 윤 길(尹 趙)

1564~1615 본관 파평. 자 여직(汝直). 호 몽파(夢坡). 시조의 21세손. 주부시형(時衡)의 둘째 아들. 1589년 증광시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예속되었다가 삼례찰방(參禮察訪)을 지냈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전라감사 이광(李洸)이 죽을까 겁이 나서 병사들을 끼고 숨으려고만 하므로 그가 “나라가 위태함이 풍전 등화 같은데 일도(一道)의 원수로 적의 해를 임금에게 끼치려 하느냐?”고 말하였다. 광이 군량이 없다고 말하자 그가 달려나가 군량을 운송하여 산같이 쌓아 놓으니 마치 못해 출전하여 싸우다 패해 달아났다.

이원익(李元翼)이 세자를 모시고 남으로 내려와 있을 때 그를 막부(幕府)에 두었는데 급보(急報)할 것이 있어 그를 불러 많은 내용을 이르고 글로 쓰기를 명하니 열 장이나 되는 내용을 일필에 다 쓰되 틀린 곳이 없자 원익이 “이 같이 특이한 재주는 옛 사람에게 구하여도 따를 사람이 없다.”고 찬탄하였다.

1594년에 무주현감(茂州縣監)이 되어 권율(權慄)을 쫓아 행주에서 대첩을 이루었고 1597년 정유재란 때 순찰사 황신(黃愼)이 그를 불러 군사(軍事)에 참여케 했는데 어버이가 적에게 살해되어 부득이 돌아와 장례를 치르고 시묘살이를 하였다.

1602년에 병조정랑, 다음해에 공주통판(公州通判)이 되어 대동법(大同法)을 창설

하여 세금을 십분(十分)에서 칠분(七分)을 감하니 백성이 크게 소생하였다.

그 뒤 강원도사, 사헌부 장령, 강진현감, 경성판관(鏡城判官), 구성부사(龜城府使), 북병 평사(北兵 評事)가 되어 강직한 성품으로 소임을 다하였다. 1615년 승종(承宗)과 이이첨(李爾瞻)이 익산 사람 소명국(蘇鳴國)을 사주하여 “색문동(塞門洞)에 왕기가 있는데 윤모(尹某)도 같이 안다.”고 고변하여 옥사를 일으켜 승종이 판금오(判金吾)가 되어 다그치니 명현(名賢)이 많이 연좌되었으며 능창군(綾昌君)은 귀향 가 죽고 그는 형틀위에서 죽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신원되어 벼슬이 회복되었고 1681년에 승정원 도승지(都承旨)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문화유씨(柳氏) 동지 인지(同知 麟趾)의 딸, 평산신씨(申氏) 절도사 할(磻)의 딸이다.

◆ 윤 덕(尹 惠)

1543~1609 본관 파평. 처음 이름 언익(彦翼). 자 광삼(光三). 호 유정(柳亭). 시조의 22세손. 부사 예형(禮衡)의 둘째 아들. 남해현감을 지냈으며 아내는 동래정씨 윤진(雲震)의 딸이다.

◆ 윤덕린(尹德麟)

1578~1642 본관 파평. 자 덕수(德修). 시조의 23세손. 판관 함(涵)의 둘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영광오씨 윤(琬)의 딸이다.

◆ 윤덕봉(尹德鳳)

1575~1672 본관 파평. 자 조양(朝陽). 호 해은(海隱). 시조의 23세손. 판관 함(函)의 맏아들로 1645년 무과에 급제하여 1647년 선전에 올랐으며 98세의 장수를 누렸다.

아내는 양성이씨 개(漑)의 딸이다.

◆ 윤덕생(尹德生)

1396~1469 본관 파평. 자 윤보(潤甫). 호 광수(狂叟). 시조의 16세손. 한림 길(翰林 吉)의 아들. 양촌 권근(陽村權近)의 문하생으로 1420년(세종 2) 사마시에 올라 태학(太學)에 있으면서 최덕지, 남효온, 김시습 등과 도의로 사귀었고 아버지가 제주로 귀양 갈 때 그도 따라가 한라산의 일봉인 수성봉(壽星峯)에 올라 단종(端宗)을 그리며 북망망곡(北望望哭)을 계속하였다.

아버지의 귀양이 풀려 임천(林泉. 해보면 상곡리 모평)에 살자 그도 이곳에 머물며 김시습(金時習)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티없이 살았다. 1465년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불렸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750년 유림들이 뜻을 모아 임천사(林泉祠. 해보면 상곡리 모평 소재)를 창건하고 배향하였으나 고종 때 훼손되고 지금까지 복설을 못하고 있다.

아내는 금성나씨 별제 숙찬(別提 숙爍)의 딸이다.

◆ 윤덕훈(尹德勳)

1565~1627 본관 파평. 자 무공(懋功). 시조의 23세손. 첨지 섭(涉)의 맏아들이며 음사로 출사하여 호조좌랑을 지냈다.

아내는 참봉 신평 송만령(宋萬齡)의 딸이다.

◆ 윤도진(尹道鎭)

1772~1838 본관 파평. 시조의 30세손. 계검(悌儉)의 아들. 효행이 지극하였고 사과(司果)를 지냈다.

◆ 윤 만(尹 蔓)

1418~1491 본관 파평. 자 성원(盛元). 시조의 17세손. 사마시에 입격한 덕생(德生)의 맏아들. 문장이 탁월하고 당대의 명현 수현 권오복(睡軒權五福) 등과 절친하였으며 감찰을 지냈고 아내는 청주 한씨 현감 용주(用周)의 딸이다.

◆ 윤명가(尹明可)

1669~1720 본관 파평. 자 자명(自明). 시조의 27세손. 성혁의 맏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탐진최씨, 광산김씨 현감 한두(漢斗)의 딸이다.

◆ 윤 발(尹 潑)

1545~1597 본관 파평. 자 방수(方洙). 호 송산재(松山齋). 봉사 몽룡(奉事夢龍)의 손자. 임진왜란 때 늙으신 아버지가 진주성에서 순절했다(진주성 1차전)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사직을 보전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홍의장군 곽재우(紅衣將軍郭再祐)의 막하로 들어가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우고, 다시 김응서(金應瑞)와 함께 세운 군공(軍功)으로 수문장(守門將)이 되었다.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 휘하에 있었고 한산(閑山)싸움에서 분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고 후일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1689년 충정(忠靖)이란 시호를 내렸다.

◆ 윤 봉(尹 鵬)

1553~1605 본관 파평. 자 원거(遠舉). 시조의 22세손. 사과 형록(司果衡祿)의 아들. 1590년(선조 23)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 거제(巨濟) 부사를 지냈고 임진란때 이순신 휘하에서 함단(艦團) 지휘관인 일령장(一領將)으로 당항포, 좌도등 싸움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특히 정유재란 때 진도(珍島)의 울돌목 해전에서 빛나는 전과를 거양했으며 선무원종 2등훈에 책록되었다.

아내는 전주리씨 도사(都事) 만영(萬英)의 딸이다.

◆ 윤 사(尹 嗣)

1568~1643 본관 파평. 자 선술(善述). 호 석포(石浦). 시조의 22세손. 임란공신 형필(衡弼)의 양아들. 생부 형임(衡任).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첨정,태창(泰昌)을 거쳐 1620년에 동추(同樞)에 올랐다.

아내는 나주나씨 주부 덕웅(德雄)의 딸이다.

◆ 윤사상(尹思商)

1498~1568 본관 파평. 자 중은(仲殷). 시조의 20세손. 사과 승문(承文)의 넷째 아들. 장흥부사(長興府使) 등 9 개군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전주리씨 화림수 구수(花林守龜壽)의 딸이다.

◆ 윤삼거(尹三舉)

1644~1718 본관 파평. 자 자신(子莘). 호 사매당(四梅堂). 시조의 25세손. 백(柏)의 아들. 우암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생으로 당시 호남에서 손꼽히는 학자였고 특히 성리학에 밝았으며 판서 김진규는 “호남의 숨은 와룡(臥龍)”이라고 극찬하였다. 학행으로 목릉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으며, 우암이 정읍에서 사사될 때 임종하였고 사제로 장례를 치루었다. 권수암(權遂菴), 정대암(鄭大巖) 등과 교유가 깊었다.

아내는 함평 이여장(李汝章)의 딸, 그리고 광산김씨다.

◆ 윤상로(尹商略)

본관 파평. 숙종조 문과에 급제하였다.

◆ 윤상선(尹相宣)

1725~1785 본관 파평. 자 자화(子和). 호 설암(雪菴). 시조의 25세손. 엽(燁)의 아들로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영광정(丁)씨 진사 흥열(興說)의 딸이다.

◆ 윤상흠(尹相欽)

1850~1896 본관 파평. 일명 상욱(相郁). 시조의 32세손. 자일(滋日)의 아들로 예절에 밝아 주위에서 흠모하였고 아버지 상에 6년간 시묘를 사는 모범을 보였다.

◆ 윤석민(尹碩民)

1641~1721 본관 파평. 자 대이(大而). 시조의 24세손. 완(琬)의 넷째 아들로 첨주(僉樞)를 지냈다.

아내는 수원 최인해(崔仁檨)의 딸이다.

◆ 윤 섭(尹涉)

1538~1605 본관 파평. 자 익보(益甫). 호 성암(城巖). 시조의 22세손. 참봉 형좌(衡佐)의 아들. 임진란때 숙부 참판 형필(衡弼)이 왕을 호종하면서 그에게 행재소까지 군량을 운송하는 책임을 맡겼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털어 군량 보급이 끊이지 않게 하였고 이 공으로 우영유진장(右營留鎭將)이 제수되었다. 그런데 이 때 그를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 무고하여 의금부에 투옥되었다. 군졸들이 모두 “윤공이 아니면 어찌 생명을 얻을 것인가?”라고 호곡(號哭)을 하였으며 도사(都事)와 나주목사 남유(南侑)진정으로 특별히 풀려 나오게 되어 유진장으로 복직되었고 사후 가선대부 예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청주한씨 수단(洙丹)의 딸이다.

◆ 윤성립(尹誠立)

1579~1593 본관 파평. 자 양지(仰之). 호 서암(西巖). 시조의 23세손. 해(海)의 아들. 정유재란 때인 1597. 9.19 부모들이 산중으로 피란하다가 왜적을 만나 어머니 강씨(康氏)가 아버지를 안은 채 무참히 살해되었다. 이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복수 할 것을 맹서하고 복수전에 참여하여 많은 적을 참살하고 그도 19세의 나이로 순절하였으며 충노 도생(忠奴 道生)이 시신을 옮겨와 화수산의 선영하에 장례하였다.

아내는 나주나씨다.

◆ 윤성진(尹聖鎭)

1810~1852 본관 파평. 자 시중(時中). 호 만포(晩圃). 시조의 30세손. 필규(弼圭)



의 맏아들로 184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직, 성현도찰방(省峴道 察訪)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이씨 윤서(胤緒)의 딸이다.

◆ 윤성호(尹聖浩)

1765~1825 본관 파평. 자 익흥(益興). 시조의 28세손. 승지 천교(天敎)의 맏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이조좌랑을 지냈다.

아내는 장수황씨, 제주 양안택(梁安宅)의 딸이다.

◆ 윤성희(尹聖希)

1666~1689 본관 파평. 자 망오(望吾). 시조의 26세손. 좌윤 유삼(有三)의 둘째 아들. 첨주를 지냈다.

아내는 함양 박상민(朴尙閔)의 딸이다.

◆ 윤세태(尹世泰)

본관 파평. 자 형숙(亨淑). 시조의 25세손. 지각(之覺)의 아들. 진사시에 입격하였으며 증조 제(濟)의 유고 “교재집(喬梓集)”을 발간하려고 1717년에 권중경의 서문을 받는 등 준비를 하였으나 그의 타계로 문집 발간이 중지된 사실이 교재집서문에 들어 있다.

아내는 이천서씨 도사 국주(國柱)의 딸이다.

◆ 윤세함(尹世咸)

본관 파평. 호는 사헌(思軒)이며 수정처사제의 후손이다. 경전(經傳)을 강론하며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문집이 전한다.

◆ 윤수민(尹壽民)

1638~1707 본관 파평. 자 낙도(樂道). 시조의 24세손. 완(琬)의 셋째 아들로 선무랑을 지냈다.

아내는 금성 나무빈(羅茂彬)의 딸이다.

◆ 윤 순(尹 巡)

1716~1801 본관 파평. 자 자순(子順).

시조의 26세손. 세함(世咸)의 둘째 아들로 첨주(僉樞)를 지냈다.

아내는 전주이씨 완원군(完源君)의 딸이다.

◆ 윤승문(尹承文)

1466~1545 본관 파평. 자 태명(泰明). 시조의 19세손. 자중(自中)의 아들로 사과(司果)를 지냈고 80세의 장수를 누렸으며 승지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광산이씨 참판 득영(得英)의 딸이다.

◆ 윤시형(尹時衡)

1534~1597 본관 파평. 자 언정(彦正). 시조의 20세손. 진사 척(滌)의 아들로 사첨시(司瞻侍) 주부를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 진사 형필(亨弼)의 딸이다.

◆ 윤신립(尹信立)

1568~1653 본관 파평. 자 순신(舜信). 호 야은(野隱). 시조의 23세손. 현감 덕(惠)의 맏아들. 사마시의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옥산 장효원(張孝元)의 딸이다.

◆ 윤 씨(尹 氏)

1857~1933 본관 파평. 일진(一鎭)의 딸. 고성 이윤칠(李潤七. 시조의 28세손. (1846~1905)의 아내. 열행(烈行)으로 삼강록에 올랐다.

◆ 윤언상(尹彦商)

1481~1551 본관 파평. 자 자은(子殷). 시조의 20세손. 승문(承文)의 아들로 성주, 파주 등 13개 군의 수령을 역임 하였다.

아내는 나주나씨, 광산이씨 군수 회(熹)의 딸이다.

◆ 윤 열(尹 說)

자 우성(遇聖). 본관 파평. 시조의 19세

손. 통덕랑 경중(敬中)의 아들. 모평에서 출생하였고 무과에 급제하여 5개 주,군 수령을 역임한 후 성종조에 함경,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아내는 청주정씨(淸州鄭氏)다.

◆ 윤영상(尹榮商)

1484~1568 본관 파평. 자 신은(信殷). 호 이성(怡性). 시조의 20세손. 승문(承文)의 둘째 아들. 중종 29년(1534)에 학행으로 건원릉(健元陵) 참봉을 제수 받았으며 1806년 호남 사림의 논의에 의해 성산사(城山祠, 해보면 용산리 소재)에 배향되었으나 1868년 서원 훼철령에 의해 사우가 훼철되었고 사우 터에 유허비를 세웠다.

아내는 경주최씨 장(璋)의 딸이다.

◆ 윤예형(尹禮衡)

1522~1592 본관 파평. 자 경인(敬仁). 호 임천(林泉). 시조의 21세손. 부사 사상(府使 思商)의 둘째 아들. 18세에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성리학에 밝고 문장도 뛰어났으며 1582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의 가문은 아버지(장흥부사를 비롯 6군수령을 지냄)와 동생 인형(仁衡, 6군수령을 지냄)이 모두 무과에 급제하여 무과 가문으로 이름이 높았다.

1589년에 명천부사(明川府使)로 부임하여 재직하고 있던 중 임진란이 일어났고 그는 경기 감사 심대(監司 沈岱)의 종사관이 되어 신출귀몰하는 전략을 세워적에게 많은 손실을 주었다.

이 공으로 부원수(副元帥) 겸 선봉장이 되어 삭녕(朔寧), 철원(鐵原)의 전투에서 관군을 지휘하였으며 큰 공을 세웠으나 군량과 화살이 다 떨어지자 아래의 시를 남기고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우다 전사하였다.

“나라 위해 바친 이 목숨
죽고 산들 충성심 변할소나

바위의 소나무는 오히려 겨울에 더 푸르고
계곡의 눈은 겨울에 더 밝더라
누가 이기의 이름을 이룰 것인가

초년에 내 품은 뜻은

사해가 태평하기를 바랐이었네

許國常委命

死生莫變誠

巖松冬更碧

谷雪夜猶明

誰成利器名

初年孤失志

欲使四方清

그로부터 7년 후 왕이 그의 충절을 알고
제관을 보내 해보의 월양산(月陽山)아래 초
혼장을 치루게 하였다.

1750년 유림들이 뜻을 모아 임천사(林泉祠, 해보면 상곡리 모평 소재)를 창건하고 배향하였고 또 분매사(盆梅祠, 원래는 해보면 상곡리에 세웠으나 현재는 무안군 해제면으로 옮김)에서 배향한다.

1780년에 병조판서로 추증되었으며 아내는 광산김씨다.

◆ 윤 옥(尹 沃)

1545~1593 본관 파평. 자 예중(禮仲). 호 송파(松坡). 시조의 22세손. 부장 형우(衡佑)의 둘째 아들. 지기와 재예가 어려서 부터 뛰어났으며 1590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왕이 의주(義州) 행재소에 있을 때 숙부 형필(衡弼)과 함께 왕을 호종하는데 온 힘을 다하였으며, 또 의병들과 합세하여 여러번 적과 싸워 승전하였고 특히 숙부와 함께 출전하여 평안도 안변 의진(安邊義陣)과 적을 협공한 안변전투는 전사에 남은 큰 승리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역전(力戰)하던 그는 적탄에 맞아 순국하였고 절충어사(折衝御使)를 제수하였으며 선무원종 1등훈에 책록되었다.

◆ 윤 완(尹 琬)

1610~1683 본관 파평. 차 중보(仲寶).



시조의 23세손. 통덕랑 지립(之立)의 맏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순창 조경익(趙景益)의 딸이다.

◆ 윤 완(尹 莞)

1425~1489 본관 파평. 자 성거(盛舉). 시조의 17세손. 덕생의 둘째 아들. 단성현감(丹城縣監)을 역임하였고 아내는 전의이씨(全義李氏)다.

◆ 윤용규(尹龍奎)

본관 파평. 아호는 모술재(慕述齋)요 수정처사(守貞處士) 제(濟)의 후예이다. 삼강오상육행칠계팔당(三綱五常六行七戒八當) 등을 저술하였으며 난와 오계수가 서문을 썼다.

◆ 윤 원(尹 愿)

?~1592 본관 파평. 자 치성(致誠). 호 애재(愛齋). 부사 예형(府使 禮衡)의 맏아들. 윤팔송(尹八松)의 문하생으로 문장이 탁월하고 무예를 겸비하여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초에 경기감사 심 대(沈 垓)가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철원에 진을 옮길 때 아버지가 종사관이 되어 부임하자 그도 아버지를 따랐다. 왜적에게 포위 된지 2개월만에 성이 함락되고 아버지가 전사하였다. 이 모습을 본 그는 “아버지가 충신으로 싸우다 전사하셨는데 어찌 충신의 몇몇한 자식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며 혈서를 써 노복에게 준 후 적진으로 진격하여 많은 적을 참살하고 그도 순국하였다.

◆ 윤원빈(尹元賓)

본관 파평. 자 관부(冠夫). 시조의 24세손. 정간(廷侃)의 맏아들. 숙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다.

◆ 윤원훈(尹元勳)

본관 파평. 자 한보. 호 지재(智齋).

시조의 28세손. 창덕(昌德)의 아들로 철종조에 성균관진사를 지냈다.

아내는 이천서씨 동길(東吉)의 딸이다.

◆ 윤유검(尹有儉)

1793~1856 본관 파평. 시조의 29세손. 광보(光輔)의 아들. 아버지의 병환에 단지주혈하여 3년을 더 살게 하였고 상을 당하자 시묘를 살았는데 시묘 중 벌레떼가 극성을 부리자 참새 떼가 날아와 벌레를 잡아 주었다. 이 사실이 합평군지에 실려 전한다.

◆ 윤유달(尹有達)

본관 파평. 시조의 25세손. 은경(殷卿)의 셋째 아들. 인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아내는 진주 김경우(金慶遇)의 딸이다.

◆ 윤유삼(尹有三)

1575~1648 본관 파평. 자 필지(必之). 호 선양당(善良堂). 시조의 25세손. 은경(殷卿)의 아들. 병자호란에 가재를 기우려 향리에서 의병을 규합하여 안방준(安邦俊)의 막하로 들어가 왕을 돕고자 출전하여 여산(礪山)에 이르러 화의가 성립되어 통곡하고 돌아왔으며 교수(敎授)를 제수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아내는 남평반(潘)씨 첨추 설(潑)의 딸이다.

◆ 윤유징(尹有徵)

1626~1686 본관 파평. 자 세정(世貞). 시조의 25세손. 감역 은로(殷老)의 둘째 아들로 학식과 덕망이 높아 효종 임금이 선비 30인을 선발 할 때 그 중 1인으로 뽑혔다.

아내는 장흥 고박염(高博堧)의 딸이다.

◆ 윤유형(尹有亨)

1664~1726 본관 파평. 자 도숙(道숙). 시조의 25세손. 은경(殷卿)의 넷째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사평(司評)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 김봉위(金奉偉)의 딸이다.

◆ 윤은경(尹殷卿)

본관 파평. 시조의 17세손. 직장 환(諱)의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며 아내는 함평노(魯)씨 진(進)의 딸이다.

◆ 윤은로(尹殷老)

1612~1686 본관 파평. 자 자임(子任). 호 월곡(月谷). 시조의 24세손. 정립(挺立)의 아들로 감역(監役)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함평의 의사들과 함께 병량과 의병을 모으고 가동들을 이끌고 안방준(安邦俊)의 막하로 들어가 여산까지 갔으나 화의가 성립되자 분함을 참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뒤 현감(縣監)을 제수 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아내는 금성나씨 연(淵)의 딸이다

◆ 윤은형(尹隱衡)

1526~1586 본관 파평. 자 경의(敬義). 시조의 21세손. 부사 사상(思商)의 셋째 아들로 부장(部將)을 지냈다.
아내는 이천서씨 관관 황(槐)의 딸이다.

◆ 윤은홍(尹殷弘)

1604~1666 본관 파평. 자 경홍(敬弘). 시조의 24세손. 진사 신립(信立)의 맏아들로 동돈녕(同敦寧)을 지냈다.
아내는 전주 리진경(李進京)의 딸이다.

◆ 윤 의(尹 漪)

1538~1591 본관 파평. 자 문용(文溶). 시조의 22세손. 상호군 형수(衡袖)의 아들로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진주강씨 극양(克良)의 딸이다.

◆ 윤이민(尹履民)

1664~? 본관 파평. 자 징삼(徵三). 시조의 24세손. 인(寅)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해주 최시계(崔時啓)의 딸

이다.

◆ 윤인형(尹仁衡)

1517~1580 본관 파평. 자 덕보(德甫). 시조의 21세손. 사상(思商)의 맏 아들로 경흥부사(慶興府使) 등 7 개군의 수령을 지냈다.
아내는 영광정(丁)씨 부장 세구(世龜)의 딸이다.

◆ 윤자경(尹滋敬)

본관 파평. 자는 덕윤(德允)이요 호는 파옥(坡玉)이니 생원 주간의 후손이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여러 번 향시에 합격하였으며 상을 당하여 과업을 폐하였다. 임전에서 덕을 쌓으며 후생을 가르치되 특히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강연(講演)하였으며 유고가 있다

◆ 윤자봉(尹滋鳳)

1826~1878 본관 파평. 처음 이름 자연(滋連). 자 찬서(燦瑞). 호 경암(敬菴). 시조의 31세손. 오진(五鎭)의 맏아들로 문행이 뛰어났으며 송사 기우만(奇宇萬)의 서문, 최익현의 끝말이 실린 유고집이 발간되었다.
아내는 경주이씨 치만(致萬)의 딸, 김해김씨 복훈(福勳)의 딸이다.

◆ 윤자중(尹滋中)

1450~1511 본관 파평. 자 재화(在和). 시조의 18세손. 감찰 만(蔓)의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좌랑(佐郎)을 지냈으며 아내는 인동장씨 군수 인후(仁厚)의 딸이다.

◆ 윤자학(尹滋學)

1820~1893 본관 파평. 일명 잠(岑). 자 경도(景道). 호 동호정(東湖亭). 제광정(霽光正). 시조의 31세손. 석진(奭鎭)의 아들. 1888년에 음사로 출사하여 감찰, 돈녕부 돈녕을 지냈으며 문집이 전한다.
아내는 수원 최지한(崔之翰)의 딸이다.

◆ 윤자화(尹滋華)

1825~1884 본관 파평. 자 중명(重明). 호 국포(菊圃), 귀영재(歸穎齋). 시조의 31세손. 기진(璣鎭)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태어났으며 1855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주서(注書), 이조 정랑겸 문학,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 장령, 사간을 거쳐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에 올랐다.

다른 나라와 화의를 맺는 것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호 국포를 귀영재라 바꾸고 말년을 산수와 벗하며 지냈으며 유고집이 전해온다.

아내는 상산김씨 미해(未海)의 딸이다.

◆ 윤정간(尹廷侃)

1604~현종조 졸. 본관 파평. 자 여강(汝強). 시조의 23세손. 동추 사(嗣)의 맏아들로 사의(司議)를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 감찰 택(澤)의 딸이다.

◆ 윤정규(尹廷圭)

1599~1663 본관 파평. 시조의 23세손. 공의 명(溟)의 맏아들. 효행으로 출사하여 군자관관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 김대함(金大咸)의 딸이다.

◆ 윤정생(尹挺生)

1556~1617 본관 파평. 자 응서(應瑞). 시조의 23세손. 진사 의(猗)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첨추(僉樞)를 지냈다.

아내는 함평이씨 충립(忠立)의 딸이다.

◆ 윤정우(尹挺宇)

1603~1690 본관 파평. 자 천수(天授). 호 송돈(松墩). 시조의 23세손. 호남 석학재(濟)의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서 곤재 정개청의 학문을 이어받았고 벼슬에는 뜻이 없이 오로지 학문에만 힘써 호남의 석학으로 은둔처사로 이름이 높았다.

기우가(奇偶歌)와 시(詩) 46수, 강일함삼법(綱一函三法) 등이 수록된 “교재집(僑梓集. 1989년 국역본 발행)”이 전해오며 특히 산수에 밝았다.

아내는 이천서씨 계환(繼桓)의 딸이다.

◆ 윤정호(尹挺豪)

1582~1619 본관 파평. 자 응회(應會). 시조의 23세손. 호남 석학 재(濟)의 맏아들로 인조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掌令)을 지냈다.

아내는 이천 서경란(徐景鸞)의 딸이다.

◆ 윤 제(尹 濟)

1562~1645 본관 파평. 자 박이(朴而). 호 수정(守貞). 시조의 22세손. 참봉 형정(衡禎)의 아들. 조선조의 대학자 곤재 정개청(困齋鄭介淸)의 문하생으로 수제자(首弟子)며 곤재의 조카사위다. 그는 곤재가 1589년 기축옥사(己丑獄事)에 무고로 연루되어 1590년 아산보에서 타계하고 제자들도 금고(禁錮)되는 등 화를 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힘써 당대 호남 석학(湖南碩學)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무법(巫法), 구구 방수도(九九 方數圖), 구구적수도(九九 積數圖), 강일 함삼 분합변화(綱一函三 分合變化) 등 역학(易學)과 산수(算數)에 심취하여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가사문학(歌辭文學)에도 조예가 깊어 “심덕성가(心德性歌)” 등을 남겼으며 “교재집(僑梓集. 1989년 국역본 발간)”에 실려 있다.

아내는 고성정씨 선무량 응청(應淸)의 딸이다.

◆ 윤 제(尹 濟)

1703~1751 본관 파평. 자 봉원(鵬遠). 시조의 25세손. 헌민(獻民)의 둘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으며 1720년대에 나주시 문평면으로 이거하여 정착했다.

아내는 나주 나운겸(羅允謙)의 딸이다.

◆ 윤제민(尹濟民)

1634~1690 본관 파평. 자 민첨(民瞻).

호 잠정자(岑鼎子) 또는 공공자(愴愴子). 시조의 24세손. 통덕랑 완(琬)의 아들. 서당에 다닐 때부터 문예가 널리 알려졌으며 19세에 진사가 되었으나 “과거에 격하는 것은 선비로서는 불행이다.”라며 끝내 대과는 치루지 않았다. 창계 임영(滄溪林泳) 등 당대 명현들과 교유가 깊었으며 호남의 문장가로 손꼽혔다. 성균관 선비들의 추천에 의하여 공릉(恭陵) 참봉이 된 후 경기전(慶基殿) 참봉, 내자봉사(內資奉事), 광흥주부(廣興主簿), 사헌부감찰을 지내고 말년에 양성(陽城) 현감으로 옮겨 문학과 행의로서 고을을 흥기시켜 현민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잠정자 시(岑鼎子詩集)”이 전해온다.

아내는 광산정씨(鄭氏) 통덕랑 광문(光門)의 딸, 문화유씨(柳氏) 참봉 학립(學立)의 딸이다.

◆ 윤종진(尹鍾鎭)

1827~1885 본관 파평. 시조의 30세손. 지평 태은(泰殷)의 둘째 아들. 호조 좌랑을 지냈다.

아내는 전주 리상안(李尙安)의 딸이다.

◆ 윤주간(尹周幹)

1688~1756 본관 파평. 자 임보(任甫). 시조의 26세손. 승사랑 체(摯)의 아들로 성균관생원을 지냈다.

아내는 풍양조씨(豐壤趙氏) 상(尙)의 딸, 양성 이도삼(李道三)의 딸이다.

◆ 윤준량(尹俊良)

1568~1630 본관 파평. 시조의 23세손. 영상(榮商)의 증손. 생전의 부모 공양은 물론 아버지 상에 시묘를 살았다.

이 효의 정신이 아들, 손자, 조카에 이르러 나라에서 마을 이름을 사효동(四孝洞)이라 명명했다.

◆ 윤지간(尹之幹)

16382~1676 본관 파평. 자 익중(益仲).

시조의 24세손. 판관 정규(廷奎)의 맏아들로 사평(司評)을 지냈다.

아내는 직장 나주 나인길(羅仁吉)의 딸이다.

◆ 윤지근(尹之謹)

1624~1686 본관 파평. 자 군후(君候). 호 정암(靜菴). 시조의 24세손. 경신(慶信)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남양홍씨 사과 우성(禹成)의 딸이다.

◆ 윤지립(尹之立)

1585~1670 본관 파평. 자 자성(子城). 시조의 22세손. 사재감정 황(趟)의 맏아들로 효행이 뛰어났으며 통덕랑을 지냈고 86세의 장수를 누렸다.

아내는 광산김씨 사룡(士龍)의 딸이다.

◆ 윤지망(尹之望)

1619~1660 본관 파평. 자 계상(啓尙). 호 청송(靑松). 시조의 24세손. 희철(希哲)의 둘째 아들. 지원(之元)의 아우. 병자호란에 열읍의 의사들과 형 지원, 친척 은로(殷老), 유삼(有三) 등과 의병을 일으키고 의곡을 모아 여산(礪山)까지 갔을 때 화의가 성립되어 통곡하고 돌아와 종신토록 은거하였다. 후에 참의(參議)에 증직되었다.

◆ 윤지발(尹之發)

1588~? 본관 파평. 자 자우(子佑). 시조의 22세손. 황(趟)의 둘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김씨 진사 봉(逢)의 딸이다.

◆ 윤지상(尹之商)

1606~? 본관 파평. 시조의 22세손. 부사 길(趙)의 둘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이성취(尼城崔)씨다.

◆ 윤지성(尹之聖)

1597~1645 본관 파평. 자 성지(聖之).



시조의 22세손. 부사 길(趙)의 맏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상주 박유기(維基)의 딸이다.

◆ 윤지원(尹之元)

1615~1647 본관 파평. 자 백인(伯仁). 호 기와(箕窩). 시조의 24세손. 희철(希哲)의 맏아들. 안방준(安邦俊)의 문하생이며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왕이 남한산성에 피신하고 있을 때, 스승 안방준과 함께 각처에 격문을 돌려 의병을 규합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와 왕을 호위할 것을 권유한 후, 그는 곧 바로 남한산성으로 가서 왕을 호위하였다. 갑자기 청군이 산성으로 침입하매 왕이 그에게 적을 막으라는 명령이 내리자 무예에 특출한 그가 병사들을 이끌고 결사적으로 반격하여 물리쳤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주연을 베풀어 치하하였고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이 싸울 의사가 없음을 안 인조대왕이 그에게 병조좌랑 겸 독전관(督戰官)을 제수하여 독전토록 했는데 김자점과 선유사(宣諭使)가 서로 뜻이 맞지 않는 것을 보고 개탄, 보성으로 내려가 많은 의병을 이끌고 여산에 이르렀을 때 적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한 후, 의병을 해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임천에 묻혀 책을 벗삼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여흥민씨 승효(承孝)의 딸이다. 본매사(盆梅祠, 지금은 해보에서 무안으로 옮겼다)에서 배향하고 있다.

◆ 윤지은(尹之殷)

1594~1674 본관 파평. 자 탕임(湯任). 시조의 22세손. 길(趙)의 넷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상주 박대익(朴大益)의 딸이다.

◆ 윤지임(尹之任)

1608~1635 본관 파평. 자 군진(君進). 시조의 24세손. 참봉 정현(挺賢)의 둘째 아들로 1629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正字)를 지냈다.

아내는 함평이씨 봉사 계옥(啓玉)의 딸이다.

◆ 윤징채(尹徵塚)

1675~1764 본관 파평. 자 빈경(彬京). 시조의 26세손. 형은(亨殷)의 둘째 아들로 동추를 지냈다.

아내는 이천 서상효(徐尙孝)의 딸이다.

◆ 윤처중(尹處中)

본관 파평. 시조의 16세손. 황해감사 황(璜)의 셋째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을 지냈다. 재직시 직언을 잘하여 당시 권신들의 미움을 사 능주(綾州)로 귀양되었다가 귀양이 풀린 후 1480년대에 대동면 상옥리 옥동(玉洞)에 정착하여 파평윤씨 정랑공파(正郎公派)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진주유씨(柳氏) 헌납 유(獻納濡)의 딸이다.

◆ 윤 척(尹 滌)

본관 파평. 자 자청(子淸). 시조의 19세손. 진사 은경(殷卿)의 아들. 진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밀양 박천기(朴天機)의 딸이다.

◆ 윤천교(尹天敎)

1737~1810 본관 파평. 자 경숙(敬淑). 시조의 27세손. 삼거(三舉)의 손자. 승지(承旨)를 역임하였다.

아내는 의령 여덕필(呂德弼)의 딸이다.

◆ 윤천승(尹川承)

본관 파평. 시조의 20세손. 절도사 열(說)의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내금위 부사과(副司果)에 올랐고 임진란때 왕을 호종하여 호종 2등훈에 책록되었으며 노년인 1615년 무과에 급제하여 교동부사(喬桐府使)를 지냈으며 왕으로부터 궤장(機杖)을 하사받았다.

아내는 해주오씨다.

◆ 윤철성(尹哲成)

본관 파평. 자는 덕초(德初)요 호는 치당(恥堂). 집은 가난하고 노부모를 모시면서 밤으로 서당을 다니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고달프게 부지런히 일을 하여도 하는 수 없어 짚신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며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연습하니 피를 안 보는 날이 없었다. 급기야 소학을 읽고 몸소 실천하니 세상사람들이 소학동자(小學童子)라 불렀다. 옥산에 집을 짓고 운문(韻文)을 지으며 깊이 깨달아 봄 가을로 예학을 강의하고 도덕을 논하며, 또한 지방선비들의 학문을 권장하고 사례(四禮)의 실천에 힘쓰니 마침내 예학의 으뜸이 되었다. 유교가 전한다.

◆ 윤 추(尹湫)

1549~1598 본관 파평. 자 청옥(淸玉). 시조의 22세손. 찬의 형임(衡任)의 아들로 주부를 지냈으며 아내는 김해김씨 만장(萬章)의 딸이다.

◆ 윤취가(尹就可)

1690~1775 본관 파평. 진숙(進淑) 시조의 27세손. 성관(聖貫)의 맏아들로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 윤하민(尹夏民)

1648~1720 본관 파평. 자 상우(相禹). 시조의 24세손. 재(宰)의 맏아들로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문화 유종무(柳宗武)의 딸이다.

◆ 윤 함(尹涵)

1541~1600 본관 파평. 자 의중(義中). 호 죽포(竹圃). 시조의 22세손. 부장 형우(部將衡佑)의 아들. 효우정신과 학구열이 높았으며 무과에 급제하여 군자감 판관을 지냈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숙부 형필(衡弼)과 함께 왕을 의주 행재소까지 호위하고 남하하

여 의병과 의곡을 모아 행재소에 운반하였고 평안도 안변(安邊) 싸움에서는 그가 선후로 나서며 화공(火攻), 수공(水攻) 등 기이한 전법으로 다수의 적을 참획하였다.

난이 끝나고 귀향하여 은둔했으며 “충효”를 세습(世襲)의 가훈으로 전했다.

아내는 광산김씨 만옥(萬旭)의 딸이다.

◆ 윤 해(尹海)

1541~1597. 9. 19 본관 파평. 자 대용(大溶). 시조의 22세 손. 상호군 형수(衡袖)의 둘째 아들로 병절교위 우부장(右部將)을 지냈다.

아내는 신천강(康)씨 진사 연(演)의 딸이며 1597년 정유재란 때 왜적이 모평에 침입하자 남편과 함께 화수산(花樹山)제로 피란을 하였는데 산중에서 적을 만나 포위되고 적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남편을 호위하며 손으로 칼을 막다가 전신이 찢려 남편과 함께 순절하였다.

1822년에 정려가 내려졌다.

◆ 윤 해(尹諧)

본관 파평. 시조의 27세손. 생원 주간(周幹)의 셋째 아들로 영조조에 성균관진사를 지냈다.

아내는 나주 임균(林均)의 딸이다.

◆ 윤 헌(尹憲)

1551~1627 본관 파평. 시조의 22세손. 은형(銀衡)의 아들. 주부(主簿)를 지냈으며 아내는 함평노(魯)씨 석창(碩昌)의 딸이다.

◆ 윤 혜(尹蕙)

1644~1726 본관 파평. 자 군택(君澤). 시조의 23세손. 지성(之聖)의 넷째 아들로 부호군을 지냈으며 도사 정상룡(鄭祥龍)과 함께 송시열의 신원소를 올렸다.

아내는 창녕 조정구(曹挺九)의 딸, 여산 송필중(宋必中)의 딸이다.

◆ 윤헌민(尹獻民)



1654~1718 본관 파평. 자 은노(殷老). 시조의 24세손. 선(瑄)의 넷째 아들로 학행으로 통덕랑을 지냈으며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의 종향(從享)에 대한 소를 올려 윤허를 받았다.

아내는 안동 권경보(權倬保)의 딸이다.

◆ 윤형록(尹衡祿)

1536~1582 본관 파평. 자 국서(國瑞). 시조의 21세손. 언상(彦商)의 둘째 아들로 사과(司果)를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 진사 영기(永基)의 딸이다.

◆ 윤형복(尹衡福)

1534~1571 본관 파평. 자 대완(大緩). 시조의 21세손. 언상(彦商)의 맏 아들로 감역(監役)을 지냈다.

아내는 함양노(盧)씨 진사 대단(大傳)의 딸이다.

◆ 윤형수(尹衡袖)

1521~1587 본관 파평. 자 인수(仁叟). 호 임곡(林谷). 시조의 21세손. 별제 희상(希商)의 맏아들로 하서 김인후(河西金麟厚)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음식로 참봉직에 출사하여 검상(檢詳)을 지낸 후 1545년 하서와 같이 낙향하였으며 아버지 상에 3년간 시묘를 살았고 그 후는 후학에게 밝은 도를 강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으며 말년에 상호군에 제수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하서의 증시(贈詩) 두 편이 전하는데 하서가 모양강정(牟陽江亭)에 들려 지어준 시를 소개한다.

원컨데 모양 땅의 한줌흙을 얻어서
자손들이 만년 살 기틀되게나
개 중에는 가지가지 맛 여며있겠지만
몇 십평 외밭에 옛 사람의 글이 있을진저

願得牛陽一片土
永爲子孫萬年居
箇中識得多般味

數畝山田古人書

아내는 나주나씨 한림 창(昶)의 딸이다.

◆ 윤형우(尹衡佑)

1520~1587 본관 파평. 자 예수(禮叟). 시조의 21세손. 영상(榮商)의 둘째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部將)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이씨다.

◆ 윤형임(尹衡任)

1532~1610 본관 파평. 자 의수(義叟). 호 동계(東溪). 시조의 21세손. 참봉영상(榮商)의 아들. 호조참판 형필(衡弼)의 아우. 충효로 이름난 집안의 아들로 1555년 나주의 달량(達梁)에 침입한 왜적을 이후발군(李後發 軍)을 도와 토벌한 공으로 통례원 찬의(贊義)에 올랐으며 1584년 대흥년에 가재를 털어 규홀하였다.

임진란때 의주의 행재소까지 왕을 호종하였고 형과 함께 남하하여 많은 양식을 모아 행재소까지 배로 운반하였다. 이 공으로 난이 끝나고 여러 번 관직을 제수했으나 취임하지 않고 성리학을 강구하고 도의 문명을 이루는데 분발하였다.

아내는 평강오씨 후항(後沆)의 딸이다.

◆ 윤형필(尹衡弼)

1529~1609 본관 파평. 자 관계(寬季). 호 성호(城湖). 시조의 21세손. 참봉 영상(榮商)의 넷째 아들. 아버지에게 학문을 닦았고 궁마에도 뛰어났으며 1586년 무과에 급제하여 1588년 김제군수(金堤郡守)를 역임하였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전 군수로서 왕을 호종하고 의주(義州)까지 갔으며 의주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가재(家財)를 포함 군량미 천여석과 의병 700명을 모아 바닷길로 무사히 행재소에 도착하여 왕의 칭찬을 받았다.

또 평안도 안변(安邊) 전투에서는 무장으로 활약하여 크게 왜적을 무찔렀으며 이 전공을 명장 이여송(明將 李如松)이 크게

치하하였고 한음 이덕형(漢陰 李德馨)이 왕에게 알려 선무원종(宣武原從) 1등공신에 책록하고 후에 이조판서를 추증 하였으며 별세하자 왕이 제관을 보내 치제(致祭)하였다.

1799년에 아버지와 함께 성산사(城山祠). 해보면 용산리 소재)에서 배향하였고 또 임천사(林泉祠. 해보면 상곡리 모평 소재)에서도 배향하였으나 고종 때 훼손되고 그 자리에 유허비를 세웠다.

아내는 무장김씨 호(鎬)의 딸이다.

◆ 윤 황(尹 越)

1538~1597 본관 파평. 자 여행(汝行). 호 노파(老坡). 시조의 21세손. 주부 시형(時衡)의 아들. 효자로 이름 높았고 문장과 경학(經學)으로 사림의 추대를 받아 음사로 사재감정(司宰監正)에 이르렀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장성군수 이귀(李貴)가 의사들을 모집하니 그가 오봉 김제민(鰲蜂 金齋閔), 김경수(金景壽)와 같이 가서 의병청을 오성남문(鰲城 南門) 밖에 설치하고 병정 8백명을 모집하여 진주성의 고종후(高從厚) 휘하로 보내고 양곡 7백석을 의곡대장(義穀大將) 기효증(奇孝曾)에게 축탁하여 배로 행재소에 보냈다.

전해오는 남문창의 일기에 그에 대해 다음 기록이 있다.

1592. 7. 28 정읍의 유희진, 태인의 이수일, 무안(務安. 현 함평)의 윤황(尹越), 나주의 김단, 김명, 김경남, 김홍원 등이 차례로 도착하니 그들을 따라온 의사가 100여명이었다.

9. 24 윤황의 편지가 도착하였는데 병사 72명, 군량미 25석, 소 2마라, 말9필을 모았다고 한다.

11. 10 윤황이 의병 89명, 군량미 32석, 장편전(화살) 17족을 가지고 왔다.

1593. 6. 2 윤황이 의사·100명과 군량미 70석을 보내왔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마음놓고 왕

사(王事)를 돕기 위해 가족을 무안의 죽도(竹島)에 피신시키고 의병을 모집하고 가동을 이끌어 울도포(蔚島浦)에 이르렀을 때 적의 배에 포위되었으나 모두들 끝까지 싸우기로 맹세하고 전투를 벌려적 수십급을 베었으나 중과부적으로 사로 잡히고 말았다.

적이 항복을 받고자 세 번이나 몸을 깎는 악형을 가했어도 그들을 꾸짖으며 순절했다.

아내 배씨(裴氏) 죽도에서 남편의 순절 소식을 듣고 자결을 결심할 즈음 적이 죽도에 들어오니 배씨가 큰 소리로 그들의 만행을 꾸짖다가 적의 칼에 허리가 동강나 죽었으며 14세된 딸이 어머니의 몸을 막다가 그도 비참히 죽었다.

당시 12세였던 아들 지립(之立)과 10세였던 지발(之發)이 어머니 시체 앞에서 슬피 울다가 적에게 잡혀 순천의 예교(曳僑)까지 끌려갔으며 포로로 살진데 죽자며 머리를 풀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물가로 밀려 살아 돌아와 어머니 시체를 찾아 선산에 안장하였다.

1681년(숙종 8)에 증손 제민(濟民)이 이사실을 왕에게 알려 배씨의 여(閭)에 명정(命旌)하고 “신속삼강행실(新續三綱行實)”에 실어 세상에 널리 알려 귀감을 삼도록 하였다.

◆ 윤 혼(尹 忻)

1628~1708 본관 파평. 자 자득(自得). 호 노와(老窩). 시조의 24세손. 선전 덕봉(德鳳)의 둘째 아들로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나씨 응희(應禧)의 딸, 김해김씨 기생(起生)의 딸이다.

◆ 윤희상(尹希商)

1487~1555 본관 파평. 자 공은(公殷). 시조의 20세손. 사과 승문(承文)의 셋째 아들로 별제(別提)를 지냈다.



아내는 연일정씨 진사 득주(得周)의 딸이다.

◆ 이 가(李 軻)

?~1592 본관 함평. 시조 언의 15세손. 교수 여정(汝貞)의 넷째 아들. 임진란 때 만형 원(輦)과 함께 창의하여 의병과 가동들을 이끌고 고경명(高敬命) 휘하로 들어가 금산 싸움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형과 함께 전사하였다.

아내는 신평 송용기(宋龍基)의 딸이다.

◆ 이갑생(李甲生)

본관 함평. 시조의 18세손. 폭(幅)의 증손. 나산면 초포리 출신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훈원원 봉사(奉事)를 지냈다.

◆ 이 강(李 綱)

1514~1546 본관 함평. 자 내원(來遠). 시조의 13세손. 형(濫)의 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으며 나누시 문평면으로 이거하여 정착했다.

아내는 창녕조씨(昌寧曹氏)다.

◆ 이강옥(李岡玉)

?~1585 본관 함평. 씨조의 17세손. 참봉 잠(岑)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봉사를 지냈다.

아내는 장수황씨다.

◆ 이건중(李建中)

1556~1625 본관 함평. 자 중보(仲甫). 호 성재(誠齋). 시조의 19세손. 안백(安柏)의 맏아들로 첨정(僉正)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 나경손(羅景孫)의 딸이다.

◆ 이 결(李 傑)

본관 고성. 자 낙재(樂哉). 대사헌 완(琬)의 맏아들. 시조의 15세손.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며 병사(兵使)를 지냈다.

아내는 경주 이동주(李同周)의 딸, 또 한편 신평 이장손(李長孫)의 딸로 전해온다.

◆ 이검손(李儉遜)

1489~1558 본관 함평. 자 사공(士恭). 시조의 13세손. 부호군 득순(得順)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창락찰방(昌樂察訪)을 지냈다.

아내는 영광김씨 각(珏)의 딸이다.

◆ 이 결(李 潔)

본관 경주. 중시조의 27세손. 사맹 양신(司孟良臣)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 보성군수, 예빈시정(禮賓侍正. 1595), 수원 도호부사(1597),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 겸 오위장(五衛將. 1604), 호분위 부호군(虎賁衛 副護軍. 1607)을 역임했으며 임진란때는 사성 우전(司成禹傳)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많은 공을 세웠다.

아내는 창녕조(曹)씨다.

◆ 이경배(李敬培)

1597~1669 본관 경주. 중시조 거명(居明)의 28세손. 우백(友栢)의 둘째 아들로 예빈시 부정(禮賓侍副正)을 지냈다.

아내는 담양 전대득(田大得)의 딸이다.

◆ 이경상(李景祥)

본관 양성. 시조의 15세손. 사평 희복(司評希福)의 넷째 아들. 주부를 지냈으며 아내는 서흥김씨 동추 책(愼)의 딸이다.

◆ 이경인(李景寅)

1851~1895 본관 함평. 처음 이름 현인(鉉寅). 자 진구(珍九). 시조의 26세손. 찬옥(贊郁)의 양아들. 생부 찬홍(贊弘). 1876년 고창현감 겸 나주진관 병마절제도위를 지냈다.

아내는 밀양 박진환(朴晋煥)의 딸이다.

◆ 이경일(李慶一)

1672~1742 본관 함평. 자 태이(泰而). 호 경재(敬재). 시조의 18세손. 구령(九齡)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승지(承旨)를

지냈다.

아내는 참봉을 지낸 청송 심지성(沈之淸)의 딸이다.

◆ 이경지(李慶智)

1761~?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정함(挺咸). 시조의 21세 손. 찰방 원형(元亨)의 넷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 장을 지냈다.

아내는 경주이씨다.

◆ 이경헌(李慶憲)

1721~1792 본관 함평. 자 중명(重明). 호 남은(南隱). 시조의 26세손. 진각(鎭珪)의 맏아들.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 김광목(金光穆)의 딸이다.

◆ 이경헌(李警憲)

1825~1855 본관 함평. 자 인범(仁凡). 시조의 26세손. 돈화(敦華)의 맏아들. 함평읍에서 출생. 교관, 경연참찬, 승지를 지냈다.

아내는 동북 오시중(吳時中)의 딸이다

◆ 이경헌(李敬憲)

1860~1910 본관 함평. 자 내중(乃仲). 호 후암(厚菴). 시조의 26세손. 돈수의 둘째 아들. 사헌부 감찰을 지냈으며

아내는 양성 이중언(李重彦)의 딸이다.

◆ 이경헌(李景憲)

본관 함평. 자는 운거(雲舉)요 호는 만포(晩圃)이니 시당(時塘) 돈오의 아들이다. 이월사(李月沙)의 연원으로 덕행이 순수하고 경학(經學)에 밝아 가범(家範) 일편을 저술하여 건(巾)속에 담고 다녔다. 문도들이 추모하여 기적비를 세우니 광산 노철수(盧澈秀)가 비문을 찬하였다.

◆ 이경현(李敬玄)

1600~1636 본관 함평. 호 오봉(五峯). 시조의 19세손. 진문(振門)과 파평 윤씨의

아들로 사복시정을 지냈다.

아내는 풍산 홍민위(洪民緯)의 딸이다.

◆ 이경훈(李景勳)

1606~? 본관 전주. 자 자겸(子謙). 시조의 27세손. 대호군 언심(彦謹)의 맏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별검, 선전관을 지냈다.

아내는 무송유씨(茂松庾氏), 광산 이몽진(李夢辰)의 딸이다.

◆ 이계강(李季江)

본관 함평. 시조의 12세손. 이조판서 공(兢)의 넷째 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으며 광산군 서방면(현 광주광역시 북구오치, 문화, 매곡동일대)으로 이거하였다.

아내는 광산 이사급(李思偁)의 딸이다.

◆ 이계균(李啓均)

1841~1894 본관 함평. 호적명 태형(泰亨). 자 상삼(相三). 시조의 27세손. 원헌(元憲)의 양아들. 생부 수헌(秀憲). 함평읍에서 출생하여 1888년 무과에 급제하여 1890년 10월 고군산첨절제사를 제수받아 1891년에 부임하였고, 관직에 있으면서 일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화진과 함께 동학운동에 가담하여 총검과 탄약 및 양곡을 자기 집 대밭에 은닉하여 동학군에 공급하였으며 9월의 재봉기에는 의병을 이끌고 참여하는 등 많은 활약을 하였는데 고창현감 이경인(李景寅)이 밀고하여 1894년 12월 25일 나주에서 형사하였다.

아내는 이천 서홍연(徐鴻淵)의 딸이다.

◆ 이계남(李繼男)

1577~1652 본관 함평. 시조의 17세손. 예빈시정 충직(忠直)의 양아들. 생부충실(忠實). 주부를 지냈다.

아내는 진주 강득황(姜得璜)의 딸이다.

◆ 이계림(李桂林)



본관 함평. 시조의, 12세손. 사직 연손(連孫)의 아들. 군수를 지냈으며 청백리로 이름 높았다.

아내는 부사(府使) 남양 홍성강(洪性剛)의 딸이다.

◆ 이계반(李桂攀)

본관 고성. 시조의 17세손. 군수 흥제(興悌)의 아들. 찰방(察訪)을 지냈다.

아내는 동래 정린상(鄭麟祥)의 딸이다.

◆ 이계방(李桂芳)

본관 함평. 시조의 14세손. 직장 곤(崑)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典籍)을 지냈으며 아내는 나주나씨다

◆ 이계백(李啓栢)

본관 함평. 시조의 27세손.

함평읍에서 태어났으며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이계번(李係蕃)

신증동국여지승람 명환조(名宦條)에 “현감이 되어 청렴하여 욕심이 없고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 이계선(李啓善)

1863~1905 본관 함평. 자 경여(敬汝). 호 연파(蓮坡). 시조의 27세손. 일헌(一憲)의 양아들. 생부 기헌(麒憲). 교관(敎官)을 지냈다.

아내는 죽산 안정로(安正魯)의 딸, 경주 이규원(李圭遠)의 딸이다.

◆ 이계선(李啓先)

1869~1909 본관 함평. 자 화여(化汝). 호 매성(梅城). 시조의 27세손. 이헌(以憲)의 맏아들. 1909년 의병 토벌대의 만행에 분개하여 사촌 동생 계중(성건)과 창익 모병하여 나주 금성산(錦城山) 전투에서 동생과 함께 순절하였다.

아내는 한양 조두일(趙斗一)의 딸이다.

◆ 이계송(李啓松)

1841~1884 본관 함평. 일명 홍규(弘奎). 자 복삼(復三). 시조의 27세손. 경헌(警憲)의 맏아들로 함평읍에서 출생. 1871년 무과에 급제하여 첨추를 지냈다.

아내는 밀양 손희열(孫晦烈)의 딸이다.

◆ 이계옥(李啓玉)

본관 함평. 시조의 27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를 지냈다.

◆ 이계옥(李啓郁)

1809~1878 본관 함평. 자 영술(永述). 호 오후(五候). 시조의 27세손. 돈현(敦賢)의 손자. 학문이 뛰어났으며 초시(初試)에 두번이나 입격하였으나 대과에서는 낙방하였고 초시의 시권과 고강단자(考講單子), 문집이 전한다.

아내는 파평윤씨 옥진(玉鎭)의 딸이다.

◆ 이계윤(李繼允)

본관 함평. 시조 언의 9세손. 상호군지화(之華)의 아들. 병사(兵使)를 지냈으며 아내는 진주하(河)씨다.

◆ 이계익(李啓益)

1812~1889 본관 함평. 처음 이름 계학(啓學). 자 시중(時中), 호 관덕재(觀德齋). 시조의 27세손. 광헌(匡憲)의 아들. 1855년에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며 수(壽)로 중추(中樞)를 제수 받았다.

그는 재산을 늘려 인근에서 부러워하는 3,000석 부를 누렸으며 아내는 진주정씨 덕봉(德奉)의 딸이다.

◆ 이계정(李繼貞)

본관 함평. 시조의 14세손. 만호를 지낸 순화(舜華)의 아들. 별검(別檢), 장락원정(掌樂院正)을 지냈으며 아내는 광산 김씨다.

◆ 이계중(李啓仲)

1887~1909 본관 함평. 자 화선(化善). 호 매곡(梅谷). 시조의 27세손. 함헌(咸憲)의 아들. 1909년 의병 토벌대의 만행에 분개하여 사촌형 계선(啓先)과 함께 창 의 모병하여 금성산 전투에서 형과 같이 순절하였다.
아내는 김해 김문안(金文安)의 딸이다.

◆ 이 곤(李 崑)

본관 함평. 함풍부원군 광봉의 9세손. 시조의 13세손. 경복궁 제거(提舉) 유의 아들. 안(岸)의 아우로 단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상의직장(尙衣直長)을 지냈다.
단종의 폐위에 비분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길을 떠난 중형(仲兄) 안을 따라 본향(本鄉)인 함평에서 두문 자정하였다.
묘는 함평읍 성남리 성북에 있다.

◆ 이곤옥(李崑玉)

1562~1639 본관 함평. 자 헌보(獻寶). 시조의 17세손. 참봉 잠(岑)의 다섯째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를 지냈다.
아내는 김해김씨다.

◆ 이 관(李 輅)

본관 함평. 1505~1575 호 망헌(望軒). 시조의 15세손. 진사 여림(汝霖)의 둘째 아들. 부장(部將)을 지냈으며 아내는 담양 전(田)씨 판관 세균(世畇)의 딸이다.

◆ 리 관(李 寬)

본관 전주. 문과에 급제하여 도총관을 지냈다.

◆ 이관일(李貫一)

1678~1750 본관 함평. 자 서이(恕而). 시조의 18세손. 구령(九齡)의 둘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침사를 지낸 흥덕 장남거(張南舉)

의 딸이다.

◆ 이광봉(李光逢)

본관 함평. 시조 언의 5세손. 검교위위대 장군(檢校威衛 大將軍) 순지(順之)의 둘째 아들. 생몰 년대는 전해오는 기록이 없으나 고려사에 나오는 인물로 고려사에 나오는 그의 행적을 중요 부분만 요약해 보면 1275년(충렬왕 원년)에 입조하였고 1276년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어 4왕을 따라 원(元)나라에 갔다.

1314년 1월에 충선왕(忠宣王)이 원 나라로 붙들려 가고 충숙왕(忠肅王)이 등극하였으며, 4월에 상호군(上護軍)이 되어 인종(仁宗)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로 원에 갔다.

1319년(충숙왕 6)에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가 되고 1320년 문하평리(門下評理)가 되었으며 이듬해에 상왕(上王)과 충숙왕 사이의 갈등에 의해 배정지(裴廷芝)와 귀양갔다.

충숙왕에 의해 1차 숙청되었던 그는 충숙왕에 의해 다시 1324년(충숙왕11) 4월에 삼사사(三司使. 정3품. 재정 담당)에 등용되고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책록되어 함풍부원군(咸豐府院君)에 봉작되었다.

훈봉(勳封) 사실은 고려사의 편찬 자료가 되었던 민지(閔漬)의 강목과 이색(李穡)의 금경록(金鏡錄)에 실려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그는 당시 고려 왕조에서 권한공(權漢功) 등과 더불어 충선왕의 옛 신하(심왕파-潘王派)로서 한 때 조정의 인사권과 재정을 장악하는 등 실세(實勢)중 한 사람이었다.

◆ 이광헌(李匡憲)

1787~1848 본관 함평. 자 정지(正之). 시조의 26세손. 돈상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효행이 탁월하여 정려를 내렸다.
아내는 서산유(柳)씨 휘택(輝宅)의 딸, 광산김씨 광렬(光烈)의 딸이다.



◆ 이국배(李國培)

본관 함평. 시조의 19세손. 사형(斯馨)의 둘째 아들 절충장군을 지냈으며 아내는 나주 김상헌(金尙憲)의 딸이다.

◆ 이국화(李國華)

1701~1781 본관 함평. 자 달원(達元). 시조의 20세손. 형백(亨白)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부호군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 노사성(魯思聖)의 딸이다.

◆ 이 규(李 圭)

본관 고성. 시조의 18세손. 찰방 계반(桂攀)의 아들 생원과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풍산홍씨다.

◆ 이규방(李圭方)

본관 경주. 시조의 36세손. 춘영(春榮)의 셋째 아들로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 이민중(李敏中)의 딸이다.

◆ 이규서(李奎緒)

1734~1775 본관 함평. 자 문원(文遠). 시조의 24세손. 정랑 명룡(命龍)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청도 김인택(金仁澤)의 딸이다.

◆ 이극명(李克明)

1388~1454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준년(俊年). 시조의 10세손. 낭장 자보(自寶)의 셋째 아들. 선략장군 호귀위 호군을 지냈으며 사후 함평군(咸平君)에 봉작 되었다. 아내는 정혼(鄭渾)의 딸이다.

◆ 이극성(李克誠)

본관 함평. 자 중보(仲寶). 호 문헌(文軒). 함평부원군 광봉(光逢)의 13세손. 시조의 17세손. 참봉 춘수(春壽)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 출신이며 문학이 화려하고 기절이 있었다. 함평 현감록에 1592년에 부임했다는 기

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임란 이후 15 년간 이 누락되어 있어 퇴임 년월일은 알 수 없다.

그의 행장에 의하면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가동(家僮)과 의병을 인솔하고 이순신 휘하로 들어가 전략을 협의하고 당포(唐浦)와 고도(庫島) 싸움에서 전공을 세워 첨추(僉樞)에 올랐다.

1598년 9월에 왜적이 향교리 그의 집으로 쳐들오자 집을 지키고 있던 세 딸이 “이 집이 뉘 집인 줄 아느냐? 바로 이장군 집인데 무엄하다.”고 호통쳤다. 왜적은 그의 세 딸을 모두 무참히 살해하였다. 나라에서 그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정려를 명하였다.

아내는 광산김씨, 제주양씨다.

◆ 이극해(李克諧)

본관 함평. 처음 이름 해년(諧年). 시조의 10세손. 낭장 자보(自寶)의 둘째 아들로 함성군(咸城君)에 봉작 되었다. 아내는 부호군 태원 안항(太原安恒)의 딸이다.

◆ 이 금(李 鎭)

1526~1594 본관 함평. 자 언탁(言卓). 시조의 14세손. 찰방 겸손(儉遜)의 넷째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찰방(察訪)을 지냈다. 아내는 참봉 광산 김질(金秩)의 딸이다.

◆ 이 급(李 岌)

1533~1597 본관 함평. 자 양백(昂伯). 호 삼회(三悔). 함평부원군 광봉의 12세손. 시조의 16세손. 진사 의수(依樹)의 아들. 훈도(訓導).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고 효성 또한 지극하여 아버지 상(喪)에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정유재란 때 적이 다시 침입하자 “임금이 피란하였으니 신하는 마땅히 목숨을 바쳐야한다.”며 군량과 의병을 모아 이순신 군진으로 가니 순신이 이르기를 “그대가 비록 유생(儒生)일 망정 참다운

호남의 의사(義士)로다.”라고 하였다.
당포(唐浦)와 고도(庫島)의 싸움에서 전공을 세우고 순절하였고 묘는 함평읍의 옛 영풍 운산(永豐雲山)에 있다.

아내는 함평노씨(魯氏) 군수 행권(行權)의 딸이다.

◆ 이 긍(李 兢)

1389~1433 본관 함평. 호 오당(梧堂). 시조의 11세손. 수사 춘수(春秀)와 안동김씨의 아들로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牛峙里)에서 태어났으며 중국어에 능하였고 문장과 필법 또한 뛰어났다.

일찍이 생원, 진사과를 거쳐 태종 5년(1405)에 문과에 등과하여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사예(司禮)를 지냈고 세종 정미년(1427)에 중시(重試)에 올라 예조 참의, 이조참의, 승정원승지,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홍문관·예문관 대제학(大提學) 등의 요직을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올랐고 세자 좌빈객(左賓客)을 역임하고 기성군(箕城君)에 봉해졌다.

전라도 감시관(監試官)으로서 고향 함평을 지내며 쓴 시가 전한다.

“자손에게 끼친 덕이 더욱 내게 깊어서
다행히 성대를 만나 선비 속에 끼이게 되었네

벼슬길에 올라 고향 땅 거니노니
말로 듣던 함평 땅은 소문처럼 좋은 땅이구나

遺擇雲仍鍾我心
幸逢昭代忝儒林
來遊書錦桑鄉路
聞說成豐是足音”

1443년 사신으로 중국에 가서 성삼문(成三問)과 같이 탁영시(擢英試)에 급제한 일은 유명하며, 이해 5월 종계변무사(宗系辯誣使)로 다시 명나라에 갔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옴을 절통하게 여기던 중 병을 얻어 임종시에 시 한 수를 남기고

압록 강 침수참(聶水站)에서 타계하니 44세였다.

“궁전에서 두 번이나 월계화를 꺾었고 상대(霜臺)에서 세 번이나 황제를 배알했네
좋은 소식 임금께 아뢰지 못하고 압록강가에서 이세상 하직하네”

이에 세종은 승지 임은(林垠)을 제관(祭官)으로 보내었다.

세종은 제문에서 “...산하의 거운이요 수월(水月)의 정신이로다. 두 조정에 이름 나고 백세에 공경하리로다.”라고 하였다.

1790년부터 함평유림들의 논의와 문중의 협의에 의해 사산사(射山祠,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소재)에서 배향한다.

아내는 광산이씨 대사성 초(椒)의 딸이다.

◆ 이기남(李箕南)

본관 고성. 시조의 20세손. 어모장군 인번(仁蕃)의 아들. 조산대부 군기시 첨정(軍器侍僉正)을 지냈다.

아내는 과주 이지상(李知尙)의 딸이다.

◆ 이기서(李淇緒)

본관 함평. 순조조(純祖朝). 자 원국(元國). 호 해은(海隱). 호은 시대의 6세손. 재예가 뛰어나 문행이 정숙하고 매사에 치밀하니 선비들이 존경했다.

◆ 이기성(李奇聖)

본관 고부. 시조의 23세손. 참봉 연(連)의 아들. 진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함평이씨 진사 춘영(春榮)의 딸이다.

◆ 이기주(李基疇)

1729~1805 본관 함평. 자 사구(士九). 호 기암(箕菴). 시조의 24세손. 정흙의 아들로 진사를 지냈다.

아내는 진주 강희삼(姜喜三)의 딸이다.

◆ 이길수(李吉洙)

1778~1810 본관 함평. 자 백휴(伯休). 호 성경(誠京). 시조의 26세손. 군자감정



진악(鎭岳)의 맏아들. 좌랑(佐郎)을 지냈다.
아내는 흥덕장씨다.

◆ 이남규(李南奎)

1867~1907. 11. 7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종태(鍾泰). 시조의 27세손. 현근(鉉根)의 양아들. 생부 현감 경인(景寅). 1894년 조선조에서 마지막 시행한 사마시(司馬試)에서 진사과에 합격한 무를 겸비한 인재로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일제의 책동에 의하여 8월에 군대가 해산되자 그는 이에 통분함을 금치 못하다가 장성의 기삼연(奇三衍)이 창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을 문암(文菴, 나산면 수하리)과 김태원(金泰元) 의병장의 출생지인 갈마촌(渴馬村)은 도랑 하나를 넘는 지척이어서 상의하여 거의하였다. 그는 후군장(後軍將)이 되고 김태원은 선봉장(先鋒將)이 되어 1907년 10월 31일(음 9. 25) 무장(茂長)으로 진격하여 적장을 살해하는 등 전과를 올렸고, 1907년 12월 7일(음 11. 3) 법성포(法聖浦)로 들어가 적 10여명과 일본인 집 10여채를 불살랐으며, 이 전투를 마치고 기삼연 대장의 권유에 따라 김태원 부대가 창설되자 김태원 부대로 옮겼다. 12월 11일(음 11. 7) 고창성(高敞城)에 주둔한 일본 부대를 기습하여 성 아래서 부하를 지휘하던 중 포위되어 중상을 입고 은신하다가 어느 여인의 밑고로 적에게 체포되어 동일 순국하였다. 1977년에 건국 포장을 추서하였다.

아내는 감찰 태인 박석홍(朴碩弘)의 딸이다.

◆ 이달헌(李達憲)

1804~1852 본관 함평. 자 군백(君白). 시조의 26세손. 둔상(敦相)의 셋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금성 나정량(羅廷良)의 딸이다.

◆ 리 당(李 塘)

1717~1784 본관 전주. 군호(君號)무림군(茂林君). 능창대군 5세손. 완원군(完源君)의 아들. 현록대부(顯祿大夫)에 올랐으며 1800년경 해남에서 학교면 월호리로 이거하여 정착하였다.

아내는 대구배씨 세홍(世弘)의 딸이다.

◆ 이당경(李唐敬)

본관 함평. 시조의 8세손. 가선대부 수년(秀年)의 아들. 선공감정(繕工監正)을 지냈다.

◆ 이대성(李大成)

본관 함평. 시조의 16세손. 천수(千壽)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사과를 지냈다.
아내는 진주장씨다.

◆ 이대옥(李大玉)

1740~1800 본관 함평. 호 죽촌(竹村). 시조의 20세손. 동명(東明)과 나주 나씨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였으며 1770년 형 대휘(大彙)와 함께 생원과에 합격하였다.

아내는 강릉 유종한(劉宗漢)의 딸이다.

◆ 이대홍(李大弘)

1576~1638 본관 함평. 차 의중(毅中). 호 동와(東窩). 시조의 18세손. 의금부도사 덕룡(德龍)의 아들로 군기감정을 지냈다.
아내는 진사 경주 이광축(李光軸)의 딸이다.

◆ 이대휘(李大彙)

1729~1779 본관 함평. 시조의 20세손. 동명(東明)과 나주나씨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였고 1770년 동생 대옥과 함께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아내는 기계 유명원(俞命元)의 딸이다.

◆ 이덕경(李德敬)

본관 함평. 일명 덕연(德連). 자 경숙(敬肅). 시조의 17세 손. 사복시정 준업(司僕

侍正遵業)의 손자.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란때 중형(仲兄)이 순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일으켜 가동(家僮) 등 100여명을 이끌고 이순신 막하로 들어가여 러 전투에 참전하였고 노량(露梁) 싸움에서 적선 수십척을 불사르고 장열히 순국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 이덕남(李德男)

본관 양성. 시조의 15세손. 준(遵)의 맏아들. 선조조 때 주부를 지냈고 1614년(광해 6년) 재종제 원상(元祥)과 함께 익사원종(翼社原從) 2등공신 녹권(錄券)을 받았다.

◆ 이덕룡(李德龍)

1556~1597 본관 함평. 자 희서(羲瑞). 호 장은(牆隱). 시조의 17세손. 찬(瓚)의 맏아들로 의금부도사를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의병진에 있을 때 적이 그의 집에 침입하여 아내 양성이씨를 살해하였다. 이에 격분한 그는 ‘종제덕일(德一)과 이순신 군진으로 들어가 많은 적을 살해했다. 아내는 전주 리순기(里順基)의 딸, 양성 이기대(李基大)의 딸이다.

◆ 이덕린(李德麟)

본관 양성. 시조의 15세손. 준의 둘째아들. 첨지(僉知)를 지냈다.

◆ 이덕림(李德林)

1738~1794 자 형백(馨伯). 시조의 21세손. 대려(大閭)의 맏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부사를 지낸 경주 이회원(李會元)의 딸, 이천 서진우(徐甸羽)의 딸이다.

◆ 이덕림(李德林)

본관 양성. 충순위 진(進)의 아들. 선조조에 만호를 지냈으며 1614년 익사원종(翼社原從) 1등공신의 녹권을 받았다.

◆ 리덕번(李德蕃)

본관 전주. 문과에 급제하여 찬성(贊成)을 지냈다.

◆ 이덕생(李德生)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극화(克華)의 아들. 지평(持平)을 지냈으며 아내는 금성 나진문(羅振文)의 딸이다.

◆ 이덕수(李德秀)

본관 양성. 시조의 15세손. 첨지 응복(應福)의 아들.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봉사(奉事)를 지냈으며 아내는 영광 김씨다.

◆ 이덕일(李德一)

1561~1622. 9. 4 본관 함평. 자 경이(敬而). 호 칠실(漆室). 부원군 광봉(光逢)의 13세손. 시조의 17세손. 동추(同樞)은(崧)의 아들. 문무를 겸비하였는데 1594년 무과 을과에 올랐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적이 함평에 침입하자 의병과 피란민 수천을 모아 대동면 고산(高山)글에서 적을 맞아화살 하나로 적병 둘을 쓰러트리니 나무위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니 적이 “날으는 장군”이라 하며 퇴각하였다. 이튿날 동막(신광면 월암리 新基 소재) 전투에서도 “정충(精忠)”이라 쓴 깃발을 내걸고 다시 왜적을 물리쳤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의 부름을 받아양흥, 양휴 두 아들과 함께 그의 휘하로 들어가니 국사(國士) 대우를 하였고 휘하에서 전략을 세워 승첩을 거두도록 조치하였다.

1600년 월사 이정구(月沙 李廷龜)의 주선으로 절충장군이 되고 1601년에 부호군(副護軍. 3품직), 다시 첨지중추부관(僉知中樞府官)에 올랐으며 4월에 중국 사신의 영위사(迎慰使)가 되어 정유재란때의 이야기를 하니 사신이 “동방에 한 남자가 있구나”라고 칭송하였다. 1609년에도 중국 사신의 영위사로 활약하였고 1610년 3월 4



일 병조좌랑, 1611년 통제영 우후(統制營虞侯)가 되었다.

1613년(광해 5) 5월 초 김제남(金悌男.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아버지)과 역모를 하였다는 모함을 받고 김제남, 이지효(李止孝), 이효철(李孝哲)등 수십여명과 함께 의금부에 투옥되었고 7월 6일에 국청을 거쳐 방면되었다.

그 뒤 시사(時事)가 날로 그르쳐짐을 보고 우국가(憂國歌) 28장(章)을 지었으니 모두가 때를 이쉬워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말이며 오늘날 국문학상 가사문학(歌辭文學)의 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학문(學問)을 후리티오 反武을 헛은 뜻은 삼척검(三尺劍) 둘러메오

진심보국(眞心報國)호려터니

흔일도 헛음이 업스니 눈물계워 흐노라”

〈우국가28장 중제 1장〉

1731년에 월산사(月山祠. 대동면 향교리소재)를 창건하고 배향하였다.

아내는 주부 금성 나 울(羅 慄)의 딸, 직장 김해 김수원(金遂源)의 딸이다.

◆ 이덕추(李德樞)

본관 함평. 시조의 20세손. 경호(敬浩)의 맏아들. 효로 참봉이 제수되어 통덕랑까지 올랐다.

아내는 청주한(韓)씨다.

◆ 이덕행(李德行)

1559~1642 본관 함평. 자 득성(得誠). 호 농암(龕菴). 함평부원군 광봉의 13세손. 시조의 17세손. 훈도 급(岾)의 아들로 159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1597년 훈련원 봉사로 도원수 권율(權栗)막하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진사 신유일 등과 군량을 모아 군진으로 보내려 하던 중 난이 평정되자 의곡을 관에 헌납하였다.

84세로 타계하였고 아내는 영광김씨, 한양조씨다.

◆ 이돈상(李敦相)

1767~1810 본관 함평. 자 여필(汝弼). 시조의 25세손. 규서(奎緒)의 둘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파평 윤관철(尹寬喆)의 딸이다.

◆ 이돈우(李敦友)

1784~1845 본관 함평. 호 만락헌(晩樂軒). 시조의 25세 손. 재서(在緒)와 창령조씨의 아들로 손불면에서 태어났으며 1813년 성균관진사시에 합격하였고 효자로 이름을 높였다.

아내는 나주 정치윤(丁致胤)의 딸이다.

◆ 이돈하(李敦夏)

1770~1834 본관 함평. 시조의 25세손. 자 여화(汝華). 호 휴와(休窩). 규서(奎緒)의 셋째 아들. 설서 돈현(敦賢)의 아우로 1807년 4월7일 춘당대 식년(春塘臺 式年)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겸 춘추관 기사관(記事官), 이조정랑, 은율(殷栗)현감 등을 지냈으며 발령 교지 등 다수의 고문서가 전한다.

아내는 남원양씨 인필(仁弼)의 딸이다.

◆ 이돈학(李敦學)

1824~1906 본관 함평. 자 정현(正賢). 시조의 25세손. 관서(觀緒)의 맏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동래 정달용(鄭達容)의 딸이다.

◆ 이돈현(李敦賢)

1761~1810 본관 함평. 처음 이름 돈덕(敦德). 자 여용(汝用). 호 삼회재(三悔齋). 시조 언의 25세손. 정랑 명룡(命龍)의 손자. 규서(奎緒)의 아들로 1798년 3월 12일 친임 명정문 전시(親臨明政門殿試) 문과에 급제하여 참방, 이조정랑, 승문원 부정자(副正字), 시강원 설서(說書) 등을 지냈

다.
아내는 해남윤씨 광욱(光郁)의 딸이다.

◆ 이돈후(李敦厚)

본관 함평. 1779~1862 호 망산(望山).
시조의 25세손. 재남(再南)과 금성정씨(鄭氏)의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태어났다.
중추부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했다.
아내는 광산 김덕정(金德鼎)의 딸이다.

◆ 이 동(李 董)

본관 함평. 시조의 8세손. 인원(仁元)의
맏아들. 밀직사사(密直司事)를 지냈다.

◆ 이동백(李東白)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하영(夏榮)의
아들. 진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경주이씨다.
충남 홍주(洪州)로 이거 정착하였다.

◆ 이동헌(李東憲)

1782~1834 본관 함평. 자 선보(鮮甫).
호 사휴옹(四休翁). 시조의 26세손. 설서
돈현(敦賢)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동래 정동성(鄭東成)의 딸이다.

◆ 이두삼(李斗三)

1677~1728 본관 함평. 자 자건(子建).
시조 언(彦)의 22세손. 백년(栢年)의 아들.
1703년(숙종 29)에 급제하여 양산군수(梁山郡守)를 지냈고 1728년 결성현감(結城縣監) 재직시 주위의 모함으로 역변에 연루
되어 극형을 받았다. 이후 결성과 보령(保寧)에
혹심한 가뭄이 계속 되었고 이에 자
극 받은 결성인들이 해마다 정월 보름이면
단을 꾸며 제사를 지냈으며 결성의 사민
(士民)들이 신원(伸冤)을 청하여 63년만인
1790년(정조 14)에 역적의 누명을 벗고
관작을 회복하였다.

아내는 광산김씨 상재(尙載)의 딸이다.

◆ 이두정(李斗挺)

본관 함평. 시조의 20세손. 가(軻)의 아

들. 월야면에서 태어났으며 무과에 급제하
여 판관(判官)을 지냈다.

◆ 이득견(李得堅)

1620~1680 본관 함평. 자 견옥(堅玉).
호 영은(穎隱). 시조의 17세손. 부호군 우
신(又新)의 아들. 지평(持平)을 지냈고 아
내는 해주 오성립(吳成立)의 딸이다.

◆ 이득순(李得順)

본관 함평. 시조의 12세손. 지평 덕생(德生)의 아들. 부호군을 지냈으며 아내는 병
조판서 나주 정휘(正徽)의 딸, 그리고 함평
임씨(咸平任氏)다.

◆ 이득신(李得新)

본관 경주. 중시조의 28세손. 우회(友檜)의
둘째 아들. 첨지중추부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고창조(曹)씨 정우(廷佑)의 딸이다.

◆ 이득원(李得元)

본관 함평. 자 진일(震一). 시조의 16세
손. 우남(遇男)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를 지냈다. 아내는 광산 김미
수(金眉壽)의 딸이다.

◆ 이득창(李得昌)

1609~1647 본관 함평. 자 운로(雲路).
시조의 19세손. 군기감정 대홍(大弘)의 아
들로 장락원정(掌樂院正)을 지냈다.
아내는 해주 최준기(崔峻記)의 딸이다;

◆ 이 령(李 輅)

?~1592 본관 함평. 시조 언의 15세손.
교수 여정(汝貞)의 셋째 아들. 영릉참봉을
지냈으며 임진란때 형 원(輅)과 동생 가
(軻)가 금산전에서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
고 원수를 갚기 위해 금산으로 달려가 적
수 십 명을 베고 그도 전사하였다.

아내는 포천황씨(抱川黃氏)다.

◆ 이 림(李 琳)



본관 함평. 처음 이름 밀재(密材).
시조 언(彦)의 5세손. 순지(順之)의 맏아들.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상의직장동정(尙衣直長同正)을 지냈으며 아내는 영암 박씨(靈巖朴氏) 신기군(神騎軍) 대충(大冲)의 딸이다.

◆ 리만근(李萬謹)

본관 전주. 처음 이름 만중(萬鍾). 완풍대군(完豐大君)의 8세손. 홀(鵠)의 아들. 충의위 절충장군을 지냈고 아내는 광산김씨다.

◆ 이만헌(李萬憲)

1805~1881 본관 함평. 구지(區之). 시조의 26세손. 둔하(敦夏)의 둘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신천 강의(康誼)의 딸이다

◆ 이명룡(李命龍)

1708~1789 본관 함평. 자 성서(聖瑞). 호 계일현(戒逸軒). 순화(舜華)의 10세손. 시조의 23세손. 나산면 초포리 사산에서 태어났으며, 1759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문과급제 시권과 1760년 12월부터 2년간에 걸쳐 각지의 순회, 또 근무한 관청의 처리 사항 등을 기록한 일록(日錄)이 전해오고 있으며 1763년 성균관 전적(典籍), 공조 정랑, 춘주관 기주(記主), 1744년 선전관, 1787년 수(壽)로 통정대부에 가자(加資)되는 등 발령 교지와 서찰 등 다수의 고문서가 전해오고 있다.

사후에 초포사(草浦祠. 나산면 초포리 초포소재)에서 배향한다.

아내는 도강김씨 통덕랑 중형(重衡)의 딸이다.

◆ 이문간(李文幹)

?~1550 본관 함평. 시조의 14세손. 생원 호인(好仁)의 둘째 아들. 남원 교수(南原敎授)를 지냈다.

아내는 사간(司諫)을 지낸 함평 모순(牟

恂)의 딸로 1549년에 타계하였다.

◆ 이문창(李文昌)

본관 함평. 시조의 14세손. 생원 호인(好仁)의 아들. 훈도(訓導). 덕행이 순후하여 많은 제자들을 길러 칭송이 자자했다. 문집이 전해는데 정유재란 때 소실하였다. 아내는 경주이씨다.

◆ 이문화(李文華)

본관 경주. 중시조의 24세손. 진사 맹(孟)의 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으며 1500년경 나누시 문평에서 해보면 대각리 회화정으로 옮겨 살았다.
아내는 청주 한대유(韓大愈)의 딸이다.

◆ 이민우(李玟愚)

1822~? 본관 경부. 자 대연(大淵). 호 취헌(醉軒). 중시의 33세손. 인(麟)의 둘째 아들. 효행과 학식이 뛰어났으며 양지록(養志錄)과 정심명(正心銘)을 저술하였다. 아내는 광산 김기오(金記五)의 딸이다.

◆ 이민홍(李敏弘)

1804~1886 본관 함평. 호 귀은(龜隱) 시조의 25세손. 형서(炯緒)와 순천 박씨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였고 1857년 효로 천거되어 벼슬길에 나아가 금화현감, 돈녕부 도정을 지냈다. 금화현감 재직시에 청렴결백한 치정을 하여 현민들이 선정비를 세웠다.
아내는 나주 오제환(吳霽煥)의 딸이다.

◆ 이방필(李邦弼)

?~1592. 임진왜란 때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이방헌(李邦憲)

1824~1862. 6. 4 본관 함평. 자 현숙(顯叔). 시조의 26세손. 둔섭(敦涉)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에서 태어났다.

함평현의 수리(首吏)로 재임하던 중 세도

정치에 빌붙은 탐관오리들의 비행을 보다 못해 1862년 4월 16일 정한순(鄭翰淳) 등과 함께 함평농민봉기의 주동자가 되어 현감 권명규(權命奎)를 몰아내고 관리가 공백 상태인 1개월 가량 함평현의 업무를 정한순과 같이 관장하였다.

5월에 안핵사 이정현(李正鉉) 앞에 자진하여 나아가 개혁 10조를 올리고 6월 4일 정한순, 김기용(金己用), 진경심(陳敬心), 김환(金百煥), 홍일모(洪日模)와 같이 6명이 효수되었다.

이 사건을 당시는 철종조 함평민란이라 하여 역적으로 몰아부쳤으나 이 사건은 백성의 권리를 찾자는 민주의 항쟁으로 이해되어 지금은 함평농민봉기, 함평농민운동, 함평농민항쟁으로 격상하여 부르고 있다.

아내는 밀양 손기채(孫基采)의 딸이다.

◆ 이배인(李培仁)

1625~1709 본관 함평. 자 선장(善長). 호 장육당(藏六堂). 시조 언(彦)의 20세손. 주부 진문(振門)의 아들로 부모를 모시는 정성과 돌아가신 후 시묘살이를 함에 있어서 효성의 순수함과 독실함이 부자(夫子)가 말한 “효성스럽도다”에 알맞았고 학문 또한 이름이 높았다. 사는 집 뒤 산등성이에 몇칸의 집을 얹어 놓고 “장육당”이란 당호(堂號)를 걸고 스스로 호를 장육당(藏六堂)이라 했는데 “장육”이란 거북이가 꼬리, 발 네개를 숨기고 산다는 즉 은둔을 의미한다.

당대의 문장가 손재 박광일(遜齋 朴光一)이 기문(記文)을 짓기를, “주옹(主翁)이 출입을 잘 안하는 것 장육이요, 함부로 언소(言笑)를 안하는 것도 장육이요, 겉으로 들어내지 않으려는 것도 장육이요, 그 마음을 안정하고 굽주림을 달게 참는 것도 장육이요, 지혜를 머금어 감추고 외물(外物)을 더불어 다루지 않는 것도 모두 장육이다. 그렇다면 신령(神靈)한 거

북이 주옹이요, 주옹이 바로 신령한 거북이니 다르게 보아서는 안되리라.”하였다.

유사(有司)가 경학과 행의로 천거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84세로 졸하니 나라에서 특별히 승정원 좌승지(承政院 左承旨)를 증직하였다.

아내는 진주정씨 통덕랑 내창(來昌)의 딸이다.

◆ 이백당(李伯棠)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현감 이(貽)의 아들 성균관생원, 봉직랑(奉直郎), 운봉현감(雲峯縣監)을 지냈다.

아내는 담양 전심승(田沈升)의 딸이다.

◆ 이백원(李伯源)

본관 함평. 시조의 12세손 이조판서 공(兢)의 맏아들.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나주시 영산포로 이거하여 그 후손이 나주시와 광주시로 퍼졌다.

문과에 급제하여 내직으로 정언(正言)을 지냈으며 외직으로는 1498년 연산조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제주도 판관으로 발령되고 4개월만에 무장현감으로 옮겨 1년을 지낸 후 병으로 타계하였다.

좌익원종공신록(佐翼原從功臣錄)에 책록되었다.

아내는 문과장원 전중어사(殿中御使) 광산정존(鄭存)의 딸이다.

◆ 이백익(李白益)

1651~1706 본관 함평. 자 언겸(彦謙). 시조의 18세손. 시첨(時瞻)의 둘째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첨정, 제주 판관을 지냈다.

아내는 파평 윤의추(尹義秋)의 딸이다.

◆ 이백헌(李百憲)

1802~1876 본관 함평. 자 일백(一白). 시조의 26세손. 돈하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청도 김이규(金以奎)의



딸, 나주 정상묵(鄭尙默)의 딸이다.

◆ 이 번(李 蕃)

본관 함평, 시조 언의 8세손. 밀직제학인 문(仁問)의 맏아들. 진사과에 입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감사(監司)를 지냈다. 1968년 9월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에 설단(設壇)하여 제향하다가 1997년 문중사우각화사(角化祠)를 창건 봉안하였다.

◆ 리 번(李 潏)

본관 전주. 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 이 변(李 邊)

본관 함평. 월야면에서 태어났으며 고창현감을 지냈다.

◆ 이병서(李秉緒)

본관 함평. 시조 언의 24세손. 해보면 출신으로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리병항(李秉沆)

1804~1882 본관 전주. 능창대군 7세손. 진성(鎭星)의 둘째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감역, 동둔녕(同敦寧)을 지냈다. 아내는 청송심씨 용(鏞)의 딸이다.

◆ 이병헌(李丙憲)

1810~1886 본관 함평. 자 광서(光瑞). 호 남재(南齋). 시조의 26세손. 둔근(敦根)의 아들.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지냈다. 아내는 밀양 박성백(朴成栢)의 딸이다.

◆ 이 보(李 寶)

본관 양성. 시조의 12세손. 교수 암손(巖孫)의 둘째 아들. 1525년(중종 20)에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 이 보(李 寶)

본관 함평. 시조의 18세손. 첨추 극성(克誠)의 둘째 아들. 첨중추(僉中樞)를 지냈

다.

◆ 이보영(李普榮)

1751~1783 본관 함평. 자 숙도(叔燾). 호 경상와(耕尙窩). 시조의 23세손. 헌납 홍직(弘稷)의 아들. 1774년 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자(正字)를 지냈고 33세로 조졸하였다.

아내는 평산신씨 영상 회(晦)의 딸, 함평 오씨(咸平吳氏) 운혁(雲赫)의 딸이다.

◆ 이 복(李 福)

1518~1562 본관 함평. 시조의 14세손. 승지 승손(承遜)의 아들.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지냈으며 아내는 광산 김동화(金東化)의 딸이다.

◆ 이복문(李福門)

본관 함평. 자 덕지(德之). 호 오헌(梧軒). 시조 언의 18세손. 사급(思汲)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영장(營長)을 지냈으며 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금산에 이르러 강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한 후 귀향하여 여러 번 등천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아내는 김해김씨 성학(聖學)의 딸이다.

◆ 이복원(李復元)

본관 경주. 계초(啓初). 중시조의 29세손. 서윤(緒胤)의 셋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경주최씨다.

◆ 리봉수(李鵬壽)

1507~1556 본관 전주. 화림부수(花林副守). 처음 이름 구수(龜壽). 파조 덕천군(德泉君)의 증손. 익화 수철(益和 守轍)의 아들. 창선대부(彰善大夫) 올랐고 1530년 경에 서울에서 월야면 정산리로 이거 정착하여 전주리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백천조씨(趙氏) 계준(季俊)의 딸이다.

◆ 이 빈(李 鰲)

본관 양성. 시조의 16세손. 민상(民祥)의 아들. 인조조에 첨지, 중추부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광산김씨다.

◆ 이 접(李 摺)

본관 함평, 아호는 효우당이며 점필제 문인으로 무오사화에 연루되었다가 재상이 조정에 천거하여 장연현감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사산사에 배향.

◆ 리 씨(李 氏)

본관 전주. 흥유(興有)의 딸이며 한양 조기홍(趙基弘, 1811 ~?). 시조의 21세손)의 아내다. 남편 병환에 허벅지의 살을 베어 약으로 썼으며 이 사실이 알려져 정려(旌閭)의 명이 내렸다.

◆ 리 의(李 義)

1539~1607 본관 전주. 덕천군의 5세손. 봉수의 둘째 아들. 자신대부(資信大夫)를 지냈고 아내는 예천최씨 천준(天俊)의 딸이다.

◆ 리 인(李 仁)

1536~1606 본관 전주. 덕천군 5세손. 봉수(鵬壽)의 맏아들. 보신대부(保信大夫)를 지냈고 아내는 파평윤씨 영상(榮商)의 딸이다.

◆ 리종복(李從福)

1556~1621 본관 전주. 덕천군의 6세손. 보신대부 인(仁)의 둘째 아들로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족속 이억기(族叔李億祺) 휘하에서 한산전 등 여러 전투에 참전하여 많은 군공을 세웠다.
아내는 평강채씨 부장 후심(後沈)의 딸이다.

◆ 리진두(李鎭斗)

1750~1830 본관 전주. 능창대군의 6세

손. 무림군 당(塘)의 맏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현감을 지냈다.

아내는 전주유(柳)씨 덕일(德一)의 딸이다.

◆ 리춘봉(李春鳳)

1575~1648 본관 전주. 덕천군 6세손. 자신대부 의(義)의 맏아들. 당대에 문행(文行)으로 이름 높았으며 1602년에 음사로 출사하여 우윤(右尹)을 지냈다.

아내는 남평유(劉)씨 영남(永男)의 딸이다.

◆ 이사광(李師光)

1665~1716 본관 함평. 자 형여(亨汝). 호 죽파(竹坡). 시조의 21세손. 대운(大運)의 아들. 성균관진사,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전주 리동상(李東相)의 딸이다.

◆ 이사급(李思伋)

본관 함평. 자 자술(子述) 시조의 17세손. 무과 급제 척경(惕敬)의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이조좌랑을 역임했다.

아내는 선산김씨, 그리고 파평 윤준량(尹俊亮)의 딸이다.

◆ 이사길(李師吉)

1639~1703 본관 함평. 자 자정(子貞). 시조 언의 18세손. 칠곡부사 양(瀼)의 아들. 사산감역(四山監役)을 지냈으며 1639년 장희빈 소생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사후 증 좌찬성 함평군(咸平君)에 봉작하였고 아내는 청주한씨 동추 여필(汝弼)의 딸, 여양민씨(閔氏) 장(樟)의 딸, 남양전(田)씨 일성(一成)의 딸이다.

◆ 이사형(李斯馨)

1634~1696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세함(世咸). 시조의 18세손. 지평 특건의 아들. 부호군을 역임했다.



아내는 해주 최운상(崔雲祥)의 딸이다.

◆ 이삼길(李三吉)

본관 함평. 시조 언의 9세손. 감사 번(蕃)의 아들. 정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관직의 행적은 전하지 않는다.

사후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1997년 각화사(角化祠)를 창건 봉안하였다.

아내 이씨는 판도판서(版圖判書) 원좌(元佐)의 딸이다.

◆ 이삼언(李三言)

본관 함평. 시조 언의 9세손. 감사 양(襄)의 아들. 정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냈다.

◆ 이삼운(李三運)

1817~1866 본관 함평. 처음 이름 복운(福運). 자 사연(士連). 시조의 22세손. 민기(敏基)의 둘째 아들로 호군(護軍)을 진냈다.

아내는 광산 김진해(金振海)의 딸이다.

◆ 이상문(李尙文)

본관 함평. 시조 언의 손자. 화(和)와 함풍임씨(任氏. 시조진미-珍美-의 딸)의 아들로 고려 때 신호위 대장군을 지냈다.

아내는 강화노씨(江華魯氏)의 시조 용신(龍臣)의 딸이다.

◆ 이상서(李祥緒)

1822~ 1886 본관 함평. 호 만은(晩隱). 시조의 24세손. 유갑(儒甲)과 전주 리씨의 아들이며 선사(先事)로 외지에 나가 있다가 상을 당하여 대상(大喪) 때 집에 돌아와 지성으로. 다시 3년상을 마치니 모성공회(慕聖公會)에서 찬양문을 내렸다. <전남도지>

아내는 평택 임흥서(林興瑞)의 딸이다.

◆ 이서윤(李緒胤)

1632~본관 경주. 자 계숙(繼叔). 시조의

28세손. 경훈(景勳)의 양아들. 생부의훈(義勳). 인효로 천거되어 출사하여 예조 좌랑을 지냈다.

아내는 낙안 오성일(吳誠一)의 딸이다.

◆ 이 석(李 碩)

본관 함평. 자 기지(器之). 시조의 18세손. 첨추 극성(克誠)의 아들. 대동면 향교리에서 출생. 첨추를 지냈다.

아내는 창녕 조형돈(曹亨遯)의 딸이다.

◆ 이석림(李碩林)

본관 함평. 시조의 12세손. 수원부사와의 둘째 아들.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아내는 사도조씨(沙島曹氏)다.

◆ 이석삼(李錫三)

1652~1704? 본관 양성. 시조의 19세손. 주(胄)의 넷째 아들. 1689년에 형과 같이 증광진사과에 연벽(聯璧)진사로 입격한 후 문과에 급제하여 황해도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당악(棠岳)김씨 만영(萬英)의 딸이다.

◆ 이석희(李碩禧)

1676~? 본관 경주. 자 태경(台卿). 중시조의 31세손. 지운(之溫)의 아들. 효유로 출사하여 통덕랑을 지냈다.

◆ 이 선(李 宣)

본관 양성. 시조의 12세손. 입향조 교수 암손의 맏아들. 성종조에 금화사 별좌(禁火司別坐)를 지냈으며 아내는 전주리씨 영천군정(永川君定)의 딸이다. 묘는 동암리 산 114번지 .우마산 신좌로 이하 10여세 양성이씨 세장지(世葬地)다.

◆ 이선업(李善業)

본관 고성. 자 건숙(健叔) 시조의 22세손. 영장 준길(俊吉)의 아들. 선교랑(宣敎郎)을 지냈다.

아내는 첨지 함평 이석(李碩)의 딸이다.

◆ 이 성(李 晟)

본관 경주. 중시조 거명의 23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선략장군을 지냈다.
아내는 영성정씨(靈城丁氏)다.

◆ 이성린(李聖隣)

1687~1729 본관 함평. 자 성중(聖中). 호 영추재(永追齋). 한익(漢翊)과 영광김씨의 유복자로 학교면 복천리 장동에서 태어나 15세 때 어머니 상을 당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리는데도 15세의 어린 나이에 3년 시묘를 결심하여 마치니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감탄하였고, 삼강비를 세워 그의 효성을 기리고 있다.
아내는 공주이씨다.

◆ 이성의(李成義)

본관 양성. 시조의 13세손. 별좌 선(宣)의 둘째 아들. 세자 익위사(翊衛司)위술(衛率)을 지냈다.
아내는 한양조씨(趙氏) 참군 담(淡)의 딸이다.

◆ 이성인(李成仁)

본관 양성. 시조의 13세손. 별좌 선(宣)의 맏아들.
중종조에 상장(上將)을 지냈다.

◆ 이성헌(李成憲)

1506~1565 본관 양성. 호 학수(鶴秀). 시조의 13세손. 별좌 선(宣) 셋째 아들로 명종조에 효행으로 출사하여 진원(珍原), 정읍현감(井邑縣監), 한성부 판관을 지냈으며 아내는 영광김씨 세진(世珍)의 딸, 광주(廣州)이씨 진사 희량(希亮)의 딸이다.

◆ 이세번(李世蕃)

본관 고성. 자 원숙(元叔). 시조의 19세손. 생원 규(圭)의 셋째 아들. 교수(教授)를 지냈다.
아내는 밀양 박세흥(朴世興)의 딸이다.

◆ 이세번(李世蕃)

자 무숙(茂叔). 본관 함평. 지초 언의 13세손. 종생(從生)의 손자. 무과에 급제하여 김해도호부사를 지냈으며 중종 기묘사화 때 조광조(趙光祖)의 억울함을 간(諫)한 죄로 제주로 유배되었으며 후에 기묘사화의 명현록(名賢錄)에 올랐다.
아내는 진주유(柳)씨다.

◆ 이세식(李世植)

1679~1758 본관 함평. 자 대중(大仲). 농묵재(壟默齋). 시조의 22세손. 윤(潤)의 셋째 아들로 진사를 지냈다.
아내는 흥덕 장응규(張應奎)의 딸이다.

◆ 이세영(李世漢)

본관 고부. 시조의 26세손. 통덕랑 현문(顯閔)의 아들. 진사를 지냈다.
아내는 화순오씨 창업(吳昌業)의 딸이다.

◆ 이세추(李世樞)

1677~1758 본관 함평. 자 기중(機仲). 호 보진당(保眞堂). 시조의 22세손. 윤(潤)의 둘째 아들. 수암 권상하(遂菴權尙夏)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생원시에 입격하였으며 유고 3권이 전한다.
아내는 나주 나천벽(羅天璧)의 딸이다.

◆ 이손무(李孫茂)

본관 함평. 호 기와(箕窩). 함풍부원군 광봉(光逢)의 7세손. 시조의 11세손. 진사 영(英)의 아들. 효행과 학행이 뛰어났으며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양근(楊根, 현 양평군)현감을 지냈는데 당시에 제일가는 목민관으로 칭송을 받았다.
아내는 조(趙)씨다.

◆ 이손수(李孫秀)

본관 함평. 지초 언의 10세손. 삼길(三吉)의 아들. 단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담양부령(潭陽府令)을 지냈다.



◆ 이송제(李松濟)

1648~1733. 본관 경주. 자 수부(守夫). 호 죽암(竹庵). 선전관 호(浩)의 손자. 숙종5(1679)에 문과에 급제하여 동복 자인 운봉 남포 등 현감으로 치적을 남기고 수(壽) 86으로 첨지에 승진되고 아들 창석(昌碩)이 공훈을 세워 가선대부 예조참판에 증직 되었으며, 분충사(奮忠祠), 연천사-鸞川祠, 신광면 월암리)에 배향. 아내는 대구 배씨 세택(裴世澤)의 딸과 광산김씨 유정(金有鼎)의 딸이다.

◆ 이수강(李守綱)

본관 함평. 자 운거(云舉). 시조의 20세손. 선전 직견(直堅)의 둘째 아들.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지냈다.

◆ 이수공(李守恭)

1600~1669 본관 함평. 자 계휘(季輝). 시조의 18세손. 수남(綏男)의 셋째 아들로 문행(文行)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찰방(察訪)을 역임했다. 아내는 전주 리종복(李從福)의 딸이다.

◆ 이수공(李守恭)

본관 함평. 시조의 13세손. 덕순(德純)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主簿)를 지냈으며 황해도 봉산(鳳山)으로 이거 정착하였다.

◆ 이수담(李壽聃)

본관 함평. 호는 덕암이요 기노사(奇蘆沙)와 종유하며 성리학을 전공하고 덕행이 독실하며 경사를 강론 후진양성에 힘썼다. 유고가 있으니 후암(後庵) 송증현이 찬하였다.

◆ 이수명(李守明)

본관 함평. 시조의 20세손. 선전 직견(直堅)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을 지냈다.

◆ 이수방(李守芳)

본관 함평. 시조의 20세손. 삼천(三天)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 이수온(李守溫)

1587~1661 본관 함평. 자 백휘(白輝). 호 삼회재(三悔齋). 시조의 18세손. 수남(綏男)의 아들.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남한산성에 도착했으나 화의가 성립되자 통곡하고 돌아와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아내는 태인 박부(朴溥)의 딸이다.

◆ 이수온(李壽溫)

함평인. 자는 득화(得化)요 호는 엄대(嚴臺)이니 양익공 종의(宗義)의 후손이다. 송성담(宋性潭) 환기(煥箕)와 종유하였으며 상중(喪中)에 흰 제비의 이변(白燕之異變)이 있었다. 일찍이 농서응지소(農書應旨疏)를 저술하였으며 유고(遺稿)가 있다.

◆ 이수익(李受益)

1639~1709 본관 함평. 자 사겸(士謙). 시조의 18세손. 생원 시첨(時瞻)의 맏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도총부 도사를 거쳐 1697년 함평현감을 지냈다. 아내는 대구 배정혁(裴廷赫)의 딸이다.

◆ 이수적(李綏迪)

본관 경주. 자 찬휴(贊休). 중시조의 28세손. 의훈오자조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관관(判官)을 지냈다. 아내는 대흥이씨 인발(仁發)의 딸이다.

◆ 이수춘(李遂春)

1556~1597 본관 함평. 자 경인(景仁). 시조 언의 15세손. 찰방 금(鎭)의 둘째 아들로 형 우춘(遇春)과 함께 임진란때 행주싸움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 때 역시 형과 함께 소의장(昭義將) 임환(林

權)의 휘하에 들어가 예교전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형과 같은 날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아내는 영광 김안성(金安成)의 딸이다.

◆ 이수춘(李綏春)

1644~? 본관 경주. 자 건휴(建休). 호 둔계(遯啓). 중시조의 28세손. 의훈(義勳)의 넷째 아들로 1677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참상(參上), 사헌부감찰, 세자익찬(益贊), 병조 정랑을 지냈다.

인현왕후가 순위(遜位)할 때 대궐에 었드려 원악 회재(元惡 希載) 등을 참수하라는 상소를 올리다가 삭주(朔州)로 유배되어 2년간 유배생활을 한 후 향리로 돌아와 나산면의 안여해(安汝諧), 승지 정동후(鄭東後) 교유하며 만년을 보냈다.

아내는 나주 정시현(丁時現)의 딸이다.

◆ 이수흥(李綏興)

본관 경주. 자 덕림(德林). 중시조의 28세손. 성의(成義)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대흥이씨(大興李氏) 문과 급제 대흥(大欽)의 딸이다.

◆ 이 숙(李 淑)

본관 함평. 시조의 8세손. 함평부원군 광봉(光逢)의 증손. 진현관학사 안저(安抵)의 아들. 고려 말에 정순대부 예부전서(禮部典書)겸 춘추관사(春秋館事)를 지냈다.

◆ 이숙문(李叔汶)

본관 함평. 시조의 12세손. 이조판서공(兢)의 둘째 아들. 상의원 직장(直長), 전주 판관을 지냈으며 경기도 용인으로 이거하였다.

아내는 좌랑 도강 김연희(金延熙)의 딸이다.

◆ 이숙연(李宿然)

본관 함평. 자 사미(士美.) 시조의 11세손. 참봉 여근(如瑾)의 맏아들. 병사(兵事)

를 지냈으며 아내는 상장군 진주 하원로(河元老)의 딸이다.

◆ 이순범(李淳範)

본관 함평. 철종조(哲宗朝). 자 치명(致明). 호 호봉(湖峰). 직장 곤(崑)의 후예. 용의가 단아하고 문행을 겸비하여 오륜록(吳倫錄)을 저술하니 향당이 추증하다.

◆ 이순지(李舜枝)

본관 함평. 1458~1519 호 금은(琴隱). 시조 언의 13세손. 진사 운경(云卿)과 복성정씨(鄭氏)의 맏아들. 1450년대에 나산면 우치에서 이거 사산(射山)마을을 개기(開基)하였고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나 벼슬은 하지 않았으며 인효(仁孝)로 이름 높았다. 현재 그의 후손이 전국에 3400여호 살고 있으며 아내는 함평노씨(盧氏) 호군호(浩)의 딸이다.

◆ 이순지(李順之)

본관 함평. 시조 언(彦)의 증손. 상문(尙文)의 아들.

고려조에 검교위위 대장군(檢校威衛大將軍)을 지냈고 아내는 개경왕씨(開京王氏) 유음광군(有陰光軍) 충익(忠翼)의 딸이며 묘는 실전하였고 1969년에 함평읍 성남리 시조 묘역에 설단 하였다.

◆ 이순화(李舜華)

본관 함평. 호 진수당(進修堂). 시조 언의 13세손.

진사 운경(云卿)과 복성정씨(福城鄭氏)사이 에 둘째 아들로 나산면 우치리에서 태어났고 중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 통정대부 어모(禦侮)장군을 역임하였다. 사후에 형 순지(舜枝)와 함께 사산사(射山祠)에서 배향하다가 사산사가 문중사우에서 향사우(鄉祠宇)로 바뀌자 후손들이 1730년 그가 개기(開基)한 나산면 초포리 초포마을에 초포사(草浦祠)를 창건하고 이배(移配)하였다.



아내는 나주정씨(鄭氏)다.

◆ 이승년(李崇年)

본관 함평. 시조 언(彦)의 11세손. 연(演)의 아들.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지냈으며 아내는 풍양조씨(豐壤趙氏)다.

◆ 이 습(李 襲)

본관 함평. 시조의 8세손. 함풍부원군 광봉(光逢)의 증손. 동정 안상(安相)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지냈고 퇴임하여 태백산 아래로 이거하여 태백거사(太白山居士)를 자처하였다.

◆ 이승손(李承遜)

1492~1553 본관 함평. 자 사성(士誠). 시조의 13세손. 부호군 득순(得順)의 둘째 아들로 승지(承旨)를 지냈다.

아내는 함평 임시연(任時連)의 딸이다.

◆ 이승안(李承顔)

본관 함평. 시조의 12세손. 현감 손무(孫茂)의 맏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용궁현감(龍宮縣監), 경상도 도사(都事)를 지냈다.

아내는 김해김씨다.

◆ 이시우(李時佑)

1596~1684 본관 함평. 자 공진(公振). 호 용암(龍岩). 시조언의 18세손. 훈(塤)의 셋째 아들로 경학(經學)에 밝았고 대절(大節)이 있었다. 그는 1623년에 함평 향교를 다시 세우는 데 공헌한 바가 크며 광해조의 폐모론에 큰아버지와 함께 반대하였고 1627년의 정묘호란 때는 별제 정직(鄭稷)과 생원 이함과 더불어 창의하여 태인(泰仁)에 이르렀을 때 강화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곡을 관에 헌납하고 돌아왔으며 병자호란 때는 승지간(掾)과 송과나 각(松坡 羅 珏)과 함께 군사와 곡식을 모아 남한산성에 이르렀으나 강화한 뒤라 성문에 다음과 같은 시를 쓰고 돌아왔다.

“칼이 있으나 간신의 머리를 베일 수 없으니

오늘날 군신은 죽고 말았네

춘추를 안고서 읽을 곳이 없으니

어느 곳에 백사가 쌓여 새로운 중주가 생길까

有刀莫斷妄人頭

今日君巨死已休

抱守麟經無地讀

沙堆何處起中州“

청나라 년호를 쓰지 않았으며 자손들 중 병, 정(丙, 丁)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과거를 보지 못하게 유언하였고 “이궐록(貽闕錄)”을 썼는데 정조왕이 보고 “존주록(尊周錄)”에 실게 하였다. 수직(壽職)으로 통훈대부 사헌부 집의를 증직 받았다.

아내는 금성나씨 참봉 각(珏)의 딸, 천안전씨(全氏) 병판 상의(尙毅)의 딸이다.

◆ 이시정(李時挺)

1586~1650 본관 함평. 자 회응(會應). 호 용계(龍溪). 시조의 18세손. 훈(塤)의 맏아들로 해보면에서 태어났다.

당세에 문행으로 이름 높았다. 인목대비 폐비를 주장하는 선비들이 함평 향교에 모여 상소문을 지으려고 하자 현감 박정원 등과 함께 그들을 두들겨 군계 밖으로 내몰았으며 종신토록 과거를 보지 않았다.

함평읍 기각리에 창건한 기산사(箕山祠)에 박정원 등과 함께 배향되었으나 1868년 혜철령에 의해 뜯겼다.

아내는 현감을 지낸 진주 정옥(鄭昱)의 딸이다.

◆ 이시첨(李時瞻)

1609~? 본관 함평. 자 공원(公遠). 시조의 17세손. 득강(得綱)의 맏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영양 진명현(陳明顯)의 딸이다.

◆ 이시태(李時泰)

1608~1664, 자 회래(會來). 호 호은(湖

隱). 시조 언의 18세손. 양(壤)의 셋째 아들로 학행과 문장으로 사림(士林)에서 추앙받았다. 18세, 21세 때 향시(鄉試)에서 장원하였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과거는 보지 않고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정색(鄭穡), 정여숙(鄭汝淑), 정주, 이흥발(李興勃)과 함평의 도유사(都有司)가 되어 의병과 군량미를 모아 전주에 이르렀을 때 강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한 후 돌아왔다.
아내는 진사 면성 박간(朴侃)의 딸, 진주 정회(鄭恢)의 딸이다.

◆ 이 식(李 軾)

본관 함평. 시조 언의 15세손. 진사 여림(汝霖)의 아들. 성균관진사 시험에 이황(李滉)과 함께 합격하였으며 매우 교우가 깊었다.
아내는 평산신(申)씨 세익(世翼)의 딸이다.

◆ 이 안(李 岸)

1414~? 본관 함평. 자 야부(野夫) 호영파(穎波). 시조의 13세손. 함평부원군광봉(光逢)의 9세손. 경복궁 제거 유(倭)의 둘째 아들로 충남 천안의 직산리(稷山里)에서 태어났다.
19세 때인 1432년(세종 14)에 사마시에 입격하였고 행의(行誼) 또한 성학정신(聖學精神)에 투철하였으며 특히 역학(易學)에 정통하였다. 1454년에 박팽년(朴彭年)이 효 검 학행으로 천거하여 남부 참봉(南部參奉)에 제수되었고 단종이 1455년 윤 6월에 수양대군에게 양위하니 비분하여 벼슬을 버리고 처조카인 신말주(申末舟. 신숙주-申叔舟-의 아우)와 낙향길에 올라 말주는 전북 순창(淳昌)에 머물고 그는 고향인 함평으로 내려와 당시 정양동(井陽洞. 현 함평읍기각리 구기산)의 냇가에 영파정(穎波亭)이란 정자를 짓고 사헌부 지평(持平), 장령(掌令)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은둔하였으니 중국의 고사에서 나오는 소부(巢父)와 허유(許由)의 청풍고절(淸風高節)을 잇기 위한 것이었다.

후에 대천(大川)으로 불리던 냇은 영수(潁水)가 되고 정양동의 뒷산은 기산(箕山)으로 불리어 소부와 허유가 티없이 맑게 살았던 기산과 영수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정유란 때 그의 행록, 유문(遺文)이 모두 불타 없어져 그의 학문을 자세히 알수 없는 것이 유감이며 유일한 유고 “제영과정(題潁波亭)”의 일부가 전한다.

“다락이 높으니 나는 기러기 등이 보이고

냇물이 맑으니 노니는 새우의 수염을 셀 수 있구나

樓高飛雁平看背
水浮遊鰕細數髮

◆ 이안상(李安相)

본관 함평. 일명 일부(一富). 시조의 7세손. 예빈시사 연(延)의 둘째 아들. 첨의참성사(僉議參成事), 검교동정(檢校同正)을 지냈다.

◆ 이안저(李安抵)

본관 함평. 시조 언의 7세손. 예빈시사 연(延)의 맏아들.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봉익대부 밀직부사(奉翊大夫密直副使), 진현관학사(進賢館學士)를 역임하였고 사후에 정순대부 민부전서(正順大夫民部典書)를 추증 받았다.

묘는 함평읍 곤봉(坤峯) 아래 백정동(百井洞)에 있다.

◆ 이 암(李 淹)

1598~? 본관 양성. 시조의 16세손. 주부 경상(景祥)의 아들. 1627년(인조5) 식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상산김씨 장령 극성(克成)의 딸이다.



◆ 이 암(李 巖)

본관 경주. 중시조의 26세손. 희전(熙筌)의 아들.

정랑(正郎)을 지냈으며 아내는 함평이씨다.

◆ 이암손(李巖孫)

본관 양성. 시조 수광(秀匡)의 11세손. 남평현감 중신(仲臣)의 아들. 문종조(재위 1450~1452)에 성균관생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1460년대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담골로 이거하여 양성이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묘는 동암리 산30번지 분묘동 임좌에 있어 마을 이름도 분묘동(墳墓洞) 혹은 분유(墳有)골이라 부른다.

◆ 이 양(李 壤)

1580~1652 본관 함평. 자 덕여(德輿). 호 효리처사(孝里處士). 시조의 17세손. 충례(忠禮)의 셋째 아들로 나산면 우치리에서 태어났다. 천성이 지효하여 7세 때 어머니가 병이 들어 눕자 밤마다 하늘에 자기가 대신 아파 눕고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빌었으며 이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머니의 병이 낫았다. 향리 사람들이 마을 이름을 효리(孝里)라 부르고 마을 앞에 효자비를 세웠다.

아내는 선산 김몽복(金夢福)의 딸이다.

◆ 이 양(李 襄)

본관 함평. 시조의 8세손. 밀직제학 인문(仁問)의 둘째 아들. 15세에 사마시에서 장원하였고 문필로 전국에서 이름을 날렸으며 후에 문과에 급제하여 감사를 지냈다.

장성 두동사(斗洞祠)에서 배향한다.

◆ 이양렬(李揚烈)

본관 함평. 자 성거(聖舉). 시조의 18세손. 우후 덕일(德一)의 둘째 아들. 정사원 종공신(靖社原從功臣). 용양위 부사과를 지

냈다.

아내는 군수 금성 오언관(吳彦寬)의 딸이다.

◆ 이양태(李陽泰)

1704~1775 본관 양성. 자 내초(來初). 시조의 18세손. 전적 후(垆)의 넷째 아들. 1743년(영조 19)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냈으며, 수(壽72)로 통정대부에 승계(陞階)했다.

아내는 안동권씨다.

◆ 이양형(李揚馨)

1610~? 본관 함평. 자 유수(惟遂). 시조의 18세손. 봉사 곤옥(崑玉)의 맏아들로 부호군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다.

◆ 이 역(李 嶷)

1635~1682 본관 함평. 자 경양(景仰). 시조의 16세손. 생원 의계(依堤)의 맏아들로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신평 이영기(李泳基)의 딸이다.

◆ 이 언(李 彦)

함평이씨 시조. 고려 태조(태조. 재위 918~943) 때 신무위대장군(神武衛大將軍. 종 3품)으로 함풍군(咸豐君. 함평의 옛 이름)에 봉해졌으며 이에 후손들이 본관을 함평(咸平)으로 하였다.

이 사적(事績)의 생몰 년대나 자세한 행적은 전하는 것이 없다.

1790년에 사림과 문증이 뜻을 모아 사산사(射山祠. 나산면 초포리 사산 소재)를 창건하고 주벽(主壁)으로 향사하며 1903년 함평읍 성남리 지성(支城. 옛箕城)에 있는 묘역을 정화하고 경모재(敬慕齋)를 지었다.

매년 4월 둘째 일요일에 제사를 지낸다.

1985년 11월 1일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본관별 가호와 인구수를 보면 그의 후손이 경북 안동 시, 군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지에 살고 있으며 24,776 가구 103,696명

이다.

◆ 이언심(李彦謹)

1538~본관 경주. 자 신보(信甫). 호 신평(信圃). 중시조의 26세손. 참봉 정종(廷宗)의 둘째 아들로 문필이 뛰어나 여러 번 문과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고 1585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 첨정, 용양위 대호군에 올랐고 1592년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하였으며 선무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아내는 어모장군 하동 정석창(鄭碩昌)의 딸, 그리고 화순최씨다.

◆ 이여림(李汝霖)

본관 함평. 1479~1550 아명(兒名)곤손(昆孫). 자 상경(商卿). 호 선암(仙庵). 시조 언의 14세손. 진사 순지(舜枝)의 맏아들로 문장으로 이름 높았다.

13세 때 전라 감사가 나주에서 베푼 백일장에 장원하여 찬양의 글을 받았는데 전라감사는,

“열 세살의 동자(童子)인 이곤손(李昆孫)이 시상(詩想)이 펼 펼쳐 모두 진경(眞境)에 들었다.

만약 이해를 제대로 길러낸다면 봉황대상(鳳凰台上)의 시를 지은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하였고, 나주목사는,

“늙 집이 적덕하여 이런 자손 두었는고
이른 나이에 시의 명성 이미 진경에 들었도다

이태백이 죽은 천년 후에
세간에 다시 적선인을 보도다

誰家積德應茲孫
夙歲詩聲已入眞
李白身亡千載後
世間重見謫仙人

하였다. 벼슬에 뜻이 없어 진사로 만족하게 여겼다.

아내는 나주나씨 진사 현(顯)의 딸이며

후손이 나산면 초포리 사산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전국으로는 1,700여호가 산다.

◆ 이여백(李汝白)

본관 함평. 자 시범(時範). 시조의 14세손. 종원(從椽)의 맏이들. 부호군을 지냈으며 전북 무장(茂長)으로 이거 정착하였다. 아내는 광산김씨다.

◆ 이여정(李汝貞)

본관 함평. 자 정경(正卿). 시조의 14세손. 진사 순지(舜枝)의 막내 아들. 문장과 효행으로 이름 높았으며 향시(鄉試)에 세 차례나 장원하였고 김인후(金麟厚), 송흙(宋欽), 김정국(金正國)과 더불어 도의의 교(交)를 맺었다.

그의 묘표에 “황명(皇明) 무술년에 낙안교수(樂安教授)에 제수되었다.”고 하였으니 사권 인물의 생존년대로 보아 1538년이 된다.

많은 유고가 있었으나 분실하고 시 한수가 전한다.

“비록 왕명 선포(宣布)하여 나라 다스림은 혐의하나

스스로 구가(謳歌)있어 북두칠성에 공 바치누나

포진(褒典)이 내리어 가히 결행(潔行)을 정표하고

이사(異思)를 미루어 입히니 양신(良巨)이 복종하네”

아내는 남양홍씨다.

◆ 이여주(李汝舟)

본관 함평. 시조 언의 14세손. 진사 순지(舜枝)의 셋째 아들. 철원교수(鐵原教授)를 지냈으며 아내는 천안전(全)씨 현감 수원(壽元)의 딸이다.

◆ 이 연(李 延)

본관 함평. 시조 언(彦)의 6세손. 함평부원군 광봉(光逢)의 아들.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제학(密直提學), 예빈시사(禮



賓侍事)를 지냈다.

◆ 이연백(李淵白)

1615~1707 본관 함평. 자 경문(慶文). 호 등라재(藤蘿齋). 시조의 19세손. 양훈(揚熏)의 맏아들로 부호군을 지냈다. 아내는 남평 오윤일(吳潤一)의 딸이다.

◆ 이연손(李連孫)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신장(信長)의 아들. 사직(司直)을 역임하였다.

◆ 이 영(李 英)

본관 함평. 시조의 10세손. 집의 준성(俊成)의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이영발(李永發)

본관 함평. 시조의 10세손. 경주부윤 삼언(三言)의 둘째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다.

◆ 이영홍(李永弘)

1530~1597 본관 함평. 자 의중(毅仲). 시조의 16세손. 습독 유(輜)의 아들로 부장(部將)을 지냈다. 아내는 장성 김사석(金師錫)의 딸이다.

◆ 이 온(李 蘊)

본관 함평. 시조 언(언)의 8세손. 영동정(令同正) 인계(仁桂)의 아들.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개성부윤(開城府尹)을 지냈다.

◆ 이 와(李 와)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담양부령 손수(孫秀)의 넷째 아들.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지냈으며, 대동면 아차동으로 이거 정착했다.

◆ 이 완(李 琬)

본관 고성. 생년 1510년 전후로 추정. 역(嶺)의 둘째 아들. 시조의 14세손으로

무안현감, 부사, 대사헌을 지냈으며 대략 1550년대 경기도 광주에서 업다면 화양리 포향정으로. 이거 정착하여 고성이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밀양 박림(朴琳)의 딸이다.

◆ 이 요(李 堯)

본관 함평. 처음 이름 문습(文習). 시조 언의 6세손. 동정림(琳)의 아들. 고려조에 사순위 부호군(司巡衛 副護軍)을 지냈고 아내는 사재감(司宰監) 구례 장취양(張就良)의 딸이다.

◆ 이 용(李 蓉)

정유재란 때 이순신 휘하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며 1598년11월 노량 해전에서 전사하였다.

◆ 이우백(李友栢)

본관 경주. 중시조의 27세손. 어모장군 청수(淸秀)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주부, 선전관을 지냈다. 아내는 밀양박씨 사림(士霖)의 딸이다.

◆ 이우신(李又新)

1585~1642 본관 함평. 시조의 16세손. 천영(天盈)의 아들. 부호군을 지냈고 아내는 밀양 박주(朴柱)의 딸이다.

◆ 이우춘(李遇春)

1554~1597 본관 함평. 자 경보(景甫) 또 춘길(春吉). 시조 언의 15세손. 찰방 금(鎭)의 아들로 함평읍 대덕리 대천에서 출생하였다. 39세 때 1592년에 임진란이 일어나자 창(倉)의 참전하여 행주전(杏州戰) 등 각처에서 전공을 세워 예빈시 직장(禮賓侍直長)을 제수 받았으며 44세인 정유재란 때는 진경문(陳景文),유지경(柳持敬) 등의 격문을 보고 의병을 모으고 동생 수춘, 그리고 아들과 같이 출전하여 소의장 임환(林懷)의 막하에 들어가 순천의 예교(曳橋) 싸움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중과부적

으로 부자와 동생이 함께 전사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 흥양유씨(興陽柳氏)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죽겠다며 단식하여 운명 직전에 다달았을 때 손자 만령(萬齡)이 손가락의 피를 입에 넣어 삼 일간 연명하게 하였다.

이 충, 효, 열의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선무원종 2등공신에 책록되고 선조대왕이 “선조복유하사이우춘(宣祖伏惟下賜李遇春)”이라 새겨진 옥패(玉佩)를 하사하여 지금도 보관해 오고 있으며 대천마을에 삼강비를 세웠다.

아내는 여양 진경후(陳敬厚)의 딸이다.

◆ 이 옥(李 郁)

1689~1759 본관 양성. 자 사빈(士彬). 시조의 18세손. 연경(衍慶)의 아들. 6조(조)의 정랑을 지내고 황해도사(黃海都事)를 역임했다.

아내는 장수황씨 우적(禹績)의 딸이다.

◆ 이운경(李云卿)

1436~1495 본관 함평. 호 국헌(菊軒). 시조의 12세손. 현감 접의 둘째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사직(司直)을 지냈다. 아내는 복성정씨(福城鄭氏)다.

◆ 이운구(李雲九)

1684~1717 본관 고성. 자 흥태(興太). 시조의 23세손. 선교랑 선업(善業)의 맏아들로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며 시집 “잠두록(蠶頭錄)”이 전한다.

아내는 광산 김연(金漣)의 딸이다.

◆ 이운대(李雲大)

본관 고성. 자 낙천(樂天). 시조의 23세손. 선교랑 선업(善業)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다.

아내는 낙안 오민정(吳敏廷)의 딸이다.

◆ 이운범(李漣範)

1862~1896 본관 함평. 호 호은(湖隱).

계철(啓喆)과 함평노씨(魯氏)의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태어났다.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조선환여승람31쪽에 효자로 실려있다.)

아내는 나주정씨(鄭氏)다.

◆ 이 원(李 轅)

?~1592 본관 함평. 호 남강(南崗).

시조 언의 15세손. 교수 여정(汝貞)의 맏아들. 임진란이 일어나자 동생 가(軻)와 함께 창의하여 의병과 가동들을 데리고 고경명(高敬命) 휘하로 들어가 금산전(錦山戰)에서 많은 적을 참살하고 전사하였다. 갑옷으로 초혼장을 치렀다.

◆ 이원개(李元愷)

1548~1623 본관 함평. 자 경해(景諧). 호 원재(遠齋). 시조 언(彦)의 17세손. 교수 충달(忠達)의 아들로 효성이 깊어 부친상에 시묘살이를 하였다. 임진란중인 1593년 조정에서 호남모속사(湖南募粟使)로 명하자 윤 10월 20일에 각군에 “모속고유문(募粟告諭文)”을 보내(원문이 전함) 많은 군량미를 모아 관군진(官軍陣)에 보냈으며 또 장성 남문 의병청에도 가담하여 의곡을 많이 보냈다.

이 공으로 부호군(副護軍)을 제수 받았으며 장성 오산창의사(鰲山倡義祠)에서 배향한다.

아내는 광산김씨로 감사 문발(文發)의 손자인 습독 효남(習讀 孝男)의 딸이다.

◆ 이원범(李元範)

본관 함평. 남규(南奎)의 아들. 나산면 수하리에서 출생. 기삼연 의병부대의 호군장(犒軍將)을 맡았던 아버지를 따라 의병활동을 하였다. 전북 고창 전투에서 아버지가 순절하자 적중에 뛰어들어 아버지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그도 순국하였다.

◆ 이원상(李元祥)

1561~? 본관 양성. 자 사원(士元).



호 취금헌(翠琴軒). 시조의 15세손. 사평희복(司評希福)의 아들. 지략과 힘이 뛰어나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란때 의주에서 선전관으로 왕을 호종하였는데 선조의 절박한 전지(傳旨)를 가지고 적군이 득실거리는 영남으로 가던 중 적과 여러번 만나 싸워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였다. 선조대왕이 “충의록(忠義錄)”을 하사하고 선무원종 공신록에 책록하였으며 이산군수(理山郡守)를 제수하였다.

아내는 영광김씨 벽(壁)의 딸과 파평윤씨 부사 인형(仁衡)의 딸이다.

◆ 이원형(李元亨)

1738~? 본관 함평. 시조의 20세손. 일신(日新)의 아들. 찰방(察訪)을 지냈다. 아내는 문화 유경(柳擎)의 딸, 해주 최세해(崔世海)의 딸이다.

◆ 이 유(李 洵)

1668~1719 본관 함평. 사향(土香). 시조의 21세손. 태항(太恒)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여양진씨, 죽산안여항(安汝恒)의 딸이다.

◆ 이유번(李有蕃)

본관 함평. 시조의 12세손. 목사 종(種)의 아들. 참판(參判)을 지냈으며 아내는 감사 문화 유장(柳璋)의 딸이다.

◆ 이유인(李有仁)

1635~1705 본관 함평. 호 파우(破愚). 시조의 19세손. 한운(漢雲)의 맏아들. 미수허목(眉叟 許 穆)의 문하생으로 숙종조에 학행으로 선릉(宣陵)참봉이 제수되었고 호남에서 이름 높은 유학자였다. 특히 증산사(甞山祠)에서 배향하는 최락당 김중선(崔樂堂 金重璿)과는 학문적 교류가 깊었다. 심도통론(心道統論), 이기변설(理氣辯說), 태극도변(太極圖辯) 등 심도 높은

유고가 담긴 유고집이 가문에 전했는데 지금은 분실되었다.

1760년 이전에 건립한 것으로 전해오는 모양사(牟陽祠. 나산면 초포리 초포)에서 배향하다가 모양사가 훼손된 후 지금은 초포사(草浦祠. 나산면 초포리 초포 소재)에서 배향한다.

아내는 원주 원박(元撲)의 딸, 광산 김용구(金用九)의 딸이다.

◆ 이유중(李裕中)

본관 경주. 철종조(哲宗朝). 자 상춘(常春). 호 백당(白塘). 승지 회원의 후. 성품이 근엄하고 청렴하여 사서오경을 정독하고 시문을 검비하여 시집 2권을 남겼다.

◆ 이유진(李惟進)

본관 경주. 중시조의 28세손. 부호군 결(潔)의 아들. 주부(主簿)를 지냈으며 아내는 추성전씨(秋城田氏)다.

◆ 이유찬(李儒讚)

본관 함평. 자는 응삼(應三)이요 호는 춘파(春坡)이니 참판 종수의 후손이다. 문학이 넉넉하여 고산 아래 반환정(盤桓)을 짓고 화초와 대나무를 기르며 거문고를 즐기며 날마다 여러 선비들과 도의를 강론하였다. 문집을 남겼다

◆ 이유천(李有天)

1632~1698 본관 함평. 자 현지(玄之). 시조의 19세손. 진운(縉雲)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7 선전(宣傳)을 지냈다. 아내는 하동 정진생(鄭進生)의 딸, 파평 윤만득(尹晩得)의 딸이다.

◆ 이유헌(李裕憲)

1791~? 본관 함평. 자 관지(寬之). 시조의 26세손. 돈상(敦相)의 둘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수성 최천희(崔天禧)의 딸이다.

◆ 이유홍(李儒洪)

1855~1902 본관 함평. 자 성삼(成三). 시조의 23세손. 연운(延運)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 김대수(金大壽)의 딸이다.

◆ 이유환(李儒煥)

본관 함평. 헌종조(憲宗朝). 자 도현(道賢). 호 송암(松菴) 양익공 종의의 후손. 송강재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성리학을 깊이 탐구하고 어렵고 의심나는 곳을 밝혀 극기예설(克己禮說)을 저술하였다.

◆ 이 은(李 崧)

1529~1608 본관 함평. 자 자양(子仰). 시조의 16세손. 생원 의정(依楨)의 맏아들로 동추(同樞)를 역임했다. 아내는 주부 김해 김응건(金應乾)의 딸이다.

◆ 이응복(李應福)

본관 양성. 시조의 14세손. 위술 성의(成義)의 둘째 아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를 지냈으며 아내는 함평이씨 참봉 정(禎)의 딸과, 참봉 성의정(成依禎)의 딸이다.

◆ 이의번(李依蕃)

본관 함평. 자 창중(昌仲). 시조의 15세손. 교수 문간(文幹)의 둘째 아들. 생원시에 입격. 1537년(중종 32) 무과에 급제하여 정랑, 무안현감을 지냈다. 아내는 경주이씨다.

◆ 이의수(李依樹)

1508~1564 본관 함평. 자 성중(盛仲). 시조의 15세손. 문간(文幹)의 셋째 아들로 생원을 지냈다. 아내는 양성 이수위(李守儀)의 딸이다.

◆ 이의장(李宜章)

1635~1714 본관 함평. 자 중빈(仲彬). 시조의 20세손. 득창(得昌)의 둘째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을 지냈다. 아내는 문화 유익화(柳益華)의 딸이다.

◆ 이의정(李依楨)

1511~1563 본관 함평. 자 매중(枚仲). 호 남애(南崖). 시조의 15세손. 교수 문간(文幹)의 넷째 아들. 생원을 지냈다. 행의(行誼)로 이름 높았고 기산 영수 남쪽에서 은거하여 퇴계와 학문을 논하는 글을 주고 받으며 살았다. 세상 사람들이 군자라 칭했다. 아내는 나주정씨(羅州丁氏)다.

◆ 이의제(李依堤)

본관 함평. 자 평중(平仲). 시조의 15세손. 교수 문간(文幹)의 맏아들. 효심이 깊어 3년간 시묘를 살았고 생원을 지냈다. 아내는 한양조씨다.

◆ 이의철(李宜喆)

1716~1751 본관 양성. 자 명중(明仲). 시조의 18세손. 호(壕)의 아들. 1744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노씨(咸豐盧氏) 재형(再亨)의 딸과 함평이씨 명상(明祥)의 딸이다.

◆ 이의훈(李義勳)

1595~? 본관 경주. 자 자선(子宣). 중시조의 27세손. 언심(彦謹)의 둘째 아들로 1633년에 사마시에 입격하였으며 직장(直長)을 지냈고 병자호란에 승지 임동(任棟)과 함께 창의하여 금구에 이르렀을 때 강화의 소식을 듣고 통곡 귀향한 후 연나라 책력과 물건을 절대 집에 드리지 않는 지조를 보였다. 아내는 김해 김정헌(金廷憲)의 딸이다.

◆ 이 이(李 貽)

본관 함평. 시조의 10세손. 낭장자보(自寶)



의 맏아들. 성균관생원, 현감을 지냈다.

◆ 이이배(李以培)

본관 경주. 중시조의 28세손. 선전관 우백(友栢)의 맏아들. 선교랑(宣敎郎)을 지냈으며 아내는 창녕조씨(昌寧曹氏)다.

◆ 이이숙(李以淑)

1576~1618 본관 함평. 시조의 16세손. 충신 우춘(遇春)의 양아들. 생부 수춘(遂春). 무과에 급제하였다. 정유재란 때 많은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아내는 고흥 유방정(柳邦貞)의 딸이다.

◆ 이이장(李以章)

1632~1707 본관 함평. 자 원빈(元彬). 시조의 20세손. 득창(得昌)의 맏아들로 황해중군(黃海中軍)을 지냈다.

아내는 죽산 안순기(安淳基)의 딸이다.

◆ 이이희(李頤熙)

1772~1820. 본관 경주. 자 치량(釋良). 호 석포(石浦). 동윤(東潤)의 차남. 정조16년(1792)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감찰, 전라도 도사,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아내는제주양씨 중창(梁仲昌)의 딸이다.

◆ 이 익(李 益)

본관 함평. 자 득보(得甫). 시조의 14세손. 첨지 호의(好義)의 아들. 생원을 지냈다.

아내는 진주강씨다.

◆ 이익헌(李翼憲)

1839~1892 본관 함평. 자 성문(成文). 호 기은(箕隱). 시조의 26세손. 진규(鎭奎)의 맏아들.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고성 정석필(鄭錫弼)의 딸, 김해 김해윤(金海潤)의 딸이다.

◆ 이인검(李仁檢)

본관 함평. 시조의 7세손. 요(堯)의 넷째

아들. 고려조에 영동정을 지냈으며 아내는 성주이씨 중랑장 확(獲)의 딸이다.

◆ 이인계(李仁桂)

본관 함평. 시조 언의 7세손. 부호군 요(堯)의 셋째 아들. 고려조에 영동정(令同正)을 지냈다.

◆ 이인관(李仁琯)

본관 함평. 시조 언의 7세손. 부호군 요(堯)의 둘째 아들.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검교(檢校), 예빈경(禮賓卿)을 지냈다.

◆ 이인문(李仁問)

본관 함평. 시조 언의 7세손. 부호군 요(堯)와 구례장씨의 다섯째 아들. 태조 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제학(密直提學)을 지냈으며 문장으로 중국에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아들 번, 손자 삼길, 증손 춘수 4대를 기성군 공(兢) 묘소에 설단하여 설향해오다가 1997년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에 각화사(角化祠)를 창건봉향하고 있다.

◆ 이인번(李仁蕃)

본관 고성. 자 흥숙(興叔) 시조의 19세손. 생원 규(圭)의 아들. 생원과에 입격하였으며 어모장군을 지냈다.

아내는 진사 광주 김백일(廣州金百鎰)의 딸이다.

◆ 이인원(李仁元)

본관 함평. 시조 언의 7세손 부호군 요(堯)의 맏아들.

첨서사사(詹書司事)를 지냈으며 아내는 안동권씨다.

◆ 이인좌(李仁佐)

본관 함평. 시조의 9세손 춘추관사 숙(淑)의 아들 고려조 때 좌우위보승 중랑장(中郎將)을 지냈다.

◆ 이일함(李一咸)

1702~1768 본관 함평. 자 성처(聖處). 호 죽강(竹岡). 시조의 21세손. 인상(麟相)의 셋째 아들로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아내는 경주 이천식(李天植)의 딸이다.

◆ 이임직(李荏植)

1809~1882 본관 한산. 1850년경 무안군 망운면에서 대동면 용성리 구룡동으로 이거 정착하여 한산이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 이자보(李自寶)

1347~? 본관 함평. 시조 언의 9세손. 동정 현우(玄雨)의 아들. 선무랑 모평현감(牟平縣監), 비순위정용랑장(備巡衛精勇郎將)을 지냈으며 사후에 통정대부 호조참의에 증직되었다.

◆ 리장길(李長吉)

본관 전주. 호 어은(魚隱). 하계군 진(河溪君瑱)의 손자. 임진란때 왕이 의주(義州)로 파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모아 북으로 향하였다. 그는 평양지방의 여러 고을을 점령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고 의주에서 왕을 호종하였다. 이 공으로 전의현감(全義縣監)에 제수되었고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으며 병자호란 때는 늙은 몸이라 근왕하지는 못했으나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분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니 통정대부를 증직하였다.

◆ 이장헌(李章憲)

1779~1848 본관 함평. 자 여찬(汝燦). 호 모암(慕庵). 시조의 26세손. 돈흥(敦興)의 아들. 효행으로 예조에서 정려가 내려고 1853년 함평현감 정재기의 완문(完文)이 전하며 1994년 함평향교가 추진하여 사산마을 어귀에 효자비를 세웠다. 아내는 진주 정환국(鄭煥國)의 딸이다.

◆ 이재형(李載馨)

1853~1905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재섭

(載燮). 자 이순(理順). 호 반송헌(伴松軒). 시조의 29세손. 지범(志範)의 맏 아들로 함평향교 전교(典校)를 지냈다.

아내는 의령남씨 홍식(洪植)의 딸, 김해김씨 도성(導聲)의 딸이다.

◆ 이 접(李 摺)

1415~1475 본관 함평. 호 효우당(孝宇堂). 시조의 11세손. 수사 춘수(春秀)의 둘째 아들. 공(兢)의 동생.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생이며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등과 교의를 맺었고 효의와 경술에 뛰어나 세상 사람들이 효우(孝友)선생이라 칭했다. 향리인 나산면 초포리에 사괴정(司槐亭)을 지어 강학의 장소로 삼아 후학을 길렀으며 학행으로 소격서(昭格署) 참봉, 예조정랑, 장연(長淵)현감 등을 제수하였으나 끝내 벼슬 길에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1790년부터 함평유림들의 논의와 문중의 결의에 의해 사산사(射山祠). 나산면 초포리 소재)에서 배향하고 있다.

아내는 함평노씨(魯氏) 사인 득평(舍人得平)의 딸이다.

◆ 이정렬(李挺烈)

1712~1788 본관 함평. 자 달백(達白). 호 양파(陽坡). 시조의 22세손. 태명(泰命)의 아들로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아내는 진주 하만숙(河滿淑)의 딸, 하동 정덕제(鄭德悌)의 딸이다.

◆ 이정응(李廷膺)

1712~1761 본관 함평. 호 우당(愚堂). 시조의 21세손. 대만(大萬)과 남평 문씨의 아들로 효자다.

어머니의 병환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에 넣어드려 3일간 연명하게 하였고 내외상에 6년간 시묘를 살았으며 정려가 내려다.

아내는 무송 유익시(庾益時)의 딸이다.



◆ 이정화(李正華)

1613~1696 본관 함평. 자 미숙(美淑). 시조의 20세손. 이재(爾裁)의 둘째 아들로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했다.

아내는 창녕 조정식(曹廷式)의 딸이다.

◆ 이 조(李 稠)

호 경재(經齋). 본관 함평. 시조 언(彦)의 11세손. 담양부령 손수(孫秀)의 맏아들. 세종조에 대동면 아차동(衙次洞)에서 태어났으며 성품이 청렴 강직하고 인자하였고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남평현령(南平縣令)을 지냈으며 세인들이 “관서부자(關西夫子)”라 칭송하였고 “동국청백리안(東國清白吏案)” “태학통장(太學通章)”에 이름이 올랐다. 1959년부터 사산사(射山祠. 나산면 초포리 소재)에서 배향한다.

◆ 이 종(李 種)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승지 영발(永發)의 맏아들. 목사(牧使)를 역임했다.

아내는 찬성 벼슬을 한 무송윤씨 변(汧)의 딸이다.

◆ 이종문(李鍾文)

1874~1909 본관 경주. 자 경찬(京贊). 중시조의 37세손. 규방(圭邦)의 셋째 아들. 1907년 고종의 퇴위와 군대 해산에 대한 항일의병 호남군 창의대장 문봉태(文奉泰), 매부 노한표(魯漢杓)와 같이 항일전을 떠다가 1909년 4월 11일 순국하였다.

아내는 함평 이관서(李貫緒)의 딸이다.

◆ 이종생(李從生)

1423~1495 본관 함평. 자 계지(繼之). 시호 장양공(壯襄公). 봉군 함성군(咸城君). 시조 11세손. 함평군(咸平君) 극명(克明)의 아들. 궁술에 특히 뛰어나 1446년(세종 28) 내금위(內禁衛)에 속했고 1453년 정란(靖亂)으로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어 수의부위(修義副義)를 제수하였고, 10월 북

정(北征)에서 도원수 신숙주(申叔舟)의 군관으로 녹공1등(錄功一等)하여 선략장군이 되고 1465년 5월 도시(都試)에 일등하여 선절장군 의흥위 대호군(宣節將軍 義興衛 大護軍)을 제수하였으며 1464년 5월 무과에 등과 어모(禦侮)장군 동관첨절제사(潼關 僉節制使)를 특배하였고 1466년 7월에 절충장군(正三品堂上官)에 올랐다.

1467년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선봉장으로 출전 겁에 질려있던 군사들을 격려하여 난을 평정하고 개선하니 정충출기 적개공신(精忠出氣 敵愾功臣)에 책훈되고 가선대부 함성군(咸城君)에 책봉되었다. 그후 여진족 이만주(李滿住)를 토벌하는 진과를 거두었고 1468년 1월 왕의 배려에 의해 처자를 데리고 영변대도호부사(寧邊大都護府使)로 취임하였다.

1469년 한성부윤, 평안절도사, 1475년에 사복장(司僕將)을 겸하여 충청절도사를 지냈으며 1479년에 건주(建州)의 여진족을 토벌하였고 이 공으로 1480년 삼자(三資)를 더하여 가정대부 함성군에 봉해졌으며 남은 이자(二資)는 자제가 대수(代授)하게 되었다.

1481년 평안남도수군절제사, 1484년 동지중추부사 겸 부총관(副總管)을 거쳐 1485년에 경상우도병마절도사, 1491년겸 사복장, 1495년 겸 부총관을 지내다 병을 얻어 2월 28일 집에서 운명하니 향년 73세였다. 1790년 함평유림들의 논의와 문종의 합의에 의해 사산사(射山祠. 나산면 초포리 소재)에 배향하게 되었다.

아내 박씨는 예문관직제학 겸 경연춘추관 기주관지제교(經筵春秋館 記注官知製敎) 희중(熙中)의 딸이다.

◆ 이종수(李從遂)

1424~1483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호군 극명(克明)의 둘째 아들. 충좌위 부사과를 지냈으며 사후에 가선대부병조참관에 증직되었으며 사산사(射山祠. 나산면 초포

리 소재)에서 배향한다.

아내는 남포현령(南浦縣令) 광산 노중륜(盧仲崙)의 딸이다.

◆ 이 주(李 輿)

자 전빙(前憑). 본관 함평. 시조의 15세손. 참봉 여로(汝盧)의 맏아들.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지냈으며 아내는 진주임씨(晉州林氏)다.

◆ 이 준(李 遵)

본관 양성. 시조의 14세손. 상장 성인(成仁)의 맏아들. 명종조에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올랐다.

◆ 이 준(李 俊)

본관 함평. 자 사결(士傑). 시조의 구세손. 사과 대성(大成)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다.

아내는 천안전씨다.

◆ 이준길(李俊吉)

?~1664 본관 고성. 자 덕재(德哉). 시조의 21세손. 참봉 두남(斗南)의 아들. 1603년 무과에 급제하여 울포(栗浦)만호, 훈련원 봉사, 부사과, 부사직. 어유윤 첨사(魚遊潤僉使), 상주영장(尙州營將)을 지냈다.

아내는 참봉 낙안 오경(吳璟)의 딸이다.

◆ 이준림(李俊林)

1673~1733 본관 함평. 자 사아(士鶚). 호 매음당(梅陰堂). 시조의 21세손. 대순(大純)의 아들. 1715년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명릉(明陵) 지식문 관계로 윤지술(尹志述)과 함께 체포되어 지술은 극형을 당하고 그는 할적방수(割籍放遂)되는 화를 입었다.

아내는 진사 무송 유희(庾翮)의 딸, 경주 이지웅(李之雄)의 딸이다.

◆ 이준성(李俊成)

본관 함평. 시조 언의 9세손. 예의관서습(襲)의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일집의(逸執義)를 지냈다.

◆ 이중권(李中權)

?~1795 본관 함평. 자 중경(中經).

시조의 23세손. 정후(挺厚)의 둘째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을 지냈으며 논산으로 이거하여 정착했다.

아내는 전의 이덕행(李德行)의 딸, 전주 리춘삼(李春三)의 딸, 함평 오도혁(吳道赫)의 딸이다.

◆ 이중길(李中吉)

본관 함평. 시조의 9세손. 개성부윤 온의 맏아들. 아버지 온이 고려말에 끝까지 고려조를 지키려고 협력하다가 강화 바다에서 목숨을 잃자 그 화가 자손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여 현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에 숨어 살았고 함평이씨 평택 입향조가 되었다.

후에 조선조의 융화정책에 의해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지냈다.

◆ 이중직(李中直)

1757~1811 본관 함평. 자 여운(汝溫). 시조의 23세손. 첨증추 정렬(挺烈)의 셋째 아들로 도정(都正)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 나치의(羅致義)의 딸, 파평 윤동일(尹東一)의 딸이다.

◆ 이중하(李仲河)

본관 함평. 시조의 12세손. 이조판서금(兢)의 셋째 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며 아내는 진원박씨다.

◆ 이지담(李之憚)

1696~? 본관 경주. 자 유형(惟馨). 시조의 30세손. 좌승지 회원(會元)의 넷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진주 소여유(蘇汝由)의 딸, 언양김씨다.



◆ 이지모(李之模)

1661~1746 본관 함평. 자 직중(直仲). 시조의 19세손. 군수 수익(受益)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천안전(全)씨다.

◆ 이지발(李之發)

1677~1737 본관 함평. 시조의 19세손. 판관 백익(白益)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창녕 조정기(曹廷耆)의 딸, 영양 진기동(陳基東)의 딸이다.

◆ 이지온(李之溫)

1773~? 본관 경주. 자 화혁(和赫). 중시조의 30세손. 진원(振元)의 맏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 좌승지(左承旨)를 지냈다.
아내는 여산 송원(宋源)의 딸이다.

◆ 이지창(李之昌)

본관 경주. 중시조의 30세손. 회원(會元)의 일곱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영장(營將)을 지냈으며 함평에서 서울로 이거 정착하였다.
아내는 김씨다.

◆ 이지필(李之秘)

본관 경주. 중시조의 30세손. 은구(殷耆)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고 아내는 이천서씨다.

◆ 이지하(李之夏)

1687~? 본관 경주. 자 숙형(淑馨). 중시조의 30세손. 좌승지 회원(會元)의 맏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진주 강휘태(姜徽泰)의 딸이다.

◆ 이지혁(李地赫)

본관 함평. 시조의 21세손. 통덕랑 덕추(德樞)의 맏아들.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다.

아내는 동래정씨다.

◆ 이지화(李地華)

본관 함평. 시조의 8세손. 영동정 인검(人檢)의 아들. 밀직사사, 상호군(上護軍)을 지냈으며 아내는 파산조씨(巴山趙氏) 진사 득경(得慶)의 딸이다.

◆ 이직견(李直堅)

1624~? 본관 함평. 자 정심(貞心). 시조의 19세손. 봉사(奉事) 갑생(甲生)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宣傳)을 지냈다.
아내는 용주박씨(龍州朴氏)다.

◆ 이진(李進)

본관 양성. 시조의 14세손. 상장 성인의 둘째 아들.
명종조에 형인 준(遵)과 함께 원종공신에 올랐다.

◆ 이진각(李鎭珪)

1674~1750 본관 함평. 자 여옥(汝玉). 호 연경(蓮景). 시조의 25세손. 기함(基咸)의 맏아들. 전주병마절제도위를 지냈다.
아내는 당악김씨(棠岳金氏) 정규(廷珪)의 딸이다.

◆ 이진문(李振門)

1573~1630 본관 함평. 자 창원(昌遠). 호 후재(後齋). 시조 언의 18세손. 부호군 원개(元愷)의 아들로 정유재란 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였고 군문에 있을 때는 간혹 관료들이 청하는 술자리에도 나아가지 않았으며 오직 중군 조발(中軍趙潑)과 사생교(死生交)를 맺고 군무(軍務)를 단속하여 조그만 낭패도 생기지 않게 하였다. 1619년 5월부터 관서 지방의 국경 방비에 나가 있던 1년간의 일기 “봉사부군일기(奉事府君日記)”가 전하는데 탐방하고 머물렀던 곳의 풍습과 역사, 인정과 풍물, 망향의 그리움과 효심이 기술되어 있어 귀중한 사료로 평가 받고 있다.

다. 그 중의 시 한수를 옮겨보면,
“절서가 중추에 임박하여 홀로 누문(樓門)에 올라서서

천리의 아버지를 생각하니 한이 길도다
집집마다 술을 두고 멀리 생각을 하느라
고

아마도 관서를 향하여 눈물 거두지 못하
리

눈물 드리우며 구름을 바라보는 천리의
한

노친네 때문에 기대어 자식 기다리는 마
음만은 못하리

節迫中秋獨登樓

思親千里恨悠悠

家家有酒遙相憶

應向關西淚未收

垂淚望雲千里恨

不如鶴髮倚門間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후 수문장, 주부, 부장(部將)을 제
수하였으나 모두 물리쳤다.

아내는 파평윤씨 진사 기(淇)의 딸이다.

◆ 이진서(李振緒)

1760~1803 본관 함평. 자 운태(雲泰).
호 송정(松汀). 시조의 24세손. 유금(儒今)
의 아들. 참봉. 효행과 문학을 겸비하였고
흥년에 가난한 이웃을 많이 도왔으며 향인
들이 송덕비를 세웠다.

아내는 해주 최정웅(崔正雄)의 딸이다.

◆ 이진악(李鎭岳)

1746~1834 본관 함평. 자 여인(汝仁).
호 경당(景堂). 시조의 25세손. 진사 기주
(基疇)의 맏아들. 군자감정을 지냈다.

아내는 동래 정중진(鄭重璉)의 딸이다.

◆ 이진욱(李珍旭)

본관 함평. 남규(南奎)의 숙부. 감찰 벼슬
에 있던 그는 남규와 그 아들이 순국 했다
는 소식을 듣고 원수를 갚기 위해 김태원
부대에 가담하였으며 1907년 12월(음) 함

평 나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이진운(李鎭雲)

?~1793 본관 함평. 자 성유(聖孺) 시조
의 25세손. 진사기주(基疇)의 넷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평산 노사기(盧思麒)의 딸, 창원
황우청(黃隅淸)의 딸이다.

◆ 이진희(李晉禧)

1710~1773 본관 함평. 자 덕수(德受)
시조의 23세손. 군수 두삼(斗三)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진사 순천 박중거(朴重舉)의 딸이
다.

◆ 이집호(李集鎬)

1804~? 본관 경주. 자 내길(乃吉).
호 묵재(默齋). 중시조의 34세손. 효자 기
찬(基燦)의 맏아들로 1876년에 문과급제하
여 사헌부 지평 경기도사(京畿都事)를 지냈
다.

아내는 전주 리진협(李鎭夾)의 딸이다.

◆ 이찬홍(李贊弘)

1827~1873 본관 함평. 처음 이름 교홍
(敎弘). 자 덕행(德行). 시조의 26세손. 기
무(琪武)의 둘째 아들. 1872년 진도진관
남도만호(南島萬戶)를 역임함.

아내는 금성정(丁)씨다

◆ 이창석(李昌碩)

1680~1750. 본관 경주. 자 사원(士元).
호 눌헌(訥軒). 송제(松濟)의 아들.

1711년(숙종 37)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흥
구례 온양 해남 현령 예조정랑 등 내외직
을 역임하였다.

1728년(영조 4) 병조좌랑 재임시 이인좌
(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병조판서 겸도원
수 오명항(吳命恒)을 도와 소사(素沙)로 출
진하여 많은 기획의 공을 세워 금부도사를
제수 받았고 분무원종(奮武原從)공신록에



올랐다. 분충사(奮忠祠, 신광면 월암리 연천 소재)에서 배향 했는데 고종조에 훼손되고 지금까지 복설을 못하고 있다.

아내는 천안전씨 이식(全以植)의 딸이다.

◆ 이 척(李 陟)

1508~1568 본관 함평. 자 원침.

시조의 14세손. 검손(儉遜)의 맏아들로 찰방을 지냈다.

아내는 창녕 조만익(曹萬益)의 딸이다.

◆ 이척경(李惕敬)

?~1592 본관 함평. 자 경약(敬若).

호 난와(蘭窩). 시조 언의 16세손. 노(輅)의 둘째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큰아버지 원(輅)과 함께 금산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고 순절하였고 후에 가선대부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아내는 울산 김씨다.

◆ 이천룡(李天龍)

본관 함평. 시조의 20세손. 인걸(人傑)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한 사실 뿐 행장이 전하지 않는다.

◆ 이천수(李天壽)

본관 경주. 중시조 거명(居明)의 21세손. 146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있다가 1480년경 벼슬을 버리고 나산면 덕림리 백양동에 이거 정착하여 경주이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밀양박씨다.

◆ 이천주(李天柱)

본관 함평. 시조의 10세손. 중랑장 인좌(仁佐)의 아들

고려 말에 중현대부 전객령(典客令)을 지내다가 치사(致仕, 나이가 많아 벼슬을 물러남)하였다.

◆ 이철암(李哲黯)

1641~1732 본관 고성. 자 자중(子仲).

시조의 22세손. 경신(敬信)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사과(司果)를 지냈다.

아내는 전주 리성발(李成發)의 딸이다.

◆ 이청수(李清秀)

본관 경주. 중시조의 26세손. 희영(熙英)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냈으며 아내는 전주리씨 효지(孝枝)의 딸이다.

◆ 이춘란(李春蘭)

?~1592 본관 함평. 시조의 16세손. 판관 세현(世賢)의 둘째 아들.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判官)을 지냈으며 임진란 때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 다시 창의하여 적과 싸워 많은 전공을 세우고 전사하였으며 선무원종 공신 1등훈에 올랐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세한 행적이 전하지 않는다.

아내는 평강채씨다.

◆ 이춘수(李春秀)

본관 함평. 시조 언의 10세손. 삼길(三吉)의 아들. 재덕을 겸비하였으며 태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문무를 겸전하여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정 4품) 재직시는 학문으로, 전라수사(全羅水使)로 있으면서는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어 무장으로서의 명성도 얻었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1790년부터 유림들의 논의와 문종의 합의에 의해 사산사(射山祠,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사산 소재)에서 향사하며, 1997년 각화사(角化祠)를 창건 봉안하였다.

아내는 안동김씨 직제학 근사(謹思)의 딸이다.

◆ 이춘풍(李春豊)

본관 경주. 임란 때 의병을 모아 항전하였고 정유재란 때 노복 10여명과 함께 이북남 휘하로 들어가 남원전에서 전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 이충달(李忠達)

본관 함평. 1525~1591. 자 민숙(敏淑). 호 송암(松庵). 시조의 16세손. 부장 관(輓)의 아들. 낙안 교수, 황산훈도(黃山訓導)를 지냈다.

아내는 진주김씨 현감 선정(善正)의 딸이다.

◆ 이충례(李忠禮)

1528~1580 본관 함평. 자 문숙(文叔). 시조 언의 16세손. 식(軾)의 둘째 아들. 효가 천성에 가까웠다. 아버지가 병이 나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에 넣어 드렸고, 등창이 났을 때는 고름을 빨았으며 병이 깊어지자 허벅지의 살을 베어 혼제하여 드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5년 동안 나물 죽만 먹었고, 또 혹심한 추위에 살결이 얼어 벗겨지는 고통을 참으며 시묘살이를 하다가 여막에서 작고하였다.

시묘살이를 할 때 호랑이 두 마리가 움막의 양옆을 지켰으며 캄캄한 밤에는 길을 인도하였다는 전설이 그의 묘표에 기재되어 있다.

어사 홍천경(洪千璟)이 이 사실을 듣고임금께 아뢰어 특별히 예조정랑(禮曹正郎)을 제수하였다.

아내는 함양박씨 성균관진사 태(台)의 딸이다.

◆ 이충립(李忠立)

1566~1618 본관 함평. 시조 언의 16세손. 억춘(億春)의 아들. 어릴 때부터 힘이 세었고 무과에 급제하여 도총부 경력(經歷, 정4품)이 되었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동지이세환(李世煥), 이완근(李浣根)과 더불어 권율(權栗) 막하로 들어가 함양(咸陽)의 팔량치전(八良峙戰)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 막하에서 활동하였고 특히 노량해전에서 빛나는 공을 세워 명천부사(明川府使)에 제수되었고 선무

원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아내는 전의이씨다.

◆ 이충실(李忠實)

1542~1598. 본관 함평. 자 정보(聖甫). 호 성와(誠窩). 시조 언의 16세손.

폭(幅)의 아들로 1566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봉사(奉事)가 되었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부름을 받아 당포(唐浦)싸움에서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는 영등포(永登浦)에서 적선을 불사르는 등 크게 승리했으며 1598년 11월 19일 노량싸움에서 적장 3인을 베는 등 전공을 올렸고, 유탄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몸으로 무너지려는 군을 독전하며 끝까지 싸웠으나 화살이 다하자 마침내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부인 청송 심씨도 남편의 순절 소식을 듣고 자결하였으며 부인의 묘결에 초혼장을 하였다.

◆ 이충인(李忠仁)

1526~1597 본관 함평. 자 현숙(賢叔). 호 청송(聽松). 시조언의 16세손.

진사 식(軾)의 아들로 나산면 우치리에서 출생하였다. 임진란이 일어난 후 이순신 휘하에 들어가 왜적과 용맹과 지략으로 싸워 연전 연승했으며 이순신이 그의 공을 높이 칭송했다.

1597년 노량(露梁)해전에서 장렬히 전사하였고 선영하에 초혼장을 하였다.

아내는 제주양씨 견석(堅石)의 딸이다.

◆ 이충직(李忠直)

1550~1613 본관 함평. 자 경보. 시조의 16세손. 의(輿)의 아들. 나산면 초포리에서 태어났으며 무과에 급제하여 예빈시정(禮賓侍正)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 김수강(金秀江)의 딸이다.

◆ 이치오(李致五)

1794~1857. 본관 경주 자 장여(章汝). 호 농은(農隱). 좌통례 태희(泰熙)의 아들.



순조28년(1828)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 양산군수, 사간원 사간(司諫院 司諫) 등 내외직을 역임. 분충사에 배향하였다. 아내는 죽산안씨 중노(安仲魯)의 딸과 함평이씨 재환(李載煥)의 딸이다

◆ 이태항(李泰恒)

1637~1685 본관 함평. 자 이구(而久). 시조의 20세손. 경백(慶白)의 넷째 이들로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주부를 지냈다. 아내는 진주 강시석(姜時奭)의 딸이다.

◆ 이태희(李泰熙)

1761~1823. 본관 경주. 자 노첨(魯瞻), 호 애오재(愛吾齋) 동윤(東潤)의 장남. 정조13(1789)년에 문과 급제하였고 병조좌랑, 예조좌랑, 사헌부장령, 통례원좌통례 등 역임. 문집 2권이 있으며, 분충사에서 배향하였다. 아내는 은진송씨 재헌(宋載獻)의 딸이다.

◆ 이 필(李 秘)

1608~? 본관 양성. 시조의 16세손. 봉사(奉事) 덕수(德秀)의 양아들. 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으며 아내는 광산 김씨 련(鍊)의 딸이다.

◆ 이 힘(李 힘)

1604~1692 본관 양성. 시조의 16세손. 통덕랑 덕량(德亮)의 장남. 수(壽)89로 첨추(僉樞)에 승계(陞階)했다. 아내는 광주정씨 좌랑 섭(涉)의 딸이다.

◆ 이현우(李玄雨)

본관 함평. 시조 언의 8세손. 예빈경인관(仁瑄)의 아들. 정종조(定宗朝)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직장, 동정(同正)을 지냈으며 함평이씨 집안에서 조선조에 최초로 입조한 사람이다. 아내는 광산김씨 군기감(軍器監) 인위(仁謂)의 딸이다.

◆ 이 협(李 鉞)

본관 함평. 시조 언의 9세손. 밀직사사동(董)의 아들. 검교동정을 지냈으며 아내는 연안이씨다.

◆ 이형립(李亨立)

본관 함평. 월야면 출신으로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 이형범(李亨範)

1869~1894 본관 함평. 자 도연(道連). 시조의 28세손. 첨추 계송(啓松)의 둘째 아들. 은률군수 동범(東範)의 아우.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宣傳)을 지냈다. 아내는 행주 은수룡(殷壽龍)의 딸이다.

◆ 이형원(李亨元)

본관 경주. 자 하초(夏初). 중시조의 29세손. 서윤(緒胤)의 둘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도강 김량(金諒)의 딸이다.

◆ 이 호(李 浩)

1598~1670. 본관 경주. 자 양백(洋伯). 감찰 정(艇)의 아들. 1615년(광해 7)에 무과에 급제하고 병자호란 때에는 전직 선전관으로서 전라병사 김준룡(金俊龍)과 대장 신경정(申景禎)을 도와 광교산(光敎山, 현 서울 영등포 부근)전투에서 청나라 장군을 사살하고 적의 칼에 맞아 오른쪽 팔이 잘리고 또한 공이 탄 전마(戰馬)마저 상하여 전마가 쓰러진 바람에 공 또한 피해를 입고 말았다. 그후 화의가 성립되자 통곡하고 돌아와 신광면 연천(제비내)에서 은거하며 살았다.

아내는 신평송씨 부장 하수(宋河壽)의 딸로 수사 윤번(尹 璠)의 외손이다.

◆ 이호서(李好緒)

본관 함평. 현종조(憲宗朝). 자 윤경(潤敬). 호 회은(晦隱). 양익공 종의의 후손.

품성이 맑고 정직하며 정훈을 이어받아 문장이 성취되니 시례(詩禮)에 능하여 향중 여러 선비들과 많은 시가를 읊었다. 시집이 있다.

◆ 이호의(李好義)

본관 함평. 시조의 13세손. 승근(承根)의 아들.
첨지(僉知)를 역임했다.

◆ 이호인(李好仁)

본관 함평. 시조의 13세손. 도사 승안(承顔)의 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영평문씨(永平文氏) 맹덕(孟德)의 딸이다.

◆ 이홍복(李弘福)

1590~1666 본관 함평. 자 우유(于裕). 시조의 언의 17세 손. 첨추 춘방(春芳)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평안도 병마 우후(虞侯)를 거쳐 동지충추부사 겸 우림위장(羽林衛將)을 지냈다.
아내는 이천서씨 관지(寬之)의 딸이다.

◆ 이홍우(李鴻遇)

정유재란 때 이순신 휘하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 이홍적(李弘積)

1709~1767 본관 함평. 자 미여(美汝). 호 둔헌(遯軒). 시조의 22세손. 정현(廷顯)의 양아들. 생부 준림(俊林).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전주 리명혁(李命赫)의 딸이다.

◆ 이홍직(李弘稷)

1705~1796 본관 함평. 자 계장(季長). 호 개석헌(介石軒). 시조 언의 22세손 진사 준림(俊林)의 맏아들로 나산면 우치에서 태어났다.
1723년에 사마시 진사과에 입격하고 1735년 8월 29일 식년시 문과 병과에 27

인중 3인으로 급제하여 청암도 찰방, 전직, 예조와 병조의 낭관, 전의 헌감, 경상우도 충청도 도사(都事), 정언을 거쳐 1743년(영조 19)에 장령, 영광군수를 지낸 뒤 사임하였다.

1751년에 헌납(獻納)으로 복직하여 군자감정을 거쳐 1759년에 다시 헌납이 되었으며 1761년 사간(司諫)으로 재직할 때 전라도 관찰사 홍인한(洪麟漢)의 비행을 탄핵하려는 상소를 올리려다 상소 내용이 사전에 누설되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정조가 즉위하고 홍국영의 세도가 극에 이르자 아예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함평에 은거하였으며 1785년 수직(壽職)으로 지중추부사 도총관에 오르고 기로사(耆老社)에 들었고 문집으로 개석집 7권이 전해온다.
아내는 전의이씨 규령(奎齡)의 딸이다.

◆ 이 화(李 和)

본관 함평. 시조 언(彦)의 아들. 고려 광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신호위대장군(神虎衛大將軍)을 역임했으며 아내는 길반하대정(吉班下隊正)을 지낸 함풍임씨(咸豐任氏) 시조 진미(珍美)다. 묘는 실전했으며 1969년에 함평읍 성남리 시조 묘역에 설단(設壇)하였다.

◆ 이 화(李 華)

본관 함평. 시조의 13세손. 참판 유번(有蕃)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持平)을 지냈으며 충남 석성(石城)으로 이거하였다.
아내는 승지 창녕 조호(曹浩)의 딸이다.

◆ 이화백(李華白)

1691~? 본관 공주. 시조의 52세손. 첨절제사(僉節制使) 익명(益明)의 차남. 선무랑(宣務郎)으로 1720년경 공주에서 손불면 족장리로 이거 정착하여 공주이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밀양 박씨로 묘는 신광면 조내동(鳥內洞) 정좌이다.



◆ 이화진(李化辰)

1861~1894 본관 공주. 본명 경진(景鎭). 자 백인(伯仁). 호 두암(斗菴). 화암재명(載明)의 차남. 재황(載晃)의 양자이며 함평군의 동학 대접주로 함평군의 동학 운동을 주도하였고 본명 외에 널리 알려진 화진이란 이름은 동학 교명(東學 敎名)인 듯 하다.

그는 대접주로서 1894년 9월 삼례 집결 후 손화중, 최경선과 함께 11월 22일 나주성을 공격했으며, 27일에는 광주에 입성했다가 12월 1일에 군을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활약하다가 12월 5일에 관헌에게 체포되어 함평에서 형사했다.

아내는 한양 조씨(趙氏) 계화(季化)의 딸이다.

◆ 이회년(李檜年)

1651~1730 본관 함평. 자 직로(直老). 호 양촌(陽村). 시조의 21세손. 부호군 배인(培仁)의 맏아들로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다.

아내는 죽산 이국신(李國薰)의 딸, 안동 김명한(金鳴漢)의 딸이다.

◆ 이회원(李會元)

1659~1720 본관 경주. 자 수초(遂初). 호 백곡(白谷). 중시조의 29세손. 좌랑 서윤(緒胤)의 아들이며 이병재 안여해(安汝諧)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687년 문과에 급제하여 외직으로 창녕, 함양, 대구, 운암, 고부, 인동, 진주의 7개읍 수령을 지냈고 내직으로는 성균관 박사, 사성(司成), 정언, 지평, 승문원 교리, 공조 예조 이조의 좌랑과 정랑, 통례원 봉사, 시강원 춘추관(春秋館), 승정원 좌승지 등을 지냈으며 숙종이 세자를 세울 때 네 대신과 함께 사직(社稷)의 중요함을 들어 간하다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1717년 산음(山陰)으로 귀양되었고 1720년 왕의 부름을 받아 서울로 가던 중 공주 활원(活原)에서 타계하였다.

영조가 즉위하여 어필로 “정충보국(精忠輔國)”이란 네 글자를 써서 하사하고 영당을 세웠다.

아내는 해주오씨, 그리고 함평 노상질(魯尙質)의 딸이다.

◆ 이효원(李效元)

1550~1629 본관 함평. 자 성백(誠伯). 호 장포(長浦). 시조 언의 16세손. 문과 관(壘)의 맏아들.

1570년에 진사과 1554년(선조 17)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大司諫)에 올랐으며 임진란때는 왕을 호종하여 1등공신에 책록되었고 광해군 초 모함을 받아 거제도에 유배되어 16년간 귀양살이를 하였다. 인조반정 후 신원 되었으나 벼슬을 사양하고 장승포(長承浦)에 은퇴(隱退)하여 여생을 마쳤다.

사후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助功臣) 영의정 함풍군(咸豐君)에 추증되었다.

아내는 광주(廣州)이씨 수경(首慶)의 딸, 여산송씨 극흥(克興)의 딸, 청주한씨 희복(希福)의 딸이다.

◆ 이 후(李 垸)

1661~1737 본관 양성. 자 사후(土厚). 시조의 17세손. 죽림처사 경창의 아들. 1699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참방, 성균관 전적을 지냈다.

아내는 전안전씨 절충(折衝) 근(謹)의 딸이다.

◆ 이후발(李厚發)

본관 고성. 자 달부(達夫). 시조의 22세손. 참봉 덕길(德吉)의 아들.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광주광역시 하남(河南)으로 이거하여 정착했다.

아내는 군수 나주 정종아(鄭從雅)의 딸이다.

◆ 이휴명(李休命)

1680~1762 본관 함평. 자 미숙(美叔).

시조의 21세손. 조랑 의장(宜章)의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진사 온양정씨(溫陽鄭氏), 그리고 부안 임시남(林時南)의 딸이다.

◆ 이휴삼(李休三)

1650~? 본관 양성. 시조의 19세손. 통덕랑 주(胄)의 셋째 아들. 1689년(숙종 15) 증광시 진사과에 아우 석삼과 함께 합격하였다.

아내는 진주정씨(鄭氏) 익(枳)의 딸과 청송 심씨(沈氏) 사함(思涵)의 딸이다.

◆ 이흥제(李興悌)

본관 고성. 자 굴언(屈彦). 시조의 16세손. 병사 결(傑)의 아들. 함양군수를 지냈다.

아내는 광산 김진서(金振瑞)의 딸이다.

◆ 이희림(李熙林)

본관 함평. 시조의 11세손. 전객령(典客令) 천주(天柱)의 아들. 함평부원군과의 후손 중 처음으로 조선조에 출사하여 청주목판관(判官)을 지냈다.

◆ 이희방(李熙芳)

본관 경주. 호 신재(愼齋). 중시조의 25세손. 생원 문화(文華)의 아들.

진사과에 합격하였으며 아내는 문화유(柳)빈(斌)의 딸이다.

◆ 이희복(李希福)

본관 양성. 시조의 14세손. 위술 성의(成義)의 맏아들. 장례원(掌隸院) 사평(司評)을 지냈고 아내는 고부이씨 종사(從仕) 지배(智培)의 딸이다.

◆ 이희삼(李希三)

본관 고부. 시조의 21세손. 직장 종근(直長從根)의 제3남. 문안공 희맹(希孟)의 아우로 진원현감(珍原縣監)을 역임했으며 1520년경 정읍에서 함평군 손불면 동암리

삼괴동으로 이거 정착하여 고부이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진원 박씨로 묘는 동암리 산108번지 곤좌 합평이다.

◆ 임 씨(林 氏)

1827~1893 본관 평택. 흥서(興瑞)의 딸로 함평 이상서(李祥緒)와 결혼하였고 효부로 이름 높아 남편과 함께 향도(鄉道)의 천장을 받았다.

◆ 임세열(任世烈)

1672~1753 본관 풍천. 자 복원(福元). 호 덕재(德齋). 시조의 19세손. 병(昞)의 아들. 감역(監役)을 역임했으며 아내는 전주리씨 일규(一圭)의 딸이다.

◆ 임실원(林實元)

본관 나주. 인조반정의 2등공신이며 1650년 신광면 복흥리 복치로 이거 정자공파의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 임 열(林 悅)

1529~1612 본관 나주. 자 중헌(仲憲). 호 은곡(隱谷). 시조의 17세손. 현감 익(益)의 아들. 전생서 주부(典牲署主簿)를 지냈으며 1550년대에 무안에서 손불면 대전리로 이거하여 나주임씨 장수공파(長水公派)의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해남윤씨 좌랑 시익(侍翼)의 딸이다.

◆ 임 영(林 泳)

1649~1696 본관 나주. 자 덕함(德涵). 호 창계(滄溪). 첨지중추부사 일유(一儒)의 아들로 나주에서 태어났다.

이단상(李端相), 박세채(朴世采)의 문하생이며, 1665년(현종 6)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671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후에 이조정랑, 부제학, 대사헌, 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1694년(숙종 20) 대사간, 개성유수(開城留守)를 거쳐 1695년에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조정에서 약을 하사했다고 한다.

사후인 1709년에 후손들이 수산사(水山祠). 함평읍 수호리. 수산봉과 만봉 사이의 옛 도로 곁)를 창건하고 배향했는데 그 후 사우는 대원군의 훼손령에 의해 뜯기고 복설을 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산사 건립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건립 연유는 자세히 밝힐 수 없으나 태생지인 나주의 창계사(滄溪祠)가 수산사 보다 1년 뒤에 건립되었고, 선조의 묘가 수산사와 인근인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에 있고 그의 시에 수산정(水山亭)이란 시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자손이 이곳에 이거하여 가끔 찾았거나 본인이 말년을 보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임우배(林宇培)

1743~1837 본관 평택. 자 치문(致文). 호 석산(石山). 파조의 14세손. 심(深)의 양아들. 생부 덕홍(德弘). 1760년대에 나주에서 학교면 월산리로 이거 정착하여 평택임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으며 향년 95세의 장수를 누렸고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 용양위 절충장군을 제수 받았다.

아내는 무안박씨 형술(亨述)의 딸이다.

◆ 임정립(林廷笠)

1563~1647 본관 나주. 자 득화(得和). 호 은계(隱溪). 시조의 19세손. 감찰 정립(廷笠)의 아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를 지냈으며 아내는 전주리씨 순환(順煥)의 딸이다.

◆ 임진미(任珍美)

함평임씨 시조. 고려조에 길반하대정(吉班下隊正)을 지냈다. < 함평임씨 족보2세화(和)의 기록 참조 >

◆ 임채원(林采遠)

1817~1874 본관 평택. 호 동호(東湖).

돈녕부 부도정(敦寧府副都正)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 이돈팔(李敦八)의 딸이다.

◆ 임 첩(林 堞)

1545~1606 본관 나주. 처음 이름 택홍(澤弘). 자 승교(升敎). 시조의 18세손. 주부 열(悅)의 아들.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아내는 함평이씨 석인(錫仁)의 딸이다.

◆ 장 강(張 綱)

본관 인동. 시조의 10세손. 의숙(宜淑)의 아들.

고려조에 행수(行首)를 지냈다.

◆ 장 강(張 礪)

본관 인동. 시조의 15세손. 장령 중달(仲達)의 둘째 아들. 성균관진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진주강씨다.

◆ 장건호(張建昊)

본관 인동. 시조의 18세손. 중추부사여(億)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경기도오의 산수동으로 이거하여 정착하였다.

아내는 청주 한덕화(韓德華)의 딸이다.

◆ 장 계(張 啓)

본관 인동. 시조의 12세손. 내사령직사관만석(萬錫)의 둘째 아들. 성균관진사를 지냈다.

◆ 장경립(張景立)

1605~1627 본관 인동. 자 백규(白揆). 시조의 20세손. 죽(竹)의 아들로 해남으로 이거 정착하였으며 1623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판관이 되었다.

인조반정에 참여 정사공신(精社功臣)에 훈록되었고 또 반정의 논공에 불만을 품은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키자 도원수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절묘한 전략을 세워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이 되어 1625년 9월 1일에 통정

대부 부호군(副護軍)으로 승차되었다.
아내는 한양조씨(趙氏) 호현(好賢)의 딸이다.

◆ 장경진(張敬軫)

본관 인동. 시조의 13세손. 문하시랑한량(漢良)의 아들. 고려조에 첨서(僉書)를 지냈다.

◆ 장기주(張基周)

본관 인동. 시조의 16세손. 친사 현(眩)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판관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다.

◆ 장기항(張基杭)

1455~1536 본관 인동. 시조의 16세손. 진사 강의 둘째 아들. 예빈시첨정(禮賓侍僉正)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임(林)씨다.

◆ 장남기(張南驥)

1645~1725 본관 인동. 자 군신(君迅). 호 경현(警軒), 시조의 23세손. 부호군 창윤(昌胤)의 둘째 아들로 송시열 문하생이며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판관, 절충장군 부호군을 지냈다. 효종께서 복벌을 도모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승하하시자 절통해 하였으며 평생을 복향하고 앓지를 아니하였다.

81세를 살다 몰 하니 사후에 가선대부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을 증직받았으며 양림사(陽林祠). 함평읍 진양리 양림 소재)에서 배향하였다.

아내는 금성나씨 이욱(以郁)의 딸, 영동김씨(永同金氏) 종건(宗健)의 딸, 김해김씨 주부 상백(尙白)의 딸이다.

◆ 장남비(張南駢)

1638~1711 본관 인동. 자 군일(君逸). 호 고암(鼓庵). 시조의 23세손. 부호군 창윤(昌胤)의 맏아들로 송시열 문하이며 당대

의 석학인 사매당 윤삼거(四梅堂尹三舉)와 도의교를 맺는 등 학문에 힘을 써 문장과 덕행으로 세간에 모범이 되었으며 학행으로 장릉(壯陵) 참봉이 제수되었고 숙종의 폐비 때 침랑(寢郎)으로 부당함을 상소한 후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내려와 후학양성에 힘을 썼다.

사후 가선대부 예조참판이 증직되었고 충효사(忠孝祠. 함평읍 진양리 양림 소재)에서 배향하였다.

아내는 영광정씨(丁氏) 돈영(敦靈)의 딸이다.

◆ 장남순(張南馴)

본관 인동. 처음 이름 신표(信弼). 자여성(汝成). 호 신암(信菴). 시조의 23세손. 창윤(昌胤)의 셋째 아들.

1675년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문행과 학행으로 당세에 이름이 높았으며 강진으로 이거 정착하였고 문집 3권이 전한다.

아내는 해남윤씨다.

◆ 장덕수(張德守)

1575~1635 본관 인동. 자 여운(汝潤). 호 죽정(竹亭). 시조의 21세손. 자평(自平)의 아들로 18세 때인 1592년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동생 덕춘(德春)과 함께 이순신 막하에서 가동(家僮)을 편대로 하여 배로 의곡을 운반하고 또 한산(閑山), 안골포(安骨浦戰)에서 적 수십급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

후에 이항복(李恒福)이 이 전과를 알려사복시 주부(司僕侍主簿)를 제수하였다.

아내는 함평이씨 원연(元連)의 딸이다.

◆ 장덕춘(張德春)

1577~1636 본관 인동. 자 여상(汝相). 호 송와(松窩). 시조의 21세손. 임진란이 일어나자 형 덕수와 이순신 휘하로 들어가 가동을 편대로 하여 의곡을 배로 운반하고 또 한산 안골포전에서 형과 함께 적 수십급을 베는 전과를 올렸으며 무과에 급제하



였다.

후에 이항복(李恒福)이 이 전과를 나라에 올려 군기시 첨정(軍器侍僉正)을 제수하였다.

아내는 제주양씨(梁氏) 의문(義文)의 딸이다.

◆ 장동규(張同圭)

1851~1895 본관 홍성. 자 옥삼(玉三). 호 의정재(義貞齋). 중시조 영(英)의 18세손. 대만(大萬)의 아들. 헌규의 아우. 동학 접주 이화진(李化辰)의 고모부. 형 헌규, 아우 응규와 함께 3형제가 1894년 동학 농민군으로 출전. 다음해 2월 17일 아우 응규와 함께 함평현에서 형사(刑死)하였다.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267쪽.>

◆ 장두명(張斗命)

1670~1722 본관 인동. 일명 한명(漢明). 호 호은(湖隱). 시조의 24세손. 남일(南駟)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다.

아내는 청주한씨다.

◆ 장두익(張斗翊)

1692~1781 본관 인동. 자 사익(士益). 호 송재(松齋). 시조의 24세손. 부호군 남기(南驥)의 셋째 아들. 90세의 장수를 누렸고 예와 의에 사림(士林)의 모범이 되어 향당(鄉堂)에서 여러 차례 나라에 천(薦)을 올렸다.

사후 가선대부 형조참판에 증직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양림사(陽林祠). 함평읍 진양리 양림 소재)에서 배향하였으나 고종조 서원 철폐령에 자진 훼손한 후 복설을 하지 않았다.

아내는 광산노씨(盧氏) 상경(尙敬)의 딸이다.

◆ 장득생(張得生)

1589~1661 처음 이름 득복(得福). 자 자회(子晦). 호 덕암(德庵). 중시조 영(英)의 9세손. 함평 입향조 이길(以吉)의 셋째

아들. 만생(晩生)의 아우. 무과에 급제하여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했다.

아내는 전주이씨 희로(喜老)의 딸이다.

◆ 장려(張慮)

본관 인동. 시조의 17세손. 운경(雲敬)의 둘째 아들.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했다.

아내는 무안박씨다.

◆ 장련(張練)

본관 인동. 시조의 10세손. 경숙(敬淑)의 아들.

고려조에 생원(生員)을 지냈다.

◆ 장만생(張晩生)

1587~1637 본관 홍성. 자 자민(子民). 호 인성(仁省). 중시조 영(英)의 9세손.

함평 입향조 이길(以吉)의 둘째 아들.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사복시 부정(司僕侍副正)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통훈대부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증직되었고 아내는 광산김씨이다.

◆ 장만서(張萬叙)

본관 인동. 시조의 11세손. 행수 강(綱)의 아들.

고려조에 지훈사(知訓事)를 지냈다.

◆ 장만석(張萬錫)

본관 인동. 시조의 11세손. 문과 급제온(溫)의 아들. 고려조에 내사령직사관(內史令直史館)을 지냈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아내는 전주리씨다.

◆ 장만일(張萬鎰)

본관 인동. 시조의 11세손. 선(繕)의 아들.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 자세한 행장이 전하지 않는다.

◆ 장만창(張萬昌)

본관 인동. 시조의 11세손. 서(緒)의 아들.

고려조에 성균관진사를 지냈다.
아내는 경주이씨다.

◆ 장맹준(張孟駿)

1445~1508 본관 인동. 시조의 17세손.
부사 웅(雄)의 맏아들. 성균관진사를 지냈다.
아내는 전주리씨다.

◆ 장문기(張文紀)

본관 인동. 시조의 15세손. 이렴(以廉)의
맏아들. 조선조 초에 무과에 급제하여 병
절교위에 올랐다.
아내는 진주하(河)씨다.

◆ 장 방(張 昉)

본관 인동. 시조의 15세손. 첨정 중하
(仲夏)의 아들.
조선조 초 성균관진사를 지냈다.

◆ 장백림(張百林)

1123~? 본관 인동. 호 원모재(遠慕齋).
문과 급제 신원(信元)의 둘째 아들. 1150
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헌대부 의
정부 우참찬(右參贊)에 이르렀으나 간신들
의 모함에 진도(珍島)로 유배되고 3년 후
에 유배령이 풀려 송도로 가던 중 함평에
이르러 산수가 그윽함을 보고 대동면 향교
리에 눌러 살게 되어 인동장씨 함평군 입
향조가 되었다. 원모사(遠慕祠). 함평읍 진
양리 양림 소재)에서 배향한다.
아내는 경주김씨다.

◆ 장부개(張傅凱)

1452~1508. 본관 인동. 자 화지(和之).
호 출암(黜庵). 기시조 김용(起始祖金用)의
18세손. 부개파 파조(派祖). 1488년(성종
19)에 헌납에 올랐으며 주강(晝講)을 맡아
역대 제왕의 치적을 강(講)하였고 보국숭록
대부 영돈녕부사(輔國崇祿大夫 領敦寧府使)
를 지냈다.
연산군 말년인 1506년에 폐정을 항의하

는 상소를 올렸다가 당시 무안현 땅이던
현 함평군 엽다면 영흥리(永興里)에 귀양되
었고 종종 반정(反正) 후 귀양이 풀렸으나
이곳에 정착하여 인동장씨 부개공파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묘는 몽탄면 마산 후록(馬山后麓)에 있고
아내는 광산김씨다.

◆ 장사길(張士吉)

1536~1585 본관 인동. 자 직보(直甫).
호 일암(逸菴). 시조의 20세손. 직제학 예
(藝)의 아들. 참봉으로 출사하여 홍문관 수
찬에 올랐으며 송천 양응정(松川梁應鼎),
임수정 김경칭(臨水亭 金景稱)과 교유가 깊
었다.
아내는 영광 김익수(金益壽)의 딸이다.

◆ 장석윤(張錫胤)

1590~1652 본관 인동. 자 백계(佰啓).
호 연당처사(蓮堂處士). 시조의 22세손.
수찬 사길(士吉)의 맏아들.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의 문하에서 수
학하였고 통덕랑을 지냈으며 효성이 참으
로 지극하였다.
아내는 함평이씨다.

◆ 장세기(張世麒)

본관 인동. 자 선규(善奎). 시조의 21세
손. 연(演)의 둘째 아들. 사마시에 입격하
였다.
아내는 성주이씨다.

◆ 장세린(張世麟)

1545~1637 본관 인동. 자 응규(應奎).
호 양파(陽坡). 시조의 21세손 남병사(南兵
使) 시언(時彦)의 손자.
경릉(敬陵) 참봉, 남평현감(南平縣監)을
역임했으며 93세의 장수를 누렸다.
아내는 담양전씨(潭陽田氏)다.

◆ 장시수(張始岫)

본관 인동. 시조의 16세손. 진사 강의 넷



째 아들. 통훈대부 덕원부사(德原府使)를 지냈다.

아내는 광산 김낙수(金洛洙)의 딸이다.

◆ 장시언(張時彦)

본관 인동. 호 남계(南溪). 시조의 19세손 부개(傅凱)의 아들. 가선대부 남병사(嘉善大夫 南兵使)를 지냈으며 아버지가 1506년에 현 합평군 업다면 영흥리로 부처(付處)되자 아버지를 따라와 정착하였다.

아내는 남양홍씨 증중 반정공신 응봉(應峯)의 딸이다.

◆ 장 씨(張 氏)

학생 유경중(兪敬宗)의 아내인데 지아비가 죽으매 빈소에 있으면서 날마다 세번씩 상식을 올렸고 복을 벗고 나서도 오히려 조석 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시부모를 모시기에도 또한 마음껏 다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장안국(張安國)

본관 인동. 호 자성재(自省齋). 시조의 13세손. 문하시랑 지(止)의 아들. 고려말 문과에 급제하여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를 지냈으며 조선조 개국 후 태조가 한성판윤에 제수했으나 불사이군(不事二君)을 내세워 취임하지 않았다.

아내는 진주강씨다.

◆ 장안도(張安道)

1599~1623 본관 홍성. 자 중임(仲任). 호 낙전자(樂全子). 중시조 영(英)의 10세손. 통례원 좌통례 귀생(貴生)의 아들.

광해군 때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문무를 겸비하였고 어회장군(禦侮將軍) 훈련원 부정(副正)을 지내다 혼조(昏朝)의 간신들에 의한 무고로 관서 지방 변방의 방어를 맡아 부임하였고 그 곳에서 졸하였다.

아내는 광산김씨 덕흥(德興)의 딸이다.

◆ 장안도(張安道)

본관 인동. 시조의 13세손. 진사 계의 아들.

해주목사(海州牧使)를 지냈다.

◆ 장안민(張安民)

1623~1655 본관 홍성. 자 대관(大貫). 중시조 영(英)의 10세손. 부호군 득생(得生)의 아들로 1656년(효종 7)에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守門將)을 역임하고 1660년에 수의부위(修義副尉), 진용교위(進勇校尉)를 거쳐 정현대부 오위장(五衛將)을 지냈다.

아내는 파평윤씨 화기(華起)의 딸이다.

◆ 장안용(張安容)

1629~1676 본관 홍성. 자 보심(寶心). 중시조의 10세손. 부정 만생(晩生)의 둘째 아들. 통례원 인의(通禮院 引儀)를 지냈다. 아내는 양성 이인기(李仁奇)의 딸이다.

◆ 장 연(張 連)

본관 인동. 자 도원(道元). 시조의 17세손. 판관 기주(基周)의 맏아들. 문과에 급제. 자세한 행적은 전하지 않는다.

아내는 김해김씨다.

◆ 장 연(張 演)

본관 인동. 자 평택(平澤). 호 모원재(慕遠齋). 시조의 20세손. 남병사 시언(時彦)의 아들. 1489년 사마시(司馬試)에 입격하였다.

◆ 장 예(張 藝)

1517~1598 본관 인동. 자 자지(子枝). 호 광화당(光化堂) 시호 문정공(文貞公). 시조 19세손. 참봉 세걸(世傑)의 아들.

학행(學行)으로 장사랑에 제수되어 통정대부 첨중추(僉中樞), 홍문관 직제학(弘文館 直提學)을 지냈다. 도의가 명철하고 의를 고수한 문신(文臣)으로 정평이 높았다.

아내는 창녕조씨(昌寧曹氏)다.

◆ 장 온(張 溫)

본관 인동. 시조의 10세손. 부지밀직사사
한숙(漢淑)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
이 3품직에 이르렀다.
아내는 김해김씨다.

◆ 장용한(張用漢)

1648~1709 본관 홍성. 자 천여(天輿).
호 만사(晩沙). 중시조 영(英)의 11세손.
오위장 안민(安民)의 둘째 아들로 문예가
특출하였으며 58세 때인 1705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교서관 부정자(校書館 副正
字) 직에 있다가 졸하여 모두들 애석하게
여겼다.
아내는 창녕조씨(曹氏) 광옥(光玉)의 딸이
다.

◆ 장우한(張宇翰)

1572~1654 본관 인동. 자 운거(雲舉).
호 경재(警齋). 시조의 21세손. 참봉 사길
(士吉)의 아들. 일심당 김상충(一心堂 金尙
忠)의 문하생으로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벼
슬은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다. 임진란
이 일어나자 단신으로 이순신 막하로 들어
가 한산(閑山), 노량전(露梁戰)에서 공을
세웠으며 선무원종공신(宣務原從功臣)에 책
록되었다. 사후 자헌대부 호조판서에 추증
되었고 충효사(忠孝祠). 함평읍 진양리 소
재)에서 배향하였으며 아내는 천안전씨(全
氏) 진사 몽룡(夢龍)의 딸, 경주김씨 참봉
응정(應貞)의 딸이다.

◆ 장 웅(張 雄)

본관 인동. 시조의 16세손. 성균관진사현
(眩)의 아들. 성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해
주목사(海州牧使),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
냈으며 치적비가 있다.
아내는 죽산안씨 효인(孝仁)의 딸, 후배는
밀양박씨다.

◆ 장을중(張乙仲)

본관 인동. 처음 이름 안상(安相). 시조의
13세손. 감(堪)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수군절도사를 지냈으며 선무원종공신에 올
랐다. 만년에 진도군 의신면으로 이거하여
그 후손이 관내에 퍼져 살게되었다.
아내는 광산김씨다.

◆ 장응규(張應圭)

1854~1895 본관 홍삼. 자 공삼(公三).
중시조 영(英)의 18세손. 대만(大萬)의 넷
째 아들로 형 헌규, 동규와 함께 동학농민
군에 참여하였고 이듬해 2월 17일 함평현
에서 형 동규와 함께 형사(刑死)하였다.
아내는 풍산홍씨(豐山洪氏) 내현(乃鉉)의
딸, 해주최씨(崔氏) 명규(明珪)의 딸이다.

◆ 장의철(張義喆)

1588~1646 본관 인동. 자 준명(浚明)
주부 덕수(德守)의 아들. 성품이 바르고 지
략이 뛰어나 병자호란에 운암 이흥발이 의
병을 일으키고 열읍에 격문을 돌리자 분함
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병량(兵糧) 500
석을 내놓았으며, 전마(戰馬) 2필 가동(家
僮) 15명과 두 아들 순(淳). 명(溟)을 거느
리고 여산 의청으로 달려가 청강 조수성의
군졸과 합세하여 청주로 진병했으나 화의
가 성립되었음을 듣고 통곡하며 돌아와 두
문불출 자정하며 생을 마쳤다.

◆ 장이길(張以吉)

1529~1595 본관 홍성. 호 을계(乙溪)
또는 야우(野憂). 중시조 영(英)의 8세손.
현(僉)의 아들로 야우공파의 파조(派祖).
6세에 문리를 해득하므로 향리 사람들이
신동(神童)이라 불렀고 율정 최학령(栗亭
崔鶴齡)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1555년(명종
10)에 생원과에 입격하여 승사랑(承仕郎)과
통사랑(通仕郎)을 지냈고 32세 때인 1560
년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 출신(吏曹出身),
1562년 사헌부 지평(持平), 1564년 선무
랑(宣武郎)으로 승진하여 성균관학유(學諭),
남학훈도(南學訓導)를 역임하였으며 1573



년 장성현감(長城縣監), 1575년 평양서윤(平壤庶尹), 종부시첨정(宗簿侍僉正), 1576년 익산(益山)군수, 1581년 이조 정랑(正郎), 1583년 사간원 대사간(大司諫), 1588년 진산(珍山)군수, 1591년 승정원우승지(右承旨)가 되었고, 임진란이 일어나자 소의장 임공권(昭義將 林公權)과 더불어 의병을 모아 의병장 김천일(金千鎰), 조헌(趙憲)을 적극 찬조하고 이어 의주로 왕을 호종하였으며, 조정에서 명나라로 피하자는 의견이 있을 때 “남으로순수(巡狩)하여 국토를 회복해야한다”는 상소를 올려 왕의 신임을 받았다.

1594년 공홍도 관찰사(公洪道觀察使), 1595년에 이조참판(參判) 겸 오위도총관(五衛都總管)에 올랐으며 이 해 9월 28일에 졸하였다. 그는 1580년대에 나주시 다시면에서 아내 심씨(沈氏)의 고향 앞인 신광면 계천리 사천(沙川)으로 이거하여 홍성장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양성(陽城)이씨 판관 성헌(成憲)의 딸로 생육이 없고 또 아내는 청송심씨(沈氏) 사도시정(司導侍正) 안평(安坪)의 딸로 3남 2녀를 두었고, 또 아내는 양성이씨다.

◆ 장익수(張益壽)

1687~1755 본관 인동. 자 경서(敬瑞). 호 신암(愼菴). 시조의 25세손. 두초(斗初)의 둘째 아들로 학행으로 천거되어 동몽교관 함평훈도를 지냈다.

아내는 이천 서유원(徐有元)의 딸이다.

◆ 장익준(張益駿)

1447~1509 본관 인동. 호 퇴휴당(退休堂). 부사 웅(雄)의 둘째 아들. 성균관진사에 입격하였으며 아내는 동래정씨다.

◆ 장인성(張仁晟)

본관 인동. 시조의 14세손. 첨서 경진(敬軫)의 아들. 옥화군(玉華君)에 봉작되었으며 개성서원(開城書院)에서 향사하며 아들 종하(宗河)가 개성으로 이거 정착했다.

◆ 장 제(張 堤)

본관 인동. 시조의 12세손. 문과 급제만일(萬鎰)의 아들. 영동정(令同正)을 지냈다

◆ 장 주(張 儔)

본관 인동. 시조의 8세손. 진사 효온(孝溫)의 맏아들 판통례원사(判通禮院事)를 지냈으며 아내는 나주정(鄭)씨다.

◆ 장 준(張 浚)

1458~1537 본관 인동. 시조의 16세손. 진사 강의 셋째 아들. 내수사 별제(內需司別提)를 지냈으며 아내는 밀양박씨다.

◆ 장 준(張 俊)

본관 인동. 시조의 8세손. 효익(孝翊)의 아들. 현감을 역임했다.

◆ 장중달(張仲達)

본관 인동. 자 원중(元仲). 호 일원당(一元堂). 시조의 14세손. 판사재 감사안국(安國)의 아들.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아내는 경주이씨다.

◆ 장중하(張仲夏)

본관 인동. 시조의 14세손. 훈도 안방(安房)의 아들. 첨정(僉正)을 지냈다.

◆ 장 지(張 止)

본관 인동. 시조의 12세손. 내사령직사관 만석(萬錫)의 맏아들. 문하시랑을 지내다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만년을 향리에서 숨어 살았으며 야은 길재(冶隱吉再)와 친한 벗이었다.

아내는 영성정(丁)씨다.

◆ 장지원(張志元)

1806~1879 본관 홍성. 자 춘원(春元). 중시조의 16세손. 황(璜)의 맏아들. 어려서부터 효심이 깊었고 부모상에 6년간 시묘를 살았으며 등친되었다.

아내는 영성 정재관(丁載寬)의 딸이다.

◆ 장 진(張 進)

본관 인동. 자 덕원(德元). 시조의 17세손. 판관 기주(基周)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사과(司果)를 지냈다.

아내는 전주리씨다.

◆ 장창윤(張昌胤)

1610~1686 본관 인동. 자 계울(季蔚). 호 임은(林隱). 시조의 22세손. 군자감정우한(宇翰)의 둘째 아들.

벼슬은 절충장군 부호군(折衝將軍 副護軍)을 지냈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 김씨가 병이 위독하자 좌우 손가락을 깨어 피를 입에 넣어들여 6일간 연명하게 하였고 천수를 다하고 별세하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사림(士林)에서 이 사실을 임금께 알려 정려(旌閭)의 은전을 입었다. 사후 통정대부 공조참의를 증직하였고 충효사(忠孝祠. 함평읍 진양리 소재)에서 배향했다. 아내는 영광정씨(丁氏) 돈(敦)의 딸이다.

◆ 장천숙(張天淑)

본관 인동. 시조의 9세손. 협(俠)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禮文館檢閱)을 지냈다.

◆ 장 추(長 錐)

본관 인동. 자 처중(處仲). 호 송암(宋菴). 시조의 16세손. 진사 방(昉)의 아들.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승정원 좌승지를 지냈다. 고창군 무장으로 이거 하였고 아내는 경주 이우기(李友杞)의 딸이다.

◆ 장태호(張泰浩)

본관 인동. 헌종조(憲宗朝). 자 운행(雲行). 호 용암(龍菴). 경재 현규의 아들. 여력재 장헌주 문인. 문행이 저명하고 효우가 유독 독실하니 모두 다 받들어 추앙하다.

◆ 장 한(張 漢)

본관 인동. 시조의 23세손. 석학 순신(舜臣)의 아들.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 장한량(張漢良)

본관 인동. 시조의 12세손. 지훈사 만서(萬叙)의 아들. 문하시랑(門下侍郎)을 지냈다.

◆ 장한숙(張漢淑)

본관 인동. 시조의 9세손. 판통례원사주(儔)의 아들.

문행으로 당세에 이름이 높았으며 벼슬은 봉익대부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에 이르렀다. 고려사에 이 사실이 실려 있다. 아내는 전주리씨다.

◆ 장해령(張海齡)

본관 인동. 시조의 25세손. 두극(斗極)의 양아들. 생부 수달(守達).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대장을 역임했으며 경기도 시흥으로 이거하였다.

아내는 밀양 박씨다.

◆ 장헌규(張獻圭)

1842~1894 본관 홍성. 자 경삼(敬三 또는 京三). 중시조 영(영)의 18세손. 대만(大萬)의 아들로 신헌면 계천리 사천(沙川)에

태어나 한 때 학문을 닦아 과거를 보려고 진력했으나 아우 동규(同圭)의 처조카인 이화진(李化辰)의 권유로 어지러운 세태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뜻을 굳혀 동규(자 玉三), 응규(應圭. 자 公三) 두 아우와 함께 동학농민군에 투신하여 접주(接主)를 맡았다.

괴치마을의 앞들을 “삼정들”이라 부르는데 연유는 이들 삼형제가 군사를 조련했던 곳이라는 뜻인데 “三張들”이 “삼정들”로 변음 되었다고 한다. 1984년 12월 9일 함평현에서 옥사하였으며 “전라도 소착소획동도 성책(全羅道 所捉所獲 東徒成



冊)”에 보면

“함평현의 첩보에 의하면 12월 9일 함평현의 동학 거괴 장경삼(張京三), 윤경보, 대접주 박춘서, 정평오, 김시환, 윤찬진, 김경문, 박경중 등 8명을 붙잡아 죽이고 사유를 보고 했다.”고 하였다.

아내는 함평이씨 기유(基有)의 딸이다.

◆ 장 현(張 眩)

본관 인동. 호 인재(仁齋). 시조의 15세손. 장령 중달(仲達)의 맏아들.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아내는 진주정씨다.

◆ 장현정(張鉉正)

본관 인동. 현종조(憲宗朝). 자 춘일(春日). 호 행당(杏堂). 참찬 백림의 후예. 승지 지백의 아들. 덕행으로 저명하며, 힘을 다해 부모를 섬기고 우국 충정으로 상황(上皇)의 제사 때마다 살구나무 아래 설단하고 북쪽을 향해 통곡하였다.

◆ 장효검(張孝儉)

본관 인동. 시조의 7세손. 우참찬 백림(百林)의 셋째 아들. 직장동정(直長同正)을 지냈다.

◆ 장효온(張孝溫)

본관 인동. 시조의 7세손. 우참찬 백림(百林)의 맏아들. 성균관진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김해 김찬(金燦)의 딸이다.

◆ 전경후(全景厚)

본관 천안. 자 경보(景輔). 시조의 48세손. 세지(世智)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봉사, 선전관을 지냈으며 1680년경 전북 태인에서 학교면 고막리 광진으로 이거 정착하여 판서공과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김해김씨다.

◆ 전계신(全繼信)

1560~1650 본관 천안. 자 중립(中立).

호 운송(雲松). 시조의 45세손. 복사 응충(應忠)의 아들.

1587년 무과에 급제하여 병마절제도위로 동래성(東萊城)에서 재임하던 중 임진란이 일어나고 동래성이 함락되자 기장수군방어진(機張水軍防禦陣)으로 함류 백의종군하였고 1601년 12월 동래훈련도감의 천총(千摠)으로 재임하던 중 대마도주(對馬島主)의 통호(通好) 제의를 받았고 수군 우후(虞侯)로 승진하였으며, 1602년 4월 도체찰사이덕향(李德響)의 밀령으로 왜의 사신 교지정(橋智正)과 접촉 덕천가강(德川家康)의 첩지(牒紙)를 받아 조정에 바쳤고, 1603년(선조 36) 비변사를 통하여 그로 하여금 대마도주 종의지(宗義智)를 통하여 덕천가강의 처소를 구하라는 어명을 받아 이를 수행하였으며 선무원종 1등훈에 책록되었다.

1606년 관대 의복 일습을 하사받았고 특별 전권사신으로 대마도에 파견되어 덕천가강의 서계건(書契件)과 범릉건(犯陵件)을 조사한 기록과 덕천가강의 서전초(書傳草)를 조정에 바치고 범인 2명을 압송하였으며, 이 공으로 1607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승진되었으나 본래 청빈한 성품으로 구멍 뚫린 갓과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입었다하여 사헌부의 지탄을 받아 파면 직전에 함안군수(咸安郡守)에 임명되었다.

1617년(광해 9년) 5월 일본과 임란(壬亂) 포로송환 건 등을 협상하는 전권사신(全權使臣)으로 임명되었으며 현해탄을 건너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국할때 남녀 포로 백여명을 대동하였다.

만년에 고향인 함평읍 성남리 초동에 내려와 임천과 벗을 삼으며 여생을 마쳤는데 91세의 장수를 누렸다.

아내는 밀양박씨 현감 응린(應麟)의 딸이다.

◆ 전관섭(全貫燮)

본관 천안. 호 일은(逸隱). 성섭의 아우

◆ 전상회(全相繪)

본관 천안. 한말 의병 활동

◆ 전성섭(全晟燮)

본관 천안. 자 명화(明和). 호 양파(陽坡). 위의 세 사람은 전해산 의병부대가 불갑산 전투를 치르고 손불면 양재리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의병이 되었다. 이후 영광군 군남면 오동촌 전투를 전개하여 대승을 거두는 등 전해산부대가 해산할 때까지 신명을 다해 싸웠다.

◆ 전덕인(全德仁)

본관 천안. 선무원종공신 의생(義生)의 아들, 수문장을 지냈으며 임진란때 아버지와 함께 고종후(高從厚)의 막하로 들어가 진주성 싸움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성이 함락되자 아버지와 함께 남강으로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 전성유(全性猷)

1704~1794 본관 천안. 자 화여(和汝). 시조의 49세손. 재안(載安)의 넷째 아들. 1793년에 수직(壽職)으로 자헌대부행 동지충주부사(同知中樞府使)에 올랐고 증자하여 가의대부(嘉義大夫)가 되었다. 아내는 언양김씨 처삼(處三)의 딸이다.

◆ 전여상(全汝翔)

1607~1672 본관 천안. 시조의 46세손. 계신의 다섯째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 인동장씨다.

◆ 전여시(全汝翅)

1605~1699 본관 천안. 처음 이름 응정(應禎). 호 송촌(松村). 선무원종 1등훈 계신(繼信)의 넷째 아들이며 음사로 출사하여 무안(務安)현감, 영광(靈光)군수, 장흥도호부사를 지냈으며 또 효자로 널리 칭송을

받았다.

아내는 담양전씨(田氏) 천일(天逸)의 딸이다.

◆ 전여우(全汝羽)

1601~1654 본관 천안. 시조의 46세손. 계신의 둘째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통덕량을 지냈다. 아내는 양성이씨다.

◆ 전여익(全汝翼)

1609~1680 본관 천안. 시조의 46세손. 계신의 여섯째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통덕량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김씨다.

◆ 전여한(全汝翰)

1600~1673 본관 천안. 자 정상(禎祥). 호 운봉(雲峰). 선무원종 1등훈 계신(繼信)의 맏아들이며 음사(蔭仕)로 출사하여 칠원(漆原)현감, 조호서 별제(造狐署別提), 전서주부(典署主簿) 등 관직을 거쳤다. 아내는 강화(江華)김씨 현감 복(僕)의 딸이다.

◆ 전여핵(全汝翮)

1604~1663 본관 천안. 시조의 46세손. 계신의 셋째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 금주(金柱)의 딸, 해주최씨 판관 경인(景寅)의 딸이다.

◆ 전응충(全應忠)

1540~1610 본관 천안. 일명 응량(應良). 자 경선(慶善). 호 운산(雲山). 시조의 44세손(파조의 21세손). 참봉 원필(元弼)의 아들. 1560년대에 무안에서 함평읍 성남리 초동으로 이거 정착하여 천안전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문과에 급제하여 함평현감, 보성군수, 순천도호부사(順天都護府使)를 거쳐 임란 중인 1593년 7월에 평북선천(宣川)도호부사



를 지내다 통정대부 정주목사(定州牧使)로 승진하였으며 이후 왕을 호종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으며 아내는 고려 신씨(申氏) 첨사 안필(僉使 安弼)의 딸이다.

◆ 전의생(全義生)

?~1593 본관 천안. 자 여효(汝孝). 선무랑 언(彦)의 손자. 용력이 뛰어났으며 임진란이 일어나고 고종후(高從厚)가 복수장(復讐將)으로 거의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수문장 덕인(德仁)과 함께 진주성 싸움에 참전하여 많은 적을 참살하고 아들과 함께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 전이제(全以悌)

1629~1704 본관 천안. 자 진산(進山). 호 향양재(向陽齋). 시조의 47세손. 효자 치성(致誠)의 둘째 아들. 생활이 곤궁함에도 학문에 힘써 향리에서 존중을 받았으며 1660년경 나주에서 월야면 양정리 양지로 이거 정착하여 판관공파의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나주정(鄭)씨 시성(時誠)의 딸이다.

◆ 정경원(鄭經源)

1853~1947 본관 진주. 자 학원(學元). 호 이당(以堂). 충장공 황의 18세손. 죽헌 종육의 아들. 면암 문인. 역사의 대의를 바로 세워 몸소 실천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 후진을 교도하니 선비들이 높이 받들었다. 향년 94로 문집 4권이 간행되어 전해오고 있다.

◆ 정규복(鄭圭復)

1798 ~? 본관 나주. 정종조(正宗朝). 자 사용(士容). 호 호당(浩堂). 기재 훈(薰)의 후예. 재예가 뛰어나 문장으로 이름 높았고 만석군 재력으로 문중사와 향중일에 극력 힘썼다.

아내는 진주김씨 도익(道翊)의 딸이다.

◆ 정란수(鄭欄叟)

1859~1910. 본관 진주. 자 광국(光國). 호 난곡(蘭谷). 충장공 황(璜)의 19세손. 문원의 차남.

서암 정도원 문인. 재예가 뛰어나 문학이 저명하고 특히 서예가로 이름 높았다.

◆ 정민수(鄭民秀)

1569~1592 본관 나주. 자 사준(士俊). 호 월암(月菴). 시조의 16세손. 곤(鵠)의 아들. 해광 송제민(海狂宋濟民)과 교유가 깊었으며 1590년 도(道)에서 행의(行誼)로 천거하여 영릉참봉(英陵參奉)이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592년 임진란이 일어나자 삼종형(三從兄) 회(繪)와 의병 105명을 모아 북으로 진군하던 중 전주에서 함평 출신 김헌(金獻)을 만나 함께 죽기를 맹서하고 조 헌(趙 憲)의 막하에 합류하였다.

청주전(淸州戰)에서는 방략을 잘 세워 많은 전과를 올렸고 8월 18일 금산에서 진을 치고 권 울(權 慄)군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적이 습격하자 조광륜(趙光倫), 임정식(任廷式), 이 러(李 礪), 김 헌 등과 합심하여 세 번을 싸워 이겼으나 중과부적으로 의병장 조 헌을 비롯 700 의사가 함께 전몰하였다.

1605년 선무원종 3등훈에 책록되고, 1679년 김약륜(金若倫)이 금산전지(鎭山戰地)에 기적비를 세웠으며 1801년에 사복시정(司僕侍正)에 증직 되었고 1878년부터 오산사(鰲山祠). 월여면 용월리 소재)에서 배향한다.

아내는 광산김씨(1570~1630) 통례원인 의(通禮院引儀) 언필(彦弼)의 딸이다

◆ 정병휴(鄭炳休)

1872~1950 본관 진주. 자 성집(成集). 호 성암(省菴).

충장공 황의 19세손. 수원의 아들. 간재 전우 문인. 친상에 손가락을 찌어 그 피를

입에 넣어드렸고, 묘 곁에 여막을 지어 아랫도리를 걷어올리고 지내기 며칠만에 무덤에서 고사(古事)같은 이변(異變)이 있었다. 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며 후학지도에 혼신을 경주하였고, 말년에 북으로 금강산. 남으로 제주도까지 명승고적을 답사하며 많은 시문을 남겨 유고 몇 권이 전해지고 있다. 일찍이 조정에서 감역(監役)을 제수(除授)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 정상렬(鄭相烈)

1876~1942. 본관 진주. 자 덕명(德明). 호 화담(花潭). 충장공 황의 20세손. 환영의 장남. 서암 정도원 문인. 지조가 독실하며 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며 기송사와 오난와와 함께 성리학을 연구하며 영달을 꾀하지 않고 후생을 교도하며 임천에서 살았다.

침낭(寢囊)을 제수(除授)하였으나 끝내 취임하지 않았으며 유고가 전한다. 사후에 통정대부에 추증되었다.

◆ 정세거(鄭世居)

본관 진주. 시조의 19세손. 현감 곤석(崑石)의 아들. 부장(部將)을 지냈다. 아내는 평택임(林)씨다.

◆ 정시현(鄭時賢)

1692~1750 본관 진주. 자 성의(聖義). 시조의 25세손. 통덕랑 희우(希禹)의 맏아들. 통정대부 중추부사, 용양위부호군을 지냈다. 아내 양성이씨는 시복(時復)의 딸이며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남편 병환에 손가락을 찌고 피를 입에 넣었는가 하면 허벅지의 살을 베어 약으로 쓰는 등 적극 간호하였다. 이 사실을 천거하여 정려가 내려졌다.

◆ 정종식(鄭鍾式)

1852~1882. 본관진주. 자 해륜(諧倫). 호 죽은(竹隱). 호산 경득의 후손. 석규의 장남. 최면암 문인. 어려서 모친상을 당하

였는데 슬퍼하기를 어른과 같이 하였으며 부친상을 당하여서도 슬픔이 지나쳐 뼈만 남을 지경으로 효성이 대단하였다. 참판에 증직되었고 유고 3권을남겼다.

◆ 정종옥(鄭鍾玉)

1863-? 본관 진주. 자 성호(聖浩). 호지암(芝庵). 충렬공 충량의 후예. 환규의 아들. 경서에 치중하여 그 묘를 궁극(窮極) 문장을 이루었고, 일찍이 향리에 숙상(塾庠=서당)을 설립하여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경내 각 문묘 유지와 교육 기타 교화사업 경영과 유학의 진흥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의(鄉議)에 의하여 참봉에 천거 되었다. 전 홍문관 교리 울산 김진호와 교류하면서 문명(文名)과 서법(書法)이 더욱 현저하였으며, 저서로 “지암문집”이 전한다.

◆ 정현계(鄭賢繼)

본관 진주. 자 성술(聖述). 호 청간(淸澗). 시조의 17세손. 적선(積善)의 아들. 사마시의 생원과에 입격하였으며 아내는 광산김씨 철하(哲河)의 딸이다.

◆ 정휴동(鄭休東)

1700~1770. 본관 진주. 호 화정(花亭). 설서 성(晟)의 현손. 희증의 아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문예가 일찍이 성취하였으며 백부 수증에게 출계하였다. 칠봉산 아래 정자를 짓고 백화를 재배하며 스스로 즐거워하니 세인들이 화정처사라 불렀다. 문간공 원인손(元仁孫)과 증유하며 정자 이름을 백화정(百花亭)이라 하였다. 기노사와 임고산의 기문(記文)이 현존하고 있다.

◆ 정재필(鄭在弼)

1829~1885. 진주인. 자 국언(國彦). 아호 미재(微齋). 충장공 황의 18세손. 환창의 장남. 송연재 · 최면암 등 제현과 더불어 지냈으며 문장과 학행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였다.

문집 2권이 전해지고 있다.

◆ 정필신(鄭弼臣)

1712~1783 본관 진주. 자 계양(季良). 호 만포(晩圃). 시조의 26세손. 통덕랑 덕재(德載)의 다섯째 아들. 1756년 무과에 급제하여 4개읍 수령을 지냈으며 “근수청풍 효충방국(謹守廳風 效忠邦國)”이라는 어필을 하사받았다.

아내는 죽산 안만패(安晩陞)의 딸이다.

◆ 정사(鄭獅)

1514~1581 본관 광주. 자 군실(君實). 호 후은당(後隱堂). 시조의 8세손. 판서 응중(應鍾)의 아들로 1534년 성균 관진사에 올랐고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 때 동료들과 함께 억울한 제현(諸賢)들을 구하기 위하여 상소를 올린 후 벼슬을 버리고 나주로 내려와 살다가 1570년경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선박(船泊)에 이거 정착하였다.

아내는 영광정(丁)씨 의(義) 딸이다.

◆ 정감(鄭臧)

1722~1795 본관 나주. 처음 이름 호(琥). 자 만은(晩隱). 호 은계(隱溪). 시조의 20세손. 동욱의 둘째 아들. 영조 조에 통정대부를 지냈다. 영조 승하 때 형 진과 함께 단을 쌓고 망곡하렸으며 부친 위독시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넣어드렸다.

아내는 울산김씨(蔚山金氏) 장언(章彦)의 딸, 반남박씨 사현(師賢)의 딸이다.

◆ 정감(鄭臧) <1권 738쪽 참조>

◆ 정개청(鄭介淸)

1529~1590. 7. 27. 본관 고성. 자의백(義伯). 호 곤재(困齋). 시호 문청공(文淸公). 시조의 7세손. 아버지 봉산 훈도(鳳山訓導) 세웅(世雄)과 어머니 금성나씨(國英-國英-의 13세손) 사이에 나주의 금성산

아래 대곡동(大谷洞)에서 맏아들로 태어났고 중년에 곡강(曲江, 현 나주시 동강면)에 이거하여 잠시 살다가 1567년경(39세)에 당시 무안현 엄담(務安縣淹潭-현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제동)에 이거 정착하였으니 고성정씨 함평 입향조(入鄕朝)다. 화담 서경덕(花潭 徐敬德)의 문하에서 이문(異問)을 얻었고 처음에는 과거를 보아 아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과거 공부를 하여 초시에는 여러번 합

격을 하였으나 후일에는 오로지 학문에만 힘을 썼으며 윤암(輪岩)에 정사(精舍)를 짓고 후학양성에 전념하였다.

이 땅에 참다운 선비정신의 학풍을 일군 곤재는 유학(儒學)은 물론 역사, 천문, 지리, 약학(藥學), 산수, 역학(易學), 전진법(戰陣法), 가무(歌舞) 등 참으로 넓디 넓은 학문의 경지를 닦았고, 선조대 왕도 그를 아꼈으며 영의정 박순(朴淳)이 팔도도원수(八道都元帥)에 천거하는 등 많은 재상들이 그의 뛰어난 학문과 인품을 알고 천거하였으나 선무랑 곡성현감(谷城縣監) 겸 남원진관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8개월 재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숙배만 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그를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은 “호남사람 중 더욱 명망이 높으며 학술과 행검(行檢)으로 자임(自任)하였다.”고 하였고, 박순은 “정주자(程子) 뒤 의 한 사람”이라 하였으며 고산 윤선도(孤山尹善道)는 “동방의 진유(眞儒)로 이황(李滉)과 버금간다”고 칭송하였다. 곤재의 원사(冤死) 사건으로 일반이 인식하기까지에 이른 1590년 기축옥사(己丑獄死)에 평소정 철(鄭澈)과 사이가 좋지 않던 그는 서인의 무고로 연루되어 체포되고 국청에서 역적의 누명은 벗었으나 후학에게 절의와 청담(淸談)의 근본을 배양하기 위하여 1584년 3월 1일에 썼던 “동한진송소상부동설(東漢晉宋所尙同說)”이 배절의(排節義) 논문으로 지목되어 함경북도 경원의 아산보(阿産堡)로 유배되고 국청에서 받은 장독으로

유배지에서 타계하였다.

1616년 6월 15일 엄다면 엄다리 제동에 곤재의 학행을 기리기 위한 서원설립이 인가되고 자산서원(紫山書院)이란 사액(賜額)을 받았으나 서인 쪽의 훼손 상소에 의해 네 번 뜯기고 남인 쪽의 복설 상소에 의해 다섯 번 세워지는 당쟁(黨爭)의 제물이 되는 비운을 되풀이 하였다.

1694년 2월 27일에 중훈대부 사헌부집의(中訓大夫司憲府執義)에 증직 되었다. (후손 교지 소장) 저서는 수수기(隨手記) 9권, 변례편성(變禮編成) 2권, 우득록(愚得錄) 3권인데 기축옥사에 연루되었을 때 다른 서책과 함께 금오랑(金吾郎)이 거두어 갔는데 선조대왕이 우득록을 읽어보고 “이책은 옛 글을 읽은 사람의 저술 이로다. 모두 본가에 돌려주도록 하라.”는 명령에 돌려보냈으나 우득록만 본가에 돌아오고 나머지는 무안현에서 분실하였다. 우득록은 1689년 왕의 등진 특명(騰進特命)으로 발간이 착수되어 1692년 여름에 간행을 완료하였으며, 1987년 6월 우득록 각판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146호로 지정되었고, 1988년 12월에 전라남도 향토문화총서 제 35집으로 국역본을 간행 하였다.

마지막 대원군의 서원 훼손령에 의해 헐었던 서원은 1988년부터 복원을 시작하여 1997년에 완건하였다.

아내는 밀양박씨 양신(良臣)의 딸이다.

◆ 정건주(鄭建周)

1712~1795 본관 진주. 자 방언(邦彦). 호 야은(野隱). 시조의 24세손. 칭(秤)의 둘째 아들. 1753년 문과에 급제하여 가을에 국자학유(國子學諭), 1757년 양현직장(養賢直長), 1758년 전적(典籍) 겸 정언에 올랐고, 이 때에 봉당을 싸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표를 제출하고 귀향하였다.

노년에 이른 1772년 이경석(李景奭) 등이 공의하여 태상주부(太常主簿)에 천거하였고

이어 성균관 사예(司藝), 이듬해 유곡도 찰방(幽谷道 察訪)을 제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고 다시 낙향하여 여생을 향리에서 보냈다.

아내는 통덕랑 전주 리지무(李之茂)의 딸이다.

◆ 정경득(鄭慶得)

1569. 9. ~1630. 5. 29. 본관 진주. 시조의 22세손. 자 자하(子賀). 호 호산(湖山). 찰방 함일(咸一)의 맏아들. 정유재란 때 마을 사람들과 피란을 떠나던 중 칠산 바다에서 적을 만나자 어머니 함평이씨(사산-射山-마을 복-福-의 딸), 아내 순천박씨, 제수 함평이씨, 출가 하지 않은 누이동생은 적에게 사로 잡혀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옳다며 바다에 뛰어 들어 자결했고 후일 이들은 팔열부정려각(八烈婦旌閭閣)에서 배향하는 은전을 입었으며, 그와 동생 희득(希得)은 포로가 되어 일본의 아파주(阿波州)로 끌려갔다.

그는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지만 한국 선비의 기개를 잃지 않아 조선에서 온 객(佳客)으로 불리었으며, 망궐(望闕), 망해(望海), 망향(望鄉)의 삼단(三壇)을 쌓고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그믐날 아침에 꼭 곡을 하여 왜인들을 감동 시켰으며 끝내 동생과 정호인(鄭好仁), 정호례(鄭好禮) 등과 3년 만에 귀국하였다.

향시(鄉試)에 세 번이나 장원한 실력이면서도 포로가 되었던 것을 죄인으로 여겨 임천의 처사로 자임하며 과거를 보지 않았고, 칠산에서 자결한 가족들을 생각해 일생동안 서해에서 잡힌 고기는 반찬으로 하지 않았으며, 일본 땅이 있는 동쪽이 싫어 동쪽을 향해 앉지 않았다.

1804년에 창건한 월호사(月湖祠. 월야면 월악리)에서 배향하며 포로생활의 일기인 “만사록(萬死錄)”이 전한다.

◆ 정경식(鄭慶植)



1845~1889 본관 진주. 자 치도(致道). 호 애굴재(愛橋齋). 해구의 아들. 천성이 순후하고 매사에 처음과 끝이 한결 같았으며 원근에 널리 알려진 학자였다. 사후 비서원승(秘書院丞)을 증직 받았으며 저서 “애굴재유고”가 전한다.

◆ 정 계(鄭 繼)

1594~1646 본관 나주. 자 자건(子建). 호 직양재(直養齋). 시조의 16세손. 주부웅(鷹)의 아들. 4세 때인 정유재란 때 어머니가 나산면 용두리 죽사동에서 왜적에게 잡히는 몸이 되지 않으려고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결하였고, 5세 때 아버지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과 같은 날 순국하여 고아가 된 어린 나이로 부모의 3년상을 마쳤다. 이에 충신 절부에 효자라는 칭송이 높았고 효로 천거되어 출사한 후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기계 유씨(杞溪 俞氏. 1599~1637) 참봉 언문(彦文)의 딸이다.

◆ 정계동(鄭繼童)

본관 진주. 시조의 17세손. 사직 덕신(德新)의 아들. 의정부 좌찬성(左贊成)을 역임하였고 아내는 남원방씨(房氏) 감찰 구성(九成)의 딸, 반남박씨 장령 연기(演基)의 딸이다.

◆ 정계충(鄭繼忠)

본관 진주. 정조조인 1780년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 참의를 지냈다.

◆ 정곤석(鄭崑石)

본관 진주. 시조의 18세손. 좌찬성(左贊成) 계동(溪童)의 맏아들. 통훈대부 용궁현감을 역임했다.

아내는 탐진최씨다.

◆ 정공민(鄭恭敏)

본관 함평. 시조 언겸(彦謙)의 6세손. 함성군 함(緘)의 맏아들. 병부상서 문하시

랑(門下侍郎)을 역임했다.

◆ 정공밀(鄭恭密)

본관 함평. 시조 언겸(彦謙)의 6세손. 함성군 함(緘)의 둘째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상호군, 병부상서, 문하시중, 첨의평리사(僉議評理事)를 지냈다.

아내는 김해김씨 시랑 중강(重江)의 딸이다.

◆ 정광열(鄭光烈)

1747~1819 본관 나주. 처음 이름 광현(光賢). 자 무승(武承). 호 일은(一隱). 시조의 21세손. 일중(一中)의 아들. 학덕이 높았고 조실 부모하여 부모를 섬기지 못함을 한으로 여겨 시를 지어 당(堂)에 걸었는데 군지 제영편(題詠篇)에 실렸다.

1812년(순조 12) 정란에 왕을 도우려고 창의하여 의병을 모았으나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였다. 현감정기화(鄭琦和)가 찬한 행장이 있다.

아내는 청안이씨(淸安李氏) 첨지 우기(遇基)의 딸이다.

◆ 정국상(鄭國相)

1608~1670 본관 진주. 자 태로(台老). 호 송계(松溪). 호례(好禮)의 이들로, 김사계(金沙溪), 신독재(愼獨齋)와 교우가 깊었으며 효와 문행으로 이름 높았다. 많은 유고가 있었는데 화재로 소실되었다. <호남절의록. 기성읍지 참조> .

아내는 청주 한률(韓律)의 딸이다.

◆ 정국주(鄭國柱)

1514~1555 본관 나주. 자 충백(忠伯). 호 영은(潁隱). 시조의 14세손. 충좌위 사정(司正) 이은(以殷)의 아들. 천성이 충효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부모상에 6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무과에 급제하여 충좌위 부사과를 지내고 1545년 은진현감(恩津縣監) 재직 중 인종(仁宗)이 승하하자 사표를 내고 귀향하여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

厚)와 성현의 가르침을 강론하고 또 학사(學舍)를 세워 후학을 기르는데 힘썼다. 아내는 여양진씨(驪陽陳氏) 생원 진(振)의 딸이다.

◆ 정귀현(鄭貴顯)

1660~? 본관 진주. 자 영여(靈汝). 시조의 22세손. 득경(得敬)의 아들. 1684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김씨다.

◆ 정 규(鄭 奎)

1677~1724 본관 진주. 자 사장(士章). 시조의 26세손. 만호 사의(思義)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진사 원주 원세백(元世伯)의 딸이다.

◆ 정극순(丁克淳)

본관 압해. 풍천부사(豐川府使)를 지냈다.

◆ 정 근(鄭 瑾)

1606~1672 본관 진주. 자 사휘(士輝). 시조의 22세손. 직장 대명(大鳴)의 셋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집의(執義)를 지낸 장흥고면달(高勉達)의 딸이다.

◆ 정 기(鄭 紀)

1590~1650 본관 나주. 자 여헌(汝憲). 호 천파(天坡). 시조의 16세손. 가선대부 황수(凰壽)의 셋째 아들. 수은 강항(睡隱姜 沆)의 문하생이며 동사 윤순거(童士尹舜舉)와 도의 교를 맺었다. 이이첨의 무리 이해(李楷) 등이 향교에서 폐모 상소를 준비하자 이들을 내쫓았고 1624년(인조2) 왕이 공주로 피신하자 의병을 모아 달려가 왕을 호위하였다. 특명으로 수사교위(修仕敎尉)를 제수하였고 아버지 상에 시묘를 살았으며 후세인들이 이 곳을 “시묘동”이라 부른다.

아내는 양성이씨(陽城李氏) 통덕랑 순(洵)

의 딸이다

◆ 정기린(鄭麒麟)

1570~1593 자 성서(聖瑞). 만수(萬洙)의 아들. 영풍 화전리(永豐 花田里. 현함평읍 수호리 송정)에서 태어났으며 1585년 16세의 약관에 무과에 급제하여 좌부장(左部將)을 거쳐 사복내승(司僕內乘)으로 옮겼다가 향리로 내려왔다.

임란이 발발하자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격문을 받고 며칠 사이에 3천 여의병을 모집하여 고경명의 막하로 들어갔다. 이 때에 백의대검(白衣帶劍), 기백마(騎白馬). 건백기(建白旗)하여 삼백(三白)으로 표지(表志)한 까닭에 선조대왕이 “백자장(白字將)”이란 호를 내렸다.

방어사 곽영(郭嶸), 종사 안영(從事 安瑛), 유팽로(柳彭老)와 더불어 금산으로 직행하였으나 패전으로 관의병(官義兵)이 거의 궤멸된 상태였다. 그는 행재소로부터 양산숙(梁山疇)이 가져온 유서(諭書)를 받고 재기를 도모하여 호응하는 수백명의 의병을 인솔하고 김천일(金千鎰) 진영으로 들어갔다.

남원 요천(蓼川)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진주성 싸움에 이르러 초전에서는 승리를 하였으나 적의 재침에 의해 성이 함락되고 김천일과 그의 아들 상건(象乾), 경상병사 최경회(崔慶會), 복수장 고종후(高從厚), 우좌랑(佑佐郎) 양산숙 등이 남강에 투신 자결하였고 그는 다행히 탈출하였으나 “패전한 군인은 진충(盡忠)할 계책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이들 득홍과 함께 순절하였다.

그의 공은 결코 고경명, 김천일에 뒤지지 않으나 영명(令名)은 그다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선무원종 공신록에 오르고 1649년(인조 27)에 정려와 함께 “충렬(忠烈)”이란 시호가 내렸다.

◆ 정 남(鄭 楠)



1438~1486 본관 하동. 자 귀여(貴汝). 시조의 12세손. 현감 수(璩)의 아들. 1471년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아내는 전주최씨 유명(有明)의 딸이다.

◆ 정대명(鄭大鳴)

1584~1647. 본관 진주. 자 성원(聲遠). 호 지곡(芝谷). 시조의 21세손. 선무원종 2등공신 충량(忠良)의 아들. 어려서부터 무예와 학문을 익혀 “애기장군”이라는 별명을 받았으며 무과에 급제하여 상의원 직장을 지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평소에 우의를 두렵게 하던 재야(在野)의 충의장사(忠義壯士)들을 규합하여 1636년 12월15일 전라병사 김준룡(金俊龍)의 창의소로 갔다. 12월 23일 호남의병의 진용이 짜여질 때 그는 별장직(別將職)을 맡았으며 주야 행군하여 광교산(光敎山, 현 서울 용산 부근)에 도착하여 전열을 가다듬었다.

1637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벌어진 광교산 전투에서 제반 조건이 불리한데도 조국을 위한 열화로 승전을 가져왔고, 5일 새벽 안개 속에서 전개된 전투에서는 청나라 부마(駙馬)인 백양골라(白羊骨羅)를 사로잡고 적장 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싸움은 전라병사 김준룡을 비롯 강진의 김수만, 김수권, 광주 사람 허익복, 범진후, 충주 사람 김배, 정대명 등 후일 “육호장(六虎將)”이라 불리운 이들이 한 뜻이 되어 이룬 전과였다. 빛나는 전과를 올린 이들에게 돌아 갈 공을 시기한 전라감사 이시방(李時芳)이 금전패(禁戰牌)를 내고 군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고의로 끊어버려 광교산에서 퇴진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격분한 6호장들이 감사에게 극력 항의하자 이시방과 박 연(朴 筵)이 김준룡에게 자유퇴진죄를 씌워 장계하여 모함했으나 대신 이성구(李聖求)와 최명길(崔鳴吉)이 무고함을 주장하여 김준룡은 어용중군(御營中軍)에 배속되고 이시방은 무고죄

로 귀양갔다.

광교산 전투는 병자호란 중 처음이자 마지막 승리라고들 하고 있다. 화평조약이 맺어진 후, 향리로 돌아온 그는 국가에서 몇 번이나 등용의 길을 열었으나 불응하고 향리에서 살았으며 일생동안 청나라 연호(年號)를 쓰지 않았다.

1801년에 창건한 지산사(芝山祠, 해보면 금계리 소재)에서 배향 했는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손되고 지금껏 복설을 못했다.

◆ 정대주(鄭大周)

1574~1655 본관 진주. 자 사중(士重). 시조의 24세손. 온(溫)의 아들. 부호군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 나주재(羅周裁)의 딸이다.

◆ 정대청(鄭大清)

1532~1603. 본관 고성. 자 의중(義仲). 호 관재(寬齋). 개칭의 아우. 특히 예학(禮學)에 밝았으며 학행(學行)으로 순릉(順陵, 성종의 왕비 공해왕비의 능,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소재) 참봉을 제수 받았으며 1614년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에 증직되었다.(후손 교지 소장)

그는 태어난 자질이 아름답고 곤재의 바른 학문에 힘입어 곤재와 관계로 말하면 친족으로는 형제간이요 의리로 말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 그래서 곤재가 타계하자 상복을 입었고 고기를 먹지 않은지 14년 만에 말라 죽었다.

그는 임종에 “형이 도(道)를 지키다가 억울함을 품고 죽었는데 내가 능히 이를 풀어드리지 못했으니 내가 죽은 뒤 제사에는 절대로 어육(魚肉)을 쓰지 말라” 하였다.

조정에서 이를 듣고 증직과 함께 아들 민흥(敏興)을 등용하였으며 1630년(인조8년)에 제자들이 모여 “관재가 곤재의 도를

잇고 곤재를 위해 순사(殉死)하였으니 자산 서원에 배향함이 옳다.”고 하여 나라의 승인을 얻어 배향하게 되었다.
아내는 나주정씨다.

◆ 정덕기(鄭德基)

1658~1717 본관 진주. 자 윤숙(潤叔). 시조의 26세손. 석신(碩臣)의 양아들. 생부 석경(碩卿). 무과에 급제하여 면산현감, 도총부 경력(經歷)을 지냈다.
아내는 함양 박동우(朴東雨)의 딸이다.

◆ 정덕린(鄭德麟)

본관 진주. 시조의 22세손. 참봉 한준(漢俊)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아내는 장흥 고진(高璣)의 딸이다.

◆ 정덕방(鄭德方)

본관 진주. 시조의 16세손. 현감 주(紬)의 둘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안동권씨다.

◆ 정덕신(鄭德新)

1408 ~ 본관 진주. 시조(始祖)의 16세손.
충장공 황의 현손. 현감 면(綿)의 아들. 조산대부 중령부 사직(中領府司直)을 지냈고 아내는 광산김씨 제용고승(濟用庫承) 능안(能安)의 딸이다.

◆ 정덕요(鄭德曜)

1658~1736 본관 진주. 자 경오(景五). 호 미와(微窩). 시조의 25세손. 현감 택주(宅周)의 둘째 아들로 통덕랑을 지냈으며 수양산(首陽山) 아래에 미와초당(微窩草堂)이란 정자를 짓고 봄, 가을에 강의를 열었고, 승정년간에 “비례부동(非禮不動)”이라 쓴 어필(御筆)을 걸었으며 현존한다.
아내는 성주 이원혁(李元赫)의 딸이다.

◆ 정덕일(鄭德一)

1544~? 본관 진주. 자 인창(仁昌). 시조의 21세손. 수군절제사 종순(宗舜)의 셋째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좌랑, 공조참의를 지냈다.
아내는 한림 광산 이원휘(李元徽)의 딸이다.

◆ 정덕재(鄭德載)

1665~1722. 본관 진주. 자 후오(厚吾). 호 미암(微庵). 시조의 25세손. 현감 택주(宅周)의 둘째 아들. 효성이 지극하였고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홍덕 장원린(張元麟)의 딸이다.

◆ 정덕휴(鄭德休)

1664~1752 본관 진주. 자 미오(美吾). 호 만양(晩養). 시조의 25세손. 진사 상주(相周)의 둘째 아들. 1699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향리에서 오직 후진을 양성하는데 힘썼다. 1746년 수직으로 가의대부 동추(同樞)를 제수 받았다.
아내는 동추를 지낸 전주 이광현(李光鉉)의 딸이다.

◆ 정도성(鄭導誠)

본관 진주. 1750년 백야사(百野祠. 삼근당-三近堂. 월야면 외치리 소재)에서 배향함.

◆ 정 돈(鄭 燾)

1557~1597. 음 8. 29 본관 동래. 자명원(明遠). 시조의 19세손. 도사 윤길(云吉)의 아들. 정유재란 때 영광의 우치(牛峙. 현 장성군 삼서면)에 왜적이 침입하자 아버지와 함께 의병을 모아 적을 토벌하다가 부자가 장열히 순국하였으며 사헌부 집의(執義)에 추증되었다.
아내는 창녕조씨(曹氏) 현감 굉중(閔中)의 딸이다.

11세였던 아들 재흥(再興)은 칠산바다에서 적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가



억류 생활을 하던 중 15세 때 산에서 나물을 캐다가 봉명사 송운선사(奉命使松雲禪師)를 만나 귀국하게 되었는데 작별시 왜인들이 “충효가의 자손”이라며 토산물을 선물하였다고 한다.

◆ 정동계(鄭東啓)

1630~1698 본관 나주. 자 계여(啓汝). 호 설강(雪岡). 시조의 19세손. 교수 유삼(有三)의 맏아들. 음사로 선공감감역(監役)으로 출사하여 조봉대부 사도시 첨정(司道侍 僉正)을 지냈다.
아내는 장택고씨(長澤高氏. 1631~1699) 생원 전건(傳建)의 딸이다.

◆ 정동엽(鄭東曄)

1642~1693 본관 동래. 호 지촌(池村). 여우(汝佑)의 아들. 월야면 월악리 사람으로 경사와 예학에 밝았으며 부모상을 당하여 6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여 그곳을 “시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정동원(鄭東源)

1825~1904 본관 진주. 자 자화(滋華). 호 신암(信菴). 시조 시양의 31세손. 종근(鍾根)의 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하였다.
80세에 수직(壽職)으로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으며 선조를 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여러 대의 선영에 묘표를 세우고 전답을 많이 샀다. <전남도지18권 141쪽>
아내는 상산 김준해(金俊海)의 딸, 함평 노병두(魯炳斗)의 딸이다.

◆ 정동지(鄭東摺)

1718~? 본관 나주. 자 주세(柱世). 호 모로(慕廬). 시조의 19세손. 유초(有楚)의 양아들. 생부 유도(有道. 둘째 아들). 어머니의 병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넣어 드려 7일간 연명케 하고 3년간 시묘를 살았으며 아버지의 병에 손가락을 찌어 피를 넣어드려 1일간 연명케 하고 역시 3년간

시묘를 살았다. 함평읍지와 삼강록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아내는 해남윤씨 수후(壽厚)의 딸이다.

◆ 정동후(鄭東後)

본관 동래. 효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다.

◆ 정득량(鄭得良)

1569~1598. 본관 진주. 자 필중(弼中). 호 죽포(竹圃). 통덕랑 송정(松貞)의 아들. 시조의 20세손. 임진란이 일어나자 사촌형 충량(忠良)과 함께 창의하여 고락을 같이하였으며 1592년 8월에 부장(部將)이 되었고 1597년 한산도(閑山島)전투에서는 왜적 수십명을 사살하는 전공을 세웠으며 1598년 11월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는 승승장구적을 꾀며 피멸하며 진격했으나 적탄에 맞아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사하였고 충량이 시신을 거두어 반장했다.

선무원종 2등공신에 책록되었으며 1801년에 창건한 지산사(芝山祠. 해보면 금계리 소재)에서 배향했는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손된 후 복원을 못하고 있다.

◆ 정득일(鄭得一)

본관 진주. 시조의 21세손. 수군절제사 종순(宗舜)의 넷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영광군 대마면으로 이거 정착 하였다.
아내는 영성 정봉몽(丁奉夢)의 딸이다.

◆ 정만달(鄭萬達)

1696~1772 본관 진주. 자 현오(顯吾). 호 만호(晩好). 시조의 25세손. 정언건주(建周)의 셋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생원을 지낸 전의 이국징(李國徵)의 딸이다.

◆ 정만망(鄭萬望)

1689~? 본관 진주. 자 재오(載吾). 시조의 25세손. 석주(碩周)의 넷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전의 이한(李漢)의 딸이다.

◆ 정만선(鄭萬善)

1616~1678 본관 진주. 자 계통(季通). 시조의 25세손. 관주(觀周)의 둘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청송 심수징(沈壽徵)의 딸이다.

◆ 정만재(鄭萬載)

1661~1749 본관 진주. 자 중후(仲厚). 호 병촉(炳燭). 기주(起周)의 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하였다. 1691년 사마시에 입격 성균관 유생으로 학덕이 높았고 특히 시문에 능하였다.

◆ 정만제(鄭萬濟)

1736~1818 본관 진주. 자 일오(一吾). 시조의 25세손. 정언 건주(建周)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고 수직으로 첨주(僉樞)를 제수하였다.

아내는 울산 김명하(金鳴夏)의 딸, 자평 문대성(文大成)의 딸이다.

◆ 정만항(鄭萬恒)

1609~1667 본관 진주. 자 구이(久而). 시조의 25세손. 관주(觀周)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수원최씨다.

◆ 정만흥(鄭萬興)

1744~1816 본관 진주. 자 태오(泰五). 시조의 25세손. 정언 건주(建周)의 둘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현감 남평 문덕구(文德龜)의 딸이다.

◆ 정 면(鄭 綿)

본관 진주. 시조의 15세손. 현령 함도(咸道)의 둘째 아들. 태종조에 강원도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냈으며 동생 유(柚)와 정지년(鄭知年), 박희권(朴希權) 등과 정분(鄭芑)의 귀양소인 낙안(樂安)을 오가며 단종

의 복위를 꾀했으나 1456년 단종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괴정(槐亭)에 올라 영월 쪽을 향해 통곡을 하였다.

아내는 연일정씨(鄭氏) 중랑장 흥인(興仁)의 딸이다.

◆ 정 목(鄭 穆)

본관 진주. 자 목여(穆如). 시조의 23세손. 감찰 효득(孝得)의 맏아들.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진사 수원 최관지(崔綰之)다.

◆ 정몽표(鄭夢彪)

1643~1701 본관 진주. 자 위경(威卿). 호 월강(月崗). 기시조 시양의 25세손. 국상(國相)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다. 8~9세에 효경에 능통하여 효행이 뛰어났으며 부모의 상에 매일 성묘를 하고 애통해 하다가 몸이 여위어 뼈만 남은 상태였으나, 바른 몸가짐과 엄격한 자기 규율로 세인의 모범이 되었다. 이 사실이 호남절의록과 기성지에 실려 있다.

아내는 생원 연안 이여흡(李汝洽)의 딸이다.

◆ 정문백(程文伯)

본관 하남. 하남정씨 함평입향조다.

◆ 정민득(鄭敏得)

1577~1597 본9관 진주. 자 자구(子求). 시조의. 22세손. 첨주 복일(復一)의 아들. 1595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를 지냈다. 1597년에 남원성이 적에게 포위되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일으켜 병사 이복남(兵使李福男)의 막하로 들어 갔다.

명나라 장수 양원(梁元)과 함세하여 수많은 적을 참살하였고 성이 함락될 때 죽인 정광득(族人鄭光得)이 곁에 있다가 탈출할 길을 가르쳐주자 눈을 부릅 뜨며 “남아라면 의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어찌 네가 그 같은 말을 감히 하는



가?”라고 꾸짖었다.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였으니 겨우 나이 21세였다. 남원(南原)의 충렬사(忠烈祠)에서 배향한다.

아내는 영성 정희맹(鄭希孟)의 딸이다.

◆ 정민흥(鄭敏興)

1554~1622. 본관 고성. 대청(大清)의 만아들. 아버지의 학행에 음사로 형조 낭관(刑曹郎官)에 등용된 후 여러직을 거쳐 송화현감(松禾縣監)을 봉직 하였다.

아내는 함평노씨(魯氏)다.

◆ 정 방(鄭 紡)

1623~1700 광주. 자 공기(公器). 호 사정(思亭). 시조의 12세손. 효자 지현(志玄)의 아들. 부모상에 6년간 시묘를 살았고 이 사 실이 함평현읍지에 실려 있다. 아내는 영동김씨 입(壼)의 딸이다.

◆ 정봉주(鄭封周)

1647~1689 본관 진주. 자 사규(士奎). 시조의 24세손. 능(稜)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용양위 부사과, 사옹원 주부를 지냈다.

아내는 함평이씨 장영(長榮)의 딸이다.

◆ 정봉징(鄭鳳徵)

1682~1733 본관 나주. 자 명서(鳴瑞). 호 남파(南坡). 시조의 19세손. 세주(世周)의 넷째 아들. 창계 임 영(滄溪 林 泳)과 종유(從遊)하였으며 어머니 병환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에 넣어드려 3일간 연명케 하였고 3년간 시묘를 살았다.

1721년 진사과에 입격하였으며 1728년(영조 4년) 역변(逆變)에 대학당의(大學堂議)로 창의 수관(倡義 守館)하고 안성군수 민제장(閔濟章)에게 글을 보내 계획을 세워 난을 평정하는데 공헌했으며 아버지의 늙으심을 상언하여 귀향한 후 은거 교수(隱居 敎授)로 만족해 하였다.

1730년 전라감사 민응(閔應)과 유림유정

무(柳鼎茂) 등이 행의(行誼)로 천거하였다.

아내는 함평노씨(咸平魯氏) 장사랑 연(淵)의 딸이다.

◆ 정사의(鄭思義)

1651~1720 본관 진주. 자 의숙(宜叔). 시조의 25세손. 명주(鳴周)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해산진병마절도사, 만호를 지냈다.

아내는 경주 이상일(李尙逸)의 딸이다.

◆ 정사현(鄭士賢)

1534~1584 본관 나주. 자 경행(景行). 시조의 15세손. 현감 국주(國柱)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고 충자위 부사과, 훈련원 관관, 용양위 부호군, 가선 동추(嘉善同樞)를 지냈다.

아내는 김해김씨, 그리고 광산김씨(1544~1588) 참봉 기서(奇瑞)의 딸이다.

◆ 정삼근(鄭三謹)

본관 진주. 시조의 16세손. 현감 유(維)의 아들.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했으며 아내는 진주강씨다.

◆ 정상주(鄭相周)

1622~1672 본관 진주. 자 위수(渭叟). 시조의 24세손. 별제 직(稷)의 맏 아들. 문장과 행의로 이름 높았으며, 1660년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장택 고전민(高傳敏)의 딸이다.

◆ 정 색(鄭 穡)

1590~1652 본관 진주. 자 여유(汝有). 시조의 23세손. 장악원정 경득(慶得)의 맏 아들. 병자호란 때 종제 적, 이흥발(雲岩李興淳) 등 오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청주에 이르렀을 때 강화가 성립되자 비분강개를 씹으며 귀향하였다. 영조 조에 호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사평 행주 기효분(奇孝芬)의 딸이다.

◆ 정서동(鄭緒童)

본관 진주. 시조의 17세손. 부사 이방(以方)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달성서씨다.

◆ 정석면(鄭錫冕)

1886~1907. 4. 29 본관 나주. 이름 복겸(福兼). 자 자명(子命). 호 의재(義齋). 시조의 26세손. 우천(遇天)의 아들.
나산면 출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1906년 호남일대의 의병운동을 주도한 성재 기삼연(省齋奇參衍)의 의진에 참가하여 광주, 나주, 장흥에서 적과 접전하였다. 특히 왜장 강전(岡田)을 생포하여 처단하고 그들의 야포와 탄환을 탈취하여 의병을 무장시키는 등의 전공을 올렸다.

1907년 4월 29일 백양사에서 접전하던 중 적의 탄환을 맞고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려 1968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아내는 과평윤씨 자권(滋權)의 딸이다.

◆ 정석우(鄭錫祐)

1745~1787 본관 진주. 자 응오(應吾). 시조의 27세손. 무과 급제 필신(弼臣)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연안 이종갑(李鍾甲)의 딸이다.

◆ 정석좌(鄭錫佐)

1731~1770 본관 진주. 자 여운(汝雲). 시조의 27세손. 우후 익신(翊臣)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다.
아내는 기계 유언송(兪彦松)이다.

◆ 정섭헌(鄭燮憲)

1674~1754 본관 고성. 자 윤상(允相). 폐위부호군(廢衛副護軍)을 역임했으며 아내는 영광정씨 중귀(重貴)의 딸이다.

◆ 정 성(鄭 晟)

1579~1666 본관 진주. 자 문거(文舉). 호 곡구(谷口). 중추부사 방일(邦一)의 아들이며 어려서부터 재예가 뛰어났다.

8세 때 임전(任鎭)이 그에게 제비에 대한 시를 한 번 읊어보라고 하자 즉석에서 “燕

含花下紅紫泥 飛入樑上次次點. 제비가 붉은 길흙을 꽃잎처럼 먹음고 들보 위를 날으니 차츰차츰 집이되네”라 하였다. 임전이 탄복하고 후일 사위로 삼았다. 1616년에 사마시에 입격 진사가 되고 광해 10년인 1618년 식년 전시문과(殿試文科)에 급제하였으며 1622년에 세자시강원 설서를 역임하였다. 나라일이 어지러워지자 고향에 돌아와 한림오희도(吳希道), 검열 오이익(吳以翼) 등 과 더불어 시문으로 여생을 마쳤다.

◆ 정세윤(鄭世胤)

1624~1668 본관 나주. 자 선술(善述). 호 양촌(陽村). 시조의 18세손. 선무원종공신 민수(民秀)의 손자. 1650년(효종 1년)에 진사과에 입격하였고 효성이 두터워 양부모, 생부모의 상에 시묘를 살았다.

아내는 나주나씨 수(脩)의 딸이다.

◆ 정송정(鄭松貞)

본관 진주. 자 사직(士直). 시조의 19세손. 보공장군 청석(靑石)의 둘째 아들. 훈련원 주부를 역임했다.

아내는 광산 이건(李鍵)의 딸이다.

◆ 정 수(鄭 璉)

1742~1811 본관 진주. 자 자장(子章). 호 문헌(文軒). 이하(履夏)의 아들로 월야면 출신이다. 일찍이 총명하여 사학유생(四學儒生)으로 있었고, 1789년 기유 식년 전시문과에 급제하여 1790년 통사랑, 1793년 성균관 전적, 예조 좌랑, 3도 도사(都事)를 거쳐 통례원 통례를 지냈다.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연로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니 고을 사람들이 노래자(老萊子)라 불



렀다.

◆ 정 수(鄭 稷)

본관 하동. 시조의 11세손. 관찰사 경(耕)의 셋째 아들.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산음현감(山陰縣監)을 지냈으며 1430년경 광주의 분토동(현 광주시 청옥동)에서 자풍리로 이거하여 하동정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으며 아내는 진보(眞寶) 이씨와 반남박씨 종한(宗漢)의 딸이다.

◆ 정수강(鄭守綱)

1688~1734 본관 진주. 시조의 27세손. 경력 덕기(德基)의 둘째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전의 이후식(李厚植)의 딸이다.

◆ 정수범(鄭守範)

1679~1732 본관 진주. 자 중무(仲戊). 시조의 27세손. 경력 덕기(德基)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현령 인천 이인수(李仁叟)의 딸, 이천 서응정(徐應禎)의 딸이다.

◆ 정수성(鄭守誠)

본관 진주. 자 사규(士奎). 시조의 27세손. 명기(命基)의 맏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사과(司果)를 지냈다.

아내는 영암 최동문(崔東文)의 딸 이다.

◆ 정수영(鄭洙英)

1843~1883 본관 나주. 자 내찬(乃燦). 호 애매헌(愛梅軒). 시조의 25세손.

치련(致鍊)의 맏아들. 병인양요 이후 과거 볼 것을 단념하고 동생 수현과 더불어 부모공양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아버지의 병환에 혈지(血指) 연명케 하였으며 어버이상에 6년간 시묘를 살았는데 두 마리의 토끼가 항상 그의 곁에 있었고 토끼가 가리킨 곳을 파니 물이 솟아 시묘 기간 동안 마실 물을 얻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1885년(고종 22)에 효로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을 증직 받았으며 정려(旌閭)의 특명이 내려졌다. 이 사실이 군지 및 삼강록에 실려 있다.

아내는 진주정씨(晉州鄭氏) 감역(監役)지구(之球)의 딸이다.

◆ 정수종(鄭洙宗)

1677~1740 본관 진주. 자 중신(仲信). 호 애헌(崖軒). 시조의 27세손. 천기(天基)의 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동래정씨다.

◆ 정수채(鄭洙采)

1849~1897 본관 나주. 자 낙현(洛賢). 호 백암(柏庵). 시조의 25세손. 국련(國鍊)의 맏아들. 양친의 병환에 백약을 써도 효험이 없는데 의원의 개고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읍구(泣求)하던 차 홀연히 호랑이가 개를 물어다 주어 효험을 보았다고 전해오며 어버이 상(喪)에 6년 동안 죽만 먹었다. 군지와 삼강록에 이 사실이 실려 있다.

아내는 여양진씨(驪陽陳氏) 영완(永完)의 딸이다.

◆ 정수탁(鄭守鐸)

1706~1767 본관 진주. 자 사순(士洵). 호 월파(月坡). 기시조 시양의 27세손. 하기(夏基)와 장흥고씨의 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하였다. 성리학에 밝았으며 치경(致敬), 치락(致樂), 치우(致憂), 치애(致哀), 치엄(致嚴)의 오치(五致)를 다하여 충효가전(忠孝家傳)의 기풍을 진작하였고, 빈궁한 사람을 구휼(救恤)하는데는 집안의 재력을 해아리지 않았다.

아내는 함평 이 필(李 苾)의 딸이다.

〈전남도지 17권 효행편. 200쪽〉

◆ 정수현(鄭洙賢)

1856~1910 본관 나주. 자 국일(國一). 호 사죽헌(師竹軒). 시조의 25세손.

치련의 셋째 아들. 형 수현과 함께 아버지

병환에 혈지 연명케 하였고 부모상에 6년간 읍혈(泣血)하였다. 1885년에 효로 특별정려가 내려고 사헌부 감찰에 제수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896년 기우만(奇宇萬)과 거의(舉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방랑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학문에 열중했다.

아내는 청송심씨(靑松沈氏) 능문(能文)의 딸이다.

◆ 정순경(鄭舜卿)

1572~1635 본관 나주. 자 중흠(仲欽). 호 양성재(養性齋). 시조의 17세손. 훈련원 부정 진의 둘째 아들. 우계 성 혼(牛溪 成 渾)의 문하생이며 영광의 강 항(姜 沆)과 도의교를 맺었다. 아버지가 노랑해전에서 전사하자 초혼장을 치루었고 광해조 때 명륜(明倫)에 대한 상소를 하였다. 인조 반정 후 참봉, 집의(執義)를 제수하였으나 취임하지 않았으며 이 괘(李适)의 난에 정충신(鄭忠臣)과 함께 큰 공을 세워 조정에서 훈록하기로 협의하자 병(病)을 내세워 귀향하여 여생을 보냈다.

영조조에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금성나씨 주부(主簿) 유서(裕緒)의 딸이다.

◆ 정승정(鄭承貞)

1527~1560 본관 진주. 자 일방(一方). 시조의 19세손. 보공장군 청석(靑石)의 맏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좌랑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 박효근(朴孝根)의 딸이다.

◆ 정시교(政時矯)

1615~1695 본관 나주. 자 희숙(熙叔). 호 남곽은(南郭隱). 시조의 17세손. 기의 아들. 먼성 월천리(현 무안읍 성남리)에서 태어났으며 효우와 문행으로 이름 높았다. 1636년 서울에 유학하던 중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자 왕을 호위하였으며 화의를 반대하였고 강화도를 함락 당하게 한 김경징(金慶徵),

이민구(李敏求)에게 죄 줄 것을 상소한 후 귀향하여 부모를 섬겼다. 1644년 원한을 품게 한 청나라가 중원을 함락하고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망 통곡하였으며 부모 상에 시묘를 살았다.

조정에서 이 행의를 가상히 여겨 사옹원 직장(直長)을 제수하였는데 교지에 청나라 연호인 순치(順治)가 들어 있어 부임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숭정처사(崇禎處士), 숭정완인(崇禎完人)”이란 말을 들었다.

1694년에 수(壽)로 통정대부를 제수 받았으며 유언에 “내가 죽어 염습을 할때 연(燕) 나라 시장의 비단을 쓰지 말고 신주에는 청의 관함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

아내는 죽산안씨 희익(希益)의 딸이다.

◆ 정시주(鄭時周)

본관 진주. 자 회이(會而). 호 칠봉(七峯). 시조의 24세손. 진사 목(穆)의 맏아들. 학식이 넓고 효심이 지극하여 함평, 나주, 영광의 사림들이 감천(感薦)하였다.

아내는 진사 함양 박세경(朴世卿)의 딸, 순창 조(趙)씨다.

◆ 정시홍(鄭時洪)

본관 진주. 자 내범(乃範). 시조의 25세손. 태신(台臣. 1709년생)의 둘째 아들로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김해김씨다.

◆ 정 식(鄭 植)

1749~1833 본관 진주. 자 의숙(義淑). 호 지포(之圃). 시조의 26세손. 시응(時應)의 맏아들.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함열 남궁팔(南宮八)의 딸이다.

◆ 정 신(鄭 伸)

본관 진주. 자 응기(應期). 시조의 19세손. 찰방 윤석(崙石)의 둘째 아들. 부장(部將)을 지냈다.

아내는 현감 평산신흠(申欽)의 딸이다.



◆ 정신량(鄭臣良)

본관 함평. 시조 언겸(彦謙)의 증손.
영풍부원군 현수(賢守)의 아들. 병부 원외
랑(員外郎),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냈고
아내는 월성이씨(月城李氏)다.

◆ 정안의(鄭安義)

본관 함평. 호 청유(靑遊). 시조 언겸(彦
謙)의 8세손. 대제학 을룡(乙龍)의 둘째 아
들. 문과에 급제하여 전법판서(典法判書)에
올랐고, 공양왕 때 문하찬성사(門下贊成
事), 보문각 대제학(寶文閣大提學)을 역임
하였으며 고려왕조가 망한 1392년에 고향
으로 퇴거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아내는 파평염씨(坡平廉氏) 대제학 흥 방
(興邦)의 딸이다.

◆ 정 억(鄭億)

1487~1544 본관 진주. 자 대년(大年).
시조의 19세손. 찰방 윤석(崙石)의 아들.
중종조에 사마시에 입격하여 중직 대부 수
운판관(水運判官)을 지냈다.
아내는 여주 민계상(閔繼祥)의 딸이다.

◆ 정언겸(鄭彦謙)

함평정씨 시조. 신라 개국공신 지백호(智
伯虎)의 38세손. 문과에 급제하여 병부상
서 문하시중(兵部尙書 門下侍中. 종1품)을
지냈는데 1126년 척준경 난(拓俊京 亂) 때
모평(牟平)으로 퇴거하여 살았고 후손이 본
관을 함평으로 하여 함평정씨의 시조가 되
었다.

◆ 정여면(鄭汝冕)

1860~1913 본관 나주. 자 봉일(奉一).
호 양곡(陽谷). 시조의 26세손. 우환(遇煥)
의 둘째 아들. 정일신의 문하생이며 성격
이 과묵하고 법도가 있으며 대유(大儒)로
이름 높았다. 아버지의 병환에 산에 올라
쾌유를 빌었으며 상을 당하여 슬퍼함이 지
극하였고 사헌부감찰에 천거되었다. 이 사

실이 군지, 과관문헌호보(科官文獻號譜)에
실려있다.

아내는 무안박씨 학진(學鎭)의 딸이다.

◆ 정여숙(鄭汝淑)

1605~1654 본관 동래. 자 선지(先之).
호 청송재(聽松齋). 시조의 20세손.
정유재란 중의사 돈(燾)의 손자. 병자호란
때 정색(鄭穡), 정적 등과 창의하여 의병
을 이끌고 청주(淸州)에 이르렀을 때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향리에 묻혀 살
았다.

아내는 함평이씨 상운(祥雲)의 딸이다.

◆ 정영신(鄭英臣)

1676~1750 본관 진주. 자 백열(伯烈).
호 묵와(默窩). 시조의 26세손. 통덕랑 덕
재(德載)의 맏아들. 1726년 사마시에 입격
하였고, 손재 박광일(遜齋 朴光一) 등과 강
론하였다.

아내는 의성 김찬문(金瓚文)의 딸이다.

◆ 정예홍(鄭禮弘)

1474~1555 본관 하동. 시조의 14세 손
봉사 유륜(惟倫)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
으나 장사랑(將仕郎) 외의 행적은 전하지
않으며 아내는 함평이씨다.

◆ 정요경(鄭堯卿)

1569~1592 본관 나주. 자 숙흠(叔欽).
시조의 17세손. 훈련원 부정 진(縉)의 맏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선공감 판관(繕工監
判官)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와 같
이 의병을 모아 고경명 막하로 갔고 금산
싸움에서 전몰하였다.

아내는 보성노씨(寶城盧氏) 시장원 봉사
(奉事) 상진(尙振)의 딸이다.

◆ 정용신(鄭龍臣)

1681~1754 본관 진주. 자 형숙(亨淑).
호 우제(迂齋). 시조의 26세손. 통덕랑 덕

요(德曜)의 둘째 아들. 1735년 사마시에 입격하였고 향리에 있다가 1752년(영조 22)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상경하여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문집 3권이 전한다.

아내는 참관을 지낸 연안 김순(金洵)의 딸이다.

◆ 정용태(鄭鎔兌)

1866~1930 본관 나주. 자 기성(器成). 호 침천재(枕泉齋). 시조의 26세손.

수영(洙英)의 아들. 최익현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문중사에 극히 열성이었으며 음사로 정릉참봉으로 출사하여 중추원 의관(議官)을 지냈다. 한일합방 이후 두문불출하였다. 이 사실이 군지, 전남도지에 실렸다.

아내 광산김씨(光山金氏. 18065~1928)는 홍이(洪移)의 딸로 천성이 정숙하고 단아하였으며 시부모 복을 입고 있을 때 죽만 먹으며 애도 하였다. 1906년 효부로 천거되어 삼강록에 올랐다.

◆ 정우경(鄭禹卿)

본관 나주. 시조의 17세손. 훈련원 부정진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봉사(奉事)를 지냈다. 1624년 이괄의 난 때 안현(鞍峴) 싸움에서 전몰하였다.

아내는 청도김씨(淸道金氏)다.

◆ 정우손(鄭友遜)

본관 진주. 시조의 19세손. 참봉 귀(貴)의 맏아들.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냈다.

아내는 연안이씨다.

◆ 정운길(鄭雲吉)

1536~1597. 본관 동래. 자 응룡(應龍). 시조의 18세손. 봉사 윤복(奉事允福)의 아들. 지혜와 무예가 뛰어난 사람으로 수사오 숙(水使 吳淑)의 손녀사위가 되어 처가인 상주(尙州)에서 살면서 사마시에 입격 출사하여 의금부 도사(都事)를 지냈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정기룡과 함께 왜

적과 싸워 많은 공을 세웠고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자 가족과 함께 외가인 월야면 월악리 지변(池邊)에 와 있던 중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적이 영광의 우치(牛峙. 현 장성군 삼서면 소재)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청장년과 아들 그리고 노복들을 거느리고 우치로 나아가 “나는 상주에서 싸웠던 정운길이다. 그때 너희들을 못다 죽인 것이 한이 되었는데 우리 고장까지 쳐들어와 천추의 한을 만드니 네놈들을 이제는 돌려보낼 수 없다”며 적진으로 뛰어 들어 많은 적을 베었으나 적의 구원병이 도착하여 마침내 포로가 되어 처형되었다. 아들 돈(燾)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며 백병전을 전개하였으나 순절하였다.

왜적이 부자의 충성에 감복하여 부자의 시신 앞에 “정충 정모의 시(貞忠鄭某義屍)라는 표말을 세웠고 노복 일선(一先)이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지냈다.

아내는 함양오씨 부장 세웅(世雄)의 딸로 마을 사람들과 서해로 피난하던 중 칠산(七山)바다에서 적을 만나자 “적에게 잡혀 수모를 당하느니 죽는 것이 옳다”며 만딸(심해-沈諧-의 아내), 둘째 딸(권섭-權涉-의 아내), 그리고 마을 부녀자 등 12명이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 정원제(鄭源悌)

1777~1828 본관 나주. 자 군경(君敬). 시조의 23세손. 참봉 후교(厚僑)의 아들. 도총부 부총관(副總管)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김씨 치오(致五)의 딸이다.

◆ 정원주(鄭元柱)

1512~1578 본과 나주. 자 지백(砥伯). 시조의 14세손. 훈련원부정(副正) 이주(以周)의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충자위 사정(司正)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 은진현감 승로(崇老)의 딸, 함평이씨 교수 여정(汝貞)의 손녀다.

◆ 정 유(鄭維)



1620~? 본관나주. 시조의 16세손.
주부 홍(鴻)의 맏아들. 선조 때 무과에 급
제하였고 임진왜란 때 고경명 휘하에서 활
동하였고 금산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아내는 과평윤씨다.

◆ 정 유(鄭 濡)

1734~1790 본관 진주. 자 서오(瑞五).
시조의 28세손. 제민(齋旻)의 맏아들로 월
야면에서 출생하였다. 1765년 사마시에 입
격하였고, 1768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正字), 정조조에 병조이조좌랑, 개성
경력(開城經歷), 사헌부 장령을 역임했으며
퇴관 후 향리로 돌아와 명사들과 학문으로
종유하며 후학지도에 전념하여 많은 선비
를 배출 하였다.
아내는 상산 김시창(金始昌)의 딸이다.

◆ 정 유(鄭 維)

본관 진주. 시조의 15세손. 현령 함도(咸
道)의 맏아들. 태종조에 고산현감(高山縣
監)을 지냈으며 1453년부터 우상 정분(右
相鄭笨)의 귀양처인 낙안을 오가며 정분의
명을 받아 이 개(李 塏) 등과 단종의 복위
를 거듭 모의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단종이 피해를 입은 후 동생 면(綿)과유
(釉)와 통곡하고 향리로 돌아왔다.
아내는 양성이씨 판종부시정(判宗簿侍正)
양직(良直)의 딸이다.

◆ 정유삼(鄭有三)

1606~1686 본관 나주. 자 일지(一之).
호 화암병수(花岩屏叟). 시조의 18세손.
순경(舜卿)의 아들.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
生)의 문하생이며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
烈)과 종유하였으며 효로 교수(敎授)를 역
임했다. 정묘호란에 창의를하고 병자호란에
남한산성에서 왕을 호위하였다. 화의가 이
루어진 후 낙향하여 스스로 호를 대명처사
(大明處士)라 하였고 1707년 유일(遺逸)로
지평(持平)을 제수하였으나 취임하지 않았
고 임종때 명정에 관직을 쓰지 말라는 유

언을 하였다. 1775년(영조 51)에 병조 참
의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과평윤씨(?~1704) 통덕랑 지태(之
泰)의 딸, 함평이씨 의준(義準)의 딸, 보성
노씨(寶城盧氏) 장의(莊義)의 딸이다.

◆ 정윤면(鄭胤勉)

1851~1908 본관 나주. 처음 이름 기순
(基淳). 자 경모(敬模). 호 인재(仁齋).
시조의 26세손. 채환(采煥)의 맏아들.
1905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반대하여 거의하였다. 처음
에 그는 기삼연 의병부대에 참여하여 활약
하였고 후에 김태원 의병장 휘하에서 나주
시 영산포, 광산군 분양면의 어등산 전투
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기삼연, 김태원
의병장이 전사하자 1908년 초 나머지 의
병을 규합하여 재기할 기회를 도모하던 중
2월 11일 나주군 거평(居平. 현나주시 문
평면) 쪽 산기슭에서 적에게 살해 되었다.
1982년 건국 공로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
였다.

아내는 함안이씨(1848~1922) 동룡(東龍)
의 딸로 효부로 이름 높았다.

◆ 정윤석(鄭崙石)

본관 진주. 자 차옥(次玉). 시조의 18세
손. 좌찬성 계동(繼童)의 둘째 아들.
시흥도 찰방(時興道 察訪)을 지냈다.
아내는 남양 홍현정(洪顯廷)의 딸이다.

◆ 정윤진(鄭胤晉)

1625~1689 본관 진주. 자 시우(時遇).
호 망우옹(忘憂翁). 시조의 21세손.
문원(文遠)의 셋째 아들로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극진히 모심으로 모두들 “정효자”
라 불렀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부친상을 당
하매 외인들이 접근을 하지 않아 따로 제
청을 만들어 관을 모시고 향불이 끊이지
않다가 예를 다하여 치상하였다.

1794년(정조 18)에 효로 통훈대부 사복
시정(司僕侍正)이 증직되고 1870년 효행으

로 정자동(亭子洞)에 정려가 내렸다.
아내는 제주양씨 태일(泰一)의 딸이다.

◆ 정을룡(鄭乙龍)

?~1370 본관 함평. 시호 충정(忠貞).
시조 언겸(彦謙)의 7세손. 문하시랑 공민
(恭敏)의 아들로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
여 정당문학(政堂文學), 진현관 대제학(進
賢館大提學)을 지냈다.

◆ 정 응(鄭 鷹)

1562~1598 본관 나주. 자 덕양(德揚).
호 애죽헌(愛竹軒). 시조의 15세손.
충좌위 사정(司正) 원주(元柱)의 아들.
1588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宣傳)으
로 재직하다가 1589년 기축옥사를 보고
환멸을 느껴 벼슬에서 물러나 귀향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생 홍(鴻)
과 같이 고경명(高敬命)의 휘하로 달려가
금산전에 참여하였으나 패하자 고향으로
돌아와 동생 홍과 재종질 진(縉), 그리고
해보면의 정충량(鄭忠良)과 함께 수 백명의
의병을 모아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의 막하
로 갔고 김명원이 우수사 이억기(李億祺)의
진중으로 보내니 우수사가 그들 형제를 좌
우 보익장(左右輔翼將)을 삼고 전선 10척
을 이끌고 당항포(唐項浦)에서 좌수사 이순
신과 합세하였다.

견내량(見乃梁) 싸움에서는 분전하여 왜적
수십 급을 베었고 예교(曳橋) 싸움에서는
독전하여 적을 혼비백산하게 하였으며 안
골포(安骨浦) 싸움에서는 적선 수십 척을
쳐 부셨다.

이 전공으로 훈련원 주부에 올랐고 1598
년 11월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최전선의
편대를 지휘하다가 적탄에 맞아 부상을 입
었으나 다시 상처를 싸매고 싸우다 장열히
순국하였다.

이날 동생 홍과 재종질 진도 적탄에 맞아
순국하니 초혼(招魂)하여 충성동 간좌에 장
례하였다.

조진수(趙鎭修)등 도내의 유림들이 상언하
고 예조판서 서용보(徐龍輔)가 사실을 조사
하는 등 절차를 밟아 1801년에 병조참의
에 증직되고 1893년에 병조참판에 증직되
었으며 오산사(鰲山祠)에서 배향한다.

아내는 광산정씨(光山鄭氏) 현감 인학(仁
學)의 딸인데 1597년 9월(음력) 왜적이 월
야면에 침입하자 시어머니 함평이씨(咸平
李氏. 낙안교수 여정-汝貞-의 손녀), 홍
(鴻)의 아내 광산김씨(光山金氏), 진(縉)의
아내 옥천설씨(玉川薛氏)와 함께 나산면 용
두리 죽사동(竹寺洞)으로 피신하였는데 9월
20일 적이 이곳에까지 침입하여 시어머니
함평이씨를 살해하고 그들을 사로잡으려하
자 살아서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옳다며 세 부녀가 높은 바위에서 뛰
어내려 자결하였다.

죽사동의 3열부로 추앙 받고 있다.

◆ 정응청(政應淸)

1537~1600 본관 고성. 자 의숙(義叔).
호 학재(學齋). 훈도 세웅(世雄)의 셋째 아
들. 개칭의 아우. 선무랑 귀서별좌(歸署別
坐)를 제수했으나 취임하지 않았으며 향리
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썼다.

아내는 금성나씨(羅氏), 밀양박씨(朴氏)다.

◆ 정이방(政以方)

본관 진주. 호 월은(月隱). 시호 효정(孝
貞). 시조의 16세손. 현감 주(紬)의 아들.
남원부사를 역임했으며 아내는 삭녕최씨
(朔寧崔氏)다.

◆ 정이은(鄭以殷)

1495~1535 본관 나주. 자 인보(仁輔).
호 일재(逸齋). 시조의 13세손. 익종(益宗)
의 셋째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창신교위
(彰信校尉), 충좌위 사정(司正)을 지냈으며
효우(孝友)로 이름 높았고 사후 승정원 좌
승지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남원장씨(南原張氏) 문과 급제 현
징(鉉徵)의 딸이다.



◆ 정이주(鄭以周)

1490~1528 본관 나주. 자 도정(道正). 호 경암(敬菴). 시조의 13세손 익종(益宗)의 맏아들.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과 종유(從遊)하였고 성리학에 밝았으며 음사로 출사하여 훈련원 부정(副正)을 지냈다.

아내는 복천오씨(福川吳氏) 적(迪)의 딸이다.

◆ 정이하(鄭以夏)

1507~1550 본관 나주. 자 우상(禹相). 호 해은(海隱). 시조의 13세손. 감찰 익종의 넷째 아들. 1543년 무과에 급제하여 1545년 고성현감(固城縣監)을 제수 받아 재직하던 중 인종(仁宗)이 승하하자 사표를 내고 고향 월야에 돌아와 있던 중 재상 이준경(李俊慶)의 천거로 천성보 만호(天城堡萬戶)를 제수 받아 재직하다 병을 얻어 파직되었고 무안군의 월천리(月川里. 현 무안읍 성남리)로 이거하여 공수산(控壽山)에 인종을 추모하는 단을 쌓고 매양 호곡 하였다. 군기시정(軍器侍正), 도총부 경력(經歷)을 제수하였으나 취임하지 않고 여생을 보냈다.

아내는 나주정씨(羅州丁氏) 습독(習讀) 환(煥)의 딸, 함양박씨 부사(府使) 지술(知述)의 딸이다.

◆ 정익성(鄭益成)

본관 진주. 좌랑 옥(昱)의 아들. 효성이 지극하였고 또 뜻한 바가 남달랐다. 급제하였으며 병자호란 때 임금을 남한산성에서 호종하였는데 왕의 칭찬을 자주 받았다.

◆ 정익신(鄭翊臣)

1694~1751 본관 진주. 자 익보(翼甫). 시조의 26세손. 통덕랑 덕요(德曜)의 넷째 아들. 1733년 무과에 급제하여 도총부 경력, 우후(虞侯)를 지냈다.

아내는 통제사 여흥 민제장(閔濟章)의 딸

이다.

◆ 정익종(鄭益宗)

1456~1526 본관 나주. 자 보문(輔文). 호 묵와(默窩). 시조의 12세손. 이조정랑 지아(之雅)의 아들. 조정암(趙靜菴), 김충암(金忠菴)과 교의가 두터웠으며 음사(蔭仕)로 남부참봉(南部參奉)에 제수된 후 돈녕부주부(主簿)를 거쳐 1578년에 사헌부감찰(監察)에 올랐으며 사후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상산김씨(尙山金氏) 부사(府使) 중명(仲明)의 딸이다.

◆ 정익창(鄭益昌)

1576~? 본관 진주. 자 명유(命有). 호 송원(松原). 좌랑 옥(昱)의 아들. 그는 남달리 힘이 세었으며 병자호란 중 남한산성에서 형 익성(益成)과 함께 왕을 호종하였으며 1637년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萬戶)를 지냈다.

◆ 정인근(鄭仁謹)

1532~1591 본관 광주. 호 둔헌(遯軒). 시조의 9세손. 군수 해(獬)의 셋째 아들. 1560년경 나주에서 함평군 손불면 동암리(冬岩里)로 이거 정착하여 광주정 씨 함평입향조가 되었으며 도의와 문장으로 사림의 천에 1566년 참봉으로 출사하여 경남 덕천군수(德川郡守)를 역임하였다.

아내는 대구배씨 주부 천령(主簿 千齡)의 딸이다.

◆ 정인방(鄭仁方)

1562~1625 본관 광주. 자 선술(善述). 시조의 9세손. 진사 사(獅)의 맏아들. 1588년에 진사과에 입격하였다.

아내는 함평이씨 참봉 여로(汝老)의 딸이다.

◆ 정인술(鄭寅述)

1879~1910. 6. 6, 다른 이름 금모(金

模). 윤모(允模). 1907년 9월 호남의 기삼연(奇三衍) 의진에 가담하여 담양, 능주, 장성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 1908년 3월 김태원 의진에 들어가 장성, 담양, 광주 등지에서 적과 접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5월 이후에는 조경환(曹京煥) 의진에 소속되어 함평 나주 등지에서 교전하였다. 그 이후 이강산 의병장의 지휘하에 함평지방의 나주현병 분견소 밀정 이판안, 김정태, 최치도를 동지 박치일(朴致一)과 함께 처단하였다.

그 후 이러한 일련의 의병운동이 노출되어 체포되었으며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모살죄로 1909년 12월 25일 교수형을 선고받고 대구공소원에 공소하였으나 1910년 3월 8일 공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사형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려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정인시(鄭麟時)

1645~1710 본관 진주. 자 응서(應瑞). 기시조 시양의 24세손. 운창(雲昌)의 둘째 아들.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세자 시강원 설서를 지낸 할아버지에게 시문을 배워 사림이 선망하는 대상이 되었고, 많은 석학들과 함께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저서 또한 많이 남겼는데 누차의 병란에 소실되었다.

◆ 정인영(鄭仁榮)

1569~1627 본관 광주. 자 선수(善守). 시조의 9세손. 진사 사(獅)의 둘째 아들. 정유재란 때 창의하여 여러 차례 많은 공을 세워 충의교위(忠毅校尉)를 제수 받았고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만년에 향리 앞에 부벽정(浮碧亭)을 짓고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였으며 아내는 광산 김씨 진사 식(軾)의 딸이다.

◆ 정재교(정재교)

1735~1779 본관 나주. 자 사동(士東). 시조의 22세손. 수택(壽澤)의 아들.

1774년(영조 50)에 문과에 급제하여 화순현감(和順縣監)을 지냈다.

아내는 죽산안씨 치만(致萬)의 딸이다.

◆ 정재영(鄭在榮)

1846~1899 본관 진주. 자 경화(敬華). 호 본전(本田). 시조의 31세손. 환초(煥初)의 둘째 아들. 임고산(任鼓山)의 문하생이며 재예가 탁월하였고 특히 성리학에 밝았다. 만년에 기노사(奇蘆沙), 송연재(宋淵齋), 최면암(崔勉菴) 등과 절친히 지냈으며 많은 후학을 길렀다.

문집 4권이 전한다.

아내는 상산 김달해(金達海)의 딸이다.

◆ 정재조(鄭齋肇)

본관 경주. 경주정씨 함평 입향조다.

◆ 정재흥(鄭再興)

1587~1626 본관 동래. 자 수초(遂初). 호 언호(彦浩). 집의 돈(燾)의 아들. 정유재란 때 11세의 몸으로 적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가 억류생활을 하던 중 15세가 되던 해에 산으로 들어가 나물을 캐다가 봉명사 송운선사(奉命使松雲禪師)를 만나 귀국하게 되었다. 작별할 때 왜인들이 그의 충성에 감복하여 “정말 충효가의 자손”이라 칭찬하고 토산물을 주었다. 3년 추복을 마쳤으며 집안의 변고와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했다하여 “야인”이라 자처하며 초야에 묻혀 살다 타게 하였고 사후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 정 적(鄭 嫡)

1607~1675 본관 진주. 자 수경(遂卿). 호 쌍풍(雙楓). 시조의 23세손. 진사 희득(希得)의 셋째 아들. 그는 병자호란에 종형색(從兄穡)과 함께 운암 이흥발(雲岩李興淳)을 도와 의병을 일으켜 청주까지 진군했으나 화의가 성립되어 귀향 하였다.

◆ 정 절(鄭 幘) <1권 735쪽 참조>

◆ 정종근(鄭鍾瑾)

1801~1876 본관 진주 자 국진(國珍). 호 행파(杏坡). 기시조 시양의 30세손. 보규(甫奎)와 천안전씨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 출생하였으며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마음을 돌려 오로지 사서집주(四書集註)에만 마음을 써서 몸소 알고 실천하는 것을 필생의 업으로 삼았다. 종계(宗契) 규약을 만들어 위토전답(位土田畓)을 마련하였고, 대동보(大同譜) 간행을 주관하였으며 사회 풍속이 퇴폐해 감에 명륜당(明倫堂)을 세워 강론하여 학문과 예(禮)를 권장하고 향약(鄉約)과 계(契)를 고안하여 잘못된 풍속을 고치는데 노력하였다. <전라도지 행이편 228쪽>

아내는 나주 나언필(羅彦弼)의 딸, 죽산 안지계(安志桂)의 딸이다.

◆ 정종련(鄭宗鍊)

1827~1887 본관 나주. 자 경조(敬祚). 호 고현(高軒). 시조의 24세손. 방채(邦采)의 양아들. 생부 방익(邦益). 아버지 상에 3년간 시묘를 살았고 어머니의 병환에 산에 들어가 췌를 잡아 봉양하였고 또 천성이 지혜로워 가난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친척을 구조하는데 힘쓰니 모두 “남래 일사(南來一士)”라 불렸다.

아내는 죽산안씨 지환(志煥)의 딸로 남편 병환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넣어 3일간 연명케 하였다.

◆ 정종순(鄭宗舜)

1515~1582 본관 진주. 자 학성(學聖). 시조의 20세손. 판관 억(億)의 둘째 아들. 통훈대부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를 지냈다.

아내는 사과 전주 리문경(李文卿)의 딸이다.

◆ 정종악(鄭宗岳)

1737~1784 본관 하동. 호 모재(慕齋).

아버지 병환 때 축천원대(祝天願代)하였고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으며 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를 살았다. 어머니의 병환 때도 대변을 맛보아 간호했으며 상을 당하여 역시 3년간 시묘를 살았다. 시묘 기간 중 호랑이의 보호를 받았다고 전하며 조정에서 정문(旌門)이 내려지고 사헌부 감찰에 증직되었다. 함평읍 자풍리 금곡마을 앞에 비각이 있다.

◆ 정종악(鄭鍾岳)

1819~1885 본관 진주. 처음 이름 종학(鍾學). 자 순사(舜四). 호 석뢰(石瀨). 시조의 30세손. 기규(驥奎)의 맏아들. 1858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正言), 병조 정랑, 자여도(自如道) 참방을 역임하고 1876년 중시(重試)에 급제하였으며 돈녕부 도정(都正), 병조참의, 승정원 우부승지(右副承旨),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修撰官)을 지냈고 1882년 임오군란 때 정진 7조(正陳 七條)의 상소를 올린 바 있는데 후일 최익현(崔益鉉) 등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충언 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아내는 통덕랑 풍산 홍필진(洪必鎭)의 딸이다.

◆ 정종요(鄭宗堯)

본관 진주. 자 사성(師聖). 호 한천(寒泉). 시조의 20세손. 판관 억(億)의 맏아들. 병절교위 부장(部將)을 지냈다.

아내는 이천서씨다.

◆ 정종필(鄭宗弼)

본관 진주. 자 찬숙(贊叔). 시조의 20세손. 부장 신(伸)의 둘째 아들. 장예원사평(司評)을 지냈다.

생원 신평 송익순(宋益恂)의 딸, 생원 이천서 묵(徐 默)의 딸이다.

◆ 정 주(鄭 紬)

본관 진주. 시조의 15세손. 현령 함도(咸

道)의 셋째 아들. 태종조에 무안현감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이씨 함성군 종생(咸城君從生)의 손녀다.

◆ 정주일(鄭主一)

1540~1588 본관 진주. 자 경지(敬之). 기시조 시양의 21세손. 수군절제사종순(宗舜)의 둘째 아들이다. 문예가 뛰어나고 효도와 우애로 가정을 바르게 하고 옳고 착하다는 소문이 고을에 널리 퍼져 음식으로 출사하여 부장(部將)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이씨 훈도 복(幅)의 딸이며 정유재란 때 배로 피란을 떠났다가 칠산바다에서 적에게 사로잡힐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같이 탔던 며느리 영광김씨(절-幃-의 아내), 손자며느리 함평이씨(호인-好仁-의 아내) 등 12 부녀자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함으로써 순절을 지켰다.

1681년에 정려가 내려졌다.

같은 배에 탔던 아들 절은 왜적에게 사로잡혀 항복을 하면 살려준다는 적의 권유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호되게 적을 꾸짖다가 양팔을 잘린 후 목숨을 잃었으며, 손자 호인과 호례(好禮)는 19세와 17세의 나이로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가 포로생활을 하면서도 목숨이 경각에 이르도록 굶기며 글을 가르쳐 달라던 왜인들의 청을 “나라와 가문을 잊밧은 너희들에게는 단 한자의 글자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생일까지 기억하여 제수를 드리는 지극한 효성을 보여 굴하지 않는 조선인 선비의 참다운 기개와 열을 왜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야만의 피에 젖었던 그들을 감복시켜 3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들 삼세 삼강(三世三綱)의 빛나는 열을 기리기 위해 1995년 후손들이 뜻을 모아 마을 어귀에 ‘진주정씨 삼세 삼강비각’을 세우고 ‘진주정씨 삼세삼강실록(三

世四綱實錄)’을 간행하였다.

◆ 정 준(鄭 浚)

1564~1625 본관 광주. 자 여호(汝浩). 호 추원당(追遠堂). 시조의 10세손.

군수 인근(仁謹)의 셋째 아들. 김사계(金沙溪)의 문하생이며 신독재 김 집(愼獨齋金集), 수은 강 항(睡隱 姜 沆), 둔암 양산해(遯菴 梁山海)와 도의 교를 맺었다.

정유왜란 때 부모상을 당하여 시묘살이를 하는데 적이 침입하였으나 묘소를 사수하자 적도 감동하여 물러갔다.

광해군의 혼정이 계속되던 1617년에 진사로서 폐륜에 대해 통탄하는 상소를 올려 선비의 정신을 보였으며 문중 사우효동사(孝洞祠, 손불면 동암리 소재, 현재는 없음)에서 배향하였다.

아내는 죽산안씨 사환의 딸이다.

◆ 정 즈(鄭 櫟)

1627~1713 본관 진주. 자 사달(士達). 시조의 24세손. 산하(山河)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다.

아내는 남평 문행의(文行義)의 딸이다.

◆ 정 즈(鄭 澱)

1715~1782 본관 나주. 자 군석(君錫). 호 사춘재(四春齋). 시조의 20세손.

통덕량 동영(東英)의 아들. 천성이 순박하고 효우가 독실하였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를 살았고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모시지 못함을 아쉬워하던 그는 어머니 7순 제(祭)에 추복(追服) 3년을 하였다.

현(縣)과 도에서 천하여 이 사실이 임금께 알려졌고 예조에 명하여 해동삼강실록(海東三綱實錄)에 사실이 기록 되었다.

아내는 양성이씨(陽城李氏, 1716~1783) 창식(昌植)의 딸이다.

◆ 정지소(鄭之韶)

본관 진주. 자 숙화(叔華). 기시조 시양



(時陽)의 15세손. 우의정 분(苯)의 손자. 광로(光露)의 둘째 아들. 단종의 폐위에 불복하고 장흥(長興)에서 숨어 살던 아버지 광로(1425년생)의 곁을 떠나 대동면 금곡리 동막동에 정착하여 충장공분과의 합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광산김씨 이익(李益)의 딸이다.

◆ 정지아(鄭之雅)

1421~1494. 본관 나주. 자 덕상(德商). 호 일암(逸巖). 시조 해(諧)의 11세손. 가신의 7세손. 훈(薰)의 맏아들. 나주정씨 합평군 입향조-1421년 서울의 남산밑 입점동(笠店洞)에서 태어나 1450년(세종 12) 문과에 급제하여 계공랑(啓功郎), 돈녕부직장(直長)이 된 후 이조정랑, 특제(特除)로 호남경차관(湖南敬差官)이 되었다. 1455년 단종의 폐위에 항거하여 벼슬을 버렸고, 1457년 아버지가 금성대군 유(錦城大君 瑜)와 함께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남해(南海)로 귀양 가자 배소까지 같이 가 공양하였고 10년만에 귀양이 풀리자 과천의 관악산중(冠岳山中)에 은거하였다.

1472년 아버지가 타계하자 3년 복을 마치고 가족을 이끌고 남하하여 관향(貫鄉)인 나주의 노안면 금안동(金鞍洞)과 가까운 석화산(石花山) 아래, 현 월야면 양정리 양지(陽地. 당시 갈동면-葛東面)에 정착하여 지유공파(指諭公派)의 합평 입향조가 되었다. 그는 수양(首陽)의 절조를 자처하며 “채미가(採薇歌)”를 외웠고 또 두우부(杜宇賦)를 지어 자기의 심회를 달랬다. 그가 지은 “두우부”가 전한다.

“슬피 우는 소쩍새여 슬피 우는 소쩍새여

화산의 명월 동풍의 밤이로다

애소 소리 구슬픔에 새벽달은 기우는데 이곳에 온 고신 잠을 이룰 수 없네

杜宇啼杜宇啼

花山明月東風夜

哀訴聲長殘月白

孤臣到此眠無假”

매양 석화산의 바위에 올라 영월(寧越)을 향해 망곡하니 후인들이 그 바위를 망월암(望越岩), 마을 이름을 승충동(崇忠洞)이라 하였다.

1494년에 74세로 타계하였으며 묘는 나산면 용두리 승충동 간좌에 있다.

아내는 전주리씨(全州李氏) 익녕군 이(益寧君 移. 정종대왕의 아들)의 딸, 안동김씨(安東金氏) 판중추 종숙(判中樞 宗淑)의 딸이다.

◆ 정지영(鄭智榮)

1839~1909 본관 나주. 처음 이름 인영(仁榮). 자 현홍(賢弘) 시조의 24세손. 연복(鍊復)의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1893년(고종 30)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냈고 가선대부동지에 올랐다.

아내는 평강채씨(平康蔡氏), 이천서씨 진권(鎭權)의 딸이다.

◆ 정 직(鄭 稷)

1595~1641 본관 진주. 자 장경(長卿). 호 묵우(默愚). 시조의 23세손. 도사 민득(敏得)의 양아들. 생부 진사 희득(希得). 효성이 지극하였고 월사 이정구(月沙 李廷龜)의 천으로 별제(別提)를 제수 받았다. 정묘호란(1627) 때 이시우(李時佑), 생원이 암(李 鼐)과 같이 임련(林堧)을 도와 의병을 일으켰고 병자호란 때 우산 안방준(牛山 安邦俊)이 의병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막하로 들어가 의병 도유사(義兵都有司)가 되어 의병을 인솔하고 여산(礪山)에 이르렀을 때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후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 정 진(鄭 縉)

1551~1598 본관 나주. 자 자의(子儀). 호 고정(高亭). 시조의 16세손. 동추(同樞) 사헌(士賢)의 아들. 일재 이 항(一齋 李

恒)의 문하생이며 건재 김천일(健齋金千鎰)과 교의(交誼)가 가장 두터웠다.

1588년 무과 병과에 급제하여 사재감첨정(僉正)을 지내다가 1589년 기축옥사에 환멸을 느껴 낙향하여 정자를 짓고 “고정(高亭)”이라 편액하였다.

1592년 임진란이 일어나자 재종숙(再從叔) 응(鷹)과 홍(鴻) 형제와 창의하여 고경명과 합세하였고 특히 청계 양대박(淸溪梁大樸)과 학유 유팽로(學諭 柳彭老)와 혈맹하였다.

7월 금산전에서 고경명과 유팽노 등이 전사하고 크게 패전하자 고향으로 돌아와 1593년 재종숙, 그리고 해보의 정충량(鄭忠良), 정득량(鄭得良) 형제와 함께 거의하여 6월에 전라병사 선거이(宣居怡)와 합세하여 가등청정(加等淸正)이 지키고 있는 진주성을 탈환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재종숙과 다시 거의하여 김명원(金命元)의 막하로 갔고 우수사 이억기 진으로 배속되어 재종숙은 좌우보익장(左右輔翼將), 그는 유진장(留鎭將)의 직책을 맡아 전선 10척을 이끌고 한산(閑山), 온라(溫羅), 두섬을 지켰는데 당항포 싸움에서는 좌수사 이순신 군진과 합세하여 왜장을 살해하는 등 많은 전공을 올렸고 이어 여러 번 싸움에서 승전하니 이순신이 장계를 올려 훈련원 부정(副正)에 올랐고 안골포(安骨浦) 싸움에서는 적선 26척을 격파하고 9월에 재종숙 월탄 정기수(月灘 鄭麟壽)와 같이 전선(戰船)을 이끌고 벽파정(碧波亭)에서 싸워 크게 이겼고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분전하다가 수군통제사 이순신, 재종숙 응, 홍과 함께 순국하였으며 노비 충남(忠南)등이 초혼하여 월야면 영월리의 석화산 북록에 장사하였다.

1778년부터 오산사(鰲山祠, 월야면 용월리 소재)에서 배향하며 1801년 병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아내 광산김씨는 무자녀로 일찍이 사별하

였고 옥천설씨(玉川薛氏)는 진사 응룡(應龍)의 딸로 정유재란 때인 1597년 9월 20일 나산면 용두리 죽사동에서 피란을 하다가 왜적에게 사로 잡히는 몸이 되려하자 응, 홍의 아내와 함께 높은 바위에서 뛰어 내려 자결한 “죽사동의 3열부” 중 한 사람이다.

◆ 정 진(鄭 埈)

1719~1791 본관 나주. 자 대연(大然). 호 만은(晩隱). 시조의 20세손. 동욱(東旭)의 맏아들. 1762년(영조 38) 명경과 병과로 급제하여 용양위 부사정(副司正), 성균관 학유(學諭), 태학(太學), 훈도와 예문관 봉교(奉敎), 승정원 주서(注書)를 지냈다.

1766년에 성균관 전적(典籍), 1767년에 성균관 직강을 역임하였고 1775년에 어회장군 행 용양위 부사직(御侮將軍行龍讓衛副司直), 동년 9월에 통훈대부 병조좌랑에 올랐고 1776년에 전라도사(全羅都事), 1777년(정조 1)에 춘추관 기주관(記注官)으로 전라도 복시(復試) 경차관(敬差官), 1778년에 통례원 좌통례(左通禮)에 올랐고, 1779년에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1788년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를 역임했다.

아내는 고흥유씨(高興柳氏) 필백(弼栢)의 문화유씨(文化柳氏) 인기(仁琦)의 딸이다.

◆ 정진복(鄭震復)

1782~1815 본관 나주 자 내진(乃振). 호 양성당(養性堂). 시조의 23세손. 재성(再成)의 양아들. 생부 재억(再億). 효가 지극하여 양가의 부모를 극진히 모셨으며 효로 중 동몽교관을 제수 받았고 명정의 은전을 입었다.

절부 죽산안씨(1783~1815)는 중로(仲魯)의 딸로 양가의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남편이 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자 땀맛을 보고 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넣는 등 지극한 간호를 하였으나 1815년 4월



12일에 타계하자 애절히 호곡하였고 6월 10일에 장례를 지낼 제수 등을 손수 점검하고 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따라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 하였다. 이리하여 남편과 같은 혈(穴)에 묻혔으며 이 사실을 알려 포상하고 기전(基田) 마을 앞에 삼강문을 세웠다.

◆ 정창수(鄭昌洙)

1847~1923 본관 진주. 자 몽서(夢瑞). 호 조은(釣隱). 종거(鍾巨)의 다섯째 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 하였고, 1875년 무과에 급제하여 1888년에 부사과를 지냈다.

◆ 정창엽(鄭昌業)

본관 압해. 엄다면 성천리에서 태어났고 노년에 나주시 문평으로 이거하였다. 조선조 고종 때 대원군에게 총애를 받은 국창으로, 관소리 서편제의 제1인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

◆ 정창후(鄭昌後)

1663~1756 본관 나주. 자 효숙(孝叔). 호 순암(純菴). 시조의 19세손. 사헌부 감찰 계(繼)의 증손. 수직(壽職)으로 가선동지중추부사(嘉善同知中樞府使)에 제수되었다.

아내는 평해오씨(平海吳氏) 명국(鳴國)의 딸이다.

◆ 정철주(鄭鐵柱)

1544~1597 본관 나주. 호 매헌(梅軒). 시조의 14세손. 현감 이하(以夏)의 아들. 임진란때 선전관에 제수되어 조령(朝令)을 삼남(三南)에 발하였고 159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군기시 주부(軍器侍主簿)를 지냈다.

아내는 창녕조씨(曹氏)다.

◆ 정청석(鄭靑石)

본관 진주. 자 세휘(世輝). 시조의 18세손. 좌참찬 계동(繼童)의 셋째 아들.

보공장군(保功將軍)을 지냈다.

아내는 참판 완산 유윤덕(柳潤德)의 딸이다.

◆ 정충량(鄭忠良)

1556~1614 본관 진주. 자 현중(顯仲). 호 송계(松溪). 시호 충렬공(忠烈公).

시조의 20세손. 첨지 승정(僉知承貞)의 아들. 어려서부터 담력이 뛰어나고 궁마(弓馬)에 능했으며 임진란이 일어나자 사촌 아우 득량(得陽)과 함께 장성 남문창의(長城南門倡義)에 참여했고 자진하여 김명원(金命元)의 막하로 갔으며 김명원은 우수사이역기(右水使 李億祺) 휘하에 배속시켰다.

이역기 우수사는 그의 지략과 용맹을 알고 종사관(從事官)에 임명했다. 이무렵 좌수사 이순신이 구원병을 청해 왔는데 우수사가 전라수영의 관할 수역(水域)넘기를 주저했다. 이 때 충량이 “호남은 우리나라의 보루요. 호남 없이는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소. 위중한 이 때에 어찌 관할 경계만 따질 수 있소” 이 말에 이우수사가 용단을 내려 병선 25척을 이끌고 당항포(唐項浦) 앞 바다에 이르러 연합하여 승전하였다. 견내량(見乃梁) 전투에서는 도망치는 적을 추격하여 적장을 사살함으로써 대승을 거두었고, 안골포(安骨浦) 싸움에서는 우리 전선과 적선이 백병전이 벌어졌는데 이때도 지략과 용맹으로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 사실은 장성 남문창의비에도 기록되어 있다.

1592년 8월에 귀향하여 형제가 남문 의병청을 방문하였고 11월에는 의병 50명과 군량 30석을 모아 남문 의병청에 보낸 후, 다시 도원수 김명원 막하로 갔다.

1593년초 군기사(軍器使)가 되어 의주(義州)로 가서 왕을 호위하였고, 6월에 별시(別試)로 실시한 무과 을과에 등과한 후 김명원 막하에서 수문장(守門將)을 지내다가 사임하였다.

이후 권율이 충량의 지략과 전공을 듣고

충청도 수사 정 걸(鄭傑) 막하로 보내 파괴된 전선과 군기를 수리하는 책임을 맡아 완수했고 1594년 훈련원 주부에 제수되어 전라우수영에 배속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한산전(閑山戰)에서 원균(元均)이 패하여 전사하고 이역기 역시 전몰하자 그가 흩어진 군진을 수습하여 전멸의 위기를 넘겼고, 이순신이 부임하여 병선과 군기를 수리하는 책임자로 임명하자 빠른 시일 내에 소임을 다하였으며 노량해전(露梁海戰, 울돌목싸움)때는 거제현령 안위(安衛)와 합세하여 돌격전을 펴 적의 예봉을 꺾었고, 1598년 예교(曳橋) 전투에서는 적선 25척을 격침시켰으며 11월 노량해전에서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도 끝까지 싸웠다. 난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1년이상 치료해야 하는 중상이었다. 1605년 선무원종공신 2등훈에 책록되고 1801년에 창건한 지산사(芝山祠, 해보면 금계리 소재)에 배향되고 후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선무원종공신록권이 전해오고 있다.

아내는 장사랑 천안 전부희(全富希)의 딸이다.

◆ 정 치(鄭 穉)

1593~1639. 본관 진주. 자 장유(長儒). 호 탁영(濯纓). 시조의 23세손. 진사 희득(希得)의 아들. 광해조인 1618년 이해 등이 함평향교에 모여 폐모 찬동의 상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현감 박정원(朴鼎元)등이 합세하여 그들을 두들겨 함평현 밖으로 내쫓았다. 후에 그와 박정원은 원배되고 또 10년 동안 과거를 보는 자격이 정지되었다. 1623년 인조 반정후 복권되었으나 아버지의 병환과 별세, 그리고 시묘살이 등으로 사마시에 응시하지 못했다.

아내는 주부를 지낸 양성 이경상(李卿祥)의 딸이다.

◆ 정치련(鄭致鍊)

1819~1875 본관 나주. 처음 이름 만흥(晩興). 자 경호(敬皓). 호 농은(農隱). 시조의 24세손. 수직으로 가선 동추를 받은 방옥(邦郁)의 아들, 힘써 재산을 모아 궁핍(窮恤)하였고 자양서원(나산면 우치리 소재, 현재는 없음)에 임거(任居)하며 주자를 숭모하였으며 병인양요(丙寅洋擾)에 창의하였으나 적을 퇴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농원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 사실이 함평군지, 삼강록에 실려 있고 사후에 예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이천서씨 동지(同知) 응백(應伯)의 딸, 과평윤씨 감역(監役) 양진(陽鎭)의 딸이다.

◆ 정태일(鄭泰一)

본관 진주. 자 지형(之珩) 1554~1615 시조의 21세손. 수군절제사 종순(宗舜)의 다섯째 아들. 선무랑(先務郎)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 김대화(金大華)의 딸이다.

◆ 정태후(鄭泰垆)

1694~1754 본관 나주. 처음 이름 인후(仁垆). 자 내보(來甫). 호 화산처사(花山處士). 시조의 20세손. 동계(東啓)의 양아들. 생부 동만(東萬)의 둘째 아들. 수암 권상하(遂菴 權尙夏)의 문하생이며 도암 이재(陶菴 李緯)와 종유하였고 1718년(숙종 44) 성균관진사에 입격하였다. 1721년 신축사화(辛丑土禍)를 보고 환멸을 느껴 귀향하여 석화산 아래서 풍영자오(諷詠自娛)하며 일생을 보냈다.

1760년 이조정랑에 추증되었다.

아내는 청도김씨(淸道金氏, 1696~1771) 생원 삼석(三錫)의 딸이다.

◆ 정택동(鄭宅東)

1709~1788 본관 진주. 자 사안(士安). 호 월죽(月竹). 기시조 시양의 26세손. 생부 이증(以曾). 양부 석증(奭曾).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평생을 마음 속으로 괴로워하며 매일 묘를 살피고 불효를

한탄하며 슬퍼하니 향민이 묘소가 있는 곳을 시묘동이라 하고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칭송하였다.

◆ 정택명(鄭澤明)

1739~1822 본관 진주. 자 혜원(惠源). 호 나재(懶齋). 수택(守澤)과 함평 이씨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다.

학술과 기예가 뛰어났으며 이석간(李石幹) 등 당시 명사(名士)들과 교유가 깊었고 천성이 효성스러워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함은 물론 상례나 제례를 가례(家禮)에 좇아 행하니 향인은 선생이라 일컬고, 학자는 호남의 큰선생이라 부르니 많은 문도가 모여들었으며, 후진 양성을 필생의 업으로 삼았다.

아내는 장택 고응민(高應旻)의 딸이다.

◆ 정택주(鄭宅周)

1633~1716 본관 진주. 자 인백(仁伯). 호 한취당(寒翠堂). 시조의 24세손. 별제직(稷)의 넷째 아들. 1676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숙종의 손위 때 병사 민용(兵使閔鏞), 병사 구봉창(具鳳昌) 등과 항소를 한바 있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상서 김진구(尙書 金鎭龜)가 “용퇴 정신을 높이 산다.”는 찬양의 글을 보냈었다. 1681년 정익주(鄭翊周)등 4명이 정유재란 때 순절한 월악의 팔열부녀(八烈婦女)에게 정려를 내려 달라는 상소를 올려 동년에 윤허를 받았다.

1694년 선전에 복관되었고 이어 구례현감을 지냈다.

아내는 부호군 전주 리형익(李亨益)의 딸이다.

◆ 정필신(鄭弼臣)

숙종 38년인 1712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왕으로부터 격려의 글을 받았다.

◆ 정하기(鄭夏基)

1676~1716 본관 진주. 자 태숙(泰叔).

호 성재(省齋). 기시조 시양의 26세손. 석후의 둘째 아들이며 몽표(夢彪)의 양자로 입적했다. 성리학에 밝았으며 생부모와 양부모를 지극히 모시는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고 종친계를 창설하여 선영을 가꾸고 상혼례에 두루 상부상조하는 향풍(鄉風)을 일으켰다. <함평지 효행편 44쪽. 기성지 효행편 14쪽>

아내는 장흥 고가상(高可相)의 딸이다.

◆ 정 함(鄭 緘)

본관 함평. 일명 함(涵). 시조 언겸(彦謙)의 5세손. 예부상서 신량(臣良)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상서, 문하시중, 좌정승(左政丞)을 지냈으며 충렬왕(忠烈王) 때 함성군(咸城君)에 봉작되었다.

◆ 정함도(鄭咸道)

1353~1421 본관 진주. 시조의 14세손. 진양군 황(晉陽君 璜)의 아들. 1393년(태조 2)에 하교한 원종공신(原從功臣) 595명 중의 한 사람이며 1400년(정종2) 함중현령(咸從縣令)을 제수 받았으며 1405년경 관직을 떠나 장성군 삼서면에서 월야면 월악리 내동(內洞)으로 이거 정착하여 진주정씨 황과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1413년 그의 회갑 때 아들 유(維, 고산현감), 면(綿, 황성현감), 주(紬, 무안현감)의 4현인(四縣印)을 마을 앞의 정자에 걸었다하여 이 정자를 뒷 사람들이 사인정(四印亭)이라 이름하였다.

아내는 함평노씨(魯氏) 한림 유안(翰林有顔)의 딸이다.

◆ 정함일(鄭咸一)

1536~1612 본관 진주. 자 덕임(德任). 시조의 21세손. 사평 종필(宗弼)의 맏아들. 청암도찰방(靑巖道察訪)을 지냈다. 아내 함평이씨는 훈도 폭(幅)의 딸로 정유재란 때 서해로 피란을 떠났다가 칠산바다에서 왜적의 손에 사로 잡힐 지경에 이르자 같이 배에 탔던 부녀자 12명과 함께 바다에 뛰

어들어 자결함으로써 순절을 지켰다. 1681년 월야면 월악리 8부녀 순절을 기리는 정려가 내려 배향하고 있다.

◆ 정현보(鄭賢輔)

1546~1597. 본관 진주. 자 성좌(聖佐). 호 동암(東庵). 시조의 17세손. 통덕랑 적선(積善)의 아들. 문예가 출중하였으며 1576년 사마시 생원과에 입격하였고 임진란이 일어나자 정황수(鄭凰壽)와 함께 창의하여 최충의공(崔忠懿公) 막하로 들어가 이현전(梨峴戰)에서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는 무안현에 의병청을 설치 의병과 군량을 모아 다경포(多慶浦, 현무안군 운남면)와 주룡강(朱龍江) 전투에서 왜적을 다수 참획하였으며 목포전(木浦戰)에서 힘을 다해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전사하였고 선무원종공신록에 채록되었다. 1867년에 9충절로 정려가 내렸고 1870년에 상곡사(上谷祠, 학교면 죽정리 정자동 소재)를 창건 배향하고 있다.

아내는 광산김씨 생원 세태(世泰)의 딸이다.

◆ 정현수(鄭賢守)

본관 함평. 문하시중을 지냈고 영풍부원군(永豐府院君, 현 함평읍의 일부 지역)에 봉작되었다.

◆ 정 형(鄭 炯)

본관 함평. 평장사(平章事)를 지냈다.

◆ 정형명(鄭亨明)

본관 진주. 시조의 28세손. 사과 수성(守城)의 아들. 절충장군 중추부사를 지냈다. 아내는 신평 송천백(宋天伯)의 딸이다.

◆ 정형시(鄭亨時)

1720~1788 본관 나주. 처음 이름 형관(亨觀). 자 현첨(賢瞻), 호 신희재(愼熙齋). 시조의 21세손. 태후(泰壚)의 둘째 아들. 도암 이재(陶菴 李緯)의 문하생이며 용곡

안봉운(龍谷 安鳳胤)과 도의교를 맺었다. 향시(鄕試)에 한 번 장원하였고 9 번도회(都會)에 오른 실력을 가졌으나 과거장의 분경(奔競)을 보고 과거를 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여 효우 경학(孝友 經學)이 당세에 빛났다.

아버지의 병환에 혈지 연명(血指 延命)케 하고 어버이 상에 6년간 시묘를 살았으며 시묘기간 호랑이가 호위하였다는 말이 비에 새겨 전해온다. 영조가 승하하자 집 뒷산에 단을 쌓고 망곡하였으며 3년간 복을 입었다. 1873년(고종 10)에 효로 명정(銘旌)되고 동몽교관 통훈대부 사헌부감찰(監察)을 증직받았다.

아내는 문화유씨(文化柳氏, 1722~1786) 진사 광춘(光春)의 딸이다.

◆ 정호례(鄭好禮)

1581~1643 본관 진주. 자 사중(士中). 호 운곡(雲谷). 시조의 23세손. 별제 절(轡)의 아들. 호인(好仁)의 아우로 신재 김집(愼齋 金 集)의 문하생이다.

1597년 정유재란 때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피란을 떠나던 중 칠산바다에서 적을 만나 형과 함께 포로가 되어 일본 아과주로 끌려가 포로생활을 하다가 끝까지 절개를 지켜 3년만에 한국하였다. 정묘호란(1627)을 당하여 김장생(金長生)이 불려 창의(倡義)를 권하니 당시 흥덕에 살면서 참봉 이기문(李起文)과 같이 의병을 일으켜 호응하고 무장 동백정(冬栢亭)에서 의곡(衣穀)을 모아 강화도 행재소(行在所)까지 배로 운반하고 왕을 호종하였으며 이 공으로 관직에 나가 양성현감(陽城縣監)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역시 양만용(陽曼容), 최 온(崔 蘊) 등과 함께 창의하여 청주(淸州)까지 의병을 이끌고 갔으나 화의가 성립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청풍김씨 군수 진(津)의 딸이다.

◆ 정호인(鄭好仁)



1579~? 본관 진주. 자 영백(榮伯). 호 은와(隱窩). 별제 절(幃)의 맏아들. 시조의 23세손. 1597년(정유재란) 9월 26일(음력)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피란을 떠나던 중 칠산(七山)바다에서 적장 봉차하가정(奉次賀家政)의 휘하 별장 삼소칠랑(森小七郎)이 거느린 전함이 나타나 배를 에워싸자 할머니 함평이씨, 어머니 영광김씨, 아내 함평이씨는 “적에게 사로 잡혀 수모를 당하느니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며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으며, 아버지는 항복을 권하는 왜적에게 도리어 침략자의 만행을 꾸짖으니 그들이 양팔을 자르고 끝내는 목숨을 앗았다. 그와 동생 호례(好禮)는 포로가 되어 일본 아와주(阿波州)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데 왜인들이 그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조국과 내 아버지를 죽인 너희들 에게는 단 한자의 글자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그 보복으로 15일간을 굶겼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버티었으며 이 충효정신이 적장을 감동시켜 3년만에 귀국을 허락하였다. 부산에 도착한 형제는 적의 지형과 병세(兵勢)를 적어 복수의 계획을 상소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3년 추복(追服)을 하였다.

1597년 8월 12일부터 1599년 7월 23일까지의 일기를 묶은 “정유피란기(丁酉避亂記)”가 전해오는데 우리는 이 일기에서 19세의 장하디 장한 조선선비의 참정신과 정유재란의 참상을 볼 수 있다.

이 일기는 호례의 종손 성진(性鎭)이 보존했는데 6, 25 전쟁 때 소실의 위기에 놓였으나 잘 보존하여 1972년 월야면 월악리에 있는 팔열부녀 정려각을 도 문화재로 지정할 때 첨부 제출되어 친필본임이 확인되었고 현재 전남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86년 5월에 국역본을 발간하였다. 후배(後配)는 경주이씨다.

◆ 정 홍(鄭 鴻)

1565~1598 본관 나주. 호 애송헌(愛松軒). 시조의 15세손. 주부 응의 아우. 충좌 위사정 원주(元柱)의 아들. 1588년에 형 응과 함께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을 지냈고 임진란이 일어나자 형 응과 함께 금산전에 참여하였으며 이어 우수사 이억기 휘하의 우익장(右翼將)이 되어 이순신과 합세하여 당항포, 견내량전투에서 적수 십명을 베었고 안골포 전투에서는 적선 수십 척을 격파하였다. 이 전공으로 형과 함께 주부에 올랐고 1598년 노량해전에서 분전하던 중 적탄을 맞아 전몰하였다. 1778년부터 오산사(鰲山祠. 함평군월야면 용월리 소재)에서 배향하며 1801년 병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아내는 광산김씨로 죽사동 3열부 중 한사람이다. <위의 광산정씨 항을 볼것>

◆ 정홍주(鄭弘宙)

본관 나주. 자 여관(汝寬). 호 심재(心齋). 시조의 17세손. 계공랑 응시(應時)의 아들. 조산대부 수제용감 부정(朝散大夫守濟用監副正)을 지냈으며 나주군에서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석지(石池)로 이거 정착하여 대호군파(대호군파.과조-가신의 셋째 아들전-侄)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김해김씨 서(瑞)의 딸이다.

◆ 정화규(鄭樺奎)

1823~1900 본관 진주. 자 대圭(大圭). 호 지촌(之村). 시조의 29세손. 중렬(重烈)의 맏아들. 돈녕부 돈녕, 학부협판(學部協辦)을 지냈다. 아내는 장흥 고시혁(高時赫)의 딸이다.

◆ 정화석(鄭華錫)

1731~1816 본관 동래. 호자 동엽(東曄)의 증손. 식년 문과 병과에 합격하여 장령(掌令)을 지냈다. 그는 “충효”를 신조로 삼고 집에 있을 때는 부모의 가르침을 따랐고 벼슬자리에 있을 때는 맡은 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충효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 정화영(鄭華榮)

1860~1922 본관 진주. 자 익삼(益三). 호 월로(月老). 시조의 33세손. 일원(一源)의 둘째 아들. 돈녕부 돈녕을 지냈다. 아내는 안동 권종희(權鍾希)의 딸이다.

◆ 정환세(鄭桓世)

본관 진주. 호 월정(月亭). 최익현 의병 부대에서 활동하였다.

◆ 정황수(鄭凰壽)

1562~1628 본관 나주. 자 영수(靈叟). 호 월봉(月峯). 시조의 15세손. 현감 이하(以夏)의 둘째 손자로 면성 월천리에서 태어났으며 우계(牛溪)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91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宣傳)으로 출사하였고 1592년 3월 궁궐에서 숙직을 하던 중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못함이 꿈에 보여 고향에 돌아와 병 간호를 하였다. 4월에 왜적이 침범하였고 왕이 의주로 피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며 형인기수(麒壽)와 동생 응수(熊壽), 그리고 중제 곤수(鵬壽), 동지 김예수(金禮秀), 정현보(鄭賢輔), 배명(裴蒙), 이경필(李景苾), 박언상(朴彦相) 등과 같이 격문을 띄워 수 백의 의병과 군량을 모아 5월 20일에 전라감사 이광(李洸)의 군진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광이 싸우지 않고 피하기만 하자 이에 항의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며 7월에 군이 수원에 이르자 패할 것을 알고 용인으로 가지 않고 독성(禿城)을 지켰는데 삼도(三道)의 군사가 분쇄(奔潰)하자 흩어진 군졸 500여명을 수습 최경회(崔慶會) 의병진과 합류하여 최경회를 장수로 삼고 자기는 부관으로 자처하며 장수(長水) 쪽으로 나아가 금산과 무주(茂朱)의 적을 격파하였다. 이현(梨峴)에 주둔하던 적이 남하함을 막기 위하여 유격장(遊擊將)의 직분으로 연해의 여러 고을을 거쳐 어머니와 함께 무안성으로 돌아와 의병청을 설치하고 병기

를 수리하였다. 1593년 토적(土賊) 이초일복(李超一復)이 포도(浦島)에서 연안에 출몰하므로

순찰사 권율이 임치진(臨淄鎭)현 무안군 해체면 임수리)을 지키게 하였다. 그가 정현보, 박의선(朴義善)과 다경진 후곡에 군사를 매복시켜 엄습 목포까지 추격하여 이초일복 등을 사살하였으며 1597년 통제사 원균이 전사하는 등 왜적이 날뛰니 절영도(絶影島)에 나아가 매복하였다가 왜적의 후원군을 들이쳐 대파시켰으며 이공으로 군기시정(軍器侍正)에 올랐고 9월에 왜장 가정좌마조(家政左馬助)가 서해를 경유하여 무안 함평을 함락하니 체찰사 이원익이 그를 도수(都守)겸 방어사로 임명하였다. 그는 군병 530여명을 이끌고 밤을 이용하여 입성한 후 가정의 군대와 여러 번 싸워 물리쳤다. 1598년 11월에 형 기수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돌아 가시자 삼정산(三井山)현 함 평군 엄다면)에 장사지내고 묘하에서 3년을 읍혈(泣血)하였고 이후 부모 묘소 결인 현 엄다면 송노리 송촌(松村)으로 이거 정착하였다. 1608년 해랑(海浪)의 적이 연변에 창궐하니 병조판서 약봉 서소연(藥峰徐消筵)이 천거하여 충청방어사에 임명되었으며 수사 이간(李侃), 첨사 이경필(李景苾), 별장 박신오(朴信吾), 고 봉(高鳳)등과 안흥(安興)에서 토적하여 20여척을 격파하였다. 이 공으로 가선에 올랐다.

광해군이 즉위하고 국정이 문란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고 1618년 이이첨(李爾瞻)의 무리인 이해(李楷)가 유림들의 폐모 상소를 올리려고 향교에서 획책하자 그는 병중이라 아들 위(緯)와 기(紀)를 시켜 동지 배명, 박정개(朴廷開)와 함께 북을 울리며 내쫓았다. 인조 반정 후 무재동지(武宰同知)에 가질(加秩)되었으나 병을 빙자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1708년 월천사(月川祠)에 배향되었고 도내 유림의 공의로 금산 대첩사(錦山大捷祠)에 배행(配行) 하였



다.

아내는 남평문씨(南平文氏, 1560~1587) 통덕랑 명원(命元)의 딸로 2남을 두었고 영광정씨(靈光丁氏, 1573~1645) 관관 흠(欽)의 딸로 3남을 두었다.

◆ 정 회(鄭 繪)

1564~1592 본관 나주. 자 이후(以後). 호 송계(松溪). 시조의 16세손. 선무랑 학령(鶴齡)의 아들. 음사로 봉숙시(奉宿侍) 참봉을 지냈으며 임진란이 일어나자 삼종제(三從弟) 민수와 창의하여 의병 105명을 모집 행재소로 가려고 준비했으나 조현이 의병을 모집한다는 격문을 영호남에 보내자 그의 막하로 가서 편장(偏將)이 되어 청주 싸움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고 1592년 8월 18일 금산 전투에서 적 수십 명을 베었으나 중과부적으로 민수와 함께 장열히 순국하였다. 선무원종 3등공신에 올랐고 1778년부터 오산사(鰲山祠)에서 배향하며 1801년에 호조좌랑에 추증되었다.

아내는 여산송씨(礪山宋氏) 통덕랑 익조(翊祖)의 딸이다.

◆ 정효득(鄭孝得)

본관 진주. 자 자민(子閔) 시조의 22세손. 부장 함일(咸一)의 둘째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아내는 무과에 급제한 원종공신인 평택임길룡(林吉龍)의 딸이다.

◆ 정효창(鄭孝昌)

본관 함평. 시조의 12세손. 면천군수(沔川郡守. 현 충남 당진군)를 지낸 후 정착하자 함평의 친척들도 따라 이거하였고 그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

◆ 정후현(鄭厚鉉)

본관 진주. 호 계정(桂亭). 김태원 의병부대에서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치사 당했다.

◆ 정희도(鄭希道)

1642~1694 본관 압해. 자 수경(修卿). 호 모재(慕齋). 1670년경 무안에서 엄다면 성천리 용흥으로 이거 압해정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서흥김씨, 무안박씨 예길(禮吉)의 딸이다.

◆ 정희득(鄭希得)

1572~1640 본관 진주. 자 자길(子吉). 호 월봉(月峯). 시조의 22세손. 찰방 함일(咸一)의 둘째 아들. 경득(慶得)의 아우. 키가 흰출하며 특히 시(詩)에 능했다.

정유재란 때 마을 사람들과 피란을 떠나다가 칠산바다에서 적을 만나자 어머니, 형수, 아내, 누이동생은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고 그는 형과 함께 포로가 되어 일본의 아파주 저산성(阿波州猪山城)으로 끌려갔다. 그는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 높은 학덕으로 일인들을 깨우쳤으며 끝내 적장가정(家政)을 글로 감복시켜 형을 비롯한 여러 명과 같이 귀국하였으며, 부산에 도착하여 일본의 정세와 병세, 풍습과 지형 등을 왕에게 알리는 상소를 올렸고 1603년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사마시에 응시 합격하였으나 대과에는 죄인을 자처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618년 인목대비 폐비 때는 천하에 없는 폐륜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당시 함평현감 박정원(朴鼎元)과 합세하여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다가 그는 10년간 과거 보는 자격이 박탈되었고 정원은 귀양을 갔으며 1623년 인조의 등극으로 죄가 풀렸고 박정원의 신원 상소를 올렸다. 1804년에 창건한 월호사(月湖祠. 월야면 월악리 소재)에서 배향한다. 포로생활을 하면서 기록한 일기 “해상록(海上錄)”에 400여편의 자작시가 기재되어 오늘에 전한다.

◆ 정희우(鄭希禹)

1667~1714 본관 진주. 자 일우(一遇).

시조의 24세손. 문흥(文興)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다.

아내는 옥천 조진창(趙晉昌)의 딸이다.

◆ 조계생(趙季生)

1508~1558 본관 한양. 호 행은(杏隱). 진사 원기(元基)의 둘째 아들. 증좌위 부사직(副司直)을 지냈으며 을사사화의 화를 피해 형 맹생(孟生)과 함께 경남에서 손불면 북성리에 이거하였다.

묘소는 대동면 연암리 구적동에 있으며 아내는 양천허씨(陽川許氏)다.

◆ 조광록(趙光祿)

1744~? 본관 한양. 자 자건(子建). 시조의 18세손. 태좌(台佐)의 둘째 아들. 아버이 상에 6년간 시묘를 살았으며 효행으로 예조에 천거하여 통정대부를 증직 받았다. 읍지에 이 사실이 실려 있다.

아내는 고성정씨(固城鄭氏) 비운(丕運)의 딸이다.

◆ 조광지(趙光智)

1581~1662 본관 한양. 자 사병(士明). 시조의 14세손. 참봉 몽룡(夢龍)의 넷째 아들. 음사로 출사하여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지냈으며 수직으로 첨지중추부사를 제수 받았다.

아내는 밀양박씨다.

◆ 조맹생(趙孟生)

본관 한양. 시조의 9세손. 성균관진사원기(元基)의 맏아들. 이조정랑(吏曹正郎)을 지내다가 명종조 을사사화(1545)직후 벼슬을 버리고 1546년경 아우 계생(季生)과 함께 경남에서 함평군 손불면북성리(北城里)로 이거 정착하여 한양조씨 사평공과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명종조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아내는 함평이씨 절도사 정(挺)의 딸이다. 그의 묘소는 손불면 북성리 사기마을 뒷산에 있다.

◆ 조몽린(趙夢麟)

본관 한양. 자 경서(景瑞). 시조의 13세손. 참봉 세구(世球)의 아들. 선조조에 무과 급제하였고 임진란때 왕을 호종하며 많은 책략을 세우는 데 공이 컸으며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 조사경(趙士景)

1584~1671 본관 한양. 자 경숙(景叔). 시조의 13세손. 통덕랑 원서(遠瑞)의 맏아들. 1610년경 임곡 광산동(廣山洞). 현 광주광역시 임곡동)에서 신광면 유천리 미출로 이거하여 덕천공과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장릉(莊陵) 참봉을 봉직하고 귀향하여 둘째 아들 유(瑜)와 함께 장성군 북일면 성덕(聖德)으로 전거(轉居)하였고 88세로 타계하였다. 묘는 출생지 임곡의 양림산(養林山)에 있었는데 실전하였다.

◆ 조시욱(趙時昱)

1772~1851 본관 한양. 자 덕희(德羲). 호 송재(松齋). 시조의 20세손. 백추의 맏아들. 문장과 재예(才藝)가 특출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었다. 1833~1834년의 대흥년에 굶주리는 많은 사람을 구하니 현감이 특천하여 벼슬이 내려졌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아내는 전주최씨와 홍주송씨 일상(日祥)의 딸이다.

◆ 조 식(趙 湜)

1589~1651 본관 한양. 자 여청(汝淸). 시조의 15세손. 준령(峻齡)의 둘째 아들. 문장과 덕행으로 천거되어 사헌부 집의를 지냈다.

아내는 남양송씨 승지 사종(嗣宗)의 딸이다.

◆ 조언기(趙彦麒)

본관 한양. 처음 이름 세함(世誠). 시호 충간공(忠簡公). 시조의 12세손. 충의위 한



종(漢宗)의 둘째 아들로 함평군 대동면에서 나누시 문평면으로 이거하여 나주 입향조가 되었다.

그는 예조정랑을 지냈으며 임진란때 창의하여 왜적과 싸우다 전몰하였고 선무원 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후에 의정부 우찬성에 증직되고 시호가 내려졌다.

아내는 경주이씨다.

◆ 조영춘(趙瑛春)

1786~? 본관 한양. 처음 이름 영혁(瑛赫). 자 내흥(內興). 호 회당(悔堂). 시조의 19세손. 광록(光祿)의 둘째 아들.

당대에 학행으로 이름이 났으며 교수(敎授)를 지냈다. 문집 7권이 있다.

아내는 남평문씨 재표(載彪)의 딸이다.

◆ 조용정(趙龍精)

본관 한양. 시조의 10세손. 부사직 계생(季生)의 아들. 음직으로 출사하여 사헌부집의(執義)를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다.

◆ 조원규(趙源奎)

1775~? 본관 한양. 자 달천(達天)시조의 15세손. 영현(瑛賢)의 아들. 천성이 순후하였고 아버지 상에 6년간 시묘를 살았다. 도에서 천거하여 가선대부를 증직 받았으며 함평지(咸平誌)에 이 사실이 실려 있다.

아내는 상산김씨 용해(龍海)의 딸이다.

◆ 조원규(趙元奎)

1790~? 본관 한양. 처음 이름 한익(漢翼). 자 성찬(聖纘). 시조의 20세손.

영중(瑛重)의 아들. 효우정신이 귀감이 되었고 당세에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수직으로 통정대부를 제수하였다. 함평지에 이 사실이 실려 있다.

아내는 전주리씨 동신(東信)의 딸이다.

◆ 조일신(趙日新)

1688~1752 본관 한양. 자 덕중(德仲).

호 자수재(自修齋). 시조의 18세손. 구명(九命)의 둘째 아들. 문장이 뛰어나고 특히 글씨를 잘 썼으며 효심이 깊어 아버지상에 6년간 시묘를 살았고 향도(鄕道)에서 모두 천거하여 통덕랑에 올랐다.

사후인 1778년(정조 2)에 사헌부 장령에 증직되고 정려가 내려졌다.

아내는 여양진(陳)씨 처도(處道)의 딸이다.

◆ 조 정(曹 廷)

1610~1681 본관 창녕. 시조의 35세손. 인조 2년(1648)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고을 현감을 지낸 후 1660년경 화순에서 함평읍 수호리 해동으로 이거 정착하여 창녕조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 조정민(趙廷閔)

1665~? 본관 한양. 시조의 15세손. 임(임)의 아들.

16세 때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자 목걸을 지키며 약은 물론 똥맛을 보아가며 간호를 하였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에 넣어드려 3일간 연명하게 하였으며 상을 당하여 시묘살이를 하는 등 효의 극치를 보였다. 이 사실이 기성지(箕城誌), 삼강록에 실려있다.

아내는 김해김씨 이룡(爾龍)의 딸이다.

◆ 조정윤(趙正潤)

1826~1905 본관 한양. 자 치화(致華). 시조의 20세손. 두석(杜錫)의 맏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오위장(五衛將)을 지냈다.

아내는 인동장씨 범채(範彩)의 딸, 해평오희상(禧祥)의 딸이다.

◆ 조준령(趙峻齡)

1556~1610 본관 한양. 자 이구(而久). 시조의 14세손. 주부 충서(忠恕)의 둘째 아들. 효. 제. 신(孝悌信)의 3자를 종신토록 마음에 새기며 독서하고 경작하는데 힘을 써 재산을 모았으며 흉년이 들면 굶주

리는 사람들을 규휼하는 덕을 쌓아 주민들이 적선비를 세웠고 수직으로 침지중추부사를 제수 받았다.

아내는 여양진(陳)씨 진사 극득(克得)의 딸이다.

◆ 조진형(趙晉衡)

1719~1784 본관 한양. 자 중백(仲伯). 시조의 18세손. 경래(炅來)의 둘째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을 지냈다.

아내는 여양진(陳)씨 홍의(鴻義)의 딸이다.

◆ 조충서(趙忠恕)

1527~1588 본관 한양. 자 국노(國老). 시조의 13세손. 참봉 세황(世璜)의 아들. 주부(主簿)를 지냈으며 아내는 금성(錦城)박씨 난(蘭)의 딸이다.

◆ 조 호(趙 瑚)

본관 한양. 자 여기(汝器). 시조의 10세손. 함평 입향조 맹생(孟生)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여 참군(參軍)을 거쳐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다.

아내는 장수황씨 생원 내중(乃中)의 딸, 그리고 함평이씨다.

◆ 조홍직(曹弘直)

1695~1788 본관 창녕. 처음 이름 홍팔(弘八). 수직으로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고 효행으로 이름 높았으며 1740년경 담양에서 대동면 금곡리 금적동으로 이거 정착하여 밀직사공파의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 조 환(趙 獫)

1607~1698 본관 한양. 자 중보(重寶). 호 월정(月庭). 시조의 14세손. 사경(士景)의 맏아들. 침추(僉樞)를 지냈으며 92세의 장수를 누렸다.

아내는 장흥고씨다.

◆ 지경생(池敬生)

1623~1696 본관 충주. 자 백공(伯恭). 호 청파(淸坡). 시조의 26세손. 봉상(鳳祥)의 아들. 증 예조 참의. 1640년경 충북 보은에서 엄다면 학야리로 이거 정착하여 충주지씨의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밀양박씨 대희(大禧)의 딸이다.

◆ 지상윤(池象胤)

1825~1896 본관 충주. 현감, 만호를 지냈다.

◆ 지여해(池如海)

본관 충주. 호 송헌(松軒).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을 지키는 때 성 밖으로 여러 번 나가 청병과 싸워 이겼다.

◆ 진 개(陳 玠)

본관 여양. 자 보인(寶寅). 시조의 15세손. 윤온(允溫)의 아들. 성균관진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흥덕장씨 윤철(雲轍)의 딸이다.

◆ 진경후(陳敬厚)

본관 여양. 시조의 14세손. 성균관진사 함(涵)의 맏아들. 1536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部將)을 역임했다.

◆ 진계휼(陳季廔)

1585~1625 본관 여양. 자 은경(殷卿). 시조의 15세손. 윤검(允儉)의 둘째 아들. 1607년 무과에 급제 병절교위(秉節校尉)행 용양위 우부장(右部將)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노씨(魯氏) 팽령(彭齡)의 딸이다.

◆ 진관후(陳寬厚)

본관 여양. 자 완지(緩之). 시조의 14세손. 성균관진사 함(涵)의 둘째 아들로 153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김씨 진사 기서(奇瑞)의 딸이다.



◆ 진대임(陳大任)

1674~1737 본관 여양. 자 중여(重汝).
시조의 18세손. 처형(處亨)의 맏아들.
통덕랑을 지냈으며 아내는 함평이씨 우후
백익(白益)의 딸이다.

◆ 진덕후(陳德厚)

?~1597 본관 여양. 호 금재(錦齋).
참봉 홍(洪)의 아들. 1594년에 무과에 급
제하여 장사랑을 지냈으며 정유재란 때 세
번 싸워 세 번 이기고도 군세가 몰려 끝까
지 싸우다가 9월 19일 전사하였는데 아내
함평이씨(문구-文龜-의 딸)가 초혼하여 장
례를 치루었다.

◆ 진동안(陳東安)

본관 여양. 시조의 16세손. 득성(得姓)
의 아들.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다.

◆ 진만재(陳晩宰)

1650~1695 본관 여양. 자 시경(始卿).
호 봉동(鳳洞). 시조의 19세손. 우도(禹道)
의 맏아들. 1681년 문과에 급제하여 전직,
제주교수(濟州敎授)직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군수 이수익(李守益), 교리 송교명
(宋敎明)과 함께 동괴정(東槐亭)에서 시를
주고 받으며 지내니 사람들이 이 정자를
삼인정(三印亭)이라 불렀다.
1684년에 예조좌랑을 제수 받았고 1685
년에 아버지의 병환에 고향으로 돌아와 간
호를 하였고 상을 당하자 3년간 죽을 먹으
며 애도를 하였다.
아내는 광산김씨 극탁(克鐸)의 딸이다.

◆ 진 상(陳 詳)

본관 여양. 시조의 14세손. 세범(世範)의
맏아들. 어모장군을 지냈다.

◆ 진 송(陳 松)

본관 여양. 시조의 14세손. 세범(世範)

의 둘째 아들.

159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부사용(副
司勇)을 지냈다.

◆ 진수격(陳守格)

본관 여양. 시조의 17세손. 득성(得姓)의
아들.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좌랑, 부정자(副正
字), 군수를 지냈다.

◆ 진시찬(陳時燦)

본관 여양. 시조의 18세손. 군수 수격(守
格)의 아들.
정주목사(定州牧使)를 지냈다.

◆ 진응복(陳應福)

본관 여양. 시조의 14세손. 자 숙여(淑
汝). 만귀(萬貴)의 둘째 아들로 무과에 급
제하였고, 1597년 소의장(昭義將) 임권(林
權)과 함께 순천 예교(曳橋) 싸움에서 적
수십 명을 베는 큰 공을 세웠다.

◆ 진익상(陳益祥)

본관 여양. 시조의 19세손. 목사 시찬(時
燦)의 아들.
성균관생원을 지냈으며 아내는 인동장씨
다.

◆ 진정후(陳廷堉)

1694~1744 본관 여양. 자 기숙(基叔).
호 사우당(사우당). 시조의 19세손.
통덕랑 대임(大任)의 아들. 경학(經學)으로
사림의 존경을 받았으며 1740년 성균관생
원시에 입격하였고, 아내는 함평이씨 봉형
(奉亨)의 딸, 해주오씨 필장(必章)의 딸이
다.

◆ 진종선(陳從善)

본관 여양. 자 여택(汝澤). 호 영은(潁隱)
시조의 15세손. 무과 급제 덕후의 둘째 아
들. 효성과 형제 우애로 귀감이 되었으며
이 사실이 전남도지에 실려 있고 1600년

경 나주에서 나산변 신평리로 이거 정착하였다.

아내는 아내는 영광정씨(丁氏) 잠(岑)의 딸이다.

◆ 진종손(陳從孫)

본관 여양. 시조의 12세손. 부장 중경(仲)의 맏아들. 어모장군 의흥위 부호군을 지냈으며 아내는 연안이씨(延安李氏)다.

◆ 진주강씨(晋州姜氏)

강주기(姜柱基)의 딸로 평택 임한원(林翰遠, 1810년 생)의 아내다. 남편이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자 3일간 단지(斷指)하여 입에 피를 넣어 7일간 연명하게 하였으며 1884년 좌부승지 김규식(金奎軾)의 장례로 정려가 내려졌다.

◆ 진중경(進仲卿)

본관 여양. 시조의 11세손.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를 지낸 효우(孝友)의 아들로 1493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部將)을 지냈으며 1510년경 나주에서 대동면 향교리에 이거 정착하여 여양진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 진처형(進處亨)

1646~1736 본관 여양. 자 형지(亨之). 시조의 17세손.

유식(有寔)의 셋째 아들로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다.

◆ 진 함(陳 涵)

본관 여양. 시조의 13세손. 성균관진사이손(二孫)의 둘째 아들. 지릉참봉(智陵參奉), 성균관진사를 지냈으며 아내는 창녕성씨 참봉 세훈(世勳)의 딸이다.

◆ 진 흠(陳 欽)

1487~1583 본관 여양. 자 이명(而明). 호 금호(錦湖). 시조의 13세손. 사손(四孫)의 둘째 아들. 1510년 사마시에 합격하였

고 효행으로 천거되어 1523년 온양현감에 제수되어 현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정사를 폄고 아버지의 병환에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여 단지 주혈하는 등 극진히 간호를 하였으며 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를 사는 효성을 보였다. 1540년 경 나주에서 해보면 대각리로 이거 정착하였으며 아내는 함평이씨 명한(明漢)의 딸이다.

숙종 41년(1715)에 월계사(月溪祠, 해보면 대각리 소재)를 창건하고 배향하였는데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사우 철폐령에 철거하였다가 1972년에 복설 하였다.

◆ 차계생(車繼生)

본관 연안. 호군을 지냈으며 전주에서 손불면 궁산리 신평으로 이거 정착하여 연안차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 채덕린(蔡德麟)

1739~1805 본관 평강. 자 공서(孔瑞). 시조의 21세손. 두명(斗明)의 유복자(遺腹子). 1760년경 무안에서 함평군 신평면 보여리로 이거 정착하였고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연배의 어른들을 극진히 공경하였으며 어머니의 병환에 똥맛을 보고 혈지 주혈(血指注血)하여 연명케 하였고 시묘살이를 하여 주위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다. 1863년에 효자 정려(旌閭)가 내려졌으며 아내는 진주강씨 균룡(鈞龍)의 딸이다.

◆ 채영희(蔡榮禧)

1759~1802 본관 평강. 자 군복(君福). 시조의 22세손. 익천(翼天)의 둘째 아들로 1780년경 무안군 해제면에서 학교면 월산리로 이거 정착하였으며 어머니상에 죽을 먹으며 3년간 시묘를 살았고 이에 도천(道薦)을 받았다.

아내는 광산김씨 연화(鍊和)의 딸이다.

◆ 채이묵(蔡以默)

1778~1815 본관 평강. 자 군범(君範). 시조의 23세손. 영관(榮觀)의 셋째 아들.



어머니의 병환에 단지(斷指)하였고 상을 당하여 죽을 먹으며 3년간 시묘를 살았으며 이 효성으로 도천(道薦)을 받았다.
아내는 함평이씨 진환(震桓)의 딸이다.

◆ 천석화(千錫華)

1770~? 본관 영양. 정조때 오위장(五衛將)을 지냈다.

◆ 천태진(千泰進)

1603~1672. 본관 영양. 처음 이름 내진. 자 이화(以化). 호 둔암(遯庵). 중조만리(中祖 萬里)의 손자. 상(祥)의 아들. 벼슬은 통덕랑(通德郎)을 지냈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 진북에서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불암(佛岩)으로 이거 정착하여 영양천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나주나씨 문성(文聖)의 딸이다.

◆ 최 필(崔 弼)

?~1592 본관 전주. 임진란때 안골포전투에서 손자 흘(屹)과 함께 전사하였다.

◆ 최 흘(崔 屹)

?~1592 본관 전주. 필(弼)의 손자. 임진란때 안골포 전투에서 싸우다 할아버지와 함께 전사하였으며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랐다.

◆ 최경헌(崔景憲)

1556~1600. 본관 해주. 자 여식. 호 매헌(梅軒). 이원(李 元)의 맏아들.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판관을 역임했으며 임란 때 의주에서 환궁한 선조(宣祖)가 편찮아 그가 약을 지어 진상하자 항의 환후가 나아지게 되었다.
이 공이 인정되어 1737년 고양사(高陽祠.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소재)를 창건 배향케 하였는데 고종조에 훼손되고 아직 복설을 못하고 있다.

◆ 최금수(崔錦壽)

본관 해주. 자 종로(宗老). 호 만은(晩隱). 시호 문익공(文益公). 시조의 17세손. 함평 입향조 옥성(沃晟)의 맏아들로 문무를 겸비하였으며 무과에 급제하였고 사후 승정대부 의정부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1737년봄에 고양사(高陽祠.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소재)를 창건하고 배향하였는데 고종때 훼손되고 지금까지 복원하지 않았다.
아내는 함평이씨 시화(時華)의 딸이다.

◆ 최길헌(崔吉憲)

1585~1628 본관 해주. 준남의 맏아들로 통덕랑을 지냈다.

◆ 최두경(崔斗擎)

1714~1795 자본관 수성. 중언(重彦). 호 죽포(竹圃). 중시조의 9세손. 일(溢)의 아들. 수직으로 가선대부 동추(同樞)를 제수 받았다. 아내는 죽산안씨 태중(泰重)의 딸, 또 김필삼(金弼三)의 딸이다.

◆ 최만희(崔萬熙)

본관 경주. 호 효우당(孝友堂). 시조의 25세손. 1680년경 영광군에서 손불면 석창리로 이거 정착하여 경주최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 최복수(崔福壽)

본관 해주. 1588~? 준남의 둘째아들. 전력부위(展力副尉)를 지냈다.

◆ 최옥성(崔沃晟)

본관 해주. 자 사옥(士沃). 시조의 16세손. 사간원 정언 몽근(夢根)의 아들. 1592년 임진란을 피하여 진북 무장에서 함평읍 석성리 성북으로 이거 정착하여 해주최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진주정씨 장(樟)의 딸이다.

◆ 최용수(崔龍壽)

?~1646 본관 해주. 자 덕보(德甫). 시조의 17세손. 옥성(沃晟)의 둘째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였다. 자세한 행적은 전하지 않으며 1648년 예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함평노씨 수(粹)의 딸, 김해김씨 천익(天益)의 딸이다.

◆ 최유헌(崔裕憲)

본관 해주. 시조의 19세손. 부사과 이형(以亨)의 맏아들. 선조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첨정(僉正)을 지냈다.

◆ 최이급(崔以發)

1542~? 본관 해주. 자 대여(大汝). 시조의 18세손. 무과 급제 금수(錦壽)의 셋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고 영국공신(寧國功臣)에 책록되었다.

아내는 함평이씨 세근(世根)의 딸이다.

◆ 최이신(崔以信)

1571~1604 본관 해주. 자 신여(信汝). 시조의 18세손. 참봉 용수(龍壽)의 아들. 사헌부 감찰, 돈녕부 도정(都正)을 지냈으며 아내는 창녕성씨 원(源)의 딸이다.

◆ 최이원(崔以元)

1531~1605 본관 해주. 자 원백(元伯). 시조의 18세손. 무과 급제 금수의 맏아들로 첨정(僉正), 중추(中樞)를 지냈다.

아내는 인동장씨 서호(瑞浩)의 딸이다.

◆ 최이정(崔以貞)

1544~1605 본관 해주. 처음 이름 이건(以健). 자 선여(善汝). 금수(錦壽)의 넷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장사당을 지낸 행적 외에는 자세한 행적이 전하지 않는다.

아내는 함평이씨 무춘(武春)의 딸, 창녕성씨 세채(世采)의 딸이다.

◆ 최이형(崔以亨)

1539~1581 본관 해주. 자 화여(華汝). 시조의 18세손. 금수(錦壽)의 둘째 아들로 인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병졸교위 부사

과(秉節校尉副司果)를 지냈다.

아내는 나주임씨(林氏) 나매(羅梅)의 딸이다.

◆ 최인장(崔仁嶂)

본관 수성. 중시조 순(淳)의 7세손.

통덕랑 두(紬)의 셋째 아들. 1670년대에 나주시 다시면에서 나산면 덕림리로 이거 정착하여 수성최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제주양씨 운형(雲衡)의 딸이다.

◆ 최제남(崔悌男)

1556~1597 본관 전주. 자 극국(克國).

호 남일(南一). 진사 경덕(景德)의 아들. 용력과 지략이 뛰어났으며 임진란때 창의하여 주부 오언상(主簿 吳彦祥)을 따라 이순신의 막하로 들어가 당포(唐浦), 한산전(閑山戰)에서 승전을 하니 이순신이 “그대의 장열(壯熱)은 한나라 제갈량(諸葛亮)에게도 부끄럽지 않다.”고 극찬하였다.

1597년 8월 16일 병사 이복남(兵使李福男), 방어사 오응정(吳應井), 주부 오언상 등과 함께 남원(南原)싸움에서 용전분투하다가 순절하였다.

◆ 최준남(崔竣南)

1559~1599 본관 해주. 자 준.

시조의 18세손. 경홍(慶弘)의 둘째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봉사(奉事), 선전관을 지냈으며 아내는 안동 김씨다.

◆ 최준헌(崔俊憲)

본관 해주. 시조의 19세손. 부사과 이형(以亨)의 둘째 아들.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判官)을 지냈다.

◆ 최학한(崔鶴翰)

1830~1877 본관 수성. 자 광환(廣煥).

호 성와(省窩). 중시조의 13세손. 영국(榮國)의 둘째 아들. 아버지의 병환에 똥 맛을 보아가며 간호하는 등 효성이 더 말할 나위 없이 지극하여 도유림의 천장



(薦狀)을 받았다.

아내는 밀양박씨 정구(廷球)의 딸이다.

◆ 편대순(片大順)

본관 절강. 운태의 아들.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 편운태(片雲泰)

본관 절강. 정조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持平)을 지냈으며 1800년경 나주의 곡강에서 나산면 구산리에 이거 정착하여 절강편씨 함평군 입향조가 되었다.

◆ 한홍석(韓弘錫)

1844~1905 본관 청주. 자 대운(大允). 종교(鍾敎)의 아들.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아내는 풍천임씨(任氏) 권준(權俊)의 딸이다.

◆ 홍대철(洪大喆)

본관 남양. 성균관진사를 지냈다.

◆ 홍만중(洪萬鍾)

1722~1810 본관 남양. 함평 입향조 여준(汝俊)의 손자. 감찰 치기(致基)의 아들. 동추(同樞)를 지냈으며 아내는 전주 리씨다.

◆ 홍여준(洪汝俊)

1640~1721 본관 남양. 파조 계연(季涓)의 17세손. 찰방 의원(義源)의 아들.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 안의현감(安義縣監)을 지냈으며 보사공신(保社功臣)에 책록되었다. 1700년경 경기도 양주에서 대동면 금산리 감산으로 이거 정착하여 남양홍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으며 아내는 영광 김씨다.

◆ 홍치기(洪致基)

1692~1754 본관 남양. 파조 계연의 18세손. 만호 여준(汝俊)의 아들.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아내는 장수황씨 세주(世周)의

딸이다.

◆ 홍희준(洪希俊)

본관 풍산.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란때 고경명 휘하 별장으로 참전하여 금산 전투에서 크게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 황상묵(黃尙默)

1825~? 본관 장수. 석천(碩千)의 아들. 1850년경 나주에서 대동면 백호리 보화촌으로 이거하여 장수황씨 호안공파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상산 김씨다.

제2장 현대인물(現代人物)

1855~1920 본관 진주. 문영(文寧)의



◆ 강경호(姜京昊)



강 경 호

본관 진주. 1958년 손불에서 출생했고 광주대학교를 거쳐 조선대학교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취득.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인 문학평론가. 시집 『언제나 그리운 메아리』, 『알타미라 동굴에 벽화를 그리는 사람』, 『함부로성호를 긋다』, 『휘파람을 부는 개』가 있으며, 연구서 『최석두 시 연구』 문학평론집 『휴머니즘 구현의 미학』 미술평론집 『영혼과 형식』 기행에세이집 다시, 『화순에 가고 싶다』가 있다. 1996년 창간한 시전문지 계간 『시와사람』 발행인겸 주간, 광주전남현대문화연구소장, 광주대 겸임교수로 있다.

◆ 강길봉(姜佶奉)

본관 진주. 1946. 5. 21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졸업. 수원지법 판사 역임. 변호사

◆ 강두규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1973. 6. 21~1974. 5. 3까지 신광면장을 역임 하였다.

◆ 강성용(姜聲裕)

본관 진주. 육관 대령

◆ 강 씨(姜 氏)

딸로 17세에 월야면 월악리 동래 정석원(鄭碩源)과 결혼하여 25세 때 남편이 병석에 눕자 손가락을 깨물어 수혈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했으나 끝내 사별하니 남편을 따라 죽기로 작정하고 곡기를 끊고 있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가사 운영은 물론 시부모 봉양을 남편이 살아 있을 때보다 더 극진히 하니 주위가 찬양하고 흠모하였다. 수차에 걸쳐 섬천(剡薦)에 오르게 되어 사후 읍지(邑誌)와 삼강록에 등재되었다.

◆ 강운기(姜運奇)

본관 진주. 신광면 삼덕리에서 출생. 엄다초등, 광주서중, 광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충의교육원 교관, 중학교 교장, 교육연구관, 중등장학관, 화순, 함평교육장을 지냈다.

◆ 강운태(姜雲太)

본관 진주. 1948. 10. 15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내무부지방기획과장, 광주광역시장, 농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 강응대(姜應大)

본관 진주. 1947. 3. 27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 졸업. 제1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

◆ 강인주(姜仁周)

1928. 4. 10 본관 진주.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고졸. 1, 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역임.

◆ 강형기

1944. 5. 7 함평읍 석성리 312-57번지. 9사단 포병 1대대 2중대 하사로 근무하다 베트남 판남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69. 4. 18 인헌무공훈장을 받았다.

◆ 강형주(姜炯周)

본관 진주. 1959. 12. 23 함평읍 함평읍출신. 서울법대 졸업. 제23회 사법고등고시에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

◆ 강형채(姜炯琛)



강형채

본관 진주. 1943.4.15. 호청남(청남.불갑산인-佛甲山人). 귀성(貴成)과 한양 조동례(趙東禮)의 아들로 해보면 금덕리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광주광역시전 초대작가, 전라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광주광역시전 사위원, 전라남도전 심사위원 역임. 청남서예원을 비문으로는 박용철시비문 등 다수가 있다. 아내는 밀양 박한구(朴漢求)와 울산 김성남(金成男)의 딸 충덕(忠德)다.

◆ 고광섭(高光섭)



고광섭

1956. 6. 16생 본관 장택(長澤) 호청암(靑巖) 금주(金柱)와 해주(海州) 정연순(鄭連順)의 장남으로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에서 출생 정

보통신공학박사 학위를 받아 정보통신부 전북·전남체신청장과 지식경제부 우편사업단장으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아

내는 경주(慶州) 이서린(李抒潐)이다.

◆ 고복현(高福賢)

1927~1990. 3. 24 본관 장흥. 제운(濟雲)의 큰딸로 광산군 하남면(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태어났고 월야면 내동의 진주 정학진(鄭學鎭)과 결혼하였다.

24세 때인 6.25 전쟁 때 외동 딸 하나를 남겨두고 남편이 참화(慘禍, 함평양민학살 사건)를 당하며 탄환 속을 헤치고 남편의 시신을 거둬 예제에 부합한 장례를 치루고 원통함을 참으며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하였다.

생활이 궁핍하여 샅바느질을 해가며 무남독녀를 대학까지 마쳐 출가시키고 한갑(한갑)을 입양시켜 엄격하게 가르쳐 선사(선사)를 잇게 하였다.

함평향교의 발문과 정익환(鄭益煥)의 '효열부 기적비문'이 있다.

◆ 고산옥(高山玉)



고산옥

본관 장흥. 1928. 1. 23 시조 말로(末老)의 33세손. 호 덕암(德菴). 재일(在日)과 광산 김수덕(金守德)의 아들로 손불면 월천리에서 태어났다. 광주사범학교를 중

퇴하고 행정공무원을 지내다 퇴임하였고 봉사단체 한마음회 회장을 역임했다.

◆ 고석주(高石柱)

1916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시조창인 1918년 가을에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에서 특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 고선주(高善柱)

1967년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 광주 대동고,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1996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시 비에 대한

우상」이 당선되어 등단 이후 시와 평론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집 『꽃과 악수하는 일』 시론집 광주 『문학지도 1』 (공저)가 있으며, 현재 광남일보 문화부기자로 재직하며 광주대, 광주여대, 호남대 출강.

◆ 고 씨(高 氏)

1865~1910 본관 장흥. 진사 시흥(時興)의 딸. 나주정씨 병일(鄭炳逸. 시조의 27세손)의 아내로 남편의 병환에 혈지(血指) 연명케 하였으나 끝내 타계하자 같이 죽으려 시도하다가 늙으신 시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어 뜻을 바꾸고 어려움속에서도 극진히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이 사실이 군지. 삼강록에 실려 있다.

◆ 고유창(高裕昌)

본관 장흥. 1968. 7. 30 시조의 33세손. 재헌(在憲)의 셋째 아들. 1992 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 고일석(高逸錫)

1941. 4. 8생 본관 장흥(長興) 호 진촌(眞村) 인재(仁在)와 김해(金海) 김복녀(金福女)의 차남으로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를 졸업 학다리중학교장, 한국효도회함평군지회장, 함평군축제위원회 위원장, 함평군생태관광협회 이사장을 재임하고 있으며 대통령포상을 받았고 저서로는 시집 “낙서”가 있으며 아내는 전주(全州) 최구식(崔龜植)과 압해(押海) 정금순(丁金順)의 딸 성순(成順)이며 슬하에 2남을 두었다.

◆ 고재문(高在文)

1949. 8. 1생 본관 장흥 광신(廣新)과 나주 김화례의 장남으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영암중남초등학교장으로 봉직하고 있으며 아내는 무안 정행진(丁幸鎭)과 밀양 박화례(朴花



고재문



고재학

禮)의 차녀인 해순(海順)이며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 고재학(高在鶴)

1957. 8. 20생 본관 장흥(長興), 호 농원(農源) 광필(光必)과 광산(光山) 김희순(金喜順)의 차남으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순천농업전문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후 함평군농업기술보급과장으로 재임 중이며, 행정자치부장관상과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아내는 남양(南陽) 갈덕수(葛德秀)의 4녀 명희(葛明姬)이다.

◆ 고제필(高濟必)

1936. 9. 15 월야면 월계리. 함평향교효부표창을 받았다.

◆ 곽일환(郭一煥)



곽일환

본관 현풍. 1944. 2. 4 호 천주봉(天柱峯). 시조의 32세손. 상렬(相烈)과 안동 권복례(權福禮)의 아들로 나산면 월봉리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중소기업은행 남가좌동, 군산, 중곡동, 장충동지점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해주 오정환(吳廷桓)과 이귀임(李貴任)의 딸 춘자(春子)다.

◆ 광산김씨(光山金氏)

나기우(羅基優)의 아내. 향교 전교의 열부표창을 받음

◆ 구교석(具敎錫)



본관 능성. 1863~1923 자 영서(永瑞). 시조의 30세손. 성모(成謨)의 아들. 1888년 나주에서 학교면 학교리 영화촌으로 이거하여 능성구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다. 아내는 밀양박씨 병의(炳義)의 딸이다.

◆ 구제학(具濟學)

본관 능성. 1921. 8. 5 시조의 32세손. 일우(逸祐)의 둘째 아들. 광주사범학교 졸업. 학다리 중앙, 월야북초등학교장역임. 아내는 김해김씨 문선(文善)의 딸이다.

◆ 국중택

1931. 10. 28 대동면 용성리 378번지. 6사단 7연대 3대대 10중대 하사로 근무하던 때 금화자구 전투에서 큰공을 세워 1954. 4. 20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권갑수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1985년 체육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권병위(權炳威)

작고. 함평읍 기각리에 출생. 함평군번영회장을 역임했다.

◆ 권승일(權承一)

작고.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제5대 함평면장을 역임했다.

◆ 권오봉(權五奉)

1917년생. 본관 안동.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민주당 전남 21지구당 위원장 역임

◆ 기우근(奇宇根)

1949. 12. 4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 해군사관학교 졸업. 해군 중령

◆ 기우순(奇宇順)

1919. 10. 7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 함평향교의 효부 표창을 받음

◆ 김가현(金加鉉)

1944. 1. 28 본관 광산.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 소령 예편

◆ 김갑영(金甲泳)

1931. 12. 20 엄다면 화양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 졸업. 무안교육청 장학사, 장성초등학교 교장 등 역임

◆ 김갑제(金鉉濟)



김갑제

1955. 5. 5 본관 경주. 백촌의 18세손. 아버지 동술(東述)과 어머니 상산 김처녀(金處女)의 아들로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무등일보 제2사회부장·논설위원·편집부장을 지냈고, 광주시 한말의병항쟁기념사업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기자협회 기자상(기획보도부문), 사단법인 사회복지협회 공로대상(1997. 12)을 받았으며 아내는 광산 김성기(金成基)와 밀양 박선례(朴仙禮)의 딸 연심(連心)이다.

◆ 김갑환(金甲煥)

1938. 12. 17 본관 김해. 시조의 71세손. 호 서호(瑞湖). 서연(西連)과 나주 임선임(林仙任)의 아들로 손불면 학산리에서 출생하여 함평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목포시청 녹지과장, 담양, 장성, 화순군, 나주시 산림과장직을 역임했다.

◆ 김강현(金康鉉)

1930. 11. 2 본관 광산. 호 평석(平石). 시조의 36세손. 재화(在化)의 맏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하였다.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문교부 법무관, 장학관, 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아내는 분성김씨 택조(澤祚)의 딸이다.



김건형

◆ 김건형(金建衡)
1965. 8. 28 본관 나주. 아버지 우중(禹鍾)과 어머니 김해 김정숙(金丁淑)의 아들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 내과 전임의로 있다.



김경수

◆ 김경수(金頴洙)

1958. 10. 10 본관 광산. 명선(明善)의 아들로 손불면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주식회사 포시콤 대표이사직에 있다.

◆ 김경우(金敬友)



김경우

1939. 8. 9 본관 김해. 시조의 70세손. 호 청송(靑送). 상천(相天)과 진주 강언연(姜彦連) 아들로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하여 함평중학교, 학다리고등학교, 국방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79년 행정사무관으로 원예시험장 관리과, 1980년 농촌진흥청 관리과에 근무하다가 1992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농업유전자공학연구소 관리과장,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 원예연구소 관리과장을 역임했다.

1983. 12. 31에 녹조근조훈장을 받았고 “WTO 체제하에서 한국의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아내는 동래 정용학(鄭龍學)과 온양 방생렬(方生烈)의 딸 입분(立粉)이다.

◆ 김경은(金京垠)

1861~1935 본관 상산. 양산공 16세손. 용달의 아들로 부친 병환에 허벅지 살을 베어드리고 단지(斷指) 수혈하여 7일간을 연명하게 하였다. 또 여막에서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는데 의복을 벗지 않고 베개를 베지 않았다. 벼슬은 중추원 의관(議官)이며 학교면 월호리에 효자비가 세워졌다.

◆ 김경현(金庚鉉)

1930. 4. 28 본관 광산. 시조의 36세손. 자 경수(敬洙). 재구(在九)의 넷째 아들.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고 아내는 금성나씨 경환(京煥)의 딸이다.

◆ 김관휴(金官休)

1939. 2. 26 본관 광산.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 「실용기기계 공작법」 등이 있다.

◆ 김광모(金光模)



김광모

1947. 1. 31생 본관 김해(金海) 호 함촌(咸寸) 병봉(炳奉)과 광주(光州) 노인금(盧仁今)의 아들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조선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과장과 교수를 역임 후 함평읍 김광모병원을 개원하였으며 아내는 전주(全州) 이인호(李仁鎬)와 경주(慶州) 김규화(金閨花)의 딸 현숙(賢淑)이다.

◆ 김광백(金光伯)

1943. 11. 6 본관 선산. 영세명 시도니오. 시조의 36세손. 재동(載棟)의 둘째 아들. 전북산업대학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업. (주) 혜성물산 대표이사로 있다.

아내는 탐진 최기덕(崔基德)으로 영기(英基)의 딸이다.

◆ 김광운(金光雲)



김광운

1956. 5. 30일생 본관 김해(金海) 용권(龍權)과 평산(平山) 신복실(申福實)의 장남으로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에서 출생 광주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부장과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아내는 경주(慶州) 정씨(鄭氏) 막내 미숙(美淑)이다.

◆ 김광웅(金光雄)

1939. 10. 27 월야면 양정리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원주상기대학교 수

◆ 김광형(金光衡)

1951. 6. 18 시조의 36세손. 본관 나주. 아버지 김우근(金禹根)과 어머니 영성정영희(丁英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조선대학교 의과대를 졸업하고 가정의(家庭醫)에 합격하였고, 현재 의원을 개업하여 원장으로 있다. 아내는 광산 김수돌(金壽突)과 밀양 박순례(朴順禮)의 딸 명희(明希)다.

◆ 김광호(金光鎬)



김광호

1944. 5. 20 본관 김해. 봉채(鳳彩)와 금녕 김양임(金良任)의 아들로 함평읍 석성리에서 출생하였고, 학다리중,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1991 전라남도 공보관실, 1991~1995 승주군청 문화공보실장, 사회과장, 1995~1998 광주광역시 동구청 의회사무과장, 위생과 위생지도계장, 5·18 협력지원실 정신선양계장, 학교면장

을 거쳐 2004년 기획예산실장으로 퇴직하였다. 1980년 대통령의 근정포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경주 이관옥의 딸 금자(金子)다.

◆ 김교선(金敎善)



김교선

1938~2008. 엽다면 삼정리 출생. 사진작가. 광주에서 여러 사업에 종사하며 사진예술에 임했으며, 92년 가을에는 광주 남도에 술회관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원으로 그는 흔히 산수의 정취 등에 걸친 대자연을 사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함평문림'이나 '함평문화' 등에도 자주 정선한 작품을 선보이곤 했다. 고향에서 사업을 하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역할을 모색 중 2008년 갑자기 타계했다.

◆ 김교안(金敎安)

1875~1945 본관 선산. 자 윤옥(允玉). 호 죽파(竹坡). 시조의 32세손. 해용(海容)의 맏아들 아버지의 병환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드려 1일간 연명하게 하였고 상을 당하여 3년간 시모를 살았다. 이 사실이 함평읍지와 도지에 실려 있다. 아내는 함평이씨 병서(炳緒)의 딸이며 시어머니 병환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넣어드려 연명을 하게 하는 효성을 보여 향교에서 천거된 바 있다.

◆ 김교현(金敎炫)



김교현

1882~1954 본관 선산. 처음 이름 교락(敎洛). 호 남강(南崗). 자 덕범(德範). 시조의 32세손. 찬용(燦容)의 넷째 아들. 1910년 이전에는 정동근(鄭東根)과 함께 의병진에 보낼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1916

년 화순군 도곡면 월곡(月谷)에 본부를 둔 광복단(光復團) 제1 단(단장 양재홍-양재홍 외 18인)에 정동근과 같이 입단하여 함평, 나주 등지에서 부호들은 대상으로 선의 또는 강압 수단을 동원하여 독립자금을 모집하였다.
광복단 일제 검거 때 경북지방으로 피신했다가 1917년에 체포되어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9년간 복역했다.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아내는 광산김씨 문래(文來)의 딸이다.

◆ 김교형(金敎炯)

1871~1930 본관 선산. 처음 이름교중(敎重). 자 덕행(德行). 호 죽당(竹堂). 시조의 32세손. 찬용(燦容)의 아들. 이병수(李炳壽)의 문하생이며 면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함평이씨 장범(張範)의 딸이다.

◆ 김교환(金敎環)

본관 선산. 호 의당(義堂)
김태원 의병부대에서 후에는 전해산부대에서 수십 번 일병과 교전하여 공을 세웠다.

◆ 김구정(金九鼎)

본관 상산. 시조의 14세손. 함평입향조 증명(仲明)의 맏아들. 사옹원 참봉(司饗院參奉)으로 출사한 후 마도 만호(馬島萬戶)를 역임하였다.

◆ 김구현(金球鉉)



김 구 현

1926. 1. 14 엽다면 성천리 성암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전남도경 보안, 경무과장, 치안본부 전자계산소장 역임.
충경

◆ 김귀례(金貴禮)

대동면 윤교리. 함평향교의 효부표창을

받았다.

◆ 김국도(金國道)



김 국 도

1945. 5. 12생 본관 광산(光山), 호 금영(錦榮) 용채(用彩)와 나주 정채화(鄭彩和)의 장남으로 해보면 용산리에서 출생 목포 제일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남도 특산단지 연합회장과 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아내는 나주 정운섭과 파평 윤태운의 차녀 순오(順伍)이다.

◆ 김국렬(金國烈)

1927. 3. 16 본관 선산. 자 홍성(洪晟). 호 홍암(弘岩). 영세명 가브리엘. 시조의 34세손. 기석(箕錫)의 아들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및 행정대학원 수료. 한국감정원 광주지점장 역임. 현 나라감정평가법인(鑑定評價法人) 호남지사장. 선산김씨 호남종친회 부회장. 아내는 전주 전영자(全英子)로 태휴(太休)의 딸이다.

◆ 김국성(金國聖)

1946. 5. 5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
고졸. 1대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 김규동(金奎東)

1906~1985 본관 선산. 시조의 35세손. 홍필(洪弼)의 맏아들. 초등학교 교장 역임. 국민훈장 동백장 받음. 아내는 청주 한덕례(韓德禮)로 백언(百彦)의 딸이다.

◆ 김규동(金珪東)

1938. 9. 15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함평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서중 3학년에 재학하다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중퇴하였다.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 김규섭(金圭燮)

1945. 12. 1 본관 김녕. 함평읍 장년리에서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4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전주시방검찰청 차장검사 역임.

◆ 김규일(金珪駟)

1894~1979 본관 광산. 자 군천(君千). 호 현재(弦齋). 시조의 35세손. 창섭(昌燮)의 둘째 아들로 손불면 죽장리에서 태어남. 문행으로 이름 높았으며 많은 후학을 길렀다. 삼일사(三一祠, 손불면 죽장리 담골소재)에서 배향하며 문집이 전한다. 아내는 나주 정우식(鄭遇軾)의 딸이다.

◆ 김규준



1955.12.19생 본관 김해(金海) 판남(判南)과 천안(天安) 전양림(全良林)의 3남으로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함평읍장, 함평군기획감사실장에 재임 중이며 장관 표창을 3회 수상하였으며 아내는 평산(平山) 신희숙(申喜淑)이다.

◆ 김균홍

나산면. 1981년 사회복지 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김기만(金基滿)

1938. 10. 25 나산면 월봉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졸업. 경감 역임

◆ 김기성(金箕成)

1919. 4. 26 함평만세운동을 벌이기 위해 조사현, 김용언 등과 모임을 갖고 “슬프다. 우리 민족들. 4천년의 역사국으로 어이하여 왜적 일본에게 국토를 뺏길 수 있으랴. 우리 힘으로 강토를 찾아보자.” 라

는 전단을 만들어 김준부와 함께 유지와 학생들에게 배포하다가 일경에 감지되어 체포되었다. 둘은 고문을 이기며 여러 동지들의 희생을 막기위해 정인옥, 장학년, 박상수의 3만명만 내세우고 주도자들은 밝히지 않았다. 와다나베(渡邊) 교장과 담임 임인수의 백방 활약으로 4월 23일에 석방되었으나 4. 26 만세운동은 좌절되었다.

◆ 김기수(金琪洙)

1960. 본관 광산(光山) 영배의 장남으로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육군중장으로 서울수도사령관의 보직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 포상을 수상하였고 아내는 채현숙이다.

◆ 김기수(金奇洙)

1953. 1. 4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 졸업. 1999년 육군 준장으로 승진했다.

◆ 김기순(金箕舜)

1853~1913 본관 광산. 자 치홍. 호 초연재(超然齋). 시조의 34세손. 수회(守淮)의 아들로 손불면에서 태어났다. 송병선(宋秉璿)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호남에서 널리 알려진 학자였다. 문학생들이 초열재를 지어 매년 춘추에 회강(會講)하고 유고를 간행하였다. 유고의 기문(記文)은 중산 조중목(重山趙重穆), 서문(序文)은 김규일(金珪駟)이 썼다. 아내는 함평노(魯)씨 철상(轍相)의 딸이다.

◆ 김기천(金綺千)

1905~1995 본관 나주. 시조의 34세손. 호 호당(湖堂). 아버지 용기(用驥)와 어머니 김해 김예동(金禮同)의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하여 1923년 전남도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임다보통학교, 동강초등학교의 교장을 지내고 1961년 함평군교육청 민선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아내는 무안 박양상(朴陽相)의 딸 예덕(禮德)이다.

◆ 김기택(金箕澤)

1859~? 본관 광산. 자 양권(樣權). 호 월담(月潭). 시조의 34세손. 득수(得洙)의 아들로 갑오 동학운동 때 수성장으로 많은 백성을 구하였으며 도정(都正)을 지냈다. 아내는 진주정씨 상규(祥圭)의 딸이다.

◆ 김기택(金箕澤)

1900~작고. 본관 광산. 월야면 월계리에서 태어났으며 1919. 4. 8 문장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시위 당일 체포되어 1년 징역을 선고받아 대구 감옥에서 옥고를 치루었고 건국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김기현(金炆鉉)



김기현

1939. 4. 1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하여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무궁화선양회장, 근화제약 전무이사, 무궁화관광주식회사장, 웰비스포츠클럽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 김기형(金基衡)

본관 나주. 병채(昞采)의 아들. 광림회사전무, 백제약품 부사장

◆ 김길용(金吉龍)

1933. 6. 3 본관 김해. 신광면 삼덕리 좌야에서 출생. 신광면장을 지냈다.

◆ 김낙섭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 제8대 신광면장을 지냈다.

◆ 김낙현(金洛炫)

1970년 학교면 사거리 출생.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동대학원 석, 박사 과정 졸업하

고 「조기천연구」로 문학박사. 2003년 월간문학에 평론 「울음의 서정과 역동성-신경림론」이 당선되어 문학평론가로 등단. 현재 한국평론가협회원, 한국문협회원이며 남서울대, 중앙대에 출강하고 있다.

◆ 김남곤(金南坤)

1949. 2. 8 본관 김해.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 중앙대학교 졸업. 중앙관서 서기관

◆ 김남기(金南起)

1941. 11. 6 본관 광산. 대동면 강운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 소령

◆ 김남룡

1943. 11. 3 함평읍 대덕리 544-2번지. 9사단 28연대 2대대 5중대 하사로 근무하던 1966. 12. 31 베트남의 750고지(홍바산)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워 공을 세웠기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김내영(金乃永)



김내영

1944. 11. 27 본관 선산. 아버지 순지(純池)와 어머니 창녕 조분록(曹分祿)의 아들로 월야면 영월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전라남도 축산연구소 중부·서부지소장·과장(가축위생연구관)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남평 문창우(文昌祐)와 수원 백경례(白敬禮)의 딸 희숙(熙淑)이다.

◆ 김녕옥(金寧旭)

1929. 4. 6 본관 김해. 신광면 삼덕리 좌야에서 출생. 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 김녕웅(金寧雄)

1944. 3. 14 본관 김해. 신광면 백운리에서 출생. 현재 대불공단 사업단장으로 있

다.

◆ 김녕호(金寧鎬)

1937 본관 김해. 신광면 백운리에서 출생. 전남일보사 기자 12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중앙 운영위원, 신한민주당 창당 발기인, 평화민주당 창당 발기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함평군지부 대표의장, 태권도 무덕회 전라남도관장(태권도 8단)을 역임했고, 가락함평군중친회장, 함평군민주단체협의회장, 새정치 국민회의 함평·영광지구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함평군 1지구 도의원에 당선되었다.

◆ 김단현(金旦鉉)

1945. 3. 19 본관 광산. 시조의 36세손. 자 국성(國聖). 재상(在祥)의 맏아들.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였고 아내는 탐진 최씨 영환(榮煥)의 딸이다.

◆ 김대권(金大權)

본관 광산.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으며 경감으로 서울시경 교통감찰반에 근무하고 있다. 아내는 김해 김정현(金正鉉)과 해주 오준임의 딸 재임(在任)이다.

◆ 김대규(金大圭)

손불면 동암리에서 출생
1951. 1. 31~1952. 5. 5까지 대동면장을 역임했다.

◆ 김대성(金大成)



김대성

1973. 2. 28생 본관 김해(金海) 돈모(敦模)와 함평(咸平) 이처녀(李處女)의 3남3년중 막내아들로 대동면 강운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카톨릭

의대 의학대학원 석사로 카톨릭중앙의료원 내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을 현재 인천 온누리병원 내과과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받았으며 아내는 여산 송영찬과 한양 조정금의 차녀 신애(信愛)이다.

◆ 김대열(金大烈)

1920. 1. 24 본관 경주. 용태(龍泰)와 김해 김부잡(金富雜)의 아들로 손불면 궁산리에서 출생하였고 손불면장(1955. 11. 18~1959. 11. 17)을 지냈다. 아내는 원주 이경례(原州李旻禮)다.

◆ 김대영

1933. 3. 12 학교면 학교리 408-2번지. 6사단 15포대 77대대 하사로 근무하던 때 강원도 원동지구 작전에서 큰공을 세워 1953. 6. 25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김대원(金大源)



김대원

1939. 1.18생. 본관 상산(商山) 호 덕정(德靜), 동호(東鎬)와 청주(淸州)한포임(韓布林)의 장남으로 신광면 삼덕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나와 완도신지초등학교장을 역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 아내는 함평(咸平) 이남헌(李南憲)과 전장순례(全長順禮)의 장녀 영숙(英淑)이다.

◆ 김대자(金大者)

1944년 손불면에서 출생하여 서울충신목회학원졸업, 신학박사. 목사, 수필가. 1995년 『문학춘추』와 수필과 비평의 수필 신인상에 당선으로 등단.저서로는 수필집 『이름 없이 빛도 없이』가 있으며 《교회신문사》 주최 수기기독문학상 수상. 한국문협 무안지부장 역임.

◆ 김대중(金大鍾)



김대중

1961. 6. 26 본관 광산. 아버지 영근(永根)과 어머니 무안 박덕순(朴德順)의 아들로 엄다면 송로리에서 출생하여 호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무등일보 정치부 부장대우·사회부 부장대우를 지냈다.

아내는 해주 최한주(崔韓柱)와 정미례(鄭美禮)의 딸 화정(和丁)이다.

◆ 김덕규(金德奎)

1944. 4. 6(음)생 본관 고성(固城) 호 옥현(玉軒) 병근(炳根)과 남향 홍덕례(洪德禮)의 3남으로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대학원과 서울 산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아현산업정보학교장, 성동공업고등학교장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자본탐상법의 결합검출능력과 그 확인방법 등 다수이며 국무총리 표창과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고 아내는 평택(平澤) 임영호(林永鎬)와 고일순(高一順)의 5녀 금자(金子)이다.

◆ 김덕근(金德根)



김덕근

1912~1980. 3. 17 본관 영산. 이명 김원근(金元根). 호 오봉(五峰). 고향에서 신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숙부인 임시정부 국무위원인 김철(金澈)의 지시로 1929년 1월에 상해로

망명하였으며 1930년에는 한인소년동맹위원장(韓人少年同盟委員長)에 피선되었으며 1931년 7월 상해 교민단(僑民團)에서 설립한 한인청년당(韓人靑年黨)의

사교부장에 임명되어 독립투사의 전위적 임무와 연대적 책임을 실천하고 청년들을 훈련시켜 혁명 역량을 총 집결할 목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당원 확보에 주력하였다.

1932년 1월 화랑사(花郎社)를 창립하였는데 이는 신라의 화랑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식을 환기하고 교양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는 단장에 선출 되어 단원들과 함께 임정요인(臨政要人)의 연락 업무 및 비서 역할 등의 업무와 통신사무를 전담하였다. 그는 또한 선무반원으로서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선무 초모공작 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임시정부와 불란서 영사관과의 연락책 및 통역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이 때 독립투사인 윤봉길(尹奉吉)은 김구(金九)의 지령으로 폭탄을 식장에 던진 일대 의거를 단행했다.

이 의거로 상해의 일본 파견군 사령관 백천대장(白川大將)과 거류민단장겸 행정위원장 하단정차(河端貞次) 등이 죽고 수많은 일인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윤봉길의 의거로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독립운동계의 요인과 그 외의 한국인은 일제의 발악적 보복 검색으로 피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거사일인 4월 29일에 김구는 교민단 사무소의 중국인 사환을 보내어 염탐하게 하였는데 정오경 그가 돌아와 거사에 성공하고 윤봉길은 체포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한국인들의 검문 검색이 강화될 것을 예견한 엄항섭(嚴恒燮)의 지령에 따라 그는 이규홍(李奎洪)과 함께 프랑스 조계 거주지 한국인들에게 피난할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다음날 장현근(張鉉瑾)과 함께 상해 일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었고 뒤에 안창호(安昌浩)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으며 20대 젊은 학생이기 때문에 경성지방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거주지를 시노강면 함정리(咸井里)로 제한 받고 살던 중 광복을 맞았다. 정부에서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김동규(金東奎)

1950. 8. 27생 본관 고성(高城) 병원(병원)과 무안(무安) 박인순(박인순)의 3남으로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김동규 안과의원을 개원중이며 아내는 평산(平山) 신현대와 해주(海州) 최덕순의 차녀 아영이며 슬하에 2녀를 두었다.

◆ 김동근

신광면 함정리에서 태어남
1955. 1. 16~ 1957. 6. 3까지 신광면장을 지냈다.

◆ 김동술(金東述)

전해산 의병부대에서 활동하였다.

◆ 김동승(金東承)

1919. 1. 1 본관 김해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 대졸. 은행지점장을 지냈다.

◆ 김동식(金東植)

1931. 2. 1~1998. 나산면 삼축리에서 출생.
나산중학교 설립 및 동교 교장, 민족통일 전라남도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 김동언(金東堰)

본관 김녕
일본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1935~1942년까지 간이학교(함평서초등학교 전신)를 개설 후진 양성에 힘을 썼다.

◆ 김동욱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 제7대 신광면장을 역임했다.

◆ 김동진(金東鎭)

1928. 1. 8 학교면 곡창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졸업. 경감 퇴직

◆ 김동철

1931. 10. 9 해보면 문장리 558-1번지. 제 1사단 17야포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때 1952. 10. 11포항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김동표(金東杓)

1917. 1. 28 본관 김해. 중졸. 11대, 13대, 16대 신광면장, 초대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지냈다.

◆ 김동현(金東玄)

1941. 3. 7 본관 김해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텍사스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다.

◆ 김동희(金東熹)



김동희

1927. 9. 22 본관 김해. 택수(宅洙)와 달성 배본동(裴本洞)의 아들로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하였으며,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월야초등학교 등의 교사, 백수남, 신광초등학교 등의 교감, 대동초등학교 교장을 10년간 역임하였다.
1993년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아내는 청주 한포임(韓浦任)이다.

◆ 김두만(金斗萬)

1963. 6. 27 함평읍 기각리에서 태어남.
고졸. 경감

◆ 김두삼(金斗三)

1844~ 1931 본관 광산. 자 태겸(台兼) 또 화균(和均). 호 영빈(潁濱). 시조의 33 세손. 지수(止洙)의 아들로 손불면 죽장리에서 출생. 문장이 뛰어났으며 성리학에 밝았고 후학을 기르는데 온힘을 다하였다. 후학들이 삼일사(三一祠)를 건립하여 배향하고 있고 문집이 전한다. 아내는 나주 정주영(鄭周榮)의 딸이다.

◆ 김두천(金斗千)

1915. 4. 22 본관 나주. 시조의 34세손. 호 석천(石泉). 아버지 용기(用驥)와 어머니 김해 김예동(金禮同)의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하여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였고, 목포시 부시장을 지냈다. 아내는 무안 박병량(朴炳亮)의 딸 앵순(櫻順)이다.

◆ 김득수(金得洙)

1945. 12. 13 함평읍 옥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안전기획부 전남수사관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 김만선(金滿船)

1939년 흑룡강성에서 출생하였고 함평읍 함평리에서 자람. 시인. 아동문학가. 함평중학교와 목포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함평초등학교 등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1960년 “새교실지”의 현상문예에 시 “요일연습”이 당선되고 그후 전남일보, 목포일보 등에 시와 동시 등을 자주 발표하였다. 서정시풍과 시사적인 현실 인식을 담은 시집 “차라리 슬퍼 좋은”(1988) 등의 시집이 있다. 80년대 말 이후 민족문학 작가회의에 가담한 그는 현재 서울에서 시보다는 동화와 동시를 주로한 아동문학에 많은 활약상을 보인다.

◆ 김만성(金萬成)

1938. 5. 11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 동국대학교 졸업.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손불면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역임

◆ 김만일(金萬逸)

1926~1950 신광면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 함평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했다.

1950년 2월 26일 지리산지구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하여 순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한국전몰용사 공훈록. 국방부>

◆ 김명삼(金明三)

1953. 8. 17 본관 선산. 시조의 37세손. 병언(병언)의 둘째 아들. 광주송원전문대 졸업. 동양건설 설계사무소 상무이사직에 있다. 아내는 김해 김애수(金愛洙)로 재남(在南)의 딸이다.

◆ 김명섭(金明燮)

본관 김해
신광면 유천리에서 태어남. 대졸. 문교부 사무관을 역임함.

◆ 김명중

대동면. 1981년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김 목(金 穆)



1951.6.19. 시인, 아동문학가.
학교면 출신으로 목포교대 졸업, 학다리초교 등 교직에 근무. 75년에 《전일신춘》에 시, 《소년중앙》에 동화 「강나루 할아버지」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했는데 아동문학에 전념하여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저서는 동화집 『날개달린 천사』 『멀리 뛰는 개구리』 『황금동관의 왕국』 시집 『누렁이』 등 다수. 전남

아동문학가협회장, 전국교원노조 초등위원장 역임. 한국동화문화상수상(1978년).

◆ 김문식(金文錫)

1938. 1. 11 본관 광산. 시조의 36세손. 재춘(在春)의 둘째 아들.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하였고 행정사무관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전주리씨 용재(龍宰)의 딸이다.

◆ 김문수(金文洙)

1940. 9. 20 본관 광산. 시조의 38세손. 영길(永吉)의 맏아들로 손불면 산남리 출신이며 국제청과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장흥 고길자(高吉子)이다.

◆ 김민구(金玟九)



김민구

1917. 12. 10 본관 나주. 시조의 34세손. 호 학정(鶴汀). 아버지 용언(用彦)과 어머니 함평 노병례(魯炳禮)의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하여 학교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대한노인회 광주남구 노인회장을 지냈고 효자상을 받았다. 아내는 인동 장원섭(張元燮)과 광산 김쌍례(金雙禮)의 딸 김순이다.

◆ 김민수(金玟洙)

1937. 11. 26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농대 졸업. 1, 2 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역임

◆ 김민일(金敏一)

1941. 1. 5 본관 광산. 시조의 38세손. 영남(永南)의 맏아들. 손불면 산남리 출신이며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 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다. 아내는 연안차씨 금철(金哲)의 딸이다.

◆ 김민정(金珉靜)

1974. 9.10 아버지 우범(禹飜)과 어머니 나주 나청임(羅淸任)의 딸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서울중앙병원 진단방사선과 의사로 있다.

◆ 김민형(金民衡)

본관 나주. 미국하바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김박환(金璞煥)

1856~1929 본관 나주. 호 수산(水山). 아버지 상혁(相奿)과 어머니 탐진씨(探津氏)의 아들로 충무의 부사용,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진주 강석형(姜錫衡)의 딸이다.

◆ 김박음

1963년 해보면 금덕리 출생하여 함평농고를 졸업하고 경기신학교, 개신대학원, 총신대 목회대학원 졸업. 2005년 『문학과 사랑』에 시 「우전」 외 4편으로 등단. 현재 보성사랑교회 담임목사. 시집으로는 『보성에 가면』이 있다.

◆ 김병권(金炳權)

1931년 생. 나산면 용두리에서 출생. 육군 중령 예편

◆ 김병규(金秉圭)

1868~1935 본관 선산. 처음 이름 상규(祥圭). 자 문여(文汝). 호 만성재(晩惺齋). 시조의 32세손. 정용(政容)의 아들. 1891년 성균관 진사에 합격하여 수학하던 중 어머니의 병환 때무에 낙향하여 손가락을 잘라 피를 넣어 소생케한 후 고향에 머물러 효도와 후학 양성에 온 힘을 쏟으니 도에서 천거한 바 있으며 김태원 의병부대에 가담 활동하였고 문집이 있다. 아내는 파평윤씨 갑진(甲鎭)의 딸, 하동정씨 순영(淳英)의 딸이다.

◆ 김병기(金炳淇)

1909~작고. 본관 나주. 자 성남(成男). 호 우형(牛亨). 이구(二九)이 아들로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 엄다면장·함평향교 전교를 지냈으며 아내는 무안박씨, 그리고 양성 이분임(李粉任)이다.

◆ 김병기(金炳基)

1930. 11. 7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고졸. 제 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역임

◆ 김병남(金炳南)

1939. 8. 18 본관 영산 신광면 함정리에서 태어남. 목포 영흥고등학교 졸업. 육군 중령으로 예편

◆ 김병도(金炳道)

1943. 2. 13 본관 선산. 자 승일(勝一). 시조의 36세손. 한동(漢棟)의 맏아들. 조선 대학교 졸업. 조선대학교수. 아내는 광주 이인숙(李仁淑)이다.

◆ 김병량(金炳亮)

1902~1950 본관 김해. 시조의 69세손. 호 매정(梅亭). 영두(永斗)와 충주 지돌물의 아들로 손불면 동암리에서 출생하였고 1946~1950년까지 손불면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광산 김기준(金箕俊)과 진주 강기동(姜基洞)의 딸 복례(福禮)다.

◆ 김병련(金丙鍊)



김 병 련

1930. 10. 30 본관 광산. 족보명 병현(丙鉉). 호 서정(瑞亭). 시조의 36세손. 규록(珪駱)과 무안 박광여(朴光汝)의 둘째아들로 손불면 죽장리에서 태어났고, 강진농업고등학교, 전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 하였으며 제 12회 보통고시에 합격하였다. 1965년 전라남도 주재 근로 감독관, 전주

직업안정소장. 노동부청주지방사무소장을 거쳐, 1982년 전남노동위원회 사무국장, 1985년 노동부제주지방사무소장을 역임하고 1992년부터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987년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효행상을 받았다. 아내는 경주 김용태(金用泰)와 김해 김부잡(金富雜)의 딸 대순(大順)이며 광주시장의 효부상을 받았다.

◆ 김병석(金炳錫)

1935. 11. 26 본관 광산. 시조의 36세손. 재춘(在春)의 맏아들.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하였고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국방부 법무관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김해김씨 태환(太煥)의 딸, 창녕조씨 의현(宜鉉)의 딸이다.

◆ 김병윤(金炳允)

1951. 4. 23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공군사관학교 졸업. 공군 중령

◆ 김병철(金炳哲)

1924. 신광면 출생. 1989년 가을 이리(익산)에서 개최된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에서 명인부 1위를 차지했다.

◆ 김복수(金福洙)

1947. 9. 30 본관 광산. 호 동암(東巖). 아버지 영표와 어머니 한양 조초희의 아들로 손불면 동암리에서 출생하여,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사회교육원을 수료하였으며, 대전 소재 세원 건설주식회사 사장으로 있고 대전함평군향우회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나주 김민구(金玟九)와 인동 장길순(張吉順)의 딸 화옥(和玉)이다.

◆ 김봉규(金奉圭)

1938. 10. 22 본관 나주. 아버지 두천(斗千)과 어머니 무안 박앵순(朴櫻順)의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

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라남도청 건축과 서기관, 전라남도 건축사회사무국장을 지냈으며, 1963년 대통령의 면려포장을 받았다. 아내는 밀양 박병순(朴炳順)의 딸 덕례(德禮)이다.

◆ 김봉래(金鳳來)

손불면 죽장리에서 출생. 제5대 손불면장(1925. 9. 25~ 1933. 11. 5)을 지냈다.

◆ 김봉석(金鳳錫)

1893~1974 본관 선산. 자 명서(鳴瑞). 호 죽계(竹溪). 시조의 33세손. 병규(秉圭)의 아들. 함평향교 전교를 역임하였고 1972년 선산김씨 호남종친회 창립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성리학 특히 예학에 정통한 전형적 선비였다.

아내는 무안박씨 재호(在好)의 딸, 나주정씨 귀현(貴賢)의 딸이다.

◆ 김봉수(金鳳守)

1916~작고. 본관 김해. 함평읍 대덕리 백곡에서 출생. 일본대분현중학교 졸업. 2~3대 전라남도위원을 지냈다.

◆ 김봉수(金逢洙)

대동면 금산리에서 출생. 1953. 12. 3~1955. 10. 14까지 대동면자를 지냈다.

◆ 김봉천(金鳳千)

호 운봉(雲峰). 서예가. 작고.

함평읍 출신으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고 미전에 입선한 바 있다.

◆ 김부접(金扶接)

학교면 죽정리. 함평향교의 효부표창을 받았다.

◆ 김사병(金四炳)

1931. 3. 10 본관 김해. 호 호산(湖山). 서연(西連)과 나주 임선임(林仙任)의 아들로 손불면 학산리에서 출생하였다. 함평농

림학교,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기사로 전라남도 산림과, 해남군 건설과에 근무하였고, 1971년에 기사로 승진 목포사방관리소장, 1974년에 순천사방관리소장을 지냈다.

◆ 김사중(金四中)

1941. 12. 27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철도역장을 역임함.

◆ 김사현(金泗鉉)

엄다면 성천리 성암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졸업. 목포대학교수 역임.

◆ 김산중(金山中)

1934년 학교면 학교리 출생. 아호는 청강(淸江).서울대 사대 영문학과 졸업. 광주 전남중, 진도 군내중을 지내다 정년. 1999년 『문학춘추』에 시조 춘철란이 당선되어 등단. 동천회장역임. 사군자에도 조예가 있어 2003년 한국미술제 대상 수상. 저서로는 시조집 『회자정리』 『속회자정리』가 있다.

◆ 김삼중(金三中)

1938. 1. 15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소령 예편

◆ 김삼진(金三鎭)



김삼진

1934. 10. 11 본관 김해. 시조의 75세손. 호 청송(靑松). 동시인. 창섭(昌涉)과 고령 신점순(申点順)의 아들로 나산면 나산리에서 출생하여 나산초등학교, 광주사범학교,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장을 지냈으며 196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1967년 교육신문 문학상에 당선문단 활동을 하였다. 1981년에 한국아동문학상, 1990년에 한정동아동문학상, 2009년에 박경중

아동문상과 농민문학작가상을 수상.
1977년에 전남아동문학가협회장,
1992~1996년까지 광주, 전남아동문학
인회장 역임. 저서로는 동시집 9월의 바
람(아동문예), 종이비행기(교학사), 아침
편지(대교), 꽃시계(아동문예), 아름다운
만남(한림), 나비야 날아라 함평가자
(2008년) 등이 있다. 아내는 금녕 김한
표(金漢杓)와 하동 정진찬(鄭珍贊)의 딸
정은(貞恩)이다.

◆ 김삼현(金參鉉)

1952. 7. 28 본관 광산. 시조의 36세손.
재구의 셋째 아들.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
였고, 아내는 의성김씨 진출(鎭出)의 딸이
다.

◆ 김상만(金相滿)

1920. 10. 18~작고.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 국졸. 손불초등학교 등 교장 역임

◆ 김상렬(金相烈)

1941. 5. 18 본관 김해. 화영(華永)과 나
주 임순금(林順今)의 아들로 손불면 대전리
에서 출생하여 손불초등학교,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손불면 부면장,
면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화순 오용환(吳庸煥)과 양팔삭(梁八
朔)의 딸 성자(聖子)이다.

◆ 김상요(金相堯)

1933. 3. 3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역임.

◆ 김상휴(金相休)

1868~1934 본관 광산. 호 극암(克菴). 시
조의 34세손. 훈(薰)과 청주한씨의 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태어났다.
한학에 조예가 깊으며 문집 '극암유고(克
菴遺稿)' 3권이 전한다. 아내는 나주 김
병현(金炳鉉)과 창녕조씨의 딸이다.

◆ 김 석(金 哲)

1910~1983. 2. 25 본관 영산. 이명 김
광초(異名金光初). 호 구봉(九峯). 김영
곤(金永坤. 또 김영표-金永杓)의 만아들
로 조실 부모하고 숙부 김철(金澈)의 슬
하에서 자랐다.



김 석

1924년 영광고보(靈光
高普)를 중퇴하고 임시
정부 국무위원 김철을
찾아 상해에 도착한 그
는 임시정부에 참여하
였으며 퍼블릭스쿨(영
국중학)에서 수학하고
1925년 양부(養父)의
병간호를 위해 귀국하였다가 다시 상해
로 가서 영국중학을 졸업했다.

1928년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에 밀항하
여 와세다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재학중학
자금이 떨어져 동년 4월에 귀향하여 독
립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동면 상
옥리 윤해광(尹海光)과 함께 나주시 문
평면 사무소에 들어가 완구용 권총으로
면장이하를 협박하여 금고를 빼앗아 도
주하다가 체포되어 동년 5월 대구복심원
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개성
(開城)소년형무소에서 복역 중 1930년
4월에 가출옥, 1931년 7월에 목포를 경
유 상해에 도착하여 9월에 상해 법정대
학 정치과에 입학하였으며, 재학 중 김
구 등이 조직한 교민단체대회(僑民團大會)
에 서기(書記)로 취임하여 만보산(萬寶
山) 사건을 규탄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
였다.

동년 11월 재상해중국학생연합회(在上海
中國學生聯合會)에서 항일 구국의 기치
아래 대일 전쟁을 위한 중국 구국학생
의용군이 조직되자 법정대학 의용군에
가입하여 군사 훈련을 이수하고 의연금
모집에 종사하였다.

1932년 1월 공산단체인 상해한인청년동
맹(上海韓人靑年同盟)을 배격하고 일제의
침략 세력을 적극 소멸함은 물론 독립 투
사의 전위적 활동과 지역적 책임 완수 및
한국 청년의 단체훈련을 실시하여 혁명
역량을 총 집중할 것을 강령으로 내걸로
상해한인청년당(上海韓人靑年黨)을 결성
하고 이사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투척할 폭탄을 김구에게 전달하여 이날 의거를 성공케 하였으며 일인들이 그와 김구(金九), 김철(金澈)의 체포령을 내렸다.

투탄사건 후 법정대학을 자퇴하고 조소앙 계열에 속하여 임시정부 피난 자금을 중국 홍십자와 교섭하여 800불을 지원받아 조소앙에게 전하였으나 김구 계열과 알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932년 11월 22일 중한민족(中韓民族) 항일대동맹원 황전영(黃展英)으로부터 대항일전에 사용할 폭탄 제조 의뢰를 받아 이를 준비하다가 상해프랑스조계의 황전영 집에서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일경과 프랑스관헌의 절차상 분규로 공 석방되었다.

석방 후 1926년에 조직된 무력단체인 병인의용대(丙寅義勇隊)의 세력을 부활하기 위하여 맹렬히 활동을 전개하던 중 1933년 11월 22일 상해에서 다시 일경에 검거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5년 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1934년 12월 27일 대구복심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너희들에게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법정 도주를 하다가 붙들려 8개월 가형(加刑)을 받았다.

1941년 형기를 마치고 출옥하였으나 1942년 예비 검속에 구속되어 청주형무소에 예방 구금되었다가 1945년 1월 병보석으로 출감하였다.

그 후로도 광주의 대화숙(大和塾)에서 연금 생활을 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자유의 몸이 되어 전남 건국준비위원, 광주청년대장 직을 역임했으며 1968년 3월 1일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 받았다.

◆ 김석규

함평읍 기각리. 1988년 지역개발 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김석하(金錫夏)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 제3대 손불면장(1917. 7. 5~1919. 12. 7)을 지냈다.

◆ 김선동(金宣東)

1951. 1. 12 본관 광산. 호 호산(湖山). 시조의 37세손. 서현(瑞鉉)의 맏아들로 대학 졸업.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였고 회사 과장직에 있다. 아내는 한양조씨 형권(衡權)의 딸이다.

◆ 김선아(金仙兒)

1951. 8. 20 본관 김해. 학교면 곡창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졸업. 동대학 자연대 교수, 학과장 역임.

◆ 김선일(金善日)

1924 국악인. 함평읍 고양촌에서 출생. 창(唱)을 겸한 고수로 함평군 국악협회장을 지냈고, 여러 동호인들에게 기법 등을 전수하였다.

◆ 김성(金星)

1966.4.28. 본관 광산. 상현(商鉉)과 김해 김말순(金末順)의 장남으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인하대학교 대학원 졸업, 이학박사.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 근무. 아내는 나주 정영민(丁榮敏)이다.

◆ 김성균(金成均)

본관 나주.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를 지냈고 현재 변호사업을 하고 있다.

◆ 김성기(金性基)



김성기

1937. 1. 13 본관 김해. 시조의 71세손. 금동(今同)과 진주 강양임(姜良任)의 아들로 손불면 월천리에서 태어나 함평중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를 졸업 보건사회부 마약감시과, 부산지

방검찰청(5급)에서 근무하였고 1990. 4. 30에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아내는 전주 이반길(李半吉)과 밀양 박분례(朴分禮)의 딸 판순(判順)이다.

◆ 김성렬(金成烈)



김성렬

1957. 12. 13 본관 김해. 시조의 73세손. 갑준(甲俊)과 나주 임정애(林貞愛)의 아들로 손불면 공산리에서 출생하여 함평서초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단국대학교, 동 대학원

을 수료하였고 1991년 제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대구지방법검찰청, 춘천지방법검찰청 영월지청검사직에 있다.

◆ 김성모(金誠模)



김성모

1951. 4. 14생 본관 김해(金海) 순천과 해주(海州) 최연님의 장남으로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 고입 검정고시로 목포고등학교를 나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주)현대중공업 전무이사, (주)현대미포조선 상무이사, (주)호텔현대 대표이사, (주)HYMS 이사의 재직과 충청북도 투자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아내는 경주 이종성의 장녀이다.

◆ 김성수(金性洙)

1953. 6. 2 엽다면 영흥리 영천에서 출생. 경찰대학 졸업. 울산경찰서 등 근무. 경감

◆ 김성호(金成濤)

1947. 11. 22생 본관 김해(金海) 호 청운(靑雲) 길남(吉南)과 남평(南平) 문귀임(文貴任)의 장남으로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에

서 출생 대학교를 졸업하고 순천시보건소 의무과장과 보건사업과장, 함평·무안보건소장을 역임하였고 건강관리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관위원장으로 활동중이며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아내는 능주(綾州) 구재옥(具在玉)과 해주(海州) 최능순(崔能順)의 다섯째 딸 덕임(德任)이다.

◆ 김세진(金世鎭)

1962. 9. 3 본관 경주. 현동(玄東)과 나주 정헌점(丁憲点)의 아들로 손불면 공산리에서 태어나 함평서초등학교, 광주신학대학, 총신대학을 졸업 현재 담양군 수북면 중앙교회 목사로 있다.

◆ 김수호(金秀鎬)

1934. 7. 21 본관 상산. 나산면 이문리 증산에서 출생
광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공군 대령 예편

◆ 김숙정(金淑正)

1956. 3. 14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대학교 졸업. 광주보건전문대학 교수

◆ 김순임(金順任)

나산면 용두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김순중(金順中)

1938년 학교면 학교리 회춘동 출생. 아호는 운봉(雲峰). 한국방송통신대 졸업. 초등학교사로 재직하면서 사진예술에 심취하여 전국촬영대회 및 공모전에 수십회 입, 특선. 광주광역시 사진예술 공로상, 한국사협 제23회 회원전 20결상, 2008년 한국문화사진출판상 수상. 한국사협본부 이사, 광주지회부지회장 역임. 어등미술대전사진분과 심사위원장 동 초대작가, 전국무등미술대전 사진분과 심사위원장 동 초대작가,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 국민예술미술전람회 사진분과 심사위원장 동 초대작가.

◆ 김순홍(金洵弘)

1961. 4. 9 본관 광산. 시조의 37세손. 강현(康鉉)의 맏아들. 대동면 덕산리 출신으로 경제학 석사. 대학교 교수직에 있다. 아내는 전의 이정란(李貞蘭)이다.

◆ 김승규(金承奎)



김승규

1935. 11. 24생 본관 고성(固城) 호 학천(鶴泉)이며 연호(連浩)와 나주(羅州) 김흥례(金興禮)의 3남으로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학다리중앙초등학교를 졸업

함평군 내무과 근무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장, 광주광역시 체육, 환경, 총무과장을 역임 지방서기관으로 광산구청 총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상훈으로는 근정포장을 수훈하였으며 아내는 함평(咸平) 노병소(魯炳韶)와 한양(漢陽) 조귀례(趙貴禮)의 4녀 기순(琦順)이며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고 좌우명으로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이다.

◆ 김승동(金昇東)

1953. 9. 18 본관 선산. 시조의 35세손. 영기(泳錡)의 아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주) 남양금속 총무부장직에 있다. 아내는 김혜 김은희(金銀喜)로 광열(光悅)의 딸이다.

◆ 김승범(金承範)

1939. 3. 21 본관 선산. 영세명 안드레아. 시조의 36세손. 재동(載棟)의 맏아들.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경제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중등교육행정전공. 교육부 교육연구관, 중등학교장 역임 아내는 함평 이정강(李正江)으로 계철(啓哲)의 딸이다.

◆ 김 씨(金 氏)

1856~1941 본관 김해. 하순(河珣)의 딸로 함평 노연복(魯淵復, 시조의 25세손. 1825~1889)의 아내. 천성이 정숙하였고 남편 병환에 축천원대하며 백방으로 약을 구해 썼으나 끝내 타계하자 같이 죽으려 하였으나 어린 아들을 위해 뜻을 바꾸고 수절하여 60여년을 살았다. 향도에서 여러 번 이 행실을 천하여고 함평향교 모성공회에서 열부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 김안식

1929. 9. 30 함평읍 석성리 483번지. 13경비대대 하사로 근무하던 1952. 10. 11 포항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김 양(金 良)

1936년생.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대졸. 육군 대령 예편

◆ 김양기(金良基)



김양기

1941. 3. 24 본관 나주. 아버지 점암(占岩)과 어머니 이차례(李次禮)의 맏아들로 학교면에서 태어나 학다리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84년 광

산군 공보실장, 1995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 1996년 도정발전기획단 수석단장 직무대리(4급) · 전라남도 내무국 세정과장을 거쳐 1998년부터 함평부군수로 2001년 퇴임하였다. 아내는 나정남(羅貞南)이다.

◆ 김양수(金楊洙)

본관 광산. 자 양수(量受). 호 청파(靑坡). 시조의 38세손. 영생(永生)의 맏아들로 손불면에서 출생하였고 동장(洞長)을 지냈다. 아내는 파평윤씨 인식(仁植)의 딸이다.

◆ 김양태(金良泰)

신광면 백운리. 함평향교 전교의 효자표창을 받았다.

◆ 김양현(金良鉉)



김양현 1951. 11. 5생 본관 광산(光山), 호 기산(箕山) 석규(石奎)와 한양 조연순(趙燕順)의 장남으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나와 환경녹지과장 사회경제과장, 함평읍장을 거쳐 주민복지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아내는 이천 서백수(徐百洙)와 능주 구판례(具判禮)의 여섯째 영화(英花)이다

◆ 김여옥(金汝玉)

1892~작고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하였고 이운상, 김기택 등과 1919년 4월 8일 문장만세운동에 벌이는데 앞장 섰으며 당일 체포되어 25명의 동지들과 대구재판에 회부되었으나 형을 받지않았다.

◆ 김연석(金鍊錫)

1937. 4. 23 본관 상산. 나산면 이문리에서 출생
광주사범대학 졸업. 초등학교 교장 역임

◆ 김연수(金淵水)

1938. 1. 23 본관 광산. 족보명 연현(淵鉉). 호 송정(松亭). 시조의 36세손. 규준(珪駿)의 아들로 손불면 죽장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남교육연수원 총무과장을 지냈으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아내는 나주 임종진(林鍾振)의 딸이며 육영수 여사 추모사업회 효행상을 받았다.

◆ 김영곤(金永坤)

1923. 6. 25 본관 김해. 대동면 향교리에

서 출생. 재만과 최업비의 아들, 대동면장(1969. 4. 21~1977. 4. 8),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 아내는 임연임이다

◆ 김영관(金永官)

본관광산. 대동면 금산리에서 태어났으며 함평군의회 3대 의장(1995. 4. 28~6.30)을 역임했다.

◆ 김영관(金永官)



김영관 1947. 1. 28 본관 광산. 시조의 37세손. 호 심화(心和). 효현(孝鉉)과 파평 윤길임(尹吉任)의 셋째 아들로 함평읍 내교리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 박사과정(문학박사)을 마쳤다.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 교학과장, 펜실바니아대학 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문학 21” 추천 작가며 동 문학지 편집이사, 세익스피어학회 회원, 한국 드라마학회 이사로 있다.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서서’(1991. 나눔사), ‘정숙한 아내’(번역서. 1993. 금문), ‘작별의 한 잔’(1997. 조선대학교출판국) 등 저서와, ‘내가 과연 미친거유?’(1997. 문학 21) 등 다수의 글을 발표하였다.
아내는 파평 윤병익(尹炳翼)과 김복수(金福壽)의 딸 은숙(銀淑)이다.

◆ 김영규(金永圭)

1924~1949 손불면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곡성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였다. 1949년 3월 1일부터 호남 및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5월 9일까지 공비 토벌 작전을 전개하였고,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 공부 토벌에 나섰다. 영규 경사는 두 번의 공비 토벌 작전에 참여하였고 1949년 10월 3일



곡성군 옥과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한국전몰용사 공훈록. 국방부>

◆ 김영근(金永根)

1952. 1. 24 본관 광산. 일명 건수(健秀). 시조의 37세손. 정현(正鉉)의 둘째 아들로 대동면에서 태어남. 세무서 과장으로 있으며 아내는 문화 유앵심(柳鶯心)이다.

◆ 김영기

나산면. 1980년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김영남(金永南)

1960. 6. 15 본관 김해. 대동면 용성리에서 출생. 동국대학교 체육과 졸업. 88서울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 김영도(金榮道)

1917. 7. 5 나산면 우치리에서 출생. 중졸. 함동수리조합장을 지냈다.

◆ 김영도(金永道)

1929. 2. 13 본관 광산. 시조의 37세손. 양현(良鉉)의 아들.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였고 아내는 연주현씨(延州玄氏) 춘섭(春燮)의 딸이다.

◆ 김영렬(金榮烈)

1925. 11. 1 본관 김해. 시조의 71세손. 호 청호(淸湖). 서연(西連)과 나주 임선임(任仙任)의 아들로 손불면 학산리에서 태어나 손불초등학교 함평농림학교를 졸업하였고 손불, 몽탄서초등학교 등에서 교사를 지냈으며 손불면 부면장, 손불면장(1983년 12월부터 4년 6개월간)을 역임하였다.

◆ 김영민(金榮珉)

1969. 4. 26 본관 선산. 영세명 분도. 시조의 35세손. 국렬(國烈)의 넷째 아들.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원주식회사 경리과장을 역임하였고, 아내는 해남 윤선(尹善)으로 재림(在林)의 딸이다.

◆ 김영배(金永培)

1932~1985 본관 광산. 호 안재(安齋). 시조의 37세손. 명현(明鉉)의 다섯째 아들. 대동면 출신으로 경찰 총경을 지냈으며 치안 유지에 공로가 있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내는 언양김씨 동업(東業)의 딸이다.

◆ 김영빈(金永彬)

1949. 6. 15 함평읍 대덕리에서 출생. 봉수의 아들. 미국 대학원 졸업. 전자공학 박사

◆ 김영상

1932. 12. 20 손불면 대전리 71번지. 1951. 12. 18부터 9사단 3대대 9중대 소총수로 1953. 5. 3까지 백마고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김영선(金榮宣)

1939. 1. 19 함평읍 내교리 신기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졸업. 육군 중령 예편

◆ 김영수(金穎洙)

1931. 11 12 작고. 본관 김해. 신광면 송사리에서 출생함. 대졸. 광주국세청 직세과장을 지냈다.

◆ 김영숙(金永淑)

1926. 1. 5생 본관 광산(光山) 대현(大鉉)과 무안(務安) 박유순(朴有順)의 장남으로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전라남도교육청 장학

관을 거쳐 광주주월초등학교장을 역임하고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선산(善山) 김준호(金俊鎬)의 장녀 금순(今順)이다.

◆ 김영순(金永順)

대동면 향교리. 함평향교의 효부표창을 받았다.

◆ 김영열

1926. 8. 25 손불면 궁산리 260번지. 9사단 28연대 2대대 8중대 대위로 근무하던 때 철원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53. 8. 12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김영오(金永午)

1951. 2. 5 본관 광산. 시조의 37세손. 용현(龍鉉)의 둘째 아들.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 대졸. 투자신탁 차장으로 있다. 아내는 장흥 임영수(任永洙)의 딸 은자(銀子)이다.

◆ 김영용(金永龍)

1952년 학교면 금송리 출생. 학다리고와 조선대 법대 졸업. 남강 이효갑 선생과 금초 정광주 선생에게 사사. 전라남도 미술대전 추천작가,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추천작가.

◆ 김영월(金永月)



김영월

1948. 3. 1 본관 김해. 용선(用宣)과 정복례(鄭福禮)의 아들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태어나 함평초등학교, 광주고등학교, 국제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행정

정서기보, 주택은행 이문동, 연지동지점장 역임. 1996년 『한국수필』을 통해 수필로 등단하고 이듬해 『시와산문』으로 시인으로도 등단하여 왕성한 창작력

으로 10여년 만에 수필집 6권과 시집 5권을 펴내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서로는 수필집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까』 『산은 산, 물은 물을 찾아서』 『가끔씩 날개를 달고』 『몰입하는 삶』 시집 『현금자동지급기』 『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간다』 『섬은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아내는 박성자(朴成子)다.

◆ 김영윤(金映允)

학교면 곡창리에서 출생. 목포사범학교 졸업. 육군 소령 예편

◆ 김영중(金永鍾)



김영중

1942. 7. 4생 본관 광산(光山) 호 덕암(德巖) 대현(大鉉)과 평택(平澤) 임복임(林福任)의 차남으로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 광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 함평군청

농산과장, 식산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내무과장,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하고 함평군의회의원을 역임, 지방행정동우회함평군회장을 맡고 있으며 모범공무원상, 국무총리 우수공무원 표창,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산에 오르는 즐거움' 등의 수필을 발표하였고 아내는 전주(全州) 이문희(李文喜)와 영성(靈城) 정순례(丁順禮)의 차녀 옥순(玉順)이다.

◆ 김영진(金泳鎭)



김영진

1931. 7. 10 본관 광산. 족보명 은현(殷鉉). 호 석산(石山). 시조의 36세손. 규태(珪台)의 맏아들로 손불면 죽암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세대학교 육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목포교육대



학장, 목포대학교 총장, 전라남도 교육위원, 한국교육학회 전남지부장 역임, 저서로 ‘교육통계’, ‘교육연구, 논문 보고서 작법’ 등이 있으며 국민훈장독백장, 전남도문화상수상. 아내는 무안 박성현(朴成鉉)의 딸이다.

◆ 김영진(金永珍)

1937 본관 광산. 효현(孝鉉)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태어나 함평초, 함평중, 함평농업고등,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함평군청내무행정 공무원, 나산중학교 교사, 광주문화 방송국 보도국 기자, 함평교통 창업대표이사, 국제로타리 함평클럽 회장, 함평군번영회부회장, 사단법인 함평군지방 행정동우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 김영창(金永昌)

작고. 함평을 수호리. 1984년 지역사회 봉사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김영채(金永采)

1935. 5. 6 손불면 월천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 졸업.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김영철(金榮哲)

1957. 5. 23 본관 선산. 영세명 요셉. 시조의 35세손. 국렬(國烈)의 셋째 아들. 조선대학교 화공과 졸업. 기아산업주식회사 과장 역임. 아내는 전주 리민아(李敏芽)로 영용(永鏞)의 딸이다.

◆ 김영춘(金永春)

1952. 4. 20 본관 광산. 시조의 37세손. 보현(甫鉉)의 둘째 아들. 대동면 덕산리 출신이며 육군대령으로 있다. 아내는 월성최씨 해천(海千)의 딸이다.

◆ 김영태(金永太)

1927 5. 16 본관 광산. 시조의 37세손.

호 백열(白悅). 수현(修鉉)과 나주 임순래



김영태

(林巡來)의 아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태어나 함평복심상소학교, 광주농업학교, 조선대학 전문부 미술과, 조선대학 문리학부 미술과(1951. 문학사)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부속중, 고등학교, 광주서중, 목포공고, 광주공고에서 10여년간 교사를 지냈으며, 조선대학교 미술과 조교수(10여년), 호남대학교 교수(1년)를 역임했다.

1974년 미협전(美協展)에서 한국예총 회장상을 받았고, 1976년 일본 서부 시현회(示現會)에서 장려상, 동 시현회에 여러 번 출품 입선하였으며, 1983년부터 연(連) 5년간 일본 아세아 현대미술제 초대작가, 1993년 모스크바 한로작가전에 현지 참가, 1997년 대한민국 구상미술(具象美術) 4단체전, 개인전 수회 등 미술계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국제로타리 367지구 서광주로타리클럽회장(1979~1980),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1990년), 동 운영위원(1991년)을 지냈고 전남도전, 광주시전, 무등대전 심사위원장과 운영위원을 맡았다.

1979년 전라남도문화상을 받았으며 아내는 김해 김봉기(金鳳基)와 밀양 손금순(孫今順)의 딸 영순(永順)이다.

◆ 김영택(金泳택)



김영택

1936. 10. 29 본관 선산. 호 송암(松岩). 시조의 34세손. 봉석(鳳錫)과 나주 정정례(丁正禮)의 다섯째 아들로 나산면 송암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동아

일보 편집국 기자, 사회부 차장대우, 출판국

차장, 동 기획실 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정년 퇴직한 후 한국역사기록연구소장직에 있다. 1989. 1. 26 국회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5. 18 민주화운동에 관해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증언한 바 있고, 1994. 12. 13과 1996. 2. 7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에서 5. 18 민주화운동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했다. 또 1996. 10. 17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역시 5. 18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저서로 “10일간의 취재 수첩” “5. 18 민주항쟁” 과 “광주 사태 5대 의혹” “함평양민 학살 사건” 등 취재 기록과 논문이 있다. 선산김씨 간의공파 종친회장으로 있다. 아내는 초계(草溪) 최윤식(崔允植)과 김해 김희순(金姬順)의 딸 숙자(淑子)다.

◆ 김영학(金永鶴)



김영학

1950.11.27생. 본관 광산(光山) 호 금파(錦坡) 감현(坎鉉)과 함평(咸平) 이근례(李謹禮)의 장남으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 손불면장, 대동면장, 함평군청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에 재직 중이며 내무부장관상, 전라남도지사상, 농림부장관상을 수상. 아내는 함평(咸平) 이근수(李勤守)와 화순(和順) 최달순(崔達順)의 차녀 숙자(淑子)이다.

◆ 김영호(金永鎬)

1937. 4. 30 본관 광산.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 함평군청 농업소득과장 등 역임.

◆ 김영환(金永煥)

1955. 4. 18 본관 선산. 영세명 요안. 시조의 35세손. 국렬(國烈)의 둘째 아들.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현 중소기업 은행 차장. 아내는 김해 김성심(金晟心)으로 두

환(斗煥)의 딸이다.

◆ 김영훈(金榮勳)

1953. 1. 10 본관 선산. 영세명 루까. 시조의 35세손. 국렬(國烈)의 맏아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한국감정원 차장. 아내는 창원 황윤자(黃琬子)로 만진(萬珍)의 딸이다.

◆ 김영희(金永熙)



김영희

1933. 10. 17 본관 광산. 족보명 상현(商鉉). 호 만석(晩石). 시조의 36세손. 규태(珪台)의 둘째 아들. 문교부 전문대학 학무과장 역임. 녹조근정훈장 받음. 아내는 전주 리기성(李基性)의 딸이다.

◆ 김예란(金禮蘭)

1955. 12. 2 본관 나주. 호 호정(溟汀). 아버지 용선(用善)과 어머니 전주 리종민(李鍾敏)의 딸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태어났고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 김예란치과병원을 개원하였으며, 광주·전남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남편은 김해 김태호(金泰鎬)다.

◆ 김옥동(金玉棟)

1930. 7. 29 본관 선산. 자 형오(亨午). 시조의 35세손. 국환(國煥)의 셋째 아들. 전남대학교 졸업. 건설교통부 철도청 과장. 원주, 안양역장 역임. 아내는 청송심씨 종달(鍾達)의 딸이다.

◆ 김옥례(金玉禮)

1931. 7. 21 함평읍 장교리. 함평향교의 효부표창을 받음

◆ 김완중(金完重)

1963. 9. 12 본관 광산. 영암(永岩)의 아들로 손불면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대학에서 수학한 후 주일 본대사관 2등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내는 밀양 박만복(朴萬復)과 경주 이덕순(李德順)의 딸 혜진(惠珍)이다.

◆ 김용권(金容權)

1955. 2. 21 본관 광산. 호 청해(淸海). 시조의 39세손. 연수(連洙)의 맏아들로 대동면 덕산리 출신이다.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농학박사로 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다. 아내는 김해 김정순(金貞順)이다.

◆ 김용균(金鎔均)



김용균

1937. 3. 10 본관 김해. 호 학송(鶴松). 시조의 70세손. 하영(河永)과 나주 박현남(朴賢南)의 아들로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하여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신문 기자, 한국경영문제연구소 상임이사, 법정신문 지방부취재부장(1985~1995), 중앙파이낸스회장, 함평군변영회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평산 신태균(申泰均)과 광산 김갑순(金甲順)의 딸 안자(雁子)다.

◆ 김용빈(金龍彬)

1959. 11. 13 본관 선산. 시조의 36세손. 병용(炳裕)의 아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지방법원 판사직에 재임하고 있다. 아내는 제주 고행삼(高幸三)의 딸 은수(高銀洙)다.

◆ 김용술(金用述)

1934. 8. 1 나산면 용두리 괴정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법원 민사과장을 지냈다.

◆ 김용안(金容安)

1916. 10. 17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철도역장 역임

◆ 김용언(金用彦)



김용언

1902~작고.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 함평보통학교 재학중이던 그는 1919. 4. 26 함평만세운동을 벌이기 위해 조사현, 김준영, 모순기, 김준부, 김기성 등과 준비를 하다가 일

경에 발각되어 좌절하였고, 이듬해 3. 1 운동 1주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만세운동을 함평에서도 3월 26일에 거사하기로 조사현, 송대호, 정기연, 윤치선, 정영오 등과 합의를 보고 일반인은 조사현, 김재문이 맡고 학생측은 그와 윤태완, 이행록이 맡아 추진하여 계획대로 3월 26일 함평 시장에 수백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날 그와 조사현 등 20여명이 검속되고 11명이 주동자로 지목되어 목포지청으로 이송되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 김용우(金容禹)

본관 상산. 호 희암(希庵) 1907년 김태원과 창의하여 병량(兵糧)을 모았고 나주, 장성, 영광 등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특히 고막원 병참소 습격에는 공이 컸다.

◆ 김용일(金龍日)

1933. 5. 3 본관 김해. 엄다면 엄다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 대학대학원 졸업.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동대학병원장 역임. 1984년 광주문화방송 문화시민상, 1996년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김용철

1931. 2. 15 학교면 학교리 441번지. 수도사단 26연대 2대대 6중대 하사로 복무하던 때 수도고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54. 4. 20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김용헌(金容憲)



김 용 헌

1945. 8. 2 본관 광산. 시조의 39세손. 인수(寅洙)와 나주 김매순(金梅順)의 아들로 대동면에서 출생하여 함평중,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64년 한일은행광주지점 행원, 1990년 동 은행 중소기업부 부부장, 1991년 군산지점장을 역임하였고 1997년부터 노량진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59년 국회의장의 효행상을 받았으며, 아내는 진주 정경섭(鄭慶燮)과 해주 오복순(吳福順)의 딸 성자(聖子)다.

◆ 김용현(金用炫)

1901. 7. 29~작고. 본관 나주. 자 인수(仁壽). 아버지 상용(相容)과 어머니 함양 여씨의 맏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하였고 효자로 함평향교의 천장을 받았다. 아내는 전주 리영진(李榮鎭)의 딸 차례(次禮)로 효부 표창을 받았다.

◆ 김용현(金龍鉉)

1902~1954 본관 광산. 자 운회(雲會). 호 운석(雲石). 시조의 36세손. 재욱(在勗)의 둘째 아들로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오준선(吳駿善)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효심이 깊었다. 1919. 4. 8 문장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며 함평공원에 추모비, 문장에 기념탑이 세워졌다. 아내는 고흥유(柳)씨 균선(均善)의 딸이다.

◆ 김용호

학교면 석정리에서 태어남. 제7대(1946. 4. 4~1947. 3. 6), 10대(1950. 11. 12~1952. 5. 5) 학교면장을 역임했다.

◆ 김용환(金容煥)



김 용 환

1944. 12. 4 본관 광산.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완도군 민방위과장, 함평군청 지역개발과장을 거쳐 민원봉사과장으로 2003년 퇴직하였다.

◆ 김용휘(金用輝)

본관 나주. 나주김씨중앙종친회장 역임

◆ 김우근(金禹根)

1927. 12. 29 본관 나주. 아버지 은구(銀九)와 어머니 한양 조납순(趙納順)의 아들로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나주군청, 전남도청에서 과장을 지냈으며 아내는 영성 정윤보(丁允甫)의 딸 영희(英姬)다.

◆ 김우석(金禹石)

1937. 7. 29 본관 나주. 호 경암(景岩). 아버지 기천(綺千)과 어머니 무안 박예덕(朴禮德)의 아들로 함평읍 성남리에서 태어났고, 전남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 광주 충장중·금호중·각화중학교 등에서 교직 생활을 하였으며, 1999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아내는 하동 정경현(鄭敬鉉)과 여산 송일례(宋一禮)의 딸 지순(智順)이다.

◆ 김우성(金雨成)

1952. 9. 28생 본관 광산(光山) 영택(金永澤)과 양성 이옥순(李玉順)의 장남으로 함평군 손불면에서 출생. 초당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함평군의



김우성

화진(和珍)이다.

◆ 김우숙(金禹塾)



김우숙

1949. 5. 8 본관 나주. 호 수산(水山). 아버지 민구(玟九)와 어머니 인동 장길순(張吉順)의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하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목포 해양대학교 교수·학생처장·교무처장, 전국 해기사 국가고시 출제위원을 역임했고 1986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저서로 「대학항법개론」, 「레이더항법알파」, 「신간대학항해론」 등이 있다. 아내는 단양 우승기(禹承奇)와 전주 리옥심(李玉心)의 딸 영숙(英淑)이다.

◆ 김우영(金佑永)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 제7대 손불면장(1943. 4. 28~1946. 6. 18)과 제 10대 손불면장(1950. 11. 13~1952. 5. 4)을 지냈다.

◆ 김우원(金隅元)

1944. 4. 2 본관 나주. 아버지 두천(斗千)과 어머니 무안 박앵순(朴櫻順)의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태어났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토목공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여수시 도시과장, 광주광역시 도로과장·도시계획과장·상수도본부기술부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광주시 하수처리장의 방수류 활동에 관한 연구」가 있고, 1971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아내는 전주 최문규(崔文圭)와 부안 김선례(金先禮)의

딸 옥진(玉珍)이다.

◆ 김우중(金禹鍾)



김우중

1935. 3. 9 본관 나주. 아버지 홍구(洪九)와 어머니 여양 진초월(陳初月)의 아들로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김의택 국회의원 비서관, 한국자원재생공사 호남지사장, 광주광역시 북구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 김병균(金炳均)과 황대임의 딸 정숙(丁淑)이다.

◆ 김우창(金禹昌)

1937.12.27. 본관 나주. 김의택(金義澤)의 아들로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해서 광주에서 성장하였다. 광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동대학교 대학원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미국문명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옮겨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문학 비평에 뛰어난 업적을 세운 문학평론가이자 영문학자다. 1965년 『청맥』에 「엘리어트의 예」와 1967년 『창작과 비평』 봄호에 「시에 있어서의 지성」을 발표한 이후 본격적인 비평활동을 하여, '학문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폭넓은 인문학적 사유로 오늘의 문명과 우리사회를 성찰해'오면서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손꼽히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명저로 거명되는 『궁핍한 시대의 시인』을 시작으로 『지상의 척도』 『시인의 보석』 『법없는 길』 『이성적 사회를 위하여』 등 '김우창전집'과 『심미적 이성의 탐구』 『정치와 삶의 세계』 『풍경과 마음』 『시대의 흐름에 서서』 등이 있다. 김환태문학상과 김팔봉평론상, 인촌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고려대 대학원

장, 2004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주
빈국조직위원장 역임. 현재 예술원회원,
고려대 명예교수,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있다. 아내는 순창 설원식(設元植)의 딸
순봉(順鳳)이다.

◆ 김우희(金禹熙)

1942. 3. 8 본관 나주. 호 운강(雲岡). 아
버지 민구(玟九)와 어머니 인동 장길순(張
吉順)의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 덕산에서 출
생하여 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
과를 수료 함평중, 광주 무진중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1988. 12. 10 광주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청소년선도대상(효친부문)
을 받았다. 아내는 전주 리태현(李太鉉)과
김해 김양임(金良任)의 딸 흥례(興禮)다.

◆ 김원기(金源基)

본관 선산. 호 인헌재(仁軒齋). 시조의
37세손. 병대(炳大)의 아들. 전남대학교
졸업, 의학박사. 내과 전문의. 광주한국
병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아내는 영성
정성남(靈城丁聲男)으로 병채(炳采)의
딸이다.

◆ 김원기(金原基)

1962. 1. 6 본관 광산. 대동면 백호리에
서 출생.
전남대학교 체육과 졸업. 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음

◆ 김유성(金有聲)

나산면 용두리 선박. 도의부문 함평군민
의 상을 받았다.

◆ 김유원(金有源)

1915. 2. 2 학교면 월호리에서 출생
학교면장, 1대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함평향교 전교 역임

◆ 김유장(金裕庄)

1945. 5. 18 학교면 마산리에서 출생.
대졸. 광주국토유지관리 사무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 김유중(金有中)

1941. 1. 20생 본관 광산(光山) 호 청신
(淸信) 용근과 김해(金海) 김부덕의 장남으
로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하여 목포사범
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장을 역임하였으
며 아내는 함평(咸平) 이귀형과 과평(派平)
윤금례의 딸로 슬하에 3남을 두었다.

◆ 김유태(金有泰)

나산면 이문리에서 출생
1948~1949년까지 나산면장을 지냈다.

◆ 김 윤(金 輪)

1964. 5. 24 아버지 우근(禹根)과 어머니
영성 정영희(丁英姬)의 아들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관으로 있으며 저
서로 「응급의료체계 구성원리와 개선방
안. 1998. 국가안전기획부」 이 있다.

◆ 김의구(金義九)

1914. 8. 14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
광산경찰서 경무과장 등 역임. 경위 퇴임

◆ 김의택(金義澤)

1909~1983 본관 나주. 엄다면 신계리에
서 출생
광주농업학교 졸업. 1945~1950 전남경찰
국 부국장. 1951~1953 전북, 충북경찰국
장. 1954년 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4,
5, 8대 국회의원 당선. 민주당원내 총무,
조직부장을 역임했고 민중당 전당대회 의
장, 신민당 전당대회 의장, 신민당 총재
권한대행 등 요직을 맡음.
1980년 민권당(民權黨) 총재 취임과 동시
에 제12대 대통령에 입후보함.
1983년 2월 1일에 타계하자 정부에서 국
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사회장을 결
정하였다.

◆ 김의형(金義衡)

1971. 2. 2 본관 나주. 아버지 우희(禹熙)와 어머니 전주 리흥례(李興禮)의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보성조성보건소장을 거쳐 광주기독교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로 있다.

◆ 김이동(金利棟)

1921. 11. 25 본관 선산. 자 형순(亨順). 시조의 35세손. 홍빈(洪彬)의 둘째 아들. 전라남도청 과장 역임
아내는 장흥 고재순(高在順)으로 광목(光穆)의 딸이다.

◆ 김이현(金貳鉉)

1951. 1. 12 나산면 이문리에서 출생. 경감

◆ 김인구(金仁九)

1914. 7. 13 본관 나주. 아버지 용연(用淵)과 어머니 평산 신씨의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태어났으며 충주경찰서장을 지냈다. 아내는 하동정씨 또 개성옥씨다.

◆ 김인규(金仁圭)

1870~1926 본관 선산. 자 문일(文一). 시조의 32세손. 윤용(潤容)의 양아들. 생부 정용(政用). 정릉참봉을 지냈으며 어머니의 병환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넣어드려 회생하게 하는 효를 보였다. 군지와 도지에 이 사실이 실려 있다. 아내는 진주 강영숙(姜永淑)이다.

김인동(金仁棟)

1939. 6. 13 본관 선산. 시조의 35세손. 홍빈(洪彬)의 아들. 한신대학 졸업. 목사. 아내는 진주 강효순(姜孝順)으로 용원(湧遠)의 딸이다.

◆ 김인두(金仁斗)

1927. 5. 1 나산면 월봉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예가. 손불중

학교 등 교장 역임.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중등 교육과 장학관 역임

◆ 김인수(金寅洙)

1976. 11. 27생 본관 광산(光山) 영도와 경주(慶州) 한소연의 차남으로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행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아내는 청주(淸州) 한근수와 강춘란의 장녀 소영이다.

◆ 김인식(金仁植)



김인식

1945. 8. 26 본관 김해. 태현(泰鉉)과 충주 지야례(池也禮)의 아들로 학교면에서 태어났고, 학다리중, 광주일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네덜란드 사회과학원에서 수학한 후 농협중앙회 자금운용실장,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 역임. '농민조합원의 농협'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이 있다.

아내는 전주 리병주(李兵柱)와 정금여(鄭金女)의 딸 해자(海子)다.

◆ 김인천



김인천

1952. 손불면 출생.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주)인천상사 대표이사. 광주경실련 이사

◆ 김일룡(金日龍)

대동면 향교리에서 출생

1952. 10. 31~1953. 9. 28까지 대동면장을 역임했다.

◆ 김일도(金一道)



김 일 도

1948. 2. 22생 본관 광산(光山) 본명 영도(永度) 대현(大鉉)과 평택(平澤) 임복임(林福任)의 삼남으로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 인천남초등학교장에 재직중이며 아내는 나주(羅州) 오효열(吳孝烈)과 나주(羅州) 임종례(林琮禮)의 4녀 영애(英涯)이다.

◆ 김자현(金資鉉)

1926. 10. 28 본관 광산.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고졸. 구례 비룡초등학교 등 교장 역임

◆ 김재곤(金在崑)

1900. 9. 7~1976 본관 광산. 자 치선(致善). 호 옥산(玉山). 시조의 35세손. 기수(箕粹)의 맏아들로 월야면 월계리에서 태어났다.

1919. 4. 8 문장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향인이 함평공원에 추모비, 문장에 기념탑을 세웠다. 아내는 장흥고씨 양진(亮鎭)의 딸이다.

◆ 김재광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 제19대 학교면장(1973. 11. 1~1974. 12. 26)을 지냈다.

◆ 김재구(金載球)



김 재 구

1930. 3. 15 본관 김해. 호 경암(景岩). 시조의 70세손. 병량(炳亮)과 광산 김복례(金福禮)의 아들로 손불면 동암리에서 출생하였다. 함평농업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1957년 전남도청산림과 직원, 1978년 여천군 민방위과장, 1979년부터 1991년까지 장성군 농산, 사회, 식산, 재무과장을 역임했으며, 1995~1997년까지 재광함평군 향우회장을 맡았다.

장성군 애향상(1989), 국무총리상(1990), 근정훈장(1991)을 받았으며 아내는 밀양 손용태(孫容泰)와 밀양 박양례(朴良禮)의 딸 양금(良今)이다.

◆ 김재길(金在吉)

1936. 3. 24 함평읍 성남리에서 출생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제1대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함평읍장을 지냈으며 1981년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김재당(金在唐)

1931. 11. 4~작고. 본관 광산. 시조의 35세손. 자 대진(大振). 호 춘당(春堂). 기천(箕千)의 맏아들 학교면장을 지냈으며 아내는 수성최씨 정희(正熙)의 딸이다.

◆ 김재동(金載棟)

1912~1973 본관 선산. 영세명 시문. 시조의 35세손. 홍필(洪弼)의 둘째 아들.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광주학생독립운동 선도(先導). 국내 항일 자주독립운동유공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음 아내는 제주 양귀님(梁貴任. 영세명 올라)으로 재국(在國)의 딸이다.

◆ 김재란(金在鸞)

1914. 12. 28~작고.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보성전문학교 졸업. 학다리중고등학교장을 지냈다.

◆ 김재문(金在文)

작고. 대동면 금산리에서 출생. 1920. 3. 26 함평만세운동 주도자 중 한 명으로 조사현과 함께 일반인 동원을 책임 맡았다. 거사일에 체포되어 목포지청으로 이송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 김재병(金在丙)

1886~1962 본관 광산. 처음 이름 최윤(最允). 자 동인(東仁). 호 유현(幽軒). 시조의 35세손. 원운(元運)의 셋째 아들 어머니의 변환에 손가락을 찢어 피를 입에 넣어드렸고 3년간 시묘를 살았으며 무안군지와 함평군지에 이 사실이 실려 있다. 아내는 상산김씨 용욱(容旭)의 딸인데 효부로 이름이 높았다.

◆ 김재병(金在炳)

1956. 3. 27 본관 김해. 호 송계(松溪). 문현(汶炫)과 해주 최연임(崔連任)의 아들로 신광면 송사리에서 출생하여 국민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83년 경위, 1986년 경감, 1994년 경정으로 승진 부산진경찰서 보안과장, 경찰본청 보도계장을 역임했고, 현재 전남경찰청 공보담당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행정홍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 논문이 있다.

아내는 함양 박기호(朴基昊)와 해남 윤정남(尹正南)의 딸 연순(蓮順)이다.

◆ 김재봉(金載鳳)

1913. 6. 16~작고. 호 원백당(源百堂). 본관 김해. 시조의 70세손. 아버지 병연(炳演)과 어머니 양성 이장동(李蔭洞)의 아들로 손불면 동암리에서 출생하여 고창고보를 졸업하였으며, 제 1·2대 손불면의회 의장을 지냈다. 아내는 진주 정갑현(鄭甲玄)이다.

◆ 김재수(金在壽)

1891~1941 본관 광산. 자 여옥(汝玉). 호 백계(栢溪). 시조의 35세손. 기면(箕冕)의 맏아들로 해보면에서 태어났다.

조국광복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루었고 문장리에 위령탑이 세워졌다.

아내는 상산김씨 도선(道善)의 딸, 안동장씨 기옥(基玉)의 딸이다.

◆ 김재수(金在洙)



김재수

1939. 8. 29 본관 광산. 시조의 35세손. 기준(箕俊)의 아들

학교면 금송리에서 태어났다.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육군대학 참모 4기 수료. 훈련단 대장, 사단정보 참모, 대구지

단 대대장을 역임하였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아내는 김해김씨 갑룡(甲龍)의 딸이다.

◆ 김재옥(金在玉)

1926. 12. 12 본관 광산. 시조의 35세손. 단(단)의 맏아들

나산면 이문리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정(鄭)씨 길형(吉兄)의 딸이다.

◆ 김재윤(金在潤)

1939. 9. 4 본관 광산. 시조의 35세손. 기천(箕千)의 넷째 아들. 고등학교 교장 역임.

아내는 장흥고씨 광승(光昇)의 딸이다.

◆ 김재익(金載翊)

1928. 9. 9 본관 김해

신광면 유천리에서 태어남. 의과대학 졸업. 의학박사

◆ 김재정(金在晶)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서예가며 학다리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 김재창(金載昌)

1941. 9. 28 호 청하(淸河). 본관 김해. 시조의 76세손. 아버지 병섭(秉燮)과 어머



김재강

니 금성 오말녀(吳末女)의 아들로 신광면 유천리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체육과를 중퇴하였고, 1984~1986년까지 광주축구 연합회장, 현재 은진택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1985년 체육공로 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풍산 홍남식(洪南植)과 유태녀(柳太女)의 딸 화자(花子)다.

◆ 김재형(金載衡)

1972. 10. 21 본관 나주. 호 죽정(竹亭). 아버지 우희(禹熙)와 어머니 전주 리흥례(李興禮)의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치과의사로 있다.

◆ 김재호(金載昊)

1923~1951 호 벽초(碧草). 본관 김해. 시조의 70세손. 병량(炳亮)과 광산 김복례(金福禮)의 아들로 손불면 동암리에서 태어나 일본식민무역학교(日本殖民貿易學校)를 졸업하고 1943년 해제초등학교 훈도, 1945년 손불초등학교 교감, 1948년 장성사창초등학교장을 지냈다.

아내는 광주 이석장(廣州李錫章)과 밀양 박말례(朴末禮)의 딸 오순(五淳)이다.

◆ 김정기(金正基)

본관 나주. 우강(禹綱)의 아들. 농학박사. 초당대학교 교수.

◆ 김정기(金正基)

1951. 7. 23 본관 선산. 자 정삼(正三). 시조의 37세손. 병언(炳彦)의 맏아들. 조선대학교 졸업. 장흥군청 과장 역임

아내는 광산 탁미숙(卓美淑)으로 준권(濬權)의 딸이다.

◆ 김정수(金正洙)



김정수

1941. 7. 3 봉석(奉錫)의 아들

전남대학교 대학원(행정석사)을 졸업하였고 광주직할시장 비서실장, 시민과장, 생활체육과장,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과장, 시정과장, 5·18

협력과장, 의사담당관, 공보관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무안 박태평(朴太平)의 딸 복순(福順)이다.

◆ 김정식(金正植)

1951. 3. 7 본관 김해. 대동면 용성리에서 출생. 육군 소령

◆ 김정완(金貞完)

1954. 1. 7 본관 선산. 영세명 켄티모. 시조의 36세손. 재동(載棟)의 넷째 아들.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상법 전공 법학박사.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통천최씨 준기(準基)의 딸이다.

◆ 김정주(金正柱)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예명 황원.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 김정현(金正鉉)

1943. 6. 6 본관 광산. 호 강재(剛齋). 시조의 36세손. 영(泳)의 맏아들로 현재 육군소령으로 있다.

아내는 장흥고씨 광섭(光燮)의 딸이다.

◆ 김정희(金正熙)

1937. 11. 27 본관 김해. 호 초은(草隱). 귀준(貴俊)과 광산 노덕임(盧德任)의 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하여 대동초등학교, 광주사범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김정희

졸업하였다.
1957~1983년까지 나주초등학교 등 8개교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1983~1992년까지 함평나산북, 기산, 신광서, 해보중앙초등학교 교감, 1992년부터 신안 비금대광, 곡성죽곡 고달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전주 이강찬(李康燦)과 순천 박묘현(朴妙賢)의 딸 효임이다.

◆ 김제광(金濟光)

1902년생.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중졸. 1948년 국민당 함평군당 위원장. 6·25 한국전쟁 때 공산군에게 피살됨

◆ 김중관(金鍾琯)



김중관

1948. 12. 12 본관 김해. 재호(載昊)의 아들로 손불면 동암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76년에 (주)한국화장품에 입사하여 1992년에 동사 광주지점장, 현재 본사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아내는 금성 나남조(羅南祚)의 딸 영자(永子)다.

◆ 김중구(金鍾九)



김중구

1950. 12. 12 본관 고성. 아버지 봉규(奉奎)와 어머니 광산 김영금(金永錦)의 아들로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하여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현 한국전력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신평 송판금(宋判金)과 남평 문재임(文在臨)의 딸 진희(鎭姬)다.

◆ 김종달(金鍾達)

1950. 8. 21 본관 광산. 나산면 용두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8년 기술고시 합격. 국방부 방산국 무기실장(부이사관 대우) 역임

◆ 김종신(金鍾信)

1970. 5. 17 본관 김해. 함평읍 석성리에서 출생. 함평농업고등학교 졸업.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바르셀로나올림픽 레슬링에서 은메달을 받음

◆ 김종윤(金鍾潤)



김종윤

1953. 4. 2 생 본관 고성(固城) 명규(明奎)와 순흥(順興) 안분순(安分順)의 차남으로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광주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각급부대 지휘관, 참모를 역임 대통령 표창과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상하였으며 아내는 능성(綾城) 구재규(具齋奎)와 신정식(申貞植)의 장녀 현경(賢卿)이다.

◆ 김종천(金鍾千)

1949. 1. 20 본관 김해.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 국방대학원 졸업. 육본작전참모과장, 21사단 부사단장, 특전참연자. 현재 육군 소장.

◆ 김종철(金鍾徹)

1971. 6. 10생 본관 고성(固城) 용규(茸奎)와 압해(押海) 정순례(丁淳禮)의 3남으로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제44회 사법고시에 합격 감사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친지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로 근무

중이며 아내는 청주(淸州) 한택현(韓宅鉉)과 의령 남세현의 장녀 인옥(仁玉)이다.

◆ 김중팔(金鍾八)



1958. 10. 22생 본관 고성(固城) 승규(承奎)와 함평(咸平) 노기순(魯琦順)의 장남으로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한빛안과원장으로 아내는 전주(全州) 이만재(李萬宰)와 경주(慶州) 최영임(崔英任)의 장녀 미경(美敬)이다.

◆ 김중호(金鍾湖)

1944. 12. 15생 본관 김해(金海) 상곤과 박화선의 장남으로 월야면 용암리에서 출생 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아내는 광산(光山) 김은숙이다.

◆ 김중화(金鍾和)

1950년 엽다면 송노리에서 출생하여 호남대 행정학과, 중앙대 대학원 졸업. 육군장교로 복무하다가 중령으로 예편했는데 1995년 《국방일보》 현상문예에 수필이 당선, 『문예사조』 수필 당선으로 등단. 저서로는 수필집 『개구리는 왜 움츠리는가』 『나는 마누라 사랑하는 팔불출』 『지휘관일기』 『이 십년의 약속』 『내 마음은 소주잔』 등이 있다. 제10회 전쟁문학상, 제1회 소운문학상 수상. 한국문협, 국제펜클럽회원, 3사문학회장, 한국수필가협회이사로 있다.

◆ 김주현(金周鉉)

대동면 운교리에서 출생
1953. 9. 28 - 1953. 12. 3까지 대동면장을 역임했다.

◆ 김주현(金主鉉)



김주현

1937. 3. 6 본관 광산. 호 매곡(梅谷). 아버지 재복(在福)과 어머니 무안 박효순(朴孝順)의 아들로 손불면에서 태어나 광주사범대학을 졸업하였고 고흥녹동고등학교 교감·교장을 역임하였다. 1999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청송 심기운(沈基雲)과 전주 리소녀(李小女)의 딸 옥례(玉禮)다.

◆ 김주형(金柱衡)

1950. 5. 26 본관 나주. 엽다면 신계리에서 출생.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현 변호사

◆ 김준곤(金俊坤)

1949. 5. 6 본관 김해.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 졸업. 대구카톨릭대 교수

◆ 김준령(金俊玲)

대동면 금산리에서 출생. 1920. 3. 26 함평만세운동 주도자 중 한 사람으로 대동면 책임자로 활동하였고 거사 당일에 체포되어 목포지청으로 이송되었으며 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김준부(金俊富)

1919. 4. 26에 함평보통학교에 재학중이던 그는 함평읍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조사현, 김용언, 김준령, 모순기(일명 현기), 김기성 등과 함께 모의하고 “슬프다. 우리 민족들. 4천년의 역사국으로 어이하여 왜적 일본에게 국토를 뺏길 수 있으랴. 우리 힘으로 강토를 찾아 보자.”는 전단을 만들어 4월 17일 오후 7시 김기성과 함께 유지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일정에 감



지되어 이튿날 체포되었고 함평만세운동의 거사는 실패되었다.
교장 와다나베(渡邊) 담임 임은수의 백방 활약으로 4월 23일 훈계 석방되었다.

◆ 김준형(金僞衡)

본관 나주. 우창(禹昌)의 아들. 미국 예일 대학교수

◆ 김중석(金重錫)

1920. 8. 9 본관 선산. 자 윤석(潤錫). 호 석재(石齋). 시조의 33세손. 교상(敎相)의 아들. 선산김씨 호남종친회장. 대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광산김씨 경식(景植)의 딸이다.

◆ 김지상(金知常)

호 운호(雲呼). 함평읍 출신으로 정광고등학교 재단이사장도 역임하면서 서예에 임했다. 일찍이 30년대 중엽부터 ‘동광(東光)’ 잡지 등에 시를 투고하여 발표한 이후 시도 쓰고 한동안 불가(佛家)에 몸 담았다가 환속하였다. 동양화와 함께 문인화적인 서예에 능했으며 90년대 초에 작고했다.

◆ 김지원(金智元)

1935. 7. 25 본관 나주. 용익(用翊)의 아들.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삼미금융주식회사 부장을 거쳐 현재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 김지형(金智衡)

1959. 7. 1 본관 나주. 아버지 우근(禹根)과 어머니 영성 정영희(丁英姬)의 아들로 전남대학교, 서울장로교개혁신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에서 박사학위를 이수 중이며 서울장로교회 부목사로 있다. 아내는 영성 정현송(丁玄松)과 이천 서영자(徐漢子)의 딸 현영(玄瑛)이다.

◆ 김찬준(金燦竣)

1953. 11. 26 본관 나주. 아버지 우근과 어머니 영성 정영희의 아들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주식회사 부장·LA주재를 거쳐 명동지점장으로 있다. 아내는 영양 천명철(千命哲)의 딸 성희(誠姬)다.

◆ 김창곤(金昌坤)

1936. 4. 4 본관 광산.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대졸. 국방부 법제과 사무관을 역임했다.

◆ 김창원(金昌源)

1940. 1. 5 나산면 이문리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졸업. 노동부 노동청감독관실 과장 역임

◆ 김창현(金昶憲)

1927. 10. 19 본관 김해. 손불면 궁산리에서 태어남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검사. 변호사

◆ 김창현(金昌鉉)

1921. 9. 1 엄다면 성천리에서 출생. 군청과장을 역임하였다.

◆ 김창화(金昌華)

1846~ 1914 본관 김해. 호 해은(海隱). 국헌(國憲)의 아들로 손불면 동암리에서 출생하였다.

주위 사람들이 성리학자 해은선생이라 불렀으며 병환 중인 아버지를 3년간 간호하다가 위독하자 허벅지의 살을 떼어드리고 절지하여 주혈(注血) 하였으며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했고 제사 때는 반드시 1년 중 지나온 일과 내년에 할 일을 고하였다. 흥년에 백미 50석을 회사하여 빈민을 구제하는 등 자선사업도 많이 했으며 효로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내는 광산 김기현(金箕顯)의 딸이다. 그의 며느리 밀양박씨(密陽朴氏, 1888~1923)는 응용의 딸로 18세에 결혼하여 1

년도 못되어 남편이 중병을 얻어 사별하였는데 시부모 몸심이 극히 극진하였고, 전처 소생 4 남매를 친자식 같이 잘 길러 가문을 빛냈다.

조정에서 숙부인을 봉했고 시아버지와 함께 정문(旌門)이 내려 손불면 동암리 벽초동에 효열문을 세웠다.

◆ 김창훈(金昌勳)



김창훈

1952. 12 27 본관 광산. 호 민하(民河). 시조의 37세손. 대진(大辰)과 함평 이돈순(李敦順)의 아들로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3년 수료,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수료. 대동성중학교 교장, 민족통일함평군협의회, 함평군번영회, 함평초등학교총동문회, 함평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언어문화회 회장, 함평군민신문 발행인 겸 사장으로 있다. 1992년 '시세계' 봄호로 등단하여 1994년 시집 "별이 뜨면 노래를 부릅니다"를 펴냈으며 "농심론"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1975년 전국남녀옹변대회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아내는 담양 전인희(田仁熙)와 인동 장순례(張順禮)의 딸 은주(恩朱)다.

◆ 김천규(金天奎)

1957. 9. 15생 본관 고성(固城) 호 정송(貞松) 광열(光烈)과 영광(靈光) 정정순(丁正順)의 차남으로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수사사무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집행과장으로 재직하며 검찰총장 표창과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훈장을 전수하였으며 저서로는 '부동산투기사범의 유형 및 그 방지책에 관한 연구'가 있고 아내는 남평(南平) 문제국과 남안순 사이의 삼

녀 순자(順子)이다.

◆ 김철(金澈)



김철

1886~1934. 6. 29 본관 영산. 이명 김중청, 김영택(異名 金重淸, 金永澤). 호 일강(一江)

신광면 함정리 구봉(九峯)에서 태어나 1908년 영광 광흥중학교를 마

친후 서울법률전문학교, 일본 메이지(明治)대학을 졸업한 후 1915년에 귀국하였다.

귀국한 그는 형제들과 상의하여 토지의 일부를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노속(奴屬)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향리에 머무는 동안 조선총독부 고위층의 협력 권유를 여러번 받았으나 조국의 광복에 몸바쳐 일할 것을 결심하고 1917년 상해(上海)로 건너가 법률학을 전공하였으며 1919년 여운형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구국의 처사 사업을 폈으며 2월에 신한청년당 대표로 선우혁(鮮于赫), 서병호(徐丙浩)와 함께 국내로 잠입한 그는 손병희와 3·1 운동의 거사를 모의 했고 영광으로 내려와 동창 조병모(曹秉謀)의 집에 은신의 거점을 두고 승려로 가장하여 나들이를 하면서 지방 유지들의 협력을 얻고 또 형제들의 토지를 처분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그는 상해로 다시 건너가 그와 선우혁, 서병호, 현순(玄楯), 최창식(崔昌植) 등 신한청년당이 중심이 되어 30여명이 상해 불란서 조계 보창로(寶昌路) 329번지 건물에 "대한독립 임시사무소(大韓獨立 臨時事務所)"를 설치하여 임시정부 출범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다.

1919년 4월 19일 제1회 임시의정원회의(臨時議政院會議)에서 그는 한남수(韓南洙),

장병준(張柄俊) 등과 같이 전라도의원에 당선되었고 동월 제2회 회의에서 임정 재무위원 겸 법무위원이 되었으며 8월 5일에 임시정부 교통차장(交通次長)에 임명되었는데 동 총장 문창범(文昌範)이 취임하지 않아 총장 대리까지 겸임하였다.

국내 조사원이기도 했으며 신한청년당 부주무(副主務)로서 기관지 “신한청년”을 발간 독립 정신을 고취하였고 대한적십자회의 상의원(常議員)도 역임했다.

1920년 그는 상해에서 김구(金九), 송성도, 김순애 등과 같이 의용단(義勇團)을 창립하여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의용단이 하던 일은,

첫째 포고문 살포와 선전으로 국민에게 적개심을 격발케 하고, 둘째 정부를 도와 재정업무를 지원하며, 셋째 국민에게 개병(皆兵), 개납주의(皆納主義)를 고취하고, 넷째 왜 총독부에 소속된 관리를 퇴진시키며, 다섯째 적의 관청에 납세를 거절케 하고, 여섯째 일본의 화폐 사용을 억제하며, 일곱째 군사상의 실제 방법을 획책하고, 여덟째 임정의 공보와 기관지를 전달하며, 아홉째 본단(本團)과 주의가 같은 다른 단체를 상호 협화원조하고, 열째 정부의 명령과 지휘가 있을 때 광복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라올 것 등이다.

1920년 3월 선전위원회가 조직되자 그는 동 위원장 안창호(安昌浩)를 도와 정인파(鄭仁果), 손두환(孫斗煥), 이유필(李裕弼) 등과 같이 선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국내와 해외 동포 사회에 대하여 임시정부의 시책을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국내외 동포로 하여금 임시정부에 물심양면으로 협조(軍자금 등)케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1922년 7월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회원으로 임시의정원과 국민대표회의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전력하였고 1924년 5월 임시정부 국무원 회계 감사원 감사장(國務院會計檢查院檢查長)에 임명되었다.

1925년에 신한청년당 이사, 1926년 12월에 임시정부 국무위원에 임명되었고 1930년에 군무장(軍務長)이 되어 김구와 함께 애국단(愛國團)을 지지하여 이봉창(李奉昌), 윤봉길(尹奉吉)의 거사를 실행케하는 활동을 하였다.

1931년 10월에 안창호와 함께 교민단심판(僑民團審判)이 되어 상해교민의 복지 향상에 주력하였고 11월에는 중국인들과 공동 항일전선을 형성하여 중국항일대동맹(抗日大同盟)을 조직하고 조소앙과 중국인 오징천(伍澄千), 서천방(徐天放) 등과 함께 상무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32년 1월에 상해대한교민단의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4월 29일 윤봉길

의거 후 일경이 체포령을 내렸고, 김구와 행동을 같이 한 그는 5월 10일 항주(杭州)로 피하여 청태제이여사(淸泰第二旅社) 32호실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임시정부 관공처(辦公處)를 개설 임시정부 항주시대를 개막하였다.

11월 24일에 국무위원에 임명되자 의정원의원직을 사임하였고 1932년말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불란서 당국의 항의로 곧 석방되었다.

1933년 3월에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사임하고 동 7월에 임시의정원 의원에 다시 선임되어 의원 자격 심사위원으로 신도(新到)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였다.

1934년에 다시 국무위원에 선임되었고 재무장(財務長)을 역임한 후 국무원 비서장(國務院秘書長)에 임명되는 등 임정 이동에 따라 각지를 전전하면서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국무위원이었던 그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14명 이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약한 바도 있다.

격무에 시달려 몸이 쇠진한 그는 1934년 6월 29일 급성 폐염으로 항주의 광자병원(廣慈病院)에서 서거하니 구국에 몸바친 향년 48세의 일생이었다.

망국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그를 임시 정부에서는 임시정부장(臨時政府葬)으로 결의하여 이시영, 조완구, 송병조, 양기탁 등 임정 요인들의 애도 속에 악비묘(岳飛廟) 뒷 산 묘지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으며 1975년 8월 15일에 원호처와 함평군, 영광군, 그리고 후생들이 뜻을 모아 구봉기슭(구봉재, 함평군과 영광군 군계)에 숭모비를 세워 그의 높고 깊은 애국의 참뜻을 기리게 하였다.

◆ 김철수(金哲洙)

1947. 12. 27생 본관 광산(光山) 본명 성수(性洙) 영숙(永淑)과 선산(善山) 김금순(金今順)의 장남으로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행정학박사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교육과장을 거쳐 신암초등학교장으로 재직중이며 아내는 이천(利川) 서윤석(徐允錫)과 달성(達城) 배문희(裴文姬)의 차녀로 금숙(錦淑)이다.

◆ 김철수(金鐵水)



1949.7.30생 아동문학가. 시인. 본관 김해. 호 셋별. 시조 김수로왕의 74세손 부대길(大吉)과 정순덕(鄭順德)의 차남으로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서울기독교대학교, 국제디지털대학교, 필리핀유니온신학대학원, 초당대학교 행정대학원, 미국 S.W.B.C 신학대학원(신학박사), 미국 남가주신학대학원(문학박사), 미국 솔로몬대학교 예술대학원(기독교교육학 박사)을 졸업했고 함평문화원 원장 직무대리, 호남교육신문 편집국장과 주필, 전남매일신문 논설위원, 한국기독교연합신문 논설주간, 나라일보 논설위원, 현대경찰

신문 주필, 호남매일 논설위원, 서울일보 논설위원, 전남도민일보 선교국 주필 및 사장, 논설주간, 미국솔로몬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역임 현재 예술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월간아동문학 및 계간 크리스찬문학 발행인,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와 한국문인협회 감사를 역임중이며 함평군민의 상, 한국아동문학 작가상, 제1회 한국녹색문학대상, 중국청소년문학대상, 한국아동문학 창작상 등의 50여회 수상경력과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중학교 1-2학기 국어교과서에 동화<우산장수 할아버지>가 수록되었고 한국찬송가공회 발행 <21세기 어린이 찬송가>에 2곡이 수록되어있으며 저서로는 ‘생이 동틀 때’ ‘뚝심으로 삼시다’ ‘라이파이한의 노래’ ‘우산장수 할아버지’ 등 269권이 있다. 아내는 김월자(金月子)와의 사이에 슬하의 자녀는 1남 4녀를 두었다.

◆ 김춘현(金春鉉)

1933. 8. 12 본관 광산. 호 거촌(炬村). 시조의 36세손. 재화(在化)의 둘째 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공주사범대학 교수로 있다. 아내는 문화유(柳)씨 재천(在天)의 딸이다.

◆ 김태권(金太權)

1925~1949 손불면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함평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였다. 1949년 1월 27일 나산면지역의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 수행 중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고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한국전몰용사 공훈록. 국방부>

◆ 김태균(金泰均)

1971.3.14. 본관 광산. 자현(자현)과 김

해 김금임의 4남 4녀 중 4남으로 대동면 덕산리에 태어났다. 전남대학교 의대 외과 졸업. 현재 순천 성칼로로병원 근무. 아내는 김해 김재숙(金在淑)이다.

◆ 김태서(金泰瑞)

1947. 10. 13 본관 선산. 영세명 세꾼도. 시조의 36세손. 재동(在棟)의 셋째 아들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건설부 기사를 거쳐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 사업처장직에 있다.

아내는 진주 강인숙(姜仁淑)으로 명섭(明燮)의 딸이다.

◆ 김태우(金泰佑)

1969. 11 27 본관 광산. 시조의 38세손. 근(瑾)과 인동 장금순(張今順)의 아들로 나산면 월봉리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하였고 1997년 제39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 김태일(金太一)

엄다면 성천리에서 출생. 일제 강점기에 학교면장 1년, 엄다면장 17년간을 지냈다.

◆ 김판남(金判南)

1906. 6. 25~작고. 나산면 이문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 졸업.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김판동

1931. 1 25 나산면 삼축리 337번지. 28사단 80연대 통신대 중사로 근무하다 1955. 1. 10 연천지구 전투에서 뛰어난 공훈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김판열(金判烈)

1964. 5. 28생 본관 영광(靈光) 재호와 파평(波平) 윤연실의 장남으로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 전문대학을 졸업 하사관으로 임관한 후 육군 중령에 재직중이며 아내는 함평(咸平) 이서녀이다.

◆ 김풍현(金豊鉉)



김 풍 현

1940. 6. 16 본관 광산. 재유(在惟)와 정봉여(鄭奉女)의 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했고, 경기대 관광경영학과와 동 대학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69년 8월 경

기도 건설국 관광운수과에서 공식생활을 시작해 1975년 3월 건설 교통부(당시 교통부)에 편입 서울지방항공 관리국 등에서 근무했고, 1982년 11월 기획관리실 행정담당관실(행정사무관), 1993년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과장(서기관), 수송정책실 전산통계과장, 토지국지가조사2과장,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등을 거쳐 1998년 6월 건설교통부 부이사관으로 퇴임했다. 1974년 모범공무원상, 1985년 대통령표창을 수상 했으며 논문으로 「쇼핑관광발전방안에 관한 연구」(1990)가 있고 현재 전국택시공제조합에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금녕 김광창(廣昌)과 윤귀례(貴禮)의 딸 견자(絹子)이다.

◆ 김하경(金夏京)



김 하 경

1951. 3. 4 본관 김해. 만복과 한양 조효님의 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하여 향교초등학교, 조선대병설공업전문대학,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76년 농어촌진흥공사에 입사하여 1992년 동 공사 노동조합지부장, 1993년 금호방조제공사 감독사무소장을 역임했다. '실버산업개발 전망에 관한 고찰' 등의 논문이 있고 아내는 강릉 유갑중과 광산 김영단의 딸 명숙(明淑)이다.

◆ 김하균(金夏均)

함평읍 대덕리 대천에서 출생. 12대 함평읍장을 지냈다.

◆ 김학열(金學烈)

1912. 4. 8~작고. 본관 경주. 호 기은(箕隱). 안중(安仲)의 아들로 손불면 궁산리에서 태어났고 1945년에 신광면장을 역임했다.

◆ 김한동(金漢棟)

1915~1961 본관 선산. 시조의 35세손. 홍필(洪弼)의 셋째 아들. 광주고보 재학때 학생독립운동에 참가하였고 항일 운동 중 여러 번 옥살이를 하였다. 아내는 밀양 박계례(朴季禮)로 찬구(贊求)의 딸이다.

◆ 김한섭(金漢燮)

1933. 1. 4 본관 김해.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함. 교통부 사무관을 지냈다.

◆ 김한섭(金漢燮)

1970년 학교면 사거리 출생. 도예가. 학다리고를 나와 군산대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 수학했다. 대학에서 도예에 전념했고, 박종훈 교수작업실에서 작품제작을 익혔다. 남도정예작가초대전, 강진청자문화제초대작가, 국제도자디자인공모전입선, 사발공모전금상 수상. 현재 무안에서 서해공방을 경영하며 함평나비고을예술인촌에 입주하여 작업하고 있다.

◆ 김한수(金漢洙)

1935. 10. 14 본관 광산. 호 덕송(德松). 시조의 38세손. 영철(永哲)의 맏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태어났다. 대동면장을 지냈으며 아내는 전주 리경수(李京洙)의 딸 영애(永愛)다.

◆ 김항국(金恒局)



김 항 국

1945. 8.27생. 본관 나주(羅州) 호 문봉(文峯), 귀동(貴童)과 달성 배옥순(裴玉順)의 장남으로 엄다면 화양리에서 출생 광주교육대학을 나와 진도지산서초등학교장을 역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 아내는 김해 김판조와 함평 이당금의 셋째 경희(京希)이다.

◆ 김해김씨(金海金氏)

신광면 동정리. 함평향교의 효부표창을 받음.

◆ 김해김씨(金海金氏)

대동면 운교리. 조세원의 아내.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김해룡(金海龍)

1942. 10. 12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고졸. 경정 역임

◆ 김행춘(金行春)

월야면 용암리. 향교 전교의 효자표창을 받았다.

◆ 김헌관(金憲寬)

본관 김해. 호 설죽(雪竹).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1907년부터 김태원 의병부대에서 활동하였고 김태원이 전사하자 향리로 돌아와 숨어 있던 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악형을 받아 끝내 불구의 몸이 된 채 여생을 마쳤다. 향리인 수호리 마을 앞에 1982년 공적비를 세워 그의 공을 기리고 있다.

◆ 김현도(金現濤)

1968. 9. 10 본관 김해. 시조의 74세손. 종규(鍾圭)와 금녕 김옥순(金玉順)의 아



들로 손볼면 월천리에서 태어나 1994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1996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아내는 황주 변혜경(邊惠京)이다.

◆ 김현명(金賢明)

1956. 9. 6 월야면 예덕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외무부 근무

◆ 김현박(金琰泊)

1958. 5 15 본관 나주. 아버지 치량(治亮)과 어머니 나주 정순임(鄭順任)의 아들로 나산면 구산리에서 출생하여 목포해양대학교 통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방송공사 기술본부 방송기기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제주 고중돈과 경주 김정순의 딸 김미화다.

◆ 김현수(金絃洙)

1926. 11. 29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
공주사대 졸업. 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 김현수(金炫樹)

1967. 12. 24 본관 선산. 영세명 안토니오. 시조의 37세손. 승범(承範)의 맏아들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사. 보건소장을 역임. 아내는 청송 심미라(沈美羅)로 재복(載福)의 딸이며 이화여자대학교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다.

◆ 김현순(金賢順)

월야면 외치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김형수(金炯洙)

1959. 해보면 출신. 시인. 서강정보대학을 나와 1985년 『민중시』에 시 「배고픈 다리」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1988년 계간지 녹두꽃을 창간하면서 평론활동도 겸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남북문학 교류증진에

많은 성과를 냈다. 현재는 중앙대 예술대학원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집 『애국의 계절』 『빛방울에 관한 주석』 장편소설집 『나의 토르트 시대』 평론집 『반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등 다수가 있다.

◆ 김형술

1929. 4. 2 학교면 학교리 639번지.
15사단 38연대 1대대 3중대 하사로 근무하던 때 월비산 전투에서 큰공을 세워 1952. 11. 1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김형태(金炯泰)

작고. 함평읍 내교리 신기에서 출생
성남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김형태

학교면. 1982년 지역사회 봉사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김홍례(金洪禮)

1929~작고. 나산면 월봉리. 효부로 도지사표창을 받음

◆ 김홍주(金洪柱)

1941~2007. 학교면 사거리 출신. 시인 학다리 중,고등학교 재학시절에 학원문학상, 경북대, 건국대, 전북대, 중앙대 등에서 주최하는 전국 학생문예콩쿨에서 시, 소설, 희곡 등 여러 장르에 두루 장원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문예특기생으로 평론가 백철(白鐵) 댁에서 숙식을 하고 있던 61년(대학2년생)에 김동리 추천으로 단편 「분지에서」로 '현대문학' 소설 추천 작가가 된 바 있다.
중앙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때 인천고교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고려서적(주)에서 본부장과 이사로 재직해왔다.
그는 1998년 첫 시집 『어머니의 난 한 축』을 출간하여 시인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이 기대되었으나 2007년 작고했다.

◆ 김환수(金煥洙)

1966. 5. 20 본관 광산. 아버지 영찬(永燦)과 어머니 곽수은(郭修銀)의 아들로 손불면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서울지검 · 광주지방법원 판사 역임

◆ 김회현(金回鉉)

1947. 10. 24 본관 광산. 시조의 36세손. 재상의 둘째 아들.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고 아내는 남원양씨 동기(東基)의 딸이다.

◆ 김 훈(金 勳)

1836~1910 본관 광산. 자 자원(子元). 호 동해(東海). 시조의 32세손. 광련(光鍊)의 아들.

노사 기정진(蘆沙奇正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김중암(金重菴), 최면암(崔勉菴), 송연재(宋淵齋), 심근암(沈謹菴) 등과 도의의교(交)를 맺었으며 재학(才學)이 뛰어나 도백과 어사가 왕에게 천거하여 기용하려고 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민비(閔妃)의 시해 사건에 분개하여 거의하였다가 성취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돌아와 두문불출하였으며 유고가 전한다. 아내는 김해김씨 교관 중후(宗厚)의 딸이다.

◆ 김휘남(金輝男)



1945. 1. 31. 본관 김해(金海). 호 명원(明苑) 동락(동락)과 전주(全州)이홍금의 장남으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함평농업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새마을문고 함평군지부장, 세계평화청년연합 함평군지회장,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라남도사무처장, 1800축복가정 광주·전남지회장, 함평군훈독대학 설립자로 우

수독서대학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신문 정보신문 대표이며 아내는 밀양(密陽) 박귀남(朴貴南)과 오영숙의 차녀 광희(光熙)이며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다.

◆ 김희남(金喜南)

1922. 6. 18 본관 경주. 손불면 월천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69년 서울고법 부장 판사. 변호사

◆ 김희돌(金희돌)

1949. 1. 3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육군 중령.

◆ 김희옥(金姬玉)

1958년 함평읍 기각리 출생으로 학다리고를 나와 서울예술전문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1999년의 인사동 서경갤러리, 2005 윤갤러리, 2009 인사아트플라자 개인전과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개인전 외 단체전과 초대전에 100회 이상 참가하며 의욕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 김희저(金熙姐)

1956년 전북 익산 출생, 원광대를 수학했으며 가족과 함께 엽다면 성천리 용동 마을로 이거하여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여성 소설가이다. 1995년 《세계일보》 신춘문에 단편 「휘몰이」가 당선된 후 주로 장편에 주력하고 있다. 저서로 산문집인 『꽃밭에서 변죽을 울린다』가 있다.

◆ 김희준(金熙準)



김희준

1967. 5. 9 본관 김해. 시조의 71세손. 문경(文景)과 전주 최연숙(崔淵淑)의 아들로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 3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993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



부 변호사, 1996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로 발령되어 현재 봉직하고 있다.

아내는 평택 임광락(林光洛)과 안순임(安順任)의 딸 연숙(淵淑)이다.

◆ 나간채(羅看采)

1948. 10. 1 본관 금성.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 공주사범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현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있다.

◆ 나광채(羅光採)



나광채

1933. 5. 7 본관 금성. 아호는 홍영(鴻影).수필가.사담공 15대 종손. 길성(吉聖)의 아들로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하여, 학다리중, 고등학교, 조선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고, 학다리고등학교 교사, 나산중 학교 교감, 광주봉남학원, 서울청송고시학원장을 지냈고 삼보실업주식회사 회장, 학다리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역임. 1950년대 말엽에 문학동인 활동을 하는 등 평소에 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다가 수필집 『마냥 그렇게 걸어온 더딘 발자국』을 2002년 펴낸 후 최근 『순수문학』에 수필 「틔발」으로 등단. 현재 한국문인협회회원. 아내는 신안 주영철(朱榮哲)의 딸 형심(亨心)이다.

◆ 나국주(羅國柱)



나국주

1961. 11. 25생 본관 금성(錦城) 승호(承鎬)와 함평 이영례(李永禮)의 7남매중 일곱째로 함평읍 가동리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학위를 받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흉부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전

남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장, (현)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기획실장으로 저서는 ‘알기 쉬운 가슴 외과학, 호흡기학’이 있으며 아내는 진주 정천기와 임순주의 차녀 정지미(鄭芝美)이며 슬하에 3남을 두었다.

◆ 나금례(羅今禮)

1926. 5. 1 나산면 용두리. 함평군수의 효부표창을 받았다.

◆ 나기대(羅基大)



나기대

1945. 11. 5생. 본관 금성(錦城) 호 송헌(松軒) 철환(喆煥)과 광산(光山) 김기순(金己順)의 장남으로 함평읍 성남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대학원과 인천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여 현재 조선대학교공과대학 기계설계공학과교수로 재직중 저서 유체역학, Morden 유체역학, 유체기계, 최신 유압공학, 유체기계 외 4권이 있으며. 아내는 해남(海南) 김형택(金兄澤)과 이정순(李貞順)의 셋째 경례(敬禮)이다.

◆ 나기언(羅基彦)

본관 금성. 채환(采煥)과 박인순(朴仁順)의 둘째 아들로 1947. 3. 23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광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조흥은행 광주지점장을 역임하였다.

◆ 나길주(羅吉柱)



나길주

1949. 4. 1생 본관 금성(錦城), 호 서원(書院) 승동(承東)과 함평(咸平) 노애수(魯愛洙)의 장남으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목포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전남대학교대학원을 수

료 완도초등학교장과 보성초등학교장을 재직 한국스카우트 연맹의 훈련 교수·부교수 자격심사위원이며, 아내는 선산(善山) 김원동(金元東)과 안동(安東) 권필남(權必南)의 장녀 춘희(春姬)로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 나남채(羅南埰)



나남채

1949. 3. 1 본관 금성. 시조의 36세손. 병인(炳寅)과 함평 이정순(李正順)의 맏아들로 함평읍 가동리에서 출생하였고, 함평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90년 함평군청 사회과장, 1991년 의회사무과장, 1992년 새마을과장, 1993년 기획실장, 총무과장 등을 역임하였고, 2008년 퇴직하였다. 1996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아내는 광산 김원석(金元錫)과 함평 이재덕(李在德)의 딸 영숙(永淑)이다.

◆ 나내균(羅來均)

1935. 8. 23 본관 나주. 도관(叢官)과 김해 김귀례(金貴禮)의 아들로 손불면 동암리에서 출생하였고 손불면장(1988~1993)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광산 김영호(金永浩)와 함평 모용녀(牟龍女)의 딸 수례(洙禮)다.

◆ 나병규(羅炳珪)

본관 나주. 전라남도 민방위과장 역임

◆ 나명주(羅明柱)



나명주

1951. 8. 10(음)생 본관, 금성(錦城) 호, 낙천(樂天), 승호(承鎬)와 咸平 이영례(李永禮)의 사이 7남매 중 4째로 함평읍 가동리에서 출생 함평농업

고등학교를 나와 손불면장, 함평군민원봉사과장, (현)함평군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아내는 光山 노병춘(盧炳春)과 光山 김양녀(金良女)의 8남매 중 둘째 천순(千順)이며 슬하에 1남1녀를 두었다.

◆ 나병구(羅炳丘)



나병구

1950. 7. 25생. 본관 금성(錦城) 원주와 光山 김금순의 장남으로 함평읍 가동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 나산중·고등학교장으로 아내는 무안(務安) 박재기와 노정순의장녀 중임이다.

◆ 나병권(羅炳權)



나병권

1950. 8. 27생. 본관 금성(錦城) 영태와 光山 김차순의 장남으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목포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을 나와 안산 청석초등학교장으로 재직하며 아내는 무안 박송길과 정소녀의 3녀 금자이다.

◆ 나병기(羅炳起)



나병기

1955. 6. 6 본관 금성. 길수와 이남순의 아들로 나산면 월봉리에서 태어났다. 1998년 6월 함평군의회 의원에 당선되었고 7월 동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아내는 동북 오정남과 김복순의 딸 인숙(仁淑)이다.

◆ 나병삼(羅炳三)

1944. 10. 12 본관 금성 함평읍 가동리에서 출생함. 서울대학교 사

범대학 지리학과 졸업.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로 있다.

◆ 나병련(羅炳連)

1927. 12. 3 작고. 본관 금성. 함평읍 가동리에서 출생
기산, 무안초등학교 교장, 함평군교육청 학무과장을 지냈다.

◆ 나봉주(羅琤柱)



나 봉 주

1932. 1. 14 본관 금성. 호 송정(松亭). 월현(月鉉)과 무안 박반곡(朴盤谷)의 아들로 함평읍 가동리에서 출생하였고, 함평초등, 함평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4~1997년까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예술협회에서 주최하는 미술대전 서예부에 특선하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다.
아내는 전주 최한규(崔漢奎)의 딸 복순(福順)이다.

◆ 나상근(羅庠根)

1933년 엽다면 화양리 출생으로 목포중학을 나와 목포사범 수학. 소전 손재형 선생 사사. 아호는 문곡(文谷). 엽다 농협에서 근무하며 서예에 정진했다. 한국신미술대전 등 많은 공모전에 입, 특선. 국제연합 미술대전 동상. 신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함평예술인연합회 자문위원, 대한노인회 함평지부 회장.

◆ 나상주(羅上柱)

본관 금성. 함평읍 가동리에서 출생 함평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함평군 임업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 나승옥(羅承玉)

1942. 9. 15생 본관 금성(錦城) 기선(基善)과 무안(務安) 박현임(朴玄林)의 장남으



나 승 옥

로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하여 함평초·중학교, 목포사범학교를 졸업, 고려대학교(구 우석대학)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교육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전라남도장성교육청장학

사, 전라남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전라남도여수교육청교육장, 전라남도교육청교육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미래를 생각하는 교단메모'가 있다.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제1선거구(나주, 영광, 함평, 무안, 장성, 담양)에서 제5대 전라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되어 학생과 교원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 열성적으로 활동중이며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한국교육개발원 모니터링으로도 활동 중이며 아내는 천안전씨(天安全氏)의 8남매중 막내 은자(恩子)이다.

◆ 나승현(羅承鉉)

본관 금성.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9대 함평읍장을 지냈다.

◆ 나승포(羅承布)



나 승 포

1942. 8. 13 본관 금성. 호 상구(常臼). 기열(基烈)의 셋째 아들로 함평읍 수호리 대등에서 출생하였으며 함평초등학교, 광주고등학교, 국제대학교,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행정 석사)을 졸업하였다.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함평, 화순 군수, 1986년 여수시장(부이사관), 1988년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1990년 목포시장(이사관), 1991년부터 1994년 9월까지 내무부 지방세 심의관, 공보관,

지역경제국장, 지방재정 국장을 지냈고 1994년 9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관리관)을 역임했으며, 1995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1999년 행정자치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79년에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송순자(宋順子)다.

◆ 나승표(羅承杓)

1949. 3.15생. 본관 금성(錦城) 기선(基善)과 무안(務安) 박현임(朴玄任)의 3남으로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대학을 나와 함평중학교장과 함평여자중학교장을 역임하고 아내는 김혜 김세곤과 이서운의 장녀 길자이다.

◆ 나영주(羅榮柱)

1947. 1. 11 본관 금성. 함평읍 수호리 송정에서 출생. 대졸. 육군 중령

◆ 나용주(羅容柱)

함평읍 옥산리.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나중문(羅鍾文)

1941. 5. 19 본관 나주. 아버지 용균(龍均)과 어머니 광산 김금례(金今禮)의 아들로 손불면 동암리에서 출생하였고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경감으로 광주 동부·서부 경찰서 형사계장, 장흥경찰서 경무과장을 역임하였다.

1998. 12. 22 대통령의 근정포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영성 정병학(丁炳學)과 진주 강연오(姜連吾)의 딸 송순(松順)이다.

◆ 나중천(羅鍾千)

1939. 7. 10 본관 금성. 손불면 동암리에서 출생. 목포공고 졸업. 육군 중령

◆ 나주임씨(羅州林氏)

해보면 해보리. 김기중(金起仲)의 아내.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나주정씨(羅州鄭氏)

대동면 연암리. 함평학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나지현(羅智鉉)

1944. 4. 7~작고. 함평읍 수호리에서 태어남. 전남 경찰국 근무. 경정을 지냈다.

◆ 나채환(羅采煥)

1919. 11. 23 본관 금성.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 졸업. 초등학교 교장 역임

◆ 나학주(羅學柱)

1932. 2. 13 본관 금성.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 목포사범학교 졸업. 나산초등학교 등 교장역임

◆ 나홍채(羅紅採)

1951. 6. 21 본관 금성. 시조의 36세손. 병인(炳寅)과 함평 이정순(李正順)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 가동리에서 출생하여 목포유달중, 광주숙문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97. 5월 나산면장, 엑스포사무총장, 기획예산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0년 퇴직하였다. 호남향사회(湖南鄉史會) 회장, 사단법인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아내는 김순자(金順子)다.

◆ 남덕우(南德佑)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 제11대 손불면장(1952. 5. 9~1953. 4. 6)과 15대(1959. 12. 9~1960. 12. 1), 16대(1960. 12. 26~1961. 6. 26) 손불면장을 지냈다.

◆ 남석희(南石熙)

시인·수필가

부산 태생이며 결혼으로 엽다면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90년대초 '문학 공간'에 시와 수필이 당선되고, '문예사조'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회원, 공간시인협회 회원, 전남

여류문학회원이다. 저서로는 수필집 『한 번도 떠난 적 없으면서도 떠날 준비를 서루르는 여자』 시집 『메시지를 전송한다』 『햇빛이 겨누는 사랑』 이 있다.

◆ 노갑문(魯甲文)

1936. 4. 16 시조의 29세손. 석숙(碩塾)의 맏아들로 학교면 죽정리 호암에서 출생하였다.

문학사. 전라남도도교육청 장학관을 역임하였고 현재 광주 용봉중학교장으로 있다. 아내는 능성 구복덕(具福德)이다.

◆ 노갑부(魯甲富)

1945. 7. 8 시조의 29세손. 창숙(彰塾)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태어났다. 학다리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동양의료기회사 사장으로 있다. 아내는 양천 허현옥(許顯旭)의 딸 명화(明花)다.

◆ 노갑석(魯甲錫)

1963. 2. 2 호적명 경선(景宣). 시조의 29세손. 판숙(判塾)의 둘째 아들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태어났다.

함평농업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체육대학을 졸업했으며 1982년 8월 7일 세계 주니어 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노갑수(魯甲洙)

1950. 4. 10 시조의 29세손. 신숙(信塾)의 맏아들로 대동면 금곡리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과학기술원 졸업. 쌍용그룹연구소 기획실 근무.

아내는 상주 박기덕(朴基德)의 딸 정옥(晶玉)이다.

◆ 노갑순(魯甲淳)

1952. 5. 20 일명 공명(公明). 시조의 29세손. 호숙(豪塾)의 다섯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하였다. 대학 졸업. 육군

대령으로 재임하고 있다. 아내는 전주리 씨 종석(鍾碩)의 딸 경자(慶子)다.

◆ 노갑중(魯甲中)

1937. 7. 8 자 군열(君烈). 시조의 29세손. 갑동(甲童)의 맏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태어났고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공학박사. 현재 경기도 수원시 소재 공간건축사무소 소장으로 있다.

아내는 밀양 박영자(朴英子)다.

◆ 노갑진(魯甲珍)

1942. 9. 2 자 일야(日治). 시조의 29세손. 갑동(甲童)의 둘째 아들로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였다. 약학 박사.

현재 광주약국을 경영하고 있으며 아내는 평강 채영자(蔡英子)다.

◆ 노갑호(魯甲好)

1945. 12. 26 자 봉오(鳳吾). 시조의 29세손. 갑동(甲童)의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태어남.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이학 박사.

아내는 경주 김천수(金千洙)의 딸 난숙(蘭淑)이다.

◆ 노강규(魯岡圭)

1963. 4. 4 시조의 28세손. 병설(炳僊)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 진양리 출신이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변호사로 있다.

◆ 노강수(魯康洙)



노 강 수

1942. 8. 31생. 본관 함평(咸平) 호 서촌(瑞村) 우양과 무안 박영애의 3남으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나와 초등학교장을 역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 아내는

밀양(密陽) 박우암과 청주 한행철의 차녀로 승례(承禮)로 1남2녀를 두었다.

◆ 노강수(魯康洙)

1937. 7. 23 시조의 27세손. 수탁(秀鐸)의 둘째 아들.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으며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도청 여성국 가정복지계장으로 있다. 아내는 함평 이춘금(李春錦)이다.

◆ 노경광(魯炅光)

1971. 6. 1 시조의 30세손. 점석(岾碩)의 맏아들로 문학박사. 조선대학교 교수로 있다.

◆ 노경상(魯卿相)



노경상

1948. 8. 17 본관 함평. 호 포마(浦馬). 시조의 26세손. 기안(基安)과 함평 모순례(牟順禮)의 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동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80년 목포, 1987년 광주, 1991~1993년 서울 롯데, 1996년 대전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1985년 전남도전 우수상, 1986년 무등미술대전 우수상, 1987년 한국미술대전 특선의 영광을 안았다. 1990, 1991, 1997년 전남대학교 강사를 지냈고 광주미술대전, 전라남도 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겸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목우회전, 한국미협전, 한독미협전에도 출품하는 등 미술계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한국화 백문 백답(금호문화. 1995)'의 저서와 '조선시대 산수화의 구도' 등 다수 논문이 있다.

아내는 김해 김영룡(金永龍)과 밀양 박윤례(朴允禮)의 딸 순희(順姬)다.

◆ 노경수(魯璟洙)

본관 함평. 호 정암(正菴)

1906년 동지 이영태(李榮泰)와 함께 창하여 김태원 의병부대에 가담 고창, 무장적을 사살하는 등 전과를 세웠다.

◆ 노경완(魯敬完)

1971. 6. 1생. 본관 함평(咸平) 점석(岾碩)과 광산(光山) 김성녀(金星女)의 장남으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원을 졸업 미국 어바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취득 현 삼성그룹 정밀기기 수석연구원이며 아내는 海州 최명수의 차녀이다

◆ 노경춘(魯炅春)

1933. 7. 27 시조의 27세손. 종표(琮杓)의 양아들. 생부 광표(洸杓). 월야면 예덕리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 제12기 졸업.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여 포항제철운송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서일주식회사 전무를 지냈다. 아내는 함양 여도호(呂道浩)의 딸이다.

◆ 노광섭(魯光燮)

본관 광산. 나산면 송암리에서 출생 고졸. 경감. 1985년 안보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노광수(魯匡洙)

1874~1935 처음 이름 경수(璟洙). 자 화삼(化三). 호 정암(正菴). 시조의 27세손. 공탁(公탁)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다. 명민하여 사물에 밝았고 1906~1907년까지 의병진에 가담하여 항일운동을 하였다. 아내는 대구배씨 먼규(冕圭)의 딸이다.

◆ 노광숙(魯僇塾)

1930. 9. 29 자 종석(宗錫). 호 인산(仁山). 시조의 28세손. 병국(炳國)의 아들로 함평읍 내교리에서 태어남. 함평군 신용협동조합을 발기하여 이사장직에 있으며 함평군신용협동조합 장학회를 설립 운영하

고 있다.

아내는 전주리씨, 그리고 칠원 윤재일(漆原尹在日)의 딸 영숙(永淑)이다.

◆ 노광을(魯光乙)

1952. 9. 28 호 창암(昶菴). 시조의 30세손. 인환(寅煥)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경기도 성남시에서 노광을산부인과의원을 경영하고 있다. 아내는 김해 김수남(金壽男)의 딸 금란(金蘭)이다.

◆ 노국근(魯國根)



노국근

1941. 6. 9. 본관 함평(咸平) 호 덕천(德泉) 광금(廣金)과 김해(金海) 김소례(金素禮)의 3남으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목포사범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 전라남도 교육청 장학사와 목포상동초등학교장, 목포한빛초등학교장을 역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 아내는 전주(全州) 이경화(李京華)와 김해(金海) 김양심(金良心)의 장녀 광순(廣順)이다.

◆ 노국환(魯國煥)

1932. 6. 10 호 송정(松亭). 시조의 29세손. 안근(安根)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다.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사무관으로 광주광역시청에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무안 박옥순(朴玉順)이다.

◆ 노군수(魯窘洙)

1946. 8. 28 자 보수(寶洙). 시조의 27세손. 성탁(盛鐸)의 아들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고려시멘트 품질관리과장으로 있으며 아내는 함평 이계창(李啓昌)의 딸 오순(五順)이다.

◆ 노규호(盧奎鎬)

1970. 8. 8생 본관 광산(光山) 순정과 고령(高靈) 신우님의 3남으로 월야면 계림리에서 출생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며 아내는 고서영이다.

◆ 노근선(魯根璇)

1920~1979 시조의 28세손. 신수(信洙)의 아들로 학교면에서 태어났으며 소년 때 일본으로 건너가 고생 끝에 사업이 번창하였고 제일거류민단 강산현(岡山縣)단장을 역임하며 제일교포의 권익을 위해 일하다가 귀국하여 고향발전에 헌신하였다. 아내는 서미화자(西尾花子, 1926~1982)다.

◆ 노근안(魯根安)

1948. 6. 22 시조의 28세손. 현수(賢洙)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극동정치연구원 사무관으로 있다. 아내는 광산 노병오(盧秉五)의 딸 영순(英順)이다.

◆ 노근열(魯根烈)

1934. 7. 28 호 호당(豪堂). 시조의 28세손. 신수(信洙)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졸업. 약학박사. 광주에서 남영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아내는 밀양 박상진(朴庠鎭)의 딸 영옥(英玉)이다.

◆ 노근후(魯根厚)

1909. 8. 19~작고. 호 을산(乙山). 시조의 28세손. 인수(仁洙)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다. 광주농업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재학 중 독서회원으로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하였고 학다리중앙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으며 건국훈장, 국민 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아내는 함평이씨 사범의 딸이다.

◆ 노금노(魯金廬)

1949. 10. 26 족보명 창숙(昌塾). 시조의 28세손. 병식(炳寔)의 아들로 함평읍 내교리에서 태어났다. 제2대 함평군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아내는 풍천 임병재(任炳宰)의 딸 화자(花子)다.

◆ 노기상(魯麒相)

1843~1912 처음 이름 정상(整相). 자 인숙(仁淑). 호 고산(高産). 시조의 26세손. 연규(淵圭)의 아들.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을 지냈다. 아내는 상산김씨 지구(址九)의 딸이다.

◆ 노기수(魯基洙)

1885~1944 처음 이름 건수(甄洙). 조여(肇汝). 호 송호(松湖). 시조의 27세손. 경탁(璟鐸)의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다. 박학다문하였고 일제 때 학교면장을 지냈다. 아내는 무안박씨 용화(庸和)의 딸, 광산김씨 주현(周鉉)의 딸이다.

◆ 노남수(魯南洙)

1927. 1. 11 자 남진(南珍). 호 남파(南波). 시조의 27세손. 판탁(判鐸)의 아들로 일제시 목포전수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위술사령부문관, 과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파평 윤성중(尹聖重)의 딸 오순(吾順)이다.

◆ 노대숙(魯大塾)

1941년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하여 숭일고. 중앙대 화학과 졸업, 광주에서 화공약품주식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송파(松坡) 이규형 선생 사사. 아호는 죽파(竹坡). 현재 전라남도미술대전 추천작가.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서가협회초대작가

◆ 노대영(魯大榮)

1946. 4. 11 자 (敬九). 시조의 30세손. 일섭(一燮)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다.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새정치국민회의 광주북구지구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재광함평군향우회장으로 있다. 아내는 나주 나명자(羅明子)다.

◆ 노동규(魯東圭)

1958. 1. 13 시조의 28세손. 병설(炳僊)의 맏아들로 함평읍 진양리 출신이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동 대학병원 외과전문의로 있다. 아내는 전 군수 울산김씨 연수(鍊洙)의 딸 상애(相愛)다.

◆ 노동수(魯東洙)



노 동 수

1947. 8. 18생. 본관 함평(咸平) 호 靑솔, 윤탁(潤鐸)과 영성(靈城) 정복례(丁福禮)의 차남으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광주교육대학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나와 함평해보초등학교장과 월야초등학교장을 재직하며 황조근정훈장과 저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개념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며 아내는 함평(咸平) 이용현(李庸憲)과 정희임(丁姬任)의 장녀 연례(李蓮禮)로 슬하에 1남1녀를 두었다.

◆ 노동환(魯東煥)

1947. 11. 13 시조의 29세손. 회근(晦根)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으며 전남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였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축협 전남양돈협회 감사직에 있다. 아내는 무안 박선임(朴選任)이다.

◆ 노두근(魯斗根)

1952. 3. 21 시조의 28세손. 장수(丈洙)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



으며 학교면장, 환경복지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금성 나정임(羅貞任)이다.

◆ 노만상(魯萬尙)

1954. 7. 20 시조의 29세손. 윤근(潤根)의 맏아들로 학교면 북천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토지개발공사 목포소장으로 있다.

아내는 한양 조전형(趙全衡)의 딸 화선(花仙)이다.

◆ 노만석(魯萬碩)

1953. 3. 4 시조의 29세손. 학교면 북천리에서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고려증권 차장으로 있다.

아내는 이천 서영옥(徐永玉)이다.

◆ 노만인(魯萬仁)

1930. 6. 4 자 인환(寅煥). 호 휘당(徽堂). 시조의 29세손. 정근(正根)의 둘째 아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수의학 박사며 현재 남평에서 금성 동물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아내는 진주 정봉규(鄭奉奎)의 딸 금란(錦蘭)이다.

◆ 노만주(盧滿柱)

해보면 해보리 모산에서 출생하였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 사업을 하고 있다.

◆ 노만진(魯萬進)

1921. 9. 3 자 상렬(翔烈). 호 흠재(欽齋). 시조의 29세손. 정근(正根)의 맏아들로 학교면 북천리에서 태어났다.

학교면장, 학교면의회 의장, 함평군교육위원을 지냈다.

아내는 평강 채수연(蔡洙然)의 딸 영례(永禮)다.

◆ 노만형(魯萬馨)

1946. 12. 8 시조의 29세손. 광근(光根)의 맏아들로 화순 우체국장으로 있다. 아내는 함평 이계례(李啓禮)다.

◆ 노명규(盧明奎)

본관 광산. 학교면장을 지냈다.

◆ 노명환(魯明煥)

1952. 5. 18 시조의 29세손. 형근(炯根)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북천리에서 태어났다.

인하공대를 졸업하였으며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교수로 있다.

아내는 김해 김현자(金賢子)다.

◆ 노몽구(魯夢九)

1953. 1. 15 시조의 30세손. 상렬(翔烈)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북천리에서 출생하였고 독일 베를린대학교에서 문학 박사를 받았고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아내는 순흥 안동권(安東權)의 딸 인선(仁仙)이다.

◆ 노문호(魯文鎬)

1960. 6. 9 시조의 29세손. 오숙(五塾)의 둘째 아들

손불면 출신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역천동 그리스도교단 목사로 있다.

아내는 김종애(金鍾愛)다.

◆ 노민식(魯敏植)

1932. 3. 16 호 혜천(慧泉). 시조의 28세손. 수천(洙千)의 아들로 학교면 마산리에서 태어남. 초등학교장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임(林)씨 온순(溫順. 1933년생)으로 종익(鍾翊)의 딸인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효성을 다하여 노부모를 극진히 섬기어 1984년 대한노인회서 효부상을 수여하였다.

◆ 노민표(魯玟杓)

1892~1950 자 문옥(文玉). 호 강재(綱

齋). 시조의 26세손. 영준(泳駿)의 맏아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태어났다.

심석재 송병순의 문하생이며 성명학(性命學)에 밝았고 특히 문장으로 향방(鄉邦)에 이름이 높아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어 수학하였다.

아내는 나주 임방규(林方圭)의 딸, 진주 정복휴(鄭福休)의 딸이다.

◆ 노반영(魯飯榮)

1957. 6. 21 일명 갑영(甲榮). 시조의 27세손. 상훈(相勳)의 맏아들.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목포대학교 교수로 있다. 아내는 김해 김봉두(金奉斗)의 딸 미화(美花)다.

◆ 노방수(魯旁洙)

1945. 10. 10 자 회수(會洙). 시조의 27세손. 수탁(守鐸)과 함평 이윤순(李允順)의 셋째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으며 학교동초등학교,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1984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성요셉병원 내과과장, 1984년에 노방수 내과의원을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성신부전에 수반된 각종 내분기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아내는 무안박씨 석운(錫云)의 딸 복단(福丹)이다.

◆ 노병귀(盧炳貴)

1954. 5. 9 대전공과대학 졸업. 대전철도청 감사과장 역임

◆ 노병도

함평읍. 1981년 국가안보 및 충성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노병례(魯炳禮)

1901. 7. 2~ 작고. 치상(熾相)의 딸로 신광면 유천리에서 태어났다. 남편과 일찍



노병례

이 사별하고 시부모를 극진히 모서 1969. 9. 16 함평군수로부터 효열부 표창을 받았으며 1985년 향촌인들이 학교면 죽정리 덕산에 “효열부기실비”를 세웠다. 남편은 나주 김용언(金用彦)이다.

◆ 노병룡(魯炳龍)

1935. 11. 5 시조의 27세손. 인송(仁松)의 둘째 아들로 월야면 계림리 출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인하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아내는 영천기씨 재인(在寅)의 딸이다.

노병설(魯炳僉)

1927. 8. 19 자 영보(英甫). 호 남창(南蒼). 시조의 27세손. 숙표(壽杓)의 맏아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하였다.

검찰 부이사관으로 광주, 전주,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영성 정영원(鄭永源)의 딸 금례(金禮)다.

◆ 노병숙(魯炳淑)

1945. 2. 4 시조의 27세손. 숙표(壽杓)의 셋째 아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태어났다.

건국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총무소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김해김씨 종준(鍾俊)의 딸 명희(明姬)다.

◆ 노병옥(盧炳鉦)

1928. 5. 19 본관 광산. 호 정현(正軒). 광주농업학교 졸업.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을 지냈다.

◆ 노병우(盧炳雨)

해보면 해보리 모산에서 태어났고 전라남도연초조합 전무를 역임하였다.

◆ 노병유(魯炳裕)

1944. 8. 14 시조의 27세손. 성근(成根)의 맏아들로 월야면 계림리에서 출생함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기독교방송국보도부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남평 반석진(潘石鎭)의 딸 복임(福任)이다.

◆ 노병채(盧炳采)

1898~작고. 아버지 철수와 어머니 함평모씨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고종황제 즉위 1주년기념 초시에서 장원하였다. 아내는 영성정 극순의 딸이다.

◆ 노병팔(盧炳八)

1956. 9. 4 본관 광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사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변호사업을 하고 있다.

◆ 노병하(盧炳夏)



노 병 하

1932. 3. 4 본관 광산. 호 초당(草堂). 난수와 광산 김말례의 아들로 함평읍 만흥리 초동에서 태어나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였고, 초등학교 교감을 역임했다.

1994. 8. 31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금성 나정주의 딸 병님이다.

◆ 노병한(魯炳漢)



노 병 한

1954. 12. 5 호 월영(月影). 본관 함평. 시조의 27세손. 상빈(相彬)과 이복금(李福今)의 맏아들로 함평읍에서 태어나 단국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건설기계

안전기술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고

속도로관리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김우동(金禹東)과 이순덕(李順德)의 딸 영애(英愛)다.

◆ 노병해(魯炳海)

1937. 6. 15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건국대학교 졸업.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재경함평군향 우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 노봉근(魯封根)

1891~1962 처음 이름 석기(碩基). 자 사흥(士興). 호 죽계(竹溪). 시조의 26세손. 연오(淵午)의 맏아들로 월야면 예덕리에서 태어났다. 박학다문하였고 서당을 열어 후학을 많이 길렀는데 제자들이 계(契)를 설립하여 그의 유고집을 간행하였다.

아내는 전주리씨 건영(建英)의 딸이다.

◆ 노봉근(魯奉根)

1919. 9. 29 자 맹렬(孟烈). 호 청포(淸浦). 시조의 28세손. 수효(洙孝)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태어났다. 20여년간 공무원 역임하였고 학교단위농협장을 지냈다. 아내는 무안 박감순(朴甘順)이다.

◆ 노봉근(魯鳳根)

1946. 10. 3생. 본관 함평(咸平) 수천(洙天)과 김쌍금의 장남으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단국대학교 상과대학과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 목포압해중,목포항도여중,목포공고교장을 역임하였으며 녹조근정훈장을 수상, 아내는 장흥 마정현과 하동 하정애의 장녀인 영숙으로 슬하에 3녀를 두었다.

◆ 노봉수(魯鳳洙)

1927. 9. 16 시조의 27세손. 수탁(秀鐸)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다. 30년간 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정년 퇴직하였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현재 함평노

씨대중회 회장으로 있다.

아내는 순흥 안군찬(安君贊)의 딸 영자(英子)다.

◆ 노봉오(魯鳳五)

1946. 9. 5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충남대학원 졸업. 조
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노부근(魯富根)

1925. 4. 26 시조의 28세손. 영수(永洙)
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하였
고 광주시 산수동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반남 박찬우(朴贊佑)의 딸이다.

◆ 노삼근(魯三根)

1937. 5. 30 시조의 28세손. 병준(炳俊)
의 셋째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
으며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
찰에 입문 경감으로 명예 퇴직하였다.

◆ 노삼영(魯三英)

1940. 1. 10 호 경암(敬菴). 시조의 28세
손. 기원(奇源)의 셋째 아들로 학교면 마산
리에서 태어남. 학교농업협동조합장을 지
냈다. 아내는 청주 한승섭(韓承燮)의 딸 경
자(敬子)다.

◆ 노상근(魯相根)

1932. 8. 14 자 상호(相浩). 호 남파(南
坡). 시조의 26세손. 대연(大淵)의 맏아들
로 학교면에서 출생하였다. 광주대한건설
사장으로 있다. 아내는 김해김씨 영조(永
祚)의 딸 계성(桂成)이다.

◆ 노상룡(魯相龍)

1932. 9. 17 호 지곡(芝谷). 시조의 26세
손. 대동면 금곡리에서 태어났으며 농수산
부 농업통계사무소 소장으로 있다.
아내는 낙안 오병균(吳炳均)의 딸이다.

◆ 노생수(魯生洙)

1955. 5. 26생. 본관 함평(咸平) 종택(宗
鐸) 김해(金海) 김영자(金英子)의 장남으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기계공
학과를 졸업 현대삼호중공업(주) 常務로 재
직 중이며 '05 무역공로대통령포장 수상
아내는 김해(金海) 김윤조(金尹組)와 오정
조(吳正組)의 5녀로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노생수(魯生洙)

1956. 5. 26 시조의 27세손. 판택(判鐸)
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남.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라그룹 과
장으로 있다. 아내는 김해 김윤상(金允祥)
의 딸 옥수(玉秀)다.

◆ 노석홍(魯錫洪)

1958. 9. 24 시조의 29세손. 봉규(琫圭)
의 맏아들로 월야면 계림리 출신. 한양대
학교공과대학, 한국과학원을 졸업하고 기
아산업 엔진연구과 대표를 역임하였다.

◆ 노선표(魯璿杓)

1902~1946 자 예옥(睿玉). 호 용암(庸
菴). 시조의 26세손. 영준(泳駿)의 둘째 아
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하였다.
덕망과 문행을 겸비한 학자로 이름이 높았
으며 특히 필재(筆才)가 뛰어나 예서(隸書)
에 능숙하였기 때문에 그의 유필(遺筆)이
호남 각처에 전한다. 아내는 나주 나병소
(羅炳素)의 딸 중임(仲任)이다.

◆ 노수천(魯洙天)

1927. 1. 25 호 영은(英隱). 시조의 27세
손. 수택(粹鐸)의 맏아들로 복천리에서 출
생. 목포공업학교 졸업. 교감으로 정년 퇴
임하였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내는 광산 김기만(金箕滿)의 딸 쌍금(雙
金)이다.

◆ 노숙표(魯壽杓)

1905~1972 일명 우표(又杓). 자 수옥(壽



玉). 호 도퇴(陶退). 시조의 26세손. 영준(泳駿)의 셋째 아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태어났다. 시사(詩詞)에 뛰어났고 예서(隸書)에 능숙하여 호남 각처에 유필(遺筆)이 전한다. 아내는 죽산 안기준(安基駿)의 딸 태임(太任)이다.

◆ 노승길(魯勝吉)

자 맹수(孟洙). 호 성재(省齋). 시조의 27세손. 성탁(盛鐸)의 맏아들로 학교면 출신이며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기술보급국 농촌지도관을 거쳐 현재 원장으로 있다. 아내는 의성김씨 철주(哲柱)의 딸 광순(光順)이다.

◆ 노승담(魯承潭)

1957. 8. 24 자 만승(萬承). 시조의 29세손. 광숙(光塾)의 맏아들로 함평읍에서 출생.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방부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내는 나주 임석중(林錫鍾)의 딸 해경(海卿)이다.

◆ 노승재(魯勝在)

1944. 3. 11 자 해수(海洙). 시조의 27세손. 성탁(盛鐸)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출신이다.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조선대학교 교수로 있다. 아내는 밀양박씨 종렬(鍾烈)의 딸 정숙(貞淑)이다.

◆ 노승행(魯勝行)



노승행

1939. 12. 20 자 왕수(旺洙). 호 몽룡(夢龍). 시조의 27세손. 수탁(守鐸)과 함평 이운순(李允順)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하였다. 학다리중, 광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 사법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968년부터 1982년까지 전주, 부산, 제주, 서울 등 검찰청

검사, 1982년 8월부터 1986년 5월까지 서울, 서울남부, 광주검찰청 등 부장검사, 1986년 광주지검 차장검사, 1987년 인천지검 차장검사, 1989년 사법연수원 부원장, 1991년 청주지원 검사장, 1992년 광주지검 검사장을 지냈으며 1993년에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1997년부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법무법인 두레 대표 변호사로 있다.

아내는 과평윤씨 상래(相來)와 김해 김수경(金守敬)의 딸 현희(賢姬)다.

◆ 노승희(魯承熙)

1949. 10. 9 시조의 29세손. 근창(根昌)의 맏아들로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제일은행 광주지점 차장직에 있다. 아내는 장흥 고영숙(高永淑)이다.

◆ 노신근(魯信根)

1929. 10. 18 시조의 28세손. 형수(瑩洙)의 다섯째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광주시 민주공화당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해주 최윤순(崔允順)이다.

◆ 노 씨(盧 氏)

본관 광산

죽산 안천섭의 아내로 나산 마을 앞에 열부비를 세웠다.

◆ 노연근(魯孺根)

1917. 8. 28 호 향포(香圃). 시조의 28세손. 한수(瀚洙)의 아들로 학교면에서 태어났다. 농림부 통계사, 우체국장을 지냈다. 아내는 전주리씨 백원(白元)의 딸, 나주 오경애(吳景愛)다.

◆ 노영구(魯永九)

1949. 11. 18 시조의 30세손. 만형의 맏

아들로 신광면 유천리 출신. 1970. 8. 30
대통령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김해김씨 종기(鍾基)의 딸이다.

◆ 노영기(魯英琦)

1959. 3. 19 시조의 27세손. 상근(相根)
의 맏아들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하였
다. 전남대학교에서 문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교도관(警監)으로 있다.
아내는 한양 조병호(趙炳浩)의 딸 향숙(香
淑)이다.

◆ 노영길(魯英吉)

1960. 12. 2 시조의 27세손. 상근(相根)
의 둘째 아들로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현재 금호그룹 인사과장으로
있다.

◆ 노영남(魯英男)

1945. 10. 3 시조의 27세손. 소택(小鐸)
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다.
인천시 북구청 세무과장으로 재임중이다.
아내는 장흥 고두엽(高斗葉)이다.

◆ 노영대(魯榮大)

1953. 9. 8 시조의 27세손. 문상(文相)
의 셋째 아들로 월야면 예덕리에서 출생
하였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광
주지방법원 판사로 있다.
아내는 동래 정진숙(鄭鎭淑)의 딸 은주
(銀珠)다.

◆ 노영섭(魯永燮)

1929. 5. 30 학교면 마산리 323~2번지.
육군부대 중사로 근무하던 때 동부전선
양양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52. 6. 10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노영운(魯永云)

1937. 5. 13 함평읍 장교리에서 출생
공주사범대학 졸업. 강진병영고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노영환(盧榮煥)



노영환

본관 광산. 족보명 광
명(光明). 종주(宗柱)
와 풍천 임길순(任吉
順)의 맏아들로 신광
면 동정리에서 출생하
였고, 광주서중, 광주
제일 고등학교를 졸업
했다.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피선,
1987년 함평 JC회장, 1987년 동아생명
법인영업부 광주지소장을 역임했다. 아
내는 남평 문남식(文南植)과 천안 전간
례(全間禮)의 딸 순금(順今)이다.

◆ 노예근(魯禮根)

1923. 8. 12~작고. 시조의 28세손. 영수
(瑩洙)의 셋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하였
고 여러 군의 재무과장을 역임했다. 아내
는 달성 배녹순(裴綠順)이다.

◆ 노완석(魯琬錫)

1953. 1. 1 시조의 29세손. 치숙(治塾)의
양아들. 생부 명숙(明塾).
광주대건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천주교광주
교구청 교육국장으로 있다.

◆ 노완수(魯完洙)

1948. 4. 25 시조의 27세손. 경기도
안산시 소재 남경건설 사장으로 있다.
아내는 전주 리옥현(李玉鉉)의 딸 양지
(良芝)다.

◆ 노용진(盧龍辰)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노용희(魯龍熹)

1946. 8. 19 시조의 29세손. 근백(根伯)
의 맏아들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경제학 박사며 제1방송 이사직에 있다.
아내는 광산 김민수(金玟洙)의 딸 용단
(容丹)이다.



◆ 노우정(魯祐征)

1942. 9. 17 시조의 28세손. 익수(益洙)의 셋째 아들.
학교면에서 출생하였고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후 경북구미직업훈련원 사감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영성 정여금(丁女禁)이다.

◆ 노원근(魯元根)

1951. 10. 5 시조의 28세손.
전남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현재 서울 기업은행 차장으로 있다.
아내는 광산 김동수(金銅洙)의 딸 현옥(賢玉)이다.

◆ 노운갑(魯允甲)

1959. 9. 4 시조의 29세손. 재근(在根)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다. 서울시립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연출가로 근무 중이다.
아내는 함평 이재두(李載斗)의 딸 영희(英姬)다.

◆ 노윤근(魯潤根)

1915. 1. 17 자 기옥(琪玉). 호 남강(南崗). 시조의 28세손. 형수(亨洙)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다.
학교면장, 학교면의회 의장을 지냈다.
아내는 밀양박씨 기현(棋鉉)의 딸, 전주 이판재(李判宰)의 딸 삼순(三順)이다.

◆ 노윤기(盧潤基)

1959. 9. 24 본관 광산. 순천매산고등학교 졸업. 사법고시에 합격하였고, 의정부검찰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 노윤숙(魯允塾)

1928. 11. 12 호 송악(松岳). 시조의 28세손. 병순(炳順)의 여섯째 아들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하였다. 서울신문 광주지사장을 지냈고 아내는 광주 이병철(廣州李

秉哲)의 딸 애숙(愛淑)이다.

◆ 노익수(魯益洙)

1903. 12. 29 호 금사(錦沙). 시조의 27세손.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나 목포시호적과장을 지냈다.
아내는 영성 정권규(丁權奎)의 딸이다.

◆ 노인규(盧寅圭)

본관 광산. 학교면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광주 노인규의과원장

◆ 노인근(魯仁根)

1928. 3. 17 자 정근(正根). 호 강파(崗波). 시조의 28세손. 형수(亨洙)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함.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 이창헌(李昌憲)의 딸 덕임(德任)이다.

◆ 노인수(魯仁洙)

1956.11.2생. 본관 함평(咸平) 중탁(仲鐸)과 경주 이연순의 장남으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서울대법대학교를 졸업 제24회 행정고시합격, 제23회 사법고시합격, 군법무관복무, 서울고등검찰청부장검사, 청와대사전비서관, 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총재특별보좌관, 열린우리당광주광역시당위원장, 재경함평군향우회회장 현재 재경변호사 아내는 김우중(金禹鍾)과 김정숙의 차녀 현옥(炫沃)으로 2남2녀를 두었다.

◆ 노인숙(魯仁塾)

1915. 4. 12 호 만계(晩溪). 시조의 28세손. 병순(炳順)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하였다. 여러 군의 농산물검사소 출장소장을 지냈다. 아내는 파평윤씨 형중(炯重)의 딸이다.

◆ 노인창(盧仁昶)

나산면 구산리.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

다.

◆ 노일완(魯一完)

본관 함평, 1967년 대동면 운교리 출생. 갑진과 김해 김군자의 첫째로 개혁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는 나주 한빛교회 목사로 있다. 아내는 선산 임광복(任光福)과 최명님의 큰딸 행화(行化)다.

◆ 노장갑(魯章甲)

1950. 2. 3 시조의 29세손. 연근(璫根)의 셋째 아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공군 중령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미국 유학중이다. 아내는 남평 문제태(文濟泰)의 딸 미자(美子)다.

◆ 노장섭(盧長燮)



노 장 섭

1934. 5. 11 본관 광주, 족보명 장주(長柱). 호 벽산(碧山). 시조의 39세손. 동렬(東烈)과 김해 김복순(金卜順)의 맏아들로 신광면 동정리에서 출생하였고 목포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1972년 신광농업협동조합 참사, 1978년 동 조합 조합장을 지냈고, 1989년 전국 시조경창대회 명인부 1등, 1990년 중앙본부 시조경창대회 국창부(國唱部) 1등에 뽑혔다. 아내는 김해 김상길(金相吉)과 광산 김원산(金元山)의 딸 삼순(三順)이다.

◆ 노재광(魯宰光)

1976. 6. 16생 본관 함평(咸平) 강수(康洙)와 밀양(密陽) 박승례(朴承禮)의 장남으로 나산면 삼축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원을 수료 전문의사이다.

◆ 노재옥(盧載玉)

해보면 해보리 모산에서 태어났고 대법원

형사과장을 역임하였다.

◆ 노재원(魯宰源)

1952. 9. 2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 대학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내과 전문의로 광주시내에서 내과병원을 개업하고 있다. 아내는 나주 나기준(羅基峻)의 딸 민숙(珉淑)이다.

◆ 노재천(盧在千)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1947. 3. 2~1949. 5. 9까지 대동면장을 지냈다.

◆ 노재호(魯宰昊)

1962. 9. 27 시조의 29세손. 윤숙(允塾)의 둘째 아들로 대동면 금곡리 출신이다. 국립경찰대학 제1회 졸업생으로 제주국제공항경비대 인사보급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감으로 재임 중이다.

◆ 노전기(盧銓璣)

1846~1913 본관 광산. 자 공거(功舉). 호 가송(柯松). 시조의 31세손. 동규(東奎)의 넷째 아들
효성이 지극하고 학식이 고명하였으며 만년에 육영재(育英齋)를 짓고 2~3 동지와 더불어 경사(經史)를 강론하고 후생을 교육했다. 1906년 홍릉참봉을 제수했으며 유고가 전한다.
아내는 김해김씨 해윤(海倫)의 딸이다.

◆ 노점석(魯峴碩)

1945. 12. 25생. 본관 함평(咸平) 호 부림(富林) 연근(琕根)과 金海 김처례(金處禮)의 장남으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미국조지워싱턴대학원최고관리자수료, 영국.옥스퍼드대학원경영자과정연수. 대한건설(주)부사장, 부림종합건설대표이사, 대한건설협회 전남지회 간사 역임 아내는 광산(光山) 김종기(金鍾基)의 장녀 성녀(星女)이다.



◆ 노정숙(魯貞淑)

1963년 학교면 복천리 출생으로 학다리중과 동신고 졸업,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와 성신여대 대학원 수학. 서양화로 시작했으나 1980년 이후 판화작업에 몰두. 1987년 광주예술대전 대상수상. 서울, 광주, 프랑스 등에서 개인전 6회, 광주비엔날레, 세계여성미술가협회전, 프랑크푸르트 북 페어초대전 등 많은 기획전과 초대전에 참가. 현재 화순에 작업실을 두고 전남대에 출강.

◆ 노정연(魯貞妍)

1967. 2. 6 시조의 28세손. 승행(勝行)의 딸딸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경기도 성남지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 노정환(魯禎煥)

1949. 4. 9 시조의 29세손. 수근(壽根)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이학박사로 교수직에 있다. 아내는 한양 조난심(趙蘭心)이다.

◆ 노종구(魯宗九)

1948. 5. 10 시조의 30세손. 병렬(丙烈)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공학 석사. 농업진흥공사 과장으로 재임 중이다. 아내는 김해 김옥희(金玉姬)다.

◆ 노종기(魯宗基)

1924. 2. 24 자 문경(文京). 호 송정(松亭). 시조의 28세손. 병인(炳仁)의 맏아들로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하였다. 영광북, 학다리중앙초등학교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광산 김갑현(金甲鉉)의 딸 효순(孝順)이다.

◆ 노 준(魯 俊)

1957. 8. 15 시조의 29세손. 문숙(文塾)의 맏아들로 합평읍에서 태어났으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장성보건의료장 등을 역임했으며 내과전문의로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 노준갑(魯準甲)

1962. 6. 10 시조의 29세손. 상근(祥根)의 셋째 아들. 현재 공군중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노준수(魯峻洙)

1921. 2. 16 호 학포(學圃). 시조의 27세손. 윤탁(允鐸)의 넷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태어났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조흥은행 서울 및 5개 도시 지점장을 지내고 화천기공(貨泉機工) 대표이사 사장, 창원시 상공회의소 의원을 지냈다. 아내는 안동 권안순(權安順)이다.

◆ 노지수(魯智洙)

1885~1962 호 해몽(海夢). 시조의 27세손.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나주 임주상(林周相)의 딸이다.

◆ 노진곤(魯鎭坤)

1949. 1. 2 시조의 29세손. 종기(宗基)의 아들로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조선대학교 법인사무국 차장을 거쳐 송원전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박사. 아내는 옥천 조동선(趙東先)의 딸 춘희(春姬)다.

◆ 노진룡(盧鎭龍)

1929~1948 본관 광산. 학교면 학교리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에서 순경으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 19일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 중 구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로 추서하고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한국전몰용사 공훈록. 국방부>

◆ 노진환(魯振煥)

1952. 8. 7 시조의 29세손. 용근(用根)의 맏아들로 학교면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지질학박사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의성 김정희(金正姬)다.

◆ 노차근(魯且根)

1951. 1. 7 시조의 28세손. 개수(介洙)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으며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인천광역시 북구청 세무과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아내는 이천 서병요(徐炳堯)의 딸이다.

◆ 노찬숙(魯贊塾)

1944. 2. 27 시조의 28세손. 병인(炳仁)의 셋째 아들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중령으로 재임 중이다.

◆ 노창규(魯昌奎)

1925. 6. 15 자 동훈(瞳煥). 시조의 28세손. 경무(景武)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였다.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였고 초등학교교장을 지냈다. 아내는 보성 선병룡(宣炳龍)의 딸 영애(永愛)다.

◆ 노창수(魯昌洙)



노창수

1947. 11. 15 본관 함평. 호 상래(相來). 시조의 27세손. 대동(大同)과 밀양 박길순(朴吉順)의 맏아들로 학교면 마산리에서 태어났으며, 학다리고등학교, 목포교육대학, 한국방

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남동, 광주계림초등학교 등 교사, 1993

년 광주시교원연구위원연구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선대학교, 동신대학교 강사를 역임하였고, 1973년 '현대시학' 시 추천, 1979년 전남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 '표현' 신인상 문학평론 당선, 1990년 월간 '한국시' 신인상 시 당선, 1991년 '시조문학'시조추천 완료, 1991년 시조 문예상 창작부문 수상, 1992년 '한글문학' 신인상 문학평론 당선 등 시, 시조, 평론에 걸쳐 눈부신 문학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여고 교장역임했으며 시조문예상, 한글문학상 수상. 저서로는 시집 '겨울 기억제' '선 따라 줄긋기' '슬픈 시를 읽는 밤' '원효사로 가는 길' 평론집 '한국 현대시의 화자연구' 등 다수가 있다.

아내는 진주 정병렬(鄭炳烈)과 이천 서덕순(徐德順)의 딸 문자(文子)다.

◆ 노창욱(魯昌旭)

1947. 1. 30 시조의 30세손. 만열(萬烈)의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하였고 미국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기대학교 교수직에 있다.

◆ 노철근(魯哲根)

1948. 7. 26 시조의 28세손. 봉수(鳳洙)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하였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중앙회 특수 금융과장을 지냈으며 현재 광주 대인동 지점장으로 있다. 아내는 탐진씨씨 영덕(榮德)의 딸 규현(奎賢)이다.

◆ 노평근(魯平根)

1941. 3. 29 시조의 28세손. 병준(炳俊)의 셋째 아들
학교면에서 출생. 미국유학을 하였고 전자공업박사.
아내는 나주나씨 장갑(長甲)의 딸이다.

◆ 노필성(魯畢省)

1957. 4. 7 시조의 29세손. 문기(文基)의



양아들. 생부 준기(俊基). 대동면 운교리 출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중령으로 재임하고 있다. 아내는 분성 배동철(裴東喆)의 딸 황금(黃金)이다.

◆ 노학탁(魯學鐸)

1856~1913 자 준경(俊京). 호 성암(省菴). 시조의 26세손.

연태(淵泰)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태어났다.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넣어드리고 허벅지의 살을 도려내어 약으로 드렸다. 이에 향도에서 효자로 천거한 천장이 전해온다. 아내는 함평이씨 언우(彦右)의 딸이다.

◆ 노한진(魯翰鎭)

1950. 6. 26 시조의 29세손. 맹근(孟根)의 맏아들로 학교면 마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서울수도대학을 졸업하였고 현재 은행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인동 장윤자(張潤子)다.

◆ 노행환(魯幸煥)

1947. 1. 5 시조의 29세손. 동연(東演)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태어났으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학사로 육군대령을 지냈다. 아내는 유희임(柳熙任)이다.

◆ 노혁준(魯赫俊)

1970. 8. 9 시조의 28세손. 승행(勝行)의 맏아들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연수를 마치고 현재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다.

◆ 노현주(魯賢柱)

1972. 7. 4생 본관 함평(함평) 강수(강수)와 밀양 박승례(박승례)의 장녀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전문의사이며 남편은 홍해 최형조와 창녕(昌寧)조복현의 장남 범은으로 전문의사이다.

◆ 노형갑(魯亨甲)

1946. 7. 24 시조의 29세손. 연근(璫根)의 둘째 아들로 약학 박사. 아내는 광산 김영식(金永殖)의 딸 정숙(情淑)이다.

◆ 노형규(魯煥圭)

1960. 6. 30 시조의 28세손. 경춘(景春)의 맏아들로 월야면 예덕리 출신. 고려대학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박사학위를 받음. 아내는 제주 고명식(高明植)의 딸이다.

◆ 노홍수(魯洪洙)

1936. 12. 3 자 선행(善行). 호 호근(壕根). 시조의 27세손. 수탁(守鐸)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하였다. 전매청 기좌(技佐)를 지냈다. 아내는 해남김씨 동훈(東燾)의 딸 연임(連任)이다.

◆ 노후근(魯厚根)

1909. 4. 21~1978 자 옥근(玉根). 호 지은(芝隱). 시조의 28세손. 일제 때 함평군청 과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나주 임세규(林世奎)의 딸이다.

◆ 노홍숙(魯興塾)

1937. 4. 16 호 송암(松菴). 시조의 28세손. 병인(炳仁)의 둘째 아들로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하였고 행정사무관으로 남양주시 공보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양천 허달일(許達一)의 딸 광자(光子)다.

◆ 노희근(魯熙根)

1960. 4. 13 시조의 28세손. 남석(南碩)의 맏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박사

◆ 동래정씨(東萊鄭氏)

김기수(金基守)의 아내. 함평향교의 절부표

창을 받음

◆ 동래정씨(東萊鄭氏)

함평읍 가동리. 나우량(羅雨亮)의 아내. 함평향교 효부 표창을 받았다.

◆ 모강인(牟康仁)

1956. 8. 24생 본관 함평(함평) 호 운경(운경)은 중근(중근)과 풍천(풍천) 임맹순의 장남으로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에서 출생 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아산경찰서장, 서울서부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인천경찰청장, 현 경찰청차장에 재임 중에 있으며 표창으로는 녹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아내는 서광식과 유운조의 차녀 정주 이다.

◆ 모경구(牟耿求)

1967. 9. 19 본관 함평. 시조의 30세손. 풍기(豐基)와 광산 김덕순(金德順)의 아들로 손불면 양재리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1997년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모경배(牟敬培)

1946. 7. 15 본관 함평. 시조의 29세손. 영암(營岩)과 나주 임판례(林判禮)의 아들로 손불면 양재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에 투신하여 1991년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축과장을 역임했다.

◆ 모경주(牟耿舟)

1969. 10. 3 본관 함평. 시조의 30세손. 풍기(豐基)와 광산 김덕순(金德順)의 아들로 손불면 양재리에서 출생하였고, 서울대학교 공과 대학, 동 대학원에서 1998년 화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모계원(牟桂源)

1933. 6. 21 본관 함평. 호 시몽(匙夢). 시조의 30세손. 중남(鍾南)의 맏아들로 손불면 출신. 법학석사. 호남대학교 과장을 역임함. 아내는 신천 강용택(康龍澤)의 딸이다.

◆ 모귀기(牟貴基)

1932. 8. 31 본관 함평. 자 하기(夏基). 호 수전(穗田). 시조의 28세손. 영암(營岩)과 한양 조봉선(趙鳳仙)의 맏아들로 손불면 양재리 출신이다. 법학 석사. 1997년까지 송원고등학교 교장으로 15년간 재임하였고, 현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직에 있다. 아내는 광산 이종식(李鍾植)의 딸로 무정초등학교 등 교감을 지냈다.

◆ 모근배(牟根培)



1944. 01. 11생 본관 함평(咸平) 영현(營玄)과 광산(光山) 김옥순(金玉順)의 차남으로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에서 출생 중앙대학교 문리과대학 체육학과를 졸업한 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로 광주농업고등학교 근무, 대한씨름협회 경기위원장, 보해양조씨름단 감독으로 문교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아내는 달성(達城) 배원식(裴元植)의 차녀 경자(慶子)이다.

◆ 모남기(牟南基)

1907~1981 본관 함평. 자 남식(南植). 호 양성(陽城). 시조의 28세손. 대진(大鎭)의 셋째 아들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함평광인중학교, 함평읍 교회, 고아 육영성애원을 설립하는 등 사회공익 사업에 앞장서 일하였다. 아내는 나주 김주형(金周衡)의 딸이다.

◆ 모봉섭(牟奉燮)

1931. 9. 12 본관 함평. 시조의 30세손.

종근(鍾根)의 아들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목포사범학교 졸업.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함. 아내는 광산 김성채(金聖彩)의 딸, 금성 정수영(丁守英)의 딸이다.

◆ 모봉수(牟奉洙)



모 봉 수

1938. 8. 27생 본관 함평(咸平) 호 성현(石軒) 환기(煥基)와 광산(光山) 김복금(金福今)의 장남으로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에서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 함평군산림과 보호계장, 식수계장 함평읍장을 역임하는 등의 국가사회발전에 헌신한 공적으로 근정포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나주(羅州) 임봉규(林丰圭)와 진천(鎭川) 송연순(宋蓮順)의 장녀 정자(貞子)이다.

◆ 모상담

본관 함평.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문가.

◆ 모상영(牟相榮)



모 상 영

1943. 12. 26 본관 함평. 중원(仲源)과 정인순(鄭仁順)의 아들로 신광면 삼덕리에서 출생하였다. 1998년 6월 제3대 함평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아내는 김해 김재룡(金載龍)과 행주 기노희(奇老姬)의 딸 은순(은순)이다.

◆ 모상풍(牟相豊)

1920. 10. 20 본관 함평. 호 하산(河山). 양덕공 유추(有秋)의 11세손. 경원(敬源)과 창령 조금례(趙今禮)의 아들로 신광면 삼덕리에서 출생하였고 1934년 신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모 상 풍

간재 사상연구회 이사, 증산사, 백야사 등 많은 사우의 도유사를 맡았고, 1964년 함평향교 유도회장, 1989년 함평향교 전교를 역임하였으며, 1982년 함평향교 전교의 효자상, 1987년 대한노인회 함평군지부장의 효자상을 받았고 '절부광산김씨 기적비' 등 많은 비문을 지었다. 아내는 김해 김낙천(金洛千)과 청주 한미동(韓美童)의 딸 상례(祥禮)

◆ 모상회(牟相會)

1945. 1. 3 본관 함평. 신광면 원산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 중령.

◆ 모성안(牟聖安)

본관 함평. 시조의 31세손. 종렬(鍾烈)과 파평 윤복례(允福禮)의 아들로 손불면 양재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 공업전문학교, 광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기아자동차사에 입사하여 현재 관리차장직에 있다.

◆ 모순기(牟順基)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조사현, 김용언, 김준부 등과 1919. 4. 26에 함평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하고 준비하다가 일경에 감지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3·1 운동 1주기를 맞아 전국으로 확산된 만세운동을 함평에서도 3월 26일에 거행하기로 조사현 등과 합의하고 3월 23일 그의 집에서 송대호, 장정현, 이재수(李載洙) 등 여러 명이 모여 태극기를 만들어 함평보통학교 기숙사에 숨겨두었다가 3월 26일 함평만세운동을 성사시켰다. 당일 일경에 체포되어 목포지청으로 이송되고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출옥 후도 농민운동에 가담하는 등 항일대열에 앞장섰다.

◆ 모순풍(牟順豐)

1893~1974 본관 함평. 자 형기(炯基). 호 풍천(豐泉). 시조의 28세손. 영덕(營德)의 둘째 아들로 손불면 북성리에서 태어났다. 간재(田良齋)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풍천 시고(豐泉詩稿)”가 전한다. 아내는 인동 장원하(張元河)의 딸이다.

◆ 모신영(牟信榮)

1932. 10. 24 본관 함평. 호 유곡(踰谷). 시조의 29세손. 남기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태어남. 신학대학교 졸업. 목사
아내는 전주 리남규(李南圭)의 딸이다.

◆ 모영규(牟永圭)

1943. 7. 1 본관 함평. 신광면 삼덕리에서 출생 중졸. 제1대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신광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모영현(牟營玄)

손불면 양재리.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모용기(牟龍基)

호 근재. 화가. 함평읍 태생으로 해방 이전에 일찍이 선전(鮮展)에 두 번이나 입상했다. 6. 25 한국전쟁 무렵 타계하였다.

◆ 모 원(牟 源)

신광면 삼덕리. 함평향교 전교

◆ 모일성(牟一成)

본관 함평.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영암군청 등 과장을 역임함

◆ 모일원(牟鎰源)

1910~1967 본관 함평. 자 보근(寶根). 호 섬석(蟬石). 시조의 30세손. 종연(鍾淵)의 맏아들로 대동면 출신. 서기관. 대전철도국 공전과장을 지냈다. 아내는 풍천 임영선(任

永善)의 딸이다.

◆ 모종일(牟鍾一)

1927. 10. 22 본관 함평. 호 석암(石菴). 시조의 29세손. 남기(南基)의 맏아들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함평군청 과장을 역임하였고 삼애양로원을 설립하였다. 아내는 밀양 박웅래(朴雄來)의 딸이다.

◆ 모지영(牟志暎)

1964. 6. 23 본관 함평. 월야면 용월리에서 태어남. 한국체육대학 졸업. 86 아시안 게임 필드하키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 모찬원(牟贊源)

1916.11.17~작고, 본관 함평. 처음 이름 달원(達源). 일명 낙원(洛源). 자 동찬(東燦). 호 남천(南川). 시조의 30세손. 종일의 아들로 신광면 삼덕리에서 출생. 서예가. 경향 각지에 많은 비문과 기문, 그리고 현판 등의 글씨를 썼다.
아내는 전주 리동진(李東鎭)의 딸, 함평 이재민(李載敏)의 딸이다.

◆ 무안박씨(務安朴氏)

나승안(羅承安)의 아내, 함평향교의 효열부표창을 받았다.

◆ 무안박씨(務安朴氏)

1892~1926 박기환(朴淇煥)의 딸로 평택 임상복(林相福. 1890년생)의 아내다. 남편이 사경을 헤매자 질지하여 피를 입에 넣어 3일간 연명하게 하였으며 함평향교의 천장이 전한다.

◆ 문기주

1926. 2. 14 나산면 삼축리 747번지. 수도사단 1연대 1대대 3중대 하사로 근무하던 때 강원도 금화 저격능선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1952. 10. 12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문길주(文吉周)

1954. 4. 9 본관 남평. 함평읍 내교리에
서 출생 공군사관학교 졸업. 공군 중령

◆ 문기호(文氣鎬)



문 기 호

?~1932 본관 남평.
1930년 일본으로 건너
가 이봉창의 일본 천
황 암살을 돕기 위해
지리를 파악하는 등
같이 활동했다. 1931.
1. 8 이봉창의 거사는
불행이 폭탄 불발로
미수에 그치고 그도 잡혀 대판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병보석으로 귀국하였
으나 귀국 1년 후 타계하였다.

◆ 문성수

함평읍 함평리. 1994년 도의 부문 함평군
민의 상을 받았다.

◆ 문성식(文成植)

1930. 1. 13 호 임원(林園). 본관 남평.
시조의 34세손. 이선(二善)과 천안 전춘림
(全春林)의 아들로 함평읍 옥산리에서 출생
하였고, 함평농림학교, 전남대학교 농과대
학을 졸업하였다.

1971년 전라남도농림국 사방계장, 1976년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장, 1984년 산림조합
중앙회 전남지부장을 지냈고, 재광함평군
향우회장을 역임하였다.

1979년 녹조근정훈장, 1990년 대통령의
민주평통 유공 표창을 받았다.

◆ 문연호

함평읍 만흥리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
육군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대대장, 3군 사
령부 상전장교, 복지군무지원단 보급운영
처장을 역임하였고,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
고 있으며,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문정구(文正九)

1941. 8. 15 본관 남평. 재복(載福)과 수
성 최유례(崔有禮)의 둘째 아들로 나산면
구산리에서 출생하여, 건국대학교 상학과
를 졸업하고, 대만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
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복방경제학
회 회장, 동북아지역연구소 중국실장을 역
임하였고 현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김혜 김
정환(김정환)과 청주 한종남(韓鍾南)의 딸
혜선(惠善)이다.

◆ 문제술(文濟述)



문 제 술

본관 남평. 광주사범학
교를 졸업하고 함평,
광산 장학사. 나주, 광
주동산 초등학교장. 광
산교육장, 전라남도교
육위원회 초등교육과
장학관을 역임하였다.

◆ 문중현(文淙鉉)

본관 남평.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6대
함평면장을 역임하였고,, 면민의 선거에
의해 8대 함평면장에 당선하였다.

◆ 문창수(文昌洙)

1938. 3. 25 본관 남평. 대동면 서호리에
서 출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광
주시장, 전라남도부지사, 충청남도부지사,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고 광주 · 전남발전
연구원장을 지냈다.

◆ 문태수(文泰洙)

본관 남평. 광주 석산고등학교장을 역임하
였다.

◆ 문학주(文學周)

본관 남평.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함평
읍장을 지냈다.

◆ 문혜관(文慧觀)



문혜관

1956. 8. 10 본관 남평. 호 병구(炳九). 용식(用植)과 임금순(任今順)의 아들로 학교면 곡창리에서 출생하였고, 1982년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와 해남 대흥사에 입산한 후 대흥사포교국장, 미황사 주지, 현대불교문학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불교문학 포교원 원장직에 있다. 한편 계간 '시조문학'으로 등단하여 문학활동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계간 '불교문예' 발행인을 맡고 있다. 저서로 시집 '한듬(1987년)', '번뇌 그리고 꽃' (1996년)이 있다.

◆ 문홍규(文洪圭)

1930. 12. 23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보건사회부 서기관 역임

◆ 문홍만(文洪萬)

1942. 3. 13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신. 고졸. 경감

◆ 문홍덕(文弘德)

1948. 2. 22 엽다면 학야리 대천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졸업. 동대학 교수

◆ 밀양박씨(密陽朴氏)

이정헌(李正憲)의 아내. 함평향교의 효열부표창을 받았다.

◆ 박경학(朴京學)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1949. 5. 9~1951. 1. 31까지 대동면장을 역임했다.

◆ 박광웅(朴光雄)



박광웅

1944. 7. 27생. 본관 밀양(密陽) 박혁거세(朴赫居世)의 66세손 호 황원(晃院) 자 성배(盛培) 명옥(明玉)과 나주 정요순(丁瑤順)의 아들로 만주국 봉천성에서 출생하여 학교면 북천리에서 자라 광주교육대학을 졸업 대동향교초등학교장을 역임 녹조근정훈장과 모범공무원상, 함평군민의상과 2009대한노인회 현충효행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남도함평교육청교육행정자문위원장, 함평군교육발전위원회부위원장, 함평군문화관광해설가, 글로벌추임새운동지도자협의회장, 함평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등의 봉사활동에 열성을 다하며 아내는 광산(光山) 김권중(金權中)과 임판례(任判禮)의 차녀 부덕(富德)으로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다.

◆ 박권문(朴權文)

1876~1947 본관 밀양. 일명 성진(成鎭). 자 거삼(擧三). 시조의 34세손. 동근(東根)의 둘째 아들로 손불면 북성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니 혈지(血指)로 10일간 연명하게 하였으며 어버이 상에 6년간 시묘를 살아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아내는 전주최씨 재곤(재곤)의 딸이다.

◆ 박귀례(朴貴禮)

대동면 덕산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박금규(朴金圭)

1944. 9. 22 본관 밀양. 인배(仁培)와 제주 양남효(梁南孝)의 아들로 손불면 북성리에서 태어났으며, 광주고등학교,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은행에 입사하여 1991년부터 송정, 독립문, 이천, 천호동, 서광주지점장을 역임했고 1997년



박균

광주지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황주 변재영(邊在榮)과 울산 김희남(金希男)의 딸 연석(連錫)이다.

◆ 박기태(朴棋台)

본관 무안. 엄다면 화양리에서 출생 엄다면장(1973. 5. 7~1981. 7. 9)을 역임하였다.

◆ 박기섭(朴淇燮)

나산면 초포리.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박기평(朴基平)

필명(筆名) 박노해. 시인. 1958년 함평읍 기각리 출신으로 어려서 여수로 이사 갔으며, 고흥서초, 별교중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상경하여 선린상고 야간부를 나왔다. 서울 등지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창작과 사회운동을 하다가 1983년 시와경제에 시시대의 꿈의 6편으로 등단. 현실 인식 짙은 첫시집 『노동의 아침』(1984)으로 문단과 당국의 주목을 받은 후 '얼굴없는 시인'으로 추측 속에서 늘 이목을 집중하며 제1회 노동문학상을 수상. 1989년 자신이 결성한 사노맹사건으로 무기징역으로 8년 옥고 후에 특별사면으로 출옥했으며 현재는 사회단체 '나눔문화 운동'의 상임이사로 있다. 저서로는 옥중에서 낸 시집 『참된 시작』 에세이집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후 에세이집인 『오늘은 다르게』 『겨울이 꽃 핀다』 『아제는 울고 있다』 등 다수가 있다.

◆ 박기형(朴基炯)

1939. 1. 14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 고졸. 총무처 사무관 등을 역임하였다.

◆ 박남수(朴南守)

1925. 6. 26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고졸. 해남 화원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박남혁(朴南赫)

나산면 삼축리에서 태어남
6대 나산면장(1951. 9. 10~1952. 5. 5)을 지냈다.

◆ 박대자(朴大資)

손불면 출신. 수필가
기독교의 목회활동을 하며 수필을 쓰고 있다. 1995년 '문학춘추'와 같은 해 '수필과 비평'의 수필 신인상에 당선됐다. 수필집 『이름없이 빛도 없이』(88)를 펴낸 바 있다.

◆ 박동주(朴東珠)



박동주

1961. 4. 28 본관 밀양. 경일(京一)과 함평 이덕금(李德今)의 아들로 신광면 계천리에서 출생하였으며 광주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나주대학 서무·기획과장, 광주시 레슬링협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아내는 하동 정종래(鄭宗來)와 밀양 박영자(朴英子)의 딸 영길(永吉)이다.

◆ 박래옥(朴來玉)



박래옥

1947. 3. 21생 본관 밀양(密陽) 호 수덕(修德) 대자(大者)와 강릉(江陵) 유귀님(柳貴任)의 아들로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 초대 대통령선거인단과 재선 해보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으며 전라남도의회에 재선되어 농림수산분과위원장과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함평군지회장을 역임하였고 전라남도시멘트조합이사장과 민주당함평지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아내는 파평(波平) 윤길병(尹吉炳)과 진주(晋州) 정영순(鄭英順)의 딸 말순(末順)이다.

◆ 박명기(朴明基)

1948.7.17. 본관 무안. 병인과 김영림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태어났으며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노동부 근로감독관(사무관) 역임. 아내는 이선자다.

◆ 박말갑(朴末甲)



박말갑

1922. 3. 3 본관 밀성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함평교육청 교육감(1959~60), 영광군교육장 광주서석, 수창초등학교장, 광주시교육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1977년에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 박문식(朴文植)



박문식

1939. 11. 14생 본관 밀양(密陽) 호 기산(箕山) 복동(福同)과 김해(金海) 김귀덕(金貴德)의 장남으로 전북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에서 출생 순창농업고등학교를 졸업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상임이사과 기산·영수제전승보존회장,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함평군지부장, 게이트볼함평군연합회장, 법무부범죄예방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함평지구협의회회장을 재임중이며 2008함평군민의상을 수상하였으며 아내는 광산(光山) 김근문(金根文)과 제주(濟州) 양중례(梁中禮)의 4녀 정임(貞任)이며 슬하에 4남 4녀를 두었다.

◆ 박병구(朴炳九)

대동면 용성리에서 태어남. 전남대학교 농

과대학 졸업.

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하였다.

◆ 박병기(朴炳淇)

1917~1990 본관 밀양. 자 재순(載淳). 호 난파(蘭坡). 시조의 39세손. 용래(容來)의 맏아들로 대동면 용성리에서 태어났다. 대동면장, 초대 함평군어업조합장을 지냈다. 아내는 진주정씨 동욱(東旭)의 딸이다.

◆ 박병룡(朴炳龍)

함평읍 옥산리.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박병옥(朴炳玉)

1942. 5. 19 함평읍 옥산리 265번지. 수도사단 1연대 자유월남 맹호부대 병장으로 많은 전공을 세워 1966. 12. 19 인헌무공훈장을 받았다.

◆ 박봉혁(朴峯赫)



박봉혁

1873~1935 본관 밀양. 자 화실(華實). 호 수재(守齋). 병록(炳祿)과 김해김씨의 둘째 아들. 송난곡(宋蘭谷)의 문하생이며 당대 호남에서 이름 높은 석학으로 손꼽혔는데 총 207편의 글이 편제된 8권(券) 3책(冊)의 수재유고와 12편의 노래글이 실린 영언전(永言傳)을 남겼다. 특히 「조선가(朝鮮歌)」, 「기성가(箕城歌. 함평의 노래)」 등이 실린 영언전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쓴 노래글 이어서 일제가 내용이 불순하다하여 필사본을 모두 압수 소각하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단속했는데 후손이 원본을 깊숙이 간직하여 전함으로서 1991년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에서 「주해 영언전」을 펴낼 수 있었다.



아내는 나주 정경환(丁景煥)의 딸이다.

◆ 박분임(朴分任)

신광면 삼덕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박상수

1919. 4. 26에 함평만세운동을 벌이기로 조사현 등과 합의하고 준비를 하던 중 일경에 탐지되어 4월 18일 김준부, 김기성이 체포되고 이들이 동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와 정인옥, 장학년을 내세워 피체되었으나 교장 와다나베(渡邊)와 담임 인은수 선생의 활약으로 4월 23일 훈계 석방되었다. 이로 인해 4월 26일 거사는 실패하였다.

◆ 박상철(朴相喆)

손불면 대전리에서 거주
제20대 손불면장(1975. 9. 23~1979. 9. 21)을 지냈다.

◆ 박석규(朴石奎)

1913. 호 만포(晩圃). 학교면 출신으로 함평 시우회장을 역임하며 동호인들게 시조창을 가르쳤다. 1986년 5월에 함평 백학당에서 전국 남녀 시조경창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는 1970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와 1976년 5월 전북 부안에서 열린 대회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박석규(朴錫奎)

1938년 나산면 월봉리에서 태어나서 목포고 졸업, 조선대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경희대 교육대학원 졸업. 목포대 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문과학대학장, 조형예술연구소장, 프랑스 파리8대학교 조형예술대 연구교수로 있었다. 한국미협 전라남도 초대지회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라남도지회장. 전남도미술전,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대한민국미술대

전 서양화분과 심사위원장 역임. 현재 민족미술인협회 고문, 목포유달미술관장. 갯벌미술관장, 목포대 명예교수.

◆ 박석천(朴錫千)

1936. 5. 22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광주지검 수사과장 역임

◆ 박성렬(朴晟烈)

학교면 고막리.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박성암(朴成岩)

1888~1954 본관 밀양. 응용(應鎔)의 딸로 18세에 김해 김영두(金永斗)와 결혼했는데 1년이 못되어 남편과 사별하고, 전처 소생의 4남매를 친자식 같이 잘 길러 가문을 빛냈고, 시부모 모심이 극진하여 효자인 시아버지와 함께 정문(旌門)이 내려 동암리 벽초동에 효열문을 세웠다. <김창화를 볼 것>

◆ 박성일(朴成日)

1948. 5. 24 손불면에서 출생하였고 광주 농업고등학교, 단국대학교 문리대 행정학과 2년 수료,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수산협동조합 과장 14년, 함평중학교육성회장, 함평라이온스클럽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함평군새마을지회장, 박씨대중회 함평군총친회장, 함평주유소 대표를 맡고 있으며 농어촌 총각 짝짓기 사업(120쌍), 함평군 전역 노인잔치 및 효도관광을 시행해 왔다.

제9회 청소년선도 대상 경노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 박성임(朴性任)

학교면 사거리. 함평군수의 효부표창을 받았다.

◆ 박성헌(朴成憲)

1856~1926. 일명 성관(成寬). 본관 밀양 해보면 해보리 모산에서 출생. 박장봉(朴章奉)과 함께 이강산(李江山)의 병부대에 가담하여 불갑산을 근거지로 왜적과 싸웠으며 이강산, 박장봉, 정인술 등이 구밀현병분소 밀정 4명 살해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때 그도 잡혀 심하게 고문을 당한 후 풀려 나왔으나 감시가 날로 심해 곡성군 입면 약천리 산속에 은거하면서 항일 사상을 배양하고 몰래 함평에 오가면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 박세영(朴世英)



박세영

1949. 7. 16생 본관 충주(忠州) 도암(道岩)과 전주(全州) 이상례(李相禮)의 아들로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초당대학교를 졸업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함평읍 부읍장, 함평군문화공보실장,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을 역임, 함평천주교사목회장과 새마을중앙회 함평군새마을지회장,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장, 주식회사 한국건설 함평아텔리아 컨트리클럽 이사를 맡고 있으며 '21세기 환경산업전망'과 '지방세 세수증대방안' 등의 논문이 있고 아내는 화순(和順) 오삼봉(吳三奉)과 신안(新安) 주귀임(朱貴任)의 딸 순남(順南)이다.

◆ 박순구(朴淳求)

1931. 7. 15 본관 밀성. 시조 언상의 29세손. 균태(均泰)의 셋째 아들로 해보면 문장리에서 태어났으며 정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새마을 훈장 협동장,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아내는 함평 이창범(李昌範)의 딸이다.

◆ 박순례(朴順禮)

나산면 삼축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박순오(朴順五)

1954.10.15생. 본관 밀양(密陽), 일동과 전주 이안순의 넷째로 월야면 정산리에



박순오

서 출생 광주대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함평군 상수도관리사업소장(지방시설사무관)에 재직 중이며 아내는 하동(河東)鄭찬선과 오인순의 3녀 현자(賢子)이다

◆ 박승배(朴承培)

1938년 엽다면 성천리에서 출생하여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정광중, 송정여상고, 전남공고 등에서 국어교사로 근무. 1990년 『문학공간』에 시 한쪽만 가는 세월 외 4편이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 시집 『그대 부르는 일은 없지만』 『친구가 불러준 마지막 노래』 『미리내강의 연인』 등이 있으며, 푸른공간회장을 역임했다.

◆ 박양구(朴良求)

1941. 1. 13 본관 밀성. 시조 언상의 29세손. 균권(均權)의 셋째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함. 광주고등학교 졸업. 해남, 강진, 여수, 서광주세무서(조사주무 4급)에서 근무하였고 지금은 세무사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다. 아내는 과평 윤학중(尹學重)의 딸이다.

◆ 박양덕(朴良德)

1939. 7. 15 해보면 문장리. 함평군수의 효부표창을 받음.

◆ 박양수(朴良洙)



박양수

1951. 8. 9 호 월봉(月峯). 본관 무안. 장근(長根)과 장삼순(張三順)의 아들로 함평읍 장교리 647번지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농과 대학·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를 받았으며, 제일제당 광주지점장 · 영업기획실장을 역임하였고, 성원토건 사업본부장, 나산건설 개발본부장, 나산클레프 유통본부장을 거쳐 현재 부림 BM(주) 대표이사직에 있다. 저서로 “마무리(계림출판사)” “씨비스 마케팅과 직업의식(원대출판부)”이 있으며 아내는 이운선(李閏善)과 홍연선(洪連善)의 딸 은자(은자)다.

◆ 박연록(朴然錄)

엄다면 화양리 출신. 함평중학교 졸업.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하였다.

◆ 박연석(朴然碩)

1936. 5. 18 엄다면 화양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졸업. 광화문 법인세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 박영근(朴永根)

1885. 9. 15~1910. 7. 23 본관 무안 나산면 수상리 유덕산(有德山) 출신으로 나이 20세에 수상리 대안촌(大安村)에서 서당의 훈장을 하였으며 1907년 해산전수용(海山全垂鏞)과 더불어 나주에서 의거의 기치를 올렸다. 전해산 의진은 기삼연(奇三衍) 의진의 조경환(曹敬煥) 의병장 휘하에 들어가 그 지휘를 받았다.

그는 1908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조경환 의진과 함평군 각처에서 싸우다가 그의 부대를 떠났다. 7월 29일부터 다시 조경환과 함께 8월 22일까지 활동하다가 1908년 8월 23일에 전해산이 독립부대를 창설함에 이 부대의 호군장(犒軍將)이 되었다. 이 때 전해산 부대의 진용은 다음과 같다.

선봉장(先鋒將) : 정원집(鄭元執)

중군장(中軍將) : 김원범(金元範. 광주 출신의 병장 원국-元國-의 동생)

후군장(後軍將) : 윤동수(尹東洙)

호군장(犒軍將) : 박영근(朴永根)

도포장(都砲將) : 이범진(李範振)

그는 호군장으로써 군수품을 조달 운반하는 활동은 물론 접전에도 적극적으로써 1908년 9월 26일 불갑산 전투, 11월 9일 함평군 장본면 석문산(獐本面石門山)전투, 11월 3일 함평군 적양면(赤良面. 현 광주광역시 본양동) 전투, 11월 22일 광주 대치(大峙. 현 담양군 한재면) 전투, 11월 25일 장성군 자인곡(自仁谷)전투, 11월 26일 순창군 내동 전투, 12월 8일 순창군 삼남면 낭월산(森南面郎月山) 전투, 1909년 5월 4일 영광군 옥창면 오동촌(현 영광군 염산면)에서 일본 수비대 헌병 및 순사들과 싸워 크게 이겼다.

1909년 5월 28일 전해산 부대가 해산되자 30명을 규합하여 독립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때 전해산과 작별하며 주고 받은 시가 전하는데 그 내용이 절절한 애국충정이 그득하다.

<해산 전수용의 시>

호남의 3월 살구꽃이 흩날리는데
나라 위해 싸우던 서생 갑옷을 벗네
산새들도 이러한 일 알고 있는지
밤새도록 울어대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네

湖南三月杏花飛

爲國書生廢鐵衣

山鳥亦知能世事

哭吾長夜故園歸

<박영근의 시>

살구꽃 피는 삼월에 눈꽃이 휘날리는데
지기 있는 남아로서 차마 갑옷은 못 벗겠네

만약 이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죽어서 돌아갈망정 살아서는 못 가겠네

杏花三月雪花飛

志氣男兒未脫衣

若將我國武恢復

死後寧歸生不歸

의병장이 된 그는 함평, 영광, 장성, 광주, 무장, 나주 등지에서 싸웠는데 그 중 대표적인 싸움을 보면,

1909년 6월 8일 함평군 해보면의 공금 영수원 성년풍(成年豐)의 집에 잠입하

여 200냥을 빼앗고, 6월 14일 갈동면 양촌리(현 월야면) 공금 영수원 김돈섭(金敦燮) 집에서 100냥을 징발하고, 6월 19일 영광군 불갑면 건두산(乾頭山)에서 적과 싸워 큰 피를 주었다.

1909년 7월 17일 부대를 해산시키고 함평군 대화면(大化面. 현 장성군 동화면) 누님 집에 숨어 있다가 8월 28일(음 7. 13) 체포되어 1910년 6월 3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7월 21일에 형이 확정되어 7월 23일에 교수형에 처해져 순국했다.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압수된 증거물은 보병총 1정, 화승총 16정, 탄약 합18개, 탄약 7발, 보병총약협 19발, 탄환 900발, 화약 1관 500문, 초석(硝石) 600문, 배낭 1개, 곤봉 1개이다.

26세를 일기로 장열히 순국한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1975년 10월 함평공원에 기적비를 세웠고 1977년 정부에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추서하였다.

◆ 박영복(朴泳福)

1960년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도예가. 아호는 미마(美馬). 1982년 서울 배수남, 경기도 곤지암에서 도예기술을 익힌 후 1986년 광주무등요에서 본격적인 창작작품 시작. 1996년 광주카톨릭센터, 2000년 광주 남봉미술관, 2005년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개인전을 했다. 많은 그룹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산면 용두리 미마공작실에서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 박영순(朴映順)

1939. 4. 28 본관 밀양. 중국(鍾國)의 맏아들. 나산면 삼축리에서 출생. 고려대학교 생물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졸업. 현 원광대학교 교수

◆ 박영조(朴榮祖)

1940년 무안에서 태어나 학교면 사거리로 이거 거주. 1991년 『문학공간』에 시

「노송」 외 1편으로 등단. 현재 한국문협 회원, 전남문협회원, 학다리교회 장로

◆ 박영준(朴永俊)

1944. 5. 10 나산면 구산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 소령

◆ 박영혁(朴榮赫)

나산면 삼축리에서 출생. 국졸. 세무서장 역임.

◆ 박왕규(朴王圭)

1937. 9. 24 본관 밀양. 손불면 북성리에서 출생. 외국어대학교 졸업. 외무부 주영공사(2급)

◆ 박원배(朴元培)

1874~1940 본관 밀양. 자 경일(京一). 호 송암(松菴). 시조의 36세손. 준엽(準燁)의 둘째 아들로 손불면 북성리에서 출생하였다.

혜릉(惠陵) 참봉을 지냈으며 1924년 대흥년에 기근에 허덕이는 이웃을 많이 구하니 은혜를 입은 주민들이 송덕비를 세웠다. 아내는 경주최씨 택성(宅星)의 딸, 진주리씨 만형(萬馨)의 딸이다.

◆ 박유상(朴儒相)

1930년생. 엄다면 화양리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함평군 공보실장, 목포시 유달산개발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 박의춘(朴義春)



박 의 춘

1939. 3. 10 본관 밀양. 석규(石奎)와 진주 강효금(姜孝今)의 아들로 학교면 학교리에서 태어났고 광주상업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주택은행에 입사하였

다. 1984년 광주지점장. 1987~1995년까지 자금



부장, 신용기금부장, 명동지점장, 전북지역본부장, 동부지역본부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김정자(金靜子)다.

◆ 박이균(朴二均)

엄다면 영흥리에서 출생. 육군 소령 예편

◆ 박이암(朴二岩)

엄다면에서 출생하였고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한 15연대에서 이등중사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수·순천군대 반란 사건 진압, 1949년 3월 1일부터 백운산 공비소탕 작전, 1949년 9월 28일부터 5개월간 진행된 지리산공비소탕작전에 참여 전과를 올렸고 1950년 5월 8일 전주에서 향토방위작전 중 전사하였고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에 이름을 새겼다.

◆ 박인석(박인석)

1951.1.4. 본관 면성. 평재와 김금례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태어났으며 성균관대학교, 미국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졸업. 현재 한국거래소부이사장. 아내는 이수정이다.

◆ 박인재(朴仁載)

1922. 10. 10 학교면 월산리에서 출생. 목포사범학교 졸업. 학다리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박인재(朴仁載)

1941. 2. 14 본관 무안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공업전문대학교수를 역임함

◆ 박일배(朴日培)

1870~1920 본관 밀양. 자 덕일(德日). 호 야은(野隱). 시조의 36세손. 찬섭(贊燮)의 넷째 아들로 손불면 북성리에서 태어났다. 오갈데 없는 고아들을 키우고 가난한 상가

에 곡식을 보내는 등 적선을 많이 하였다. 이 사실이 기성지(箕城誌)에 실려 있다. 아내는 강능유(劉)씨 상호(相浩)의 딸이다.

◆ 박장봉(朴章奉)

1881~1910. 6. 2 이강산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활동하였고 나주현병대 구밀(求密. 현 해보면 문장리 귀밀)파견소의 악질 밀정 이관암, 김정태, 최치도, 박복남 4명을 구밀 주막에서 이강산 등 5명의 동지와 함께 살해하였다.

일경에 체포되어 1910. 6. 2 대구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받았다.

◆ 박정규(朴定圭)

1938. 5. 16 본관 밀양. 호 학정(鶴亭). 시조의 40세손. 병기(炳淇)의 맏아들로 대동면 용성리에서 태어났다. 광주교육대학 졸업. 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함. 아내는 제주양씨 종석(鍾碩)의 딸이다.

◆ 박정래(朴正來)

1925. 9. 3 본관 밀양. 시조의 38세손. 신광면 삼덕리에서 출생함. 고졸. 전북 옥구군 부군수 등을 역임함.

◆ 박정순(朴程淳)



박정순

1917. 11. 20 본관 밀양. 호 사촌(思村). 시조의 42세손(규정공 27세손). 종약(鍾樂)과 한양 조순엽(趙順葉)의 아들. 목포공립보통학교, 목포상공학원 2년 수료.

1964~1972년 함평읍장, 함평군정자문위원장, 도정자문위원 농림분과위원장, 박씨함평종친회장, 1988~

1996년 함평문화원장을 지냈으며 1983년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아내는 나주 임문규(林文圭)와 김해 김장례(金長禮)의 딸 종금(鍾錦)이다.

◆ 박정순(朴貞順)

1927. 1. 23 노철환(魯喆煥, 시조의 29 세손)의 아내. 밀양 박재화(朴在和)의 딸로 남편의 방랑벽에 집안이 가난하나 부덕(婦德)을 쌓아 시부모를 모심이 극진하여 효부로 널리 이름이 났고 1983년 민의 상을 수상하였다.

◆ 박종대(朴鍾大)

1964. 8. 12생 본관 무안(務安) 형재와 나주(羅州) 임봉임의 차남으로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중령으로 아내는 천안(川安) 전운진의 장녀 은하이다.

◆ 박종상(朴鍾常)

1930. 11. 4 학교면 마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동 대학 교수 역임

◆ 박준환(朴準煥)

1860~1938 본관 밀양. 자 동환(東煥). 시조 연침(彦枕)의 37세손(혁거세의 66 세손). 연진(連鎭)의 아들로 대동면에서 태어났다. 김중암(金重菴)의 문하생이며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이천서씨 기옥(基玉)의 딸이다.

◆ 박천규

1930. 3. 25 나산면 나산리 52번지. 수도사단 사령부 하사로 근무하던 때 강원도 금성지구 작전에서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 1986. 6. 25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박천재(朴千載)

1913. 12. 20~작고. 본관 무안.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일본 대판대경제과 졸업. 만주에서 독립운동. 도의원 당선(무안군). 1959~1960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 박철기(박철기)

1957.7.15. 본관 무안. 병인과 김영림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태어났으며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국세청 여수세무서 사무관. 아내는 모경순이다.

◆ 박철윤(朴哲潤)

1953. 8. 20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대졸. 1983년 국가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 박춘원

1922. 8. 20 함평읍 기각리. 보성경찰서 소속 경사로 근무하던 1954년 지리산지구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워 1954. 7. 7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박태국(朴泰局)

1878~1966 본관 밀양. 진용(鎭容)의 딸로 월야면 복룡에서 출생하였고 함평 이돈형(李敦炯)과 결혼하였다.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일가 친척의 화목에 힘쓰니 모두 효부라 칭하였고 성균관의 찬양문이 내려다. 3·1 운동 때 왜 헌병의 고문에도 남편의 거처를 알리지 않고 끝까지 함구하다가 무릎 뼈가 부러져 평생 고생을 하였다.

◆ 박태규(朴泰圭)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의 고향인 함평읍 기각리로 이사하여 기산초, 함평중, 학다리고 졸업. 호남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 전공. 2002년 창작지원 프로그램으로 광주 롯데화랑에서 개인전, 2002,2004, 광주비엔날레 초대전, '자연은 내친구 박태규 김희련 생태미술말판놀이전' 등 많은 기획전과 초대전에 참여하며 열정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 박태영(朴泰永)



박태영

1938. 11. 23. 본관 무안. 엄다면 엄다리에 출생. 해군사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이학박사. 원광대학교 교수, 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원광대명예교수, 학다



리충동문화 장학재단 이사장. 화랑무공훈장(1967년), 인헌무공훈장, 월남공화국 일등명예훈장,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경주 김동훈의 장녀 김정(金正)이다.

◆ 박판용(朴判容)

1935 신평면 출생

1989년 봄 남원서 열린 전국 남녀 시조경대회에서 특부(特部) 1위를 했다.

◆ 박판운(朴判云)

대동면 용성리에서 출생

1955. 10. 14~1957. 11. 13까지 대동면장을 지냈다.

◆ 박행식(朴幸錫)

1925. 4. 25 함평읍 대덕리에서 출생.

일본 요코하마 고등상업학교 졸업. 함평군농지개량조합장을 지냈다.

◆ 박향순(朴香順)

1931. 5. 15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박현순(朴賢淳)

1945. 10. 24 본관 밀양. 중국(鍾國)과 죽산안씨의 둘째 아들로 나산면 삼축리에서 태어났다. 새마을 사업에 공이 많아 1984년 함평군민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1985년부터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정천수 등 8명과 함께 시작한 함평화훼단지(12,000평. 하우스 32동)에서 관엽식물 중 아열대계인 벤자민, 소철, 관음죽, 몬스테라를 재배하여 크게 성공하였고, 또 일찍이 민속품 수집에 관심이 깊어 4천여점에 이르는 희귀한 민속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생활사 박물관을 개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내는 금성 나승언(羅承彦)의 딸이다.

◆ 박현태(朴鉉泰)

엄다면에서 출생.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1사단 15연대에서 이등상사로 복무했다. 1948년 여수 순천 주둔 군인의 반란 사건,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개한 호남지역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하여 많은 공을 세웠고 이 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한국 전몰용사 공훈록. 국방부>

◆ 박형남(朴炯男)



박형남

1942. 12. 3 본관 무안. 병웅(炳雄)과 김해 김묘여(金妙汝)의 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하였고, 함평초등학교,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67년 9사단 28연대 소대장으로 월남 파병, 1968년 육군보병학교 교관, 1971년 중대장, 1978년 육군본부 작전장교, 1981년 71사단 본부대장을 역임했고, 소령으로 예편했으며 1967년에 인헌무공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평창 이흥모(李興模)와 밀양 박선심(朴仙心)의 딸 유숙(裕淑)이다.

◆ 박형필(박형필)

1944, 11, 14. 본관 무안. 규동과 심봉애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태어났으며 목포상고를 나와 대동면장, 함평읍장을 역임. 아내는 윤숙자다.

◆ 박형화(朴亨和)

엄다면 화양리에서 출생. 광주농업학교 졸업. 일제강점기에 3대 엄다면장을 지냈다.

◆ 박호재

1951, 11, 19. 소설가. 함평읍에서 태어나서 전남대 공대 건축학과 졸업. 81년 '한국문학'에 소설 '무학산'이 당선되었고 창작집 『다시 그 거리에 서면』

(1998), 『눈 뜨는 섬』(1993), 마이더스의 손 등이 있다. 광주 지역 지방지의 중진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이더스의 손』(1994) 등이 있다.

◆ 박홍식(朴洪植)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
제12대 손불면장(1953. 4. 10~1954. 11. 15)을 지냈다.

◆ 박효명(朴孝明)

1944. 8. 25 본관 무안.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영문과 졸업.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일반구조 문법

◆ 배도연(裴道連)



배도연

1939. 7. 6 본관 달성. 호 학천(鶴川). 기시조의 35세손. 판 수(判洙)와 상산 김귀례(金貴禮)의 아들로 신광면 유천리에서 태어났고, 학다리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92~1997년까지 신광면장을 역임하였고, 1997년에 근정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김해 김덕보(德甫)와 화순 오장성(吳長城)의 딸 성례(成禮)다.

◆ 배동준(裴東準)

1924. 5. 6 본관 달성. 손불면 학산리에서 출생. 고졸. 초등학교장 역임

◆ 배상수(裴常洙)

1954년 월야면 월계리에서 태어났다. 아호는 우곡(愚谷) 광주북중, 초대부고, 조선대 무역학과 졸업. 1994년 『문학춘추』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 저서로는 시집 『돌아오는 길』 『강변에서』가 있다. 현재 석류동인.한국문협회원,시와산문 편집고문이다

◆ 배상오(裴相五)

1928. 12. 15 본관 달성. 신광면 유천리에서 태어남. 고졸.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배진명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 제1대 신광면장을 지냈다.

◆ 백길성(白吉成)



백길성

1936. 4. 8생 본관 수원(水原) 석권과 인동(仁同) 장옥생의 차남으로 손불면 학산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를 졸업 함평군청, 나산중·고등학교장을 역임하였으며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아내는 진주(晋州) 강일석(姜一石)과 방양례(房良禮)의 차녀 옥순(玉順)으로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 백맹조(白孟祚)



백맹조

1941.10.23생. 본관 수원, 호 학천, 남일(南一)과 청송 심효순(沈孝順)의 4남으로 손불면 월천리에서 출생 광주호남대학교경영대학원을 나와 문화관광부장관표창, 전남도지사상을 수상 제4대 함평군의회의원, 민족통일자문위원, 함평문화관광해설가협회장, 아시아태평양환경N.G.O함평군협의회회장, 현재 국민생활체육연합회과크골프지도자로 활동. 아내는 광산 김입자(金立子)이다.

◆ 백정례(白正禮)

1914. 2. 17 본관 수원. 남관(南館)과 평산 신오막(申五莫)의 딸로 함평 이재성(李載成)과 결혼했으며 1981년 함평향교전교의 효부상을 수상하였다.



◆ 서강석(徐康碩)

1954. 3. 26 본관 이천. 자 춘빈(春彬). 증조의 22세손. 의택(義澤)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다. 아내는 광산 김미선(金美善)이다.

◆ 서강수(徐康洙)

1947. 12. 4 본관 이천. 자 광수(光洙). 증조의 21세손. 종상(鍾商)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태어남. 행정사무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과장을 역임. 아내는 천안 전홍일(全洪一)의 딸 정숙(貞淑)이다.

◆ 서광휘(徐光揮)

1943. 2. 17 본관 이천. 증조의 22세손. 용수(榕洙)의 셋째 아들로 학교면 출신. 서울특별시청 과장, 한국도시개발연구소 회장을 역임함. 아내는 경주 김종흙(金鍾欽)의 딸 순희(順姬)다.

◆ 서권익(徐權翊)

1929 본관 이천. 증조의 22세손. 안수(安洙)의 맏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하였고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아내는 고령 신유종(申有種)의 딸이다.

◆ 서귀님(徐貴任)

1923. 2. 1 학교면 월산리. 함평군수의 효부표창을 받았다.

◆ 서 기(徐 璣)

1952. 12. 18 본관 이천. 증조의 22세손. 윤택(潤澤)의 맏아들로 대동면 금곡리 출신. 대림공업전문대학 교수로 있다.

◆ 서기준(徐基駿)

1911~1966 본관 이천. 자 석기(石基). 호 운암(雲庵). 시조의 38세손. 효자로 영릉 참봉을 제수 받은 연섭(連變)의 둘째 아들 효심이 깊어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깨물어 입에 피를 넣어드려 연명케

하였고 아내는 파평 윤가례(尹佳禮. 부 자호-滋濤)인데 시어머니의 병환에 온갖 힘을 다함이 크게 귀감이 되어 함평군수가 효부상을 수여했으며 주민들이 부부 쌍효의 기적비를 세웠다.

◆ 서기태(徐基泰)

1917~1981 본관 이천. 자 기문(基文). 호 금산(金山). 시조의 38세손. 연섭(連變)의 셋째 아들. 해보면장을 역임했으며 아내는 청송심씨 기진(棋珍)의 딸 차순(次順)이다.

◆ 서덕길(徐德吉)



1944. 7. 29생 본관 이천(利川) 호 청전(靑田)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함평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함평군농촌지도소 청백리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나라발전 아이디어를 창안해 국무총리로부터 국가사회발전기여 유공표창과 근정포장을 받았다.

◆ 서동규(徐東圭)

1953. 12. 18 본관 이천. 증조의 22세손. 기수(基洙)의 넷째 아들로 학교면 마산리에서 태어남. 조선내화 노동과장을 역임함. 아내는 광산 김영석(金永錫)의 딸 숙경(淑卿)이다.

◆ 서동립(徐東立)

1947. 2. 18 본관 이천. 증조의 22세손. 기수(基洙)의 셋째 아들로 학교면 마산리에서 출생. 노동청 총무과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파평 윤귀병(尹貴炳)의 딸 순심(順心)이다.

◆ 서동호(徐東鎬)

1871~작고. 본관 이천. 자 국진(國振). 호 월정(月汀). 증조 인(鱗)의 20세손. 종기(琮基)의 맏아들.

천성이 관유(寬裕)하여 친척들은 물론 빈궁한 주민들을 해마다 구휼하였다. 아내는 광산 노희석(盧希石)의 딸이다.

◆ 서두만

1931. 9. 7 학교면 학교리 174번지. 수도사단 26연대 2대대 하사로 근무하던 때 향로봉 수도고지 작전에서 큰공을 세워 1951. 7. 8 충무무공훈장을 받았고, 또 1953. 7. 17 수도고지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서명열(徐明烈)

1939. 5. 27 본관 이천. 자 경환(庚煥). 호 묵은(穆隱). 중조의 23세손. 상봉(相捧)의 맏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하였고 한미(韓美) 토건주식회사 소장을 지냈다. 아내는 밀양 박도순(朴導淳)의 딸 연자(連子)다.

◆ 서민기(徐敏基)

1862~? 본관 이천. 처음 이름 길기(吉基). 자 옥여(玉汝). 호 둔세당(遯世堂). 중조 인의 19세손. 갑유(甲儒)의 양아들.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파평 윤상노(尹相魯)의 딸인데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으며 특히 남편의 병환에 의원이 잉어가 약이라고 하자 얼어 붙은 냇에 나아가 하늘에 통곡하며 “잉어를 내려주십시오”하고 여러 날 기원하니 홀연히 잉어가 어름을 깨고 튀어 올라 잡아 간병하여 완쾌되었다. 이 사실이 삼강록, 오륜행실록, 면성지에 실려 전해 온다.

◆ 서백규(徐栢珪)

1948. 4. 19 본관 이천. 처음 이름 규태(珪郃). 호 인강(忍江). 중조의 22세손. 형수(亨洙)의 아들로 대동면 금곡리 출신. 문학 박사. 대학교수며 아내는 여산 송판섭(宋判燮)의 딸 정희(貞姬)다.

◆ 서병각(徐柄珪)

1955. 12. 22 본관 이천. 일명 병옥(柄玉). 호 효재(孝齋). 중조의 22세손. 현수(絃洙)의 셋째 아들로 대동면 금곡리 태생으로 조선대 미술대학 졸업. 개인전 5회, KBS 특별초대전, 한중미술교류전 등 다수의 전싯회를 가졌다. 현재 광주미술대전심사위원, 신한국미술대전심사위원. 아내는 나주 임중술(林鍾術)의 딸 은영(恩映)이다.

◆ 서병철(徐柄哲)

1963. 9. 1 본관 이천. 호 경재(敬齋). 중조의 22세손. 현수(絃洙)의 넷째 아들로 대동면 금곡리 출신. 청전 정보시스템 기술지원과장을 역임. 아내는 탐진 최동신(崔東信)의 딸 미경(美京)이다.

◆ 서복실(徐福實)



서복실

1930. 6. 9 본관 이천. 호 기은(箕隱). 동섭(東燮)과 경주 김부귀(金富貴)의 아들로 나산면 구산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으며, 함평군산림조합장, 함평문화원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한양 조동신(趙東臣)과 함평 이천례(李千禮)의 딸 중례(鍾禮)다.

◆ 서상국(徐相國)

1897~작고. 본관 달성.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일본 조도전문대학 졸업. 민국당 중앙위원 동당함평군당 위원장. 대한야구협회장, 제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 서상균(徐相均)

1928. 1. 18 본관 이천. 자 문화(文化). 호 유당(柳塘). 중조의 22세손. 인수(仁洙)의 맏아들로 대동면 백호리에서 출생하였고 국회의원 윤인식(尹仁植) 비서관, 중학



교 교장을 지냈다. 아내는 한양 조형윤(趙亨潤)의 딸 영순(永順)이다.

◆ 서상기(徐相基)

본관 이천. 함평읍 내교리 출신. 4대 함평면장을 지냈다.

◆ 서상동(徐相童)

1963. 4. 25 본관 이천. 중조의 22세손. 형수(亨洙)의 셋째 아들로 대동면 금곡리 출신. 의학 박사. 아내는 경주 정학수(鄭鶴洙)의 딸 동선(東仙)이다.

◆ 서상락(徐相洛)



서상락

1949. 5. 15생. 본관 이천(利川), 인택과 정일순의 장남으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 광주에서 자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 황산실업고등학교 교장을 거쳐 현재 전라남도나주교육청교육장으로 2002년 국무총리 표창, 2009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 아내는 진주 강귀복과 박석금의 딸 옥자이다

◆ 서상숙(徐相淑)

1955. 8. 8 본관 이천. 중조의 22세손. 영수(榮洙)의 맏아들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태어남. 육군대학 졸업. 현 육군 중령 아내는 진주姜기철(姜基哲)의 딸 금숙(金淑)이다.

◆ 서상은(徐相殷)

1930. 1. 5 본관 이천. 자 태민(太敏). 호 추포(秋圃). 중조의 22세손. 준우(準宇)의 맏아들로 엽다면 성천리에서 태어남. 서예가. 아내는 나주 나종성(羅鍾成)의 딸 규수(奎洙)다.

◆ 서상춘(徐相春)

1929. 5. 5 본관 이천. 중조의 22세손. 장수(壯洙)의 맏아들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 대한석탄공사 전북지부장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 노기화(魯奇化)의 딸이다.

◆ 서성규(徐聖奎)



서성규

1959. 2. 19 본관 이천. 복실(福實)과 한양 조종례(趙鍾禮)의 아들로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하였고, 광주고등학교,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동대학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국립여수대학교 부교수, 1993년 환경공학과장, 1995년 전남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전문위원, 1997년 미국 Wisconsin 대학교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Methanol과 tert-Butanol로부터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MTBE의 기상합성'(1989년), 'meal pc 촉매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촉매산화 반응(1997)' 등 수십편의 논문이 있다. 아내는 의령 남기덕(南基德)과 기계 유금엽(兪金葉)의 딸 미숙(美淑)이다.

◆ 서성연(徐聖然)



서성연

1964. 9. 8 본관 이천. 현수(鉉洙)와 함평 노소례(魯小禮)의 아들. 전남고등학교, 조선

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원주 한라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냉간형성 각형강관 기둥 부재의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축력과 휨모멘트를 받는 원형강관 기둥의 이력

거동에 관한 연구'(1996.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아내는 전의 이석일(李錫一)과 청주 한연분(韓熾分)의 딸 정민이다.

◆ 서성학(徐成學)

?~1910. 6. 2 이강산 의병부대에서 활동하였고 나주헌병대 구밀과건소 악질 밀정 이관안, 김정태, 최치도, 박복남 4명을 이강산 등 5명의 동지와 살해하였다. 일경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1910. 6. 2 교수형을 받았다.

◆ 서수정(徐水亭)

1956. 2. 14 본관 이천. 홍기(洪起)의 아들. 월야면에서 출생. 제2대 함평군의원 당선. 함평군농어민후계자연합회장. 제2대 함평군의회 부의장. 아내는 김정숙(金正淑)이다.

◆ 서언기(徐彦基)

1856~작고. 본관 이천. 자 사홍(士弘). 호 자경재(自警齋). 중조의 19세손. 성유(成儒)의 넷째 아들. 사헌부 감찰을 지냈으며 효성이 지극하였고 아버지의 병환에 혈지(血指)하였다. 이 사실이 면성지(綿城誌)에 실려 있다. 아내는 영광 정상상(丁尙祥)의 딸이다.

◆ 서영만(徐永萬)

1949. 12. 1 본관 이천. 자 광렬(光烈). 호 야송(野松). 중조의 23세손. 상대(相大)의 셋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 전남교육원 교수 역임. 아내는 장수 황의남(黃義男)의 딸이다.

◆ 서영수(徐永洙)

1941. 7. 19 본관 이천. 호 삼성(三省). 중조 인(麟)의 21세손. 덕철(德哲)과 박양임(朴良任)의 맏아들로 엽다면 성천리에서 태어났고, 엽다초등학교, 학다리고등학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함



서영수

평섬유 회장으로 있으며 학다리중고등학교 동문회장, 이천서씨 대종회 총무이사, 국제라이온스 서울협회 부총재, 재경함평군향우회장, 함평불우시설 돕기 위원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능성 구정회(具禎會)와 정순임(鄭淳任)의 딸 원자(元子)다.

◆ 서영출(徐永出)

1952. 9. 23 본관 이천. 자 홍렬(洪烈). 호 해송(海松). 중조의 23세손. 상대(相大)의 넷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고 있고, 아내는 김해 김정술(金正述)의 딸이다.

◆ 서오근(徐五根)

1943.1.9. 본관 이천. 아호는 향송(鄉松). 용옥(龍玉)과 김우례(金又禮)의 아들로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동시인, 시인.

1977년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 전남 문협부회장, 문협무안지부장, 시류(詩流)문학회장, 무안문화원장 등을 맡으며 지방문단의 발전과 지역관계 문헌정리와 저작물 출판으로 지역문화 위상 정립에 기여했다. 한국아동문학회, 한국문협, 국제 팬클럽 회원으로 있으면서 전남아동문학상, 한정동아동문학상, 전남문학상, 한국아동문학공로상,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 저서에 동시집 『산들바람』 『폴꽃 한송이』 『창문을 열면』 『골목대장 바우』 등 다수가 있으며, 2009년에는 서동수 작곡으로 동요작곡집 『단비』를 펴냈다.

◆ 서완수(徐莞洙)

1933. 12. 10 본관 이천. 중조 인(麟)의 21세손. 종상(鍾商)의 맏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 대한교육보험 지부장을 역임함. 아내는 전주 리재석(李在錫)의 딸 정숙(貞淑)이다.

◆ 서 옥(徐 煜)

본관 달성. 조흥은행 목포지점장을 지냈다.

◆ 서원식(徐元植)

1947. 8. 13 엄다면 송로리 담안에서 태어남. 육군 사관학교졸업. 육군 대령

◆ 서윤수(徐潤洙)

1917. 8. 29~작고. 본관 이천. 자 남규(南奎). 중조 인(麟)의 21세손. 석련(錫輦)의 둘째 아들로 대동면에서 출생. 일본에 유학하여 신학문을 탐구하였고 함평농림중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파평 윤태삼(尹泰三)의 딸, 평산 신중기(申重基)의 딸 순옥(順玉)이다.

◆ 서윤택(徐潤澤)

1921. 10. 29 본관 이천. 호 정은(政隱). 중조의 21세손. 종수(鍾琇)의 둘째 아들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하였다.

육군공병학교장, 육군공병감을 지냈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여 국가보훈처차관을 역임하였다. 금성충무무공훈장, 미국 동성무공훈장, 황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아내는 전 국회의원 경주 최원호(崔援浩)의 딸 선희(仙姬)다.

◆ 서 인(徐 仁)

본관 달성 해군대령으로 예편하여 인천해경대장을 지냈다.

◆ 서인택(徐仁澤)



서인택

1928. 3. 14 본관 이천. 호 송원(松原). 중조의 21세손. 종인(鍾寅)의 맏아들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하였다.

광주우체국장, 한국통신공사 전남지방사업본부 영업국장, 서광주 전신전화국장을

역임했고 근려포장을 받았다.

아내는 영성 정영옥(丁英玉)이다.

◆ 서일택(徐日澤)

1947. 12. 5 본관 이천. 중조의 21세손. 종대(鍾大)의 둘째 아들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 교육행정 사무관으로 있다. 아내는 광산 김용구(金容九)의 딸 병희(炳姬)다.

◆ 서재경(徐在京)

1963년 학교면 석정리 태생으로 광주대산업디자인과, 호남대 대학원 미학과에서 서예 전공,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심사위원, 전남도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비문으로는 영암 왕인박사 동상문, 목포 해양대 박남수 시비, 신경림시비. 함평자연생태공원 김남조시비문 등이 있고 현재 한국서협 광주지회장, 사단법인 광주서예협회이사장, 함평예술인연합회 이사로 있으며 호남대에 출강.

◆ 서정국(徐貞局)

1965. 7. 6 본관 이천. 중조의 23세손. 상태(相泰)의 맏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하였다. 전국유도 대표선수 및 코치 역임. 건창산업주식회사 부장

◆ 서종배(徐鍾培)

1934. 12. 17 본관 이천. 자 광언(光彦). 호 학산(鶴山). 중조 인의 20세손. 남기(南基)의 다섯째 아들로 함평읍 수호리 출신이다.

교장을 지냈으며 아내는 진주 정영익(鄭永翊)의 딸 인자(仁子)다.

◆ 서종수(徐鍾琇)

1885~1948 본관 이천. 자 정문(正文). 호 호은(湖隱). 중조 인의 20세손. 민기(敏基)의 아들. 재예가 출중하였으며 특히 매년 춘궁기에 상을 당하거나 혼인이 있는 가난

한 이웃을 도와주어 향리인들이 은덕비를 세웠다. 아내는 전주 최보현(崔輔鉉)의 딸이다.

◆ 서중윤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 1937. 6. 26~1946. 3. 31까지 학교면장을 지냈다.

◆ 서중호(徐鍾鎬)

엄다면 성천리 와촌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 11기 졸업. 육군 중령 예편

◆ 서진(徐振)

1953. 6. 19 본관 이천. 중조의 22세손. 인택(仁澤)의 둘째 아들로 대동면 금곡리 출신. 포항 성모병원 의사로 있다.
아내는 김해 김우곤(金玉坤)의 딸 미란(美蘭)이다.

◆ 서창호(徐暢護)

1941. 6. 4 본관 이천. 자 운한(云翰). 호 운봉(雲峰). 중조의 21세손. 종철(鍾哲)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 정치학 박사. 목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양성 이민선(李民璿)의 딸 경숙(敬淑)이다.

◆ 서충환(徐忠煥)

엄다면 성천리 와촌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령

◆ 서평렬(徐平烈)



서 평 렬

1950. 4. 3생 본관 이천(利川), 호 백산(白山) 상춘(相春)과 咸平 노소순(魯小順)의 첫째 아들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 목포교육대학을 거쳐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졸업하였고
전라남도신안교육청과 장성교육청, 전라남

도교육청 장학사, 화순오성초등학교, 화순초등학교 교장을 거쳐 현재 영암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대통령 표창과 훈포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광산 김용섭(金容燮)과 함평 이건자(李建子)의 장녀로 금선(금선)이며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 서항중(徐恒鍾)

1940. 8. 21 해보면 금계리에서 출생
광주고등학교 졸업. 육군 중령

◆ 서현수(徐絃洙)

1920. 11. 29 본관 이천. 호 추당(秋塘). 중조 인(鱗)의 21세손. 종성(鍾聲)의 셋째 아들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
교장을 지냈으며 1985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아내는 함평 이동범(李東範)의 딸 덕임(德任)이다.

◆ 서형종(徐炯種)

1940. 5. 21 본관 이천. 자 성학(聖學). 호 풍산(豊山). 중조 인(鱗)의 23세손. 지남(智楠)의 둘째 아들로 세무서 직세과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평산 신동열(申東烈)의 딸 해자(海子)다.

◆ 서형화(徐炯化)

1941. 3. 8 본관 이천. 자 성과(聖過). 호 영재(英齋). 중조의 23세손. 한학자 인남(仁楠)의 셋째 아들로 함평읍 자평리에서 출생. 광주병무청 징모계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무안 박종식(朴鍾植)의 딸 은자(銀子)다.

◆ 서홍석(徐洪錫)

1924~1949 함평읍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 보성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했다. 보성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주둔군의 반란 사건 당시 50여명의 병력과 절대부족한 장비로 보성지구에서 침입한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여 공비들의 세력 확장 저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어 1949년에 전개한 호남지구 공비 토벌작전 중 1월

29일에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한국전물용사 공훈록. 국방부>

◆ 서흥렬(徐興烈)

1934. 1. 2 본관 이천. 자 해봉. 호 월계(月溪). 중조 인(麟)의 23세손. 준상(俊相)의 맏아들로 대동면 금곡리에서 출생. 서기관. 함평우체국장역임. 아내는 풍천 임종근(鍾根)의 딸 귀례(貴禮)다.

◆ 서희환(徐喜煥)



서희환

1933. 9. 17~1990. 본관 이천. 자 춘성(春聖). 호 평보(平步). 중조 인(麟)의 23세손. 상춘(相春)의 셋째 아들로 엄다면 성천리에서 와촌 출생. 학다리중,광주사범학교 졸업. 교직생활 중에도 서예대가인 소전 손재형선생 사사.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서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세종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국전심사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심사위원, 예술의전당자문위원 역임. 주요 답비문으로는 국민교육헌장선포 원문, 정몽주 동상문, 행주산성 전첩비문, 박정희 대통령 묘비문, 3.1운동기념비문, 독립기념관어록비문 등 다수가 있다. 아내는 상원(祥原)김씨 은균(殷均)의 딸 영림(英林)이다.

◆ 선금순(宣今順)

학교면 고막리. 함평향교의 효부표창을 받았다.

◆ 손만수(孫萬洙)

1953. 12. 23 대동면 강운리 송산에서 태어남.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 중령

◆ 손성래(孫成來)

1968년 함평읍 내교리 출생, 테너성악

가. 함평중, 학다리고를 나와 러시아에서 10여년 유학했다. 러시아국립 그네신음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 졸업, 연주학박사. 1999년 이태리 베로나 콩쿨대회 성악부 2등에 이어 러시아 페스토스콩쿨에서 우승. 볼쇼이극장에서 오페라로는 한국인 최초 주연가수로 공연. 2004년 귀국, 현재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 한러 오페라단장, 한러문화연구소대표, 경기음악협회 해외분과 위원.

◆ 손양금(孫良今)



손양금

1941. 7. 8 본관 밀양. 용태(용태)의 딸로 장성군 장성을 단암리에서 출생하였고 김해 김재구(金載球)와 결혼하였다.

1996년 광주향교 전교의 효부상, 1998년 국무총리 효부 표창을 받았다.

◆ 손재석(孫在石)

1952년 손불면에서 출생. 어려서 광주로 이거.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수회 특선으로 입상. 198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전 10회를 열었으며 문화관광부장관상, 대한민국사진문화상, 광주사진문화상, 광주문화예술상 수상. 한국사협광주지부장역임.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광주시전 초대작가. 미국사진작가협회원, 국제사진작가협회원, 한국이미지사진학회원.

◆ 손진선(孫眞善)

성악가. 함평읍 출신으로 조선대 음대를 졸업한 소프라노이다. 무안의 백제여상고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 손창환(孫昌煥)

1909~작고. 본관 밀양.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1950년대 초 서울 적십자 병원장을 지내고 자유당 내각에서 보사부장관(57. 6~60. 4)을 역임했다.

◆ 송기성(宋基聲)

1938. 9. 24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목포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령 예편

◆ 송기옥(宋基沃)



송기옥

1932. 10. 27 호 애
일당(愛日堂). 본관
여산. 아버지 원섭(元
燮)과 어머니 윤대순
(尹隊順)의 아들로 해
보면 산내리에서 출생
하였고,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73~1979년까지 상공부 공업기획국 경
영지도과장(서기관)을 지냈고, 대한염업조
합 상무이사, 오일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를 역임
했으며, 현재 주식회사 한성주공(韓成鑄工)
부사장으로 있다. 1963. 12. 17 대통령의
면려포장을 받았고, 아내는 윤태병(尹泰炳)
과 최말동(崔末童)의 딸 판순(判順)이다.

◆ 송대호(宋大浩)

1902~1928. 5. 23. 1920. 3. 26 함평읍
장날을 이용하여 조사현(曹士鉉), 정기연
(鄭琦衍) 등과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였
다. 1919년 광무항쟁 국장에 참례하였던
이인행, 윤백언(尹伯彦) 등과 4월 26일에
만세운동을 벌이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뜻
을 이루지 못했으며 3. 1 운동 1주기를 맞
아 전국적으로 다시 일어난 만세운동을 벌
이기 위해 김용언(金用彦), 윤태완(尹泰完),
이행록(李行錄) 등과 사전 준비를 하면서
윤치영(尹致榮), 김재문(金在文)은 함평, 김
준령(金俊鈴)은 대동면, 모현기(牟顯基), 정
영조(鄭永祚)는 그 밖의 다른면 책임자로
뽑았다.

3월 26일 오후 4시경 함평보통학교 학생,
청년과 주민 수백명이 함평장터에 모이자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조사현 등과 함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

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과 헌병의 야만적인
무력 행사로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0여명이 체포되었다.

이 때 그도 체포되어 1920년 5월 26일 대
구복심원에서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
루었다. 1983년 3월 건국공로 표창을 받
았다.

◆ 송효님(宋孝任)

1923. 6. 20 나산면 삼축리. 함평군수의
효부표창을 받음

◆ 신계륜(申溪輪)

1954. 8. 18 본관 고령. 월야면 월야리에
서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 신기린(辛基潑)

본관 영산. 나산면 송암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 졸업. 나산면장(1961.
6~1964. 4)을 지냈다.

◆ 신기하(辛基夏)

1941. 4. 27~작고. 본관 영산. 나산면 송
암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고시에 합격. 목포지법 판사, 변호사.
12~15대 국회의원 당선. 원내총무, 국회
보사분과 위원장을 역임했다.



신대규

◆ 신대규(辛大奎)

나산면 송암리에서 출
생. 광주향교 전교 역
임.

◆ 신동수(申東秀)

1923 손불면 학산리 출신. 1989년 9월
대전서 열린 전국 남녀 경창대회에서 특



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 신동옥(辛東旭)

1870~1942 본관 영산. 호 심사(心史). 성준(性準)의 아들

◆ 신동화(辛東華)

1875~1946 본관 영산. 호 춘송(春松). 성준의 아들. 동옥의 아우
형제가 1907~1908년까지 김태원, 전수용, 심수택, 정원집(鄭元集. 서울) 의병장들과 거의한 바 있으며 주로 이들 의병부대에 군수물자를 공급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이영준(李永俊), 정우찬, 이종식, 유도회 등 동지를 규합하여 소련제무기를 수입 의거를 꾀하다가 장성에서 체포되어 5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다.

◆ 신봉호(申奉浩)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졸업. 경감

◆ 신성준(辛性準)

본관 영산. 유장의 손자. 일제가 우리나라를 합병한 후 우리나라 지도급 노인들에게 총독이 “은총의 하사금”이란 것을 내린 적이 있다. 이 하사금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이 국내에 몇이 있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며 종신토록 죄인을 자처하며 흰옷과 흰관을 썼다. 그의 장한 지조를 기리기 위해 마을에 비를 세웠다.

◆ 신 씨(辛氏)

1853~1938 본관 영월. 서상문(相文. 시조의 36세손)의 아내며 신기영(辛基英)의 딸이다. 남편이 25세에 조사한 후 홀로 시부모를 섬기되 효성이 지극하였고 병환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넣어드리고 허벅지의 살을 베어드려 수십일간 연명케 하였다. 이 사실이 삼강육과 오륜행실에 실렸다.

◆ 신영우(辛英雨)

1908. 10. 19~1970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 대구사범학교 졸업. 전라남도 경찰국 감찰 주임 등 역임. 경감

◆ 신완식(申完植)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하여 수원농업학교를 졸업하였다. 제6대 손불면장(1933. 11. 7~1943. 2. 22)을 지냈다.

◆ 신일호(申一鎬)

1958년생 본관 평산(平山) 정규와 광산(光山) 김한례의 장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 육군대령으로 재직 중이며 아내는 양점덕이다.

◆ 신재철(申載喆)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1962. 5. 21~1965. 10. 4까지 월야면장을 역임하였다.

◆ 신태권(申泰權)

1881~1961 본관 평산. 자 동수(東洙). 시조의 31세손. 석현(錫賢)의 셋째 아들로 함평향교 직원(현 전교-典校)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김씨 성태(聖泰)의 딸이다.

◆ 신현상(申鉉相)

1914~1983 본관 평산. 자 심질(謹質). 시조의 33세손. 내균(乃均)의 아들로 함평향교 직원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 이경보(李更甫)의 딸 화순(花順)이다.

◆ 신호열(辛鎬烈)

1914~작고. 본관 영산. 아호는 우전(雨田) 나산면 송암리에서 출생하여 4세부터 조부 학산공의 훈도로 한학을 익히며 '신동'으로 소문이 났다. 한국의 대표적인 한학자다. 47세부터 동방고서국역간행회 편집부장을



신호열

로 일했으며 1961년부터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교수로 한학을 가르쳤으며, 고려대 대학원, 동국대 대학원을 비롯한 여러 대학원에서 한문학을 강의했다. 아주시단(亞洲詩壇) 한국지도위원, 한중시사(韓中詩史), 동문선(東文選), 대동야승(大東野乘), 삼국사기, 퇴계집, 연암집(燕巖集), 하서집(河西集) 등 수 많은 번역서가 있다. 제1회 고전번역문화상 수상, 고전의 국역에 임하는 한편 한문 서도 강좌를 열어왔는데, 서울남산공원의 안중근 의사 기념비, 광주공원의 심남일 의병장 기념비문이 전한다

◆ 심판택

신광면 북흥리에서 출생. 2대 신광면장을 지냈다.

◆ 심기백(沈棋栢)

1926. 4. 10 본관 청송. 신광면 북흥리에서 출생. 신광면장(1974. 5. 3~1974. 12. 26)을 역임하였다.

◆ 심기천

신광면 북흥리에서 출생. 6대 신광면장을 역임했다.

◆ 심기혁(沈棋赫)

1934. 6. 15 본관 청송. 신광면 북흥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졸업. 인천 영진공사 사장을 역임함.

◆ 심기환(沈棋煥)

1953. 5. 23 본관 청송. 신광면 북흥리에서 출생. 성균관대학교 졸업. 정신문화원 관리과장을 역임함.

◆ 심동기

1927. 9. 7 신광면 백운리 449번지. 27사단 3연대 2대대 하사로 근무하던 때 속초 지구 전투에서 큰공을 세워 1955. 3. 11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심병섭(沈炳燮)

1943. 12. 2 해보면 금덕리에서 출생. 목포해양대학 중퇴. 육군 중령

◆ 심상국(沈相國)

본관 청송. 수택의 아들. 월야면 정산리에서 태어남. 아버지와 함께 항일의병을 창의하여 소모사장(召募司將)을 하였는데 당시 18세였으나 7척 거구였다. 1908년 3월 강진 오치(吾峙) 전투로부터 1905년 보성 천동(泉洞) 전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도왔고 나산면 송암리 신동옥(辛東旭)에게 의곡으로 쌀 40석을 기부 받는 등 군자금 모집에 힘썼으며 1911년 임곡헌병대에서 가택수색을 할 때 금평산(琴平山, 일본 헌병수색대장)의 유품이 발견되어 태형(笞刑) 90대를 맞고 풀렸는데 일경은 다시 그를 사상범으로 구속 기소 고아주옥에서 8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출감하였고 3. 1 운동 때는 은사 오준선과 인산(因山)에 함께 참여 통곡하고 만세를 주동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5개월만에 집행유예로 방면되었으며 1942년 대홍수에 가옥이 파괴되어 복구 자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를 받고 더러운 왜놈의 돈은 받지 않는다며 거절하였고 1944년에는 그의 장남이 징병영장을 받아 나라의 원수를 못 갚아 한인데 원수를 위해서 싸워서 안된다며 지리산 중으로 아들과 함께 피신하는 등 반일대열에 앞장서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웠다.

◆ 심수택(沈守澤)

1871~1910. 9. 1 본관 청송. 호 남일(南一).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태생. 1908년 초반기의 의병사를 함평 출발 김태원(金泰元)과 김률(金律) 형제가 이끌

었고 1908년 후반기와 1909년 중반기까지는 심수택(沈守澤)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의병활동 상황은 그가 남긴 “진지록(盡知錄)”을 그의 손자 심명재(沈銘裁, 작고)가 간직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알 수 있고 당신의 의병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진지록 : 진지록은 대구의 담판 부분을 제외하고는 광주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틈틈이 집필하여 당시 형무관 심모(심모)를 통해 아들 상국(상국)에게 전달되어 오늘에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손자 심명재의 증언) 한국독립운동사 의병항쟁사 자료집 2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1907년 12월 5일(음 11. 1)에 격문(檄文)을 돌려 의병을 규합하고 우리 국민으로서 왜적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무리들에게 경유(警諭)하는 글을 띄웠다.

그는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 덕동(德洞, 일명 갖점, 笠店)에서 거의하여 1908년 2월에는 함평, 보성, 나주, 장흥 등지에서 6~7백명의 의병을 모았고, 각 군의 수령과 향교에 통고문을 발송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격고문(檄告文), 토왜(土倭)에게 타이름, 각 고을 향교에 통고함, 각처 보조원에게 고시함, 군중(軍中)에게 고시함, 군중(軍中)에게 고시함 등의 원고가 진지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격고문만 소개한다.

“우리네의 관리 및 모든 백성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무릇 신하란 임금의 팔다리요,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신하와 백성이 임금이 없으면

누구를 추대하며 임금이 신하와 백성이 아니면 누구를 부릴 것이라. 아, 왜놈이 우리나라에 미친 화는 옛날 임진년에는 단지 우리 백성에게만 미쳤지만 오늘날의 화는 우리 땅덩어리마저 삼키고 우리 국모(國母)를 시해하고 우리 재정을 빼앗고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앉아서 대궐

만 지키게하여 마치 후한(後漢) 말기에 헌제(憲帝)가 허창(許昌)에 있는 것이 되었다. 저 소의 총독이란 것이 무슨 위치며 고문이란 것이 무슨 벼슬이냐? 그런데 조정의 직계(職系)나 정치의 법령이 모두 그놈들의 손아귀에 들었으니 이렇고도 과연 나라와 임금이 있다고 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자연 눈물이 뜨겁고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생이 허공에 턱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닐진대 어떻게 살아나갈 길이 없으니 우리 팔도 사람들은 다 같이 풍파를 만난 배를 탄 신세인즉 고래때 같이 악독한 왜놈들에게 잡혀먹기 전에 서로 분발한다면 우리 강토를 회복하고 우리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는 터가 오늘에 잡힐지 모르지 않는가. 수택은 초야에 미천한 몸으로 군사에 관한 일을 배우지 못했는데 동지들의 추대를 입어 외람되어 맹주(孟主)가 되었다. 그래서 한 밤중에 저 유곤(劉琨)처럼 닭 소리를 듣고 일어났고, 큰강 가운데서 조적(祖逖) 같이 돛대를 치며 맹세코 이 나라를 깨끗이 밝히기로 했다. 엎드려 바라건대 조정의 벼슬아치나 산림의 숨은 인재들은 수택더러 그 자격이 아니라 이르지만 마시고 각자 의분심을 일으켜 함께 큰 일을 치러 나간다면 천하 만국이 또한 반드시 바람소리를 듣고 호응하게 될 것이다.”

이 격고문에서 우리는 그가 왜 의병을 일으켰고 그의 자세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의 진용을 보면 기삼연부대가 장성 사람들을 주축으로 구성한데 비하여 전라도 각 지역을 망라한 광범위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 대 장(隊 將) : 심수택(沈守澤)
- ◇ 선봉장(先鋒將) : 강무경(姜茂景, 무장 사람).
임만선(任萬先). 장인보(張仁甫).
- ◇ 중군장(中軍將) : 안찬재(安贊在), 박사화(朴士化, 영암

사람. 후에 독립부대 창설)

- ◇ 후군장(後軍將) : 노병우(盧炳友), 나성화(羅聖化), 최우평(崔友平), 김성재(金聖載)
- ◇ 도총장(都總將) : 김도숙(金道淑)
- ◇ 통 장(統 將) : 유치선(柳致先), 공진숙(孔盡淑)
- ◇ 군량장(軍糧將) : 이세창(李世昌, 장흥 사람)
- ◇ 호군장(稿軍將) : 강달주(姜達周, 나주 사람)
- ◇ 기군장(起軍將) : 김치홍(金致弘, 영암 사람)
- ◇ 서 기(書 記) : 염원숙(廉元淑) <모사(謀事) 겸함>
- ◇ 도집사(都執事) : 최유승(崔有承)
- ◇ 모 사(謀 事) : 권 택(權澤, 나주 사람), 정영태(鄭榮兌)

그는 의거를 결행한 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시로 남기고 있다.

초야의 서생 갑옷을 떨쳐 입고
바람타고 남도하니 말도 빨리 달리도다
왜놈들을 모두다 쓸어버리지 못하면
모래밭에 죽어서 돌아오지 않으리

林下書生振鐵衣
乘風南渡馬如飛
蠻夷若未掃平盡
一死沙場誓不歸

“진지록(盡知錄)”에 기록된 접전 일기와 일인들의 보고서 “전남폭도사(全南暴徒史)”를 비교할 때 음력, 양력의 차이가 있고 접전 일기에 수록된 13회의 기록 중 2회 접전만 내용이 같고 그 외는 서로가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다.

후일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기록을 모두 소개한다.

◇ 진지록의 접전 일기(接戰日記)

1908. 3. 7 (양 4. 7) 남평으로부터 행군하여 강진 오치동(五治洞)에 당도하였다. 군문을 굳게 잠그고 군사들과 더불어 큰 잔치를 하는데 왜병 수백이 싸움을 걸어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종일 싸워 적 수십명을 목베고 무기를 빼앗았다.

4. 15 (양 5. 14) 관동(官洞)에 유진하고 있는데 이를 염탐한 일본 병정 7명이 습격해 왔다. 이에 앞서 우리는 광암에 복병해 두어 기습하는 적을 포 1발로 박살냈다. 3명이 땅에 넘어지고 다른놈들은 도주했다. 6. 19 (양 7. 17) 남평 죽곡(竹谷)에 유진하고 장담원 주점 10여호를 연댄 담장 아래 복병한 다음 보발군을 시켜 곧 병참소에 알리게 하였다. 저물녘에 적 60여명이 떼지어 오므로 우리 군사가 한꺼번에 발포 5명의 왜적을 죽이고 철천(鐵川)으로 퇴진했다.

6. 25 (양 7. 23) 능주 노구두(老狗頭) 접전 남평 판촌(坂村)에 군사를 준둔하고 있으면서 노구두 지형을 잘 아는 노병우(盧炳友)에게 정병 90명을 주어 “적 6~7명이 방금 지나갔으니 그들을 추격 성공하고 돌아오라.”했다. 그는 즉시 행군하여 적과 교전 잠깐 사이에 5명을 사살하고 말 2필과 무기 등을 빼앗았다.

7월 그믐 (양 8. 26) 영암 사촌(沙村) 전투 모사 권택의 점괘에 따라 좌우로 돌담이 있는 사촌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있는데 왜장 금평산(琴平産)의 기병 20여명이 쏜살 같이 달려왔다. 일부러 후군(後軍)이 포를 터뜨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니 포소리를 듣고 우리를 추격해 왔다. 이에 복병이 일제히 포를 쏘아 금평산과 기병 10명을 죽이고 행장과 무기를 노획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의 접전이었고 우리는 당산촌(堂山村)으로와 유진하였다.

8. 1 (양 8. 27) 나주 반치(盤峙) 접전 새벽에 생각하니 금평산의 시체를 운반해가기 위해서 많은 적이 와 반치에 진을 칠

듯했다. 좁은 길목에 우리 군사가 매복해 있는데 생각대로 40여명의 적이 영암으로 부터 오고 있었다. 곧이어 싸움이 벌어지고 20여명의 적을 사살했으나 우리 장수 조기보(趙奇普)가 순절했다.

9. 20 (양 10. 14) 대치(大峙)에서 유진하고 있는데 정탐군이 와서 “순사부대 30여명이 신평(新豐)에 묵고 있다.”고 하였다. 선봉 강현수(姜鉉秀)를 불러 100여명을 거느리고 기습하게 하였다. 이에 작전을 전개하여 왜적 20여명을 살상하였다.

그러나 장흥의 신평 접전에 대하여 전남 폭도사 9. 26 (양) 기록에는

“오후 9시 김경시(金警視)가 인솔하는 18명의 순사대가 장흥군 유치면 신보(新湫. 현 유치면 신평)에서 적 1백명과 충돌 5명을 죽이고 교란시켰는데 아군 순사 1명이 즉사하고 4명이 부상했다.”

이 두기록의 전과 차이는 서로가 과장하고 숨기는데서 다르다고 본다. 그리고 날짜가 서로 다른데 진지록의 날짜가 옥중에서 기억을 더듬어 쓴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다고는 할 수 없다.

10. 9 (양 11. 2)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해남성 밖 10리 지점에 유진했다. 낮에는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밤 10시경에 포를 쏘며 성안으로 들어가 적 10여명을 살상했다. 그들의 헌병분대였다. 새벽이 되기 전에 대둔사(大屯寺)로 퇴진했다.

10. 27 (양 11. 20) 능주 돌정(石亭) 전투 나와 선봉 강무경은 병이 나서 영암 분토동(紛土洞)에 누웠고 중군 박사화, 후군 노병우, 최우평, 통장 김도숙, 기군장 장문연, 호군장 정관오가 군을 이끌고 이날밤 노안리(老安里)로 출진 능주읍에 있는 헌병을 무찌를 계획으로 돌정리에서 군사를 먹였다.

이튿날 왜적 300여명과 10회에 걸쳐 접전을 했으나 큰 승부가 없었다. 이 싸움에 후군장 최우평과 군사 20여명이 쓰러지고 적도 20여명이 죽었다.

이 싸움에 대한 “전남폭도사” 11월 26일 기록에는,

“오전 9시 적 150명과 능주군 부자면 석정리(현 화순군 춘양면)에서 맞닥드렸다. 나주 경찰서원과 헌병보조원 합동 경찰대가 이완동(梨浣洞. 현 화순군 이양면)에서 접전 5명을 죽이고 2명을 생포했다.”라고 적고 있다.

1909. 3. 8 (양 4. 27) 남평 거성동(巨聲洞) 접전

대장 서리 강현수는 박봉주(朴奉柱), 박채홍(朴彩洪)과 함께 나주 월교리(月橋里)에서 유진하였다. 이날밤 세 사람의 진이 남평 운삼동(雲三洞)에서 집합하여 선동(船洞)으로 옮기는데 정탐군이 왜적 15명이 몰래 운곡(雲谷)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에 군사를 정돈 본진은 장암(牆岩), 박봉주 박채홍은 철천(鐵川), 박민홍(朴致洪)은 선동에 주둔했다. 정탐군이 적이 선동으로 들어갔다고 하여 작전대로 들이쳐 5명을 죽였고 나머지는 영산포로 도망갔다. 이튿날 1부대는 동쪽 대치에 매복 능주의 적을 방어하고, 1부대는 대항봉(大巷蜂)에 매복하여 광주, 나주, 남평 3고을의 적을 방어하고, 1부대는 서남간 월임치(月任峙)에 매복하여 영암의 적을 방어하고, 1부대는 덕룡산 상봉에 매복하며 1부대는 병암치에 매복하여 지원하도록하는 작전을 세웠다. 능주쪽 전투에서는 15명의 적을 살해했고 광주쪽에서는 경무사(警武師)와 줄병 수십명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 우리 군사도 약간명이 죽었고 박여홍(朴汝洪), 박태환(朴泰煥), 박기춘(朴基春) 등 간부들이 전사했다.

3. 11 (양 4. 30) 능주 풍치(風峙) 접전 장흥 한담리(寒潭里)에 유진하고 있다가 적병이 10시경에는 올 듯하여 풍치 바위 사이에 잠복하였다. 12 고을 연합부대 왜적 400여명이 팔방으로 포위하고 들어와 격전을 벌여 백여명을 죽였으나 물러가지 않으므로 나는 징을 쳐서 8문의 하나인 두문

(杜門)으로 빠져 북쪽으로 퇴각하였다.
이 전투에서 보인 그의 신출귀몰하는 전략
에 대해 이런 동요가 유행하였다고 한다.
남일이 용마 타고 산밖으로 솟아오르면
南一乘龍馬 而聳出於山外
현수는 풍운을 조화하여 공중으로 날아오
른다.

鉉秀風雲造化 飛上空中

4. 2 (양 5. 20) 보성 곰재(熊峙) 접전
장흥 우산(牛山)에 주둔했다. 능주의 현병
20명이 매달 5차례 장흥을 통과한다는 말
에 작전을 전개 8명을 사살하고 대포 2문
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5. 12 (양 6. 29) 보성 천동(泉洞) 접전
천동에 주둔하여 안규홍(安圭洪) 창의장을
석호산(石虎山)으로 불러 병사(兵事)를 의
논했다. 백리 밖에 있는 군량을 실어오게
하고 소를 잡아 군사를 먹이며 산상에 깃
발을 날렸다. 보성의 현병이 이를 보고 싸
움을 걸어오므로 접전하여 5명을 죽였다.
이날 조서(詔書)가 도착하였다. 이 무슨 운
명이나? 하늘을 우러러 통곡한다. 나는 장
차 어디로 가리오?

1909년 7월 21일(양) 왕의 조서에 의하여
고민하던 그는 해산 명령에 따르기로 하고
영암군 금마면 고인동(金磨面古引洞)에서
의병을 해산했다. 그 때의 심정을 그는 이
렇게 시로 표현했다.

가을 바람 쓸쓸한데 장졸이 눈물로 이별하
니

고인산을 떠남에 말조차 더디가누나

왜적을 없앨 날 끝내 있으리니

지난 삼년 사생은 잊지 마세나

秋風將卒泣相離

古引山前馬去遲

一掃腥塵終有一

草澤三載死生期

◇ 전남폭도사 기록

*이하 월일은 모두 양력임

1908. 8. 26 영암 수비대장 남본(楠本. 구
스모도) 대위가 이끄는 토벌대가 내동산(內
洞山. 현 덕진면 영보리)에서 거괴 심남일
이 이끄는 폭도(이하 적이라 기술함) 백여
명이 공격해오므로 응전 중 영암 수비대에
서 특무조장 등 16명이 응원을 와 10명을
죽이고 격퇴했다. 아군도 1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했다.

8. 28 영암 수비병 하사 이하 9명이 장
흥군 유치면 한 대동(寒大洞. 현 영암군
영암읍)에서 적 150명과 만나 2시간 동안
교전했으나 탄약이 떨어져 귀대했다.

8. 29 장흥 관내에 적도가 들끓어 순사대
를 급히 파견해 달라는 전보가 왔다. 기병
과 순사를 영암, 장흥에 파견했다.

10. 22 오후 1시 평야(平野. 히라노) 토벌
대가 함평군 여황면 용진산(龍珍山. 현 광
주광역시 본양동 왕동리와 임곡동 사호리
경계임)에서 심남일, 전해산의 합동 집단
150명과 충돌 이를 격퇴했다. 10명을 죽
이고 화승총 4군도 4자루를 노획했다. 정
보조원(鄭補助員)이 전사했다.

10. 23 석문산(石門山. 현 광주광역시 본
양동 소재)에서 심남일, 전해산, 조정환(曹
京煥), 김기순(金基順)의 합동 집단 250명
과 충돌 11명을 죽이고 화승총 5, 권총 1,
나팔 1, 기타 잡품을 노획했다.

1909. 1. 19 영산포 헌병분대 1. 2 연합
토벌대가 나주군 수다면 초동(水多面 草洞.
현 다시면 영동리)에서 심남일, 박민홍이
이끄는 150명과 교전 3명을 죽이고 격퇴
했다.

4. 26 오전 6시 적 300명이 장흥군 장동
면 내장리(長東面 內場里. 현 장동면)에 내
습 공전 영수원 정사흠(鄭士欽)을 결박 장
평면 용강리에서 총살하였다.

7. 1 장흥군 장서면 봉무리(長西面 鳳舞
里. 현 장평면 청룡리 초장골)에 적 60명
이 내습했다. 사창장(社倉場) 헌병 파견소
헌병과 보조원 10여명이 달려가 교전 적
5명을 죽이고 격퇴했다.



왕의 의병 해산에 대한 조서를 받고 부대를 해산한 후 그는 능주의 풍치(風峙. 현 화순군 청풍리와 이만리 소재)의 산속에 숨어 피신해 있다가 체포되었다. 이 사실을 전남폭도사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1910. 10. 9 오전 6시 좌죽(사다계) 대위가 이끄는 47명의 토벌대가 능주군 풍치 산속 암굴에서 거괴 심남일(당 38세)과 그의 부장 강무경 및 처첩(妻妾)을 체포했다.”
체포된 후 광주 감옥에 있다가 대구로 옮긴 후 1910년 9월 1일 처형되었는데 그는 끝까지 침략자 일본을 규탄하고 자기는 조국을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형되었는데 그는 끝까지 침략자 일본을 규탄하고 자기는 조국을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형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고국강산”이라는 시를 남겼다.
문명한 일월 중의 우리 강산이
홀연히 들인 티끌에 어둠 속에 잠겨 있어라
개인 하늘 보지 못하고 지하로 가니
천추에 백혈되어 자국 마다 얼룩지리

文明日月此江山
忽入腥塵掩暖閑
未睹一晴歸地下
千秋化碧血痕斑

그를 추모하는 비가 광주공원에 세워져 있으며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아내 임씨(林氏)는 그가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연락을 받고 충격을 받아 양 눈을 보지 못한 채 여생을 보냈는데 밝은 일월을 보지 못할 바에야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며 자위했다.

◆ 심연섭(沈演燮)

1924. 11. 20

신광면 복흥리에서 출생.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한일은행 본점 차장을 역임하였다.

◆ 심재신(沈載信)

1952. 6. 6생. 본관 청송(靑松) 진섭(鎭燮)과 경주 김복금의 장남으로 신광면 복흥리에서 출생하여 광주공업고등학교를 졸업. 신광면장, 함평군건설과장에 재직 중이며,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아내는 남원 양팔석의 셋째 정님이다..

◆ 심종섭(沈鍾燮)

예명(藝名) 심철호. 신광면 월암리 출신. 연예인. 중견 코메디 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심효님(沈孝任)

1919. 3. 27 나산면. 함평군수의 효부표창을 받았다.

◆ 안강순(安鋼淳)

1946 본관 죽산. 중복의 아들. 신산교회 목사

◆ 안건영(安建永)

1962 본관 죽산.중앙대학교 부속병원 의사로 있다.

◆ 안계방(安啓昉)

본관 죽산. 함동수리조합장을 역임하였다.

◆ 안계수(安桂洙)

1932. 9. 29 나산면 수하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춘천농대 교수

◆ 안기룡(安基龍)

1872~1912 본관 죽산. 효행으로 함평향교의 천장을 받았다.

◆ 안기순(安基淳)

본관 죽산. 월야면 예덕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함평군교육청 장학사. 신안도초등학교 등 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 안기주(安基柱)

1881~1940 본관 죽산. 1932년 식지면과 평릉면을 합해 나산면을 신설할 때 초대 면장을 지냈다.

◆ 안 당(安 璫)

1889~1927 본관 죽산. 제2대 나산면장을 지냈다.

◆ 안당순(安璫淳)

1938 본관 죽산. 한국자원재생공사 광주지사장 역임

◆ 안덕윤(安德潤)



안 덕 윤

1952. 8. 1생. 본관 순흥 삼태와 진주 정복임의 외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한국전력동서발전(주)상임이사(전무)로 아내는 파평 윤희중과 김순애의 4남1녀중 막내이다.

◆ 안동숙(安東淑)



안 동 숙

1922. 4. 4 본관 죽산. 나산면 나산리에서 출생. 호 오당(吾堂).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한국화 화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장, 대학원장, 국전심사위원장을 지냈다.

◆ 안동해(安東海)

1922~1991 본관 죽산. 한국신학대학졸업. 목사.

◆ 안두순(安斗淳)

1945 본관 죽산.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음.

◆ 안문수(安文洙)

1951 본관 죽산. 종률의 아들 기술고시에 합격하였고 환경부 서기관으로 있다.

◆ 안문철(安紋徹)

1935 본관 죽산. 조선대학교 졸업. 국방부 병무청 과장을 지냈다.

◆ 안백순(安伯淳)

1932 본관 죽산. 사단법인 동산문화재 진흥원 명예 회장, 서울 고미술경매주식회사 대표를 역임하였다.

◆ 안병갑(安秉甲)

1955 본관 죽산. 경수의 아들. 경감. 전남경찰청 기동대장 역임

◆ 안병균(安秉均)

1948. 4. 28 본관 죽산. 함평군민의 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나산그룹 회장직에 있다.

◆ 안병남(安柄南)

1935. 6. 22 본관 죽산. 나산면 나산리에서 출생. 군사관학교 졸업. 육군 중령 예편

◆ 안병주(安丙柱)

1960 본관 죽산. 형수의 아들. 치과의원 개업

◆ 안병준(安秉濬)

1954. 1. 17 본관 죽산. 춘순의 아들 사회정치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전임강사로 있다.



◆ 안병호(安柄鎬)



1947.9.10생 본관 죽산(竹山) 호 남전(南田) 춘수(春洙)와 여양(驪陽) 진연임(陳蓮任)의 장남으로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에서 출생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이며 함평축산업협동조합장 3선 연임, 전국축협장협의회 총무역임, 성화대학 겸임교수 역임과 민선5기 함평군수에 재임중이며 함평군민의 상과 농업인 실익증대 대통령표창 등을 받았고 저서로는 함평토박이 안병호의 희망이야기가 있으며 아내는 경주(慶州) 정영재(鄭英才)와 김해(金海) 김남덕(金南德)의 장녀 송자(松子)이다.

◆ 안병현(安秉玄)

1937. 5. 17~작고. 본관 죽산. 도서출판 현문사(玄文社) 사장을 지냈다.

◆ 안부덕(安富德)

월야면 예덕리에서 출생.
1956. 1. 14~1956. 9. 19까지 월야면장을 지냈다.

◆ 안석규(安錫奎)

1937. 3. 1 본관 죽산. 동국대학교 졸업. 동력자원부 서기관을 역임하였고 현재 전기안전공사 기획이사로 있다.

◆ 안석두(安錫斗)

1924. 8. 11 본관 죽산. 나산면 나산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 졸업. 강진 교육장, 광주 서림초등학교장을 지냈다.



안석두

◆ 안성수(安性洙)

1930. 7. 20 본관 죽산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운공사 선장을 역임했다.

◆ 안성수(安晟洙)

본관 죽산. 나산면 수하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 졸업. 나산초등학교 교장 역임

◆ 안수웅(安秀雄)



안수웅

1941. 5. 16 본관 죽산. 호 향정(香亭). 기철(基喆)과 고흥 유대안(柳大安)의 아들로 월야 광주서중,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였고, 1971~1979년까지 국회내무위원장, 문공위원장(尹仁植) 비서관, 1992~1994년까지 재경 월야향우회장을 역임했고, 1985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서울구치소약제관(약국장)으로 있다. 아내는 광산 김일중(金一中)과 달성 서부영(徐富榮)의 딸 선금(善今)이다.

◆ 안영동(安永東)

1933. 5. 4 본관 죽산. 연세대학교 졸업, 동양서적 사장 역임

◆ 안영수(安永洙)

1939. 1. 1 나산면 수하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졸업. 경감

◆ 안영오(安永五)

1932 본관 죽산. 우암의 아들. 범안금속주식회사 대표

◆ 안용호(安龍鎬)

1942. 12. 23생 본관 죽산(竹山) 종선의

아들로 함평군 월야면에서 출생 광주교육 대학을 졸업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광주금당초등학교장 역임, 광주매일, 삼남교육, 호남교육 고정칼럼리스트, 현 전광일보 논설위원이며 저서로는 독서과정에서 지식의 습득형성, 초등독서교육 등이 있다.

◆ 안이원(安二元)

1932. 9. 11 나산면 월봉리에서 출생. 고졸. 동대문세무서 부과세 제1과장 등 역임

◆ 안인수(安寅洙)

1931 본관 죽산. 종호의 아들 함평군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고 1987년 함평군민의 상을 수상하였다.

◆ 안장수(安壯洙)

1952 본관 죽산. 농협중앙회 여천시지부 차장 역임.

◆ 안정순(安貞順)

1913~1950 본관 죽산. 의사(의사)

◆ 안정순(安丁順)

학교면 복천리. 함평향교의 효부표창을 받았다.

◆ 안종남(安鍾南)

1929 본관 죽산. 6. 25 한국전쟁 때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 안종덕(安鍾德)

1946 본관 죽산. 교회 목사

◆ 안종두(安鍾斗)

1942. 3. 9생. 본관 죽산(竹山) 호 근재(勤齋) 기용(基溶)과 전주(全州) 이동례(李同禮)의 막내아들로 나산면 나산리에서 출생 광주교육대학을 졸업 서울중화초교장을 역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 아내는 진주(晋州) 정지석의 막내 정양애



안종두



안종래

로 슬하에 2남4녀를 두었다.

◆ 안종래(安鍾來)

1944. 9. 26 본관 죽산. 호 덕암(德菴). 천년(千年)과金玉녀(金玉女)의 아들로 나산면 나산리에서 출생하였고, 나산초등학교,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

함평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 8년, 나산초등학교 육성회장, 나산면

농업협동조합 이사를 역임했고, 1995년 제2대 함평군의회 의원에 당선하였으며, 재단법인 나산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아내는 김윤자(金允子)다.

◆ 안종렬(安鍾烈)

1895~1962 본관 죽산. 나산초등학교장을 지냈으며 제자들이 교정에 추모비를 세웠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안종변(安鍾卞)

1911~1959 본관 죽산

1929년 10월 광주농업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던 중 교내에 조직된 독서회와 2학년 중심의 독서회를 결성하기 위하여 유환묵(柳煥默) 등과 함께 협의를 가졌으며 동년 11월 12일 제2차 광주학생운동 대시위에 참가하여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법 위반으로 지역 1년 6월을 언도받아 공소하여 1931년 대구복심원에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고 출옥하였다.

1932년 2월 상순 식지면 나산리에 거주하던 그는 전남농협의회(全南農協議會)를 조직한 김재동(金載棟)으로부터 야학 및 농민조합 결성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위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고 유해는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했다.

◆ 안중복(安鍾福)

1923. 7. 11 본관 죽산. 한국신학대학 졸업. 목사

◆ 안중상(安鍾祥)

1942. 2. 5 월야면 예덕리에서 출생. 광주일고 졸업. 경감

◆ 안중원(安鍾源)

본관 죽산. 월야면 계림리에서 출생
1978년부터 10여년간 월야면장을 역임하였다.

◆ 안중일(安鍾一)

1901~1961 본관 죽산. 제4대 나산면장을 지냈다.

◆ 안중일(安鍾一)



안 중 일

1932. 10. 25 본관 죽산. 월야면 예덕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동대학원 졸업. 무안교육장,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역임함
현재 재광함평군향우회장을 맡고 있다.

◆ 안중칠(安鍾七)

본관 죽산. 나산면 수하리에서 출생. 나산면장을 역임했다.

◆ 안중표(安鍾杓)

1948 본관 죽산. 주식회사 나산실업 사장직에 있다.

◆ 안중필(安鍾弼)

1952 본관 죽산. 신학대학교수로 있다.

◆ 안중섭(安仲燮)



안 중 섭

1943. 10. 15 나산면 수상리 월현에서 출생. 광주대학교 졸업. 광주서구청 과장 등 역임

◆ 안진수(安鎭洙)

본관 죽산. 월야면 예덕리에서 출생. 경희대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교수

◆ 안창순(安昌淳)

1905. 3. 1~작고. 출생 · 월야면 월야리 함동수리조합장, 월야면장을 지냈다.

◆ 안 철(安 哲)

1945 본관 죽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동아약업사를 경영하고 있다.

◆ 안철기(安哲璡)

1958 본관 죽산. LG 건설 차장

◆ 안춘수(安春洙)

1954 본관 죽산. 석두의 아들. 현대전자 차장

◆ 안춘순(安春淳)

1916~1959 본관 죽산. 의사

◆ 안태수(安泰洙)



안 태 수

1930. 6. 20 본관 죽산. 종열의 아들로 나산면 나산리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군군의원. 1978년 해군 준장으로 예편하였고 현재 안태수내과의원장으로 있다.

◆ 안택수(安宅洙)

1954 본관 죽산. 태평양생명보험주식회사 국장 역임

◆ 안평수(安平洙)

1954 본관 죽산. 종민의 아들
서울대학교 졸업, 대우전자 차장

◆ 안학수(安鶴洙)

1923. 2. 6 본관 죽산. 종보의 아들.
대학원 졸업. 농학 박사. 조선대학교, 이리
농대 교수를 지냈다.

◆ 안향수(安珦洙)

1931년생. 나산면 수하리에서 출생.
고졸.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안헌수(安憲洙)

1947 본관 죽산. 종변의 아들
한국보령협회 경기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 안혜성(安惠星)

1948~2008. 월야면 태생. 언론인, 작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와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나와 《코리아헤럴드》 등 다년간 영자
신문사에서 근무했다. 1985년 동아일보사의
《여성동아》 공모에 장편 『베르니카의
노래』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후 장편
『불꽃 춤』(1988), 『향목(香木)』
(1990), 『안개의 벽을 넘어』(1992)등을
펴냈으며 여러 편의 중, 단편을 발표했다.
2008년 서울에서 작고 했다.

◆ 안후덕(安厚德)

<1권1권 1108~1109쪽을 볼 것>

◆ 안희수(安熙洙)

1921. 8. 21 나산면 수하리에서 출생
경성사범학교 졸업.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양갑수(梁甲秀)

1960년 엽다면 송노리 출생. 본관 남원.
학다리고를 나와 광주대 산업디자인과와
조선대 대학원 산업공예과에서 도자기 전
공.한편 동신대전문대 공예과에 다시 진학
하여 박종훈 교수에게 물레성형술을 배웠다.
서울무역센터와 마산 대우백화점에서
개인전. 2009광주광역시 주최 꽃박람회 도
자기대상수상. 2004년부터 전남과학대학
겸임교수로 있다

◆ 양관옥(梁官玉)

본관 남원. 심계원 사무관을 지냈다.

◆ 양금례(梁今禮)

나산면 구산리. 함평향교의 효부표창을
받았다.



양기상

◆ 양기상(梁基相)

본관 제주. 중시조의 27
세손. 학교면에서 출생.
여수경찰서 경무과장 역
임



양길배

◆ 양길배(梁吉培)

본관 제주. 중시조의 28
세손.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KBS 광방송국 기
자, 바르게 살기운동 함
평군협의회장 역임



양남진

◆ 양남진(梁南鎭)

1941. 4. 1 본관 제주.
아버지 금암(今岩)과 어
머니 진주 정준근(鄭俊
根)의 아들로 신광면 가
덕리에서 출생하였고, 대
한상이군경회 함평군지부
장으로 있으며 1998. 4.

15 함평군민의 상(도의부문)을 받았다.
아내는 장흥 마숙자(馬淑子)다.

◆ 양동일(梁東日)

본관 제주. 중시조의 27세손. 월야면에서 출생. 육군대령으로 육군본부 공병감실 공사과장을 역임했다.

◆ 양성우(梁性祐)

1943. 11. 1. 본관 남원. 학교면 월호리에서 출생하여 학다리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을 수 학했다. 모교인 학다리고등학교와 광주 중앙여고에서 여러 해 교사로서 재직하며 1970년 조태일 시인이 발간하던 『시인』지를 통해 등단하여 1972년 첫시집 『발상법』 이후, 『신하여 신하여』, 『겨울공화국』 등을 펴내면서 민중 저항 시인으로 옥고도 겪었다.

이외에도 시집 『북치는 앓은뱅이』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오월제』 『그대의 하늘길』 『첫마음』 『아침꽃잎』 등이 있다. 1985년 제4회 '신동엽창작기금'을 받았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대표, 제13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구) 역임. 현재작가회의의 이사와 제5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2008년 현대시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의 시비가 함평 나비곤충도서관 앞에 세워졌다.



양수열

◆ 양수열(梁秀烈)

1937. 9. 9 본관 제주. 중시조의 27세손. 광주지방검찰청 범죄예방협의회 서구상담분과위원장, 보훈회광주시 총무과장 역임.

◆ 양순석(梁順錫)

학교면 월호리. 함평향교의 효자표창을 받았다.

◆ 양승남(梁承南)



양승남

1917~1987 본관 제주. 회일(會一)의 딸로 17세의 나이에 월야면 월악리 진주 정성진(鄭性鎭)과 결혼하여 시할 아버지를 비롯하여 홀로된 양시아머니, 생가의 시부모를 받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성품이 효순하여 덕의(德儀)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고 상을 당하자 몸이 상할 정도로 애도하며 주위가 모두 감탄하였다. 향사(鄉土)와 도유(道儒)들이 추천하여 성균관장의 찬양문이 내려다.

◆ 양승용(梁承庸)

1933. 10. 9~작고. 학교면 월호리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령 예편

◆ 양승화(梁承禾)

1938. 2. 16 학교면 월호리에서 출생. 고졸. 경감



양장원

◆ 양장원(梁長源)

본관 제주. 중시조의 27세손. 월야면에서 출생. 광주일보 윤전국장을 지냈다.

◆ 양재근(梁載根)



양재근

1944. 6. 7 본관 제주.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하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주)대원엔지니어링 컨설턴트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있으며,

공공인 한국수도협회 부회장, 미국수도협회 아세아 태평양지역 수석 부회장, 환경부 환경정책자문위원,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 양재동(梁在東)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본관 제주. 영광군 부군수를 지냈다.

◆ 양재희

1931. 5. 1 학교면 월호리 329번지. 3사단 88포병대 8중대 하사로 근무하던 때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54. 2. 5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양정순(梁正順)

함평읍 자풍리. 함평향교의 효부표창을 받았다.

◆ 양정식(梁正植)

1953. 9. 7 학교면 월호리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령

◆ 양정자(梁貞子)

1944. 3. 30 본관 제주. 신광면 가덕리에서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서울가정법원 판사.



양정조

◆ 양정조(梁政造)

본관 제주. 중시조의 28세손. 함평읍에서 출생. 한국증권거래소 경리과장 역임

◆ 양창국(梁昌國)

1884~1910. 6. 2

1909년 국운은 날로 기울어 일제는 본격적으로 식민지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을 때 일제의 끈질긴 의병 토벌전에 의병운동도 폐색이 깊어졌고 대규모의 의병구성보다는 유격전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시점에서 1909년 7월 하순경 이강산 의병부대에 입대하여 활약하였다.

8월 29일 함평군 대야면 내정리(현 월야면) 산중에서 유진하고 있을 때 나주헌병분견소 구밀과견소의 밀정인 이판안, 김정태, 최치도, 박복남의 4명이 주막을 경영하는 이양삼(李良三) 집에 온 것이 탐지되었다. 이들은 평소 이강산 의진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오던 존재라서 곧 제거되어야 하였다.

양창국은 동료 5명과 함께 이양삼의 집에 이르러 주민 2명의 협력하에 그들을 난타하여 타살시키고 그 중 박복남은 산중으로 연행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다.

그는 처음에 피신하였으나 더 이상 은신생활을 할 수 없어 일경에 자수하였으며 동료와 함께 재판에 회부되어 1909년 12월 25일 광주지방법관소에서 교수형을 선고 받았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10년 4월 27일 끝내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사형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 공을 기려 1980년 건국 포장을 추서하였다.

◆ 양춘동(梁春東)

본관 제주. 중시조의 27세손. 월야에서 출생.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 양팔석(梁八錫)

1924. 5. 10 학교면 월호리. 함평향교의 효자표창을 받음.

◆ 양한모(梁翰模)



양한모

1951. 12. 6생 본관 남원(南原) 승균(承均)과 무안(務安) 박봉춘(朴奉春)의 아들로 학교면 월호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 이비인후과 전문

의와 의학박사로 미국하버드대부속병원, 런던대학병원 등에서 연수를 마치고 광주시 광산구 양한모이비인후과병원 개원 중이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 학다리중·고등학교 학교법인 학교의숙 재단 이사이며 아내는 광천(廣川) 동순영(董順永)과 한산(韓山) 이영희(李永熙)의 차녀 수정(秀正)이다.

◆ 양희열(梁희열)

1951. 6. 13 학교면 월호리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령

◆ 양희철(梁會喆)



양희철

1914. 2. 16 본관 제주. 나산면 송암리에서 출생. 나산초등학교 졸업. 광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법 부장 판사, 순천, 군산 지원장을 역임하였다. 변호사

◆ 오금렬(吳錦烈)



오금렬

1960. 1. 12생 본관 나주(羅州) 만근(萬根)과 함평(咸平) 이정순(李呈順)의 차남으로 함평군 월야면에서 출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 월야면장, 해보면장을 거쳐 함평군

문화관광과장으로 아내는 이천(利川) 서현수(徐鉉洙)와 광산(光山) 김윤남(金允南)의 3녀 현자(賢子)로 슬하에 2남1녀를 두었다.

◆ 오녹례(吳祿禮)

1898~1986 본관 금성. 경수(景洙)의 둘째 딸로 광산군 본양면 남산리에서 태어났고 월야면 월악리 진주 정지용(鄭址容)과 결혼하여 양성공(陽城公) 종가의 종부(宗婦)가

되었다. 21세 때 남편이 타계하자 3살 된 큰조카 성진(性鎭)을 입양하여 사성인도(四性人道)를 엄격하게 가르쳐 종통(宗統)을 잇고 시부모를 위안 봉양하는데 정성을 다하며 수절하였다.

사후 정열(貞烈)과 효성을 극진히 한 그의 행적을 오래 기려야 한다는 공의에 따라 함평향교에서 발문(發文)하고 전주, 나주, 광주, 남원향교에서 올린 천장으로 성균관장의 찬양문을 받았다.

◆ 오만식(吳萬植)

본관 낙안. 학다리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이사의 한 사람이며 초대 교장(1945~1948), 5대 이사장을 지냈다.

◆ 오상숙(吳相淑)

함평읍 기각리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음대를 졸업한 바이얼리스트이다.

◆ 오순기(吳順起)

1924. 1. 15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중졸. 경위 퇴직. 학교면장을 지냈다.

◆ 오영찬(吳永瓚)

1874~1936 본관 낙안. 호 후백당(後栢堂) 다른 이름 관원(貫元). 나산면 출신으로 의병장 김태원의 처남이다.

1905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총 2,000정을 주어 의거를 도왔다.

1906. 10. 6 김태원 의진과 기삼연 의진이 합치자 이에 참가하여 고창 방등산(方登山), 영광 불갑산 등지에서 왜군과 접전하였다.

이어서 나주 영산포에서 석성(石城)에 복병하였다가 적 120여명을 살해하고 무기 120정을 탈취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1908. 3. 25 의병장 김태원이 나주상박산(上博山)에 유진하고 박천 전투에서 적과 접전하던 중 전사하였을 때 그는 이 전투에 참전하여 두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동년 12월 1일 장성에서 적에게

체포되자 그는 죽느니만 못하다고 여겨
속히 죽이라고 적을 꾸짖었다. 적은 패
군을 죽이는 것을 무익하다며 석방하였
다.

정부에서 그의 공을 기려 1983년 대통
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오원거(吳原居)

본관 낙안. 지금은 폐교된 월송초등학교
부지와 동교 교실 등 제반 시설을 자비
로 완성하여 국가에 바쳤다.

◆ 오종환(吳種煥)

197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
났으나 어린시절부터 부친의 고향인 월
야면 영월리에 이거해 살았다. 월야중학
을 나와 군 체대 후 장애를 입었다.
『대한문학세계』에 시 바람의 날개가
당선되어 등단. 시집으로 2007년에 펴낸
『하늘의 크레파스』가 있다.

◆ 오준승(吳俊承)

학교면 석정리. 함평향교의 효자표창을
받았다

◆ 오충섭(吳忠燮)

대동면 강운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졸
업
1962. 5. 21~1965. 6. 20까지 대동면장
을 지냈다.

◆ 옥귀순(玉貴順)

1934. 8. 19 엄다면 신계리. 함평향교의
효부표창을 받음.

◆ 옥상호(玉相鎬)

1945. 3. 7 함평읍 대덕리에서 출생
대졸. 국가안전기획부 요직을 역임하였다.

◆ 우경구(禹璟駒)

1867~1941 본관 단양. 자 찬문(贊文). 호
매산(梅山). 탁(倬)의 18세손. 선일(善日)의
아들.

1910. 8. 29 한일 합방의 비보를 듣고 울
분하여 일본영사관에 불을 지르고 목포,

무안 등지로 피신하다가 1919년 무안에서
3. 1 만세운동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하여 1919년 3월 17일 신광
면 송사리 삼편동 산중에 숨어 살았다.

그 후 1924년 9월 7일에 함평읍 만흥리
국산에 정착하여 천수를 다했다.

아내는 남양방씨(南陽方氏) 종기(宗基)의
딸이다

◆ 류기원(柳起元)

해보면 해보리 발미에서 출생. 제7대 해보
면장을 지냄.

◆ 류기춘(柳基春)

나산면 월봉리에서 출생. 초등학교 교장
역임

◆ 유병기(兪炳琪)

호 초당(樵堂). 나산면 출신으로 대한민국
서예가 협회 회원이다. 서예전람회(國展)
1~3회 입선, 전라남도 미술대전 입선, 광
주직할시 미술대전 등에 수차 입선 및 특
선된 바 있다.

◆ 류상봉(柳相鳳)

1870~1947 본관 고흥. 자 희서(希瑞). 만
연(萬淵)의 아들

1924년 나산면 월봉리 월평에 이거 정착
하여 고흥류씨 함평 입향조가 되었으며 묘
소는 월평 앞산에 있다. 아내는 전주리씨
호의(灝儀)의 딸이다.

◆ 유순식(柳淳植)

나산면 1983년 새마을부문 함평군민의 상
을 받았다.

◆ 유씨부인(柳氏夫人)

손불면 월천리. 함평향교의 효부표창을 받
았다.

◆ 유명자

함평읍 기각리. 1997년 도의부문 함평군민

의 상을 받았다.

◆ 유영환

1930. 11. 18 해보면 용산리 948번지. 11사단 13연대 하사로 근무하던 때 강원 금성지구 전투에서 큰공을 세워 1953. 6. 14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유 윤(兪潤)

1917. 5. 30 월야면 용월리에서 출생. 전주사범학교 졸업. 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고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음

◆ 유재기(兪在奇)

1959년 월야면 용월리 태생으로 광주일고를 나와 상지대를 나와 미국Sun Jong 대학원 졸업. 86년에 『현대시학』 미명 살아가기 등이 천료되어 등단했다. 시집에 『무등천하』 『M16에 관한 명상』 등 많은 저서가 있으며 언론과 출판 일에도 종사하고 있다.

◆ 유재우

월야면에서 출생.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 유종필(柳鍾泌)



유종필

1957. 9. 1 본관 고흥. 기원(起元)과 행주 기구순(奇具順)의 아들로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하였고, 해보초등학교, 월야중,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

다.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기자,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나산그룹 이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을 맡고 있다. 저서로 ‘굿모닝 DJ’(울도서적), ‘단소리 쓴소리’(문예당)가 있다.

아내는 제주 양재열(梁在烈)과 광주 이순희(廣州李順姬)의 딸 옥미(旭美)다.

◆ 유중영(柳重榮)

1943년 나산면 월봉리에서 출생. 광주공고, 전남대 농화학과 졸업. 1991년 『문학공간』에 시가 추천되어 등단. 2003년 『현대문예』에 수필당선. 현재 광주시조 문학회부회장, 무등문학회장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수필집 『득도의 길』(2003)이 있다

◆ 유화식

1927. 3. 27 월야면 용월리 540번지. 보병 5사단 35연대 2대대 8중대 하사로 근무하던 때 백운산 공비도벌작전에 참가 혁혁한 공을 세워 1954. 4. 17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윤갑병(尹甲炳)



윤갑병

1924. 10. 14 본관 파평. 호 금계(錦溪). 시조의 33세손. 상온(相溫)과 진주 정상곡(鄭上谷)의 맏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출생하여 목포공업학교의 전신인 송정공업학교를 졸업했다.

1970년 광주시건설국 건설과장, 1972년 전라남도 순천건설사업소장, 1974년 여수시 수도과, 도시계획과장, 1977년 목포시 상수도 시설과장, 1978년 동 상수도 사업소장 역임하였다.

아내는 광산 김석규(金錫奎)와 행주 기순덕(機順德)의 딸 삼례(三禮)다.

◆ 윤갑병(尹甲炳)

1924~작고. 본관 파평. 시조의 33세손. 상익(相益)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 육군소령 예편. 해보면장을 지냈다.

◆ 윤갑현(尹甲鉉)

1938. 8. 23 본관 파평. 족보명 가병(佳炳). 시조의 33세손. 상직(相直)의 둘째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출생. 해군사관학교 졸업. 해군대령으로 있다. 아내는 평택 임순옥(林順玉)이다.

◆ 윤건병(尹乾炳)

1888~1941 본관 파평. 자 정국(正國). 호 퇴은(退隱). 시조의 33세손. 상각(相珪)의 둘째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였다. 김태원(金泰元) 의병부대에 가입하여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아내는 광산김씨 재창(在暢)의 딸이다.

◆ 윤경중(尹炅重)

1937. 8. 16 본관 파평. 호 남파(南坡). 시조의 34세손. 흥천(興千)과 장흥 고복순(高福順)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태어났고, 해보초등, 월야중,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신광, 해보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교사, 해남 산이중, 구례북중 등 중학교 교사, 순천금당고, 광주 남도예술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대한민국 서예대전에 3회 특선하는 등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문학가로서 한림출판사 간행 시집 '참삶의 세월'(1984), '그리움이 타는 마음'(1993), '모악의 가을'(1997) '고은 마음 깊은 곳에' (2003) '함평천지에 나비는 날고'(2004)를 펴냈다.

◆ 윤경중(尹慶重)



윤 경 중

1938. 9. 5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병진(炳振)의 맏아들로 대동면 상옥리 출신. 총경. 순천, 여서경찰서장을 역임. 아내는 함양 박생동(朴生東)의 딸이다.

◆ 윤계원(尹桂元)

1930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해보면 금덕리에서 출생.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역임

◆ 윤관석(尹寬錫)

1954. 10. 10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권중(權重)의 맏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 현 육군 중령. 아내는 창원 황씨다.

◆ 윤관중(尹寬宗)

1939. 12. 9 본관 파평. 족보명 관병(寬炳). 호 성담(性潭). 상선(相善)의 셋째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태어남. 조선대학교 졸업. 고려시멘트(주) 대표이사. 아내는 무안 박병준(朴炳俊)의 딸이다.

◆ 윤관중(尹寬重)

1931. 12. 2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학병(學炳)의 넷째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 출신이며 1급 기능사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아내는 밀양 박금호(朴錦浩)의 딸 순덕(順德)이다.

◆ 윤광수(尹光洙)

1953. 2. 23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석기(錫記)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 대줄. 농업진흥공사 부장으로 있다. 아내는 광산김씨다.

◆ 윤국중(尹國重)

1935. 1. 27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동섭의 아들로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졸업. 1대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아내는 광산김씨다.

◆ 윤군중(尹君重)

1938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해보면 용산리에서 출생. 서울신학대학 졸업. 목사

◆ 윤근환(尹謹煥)



윤근환

1929. 1. 28 본관 해남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 농사원 시험국 연구조정과장, 농업경영연구 소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관, 식산차관보, 농업기술연구소장, 농촌진흥원장, 농협중앙회장, 농수산부장관을 지냈다.

◆ 윤기봉(尹基奉)

1958,9,28. 본관 파평. 하식(夏植)과 김해 김순례(金順禮)의 3남 2녀의 맏아들로 대동면 상옥리 출생. 현재 광주시청 과장(서기관)으로 있다.

◆ 윤기술(尹奇述)

1923. 5. 30 본관 파평. 족보명 현병(顯炳). 시조의 33세손. 상선(相善)의 맏아들. 광주사범학교 졸업. 담양한재초등학교 등 교장 역임. 아내는 무안 박창화(朴暢和)의 딸 효님(孝任)이다.

◆ 윤기성(尹奇聖)

1939. 4. 26 본관 파평. 신학대학 졸업. 목사

◆ 윤길병(尹吉炳)

1921. 8. 22 본관 파평. 시조의 33세손. 성병(成炳)의 맏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였다. 농수산부 부이사관으로 경기도농촌진흥원장을 지냈다. 아내는 전주리씨 칠균(七均)의 딸이다.

◆ 윤길전(尹吉田)

1939. 2. 16 본관 파평. 족보명 차병(次炳). 호 청전(靑田). 시조의 33세손.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태어남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광주일보 사진부장 역임

◆ 윤길중(尹吉重)

1933. 1. 14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우병의 맏아들로 엄다면 엄다리에서 출생하였다. 함평군청 계장, 엄다면장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 김행임(金幸任)이다.

◆ 윤길중(尹吉重)

1962. 12. 26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회병(會炳)의 아들로 해보면 대창리에서 출생. 고려대학교 졸업.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변호사로있다.

◆ 윤남병(尹南炳)

함평향교의 효자표창을 받았다.

◆ 윤남중(尹南重)

1938. 9. 16 본관 파평. 자 경중(景重). 시조의 34세손. 기병(奇炳)의 맏아들로 학교면 월산리에서 출생. 행복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있다. 아내는 광산 김문병(金文炳)의 딸이다.

◆ 윤대순(尹隊順)



윤대순

1909~1993 본관 파평. 상정(相程)과 광산 노모산(盧茅山) 딸로 해보면 상곡리 모평에서 태어나 여산 송원섭(宋元燮)과 결혼하여 24세 때 남편을 여의고 남매를 훌륭히 길러 주위의 귀감이 되니 함평향교에서 천하여 효열비를 세웠다.



윤대중

◆ 윤대중(尹大重)

1945. 1. 25 본관 파평. 호 평산(平山). 시조의 34세손. 후병(厚炳)과 정귀동례(鄭貴同禮)의 아들로 학교면 월산리 월봉에서

태어났으며, 목포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 국영부국신용금고 이사
로 있다.

아내는 이사관 월성 김진수(金振守)의 딸 명숙(明淑)이다.

◆ 윤도병(尹棹炳)

1932. 5. 2 본관 파평. 호 청송(靑送). 시조의 33세손. 상규(上奎)의 맏아들로 사무관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전주 리현오(理鉉午)의 딸 민순(珉淳)이다.

◆ 윤득수(尹得洙)

엄다면 삼정리에서 출생 1949. 1. 18~1952. 5. 5까지 엄다면장을 지냈다.

◆ 윤득중(尹得重)

1939. 6. 16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대흥(大興)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 해보농협 부장, 농협장을 지냈다. 아내는 상산김씨다.

◆ 윤맹술(尹孟述)

1914~1983 본관 파평. 일명 상건(上健). 호 효천(曉泉). 시조의 32세손. 자신(滋信)의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출생. 광주농업학교 졸업. 전라남도청 산림연합회 과장을 지냈다. 아내는 홍천 송세근(宋世根)의 딸이다.

◆ 윤맹식(尹孟植)

1944. 7. 20 본관 파평. 인하공대 졸업. 삼성조선소 의외부장

◆ 윤명규(尹明奎)

1951. 3. 22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갑병(甲炳)과 광산 김삼례(金三禮)의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를 졸업하였다. 현재 한국투자신탁 광주법인 영업부 지점장으로 있다. 아내는 건희옥(甄熙玉)이다.



윤명규

◆ 윤명수(尹明洙)

1952. 2. 4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종열(鍾悅)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 출신. 홍익대학교 졸업. 로켓트건설지주식회사 전무이사. 아내는 광산김씨다.

◆ 윤범중(尹汎重)

1949. 12. 3 본관 파평. 자 범식(汎植). 시조의 34세손. 항병(恒炳)의 셋째 아들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상업은행 지점장을 역임한 후 현재 동 은행 부국장으로 있다. 아내는 나주 임종인(林鍾仁)의 딸이다.

◆ 윤병남(尹炳南)

1868~1916 본관 파평. 시조의 32세손. 상기의 아들. 해보면 상곡리 모평 사람으로 집이 가난하여 나무하고 장사하고 머슴살이까지 하며 먹고 입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버이를 봉양하였다. 머슴살이로 학자금을 마련하여 아버지를 공부시켰고 아버지 병환 때 절지 주혈(切指注血)하였으며 이가원(李家源) 박사는 그의 비문에서, “머슴살이 천타 앓고 아버지 도와 글 읽혔소. 이러한 참된 효도 옛 글에도 없는 일이니 아아 함평의 윤효자 가락도 하신지고”라고 서술했다.

◆ 윤병무(尹炳茂)

1940. 본관 파평. 함평읍 장년리에서 출생. 육군 중령 예편

◆ 윤병오(尹炳五)

1936. 7. 11 본관 파평. 호 송암(松庵). 시조의 33세손. 홍복(洪福)과 제주 양맹임(梁孟任)의 맏아들로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하였고, 함평초등학교, 목포고등학교, 국



윤병오

립광주사범대학 과학과, 조선대학교 문리과 대학,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57년부터 1964년까지 여천남중, 함평중등 교사, 1971년 구례여자중학교 교감, 1982년 해남고등학교장, 1986년 목포시교육청 교육장, 1994년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1996년 전라남도교육연수원장을 역임했다. ‘한국 장학행정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이 있다. 아내는 함평 노의숙(魯義塾)과 동래 정귀분(鄭貴粉)의 딸 정자(貞子)다.

◆ 윤병주(尹炳注)



윤병주

1934. 2. 10 본관 파평. 호 우지(愚智). 시조의 33세손. 완식(浣植)과 성주 이철희(李哲姬)의 맏아들로 대동면 상옥리에서 태어났으며, 광주사범학교, 방송통신대학 2년 졸업. 1983년 낙월초등학교장, 1984년 진도교육청 장학사, 1989년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1992년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1993년 함평교육청 교육장, 1994년 화순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했다. 1981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으며 서예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내는 진주 강봉원(姜琫遠)의 딸 길순(吉順)이다.

◆ 윤병진(尹炳振)

1917. 1. 2 본관 파평. 시조의 33세손. 연식(連植)의 아들로 대동면 상옥리에서 출생. 사회사업 광주 애육원장,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광주시의원, 파평윤씨 호남종친회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해주 최준옥(崔俊玉)의 딸이다.

◆ 윤병혜(尹炳卉)



윤병혜

1941. 6. 16생 본관 파평(坡平) 호 농정(農亭) 혜식(惠植)과 영성(靈城) 정일례(鄭日禮)의 4남으로 대동면 상옥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를 역임하였으며 아내는 김해(金海) 김길선(金吉先)과 하동(河東) 정순님(鄭順任)의 3녀 복심(福心)으로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 윤상래(尹相來)

1908~작고. 본관 파평. 호 울산(栗山). 시조의 32세손. 자징(滋徵)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사거리 울동에서 출생하였다. 학다리, 학교남 등 여러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국민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김해김씨 익준(益俊)의 딸, 김해김씨 철진(喆鎭)의 딸이다.

◆ 윤상중(尹尙重)

1930. 8. 16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길병(吉炳)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 목포시에서 동장 30여년 역임. 아내는 해주오씨다.

◆ 윤석규(尹錫圭)

1948. 1. 2생 본관 파평(坡平) 병준(炳俊)과 나주(羅州) 정씨(鄭氏)의 2남으로 대동면 상옥리에서 출생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주시청,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과 견근무, 외무부 필리핀대사관 참사관, 서기관을 지냈으며 아내는 순천(順天) 박종식(朴鍾植)의 딸 수현(秀賢)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 윤석규(尹錫圭)

1949.1.15. 본관 파평. 병준(炳俊)과 금

성 정맹님(鄭孟任)의 4남 2녀 중 둘째아들로 대동면 상옥리 출생. 외교관

◆ 윤석규(尹錫圭)

1938. 10. 25 본관 파평. 자 석대(錫大). 호 춘광(春光). 시조의 35세손. 기중(奇重)의 맏아들로 해보면 모평에서 태어났다. 신학대학 졸업. 한국선교총회 신학대학교 학생처장으로 있다. 아내는 서흥 김기영(金基榮)의 딸 경남(敬南)이다.

◆ 윤석근(尹錫瑾)



윤석근

1930. 4. 28 본관 파평. 호 의정(倚汀). 시조의 35세손. 성중(聖重)과 평택 임삼차(林三次)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농촌활동 선봉자로 활동하였고, 1966년 호남 제1회 문화예술제에서 산업부문 농민도민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1975년 새마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내는 풍산 홍경식(洪敬植)과 경주 김대여(金大汝)의 딸 순자(順子)다.

◆ 윤석근(尹錫根)

1954. 3. 16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홍중(洪重)의 맏아들로 학교면 출신이며 기능사(技能士)다. 아내는 경주 정이훈(鄭二勳)의 딸 지향(址香)이다.

◆ 윤석기(尹錫基)

1947. 6. 24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달중(達重)의 아들로 해보면 대창리에서 출생. 대전시의회의원. 건설회사 사장

◆ 윤석기(尹錫基)

1952. 2. 11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연중(連重)의 아들로 해보면 용산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졸업, 데이콤회사부회장

◆ 윤석모(尹錫模)

1940. 8. 10 본관 파평. 자 영덕(榮德). 시조의 35세손. 홍중(鴻重)의 맏아들로 해보면에서 태어났으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있다. 아내는 밀양 박해정(朴海晶)의 딸 순자(順子)다.

◆ 윤석연(尹錫彦)

1924. 10. 24 본관 파평. 호 용암(龍岩). 시조의 35세손. 성중(聖重)의 맏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태어났다. 목포공업학교 졸업하고 2 개시, 6 개군의 초등학교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동래 정안모(鄭安謨)의 딸 진순(鎭順)이다.

◆ 윤석용(尹錫鎔)

1952. 1. 12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달수의 아들로 해보면 용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 서울신학대학 졸업. 목사. 아내는 남양홍씨다.

◆ 윤석윤(尹錫允)

1955. 5. 25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황중(晃重)의 아들.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졸업. 부이사관으로 인천시개발단장직에 있다. 아내는 진성이씨다.

◆ 윤석재(尹錫宰)



윤석재

1940. 6. 1생. 본관 파평(坡平) 호 문헌(文憲) 호당(湖堂) 인중(寅重)과 광산(光山) 김순례(金順禮)의 장남으로 해보면 모평에서 출생 목포사범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 전라남도 초등학교장을 역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 아내는 고흥(高興) 류병교(柳秉敎)와 광주이씨 차녀 업순(業順)으로 슬하에 1남 5녀를 두었다.

◆ 윤석조(尹錫祚)

1935. 10. 24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행중(幸重)의 아들로 해보면 대창리에서 출생. 통신공사 사장

◆ 윤석중(尹錫鍾)

1929. 9. 7 해보면 상곡리 99번지. 3사단 22연대 1대대 화기중대 하사로 근무하던 때 백마고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53. 4. 20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윤석진(尹錫鎭)

1936. 4. 29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달수(達守)의 맏아들로 해보면 용산리에서 태어남. 함평군청 계장, 해보면장을 지냈다.

아내는 창원 황덕금(黃德今)이다.

◆ 윤석진(尹錫振)

1944. 10. 17 본관 파평. 호 청림(靑林). 시조의 35세손. 기중(奇重)의 둘째 아들. 극동유공회사 회장을 역임함. 아내는 광산 김근채(金鉉采)의 딸 정애(貞愛)다.

◆ 윤석춘(尹錫春)



윤석춘

1961. 5. 8 본관 파평. 호 죽봉(竹鳳). 시조의 35세손. 익중(益重)과 광주 정판순(鄭判順)의 아들로 해보면 대창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85년

ROTC 23기로 소위에 임관 1994년 소령으로 예편하였고 건축기술사 시험에 합격했다.

아내는 김해 김영배(金泳培)와 광산 김일심(金一沈)의 딸 은주(銀珠)다.

◆ 윤석태(尹錫台)

1953. 10. 4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윤석태

귀중(貴重)과 문화 유갑순(柳甲順)의 아들로 해보면 대창리에서 출생하였고,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지질학) 학위를 받았다. 1985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1996년 영산강환경관리청 영향평가위원으로 있다.

1995년 자원환경지학회 학술논문상을 수상하였고, '대학 지구과학'(1987. 반도출판) '고등학교 지구과학Ⅱ'(1997. 법문사) 등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아내는 경주 최기신(崔基信)과 김해 김은혜(金恩惠)의 딸 명숙(明淑)이다.

◆ 윤석택(尹錫澤)



윤석택

1937. 4. 22 본관 파평. 호 강조(江照). 시조의 35세손. 호중(浩重)과 기계 유공순(兪共順)의 맏아들로 해보면 용산리에서 출생하였다.

광주사범학교, 한국방 송통신대학을 졸업하였고, 1982~1994까지 길용, 송흥, 오성 춘향 등 초등학교 교감, 1994년부터 용동, 해보중앙, 대동 초등학교장을 거쳐 현재 기산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다.

아내는 해주 최경재(崔京載)와 함평 이순오(李順五)의 딸 영자(英子)다.

◆ 윤석하(尹錫河)



윤석하

1948. 6. 28 본관 파평. 우중(雨重)과 죽산 안중희(安鍾姬)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하였고 해보초 등, 광주고등학교, 전남대공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56~1996까

지 한국유리에서 부장, 이사를 지냈고, 1997년 이사겸 한국안전유리 익산공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금성 나연주(羅季柱)와 전주 이영숙(李英淑)의 딸 명숙(明淑)이다.

◆ 윤석환(尹錫煥)

1955. 11. 17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동중(東重)의 아들로 해보면 용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졸업. 목사

◆ 윤선식(尹宣植)

1932. 5. 30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용중(鎔重)의 둘째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하였고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해보면 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다. 아내는 연일 정운한(鄭雲翰)의 딸 정임(貞任)이다.

◆ 윤수병(尹守炳)

1938. 9. 3 본관 좌평. 자 판수(判洙). 시조의 33세손.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출생. 목사로 있다. 아내는 나주 임만옥(林萬玉)의 딸 영남(永男)이다.

◆ 윤승철(尹承哲)

1966. 3. 18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보석(寶錫)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 대학졸업. 현 회계사

◆ 윤 씨(尹氏)

1857~1933 본관 파평. 일진(一鎭)의 딸. 고성 이윤칠(李潤七. 시조의 28세손. 1846~1905)의 아내. 열행(烈行)으로 삼강록에 올랐다.

◆ 윤 양(尹 錫)

1922. 5. 13 본관 파평. 자 화석(華錫). 호 성석(醒石). 시조의 35세손. 덕중(德重)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였다. 조선대학교 졸업. 3급 을류 통신기좌로 광주체신청 기술과장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 김유복의 딸 낙지(烙池)다.

◆ 윤양성(尹穰聖)

1942. 2. 20 본관 파평. 일명 형수(炯壽). 시조의 33세손. 인식(仁植)의 맏아들로 대동면 상옥리 출신. 국정원 공보보좌원으로 있다. 아내는 김해 김준(金俊)의 딸 순정(純廷)이다.

◆ 윤여경(尹汝炅)

1942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석춘(錫春)의 맏아들. 해보면 용산리에서 출생. 신학대학 졸업. 목사

◆ 윤여상(尹汝尙)

1941. 5. 25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석원(錫元)의 둘째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태어남. 공인 회계사며 한국증권사 이사로 있다. 아내는 김해 김시영(金始英)이다.

◆ 윤여선(尹汝善)

1960. 6. 20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석택(錫澤)의 아들로 해보면 출신이며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도청 과장으로 있다.

◆ 윤여성(尹汝誠)

1947. 5. 28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양(錫)의 맏아들로 해보면 출신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계리사(計理士) 자격증을 획득 계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아내는 여주 이석득(李石得)의 딸 영순(英順)이다.

◆ 윤여안(尹汝安)

1948. 8. 15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석원(錫元)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 고려대학교 졸업. 현 동안건설주식회사 전무. 아내는 강릉유(劉)씨다.

◆ 윤여은(尹汝垠)

1945. 5. 27 본관 파평. 호 매제(梅齊).



시조의 36세손. 석순(錫淳)의 맏아들. 해보면 상곡리에서 태어났으며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제1대 함평군의원 당선. 2대 군의회 의장을 지냈다. 아내는 강릉 유봉훈(劉鳳勳)의 딸 효희(孝熙)다.

◆ 윤여운(尹汝潤)

1947. 2. 19 본관 파평. 호 임천(林泉). 시조의 36세손. 석언(錫彦)의 맏아들로 해보면 상곡리 출신이다. 제일은행지점장으로 있다.

아내는 철성 이종훈(李種燾)의 딸 수오(秀五)다.

◆ 윤여홍(尹汝洪)

1934. 5. 11 본관 파평. 호 경남(耕南). 시조의 36세손. 석정(錫正)의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에서 출생하였다.

엄다면장을 역임하였으며 아내는 풍산 임씨 순호(順鎬)의 딸이다.

◆ 윤 영(尹 瑛)



윤 영

1955. 3. 25 본관 파평. 호 일송(一松). 시조의 34세손. 형병(炯炳)과 정현순(鄭賢順)의 맏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출생하였고, 엄다초등학교, 선린상업고등학교, 한

성대학을 졸업하고 대한교육보험 이사로 현재 경인지역 총본부장이다.

아내는 남양 홍영근(洪永根)과 김해 김혜경(金惠卿)의 딸 성란(性蘭)이다.

◆ 윤영관(尹永官)

1942. 5. 12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하중(河重)과 제주 양길남(梁吉南)의 아들로 해보면 대창리에서 출생하였고, 광주송일고등학교,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96~1998년까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동산학과



윤 영 관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1982년 한미자동차학원 원장, 1997년 동학원 대표 이사로 일하고 있으며 1991~1995년 사단법인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아내는 안동 권중순(權重淳)과 전주 이금성(李金成)의 딸 태현(泰賢)이다.

◆ 윤영병(尹英炳)

1857~1933 본관 파평. 자 준병(俊炳). 호 춘강(春江). 시조의 33세손. 상목(相睦)의 아들로 해보면 모평에서 태어났고 기송사(奇松沙)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유고집을 발간하였는데 서문은 오동수(吳東洙)가 썼다. 아내는 함평이씨 정현(正憲)의 딸이다.

◆ 윤영석(尹永錫)

호 운당(雲堂). 한국화가. 대동면 상옥리 출생으로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를 나왔다.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 윤영수(尹永洙)

1954. 1. 18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종열(鍾悅)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 출신. 연세대학교 졸업. 선경그룹 부장. 아내는 광산김씨다.

◆ 윤영재(尹永在)

1950. 3. 23 본관 파평. 시조의 33세손. 상렬(相烈)의 셋째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동원탄좌 구매부장으로 있다.

아내는 영천 허동신(許東信)의 딸 영숙(永淑)이다.

◆ 윤영환

1946. 2. 22 학교면 월산리 275번지. 해병 27중대 병장으로 월남전에서 공을 세워

1968. 4. 15 인헌무공훈장을 받았다.

◆ 윤완중(尹完重)



윤완중

1920. 7. 23~작고. 본관 파평. 호 청파(淸波). 시조의 34세손. 후병(厚炳)의 넷째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였다.

해보면장, 광주시 임동동장, 함평군농지개발조합장,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장, 전남지적협회장 등을 지냈다. 아내는 경주 최기창(崔基昌)의 딸 예진(禮鎭)이다.

◆ 윤왕중(尹旺重)

1958. 10. 12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병주(炳注)의 맏아들로 대동면 상옥리 출신. 서울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음. 전남대학교 교수로 있다. 아내는 해주 오시권(吳時權)의 딸이다.

◆ 윤용명(尹龍明)

1943. 2. 6 본관 파평. 호 청암(靑菴). 시조의 33세손. 상만(相晩)의 다섯째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태어남. 성우개발 대표이사로 있다. 아내는 여산 송영의(宋榮儀)의 딸이다.

◆ 윤용병(尹用炳)

1925. 4. 18 본관 파평. 호 성암(晟菴). 시조의 33세손. 상술(相述)의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출생. 금성화랑무공훈장, 무성화랑무공후훈장을 받았으며 상이군경회 함평군지회장을 역임했다.

◆ 윤용상(尹龍相)

1935. 1. 30 본관 파평. 대동면 상옥리에서 출생. 대졸. CBS광주방송국 총국장 역임.

◆ 윤용혁(尹用赫)

1920. 5. 5생 본관 파평(파평) 한경(漢京)과 청풍김씨(淸風金氏)의 3남으로 함평읍 자풍리에서 출생 함평군내 행정계와 교육계를 근무하다 신광초등학교장을 역임 홍조근정훈장과 국민포장을 전수하였다.

◆ 윤우중(尹雨重)



윤우중

1929. 6. 9 호 초원(草原). 시조의 34세손. 서병(瑞炳)과 인동 장양곡(張良谷)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하였으며 광주사범학교,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52~1962년 월야북초등, 해보초등학교 등 교장, 1962~1972년 함평, 영암, 영광군교육청 장학사, 1972년 함평교육청 학무과장, 1977~1988년 함평중, 흥농중학교 등 교장, 1988~1993년 함평, 구례교육청 교육장을 지냈으며 현재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1990년에 함평군민의 상, 1994년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아내는 죽산 안기철(安基喆)과 고흥 유대안(柳大安)의 딸 중희(鍾姬)다.

◆ 윤원병(尹元炳)



윤원병

1924. 12. 20 본관 파평. 호 인보(仁步). 시조의 33세손. 복현(福現)과 함평 이순임(李順任)의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에서 출생하였고, 충남강경상업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삼학산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전무, 1974~1990년 대일물산 사장, 1997년부터 (주)공항타운컨설팅 회장으로 있다.

아내는 진주 강영암(姜永岩)과 달성 서차전(徐且全)의 딸 정구(貞求)다.

◆ 윤원중(尹沅重)

1930. 12. 5 본관 파평. 호 해성(海星). 시조의 34세손. 학병(鶴炳)의 셋째 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하였다. 해군사관학교 졸업. 해군 중령으로 예편하였고 기업인이다. 아내는 문화 유근영(柳根榮)의 딸 금산(錦山)이다.

◆ 윤원중(尹源重)

1945. 12. 15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병진(炳振)의 셋째 아들로 대동면 상옥리 출신. 현재 15대 국회의원으로 있다. 아내는 경주 최기섭(崔琪燮)의 딸이다.

◆ 윤은중(尹銀重)



윤은중

1942. 7. 10 본관 파평. 호 묵여(墨汝). 시조의 34세손. 후병(厚炳)과 경주 정귀동례(鄭貴同禮)의 맏아들로 학교면 월산리 월봉에서 태어났다.

목포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60년 보통고시에 합격하여 충무처 사무관, 1985~1992년까지 부이사관으로 감사원 기획과장, 제1국 1과장, 1993~1996년까지 이사관으로 공보관, 교육실장, 제3국장을 지냈고, 1996년 관리관으로 승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고 1997년부터 감사원 제2사무차장(차관보급)으로 있으며, 1981년 마패상(馬牌賞), 1982년 대통령 표창, 1988년 홍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국가 감사체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다수 논문이 있다.

아내는 군수를 지낸 강릉 김진석(金振錫)과 제주 고오순(高五順)의 딸 숙자(淑子)며 국립의료원 사무관을 역임하였다.

◆ 윤의병(尹誼炳)

1886~1958 본관 파평. 자 백언(伯彦). 호 동하(東下). 시조의 33세손. 상구(相龜)의 맏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하였다. 기우만의 문하생이며 제1차 항일의병봉기 때 스승 기우만과 거의를 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산 속에 살면서 고종이 승하하자 “왜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지 못하면 상복을 벗지 말라.”는 통문을 전국 각지에 보냈다. 이후 체포되어 목포 옥에 갇혔으나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였고 조선총독에게 장문의 글을 보내 그 글이 주효하여 석방되었다. 그러나 종신토록 백립(白笠)을 벗지 않았다. 아내는 영천이씨 진익(鎭翊)의 딸이다.

◆ 윤의수(尹義洙)

1950. 3. 7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석기(錫記)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 대학원 졸업. 공주사범대학 교수. 아내는 경주정씨다.

◆ 윤이중(尹二重)

1947. 10. 6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병언(炳彦)의 둘째 아들로 학교면 출신.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아내는 밀양 박종교(朴鍾校)의 딸이다.

◆ 윤익수(尹益洙)

1953. 11. 30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석의(錫義)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 대학원 졸업. 현 쌍용그룹 실장. 명예회장

◆ 윤인상(尹仁相)



윤인상

1925. 12. 3 ~ 2007. 1. 6. 본관 파평(波平) 호 노송(老松) 태연(泰淵)의 장남으로 대동면 상옥리에서 출생 학교면 의회의원 역임, 함평군초대국악협회장과 사회복지법인 함평삼애원 대표이사, 옥

천산업 대표이사, 함평농수산 대표이사
역임 중 상공부장관표창을 받았으며 아
내는 천안(天安) 전유진(全惟鎭)의 딸
점순(点順)이다.

◆ 윤인식(尹仁植)



윤인식

1922. 9. 23 본관 파평. 시조의 32세손.
태인(泰彦)의 맏아들
로 대동면 상옥리 옥
동에서 출생. 중앙신
학교 사회사업과 졸
업. 함평 삼애원(三愛
園. 고아원) 설립 초
대원장. 1~2대 도의원 당선, 부의장. 7,
8, 9, 10대 국회의원 당선, 국회내무분
과, 문공분과 위원장 역임. 세계기독교
반공연맹이사장. 한국국민당 부총재 등
을 지냈다. 아내는 풍천 임내오(任乃午)
의 딸이다.

◆ 윤일중(尹鎰重)

1939. 2. 1 본관 파평. 자 종일(鍾鎰). 호
인송(仁松). 시조의 34세손. 항병(恒炳)의
맏아들. 중앙대학교 졸업. 인천성일공업 대
표이사로 있다. 아내는 밀양 박창호(朴昌
浩)의 딸이다.

◆ 윤자필(尹滋弼)

1861~1914 본관 파평. 호 양숙(良淑). 시
조의 31세손. 행진(行進)의 아들. 학교면
사거리 율동 출신. 학행과 효행으로 천거
되어 사헌부 감찰을 서임(敍任)했다. 아내
는 금성 정진교(丁晋教)의 딸이다.

◆ 윤재병(尹在炳)

1910~1951 본관 파평. 일명 병철(炳澈).
시조의 33세손. 남식(南植)의 셋째 아들로
대동면 상옥리에서 출생.
광주고보 4학년 때 광주학생운동에 가담하
여 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어 금고 4월, 5년
간의 형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
아내는 전주 리돈성(李敦性)의 딸이다.

◆ 윤재선(尹載善)



윤재선

1954~1990 본관 파
평. 호 유달(儒達). 시
조의 34세손. 후병(厚
炳)과 경주 정귀동례
(鄭貴同禮)의 아들로
학교면 월산리에서 출
생하여 한국외국어대
학교를 졸업하였다.
1980년 안기부 부설 국제문제연구소 연
구보조원, 198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입
사하여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과로로 순
직하였다.
아내는 하동 정찬홍(鄭燦弘)의 딸 문규(文
圭)다.

◆ 윤재철(尹在哲)

1960. 6. 20 본관 파평. 석택(錫澤)과 해
주 최영자(崔英子)의 아들로 해보면 용산리
에서 출생하였고, 사례지고등학교, 성균
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옥크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5년 제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1985년 광주시청 교통기획계장, 서기관
으로 승진하여 법무담당관, 1993년 환경
건설행정과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무안
박석천(朴錫千)과 전주 이금자(李今子)
의 딸 현숙(賢淑)이다.

◆ 윤정부

함평읍. 1983년 체육부문 함평군민의 상
을 받았다.

◆ 윤정섭(尹正燮)

1949. 7. 9 본관 파평. 고려대학교 졸업.
동양맥주 판매부장

◆ 윤정수(尹檉洙)

1947. 9. 17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종열(鍾悅)의 맏아들로 해보면 상곡리
출신. 서울중앙대학교 졸업. 영신증권회
사 지부장. 아내는 청송심씨다.



◆ 윤정중(尹正仲)

1944. 4. 1 본관 파평. 자 정일(正一). 시조의 33세손. 상렬(相烈)의 둘째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출생. 신학대학 졸업. 광주 중흥교회 목사로 있다. 아내는 김해 김상홍(金相洪)의 딸 정심(貞心)이다.

◆ 윤종규(尹鍾圭)

1929~작고.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준병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 해보면장(1969. 9. 18~1974. 2. 16)을 지냈다. 아내는 전주리씨다.

◆ 윤종률(尹鍾律)

1955. 8. 1 본관 파평. 시조의 35세손. 기중(奇重)의 셋째 아들로 한국경제신문사 비즈니스과장으로 있다. 아내는 제주 양동춘(梁東春)의 딸 난(蘭)이다.

◆ 윤종열(尹鍾悅)

1924. 9. 29 본관 파평. 호 화원(和園). 시조의 35세손. 호중(豪重)의 맏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태어났다.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고 5개 군 경찰서장, 여수시, 광주시, 인천시경찰서장을 지냈다. 아내는 전 국회의원 황주변진갑(邊鎭甲)의 딸 효순(孝順)이다.

◆ 윤종일(尹鍾一)



윤종일

1953. 1. 5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효중(孝重)과 여산 송순정(宋順貞)의 아들로 대동면 상옥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언론 정보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전국청년약사회장, 사회복지법인 세광원 이사,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환경특위위원, 예산결산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의 동대문갑지구당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은진 송금순(宋錦順)이다.

◆ 윤중형(尹鍾亨)



윤중형

1955. 3. 28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흥성(興成)과 함평 모경순(牟敬順)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하였다.

1998년 6월 제3대 함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

었다.

아내는 여양 진영남(陳永男)과 밀양 박일순(朴一順)의 딸 정임(正任)이다.

◆ 윤준병(尹駿炳)

1934. 11. 8 본관 파평. 시조의 33세손. 상훈의 셋째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졸업. 농수산부 서기관으로 종차시험장 역임하고 현재 축협중앙회 이사로 있다. 아내는 전주 최낙필(崔洛弼)의 딸 순자(順子)다.

◆ 윤창수(尹昌洙)

1962. 4. 20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종열(鍾悅)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 출신. 서울대학교 졸업. 경동주식회사 이사. 아내는 밀양손씨다.

◆ 윤창중(尹倉重)



윤창중

1940. 9. 24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한병(漢炳) 진주 정양금의 아들로 해보면 대창리에서 출생하였고, 월야초등학교,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육군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였고, 1987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였으며 파평윤씨 수원화수회 부회

장을 맡고 있다.

아내는 안동 권성욱(權星旭)의 딸 양순(良順)이다.

◆ 윤 철(尹 鐵)

1926. 9. 20 본관 파평. 자 원철(元鐵). 호 성재(醒齋). 시조의 35세손. 계중(繼重)의 맏아들로 해보면 출신이다. 전남매일신보 편집국장, 광주은행 상무이사를 지냈다. 아내는 고흥 유기대(柳基大)의 딸 종례(鍾禮)다.

◆ 윤춘수(尹春洙)

1948. 12. 9 본관 파평. 시조의 36세손. 종열(鍾悅)의 아들로 해보면 상곡리 출신. 고려대학교 졸업. 화천기업주식회사 이사

◆ 윤충일(尹忠一)

1939. 11. 22 본관 파평. 일명 학중(鶴重). 시조의 34세손. 정병(貞炳)의 맏아들로 엄다면 엄다리 성산에서 출생. 엄다면 장을 지냈다. 아내는 밀양 박학석(朴學錫)의 딸이다.

◆ 윤치선(尹致璿)

본관 파평.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함평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는 1920년 3월 19일 조사현, 송대호, 정기연, 김용언, 정영조 등이 함평보통학교 기숙사에 모여 3월 26일 졸업식이 끝나고 함평장터에서 함평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합의 하고 준비를 하여 당일 만세운동의 거사를 이루었다. 당일 그와 20여명이 체포되고 목포지청으로 이송되어 8개월 징역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루었다.

◆ 윤치영(尹致榮)

본관 파평. 함평읍에서 출생. 함평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는 1920년 3월 26일 함평만세운동 거사에 함평읍 책임자로 뽑혀 활동하였다.

◆ 윤태완(尹泰完)

1903~작고. 본관 파평. 시조의 31세손. 치만(致萬)의 셋째 아들로 대동면 상옥리에서 출생. 1920. 4. 26 함평만세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다.

아내는 나주 임귀상(林貴相)의 딸이다.

◆ 윤태중(尹泰重)



윤 태 중

1949. 1. 11 본관 파평. 호 사공(沙工). 시조의 34세손. 후병(厚炳)과 경주 정귀동례(鄭貴同禮)의 셋째 아들로 학교면 월산리에서 출생하였고, 목포고등학교 졸업, 1993년 제1회 독학사시험에서

법학사를 받았다.

1978년 총무처 조직 1과 상훈과 근무, 1987년 제7회 공개경쟁승진시험(公開競爭昇進試驗)에 합격하여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윤리담당관실, 전자계산소 과장, 1996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행정능률과, 복무담당관직을 역임하였고, 1983년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 표창, 1993년 근정포장을 받았으며, 저서로 “상훈관계 법령 연혁집”(1988. 총무처), “공직자 윤리 법령 해설집”(1993. 총무처)이 있으며, 아내는 능성 구건(具健)과 청주 한상순(韓相順)의 딸 인희(仁姬)다.

◆ 윤 표(尹 杓)



윤 표

1942. 4. 14 본관 파평. 호 경산(耕山). 시조의 32세손. 자후(滋厚)와 나주 임필례(林畢禮)의 아들로 엄다면 엄다리에서 출생하였고, 엄다초등학교,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원을수료하였으며, 1964년 함평군 4H연합회장, 1, 2대 함평군의원 당선, 1995

년 4대 군의회 의장, 민주평통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장을 역임했다.

1996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아내는 무안 박예상(朴禮相)과 장흥 고봉월(高峰月)의 딸 순남(順南)이다.

◆ 윤필중(尹弼重)

1918. 1. 19 본관 파평. 호 청파(淸波). 시조의 34세손. 우병(宇炳)의 맏아들로 해보면 용산리 출신.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용산, 중부, 종로경찰서장, 서울시경 경무국장 등을 지냈다.

◆ 윤필중(尹弼重)

1946. 4. 18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지병(之炳)의 맏아들로 해보면 출신으로 육군 대령을 역임함. 아내는 초계 최복순(崔福順)이다.

◆ 윤하중(尹河重)



윤 하 중

1918~작고.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기병(起炳)과 경주 김나산(金羅山)의 아들로 해보면 대창리에서 태어났으며, 1933년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1941년 경성사범학교

연습과, 19

45년 동 학교 본과를 졸업했다.

1941년 월야초등학교 훈도, 1952년 송정동초등학교 교감, 1954~1958년 보성, 나주군교육청 등 장학사, 1964년 함평군교육청 학무과장, 1969년 함평군교육청 교육장, 1973~1981년까지 문평, 동강, 대마중학교 등 교장을 역임하였고, 1960년과 1963년에 대통령 면려포장을 받았다. 아내는 제주 양경행(梁京行)과 남주 최복실(崔福實)의 딸 길남(吉男)이다.

◆ 윤한식(尹漢植)

1927. 5. 15 본관 파평. 시조의 32세손.



윤 한 식

태언(泰彦)과 정기요(鄭淇堯)의 둘째 아들로 대동면 상옥리에서 출생하였고, 목포고등성경학교, 자유중국동방신학교 졸업. 미국 솔로몬대학 명예문학박사.

1944년 목포우체국 사무원, 195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삼애원장을 지내고 있으며, 사회활동으로는 1985년 사회정화 함평군협의회회장, 1996년 법무부 선도보호위원을 역임했고, 아동문학가며 국제펜클럽회원이다. 1980년 대통령 표창, 1983년 함평군민의 상,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고, 전남 아동문학상, 한국아동문학작가상, 한국아동문화대상, 세계계관시인상, 한국글사랑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아동문학회 부회장, 전남아동문학회장, 한국문협함평지부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역임. 저서로는 동화집 『피리부는 나무들』 『하늘사다리』 동시집 『어머니의 바느질』 『장미아가씨』 위인전기 『페스타로찌』 자서전 『동원의 황혼길』 등 수많은 저서가 있다. 아내는 영성 정흥원(丁興元)과 김질순(金質順)의 딸 영희(永熙)다.

◆ 윤항병(尹恒炳)

1911. 12. 2~1969 본관 파평. 호 송포(松圃). 시조의 33세손. 상만(相晩)의 아들로 엽다면 엽다리 성산에서 출생.

광주농업학교 졸업. 전라남도청 감사과장, 광주부시장을 지냈다.

아내는 반남 박시양(朴時陽)의 딸이다.

◆ 윤항식(尹恒植)

1855~1916 본관 파평. 처음 이름 상태(相泰). 자 공삼(公三). 호 추당(秋塘).

시조의 32세손. 자복(滋福)의 양아들. 생부 자대(滋大). 해보면 상곡리에서 출생. 면암 최익현(崔益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여

러 번 천거되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직제학 민병승(閔丙承)의 서문이 있는 “추당유고”가 발간되어 전한다.
아내는 광산김씨 평시(坪市)의 딸이다.

◆ 윤해병(尹海炳)

1931. 11. 7 시조의 33세손. 상훈(相勛)의 둘째 아들로 목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흥은행 이촌, 안국동지점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밀양 박오남(朴五男)의 딸 정희(正姬)다.

◆ 윤해중(尹海重)

1944. 5. 30 본관 파평. 시조의 34세손. 기병(箕炳)의 셋째 아들로 학교면 월산리 월봉에서 출생하였고, 한국외국어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였고 외무고시에 합격하였다.
외무부 사무관, 동북아 2과장, 주일한국대사관 참사관(參事官), 주중상해 총영사와 인천시 자문대사를 지내고 현재 주일본국 공사로 있다. 아내는 김해 김홍길(金鴻吉)의 딸 명희(明姬)다.

◆ 윤행식(尹行植)



윤 행 식

1952. 10. 15생 본관 파평(坡平) 태숙(泰淑)과 함평(咸平) 이계순(李啓順)의 3남으로 함평군 대동면에서 출생 광주대학교를 졸업 대동면장, 함평군의회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아내는 광산(光山) 이계휴(李喆休)와 金今禮의 장녀 형희(炯姬)이다.

◆ 윤 현(尹 鉉)

1933. 7. 18 본관 파평. 자 현철(鉉哲). 호 연정(蓮汀). 시조의 35세손. 계중(繼重)의 둘째 아들로 해보면 출신이며 사무관(事務官)을 지냈다. 아내는 탐진 최

씨 달봉(達鳳)의 딸이다.

◆ 윤현대(尹鉉大)

본관 파평. 엄다면 삼정리에서 출생 1964. 4. 1~1966. 2. 3까지 엄다면장을 지냈다.

◆ 윤현중(尹鉉重)

해보면 용산리. 함평향교의 효자표창을 받았다.

◆ 윤형기(尹炯基)

1954. 7. 10 본관 파평. 시조의 33세손. 인식(仁植)의 셋째 아들로 대동면 상옥리 출신. 대학원 졸업. 공학 박사.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재생에너지본부장,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환경전문위원을 지냈다. 아내는 경주 최운산(崔雲山)의 차녀 문숙(文淑)이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을 졸업하였다.

◆ 윤형숙(尹炯淑)

1952. 1. 14생 본관 파평(坡平) 인식(仁植)의 4남 3녀중 3녀로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영문학 학사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인류학 석·박사. 현재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장, 제23대 한국여성학회 회장 역임. 남편은 안국신으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 윤형신(尹炯信)

1965. 10. 3 시조의 33세손. 한식(漢植)의 둘째 아들로 대동면 상옥리에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내과전문의. 현재 여수윤내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내는 함평 노진수(魯鎭洙)의 딸 성희(性希)다.

◆ 윤형의(尹炯義)

1957. 5. 23 본관 파평. 시조의 33세손. 한식(漢植)의 맏아들로 대동면 상옥리에서



태어남.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아시아 나항공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진주 강철중(姜喆중)의 딸 지연(지연)이다.

◆ 윤홍순(尹洪巡)

1909. 6. 30 나산면 수하리. 전남도지사의 효부표창을 받음

◆ 윤홍중(尹洪重)

1926 본관 파평. 호 성촌(星村). 시조의 34세손. 학병(鶴炳)의 맏아들로 엽다면 엽다리 성산에서 추생하였다.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북도청 과장, 보은, 단양, 음성, 천원군 부군수를 역임하였다. 아내는 풍산 홍연희(洪鍊熹)의 딸 기은(起恩)이다.

◆ 윤희중(尹熙重)



윤 희 중

1944. 4. 21생. 본관 파평(坡平) 호 일송(一松) 용혁(用赫)과 김옥례(金玉禮)의 장남으로 함평에서 출생 목포교육대학을 졸업 화산남초등학교장을 역임 아내는 상산(尙山) 김진호(金鎭鎬)와 승기례의 차녀 순덕(順德)이다.

◆ 이가상(李佳相)

1959. 5. 26 본관 양성. 시조의 27세손. 기철(基澈)의 맏아들. 성균관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 목사

◆ 이갑수(李甲洙)

본관 함평. 1911. 1. 10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서울 중동중학교 졸업. 1대도의원을 지냈다.

◆ 이갑조(李甲祖)

본관 경주. 나산면 덕림리에서 출생

1948~1949년까지 나산면장을 지냈다.

◆ 이갑헌(李甲憲)

1949. 10. 1 본관 함평. 시조의 26세손. 민선(민선)의 맏아들. 대동면에서 출생하였고 현재 서기관(書記官)으로 있다.
아내는 청주 양무석(梁武錫)의 딸 철옥(徹玉)이다.

◆ 이강범(李康範)

본관 함평
월야면에서 태어남. 서울특별시에서 중고등학교장을 역임함.

◆ 이강산(李江山)

1874~1910. 6. 6 본관 함평. 일명 돈익(敦益). 자 인국(仁國). 시조의 25세손. 효서(孝緒)의 아들로 월야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본래 상업에 종사하였다. 그는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위국진충(爲國盡忠)을 못 한다면 누가 대장부라 하리오”라는 노래를 지었고, 가지고 다니는 칼에도 “위국진충”을 새겼다.

그는 각 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김태원(金泰元)의 막하에서, 다음에는 조경환(曹景煥)과 함께 항일전을 펴다가 전해산(全海山) 부대와 합류하여 전공을 세웠으나 전해산의 부대가 해산하자 1909년 7월 하순 박치일, 양창국 등 20여명과 독립 부대를 창설하여 대장이 되었고 불갑산을 근거지로 함평, 영광군 등을 중흥하며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날이 갈수록 왜적들은 악랄해지고 그의 가족들에게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헌병 밀정들의 횡포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1909년 8월 29일(음 7. 14) 대야면 내정리(현 월야면) 산중에 잠입해 있을 무렵 나주 헌병대 구밀(求密. 현 해보면 문장리 귀밀-歸密) 파견소의 악질 밀정 이판안(李判安), 김정태(金正泰), 최치도(崔致道), 박복남(朴福男) 네명이 구밀에서 주막을 경영하는 이양삼(李良三)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평소 소행에 대한 원한을 씻기 위해 쟁기의 파편과 몽둥이를 들고 급습하여 이판안, 김정태, 최치도는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고 박복남은 내정리의 산속으로 연행하여 자결하게 하였다. 조국을 배반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 준 것이다. 이 때 합세한 의병은 박치일(朴致一. 월야면 출생. 29세), 정인술(鄭寅述. 월야면. 36세), 박장봉(朴章奉. 해보면. 30세), 서성학(徐成學. 월야면. 46세), 양창국(梁昌國. 36세), 박병수(朴炳洙) 등 8명이었다.

그와 위의 박병수를 제외한 5명이 함께 체포되어 1909년 12월 25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모살죄로 교수형이 언도되었고 항소하였으나 1910년 3월 8일 대구공소원에서 기각되어 원심대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리하여 1910년 6월 6일 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월야의 6의사(六義士)라 후세들이 추앙하고 있으며 37세의 나이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그의 장한 얼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 12월 13일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고 해보면 금덕리 묘소에는 목포원호지청 주관으로 묘비가 세워졌다.

아내는 진주 강찬중(姜贊仲)의 딸이며 후사(後嗣)가 없으므로 손녀인 이금순(李今順)이 제사를 모시고 있다.

◆ 이강산(李江山)

대동면 향교리에서 태어남
1952. 5. 5~1952. 10. 13까지 대동면장을 역임했다.

◆ 이건강(李建康)



이 건강

1963. 7. 7 본관 함평. 시조의 31세손. 판행(判行)과 진주 정용례(鄭龍禮)의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89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입사하였고 토모시공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아내는 전주 이윤국(李倫鞠)과 경주 김안순(金安順)의 딸 미정(美貞)이다.

◆ 이건교(李建敎)

나산면 초포리.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이건길(李建吉)

1925. 5. 21 월야면 용암리 256번지. 수도사단 26연대 3대대 11중대 하사로 근무하던 때 금화 오성산 전투에서 큰공을 세워 1954. 4. 4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이건리(李建莅)



이 건 리

1963. 6. 11 본관 함평. 단행(丹行)과 선산 김기임(金奇任)의 맏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제26회 사법고시 합격하여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현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부장검사)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김해 김영관(金永寬)과 김해 허경자(許敬子)의 딸 연희(妍姬)다.

◆ 이건명(李建命)



이 건 명

1956. 1. 8 본관 함평. 시조의 29세손. 성범(成範)과 고흥 유재옥의 아들로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하였고, 서울중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慶尙)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남원 윤홍섭(尹洪燮)의 딸 재경(載景)이다.

◆ 이진명(李建明)

1968. 1. 1 본관 함평. 시조의 31세손. 양행(仍行)과 광주 정복희(鄭福熙)의 아들로 손불면 양재리에서 태어났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학사, 석사, 컴퓨터과학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원 연구원, 1996년 미국 Park Scientific Instruments 연구원, 1996년 9월부터 충북대학교 조교수로 있다.

아내는 학성 이석근(李錫根)과 월성 이말순(李末順)의 딸 경미(京美)다.

◆ 이진성(李建成)

1936. 4. 14 본관 함평. 용근(龍根)의 셋째 아들.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대졸. 광주세무서 직세과장을 지냈다.

아내는 영월 신휘철(辛徽哲)의 딸 경란(敬蘭)이다.

◆ 이진업(李建業)



이진업

1957. 6. 11 본관 함평. 시조의 31세손. 판행(判行)과 진주 정용례(鄭龍禮)의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하였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박사 과정을 이수 중이다.

광주 화정동에서 이진업한의원을 개업하였다. 아내는 해주 오해기(吳海基)와 서산 유남순(柳南順)의 딸 춘희(春姬)다.



이진영

◆ 이진영(李建榮)

1915. 4. 14 본관 함평. 제행(堤行)의 맏아들. 대동면 강운리에서 태어남. 만주신경공학원졸업. 1960년까지 전남도경정치문화담당

관 및 보성, 함평, 광산경찰서장을 역임하였고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전남지부 사무국장, 1977~1983년 주식회사 광진교통 대표이사를 지냈다. 아내는 전의 이원하(李源河)의 딸이다.

◆ 이진일(李建鎰)

본관 함평.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함. 목포도시가스 사장.

◆ 이진조(李建朝)

1951.4.8.본관 함평. 대행(大行)과 김해 김묘덕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출생하였고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졸업, 제 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전남도청, 중앙청을 거쳐 인천광역시 건설국장, 계양구부청장, 부평시 부시장 역임. 아내는 신천 강상규(康相奎)의 딸 영덕(永德)이다.

◆ 이진창(李建唱)

1951.4.26. 본관 함평. 대행(大行)과 김해 김묘덕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태어났으며 동국대학교 수학과, 대학원 졸업, 이학박사, 현재 동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청주 한남홍(韓南洪)의 딸 진옥(珍玉)이다.

◆ 이진철(李建哲)

1957.1.22.본관 함평. 대행(大行)과 김해 김묘덕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태어났으며 원광대학교 체육학과, 대학원 졸업, 이학박사. 현재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순천 성기수(成基洙)와 진주 강순이의 딸 미숙(美淑)이다.

◆ 이진철(李建哲)

1944. 4. 11 본관 함평. 용근(龍根)의 넷째 아들. 나산면 초포리에서 태어남.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아내는 밀양 박기동의 딸 호순(好順)이다.

◆ 이건택(李建澤)



이 건 택

1954. 9. 26 본관 함평(咸平) 호 성심(城心) 난수(鸞洙)와 달성(達城) 배명자의 차남으로 함평군 함평읍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를 졸업 함평군청과장, 해보면장, 학교면장, 손불면장, 월야면장등을 역임하고, 현재 함평읍장으로 재직 중이며 아내는 광산(光山) 김순만과 이계순의 차녀 화순(和順)이다

◆ 이건풍(李建豊)

1919. 2. 16 본관 함평. 전교 근행(謹行)의 아들. 함평향교 전교 역임. 아내는 밀양 박종관(朴鍾館)의 딸 춘심(春心)이다.

◆ 이건행(李建行)

본관 함평. 월야면 방하에서 출생. 광주광역시에서 동장을 지냈다.

◆이건호(李建昊)

1963.4.17. 본관 함평. 남행(南行)과 평강 채인순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태어났으며 경희대학교 한의대, 서울대학교 한의 대학원 졸업, 한의학박사. 현재 뉴욕 코넬대 의과대학교 교수. 아내는 옥천 조준근과 전주 이복순의 딸 경임이다.

◆ 이건홍(李建洪)

1936. 4. 15 본관 함평
나산면 초포리에서 추생. 서울 금광운수 사장

◆ 이건환(李建煥)

1947. 7. 28 본관 함평
나산면 구산리에서 출생. 육군삼사관학교 졸업. 육군중령으로 있다.

◆ 이건회(李建會)

1943. 2. 16 본관 함평. 자 상구(尙久) 덕

행(德行)의 셋째 아들. 함평읍에서 태어남. 육군 중령 예편. 국방부 정보처에서 사무관을 역임함. 아내는 함평 노관숙(魯官塾)의 딸 영자(永子)다.

◆ 이경모

1928. 5. 24 엄다면 화양리 93번지. 육군 소속 하사로 근무하던 때 강원도 철원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54. 12. 4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리경배(李耕培)

1943. 10. 25 본관 전주. 인찬(寅燦)의 맏아들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박사.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 교수

◆ 이경범(李景範)

1955. 12. 18 본관 함평. 계탁(啓鐸)과 창녕 조윤임(曹允任)의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출생하였고, 1987년 조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지방자치부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광산 김광희(金光嬉)다.

◆ 이경식(李景植)

작고. 본관 원주. 함평읍 기각리. 제생병원장. 1985년 지역사회봉사부문 함평군민의상을 받았다.

◆ 이경엽(李炅燁)

1960. 4. 19 본관 함평. 호 의재(義齋). 오범(五範)의 아들. 월야면 정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문의. 전남대학교부속병원 근무.

◆ 이경우(李景雨)

1922. 8. 3 본관 경주.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생. 고졸. 12대(1950. 9. 11~1950. 5. 5), 17대 신광면장(1960. 6. 30~1973. 5. 31),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역임.



◆ 이경자

대동면. 1992년 도의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이경헌(李敬憲)

1860~1910 본관 함평. 자 내중(乃仲). 호 후암(厚菴). 시조의 26세손. 돈수의 둘째 아들. 사헌부 감찰을 지냈으며 아내는 양성 이중언(李重彦)의 딸이다.

◆ 이경훈(李京勳)

1936. 7. 13 본관 함평. 일명 기행(基行). 재두(載斗)의 맏아들.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회계과 수료. 재무부, 국세청 근무, 순천, 남광주, 전주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간세국장, 서울 효계세무서, 중량세무서장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 오근열(吳根烈)의 딸 윤정(倫旌)이다.

◆ 이계국(李啓國)

1936. 9. 16 본관 함평. 정헌(正憲)의 아들.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고흥, 함평, 영암, 완도 등 전매서장. 전매공사 목포지점장을 역임함. 아내는 최정례(崔正禮)다.

◆ 이계동(李啓東)

1893~작고. 본관 함평. 호 월담(月潭). 창헌(昌憲)의 아들
월야면 용정리에서 출생. 을사보호조약 이후 기경로(奇敬老) 의병의 항전 대열에 가담하여 단발령 불복 저항. 1919년 이인행(李仁行)등 19명과 함께 4월 8일 문장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다 고막이 터져 청각 장애인이 되었으며 형 집행유예 2년 8월을 선고받았다.
함평공원, 해보면 문장리 삼일 의거탑에 이 사실이 적혀 있다.
아내는 영성정(丁)씨다.

◆ 이계문(李啓文)

1935. 4. 4~1982 본관 함평. 시조의 27세손. 종헌(宗憲)의 아들. 함평읍 기각리에서 태어남.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함평군 공보실, 산업과장, 광주시 북구청 세무과장, 광주시 공원관리소장을 지냈다.
아내는 나성자(羅星子)다.

◆ 이계문(李啓文)

1952. 11. 25 본관 함평. 재헌(在憲)의 둘째 아들. 대동면에서 출생. 광주진신전화국 제1과장을 역임함
아내는 언양 김정순(金貞順)이다.

◆ 이계백(李啓百)

1931. 5. 18 본관 함평. 처음 이름 계창(啓昌). 시조의 27세손. 귀헌(貴憲)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 한국전쟁 중군, 주월 십자군 전공 국가유공 포상. 아내는 파평 윤억천(尹億天)의 딸 경옥(京玉)이다.

◆ 이계번(李啓繁)

본관 함평. 해보면에서 출생함. 삼성전업사 이사로 있다.

◆ 이계부(李啓富)

1919. 7. 10 본관 함평. 규헌(奎憲)의 아들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함평공립농업학교 졸업. 영광, 진도, 함평, 광주, 목포 등 전매서장 역임하고 대한궁도협회 목포국궁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아내는 김정일(金貞一)이다.

◆ 이계석(李啓碩)

엄다면 송로리 노상에서 출생
육군삼사관학교 졸업. 육군 중령

◆ 이계선(李啓善)

1931. 7. 17 본관 함평. 시조의 27세손. 대동면 덕산리에서 태어남.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육군 1103 야전공병단 110



이계선

대대장, 육군대학 교수
부 지휘학처 교관, 육
군대학 군수처장을 지
내고 육군 중령으로
예편,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시설, 출판과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최금
연(崔今連)이다.

◆ 이계선(李啓善)

1934. 10. 18 본관 함평. 자 기선(奇善). 호 복산(福山). 장헌(章憲)과 고성 김보동(金寶洞)의 셋째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77년 광주시 공보계장, 1979년 기획계장, 1980~1986년까지 광주시 동구청 세무 2과장, 세무 1과장, 세정과장, 1986~1993년까지 광주직할시 세정, 양정과장, 예산 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부장(書記官), 1993~1997년까지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감사(부이사관 대우)를 지냈다.

1993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1996년부터 함평이씨 광주중친회장직을 맡고 있고 저서로 “나의 고향 복산”(1989), “함평이씨가승보”(1990), “함평이씨중중보감”(1998) 등이 있다. 아내는 평강 채영기(蔡永基)와 나주 나공덕(羅功德)의 딸 순례(順禮)다.

◆ 이계성(李啓成)

1883~1950 본관 함평. 자 선일(先一). 시조의 27세손. 익헌(翼憲)의 넷째 아들로 해보면 대창리에서 태어났다.

전해산 항일 의병부대에서 활동하였고 나주시 다시면 성산 싸움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아내는 문화 유기홍(柳基鴻)의 딸이다.

◆ 이계섭(李啓燮)

1942. 10. 5 본관 함평. 동헌(東憲)의 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졸업. 전남도청 근무. 영광 백수부읍장 역임. 아내는 영성 정은경(丁恩卿)이다.

◆ 이계손(李啓孫)

1922. 5. 20 본관 함평. 주헌(周憲)의 아들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일본대학 중퇴. 대한청년단 함평군단장. 민선 함평면장, 신성기업주식회사 사장을 지냈다. 아내는 광녕 조기숙(曹奇淑)의 딸 영희(英姬), 금성 나이갑(羅二甲)의 딸 전순(田順)이다.

◆ 이계수(李界壽)



이계수

1896~1932 본관 함평. 자 기일(箕日). 호 죽상(竹箱). 옥헌(旭憲)의 둘째 아들로 월야면 정산리에서 출생. 일제 때 동양척식회사의 착취에 항거하여 일어난 농민운동의 함평 나주지방 군집장(群集長)으로 활동하였다. 아내는 진주 정인석(鄭仁石)의 딸이다.

◆ 이계수(李啓水)

1929. 2. 20~1995 본관 함평. 시조의 27세손. 영헌(瑛憲)의 아들.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대학 화학과 졸업. 이학박사. 전남대학교 교수, 동대학 교육대학원장, 자연대학장, 대학원장, 교수협의회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최양수(崔良洙)다.

◆ 이계순(李啓筍)

1853~1916 본관 함평. 일명 진규(鎭奎). 자 노삼(魯三). 호 취석헌(醉石軒). 경헌(警憲)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에서 태어났으며 무과에 급제하여 사천현감(泗川縣監)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 모이진(牟履晋)의 딸이다.

◆ 이계용(李啓琿)



1916~1950. 12. 27 본관 함평. 호 후석(後石). 시조의 27세손. 준헌(準憲)과 수성 최부선(崔富仙)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였고 12세 때 할아버지 병환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3년간 지극한 효성으로 간호를 하였고 상을 당하여 3년간 매일 성묘하니 향리가 소동(小童)효자라 칭하였다. 6. 25 전쟁 때 순의(殉義)하여 국가 유공자로 추모하고 있다. 아내는 의령 남정갑(南廷甲)의 딸 인례(仁禮)다.

◆ 이계운(李啓雲)

본관 함평. 월야면 용정리 용수에서 태어남. 월야면장을 역임하였다.

◆ 이계운(李啓煥)

1943. 11. 20 본관 함평
신광면 삼덕리에서 출생. 대졸. 국세청 근무(사무관)

◆ 이계운

1929. 2. 10 학교면 죽정리 36번지. 육군 8연대 작전과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때 공을 인정받아 1955. 1. 11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이계원(李啓元)

1943. 7. 20 본관 함평. 함평읍 가동리에서 태어남. 서울광운공대 졸업. 공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다.

◆ 이계윤(李啓潤)

1892~1977 본관 함평. 자 정금(鼎金). 동헌(東憲)의 맏아들.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에서 출생. 제3대 함평면장을 지냈다. 아내는 나주 정대호(丁大鎬)의 딸, 밀양 박재민(朴載敏)의 딸 연심(連心), 화순 최봉현(崔奉鉉)의 딸 마소(馬所)다.

◆ 이계은(李啓殷)

1852~ 1924 본관 함평. 옥헌(沃憲)의 양아들. 생부는 수리(首吏)로 1862년 농민항

쟁 주모자였던 방헌(邦憲). 함평읍에서 출생. 군주사(郡主事). 1914년 군수서리를 역임한. 아내는 파평 윤치열(尹稚說)의 딸, 그리고 남평 문경학(文慶鶴)의 딸 강정(江丁)이다.

◆ 이계인(李啓寅)

본관 함평. 해보면 용산리

제4대 해보면장(1954. 4. 15~1958. 4. 15)을 지냈다.

◆ 이계인(李啓仁)

본관 함평.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국회 사무처 계장으로 있다.

◆ 이계인(李啓仁)

1955. 10. 12 본관 함평. 시조의 27세손. 기헌(奇憲)의 맏아들.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청호그룹 전자부 부장으로 있다. 아내는 죽산 안성수(安成洙)의 딸 현숙(賢淑)이다.

◆ 이계종(李啓琮)

1887~1955 본관 함평. 처음 이름 계송(啓松). 자 성옥(成玉). 호 서호(西湖). 맹헌(孟憲)의 둘째 아들. 대야면장(大也面長)을 지냈다. 아내는 해주최씨, 전주리씨다.

◆ 이계준(李啓準)

1855~1932 본관 함평. 자 윤삼(允三). 수헌(秀憲)의 둘째 아들. 함평읍에서 태어났으며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제주 양시풍(梁時豐)의 딸이다.

◆ 이계춘(李啓春)

엄다면 신계리.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이계춘(李啓春)

해보면 용산리.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이계춘(李啓春)

본관 함평. 해보면 용산리에서 출생. 해보 면장을 역임하였다.

◆ 이계춘(李啓春)

1923. 8. 7 본관 함평. 호 청헌(淸憲) 또 취정(翠亭). 준헌(準憲)과 수성 최부선(崔富仙)의 아들로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하였고, 함평농업실수학교 졸업했으며 초등학교 측탁교원시험에 합격하였다.

1943 해보초등학교 교사, 해보면사무소 계장, 해보수리조합장 대리, 지방의회면의원 2회 당선, 계장으로 광주시청 근무, 광주시 노동회관 관장 등을 역임하고 1978년 정년 퇴직하였다.

1978년 지역사회 공헌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아내는 신평 송병태(宋炳泰)와 김해 김양금(金良今)의 딸 옥순(玉順)이다.

◆ 이계행(李啓行)

본관 함평. 종석(鍾錫)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태어났으며 행정사무관으로 장흥군, 고흥군, 전남도청에서 근무하였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아내는 동래 정항모(鄭滄模)의 딸 홍순(泓順)이다.

◆ 이계혁(李啓赫)

본관 함평
해보면에서 출생함. 수원시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하여 원장으로 있다.

◆ 이계후(李啓厚)

1908~작고. 본관 함평. 호 후계(後溪). 규헌(奎憲)의 아들.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고창중학교 졸업 사세(司稅)고등전형시험 합격. 영광, 목포, 이리, 군산 세무서 과장, 광주사세청 징수과장 겸 회계과장을 역임했고 대한노인회 함평군지부장을 지냈다.

아내는 창녕 조순례(曹順禮)다.

◆ 이계흥(李啓興)



이계흥

1958. 1. 21 본관 함평. 시조의 27세손. 기헌(奇憲)과 죽산 안방희(安芳姬)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하였으며 광주제일고등학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업했다.

1987년 경남 밀양시에서 경희한의원을 개원하여 원장으로 있다.

아내는 밀양 손희찬(孫熙讚)과 경주 손기옥(孫琪玉)의 딸 경자(景子)다.

◆ 이공범(李公範)



이공범

1940. 3. 11생. 본관 함평(咸平) 호 나산(羅山) 상산 김필례(金泌禮)의 장남으로 나산면 우치리에서 출생. 광주교육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나와 전라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부

회장과 영암신북초등학교장을 역임. 홍조근조훈장을 수상. 아내는 단양 우홍만과 밀양(密陽) 박희주의 장녀 성숙이다.

◆ 이공헌(李孔憲)

1936. 9. 23 본관 함평. 처음 이름 공헌(公憲). 시조의 26세손. 종서(宗緒)의 맏아들로 신광면에서 출생. 한의학사. 전국한의사협회이사.

아내는 김해 김인겸(金寅謙)의 딸 재순(載順)이다.

◆ 이관범(李寬範)

1926. 6. 23 본관 함평. 호 호정(湖亭). 계영(啓榮)의 아들.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 중학교 과정 수료. 행정공무원 12년, 광주지구 원예협동조합 전무 13년간 역임. 아내는 김해 김복임(金福任)이다.



이관수(李寬秀)

1969년 신광면 가덕리에서 출생하여 학다리고,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서양화 전공. 오월전/만인전, 광주민미협 창립전 '핀치히터'전, 화가의 지갑전 외 다수의 단체전 참여. 현재 광주민예총 민미협회원.

◆ 이관일(李貫一)

1943. 12. 13 본관 경주.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생.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 이광범(李光範)

1928. 3. 6 본관 함평. 자 진암(鎭岩). 계택(啓宅)의 둘째 아들.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초등학교 교장을 지냄
아내는 광산 김영채(金永彩)의 딸이다.

◆ 이광우(李光宇)



이광우

1959. 4. 1생 본관 함평(咸平) 용범(龍範)과 금성(錦城) 나연순(羅蓮順)의 4남으로 엄다면 성천리에서 출생 호남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학위를 취득, 함평군 사무관으로 녹지공원관리소장에 재임중이며 아내는 함양(咸陽) 박용주(朴龍柱)와 이귀순(李貴順)의 2녀 현숙(賢淑)이며 슬하에 2남을 두었다.

◆ 이광헌(李光憲)

1941. 6. 18 본관 함평. 시조의 26세손. 돈열(敦烈)의 둘째 아들. 대동면 출신으로 현 육군대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아내는 천주 최원상(崔元相)의 딸 희영(熹榮)이다.

◆ 이구헌(李龜憲)

1860~1935 본관 함평. 처음 이름 목헌(穆憲). 자 군성(君成). 호 낙포(洛圃). 돈삼(敦三)의 둘째 아들.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아내는 전주최씨다.

◆ 이국행(李國行)



이국행

1948. 12. 31 본관 함평. 재연(載淵)과 전주 이덕례(李德禮)의 아들로 함평읍에서 태어나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전북대학교 화학교육과 학과장, 동 사범대학 과학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다. 논문집으로 '아세트 중 할로젠화 페니시린과 피페리딘과의 반응속도' 등과 번역서 '분석화학'(자유아카데미)이 있다. 아내는 송태헌(宋泰憲)의 딸 국희(國熙)다.

◆ 이국행(李國行)

본관 함평. 해보면 출신. 내무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함

◆ 이국헌(李國憲)



이국헌

1928,10,13. 본관 함평. 호는 소천(宵泉). 돈욱(敦旭)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시인. 1956년 호남 신문 신춘문에 당선, 1962년 공보부 현상 논문 당선, 1981년 중앙일보 주최 제1회 중앙 시조백일장 일반부 입선. 1989년 『시조문학』에 추천을 받은 이후는 주로 시조작품 창작. 1981년 전남아동문학상, 1982년 군민의상(문화부문) 수상. 저서로는 문학선집 『망중유한(忙中有閑)』이 있다. 아내는 청송 신봉남(辛奉南)의 딸 채홍(采洪)이다.

◆ 이군행(李君行)

1928~1949 월야면에서 출생하여 함평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했다. 1949년 월야지서를 습격해온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해 전쟁기념

관 전사자비명에 이름을 새기고 추모하고 있다. <한국전몰용사 공훈록. 국방부>

◆ 이권범(李權範)

1875~1956 본관 함평. 자 춘옥(春玉). 호 성천재(成千齋). 계문(啓文)의 아들. 1906년부터 김태원(金泰元), 전해산의병진에서 활동하였는데 영광 오동촌 대매산 전투, 영광의 선치(蟬峙) 건무(建武) 전투에서 공을 많이 세웠다. 묵굴(默窟)의 전투에서 충상을 입고 집으로 와 피신하는데 왜인들의 고문을 끝내 이겨낸 아내 김해김씨(사인 도원-道元-의 딸) 덕으로 잡히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다.

◆ 이규섭(李奎涉)



이규섭

1948. 10. 11생 본관 廣州 재환(在煥)과 金海 김팔례(金八禮)의 5남 2녀 중 7번째로 월야면 양정리에서 출생, 광주교육대학을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가락초등학교장으로 아내는 순홍 안윤동(安允東)과 박계순(朴葵順)의 4남4녀중 여덟째 홍자(洪子)이다.

◆ 이규정(李圭正)

1893. 8. 18~작고. 본관 경주. 나산면 덕림리에서 출생. 일본명치대학교 법학부 졸업. 2대 광주 지방법원장. 국제변호사 역임.

◆ 이규행

1931. 6. 10 나산면 초포리 917번지. 해병대 중사로 근무하던 때 강원도 홍천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충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이균범(李鈞範)

1934. 12. 25 본관 함평. 시조의 28세손. 계득(啓得)과 진주 정춘월(鄭春月)



이균범

의 맏아들로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하였고, 함평초등학교, 광주고등학교,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72년 서울 종로경찰서장, 1974~1983년까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경찰국장, 1983년 국립경찰대학장, 1984년 감사원 감사위원, 1989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993년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였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동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69년 근정포장, 1971년 보국훈장삼일장, 1984년 홍조근정훈장, 1989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원주 이동옥(李東玉)과 손향단(孫香丹)의 딸 진숙(眞塾)이다.

◆ 이근범(李根範)

1953. 8. 8 본관 함평. 계윤(啓允)과 광산 탁현순(卓賢順)의 아들로 해보면 문장리에서 태어났으며, 광주고등학교 수석졸업,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대학을 수석졸업하였으며, 현재 육군 대령으로 수도방위사령부 기계화부대 여단장으로 있다.

아내는 전주 이상근(李相根)의 딸 혜숙(惠淑)이다.

◆ 이근복

1926. 2. 14 학교면 학교리 878-107번지. 514함대 특무상사로 근무하던 때 인천함 기뢰 제거작전에서 큰공을 세워 1952. 11. 1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이근행(李謹行)

1898~1958 본관 함평. 자 성중(性中). 호 회정(晦廷). 지범(志範)의 아들.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향교 전교 2회 연임. 함평 향교지를 발간하였다.



아내는 연안(延安) 김찬기(金贊基)의 딸이다.

◆ 이금례(李今禮)

엄다면. 1981년 효열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리기권(李基權)



이기권

1957. 9. 20 본관 전주. 중복(鍾福)과 경주 김양례(金良禮)의 아들로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하였고, 손불초등, 손불중, 광주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86년 울산지방 노동사무소 과장, 1988년 주 쿠웨이트대사관 노무관,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1995년 노동부행정관리담당관, 1997년에 울산지방 노동사무소장으로 발령되어 현재 봉직하고 있다. 1990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한국노사협의회 제도 발전 방안'(1993), '독일 통일 후 실업 대책' 등의 논문이 있다. 아내는 경주 김기문(金其文)과 천안 전삼숙(全三淑)의 딸 화자(和子)다.

◆ 리기노(李基老)

본관 전주. 손불면 월천리에서 태어남. 손불면농업협동조합장, 1대 함평군의원을 지냈다.



이기성

◆ 리기성(李基星)

본관 전주. 시조의 40세손. 양삼(良三)과 현풍곽성동(郭星洞)의 아들로 월야면 정산리에서 태어났고 월야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52년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다.

아내는 광산 김동렬(金東烈)의 딸이다.

◆ 이기성

1930. 12. 12 월야면 정산리 353-1번지. 3사단 18연대 1대대 1중대 하사로 근무하던 때 금화 피의능선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1952. 7. 1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이기순(李期順)



이기순

1966. 8. 15 본관 함평. 재남과 김해 김재임의 딸로 나산면 우치리에서 태어났고, 백제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하였다.

핸드볼 여자 국가 대표며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동년 체육훈장

청룡상을 받았다.

◆ 이기창(李基昌)

1933. 4. 14 본관 함평. 상영(祥永)의 아들로 함평읍 함평리 출신. 고능주식회사 사장을 지냈으며 아내는 금녕 김남식(金南植)의 딸 월순(月順)이다.

◆ 이기채(이기채)

1949.2.25. 본관 함평. 호범(昊範)과 경주 김숙란(金淑蘭)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경영대학원졸업, 경영학박사. 배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학장 역임. 아내는 경주 최점식의 딸 최복자다.

◆ 이기풍

1927. 11. 13 나산면 용두리 1023번지. 육군 9사단 29연대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 1997. 6. 25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이기행(李箕行)

1940. 3. 28 본관 함평. 재옥(재옥)의 셋째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 경감. 전라남

도 경찰청에서 근무. 1987년에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함평 모봉구(牟奉球)의 딸 삼례(三禮)다.

◆ 이기헌(李奇憲)



이기헌

1924. 4. 8 본관 함평. 돈길(敦吉)과 동래 정지변(鄭池邊)의 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태어났으며 함평초등학교,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였다.

1945~1957년 대동초등, 함평초등학교 등 교사, 1957~1965년 월야북초등학교 등 교감, 1965~1991년 진도서거차, 함평학교남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으며 1991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아내는 죽산 안기용(安基溶)과 전주 이동순(李東順)의 딸 방희(芳姬)다.

◆ 리기홍(李基洪)

1947. 2. 11 본관 전주. 신광면에서 출생. 중앙대학교 졸업. 국회의원 비서관. 무등일보 본사 사회부장, 제2사회부장, 체육부장, 서울지사 정치부장, 청와대 출입 기자를 역임하였고 현재 나산그룹 문화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저서 “호남의 정치”가 있다.

◆ 이 길(李 吉)

본관 함평
함평읍에서 태어남. 서울특별시 중구청 세정과장을 지냈다.

◆ 이길구(李吉久)

1943. 10. 15 손불면 월천리에서 출생. 장성농업고등학교 졸업. 제1대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 리길재(李倌宰)

1927. 4. 2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 졸업. 기산초등학교 등 교장 역임

◆ 이길헌(李吉憲)

1882~1965 본관 함평. 자 춘선(春先). 호 청파(淸波). 둔희(敦喜)의 맏아들로 학교면에서 출생. 효행과 문행으로 이름 높았고 여러 권의 시집이 전한다.

아내는 나주나씨, 전주리씨, 무안 박양상(朴良相)의 딸이다.

◆ 이남경(李南京)



이남경

1938. 본관 함평. 함평읍 장년리에서 출생. 함평서초등학교육성회장, 세계일보 조사위원, 함평협의회장, 함평한마음회장을 역임했고 함평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함평고려축산 대표

를 맡고 있다. 1998. 6. 4 지방선거에서 함평군의원(함평읍)에 당선되었다.

◆ 이남산(李南山)

나산면 용두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이남우(李南雨)

1896~1963 본관 경주. 일명 업수(業水). 자 순화(順化). 증시조의 38세손. 종만(鍾滿)의 넷째 아들 함평읍 장교리에서 출생. 일본의 민족말살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등 항일운동을 하다가 1940년 체포되어 6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다. 아내는 김해 김두영(金斗泳)의 딸이다.

◆ 이남행(李南行)

1935. 12. 12 본관 함평. 종석(種錫)과 광산 김재덕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과수료. 전남도립뇌병원, 전남도청 보건과 근무. 장흥, 함평보건소장 역임. 아내는 평강 채수암과



김해 김몽실의 딸 인순이다.

◆ 이남헌(李南憲)

1934. 1. 6 본관 함평. 둔규(敦奎)의 넷째 아들.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학사. 동방생명보험 부장. 아내는 전주 리강완(李康完)의 딸 춘재(春宰)다.

◆ 이년헌(李年憲)

1943. 3. 17 본관 함평. 시조의 26세손. 민복(敏福)의 맏아들.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문화방송 제작부장, 이사 역임. 아내는 나주 정옥진(丁玉鎭)의 딸 해간(海玦)이다.

◆ 이녹범(李祿範)

1923. 4. 20 본관 함평. 계각의 아들. 월야면 양정리에서 출생함. 제1대 함평군의원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진주정씨다.

◆ 이단행(李丹行)



이 단 행

1935. 12. 29 본관 함평. 자 은행(銀行). 쌍금(雙金)과 상산 김순례(金順禮)의 맏아들로 나산면 초포리 환곡에서 태어나 함평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영광군 · 함평군농촌지도소 계장, 나산면장을 지냈으며 1996. 12. 14 대통령의 근정포장을 받았다. 아내는 선산 김종석(金宗錫)과 밀양 박본산(朴本山)의 딸 기임(奇任)이다.

◆ 이달범(李達範)

1939. 1. 27 본관 함평. 계윤(啓潤)의 둘째 아들로 학사. 대한항공기장(大韓航空機長)을 지냈으며 이란 상공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였다. 아내는 광산 김상훈(金相勳)의 딸 인숙(仁淑)이다.

◆ 이대원(李大元)

1948. 3. 20 학교면 월산리에서 태어남.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령

◆ 이대행(李大行)

1926. 9. 27 본관 함평. 대동면 향교리 출생.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1회 졸업.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 이덕녀(李德女)

학교면 월호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이덕행(李德行)

1910~1982 본관 함평. 처음 이름 건행(建行). 자 노보(魯甫). 재준(載俊)의 셋째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태어남. 나산면장을 지냈으며 아내는 전주 리경섭(李京燮)의 딸이다.

◆ 이덕행(李德行)

1960. 9. 20 본관 함평. 군수 재일(載日)의 아들로 나산면 우치리 출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토통일원에 서서기관 역임

◆ 이도범(李燾範)

1884~1950 본관 함평. 호 동운(東雲). 계원(啓源)의 맏아들. 손병희(孫炳熙)를 도와 3. 1 운동을 일으켰으며 일경에 체포되어 3년간 옥살이를 한 후 출옥하여 만주, 상해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였다. 아내는 나주 정우상(鄭遇象)의 딸, 광산 김운경(金雲京)의 딸이다.

◆ 이돈구(李敦求)

본관 함평. 호 송오(松塢) 1908년 동지 여러 명과 거의를 꾀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무안의 입석전(立石戰)을 치루는데 그치고 말았다.

◆ 이돈길(李敦吉)

1928. 3. 28 본관 함평. 호 갑봉(甲峯). 춘서(春緒)와 행주 기장읍(奇長邑)의 넷째



이돈길

아들로 대동면 용성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1975년 동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3년 전남도 농사원 작물과장, 1967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강사, 1977년 전북농촌진흥원 시험국장,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1979년 전남농촌진흥원시험국장,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동대학 대학원 강사, 원예시험장 나주 배 연구소 겸직 연구관을 지냈다.

1986년 한국작물학회 부회장, 1987년 호남식물보호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1982년 근정포장, 1989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녹차 재배 기술’(1981. 농촌진흥청)의 저서와 ‘균은 의지가 뜻을 키운다.’ 등 미발표 원고가 있다. 아내는 나주 임종길(林鍾吉)의 딸 옥순(玉順)이다.

◆ 이돈발

1928. 3. 15 월야면 월야리 258-8번지. 7사단 5연대 3대대 중사로 근무하던 때 양구지구 전투에서 용맹을 떨쳐 큰공을 세웠기로 1952. 12. 4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이돈배(李敦培)

1939. 6. 21 본관 함평. 자 민영(敏榮). 시조의 25세손. 찬서(讚緒)의 아들. 함평읍 출신. 생리학 박사. 대학교수 아내는 제주 양영승(梁永承)의 딸 경숙(京淑)이다.

◆ 이돈상(李敦相)

1927. 2. 29 본관 함평. 자 덕천(德泉). 시조의 25세손. 득서(得緒)의 둘째 아들. 광전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지평공파(持平公派) 종친회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광산 김상수(金相洙)의 딸 영임(永任)이다.

◆ 이돈창(李敦昌)

1928. 2. 15 본관 함평 나산면 수상리에 출생. 대학원 졸업. 인류학박사.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 이돈현(李敦炫)

1925. 11. 17 본관 함평. 호 설암(雪岩). 춘서(春緒)의 셋째 아들. 대동면 용성리에서 태어남.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연수와 수료. 광주시 중부,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을 역임하였고 호남농원(湖南農園) 대표로 있다. 아내는 흥덕 장순보(張順甫)의 딸 정임(貞任)이다.

◆ 이돈형(李敦炯)

1857~1923 본관 함평. 호 취석헌(醉石軒). 시조의 25세손. 상서(祥緒)와 평택임씨의 아들로 효로 성균관장의 찬양문을 받았고, 1919년 문장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불갑산 불영대에 은신하며 상해 임정요원에게 독립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아내는 밀양 박진용(朴鎭容)의 딸이다.

◆ 이동범(李東範)

1869~1940 본관 함평. 자 경연(敬然). 호 석암(錫菴), 만경(萬頃). 첨주 계송(啓松)의 맏아들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조경묘(肇慶廟) 참봉으로 출사한 후 1902년 만경군수, 은률(殷栗)군수를 역임하였으며 함평공원 안에 있는 세심정(洗心亭)을 사재로 지었다. 아내는 창녕 조영상(曹英相)의 딸이다.

◆ 이동영(李東永)

1951. 5. 15 해보면 금덕리 금곡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벨기에 대학에서 박사 학위 받음.

◆ 이동윤(李東潤)

1951. 8. 14(陰曆)생 본관 전주(全州) 호 덕산(德山) 용남과 밀양 박대례의 차남으로



신안군 증도면에서 출생, 나주대학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이낙연 국회의원 비서관, 함평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동래(東萊) 정진구와 하동(河東) 정점례의 차녀 연희이다.

◆ 이동주(李東柱)

본관 함평.

해보면 용산리 백토에서 출생. 해보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이두행(李斗行)

1924. 10. 26 본관 함평. 재정(載理)의 아들.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교수, 서울시청 사회과장, 시민과장 등을 지냈다. 아내는 창녕 조옥환(曹玉煥)의 딸, 인천 이강호(李康浩)의 딸 덕임(德任)이다.

◆ 이두헌(李斗憲)

1878~1936 본관 함평. 자 영준. 호 국파. 시조언의 26세손. 돈선의 아들로 나산면 송암리에서 태어났으며 1908년 해산전수용(海山全垂鏞) 의병부대에 가입하여 참모장(參謀將)을 맡았다.

1908년 8월 21일(음 7. 25. 이하 行狀의 음력을 양력으로 바꿈) 불갑산(佛甲山. 함평 영광 소재) 전투, 10월 30일 나주 대명촌(大明村) 전투, 11월 30일 담양군 한재(大峙)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1909년 1월 1일 고막원 병참소를 습격하였는데 당시 일인들이 쓴 “전남폭도사(全南暴徒史)”에 “오전 3시 총을 휴대한 비도(匪徒) 약 100여명이 고막원 분건소에 침입 응전 격퇴했는데 보조원 2명이 즉사했다. 학다리 주재소와 목포경찰서원이 지원하기 위해 급히 달려 왔으나 교전 후여서 종적을 알 수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1909년 5월 9일 영광군 염산면 오동촌(梧洞村)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전수용 부대가 왕명에 의해 해산된 후 송암리 산중에

서 은신하다가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1922년에 해보면 용산리로 이거하여 후학 양성에 힘을 썼으며 제자들이 용산리에 의적비를 세웠다. 아내는 청송심씨다.

◆ 리만근(李萬根)

1941. 8. 2 본관 전주. 판길(判吉)의 아들. 학교면에서 출생. 학교면 농업협동조합 이사. 2대 함평군의원 당선.

아내는 김경자(金京子)다.

◆ 이만석(李萬石)

1944. 10. 27생 본관全州 판길(판길)과 이천 서귀임(徐貴任)의 삼남으로 학교면 월산리에서 태어나 학다리고등학교를 거쳐 전남대학교경영대학원을 나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아내는 충주 지재철(池在哲)과 주공례의 10남매중 막내인 춘이(春伊)이며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 이명범(李明範)

1937. 2. 12 본관 함평. 계옥(啓玉)의 아들. 해보면 용산리에서 출생. 중앙대학교 경상대학 졸업. 한국생산성 본부 실장, 삼진특수인쇄 주식회사 사장 역임. 아내는 송병순(宋炳順)이다.

◆ 이명석(李明石)

1942. 8. 5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고졸. 경감

◆ 리명재(李明宰)



이명재

1939. 3. 25. 본관 전주. 엄다면 엄다리 제동에서 훈장과 한약방을 경영하던 문규(文奎)의 차남으로 출생하여 중앙대와 동대학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197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체험과 「저항의 시학-김소월론」이 당선되어 문학평론가로 등단. 모교인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겸 문과대학장, 사회개발대학원장을 맡으며 평단활동과 후진양성에 임하면서 학문적으로는 남북한국문학사와 문학비평 및 해외한인문학에서 성과를 냈다. 저서로는 평론집 『변혁기의 한국문학』, 『전환기의 글쓰기와 상상력』, 『통일시대 문학의 길 찾기』, 수필집 『꿈과 낭만 그리고 지성』, 『글 쓰는 보람』 학문적 성과물인 이론연구서로 『식민지시대의 한국문학』, 『북한문학사전』, 『소련지역의 한글문학』,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한국현대민족문학사론』 등이 있다. 한국문협 평론분과 회장,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부회장과 작고문인들의 문학비를 세우는 '우리문학기림회' 대표 역임. 노산문학상, 한국문학평론가협회상, 월간문학 동리상과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광산 김기남의 차녀 연자다,

◆ 이명헌(李明憲)

1894. 2. 5~작고. 본관 함평. 호 우송(友松). 돈옥(敦玉)의 아들.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 해보면장, 금광사업경영대표를 지냈고 서당을 열어 후학을 길렀다. 아내는 죽산 안귀례(安貴禮)다.

◆ 이문광(李文光)

1944. 5. 15 본관 함평. 일명 삼행(三行). 쌍옥(雙玉)과 문화 유봉순(柳奉順)의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신민당중앙당 문화부장, 신민당 김영삼(金泳三) 총재 보좌역, 사단법인 대한합기도회 운영위원장. 스포츠뉴스사 편집위원. 통일민주당 노동국장. 초대 서울시의원 당선에 당선되었고, 초대 서울시의원 당선에 당선되었고, 1998년부터 매일건설신문 사장직에 있다. 아내는 옥천

조옥용(趙玉容)과 전주 리순임(李順任)의 딸 경화(京和)다.

◆ 이문행(李汶行)

1935. 5. 15 본관 함평. 호 송곡(松谷). 채성(載成)과 수원 백정례(白正禮)의 맏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 출생하였으며, 함평중학교, 함평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61~1975년 나산면사무소 계장, 1975~1986년 함평군청계장, 1986~1993년 나산면장을 지냈으며, 1987. 2. 28 나산면 초포리 사동의 돌널무덤 발굴에 노고가 많아 전라남도지사의 표창을 받았고, 1993. 6. 31 공로포장을 받았다. 아내는 진주 강세원(姜世遠)과 광산 김통임(金通任)의 딸 영심(榮心)이다.

◆ 이민행(李敏行)

본관 함평. 해보면에서 출생함. LG 광주사장으로 있다.

◆ 이민행(李敏行)



이민행

1939. 2. 20 본관 함평. 재연(載淵)과 전주 리덕례(李德禮)의 아들로 함평읍에서 태어났으며 1963년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행정실장을 거쳐 기획담당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1990. 12. 26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학적관리전산화연구' 등의 저서가 있다. 아내는 조양 임만옥(林萬玉)과 밀양 손막례(孫幕禮)의 딸 혜자(惠子)다.

◆ 이민호(李敏虎)

1936. 3. 1 본관 함평. 시조의 25세손. 익서(益緒)의 둘째 아들. 대동면 금산리에서 출생. 중졸. 1대 대통령선거인단 당선. 아내는 풍산 홍승월(洪承月)의 딸 소녀(小女)다.



◆ 이방형(李方衡)

본관 함평.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나산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이백범(李伯範)

1952. 7. 3 본관 함평. 호 경재(敬齋). 시조의 28세손. 계춘(啓春)과 신평 송옥순(宋玉順)의 아들로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하였고, 광주일고,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공채로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경리 1부 대리, 이라크 현장 관리부 과장, 바레인 지점 경리 차장, 현대건설 관리부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한양 조양원(趙陽元)과 노활선(盧活宣)의 딸 영희(稔姬)다.

◆ 이백주(李栢柱)



이백주

1948. 7. 15생 본관 전주(全州) 호 경백(景栢) 해길(海吉)과 남원(南原) 양화래(梁花來)의 장남으로 학교면 월호리에서 출생 학다리 중학교를 졸업 함평군 의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아내는 김해(金海) 김용관(金龍官)과 무안(務安) 박금동(朴金東)의 딸 정숙(貞淑)이다.

◆ 이병길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애. 제9대 신광면장을 지냈다.

◆ 이보행(李寶行)



이보행

1962. 9. 17 본관 함평. 호 주봉(柱峯). 시조의 30세손. 재승(載承)과 당악 김두만(金斗滿)의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과, 호주 시

드니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90년부터 보영전자 대표직에 있다. 아내는 진주 하재홍(河在烘)과 경주 이정임(李貞任)의 딸 정아(廷娥)다.

◆ 이보현(李寶鉉)

1952. 12. 17 본관 함평. 일명 보행(保行). 종석(鍾錫)의 아들. 해보면 대각리 출신. 전남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창신기업, 광신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내는 서산 정정임(鄭正任)이다.

◆ 이봉수(李奉洙)

1949. 9. 18 본관 함평. 재철(載哲)의 아들. 함평읍 장년리 출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소아과 전문의 자격 취득.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 광주에서 이봉수소아과의원 개원.

아내는 임홍란(任紅蘭)이다.

◆ 이봉헌(李鳳憲)

1923. 10. 1~작고. 본관 함평. 호 녹파(祿波). 둔갑(敦甲)의 아들. 대동면 덕산리 고산동에서 출생. 일본대판고등공업학교 졸업. 암정, 송정남초등학교장을 지냈다. 아내는 풍산홍씨다.

◆ 리부례(李富禮)

전주 리현국(李鉉國)의 딸. 이재록(李載祿. 1926~1981)의 아내. 시어머니 봉양에 극성을 다하고 이웃간에 돈독하는 모범을 보여 군수로부터 효부 표창을 받았다.

◆ 리부일(李富一)



이부일

1951. 1. 6 본관 전주. 호 우송(牛松). 선기(善基)와 이천 서영임(徐永任)의 아들로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하였고, 엄다초등, 학다리 중, 고, 광주교육대학, 조선대학교 법정

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동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70~1982년 완도초등, 광주양동초등학교 교사, 1982년 국회의원 조기상 비서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장춘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며 1995년 부일경영 컨설팅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1974년 한국교육총연합회장의 '푸른기장증'을 받았으며 '중업원 이직 관리 연구' 등 논문이 있다. 아내는 밀양 박병민(朴炳閔)과 경주 김신신(金新新)의 딸 성순(成順)이다.

◆ 이부헌(李富憲)



이부헌

1936. 1. 3 본관 함평. 돈식(敦植)의 아들. 엄다면 송로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부속 중학교 졸업. KS 표시 품공장 광주 문화교구사 관리과장 및 업무과장, 엄다면농업협동

조합장을 지냈고 3대 군의원에 당선되었다. 아내는 달성 배애순(裴愛順)이다.

◆ 이사산(李士山)

월야면 예덕리. 함평군수의 효부 표창을 받음

◆ 이 상(李 祥)

작고. 함평읍 함평리. 함평문화원장을 역임했고 1981년 문화예술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이상권(李相權)

1950. 9. 1 나산면 나산리에서 출생. 해군사관학교 졸업. 해군 중령

◆ 이상길(李相吉)

1919~1983 본관 경주. 나산면 덕림리에서 출생. 8대 나산면장(1953. 3. 19~1953. 11. 22) 10대 (1955. 9. 7~1959. 9. 6),

13대(1960. 12. 26~1961. 6. 16), 15대 (1964. 5. 8~1973. 5. 9) 나산면장, 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지냈다.

◆ 이상도(李相道)

1910. 9. 26~1952 본관 경주.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생. 대졸. 검사를 지냈다.

◆ 이상룡(李相龍)

1967. 9. 19 본관 함평. 일명 상범(相範). 계선(啓善)의 아들. 대동면 덕산리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장학생으로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0년 제3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 이상범(李祥範)

1943. 2. 29 본관 함평. 시조의 28세손. 계용(啓裕)과 의령 남인례(南仁禮)의 아들로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하여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육군삼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포병대대 포대장 동 정보과장, 포병사령부 작전과장을 역임하였고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청양 예비군 중대장(군무사무관)으로 있다가 순직하였다. 아내는 야성 송대근(冶城 宋大根)의 딸 희경(熙璟)이다.

◆ 이상선(李相善)

1946. 7. 20 본관 경주. 나산면 덕림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 졸업. 국방부 군수처장 역임. 육군 준장 예편.

◆ 이상수(李相遂)

1910. 9. 26 본관 경주.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생. 보성전문학교 졸업. 목포지청 검사,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 이상영(李祥永)

1911. 9. 6 본관 함평. 자 두행(斗行). 재승(載昇)의 맏아들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태어남. 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전주 리동호(李東昊)의 딸, 연일 정화택(鄭



花澤)의 딸이다.

◆ 이상오(李相五)

1948. 11. 20 나사면 구산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 소령

◆ 이상재(李相宰)

1949. 1. 6 본관 전주. 대동면 서호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동 대학원 졸업. 원광대학 교수

◆ 이상철(李尙哲)

1976. 생 본관 함평(咸平) 재열(載烈)과 김해(金海) 김영자(金榮子)의 장남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 법무관을 마친 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며 저서로는 Exodus 핵심형법이 있고 아내는 상주(尙州) 이재인의 차녀 경은(京恩)이며 슬하에 두아들을 두었다.

◆ 이석범(李昔範)

1927. 10. 11 본관 함평. 계민(啓政)의 둘째 아들. 함평읍에서 출생. 의학박사. 아내는 식녕 최갑수(崔甲洙)의 딸 금선(今先)이다.

◆ 이석주(李錫柱)



이석주

1953. 7. 4생 본관 전주(全州) 해길(海吉)과 남원(南原) 양화래(梁花來)의 차남으로 학교면 월호리에서 출생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강남구청 건축과장을 역임 현 강남구의회 재선의원으로 활동 중 국무총리상 수상, 대통령감사패 수상 아내는 나주(羅州) 정해용(丁海用)의 딸 장심(薺心)이다.

◆ 이석행(李錫行)

1933. 2. 25 본관 함평. 종규(鍾圭)의 아

들로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서울사범대학부설행정연수원 수료. 황산남, 신광서, 학교남초등학교 교감, 쌍용, 해제북, 신광서초등학교 등 교장, 여천교육청 장학사를 지냈다. 아내는 압해 정점태(丁占泰)다.

◆ 이석형(李錫炯)



이석형

1958. 11. 7 본관 경주. 상민(相溍)과 함평 이귀복(李貴卜)의 아들로 함평읍 장년리에서 출생하였으며 함평서초등, 함평중, 함평농업고등학교, 전남대학교농과대학을 졸업하였고, 1993년 동대학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84년 전남대학교총학생회장, 1986~1997년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1996년 광주, 전남 프로듀서연합회장을 역임했고, 1987년부터 한중문화협회 사무국장을 지냈고, 1998년 군수 선거에 당선하여 제2대, 제3대, 제4대 함평군 민선군수로 봉직하였다. 아내는 김해 김영관(金映寬)과 진주 정양금(鄭良錦)의 딸 희정(希庭)이다.

◆ 이선웅(李善雄)

본관 함평. 나산면 우치리에서 출생. 경기도 성남시에서 동장에서 지냈다.

◆ 이선재(李善宰)

1916. 8. 20 본관 전주. 대동면 향교리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 졸업. 변호사

◆ 이성연(李聖淵)

본관 함평. 손불면에서 출생함. 한일은행 전주지점장을 역임하였다.

◆ 이성연(李晟衍)

1949년 나주군 세지면에서 출생하여 청소년기에 함평군 학교면으로 이거하여 학다

리고, 조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전남대 대학원 국문과 졸업, 문학박사. 조선대 교수를 시작으로 목포대, 다시 조선대 교수로 재직. 『문학춘추』 『시문학』에 시가 당선되었고 『현대수필』에 수필도 당선되어 등단하여 문단의 기대를 모았으나 2009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 이성우(李成佑)

1897. 1. 15~1965 본관 함평. 자 재욱(載旭). 호 동포(東圃). 충범(忠範)의 맏아들.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아내는 금성 정규항(丁奎恒)의 딸, 창녕 조수옥(曹壽玉)의 딸이다.

◆ 이성운(李成雲)

1916 황해도 해주 태생. 호 을강(乙江). 1950년대에 월남하여 함평에 정착하면서 미술활동을 하였다. 여러 해 읍다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10여회 개인전도 연 바 있다.

◆ 이성천(李誠天)

1942. 7. 27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 국방대학 졸업. 해군대령. 진해 502대장, 인현 무궁화 훈장, 보국훈장 받음

◆ 이성행(李聖行)

본관 함평.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 해보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이성헌(李成憲)

1936. 12. 5 본관 함평. 돈복(敦福)의 아들.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나주고등학교 졸업. 나주시 보건행정과장, 나주시 위민실장, 송월동장을 지냈다. 아내는 김애자(金愛子)다.

◆ 이수남(李受南)

김공례(金公禮)의 아들로 읍다면에서 출생하였고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나왔다. 1982년에 목포에



이수남

서 맹수한의원을 개업하였고 목포시개발위원, 한의사협회 목포시지회장을 맡았다. 1992. 4. 7 국민보건 향상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한방(韓方)과 건강’ 등의 저서가 있다.

아내는 파평 윤창현(尹昌鉉)과 서흥 김부태(金富泰)의 딸 정우(丁禹)다.

◆ 이수범(李洙範)

1937. 5. 28 본관 함평. 계원(啓元)의 맏아들. 나산면 초포리 사산에서 태어났으며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아내는 광산 노장산(盧長山)의 딸이다.

◆ 이수범(李受範)

1938. 7. 27 본관 함평. 자 수남(受南). 계연(啓連)의 아들로 함평읍에서 출생. 한의사. 아내는 파평 윤창현(尹昌鉉)의 딸 숙희(淑姬)다.

◆ 이수복(李壽福)

1924,2,16~1986,4,9. 시인. 함평읍 장교리193 산음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46년 목포 문태중을 졸업하고 서울대 전신인 경성사범 예과 졸업 후 광주 수피아여고 교사로 부임했는데 처음에는 국어를 가르쳤으나 영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평생 영어를 가르쳤다. 1954년 『문예』에 시 「동백꽃」으로 미당 서정주의 초회추천을 받고, 이듬해 새로 창간된 현대문학에 2,3회 추천을 완료해 문단에 등단. 1968년 2월 현대문학사에서 유일한 시집인 『봄비』를 펴내서 「꽃씨」, 「모란송」 등의 전통적이고 서정성 짙은 시풍을 보여주었다.

중앙의 일간지와 『현대문학』 지에 많은 작품을 발표하며 한국시단에 다대한 업적을 남겼다. 1958년에 제3회 현대문학신인문학상과 문단업적으로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50년대말 조선대에 출강하기도 하며 1963년 조선대 국문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했으나, 숭일고, 순천고 등 주로 고등학교에 재직했는데 승주 주암고에서 근무하던 86년에 작고하였다. 광주 사직공원에 그의 시비(詩碑)가 세워진 이후, 2003년 5월 6일 함평수변공원에 함평군과 고향의 문단후배들이 시비를 세웠다.

◆ 이수진(李受珍)

1964 함평읍에서 출생. 호 춘원(春苑) 서울 성신여대와 대학원을 나왔다. 1980년대 말에 국전 한국화 부문에 입선한 후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 이수행(李受行)

본관 함평. 손불면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춘천과 홍천 방면의 38도선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6사단에서 일등병으로 근무하였다. 1950년 5월 30일 38도선 경비 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비명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순영(李洵榮)



이순영

1953. 7. 15생 본관 함평(咸平), 호 완초(玩草) 윤남(윤남)과 광산(光山) 김복덕(金福德)의 장남으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함평농업고등학교와 전남과학대학을 졸업, 함평군농업기술보급과장과 제20대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을 역임, 국무총리모범공무원상과 농촌지도직공무원 봉사상을 수상하였으며 아내는 광산(光山) 김득수(金得洙)의 4녀 정금이다.

◆ 이승동(李承東)

1950. 8. 8생 본관 함평(咸平) 죽보 기현



이승동

(基憲) 돈석(敦石)과 최복덕(崔福德)의 장남으로 대동면 용성리에서 출생 서울경희대학교를 졸업 함평재제소 경영 후 함평군산림조합장에 재임중 2009 전국산림조합 최우수경영자상을 수상하였으며 아내는 진주(晋州) 정임오(鄭林五)와 전주(全州) 이강숙(李康淑)의 차녀 영선(英嬋)이다.

◆ 이승범(李承範)

1937. 11. 12 본관 함평. 시조의 28세손. 계년(啓年)의 둘째 아들. 학사.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장, 의정부지점장, 강원지사장을 역임함. 아내는 밀양 박천준(朴千俊)의 딸 효숙(孝淑)이다.

◆ 이승범(李勝範)

1963. 4. 22 본관 함평. 계선(界善)과 평강 채순례(蔡順禮)의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에서 태어났고 1986년 고려대학교 사회과를 졸업하였다. 전남매일신문사 경제부장을 역임했다.

◆ 이승범(李承範)



이승범

1965. 7. 17 본관 함평. 만엽(萬葉)과 김순애(金順愛)의 아들로 손불면 궁산리에서 태어나 광주신학대학, 총신 개혁신학연구원을 나와 199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현재 목포노회 영암서호교회 목사로 있다. 아내는 신안 주양례다.

◆ 리승연(李昇淵)

1934. 9. 20 호 본관 전주. 죽성(竹城). 완풍대군 22세손. 현정의 넷째 아들. 목포방송국장을 지냈으며 아내는 김해 김

씨 재수(在洙)의 딸이다.

◆ 이승우(李承雨)

1940. 5. 24 본관 경주. 시조의 38세손. 종무(鍾武)의 맏아들로 함평읍 장교리에서 출생하였고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에 당선되었다. 아내는 하동정씨다.

◆ 이승재(李昇宰)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 1948. 3. 1~1948. 12. 10까지 엄다면장을 지냈다.

◆ 이승철(李承哲)

1958. 학교면 학교리에서 태어났고 학다리고, 호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민주화운동 무렵에 김규동 시인 등이 주재한 무고지 '민 의(民意)' 2집에서 '평화시장에 와서' 등을 발표하며 문단활동을 시작하였다. 저서로는 시집 '세월아, 살아'(1992), '총알택시 안에서의 명상'(2001), '당산철교 위에서'(2006)등 다수가 있다. 도서출판 '산하' 기획위원장, '나남' 편집장, '인동' 출판사 편집장, 황토출판사 대표 역임했고 여러 해 현 작가회의의 전신인 민족문화작가회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 이승행(李勝行)

1957. 6. 8 본관 함평. 시조의 30세손. 재관(載寬)과 은진 송숙례(宋淑禮)의 아들로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하였고 동신고,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학박사며 현재 호남대학교 부교수로 있다. 아내는 김정애(金正愛)다.

◆ 이시헌(李時憲)

1938. 7. 16 본관 함평. 시조의 26세손. 아호는 흑석(黑石). 민춘(敏春)의 맏아들로 대동면 덕산리 고산동에서 태어나 함평읍 기각리에서 자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틈스재단 초청으로 영국에서 수학하였다. 동아일보 문화부장, 사

회부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저서로 "여기 이 땅 사람들" "오! 하늘이여"(1995) "사람 사랑"(1996) "기사로 말한 기자"(2009)등이 있다. 아내는 진주 김재영(金載永)의 딸 정희(貞禧)다.

◆ 이신행(李信行)

본관 함평. 함평읍 기각리에서 태어남. 경감으로 복무하고 있다.

◆ 이 씨(李氏)

1890~1976 본관 함평. 계춘(啓春)과 광산 김씨의 딸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월야면 예덕리 죽산 안기탄(安基綻)과 결혼하였으며 효열부 표창을 받았다. 마을 어귀에 효열비각을 세웠다.

◆ 이안섭(李安燮)

1933. 3. 20 본관 양성. 의학박사. 광주 이안섭외과병원장. 아내는 담양 국순홍(鞠淳弘)의 딸이다.

◆ 이양범(李陽範)

1896~작고. 본관 함평 해보면 금덕리에서 출생하였고 1919. 4. 8 문장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 이양호(李亮昊)

1964. 3. 23 본관 함평. 시조의 30세손. 재용(載隆)과 연안 김연순(金連順)의 아들로 해보면 대창리에서 태어났고 순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문대를 졸업 1995년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 이연우(李連雨)

본관 경주. 나산면 덕림에서 출생 광주고등법원 과장을 지냈다.

◆ 이연행(李連行)

1939. 6. 23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연행



(聯行) 제헌국회의원 성우(成佑)의 둘째 아들.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함.
주식회사 태경내장 대표이사. 전라남도의원(함평군 1지구)을 지냈다. 아내는 이천서기수(徐淇洙)의 딸 순임(順任)이다.

◆ 이연행(李連衍)

학교면 석정리에서 출생.
신안군청 새마을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 이연행(李連行)

1949. 7. 4 본관 함평. 재곤(載坤)과 진주 리오복(李五福)의 아들로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하여 광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9년에 조흥은행에 입사하여 학동로출장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본점 검사역(檢査役) 직에 있다. 아내는 장흥 고일석(高一錫)의 딸 영신(永信)이다.

◆ 이영길(李英吉)



이영길

1940. 7. 9 본관 함평 시조의 29세손. 창범(昌範)과 하동 정봉례(鄭鳳禮)의 아들로 신광면 함정리에서 태어나 1959년 광주농업학교를 졸업했다. 천지지하개발주식회사 상무이사, 유한회사 천지설비 대표이사를 지냈고 대한설비공사 광주·전남도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파평 윤태순(尹泰順)과 밀양 박막례(朴莫禮)의 딸 근자(謹子)다.

◆ 이영배(李永培)

본관 함평. 해보면에서 출생. 송정여자중학교장을 역임함

◆ 이영순(李永順)

월야면 외치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이영언(李英彦)

1941. 11. 2 대동면 월송리 동암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 준장

◆ 이영일(李榮一)



이영일

1939. 11. 17 본관 함평. 일명 철행(哲行). 재동(載東)의 맏아들.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정치학과 졸업. 국토통일원 교육홍보실장, 통일연구소장. 11, 12대 국회의원, 국회 문교공보분과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홍보담당을 지냈으며, 1997년 광주광역시 동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였으며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직을 맡고 있다.
아내는 해주 정태응(鄭泰應)의 딸 정애(晶愛)다.

◆ 이영철(李瑩喆)

1910. 12. 9 본관 함평. 시조의 27세손. 도현(道顯)과 진주 정월악(鄭月岳)의 아들로 나산면 나산리에서 태어났고 흑산도, 신안 자은, 함평 나산, 곡성 옥과우체국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제주 양준묵(梁俊默)과 서산정씨의 딸 남례(南禮)다.

◆ 이영태(李永台)

본관 함평. 해보면에서 출생함. 송원전문대학 교수

◆ 이영헌(李瑛憲)

1905~1992 본관 함평. 호 면와(勉窩). 돈수(敦守)의 아들로 함평읍 기각리 출신. 함평향교 전교를 6년간 지냈으며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함평읍에서 동인당한약방을 경영하였다.

◆ 이오범(李五範)

1928. 6. 28 본관 함평. 호 은정(隱亭). 계봉(啓奉)의 아들. 월야면 정산리에서 태어남. 전라남도청 34년 근무(행정사무관). 한국미술대전 등 7개부문 초대작가. 한국 예술문화협회 이사. 신미술대전 심사위원. 제8회 한국미술제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근정훈장, 예술문화상, 창작 미술상을 받았다. 아내는 평산 신순애(申順愛)다.

◆ 이오섭(李五燮)

1915. 11. 5 ~1967. 2. 25 본관 함평. 시조의 29세손. 방삼(方三)과 진주정씨의 아들로 나산면 월봉리에서 태어났다. 1950년 10월 20일부터 1953년 11월 22일까지 나산면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고순례(高順禮)다.

◆ 이오순(李五淳)



이오순

1928. 2. 14 본관 광주(廣州). 석장(錫章)과 밀양 박말례(朴末禮)의 딸로 장성군 삼서면에서 출생하였고, 김해 김재호(金載昊. 1923. 9. 26생. 손불면 동암리)와 결혼했다. 1998. 10. 17 광주향교 전교의 효열부상을 받았다.

◆ 이옥범(李玉範)

1934. 12. 10 본관 함평. 계윤(啓潤)의 맏아들로 함평읍 내교리 외대에서 출생. 미국에서 의원 개업. 아내는 울산 박봉석(朴鳳錫)의 딸 분수(粉守)다.

◆ 이옥순(李玉順)

1918. 7. 25 해보면 해보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이완범(李玩範)

1884~1937 본관 함평. 자 사안(仕安). 계백(啓栢)의 양아들. 생부 계순(계순).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제2대 함평면장을 지냈으며 함평공원에 공적비를 세웠다. 아내는 동북 오정상(吳貞相)의 딸이다.

◆ 리왕기(李旺基)

본관 전주. 손불면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이요범(李堯範)

1938. 1. 12 본관 함평. 자 상남(相湍). 시조의 28세손. 계섭(啓燮)의 맏아들로 나산면에서 출생. 학사. 남해화학 생산부장 역임. 1978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순흥 안경식(安敬植)의 딸이다.

◆ 이용근(李龍根)

1908 작고. 본관 함평. 족보명 도행. 재준의 둘째 아들.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중졸. 초등학교장을 지냈다. 1970년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음. 아내는 평해 황효익(黃孝翼)의 딸이다.

◆ 이용범(李琿範)

1875~1932 본관 함평. 자 처안(處安). 현감 계순(啓筭)의 맏아들로 함평읍에서 출생. 의관(議官)을 지냈다. 아내는 분성 김이환(金履煥)의 딸이다.

◆ 이용복(李裕馥)

1942. 10. 1 나산면 용두리 선박에서 출생. 광주농업학교 졸업. 육군 소령 예편.

◆ 이용섭(李庸燮)

1951. 8. 11. 본관 함평. 향순(香淳)과 정종임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박사. 국세청장, 행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역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현재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있으며 아내는 신영옥이다.



◆ 리용연(李龍淵)

1912~작고. 본관 전주. 완풍군 22세손. 현수의 아들로 1929. 11월 광주학생운동 주동자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 이용철(李榕哲)

1940. 1. 15 본관 고성. 자 용재(榕宰). 시조의 30세손. 맹수(孟洙)의 둘째 아들. 박사. 대학교수. 아내는 경주정씨다.

◆ 리용헌(李龍憲)

1923. 4. 15 본관 전주. 신평면 동정리에서 출생. 신평면 부면장 1대 함평군의원을 역임하였다.

◆ 이용행

1931. 9. 29 함평읍 장년리 724번지. 제5 경비대 하사로 근무하다 1953. 2. 6 경남 대전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워 공을 세웠기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이용헌(李龍憲)

1938~1996. 본관 함평.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에서 태어남. 광주사법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행정학 박사. 동신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 이우수(李雨洙)

1956년 손불면 대전리 출생. 조선대 졸업, 호남대 행정대학원 수학. 『월간아동문학』에 동시로 등단. 저서로는 동시집 『고향편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가 있다. 한국문협회원, 국제펜클럽회원이며 광주공무원문학동우회장 역임. 전남아동문학상 수상.

◆ 이우은(李愚銀)

1929~1949 해보면에서 출생하여 함평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였다. 함평은 여수 순천 주둔군 반란 사건 이후 공비들이 준동하기 시작하자 1948년 11월부터 공비소

탕작전을 전개하였다. 해보면 일대에 침입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2월 20일에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비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한국전몰용사 공훈록. 국방부>

◆ 이우진(李玕珍)

본관 함평.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한의학박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조교수

◆ 이우행(李友行)

1944. 6. 15 본관 함평. 재옥(載郁)의 맏아들로 나산면 초포리 출신. 대졸. 산업주식회사 사장, 제2대 통일주체대의원, 함평군 변영회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경주 김문현(金文顯)의 딸 영자(令子)다.

◆ 이우헌(李禹憲)

1941. 9. 12 본관 함평. 시조의 26세손. 민옥(敏玉)의 양아들. 생부 민권(敏權). 대동면 금산리에서 출생. 학사. 공군 소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아내는 이천 서일만(徐鎰萬)의 딸이다.

◆ 이원곤(李原坤)

1964. 10. 16 본관 함평. 시조의 31세손. 행선(行善)과 함평 모영임(牟永任)의 아들로 대동면 용성리에서 태어났고, 1989년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한길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현재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경주 김지용(金智用)과 배금분(裴今分)의 딸 혜령이다.

◆ 이원범(李元範)

1947. 8. 27 본관 함평. 계주(啓柱)의 둘째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 국방부 행정사무원, 조달청 외자총괄과장을 지냈다. 아내는 김수암(金水岩)의 딸 봉춘(鳳春)이다.

◆ 이원행(李元行)

1950.1.14. 본관 함평. 종석(種錫)과 광산 김재덕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 출생.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석사). 서울특별시 무학중학교장. 아내는 진주 정찬원의 매(妹) 덕인이다.

◆ 이원형(李元炯)

1946. 3. 5 본관 경주. 나산면 덕림리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 소장. 국방부사업조정국장 역임.

◆ 이윤성(李允聖)



이윤성

1954. 10. 1생 본관 함평(咸平), 호 청림(靑林) 건영(建榮)과 함평(咸平) 노덕순(魯德順)의 3남 4녀 중 장남으로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와 광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광주시청, 전라남도청 기획관리실, 내무국, 지역경제국 근무와 대동면장, 순불면장, 함평읍장, 사회복지과장을 거쳐 현 읍다면장을 역임했다 '02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아내는 언양(彦陽) 김성호(金成浩)와 진주 정천임(鄭淺任)의 7남매중 여섯째 화자(花子)이며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으며 “正直하고 眞實하자”, “잘못 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生活哲學을 지표로 삼고 있다.

◆ 이윤행(李倫行)



이윤행

1942. 7. 2 본관 함평. 재옥(載玉)과 나석예(羅錫藝)의 넷째 아들로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하였고 강경상업고등학교,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했

다. 광주기계공업학교 서무부장, 나주, 함평, 구례교육청 근무.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광주송정도서관장을 지냈다. 1985년 국무총리로부터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아내는 전주 이일채(李一采)와 윤윤순(尹允順)의 딸 명례(明禮)다.

◆ 이윤행(李允行)

1934. 5. 4 본관 함평. 재일(載日)의 맏아들. 해보면에서 출생. 육군대령으로 복무중이다. 아내는 순천 박종언(朴鍾彦)의 딸 안희(安姬)다.

◆ 이윤형(李允衡)

본관 함평.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군무사무관으로 있다.

◆ 리은묵(李殷默)

1929. 3. 1 본관 전주. 월야면 정산리에서 태어남. 고졸. 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월야농업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이은자(李銀子)

1952년 함평읍 출생. 전남대 가정학과, 호남대 대학원 국문학과 졸업. 1991년 문학예술에 수필 「비와 음악」이 당선되어 등단. 저서로는 수필집 『바오로의 그림』 『엄마 이젠 다 말 한 게요』 등이 있다.

◆ 이이행(李以行)

1935. 1. 9 본관 함평. 시조의 30세손. 재형(載炯)과 밀양 박말재(朴末才)의 맏아들로 신광면 함정리에서 출생하여 신광초, 영광중학교, 광주농업학교를 졸업하였다. 시인이며 한국자유시인협회 이사, 한국공간시인협회 이사, 신광경로회장을 역임했고, 1992년 문예사조 신인상, 1996년에 전남시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시집 『영산강 물소리』 (1996) 『직녀의 한』 (2001)이 있다. 아내는 진주 정순혁(鄭珣赫)과 창령 조정임(曹貞任)의 딸 연애(妍愛)다.



◆ 이인범(李仁範)

본관 함평 학교면에서 출생함. 주식회사 인정공업(仁正工營) 대표로 있다.

◆ 이인서(李寅緒)

1840~1912 본관 함평. 자 영수(英秀). 호 화락당(華樂堂). 유림(儒林)의 둘째 아들로 오위장을 지냈다.

아내는 옥천 설윤방(薛倫邦)의 딸이다.

◆ 리인찬(李寅燦)

본관 전주. 함평여중 서무과장, 함평우체국장을 지냈다.

◆ 이인행(李仁行)

1898~1967 본관 함평. 일명 홍근(洪根). 자 경원(景元). 호 삼역(三亦). 재관(載琯)의 아들로 1919. 3. 1 파고다공원의 독립선언식에 참석 시위 중 체포되어 3일간 구금 되었다가 풀려나 인천 월미도에서 한남주와 국민대회 취지문을 작성하고 함평 책임자가 되어 귀향하여 조사현(曹士鉉) 등과 함평만세운동의 계획을 세웠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무산되고 문장(文場)으로 가 이운상 등과 접촉하여 1919. 4. 8 문장만세운동이 성립되기까지 막후 조정을 하였다. 1919년 10월 독립운동을 위한 임시정부 국민대회 전남북 특파원 기산도(奇山度), 김종(金鍾)과 같이 군자금 모집하다가 1919. 10. 21에 체포되어 1920.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복심원에 상고하여 1921. 2 18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취하되고 1922. 2. 19 만기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도 농민운동에 가담하는 등 끝까지 항일운동에 나섰으며 1982. 8. 15 건국공로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아내는 김해 김일남(金一南)이다.

◆ 이인헌(李麟憲)

1905~작고. 본관 함평. 자 몽린(夢麟). 호

청파(淸파). 시조의 26세손. 민철(敏哲)의 둘째 아들로 대동면 금산리에서 태어났다. 농림부 기사, 도 과장, 도곡물협의회장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 김상언(金相彦)의 딸이다.

◆ 이일우(李一雨)

나산면 구산리.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이일행(李一行)

1931. 12. 5 본관 함평. 호 초민(艸民). 성우(成佑)의 맏아들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함평군변영회장, 함평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를 지냈다. 아내는 상주 주복문(周福文)의 딸 길선(吉善)이다.

◆ 이자원(李子元)

1914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재갑(載甲). 길범(吉範)의 맏아들. 함평읍에서 태어남. 서울특별시에서 초등학교장을 역임함. 아내는 창녕 조병모(曹秉謨)의 딸 순(順)이다.

◆ 이장서

1933. 11. 9 함평읍 진양리 1148번지. 육군부대 중사로 근무하던 때 금화지구 작전에서 큰공을 세워 1953. 7. 1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이장헌(李章憲)

1928. 6. 15 본관 함평. 돈규(敦奎)의 둘째 아들.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해병중령으로 예편. 아내는 김해 김달선(金達善)의 딸 영자(英子)다.

◆ 이장현(李長賢)

본관 함평.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약사. 덕산제약회사 공장장으로 있다.

◆ 이재건(李載建)

1930. 12. 14 본관 함평. 관범(官範)의 둘째



이재권

째 아들.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주월군사령부 작전 선임장교, 육군본부 작전상황실장을 역임하였고 1968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대령으로 예편한 후 금강산업주식회사 논산사업소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평산 신정순(申貞順)이다.

◆ 이재관(李載寬)

1925. 3. 17 본관 함평. 호 중산(重山). 정범(正範)과 이천서씨의 아들로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 안하(安下)중학교,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 전라남도 경찰국 근무(경위-警衛), 대한중기(重機)협회 전남지부장, 일신중기(주) 대표이사, 일신종합건설 대표이사, 재광 함평군 향우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함평이씨 대종회회장을 맡고 있으며 함평군민의 상을 수상하였다.
아내는 은진 송숙례(宋淑禮)다.

◆ 이재구(李載久)

1887~1952 본관 함평. 호 어은(漁隱). 시조의 29세손. 운범(雲範)과 나주 정씨(鄭氏)의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하였다.
진휼가(賑恤家)로 세인의 칭송을 받았다. (조선환여승람 20쪽)
아내는 전주 리경선(李京善)의 딸이다.

◆ 이재권(李載權)

1930. 4. 23 본관 함평. 해보면 대각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대학원 졸업. 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 이재남(李載男)

1889~1974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재현(載賢). 자 주경(周卿). 동범(東範)의 둘째

아들로 나산면장을 지냈다. 아내는 광주 이석풍(廣州李錫豐)의 딸이다.

◆ 이재동(李載東)

1915~1969 본관 함평. 일명 재관(載官). 호 수봉(壽峰). 완범(玩範)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에서 태어남. 군 과장, 광주광역시청 행정관리담당관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행주 은자정(殷子楨)의 딸 문화(文華)다.

◆ 이재두(李載斗)

1908. 2. 16 본관 함평. 호 월담(月潭). 도범(燾範)의 맏아들. 나산면 초포리 출신. 일본 동경 심천(深川)고등공업학교 졸업. 일본 동경실용철물제조공업사 사장 및 조합장, 군산상선(商船)상공자매회사 전무이사, 함평이씨 초대 서울 종친회장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 김상호(金相浩)의 딸 채경(彩璟)이다.

◆ 이재병(李載炳)



이재병

1938. 7. 27 본관 함평. 호 운학(雲鶴). 종식(鍾錫)과 함양 박중림(朴仲林)의 아들로 나산면 구산리에서 출생하여 광주공업고등학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공군대학을 수료한 후 11전투비행단 작전기획과장, 유엔군 사령부 한국군 연락 장교 단장, 공군훈련비행단 작전부장, 공군본부 정보참모부 정보처장, 공군 제2325부대장을 지냈으며 1970년 화랑무공훈장, 1980년 보국훈장 3.1장 등 여러 훈장을 받았다.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였고 롯데쇼핑 감사실장, 시사영어사 종로학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주) 정원푸드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성주 도흥록(都興祿)과 창령 조말순(曹末順)의 딸 문희(文姬)다.



◆ 이재봉(李載鳳)

본관 함평 대동면 월송리에서 출생. 1961년에 대동면장을 지냈다.

◆ 이재봉(李載奉)

1947. 1. 29 본관 함평. 상범(相範)의 아들. 학교면 월산리에서 출생.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sony 한국현지법인무역과장, 대동전자(주)영업부장, 목성(木星)전자주식회사 이사. 아내는 창녕 조기남(曹基南)이다.

◆ 이재봉(李載鵬)

본관 함평 해보면에서 출생함. 대봉전자회사 회장으로 있다.(회사 경기도 안산시)

◆ 이재산(李載産)

1948. 10. 23 본관 함평. 자 성연(聖淵). 규범(奎範)의 맏아들로 손불면에서 태어남. 학사. 한일은행 남대문지점장 등 역임. 아내는 의령 남경시(南庚視)의 딸 연숙(淵淑)이다.

◆ 이재석(李載錫)

1955. 5. 10 본관 함평. 창범(昌範)과 하동 정봉례(鄭鳳禮)의 아들로 신광면 함정리에서 출생하여 광주서중, 광주일고,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과정, 일본 동경공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남대학교 조교수, 일본 이화학(理化學)연구소를 거쳐 1994년부터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로 있다.

아내는 여산 송면(宋勉)과 옥천 조복남(趙福男)의 딸 은(恩)이다.

◆ 이재승(李載承)

1930. 5. 24 본관 함평. 시조의 29세손. 호 송강(松崗). 용범(用範)과 광산 김선여(金善茹)의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하였고, 목포공업공업학교 4학년을 수료했다.



이재승

1951년 초등학교 교원 시험에 합격하여 함평군 관내 초등학교의 교사와 교감, 해남문내동초등, 손불동초등학교 등의 교장을 역임하였고 정년퇴직 후 함평교육청 행정자문

위원, 장성오산창의사 창의록, 사지역간위원회 편집인, 학교법인 실림학원(나산중, 고) 이사, 함평이씨 대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1984. 5. 8 효자상(대한노인회 함평지부장), 1985. 12. 5 국민훈장 석류장, 1993. 8. 31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아내는 당악(棠岳) 김장옥(金章玉)과 전주 리유순(李柔順)의 딸 두만(斗滿)이다.

◆ 이재승(李載昇)

1931. 4. 7 본관 함평. 의범(義範)의 아들. 월야면 정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수의학과 졸업. 나주군수의사회 회장, 전남임상(臨床)수의사학회 회장, 나주지구 낙농회장을 지냈다. 아내는 강영자(姜英子)다.

◆ 이재실(李載實)

1937. 10. 12 본관 함평. 화범(和範)의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태어났으며 광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대마초등학교 등 교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함평 노계수(魯啓洙)의 딸 순례(順禮)다.

◆ 이재연(李載淵)

본관 함평. 해보면에서 출생하였고 공학박사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다.

◆ 이재연(李載連)

1933. 6. 28 본관 함평. 경범(頸範)아들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함평농업고등학교 졸업. 광주지방법원 서기, 함평군축산협동조합장(2선)을 지냈다. 아내는 금성 나영

숙(羅英淑)이다.

◆ 이재열(李載烈)

1957. 6. 16 본관 함평. 일명 형렬(亨烈). 석범(昔範)의 둘째 아들. 함평읍 출신. 의사. 아내는 남양 홍근상(洪根常)의 딸 정숙(貞淑)이다.

◆ 이재열(李載烈)

본관 함평
함평읍 가동리에서 태어남. 내무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함

◆ 이재열(李載烈)

1925. 9. 5 본관 함평. 나산면 구산리에서 출생
1대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 이재열(李載烈)



1944. 11. 23생 본관 함평(咸平) 용범(龍範)과 나주(羅州) 나연순(羅蓮順)의 장남으로 함평군 엄다면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카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경상남도청, 내무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서기관을 거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청장을 역임하였으며 홍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서울보성여자고등학교 육성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경기도 부천시 원미갑 선거구 대책위원회 대통합민주당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김해(金海) 김갑택(金甲澤)과 이명심(李明心)의 차녀 영자(榮子)로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이재엽(李載燁)

본관 함평
월야면에서 출생함. 의학박사. 성심병원 마취과장으로 있다.

◆ 이재우(李載宇)

1946. 1. 14생 본관 함평(咸平) 호 만정(滿亭) 성범(成範)과 김해김씨(金海金氏)의 아들로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에서 출생 광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 목포시, 나주시, 함평농업협동조합 전무를 역임 농업중앙회장과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주)신아금호 이사, 민주당 이용섭국회의원 상임고문이며 아내는 김해(金海) 김성희이며 슬하에 1녀1남을 두었다.

◆ 이재욱(李在旭)

1925. 8. 22 본관 함평. 일명 계욱(啓旭). 준헌(俊憲)의 아들.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일본 대분현립 국동농업고등학교 졸업. 영광, 광주세무서 계장, 해남, 강진세무서과장을 지냈고 세무사업(稅務事業)을 개업하였다. 아내는 양인순(梁寅順)이다.

◆ 이재욱(李載郁)



이재욱

1926. 4. 19 본관 함평. 호 풍산(豊山). 이범(二範)과 광산 김소녀(金小女)의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하였고, 1939년에 평양상업중학교 졸업했다.

통구주식회사 평양지점 서기, 나산면의원 당선, 대한통운 함평출장소장, 정부미도정공장 함평산업주식회사 사장, 광주수산물시장주식회사 대표이사, 함평군정자문위원장, 풍산학원(광주문성중,고등학교)설립 동교 이사장, 광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금성 나세창(羅世昌)과 나주 임연순(林連順)의 딸 기주(基柱)다.

◆ 이재욱(李載郁)

1938 본관 함평.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광주광역시 계림 2동장을 역임하였다.



◆ 이재원(李載沅)

1945. 3. 6 본관 함평. 우범(又範)의 넷째 아들로 월야면 정산리에서 출생함. 육군대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아내는 전주 최규태(崔圭泰)의 딸 평자(平子)다.

◆ 이재원(李宰原)

대동면 출신. 서예가. 호 모인당(慕仁堂). 전주 대사습놀이 전주 제1회 백일장 서예 부문에 입선한 후 서울 제3회 전국 신미술대전 서예 부문에 입상하였다.

◆ 이재윤(李載潤)

본관 함평. 월야면에서 출생. 의학박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있다.

◆ 이재일(李載日)

1932. 10. 11 본관 함평. 자 준형(俊衡). 기범(基範)의 아들. 나산면 우치리에서 태어남. 고려대학교 졸업. 경기도 산업국 지역사회과장, 보건사회국 사회과장, 관광운수과장, 양평군수, 내무부지방 행정연구위원, 전문위원(2급 을류)을 지냈으며 (주)태성전자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아내는 전주 이상훈(李尙熏)의 딸 진순(眞順)이다.

◆ 이재주(李載珠)

본관 함평. 함평읍에서 출생. 1920년 3월 26일 함평만세운동을 벌일 때 쓸 태극기를 23일 모순기 집에서 장정현 등과 함께 만들어 김용언에게 전했다.

◆ 이재진(李載震)

1940. 2. 5 본관 함평. 호 만석(萬石). 윤범(潤範)과 대구 배복덕(裴福德)의 아들로 손불면 동암리에서 출생하여 함평중학교, 학다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경영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 대학교 환경대학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이재진

1978. 5. 18 서울 관악구에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당선하였고 1991. 7. 8 서울시의원에 당선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4대 · 5대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관악지구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1995년 평통활동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내는 영산 김인수(金仁洙)와 전주 이정자(李正子)의 딸 경임(敬任)이다.

◆ 이재진(李載珍)

본관 함평. 함평읍에서 태어남. 정읍동 초등학교장을 역임함

◆ 이재진(李載鎭)

1952. 12. 6 본관 함평. 석범(昔範)의 맏아들로 함평읍 출신. 의사. 아내는 밀양 박혜연(朴惠蓮)이다.

◆ 이재철(李載哲)

1920. 6. 20~작고. 본관 함평. 선범(塏範)의 아들. 함평읍 장년리에서 출생. 함평보통학교 졸업. 함평, 나주, 강진군청에서 20년간 근무. 한국전력전주지사 서무부장을 지냈다. 아내는 밀양 손광덕(孫廣德)이다.

◆ 이재태(李載泰)

1961. 3. 15 본관 함평. 자 태한(泰翰). 주범(周範)의 맏아들. 월야면 출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졸업. 전북신성여객 주식회사 기획실장을 역임. 아내는 장연 김영혁(金瑛赫)의 딸 동근(東瑾)이다.

◆ 이재학(李載學)

1893~1941 본관 함평. 처음 이름 종하(鍾河). 자 치룡(致龍). 호 만산(晩山). 우범(佑範)의 맏아들로 대동면장을 지냈다.

아내는 남양 홍순길(洪淳吉)의 딸이다.

◆ 이재혁(李載赫)

1893. 9. 15~1992 본관 함평. 호 죽하(竹下). 군수 동범(東範)의 둘째 아들.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일본대학 졸업. 함평흥업회사 사장, 건국준비위원회 함평군위원장, 함평군 초대 노인회장을 지냈다. 아내는 전주 리석재(李錫宰)의 딸이다.

◆ 이재호(李載鎬)

1922. 1. 27 본관 함평. 의범(義範)의 아들. 월야면 정산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원 수료. 조선대학교부속 중,고등학교 교감, 중학교장을 지냈다. 아내는 죽산 안종택(安鍾宅)의 딸 경순(慶淳), 강릉 유재선(劉載善)의 딸 금희(錦姬)다.

◆ 이재화(李載花)

1942. 9. 10 본관 함평. 수만(秀滿)의 아들. 해보면에서 출생. 해보면농업협동조합 이사. 제2대 함평군의원 당선. 아내는 김정희(金貞熙)다.

◆ 이재환(李載煥)

1938. 12. 28 본관 함평. 기범(箕範)의 맏아들.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육군 중령으로 예편. 아내는 신안 주명소(朱命召)의 딸 형자(亨子)다.

◆ 이재황(李載晃)

1940. 11. 26 본관 함평. 자 경염(炅炎). 석범(奭範)의 넷째 아들. 월야면 정산리에서 태어남. 학사. 한국학술원 연구 발표회에서 1등상 총화상(總和賞)을 받음. 아내는 해주 최용규(崔龍奎)의 딸 귀자(貴子)다.

◆ 이재후(李載厚)

1934. 12. 8 본관 함평. 의범(義範)의 아

들로 월야면 정산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 월야면장, 만주공화당 함평군당 부위원장, 한일청년학생회의 한국대표, 무등건설 대표를 지냈다. 아내는 광산 김영은(金永銀)의 딸 난영(蘭榮)이다.

◆ 이정곤(李鉦坤)

1966. 5. 22 본관 함평. 시조의 31세손. 행만(行萬)과 남원 양삼순(梁三順)의 아들로 대동면 용성리에 출생하였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6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아내는 해주 오이근(吳利根)과 풍산 홍순례(洪順禮)의 딸 미경(美京)이다.

◆ 이정령(李正寧)

1938. 4. 24 본관 함평. 일명 정헌(正憲). 돈인(敦仁)의 아들.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전남도교육위원회 재무과, 서무과 근무. 문태중고등학교장, 인성학원(寅聖學園)관선 이사장, 목포신명여자상업학교장 등 역임. 아내는 압해 정철균(丁哲均)의 딸 향자(香子)다.

◆ 이정인(李正仁)

1944. 5. 18 본관 경주.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생. 수협전라남도 차장을 지냈다.

◆ 리정재(李正宰)

1946. 12. 3 본관 전주. 근첩(根燮)과 김해 김대례(金大禮)의 아들로 나산면 나산리에서 출생하였고 나산중학교(김정고시 합격), 광주상업고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0~1976년 함평초등학교 교사, 1976~1980년 완도군외중, 함평중, 함평농업고등학교 교사, 1980~1986년 동신실

업전문대학 교수, 1986~1997년 광주교육대학 교수, 교무처장, 1997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교육대학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대학수학'(1982. 경암출판사), '미적분학'(1983. 경남출판사), '신간대학수학 입문'(1992. 형설출판사), '수학교육'(1993. 동명사) 등이 있고 '사고촉진 발문을 통한 문제해결력 신장 방안'의 30편에 이르는 논문이 있다. 아내는 밀양 손상철과 밀양 박순례의 딸 봉숙(奉淑)이다.

◆ 이정행(李正行)

1917. 8. 5 본관 함평. 재혁(載赫)의 아들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태어남. 동경농업대학 졸업. 북해도 농업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강사, 농촌진흥청농업기술연구소장. 단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농림수산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아내는 정화진(鄭花珍)이다.

◆ 이정행(李貞行)

1919. 8. 28 본관 함평. 호 석산(石山). 시조의 30세손. 재인(載仁)과 함평 모씨의 아들로 나산면 사산에서 태어나 1935년 나산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93. 8. 8 함평향교 전교의 효자상을 받았다. 아내는 영산 김광표(金光杓)의 딸이다.

◆ 이정행(李征行)

1983. 1. 3생 본관 함평(咸平) 재우(載宇)와 김해(金海) 김성희의 장남으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 목포중앙병원 책임약사를 지냈으며 광주대명약국을 운영하고 있음

◆ 이종만(李鍾萬)

작고. 본관 경주.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생. 광주방송국 국장을 지냈다.

◆ 이종만(李鍾萬)

호 남강(南岡). 함평읍 출신으로 1965년

함평시우회(時友會)를 만들어 초대회장을 지낸 시조인이다. 1967년 삼정(三正)노인정에서 지방 시조 경창(競唱)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1969년에 목포에서 열린 전국 남녀 시조경창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이종범(李鍾範)

1953. 7. 30 본관 함평. 시조의 28세손. 대학원장 계수(啓水)의 맏아들로 함평읍 출신.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로 있다. 아내는 장수 황흥연(黃興淵)의 딸 인미(仁美)다.

◆ 리종삼(李鍾三)

본관 전주.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 제13대, 제14대 손불면장을 지냈다.

◆ 이종석(李鍾錫)

본관 함평. 예범(禮範)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태어났으며 초대 대동면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광산 김태일(金太一)의 딸 재덕(在德)이다.

◆ 이종성(李鍾成)

1915. 3. 29~1950 본관 경주.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생. 고졸.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이종수(李鍾洙)



이종수

1953. 3. 1 본관 함평. 시조의 29세손. 석범(碩範)과 광산김씨의 아들로 나산면 우치리에서 출생하여 광주 승문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에 서울시 9급 을류 공채 합격, 1995년에 서울시 지방행정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 양청구청 신월제7동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1986년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아내는 신평 이완식(李完植)의 딸 옥희(玉姬)다.

◆ 이종일(李鍾一)



이종일

1941. 1. 7생 본관 전주(全州) 호 송매(松梅) 만기(萬基)와 이천(利川) 서복임(徐福任)의 장남으로 엄다면 신계리에서 출생 목포사범학교를 졸업 신광초등학교장을 역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 광산(光山) 김재철(金在哲)과 전주(全州) 이막동(李幕同)의 외동딸이다.

◆ 이종표(李鍾杓)



이종표

1908. 12. 1~작고. 본관 경주 신광면 월암리 연천에서 출생. 일본 규슈(九州) 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1949년 사법관시보에 합격하여 광주, 춘천 지방법원 판사, 진주, 목포지원장, 제주, 청주, 전주 지방법원장을 지냈다.

◆ 이종희(李宗禧)

1973.생 본관 함평(咸平) 재열(載烈)과 김해(金海) 김영자(金榮子)의 장녀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 이주범(李周範)

1936. 10. 25 본관 함평. 계수(啓壽)의 셋째 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 석사. 전북신성여객 주식회사 회장, 유한회사 천일공업사회장, 천일수출포장회사 회장, 유니온물

산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 아내는 청주 한태균(韓泰均)의 딸 명자(明子)다.

◆ 이주헌(李周憲)

1870~1923. 본관 함평. 자 문화(文華). 호 상실암(尙實菴). 시조의 26세손. 둔형(敦亨)의 맏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전간재(田良齋) 문하에서 수학. 천성으로 총명하고 재기가 넘쳐 문학으로 이름 높았고 특히 성리학에 밝았다. 현읍지와 도지학행편에 올라있다. 아내는 광산 김영휘(金泳輝)의 딸 안동 권치덕(權致德)의 딸이다.

◆ 이주헌(李周憲)

1924. 3. 10 본관 함평.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고졸. 광산남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이주헌(李周憲)

본관 함평. 나산면 우치리에서 출생. 농업중앙회 진도군지부장을 지냈다.

◆ 이주헌(李周憲)



이주헌

1949. 11. 15생 본관 함평(咸平) 둔풍(敦豐)과 광산(光山) 김순녀(金順女)의 장남으로 함평군 함평읍에서 출생 함평군농산과장을 역임하였으며 아내는 하동(河東) 정순기(鄭順基)의 3녀 복순(복순)이다.

◆ 이주헌(李胄憲)



이주헌

1944. 1. 18생. 본관 전주(全州) 호 석정(石亭), 민옥(玫玉)과 수원(水原) 백삼례(白三禮)의 막내로 손불면 양재리에서 출생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장을 역

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 아내는 해주(海州) 오길룡(吳吉龍)과 문정자(文貞子)의 장녀 부자(富子)이다.

◆ 이준범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생. 4대 신광면장을 지냈다.

◆ 이준행(李俊行)

1928. 9. 30 본관 함평. 재문(載文)의 아들. 본적 나산면. 중국 흑룡강성에서 출생. 신의 초등학교 등 교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평강 채노석(蔡魯碩)의 딸 장현(長賢)이다.

◆ 이준헌(李準憲)

1898~1961 본관 함평. 호 동담(東潭). 시조의 26세손. 둔형(敦炯)과 밀양 박태국(朴泰局)의 아들로 서당을 개설하여 많은 후학을 길렀으며 효자로 향도천양(鄉道薦揚)을 받으니 2세 삼효가(二世三孝家)로 널리 추앙을 받았다. 아내는 수성 최윤호(崔潤浩)의 딸 부선(富仙)이다.

◆ 이지헌(李洙憲)

1950. 3. 13 본관 함평. 둔현(敦炫)의 아들. 대동면 용성리 출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화순 중앙병원장. 아내는 평강 채경자(蔡敬子)다.

◆ 이진섭(李鎭燮)



이진섭

1942. 4. 30 본관 경주. 상복(相福)과 고아산 김수당(金守棠)의 아들로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95년 제2대 함평군의회에 당선되었고, 함평군의료보험조합 이사를 역임했다. 아내는 청송 심효택(沈孝澤)과

김해 김종녀(金終女)의 딸 미현(美賢)이다.

◆ 리진연(李震淵)



이진연

1931. 11. 18 본관 전주. 호 두정(頭亭). 완풍대군 22세손. 현정의 셋째 아들. 광주사범학교를 다녔고 제9대, 10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민당 전남도당위원, 민한당정책의 의장, 당무위원을 역임했다. 아내는 문화유(柳)씨 종렬(鍾烈)의 딸이다.

◆ 이진우(李振雨)



이진우

1934. 3. 5 본관 경주. 호 정석(靜石). 아버지 종하(鍾河)와 어머니 윤순옥(尹順玉)의 아들로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인천직업전문학교 훈련부장·원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김영기(金永幾)와 최금선(崔今仙)의 딸 인자(仁子)다.

◆ 이진웅(李進雄)

본관 함평 나산면 초포리 출신. 의사. 전남대학교 병원 내과에 근무하고 있다.

◆ 이진행(李辰行)

1940.1.25. 본관 함평. 종석(鍾錫)과 광산 김재덕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태어났으며 손불면장, 신광면장, 범국민예의실천본부함평지부 회장 역임.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문인화대전 초대작가. 서예대전 대상수상, 동 초대작가. 대통령 근정포장 수상. 현재 함평문화원



이진형

원장. 아내는 진주 강금암(姜今岩)과 창녕 조복희의 딸 명자(明子)다.

◆ 리차례(李次禮)

1909. 11. 3~작고. 영진(榮鎭)의 딸로 나주

김용현(金用炫)의 아내다. 시어머니의 중병에 간호함이 극진하니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하였고 1978. 5. 6 전남도지사의 효자상을 받았다.

◆ 리찬규(李贊圭)

본관 전주. 엄다면장(1969~1973)을 역임하였다.

◆ 이찬형(李燦衡)

본관 전의.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 제8대(1968. 6. 11~1968. 11. 5), 제11대 해보면장(1974. 2. 22~1979. 8. 25)을 지냈다.

◆ 이창헌(李昶憲)

1925. 8. 8 본관 함평. 시조의 26세손. 민석(敏錫)의 둘째 아들. 대동면 금산리에서 출생하였고 사무관을 지냈다. 아내는 죽산 안재복(安在福)의 딸이다.

◆ 이창헌(李昌憲)

1953. 6. 8 본관 함평. 시조의 26세손. 민복(敏福)의 넷째 아들.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아내는 김혜 김규태(金圭泰)의 딸 정희(貞姬)다.

◆ 이창행(李昌行)

1952. 3. 16 본관 함평. 자 영욱(榮旭). 재동(載東)의 셋째 아들로 신학대학 졸업. 목사. 아내는 경주 정영자(鄭英子)다.

◆ 이채홍(李采洪)



이채홍

1939. 1. 19 본관 함평. 호 월천(月川). 재준(載俊)과 밀양 박맹례(朴孟禮)의 아들로 손불면 월천리에서 태어났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77년 광주지방원호청 운영과장, 1994년 함양보훈지청장, 1995년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관, 1995~97까지 순천, 진주보훈지청장을 거쳐 현재 목포보훈지청장으로 있다. 아내는 전주 이상문(이상문)과 나주 임명순(林明順)의 딸 정례(李正禮)다.

◆ 이천구(李千九)

1912. 3. 12 본관 함평. 호 엄재(嚴齋). 시조의 26세손. 둔길(敦吉)과 함평모씨의 아들로 나산면 우치리에서 태어났다. 1985~1987년까지 함평향교의 전교를 역임했고 함평이씨 대종회 고문직에 있다. 아내는 금성 나한진(羅漢眞)의 딸이다.

◆ 이천우(李千雨)

본관 경주. 함평읍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일 등병으로 복무하였다. 이 학교는 주한미군이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되며 따라 중화기 및 야포 훈련을 교육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에 창설한 부대다.

지리산 일대 공비 토벌작전에 차출되어 작전 중이던 1950년 2월 5일에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고을 기리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비명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한국전몰용사 공훈록. 국방부>

◆ 이철규(李喆奎)

1873~1935 본관 함평. 현감 경인(景寅)의 둘째 아들. 성균관 생원을 지냈으며 아내는 남평문씨다.



◆ 이철범(李喆範)

1915. 10. 15~1997. 7 본관 함평. 호 화석(華石). 계택(啓宅)과 광산 노탑동(盧塔洞)의 아들로 해보면 용산리에서 태어났으며 월야보통학교 졸업하였다.

광주신보 사원, 광산군 교육위원, 해보면장, 함평군행정자문위원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 김재돈(金在敦)의 딸 복례(福禮)다.

◆ 이철우(李哲雨)

1939. 4. 20 월야면 월야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졸업. 조선대학교 공업전문대학 교수

◆ 이철행(李哲行)

1919~1948 본관 함평. 재남(載男)의 둘째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하여 장흥경찰서에서 경위로 복무하였다. 여수 순천주둔군 반란 사건을 진압하던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경감으로 추서하고 전쟁기념관 전사자비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한국전몰용사 공훈록. 국방부> 아내는 해남 윤중하(尹鍾夏)의 딸이다.

◆ 이철행(李哲行)



이철행

1955. 4. 11생. 본관 함평(咸平) 귀권(貴權) 일명 재종(載種)과 안동(安東) 김길례(金吉禮)의 3남으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성화대학을 나와 함평군청에 근무하며 함평엑스포기획부장, 지역경제과장에 재직 중이며 '99 국무총리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하였으며. 아내는 광산 김명술(金明術)과 咸平 노양숙(魯良塾)씨의 장녀 옥자(玉子)이다.

◆ 이철환(李喆煥)

1953. 10. 21 본관 함평. 향순(香淳)과 정

종임의 아들. 대동면 향교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고시 합격. 순천지검 근무. 변호사. 현재 전대법대교수. 아내는 박은영이다.

◆ 이청우(李清友)



이청우

1937. 7. 20 본관 함평. 호 평산. 시조의 29세손. 성범(成範)과 김해. 김납덕(金納德)의 아들로 해보면 금덕리에서 태어났으며 광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송정중, 광주동중, 광주고등학교 교사, 1975년 전남대학교 교육연구사, 1985~1995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중등교육국 인사담당 장학관, 중등교직과장, 1995 광주여자전산산업학교장, 1997년부터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있다. 아내는 순흥 안규성(安圭成)과 전주 리영자(李永子)의 딸인(仁)이다.

◆ 리초연(李超淵)

1926. 12. 3 본관 전주. 호 기촌(箕邨). 완풍대군 22세손. 현정(鉉正)의 둘째 아들로 1981년 옥조근정훈장(玉條勤政勳章)을 받았다. 아내는 여산송씨 기호(基豪)의 딸이다.

◆ 이춘배(李春培)

1949. 1. 10 본관 함평. 시조의 31세손. 재준(載俊)과 밀양 박맹례(朴孟禮)의 아들로 손불면 월천리에서 태어났다, 광주살레시오고등학교, 광주대학교, 광주대 행정학과 졸업. 1976년 포대장, 1985년 포병대대장, 중령 예편. 국무총리의 공로표창 받음 1990년 남해화학(주) 비상계획부장, 1992년 학군단장 역임. 2002년 『백두산문학』 과 2007 『문학예술』 에



이춘배

시가, 2003년에 『문학춘추』에 수필이 당선되어 시인이자 수필가로 활동. 문학춘추 편집위원, 남우회 광주 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시집 『길 찾아 나선 길』 수필집 『침묵연습』 외 『육군포병학교』가 있다. 아내는 경주 최정기(崔正基)와 장수 황순례(黃順禮)의 딸 영애(英愛)다.

◆ 이춘우(李春雨)

1950. 3. 10 본관 경주. 시조의 38세손. 중기(鍾基)의 다섯째 아들. 함평읍 기각리에서 태어남. 서울신학대학 졸업. 사과의 빛 교회 목사로 있다.

◆ 이태길(李泰吉)

본관 함평.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서양화가. 아호는 인송(仁松). 광주사범을 거쳐 조선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중앙대 예술대학원 졸업. 서울의 성신여대와 충북대 강사, 숭실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목우회(木友會)공모전, 공보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고 국전 입선 10여회, 특선 3회. 독일 바르베르부룩 화랑 2인 초대전(1987), 서울신문사 초청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전, 한국-불가리아미술교류전 등 많은 전시회를 가졌다. 광주시립미술관장, 목우회이사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동 운영위원 역임. 현재 한국구상미술협회 이사장, 종로미술인회장, 신작회고문으로 있다.

◆ 이태웅(李泰雄)

1922. 12. 2 본관 함평. 족보명 태행(太行). 호 화정(和亭). 재만(載萬)의 아들로 나산면 월봉리에서 태어남. 고창고등농사학교 졸업. 나산서, 나산초등학교 등 교감, 용산동, 월야남, 안양북, 나산북초등학교 등의 교장을 지냈다. 아내는 금성 나가천

(羅佳千)이다.

◆ 이택우(李宅雨)

1931. 3. 12 본관 경주. 나산면 덕림에서 출생 고졸. 육군 소령 예편

◆ 이태헌(李太憲)

1955.4.13. 기만과 문소순의 아들로 함평읍 대덕리 출생하여 함평농고고와 방송통신대 졸업. 1989년 『월간아동문학』에 소년소설이, 《고신신문》에 동화가 당선되어 등단하여 현재 무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문학가, 언론인이다. 제3회 기독교문예상 수상. 한국문협무안지부장, 서남저널신문사부사장, 해원유치원이사장 역임, 현재 《호남매일》 호매만평을 맡고 있다.

◆ 이택헌(李宅憲)

1922~1975 본관 함평. 처음 이름 택헌(澤憲). 시조의 26세손. 돈수(敦璣)의 맏아들로 엄다면 송로리에서 출생. 엄다면장(1952~1960), 민주공화당 18지구당부위원장, 함평문화원장을 지냈다. 아내는 경주 정달삼(鄭達三)의 딸 영임(永任)이다.

◆ 이판남

1926. 4. 2 함평읍 진양리 1243번지. 1사단 12연대 3대대 20중대 중사로 근무하던 때 포항전투에 참전 용맹을 떨쳐 1950. 8 화랑무공훈장, 평양전투에서 큰공을 세워 1950. 10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 이필형(李弼炯)

1931. 12. 16 본관 경주.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생.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 이 학(李 鶴)

1922. 6. 20 본관 함평. 전 국무총리 진의중(陳懿鍾)의 아내.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예가. 국내, 일본 동경, 대판에서 한글 서예전을 가졌으며 한국자수(刺繡)문화협회를 창설 초대회장을 지냈고 제11대 신사임당(申師任堂) 대상을 받았다.

◆ 이학주(李鶴柱)

1964. 8. 12생 본관 전주(全州) 해량(海亮)과 문화 유춘임(柳春林)의 5남으로 학교면 월호리에서 출생 서울 홍익대학교 졸업 부산동의대학교 대학원 졸업 현 육군 중령으로 복무 대통령 표창과 참모총장 감사패를 수상 아내는 광산(光山) 김영현(金永鉉)과 김순임(金順林)의 딸 장화(薔花)이다.

◆ 이행구(李幸久)

본관 함평. 나산면 초포리에서 태어남. 구영종합건설 사장으로 있다.

◆ 이행록(李行錄)

1903~1948 본관 함평. 시조의 30세손. 재열(載烈)과 남평 문씨의 아들로 대동면 용성리에서 출생하였다. 함평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는 1920년 3월 26일에 함평만세운동을 벌이기로 조사현 등과 합의한 후 김용언, 윤태완과 함께 학생 동원의 책임을 맡았다. 당일 만세운동은 계획대로 치루었으며 목포지청으로 이송되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었다. 1992년 독립유공자 표창(제84963호)을 받았고 1996년 나산면 초포리 사산마을 앞에 기념비를 세웠다. 아내는 광산 김재표(金在表)의 딸이다.

◆ 이행만(李行萬)

1939. 9. 15 본관 함평. 족보명 만행(萬行). 재찬(載贊)과 청송 심영순(沈永順)의 셋째 아들로 대동면 용성리에서 태어나 1958년 광주사범학교 졸업하였다. 1986~1990년까지 완도 봉선초, 함평석성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1990~1996년까지 목포, 담양교육청 장학사, 영창초등학교 등 교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남원 양태술(梁泰述)과 함평 이이순(李二順)의 딸 삼순(三順)이다.

◆ 이현국(李炫國)

1946. 11. 1 경식(景植)의 아들.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대학원 졸업. 전자공업박사

◆ 이현범(李賢範)

1924. 4. 16 본관 함평. 계권(啓權)의 아들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태어남. 일본 소창공업학교 졸업. 목포화물 자동차회사 창설 초대 사장. 전국자동차노조 전남지부장, 한국노총전남협의회 부의장, 전남 노사간담회 위원을 지냈다. 아내는 송경희(宋敬熙)다.

◆ 리현석(李炫石)



이 현 석

1937.6.6~2008. 본관 전주. 자 현식(鉉植). 호 성원(星園). 시조의 41세손. 정섭(貞燮)과 광산 김영임(金英任)의 둘째 아들로 신광면 송사리에서 출생하였고,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교사 8년, 1964년 제10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고려청자연구”로 대통령상 수상(지도교사). 전라남도향토사 연구협의회장. 제8대 함평문화원장,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역임. 1994. 10. 20

전남향토문화대상<한국문화원연합회전남도 지부>수상. 1997. 12. 5 향토문화대상<서울신문. 후원 문화부>수상. 저서로 장편소설 ‘열심은 하늘 아래’, ‘단방비약’, ‘민간약’, ‘성원록’(星園錄)이 있다. 아내는 인동 장재호(張在浩)와 김해 김덕인(金德仁)의 딸 정애(貞愛)다.

◆ 이현수(李賢洙)

1970. 9. 27생 본관 광주(廣州) 영택과 한양(漢陽) 조미자(趙美子)의 아들로 월야면 양정리에서 출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 수원시에서 이현수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내는 광주(廣州) 안중서와 임명순의 2남 3녀 중 넷째 윤선이다.

◆ 이현숙(李賢淑)

손불면 대전리 출신. 아호는 설향(雪香) 시인·수필가 수필아여고를 나와 ‘문예사조’에 수필 「꽃비」 당선(91)에 이어 ‘문학세계’에 시 「잠 속의 피리소리」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가야금과 창에도 조예가 깊으며 전통적 서정을 간축된 시어로써 형상화하는 시를 쓰고 있으며 저서로는 2006년에 발간한 시집 『대숲에 들면』이 있다.

◆ 이현재(李賢宰)

1922. 9. 10 대동면 향교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 중령 예편

◆ 리현정(李鉉正)

1899~1950 본관 전주. 자 직현(直鉉). 호 일우(一愚). 원풍대군 21세손. 동신(東信)의 아들
효우가 돈독하였고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하다가 소만국경(蘇滿國境)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고 광복 당시 만주의 서남지역에 주둔한 왜병 수백명의 무장해제를 지휘하였다.
아내는 금성정(丁)씨 경회(京會)의 딸, 경주김씨 순금(順金)의 딸이다.

◆ 이현하(李炫夏)

1939. 1. 2 경식(景植)의 맏아들.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공학 박사. 캐나다 원자력연구소 근무

◆ 이형범(李炯範)

1961. 12. 24 본관 함평. 정헌(正憲)의 아들로 학교면 복천리 출신.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 남대문종합병원 치과과장, 이형범치과의원 개업.

◆ 이형헌(李亨憲)



이형헌

1947.12.10생. 본관 함평(咸平) 호 무정(戊靜) 둔재(敦才)와 제주(濟州) 양대순(梁大順)의 7째로 출생 원광대학교 농과대학을 나와 함평염다중학교장, 함평손불중학교장, 영광염산중학교장을 역임 아내는 원주 이경현과 인동 장공육의 넷째 영자이다.

◆ 이호성(李浩聖)

1946. 1. 26 본관 함평. 건풍(建豐)의 둘째 아들로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하였고 수원지방법원 민사과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무안법률사무소장으로 있다.
아내는 천안 전병년(全炳年)의 딸 연임(蓮任)이다.

◆ 이호연(李浩衍)

1917. 2. 24 본관 함평. 자 원행(源行). 재남(載男)의 맏아들.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중졸. 경찰 경감 역임. 광주시 출장소장을 지냈다.
아내는 연안 김환기(金煥基)의 딸이다.

◆ 이호재(李虎宰)

1966. 6. 4생 본관 전주(全州) 강좌와 죽산(竹山) 안양순의 장남으로 월야면 월계리



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육군중령으로 재임중이며 광주(光州) 김종호와 정일자의 장녀 경순이다.

◆ 이홍길(李洪吉)

1942. 3. 10 본관 함평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생. 대학원 졸업. 전남대학교 교수

◆ 이화범(李和範)

본관 함평. 함평읍에서 출생. 동복(同福)군수를 지냈다.

◆ 이화여

신광면 월암리에서 출생. 3, 5대 신광면장을 지냈다.

◆ 이환행(李桓行)

1953. 4. 9생. 본관 함평(咸平) 호 서해(瑞海) 재영과 광산 김귀례의 3남으로 해보면에서 출생 해보·나주반남면장, 사회경제·문화관광과장, 학교·나산면장에 재직, '02 함평군 신지식인, '04 국가사회발전 대통령상표창, '08 문학21신인당선, 올해 자랑스러운 한국인100인(공직자부문)에 선정되었으며 아내는 흥성 장난숙이다,

◆ 이흥용(李興湧)

1954. 7. 19 본관 함평. 호 인재(仁齋). 오범(五範)의 아들. 월야면 정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대학원 수료. 의학박사. 해군교육단 의무실장. 광주기독교병원 안과과장. 아내는 의성 김영신(金映伸)이다.

◆ 이천서씨(利川徐氏)

정재귀(鄭在貴)의 아내. 함평향교의 효열부표창을 받았다.

◆ 이천서씨(李川徐氏)

이판길(李判吉)의 아내. 함평향교 효열부표창을 받음.

◆ 인동장씨(仁同張氏)

신남균(申南均)의 아내. 함평향교의 절부표창을 받았다.

◆ 임경남(林暻男)

1928. 9. 27 본관 나주. 종석(鍾碩)과 장신촌(張申村)의 아들로 손불면 대전리에서 태어났다. 1969~1975년까지 손불면장을 지냈고, 함평군농지개량조합장, 한국자원재생공사 전남지사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김해 김병수(金炳洙)와 고처례(高處禮)의 딸 순조(淳祚)다.

◆ 임기열(林基烈)

1937. 7. 18~작고. 본관 평택. 자 춘평(春平). 함평읍 내교리. 노술(魯述)과 김해 김씨의 아들. 전라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장을 거쳐 광주에서 임피부와 의원을 개업하였다. 광주시민의 상을 수상하였고 “백제장학회”를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 힘을 썼다. 아내는 반남 박판옥(朴判玉)의 딸 영자(英子)다.

◆ 임남복(任南福)

함평읍 석성리에서 추생. 함평군축산협동조합장을 지냈다.

◆ 임동수

1941. 12. 28 손불면 산남리 2464번지. 맹호사단 1연대 3대대 10중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때 베트남 퀴논북해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66. 10. 10 인현무공훈장을 받았다.

◆ 임동오(林東午)

1942. 12. 24 본관 나주.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서강전문대 회계학과 교수, 목포상대 교수

◆ 임동택(林東澤)

본관 나주.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
제17대 손불면장(1961. 6. 30~1965.
10. 14)을 지냈다.

◆ 임만택(林萬澤)



임만택

1942. 6. 14 본관 나주. 종은(種殷)과 밀양 박양임(朴良推)의 아들로 엄다면 영흥리에서 출생하였고, 학다리중, 학다리고, 해군사관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경남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 미국 해군대학교에서 국제국방관리학을 이수하였다.

1974년 거문함 함장(소령), 1980년 해군군수사령부 전산실장(중령), 1986년 해군본부 전산처장(대령)을 역임한 후 1990년 해군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예편 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장, 국방정보체계연구소 연구부장을 지냈고 1996년부터 한국 CALS/EC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1981. 10. 1 국무총리의 근무표창, 1989. 10. 1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의사결정 시스템의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CALS 개념과 멀티미디어 표준화동향' '전자 상거래상의 보안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아내는 창령 조희중(曹喜仲)과 진주 강란순(姜蘭順)의 딸 정자(貞子)다.

◆ 임만호(任滿浩)

1940년 신광면 가덕리 출생. 시인. 함평농고, 숭실대 경영학과 졸업. 계간 『한국시』에 시 「호수」가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 2009년 첫시집 『달팽이는 두 뿔로 꿈을 꾸다』로 한국장로문학상 수상. 현재 한국문협, 국제펜클럽회원으로 활동하며, 월간 『창조문예』 편집인 겸 발행인, 도서출판 크리스찬 대표로 있다.

◆ 임민화(任珉華)

1928. 3. 15 대동면 백호리 석호에서 출생. 육군 소령 예편. 함평농지개량조합장을 지냄

◆ 임방울

1904~1961 나산면 나산리에서 태어났고 14세 때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이거하였다.

그는 1928년 25세의 나이에 상경하여 처음으로 '쑥대머리'를 불러 명성을 얻었고, '수궁가' '적벽가'를 완창하였으며 한국적 한(恨)과 설움을 노래한 판소리의 천재로 추앙 받던 국창(國唱)이었다. 아내는 박오례(朴五禮)다.

◆ 임상필(林相弼)

1858~1928 본관 평택. 호 화정(花汀). 아버지 영호(永濤)와 어머니 나주임(林)씨의 아들로 학교면 월산리에서 출생하였고, 1891년 성균관 진사시에 입격하였으며 저서 「경유록(經遊錄)」 2권이 전한다. 아내는 함평 노익채(魯翼采)의 딸과 김해 김기서(金杞西)의 딸이다.

◆ 임순녀(林順女)

1929. 11. 13 함평읍 옥산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임영규(林營奎)

1938. 12. 2 손불면 월천리에서 출생 고졸. 서울, 강릉경찰서 등 근무. 경정

◆ 임완택

엄다면. 1986년 도의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임유광(林柳光)

1939. 3. 12 본관 나주. 호 성재(省齋). 종억(鍾億)과 청송 심복재(沈伏在)의 아들로 신광면 복흥리에서 출생하여 일로농업



임 유 광

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중국 호북중 의과대학을 졸업 중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였다.

한방의원을 경영하면서 1979년 함평군새마을지도자회장, 1981년 전남농촌지도자연합회장, 동 전국 부회장, 1981년 전남도정자문위원, 1990년 광주·전남한약도매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광주·전남농우회장을 맡고 있다. 1982년 함평군민의 상, 1986년 국민포장을 받았다. 아내는 나주 나중명(羅鍾明)과 김해 김귀례(金貴禮)의 딸 정화(貞和)다.

◆ 임인규(林仁圭)

1931. 3. 20 본관 나주. 홍섭(洪燮)과 김연동(金連洞)의 아들로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하였다.

1983~1988년까지 손불면장을 역임했다.

◆ 임인택(林仁澤)



임 인 택

1932. 6. 23 본관 나주. 호 유일(儒日). 종록(鍾錄)과 김해 김비동(金非洞)의 아들로 손불면 월천리에서 태어남.

1985년 함평군의료보험조합 이사, 1995~1998년 제2대함평군의원. 1995~1997년 제4대 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였고 1998년 제3대 군의원에 당선되었다.

아내는 김해 김상봉(金相奉)의 딸 순자(順子)다.

◆ 임재상(林載尙)

학교면 월산리. 학교면농업협동조합장 역임. 1993년 지역개발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임종태(林鍾泰)



임 종 태

본관 나주. 엄다면 영흥리에서 출생 조선대 전문부 정치학과 졸업. 함평, 목포남, 유달초등학교장을 역임하고, 무안교육청 학무과장, 교육장을 지냈으며 1963년에 대통령면려 표창을 받았다.

◆ 임종하(林鍾河)

1923 신광면 출신. 1988년 봄에 전주에서 열린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에서 특부 1위에 입상한 바 있다.

◆ 임창곤(任彰坤)



임 창 곤

1945. 3. 7생. 본관 장흥(長興), 호 한우(旱雨), 병수와 광산 김양금의 장남으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목포교육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나와 해남북평초등학교장을 역임 황조근정훈장 수상, 아내는 경주 이한희와 진주 강순덕의 장녀 순자이다.

◆ 임채수

1924. 9. 7 손불면 대전리 466번지. 9사단 29연대 3대대 9중대 일병으로 근무하던 때 1954. 10. 16 백마고지 전투에서 큰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임채영(林采榮)

1940. 1. 29 본관 나주. 호 행곡(杏谷). 시조의 31세손. 민산(敏山)과 의령 옥순임(玉順任)의 아들로 엄다면 영흥리에서 태어났고, 엄다초, 학다리중,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66년 완도군농촌지도소 지소장, 1985년



임채을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
관리부장,
1993~1997년 담양군,
함평군지부장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 이진
현(李進憲)과 수원 최
영순(崔英順)의 딸 계
홍(啓洪)이다.

◆ 임채을(林采乙)

1941. 2. 5 본관 나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광주연초
제조장 작업과장 역임

◆ 임현택(林炫澤)

엄다면 영흥리 태생. 작가 고향에서 오래
도록 농사를 짓다가 상경하여 늦깎이로 대
성한 소설가이다. 서른살 넘은 나이로 중
앙대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이던 91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단편 「무기(無
器)」가 당선되어 등단한 것이다. 그후 단
편 「멀고 먼 나라 폴리네시아」와 중편
「그림자와 눈」을 비롯한 작품들을 계속
발표하고 1996년에는 1천만원 대산문학상
지원으로 장편 『봉새의 사랑』(문학과 지
성사)를 출간했으며, 이후 1988년 창작집
『멀고 먼 폴리네시아』출간. 현재 경기도
이천에서 학원과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다.

◆ 임홍택(林洪澤)



임홍택

1931. 8. 16 본관 나
주.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졸업.
여수경찰서 근무. 경정

◆ 임희택(林喜澤)

본관 나주. 조달청 내자과장 역임

◆ 장건식(張健植)

1906~작고. 본관 인동. 자 기식(箕植).
호 후암(後菴). 시조의 31세손. 화수(化洙)
의 아들. 군과장, 목포시 총무과장을 지냈
다. 아내는 이천 서복삼(徐福三)의 딸이다.

◆ 장계섭(張啓燮)

1923. 10. 15 본관 인동. 자 정인(正仁).
호 목향(木香). 시조의 32세손. 영상(泳相)
의 다섯째 아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
생. 일본부산현립 농림고등학교 졸업. 군과
장, 도과장, 도축산시험장장 역임. 아내는
전주 리중신(李重信)의 딸이다.

◆ 장광훈(張光勳)

1955. 1. 20 본관 인동. 시조의 32세손.
장식(將植)의 맏아들.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졸업. 석유개발공사 근무
아내는 파주 염중훈(廉鍾勳)의 딸이다.

◆ 장권표(張權杓)

1924. 3. 3 본관 인동. 자 권성(權成). 호
영파(潁波). 시조의 31세손. 재홍(在洪)의
여섯째 아들.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조
선대학교 법학과 졸업. 2대 전남도의원 당
선. 예산분과위원장을 지냄
아내는 김해 김병곤(金炳坤)의 딸이다.

◆ 장기동(張基東)

1942. 1. 30 본관 인동. 자 호성(昊星).
호 영재(英齋). 시조의 33세손. 원섭(元燮)
의 셋째 아들로 함평읍에서 출생.
전북대학교 졸업. 효성건설 부장. 아내는
광산 김영만(金永滿)의 딸이다.

◆ 장기랑(張基郎)

1960. 2. 12 본관 인동. 시조의 33세손.
돈섭(敦燮)의 둘째 아들. 함평읍 진양리 출
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한국방
송공사 기획제작실 근무. 아내는 전주 김
응삼(金應三)의 딸 은희(銀姬)다.



◆ 장기문(張杞文)

1890~1955 본관 인동. 자 지문(志文). 호 술재(述齋). 시조의 31세손. 재환(載煥)의 둘째 아들.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참봉을 지냈으며 함평군의 재벌. 흥년에 가난한 이웃을 많이 도와 그 덕을 기리고자 군민이 함평읍 네거리 현 농협중앙회 함평군 지부 터에 송덕비를 세웠는데 일인이 자기 땅임을 주장 철거하여 지금은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 아내는 평산 신기홍(申基弘)의 딸이다.

◆ 장기배(張基培)

1960. 6. 22 본관 인동. 시조의 33세손. 계섭(啓燮)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 진양리 출신. 조선대학교 상경대학 졸업. 국민은행 본점 근무

◆ 장기영(張基永)

1948. 7. 27 본관 인동. 자 영선(永善). 호 지수(止修). 시조의 33세손. 계섭(啓燮)의 맏아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고려대학교, 미국 아라조나주 쉐터볼대학원 졸업. 경영학 박사 조흥은행본점, 미국 시티은행 서울지점 근무. 아내는 밀양박씨다.

◆ 장기옥(張基玉)

1947. 2. 25 본관 인동. 자 문성(文星). 호 경재(敬齋). 시조의 33세손. 원섭(元燮)의 넷째 아들. 함평읍 출신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원 재직 아내는 전주 이정룡(李政龍)의 딸이다.

◆ 장기익(張基益)

1953. 6. 18 본관 인동. 자 익기(益基). 시조의 33세손. 둔섭(敦燮)의 맏아들. 함평읍 진양리 출신. 인천 인하공전 건축학과 졸업. 현대건설 근무. 아내는 전주 리병만(李炳滿)의 딸 춘희(春姬)다.

◆ 장기정(張基正)

1952. 5. 24 본관 인동. 시조의 33세손. 완섭(琬燮)의 둘째 아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현대건설 근무. 아내는 풍산 유홍규(柳洪圭)의 딸이다.

◆ 장기종(張琦鍾)

1936 본관 인동. 족보명 기균(琦均). 시조의 33세손. 회주(熙周)의 둘째 아들.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대졸.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아내는 진주 강만석(姜萬石)의 딸 정숙(貞淑)이다.

◆ 장기철(張基喆)

1936. 6. 11~작고. 본관 인동. 함평읍 진양리 양림에서 출생. 경찰학교 수료. 여수 경찰서 등 근무. 경감

◆ 장기홍(張冀洪)

엄다면 송로리에서 출생.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기 전 엄다면장을 지냈다.

◆ 장기회(張冀會)

본관 인동. 엄다면 영흥리 제1대 엄다면장(재임기간 4년)을 역임했다.

◆ 장남규(張南圭)

1912. 10. 7~1988 본관 인동. 족보명 남구(南求). 호 성재(省齋). 시조의 30세손. 현대(鉉台)의 여덟째 아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일본철도학교 졸업. 군교육청 장학사,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 김진옥(金振玉)의 딸, 광산 김희근(金喜根)의 딸이다.

◆ 장동래

1948. 5. 19 학교면 사거리 637-6번지. 20사단 60연대 수색중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때 연천 대광리 작전에서 큰공을 세워 1969. 10. 24 인헌무공훈장을 받았다.

◆ 장동섭(張東燮)

월야면 용암리에서 출생 1947. 9. 10~1948. 5. 3까지 월야면장을 지냈다.

◆ 장동호(張東鎬)



장 동 호

1947.1.19. 본관 흥덕. 시조의 45세손. 호는 촌노(村老). 범수(範洙)와 이천 서사순(徐四順)의 3남으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했다. 함평농고, 도립남도대학 컴퓨터응용전기와 졸업. 함평군청, 전남도청을 거쳐 고흥군 농산농정과장, 전남공무원연수원교수, 전남도청수출담당, 원예특작담당 등 농정분야 요직을 역임했으며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아내는 탐진 최차남(崔次男)과 함평 노삼일(魯三日)의 3녀 정옥(貞玉)이다.

◆ 장만순(張萬順)

1946. 5. 5 본관 함평. 인동 장영기(張永基)의 딸. 이덕행(李德行. 1941. 3. 11생)의 아내로 거동이 어려운 시부모를 극진히 모셔 효부로 이름이 나 도지사로부터 효부상을 받았다.

◆ 장만영(張萬寧)

1922. 4. 15 엽다면 영흥리 용호에서 출생. 경감 역임

◆ 장만옥(張萬玉)

엽다면 영흥리에서 출생. 초등학교 교장 역임

◆ 장명하(張明夏)

1935. 8. 3 본관 인동. 엽다면 영흥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졸업. 외무부 1등서기관을 지냈다.

◆ 장병민

1944. 10. 20 대동면 금산리 830번지. 수도사단 1연대 3대대 7중대 병장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흥반산 750고지 전투에서 큰공을 세워 1967. 10. 13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장복수

1928. 9. 5 학교면 사가리 567번지. 1사단 12연대 2대대 8중대 중사로 근무하던 때 서부전선 노루고지 작전에서 큰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 1985. 12. 27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장산웅(張山雄)

1951. 6. 6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육군

◆ 장서인(張瑞仁)



장 서 인

1934. 4. 10 본관 이동. 호 옥계(玉溪). 아버지 한규(漢圭)와 어머니 금성 나막동(羅莫同)의 아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하여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2년을 수료하였다. 도서출판 휘문사지사장 ·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함평군지부지부장 역임. 아내는 신안 주남식(朱南植)과 김해 김금진(金今辰)의 딸 정심(貞心)이다.

◆ 장석근

1927. 4. 7 엽다면 영흥리 567번지. 9사단 28연대 1대대 3중대 중사로 근무하던 때 금화지구 전투에서 큰공을 세워 1954. 9. 30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장석환

1930. 10. 28 해보면 해보리. 공병대 207대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때 강원도 고성지

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54. 5. 8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장성환(張成桓)

1947. 3. 20 본관 인동. 자 성복(成福). 호 성암(成菴). 시조의 31세손. 동수(東洙)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전북대학교 졸업. 육군 중령. 아내는 문화류택규(柳澤圭)의 딸 숙재(淑才)다.

◆ 장수복(張壽福)

작고. 본관 인동. 나산면에서 출생 함평초등학교 등 교장역임.

◆ 장순임(張順任)

신광면 삼덕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장승옥(張升鉦)

1941. 2. 23 본관 인동. 족보명 승균(承均). 시조의 33세손. 경현(景炫)의 다섯째 아들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 졸업. 오만대사. 1995. 12. 31 외무부 특 2급으로 퇴직. 아내는 하동 정해규(鄭海圭)의 딸 행자(幸子)다.

◆ 장시환(張時煥)

1894~1979 본관 인동. 처음 이름 열우(烈宇). 자 효섭(孝燮). 호 계산(桂山). 시조의 32세손. 진사 원식(源植)의 둘째 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 김기택(金箕澤), 정용섭(鄭龍燮) 등과 모의하여 1919. 4. 8 문장만세운동을 일으켰으며 시위 중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아내는 함평 이계용(李啓容)의 딸이다.

◆ 장연섭(張璉燮)

1919. 1. 8 본관 인동. 처음 이름 연옥(璉玉). 자 연수(連洙). 시조의 32세손. 민상(旻相)의 셋째 아들. 함평읍 진양리 양림에서 출생. 함평향교 전교 역임. 아내는 화

순 최석동(崔錫同)의 딸이다.

◆ 장용석(張龍錫)

1929. 9. 11 본관 인동. 호 우송(又松). 시조의 34세손. 태균(泰均)과 평산 신수년(申守年)의 맏아들로 손불면 북성리에서 태어났고, 손불초, 함평중, 함평농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하였다.



장용석

광주, 강진농업고등학교 등 교사. 1979~1995년 까지 광양 태금중, 영암 종합고등학교, 승주외서중, 장성북중학교 등 교감, 1995년 여천하양남중학교장을 지내다 정년 퇴직하였다. 저서로 '교직 40년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내는 전주 리창언(李昌彦)과 밀양 박경동(朴京洞)의 딸 근례(近禮)다.

◆ 장우중(張羽鍾)

1935. 7. 23 본관 인동. 족보명 우균(羽均). 시조의 33세손. 희주(熙周)의 맏아들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 병원장. 아내는 밀양 박형자(朴亨子)다.

◆ 장원석(張源碩)

1941. 8. 8 본관 홍성. 자 원명(源明). 호 근암(謹菴). 중조의 21세손. 일수(駟洙)의 둘째 아들로 신광면 계천리에서 출생. 대졸. 사업가. 많은 사재를 회사하여 마을 회관을 지어 주는 등 고향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다. 아내는 남주 최귀호(崔貴浩)의 딸 금숙(錦淑)이다.

◆ 장원식(張源植)

1859~1916 본관 인동. 자 백경(伯敬). 호 남파(南坡). 시조의 31세손. 진홍(鎭弘)의 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 문행이 뛰어났으며 1891년 진사시에 입격

하였으나 1894년 동학운동 등 사회여건을 한탄하여 향리에 머물러 문학에 심취하여 여생을 보냈다.
문집이 전한다. 아내는 광산 김병현(金炳鉉)의 딸이다.

◆ 장원택(張元澤)

1912~작고. 본적 인동. 업다면 영흥리에서 출생 목포지방법원 과장을 역임했다.

◆ 장인규(張仁圭)

1912. 6. 17~작고.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광주농업학교 졸업. 광양, 장성 부군수 역임.

◆ 장재구(張載求)

1925. 7. 29 본관 인동. 시조의 30세손. 현길(鉉吉)의 넷째 아들.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함평군산림조합장 역임
아내는 함평 이예범(李藝範)의 딸이다.

◆ 장재수(張再洙)

1923. 4. 2 본관 흥성. 자 정현(正現). 법호 서산(瑞山). 증조의 20세손. 현찬(鉉燦)의 셋째 아들. 원불교중앙총본부. 법위(法位) 법사(法師). 아내는 함평 이용(李用)의 딸, 김해 김칠선(金七善)의 딸이다.

◆ 장재형(張載炯)

1938,5,9. 본관 흥덕. 호 강운. 영석과 김중량의 아들로 대동면 강운리 상강 출생. 조선대학교 대학원 졸업. 1964년부터 2003년 까지 42년 동안 대학에 있었으며 정교수로 정년 퇴직. 저서로는 『현대경영학원론』, 『사무관리론』 등이 있으며, 황록근정훈장 받았다.

◆ 장재학(張載學)

1941. 1. 9 신광면 삼덕리 755번지. 9사단 30연대 1대대 2중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때 월남전에서 큰공을 세워 1969. 1. 17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장정현(張玎炫)

1899~작고. 본관 인동. 자 정현(玎鉉). 시조의 32세손. 지병(志柄)의 맏아들로 함평읍에서 출생.

3. 1 독립운동, 신간회 운동에 가담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함평군의 청년들을 규합하여 청년운동, 노동운동을 선도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에 수차 체포되고 옥고를 치루었다.

사범서기, 신문지국장을 역임하였고 타계하자 전국사회단체 추모회장(追慕會葬)이란 이름으로 장례하였다.

아내는 나주 정사규(丁思奎)의 딸 영덕(永德)이다.

◆ 장중진(張鍾鎭)

1942. 3. 1 월야면 용정리에서 출생. 중졸. 1대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 장주옥(張周鈺)



장주옥

1926. 4. 24~작고. 본관 인동. 업다면 영흥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치안국 수사지도과장, 전 북경찰국장(경무관)을 역임하였다.

◆ 장찬환(張燦煥)

1957. 12. 25 본관 인동. 자 찬정(燦政). 시조의 32세손. 권표(權杓)의 셋째 아들로 함평읍 진양리 출신. 전주방송국 근무. 아내는 밀양 박춘균(朴春均)의 딸이다.

◆ 장풍길(張豐吉)

1944. 1. 10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졸업. 공군 소령 예편

◆ 장풍혁(張豐赫)

1943. 9. 20 본관 인동. 자 풍길(豐吉). 호 제헌(濟軒). 시조의 32세손. 장표(長杓)

의 맏아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졸업. 공군 대령 예편. 재미회사 근무.

◆ 장학기(張學基)

1957. 9. 15생 본관 인동(仁同) 의섭과 경주(慶州) 이귀례의 장남으로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 광주광역시청 과장에 재직중이며 아내는 김해(金海) 김영훈과 안금순의 딸 옥겸이다.

◆ 장학년(張鶴年)

함평보통학교 재학 중이던 1919. 4. 26에 함평만세운동을 벌이기로 조사현 등과 합의한 후 준비를 하다가 일경에 탐지되어 4월 18일 김준부, 김기성이 체포되고 이들이 동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와 정인옥, 박성수를 내세워 피체되었으나 교장과와다나베(渡邊), 담임 임은수 선생의 백방 활약으로 4월 23일 훈계 석방되었다. 이로 인해 4월 26일 거사는 실패했다.

◆ 장행환(張行煥)

1945. 10. 20 본관 인동. 자 행복(幸福). 호 매은(梅隱). 시조의 32세손. 용식(龍植)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 진양리 양림에서 출생. 대한무역진흥공사 계획과장, 주중 부관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풍천 노병섭(盧秉燮)의 딸이다.

◆ 장행훈(張幸勳)

1937. 11. 3 본관 인동. 자 춘화(春華). 호 송헌(松軒). 시조의 32세손. 용식(龍植)의 맏아들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졸업. 프랑스국립대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편집국장. 동아일보논설위원. 아내는 전주 리창복(李昌福)의 딸 미자(美子)다.

◆ 장현규(張炫圭)

1932. 1. 8 본관 인동. 족보명 현배(賢培). 호 정현(靜軒). 시조의 33세손. 석영

(錫煥)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동 대학원 졸업. 은행감독 원장 역임. 아내는 김해 김용두(金聳斗)의 딸 정례(貞禮)다.

◆ 장현수(張現洙)

1952. 10. 25 본관 인동. 시조의 35세손. 용식(龍錫)의 아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박사. 전문의. 이비인후과병원장 아내 박영경(朴映京)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전문의며 소아과병원장이다.

◆ 장효섭(張孝燮)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
1945. 8. 31~1946. 7. 9까지 월야면장을 지냈다.

◆ 장흥임씨(長興林氏)

월야면 월계리. 배천수(裴千洙)의 아내.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전갑성(全甲成)

1938. 12. 7 본관 천안. 월야면 양정리에서 출생 광주상업학교 졸업. 공군 중령

◆ 전기수(全棋秀)



전 기 수

1935. 1. 12생. 본관 천안(天安) 덕만(德萬)과 홍민林的 셋째로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공주사범대학을 졸업 호남영명특수학교장을 역임 '81 대통령평화통일자문위원을 역임하였

다.

◆ 전기오(全棋五)

1941. 6. 30생. 본관 천안(天安) 덕만(德萬)과 홍양림(洪良林)의 아들로 전남대학교공과대학을 졸업 조선대학교대학원(석사)수료 후 한국폴리텍V목포대학교 교수 역임 후 저서로는 '섬유질 절연재



전 기오

료의 절연저항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 전상희(全相繪)

본관 천안

◆ 전성섭(全晟燮)

본관 천안. 상회의 조카

◆ 전관섭(全貫燮)

본관 천안. 호 일은(逸隱). 성섭의 아우 위의 세 사람은 전해산 의병부대가 불갑산 전투를 치루고 손불면 양재리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의병이 되었다. 이후 영광군 군남면 오동촌 전투를 전개하여 대승을 거두는 등 전해산 부대가 해산할 때까지 신명을 다해 싸웠다.

◆ 전광웅(全光雄)



전 광웅

1940. 12. 1 본관 천안. 시조의 56세손. 행종(幸宗)과 김해 김숙례(金淑禮)의 아들로 일야면 양정리에서 출생하여 광주서중, 광주고등,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동국대학교 법

정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1967~1976년까지 동강중, 청구상업학교 교사, 1976~1982년까지 서울실업전문대, 서일공업전문대 교수, 1982~1985년까지 광운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강사를 지냈다. '경영학(상. 하. 동문사)' '대학국민윤리(경영사)' 등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아내는 광산 김윤식(金潤植)과 나주 임양례(林良禮)의 딸 정자(貞子)다.

◆ 전덕용(全德龍)

1938. 11. 11(음)생 본관 천안(天安) 아명(兒名) 동옥(東郁), 대현(大鉉)과 해주(海州) 최은순(崔銀順)의 장남으로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와



전 덕용

건국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 '씨알의 소리' (함석헌 발행) 창간 편집장,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사무국장, 경상남도 양산 개운중학교장을 역임하고 옥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양산

시민연합고문과 양산천성포럼회장을 역임하였고 장편소설 '동촌(東村)'과 '청송개비타령', 중편 '대충이타령' 단편 '걸림돌' '온 세상 훨훨' '쓰레기' '어떤 성직자' 등이 있으며 현 양산신문 객원논설위원과 소설가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회의 이사로 활동 중이며 아내는 김운현(金雲現)으로 슬하에 2남을 두었다.

◆ 전명남(全明男)

본관 천안.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 함평영화학교 교장

◆ 전병두(全炳斗)



전 병두

1942. 5. 4 본관 천안. 상환(相煥)과 조판임(趙判任)의 아들로 일본 복강현(福岡縣)에서 태어났으며, 학다리중, 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1988년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서 고위 정책개발 과정을 이수하였다.

1980~1984년 대통령 비서실 민정 행정관, 1991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 2대장, 1993년 전남경찰청 보안과장, 1995년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장을 거쳐 1995년 12

월부터 서울경찰청 보안 2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86. 3. 14 보국훈장 삼일장, 1994. 12. 31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즉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아내는 박정순(朴貞順)이다.

◆ 전상훈(全尙勳)

1955년 손불면 출생하여 조선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1991년 『문학공간』에 시 4편으로 등단. 1986년 전국독서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시집 『사는데 무슨 말이』가 있다.

◆ 전세정(全世政)

1970. 1. 5생 본관 천안(天安) 중팔과 영성(靈城) 정정례의 삼남으로 월야면 양정리에서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제 45회 사법고시에 합격 울산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아내는 경주(慶州) 김귀남과 김연자의 차녀 경미이다.

◆ 전양권(全樑權)



전 양 권

1938. 8. 29생. 본관 천안(天安) 귀남(貴南)과 정해동(丁海東)의 아들로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광주교육대학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나와 해남산이초등학교장을 역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 저서로는 ‘교육평가의 방향모색’ 등 다수가 있다.



전 양 호

◆ 전양호(全楊浩)

1941. 8. 10생. 본관 천안(天安) 귀남(貴南)과 금성(錦城) 정해동(丁海東)의 차남으로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를 나와 순천시청

축산과장을 역임하였다.



전 영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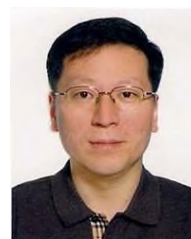
◆ 전영권(全永權)

1951. 8. 24생. 본관 천안(天安) 기호(奇鎬)와 김순덕의 아들로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하여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 육군소령으로 전역. 재정경제부 비상대책관(사무관)역임,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원(대전) 책임행정원으로 재직 중이다.

◆ 전용창(全庸彰)

1959. 본관 천안(天安)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광주송원고등학교를 졸업 로케트건전지 방콕 현지공장과장 역임. 현 태국한인협회장, 평화통일정책대통령자문위원을 역임 중이다.

◆ 전용현(全容玄)



전 용 현

1967.10.20생. 본관 천안(天安) 양권(樑權)과 달성(達城) 배순이(裴順伊)의 장남으로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의과대학과 대학원을 수료 정형외과 전문의사로 현재 경기도 성남시 조은정형외과 원장이다.

◆ 전인균(全仁均)



전 인 균

1955. 6. 8생. 본관 천안(天安) 양근과 창령(昌寧) 조갑례의 장남으로 손불면 월천리에 출생 2년제 대학을 나와 함평군 행정담당 사무관으로 2002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 수상 아내는 김해 김두환과 밀양 박금순

의 장녀 덕레이다.

◆ 전일용(全一鎔)

1974. 3. 21생 본관 천안(天安) 갑윤과 광산(光山) 김옥의 삼남으로 월야면 양정리에서 출생 연세대학교를 졸업 제33회 기술고시에 합격 공업서기관으로 현 특허청에 근무중이며 아내는 신천(信川) 강준수와 이현순의 장녀 보원이다.

◆ 전중갑(全鍾甲)

1921. 6. 30 본관 천안. 학교면 고막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졸업. 총경

◆ 전중진(全鍾璉)



전 중 진

1925. 1. 14생. 본관 천안(天安) 만섭(萬燮)과 파평(波平) 윤치순의 차남으로 학교면 사거리에서출생 부산동아대학교를 나와 육군중령 예편하고 한국전력 정읍지점장을 역임 화랑무궁훈장을 받았다.

◆ 전진제(全鎭堤)

1941. 4. 20 본관 천안. 월야면 양정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졸업. 진도군 등기소장을 역임하였다.

◆ 전찬국(全贊局)

본관 천안. 손불면 산남리에서 출생 제4대 손불면장(1919. 12. 10~1925. 9. 20)을 지냈다.

◆ 전철민(全哲民)

1962년생 본관 천안(天安) 기옥(棋玉)의 맏아들로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서울에서 자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와 현 서울목동치과병원 원장으로 있다.

◆ 정갑남(鄭甲男)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 1952. 5. 6~1954. 11. 4까지 월야면장을 지냈다.

◆ 정갑환(鄭甲煥)

1957. 2. 15 본관 진주. 춘식(春植)의 아들. 치의학 박사. 치과의원장. 아내는 문화류경임(柳京任)이다.

◆ 정강영(鄭江泳)

1937. 7. 9 본관 동래. 진방(鎭邦)과 진주정춘임(鄭春任)의 아들로 월야면 용암리에서 태어나 광주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행정과장, 1997년에 광산구 월곡 1동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진주 정판순(鄭判巡)과 최소녀(崔小女)의 딸 경임(庚任)이다.

◆ 정경근(鄭京根)

해보면 해보리 발미에서 출생.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 정경선(鄭警善)

1964. 7. 28 본관 동래. 시조의 31세손. 악모(岳謨)와 경주 김선례(金先禮)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태어났고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경감으로 경찰대학 교관을 맡고 있다. 아내는 이천 서현주(徐玄柱)다.

◆ 정경섭(鄭敬燮)

1951. 2. 10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 대줄. 조선대학교 전문대학 교수

◆ 정경수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1975. 1. 4~1978. 6. 3까지 학교면장을 역임했다.

◆ 정경열

월야면 1981년 새마을사업 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정경중(鄭京重)

1965. 3. 11 본관 광주. 시조의 23세손. 상오(尙伍)의 둘째 아들. 손불면 동암리 출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사

◆ 정경태(鄭敬兌)

1897~1973 본관 나주. 처음 이름 성태(性兌). 자 인행(仁行). 호 만구당(晩求堂). 시조의 26세손. 수현(洙賢)의 둘째 아들. 1909년 의병 소탕전 때 왜병이 아버지를 해치려하자 자기가 죽겠다며 애소하니 적이 감격하여 물러났다. 학문에 힘써 박학하였고 1962년 사정공파(司正公派)의 수보편찬(修譜編纂)을 주관하였으며 아버지의 병환에 혈지 연명케 하는 효성을 보였다. 아내는 진주정씨 영순(永順)의 딸이다.

◆ 정경현(鄭景玄)

1957. 1. 29 본관 나주. 일명 문룡(雯龍). 시조의 27세손. 남을(南乙)의 셋째 아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8회 사법고시 합격, 광주지방법원 판사 역임. 아내는 안동 권애영(權愛英)으로 명재(明載)의 딸이다.

◆ 정경훈(鄭敬勳)

1959 본관 나주. 호 의정(意諍). 시조의 28세손. 병기(炳基)의 맏아들.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주) 신명건설, (주)신명 HA, (주) 현대페인트공업 대표이사 아내는 하동정씨 이택(利澤)의 딸이다.

◆ 정계석(鄭桂錫)

1966. 8. 17 본관 진주.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한국체육대학 졸업. 86 아시안게임 필드하키 금메달

◆ 정관면(鄭寬冕)

1876~1962 본관 나주. 자 치덕(致德). 호 건암(健庵). 시조의 26세손. 우익의 셋째 아들로 아버지가 중병이 들어 6년간 병석에 있을 때 탕약을 드림에 소홀함이 없었고 의원의 말이 산평이 좋다고 하자 구하려 고심하던 차 홀연히 한 마리의 꿩이 마당에서 부엌으로 날아들어 잡아드려 효과를 보았고 돌아가시자 3년간 읍혈(泣血)함이 남을 감동시켰고 3년상 후 큰형집으로 반제(返祭)하였으며 87세의 장수를 누렸다. 향, 도 유림이 천하여 효자비를 세웠다. 아내는 함평이씨 병권(炳權)의 딸이다.

◆ 정관영(鄭觀泳)



정 관 영

1926. 5. 20 본관 동래. 시조의 32세손. 진호(鎭濤)와 나주 오효금(吳孝今)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태어났으며 동국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1977~1980년 서울에서 국민은행 지점장을 지냈다. 아내는 울산 김종훈(金鍾勛)과 임삼용(林三用)의 딸 순옥(順玉)이다.

◆ 정관원(鄭觀源)

1848~1910 본관 진주. 자 경안(敬安). 시조의 31세손. 우부승지 종약(鍾岳)의 둘째 아들. 성품이 순후하였고 빈궁한 이웃을 진휼(賑恤)하는 덕을 쌓았기에 향기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웠다.

아내는 함평 이돈규(李敦圭)의 딸이다.

◆ 정관균(鄭光均)

1943. 3. 26 본관 압해.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경희대학교 철학과 졸업. 페루대 사관 3등서기관, 캐나다 토론토 영사관(부이사관) 역임.

◆ 정광선(鄭光善)



정광선

1940. 2. 28 본관 진주.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71년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업단지 관리청 사무관, 특허청 자료조사과장, 법무관, 의장심사과장, 상공부 유통경제과장, 여수시장 등을 역임했다.

◆ 정관영(鄭觀泳)

1926. 5. 20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2세손. 호 월촌(月村) 진호(鎭濤)와 나주(羅州) 오효금(吳孝今)의 첫째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국민은행지점장을 역임. 아내는 울산(蔚山) 김종훈(金鍾勛)과 임삼용(林三用)의 딸 순옥(順玉)이다.

◆ 정광옥(丁光旭)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정광용(鄭光容)

1955. 7. 28생 본관 나주(羅州) 판열과 풍산(豊山) 홍단임의 차남으로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에서 출생. 건설교통부 부이사관에 재임중이며 아내는 진원(珍原) 박현남이다.

◆ 정광우(鄭光愚)

1953. 2. 21생 본관 동래(東萊) 남영과 죽산(竹山) 안종례의 장남으로 월야면 용암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를 졸업. 월야농업협동조합장에 재임중이며 아내는 강능(江陵) 김순덕이다.

◆ 정광주(鄭僉柱)

1952. 2. 1 본관 나주. 호 금초(金草).



정광주

시조의 31세손. 순곽(淳郭)과 무안 박석례(朴錫禮)의 아들로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

1979~1982년 광주서강고등학교 교사, 1982 전남도전 서예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1985년 전라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광주광역시전초대작가, 1989년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았고,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국전)초대작가, 1993년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1995년 예술의해를 빛낸 문화체육부장관의 미술인상. 현재 한국미협광주지회장, 광주비엔날레 이사로 있으며 전남대 예술대 출강. 아내는 이천 서동(徐瞳)과 김해 김삼례(金三禮)의 딸 교순(敎順)이다.

◆ 정국기(鄭國基)



정국기

1937. 3. 1생 본관 진주(晉州) 호 죽간(竹幹) 연익(然翊)과 무안(務安) 박기순(朴基順)의 장남으로 학교면 마산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를 졸업. 전라남도관내초등학교

장을 역임. 동백장을 수상하였으며 아내는 함평(咸平) 이숙헌(李淑憲)과 동래(東萊) 정증요의 4녀 계복(啓福)이다.

◆ 정국환(鄭國煥)

1955. 6. 24 본관 진주. 아버지 동수(東秀)와 어머니 동래 정소녀(鄭小女)의 아들로 해보면 금계리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하고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연구위원(1987~1998.



정국환

2),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국장. 1998. 3~1999. 3)을 역임하였고,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아내는 경주 이문석(李文錫)과 박금자(朴金子)의 딸 화

성(和城)이다.

◆ 정국환(鄭局煥)

1956. 11. 18 본관 진주. 용식(龍植)의 아들. 월야면에서 출생. 건국대학원 졸업. 한국통신공사 부장. 아내는 울산 김선미(金鮮美)다.

◆ 정권수(鄭權洙)

1957. 7. 15 본관 진주. 학교면 마산리. 전남대학교 수학과, 동 대학원 졸업. 순천대학교 교수

◆ 정귀동(鄭貴童)



정귀동

1931. 5. 10 본관 진주. 시양의 34세손. 윤섭(潤燮)과 나주 정아기(鄭阿基)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를 졸업했다.

1953. 9. 19 대통령 휘장, 1953. 11. 9 유엔중군기장, 1954. 10. 25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평강 채성복(채성복)의 딸이다.

◆ 정규거(鄭圭炬)

1929. 9. 23 본관 진주. 호 월계(月溪). 시조의 34세손. 길섭(吉燮)의 셋째 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 서문여자고등학교장, 서울시교육감을 지냈다. 아내는 해주 오유선(吳裕善)의 딸이다.

◆ 정규배(鄭圭培)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일본에서 음대를 마치고 귀국하여 학다리 중고등학교에서 오래도록 교편 생활을 했던 음악인이다. 특히 여러 현악기와 취타악기로 이루어진 학교 악단 지도를 잘한 바 있다.

◆ 정규선(鄭圭善)

1919. 4. 9 본관 진주. 호 월고(月高). 시조의 34세손. 길섭(吉燮)의 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 1955년에 녹조소성훈장(綠條素星勳章)을 받음. 아내는 나주 오용수(吳鏞洙)의 딸이다.

◆ 정규현(鄭奎鉉)

1932. 8. 15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 육군 소령 예편

◆ 정근옥(鄭根旭)



정근옥

1949. 3. 16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鄭繪文의 33세손 호 만송(晩松) 자 우열(愚烈) 춘홍(春洪)과 나주(羅州) 임옥례(林玉禮)의 장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광주상업

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을 졸업, 평생교육원(문학사,사회복지사2급)나와 함평군민방위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책개발담당관, 위민실장. 월야면장. 함평군총무과장, 나산면장을 역임,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훈장,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현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장으로, 저서로는 “읍·면사업소 회계처리요령” “민원 회계처리요령”이 있으며 아내는 함평(咸平) 이경범(李京範)과 풍산(豊山) 홍초순(洪初順) 장녀 화숙(和淑)이다.

◆ 정근호(鄭根鎬)



정근호

1940. 8. 14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희문(鄭繪文)의 33세손. 호 서송(瑞松) 사문(思文)과 인동(仁洞) 장관순(張判順)의 장남으로 월야면 월야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를 받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국립교육대학원장협의회장을 역임 아내는 탐진(耽津) 최흥진(崔興鎭)과 제주(濟州) 고광금(高光錦)의 딸 백련(白鍊)이다.

◆ 정기복(鄭基福)



정기복

1958. 5. 1생 본관 진주(晉州) 호 석암(石岩) 홍섭(鄭泓燮)과 진주(晉州) 김금순(金今順)의 3남으로 월야면 월야리에서 출생,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행정학사)하고 전남도청 근무를 거쳐 함평군의회전문위원(행정사무관)으로 아내는 평택(平澤) 임형숙(林亨淑)이다.

◆ 정기연(鄭琦衍. 琪衍)

1903~1952. 8. 11 본관 나주. 나산면 이문리에서 출생 1919. 4. 26에 함평만세운동을 벌이기로 조사현 등과 합의 추진하다가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1920년에 들어 만세운동이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자 3월 26일에 거사를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김용언, 윤태완, 이행록 등과 사전준비를 하면서 윤치영(尹致榮), 김재문을 함평면, 김준령은 대동면, 모순기, 정영조(鄭永祚)는 그 밖의 다른 면의 책임자로

뽑았다.

3월 26일 오후 4시경 보통학교 학생과 청년, 주민들로 구성된 수백명의 시위 군중이 장날인 함평장터에 모이자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조사현 등과 함께 시위 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행진하였다. 이 때 긴급출동한 일경, 헌병의 야만적인 무력행사로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0여명이 체포되었다.이 때 그도 체포되어 대구복심원에서 1년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정부에서 그의 공을 기리어 198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 정기원(鄭起元)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 1964. 5. 8~1968. 6. 10까지 해보면장을 지냈다.

◆ 정길수(鄭吉守)

1928. 6. 6 함평읍 기각리, 함평군수 효자표창을 받았다.

◆ 정낙규(鄭洛奎)



정낙규

1951. 6. 25생. 본관 진주(晉州) 광열과 수원 백삼남의 셋째로 월야면 월야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석사), 고려대학교(박사)를 받아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공업열역학, 내연기관, 아내는 경주 김증환과 김은월의 둘째로 기옥이다.

◆ 정남규(鄭南圭)

1933. 본관 나주. 일명 무경(茂暲). 호 영산(靈山). 시조의 29세손. 시연(時衍)의 아들. 월야농업협동조합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영산 신순임(靈山辛順任. 1934)으로 경렬(暲烈)의 딸이다.

◆ 정남수(鄭南洙)



1955. 4. 8생 본관 동래(東萊)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제22회 사법고시로 광주지방법원판사를 역임 현 변호사이다.

◆ 정남혁(鄭南赫)

1934. 3. 5 본관 진주. 해보면 해보리에서 태어남 원광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제 14대 해보면장. 5대 도의원 당선.

◆ 정다복(鄭多福)

나산면 수상리에서 출생. 광주시 양동동장을 지냈다.

◆ 정달수(程達洙)

본관 하남. 월야면 월야리에서 출생 제4대 월야면장(1948. 5. 4~1950. 12. 19)을 지냈다.

◆ 정달식(鄭達湜)

1860~1931 호 월주. 본관 진주. 아버지 종란(鍾蘭)과 어머니 해주오씨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였고 고종황제가 서거하자 3년 복을 입었으며, 후학 양성에 힘을 쓰니 원근에서 수백의 학동들이 모여들었다. 아내는 과평윤씨 용대(龍大)의 딸이다.

◆ 정대근(鄭大根)

1934. 6. 24 해보면 금계리. 함평군수 호자표창을 받았다.

◆ 정동근(鄭東根)

1869~1954 본관 나주. 자 찬국(贊國). 호 만오재(晩傲齋). 시조의 26세손. 우명(우명)의 맏아들로 면암 최익현(勉庵崔益鉉), 심석 송병순(心石宋炳珣)에게 사사하였고 동면 김교락(金敎洛)과 함께 독립군자금 모집에 나서 의로운 자금을 모금하는 한편 친일 세력은 자택에 침입 협박하여 금품을 거두어 최익현 등 여러 의병진에 보내오다가 체포되어 15년형을 언도 받아 대구감옥

에서 복역했다. 석방된 후 두문불출하며 후학 양성에 힘을 썼다.

1977년 12월 13일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천안전씨(天安全氏) 수옥(守玉)의 딸이다.

◆ 정동수(丁東秀)

1897~1972 본관 압해. 호 만송(晩松). 시조의 41세손. 식(湜)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하자 손가락을 깨서 주혈하여 수일간 연명케 하였고 부모상 때는 매일 성묘하면서 3년을 넘긴 효자였다.

◆ 정동수(丁東秀)

엄다면 성천리에서 출생. 전문학교 졸업 1946. 12. 30~1948. 1. 20까지 엄다면장을 지냈다.

◆ 정동수(鄭東秀)

1925. 1. 26 본관 진주. 자 덕진(德振). 호 성원(省園). 시조의 33세손. 달원(達源)의 맏아들. 해보면에서 출생. 광주시에서 동장 역임. 아내는 동래 정수봉(鄭守奉)의 딸이다.

◆ 정동수(鄭東秀)

해보면 출신. 호 성원(省園) 전국 춘향 미술대전(大畵) 추천작가, 동남아미술대전 추천작가, 전남도전 및 대한민전(大韓民展) 등에 10여회 입선한 바 있다.

◆ 정동문(鄭東文)

1955. 2. 14 본관 진주. 호 진수당(進修堂). 아버지 낙원(洛源)과 어머니 김해 김덕례(金德禮)의 아들로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국방부 투자사업조정관실·통일원교육홍보국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서기관으로 통일원정책과장직에 있다. 1992년에 대통령의 근정포장을 받았다.

◆ 정동연(鄭東衍)

1917~1975 본관 나주. 자 덕윤(德潤). 호 용정(龍亭). 시조의 28세손. 병림(炳琳)의 아들. 광주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금융계와 교육계를 거쳐 나산면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경주이씨(慶州李氏) 석구(錫龜)의 딸이다.

◆ 정동용(鄭東湧)



정동용

1934. 1. 26 본관 진주. 호 고봉(高峯). 시조의 33세손. 아버지 달원(達源)과 어머니 전주 리하기(李何奇)의 셋째 아들로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하여 사범대학 과학과 · 조선대학교 물리과대학 생물과를 졸업하였고, 전남교육연구원연구관, 구례 · 곡성 · 화순교육청 학무과장, 전남과학고등학교 교장, 전남도교육위원회 과학기계과 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99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전남발전교육(1985)」, 「사랑의 가교(1999)」 등 저서가 있고, 아내는 군수 전주 리준호(李俊浩)의 딸 정희(貞熙)다.

◆ 정동운(鄭東雲)

1927. 6. 7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광주 상업고등학교 졸업. 1961년 전남도의원 당선.

◆ 정동주(鄭東柱)



정동주

1931. 5. 28 본관 진주. 자 세진(世振). 호 행촌(杏村). 시조의 33세손. 아버지 달원(達源)과 어머니 이아기(李阿奇)의 둘째 아들로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함평군 부군

수, 광주시도시계획국장을 역임하였고, 광주직할시 지방세심의위원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63년에 대통령 면려포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상산 김용석(金容錫)의 딸 기순(基順)이다.

◆ 정동진(鄭東鎭)



정동진

1948. 1. 22 본관 진주. 재인의 아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대전 서광외과의원 원장. 아내는 인동 장하영(張夏英)이다.

◆ 정동진(鄭東鎭)

1963. 4. 14 본관 진주. 아버지 석규(錫圭)와 어머니 하동 정현임(鄭賢任)의 아들로 태어나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광주남광병원 제3내과 과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창녕 조규성(曹圭性)과 김해 김순복(金順福)의 딸 정란(정란)이다.

◆ 정동희(鄭東熙)



정동희

1939. 10. 25 본관 진주. 자 우진(宇振). 호 청운(靑雲). 시조의 33세손. 달원(達源)의 넷째 아들로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하였고, 미국 IOWA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후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작물육종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농촌진흥청 시험국 연구관, 목포작물시험장장, 필립핀 국제미작연구소 근무(한국대표), 작물육종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농업관련 연구논문 60여편을 발표하였고, 1999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나주 정동연(鄭東衍)과 전주 리우순(李又淳)의



딸 혜자(惠子)다.

◆ 정두영(鄭斗泳)

1950. 12. 22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2세손. 진우(鎭雨)와 성주이애현(李愛賢)의 차남으로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대동상업고등학교를 졸업 현우공업주식회사 사장이며 아내는 한양(漢陽) 조행복(趙幸福)의 딸 성운(星玠)이다.

◆ 정득채(鄭得采)

1939. 10. 20 월야면 용월리에서 출생하였고 광주사범학교를 중퇴했다. 전남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광산농악보존회 대표를 맡고 있다.

◆ 정란희(丁蘭姬)



정란희

1949. 4. 7 본관 영성. 호 학정(鶴亭). 정덕성(丁德盛)의 41세손. 영타(永打)와 함평 노삼순(魯三順)의 딸로 태어났고, 함평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1~1991년까지 무안군, 함평군 행정공무원, 함평군청 사회복지과장을 지냈고 현재 읍다면장을 역임하였다. 남편은 신안 주연옥(朱連玉)과 천안 전제금(全齋金)의 아들 옥삼(玉三)이다.

◆ 정래연(鄭來衍)

1929. 본관 나주. 호 청훈(淸薰). 시조의 28세손. 병일(炳日)의 아들. 광주광역시 신안동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역임. 아내는 김해 김춘자(金春子)로 희석(熙石)의 딸이다.

◆ 정만길(鄭萬吉)

1935년생.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경기고, 육군사관학교 졸업. 사단장. 육군 중장 예편

◆ 정만복(鄭萬福)

1919. 10. 7 읍다면 신계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정만순(丁萬順)

읍다면 송로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정명선(鄭明善)

해양대학 졸업. 목포해양전문대학 교수

◆ 정무남(鄭茂南)

1959년 읍다면 영흥리 출생. 조선대 전기과와 초당대 컴퓨터학과 졸업, 광주의 담현 전명옥 선생 사사. 아호는 죽암(竹菴). 현재 농협중앙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서협 광주지부이사. 대한민국 서예대전추천작가, 전남미술대전 초대작가. 광주광역시미술전 초대작가. 전국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 정문호(鄭文鎬)



정문호

1962. 1. 8 본관 진주. 아버지 재석(在浙)과 어머니 함평 이영자(李英子)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여 조선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주)

아주경영컨설팅 대표이사로 있으며, 조선대학교 협동교수 위촉(1998. 3. 1~1999. 2. 2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부설 전남직업전문학교·순천직업전문학교 소자본창업과정 강사를 맡고 있다. 아내는 김해 김봉태(金鳳泰)와 광산 김용금(金容錦)의 딸 미경(美京)이다.

◆ 정민형(鄭珉炯)



정민형

1936. 6. 8 본관 진주. 자 유신(有信). 호 염파(念波). 두휴(斗休)와 함평 이귀녀(李貴女)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태어났고, 성암 정병휴(省菴鄭炳休)의 문하에서 한학을 통달하는데

전념했다.

유가의 각종 예범과 보학 등에 관한 고문서를 번역하여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일을 가업으로 여기며 강직하게 살아가는 숨은 선비로 주위의 칭송을 받고 있고, 진주정씨 서울중친회 목적사업인 '선世事실록(先世事實錄)' 편찬위원장으로 번역 등 발간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아내는 나주 나인수(羅仁洙)의 딸이다.

◆ 정방면(鄭方冕)

1933. 7. 18 본관 나주. 호 청강(靑崗). 시조의 26세손. 우열(遇說)의 양아들. 생부 우봉(遇鳳). 단국대학교 졸업. 신아일보 사회부장, 편집국장, (주)한국녹다대표(韓國綠茶代表). 아내는 전주 이말순(李末順)으로 강섭(康燮)의 딸, 흥해 배금행(興海裴錦行)으로 만직(萬稷)의 딸이다.

◆ 정방우(鄭方愚)



정방우

1949. 3. 10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희문(鄭繪文)의 33세손. 관영(觀泳)과 울산(蔚山) 김순옥(金順玉)의 장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 한국은

행 실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연수원장, 금융통화위원, 공인회계사이며 아내는 연안 이광국(李光國)과 해남 윤정옥의 딸 영주(英珠)이다.

◆ 정병관(鄭炳冠)

1925~1980 본관 나주. 처음 이름 병영(炳榮). 호 영락(永樂). 시조의 27세손. 형면(炯冕)의 아들. 지방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광산김씨 용선(容先)의 딸, 파평윤씨 상영(相永)의 딸이다.

◆ 정병국(丁昞國)

1934. 2. 29 본관 나주. 시조의 27세손. 창면(倉勉)의 다섯째 아들. 전남대학교 졸업. 서울 외환은행지점장 역임

아내는 밀양 박정숙(朴貞淑)으로 영찬(永贊)의 딸이다.

◆ 정병규(丁炳奎)



정병규

1936. 1. 13 본관 압해. 호 관중(冠中). 대양군의 43세손. 해보면 대창리에서 태어나 목포상업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2년 수료,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

원을 이수하였다.

1986~1993년 여천군 식산과장, 함평군 문화공보실장, 기획실장, 재무과장을 역임하였고, 1997. 1월 함평군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1997년 7월부터 전남지역의료보험조합 협의회장, 전남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회의위원장, 전국지역의료보험조합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1984. 12. 31 모범공무원상<국무총리>, 1997. 3. 31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파평 윤금례(尹今禮)다.

◆ 정병기(鄭炳基)

1935. 3. 27 본관 나주. 호 신명(信明). 시조의 27세손. 효근(孝根)의 둘째 아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국제라이온스 J 지구 총재, 국제라이온스 한국복합지구 총재협의회장, MR 남도장학회 이사장, 나주정씨 대종회장 및 장학회 이사장, 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신명(信明) 그룹

회장직에 있다. 함평군민의 상, 무궁화사자
대상 금상(無窮花獅子大賞金賞), 석탑산업
훈장, 국제라이온스 최고대상 등을 수상하
였다.

아내는 함평이씨(1936년 생) 진사 유헌(有
憲)의 딸이다.

◆ 정병남(鄭炳南)

1935. 9. 1 엽다면 송로리 송촌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공업전문대 교수

◆ 정병렬(鄭秉烈)

1947. 5. 7 본관 진주. 동규(東圭)의 아
들. 행정고시에 합격. 국립중앙과학기술처
사무관. 아내는 밀양 박순자(朴順子)다.

◆ 정병만(鄭炳萬)

1956. 3. 26 월야면 용월리에서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안전기획부 군
무

◆ 정병률(鄭炳律)



1945. 12. 21생 정
병술과 최연례의 아들
로 엽다면 송로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 전남경찰
청 경무과장, 형사과
장, 동부경찰서장, 광
산경찰서장, 광양경찰

서장 역임

◆ 정병선(鄭炳善)



1936. 5. 19 본관 나
주. 시조의 27세손. 규
면(奎冕)의 맏아들. 엽
다면 송로리에서 출생
학다리중학교를 졸업
제9대부터 엽다농업협
동조합장 재선 역임

아내는 광산 김연순(金連順)으로 봉호(奉
鎬)의 딸이다.

◆ 정병섭(鄭炳燮)



정 병 섭

1939. 11. 2 본관 진
주.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 중앙대학교 사회
개발 대학원 수료. 내
무부장관 비서관, 지방
행정 연수원 서무과장,
역암, 함평, 광양군수,
목포부시장, 나주시장

을 지냈다.

◆ 정병수(鄭炳洙)



정 병 수

1948. 1. 24생 본관 경
주 성조와 김앵금의 2
남 1녀중 둘째아들로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
생, 학다리고등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 한국방
송통신대학교, 광운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 교육부 연구관, 과라과이
한국교육원 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
정책과장을 거쳐 강동교육청 교육장을
역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현 서울
가원초등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 정병욱(鄭炳旭)

엽다면 삼정리 수정동에서 출생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장 역임.

◆ 정병율(鄭炳律)

1944. 10. 21 본관 나주. 시조의 27세손.
규면의 셋째 아들로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찰 간부 후보에 합격하여 전남 경
찰청 형사계장, 담양경찰서장을 역임함. 아
내는 나주임씨 연만(連萬)의 딸이다.

◆ 정병화(鄭炳華)

1911~1990 본관 나주. 자 현빈(賢彬). 호
만오(晩悟). 시조의 27세손. 관면(寬冕)의
둘째 아들. 겸산 이병수(謙山李炳壽), 남당

모대혁(南堂牟大赫)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문예가 출중하였으며 특히 서예가 뛰어났다. 기영음사(箕穎吟社)를 만들어 수많은 향도 사림(鄕道士林)과 시를 주고 받았으며 대유(大儒)로 이름 높았고 문집이 전한다. 군지와 전남대관 인물편에 이 사실이 실려 있다. 아내는 상산김씨(商山金氏) 원기(元基)의 딸, 김해김씨 종근(鍾根)의 딸이다.

◆ 정봉곤(鄭琤坤)



정 봉 곤

1934. 5. 5 본관 진주. 시조의 34세손. 일휴(一休)와 김해 김승심(金昇心)의 아들로 대동면 서호리에서 출생하였고, 대동북초등, 함평중, 함평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5년 한글초등학교 육성회장, 1982~1993년까지 5, 7, 8대 대동면농업협동조합장, 1995년 제2대 함평군의원 당선, 1997년 제2대 함평군의회의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영성 정모길(丁謨鎗)과 인동 장영순(張永順)의 딸 현순(玄順)이다.

◆ 정봉민(鄭封珉)

1956. 6. 16 본관 진주. 기찬(奇燦)과 광산 김흠선(金欽善)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단기사관학교를 나왔다. 소령으로 예편. 아내는 청주 한석환(韓錫煥)과 전주 리순자(李淳子)의 딸 영자(英子)다.

◆ 정봉애(鄭鳳愛)

엄다면 성천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정봉조(鄭奉助)

1962. 12. 11.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희문(鄭繪文)의 32세손. 진동(鎭東)과 장흥(長興) 고필현(高畢賢)의 5남으로 월야면

월야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공과대학, 한양대학교 교통학박사로 한국도로공사교통연구원 팀장, 교통안전대상연구부문특별상 훈포장 수상 저서는 “환경과 주민을 고려한 도로설계” 아내는 밀양(密陽) 박문규(朴文奎)와 양교자의 차녀 양숙(약사)이다.

◆ 정봉택(鄭奉澤)

1938. 1. 20 본관 진주. 월야면 월야리 순촌에서 출생. 동경 명치대학교, 한남대학교 졸업. 조선대학교 외국어대 교수, 동 외국어대학 학장. 외국어문화연구소장. 저서 대학 일본어 I, II

◆ 정 부(鄭 金府)



정 부

1911. 12. 28 해보면 문장리에서 출생. 일본 동지사대학법학부 졸업.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장, 전남체육회탁구협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장로회장, 광주보건전문대학

장을 역임했으며 국민훈장동백장, 중화학술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정부진(鄭富鎭)

1963. 5. 16 본관 나주. 월야면 용월리에서 출생. 한국체육대학 졸업. 86 아시안게임 필드하키 금메달

◆ 정북실(鄭北實)

엄다면 성천리 용동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대령

◆ 정삼복(鄭三福)

1945. 6. 29 본관 나주. 시조의 28세손. 병천(炳千)의 아들. 한국인쇄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복원실업(福元實業)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내는 광산 김경임(金敬任)으로 용원(容元)의 딸이다.

◆ 정삼연(鄭三衍)

1954. 6. 24 본관 나주. 시조의 28세손. 병운(炳雲)의 셋째 아들. 공군사관학교 졸업. 공군중령. 아내는 한양 조연숙(趙連淑)으로 익성(益成)의 딸이다.

◆ 정상국(鄭相國)



정 상 국

1956. 12. 10 본관 진주. 호 학포(學圃). 아버지 광원(光源)과 어머니 함평 모이순(牟二順)의 아들로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반공학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송원대학 교수, 1중도서 편찬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광주지하철본부 명예감독관을 위촉받았다. 「건설재료 시험실기(1988. 기공사)」, 「문제해설도시계획(1998. 기공사)」 등 저서가 있다.

◆ 정상영(鄭湘泳)



정 상 영

1954. 9. 15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희문(鄭繪文)의 32세손 진명(鎭溟)과 울산(蔚山) 김병숙(金炳淑)의 아들로 광주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해병대 군의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남대학병원 소아외과 주임이며 아내는 원주 이상근(李庠根)의 딸 진희(眞姬)이다.

◆ 정상용(鄭祥容)

1950. 1. 5 본관 진주.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중퇴. 서울대학원 수료.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 정상우(鄭相愚)



정 상 우

1948. 1. 19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희문(鄭繪文)의 33세손. 재영(載泳)과 함평(咸平) 이복례(李福禮)의 차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 전남대학교의과대학 교수, 전남대학교 기획조정실장, 학생처장, 전남대학병원암연구소장, 대한병리학회장을 역임 저서로는 “의학어원론”이 있으며 아내는 밀양 박상기(朴相基)와 천안 전처녀(全處女)의 딸 영아(철학박사)이다.

◆ 정상훈(鄭湘勳)

1967. 5. 23 본관 나주. 호 송정(淞井). 시조의 28세손. 병기(炳基)의 둘째 아들. 연세대학원 졸업. (주) 현대건재, (주) 신명무역 대표이사

◆ 정석규(鄭錫奎)

1936. 1. 14 본관 진주. 시조의 34세손. 호 광파(光派). 아버지 영섭(永燮)과 어머니 장흥 임귀례(林貴禮)의 맏아들로 월야면 용암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남대학교 화공과를 졸업하였으며, 5사단 36연대 부연대장, 3군단 정보처 보안과장 등을 역임하고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1970년 인헌무공훈장을 받았고, 아내는 하동 정순남(鄭淳南)과 전주 리순례(李順禮)의 딸 현임(賢任)이다.



정 석 규

◆ 정석진(鄭錫鎭)

1956. 10. 27 월야면 월악리 지면에서 출

생. 조선대학교 문리대 교수

◆ 정석진(鄭碩鎭)

1957. 10. 28 본관 동래. 시조의 31세손. 재모(在謨)와 청송 심금례(沈金禮)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1994년까지 동대학에서 조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95년부터 곡성읍에서 정석진방선의원을 개업하였다.

◆ 정성남

1959. 7. 21생 엽다면 송로리에서 출생 육군보병학교에서 소령 예편, 현 광주시 주월동 예비군 중대장 재임중

◆ 정성봉(鄭成奉)

1948년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 광주대수수미술학과 졸업, 아호는 단헌(旦軒). 조선대 대학원에서 순수미술 전공. 의재 허백련 선생의 문하생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12회 연속 입상. 개인전과 초대전을 수회 가졌다. 남도목우회장. 조선대 미술대 수목화 강사.

◆ 정성수(鄭聖洙)



정성수

1961. 1. 13 본관 진주. 순기(淳基)와 탐진 최순금(崔順今)의 아들로 나산면 나산리에서 출생하였고 광주진흥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였다. 1991년 공군 제17 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 공군병원장을 거쳐 1996년부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밀양 박임준(朴壬俊)과 청송 심숙경(沈淑庚)의 딸 숙진(淑眞)이다.

◆ 정성진(鄭性鎭)



정성진

1916~1966 본관 진주. 호적명 영진(永鎭). 자 승백(承伯). 호 간송(澗松). 기시조 시양의 33세손. 지식(址碩)과 함평 노대진(魯大津)의 맏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태어났고 요절한 큰아버지 지용(址容)의 양자가 되었다. 소학과 효정에 밝았으며 할아버지와 21세 청춘에 홀로된 양어머니에 대한 효성은 참으로 지극하였다.

특히 6·25 전쟁 때 소실의 위험 속에 있던 '정유피란기(丁酉避亂記)' 원본을 소중한 간직하므로써 1972년 '팔열부녀정려각'을 도 문화재로 지정할 때 첨부물로 제출하여 은와 정호인(隱窩鄭好仁)의 친필본임이 밝혀지게 하였다. 사후 그의 효행과 공덕을 기리자는 공문을 광주, 전주, 나주, 남원향교에서 찬동하고 추천하여 성균관장(成均館長)이 이에 화응(和應)하고 찬양문을 내렸다. 아내는 제주 양희일(梁會一)의 둘째 딸 승남(承南)이며 효부 찬양문을 받았다. <양승남 효부를 볼 것>

◆ 정성화(鄭成化)



정성화

1942. 1. 7 본관 온양. 호 학전(鶴田). 낙삼(樂三)과 영성 정길임(丁吉任)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991~1995년 제1대 함평군의회 의원 동의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1998년 제3대의원에 당선되었다. 아내는 무안 박연문(朴然文)과 금녕 김공금(金公今)의 딸 경자(敬子)다.

◆ 정성훈(鄭成勳)

1927. 5. 13 대동면 강운리에서 출생

대졸. 성균관대학교 서무과장을 지냈다.

◆ 정소영(鄭素英)

1964. 5. 3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2세손. 진두(鎭斗)와 밀양 박영례(朴英禮)의 장녀로 월야면 영월리에서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박사로 서울에서 병원개업 남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형섭(朴炯燮)으로 사시 합격하여 서울에서 변호사이다.

◆ 정송하(鄭松夏)

1943. 2. 3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3세손. 재영(載泳)과 함평(咸平) 이복례(李福禮)의 장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성균관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 광주은행해남지점장, 광주은행임원실장, 광은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를 역임 화가이며 아내는 진주 정임오(鄭林五) 이강숙의 큰딸 정자이다.

◆ 정수덕(鄭壽德)

1907. 7. 10 월야면 용월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정수모(鄭壽謨)

1922. 6. 5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0세손. 인성(寅星)과 진주(晉州) 정씨의 차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를 졸업 민선월야면장을 역임 아내는 광산(光山) 정종석(鄭鍾錫)의 딸이다.

◆ 정수현(鄭洙賢)

1856~1910 본관 나주. 자 국일(國一). 호 사죽헌(師竹軒). 시조의 25세손. 치련의 셋째 아들로 형 수현과 함께 아버지 병환에 혈지 연명케 하였고 부모상에 6년간 읍혈(泣血)하였다. 1885년에 효로 특명 정려가 내려졌고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896년 기우만(奇宇萬)과 거의 하려하였으나 실패하고 방랑생활을 하

다가 돌아와 학문에 열중했다. 아내는 청송심씨(靑松沈氏) 능문(能文)의 딸이다.

◆ 정순기(鄭淳基)



정 순 기

1929. 1. 13 본관 진주. 호 보경(寶鏡). 기시조의 34세손. 금렬(金烈)과 함평 이야기(李阿其)의 아들로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하였고, 1945년 일본 북해도찰광중학교를

졸업했다.

1961년 나산면 총무계장 1969년 함평군청가사계장 1982~1990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청 서산, 우산, 삼소동장을 역임했고 현재 진주정씨 서울 종친회 고문을 맡고 있다. 1990년 대통령의 공로표창을 받았다. 아내는 탐진 최동석(崔同錫)과 광산 김문자(金文子)의 딸 순금(順今)이다.

◆ 정순악(鄭舜樂)

1903~1954. 7. 7 본관 진주. 호 회율재(懷慄齋). 복원(福源)과 상산김씨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고 이당 정경원(以堂鄭經源)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독농가로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경작하는 논밭을 나누어 경작토록 하였고 춘궁기에는 어려운 이웃에 식량을 나누어주는 구휼에도 힘을 기울여 주위의 칭송을 받았으며 1928년에는 문중 땅 6만여 평을 국유지화한 일제의 만행에 반란운동을 주도하였고, 문중 문제보다는 반일감정으로 격화되어 시위를 저지하는 주재소장과 이력○들을 구타하고 주재소에 들어가 기물을 파괴하다가 체포되어 8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다.

아내는 나주 오명수(吳明洙)의 딸, 금성 나종석(羅鍾碩)의 딸, 장흥 고용진(高容鎭)의 딸이다.

◆ 정순호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 1961. 10. 12~1965. 1. 27까지 학교면장을 역임했다.

◆ 정승우(鄭承愚)

1950. 6. 9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3세손. 판수(判洙)와 금성(錦城) 나기주(羅基柱)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충남 부여에서 정산부인과 원장. 아내는 안동 김오동(金五東)의 딸이다.

◆ 정승현(鄭承鉉)

1969. 1. 13생 본관 진주(晉州) 연일과 의령(宜寧) 남상연의 차남으로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을 졸업 행정고시 46회 · 사법고시 44회 양과에 합격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 행정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며 아내는 관산 위정원이다.

◆ 정승희(鄭承姬)

1967년 학교면 마산리 표산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서울로 이거. 풍문여고와 중앙대 사범대학 가정학과 졸업. 2005년 『새벗』 문학상에 동화당선, 2006년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우수동화상 수상으로 등단. 저서에는 동화집 『손을 들면 흥이요 발을 들면 멋이라』 『알다가도 모를 일』이 있다.

◆ 정시연(鄭時衍)

1914~1971 본관 나주. 자 덕빈(德彬). 호 운강(雲岡). 시조의 28세손. 병해(炳海)의 아들. 제7대 월야면장에 당선되고 이어 11대, 13대 면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전주리씨(1914~1986) 용섭(庸燮)의 딸이다.

◆ 정심영(鄭心榮)

학교면. 1990년 지역개발부문 함평군민의상을 받았다.

◆ 정양선(鄭彥善)

1928. 10. 20 본관 진주. 자 태호(泰鎬). 호 춘파(춘파). 시조의 35세손. 기영(基永)의 둘째 아들로 월야면 외치리 외치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졸업. 시, 군 내무과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영성 정병택(丁炳澤)의 딸이다.

◆ 정양섭(鄭禎燮)



정양섭

1946. 1. 3 본관 진주.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1972년 제7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상공부 특허청 부이사관을 역임하였다.

◆ 정양진(鄭良鎭)

본관 진주. 월야면 월야리 출신. 법무부 법무관을 역임함

◆ 정여면(鄭汝冕)

1860~1913 본관 나주. 자 봉일(奉一). 호 양곡(陽谷). 시조의 26세손. 우환(遇煥)의 둘째 아들. 성격이 과묵하고 법도가 있으며 대유(大儒)로 이름 높았다. 아버지의 병환에 산에 올라 쾌유를 빌었으며 상을 당하여 슬퍼함이 지극하였고 사헌부감찰에 천거되었다. 이 사실이 군지, 과관문헌호보(科官文獻號譜)에 실려 있다. 아내는 무안박씨 학진(學鎭)의 딸이다.

◆ 정연희(鄭筵熹)

1984. 12. 2생 본관 진주(晉州) 국현과 담양(潭陽) 전기옥의 장녀로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사법고시 49회에 합격하여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 정영배(丁永培)

1935. 4. 12 본관 압해. 엄다면 신계리에서 태어남 전남대학교 영문과, 동 대학원 졸업. 여수수산대학 교수. 해사영업편찬심의회의위원. 저서로 수필집 “만추한”(1995)이 있다.

◆ 정영승(丁永昇)



정 영 승

1941. 6. 15 본관 영성.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남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수료하였다.

1980~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 1988년 서기관으로 국립망향의 동산관리소장, 1993년 보건사회부 복지 지원과 과장, 1995년 부이사관(3급) 승진, 1995년 국립연금관리공단 전남지부장을 역임하였고, 동년 근정 포장을 받았으며 1996년 명예 퇴직하였다.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정착 방안’ 등 논문이 있다. 아내는 박찬덕(朴贊德)이다.

◆ 정영오(鄭永吾)



정 영 오

1955. 9. 20생 본관 진주(晋州) 호 초야(草野) 육동(六東)과 장흥(長興) 임화실(任花實)의 차남으로 함평군 함평읍 만흥리에서 출생 함평농업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함평읍장,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에 재임중이며 아내는 파평(坡平) 윤병유(尹炳有)의 장녀 순자(順子)이다.

◆ 정영용(鄭永用)

1929. 4. 14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함평초등학교 졸업.

1952. 4. 11 금성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정영욱(丁永旭)



정 영 욱

1940. 4. 21 본관 영성. 호 의천(毅泉). 길중(吉中)과 무안 박영애(박영애)의 아들로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하여 학다리고,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열심히 사진작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98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986년 전남도전 특선, 1994년 한국사진 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부 부지부장,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추천 작가, 1995년 광주사단합동전 초대작가, 제43회 전국 신록촬영대회, 춘향미술대전, 제13회 광주광역시 환경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1996년 운주사 전국사진 공모전, 한우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1997년 호남미술대전 초대작가를 지냈다.

아내는 동래 정흥모(鄭興謨)와 경주 최귀한(崔貴漢)의 딸 신자(信子)다.

◆ 정영조(鄭永祚)

본관 진주. 학교면 죽정리에서 태어났다. 함평보통학교 재학 중이던 그는 1920년 3월 19일 조사현 등과 함평보통학교 기숙사에 모여 3월 26일 졸업식이 끝나고 함평장터에서 함평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하고 일반은 조사현, 김대문이 책임을 맡고 학생측은 김용언, 윤태완, 이행록이 맡고, 함평읍은 윤치영, 대동면은 김준령, 나산면은 정기연, 그 외의 면은 모순기와 그가 맡았다.

3월 26일 만세운동의 거사는 이루어졌으나

당일 그를 비롯한 20여명이 체포되어 목포 지청으로 이송되고 8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루었다.

◆ 정영철(丁永哲)

1937. 12. 17 엽다면 신계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구로경찰서 보안과장 등 역임. 경정

◆ 정영탁(丁永卓)

1935. 7. 21 본관 압해. 엽다면 성천리 용동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함평군청 과장, 전라남도청의 청소년계 등 여러 계장을 지냈다.

◆ 정영택(丁永澤)

1919. 6. 7 본관 영성. 호 죽헌(竹軒). 아버지 치덕(致德)과 어머니 광산김씨의 아들로 엽다면 성천리에서 출생하였고, 함평향교 전교를 지냈다. 아내는 남평 문재춘(文載春)과 낙안오씨의 딸 점순(占順)이다.

◆ 정영호(丁永皓)

1934. 1. 15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 전남사대 졸업. 암태중학교 등 교장 역임.

◆ 정영호(鄭永鎬)

1960. 6. 17 본관 진주. 재웅(載雄)의 아들. 전남대학교 졸업. 금호타이어 생산부장 역임. 아내는 경주 김승금(金承今)이다.

◆ 정영훈(鄭永勳)

1966. 12. 18 본관 진주. 아버지 동심(東心)과 어머니 함평 이옥순(李玉順)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였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제40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



정영훈

다. 아내는 밀양 박성범(朴聖範)의 딸 정희(正熙)다.

◆ 정완모(鄭完謨)

해보면 용산리에서 태어남
1953. 1. 19~1954. 4. 13까지 해보면장을 역임하였다.

◆ 정완성(丁完聲)

1954. 2. 13 해보면 대창리 창서에서 출생. 대졸. 조달청 외자국 4국(사무관) 근무 등 요직 역임.

◆ 정요순(丁瑤順)



정요순

1923.1.5생 본관 나주(羅州) 정구섭(丁龜燮)의 차녀로 무안군 일로읍에서 출생 함평군 학교면 밀양(密陽) 박명옥(朴明玉)과 혼인, 28세에 홀로되었으나 노시부모의 봉양과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혈통 보전과 어린 아들을 헌신봉사정신으로 성공시키어 2009년 한국효도회 장한어버 이상을 받았음

◆ 정용규(丁容奎)

1875~1962 학교면 금송리, 광주향교 효자 표창을 받았다.

◆ 정용기(鄭龍基)

1950. 12. 25생 본관 진주(晉州) 삼섬과 기계(杞溪) 유수막례의 장남으로 월야면 월야리에서 출생 광주교육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법성고등학교장에 재임중이며 아내는 김해(金海) 김문희이다.

◆ 정용재(鄭容在)

1938년생. 나산면 수상리에서 출생

광주지방법원 집달리 사무소 세무과장을 역임했다.

◆ 정용진(丁用鎭)

함평읍 내교리에서 출생. 광욱(光旭)의 맏아들로 신광초등학교 등 교장을 지냈다.

◆ 정용태(鄭鎔兌)

1866~1930 본관 나주. 자 기성(器成). 호 침천재(枕泉齋). 시조의 26세손. 수영(수영)의 아들로 최익현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음사로 정릉 참봉으로 출사하여 중추원 의관(議官)을 지냈다. 한일합방 이후 두문불출하였다. 이 사실이 군지, 전남도지에 실렸다.

아내 광산김씨(光山金氏. 1865~1928)는 홍이(洪移)의 딸이며 천성이 정숙하고 단아하였으며 시부모 복을 입고 있을 때 죽만 먹으며 애도하였다. 1906년 효부로 천거되어 삼강록에 올랐다.

◆ 정용호(鄭鏞昊)

작고. 본관 진주. 의학박사. 함평읍 선광병원장.

◆ 정우남(鄭禹南)

1953. 9. 25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3세손. 호 근정(謹亭) 재영(載泳)과 함평(咸平)



정우남

이복례(李福禮)의 3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광주서중, 광주일고,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박사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동대학 학장, 전대입학관리위원장, 전대국책사업단연구부장, 전대교육기자재관리소장, 전대자동차연구소장, 전대교무부처장, 대한기계학회호남지부장, 한국열물성학회부회장, 전남화제조사전문협의회위원장, 국가참

조표준센터기술위원회위원, 공과대학우수스포츠폴리오상, 전대교육우수교수상을 수상 아내는 경주(慶州) 김성원(金誠源)과 밀양(密陽) 박점순(朴点順)의 딸 영숙(英淑)이다.

◆ 정우석(鄭愚石)

1966. 5. 7생 본관 동래(東萊) 재영과 함평(함평) 이복례의 아홉째로 광주시 광산구에서 출생 월야면 월악리에서 성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원을 졸업 소아청소년과전문의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정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아내는 함양 박화식과 이정순의 3녀 하정이다.

◆ 정우석(鄭宇錫)

해보면 해보리 월현에서 출생. 중앙의료공단 부장 역임.

◆ 정우섭(政愚燮)

1952. 1. 9 본관 동래.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동대학 교수

◆ 정우승(鄭愚承)

1960. 엽다면 삼정리에서 태어났고 엽다중, 학다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델 활동을 하다가 솔로 가수로 일본에 진출하여 오사카 등지에서 활약하였으며 귀국 후 ‘명동은 지금 12시 5분’ ‘40대 부르스’ 등으로 독집앨범을 발표하며 국내 무대에 뒤 늦게 데뷔했다. 짙은 호소력과 개성있는 목소리를 지녀 청장년 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정우중(鄭祐重)

1970. 10. 24 본관 광주. 시조의 23세손. 상오(尙伍)의 셋째 아들. 손불면 돈암리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5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 정우철(鄭宇哲)

1936. 12. 17 본관 진주. 시조의 33세손. 순원(順源)의 둘째 아들. 월야면에서 출생. 세무과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전주 리삼룡(李三龍)의 딸이다.

◆ 정우철(鄭宇喆)

해보면 해보리 발미에서 출생. 12대 해보 면장을 지냄

◆ 정원강(鄭元强)



정원강

1929. 2. 17 본관 진주. 학교면 마산리에서 출생. 전라남도 운수과장, 완도 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제4대 도의원 당선. 민선 1대 함평군수 (1995~1998)를 역임했다. 근정녹조훈장을 받았다.

◆ 정원옥(鄭元钰)

1940. 8. 24 엄다면 성천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박사. 전남대학교 교수

◆ 정육연(鄭六衍)

1931. 8. 29 본관 나주. 호 자운(紫雲). 시조의 28세손. 병율(昞律)의 막내 아들. 초등학교교장 역임. 아내는 광산김씨 채진(彩鎭)의 딸이다.

◆ 정윤기(鄭允基)

1913 학교면 죽정리 출신. 호 남송(南松). 함평 시우회장을 역임한 시조인이다. 1969년 봄에 전주에서 열린 전국 남녀 시조경향대회에서 특부 1등, 1973년 11월 광주에서 열린 시조경향대회에서도 명인부(名人部)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 정윤철(鄭尹哲)

본관 진주. 제1대 함평군의원을 지냈다.

◆ 정은환(鄭銀煥)



정은환

1948. 12. 3 본관 진주. 아버지 동수(東秀)와 어머니 동래 정소녀(鄭小女)의 아들로 해보면 금계리에서 출생하였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였으며 1974년 사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진주지원장, 서울민사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저서 「헌법개론」이 있다. 아내는 창녕 조희갑(曹喜甲)과 안동 권효순(權孝順)의 딸 은주(恩珠)다.

◆ 정을기(鄭乙基)

학교면 죽정리.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정의정(鄭義丁)



정의정

1952. 10. 15 본관 나주. 병소(炳昭)와 금성 나현례(羅炫禮)의 아들로 엄다면 삼정리에서 출생하여, 함평농업고등학교, 나주대 사회복지과, 초당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함

평읍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문학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1978년 월간 '시조'에 시 당선, 1994년 '월간 아동문학' 동시 당선으로 등단, 1997년 전남 아동문학상 수상. 한국문협, 국제펜클럽회원. 저서로는 시집 '목마를 타고'(1994. 도서출판 샛별), '내 곁에 그대 있었기에'(1996. 샛별), 동시집 '아지랑이'가 있다. 현재 한국문협함평지부장. 아내는 김기욱(金祺旭)과 이순덕(李順德)의 딸 삼순(三順)이다.



◆ 정익환(鄭益煥)

1959. 4. 1생 본관 진주(晉州) 용식과 광산(光山) 김형순의 차남으로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ROTC 제20기로 임관 창녕군수처 중령으로 재직중이며 아내는 진주(晉州) 강복선(姜福仙)이다.

◆ 정인선(政仁善)

1936. 3. 15 월야면 월야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대학원 졸업. 조선대학교 공업전문대학 교수

◆ 정인섭(鄭仁燮)

1929. 3. 5 엄다면 송로리에서 출생 국졸. 목포역 운전사무소 조역을 지냈다.

◆ 정인술(鄭寅述)

1979~1910. 6. 6 다른 이름 금모(金模), 윤모(允模) 1907년 9월 호남의 기삼연(奇參衍) 의진에 가담하여 담양, 능주, 장성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

1908년 3월 김태원의진에 들어가 장성, 담양, 광주 등지에서 적과 접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5월 이후에는 조경환(曹京煥) 의진에 소속되어 함평 나주 등지에서 교전하였다.

그 이후 이강산 의병장의 지휘하에 함평지방의 나주현병분견소 밀정 이관안, 김정태, 최치도를 동지 박치일(朴致一) 등과 함께 처단하였다.

그 후 이러한 일련의 의병운동이 노출되어 체포되었으며 광주지방법관소에서 소위 폭동 및 모살죄로 1909년 12월 25일 교수형을 선고 받고 대구공소원에 공소하였으나 1910년 3월 8일 공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사형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려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정인식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 1947. 3. 6~19

50. 3. 31까지 학교면장을 지냈다.

◆ 정인오(鄭仁午)



1981. 1. 25생 본관 진주(晉州) 현철(鉉喆)과 인동(仁同) 장충례의 장남으로 광주기독병원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인하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아내는 안동(安東) 권선경이다.

◆ 정인옥

함평보통학교 재학 중이던 1919. 4. 26에 함평만세운동을 벌이기로 조사현 등과 합의 준비를 하다가 일경에 감지되어 4월 18일 김준부, 김기성이 체포되고 이들이 동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와 장학년, 박성수를 내세워 피체되었으나 교장과다나베(渡邊), 담임 임은수 선생의 백방 활약으로 4월 23일 훈계 석방되었다.

이로 인해 4월 26일의 거사는 실패했다.

◆ 정일섭(鄭一燮)

1869~1944. 7. 13 본관 진주. 자 중현(仲賢). 호 후월(後月). 기시조 시양의 33세손. 기휴(基休)와 죽산안씨의 맏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하였고 송연재(宋淵齋)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28년 일제가 문중 땅 6만여 평을 국유화하는 불법만행을 저지르는데 대하여 정동옥, 정갑형, 아우 정일섭 등과 연고자를 모아 반환 운동에 나서, 수 차례에 걸친 소송, 다수군중의 시위, 관공서 난입, 폭행, 납치에 이르는 극렬투쟁까지 전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반환 운동은 선조의 땅을 찾자는 뜻도 있었으나 가슴 깊이 숨어 있는 항일 애국심이 강하게 발로되었던 것이다. <1928년 9~12월 형사재판서 원본. 총무처 기록보존소 문서번호 77-5334 참조> 아내는 나주 나영집(羅

英集)의 딸, 연안 김형수(金亨洙)의 딸이다.

◆ 정일성(丁壹聲)



정일성

1936. 9. 28생. 본관 압해(押海) 호 후물(后栗) 병창(병창)과 전주(全州) 이광녀(李廣女)의 장남으로 해보면 대창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육학과를 수료 학다리초등학교장을 역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김해(金海) 김영도(金英度)와 함평(咸平) 이귀례(李貴禮)의 장녀 향자(香子)이다.

◆ 정일순(鄭一順)



정일순

1940. 1. 7 본관 진주. 호 월송(月松).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동 교육대학여성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였다. 1969년까지 전남미술대전 입선 6회, 특선 4회, 1972년 호남예술제 서예백일장최고상, 1974년 MBC 전국여성 서예 백일장 장원, 1978년 대건신학대학 서예 강사, 1979년까지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선 다수, 1981년 광주·전남미술대전 추천 및 초대작가, 1987년 한국예술문화협회 초대작가, 정관서예원(靜觀書藝院) 개원, 1995년 국민예술협회 이사, 1996년 광주·전남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서예가로서 전심전력하고 있다. 1987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정일연(鄭一衍)

1933. 1. 10 본관 나주. 처음 이름 동연(東衍). 호 석부(石富). 시조의 28세손. 병

수(炳壽)의 아들

장로교신학대학원 목회 행정학과 수료, 총신대학원(總神大學院) 신학과 수료. 장로교신학대학 교수 및 동부교회 목사 역임. 아내는 한양 조진실(趙眞實)로 수만(壽萬)의 딸이다.

◆ 정일웅(鄭一雄)

나산면 수상리에서 출생. 대졸. 민주한국당 부총재 비서관을 지냈다.

◆ 정재강(鄭在康)

1952. 5. 14 본관 진주. 월야면 외치리 백야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고려대학원 박사과정. 조선대 공과대학 교수. 리하이대학, 멜번주립대학 교환 교수

◆ 정재구(鄭在九)

1921~1982 본관 나주. 호 월계(月溪). 시조의 26세손. 우상(遇尙)의 아들. 학교면장을 지냈다. 아내는 김해김씨 두현(斗鉉)의 딸, 창녕조씨(昌寧曹氏) 매산(每山)의 딸이다.

◆ 정재근(鄭在根)



1962. 11. 2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2세손. 진두(鎭斗)와 밀양(密陽) 박영례(朴英禮)의 첫째로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수의학과 박사. 국립수의과학원 검역원, 현재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으로 국무총리표창. 아내는 함평 이계문(李啓文)과 나성자의 장녀 난숙(蘭淑)이다.

◆ 정재석(鄭在浙)

1941. 9. 20 본관 진주. 호 광재(光齋). 시조의 34세손. 아버지 충섭(忠燮)과 어



정 제 석

머니 금성 오효남(吳孝南)의 맏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고, 광주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고령교육청 장학사,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직과 장학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함평월야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함평 이건교(李建敎)와 광산 김사순(金四順)의 딸 영자(英子)다.

◆ 정재수(鄭在洙)

1923. 1. 22 월야면 월악리 지변에서 출생 무안중학교 등 중학교 교장 역임. 국민훈장 목련장 받음

◆ 정재순(丁在順)

업다면 화양리. 전국선행자표창위원회의 효부표창을 받음.

◆ 정재윤(鄭在潤)

1950. 2 7 본관 진주. 월야면 외치리 백야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 대학, 동 대학원 박사 과정. 코펜하겐대학 및 하이델베르그대학 교환 교수. 서태평양 척추분과위 이사. 정형외과학. 학술상 수상(대한정형외과학회)

◆ 정재창(鄭載昌)

1964. 9. 24 본관 진주. 기섭(琪燮)의 아들로 서울대학교 졸업. 공학박사. 국립과학원을 근무하였으며. 아내는 경주 김혜영(金惠英)이다.

◆ 정재현(鄭在炫)

1953. 1. 1 본관 진주. 호 경재(京齋). 시조의 34세손. 아버지 충섭(忠燮)과 어머니 금성 오효남(吳孝南)의 넷째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



정 제 현

았으며, 독일 보쿰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문과 강사를 거쳐, 현재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독어과 부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아내는 수성 최공휴(崔恭休)와 나주 정금년(鄭今年)의 딸 병숙(炳淑)이다.

◆ 정재환(鄭在煥)



정 제 환

1954. 12. 17 본관 진주. 아버지 동주(東柱)와 어머니 김기순(金基順)의 아들로 해보면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내과 전문의로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정재환 내과의원을 개업하였다. 아내는 진주 강희숙(姜姬淑)이다.

◆ 정재훈(鄭在勳)



정 제 훈

1956. 10. 9 본관 진주. 호 인재(仁齋). 삼환(三煥)과 상산 김표순(金表順)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고, 광주일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 대학원에서 1990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1995년 광주보훈병원 정형외과 과장, 1991년 캐나다 ONA병원 관절염 수술 연구, 1992년 미국 정형외과학회 연수, 1993년 덴마크 세계슬관절 및 관절경학회 연수, 1994년 북아메리카관절경학회, 미국정형외과학회 슬관절 과정 연수, 1995년 미국 Timken Mercy Medical Center 및 Dr. McGuire Clinic 관절경 및 슬관절연구.

한국사진작가 협회 회원

아내는 전주 리동규(李東奎)의 딸 현영 이다.

◆ 정정근(鄭正根)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 1968. 11. 5~1969. 9. 2까지 해보면장을 지냈다.

◆ 정정남(鄭正南)



정정남

1941. 6. 22 본관 진주. 호 학송(鶴松). 연길(然吉)과 달성 배병임(裴炳任)의 아들로 학교 마산리에서 출생하였고, 광주기계공업 학교를 졸업하였다.

함평군청 새마을과장, 재무과장을 역임 했다. 아내는 전주 최창환(崔昶煥)과 김해 김 금인(金今仁)의 딸 복례(福禮) 다.

◆ 정정용(鄭政用)



정정용

1950. 9. 17 본관 나주. 쌍대(雙大)와 제주 고채임(高采任)의 아들로 엄다면 삼정리에서 출생하였고, 엄다초등, 학다리중, 성동공업고등학교,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였다.

1979년 기계 기사 1급, 열관리 기사 1급을 받았으며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무안 박판기(朴判基)와 전주 리 순임(李順任)의 딸 순례(順禮)다.

◆ 정정진(鄭正鎭)

1946. 12. 11 본관 진주. 호 월손(月松). 대금(隊金) 과 양성 이필연(李必然)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 출생하였고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1992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 1977년



정정진

보건사회부 연구원, 1982년부터 현재까지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단국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 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한국특수교육 학회장을 맡고 있다.

‘특수교육학’ 외 20여권의 저서가 있고 ‘모성실조아 발달 특성’ 등 38편의 논문이 있다.

◆ 정종남(鄭鍾南)

1947. 14 본관 진주. 학교면 죽정리에 서 출생 고졸. 1대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학교면장을 역임

◆ 정종배(鄭鍾培)

1957년 학교면 마산리 표산 출생. 학다리중 학교와 한성고교를 거쳐 중앙대학교 문창과, 교육대학원 졸업. 목포 홍일고, 서울 장훈고, 청담고에서 교사로 근무. 1996년 『문에 한국』에 시 ‘남행소묘’, ‘두주먹’, ‘항구’ 등이 당선되어 등단하여 서양화가인 아내와 부부시화전도 열었다. 저서로는 시집 『산에는 작은 꽃도』 『안개 속에 소리가 자란다』 『그림자 흔들기』가 있다.

◆ 정종빈(鄭鍾斌)

1868~1918 본관 진주. 자 윤창(允昌). 호 지파(芝坡). 시조의 30세손. 기섭(基燮)의 다섯째 아들. 해보면에서 출생. 훈련원 주부를 역임했으며 한일 합방 후로는 불출자정(自靖)하며 만년을 보냈다. 아내는 고흥 유제하(柳濟河)의 딸이다.

◆ 정종선(鄭鍾善)

1929. 1. 15 대동면 백호리에서 출생. 공주사범대학 졸업. 중학교 교장 역임

◆ 정종해(鄭鍾海)

1942. 2. 1 학교면 마산리에서 출생.



고졸. 노동부 광주사무소 근로감독관을 지냈다.

◆ 정주현(鄭較鉉)

1943. 4. 26 본관 진주.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물리대학, 한남대학원 졸업.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정지병(鄭址炳)

1922. 1. 23 본관 진주. 시조의 34세손. 규섭(圭燮)의 둘째 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 육군 중령 예편. 아내는 김해김씨다.

◆ 정진갑(鄭鎭坎)



정진갑

1921. 7. 27 본관 동래. 호 인회(忍悔). 시조의 31세손. 항모(沆謨)와 장택 고요순(高堯順)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고 1947년에 문교부 중등교원양소를 수료하였다.

해남중학교 교장을 지냈고 1986년에 국민훈장 동백장, 1992년에 애국지사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아내는 함평 이민수(李敏壽)와 탐침최씨의 딸 춘자(春子)다.

◆ 정진갑(鄭鎭甲)

1921. 7. 27 월야면 월악리 지변에서 출생. 해남중학교 등 교장 역임

◆ 정진갑(鄭鎭甲)

1926. 5. 14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희문(鄭繪文)의 31세손. 호 하강(夏岡). 동규(東珪)의 장남으로 월야면 용암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경제학과를 졸업 조선대학교상무이사, 동강대학 학장, 전남체육회상임부회장, 동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아내는 탐진 최씨이다.

◆ 정진두(鄭鎭斗)



1936. 2. 1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희문(鄭繪文)의 31세손. 호 성암(省菴) 경모(敬謨)와 나주(羅州) 정태임(鄭太任)의 4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광주사범대학 수학과를 졸업 전남도교육청장학사, 복내고등학교교장, 전남도교육청과학기술과장을 역임 전남도교육청윤리위원, 한빛고등학교이사, 월야종합고등학교운영위원장, 대통령표창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밀양 박후재(朴厚在)와 창녕 조연례(曹連禮)의 장녀 영례(英禮)이다.

◆ 정진명(鄭鎭溟)



정진명

1925. 7. 2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희문(鄭繪文)의 31세손. 호 월암(月岩). 항모(沆謨)와 장택 고요순(高堯順)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전남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로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자연과학대학장, 호남수학학회장, 전남대학교 대학원장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울산 김상용(金相鎔)과 신평 송씨의 딸 병숙(炳淑)이다.

◆ 정진백(鄭鎭伯)

1955. 3. 18.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희문(鄭繪文)의 31세손. 영모(寧謨)의 3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부산소년원을 나와 광주사회문화원 출판사를 운영하며 저서는 남풍(南風)이 있다.

◆ 정진섭(鄭鎭燮)



정진섭

1944. 3. 10.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1세손 항모(沆謨)와 전주(全州) 리삼금(李三今)의 차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목포해양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전남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로 롯데건설과장,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미국존스홉킨스대학교 교환교수, 논문으로 「비선형구석식을 이용한 기초지반의 거동해석」으로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 저서로는 「최신토질역학상론」이 있으며 아내는 장흥 고재화(高在華)와 화순 최필녀(崔畢女)의 딸 경순(京順)이다.

◆ 정진숙(鄭鎮淑)

1927. 8. 15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1세손. 호 월강(月岡). 문모(文謨)와 풍산 홍장순(洪長順)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전남체육회 사격연맹이사, (주)그랜드호텔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아내는 순천 박종만(朴鍾萬)과 전주 리여(李汝)의 딸 순례(順禮)이다.

◆ 정진안(鄭鎮安)

본관 진주. 의학박사.

◆ 정진오(鄭鎮午)

1943. 7. 8 본관 동래. 일모(一謨)의 맏아들로 나산면 삼축리에서 태어남. 단국대학교 졸업. 함평군수. 내무부공기업 과장 역임 아내는 박선희(朴善姬)다.

◆ 정진우(鄭鎮雨)

1914. 12. 30 본관 동래. 호 성재(城齋). 시조의 31세손. 철모(哲謨)와 영성 정씨(丁氏)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고 서울 경신중학교를 졸업했다.

1960~1961년 민선 월야면장을 지냈다. 아내는 성주 이교승(李敎承)의 딸 애현(愛賢)이다.

◆ 정진재(鄭鎮在)



정진재

1928. 5. 15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1세손 호 안곡(安谷). 난모(蘭謨)와 평택 임기순(林奇順)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문리대학 화학과 2년 수료. 월야면제16대면장.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월야농업협동조합장, 월야종합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 아내는 광산 김재백(金在百)의 딸 곤례(坤禮)이다.

◆ 정진팔(鄭鎮八)



정진팔

1919 3. 28 본관 동래. 준모(浚謨)와 오봉정(吳鳳亭)의 아들로 월야면 용암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조선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했다.

1958~1984년 흥농서초, 진양초, 영광중앙초, 비아남초, 광주주암초, 광주봉주초등학교장을 역임하고 1984년에 정년퇴임하였다. 1960년 대통령면려상, 1984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죽산 안연순(安連順)이다.

◆ 정진형(鄭鎮炯)

1938. 6. 13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1세손 항모(沆謨)와 전주 리삼금(李三今)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졸업 현대건설대리, 농어촌진흥공사부기사, (주)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이사, (주)한얼기술단 부사장. 토목기



정진형

술사이며 아내는 밀양 박종곤(朴宗坤)과 경주 최경례(崔京禮)의 딸 정옥(正玉)이다.

◆ 정진희(鄭鎭喜)

1929. 7. 19 본관 동래. 호 동리(東里). 시

조의 31세손. 문모(汶謨)와 풍산 홍장순(洪長順)의 아들로 월야면 월야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남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서광주세무서 근무. 1980년 평화건설(합) 대표, 1985년 광주광역시 사격연맹 회장, 1987년 재단법인 한국기원 이사, 1988년 중앙로타리클럽 회장, 1988년 학교법인 백인학원 이사를 역임하였고, 1986년부터 (주)그랜드호텔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아내는 장흥 고재윤(高在允)과 청송 심별순(沈別順)의 딸 기례(漪禮)다.

◆ 정차범(鄭次範)

1956. 9. 13 본관 나주. 시조의 30세손. 성기(成基)의 여섯 아들 중 셋째 아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1회 사법고시 합격. 아내는 영천 이은숙(寧川李銀淑)으로 선채(善彩)의 딸이다.

◆ 정찬득(鄭燦得)



정찬득

1958. 11. 21(음)생 본관 하동(河東) 동채와 김정자의 장남으로 함평군 대동면에서 출생 전남대학교를 졸업 함평엑스포 기획부장, 친환경농산과장으로 재직 중 농업발전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제주(濟州) 고일생과 강인선의 3녀 금옥이다.

◆ 정창선(鄭昌先)

본관 진주.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 공군

대령 예편.(1982)

◆ 정창수(鄭昌洙)

1847~1923 본관 진주. 자 몽서(夢瑞). 호 조은(鈞隱). 종거(鍾巨)의 다섯째 아들로 월야면에서 출생하였고, 1875년 무과에 급제하여 1888년에 부사과를 지냈다.

◆ 정창업(丁昌業)

본관 압해. 작고. 업다면 성천리에서 태어났고 노년에 나주시 문평으로 이거하였다. 조선조 고종 때 대원군에게 총애를 받은 국창으로 판소리 서편제의 제1인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

◆ 정창연(鄭昌淵)



정창연

1923. 1. 10 본관 동래. 호 영당(靈堂). 진옥(鎭郁)과 나주 나경애(羅景愛)의 아들 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여 월야초등, 전북고창중학교를 졸업하였다.

1944~1961년 월야초등, 광주수창초등학교 교사, 1975~1986년 광산비야초, 광주 수창초등학교 등 교감, 1986~1988년 나주동강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1965년에 국무 총리 면려 표창, 198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울산 김흥중(金興中)의 딸 강수(江洙)다.

◆ 정창연(鄭昌衍)



정창연

1940. 11. 1 본관 나주. 자 용운(容雲). 호 청강(晴江). 시조의 28세손. 영도(永桃)의 아들. 광주지방법원 근무 아내는 전주리씨 원중(原中)의 딸이다.

◆ 정창영(鄭昌泳)

1948. 7. 11생. 본관 동래(東萊) 진감(鎭坎)

과 함평(咸平) 이춘자(李春子)의 장남으로 광주에서 출생. 전남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 동대학원 석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을 나와 현 광주보훈병원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를 역임하며 대한마취과학회장, 대한통증연구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마취(麻醉)와 뇌(腦)'가 있으며 아내는 광산(光山) 김식중과 김윤자의 장녀 선미(善美)이다.

◆ 정창우(丁昌禹)



정창우

1962. 12. 12생 본관 영성(靈城) 정환(正煥)과 여양(驪陽) 진말례(陳末禮)의 장남으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출생 목포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함평군체육회 상임부회장, 함평군생활체육협의회장과 함평군의회 5대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아내는 금성(錦城) 정씨(丁氏)의 넷째 여란(女蘭)으로 슬하에 1남1녀를 두었다.

◆ 정철진(鄭哲鎭)

1957. 1. 8 본관 진주. 시조의 35세손. 석규(錫奎)의 아들로 월야면 용암리에서 태어남.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박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있다. 아내는 전주 리옥상(李玉相)의 딸이다.

◆ 정춘헌(鄭春璠)

1917. 5. 9~1950. 본관 진주. 호 광산(光山). 시조의 33세손. 휘삼(輝三)의 맏아들. 월야면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감을 지냄. 아내는 밀양 박광용(朴廣容)의 딸이다.

◆ 정출연(鄭出衍)

1927. 9. 3 본관 나주. 호 연당(衍堂). 시조의 28세손. 병연(炳連)과 함양 박씨의 아들로 월야면 영월리에 출생하여 월야초등학교 천도교 수도학원을 나왔다.



정출연

禮)다.

◆ 정출연

1927. 11. 13 월야면 영월리 266번지. 12사단 포병연대 79대대 본부 하사로 근무하던 때 인제지구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53. 4. 20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정충섭(鄭忠燮)



정충섭

1921. 12. 5 본관 진주. 자 원복(元福). 호 죽천(竹泉). 시조의 33세손. 동욱(東郁). 함평 이복순(李福順)의 맏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고, 일본대분농업고교, 광주사범부설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월야초등학교, 광주주암·광주서광초등학교 등 교장을 역임하였고, 1988년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아내는 금성 오기열(吳璣烈)과 나주 나영순(羅永順)의 딸 효남(孝南)이다.

◆ 정충홍(鄭忠弘)

1942 본관 나주. 자 정일(正一). 호 석균(浙均). 시조의 29세손. 상연(相衍)의 아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진안세무서장 역임. 아내는 죽산 안정애(安貞愛)로 철수(喆洙)의 딸이다.

◆ 정태석(鄭泰錫)

1954. 3. 8 본관 진주. 시조의 35세손. 형균(亨均)의 둘째 아들 월야면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행정고시에 합



격하여 재무부 예산계장, 한신증권 상무이사
를 지냈고 현재 한남투신 대표이사로 재
직하고 있다. 아내는 문화 유윤석(柳允錫)
의 딸 지희(志熺)다.

◆ 정태선(鄭泰善)

1926~작고. 본관 진주. 자 성중(性中). 호
송오(松塢). 시조의 35세손. 기영(基永)의
만아들로 월야면 외치리 외치에서 출생.
월야면장을 지냈다. 아내는 함평 이재헌(李
在憲)의 딸이다.

◆ 정태연(鄭太淵)

1950. 9. 1생 본관 진주(晉州) 경수(景壽)
와 함평(咸平) 이정례(李貞禮)의 장남으로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에서 출생 초당대학
교를 졸업하고 함평천지농협조합장으로 재
직중이며 아내는 남양 홍희상과 김은림의
일곱째 길님(洪吉任)이다

◆ 정태영(鄭兌泳)

1940. 2. 28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
문(鄭繪文)의 32세손 진우(鎭雨)와 성주 이
애현(李愛賢)의 장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
청 사무관,서울시청 서기관을 역임 아내는
봉산 이영수(李永秀)의 딸 숙희(淑熙)다.

◆ 정태호(鄭泰浩)

1923. 2. 25 월야면 외치리에서 출생
함평군청 내무과장을 지냈다.

◆ 정태환(鄭泰煥)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1대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월야농업협 동
조합장을 지냈다.

◆ 정택규(鄭澤奎)

1952. 1. 3생. 본관 진주(晉州), 철(哲)과
탐진 최사례(崔士禮)의 차남으로 학교면 마
산리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학교면장에 재

직 중이며. 국무총리모범공무원상을 받았
으며 아내는 밀양(密陽) 박용희(朴龍喜)와
장순례(張順禮)의 여덟째로 화순(和順)이다.

◆ 정판수(鄭判洙)

1921. 1. 6 월야면 월악리 지변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여자대학 서무과장을 지냈다.

◆ 정필우(鄭畢愚)

1958. 10. 9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
문(鄭繪文)의 33세손. 판수(判洙)와 금성
나기주(羅基柱)의 아들로 태어나 전남대학
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와 내과전문의를
수련 전북 고창에서 정내과 병원 운영하며
아내는 광산 이화춘(李花春)의 딸이다.

◆ 정풍호(丁豐鎬)

엄다면 성천리 와촌에서 출생
육군삼사관학교 졸업. 육군 대령.

◆ 정학연(鄭學衍)

1931. 4. 6 본관 나주. 일명 학주(學柱).
시조의 28세손. 병옥(炳玉)의 만아들. 서울
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농촌지도관으로 군 지도소장을 역임함.
아내는 무안 박경순(朴京順)으로 영재(英
載)의 딸, 해남 윤경애(尹京愛)로 명현(明
鉉)의 딸이다.

◆ 정한기(鄭漢基)



정 한 기

1942. 10. 9 본관 진
주. 자 유철(裕澈). 호
효덕(曉德). 기시조 시
양의 36세손. 성진(性
鎭)과 제주 양승남(梁
承南)의 만아들로 월
야면에서 출생하였으
며, 광주사범학교, 고
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사회지도자 과정을 수료 하였다.

1992년부터 국세청 감사관실 세무감사

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회 활동으로는 1996. 8. 10 학교법인 승신학원 이사, 1997년 유교회 서울특별시본부 운영위원, 성균관장 위촉 문체부 후원 충효 교실 강사를 맡고 있다. 1993. 12. 15 국무총리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우리 나라 민원행정 공무원의 윤리의 실제와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1991),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1993), ‘행정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전략에 관한 고찰 - 국제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1994), ‘복지부동의 원인과 대책’(1995)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아내는 평산 신명균(申明均)과 삭령 최경자(崔貞子)의 딸 성숙(聖淑)이다.

◆ 정한식(鄭漢植)



정 한 식

1946. 7. 16 본관 진주. 기시조 시양의 36세손. 성진(性鎭)과 제주 양승남(梁承南)의 아들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하였고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유한회사 낙원관광여행사 대표, 1993년 월야중학교 옥성회장, 1996년 국제로타리 3710지구 함평천지클럽 회장을 지냈고 1998년 3월 월야농업협동 조합장에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현풍 곽상오(郭相五)와 김해 김 록례(金錄禮)의 딸 효자(孝子)다.

◆ 정한영(鄭漢泳)

1938. 7. 10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2세손. 호 웅암(雄岩) 진봉(鎭奉)과 금성 오금안(吳金安)의 아들로 월야면 용암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1년 수료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전남배구협회감사, 축구협회 이사, 레스링협회 부회장, 체조협회



정 한 영

부회장, 조선대학교 사무처장을 역임 아내는 창녕 조규복(曹圭復)과 전주 리소순(李素順)의 딸 덕호(德鎬)이며 슬하에 2남2녀를 두었다.

◆ 정한철(鄭漢澈)

1972. 11. 25생 본관 진주(晉州) 옥진(玉鎭)과 영광(靈光) 김순자(金順子)의 3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변호사에 재직중이며 아내는 경주(慶州) 김희정이다.

◆ 정항곤(鄭杭坤)

1937. 12. 14 본관 진주. 시조의 34세손. 영섭(永燮)의 둘째 아들. 월야면 용암리에서 출생. 육군 중령 예편 아내는 전주 최일수(崔一洙)의 딸이다.

◆ 정항세(鄭恒世)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정해인(鄭海仁)

엄다면 엄다리. 함평향교 효자표창을 받았다.

◆ 정헌면(鄭憲冕)

1868~1944 본관 나주. 자 군칠(君七). 호 후죽당(後竹堂). 시조의 26세손. 우익(遇益)의 둘째 아들로 죽봉 김준, 김윤 형제와 창 의하여 1907년 장성 백양사 전투, 담양 한재 전투, 고창, 고산 등지에서 왜병과 싸워 공을 세웠고 1908년에는 해산 전수용(海山全垂鏞) 부대에서 공을 세웠다. 항상 선조인 충신 애죽헌(愛竹軒)을 흠모하여 호를 후죽당(後竹堂)이라 하였다. 아내는 하동 정씨(河東鄭氏) 시현(時玄)의 딸, 철원주씨(鐵原周氏) 정혁(正赫)의 딸이다.

◆ 정헌진(鄭憲鎭)

1945. 2. 15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학리고등학교 졸업. 해군 중령.

◆ 정헌춘(鄭憲春)

1917. 5. 9~작고. 나산면 삼축리에서 출생. 광산경찰서 근무. 경감.

◆ 정현두(鄭鉉桓)

본관 진주. 의학박사. 광주에서 병원 개업

◆ 정현석(鄭炫錫)

1951. 3. 15 본관 진주. 자 관돌(判突). 시조의 35세손. 형균(亨均)의 맏아들. 월야면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LG화학 총무부장, 영업부장을 거쳐 나주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내는 나주 나상준(羅相俊)의 딸 점순(点順)이다.

◆ 정현수(鄭鉉洙)

1938. 7. 8생 본관 동래(東萊) 시조 정회문(鄭繪文)의 32세손. 진선(鎭善)과 진주(晉州) 정송단의 4남으로 월야면 월악리에서 출생. 광주서중, 광주일고, 경희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 서울지방국세청 과장을 역임 오페라성악가이며 아내는 금성(錦城) 나중문과 김덕례의 딸 귀자(貴子)이다

◆ 정현욱(鄭顯旭)

1979. 10. 28생 본관 나주(羅州) 상규와 파평(波平) 윤옥순의 차남으로 월야면 용월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 중앙공무원 연수원 교수에 재직 중이다.

◆ 정현웅(鄭鉉雄)

1958. 8. 10 본관 나주. 병래(炳來)와 광산 노복임(盧福任)의 아들로 월야면 용월리에서 태어났다. 1998년 6월 제3대 함평군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아내는 광산 노팔천(盧八千)과 해주 최은순(崔銀順)의 딸 용자(龍子)다.



정현웅



정현화

이다.

◆ 정현화(鄭鉉和)



1932.11.18생 본관 진주(晉州) 호 춘원(春園) 복기(福基)와 나주(羅州) 임택례(林澤禮)의 장남으로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 광주승의실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함평군청, 나산중학교를 거쳐 화순춘양중학교장을 역임하여 교육공로상을 받았으며 아내는 문화류씨 정례이며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다.

◆ 정형수(丁炯秀)



정형수

1944. 12. 8생 본관 영성(靈城) 호 육산(六山) 영채(永彩)와 나주(羅州) 정일여(鄭一女)의 장남으로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에 출생 목포교육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 함평손불초등학교장을 역임, 모범

공무원상과 황조근정훈장을 전수하였으며 아내는 진주(晋州) 정재식(鄭在植)과 죽산(竹山) 안납순(安納順)의 3녀 정님(正任)이며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 정형윤(鄭炯允)

1937. 4. 24 해보면 해보리에서 출생
대졸. 조선대학교 전문대학 교수

◆ 정홍규(鄭洪奎)



정홍규

1937. 11. 23 본관 진주. 호 청송(靑松). 순도(舜燾)와 금성 오귀덕(吳貴德)의 아들로 월야면 월야리에서 출생하였고, 월야초등, 정광중, 광주고등, 육군사관학교(제18기)를 졸업하였으며, 육군대학, 중국문화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1962~1987년 소위 임관, 육군대령 예편, 1987~1989년 이념연구소 연구위원, 1990~1993 대전 한남대학교 강사, 1992년 한·중 우호협회 사무총장을 거쳐 1994년부터 한샘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1967년 대통령의 무궁포장, 1984년 보국훈장 삼일장, 1985년 중국 광화훈장, 1987년 미 육군근무훈장을 받았고 저서로 '중공군의 변천사'(1981. 중국문화대학원), '모택동과 유소기 노선투쟁'(1990. 유풍출판사), '중국인 이데올로기'(1991. 평화당) 등이 있다. 아내는 풍산 홍대식(洪大植)과 남평 문화례(文花禮)의 딸 평옥(平玉)이다.

◆ 정홍배(鄭洪培)

1970. 3. 4 본관 진주. 성렬(成烈)의 아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국립의료원 의사. 아내는 문화 류해영(柳海永)이다.

◆ 정홍진(鄭洪鎭)

1964. 10. 2 본관 진주. 아버지 석규(錫



정홍진

奎)와 어머니 정현임(鄭賢任)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국민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육군 소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아내는 한양 조유행(趙有行)과 함평 이선비(李仙秘)의 딸 성혜(誠惠)다.

◆ 정화영(鄭華榮)

1860~1922 본관 진주. 자 익삼(益三). 호 월로(月老). 시조의 33세손. 일원(一源)의 둘째 아들. 돈녕부 돈녕을 지냈다. 아내는 안동 권중희(權鍾希)의 딸이다.

◆ 정화영(鄭花泳)

1932. 2. 11 본관 동래. 월야면 월악리 지변에서 출생
와이즈맨클럽 남부지구 총재를 지냈으며 광주동양종합학원을 설립 이사장을 역임했다.

◆ 정휘삼(鄭輝三)

1885.음 7. 19~ 1964.음 10. 26 본관 진주(晋州), 자는 기삼(基三), 호는 송포(松圃), 삼강록에 등재된 효자 인풍(寅豐)과 영광정씨 슬하 1남 4녀의 외아들로 나산면 삼축리 축동에서 출생하여 한학을 수학했다. 을사늑약으로 주권을 잃게 되자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1906년 봄부터 처남인 오영찬(건국훈장애족장) 등과 군자금을 모으고 충기를 구입하여 동서인 의병장 김태원 진영에 합류하여 장성 남면, 담양 창평, 광주 무등산, 함평, 영광, 고창 등 호남일원에서 활동하던 중 1908년 3월 25일 어등산 전투에서 의병장 김태원은 전사하고 본인은 벼랑으로 추락하여 의식불명인 것을 동료들의 구출과 친척의 도움으로 치료하며 일제의 수배를 피해 일삼(壹三)이라는 가명으로 장성의 심산유곡에서 경문, 주술, 풍수지리를 수학하면서 은거했으며 광복 후에도 항일투쟁의 전상으로 통한의

여생을 보냈다. 정부에서는 1995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고인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아내는 낙안 오치일(吳致日)의 4녀인 필순(必順)으로 슬하에 헌춘(憲春), 헌승(憲承), 헌방(憲坊) 3남과 순덕(順德) 1녀를 두었다. 2010년 고인의 뜻을 기리는 애국지사비가 나산면 삼축리 상축마을 입구 좌측에 건립되었다.

◆ 정흔연(鄭忻衍)

1950. 1. 17 본관 나주. 시조의 28세손. 병주(炳周)의 둘째 아들. 광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검찰사무관 역임
아내는 죽산안씨 현태(炫泰)의 딸이다.

◆ 정회경(鄭會京)

1958년 신평면 삼덕리 출생으로 조대부고 졸업. 1996년 『문학21』에 낫달 외 1편으로 등단. 현재 여수시청에 근무하며 저서로는 2006년에 펴낸 시집 『풍경, 꽃지고 날저무는』이 있다.

◆ 정희성(丁熙聲)

1952. 10. 27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1999년 해군 준장으로 승진했다.

◆ 정희채(鄭熙采)

함평읍 출신.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 조관형(趙官衡)

1955. 2. 1 본관 한양. 병연(炳然)과 도강 김찬림(金燦林)의 아들로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하였고,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1983년 기업은행에 들어가 현재 부장직에 있다. 아내는 나주 정병규(鄭炳奎)와 광산 김길례(金吉禮)의 딸 건숙(建淑)이다.

◆ 조국현(曹國鉉)

1940. 4. 16생. 본관 창녕(昌寧) 호 청송(淸松) 현문(玄文)과 압해(押海) 정봉금(丁

奉今)의 4남으로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목포사범학교와 한국방통통신대학교를 졸업 초등학교장을 역임하며 신안군교육회장을 역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 아내는 김해(金海) 김동관(金東官)과 영광(靈光) 이공례(李孔禮)의 장녀 순녀(順女)이다.

◆ 조기근(曹基根)

1924. 9. 15 본관 창녕.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 졸업. 학다리중앙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 교장을 지냈다.

◆ 조남석(趙南錫)

1960생 본관 풍양(豐壤) 성구와 밀양(密陽) 박현순의 장남으로 월야면 월계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를 졸업 육군중령으로 재직 중이며 아내는 장수(長水) 황여막이다.

◆ 조남형(趙南衡)

1908~1943 본관 한양. 다른 이름 진형(珍衡). 자 경오(景午). 호 덕인(德仁). 시조의 25세손. 병희(炳熙)의 맏아들 문학과 효가 뛰어났으며 전교(典校)를 지냈다. 아내는 여양 진광례(驪陽 陳廣禮). 1905~1921)로 옥현(玉鉉)의 딸, 우봉이씨(牛峰李氏) 풍근(豐根)의 딸이다.

◆ 조대흥(曹大興)



조대흥

1958. 6. 3생 본관 창녕(昌寧), 호 진도(進道) 필용(弼用)과 영성(靈城) 정신임(丁新任)의 차남으로 함평읍 수호리에 출생 함평농업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 함평군 영농지원과장을 역임한 후 제21대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재임 중이며, 대통령표창 수상하였으며 아내는 금성(錦城) 나병남(羅炳南)의 장녀 인덕(仁德)이다

◆ 조민형(趙珉衡)

1933 3. 12 나산면 신평리에서 출생. 공군 소령 예편

◆ 조병연(趙炳然)

1928. 10 20 본관 한양 귀윤(貴允)과 진주 정월악(鄭月岳)의 아들로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홍익대학교 전문부 3년 수료. 1947~1953년 초등학교 교사, 1953~1968년 교감, 1968~1994년 교장을 지냈다. 대통령의 국민포상을 받았으며 아내는 도강 김영식(金泳植)



조 병 연

과 김해 김란순(金蘭順)의 딸 찬림(燦林)이다.

◆ 조병일(趙炳鎰)

1929. 8. 12 본관 한양자 정만(正萬). 호 목재(목재). 시조의 24세손. 문원(文元)의 맏아들. 교육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하였고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아내는 김해 김연순(金蓮順)이다.

◆ 조병팔(趙炳八)



조 병 팔

1922. 1. 27 본관 한양. 자 판술(判述). 호 송암(松暗). 시조의 24세손. 상원(相元)과 이월봉(李月峯)의 맏아들로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하였고 신광공립보통학교, 함평공립농업실수학교를 졸업했다. 1943년 대동면서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65~1970년까지 대동면장을 지냈다. 아내는 무안 박창화(朴唱和)와 진주 정금곡(鄭金谷)의 딸이다.

◆ 조사현(曹士鉉)

1895~작고. 본관 창녕. 함평읍 내교리 출신. 이인행, 김용언, 모순기, 김준부, 김기성 등과 1919년 4월 26일에 함평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하고 준비를 하다가 4월 18일 일경에 감지되어 무산되었으며 3. 1 운동 1주기를 맞아 다시 전국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되자 1920년 3월 19일 그가 주동이 되어 3월 26일 함평보통학교 졸업식이 끝난 후 함평장터에 모여 만세를 부르기로 합의하고 그와 김재문이 일반인의 동원을 책임 맡았다. 26일 계획대로 만세운동을 성사시켰으며 그와 20여명이 체포되어 목포지청으로 이송되고 그는 주동자로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옥고를 치루었다.

석방 후로도 함평농민운동에 앞장 서는 등 배일사상을 군민에게 심었다.

◆ 조삼현(曹三鉉)

1922. 5. 19~1980 본관 창녕. 함평읍 만흥리에서 출생. 광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광산군청 농산 과장 역임

◆ 조상호(曹相鎬)

본관 창녕 대통령 의전 수석비서관,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했다.

◆ 조석원(趙石元)

본관 한양. 엄다면 화양리에서 출생 동경제국대학 졸업. 나주경찰서장 역임. 총경 퇴직.

◆ 조성기(趙成基)

1941. 9. 29 본관 한양. 호 만덕(晩德). 시조의 26세손. 윤형(潤衡)의 둘째 아들로 엄다면 삼정리에서 태어남. 전주대학교 졸업. 광업소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나주임(林) 씨 순조(順祚)의 딸이다.

◆ 조성도(趙成都)

1923. 9. 25 본관 한양. 호 율정(栗亭). 시조의 26세손. 대형(大衡)의 맏아들로 엄



다면 삼정리에서 출생하여 순천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엄다면장(1961. 6. 30~1964. 3. 31),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2대 대의원을 지냈다. 아내는 무안박씨 경래(卿來)의 딸이다.

◆ 조성문(趙成文)

1965년 함평읍에서 출생. 한국외국어대한국어교육과 졸업. 인천에서 고교교사로 있다. 200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조가 당선되어 등단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시조집을 준비중에 있다.

◆ 조성배(趙誠培)

1964.10.10. 본관 한양. 영형(泳衡)과 무안 박귀임(朴歸任)의 차남으로 대동면 운교리에서 태어났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와 ROTC 장교 임관, 대위제대. 현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사 상무이사로 근무함. 아내는 평강 채진희(蔡眞熙)다.

◆ 조성백(趙誠栢)

1957.5.8. 본관 한양. 중형(仲衡)과 진주 정덕님(鄭德林)의 5남으로 대동면 운교리에서 태어났다. 광주상고를 나와 주택은행 본부 근무, 국민은행 마포구 광음창지점장. 아내는 전주 이진규(李辰圭)다.

◆ 조성수(趙成洙)

1926. 6. 5 본관 한양. 호 화계(花溪). 시조의 26세손. 대형(大衡)의 둘째 아들로 엄다면 삼정리에서 태어남. 광주사범학교 졸업. 초등학교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경주이씨 상규(相奎)의 딸이다.

◆ 조성수(趙誠壽)

1923. 1. 15 본관 한양. 신평면 유천리에서 출생. 중졸. 사무관을 역임하였다.

◆ 조성수(趙成洙)

1953.1.12. 본관 한양. 중형(仲衡)과 진주

정덕님(鄭德林)의 둘째 아들로 대동면 운교리에서 태어났다. 광주상고를 나와 광주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 도시지역본부경영검사 본부장, 농협중앙회 목포농협하나로마트유통공사 사장 역임. 아내는 창녕 조송심(曹松心)이다.

◆ 조성옥(趙成郁)

1938. 10. 8 본관 한양. 호 창석(菴石) 시조의 26세손. 윤형(潤衡)과 이천 서금순(徐今順)의 맏아들로 엄다면 삼정리에서 태어났으며 학다리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서울대학교 경



조성옥

영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였다.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1966~1979년까지 서울, 부산, 광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80. 8~1981. 4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1. 4~1982. 7 전주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1987. 7~1983. 7 광주고등검찰청 차장 검사, 1983. 6~1989. 3 제주, 청주, 광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1989. 3~1991. 3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1991. 3~1993. 3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였으며 1993년부터 일신법무인 대표 변호사로 있다. 1988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저서로 '증거능력과 증명력' (1969), '제3자 개입 금지' (1988)가 있다. 아내는 광산 김용걸(金容杰)과 순흥 안 숙(安淑)의 딸 명순(明順)이다.

◆ 조성원(趙成元)

1910~1945 본관 한양. 자 종백(宗伯). 호 고암(高庵). 시조의 23세손. 종태(鍾泰)의 둘째 아들로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 천성이 순후하였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구휼(救恤)하여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향인들이 비를 세웠다. 아내는 인동 장순덕(張順德)으로 문학(文學)의 딸이다.

◆ 조성천(趙成千)

1948. 4. 8 본관 한양. 시조의 26세손. 판형(判衡)의 셋째 아들. 신학대학 졸업. 목사. 의료공단 부장. 아내는 창녕 조동심

(曹東心)이다.

◆ 조성철(趙誠哲)

1960. 12. 24 본관 한양. 용성(用成)의 아들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신원통상(주) 중국 청도(靑島) 지사장으로 있다.

◆ 조성택(趙成澤)



조성택

1942. 4. 16 본관 한양. 시조의 26세손. 남형(南衡)의 둘째 아들. 신광면 유천리 출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5대 전라남도의원 (全羅南道議員. 함평 1지구)에 당선하였다. 화랑무공훈장, 인현무공훈장, 월남공화국 일등명예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말양박씨다.

◆ 조성하(趙成夏)

1930. 9. 16 본관 한양. 자 성수(誠壽). 호 송산(松山). 시조의 26세손. 판형(判衡)의 맏아들 장성문화공보실장, 광주광역시 대금동장을 역임했다. 아내는 김해 김복순(金福順. 상옥-相玉의 딸), 탐진 최영덕(崔永德. 신옥-信玉-의 딸)이다.

◆ 조양녀(趙良女)

1921 함평읍 한것골 출생. 일본음대를 졸업한 소프라노이다. 해방 후 여러 차례 독창회로 열연했다.

◆ 조양원

예명 조훈. 조형섭의 아들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태어남. KBS 신인 가요상을 받고 가수로 데뷔 하여 활동하고 있다.

◆ 조영재(曹永在)

1941. 3. 29 본관 창녕. 대동면 백호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 소령 예편.



◆ 조용무(趙龍茂)



조용무

1946. 5. 12생 본관 한양(漢陽) 중형(仲衡) 과 진주(晉州) 정덕림(鄭德林)의 장남으로 대동면 운교리에서 출생 함평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함평군농촌지도소와 함평읍과 대동

면에 근무하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함평군의회 재선의원으로 제5대 함평군회의회장을 역임하며 아내는 광산(光山) 김정임(金貞任)이다

◆ 조용성(趙用成)



조용성

1932. 12. 7생 본관 한양(한양) 호 학송(학송) 병무(병무)와 의령(宜寧) 옥정임(玉鄭任)의 장남으로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 목포사범학교를 졸업 학다리 중앙초등학교장을 역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 전기문으로 ‘학다리촌의 페스탈로치’가 있으며 아내는 고성(固城) 이길용(李吉龍)의 3녀 기례(基禮)이다.

◆ 조장현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제1대 함평면장을 지냈다.

◆ 조장환(曹長煥)

본관 창녕.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제1대 손불면장(1913 4. 20~1915. 10)을 지냈다.

◆ 조정란(曹正瀾)

1965. 1. 3 본관 창녕. 아버지 규성(圭性)과 어머니 김해 김순복(金順福)의 딸로 태어났으며,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



조정란

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광주여자대학 멀티미디어학과 전임강사로 있으며 저서로 「워드프로세서 실기(1996. 희망)」가 있다. 남편은 진주 정동진(鄭東鎭)이다.

◆ 조정룡(趙正龍)

1942. 2. 30 본관 한양. 서울에서 교회목사를 역임함

◆ 조종연

1937. 10. 2 본관 한양. 신광면 가덕리에서 출생. 신광면장을 역임하였다.

◆ 조준현(曹準鉉)

1955. 2. 10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대학원 졸업. 송원전문대학 교수

◆ 조충희(趙忠熙)

1956. 3. 5 본관 한양. 자 웅(雄). 호 춘원(春園). 시조의 27세손. 성하(成夏)의 맏아들. 1급 임업기사 과장 재임 중 아내는 밀양 박미영(朴漢永)으로 윤석(允錫)의 딸이다.

◆ 조판형(趙判衡)

1911~1985 본관 한양. 자 국형(國衡). 호 백양(白羊). 시조의 25세손. 병희(炳熙)의 둘째 아들로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 팔도장사(八道壯士)로 이름이 났으며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을 왕래하였다. 아내는 풍산 홍순덕(洪順德)으로 승렬(承烈)의 딸이다.

◆ 조한형(趙漢衡)

1918. 6. 19 본관 한양. 호 난계(蘭溪). 시조의 25세손. 병희(炳禧)의 맏아들로 엄다면 삼정리에서 출생. 광주사범학교 졸업.

엄다, 함평, 광주중 홍초등학교 등 교장을 역임하였고 국민훈 장 모란장, 동백장을 받았다. 아내는 나주임(林)씨 성관(成琯)의 딸이다.

◆ 조홍현(曹洪鉉)

본관 장녕. 함평읍 수호리에서 출생
11대 함평읍장(1972. 3 6~1974 7 12)을 지냈다.

◆ 주동철(朱洞鐵)



주 동 철

1955. 2. 5생 본관 신안(新安) 용섭(容燮)과 밀양(密陽) 박영임(朴永任)의 차남으로 나주시 반남면에서 출생하여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에서 자라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 국방대학원을 졸업 육군대령으로 재직 중이며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 표창을 받았고 아내는 영일정씨(迎日鄭氏)의 셋째 애경(愛敬)이다.

◆ 주상섭(朱相燮)



주 상 섭

1920. 9. 8 본관 신안. 아버지 성년(成年)과 어머니 홍덕 장초동(張焦洞)의 아들로 학교면 학교리에서 태어나 목포전수상업 학교를 졸업하고 나주·장흥·여수 등 경찰서장(경찰), 광양·영암경찰서장·경찰국통산과장(경정)을 역임했으며 1972년 대통령의 근정훈장을 받았다. 아내는 평산 신흥섭(申亨燮)과 충주 지은실(池恩實)의 딸 정 강(釘江)이다.

◆ 주영훈(朱榮勳)

대동면 덕산리에서 출생
1977년부터 10여년간 대동면장을 지냈다.

◆ 주일도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주장식(朱長植)

1947. 5. 5 본관 신안. 신광면 보여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육군소령 예편.

◆ 주형동(朱炯東)

1951. 9. 5생 본관 신안(新安) 호 송석(松石) 용섭(容燮)과 밀양(密陽) 박영임(朴永任)의 장남으로 나주시 교동에서 출생 학교면 학교리에서 자라 조선대학교 법정대학과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 서울시 송파구 장지중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아내는 밀양박씨(密陽朴氏)의 장녀 정숙(貞淑)이다.

◆ 지명호(池明浩)

1918. 7. 21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함평농업고등학교 졸업. 경감 퇴직

◆ 지상용(池相龍)

본관 충주.
행정고시에 합격. 대전세무서 총무과장을 지냄

◆ 지영빈(池永彬)

학교면 죽정리에서 출생. 1958. 12. 8~1961. 6. 26까지 학교면장을 지냈다.

◆ 지영휴(池永休)

본관 충주. 경찰서장을 지냈다.

◆ 지춘상(池春相)

1932. 10. 9 본관 충주. 학교면 월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동경교육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박물관장 역임. 문화체육부 문화재전문위원.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저서 ‘한국구비문학대계’(진도군, 함평군편). ‘전남의 동요’. 전남의 민요 등. 전남도문화상, 서울신문사 향토문화상, 문화 훈장, 금호학술상을 받음

◆ 지홍재(池弘在)

본관 충주. 엽다면 학야리에서 출생
1966. 2. 3~1969. 3. 18까지 엽다면장을 역임했다.

◆ 진경석(陳庚錫)



진 경 석

1948. 2. 11 본관 여양. 시조의 27세손. 아버지 도선(道善)과 어머니 진주 정월순(鄭月順)의 아들로 나산면 수상리에서 태어나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인천세관 사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아내는 제주 양회룡(梁會龍)의 딸 승자(承子)다.

◆ 진동범(陳東範)

본관 여양. 성규(成奎)의 아들. 무안군청과장 등 역임

◆ 진동석(陳銅錫)



진 동 석

1914. 5. 18 본관 여양. 시조의 26세손. 아버지 영운(靈雲)과 어머니 밀양 박편치(朴片峙)의 아들로 나산면 용두리에서 태어났으며 1975~1979년까지 여양진씨 전남종친회장을 지냈다. 아내는 광산 김영두(金永斗)와 전주 리장재(李長財)의 딸 봉윤(鳳允)이다.

◆ 진박하(陳博夏)

1842~1921 본관 여양. 처음 이름 익팔(翼八). 자 봉거(鵬舉). 호 묵재(默齋). 시

조의 24세손. 현옥(賢郁)의 아들이며 당시 인근에서 이름 높은 학자로 김병주(金炳柱), 이준서(李準緒) 등 수백의 제자들을 길렀다. 아내는 고령신씨(申氏) 이모(以謨)의 딸이다.

◆ 진병택(陳炳擇)



진 병 택

1953. 3. 28(음력)생 본관 여양. 금옥과 함평(함평) 이오순의 셋째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출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완도 보길초등학교장으로 저서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여가활동 운영 비교’가 있으며 아내는 함평(咸平) 이계윤과 이복순의 3녀 경희이다.

◆ 진석만(陳錫鏞)

1972. 1 4 본관 여양. 시조의 27세손. 아버지 산명(山明)과 어머니 고흥 유영애(柳永愛)의 아들로 나산면 수상리에서 태어났으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전주예수병원 의사로 있다. 아내는 김해 김성현(金成鉉)과 파평 윤희자(尹喜子)의 딸 승(承姬)다.

◆ 진영식(陳英植)



진 영 식

1963. 10 4 본관 여양. 시조의 28세손. 희춘(喜春)과 나주 정정강(丁靜江)의 아들로 해보면 대각리에서 출생하였고 함평중, 전남공업고등학교, 조선대학교 병설 공업전문대, 부산대 토목과를 졸업하였다. 1984년 소위 임관 수기사공병대대 소대장, 1987년 대위 진급 1101 야정공병단 중대장, 육군공병학교 참모, 1997년 소령 진급 제1군단사령부 군수참모처 참모 역임. 아내

는 남평 문명서(文明寺)와 파평 윤 귀석(尹貴錫)의 딸 지애(志愛)다.

◆ 진영희(陳永熙)

본관 여양. 성흥(成興)의 아들로 나주, 함평초등학교장(1955년)을 지냈다.

◆ 진용기(陳庸棋)



진용기

1934. 11. 12 본관 여양. 아버지 동석(銅錫)과 어머니 광산 김봉운(金鳳允)의 아들로 나산면 용두리에서 출생하여 광주농업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여양진씨 정자공과 문중대표를 맡고 있다. 아내는 광산 노성수(盧土辛 秀)와 고흥 유부덕(柳富德)의 딸 애순(愛純)이다.

◆ 진용범(陳瑑範)

1927. 5. 11 본관 여양. 시조의 26세손. 성룡(成龍)과 선산 김도림(金道林)의 넷째 아들로 나산면 수상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였고 1978~1982년 경정진급, 강진, 광산경찰서장, 1982~1984 총경진급, 전남경찰국경 비과장, 순천경찰서장을 지냈다.

1978년 은성소성훈장을 받았으며 아내는 이천 서판국(徐判局)의 딸 유선(有璿)이다.

◆ 진용옥(陳庸玉)

본관 여양. 영희(永熙)의 아들로 연세대학교 졸업. 박사. 경희대학교수.

◆ 진용주(陳庸周)

1925~1950 본관 여양. 자 성식. 시조의 27세손. 홍범(洪範)의 아들.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남원경찰서장을 지냈다.

◆ 진용준(陳庸俊)

1948. 1. 7 본관 여양. 시조의 27세손. 동석(銅錫)과 광산 김봉운(金鳳允)의 아들로 나산면 용두리에서 출생하여 나산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자격검정고시로 마치고 1995년 신학대를 졸업하였다. 1996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 4동에 있는 대한예수교 만민교회 목사로 있다. 아내는 밀양 박정오(朴正五)의 딸 호선(好善)이다.

◆ 진용진(陳庸珍)



진용진

1957. 8. 16 본관 여양. 윤범(潤範)의 양아들. 생부 금범(錦範). 나산면 용두리에서 출생하여 이문초, 금북중, 월야고등, 3사관학교 16기 졸업. 1990년 육군대학교 기본과정 1기 졸업. 1977년 소위 임관, 1983~1989년 대위 진급, 50사단 중대장, 군수장교, 인사과장, 1989~1995년 1사단 작전장교, 인사과장, 1군단 인사장교, 국군체육부대 훈련과장을 거쳐 1997년부터 15사단 부대대장으로 복무하고 있다. 아내는 해남 김영택(金永澤)과 광주 정례(鄭禮)의 딸 동숙(東淑)이다.

◆ 진유남(陳有男)



진유남

1966. 9. 20 본관 여양. 시조의 27세손. 아버지 산명(山明)과 어머니 고흥 유영애(柳永愛)의 딸로 나산면 수상리에서 출생하였고, 전남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를 수료하였으며, 전남대학교병원 의사, 광주 진유남치과의원 원장으로 있다. 남편은 광산 김명섭(金明燮)과 전주 리점례(李点禮)의

아들 홍봉(洪奉)이다.

◆ 진일범(陳一範)

1937. 4. 27 본관 여양. 시조의 26세손. 성룡(成龍)과 선산 김도림(金道林)의 다섯째 아들로 나산면 수상리에서 출생하여, 광주상업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진 일 범

수의 학과를 졸업하였다. 담양중, 장성실업고등 등 교사, 구례농고, 완도중 등 교감, 해남마산중학교장을 거쳐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국 과 학기

◆ 진태환(陳泰煥)



진 태 환

술과 장학관을 역임했다. 아내는 대구 배문옥(裴文玉)의 딸 애순(愛順)이다.

◆ 진희선(陳熹善)



진 희 선

수의 학과를 졸업하였다. 담양중, 장성실업고등 등 교사, 구례농고, 완도중 등 교감, 해남마산중학교장을 거쳐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국 과 학기 술과 장학관을 역임했다. 아내는 대구 배문옥(裴文玉)의 딸 애순(愛順)이다.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87년 제23회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건축과장(사무관),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계장을 역임하였다. 아내는 해주 최호성(崔浩誠)의 딸 상주(相珠)다.

◆ 차영주(車榮柱)

본관 연안. 1967년 통일사회당 함평지 구당 위원장, 1981년 국회의원 조기상 비서관, 1996년 신한국당 함평, 영광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함.

◆ 채경식(蔡京植)

1929. 12. 7 본관 평강. 자 양문(良文). 시조의 27세손. 수관(洙琯)의 아들로 학교면 월산리 출신이며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아내는 해주오씨 세길(世吉)의 딸이다.

◆ 채문수(蔡文秀)

1943년 학교면 월산리 출생. 아호는 평산(平山). 학다리고교를 졸업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원 창작전문과정 수료. 서울 정보통신부에 오래 근무, 1990년 KT현상문에 소설부문 금상 수상 후 2002년 『월간문학』에 단편소설 「루비콘강을 건너다」가 당선되어 등단. 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 역임. 현재 『계간문예』 주간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김동리기념사업회 이사, 한국문협 저작권옹호위원을 있다. 저서로는 창작집 『국경선』이 있다.

◆ 천갑록(千甲錄)

본관 영양. 진남포 역장, 심계원 제2과 장을 역임하였다.

◆ 천기길(千冀吉)

1936 4. 25 본관 영양. 엄다면 엄다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농촌진흥청 지도국 기획과장, 국립농업경제연구소 농산경제과장, 축산협동조합 중앙회 지도부장, 축산협동조합 전라남



천기홍

도지부장을 역임했다.

◆ 천기홍(千冀洪)

본관 영양. 엄다면 엄다리에서 출생. 1960. 12. 26~1961. 6. 26까지 엄다면장을 지냈다.

◆ 천병화(千炳化)

1936. 8. 8~작고. 본관 영양. 엄다면 엄다리 불암 출신. 보배(寶培)의 아들. 엄다중학교 이사장을 지냈다.

◆ 천보배(千寶培)



천보배

1903~1984 본관 영양. 광주시의원, 통일주체국 민회의 대의원, (주) 대창석유 부사장,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전라남도 연합회장, 엄다중학교, 동일실업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이사장직을 지냈고 엄다중학교 장학회 설립, 군내는 물론 도내의 영세민구호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 천안전씨(天安全氏)

신광면 삼덕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천학실(千鶴實)

1910. 11. 5~작고. 본관 영양. 엄다면 엄다리 불암에서 태어남. '남도노동요'로 전라남도지정 인간문화재

◆ 청송심씨(靑松沈氏)

서용섭(徐龍涉)의 아내. 함평향교의 열부표창을 받았다.

◆ 청송심씨(靑松沈氏)

손불면 양재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채의식

1930. 8. 30 해보면 광암리 292번지. 9사단 28연대 수색중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때 강원 철원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54. 4. 20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최 강(崔 崗)

1941. 5. 5 학교면 금송리에서 출생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광주육군통합병원 근무. 육군 중령. 보국훈장 삼일장 수상 (1978. 10. 1)

◆ 최강윤(崔康潤)

일명 원수(元水). 1900. 8. 9~작고.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경성제일보통 학교 3학년 재학 중 3. 1 운동 주도자로 체포되어 10개월형을 받음과 동시에 퇴학 처분되었다. 그후 동경에 유학하여 대학을 다녔고 조국 광복 후 함평, 화순, 여수, 곡성 경찰서장, 전남경찰국 공보실장을 지냈으며 3. 1 운동 공훈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 최권진(崔權鎭)



최권진

1961.4.25. 본관 경주. 시조의 34세손. 아호는 행아(行兒). 시인. 기온(基溫)과 죽산 안귀례(安貴禮)의 아들로 대동면 서호리에서 출생. 함평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과에서 수학했다. 1985년 시집 『진실의 역』을 펴내면서 문단에 등단, 1989년 동시 판문점의 비둘기로 월간 문학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협회원으로 고향에 거주하면서 1992년 시집 『괄호를 묶은 사랑을 풀고』를 발간하며 향토문화 진흥과 창작에 전념하면서

전남문협이사, 전남아동문학회장, 월간 아동문학 편집장, 도서출판 꿈과믿음 대표 역임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료조사위원, 함평예술인연합회 상임이사. 함평누리뉴스 논설주간,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감사, 자미문학회장, 문화사회발전소 다함 소장을 맡고 있으며 함평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내는 전주 최명규(崔明圭)의 딸 옥미나(玉美那)다.

◆ 최규남(崔圭南)

1950. 1. 13 함평읍 대덕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소령.

◆ 최규영(崔圭永)

1932. 8. 18~1983 본관 해주. 신광면 백운리에서 출생. 서울 엠파이어 사장을 지냈으며 함평군 민복지회관 건립에 1천만원을 회사하는 등 군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 최근휴(崔謹休)



최근휴

1956. 12. 25 본관 수성. 무속공 13세손. 아버지 윤환(允煥)과 어머니 여산 송화순(宋花順)의 아들로 나산면 월봉리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

았으며 무등일보 논설위원, 조선대학교 강자를 지내고 현재 광주교통방송 특별 MC를 맡고 있으며, 저서로 「메스컴과 정보사회(1999. 전남대학교)」, 「시사평론 세상천지(무등일보. 1999)」가 있고, 아내는 순흥 안판달(安判達)과 고흥 유예순(柳禮順)의 딸 춘자(春子)다.

◆ 최금동(崔琴桐)

1916년 대동면 출생. 동국대 전신인 중앙 불교전문학교 문과 졸업. 1936년 동아일보

에 시나리오 「애련송」 당선으로 등단하여 시나리오 작가로서 왕성한 작품을 발표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에밀레종」 「이름없는 별들」 「건너지 못하는 강」 「이순신」 「아리랑」 「안중근」 「팔만대장경 등」이 있으며, 작고 했다.

◆ 최대주(崔大柱)

1970년 함평읍 대덕리 출생. 본관 해주. 학다리고를 나와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서양화 전공, 동 대학원 졸업. 무등미술관과 자미갤러리 등에서 개인전 3회 외에 30여회의 그룹전이나 초대전에 참여. 현재 불휘기쁜, 광주청년미술작가회 조형 흐름21, 황주미협, 환경을생각하는미술인회원으로 있으며, 화순에 화실을 두고 전남대에 출강하고 있다.

◆ 최덕균(崔德均)

본관 경주. 손불면 석창리 석계에서 출생. 손불면농업협동조합장, 자유총연맹 함평군지부장을 역임하였다.

◆ 최동균(崔東均)



최동균

1931. 3. 2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 함평농업고등학교, 국방대학 졸업. 육군 대령 예편.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근 위원을 지냈다.

◆ 최명규(崔明圭)

1958. 12. 13 학교면 사거리에서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 최미경

대동면 향교리. 1998년 제3대 함평군의원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남편은 전주 리경연이다.



최민휴

◆ 최민휴(崔民休)
1943. 7. 13 손불면 월천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 소령

◆ 최병구(崔炳九)

1949. 7. 9생 본관 전주(全州) 호 야로(野路) 경식(京植)과 배춘순(裴春順)의 장남으로 엄다면 송로리에서 출생 목포교육대학을 졸업 구례문척초등학교장과 현 엄다초등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아내는 이천(利川) 서상일(徐相一)과 김말례(金末禮)의 다섯째 명숙(明淑)이다.

◆ 최병년

1931. 3. 12 손불면 석창리 753번지. 9사단 29연대 상병으로 근무하던 때 연천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53. 6. 5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최병보(崔炳輔)



최병보

1945. 8. 4 본관 경주. 손불면 대전리에서 출생. 고려대학교, 연세대학원 졸업. 남북대화사무국 공보관, 통일연수원 교수부장(2급), 남북회담 대변인을 역임하였다.

◆ 최병선(崔炳善)

나산면 용두리. 함평향교의 효자표창을 받았다.

◆ 최병섭

1933. 4. 7 학교면 사거리 65번지. 38사단 수색중대 중사로 근무하던 때 동부전선 884고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51. 10. 20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최병술(崔炳述)

손불면 석창리에서 출생 제8대 손불면장(1946. 6. 24~1948. 2. 19)을 지냈다.

◆ 최복순

엄다면. 1987년 도의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최봉길(崔奉吉)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
1920년 3월 26일 함평만세운동 때 쓸 태극기를 21일과 22일 그의 집에서 윤치선 등 여러 명과 만들어 김용언에게 전했으며 용언은 함평보통학교 기숙사에 숨겼다가 당일 사용하였다.

◆ 최상만(崔相滿)



최상만

1934. 2. 4생. 본관 해주(海州) 호 죽촌(竹村) 우택(宇澤-貴祚)과 함평(咸平) 이룡순(李弄順)의 장남으로 나산면 송암리에서 출생 광주상업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법정대학을 나와 손불초등학교장과 함평초등학교장을 역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 아내는 김해(金海) 김은배(金銀培)와 밀양(密陽) 박막엽(朴莫葉)의 장녀 양월(良月)이다.

◆ 최석두(崔石斗)

1917,9,19~1951,10,22. 본관 전주. 시인.경천(敬天)과 손숙자의 아들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태어났다. 광주농업학교를 나와 경성사범 단기 강습과를 나와 경기도 여주군 점동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불만을 갖고 사직. 1939년 독서회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해방이후 조선문학가동맹 전남지부 책임자

로 활동하며 1948년 공산계열인 조선사에서 시 16편을 엮은 시집 『새벽길』을 출간하였고, 1949년 8월 경찰에 체포되어 7년형을 언도 받고 복역하던 중 인민군의 서울 점령으로 풀려, 1951년부터 북한 문화선전성 문화예술국에서 활동하다가 미군기의 폭격으로 그해 10월 삶을 마감했다. 1957년 북한에서 첫시집과 같은 이름의 시집이 나중 쓴 시를 추가하여 42편을 묶어 재발간 되었다. 그는 한국문단에서 해방공간의 주요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함평의 현대문학 첫 자리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문인이다.

◆ 최석만(崔錫萬)



최 석 만

1932. 9. 1 본관 해주. 상록(相錄)과 밀양 박정숙(朴貞淑)의 아들로 학교면 월산리에서 출생하여 함평농림중학교, 1952년 목포사범학교, 199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다.

1952~1969년 학교복초등학교 등 교사, 1970~1976 함평초등학교 등 교감, 1979년 완도청산초등학교장, 1982~1989년 함평, 영광교육청 장학사, 1989~1998년 학다리중앙초, 함평초, 손불초등학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임하였다.

1963. 12. 17 면려포장, 199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도서벽지 교육 진흥 방안’(1978) ‘탐구학습 방법 연구’(1995) 등 논문이 있다. 아내는 광산 노택수(盧宅洙)와 김해 김남금(金南今)의 딸 양란(良蘭)이다.

◆ 최선기

1937. 5. 21 본관 탐진. 대동면 백호리에서 출생. 제주도 서귀포에서 교회 목사를 역임.

◆ 최순실(崔順實)

1928. 11. 13 손불면 석창리에서 출생 제1대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 최승영(본명 崔璋圭)

1962년 해보면 금덕리에서 출생. 2003년 『문예사조에 시 ‘버스 정류장의 귀로’로 당선하여 등단. 문학춘추사의 타골문학상 수상. 저서로는 시집 『외로우면 길을 걸으라』가 있다.

◆ 최 씨(崔氏)

1917. 6. 22 본관 경주. 문국(文局)의 딸 함평 이재석(李載石.1911~1938)의 아내. 22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늙으신 시부모를 극진히 모심은 물론 3세였던 아들을 훌륭히 길러내며 수절하였다. 효열부로 도지사의 표창을 받았다.

◆ 최영군(崔榮君)

1938. 2. 26 함평읍 장년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 중령 예편

◆ 최영철(최영철)

1952.12.22. 본관 전주, 양산과 김연임의 아들로 대동면 향교리에서 출생. 함평군청 사회복지과장, 대동면장을 역임하였고, 현 나산면장으로 있음, 아내는 탁안임이다.

◆ 최예수(崔禮守)

성악가. 최강윤(崔康潤)의 딸로 함평읍 함평리에서 출생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음대를 나온 소프라노로서 여수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 최용섭(崔容燮)

1929. 3. 18 본관 탐진. 대동면 백호리에서 출생. 여수시에서 교회 목사를 역임.

◆ 최용실(崔容實)



1958. 6. 29생 본관 수성(隨城) 윤오와 천안(天安) 전상금의 장남으로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에서 출생 전남 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함평군수 비서실장, 엑스포사무국 기획부장(사무관)에 재임중이며 국무총리의 모범공무원을 받았으며 아내는 나주(羅州) 임소섭과 김복순의 차녀 임해경(林海慶)으로 1남 3녀를 두었다.

◆ 최용임

대동면. 1996년 도의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최윤상(崔允相)

대동면 향교리 중교에서 출생. 고졸. 육군 소령 예편

◆ 최윤오(崔潤五)

손불면 양재리. 함평향교의 효자표창을 받았다.

◆ 최은순(崔銀順)

손불면 산남리. 전대현(全大鉉)의 아내.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최인석(崔仁皙)

1963,5,26. 본관 해주. 현기(鉉淇)와 김해 김봉숙(金奉淑)의 차남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순천향대 대학원 졸업, 공학박사, 대학교수.

◆ 최재원(崔宰源)

1950. 2. 26 본관 해주. 호 기산(箕山). 최충의 29세손. 봉래(鳳來)와 김해 김양임(金良任)의 아들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하여 함평농고, 목포교육대, 상지대학교 경영대학원을수료. 1970~1991



최재원

년 초등학교 교사, 1991~1995년 경기도 여주에서 향원도에 운영, 1995년부터 현재까지 고향 함평에서 기산 도예를 운영하고 있다. 1993년 하얏트호텔과 부산 아천미술관에서 개인전, 동남아미술대전입상, 신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함평예술인연합회장, 아내는 남평 문윤섭(文允燮)과 장석례의 딸 향순(香順)이다.

◆ 최정화(崔貞化)

해보면 해보리. 1980. 5. 8 함평군수 효부표창을 받았다.

◆ 최정훈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 교보생명에 입사하여 본사 및 영업 현장의 요직을 거쳐 전무이사직에 있다가, 1999. 8. 21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어 취임하였다.

◆ 최종호(崔琮昊)

1939. 12. 29 본관 해주. 함평읍 대덕리에서 출생. 조선대학교 문리과대학. 한양대학원 졸업. 조선대학 교수

◆ 최진석(崔珍皙)

1959,1,13. 본관 해주. 호 화연(和淵). 현기(鉉淇)와 김해 김봉숙(金奉淑)의 장남으로 서강대 대학원, 북경대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대학교수. 아내는 평택 임은경(林銀京)이다

◆ 최창덕

신광면. 군정공로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최철남(崔哲男)

1948. 07. 15 본관 탐진(耽津) 영인(榮仁)과 정산정(丁山亭)의 둘째로 엄다면 성



천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함평기산초등학교교장으로 저서는 ‘형식적인 조직, 비형식적인 조직간의 갈등 관계’가 있으며 아내는 장흥(長興) 마홍삼(馬洪三)의 장녀 경자(京子)이다.

◆ 최향순(崔香順)

나산면 이문리. 함평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탐친최씨(耽津崔氏)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박판환(朴判煥)의 아내. 함평 향교 효부표창을 받았다.

◆ 파평윤씨(坡平尹氏)

정항세(鄭恒世)의 아내. 함평향교의 절부표창을 받았다.

◆ 편무경(片茂馨)

본관 절강. 호 덕포(德圃) 16세 때 같은 마을에 살던 박영근(朴永根)이 전해산(全海山)부대의 호군장(槁軍將)이 된 것을 부럽게 생각했으나 나이가 어려 실전의병으로 는 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해산 부대의 근거자가 된 유덕산(有德山)이 왜병의 나산 병참소와 구밀 파견소, 그리고 네거리 헌병소가 각각 10리 안팎이었기에 전령의 자격을 얻어(전해산 의병 일지에는 편군-편군-으로만 표기됨) 항상 적의 동태를 살펴 의병진에 알려 피해를 면하기도 하고 승전케도 하였다. 1924~1925년에는 편덕열(片德熱, 서울출산 독립 유공자 표창자)과 함평, 나주에서 임시정부 자금을 모집하였다.

◆ 편호익(片鎬翊)

본관 절강. 1910년 한일합방의 비보를 듣고 울분 하여 자결하였다.

◆ 한갑웅(韓甲雄)

1944. 10. 8 본관 청주. 학교면 고막 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 대령을 지냈다.

◆ 한규홍(韓圭興)

본관 청주. 학교면 월산리에서 출생 함평향교 직원(直員. 재임 1939~1948)을 지냈으며 학다리고등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다

◆ 한기갑(韓基甲)

학교면 월산리에서 출생. 1952. 3. 5~1954. 11. 30까지 학교면장을 역임했다.

◆ 한기혁(韓基赫)

1926. 10. 5 본관 청주. 육군 소령 예편

◆ 한봉섭(韓鳳燮)

본관 청주. 학교면 월산리에서 출생 학교면장, 함평향교 직원(直員. 전교-典校)을 지냈다.

◆ 한상빈(韓相彬)

1947. 8. 30 본관 청주.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에서 출생. 대학원 졸업. 목포에서 동산 외과의원 개설.

◆ 한상준(韓相俊)

1936 본관 청주. 학교면 월산리에서 출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무안에서 의원 개업

◆ 한상운(韓相雲)

1956년 학교면 월산리 출생. 아호는 먹당(覓堂)학다리중고를 나와 조선대 법학과 졸업. 조선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 의재 허백련선생의문하생. 석사논문은 「한국근대 사군자연구」 다. 개인전 3회와 많은 초대전을 했다. 수회 대한민국문인화대전, 서예대전 심사위원. 광주시전, 전남도전 심사위원 역임. 현재 광주·전남 문인화협회 이사장.

◆ 한순자(韓順子)

1930. 3. 12 본관 청주. 아버지 신남(新



한순자

男)과 어머니 윤순용(尹順用)의 딸로 함평읍 기각리에서 출생하여 함평남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함평군지회장. 민주 평화 통일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1980. 6. 3 대통령 표창, 1982. 6. 1 한국일보의 한국원호대상을 받았다. 남편은 함평 이주범(李周範)이다.

◆ 한승국(韓承局)

1947. 4. 15 본관 청주. 학교면 학교리에서 출생.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 졸업.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한양조씨(漢陽趙氏)

박영재(朴永載)의 아내. 함평향교의 절부표장을 받음



한원섭

◆ 한원섭(韓元燮)

본관 청주. 함평읍에서 출생. 대한노인회 함평군지부장 역임하였고 국민훈장을 받았다.

◆ 한재관(韓在寬)

1940. 11. 9 본관 청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 삼양동에서 이비인후과 개설

◆ 한진웅

함평읍 기각리. 1987년 교육문화부문 함평군민의 상을 받았다.

◆ 함양여씨(咸陽呂氏)

1882~1955 경옥(京玉)의 딸로 나주 김상용(金相容)의 아내다. 남편의 병환이 위독

하자 손가락을 깨어 피를 입에 넣어 1일간 연명하게 하니 함평 향교에서 포상(褒賞)하였다.

◆ 함진원(咸珍媛)

1959년 학교면에서 태어나서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 조선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수료 했다. 1995년 《무등일보》 신춘문예 시 「그해 여름의 사투리조로」 당선하여 등단. 저서로는 시집 『인적 드문 숲길은 시작되었네』가 있다. 현재 한국독서교육원장.

◆ 함평모씨(咸平牟氏)

해보면 금덕리. 심구택(沈龜澤)의 아내. 함평향교 효부표장을 받았다.

◆ 함평이씨(咸平李氏)

안기정(安基挺)의 아내. 함평향교의 절부표장을 받았다.

◆ 함평이씨(咸平李氏)

나산면 구산리. 함평향교 효부표장을 받았다.

◆ 허복순(許福順)

1924. 3. 23. 월야면 예덕리. 함평향교 효부표장을 받았다.

◆ 허 전(許 鉉)

1939. 11. 15 함평읍 기각리 913번지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 허종철(許鍾哲)

엄다면 영흥리 용호에서 출생.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홍규태(洪圭泰)

1948. 9. 22 본관 풍산.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 고졸. 육군 소령 예편.



◆ 홍기우(洪起禹)

1946. 10. 21 본관 풍산.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 카톨릭의과대학 졸업. 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수료. 한림의과대학 교수

◆ 홍남희(洪南喜)

1928. 9. 13 본관 풍산.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 대졸. 법원 서기관을 역임했다.

◆ 홍덕희(洪德喜)

본관 풍산. 대동면 금산리에서 출생. 대졸. 전라남도 운수과장 역임.

◆ 홍몽희(洪夢喜)

예명 박건. 신광면 출신. 중견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 홍상기

예명 홍이라. 학교면 사거리 출신.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 홍상희(洪相熹)

1945. 11 27 본관 풍산.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홍양희(洪陽喜)



홍양희

1947. 8. 13 본관 풍산. 호 덕재(德齋). 시조의 23세손. 태식(泰植)과 해주 최막동(崔莫同)의 아들로 신광면 유천리에서 출하였고, 함평중, 학다리고등학교,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서울 아마존 사장. 새한수지공업(주)대표이사, 개령함평군향우회장, 대한체육회 양궁협회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청계 상가주식회사 회장으로

있으며, 함평군민 복지회관 건립에 성금을 내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이 많았다. 아내는 평택 임중필(林中秘)과 장녀 조귀례(曹貴禮)의 딸 광순(光順)이다.

◆ 홍옥식

1930 12. 26 대동면 금산리 166번지. 9사단 29연대 2대대 6중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때 백마고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1953. 8. 1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 홍종후(洪鍾厚)

신광면 출신. 대사관 대사역임.

◆ 홍준희

손불면. 1991년 교육문화부문 함평군민의상을 받았다.

◆ 홍태희(洪泰喜)

1949. 10. 8 본관 풍산. 대동면 금산리에서 출생. 신학대학 졸업. 목사.

◆ 황만금(黃萬金)

1937. 6. 5 엄다면 엄다리에서 출생 중앙대학교 졸업. 1대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 황민연(黃敏淵)

엄다면 화양리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내무부 행정기획실 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 황상길(黃相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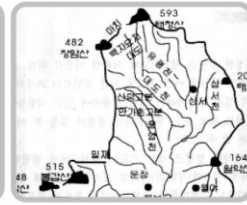
1938. 11. 26 본관 장수. 대동면 백호리에서 출생. 함평대교회 목사 역임

◆ 황성주(黃聖周)

1925. 9. 17~작고. 본관 장수. 대동면 백호리에서 출생. 1대 대통령선거인단 당선



제 3 장 효 · 열 (孝 · 烈)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산다. 그 행동을 그 사람의 행실 또는 품행이 어떻다 하고 평가한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효는 백가지 행실의 근본이라 하였고, 5형(五刑)에 속하는 형벌 3천가지 중에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했다.

애초에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로 인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일은 인간행동의 기본인 것이 당연하며 이 인간행실의 근본을 어기는 죄가 제일 큰 것임은 또한 당연하다.

효성이란 본시 천성을 타고 나는 것으로 어떤 이는 부모가 병중일 때 백방으로 좋은 약을 구하게 해달라고 피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손가락을 깨물거나 잘라서 그 흐르는 피를 입에 넣어드려 극적으로 회생, 천수(天壽)를 누린 사례가 있는가 하면 며칠간 더 연명하여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묘 옆에 움막을 치고 3년간 시묘(侍墓, 廬墓)살이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이 정도에 지나쳐 몸이 바싹 말라 피골(皮骨)이 상접(相接)되기도 했고, 상중(喪中)에는 몸가짐을 극히 조심하여,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 근신도 했으며, 읍혈통곡(泣血痛哭)하며 아침저녁으로 성묘(省墓)를 다니니 그 눈물에 적신 풀이 말라죽었는가 하면, 꿇고 엎드려 절한 자리가 움푹 패이기도 했다.(淚着草枯, 膝處成坎)

효열부는 대개 효열(孝烈)의 가문에서 태어나 시집가서도 시부모를 친부모 같이 효성스럽게 모시고 남편을 공경스럽게 모시다가 병이 들면 지성으로 간호하고 대신 죽기를 하느님께 기원했다. 남편이 죽으며 여필종부(女必從夫)라 하여 곧 뒤따라 목메어 죽거나 식음(食飮)을 전폐하다가 굶어 죽기도 했으며,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또는 3년상을 마친 뒤에 자결하지 못하고 충신토록 절개를 지키면서 자녀를 훌륭히 길러 가문을 계승시키고 크게 빛나게 한 열녀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점혈육(一點血肉)이 없는 청상과부가 샅바느질과 품팔이로 남편 대신 시부모를 극진봉양하면서 양자(養子)를 데려다가 그 집 가문을 잇게 하고 한평생 정정(貞節)을 지키다가 한 많은 일생을 마친 가극한 효 열부도 많다.

금번 군사를 펴냄에 있어 약 6백년간 (朝鮮朝 以後)에 걸친 본군의 효열편을 정리가히 위하여 군지(郡誌)등 여러 문헌(文獻, 참고문헌 참조)에서 약 3천명을 발취(拔取)하였으나 다른 문헌에 올라있는 분들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그 사적(事蹟)을 요약(要約)하다 보니 그 아름다운 행실과 정성스런 효성과, 가냘픈 열행 등을 지면관계상 상세히 기록하지 못하였기에 그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 약자(略字)로 된 용어(用語) 몇 가지를 해설해 둔다.

※ 참고문헌

1997. 7월간 : 함평향교지(咸平郷校誌)
 1981. 10월간 : 내고장 전통가꾸기
 1969. 12월간 : 함평군지(咸平郡誌)
 1959. 12월간 : 함평삼강록(咸平三綱錄)
 1929. 10월간 :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1925. 3월간 : 기성지(箕城誌)

※ 용어해설(用語解説:가나다순)

- △경봉군자(敬奉君子):아내가 남편의 뜻을 공경스럽게 받들(승순군자, 承順君子)
 △경초봉양(耕樵奉養):살림이 가난하여 밭 갈고 나무하여 부모를 봉양함.
 △관직사양(官職辭讓):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벼슬을 주어도 나아가지 않음
 (불취관직:不就官職)
 △관직사직(官職辭職):부모를 보양하기 위하여 재직중이던 관직을 그만둠(기관:棄官)
 △교자의방(敎子義方):올바른 길로 자식을 교육시킴
 △구약(救藥):질병에 효험이 있는 좋은 약을 구함. 대개는 하느님께 기원하여 정성
 께 구함.
 △구육(求肉):질병에 약이 되는 고기를 구함. 대개는 노루, 토끼, 개 꿩 등.
 △구친(救親):부모를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함.
 △국휼(國恤):나라의 근심. 국상(國喪)이나 큰 흉년. 질병 등.
 △기두(祈斗):환자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늘의 별(대개는 북두칠성)에 비는 것
 (정성)
 △길지안장(吉地安葬):위선(爲先)의 일환으로 좋은 밋자리를 잡아서 장사지냄
 (구산:求山)
 △득어(得漁):질병에 약이 되는 고기를 구함. 대개는 잉어, 자라, 장어, 뱀 등을 정
 성 드려 구하는 것. (눈 속 또는 얼음 속에서 구함)
 △모병(母病):어머니의 질병(疾病)
 △복호(復戶):충신, 효자, 절부(節婦)들에게 호역(戶役:부역)을 면제하던 제도.
 △부병(父病):아버지의 질병(疾病), 남편의 병환(病患)=부병(夫病)
 △북망통곡(北望痛哭):국휼 때에 산에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함. 곧. 임금이
 계시는 북쪽 서울을 향하여 꿇고 엎드려 절하며 통곡함.
 △사친(事親):부모를 섬기는 일(봉양:奉養, 봉친:奉親)
 △삼강록(三綱錄):충, 효, 열의 사적을 기록한 책.
 △삼강문(三綱門):충, 효, 열을 기리기 위하여 그 가문의 집 앞에 세운 문.



- △상분(嘗糞):환자가 병을 앓을 때 그 병세를 살피기 위하여 환자의 대변을 맛보는 것 (그 정성 또는 효성)
- △상장진례(喪葬盡禮):상례(喪禮)와 장례(葬禮)를 예에 따라 정성을 다함.
- △설단(設壇):병(病)을 낫게 해달라고 신령님이나 하느님께 빌기 위한 제단을 만듦 (축단:築壇)
- △성묘지성(省墓至誠):묘소를 찾아가 뵈는 열성 또는 효성. 대개는 새벽과 저녁, 삭망(朔望:초하루와 보름)
- △성효근천(誠孝根天):하늘로부터 효성스런 성품을 타고 나옴 (효성근식:孝誠根植, 효성천식:孝誠天植)
- △소복(素服):하얗게 차려 입은 옷(상복:喪服)
- △수절(守節):여자의 절개를 지킴
- △순절(殉節):충신이 임금께 충절(忠節)을 지키어 죽는 것. 또는 여자가 남편께 정절(貞節)을 지키어 죽는 것. (절사:節死)
- △순종(順從):아내가 남편의 순절 또는 죽음에 뒤따라 죽는 것(취의:就義, 자결:自決)
- △승습정훈(承襲庭訓):학풍(學風)이나 아버지의 봉작(封爵)따위를 이어받음. 부모의 유업(遺業)을 계승함. (가훈계승:家訓繼承)
- △시뇨불위(屎尿不委):환자의 대변과 소변을 손수 가져다 버리는 것. 그 정성 또한 효성.
- △시모(媳母):시아머니
- △시부(媳父):시아버지
- △시종진례(始終盡禮):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다 지킴.
- △시탕불해(侍湯不懈):환자의 약탕 끓여 바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함.
- △식소(食素):술과 고기 등을 먹지 않고 근신함(주육불식:酒肉不食)
- △안맹(眼盲):눈이 어두어짐(눈이 멀음;봉사)
- △애훼유제(哀毀逾制):부모 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정도에 지나쳐 몸이 바싹 여윈(피골상접:皮骨相接, 애훼골립:哀毀骨立)
- △양부모(養父母):양자로 간 아버지와 어머니
- △양자(養子):아들 없는 집에서 대(代)를 잇기 위하여 동성동본(同姓同本) 중에서 데려다 기르는 조카뻘 되는 사내아이(양질입사:養姪入嗣)
- △어초(魚樵):고기잡이와 나무하는 일.
- △와기부지(臥起扶持):환자의 눕고 일어나고 식사하는 등 불편한 점을 붙잡고 도와주는 정성 또는 효성.
- △위선지성(僞善至誠):조상(祖上)을 받드는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드림.
- △연지(吮之):환자의 종기를 입으로 빨음(입으로 빠는 정성 또는 효성)
- △읍혈(泣血):피눈물을 흘리며 애통함(슬퍼함)
- △전절종노(全節終老):여자가 절개를 지키어 늙어 죽음(종신수절:終身守節)
- △정성불폐(精誠不廢):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問安)드리는 효성을 부모 생존

시까지 계속하는 것(혼정신성:昏定晨省)

△정려(旌閭):충신, 효자, 효부, 열녀가 살던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그 뜻을 기리는 것(석정:石亭, 비각:碑閣등)

△조실상부(早失喪夫):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읜.

△종상(綜詳):부모나 남편의 3년상(三年祥)을 마침.

△주용야적(晝傭夜績):낮에는 품팔이 하고 밤에는 길쌈하는 것(방적:紡績)

△지체구양(志體俱養):모든 일을 부모의 뜻에 따라 행하고, 부모의 건강을 보살피고 정성스럽게 봉양하는 등 부모 생존시에 받치는 모든 정성(孝誠)(지체겸양:志體兼養)

△추복(追服):조실부모(早失父母)한 아들이 성년(成年)이 되어 복(服)을 입는 효성.

△축천원대(祝天願代):자기를 대신 죽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원하는 정성 또는 효성

△친병(親病):부모의 질병(친질:親疾)

△탁이(卓異):남보다 뛰어나게 다름(탁월:卓越)

△할고(割股):환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허벅지 살을 베어 굽거나 삶거나, 육회를 해드리는 정성 또는 효성

△함원인통(含怨忍痛):원통함과 괴로움을 참음.

△행소(行素):행동과 몸가짐을 조심하는 일(별방거처:別房居處, 출행억제:出行抑制, 폭소(爆笑), 폭언(暴言), 욕설(辱說)금지등)

△향당(鄉黨):자기가 낳거나 사는 마을, 또는 마을 사람들. 옛날에는 500집이 당이 되고, 12,500집이 향이 되었음. 그 고을을 뜻하기도 함.(향리:鄉里)

△혈지(血指):환자가 위급할 때 즉 운명(殞命) 직전에 손가락의 피를 입에 넣어 드리는 정성 또는 효성(손가락을 자르면 단지:斷指, 깨물어 찢으면 열지:裂指, 물건으로 찢으면 작지:斫指)

△호곡(號哭):슬피 우는 것

△호위(虎衛):시묘(侍墓, 여묘:廬墓)중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로부터 신변(身邊)을 보호 받음.

△흠복(欽服):깊이 흠앙하여 복종함 (본 받음)

△흠탄(欽歎):아름다운 점을 탄상(歎賞) 함. (흠칭:欽稱)



◆ 성씨별 현황(성씨별 현황)

구분	성별	강	강	고	곽	구	국	권	기	김	나	남	노	노	모	문	민	박
		姜	康	高	郭	具	鞠	權	奇	金	羅	南	魯	盧	牟	文	閔	朴
효 행		8		7	3		1	3	4	292	65	5	52	39	22	24		103
효 부		4		2	1	1	1		1	51	7		3	2	1	4		20
열 행		20	1	5	1	1			3	174	23	5	20	9	7	8	1	72
구분	성별	방	배	백	서	설	성	소	손	송	승	신	신	심	안	양	어	오
		房	裴	白	徐	薛	成	蘇	孫	宋	承	辛	申	沈	安	梁	魚	吳
효 행		1	4	11	27		1		2	10		4	12	30	31	21	2	14
효 부		1	4		6			2		1		1	2	4	3	1		6
열 행			9	3	14	1	2	1		13	1	7	3	15	16	9		18
구분	성별	옥	유	유	유	윤	이	임	임	장	전	전	정	정	정	조	조	주
		玉	兪	柳	劉	尹	李	林	任	張	全	田	鄭	丁	程	趙	曹	朱
효 행			14	1	2	68	214	10	12	70	22	3	199	15	1	41	17	4
효 부		1		4		15	41	3	2	6	3		18	4		2	4	
열 행		1	4	6		24	119	19	6	29	11	2	67	14		17	12	1
구분	성별	주	지	진	차	창	채	천	최	추	편	한	허	홍	황			계
		周	池	陳	車	昌	蔡	千	崔	秋	片	韓	許	洪	黃			66
효 행			10	11	2	1	5	1	47	3	5	5		14	7			1,602
효 부				1			2	1	11			1						248
열 행		1	4	10	3		4		33		2	7	1	7	3			869

1. 효행(孝行)

1) 효자(孝子)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강경회	姜慶會		진주 고종	효우문행이 당세에 저명하여 고관중직
강두회	姜斗會		진주 고종	효우독실, 당세의 효자로 천거됨
강영구	姜永龜	야 은 野隱	진주 고종	천성지효, 근검치가, 지체구양, 정성불패
강영록	姜永錄		진주 고종	효행탁이, 상증 애혜유제, 6년식소 성묘지성
강영표	姜永杓	가 정 可庭	진주 고종	천성이극효, 상증식소, 성묘지성
강영화	姜永華		진주 고종	조실부친 3년주복, 편모 지체구양, 상증여묘, 천거
강위거	姜渭舉		진주 현종	천성지효, 친병에 상분, 단지3일연명, 천거됨
강재순	姜在淳		진주 현종	득어봉친회, 상증시묘, 천거됨
고광원	高光元	농 와 農窩	장흥 고종	성본순효, 효행탁이, 아들도 효자(재원)
고광운	高光雲		장흥 고종	천성지효, 모병위급 단지연명 3년 여묘
고성진	高聖鎭		장흥 고종	효행근친, 양친상증 애혜유제, 향리모범
고승겸	高承謙	학 곡 學谷	장흥 철종	사친극효, 상증여묘, 조석성묘, 종신여행, 증;좌승지
고윤진	高崧鎭	만 읍 晩陰	장흥 정종	친병에 혈지, 상증애혜유제, 3년 여묘, 증;가선
고익규	高益奎		장흥 고종	천성순효, 사친극효 ※동몽교관, 효행비
고재일	高在一		장흥 고종	효심순지, 정성불패, 지체구양, 향리감탄
곽기룡	郭騎龍		현풍 고종	양친상증 6년행소, 종신성묘 지성
곽종문	郭種文		함양 고종	효우문행겸비, 부병작지, 상증애혜골입, 성묘지성
곽호섭	郭鎬涉	지 와 智窩	현풍 철종	성효근친, 지체겸양, 양친상증 애혜유제
국제식	鞠濟植		담양 고종	정성불패, 상증애혜식소, 성묘지성, 종신여행
국제식	鞠濟植	수 촌 水村	담양 철종	친병축원원대, 6년 여묘, 천거됨
권봉호	權鳳鎬		안동 고종	효우독실, 사친지성, 근검치가, 교자의방 ※참봉
권재종	權在種		안동 정종	부병에 절지하고, 상증3년 행소하니 천거됨
권재형	權載衡		안동 고종	친병 득약주효, 상장진례, 증;가선
기옥진	奇玉鎭	수 봉 壽峰	행주 고종	천성독후, 친병수년 극진간호 회생
기재홍	奇在洪	월 산 月山	행주 고종	천성지효, 친병축원원대, 여묘
기필흥	奇弼興	만 곡 晩谷	행주 현종	성효근친, 70세에도 색동옷을 입고 편모를 즐겁게 함
기형진	寄亨鎭	덕 암 德庵	행주 고종	효사양친, 지체구양, 상증행소, 길지안장성묘지성
김갑동	金甲東	성 재 省齋	광산 영조	사친지효, 6년 여묘
김갑배	金甲培	율 정 栗亭	김해 순종	사친지효, 지체겸양, 상증애혜, 예절엄수
김갑현	金甲鉉	열 재 悅齋	광산 고종	사친극효, 친병에 열지, 상증애혜유제, 성묘지성
김경기	金京基		상산 고종	천성지효, 친병 할고단지, 3일연명, 향리감탄
김경배	金敬培		김해 철종	조실부모, 종신삭망배묘, 누착초고, 종신행소, 천거
김경석	金敬錫	기 암 箕菴	선산 고종	지체겸양, 상장진례, 종신행소, 증;좌승지
김경석	金敬錫		선산 고종	효행독실, 상장진례 ※참봉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김경식	金慶植		상산 고종	천성지효, 사친지성, 상중애훼유제 ※감역
김경은	金京垠	호 은 湖 隱	상산 고종	부병에 할고, 단지, 상중여묘, 효자비(議官)
김경필	金敬弼	가 곡 佳 谷	경주 현종	성효근천하여 6년 여묘하니 효행비를 세움
김계택	金啓澤		김해 현종	효우독실, 사친지성, 종족화목, 교자의방, 효행비
김관식	金官錫		김해 고종	천성지효, 부병수년, 극진간호, 모친상중 읍혈3년
김광일	金光一		광산 영조	읍혈시묘하니 천거되고, 호역을 면제받음
김광주	金光柱		김해 정조	부병에 혈지, 여묘, 읍혈에 풀이 말라죽음, 천거됨
김광택	金光澤		김해 경종	친질에 할고소생 조모병에 득어간호 천거됨
김광혁	金光赫		광산 영조	효우가 독실하여 천거됨
김교빈	金敎彬	월 호 月 湖	선산 고종	효심순지, 상중애훼, 6년간 매일 새벽곡묘
김교안	金敎安	죽 파 竹 坡	선산 고종	겸산문인, 부병단지, 상장진례, 3년식소
김구현	金九鉉		광산 고종	친병 상분단지, 상장진례, 천거됨
김구현	金龜鉉		광산 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상중여묘, 천거됨
김국윤	金國允	성 재 誠 齋	김해 철종	편모지체구양, 상분간호, 여묘호위, 천거됨
김군현	金君鉉	둔 재 遯 齋	김해 고종	천성순효, 부병축천기두, 구약봉친회생
김규구	金奎九	송 암 松 庵	김해 순조	효성근친, 양친상중 6년 시묘
김규락	金珪駱	발 현 鉢 軒	광산 고종	효우독실, 경초봉양, 상중애훼, 벽통애곡, 효행비
김규록	金珪祿	서 남 瑞 南	광산 고종	효우독실, 상장진례 위선지성, 교자의방, 근검치가
김규순	金珪舜	죽 포 竹 圃	광산 고종	천성지효, 친병설단 축천기원 회생
김규준	金珪駿	농 포 農 圃	광산 고종	효우독실, 경초봉양, 상장진례, 길지안장위선지성
김규택	金圭澤		광산 순조	친질에 3회단지 9일연명, 3년 시묘, 호역면제
김기남	金箕南	송 암 松 庵	광산 고종	송사문인, 친병할고연명, 상중애훼유제, 천거
김기동	金箕東	송 포 松 圃	광산 고종	친병에 단지, 상중애훼유제, 성묘지성, 천거됨
김기득	金箕得		광산 고종	부병에 할고, 열지, 상중여묘, 천거됨
김기면	金箕晁	송 당 松 堂	광산 순조	가훈계승, 가세극빈이나 지성봉양, 효행비
김기목	金箕睦	양신재 養愼齋	광산 고종	조실모친, 계모 극진봉양
김기문	金基文	농 포 農 圃	김해 고종	지체구양, 어초봉양, 정성불폐, 천거됨
김기석	金基碩		김해 고종	승습정훈, 효양부모, 상중애훼진에 3년행소
김기선	金基先	정 재 靜 齋	상산 고종	유복자로 효성지극, 고용봉친하니 천거됨
김기수	金基洙		광산 고종	효행탁이, 부모 극진봉양
김기엽	金基燁	효 현 孝 軒	상산 순조	승습정훈, 효성탁이, 지체겸양, 상중애훼종신행소
김기영	金基英		광산 현종	효우겸전하고 여묘3년하니 통정대부 증직
김기영	金基榮	후 암 後 庵	김해 철종	친병축두, 구약간호, 상중성묘지성, 슬처성감
김기옥	金基玉		광산 고종	부모병 상분축천, 6년간호, 상중읍혈식소, 천거
김기옥	金基玉		상산 고종	사친지효, 지체겸양, 읍혈3년, 천거됨
김기원	金箕元		광산 순조	효성탁이, 종족화목, 양친 극진봉양, 천거됨
김기은	金鎭銀	모 암 慕 庵	나주 고종	지체겸양, 상중 6년 여묘 ※동몽교관
김기은	金琦殷		나주 고종	사친지체구양, 상중 애훼골입, 3년 여묘, 천거
김기조	金基祚		상산 고종	지체구양, 친병상분 축천원대회생, 예절엄수
김기조	金箕祚	경 재 敬 齋	광산 철종	상중애훼유제, 6년행소
김기주	金基宙		광산 순조	효우근친, 부친상중, 형과 시묘, 세칭 쌍효자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김기준	金箕俊	은매 隱梅	광산 고종	친병혈지연명, 상중애혜유제, 종신성묘, 천거됨
김기중	金箕仲	모당 慕堂	광산 순조	효행출전, 상중애혜유제, 종신행소
김기진	金箕鎭		광산 순조	효우순독, 부친상중 예절엄수, 성묘지성
김기춘	金箕春		광산 고종	부병에 할고열지, 상중여묘하니 천거됨
김기태	金琪泰		김해 정종	아우 석태와 모병에 단지 7일연명, 증; 공조참판
김길수	金吉洙	농천 農川	김해 고종	효성탁월, 지체구양, 정성불패, 향리감탄
김남열	金南烈	송운 松雲	김해 순종	효성천식, 상중애혜유제, 성묘지성
김노근	金魯近	송은 松隱	경주 고종	천성지효, 친병할고, 주효, 증; 통정
김노일	金魯逸	백곡 栢谷	경주 철종	성효근친, 친병 중 살을 베어 약을 만들어 드림, 증; 가선
김달해	金達海		나주 순조	가훈계승, 친질에 작지소생, 정려가 내림
김대여	金大呂		광산 영조	효우근친, 6년 여묘, 형의종기를 윤지, 증; 가선
김대진	金大鎭	추담 秋潭	고성 순조	시묘애혜, 종신성묘 길지안장
김대현	金大鉉	화당 和堂	광산 고종	사친지효, 모병에 열지, 상중애혜유제
김덕최	金德畝		광산 순조	성효근친, 친병 극진간호, 상중애혜 ※삼강록
김덕해	金德海		선산 철종	부병구육간호, 작지소생, 증; 호참
김덕해	金德海	농은 農隱	선산 정조	사친성효, 친병 특어간호, 혈지희생, 정려
김도용	金度容		선산 헌종	사친지성, 어초봉양, 3년식소 ※참봉
김도현	金燾鉉	우재 愚齋	광산 헌종	효성근친, 양친 극진봉양, 상중예절엄수 천거
김돈현	金敦炫	양성재 養性齋	김해 고종	효성근친, 정성불패, 지체구양, 상중음혈3년
김동인	金東仁	송죽정 松竹亭	광산 정종	친병에 혈지, 여묘하니 정려와 공조참의 증직
김동택	金東澤	후암 後岩	선산 고종	정성불패, 친병 극진간호, 상중여묘, 성묘지성
김동희	金東熙	계은 桂隱	김해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정성불패, 향리흠송
김두규	金斗奎	화암 華菴	광산 고종	친병30년극간, 약수진공희생, 천거됨, 삼강문
김두룡	金斗龍		광산 고종	조실부친 상중여묘, 편모지체구양, 여묘 ※참봉
김두현	金斗鉉		광산 고종	효우근친, 정성불패, 지체구양, 천거됨
김득선	金得先		김해 영조	부병에 할고봉친10일연명, 상중행소, 삼강록
김득정	金得貞	간재 幹齋	낙안 영조	천성지효, 부병축전원대, 상중여묘, 예절엄수
김만동	金萬東	해은 海隱	낙안 숙종	가세극빈이나 효성지극, 6년 시묘, 삼강록
김만석	金萬錫	애오정 愛吾亭	광산 숙종	부병에 작지, 3년 여묘, 천거되어 복호
김만태	金萬泰	경당 敬堂	김해 고종	효행탁이, 지체구양, 상중음혈, 행소
김명수	金明洙	금하 錦下	광산 고종	효행순지, 지체구양, 친병단지, 상장진례
김무국	金撫國	애일 愛日	고성 중종	효성지극 시묘중에 호위(虎衛) 예천(禮薦)
김문래	金文來		광산 고종	지체구양, 모병백방간호, 구육봉친득효, 천거
김문용	金汶容	효우재 孝友齋	선산 헌종	효행이탁이, 상중 3년식소, 성묘지성, 천거됨
김병주	金炳柱	연파 蓮坡	김해 고종	극력사친, 상장진례, 위선지성, 비석건립
김병채	金昞采		나주 고종	양모 극진봉양, 병중 축친기원, 상중 성묘지성
김병태	金炳泰		김해 고종	부병3년 극진간호, 축친기두, 축전원대
김병후	金秉厚	석교 石橋	김해 고종	효우독실, 여묘, 위선지성, 상중여묘, 천거됨
김보배	金甫培	낙산 樂汕	김해 고종	효우문행겸비, 어초봉양, 승습정훈, 예절엄수
김보선	金普善		청풍 고종	모병단지, 효행탁이 ※통정
김복기	金福基	구헌 龜軒	김해 고종	어초봉양, 친병수년 극진간호, 상중음혈3년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김봉래	金奉來	매헌 梅軒	광산 고종	친병혈지, 축천기두, 상중여묘, 천거됨
김봉식	金鳳植		상산 고종	부병단지주혈, 모병에 설리득어간호, 6년행소
김봉환	金鳳煥	서은 瑞隱	김해 고종	효우문행, 당세추증, 천거됨 ※참봉
김사영	金師英	송죽정 송죽정	고종	친병에 상분작지, 상중3년 여묘, 천거됨
김상규	金相奎		낙안 고종	사친이효, 부병상분기우, 상장진례, 길지안장
김상대	金相大	삼성재 三省齋	상산 순조	천성순진, 사친극효하고 부병에 단지, 상중여묘
김상래	金相來		김해 순종	효우독실, 지체구양, 정성불패, 향리감탄
김상록	金相錄	성재 誠齋	낙안 고종	승습정훈, 상중 애휼유제, 매일 성묘지성
김상빈	金尙斌		김해 정종	성효가 출천하여 천거됨
김상성	金相聲	석재 石齋	상산 순조	천성지효, 양친 극진봉양, 상중애휼유제
김상수	金相瑒	택당 澤堂	김해 철종	효심근친, 부병읍혈 구육봉친회생, 삼강록
김상순	金相純		광산 고종	부병에 동생과 업동에 득어 봉친회생, 천거됨
김상종	金相種		광산 고종	천성지효, 모병단지, 부병작지 5일연명 ※교관
김 방	金 坊		광산 고종	부친 눈병 극진간호 회생, 천거됨
김 방	金 坊	입봉 笠峰	광산 헌종	중암문인, 가훈계승, 양친봉양, 상중애휼, 효행비
김방보	金邦寶		광산 숙종	충효겸전, 3년 여묘, 눈물에 적신 나무가 죽음
김병관	金炳寬	효재 孝齋	김해 고종	승습정훈, 지체겸양, 효우독실, 향리칭송
김병규	金秉圭		선산 고종	모병에 혈지, 7일연명, 재차작지, 연명 천거됨
김병람	金炳覽	매헌 梅軒	김해 고종	간재문인, 사친지성, 상중애휼, 삭망성묘지성
김병식	金炳植	신재 愼齋	김해 고종	부병에 축천기원 득어공양회생, 천거됨
김병우	金炳祐		김해 헌종	천성지효, 양친 극진봉양, 상중 예절엄수
김상택	金相澤	지족당 知足堂	광산 영조	6년 시묘하고, 국상에 축단망곡, 충효행실적비
김상현	金相鉉		광산 철종	어초봉양, 친병 극진간호, 상중애휼여묘, 증;이참
김상호	金相浩		광산 고종	부병에 할고열지, 상중여묘하니 천거됨
김서기	金瑞基	청강 聽江	경주 고종	승습정훈, 정성불패, 효우독실
김서효	金瑞孝	은암 隱岩	선산 순조	천성이 지효하여 상중여묘하니 천거됨
김석봉	金錫鳳		김해 숙종	부병에 상분, 할고, 상중여묘, 참봉이 됨
김석영	金錫瑛		김해 철종	부병에 혈지 소생하니 정려와 가의대부증직
김석중	金碩重		김해 효종	선조의묘소를 왕에게 호소하여 찾아 장사지냄
김석현	金釋鉉	농포 農圃	김해 고종	조실부친 편모지체구양, 상중애휼유제, 천거
김석환	金碩煥		광산 숙종	성효근친 부병에 득어간호, 상중예절엄수, 증; 통정
김석휴	金錫休	송우 松友	김해 고종	부병에 작지7일연명, 상중식소, 천거됨
김선경	金先京	해은 海隱	김해 철종	성효근친, 승습정훈, 상중애휼유제, 예절엄수
김선일	金善日		광산 영조	상중시묘하니 호역이 면제되고 가선대부 증직
김성구	金聖求	월당 月堂	상산 고종	사친지효, 상중여묘, 위선지성, 우애독실
김성덕	金星德		광산 고종	부병에 할고 작지, 상중여묘, 천거됨
김성덕	金星德		광산 고종	부병작지연명, 상장진례 여묘, 천거됨
김성익	金聖翼		청풍 순조	친병에 상분, 할고, 단지, 6년 여묘, 증; 가선, 효행비
김성주	金聖柱	삼성당 三省堂	광산 영조	양친 극진봉양, 3년 시묘하여 천거되어 효행비
김성흡	金成滘		광산 영조	효성이 탁이하여 천거됨
김수경	金守璟		광산 순조	가훈계승, 부병에 절지 3년연명하다.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김수업	金守業	오재 梧齋	김해 현종	13세 부병 극진간호, 혈지, 상장진례 ※복호
김수정	金守挺	모현 慕軒	광산 순조	천성이 순인하고 우애가 독실하다.
김수희	金守淮	사헌 思軒	광산 순조	효우독실, 친질에상분, 상중애휼유제, 증;동몽교관
김숙삼	金瀟三	농은 農隱	경주 고종	승습정훈, 효우근친, 효행비
김순	金淳		선산 영조	성리학자로서 효행이 지극하여 통훈대부 증직
김술	金述	국헌 菊軒	김해 인조	친병에 2회단지, 할고, 3년 시묘, 통정이됨
김승필	金陞弼		김해 헌종	상분작지하고 정려와 호의증직
김시혁	金時燮	송은 松隱	김해 순조	조실부친, 모병에 할고, 윤지득효, 천거되어 정려
김억희	金億淮	죽파 竹坡	경주 철종	효행탁이, 종신행소
김여성	金麗晟		광산 숙종	부병에 혈지, 모상에 시묘하여 천거됨
김여호	金麗灝		광산 영조	시묘중 영위에 불이 불자 신주를 꺼내고 운명, 천거
김영기	金泳琦	반암 盤岩	김해 현종	양친 극진봉양, 예절엄수, 우애독실, 종족화목
김영렬	金榮烈	성송 城松	안동 고종	성효근친, 친병할고, 혈지연명, 효행비 ※의관
김영만	金榮滿	야은 野隱	안동 고종	가세극빈, 효성지극, 부병혈지, 예절엄수
김영문	金泳文	청운 晴雲	김해 현종	효우근친, 우애독실하니 당세의 모범이 됨
김영배	金泳培		김해 철종	지체구양, 상중애휼유제, 성묘지성, 향리감탄
김영복	金泳復		광산 고종	부병에 좌·우 할고 소생하니 천거됨
김영섭	金泳燮	후천 後川	김해 고종	양친 극진봉양, 상중 애휼유제, 종신성묘 지성
김영순	金泳淳	송은 松隱	김해 철종	친병설단축친, 상중애휼극진, 천거됨
김영순	金永舜	송정 松亭	영산 철종	승습정훈 사친극효, 상중애휼유제 ※교관
김영오	金永五		김해 현종	상중 3년 시묘하니 천거됨
김영운	金榮運		안동 고종	양모 극진봉양, 위선지성
김영율	金永律	송하 松下	김해 고종	지체구양, 정성불패, 근검치가, 위선지성
김영재	金英載		원주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친병열지연명, 천거됨
김영주	金永周	창재 暢齋	김해 현종	유복자로 죄인자처하고 편모 극진봉양
김영집	金泳集	병암 屏岩	김해 현종	성효가 순독하고 우애가 융중
김영채	金永采		김해 고종	천자순실, 효우근친, 지체구양, 승습정훈
김영택	金榮澤	지지당 知止堂	광산 영조	6년 여묘, 사친지효, 교자유법(教子有法) 증; 통정
김영호	金泳浩	죽은 竹隱	김해 고종	사친지효, 지체구양, 부병축친원대, 희생, 증;도사
김영환	金永煥	경은 耕隱	광산 고종	정성불패, 친병 극진간호, 상중애휼유제 ※감찰
김영후	金永厚	야은 野隱	김해 순종	지체구양, 사친지성, 승습정훈
김완태	金完泰		김해 순조	품성강직, 효우독실, 6년 여묘
김용	金湧	특송 特松	광산 고종	성실정직, 부병에 열지3일연명, 상중애휼유제
김용관	金用寬	호암 湖菴		고종 효행탁이, 상중 예절 엄수, 성묘지성
김용기	金容基		상산 현종	효우독실, 효행비
김용남	金容南		김해 순종	조실부친, 편모지체구양, 어초봉양, 정성불패
김용복	金容福		상산 고종	성효근친, 지체겸양, 6년 여묘, 천거됨
김용섭	金容燮	애물당 愛物堂	상산 철종	6년 여묘, 종신행소
김용식	金容植		김해 고종	모병에 단지하고 상중여묘하니 천거됨
김용우	金容禹	겸재 謙齋	김해 고종	천성지효, 상중애휼, 6년행소
김용우	金容禹	희암 希岩	상산 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종신행소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김용주	金瑬柱	수암 壽岩	김해 고종	양친 극진봉양, 양친병환에 단지, 상중에휼유제
김용현	金龍鉉	야은 野隱	광산 순조	6년 여묘, ※삼강록
김용호	金龍鎬		김해 고종	천성순효, 모병작지, 상중에휼유제, 예절엄수
김우규	金禹圭		광산 순조	친질에 3번 혈지하여 3일소생하니 천거됨
김우현	金禹鉉	호은 虎隱	광산 순종	효성친식, 정성불패, 지체구양
김운익	金韻益		선산 숙종	친병에 혈지, 6년 여묘, 천거됨
김원재	金元載		김해 헌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효행탁이, 천거됨
김위석	金胃錫	야은 野隱	상산 고종	가세극빈, 어초봉양, 정성불패, 승습정훈
김유성	金有聲	변암 卞菴	광산 고종	축천원대, 아우 유술과 작지, 상중여묘, 효행비
김유태	金留泰	서은 瑞隱	김해 철종	사친지효, 친병열지, 상중여묘, 정려
김옥정	金堉廷		광산 영조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되고 호역이 면제됨
김응광	金應光	간송 磻松	김해 경종	천성극효, 여묘호위, 증; 이조참의, 정려
김응명	金應鳴	송수 松叟	광산 영조	모병에 특어간호회생, 삼강록, 참의증직
김응수	金應洙	월파 月波	광산 고종	성리학지, 부병에 단지, 상중여묘
김응정	金應精		상산 선조	천성이 순효(純孝)하고 학구성리(學究性理)하다
김응춘	金應春		김해 철종	천자순효, 모병특어간호회생, 성묘지성 ※통정
김의배	金義培		김해 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상중에휼유제, 슬처성감
김이호	金二鎬		김해 고종	친병축천원대, 상중에휼, 조석곡묘, 증:참의
김익채	金益彩		김해 고종	효우문행, 당세추중, 천거됨, 증; 승지
김익해	金益海		김해 정종	효성이 지극하여 3대의 효성으로 정려가 내림
김인규	金仁圭	효정 孝亭	선산 고종	효행탁이, 모병열지회생, 천거됨
김인이	金仁伊	월정 月汀	김해 영조	사친지효, 정성불패, 상장진례, 3년행소, 천거
김인철	金仁喆		김해 헌종	어초봉양, 상중에휼유제, 성묘지성, 천거됨
김인후	金仁厚	효우당 孝友堂	김해 고종	부병에 열지, 상중 식소3년, 호국성묘지성
김일두	金一斗	학송 鶴松	김해 고종	성효근친, 지체겸양, 효행실적비
김장석	金長錫	죽하 竹下	선산 고종	성효순지, 어초봉양, 지체구양, 상중 애휼유제
김장우	金長愚	청오 淸梧	김해 고종	효행독실, 궁홀자선
김재권	金在權	만오 晩梧	김해 철종	천성지효, 3년 여묘, 예절엄수 ※해동삼강록
김재규	金在圭		광산 정종	상중 읍혈 3년하니 천거됨
김재문	金在汶		광산 순조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김재병	金在丙	유현 幽軒	광산 고종	부병에 혈지, 3년 여묘, 효행비, 삼강록
김재선	金在先	면재 勉齋	상산 고종	효성친식, 지체겸양, 상중에휼유제, 3년행소
김재손	金在遜		광산 영조	모친상에 시묘하여 천거됨
김재수	金在洙	기은 箕隱	김해 고종	천성지효, 정성불패, 승습정훈, 애휼유제
김재영	金載永	농암 農庵	원주 철종	천성지효, 지체겸양
김재옥	金在郁	월정 月亭	광산 경종	친질의 축천원대, 상분간호, 혈지언명
김재윤	金在潤	덕곡 德谷	광산 고종	사친지효, 상중에휼유제, 종신행소, 천거됨
김재익	金在翊	송은 松隱	광산 고종	선사부모 친병 극진간호, 상중에휼, 예절엄수
김재정	金在正	죽파 竹坡	광산 고종	친병에 축두상분 간호회생, 효행기적비
김재조	金在祚	애일당 愛日堂	광산 고종	사친지효, 지체구양, 상중에휼유제
김재철	金在綴		광산 순조	사친 지효하여 천거됨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김재철	金載轍	난곡 蘭谷	김해 고종	동해문인, 효우독실, 승습정훈, 향리감화
김재호	金在浩	월계 月溪	광산 고종	효행탁이, 상중 3년 여묘
김재호	金在鎬	수정재 守靜齋	광산 고종	효우독지, 지체구양, 상중여묘
김정관	金貞寬	고산 古山	김해 고종	사친극효, 위선지성, 교육사업가
김정순	金正珣		김해 철종	부병위급에 읍혈통곡 2일 연명하니 천거됨
김정식	金廷植		상산 철종	성효출친, 친병작지, 6년 여묘, 천거됨
김정언	金廷彦		김해 고종	모병에 할고하고 부병에 혈지소생하니 천거
김정해	金定海		상산 현종	천성지효, 부병축원원대, 할고, 상중여묘, 천거
김정현	金正炫	능암 綾岩	김해 고종	사친지효, 친병구약간호, 형제작지, 효동이라 칭함
김종구	金宗九		김해 고종	효우탁이, 문학이 당세주중, 향리칭송
김종근	金宗根		김해 정종	친질에 상분, 득어간호하고 상중 여묘하다
김종성	金宗成	추담 秋潭	경주 철종	천성지효, 상중여묘, 예절엄수 증:자현
김종여	金宗麗		광산 영조	양친을 지성봉양, 예절을 엄수하여 천거됨
김종원	金種瑗		김해 고종	천성지효, 상중에휼유제, 종신흥소
김종인	金宗仁	현호 玄湖	김해 현종	부병에 혈지주효, 모친상중 여묘, 천거됨
김종현	金宗炫	소송 小松	김해 고종	품성온유, 효행탁이, 지체구양, 상중읍혈6년
김종현	金種炫		광산 순조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김종환	金宗煥		김해 고종	사친지효, 상중에휼유제, 예절엄수
김주연	金周然		경주 현종	효우근친, 6년 여묘, 천거됨
김주흠	金柱欽		상산 정조	효우출친, 부병에 할고, 단지 상중식소, 여묘, 천거
김중선	金重璿		상산 숙종	효우출친, 학행이 관세(冠歲)하여 천거됨
김지수	金止洙	모현 慕軒	광산 철종	성효출친, 양친병환에 작지, 상중여묘, 천거됨
김지영	金址永		김해 고종	성효출친, 지체구양, 정성불패, 향리함칭
김지영	金祉永		김해 고종	성효출친, 효행탁이
김직현	金直絃	야은 野隱	광산 고종	효성지극, 상중읍혈 3년
김진걸	金振桀	덕은 德隱	경주 철종	부병작지, 모병구육봉친주효, 천거됨, 수:가선
김진문	金鎭文	월성재 月盛齋	상악 고종	사친이효, 어초봉양, 주경야독 ※동몽교관
김진배	金珍培		김해 철종	부병 극진간호, 모병설중 득어간호 회생, 증:통정
김진재	金珍載		김해 철종	천성순효, 친병단지, 상중여묘, 천거됨
김진환	金鎭煥		광산 고종	천성지효, 정성불패, 예절엄수, 천거됨
김찬순	金贊珣		김해 현종	양친 극진봉양, 상중예절 엄수하니 천거됨
김찬원	金燦遠	효당 孝堂	광산 고종	부병에 단지, 명당에 묘를쓰고 1개월후 순직
김찬원	金燦遠		광산 고종	지체구양, 모병작지, 상중에휼유제, 종신행소, 천거
김창섭	金昌燮	계강 桂岡	광산 고종	성효근친, 모친안맹 십년간호, 상중에휼 천거
김창식	金昌植		상산 고종	성효근친, 지체겸양, 상중에휼유제, 천거됨
김창영	金昌永		김해 고종	천성지효, 정성불패, 향리흠복, 천거됨
김창진	金昌鎭	국오 菊塢	김해 고종	천성효우, 모병중 득어봉친, 천거됨
김창현	金昌鉉		김해 고종	모병에 혈지소생, 후에 재차단지, 연명, 천거
김창화	金昌華	해은 海隱	김해 철종	할고, 여묘, 효열문
김채명	金彩鳴	계옹 溪翁	광산 영조	친환에 득어, 극약, 극진간호, 교관증직
김춘득	金春得		광산 고종	부병에 할고, 상중에휼유제, 3년 여묘, 천거됨



성 명		호		본관	왕조	참 고 사 항
김취윤	金取允	유 헌	幽 軒	광산	고종	천성지효, 부모상중 애훼유제, 성묘지성
김치검	金致儉			선산	현종	효행탁이, 상중여묘 복호(復戶) 증; 가선, 병참
김치성	金致誠			김해	철종	모병에 단지하고 상중여묘하니 천거됨
김치순	金致珣			김해	고종	사친지성하고 상중애훼유제하니 천거됨
김치한	金致漢			김해	현종	천성순효, 친병에 좌우 할고, 상중애훼유제, 천거
김 탁	金 鐸	술 재	述 齋	광산	고종	천성지효, 복습정훈, 양친상중애훼유제, 6년행소
김태규	金兌奎			경주	영조	친질에 축천원대, 열지연명, 3년여묘, 천거됨
김태석	金泰錫	서 헌	瑞 軒	선산	순종	효성탁이, 10여년 구산, 길지안장
김태옥	金兌郁			경주	순조	친병에 3형제가 상분할고봉친 시묘하니 천거
김태원	金兌元			경주	영조	친질에 축천원대, 열지연명, 3년 여묘, 천거됨
김하규	金夏珪	후 석	後 石	김해	순종	극효양친, 지체구양, 정성불폐
김하수	金夏守			광산	현종	부병에 할고, 모병에 단지, 상중여묘호위
김하우	金夏愚			김해	고종	효봉양친, 지체겸양, 상중여묘, 향리감복, 천거됨
김학규	金學奎			김해	철종	7세 모병에 축천원대, 혈지회생 5일, 천거됨
김 한	金 澣			선산	정조	성효근친, 양친 극진봉양, 예절엄수, 여러번 천거
김한노	金漢老			상산	숙종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김한순	金漢淳	농 은	農 隱	광산	고종	사친지효, 정성불폐, 지체겸양, 상중행소, 천거
김한필	金漢弼	연 파	蓮 坡	김해	영조	양친 극진봉양, 상, 장, 예절엄수
김항식	金恒植	기 은	箕 隱	상산	철종	지체겸양, 양친상중 애훼유제, 성묘지성
김행춘	金行春	모 강	慕 江	원주	고종	조실부모 평생인통 매일성묘, 종신여행
김헌관	金憲寬	설 죽	雪 竹	김해	고종	효양노모, 종족돈목, 위선지성 ※참봉
김현덕	金顯德			김해	현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효행탁이, 증; 동교
김현병	金顯昞	신 재	愼 齋	김해	현종	부병에 설단기원, 특어간호, 상중여묘, 효자비
김현옥	金顯玉			김해	철종	모병에 축천구육간호 회생, 천거됨
김현택	金賢澤			김해	순조	상중애훼유제, 천거됨
김현홍	金顯弘	송 은	松 隱	김해	철종	지체구양, 상장진례, 종신행소
김형재	金滢宰	농 포	農 圃	광산	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상장진례
김호운	金皐運			광산	고종	효우문행으로 천거됨 ※교관
김홍범	金洪凡	선 와	船 窩	선산	고종	효양부모, 승습정훈, 상장진례, 성묘지성
김홍진	金泓鎭	죽 계	竹 溪	김해	철종	효행근친, 향도교친 효행실적비
김화주	金華柱	연 정	蓮 汀	김해	순종	성효근친, 어초봉양, 지체구양, 향리추증
김환규	金煥奎			김해	고종	사친지효, 양친상중 6년 조석곡묘, 천거됨
김효흠	金孝欽	창 암	滄 菴	상산	영조	효행탁이, 6년 여묘, 여러번 천거됨
김 훈	金 訓	월 암	月 庵	김해	효종	친병에 작지, 상중여묘, 천거되어 오위장이 됨
김환기	金煥基			상산	고종	천성순효, 상중6년흡혈, 식소, 천거됨
김휴택	金休澤			광산	정종	친병에 혈지하고 상중여묘하니 천거됨
김희눌	金希訥			김해	선조	모병에 혈지 시묘 예천(禮薦)
김희성	金熙成	만 은	晩 隱	광산	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상장진례
김희원	金熙源			나주	현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친병할고, 상중흡혈, 복호
나 각	羅 珪			금성	인조	효성지극, 상중애훼유제, 참봉이됨
나경성	羅敬成	춘 포	春 圃	금성	고종	천성지효, 친병축두, 상중매일성묘, 천거됨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나규환	羅圭煥		나주 현종	천성지효하여 양친 극진봉양, 예절엄수 천거됨
나기두	羅基斗	농 은 農 隱	나주 현종	천성순효, 양친 극진봉양, 천거됨, 효행비
나기방	羅基芳	죽 포 竹 圃	금성 고종	천성강직, 언행일치, 편모 극진봉양
나기복	羅基福		나주 현종	성효근친, 양친 극진봉양, 예절엄수
나기석	羅基碩	옥 계 玉 溪	나주 현종	12세때 부병에 축천구약 극진간호 효행비
나기섭	羅基燮		나주 현종	천성준진, 효우지극, 상중에혜유제
나기성	羅琦成		금성 철종	3년 여묘, 효행탁이, 삼강록, 증; 가선
나기식	羅基植		금성 고종	천자순수, 지체봉양, 사친지극
나기열	羅基烈		금성 순조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상중에혜유제, 천거
나기정	羅基鉦	호 재 灝 齋	고종	성효친식, 상중에혜유제, 천거됨
나기진	羅基縉	기 은 箕 隱	나주 고종	효성이 근친하여 양친 극진봉양, 예절엄수
나기천	羅基天	성 헌 誠 軒	나주 고종	양친 극진봉양, 양친상중 애혜유제
나기환	羅琪煥		금성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상중진례
나길성	羅吉成	성 재 誠 齋	금성 고종	사친극효, 정성불패, 상장 제례엄수
나도평	羅燾平	운 파 雲 坡	나주 고종	성행순후, 부병 작지연명, 천거됨
나득신	羅得臣		금성 순조	효행탁이 교관증직
나득인	羅得仁		금성 정조	효우근친, 양친 극진봉양, 상중여묘, 읍혈
나득일	羅得一	송 호 松 湖	나주 영조	천성효우하고 매일새벽성묘 종신여행, 효행비
나만성	羅萬成		금성 고종	성효독지, 지체겸양, 친병상분, 상장진례
나명환	羅明煥	청 암 淸 岩	금성 고종	지체겸양, 상장진례, 종신행소
나문환	羅文煥		금성 순조	효행근친, 가훈계승, 양친 극진봉양
나방환	羅邦煥	석 헌 石 軒	금성 순조	천성강직, 언행일치, 성효출친, 지체겸양, 향리칭송
나봉환	羅鳳煥		금성 고종	효성근친, 어조봉양, 정성불패
나서환	羅瑞煥	송 강 松 岡	나주 순조	친질 극진간호 상중식소
나석환	羅碩煥	경 암 敬 庵	금성 현종	부병6년 극진간호, 열지회생 3일, 증;호참
나수억	羅壽億		금성 영조	양친병에 작지, 6년 여묘, 증; 통정, 정려
나수의	羅壽毅	금 와 錦 窩	나주 고종	송사문인, 상중에혜유제, 기절회생, 천거됨
나수주	羅壽柱	계 정 桂 庭	금성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예절엄수
나승남	羅承南		금성 순조	효성순지, 지체구양, 정성불패, 예절엄수
나승명	羅承明	농 은 農 隱	금성 고종	효우근친, 정성불패, 지체겸양
나승복	羅承福	옥 산 玉 山	금성 고종	효우독실, 조부상중 애혜유제, 상장진례
나승수	羅承守	우 산 又 山	금성 철종	효우친식, 돈목종족, 향린감화
나승안	羅承安	죽 은 竹 隱	금성 순조	성품순후, 효우독실, 불행조세, 향리아석
나승연	羅承連		금성 고종	부병축천원대, 단지, 상중곡통과애, 여묘, 복호
나승윤	羅承允	초 산 樵 山	나주 고종	천성이 온후, 가세극빈이나 부모 극진봉양
나승황	羅承璜	계 은 溪 隱	고종	효우겸비, 친병에 단지, 수일연명
나용신	羅龍臣		금성 현종	부질에 단지, 모병에 축천원대, 상장진례, 천거
나인환	羅仁煥	소 송 小 松	금성 고종	정성불패, 상중에혜유제, 매일성묘지성, 세칭효자
나일채	羅一采		나주 고종	천성순효, 지체구양, 양친상중 애혜진례, 천거
나장환	羅章煥	남 강 南 岡	금성 철종	천성지효, 지체겸양, 상장진례
나정권	羅廷權	난 파 蘭 坡	금성 현종	효우독실, 종족화목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나정규	羅廷圭		금성 현종	사친지효, 상중여묘, 제례업수
나정량	羅廷良		함평 순조	부병에 혈지할고, 상중에휼유제 행소 시묘 천거
나정실	羅廷實	화당 華堂	금성 철종	친병에 축친원대, 상중매일진묘
나정옥	羅廷玉	초은 樵隱	금성 고종	어초봉양, 부병축친, 백방간호
나정우	羅廷祐		함평 순조	사친지효, 형제3인이 늙도록 동거하니 증:가선
나정옥	羅廷旭	죽은 竹隱	금성 고종	우애독실, 양친 상중 6년 여묘
나정옥	羅廷旭		금성 고종	친성지효, 지체구양, 상중에휼6년, 행소
나정윤	羅廷倫		함평 순조	효우가 독실하여 3형제 효자비가 있음
나정일	羅靜鎰	효당 孝堂	나주 고종	성효근친, 양친 극진봉양, 상중에휼유제, 천거
나정희	羅廷熙	죽암 竹庵	금성 고종	친성지효, 우애독실
나중환	羅重煥	자경당 自警堂	나주 고종	효성지극, 부모극진봉양, 모병에 단지수일연명
나진성	羅震成		금성 고종	지체구양, 상장진례 3년 여묘
나찬석	羅贊錫	영은 穎隱	금성 현종	성효근친, 친병에 혈지 득효
나찬혁	羅贊赫		나주 경종	효우독실, 극진봉양, 예절업수
나채환	羅采煥	석암 石庵	금성 순종	효우문행겸비, 지체구양, 상중에휼 예절업수
나철환	羅喆煥	석정 石亭	금성 순종	친품단아, 문행겸비, 정성불패, 예절업수
나치홍	羅致弘		금성 고종	친성순효, 지체구양, 친병축친원대, 상중에휼유제
나학성	羅鶴成	송촌 松村	금성 고종	부병혈지, 상중에휼, 종신행소, 성묘지성
나학주	羅學柱	사담 沙潭	금성 순종	성효근친, 친병 극진간호 열지주혈 3일연명
나호균	羅浩均	산은 山隱	나주 고종	근친지효, 정성불패, 상장진례, 향리감복
나흥성	羅興成		금성 현종	사친지효, 상중에휼유제, 3년 여묘, 증:호참
나흥성	羅興成	운곡 雲谷	금성 고종	효우근친, 사친지성, 부병혈지, 상중여묘
남상호	南相昊	효당 孝堂	의령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상중 조석성묘지성
남유희	南有熙	지곡 芝谷	의령 고종	학자, 부병에 상분간호, 혈지, 효열각
남정일	南廷日		의령 고종	친병중 핍고기를 원하자 핍이 집에 들어 봉친, 천거
남창희	南昌熙	지곡 芝谷	의령 고종	성효근친, 정성불패, 부병열지주효, 효자각
남치엽	南致燁		의령 영조	친성지효, 친병에 축친원대, 상중여묘
노겸	魯謙		함평 명종	효행과 학행으로 참봉이 됨
노경탁	魯警鐸	괴암 槐庵	함평 현종	가세청빈이나 선세3효를 계승, 정려가 내림
노계탁	魯桂鐸		함평 현종	사친지효하여, 처 전주이씨와함께 천거됨
노관상	魯寬相	초은 樵隱	함평 고종	친성이 지효, 양친 극진봉양
노광규	盧光圭		광산 현종	부모병 양차단지, 상중예절업수, 식소, 천거됨
노광규	盧光奎	죽와 竹窩	광산 철종	부병열지, 모병단지, 6년행소, 천거됨
노구겸	盧九謙		광산 순조	부질에 절지하고 할고봉친 소생하니 천거됨
노구겸	盧九謙		광산 고종	부친 종기 윤지소생, 상중여묘, 행소하니 천거
노달흥	盧達興	초은 草隱	광산 순조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예절업수
노동섭	盧東燮	화원 花園	광산 고종	부병 상분간호, 축친원대, 작지연명
노동휘	盧東揮	학산 鶴山	광산 고종	성효근친, 정성불패, 지체구양, 일일삼성
노민원	盧旻源		광산 철종	친병상분단지 읍혈3년, 상장진례, 천거됨
노병국	魯炳國		함평 고종	모병 8년 형과 함께 극진간호 회생
노병기	魯炳基	호은 湖隱	함평 고종	효성친식, 지체구양, 상중행소3년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노병덕	盧炳德	석봉 石峰	광산 고종	덕행순후, 의리소명, 효우견전, 사우추앙
노병찬	魯炳贊		함평 고종	천성순수, 친병상분축전, 양친상중애혜유제, 천거
노병천	魯炳千		함평 고종	천성지효, 지체겸양, 상중읍혈행소
노봉령	盧鳳齡		광산 정조	효행탁이, 천거됨
노봉채	魯鳳采	묵암 默庵	함평 정조	친절에 득어소생, 여묘중호위, 정려와 교관증식
노봉해	盧琤海		광산 영조	양친 극진봉양, 상중애혜유제, 천거됨
노사윤	盧士允	후정 後井	광산 고종	성선지효, 지체구양, 양친상중 애혜유제
노사인	盧思仁	추파 秋坡	광산 영조	양친 극진봉양, 상중애혜유제, 천거됨
노상범	魯相範		함평 고종	친병상분단지, 상중애혜유제, 삭망성묘지성
노상현	魯尙賢		함평 숙종	정효근친, 사친극효
노상호	魯相浩		함평 고종	효행탁이, 재예초범, 부모 극진봉양
노석명	盧錫命		광산 고종	조실부친 애혜벽통, 모병혈지 연명, 수; 통정
노석원	盧錫元		광산 철종	성년후 추복, 천거됨
노석팔	盧碩八	모암 慕庵	광산 정조	양친 극진봉양, 상중애혜, 예절엄수, 천거됨
노성진	盧聖鎭	일성재 日省齋	광산 고종	효사부모, 친병 극진간호, 상중에절엄수, 종신식소
노세탁	魯世鐸		함평 철종	천성순효, 지체구양, 모병단지할고, 증;동교
노수도	魯洙道		함평 헌종	부병에 득어봉친, 3년 여묘, 천거됨 ※삼강록
노수문	盧壽汶	송운 松雲	광산 철종	효우독실, 상중읍혈3년, 위선지성
노수천	魯洙千	청우 淸遇	함평 고종	천성지효, 정성불패, 지체구양, 상중읍혈3년
노연권	魯淵權	매헌 梅軒	함평 헌종	양친 극진봉양, 상중애혜유제하니 천거됨
노연기	魯淵箕		함평 철종	천성순효, 친병설중득약간호, 3년 여묘, 천거됨
노연단	魯淵壇		함평 고종	천성이 지효하여 6년 시묘중 호위하니 천거됨
노연도	魯淵道	난파 蘭坡	함평 헌종	성효근친, 부병 설중득어간호, 상중여묘, 천거
노연문	魯淵文		함평 헌종	성효출친, 상중애혜유제, 3년행소
노연석	魯淵碩		함평 고종	성효근친, 상중식소, 3년 여묘, 천거됨
노연연	魯淵彦	애일당 愛日堂	함평 고종	친병 극진간호, 상중여묘 ※동몽교관
노연윤	魯淵允	농재 農齋	함평 순조	모병에 열지하고 3년 시묘하다
노영상	魯映相	초산 樵山	함평 고종	양친 극진봉양, 상중애혜, 삼강록
노영열	魯榮烈		함평 헌종	친병에설단축친 득어봉친, 상중여묘하니 천거됨
노영주	魯榮疇	죽계 竹溪	함평 순조	성효가 출친하여 양친 극진봉양, 정려와 감찰증식
노영택	盧榮澤	구곡 龜谷	광산 고종	조실부친 예절엄수, 편모 극진봉양
노영후	魯榮厚	두암 斗岩	함평 순조	성효가 근친하고 성리학자로 후진양성
노영후	魯榮厚		함평 헌종	양친 극진봉양, 상중에절엄수, 천거됨
노영훈	魯榮勳	석천 石泉	함평 헌종	우애독실, 효행과 학행으로 동몽교관 증직, 유고
노완	魯浣		함평 정조	천성순효, 6년 여묘, 천거되어 급복(給復)
노유상	魯裕相	선양재 善養齋	함평 헌종	효행탁이, 부병에 할고, 상중 3년행소
노유석	盧有錫	월파 月波	광산 헌종	친병에 읍혈, 호친득어 간호, 천거됨
노유석	盧有錫		광산 헌종	친절에 양친호곡, 득어간호, 천거됨
노윤덕	魯潤德		함평 고종	천성지효, 사친지성, 6년 여묘, 증; 가선
노의열	魯義烈		함평 고종	천성효우하고 상중에 형과 함께 여묘 천거됨
노이계	魯以桂		함평 헌종	효우근친, 친병 상분혈지, 3년 여묘, 천거됨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노이빈	魯以彬		합평	순조 조실부모하고 성년이 되어 추복시묘, 이참증직
노이상	魯二相	춘 파 春 坡	합평	고종 천성순후, 효행탁이 모병, 3년 극진간호
노이해	魯以楷		합평	헌종 효행출천, 6년 여묘, 천거됨
노일신	魯一臣		합평	헌종 성효근친, 친질축천원대, 열지, 양친상장진례, 천거
노임상	盧任相		광산	영조 시묘중 읍혈하니 세칭송하효자, 천거됨
노임해	盧任海	지 천 芝 川	광산	헌종 효성친식, 양친 극진봉양, 상중행소 3년
노재현	盧在鉉	금 호 錦 湖	광산	철종 품자온후, 효행초운, 득약봉친
노재홍	魯在弘		합평	고종 부모 극진봉양, 상중여묘, 애훼유제
노전규	盧典奎	정 암 靖 庵	광산	순조 천성지효, 양친 극진봉양, 예절업수 천거됨
노전영	盧銓英	회 은 悔 隱	광산	순조 성효근친, 양친극진봉양, 성묘지성, 풍우불폐
노전호	盧銓浩	구 파 龜 坡	광산	철종 성효근친, 지체겸양, 종신행소, 천거됨
노정봉	盧鼎奉		광산	헌종 모병할고, 작지, 상중에훼, 성묘지성, 종신행소
노정여	魯廷麗		합평	영조 효우출천, 6년 여묘, 삼강록
노정해	盧正海	월 파 月 波	광산	고종 양친 극진봉양, 친병 극진간호, 상중에훼유제
노종규	盧宗奎		광산	헌종 사친지효, 지체구양, 효행탁이, 천거됨
노종록	魯鍾祿	정 산 靖 山	합평	고종 편모제체구양, 상장진례, 종신택소
노종삼	魯宗參		합평	정조 양친 극진봉양, 친병단지, 상중에훼유제, 천거
노종언	盧宗彦	영사재 永思齋	광산	영조 효행순독, 위선지성, 종신행소, 천거됨
노지돌	盧智突	송 은 松 隱	광산	고종 부성관인, 효우독실, 종족돈목, 승습정훈
노진상	魯鎭相	행 은 杏 隱	합평	철종 승습정훈, 모병축천기도중 몸에 얼음이 서림, 증:호참
노진영	盧震榮		광산	효종 모병에 매일밤 축두기원, 천거됨
노진태	魯鎭泰	양 재 養 齋	합평	고종 성효근친, 친병상분, 축천원대, 예절업수, 천거
노찬백	魯纘伯		합평	헌종 천성지효, 사친지성, 상중에절업수
노찬원	魯纘源		합평	헌종 효우독실, 당세의 문장, 천거됨
노철수	魯哲秀		합평	선조 효행이 출천하여 수의(繡衣) 포상, 참봉이 됨
노치수	魯致洙	농 암 農 菴	합평	고종 조실부친 애훼유제, 편모 극진봉양
노학탁	魯學鐸		합평	철종 효행탁이, 우애독실, 상장진례
노한덕	盧漢德	효 당 孝 堂	광산	고종 운암문인, 천부순수하여 양친 극진봉양, 성묘지성
노한춘	盧漢春	삼성재 三省齋	광산	고종 편모 극진봉양, 혈지연명, 상장진례, 천거됨
노한혁	盧漢赫	성 현 省 軒	광산	고종 효성근친, 정성불폐, 승습정훈, 의술고명
노형수	魯亨洙		합평	고종 조실부친, 편모고용봉친, 자녀교육철저
노환탁	魯還鐸	성 현 省 軒	합평	고종 효행탁월, 일일삼성, 정성불폐, 지체구양 ※교관
노희봉	盧淮鳳		광산	고종 양친병환 극진간호, 승습정훈, 상장진례
노 후	魯 詡		합평	명종 부병에 혈지(血指), 정려와 이조참관 증직(贈職)
노흥록	盧興祿	송 정 松 庭	광산	순조 성효가 근친하여 극진봉양하고 매일 성묘 지성
류행언	柳幸淵	임 계 林 溪	문화	고종 천성지효, 정성불폐, 지체구양
리구증	李龜增	송 정 松 汀	전주	철종 천성인자, 지체겸양, 6년 여묘, 천거됨
리만신	李萬信	정 재 正 齋	전주	고종 효우독실, 지체구양, 예절업수, 교자의방
리상악	李象岳		전주	철종 성효근친, 어초봉양, 상중극애 천거됨
리상재	李相宰	동 현 東 軒	전주	고종 가세극빈, 지성봉양, 상중 예절업수
리성표	李聖標		전주	헌종 부병에 상분간호, 절지소생, 천거됨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리용엽	李容燁	후산 後山	전주 헌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상장진례
리용헌	李龍憲	예헌 禮軒	전주 순종	성효근친, 정성불패, 향리칭송
리우신	李又信	죽암 竹庵	전주 고종	천성지효, 정성불패, 우애독실, 향리흠송
리운섭	李運燮		전주 고종	천성지효, 정성불패, 양친상중 애환진례, 증; 통정
리이성	李以成		전주 헌종	천성이 지효하여 양친을 극진봉양하니 천거됨
리이원	李以遠		전주 헌종	천성지효, 양친 극진봉양, 상중 예절엄수, 천거
리진향	李鎭香	월계 月溪	전주 고종	부병상분작지, 양친상중예절엄수, 성묘지성, 천거
리천정	李天挺		전주 숙종	효성이 지극하여 조석성묘호곡하여 천거됨
리학의	李學儀		전주 철종	지체구양, 상중여묘, 애환진례 ※참봉
모규현	牟奎賢	추강 秋江	함평 고종	지체겸양, 친병 극진간호, 상중여묘 ※효자각
모대규	牟大奎		함평 헌종	상중6년 시묘하니 정려가 내림
모대남	牟大南	경은 耕隱	함평 고종	효우독실, 종족돈목, 상중성묘지성
모복원	牟福源	채산 採山	함평 고종	천성이 지효, 편모 극진봉양, 상중 애환유제
모세익	牟世益		함평 헌종	친병에 혈지 소생하니 천거됨
모순	牟恂	절강 截江	함평 태종	효행으로 정려가 내리고 덕천사(德川祠)에 배향
모영기	牟營基	죽은 竹隱	함평 고종	천성지효, 지체겸양, 상중애환유제, 천거됨
모영두	牟營斗	월산 月山	함평 고종	성효근친, 상중애환유제
모영섭	牟營燮	후강 後江	함평 고종	모병3년 백약무효 동생과 함께 열지주효
모영태	牟營台	태봉 台峰	함평 고종	초연제문인, 모병3년 형과 함께 작지주혈 회생
모영현	牟營玄	여일재 如一齋	함평 고종	천성순효, 모병작지주혈 3일연명, 향리합칭
모익신	牟益新		함평 고종	7세 부친 상호곡부절, 조모병할고, 여묘, 증, 교관
모정신	牟挺新		함평 고종	친병상분할고, 상중음혈3년, 증; 교관
모종만	牟鍾萬	석정 石庭	함평 고종	효우친식, 1일3성, 위선지성, 향리경복
모종상	牟鍾相		함평 순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정성불패, 향리칭송
모태진	牟太鎭	춘포 春圃	함평 고종	승습정훈, 효우독실, 위선지성 ※참봉
모학령	牟鶴泳	지효재 至孝齋	함평 명종	친병상분 단지할고 시묘중 호위(虎衛) 예천(禮薦)
모학영	牟鶴泳		함평 숙종	효행이 탁이하여 정려가 내림
모한백	牟漢伯	죽파 竹坡	함평 영조	효행출천, 양친 극진봉양, 증;통정
모한석	牟漢錫	연파 蓮波	함평 영조	조실양친, 자칭죄인, 추복6년, 교관
모홍신	牟弘新	해은 海隱	함평 고종	사친지효, 정성불패, 상중애환유제 ※도정
문계충	文桂忠	월암 月岩	남평 고종	성효출천, 부모 극진봉양
문기안	文基安	기은 箕隱	남평 철종	어초봉양, 3년 여묘, ※참봉
문사병	文士丙	종모 終慕	남평 고종	조실부모, 친척의탁 성장 애통 극심, 증;공참
문사현	文士鉉	야은 野隱	문평 고종	성효근친, 모병에 읍혈 득어간호 회생
문상도	文相道		남평 영조	효성 지극하여 친병에 혈지 연명하니 천거됨
문성옥	文聖玉		남평 고종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증;조봉
문성운	文聖雲		남평 고종	효행이 탁이하여 보봉대부 증직
문승현	文昇鉉	심명 心溟	남평 고종	천성진효, 부병3년 극진간호, 작지주혈 ※삼강목
문양현	文養鉉		남평 고종	업동에 열음을 깨고 득어봉친, 모병에 단지, 천거
문영국	文永國		남평 고종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문영국	文永國		남평 고종	효봉양친, 지체구양, 양친상중애환유제, 상장진례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문영빈	文永彬	성 은 成 隱	남평 고종	사친지효, 지체구양, 친병수년극간, 상중에절업수
문영호	文永灝		남평 현종	양친 극진봉양, 상중여묘호위, 정려와 교관증직
문요연	文堯年		남평 인조	효성출천, 6년 시묘, 천거됨
문우현	文遇鉉		남평 고종	정성불패, 친병 극진간호, 상중애휼, 6년식소, 천거
문익주	文益周		남평 인조	3년 시묘중 묘앞 연못의 연꽃이 희어짐, 천거
문정언	文鉦彦		남평 고종	효양부모, 지체구양, 친병 극진간호, 상중애휼골입
문정환	文廷煥	취 암 翠 岩	남평 철종	3년 여묘중 벌레가 온집, 축천기원 자연소멸 ※교관
문종환	文宗煥	남 강 南 岡	남평 고종	효성지극, 부모 극진봉양, 군수표창
문집상	文集祥	만 오 晚 梧	남평 순조	천성순효, 친병중 엄동에 득어간호 회생
문채언	文采彦		남평 고종	효사부모, 지체겸양, 친병단지, 천거됨
문채현	文彩鉉	죽 파 竹 坡	남평 고종	가세극빈이나 효성지극 매일 성묘지성
문천성	文天星	경 현 警 軒	남평 숙종	친병에 작지할고, 여묘중 호위, 예조참의 증직
문화현	文華鉉	침 계 枕 溪	남평 고종	모병3년에 매일밤 축천원대, 희생됨
박갑래	朴甲來	후 괴 後 槐	밀양 고종	효우초범, 사친지성, 지체구양
박경환	朴敬煥		밀양 숙종	천성지효, 사친극효, 상중애휼유제
박계수	朴桂壽		반남 철종	편모지체구양, 상중애휼진례, 증; 공참
박관화	朴權和		무안 고종	효성근친, 모병 6년 극진간호
박광덕	朴廣德	춘 파 春 坡	밀양 고종	효우독실, 9순노모, 지체겸양, 상중행소, 성묘지성
박광혁	朴光赫		밀양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정성불패, 상중진례, ※참봉
박권문	朴權文		밀양 고종	조실모친, 계모 극진봉양, 친질절지, 여묘 삼강문
박권익	朴權益		밀양 철종	효우근친, 지체구양, 상중애휼유제, 3년 여묘
박균성	朴均成	고 암 高 菴	밀양 고종	효우문행겸비, 지체구양, 양친상중 애휼유제
박기용	朴基容		밀양 현종	효우근친, 양친 극진봉양, 예절업수, 증; 가선
박기인	朴基仁		밀양 현종	양친상에 6년 여묘하니 예조의 포상이 내림
박기현	朴奇鉉		밀야 영조	노부모가 음식을 먹지못하니 젖을 구해 봉양, 여묘
박기홍	朴基弘		밀양 고종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박기홍	朴基洪	경 은 耕 隱	무안 현종	친절에 혈지연명, 상중여묘, 예절업수
박길봉	朴吉鳳	오죽당 梧竹堂	밀양 고종	천성이효우, 부병에백방구약간호, 상중애휼유제
박길상	朴吉相	후 농 後 農	고종	천성이순효, 친병에 상분간호, 상중애휼유제
박길성	朴吉成	효 정 孝 庭	밀양 고종	천성순실, 부모 극진봉양, 예절업수, 천거됨
박남주	朴南柱		한양 순종	천자순효, 편모 극진봉양, 위선지성, 선대묘비 수립
박남주	朴南柱		함양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위선지성
박노수	朴魯洙	후 강 後 岡	밀양 고종	부병에 구약 극진간호, 3년 여묘
박덕배	朴德培	가 은 可 隱	밀양 철종	승습정훈, 효행지극, 3년 여묘
박동규	朴東圭	묵 현 默 軒	밀양 고종	사친지효, 상중 예절업수, 천거됨
박동근	朴東根	계 촌 溪 村	밀양 현종	효성지극, 엄동에 득어봉양, 부병회생
박동배	朴同培	운 곡 雲 谷	밀양 고종	효성순지, 사친지극, 종신여행, 향리칭송
박동진	朴東鎭	영 사 永 思	함양 순조	친절에 읍득신약하고 득어간호, 효행비
박동진	朴東鎭		함양 철종	친절에 읍득산삼, 봉양하고 효우독실, 천거됨
박동환	朴東煥		밀양 현종	면암문인, 효행탁이, 지체구양, 증; 가선
박맹영	朴孟榮	영 모 永 慕	함양 고종	부병축천원대, 백방간호, 열지연명, 천거됨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박문필	朴文弼		밀양 철종	지체구양, 친병단지할고, 상장진례, 천거됨
박병우	朴炳佑	암곡 岩谷	밀양 고종	천성순진, 사친극효, 우애독실, 근검치가
박봉섭	朴奉燮	청심당 淸心堂	밀양 고종	사친성효, 지체구양, 상장진례, 천거됨
박사덕	朴思德		나주 숙종	부병에 혈지, 모병에 할고, 6년 여묘, 천거됨
박사덕	朴思德		나주 숙종	부병에 혈지, 모병에 할고 시묘하여 천거됨
박상구	朴相求	화산 花山	밀양 고종	모병 극진간호, 부상 애휼진례, 천거됨
박상규	朴相圭	계산 鷄山	밀양 고종	효행순지, 지체구양, 상장진례, 위선지성
박성옥	朴成玉	서파 瑞坡	밀양 고종	천성지효, 지체겸양, 정성불패, 향리흠양
박성운	朴性運		밀양 고종	천성순효, 친병상분, 축천원대, 상중여묘3년, 천거
박성진	朴成鎭		함양 헌종	부병에 단지주혈연명, 상중애휼유제 ※동주
박성진	朴成鎭	송설 松雪	밀양 철종	친병혈지연명, 상장진례, 6년 여묘 ※동주
박수관	朴守寬		밀양 헌종	사친지효, 지체구양, 혈지, 상중여묘, 증:감찰
박수성	朴守成	난와 蘭窩	밀양 철종	효우순지, 모병윤지간호, 상장진례 ※가선
박수안	朴守安	우헌 愚軒	밀양 헌종	천성지효, 양친 극진봉양, 상중 매일 곡묘지성
박수진	朴秀鎭		함양 순조	산삼봉진, 효행비
박수한	朴守漢	석남 石南	밀양 순조	효행탁이, 문학 숭심(崇深) 증:호참
박승휴	朴承休		밀양 인조	효행탁이, 증:이조참의, 정려 효행비
박시화	朴時和		밀양 고종	면암문인, 효우독실, 사친진례 ※동부승지
박양근	朴良根	농은 農隱	밀양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상중애휼유제
박양환	朴良煥		밀양 헌종	양친상에 6년 여묘하니 예조의 포상이 내림
박영원	朴永源		밀양 순조	6년 시묘하니 정려와 교관증직
박영원	朴永源	죽당 竹堂	밀양 영조	친병에 열지, 상중여묘, 증: 동몽교관, 정려
박용섭	朴容燮	남국 南國	밀양 고종	친병 극진간호, 축천기두, 상중읍혈 여묘
박용운	朴容雲	난계 蘭溪	밀양 고종	모병업동에 득어간호, 상중애휼, 3년 여묘
박용재	朴庸載	후은 後隱	무안 순종	효성근친 부병축두원대 작지주혈, 천거됨
박용태	朴容泰	후송재 後松齋	밀양 고종	효우문행겸비, 모병득어봉친, 혈지연명 ※감찰
박용택	朴容澤	취송 翠松	밀양 고종	사친지효, 상중6년 조석성묘지성
박운상	朴云相	농은 農隱	무안 고종	효성천식, 정성불패, 예절업수, 성묘지성
박운용	朴運容		밀양 철종	천성순효, 지체구양, 친병구약간호, 상중애휼유제
박윤내	朴潤來		밀양 철종	사친어효, 부병혈지, 6년 여묘 ※동주
박은상	朴殷相	청천 淸天	무안 고종	효성지극, 친병에 상분, 상중읍혈3년
박이관	朴履寬	애죽헌 愛竹軒	함양 순조	상중시묘, 예절업수, 형제4인 우대독실, 천거
박이명	朴爾明		밀양 숙종	효행독실, 사친지효, 3년 여묘
박이명	朴爾明		밀양 숙종	효우독실, 극진봉양, 상중시묘, 학행이 당세에 저명
박인래	朴仁來	성재 省齋	밀양 고종	지체구양, 친병극진간호, 상중애휼기절 회생
박일배	朴日培	야은 野隱	밀양 고종	승습정훈, 우애독실, 지체구양, 정성불패
박일상	朴益相	한천 寒泉	무안 고종	사친지효, 지체구양 치병축천, 상중애휼유제
박자익	朴滋益	성재 誠齋	밀양 헌종	지체구양, 친병혈지, 상중여묘 ※동몽교관, 증: 호참
박재구	朴載求		밀양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예절업수, 천거됨
박재근	朴載根		밀양 정조	부병윤지득효, 3년 여묘, 증:호참
박재석	朴載錫	경헌 敬軒	밀양 철종	승습정훈, 성효탁이, 향리칭효



성 명		호		본관	왕조	참 고 사 항
박재수	朴載壽			무안	고종	성절인자 부모 극진봉양, 예절업수 각종표창
박재진	朴在鎭	용 암 容 庵		밀양	헌종	성효친식, 양친상중 매일새벽곡묘호위, 증; 호의
박정기	朴正基	월 산 月 山		밀양	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상중 3년행소
박제윤	朴濟潤	취 정 翠 亭		진원	고종	효행탁월, 지체겸양, 정성불패, 위선지성
박종구	朴鍾求	백 헌 伯 軒		밀양	고종	효성근친, 편모 극진봉양, 상장진례, 삼강록
박종락	朴鍾樂	기 은 箕 隱		밀양	고종	천부순효, 지체겸양, 상중애휼, 종신행소
박종선	朴鍾善	죽 암 竹 岩		밀양	고종	효성탁월, 지체구양, 상중행소, 3년종상
박종성	朴鍾誠			밀양	정조	모병에 합고, 부병에 단지주효, 여러번 천거됨
박종용	朴鍾龍	송 재 松 齋		밀양	고종	모병 3년 추천원대, 상중 예절업수
박종이	朴鍾二	학 산 鶴 山		밀양	고종	사친지효, 우애독실, 근검치가, 자녀교육, 군수표창
박종인	朴宗仁	병 남 屏 南		반남	순조	부병간호중 밤중에 호랑이 도움으로 구약회생
박주수	朴柱壽	죽 당 竹 堂		반남	헌종	조실부친, 모병에 작지연명 ※가선
박주원	朴柱元	운 암 雲 菴		함양	고종	사친지효, 극진봉양, 상중여묘, 예절업수, 천거
박준구	朴準龜			밀양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상중애휼진례, 천거됨
박준달	朴準達			밀양	숙종	조실부친주복, 모병에 합고, 상중예절업수, 천거
박준상	朴俊常			밀양	고종	사친지성, 정성불패 ※참봉
박준석	朴準錫			밀양	헌종	사친지성, 승습정훈, 상중애휼골입, 읍혈진례
박준양	朴準良	용 은 龍 隱		밀양	헌종	효성지극, 양친 극진봉양, 정성불패
박준엽	朴準燁	갈수정 葛叟亭		밀양	고종	성리학자, 효성이지극, 6년 여묘, 삼강문
박준태	朴準泰	괴 은 塊 隱		밀양	고종	천성지효, 상중애휼, 예절업수
박준화	朴準化	해 헌 海 軒		밀양	고종	성효근친, 가세극빈, 극진봉양, 6년 여묘
박중래	朴仲來	서 호 西 湖		밀양	고종	천성지효, 사친지체구양, 상중행소
박중익	朴仲益	석 헌 石 軒		밀양	고종	사친극효, 지체구양, 친병상분작지, 상중여묘, 참봉
박찬문	朴燦文	야 헌 野 軒		함양	고종	부병에 작지, 모병업동에 특어간호, 천거됨
박찬섭	朴贊燮	은 곡 隱 谷		밀양	헌종	성효근친, 양친 극진봉양, 상중읍혈, 종신행소
박찬운	朴燦雲	인 재 忍 齋		함양	고종	지체구양, 부병추천원대, 상장진례, 여묘, 천거
박창근	朴昌根			밀양	고종	효봉양친, 정성불패, 상중예절업수, 천거됨
박치순	朴致淳	월 산 月 山		밀양	헌종	효봉부모, 지체구양, 상중읍혈, 3년행소
박태익	朴台益	경 파 鏡 坡			고종	천성이 지효, 부병에 작지 3일연명, 천거됨
박학래	朴學來			밀양	고종	매년 새음식을 구득봉친, 친병작지, 상중애휼
박헌두	朴憲斗	송 암 松 庵		밀양	철종	조실부친 평생분통, 매일성묘, 종신행소
박호현	朴好賢	화 록 華 麓		밀양	선조	효행이 탁이하여 사복정증직, 정려, 효행비
박홍섭	朴洪燮			밀양	고종	정성불패, 친병상분, 상중읍혈, 승습정훈 ※통훈
박홍순	朴弘舜			밀양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모병작지 ※참봉
박환구	朴煥求	호 은 湖 隱		밀양	고종	효우독실, 정성불패, 세칭 은사(隱士)
박흠중	朴欽琮	서 촌 瑞 村		함양	명종	부병극진간호, 단지로 수일연명
방상기	房相基			남양	헌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상중진애, 천거됨
배광수	裴光洙	둔 암 遯 岩		달성	고종	조실부친, 모병에 단지, 성묘지성
배중만	裴鍾萬	성 재 誠 齋		대구	고종	효행탁이, 편모 극진봉양, 향당이 효자라 칭함
배홍기	裴弘基			대구	고종	천성지효, 효봉양친 상장진례, 예절업수, 천거
배환채	裴煥采			대구	고종	친질에 단지, 상중여묘, 삭망성묘 종신여행, 천거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백기언	白基彦	학봉 鶴峰	수원	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3년 여묘 ※참봉
백낙삼	白樂三	만휴 晩休	수원	고종 부병구육간호, 상중애훼, 여묘6년, 천거됨
백낙흠	白樂欽	석헌 石軒	수원	정조 성효근친, 지체구양, 3년 여묘 ※참봉
백봉희	白奉熙	송곡 松谷	수원	헌종 조실부친 애훼유제, 편모 극진봉양, 천거됨
백수동	白洙童	후봉 後峰	수원	고종 사친지성, 상중6년, 애훼유제
백술	白述	송파 松坡	수원	인조 가훈계승, 상중애훼유제, 예절엄수
백영순	白永順	후봉 後峰	수원	고종 정성불패, 사친극효, 상중 3년 여묘
백유철	白惟哲	효당 孝堂	수원	선조 충효겸전하여 가선대부 증직
백윤오	白潤五		수원	고종 천성지효, 정성불패, 친병극진간호, 상장진례
백판흠	白判欽	월담 月潭	수원	순조 성효근친, 가세극빈 어초봉양, 친병에 할고, 혈지
백형진	白衡振	만송 晩松	수원	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향리흠복
서경망	徐慶望		대구	숙종 난리중 모친구운, 호조참의 증직
서기수	徐淇秀		이천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위선지성, 선대묘비건립
서남수	徐南洙	석암 石庵	이천	순조 효심순지, 선사부모, 정성불패, 지체구양
서동환	徐東煥	야은 野隱	이천	고종 가세극빈, 양친 극진봉양, 친질에 혈지 수일연명
서명규	徐命奎	사성재 思誠齋	이천	숙종 효행이 탁이하고 시묘하니 천거되어 정려를 내림
서명수	徐命洙	월호 月湖	이천	고종 사친지성, 친병에 상분, 축천원대, 천거됨
서명중	徐明鍾	옥봉 玉峰	이천	고종 효성지극, 친병에 백일산제후 완쾌됨
서민국	徐敏國		이천	정종 친질에 혈지하고 6년 시묘하니 천거됨
서복유	徐復儒	초은 樵隱	이천	순조 친병에 설중간호, 열지득효, 증;동몽교관
서부기	徐富基	죽헌 竹軒	이천	헌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상중애훼유제
서상기	徐相基		대구	고종 효행출친, 부병할고, 상중애훼유제, 천거됨
서상영	徐相令	죽헌 竹軒	이천	고종 지체겸양, 상중 읍혈 3년, 종신행소, 천거됨
서상표	徐相杓		이천	고종 효행탁이, 양친상중 애훼유제 ※참봉
서석진	徐錫辰	석계 石溪	이천	고종 효성순근, 편모지체구양, 상중애훼유제, 천거
서안수	徐安洙	희암 希庵	이천	고종 성효근친, 조실부친, 모, 조모 극진봉양
서영기	徐瑛基	성재 省齋	이천	고종 효우문행겸비, 친병혈지, 상중애훼, 3년식소
서영호	徐榮鎬	망야재 望野齋	이천	헌종 부병에 작지, 상중벽통애곡, 애훼유제, 문행저세
서우중	徐瑀鍾	청헌 淸軒	이천	철종 품성순수, 지체구양, 상중 애훼유제
서진례	徐楨禮		이천	선조 효성지극 시묘 효행과 학행으로 지평(持平) 증직
서진기	徐眞基	송은 松隱	이천	순조 8세에 효경암송, 모친극진봉양, 종신행소
서진옥	徐振玉		이천	고종 영위에 불이 불자 홀연히 비가 내려 구제, 천거됨
서창현	徐昌鉉	만송 晩松	장흥	고종 후석문인, 성효근친, 지체구양, 상중애훼, 위선지성
서철순	徐喆淳		이천	고종 천성이 순효, 양친 극진봉양, 위선지성
서치린	徐致麟		이천	영조 친질에 할고봉친하고 여묘중 호위하니 천거
서치보	徐致寶	소죽 小竹	이천	헌종 성효출친, 양친병에 혈지, 상중애훼유제, 천거
서치봉	徐致鳳		이천	영조 부친상에 시묘, 모병에 구약회생하니 천거됨
서치중	徐治鍾	후성 後誠	이천	고종 양친 극진봉양, 위선지성, 가훈계승
성윤담	成允聃		창령	중종 부병에 상분, 작지, 양친상중 6년 여묘
손호익	孫濤翊		밀양	고종 천성지효, 덕행겸비, 상중식소, 3년 여묘, 천거
손홍렬	孫洪烈	송파 松波	밀양	고종 천성지효, 양친상중 벽통애곡, 6년 여묘, 식소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송병민	宋炳玟	근절제 謹節齊	신평 고종	지체구양, 친병10년 극진간호, 상중애휼진례, 천거
송수성	宋秀聖		죽산 현종	효우문학이 당세에 으뜸, 상중여묘
송영빈	宋榮斌	송 은 松 隱	여산 고종	효우독실, 언행충실, 10일의 표준이라 칭송함
송영우	宋榮佑	연 파 蓮 坡	여산 고종	가세극빈, 어초봉양
송영태	宋榮泰		여산 고종	천성지효, 승습정훈, 지체구양
송정섭	宋丁燮	모연재 慕蓮齋	여산 고종	사친지효, 양친상중 애휼진례
송종명	宋鍾明	농 은 農 隱	여산 고종	친병3년 극진간호, 축천기두원대, 천거됨
송중현	宋鍾鉉		여산 고종	조실부친추복여묘, 모병극진간호, 상중애휼유제
송한복	宋漢福	지 촌 止 村	신평 철종	성효근친, 부병혈지주효, 증:호참, 효행비
송홍섭	宋洪燮	만 파 晩 坡	여산 순종	조실부친, 편모지체겸양
신경철	辛慶哲		영산 현종	부병에 상분, 모병에 단지9일 연명 천거됨
신귀상	申貴相		평산 현종	친병에 상분작지여묘, 아들, 손자와함께 천거
신만록	申萬祿		고령 정조	친병에 혈지, 상중여묘, 수로 가산이됨
신성모	申聖模		고령 현종	효행탁이, 상중여묘, 종신행소 ※통정
신수황	申粹煌		평산 현종	부병에 설리득어간호, 열지, 편모 극진봉양, 천거
신시찬	辛時燦		영산 고종	효행근친, 50년간 사친극효, 상장진례, 천거됨
신양균	申陽均		평산 고종	효행탁이, 정성불패, 모병단지, 상중여묘, 천거
신용식	申龍植	효우당 孝友堂	평산 고종	천성지효, 위선지성, 근검치가 편모 극진봉양
신용희	申瑬熙		평산 고종	지체구양, 친병극진간호, 3년행소, 천거됨
신원휴	申元休	한 재 閑 齋	고령 고종	사친지효, 상중 애휼유제하니 천거됨
신유장	申裕章		영산 철종	천성이 순효, 모병에 할고 소생 20년연명 천거
신재기	申在基		평산 고종	천성순수, 효행탁이, 천거됨 ※동몽교관
신호균	申瑚均		평산 고종	승습정훈, 효우독실, 모병상분작지, 상중, 천거
신희창	辛徽昌		영월 고종	강원도까지 가서 부친을 모셔와 지성봉양, 상중여묘
신희우	申喜雨	암 은 岩 隱	고령 고종	3년 여묘, 길지안장, 선고의 문집을 찾아 간행, 천거
심기신	沈棋新	농 암 農 庵	청송 고종	효성지극, 친병득어간호, 우애독실
심기홍	沈棋洪	후 송 後 松	청송 고종	효행이 탁이하고 예절엄수, 왕능참봉
심기환	沈棋煥	후 헌 後 軒	청송 고종	효우근친, 지체구양
심능약	沈能略	죽 헌 竹 軒	청송 고종	조실부친, 모친상중여묘, 종신행소
심명섭	沈銘燮	후 남 後 南	청송 순종	천성지효, 정성불패, 지체구양, 상중애휼유제
심상국	沈相國	운 산 雲 山	청송 고종	부인이 왜적에게 피살, 천리반장, 읍혈종상
심상국	沈相國	운 산 雲 山	청송 고종	부친 의병으로 옥중 순직, 읍혈여묘, 종신회치부심
심선택	沈善澤	송 강 松 岡	청송 고종	성도명민, 양지애경, 양친상중 애통극심
심선택	沈善澤	송 강 松 江	청송 고종	가세극빈, 효성지극, 6년 여묘 천거됨
심승택	沈承澤	석 천 石 泉	청송 고종	효우독실, 위선지성, 상장진례, 근검치가
심용택	沈用澤		청송 고종	천성지효, 친병극진간호, 예절엄수, 천거됨
심유대	沈有大	효 당 孝 堂	청송 숙종	사친지효, 가훈계승, 후진양성
심유택	沈渝澤	벽 소 碧 笑	청송 고종	승습정훈, 정성불패, 향리감탄
심유택	沈有澤	백 담 白 潭	청송 고종	성효근친, 부병에 구약, 간호회생
심의복	沈宜卜	효 정 孝 亭	청송 고종	가세극빈이나 극진봉양, 상중 애휼유제
심의석	沈宜奭	인 재 忍 齋	청송 고종	친병백방구약, 열지, 비통기절, 여묘 ※참봉, 효행비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심의중	沈宜宗	간송 澗松	청송 철종	친병축원원대, 상장진례, 향리감탄
심의준	沈宜俊		청송 헌종	출천지효, 6년 여묘, 증; 교관, 효행비
심의준	沈宜俊	백인재 百忍齋	청송 순조	양친상에 6년 시묘중호위, 성묘지성, 증; 교관
심의중	沈宜中	용재 庸齋	청송 고종	효우근친, 효학승습정훈, 교자의방 ※선공감역
심의태	沈宜兌	경재 敬齋	청송 철종	친병지성구양, 혈지, 애통기절희생, 상장진례 ※참봉
심인상	沈仁相		청송 헌종	사친지효, 상중 형과 함께 여묘호위, 증; 통정
심일상	沈一相		청송 헌종	천성지효, 상중여묘호위, 증; 가선
심임택	沈林澤	농암 農庵	청송 고종	효우근친, 부명순종, 근검치가, 교자의방, 향리흠복
심준택	沈準澤	감천 甘川	청송 고종	성효친식, 6년 여묘 종신식소
심준택	沈準澤	초은 草隱	청송 고종	효성지극, 양친 극진봉양, 상중 3년읍혈, 천거됨
심한택	沈瀚澤	모안당 慕安堂	청송 고종	7세때 친상에 조석으로 영위에서 읍혈불금
심현택	沈絢澤	성암 誠庵	청송 고종	성효근친, 정성불패, 지체구양, 향리칭효
심효택	沈敷澤	월송 月松	청송 고종	효행근친, 1일3성, 지체구양, 향리감탄
심훈택	沈勳澤	백헌 柏軒	청송 철종	효행탁월,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안기만	安基萬	사오당 四吾堂	죽산 고종	효성근친, 지체구양, 상장진례, 애절업수
안기용	安基龍	효암 效菴	죽산 고종	성효근친, 사친극효, 위선지성, 종족감복
안기중	安基琮		죽산 고종	효행탁이
안기팔	安基八		죽산 고종	사친이효, 효행탁이
안기홍	安基洪		순흥 고종	양친병환 상분간호, 상중애휼유제 ※교관
안담노	安淡魯		죽산 헌종	조실부모, 평생추모, 추복6년, 증; 이참
안봉운	安鳳胤	용곡 龍谷	죽산 영조	효행이 탁이하여 정려가 내림
안봉환	安鳳煥	예암 禮庵	죽산 고종	천성온후, 지체구양, 상장진례, 향리흠탄
안수성	安秀聖		죽산 헌종	친병에 동생과 상분, 혈지, 상중여묘, 천거됨
안순환	安舜煥		죽산 고종	양친 극진봉양,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안시대	安時大		죽산 고종	효행탁이, 사친지효, 사림흠복
안시화	安時和	애죽당 愛竹堂	죽산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상중애휼유제
안여도	安汝道		죽산 효종	상중애휼유제, 시묘, 종신행소, 천거됨
안여지	安汝止		죽산 효종	효성지극, 상중예절업수, 효행 행장이 있음
안일환	安一煥	호은 湖隱	죽산 순조	천성지효, 정성불패, 친병 혈지, 증; 통정
안제섭	安在燮	시은 市隱	순흥 고종	승습정훈, 효우독실, 양세4효 기적비 건립
안정환	安靜煥		죽산 고종	부병에 밤낮으로 기원, 상중애통하니 감찰증직
안종악	安鍾岳	신암 愼庵	죽산 순조	성자인후, 효행 순독(純篤)
안지민	安志敏		죽산 헌종	효우독실, 시례전가(詩禮傳家)
안지봉	安志鵬		죽산 순조	9세때 양친병에 혈지연명 소생하니 천거됨
안지송	安志松		죽산 순조	효행이 탁이하여 정려와 참판증직
안지양	安志養		죽산 헌종	부병에 작지소생 상중매일성묘 정려가 내림
안지찬	安志燦		죽산 고종	부병9년 백방간호혈지, 애휼유제, 모병윤지득소
안지찬	安志燦	인재 忍齋	죽산 철종	어초봉양, 친병절단 3년축천, 효행비
안지헌	安志憲		죽산 철종	성효가 근친하여 천거됨
안충달	安忠達		죽산 중종	사친지효 어초봉양 효행출전 ※해동삼강록
안항석	安恒錫	양산 洋山	죽산 고종	부친안맹 극진봉양, 상중여묘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안형국	安亨國	덕재 德齋	순흥 철종	지체구양, 상중에훼유제, 성묘지성, 정려
안형권	安馨權	경헌 敬軒	순흥 고종	친병축천원대, 상분구약, 상중여묘, 정려
안형노	安濤魯		죽산 영조	친병상분, 축천원대, 상중에훼유제, 증: 좌승지
안형두	安衡斗		죽산 헌종	친질에 합고 혈지하고 6년 시묘하니 천거됨
양경환	梁景煥	농은 農隱	남원 헌종	7세 부친별세, 편모봉양, 모병상분축두, 득어소생
양관호	梁琯鎬		제주 순종	조실부친, 편모지체구양, 정성불폐
양근	梁 瑾	응암 鷹岩	남원 명종	학행과 효행지극 모병에 혈지 6년 시묘
양명수	梁命壽		남원 숙종	친병에 상분, 혈지, 상중에훼유제, 여묘3년
양문환	梁文煥		남원 고종	부친이 억울하게 체포되자 복수 중 순직
양상식	梁相植		제주 고종	부병작지, 상중여묘, 모병축천원대, 향리흠모
양상신	梁相信	지암 支岩	제주 철종	모병합고, 혈지, 상중여묘, 천거됨
양순석	梁順錫	초은 樵隱		고종 부병에 열지, 반년연명, 6년 여묘
양승균	梁昇均	해강 海江	남원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정성불폐, 친병극진간호
양안석	梁安錫		남원 고종	부친피해 신원설치(伸冤雪恥), 삼강륙
양연석	梁淵錫	초산 樵山	남원 고종	7세에 모친별세, 계모 극진봉양, 효성지극
양원석	梁元錫	망호 望湖	남원 고종	성효근천, 효행탁이, 여러번 천거됨, 효행비
양윤석	梁胤錫	금은 錦隱		고종 모병에 절지연명, 상중에훼유제
양인석	梁仁錫	초산 樵山		고종 모병에 축천원대, 혈지, 상중에훼유제, 동몽교관
양임환	梁琳煥	오헌 梧軒	남원 고종	부병에 혈지완쾌, 모병혈지, 상중에절엄수, 효행비
양제득	梁在得	송헌 松軒	제주 고종	천성이 순후, 양친 극진봉양, 상중에훼유제, 천거
양제홍	梁在洪		남원 고종	부병에 축천기원, 상중에훼유제, 성묘지성, 천거
양주헌	梁柱憲	농은 壘隱	남원 헌종	부병에 혈지 20일연명, 상중여묘, 호조참의증직
양진환	梁進煥		남원 헌종	갑오동란중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양태권	梁泰權	운벽 耘碧	남원 고종	사친지효, 모병에 혈지, 상중에훼유제, 성묘지성
양하환	梁河煥		남원 고종	효행이 탁이하여 정려와 동지돈병부사 증직
어병우	魚秉愚	초산 樵山	함흥 헌종	가훈계승, 부병에 혈지, 양친상중 애훼유제, 여묘
어윤정	魚允正	송파 松波	함흥 고종	모병에 혈지, 부병에 축두상분간호, 6년 여묘
오방진	吳邦鎭		낙안 철종	사친정성, 지체구양, 6년 여묘 ※참봉
오성근	吳盛根	내은 內隱	나주 고종	소암문인, 지체구양, 상장진례, 향리함송
오숙	吳 淑		나주 영조	4세에 부친별세, 모병8년 상분간호
오승섭	吳承燮		보성 철종	천성지효, 친병열지, 상장진례 ※감찰
오시근	吳時瑾	효우당 孝友堂	낙안 헌종	친품이 순효, 친병극진간호, 예절엄수, 천거됨
오영규	吳盈圭	사호 沙湖	나주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상장진례
오영동	吳泳莛	정죽 庭竹	낙안 고종	천성지효, 어초봉양, 지체구양, 천거됨
오영수	吳泳狩	연당 蓮塘	낙안 고종	효행근천, 부병 3년 상분, 축두, 조석성묘지성
오원석	吳原石		낙안 고종	천성지효, 사친지체겸양, 상장진례, 천거됨
오유진	吳裕鎭		낙안 철종	지체겸양, 상중에훼진례, 종신행소 ※교관
오응추	吳應樞		해주 순조	추복여묘, 정려와 이참증직(3세에 부친 별세)
오재용	吳在容	강산 江山	나주 고종	봉양극성, 지체겸양, 상장진례
오준선	吳准善	낙은 樂隱	낙안 고종	모병혈지연명, 상중에훼유제, 정자건립
오진의	吳震儀	은재 隱齋	낙안 영조	부병극진간호, 혈지연명, 정려와 이조참의 증직

성 명		호		본관	왕조	참 고 사 항
유규근	俞奎根			기계	고종	성효근친, 정성불패, 지체겸양 ※감찰
유길식	俞吉植	용 호	龍 湖		고종	천성지효, 상중시묘(참봉)
유길환	俞吉桓			기계	고종	편모지체겸양, 모병20년 극진간호 상중읍혈
유승준	俞承濬			기계	고종	효행탁이, 여묘중에 호위 ※참봉
유시윤	俞時允	소 압	小 庵	강릉	고종	효행탁이, 오치오사(五致五思)종신여행, 증, 통정
유익준	俞益濬			기계	헌종	친질에 설리구육봉친 ※도정
유인식	俞仁植	성 와	省 窩	기계	고종	천성이 지효, 친병에 축친원대, 상중 성묘지성
유인준	俞仁濬			기계	고종	사친지효, 친병에 작지, 상중읍혈3년
유정열	俞正烈	청 재	淸 齋	강릉	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상중읍혈3년
유진봉	俞鎭鳳	농 산	農 山	기계	헌종	모병에 혈지 회생, 양친상 애훼유제
유치대	俞致大			기계	정조	친병 수차 극진간호 회생, 증; 호참
유치례	俞致禮	용 압	龍 庵	기계	순조	품성이 정직하고 양친 극진봉양, 예절엄수, 천거
유치팔	俞致八			기계	헌종	성품순독, 성효출친, 지체구양
유홍식	俞洪植	후 송	後 松	기계	고종	조실부친, 모병극진간호, 작지주혈 3일연명
유홍준	俞洪濬			기계	고종	친병에 혈지, 상중여묘 ※감찰
윤고연	尹皐淵	운 곡	雲 谷	파평	헌종	양친 극진봉양, 상중3년 벽통애곡
윤광도	尹光道	성 재	誠 齋	파평	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상중애훼유제, 천거됨
윤광서	尹光瑞			파평	숙종	친병에 혈지, 시묘하니 동명을 효동이라함
윤광적	尹光績			파평	숙종	성효출친, 가세극빈, 어초로 극진봉양, 천거됨
윤광적	尹光績			파평	효종	가세극빈이나 효성이 출친하여 천거됨
윤군병	尹君炳			파평	고종	본성지효, 부모극진봉양, 친병극진간호
윤남병	尹男炳	초 은	樵 隱	파평	고종	천성이 순효하여 부병에 작지, 3일연명
윤도진	尹道鎭			파평	정종	성효가근친, 부모봉양과 예절을 엄수하니 천거
윤동진	尹東鎭	운 재	雲 齋	파평	고종	가세극빈, 극진봉양, 친병극진간호, 상례엄수
윤두성	尹斗成	월 당	月 堂	파평	고종	부병5년 극진간호, 상중애훼, 상망곡묘
윤 모	尹 摸			파평	정종	모병득어봉양, 3회단지 성묘지성, 효자교가 생김
윤병근	尹炳根			파평	고종	어초봉양, 정성불패, 친병에 작지, 여묘, 천거
윤병남	尹炳南			파평	고종	가세극빈, 고용봉친, 부병에 절지, 효행비
윤봉진	尹奉鎭	죽림재	竹林齋	파평	헌종	성효근친, 친질에 축친원대, 상중여묘, 천거
윤상경	尹相京	고 산	高 山	파평	고종	천성인효 10세 부친 별세, 애통극심, 편모 극진봉양
윤상기	尹相璣			파평	고종	친질에 축친원대, 할고봉친
윤상삼	尹相三	난 파	蘭 坡	파평	고종	양친 극진봉양, 친질에 축두기원, 상중읍혈
윤상신	尹相信			파평	고종	부모 극진봉양, 친병에 혈지 3일연명, 천거됨
윤상오	尹商五			파평	정종	성효가 근친하여 상중여묘하니 천거됨
윤상욱	尹相郁			파평	고종	양친상중 식소6년, 예절 엄수하니 천거됨
윤상찬	尹相燦	신 재	愼 齋	파평	헌종	조실모친, 부친 극진봉양, 상중여묘
윤상채	尹相彩			파평	철종	천성지효, 승습정훈, 종신행소, 세칭세효가문
윤상효	尹相孝	임 석	林 石	파평	고종	모병에 축친원대, 상분간호, 상중 읍혈3년
윤석언	尹碩彦			파평	순조	효행탁이 정려와 호참증직
윤 선	尹 瑄			파평	숙종	가세극빈, 양어극진봉친, 상중예절엄수, 증;호의
윤 선	尹 禔			파평	영조	효우순지, 상중곡통기절회생, 성묘지성, 천거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윤성립	尹誠立		파평 선조	임란에 부모원수를 갚으려다가 체포됨 충효비
윤성병	尹聖炳		파평 현종	부병에 작지하고 상중읍혈 3년하니 천거됨
윤성언	尹聖彦		파평 철종	미성년에 친병작지하고 상중애훼 천거됨
윤성제	尹聖濟		파평 효종	효행과 우애독실, 학행이 당세에 떨쳐 천거
윤수채	尹受埰		파평 영조	효성이 지극하고 70세때 여묘 호곡하니 천거
윤술	尹述	취헌 醉軒	파평 숙종	친절에 축단기원, 신이 인삼을 주어 봉친하니 회생
윤양중	尹良重	삼정 三亭	파평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상중여묘, 천거됨
윤양철	尹亮喆		파평 정종	어려서 모친병에 읍혈 득어간호 회생하여 천거
윤오진	尹五鎭		파평 순조	가세극빈, 양친극진봉양, 효우문행으로 당세의사표
윤용식	尹勇植	매와 梅窩	파평 고종	효우독실, 사친지성, 당세의 덕망인
윤월중	尹鉞重		파평 고종	부병 3년 상분 극진간호, 예절엄수
윤유검	尹有儉		파평 영조	시묘중 벌레떼가 심하자 참새떼가 와서 도움
윤이병	尹二炳	준당 遵堂	파평 고종	부병극진간호, 상중애훼 매일 성묘지성, 천거
윤인병	尹仁炳	덕암 德菴	파평 고종	성효출친, 상중애훼유제, 6년 여묘
윤일병	尹一炳	수우 守遇	파평 고종	지체구양, 부병극진간호, 상중애훼, 성묘지성
윤일심	尹逸心		파평 정조	친성지효, 친병득어간호 회생, 천거됨
윤자경	尹滋鯨	창은 滄隱	파평 고종	가세극빈 양친극진봉양, 상중읍혈
윤자담	尹滋聃		파평 철종	12세때 모병에 작지 주혈소생하니 천거됨
윤자동	尹玆東		파평 현종	70세때 상중행소 종신여묘하니 천거됨
윤자윤	尹滋允		파평 고종	친병축천원대, 상분 열지, 상장진례, 향리감탄
윤자익	尹滋益	우송 友松	파평 고종	친성지효, 당세의 문장으로 향중 흠복
윤자인	尹滋麟	우재 愚齋	파평 고종	면암문인, 양친상중 6년 여묘, 효행비
윤자일	尹滋逸	월계 月溪	파평 철종	성효근친, 지체겸양, 성묘지성, 천거됨
윤자천	尹滋千		파평 고종	효행이 탁이하고 양친 극진봉양
윤자호	尹滋浩	성곡 星谷	파평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후진양성 천거됨
윤자호	尹滋濤	초산 樵山	파평 고종	후석문인, 효우탁월, 상중여묘, 효행비
윤정진	尹政鎭		파평 현종	상중벽통, 예절엄수, 매일성묘 애곡
윤제민	尹濟民	삼정 岑鼎	파평 효종	우암문인, 현감사직, 친상에 예절엄수, 불취관직
윤주철	尹周喆		파평 경종	모친종기를 윤지득효, 상중시묘, 천거됨
윤준양	尹俊良		파평 현종	3부자와 조카가 시묘하니 현감이 4효동이라 칭함
윤지망	尹之望		파평 선조	절의(節義)와 효행이 겸비하여 예천
윤지임	尹之任		파평 선조	등과후 연속부모상, 6년 미죽거려(糜粥居廬)
윤철성	尹哲成	치당 恥堂	파평 고종	3세 모친별세, 부친 상중애훼유제, 효행비, 유허비
윤치헌	尹致獻	매촌 梅村	파평 현종	연재문인, 양친극진봉양, 경술옥사에 읍혈통곡
윤태길	尹泰吉	묵헌 默軒	파평 고종	친성온후, 효행독실, 부병극진간호, 성묘지성
윤태중	尹泰重		파평 고종	조부병에 상분혈지, 상중 3년행소, 천거됨
윤택상	尹宅商		파평 현종	시묘중호위, 성묘지성, 천거됨
윤택진	尹澤鎭	금남 錦南	파평 순조	홍매산문인, 친병상분, 할고, 상중여묘, 증; 호참
윤행덕	尹行德	운암 雲庵	파평 순조	모병에 축천원대, 정려가 내림
윤헌	尹憲		파평 숙종	3세 부친별세, 편모 극진봉양, 3년 여묘, 증;가선
윤현식	尹炫植	현재 弦齋	파평 현종	8순에 친상을 당하여 상중매일성묘, 천거됨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윤현철	尹賢喆		파평 현종	친병에 설단축두, 소생하니 효심이 감천하다
윤홍침	尹弘琛		파평 순조	친병에 축천구약, 극진간호, 상중애혜유제
윤화명	尹華鳴	국파 菊坡	파평 영조	동산문인, 부병할고, 모병작지, 6년 여묘 ※부호군
윤황	尹 越		파평 숙종	성효출천, 사친극효, 임금부판사 증직
윤후진	尹厚鎭	다정 茶亭	파평 고종	부모 봉양 극진, 상중 애혜유제
이갑헌	李甲憲	농헌 農軒	함평 고종	조실부친, 형과 함께 편모 극진봉양, 위선지성
이건순	李建淳	죽산 竹山	전주 고종	지체구양, 상장진례, 삼강록
이건영	李建英		전주 고종	천성지효, 정성불패, 상장진례, 천거됨
이건운	李建雲	운석 雲石	전주 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3년 여묘, 효행기적비
이건표	李建杓		전주 고종	사친지효, 정성불패, 향리흠탄, 천거됨
이건행	李建行		전주 고종	사친지효, 세칭출천지효자, 천거됨
이경관	李慶觀		함평 경종	사친지효, 6년 여묘, 천거됨
이경오	李景午		양성 영조	효성이 지극하여 6년 시묘하니 천거됨
이경헌	李敬憲		함평 정조	천성순효, 10세 부친 종기연지, 상중여묘호위, 천거
이경헌	李警憲		함평 고종	효행이탁이, 정여가 내리고 조봉대부 증직
이경희	李璟喜	송계 松溪	광주 고종	가훈계승, 사친지효, 친병할고 수일연명
이계달	李啓達		함평 현종	천성지효, 친병에 할고, 3년 여묘, 천거됨
이계삼	李啓森	계곡 桂谷	함평 철종	모병상분혈지, 상중애혜유제, 종신행소
이계상	李啓祥		함평 고종	정성불패, 지체구양
이계서	李桂緒	소산 小山	함평 현종	문행으로 참봉, 부병에 2회단지, 상중3년 여묘
이계선	李啓善		함평 순조	술성효순, 모병단지 3일연명, 향리종족합칭
이계선	李啓先	야은 野隱	함평 고종	사친극효하고 상중애혜유제
이계성	李啓性	월봉 月峰	함평 고종	천성이 지효, 친병극진간호, 덕망가
이계순	李啓珣		함평 현종	친병열지연명, 상중예절엄수, 학문이 뛰어남
이계양	李啓亮		함평 철종	7세 부친상 애혜읍혈, 8세 모친상 애혜유제, 증;통정
이계엽	李啓曄	후봉 後峰	공주 정조	편모지체구양, 상중여묘, 문예숙취, 증; 좌승지
이계완	李啓琬	자경당 自警堂	함평 현종	천성지효, 모병혈지, 상중여묘, 종신행소, 효행비
이계용	李啓龍		함평 고종	11세때 모병단지, 상중여묘, 주야읍혈, 종신행소
이계우	李啓友	농암 壘岩	함평 순조	근친지효, 친병열지주혈회생
이계원	李啓瑗		함평 고종	부병열지, 상중애혜유제, 3년 여묘, 종신행소
이계인	李啓寅	야은 野隱	함평 철종	사친지효, 친병축천기원, 상중애혜유제, 증; 통훈
이계종	李啓宗		함평 고종	사친지효, 문행겸비, 증;승지
이계충	李啓充	성암 省庵	함평 순조	효성지극, 승습정훈, 지체겸양, 종족합칭
이계현	李啓炫	시은 市隱	함평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상장진례, 성묘지성
이계형	李啓滢	고은 鼓隱	함평 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상장진례, 천거됨
이관서	李觀緒		함평 순조	친병에 설단축천하고 상중여묘하니 천거됨
이광헌	李匡憲		함평 순조	효행이 출천하여 정려와 가선대부 증직
이구로	李龜老		함평 현종	조실부모하여 회갑때 추복여묘하니 천거됨
이규채	李圭彩	송헌 松軒	경주 현종	친절에 상분 작지, 축두읍혈, 상중애혜유제
이규택	李圭澤	성암 省庵	경주 고종	효봉양모, 지체구양, 정성불패
이규현	李圭現		경주 고종	천성순진, 지체구양, 우애독실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이규환	李奎煥		합평 철종	친병10년 축천구육봉친, 상중여묘, 증; 호참
이규환	李奎煥	지암 智庵	합평 순조	친병10년 그친간호, 득어봉친하니 천거됨
이근범	李根範	죽포 竹圃	합평 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정성불패, 위선, 종족홍복
이금범	李金範	우당 友堂	합양 고종	부모 극진봉양, 우애독실, 위선지성, 군수표창
이급우	李及愚		경주 순조	효우지극, 학문이 고명하여 정려와 교관증직
이기범	李箕範	만오 晩悟	합평 고종	성효친식, 편모지체구양, 상장진례, 향리감탄
이기서	李淇緒		합평 현종	가세극빈경초(耕樵)봉양, 상중애휼유제, 증, 가선
이기중	李起中	농산 農山	전주 고종	부병에 구약 극친간호
이기찬	李基燦		경주 현종	친병에 혈지하고, 상중여묘하니 천거됨
이기현	李麒憲		합평 철종	성효근친, 3년 여묘, 예절엄수, 증; 가선
이길현	李吉憲	계은 桂隱	합평 순종	효봉양모, 상중애휼유제, 성묘지성
이길현	李吉憲		합평 현종	친병에 혈지, 상중곡통과애, 3년행소, 증; 통정
이달규	李達奎		경주 현종	효행이 탁이하여 예랑증직
이대년	李大年	운당 雲堂	합평 숙종	효우독실, 종족돈목, 효행비
이대함	李大咸	죽사 竹史	합평 영조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우애독실, 증; 호참
이덕인	李德仁	죽담 竹潭	합평 인조	효성극친, 우애독실, 상장애절엄수, 공조참의 증직
이돈근	李敦根	석화 石花	합평 철종	지체구양, 양모병에 상분혈지, 상중진애, 천거
이돈명	李敦明	애죽당 愛竹堂	합평 정종	사친이 지효하여 천거되고 한성판윤이 증직
이돈보	李敦甫		합평 정종	성효출친, 친질에 축천원대, 혈지소생 천거
이돈생	李敦生		합평 철종	효행이 탁이하여 통정대부 증직
이돈석	李敦錫		합평 영조	양친극진봉양, 상중애휼유제, 여러번 천거됨
이돈섭	李敦燮		합평 현종	성효근친, 양친극진봉양, 예절엄수, 천거됨
이돈수	李敦洙	모당 慕堂	합평 철종	성효근친, 지체겸양, 양친상중 극진예제 ※감찰
이돈수	李敦秀	양은 陽隱	합평 순조	친성순후, 양친극진봉양, 예절엄수, 증; 통정
이돈오	李敦五		합평 순조	모친상에 애휼유제, 부친상에 여묘 천거됨
이돈우	李敦友		합평 호종	재덕이 겸전하고 효우독실하여 천거됨
이돈율	李敦律	구계 龜溪	합평 철종	조실부모 종신지한, 죄인자처, 삭망성묘지성, 수; 가선
이돈진	李敦振		합평 고종	효봉양친, 극친성경, 상중애휼유제 ※가선
이돈찬	李敦燦		합평 고종	친성지효, 친병설중 득어봉친, 증; 호판
이돈천	李敦千		합평 고종	효봉양친, 정성불패, 어초봉양, 상중성묘지성
이돈팔	李敦八	후송 後松	합평 영조	효행으로 천거되고, 문학 저명하여 문집이 있음
이돈표	李敦杓		합평 철종	친병단지, 상중여묘, 효행비, 증; 통정
이돈한	李敦翰		합평 순조	9세때 부친 중기 연지소생, 모병에 득어간호, 천거
이돈향	李敦享	송와 松窩	합평 현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여러번 천거됨
이돈향	李敦香		합평 현종	친성순효, 모병에 상분, 상중애휼유제, 천거됨
이돈화	李敦華	후암 後庵	합평 고종	친질에 축천원대, 부친상중애휼유제, 위선지성
이돈화	李敦華		합평 순조	부모양친상에 6년식소, 종신행소하니 천거됨
이돈환	李敦煥		합평 고종	친병축천기두, 백방구약간호, 상중여묘, 천거
이돈후	李敦厚		합평 순조	모친상에 예를 다하고 부친 극진봉양하여 천거
이동권	李東權	남일당 南一堂	합평 철종	친병중 눈속에서 고기와 죽순을 구해드림, 증; 교관
이동선	李東瑄	일정 一亭	전주 고종	부병에 축천원대, 활역, 천거됨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이동섭	李東燮	지곡 芝谷	고성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상중읍혈 3년행소
이동신	李東新		함평 효종	6년 시묘, 효성지극, 이조참의 증직
이두연	李斗淵		전주 철종	부병백방간호, 상분축전, 상중애혜유제, 명륜록
이두헌	李斗憲		함평 고종	양부모 극진봉양, 상중애혜유제, 3년행소, 천거
이두환	李斗煥	죽암 竹庵	함평 고종	효우독실, 위선지성, 당세문장, 사림추앙, 천거
이득서	李得緒	석촌 石村	함평 정조	천성지효, 양친상중 예절엄수, 성묘지성
이득서	李得緒		함평 헌종	조부병환에 작지 소생하니 천거됨
이로	李 輅		함평 선조	효행이 특이하여 참봉이 됨
이만중	李萬重		광주 영조	친절에 할고, 단지, 상중애혜유제, 여묘식소, 천거
이매영	李邁齡		함평 인조	친병에 혈지 3일연명 천거됨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이맹석	李孟錫		전주 영조	천성지효, 어초봉양, 혈지, 여묘, 증;승지
이민도	李敏道		함평 숙종	효우근친, 사친극효, 예절엄수, 종신행소, 천거
이민만	李敏滿	은파 隱派	함평 고종	효행탁월, 지체구양, 상중애혜유제
이민성	李敏性	청계 聽溪	함평 고종	효행탁이, 상중예절엄수, 천거됨
이민우	李玟愚		경주 고종	효행이 탁이하여 정려가 내림
이민학	李敏學		함평 고종	효우출친, 어초공양, 상장진례, 증; 가선
이민환	李敏煥	지산 止山	함평 고종	효성지극, 6년 여묘, 성묘지성 매일곡묘
이방서	李邦緒	추파 秋坡	함평 철종	조실부친애휼, 편모지체구양, 상중애혜유제, 수;증추
이배인	李培仁	장육당 藏六堂	함평 효종	친절극진간호, 여묘, 학행, 관직사양
이백제	李栢齊		경주 숙종	6년 시묘증호위, 참새떼가 여막을 지켜줌, 천거
이병국	李炳國	야은 野隱	광주 고종	가훈계승, 학자,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이병헌	李炳憲	술재 術齋	함평 고종	천성지효, 부모 극진봉양, 위선지성
이복헌	李福憲		함평 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상장진례, 천거됨
이상신	李相信	도산 島山	고성 헌종	효성근친, 양친극진봉양, 3년 여묘, 효행비
이상윤	李尙潤		함평 고종	10세 모친상 애혜유제, 효행탁이, 천거됨
이상진	李相陣		고성 고종	승습정훈, 양친상중, 예절엄수, 성묘지성
이서윤	李緒胤		경주 효종	효성과우에 독실, 예조좌랑이됨
이석범	李奭範		함평 고종	모병수년 축친구약간호, 작지, 성묘지성, 효행비
이선범	李璿範	죽취 竹翠	함평 고종	성효근친, 친병수년 극진간호, 열지 수일연명
이성린	李聖隣	영추재 永追齋	함평 숙종	친생이 지효, 3년 시묘하여 천거됨
이성백	李成栢		전주 고종	효성순지, 어초봉양, 상장진례
이성신	李成信		전주 경종	효성근친, 극진봉양, 상례엄수, 성묘지성
이성춘	李聖春		전주 정조	효행탁이, 7세 부친상 애통극심, 모친상 3년 여묘
이성춘	李聖春		전주 고종	모병에 형과 함께 상분할고, 상중여묘, 천거
이성헌	李成憲		양성 명종	천성지효, 양친상중 6년 여묘, 정려
이세철	李世喆		경주 헌종	천성이 인효하고 양친을 극진봉양하니 천거
이수남	李綏男		함평 선조	부친순절 노량출전복수, 수의(繡衣)포상 증; 판관
이수발	李綏發		경주 효종	부친묘소 암반이 안뚫리니 3일 호곡안장, 효행비
이수효	李壽孝		함평 정조	친절에 상분, 극진간호, 상중 시묘하니 천거됨
이습	李 習	효우 孝友	함평 세종	효성지극 관직 사양 사당과 효자비, ※해동삼강록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이시방	李時芳		경주 고종	사친지성하고 조석성묘 호곡하니 감찰증직
이신구	李信九	성현 省軒	전주 현종	가세극빈, 고용봉친, 애혜유제, 성묘지성, 효행비
이양	李壤		함평 선조	7세때 모병 죽친원대, 예절엄수, 동리를 효리라 칭함
이양서	李陽緒	후은 後隱	함평 고종	사친지효, 상장진례, 종신행소, 향리추증
이양신	李良信	명산 鳴山	고성 고종	천성인자, 지체구양, 상중예절엄수
이양철	李亮喆	죽우 竹禹	함평 영조	효우순지, 가훈계승
이연운	李縝運		함평 숙종	가훈계승, 효행이 감천하여 천거됨
이연종	李延宗		경주 선조	효행이 탁이하여 참봉이됨
이영섭	李永燮	우당 友堂	고성 고종	설중에 죽순과 고기를 구하여 봉친, 상중읍혈3년
이영섭	李英燮	송정 松亭	전주 정조	천성순효, 사친지효, 성리학자
이영헌	李永憲	금현 琴軒	함평 철종	친병상분혈지, 상중여묘, 종신행소 ※삼강록
이옥범	李玉範	계산 桂山	함평 고종	조실부친, 편모병환 친리 구약 간호 수년 연명
이온	李璫		양성 숙종	효성이 출천하여 시묘하니 천거됨
이용헌	李龍憲		함평 현종	효성친식, 양친극진봉양, 예절엄수, 종신행소, 천거
이우명	李宇明		함평 효종	효행이 탁이하여 예조좌랑 증직
이우범	李佑範	한천 寒泉	함평 고종	편모 극진봉양, 우애독실, 상장진례 ※중추
이운범	李潁範	호은 湖隱	함평 고종	효우문학겸비, 친병, 수차 극진간호, 상장진례
이위범	李胃範	동강 東岡	함평 고종	상중 행소 3년, 위선지성
이유근	李儒根	청호 淸湖	함평 고종	8순양친, 지체겸양, 상장진례, 예절엄수 ※통훈
이유기	李儒琦		함평 현종	모병에 실단축천, 구육간호회생, 천거됨 ※가선
이유문	李儒文		함평 영조	효행이 탁이하여 여러번 천거됨
이유상	李儒相	효암 孝庵	함평 영조	참봉, 효우근친, 독지가 ※효남지
이유상	李儒商		함평 정종	부병에 동생과 혈지, 모병에 혈제할고, 시묘천거
이유선	李儒先	죽은 竹隱	함평 고종	가세극빈이나 양친극진봉양, 상중여묘, 천거
이유신	李儒信	송암 松庵	함평 순조	양친극진봉양, 상중 6년 시묘
이유응	李儒應	명암 明菴	함평 영조	승습정훈, 효우겸비, 6년 여묘, 종신행소, 천거
이유의	李儒顥		함평 정종	효우가 독실하여 통정대부 증직
이유진	李儒辰		함평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3년 여묘 ※도정
이유찬	李儒贊		함평 순조	친절에 상분간호하고, 혈지소생하니 천거됨
이유팔	李儒八		함평 현종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이유현	李儒賢		함평 정종	지성으로 양친봉양, 상중시묘하니 승지 증직
이유현	李儒賢		함평 영조	어려서 지성으로 득어봉친하고 시묘중 호위
이유호	李儒灝		함평 경종	효출천성하여 예조참의 증직
이윤덕	李潤德		함평 중종	부병단지, 정려 ※해동삼강록
이은술	李殷述	은농 隱農	광주 철종	천성지효, 친병축천기원, 상중애혜유제, 증; 통훈
이응국	李應國		함평 정조	지체구양, 여묘호위, 마을이름을 효동, 사복정
이의명	李義明	애현 愛軒	전주 현종	효성지극, 부병득어간호, 3일연명, 상중여묘
이의복	李義復		함평 영조	부친상중여묘, 송충극심 산제3일 송충소멸, 천거
이의정	李依楨	남애 南崖	함평 중종	관직불취 이퇴계선생이 “군자효”라 칭찬함
이의제	李依堤		함평 중종	효행지극 관직불취 3년 여묘, 예천
이의훈	李義勳		경주 효종	효행이 탁이하여 호조참의 증직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이이재	李爾裁		함평 중종	부병에 할고간호, 시묘 정려 ※해동삼강록
이인서	李人緒		함평 현종	모병에 작지 소생하고 당세의 문장으로 천거
이장헌	李章憲		함평 현종	부병에 상분, 모병에 작지, 상중에휼유제, 천거
이재명	李載明	화암 和庵	공주 현종	효행탁이, 지체구양, 친병혈지, 상장애절업수
이재서	李在緒	연호 蓮湖	함평 영조	정성불패, 예절업수, 문학검비, 천거됨
이재석	李載奭	양재 養齋	함평 고종	지체구양, 상중 성묘지성, 세칭 효자로(孝子路)
이재용	李載庸	동산 東山	함평 고종	지체구양, 불행 조세
이재직	李再直		함평 영조	조부가 화를 입자 수년간 탄원 명원(鳴冤) 천거
이재춘	李載春		함평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상중 예절업수
이재행	李堤行	성헌 誠軒	함평 고종	친병상분열지, 상중에휼유제, 천거됨 ※참봉
이재헌	李在憲		함평 고종	효우검비, 양친상중 예절업수, 종신행소
이재헌	李在憲		함평 고종	효행이 탁이하여 여러번 천거됨 ※통정
이재후	李載厚		함평 현종	천성순효, 부병3년 극진간호, 상중에휼유제, 천거
이정렬	李挺烈		함평 고종	효성근친, 부병에 작지, 모병에 상분간호, 효행비
이정범	李正範	청파 靑坡	함평 고종	효우독실, 조실부모, 장형을 부모같이 섬기니 향리 감탄
이정직	李廷稷		함평 영조	효행이 탁이하여 여러번 천거됨
이정환	李庭煥		함평 경종	친병에 상분, 혈지, 천거됨, 삼강록
이종구	李鍾九	후봉 後峰	우봉 순종	효성탁이, 부병열지 할고, 상중에휼유제, 천거
이종범	李宗範	갈은 葛隱	함평 고종	효우근친, 지체겸양, 상장진례, 종신행소, 천거
이종석	李鍾奭	양재 養齋	함평 고종	부모 극진봉양, 상중 성묘 지성, 군수표창
이종승	李鍾承		고성 고종	양친 극진봉양, 상중행소, 예절업수
이종영	李宗榮	효당 孝堂	양성 고종	효성탁이, 정성불패, 지체구양
이종윤	李宗潤		양성 순조	부병에 혈지하고 아들 또한 상분혈지하니 천거
이종하	李鍾河	만산 晩山	함평 고종	천성이 효우, 부병에 작지 연명(대동면장 역임)
이주백	李周白	송정 松亭	전주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상중읍혈3년
이중영	李仲榮	송암 松岩	경주 고종	효우근친, 친병극진간호, 상장진례, 천거됨
이지범	李志範	송파 松坡	함평 순조	친절에 열지독소, 상중에휼, 매일곡묘, 천거됨
이지섭	李枝燮	석정 石亭	전주 순조	양친상중 벽통, 성묘지성, 성리학자
이진구	李鎭求		전주 영조	효우순진, 양친극진봉양, 상중에휼, 여묘, 증; 공판
이진문	李振門		함평 선조	관직사직, 상중식소, 읍혈 효행비
이진서	李鎭緒		함평 순조	친병에 할고, 열지하고, 상중여묘, 가선대부 증직
이진열	李晉悅		함평 순조	조실부모가 한이 되어 성년이 된 후 7년 시묘, 천거
이집홍	李集弘		경주 철종	친절에 할고 봉친하고 상중여묘하니 천거됨
이창범	李昶範	동파 東坡	함평 고종	천성효우, 위선지성, 종족돈목, 기적비 ※감찰
이창성	李昌成		경주 영조	부병에 연이어 5지단지, 모병특어간호 자헌증직
이창우	李昌雨	야은 野隱	경주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상중에휼유제
이창윤	李昌潤	효헌 孝軒	경주 숙종	친병에 들어 간호하여 천거됨, 효행비
이창헌	李昌憲	농은 農隱	함평 철종	편모 50년 어조봉양, 상장애절업수, 종신행소, 감찰
이춘범	李春範		함평 고종	정성불패, 부병축친원대, 상중에휼유제, 천거
이충례	李忠禮		함평 선조	부병에 절지할고 간호시묘 3년, 효행으로 예조정랑
이충옥	李忠沃		함평 선조	정유란에 부친 대신 죽으려 하니 왜적이 감탄 석방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이태원	李泰元		양성	숙종	친상에 6년 시묘, 자·손 3대효자 가문으로 천거
이태헌	李泰憲	계현 桂軒	합평	고종	친성순효, 승습정훈, 교자의방, 향리감탄
이택헌	李澤憲	송은 松隱	합평	고종	효행탁이
이팔운	李八運		합평	영조	14세에 부병간호, 상중여묘, 식소, 천거됨
이한명	李漢明		합평	효종	친병에 단지하니 장령이 증직됨
이한서	李漢緒		합평	고종	효행특이, 우애독실, 상중식소, 성묘지성, 천거
이항범	李項範	강정 江亭	합평	고종	효성근친, 조실부친 편모지체구양, 정성불패, 향리칭송
이향순	李香淳	송정 松亭	합평	순종	성효근친, 지체겸양, 정성불패, 종족화목
이호범	李昊範	농포 農圃	합평	고종	복성정훈, 효행탁이, 정성불패
이홍률	李弘瑬		합평	영조	상중시묘, 행소3년
이홍범	李洪範	월담 月潭	합평	철종	사친지효, 설중득어봉양, 상중에휼유제, 길지안장
이홍서	李洪緒		합평	순조	상중에휼유제, 3년여묘하고 종신식소
이화범	李和範		합평	고종	관직(동북군수) 사직, 상중에휼3년, 천거됨
이효서	李孝緒		합평	헌종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이희복	李熙福		성주	고종	효봉양친, 정성불패, 상장진례, 향리수범
임근택	林根澤		나주	고종	친병상분할고단지, 상중여묘, 묘조자고, 천거
임근호	任謹鎬		풍천	고종	지체구양, 지병극친간호, 성묘지성 ※참봉
임대현	任大賢		풍천	영조	모병에 할고봉친하고 시묘하여 천거됨
임두옥	林斗玉	계은 溪隱	나주	고종	어초공진, 친병극친간호, 상중읍혈 여묘
임만상	任萬常		풍천	영조	효행이 탁이하여 증; 가선, 복호, 정려
임민호	任敏鎬		풍천	고종	사친지성, 지체겸양, 상중에휼유제
임백규	林白圭		나주	고종	친병축친원대, 상중식소, 성묘슬처성감, 천거
임병묵	林炳默		나주	철종	친병구약간호, 상중에휼유제, 슬처성감, 증; 가선
임성재	任誠宰		풍천	순종	효성친식, 승습정훈, 정성불패, 지체구양
임양호	任良鎬	학산 鶴山	풍천	고종	정성불패, 지체구양, 교자의방, 향리찬탄
임용호	任龍鎬		풍천	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상중에휼에절엄수
임종량	林鍾良	둔현 遁軒	나주	철종	부병작지주혈, 상중여묘, 종신행소
임종량	林鍾良		나주	고종	조실부친애휼, 모병혈지, 상장진례 ※통정
임종만	林鍾萬	농은 農隱	나주	고종	부병에 작지, 상중에휼유제, 종신성묘지성
임종명	林鍾明		나주	고종	조실부모 성묘지성, 종신행소, 천거됨
임주호	任柱鎬		풍천	고종	모병 상분 축친원대, 상중 3년행소 ※의관
임직호	任直鎬	경현 敬軒	풍천	고종	성효친득, 지체구양, 상장진례, 향리흠복
임찬상	林贊相	금현 錦軒	나주	헌종	승습정훈, 효행독실, 80노모정성불패, 문학겸비
임창성	任昌成		풍천	정종	혈지할고하니 천거됨
임현준	任現準		풍천	철종	모병상분, 읍혈3년, 추복3년, 천거됨
임효한	林孝漢		나주	헌종	친병에 할고봉친, 상중여묘 호위하니 천거됨
임흥준	任興準		풍천	순조	성효근친, 친병에 혈지 3일 연명
장건식	張健植	후암 後庵	인동	고종	사친극효, 문행겸비, 상중에휼유제
장경식	張經植	성재 誠齋	인동	철종	지체구양, 우애독실, 상중여묘
장구영	張龜齡	우산 于山	인동	숙종	모병에 단지, 3년 여묘, 통정대부 증직
장규석	張奎錫	남경 南警	인동	정조	효행탁이, 양친극친봉양, 친병에 단지, 천거, 동추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장규환	張奎煥		인동 철종	어초봉양, 6년 여묘, 종신행소, 향리감탄, ※참봉
장기택	張基澤	죽파 竹坡	인동 고종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 극진봉양
장낙석	張洛錫		인동 고종	모병9년상분간호, 상중에휼유제, 천거됨
장대규	張大圭		인동 고종	편모 극진봉양, 모병극진간호, 증; 통정
장대섭	張大涉	농은 農隱	인동 순조	모병에 읍혈 추천원대, 혈지, 상중 예절업수
장도기	張度基		인동 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상중에휼유제, 천거됨
장두영	張斗永	우당 愚堂	인동 철종	경초봉양, 국홀에 빈민구제 ※선공감역
장만식	張萬植	수당 修堂	인동 고종	6세때 부친별세, 모병 극진간호, 종신성묘 지성
장맹수	張孟洙		인동 고종	부병에 득어봉친, 단지연명, 상중 예절업수
장맹열	張孟烈	후파 後坡	인동 고종	성효근친, 어초봉양, 상중에휼유제, 매일성묘지성
장명식	張明植	죽헌 竹軒	인동 현종	부병에 추천원대, 상중여묘, 천거됨
장명식	張明植	죽헌 竹軒	인동 철종	자질타이, 지체구양, 6순 상중 읍혈 3년
장문택	張文澤	현재 玄齋	인동 철종	승습정훈, 효우타이, 종족돈목, 천거됨
장병윤	張炳允	남은 南隱	인동 고종	모병에 축단기두, 상중에휼유제 ※참봉
장복식	張福植	지산 芝山	인동 고종	천성온후, 친병극진간호, 상중읍혈3년, 천거됨
장봉식	張鳳植	전은 田隱	인동 고종	성현문인, 효봉양친, 위선지성, 양친상중 6년행소
장봉환	張奉煥	만헌 晩軒	인동 고종	부병작지연명, 상중에휼, 여묘종상 ※동몽교관
장석한	張錫漢		인동 인조	10개월만에 부친별세, 8세에 추복, 증추가됨
장승열	張承烈	후은 後隱	인동 고종	천성지효, 정성불패, 지체구양, 상장진례, 세칭효자
장영상	張泳相		인동 고종	가세극빈, 지체구양, 상중에휼유제, 천거됨
장영철	張永喆	춘파 春坡	인동 고종	성직행덕, 승습정훈, 효봉양친, 향리감탄
장영택	張榮澤	송은 松隱	인동 고종	효우타이, 문학검비 ※참봉
장완중	張琬鍾		인동 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상중에휼유제, 천거됨
장우한	張宇翰		인동 숙종	천성지효, 사친극효, 상중에휼업수
장원철	張源哲	송은 松隱	흥덕 고종	효성지극, 우애독실, 위선지성
장윤상	張潤相	설취 雪翠	인동 고종	친병단지, 상중 조석성묘, 3년불패
장윤택	張潤宅	초은 樵隱	인동 정조	부병에 절지하고 상중여묘하며 효행비가 있음
장은택	張恩澤		인동 고종	6순에 편모 극진봉양, 향리감복 ※통정
장인상	張隣相		인동 고종	친병상분 극진간호, 상중3년행소, 증; 통정
장인식	張仁植	기은 箕隱	인동 현종	사친극효, 친병에 작지 주혈, 6년 여묘
장일식	張一植	만춘 晩春	인동 고종	천자인효, 지체구양, 정성불패
장임택	張壬澤	죽사 竹史	인동 고종	효성지극, 6년 여묘, 예절업수
장장수	張莊洙		인동 고종	천성순효, 부친상을 당하며 모험만장 예절업수
장재원	張在源		인동 고종	가세극빈, 고용봉친, 상중여묘, 호역면제, 효행비
장재홍	張在洪	만산 晩山	인동 고종	사친극효, 종족돈목, 위선지성, 비각 및 제실건축
장재환	張載煥		인동 고종	지체구양, 친병극진간호, 상중에휼유제, 향리감탄
장재흥	張載興		인동 순조	가세극빈, 효성이 지극하여 구육봉친하니 천거
장정택	張貞澤	죽운 竹雲	인동 철종	수종제문인, 친병할고단지, 3년 여묘 ※도정
장준식	張俊植	송사 松史	인동 철종	부병축두원대, 상중읍혈3년 ※가선
장중진	張重震		인동 현종	상중여묘하고 국홀에 설단통곡 천거됨
장지영	張志永	구암 龜岩	인동 정조	임고산문인, 사친성효하고 양친상중 애휼유제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장지택	張志澤		인동	철종 부병백방간호, 2차혈지, 3년 여묘, 천거됨
장지환	張志煥	우송 友松	인동	고종 효우순지, 부모 극진봉양, 상중읍혈3년, 위선지성
장지환	張志煥	죽강 竹岡	인동	현종 부병축천원대, 상중 구산(求山) 길지 안장 ※침주
장창열	張昌烈	월파 月坡	인동	고종 성현문인, 사친지성, 길지안장, 성묘지성
장창윤	張昌胤		인동	고종 부병에 작지, 모병에 할고소생 정려와 참의증직
장춘택	張春澤	만취 晩翠	인동	고종 송사문인, 모병에 득어봉친, 상중애훼유제
장춘호	張春浩	죽은 竹隱	인동	고종 지체겸양, 우애독실 ※감찰
장치상	張致相	석헌 石軒	인동	고종 효우독실, 접인신증, 위선지성, 효행비
장탁수	張鐸洙	시은 市隱	홍덕	고종 성효근친, 모병단지, 상중애훼, 3년식소
장태상	張泰相	임암 林菴	인동	고종 양부모 극진봉양, 생모병에 단지희생, 천거, 효행비
장한식	張漢植	연사 蓮史	인동	고종 천성탁이, 효봉양친, 정성불패, 상중여묘, 천거
장현관	張鉉寬	겸헌 謙軒	인동	고종 백리밖에서 쌀을 구해다 봉친, 상중여묘
장현국	張鉉國		인동	고종 부병에 읍혈득어하고 모병에 읍혈득과 소생, 천거
장현권	張鉉權	농은 農隱	인동	고종 가세극빈, 부모극진봉양, 상중여묘, 천거됨
장현규	張鉉奎	경재 敬齋	인동	순조 노사문인, 상중애훼, 여묘, 종신행소
장현문	張鉉文		인동	현종 천성단정, 사친극효, 위선지성 ※통정
장현문	張鉉文		인동	고종 상장진례, 선산송사를 승소하여 설원함, 부호군
장현식	張鉉植		인동	철종 부병5개월 극진간호, 할고, 상중여묘, 증; 공참
장현정	張鉉正		인동	철종 어초봉양, 양친상중애훼진례, 6년 여묘 ※감찰
장현추	張鉉樞		인동	현종 효행출천, 양친극진봉양, 상중여묘 ※감찰
장현표	張鉉彪		인동	고종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장현필	張鉉弼		인동	고종 효우독실, 백리밖에서 쌀을 구해다 봉친, 상중과애
장화수	張化洙	송암 松庵	인동	고종 사친지효, 상중진애, 세칭 세효(世孝) 가문
장효권	張孝權		인동	영조 천성지효, 친질에 상분시약, 여묘, 마을을 시묘동
장희주	張喜周		인동	순종 효심친식, 정성불패, 3년 여묘
전기대	全基大	경남 敬南	천안	고종 효우문행, 지체구양, 상장진례, 천거됨
전기만	全基萬	소백 小栢	천안	고종 단지수혈, 향교 천장보관
전기상	全基相	송란 松蘭	천안	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상중애훼유제, 3년 여묘, 효자각
전기중	全基鍾	유곡 有谷	천안	고종 천성이 지효, 모병에 상분열지 3일연명
전기호	全基鎬	농은 農隱	천안	고종 효우근친, 조실모친 계모 극진봉양, 부병3월 극간
전방용	全邦龍	농은 農隱	천안	현종 천성순효, 양친극진봉양, 교지(教旨)보관
전방운	全邦運		천안	고종 친병에 좌, 우 작지, 성묘지성, 종신행소, 천거됨
전방운	全邦運		천안	정조 천성지효, 친질에열지득소, 상중애훼유제, 증;호참
전병문	全炳文	운파 雲坡	천안	고종 편모지체구양, 정성불패, 상장제례업수
전사진	全仕鎭		천안	고종 노모를 업고 다니며 간호, 작지, 3년행소, 기적비
전상도	全相道	우재 愚齋	천안	순조 사친지효, 상중애훼, 꿈에 명당을 얻어 장사 지냄
전상환	全象煥		천안	고종 효행독실, 교지보관
전석권	全碩權	호은 湖隱	천안	영조 효성근친, 상중에절업수, 삭망성묘지성
전석연	全錫年		천안	고종 친병작지주혈 3일연명, 향리칭송
전석천	全錫天		천안	고종 천성지효, 상중식소, 3년 여묘, 천거됨
전석환	全錫煥	농와 農窩	천안	고종 친병열지할고, 3년 여묘, ※감찰, 정려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전성환	全成煥	취만 翠萬	천안 고종	손불면 권농관(면장) 역임, 효우독실, 교지보관
전여상	全汝祥		천안 영조	친절에 혈지, 상중여묘 호위, 증; 통정
전일권	全一權	애오재 愛吾齋	천안 철종	교지 보관, 효행으로 증직, 정3품
전일중	全日鍾	남곡 南谷	천안 고종	효우근친, 지체구양, 우애독실, 향리칭송
전준택	全俊宅	유후당 裕後堂	천안 순조	사친에 극효하고, 상중애훼유제, 시묘3년
전철현	全喆鉉	명암 明菴	천안 고종	조실부친, 조부모 극진봉양, 모두 효손이라 칭함
전희용	全羲溶	농암 農菴	담양 고종	성효근친, 부모 극진봉양, 상중읍혈3년
정건	鄭 楫	모당 慕堂	광주 현종	사친지효하고 위선지성, 성리학자로 당세저명
정경득	鄭慶得		진주 선조	정유란에 포로로 잡혀가 읍혈3년 왜장이 감복 송환
정경식	鄭慶植	애교재 愛橋齋	진주 철종	사친지성, 6년 여묘, 문집이 있음, 효행비
정경채	鄭慶采	월사 月舍	동래 순조	부병극진간호, 설중득어소생, 천거됨
정경태	鄭敬兌		나주 고종	적으로부터 부친구원, 부병작지, 상중애훼, 명륜록
정관	鄭 珪		광주 현종	효양점전 향리탄복
정관면	鄭寬冕	건암 健岩	나주 고종	이당문인, 효행이 탁이하여 부인과 함께 효행비
정관채	鄭觀采		하동 고종	효행출친, 상중애훼유제, 3년 여묘 ※참봉
정관현	鄭官鉉		진주 고종	가세극빈, 고용봉친, 부병에 형제 혈지(형)
정광로	鄭光露		진주 단종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정국환	鄭國煥	농헌 農軒	진주 고종	이당문인, 효우독실, 상중애훼유제
정권림	鄭眷林	봉은 蓬隱	광주 고종	효성근친, 부모 극진봉양, 상중읍혈3년
정규채	鄭奎采	양헌 養軒	금성 순조	7세 부친상 어른같이 애훼, 편모 극진봉양, 상장진례
정규환	鄭奎煥		경주 영조	천성순효, 양친극진봉양, 예절엄수, 천거됨
정극	鄭 戟		나주 경종	조실모친, 부친극진봉양, 시묘, 행소, 삼강록
정극신	程克愼	청허당 淸虛堂	하남 명종	효우출친하여 왕으로부터 은전을 받음
정근	鄭 根	우헌 友軒	광주 영조	천성이 순효하여 양친을 극진봉양하니 천거됨
정기주	鄭起周		진주 효종	효성이 지극하여 양친극진봉양, 호역면제
정기찬	鄭琦燦		진주 영조	효행탁이, 우애독실, 효행비
정남순	鄭南淳	기산 箕山	금성 고종	자절인자, 효우독실, 당세문장
정내극	丁來極		금성 순조	천성순효, 모병극진간호, 단지, 상중예절엄수, 천거됨
정눌	鄭 訥	묵재 默齋	나주 명종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정달식	鄭達湜		진주 고종	학행과 효행탁이, 위선지성, 효행비
정대림	鄭大林	매와 梅窩	광주 고종	효성근친, 부모 극진봉양, 상중 읍혈 6년
정덕유	鄭德裕		진주 효종	9세에 부친상중 애훼유제 성인과 같이 하니 천거
정덕재	鄭德載		진주 효종	현감인 부친이 옥중에 있을 때 주야로 읍혈호소석방
정덕현	鄭德玪	신재 新齋	하동 영조	부병에 절지 모친상중시묘, 정려와 동몽교관증직
정덕현	鄭德玪	신재 新齋	하동 숙종	효우근친, 지체구양, 상중여묘, 예절엄수, 효행비
정도열	鄭燾烈	오헌 梧軒	하동 순조	사친지효, 상장제례엄수
정도필	鄭道秘	농수 農叟	광주 고종	천부성효, 부친상중 애훼유제, 식소, 예절엄수
정돈	鄭 燾		동래 선조	임란에 부모가 순절하니 뒤따라 순절
정동관	鄭東官	청암 淸菴	진주 고종	효심지극, 가세빈곤, 우애독실, 상중애훼유제
정동규	鄭東奎	현수 現脩	고성 현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양친상중 애훼유제, 증;좌승지
정동수	丁東秀	만송 晩松	영성 고종	모병에 절지, 부친상중 예절엄수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정동엽	鄭東曄	지촌 池村	동래	효종	효성지극, 6년 시묘, 효자비
정동원	鄭東源		진주	현종	효우독실, 가훈계승, 가세극빈, 양친극진봉양 ※첨주
정동지	鄭東檣		나주	효종	친병에 득어 간호, 2회단지, 형, 아들 효자로 일문삼효
정동지	鄭東檣		나주	숙종	모병에 열지, 상중여묘, 천거됨
정두면	鄭斗冕	죽헌 竹軒	나주	고종	효우독실, 친병에 축천원대, 상중읍혈3년
정두석	鄭斗錫		하동	고종	상중읍혈3년, 종신추모, 우애독실 ※동추
정득인	鄭得麟		경주	순조	성효근친, 양친극진봉양, ※포상
정 류	鄭 璵		광산	순조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정만규	鄭萬奎		홍성	고종	선사부모 지체겸양, 상중애혜유제, 향리흠탄
정만달	鄭萬達	만호 晩好	진주	숙종	모병설중에 버섯을 구해 득효, 상중여묘 ※복호
정만익	鄭萬翊		진주	현종	친성이 지효 봉친과 상, 장 제례엄수 천거됨
진만재	陳萬載		여양	현종	효성지극, 봉친과 상, 장, 제례엄수, 천거됨
정만필	鄭萬珽		광주	순종	모병9년 극진간호, 상중애혜, 길지안장
정목석	鄭睦錫		광주	현종	가훈계승, 효우근친, 양친극진봉양, 예절엄수
정무열	鄭武烈	청파 淸坡	나주	고종	사친지효, 상중애혜유제, 읍혈3년, 증;가선
정무현	丁武鉉	용강 龍岡	영성	순조	효우독실 자손교육에 전력하고 선행하다
정무회	鄭武會		나주	철종	성효가 순지하여 교관증직
정문석	鄭文錫	운파 雲坡	광산	고종	친성순후, 효양지극, 증;참봉
정반채	鄭班采	송무 松茂	하동	순종	12세 부병설중득어봉친, 모병축두연명
정 방	鄭 紡	사정 思亭	광주	인조	효성지극, 6년 시묘
정백원	鄭伯源	난정 蘭亭	진주	고종	승습정훈, 효사부모, 종족돈독, 향리칭송
정병건	鄭炳乾	석은 石隱	나주	고종	이당문인, 효독실, 모병상분열지, 상중읍혈3년
정병석	丁炳錫		영성	고종	친성지효, 지체구양, 모병혈지, 상장진례, 천거
정병수	鄭炳洙	죽암 竹庵	나주	고종	효우독실, 모병에 단지 3일 연명
정병호	鄭昞琥	농산 農山	나주	고종	성효친식, 양친봉양, 종신여행, 상중 애혜유제
정보석	鄭堡錫		진주	경종	친성이 지효, 친질에 상분절지, 천거됨
정복채	鄭福采		하동	순종	승습정훈, 효행탁이, 정성불폐, 위선지성
정봉신	鄭鳳信	월암 月庵	진주	인조	사친극효, 6년 여묘, 여러번 천거되어, 통정증직
정봉징	鄭鳳徵	남파 南坡	나주	숙종	친질에 혈지, 상중읍혈시묘, 학행이 당세에 저명
정봉환	鄭鳳煥	월암 月菴	진주	고종	이당문인, 친성이 지효, 우애독실, 상중애혜유제
정사규	丁賜奎	남계 南溪	영성	고종	친성이 순후하여 양친극진봉양, 종신여행
정사림	鄭士林	고암 顧庵	진주	고종	이당문인, 친병축전상분작지, 여묘, 효행비
정사업	鄭士燁		진주	고종	친성지효, 부병구약봉친, 편모 극진 성경(誠敬)
정사원	鄭士源	죽곡 竹谷	진주	순조	친성이순효, 양친극진봉양, 상중애혜유제, 천거
전상언	田相彦		담양	고종	친병설중 득양봉친, 주효, 향리감탄, 천거됨
정상옥	丁祥玉	농암 農岩	영성	철종	모병중 업고 다니며 간호, 작지, 상중식소, 읍혈, 천거
정상진	鄭相鎭	소초 小樵	나주	고종	가훈계승, 효우독실, 위선지성, 천거됨
정상홍	丁祥弘	성재 誠齋	영성	순조	할고, 상중시묘, 감찰에 천거되고 정려가 내림
정석림	鄭錫林		진주	경종	친질에 수개월 극진간호 천거됨
정석명	鄭錫明		진주	숙종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정석백	鄭錫百		진주	경종	직첩과 문고에 불이 붙자 구제 후 사망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정석원	鄭錫元		진주 정종	3세 부모별세, 매일3회 성묘, 애혜유제, 종신행소
정성섭	鄭聖涉	매월 梅月	진주 고종	부모 극진봉양, 우애독실, 종족돈목
정성진	鄭成鎭	죽파 竹坡	광주 순조	효성이 순지하고 의지가 엄정하니 당세의 사표가 됨
정성태	鄭性兌		나주 고종	적으로부터 부친구원, 부병혈지, 상장진례
정성하	鄭聖河	월하 月下	진주 고종	양친 극진봉양, 장중에절업수
정성휴	鄭聲休	후헌 後軒	진주 고종	모병축친원대, 상분작지, 상중애혜유제
정수면	鄭水勉	효헌 孝軒	나주 고종	천성이 지효하고 상중 3년 여묘
정수영	鄭洙英		나주 고종	모병에 단지, 여묘, 부병에 혈지, 정려와 감찰증직
정수옥	鄭邃郁	성암 省菴	하동 고종	천성지효, 선사부모, 양친상중 애혜유제
정수탁	鄭守鐸		진주 숙종	효우출친, 친병 구약간호 회생, 천거됨
정수현	鄭洙賢		나주 고종	15세때 양친 병환에 열지, 식소, 정려와 감찰 증직
정순성	鄭淳星	풍곡 豊谷	하동 고종	가훈계승, 상중에절업수, 종신행소
정순영	鄭淳英	매정 梅亭	하동 철종	효우문행겸비, 지체겸양 증 ; 가선
정순중	鄭淳仲	농은 農隱	하동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양친상중 애혜유제
정순철	鄭淳喆	남곡 南谷	하동 고종	효행이 탁이, 부모 극진봉양
정순향	鄭淳享	덕은 德隱	하동 고종	사친지효, 지체구양, 종신행소
정승렬	鄭承烈	백강 白岡	진주 순조	성효근친, 친병에 축두원대, 6년 여묘, 천거됨
정승열	鄭承烈		진주 고종	친병에 축친원대, 상중여묘, 천거됨
정시헌	鄭時憲	빈초 頻樵	나주 고종	조실부친, 편모40년 극진봉양, 상중애혜, 천거
정신민	鄭臣民	호은 湖隱	하동 현종	사친극효, 상, 장 예절업수
정신조	鄭臣朝	하산 荷山	동래 현종	친병극진간호, 상중애혜골입, 3년식소, 천거됨
정양석	鄭良錫	선재 善齋	광주 고종	효우가 근친하고 당세의 문장
정여면	鄭汝冕	양곡 陽谷	나주 고종	가세극빈 양친봉양, 상중여묘, 효행비, 감찰증직
정연영	鄭然榮		진주 고종	매년 새로운 음식을 극진봉양, 증 ; 가선
정연옥	鄭然玉		진주 고종	매년 새로운 음식을 구득봉진, 상중 곡통과애
정연욱	鄭然旭		진주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3년 여묘, 천거됨
정연조	鄭淵朝		동래 고종	직장에 충실하고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정영달	丁永達	성암 醒菴	영성 현종	양친극진봉양, 우애독실, 위선지성, 효행비
정영모	鄭榮謨	지은 止殷	동래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향리합탄
정영석	丁永石		영성 고종	사친지효, 친병 설중득어봉친 주효, 천거됨
정영우	丁永右	계은 溪隱	영성 현종	성효출친, 부병에 축단기두, 극진간호, 모성공회찬
정영익	鄭永翊	노은 路隱	경주 철종	성효근친, 친병상분, 축친원대, 상장진례 ※우참찬
정영환	鄭永煥	영파 穎坡	진주 고종	성암문인, 사친지효, 종신성묘지성
정오빈	鄭五斌	봉당 蓬堂	광주 숙종	조실부모, 회갑후 추복(追服) 시묘
정완	鄭浣		진주 정종	모병에 상분, 축친하니 천거됨
정용규	丁容奎	야은 野隱	영성 철종	친병규약간호, 상분, 상중읍혈 3년
정용림	鄭龍林	은암 隱岩	광주 고종	효성지극, 상중애혜유제하여 행보불능
정용휴	鄭容休	죽산 竹山	진주 고종	성효근친, 양친극진봉양, 상중애혜유제, 천거됨
정우기	鄭遇琪	상전 桑田	나주 고종	부병극진간호, 상중매일성묘, 슬처초고 ※견행록
정우봉	鄭遇奉	인재 仁齋	나주 고종	효성근친, 부병작지, 상중여묘, 천거됨
정우신	鄭遇信	성재 誠齋	나주 고종	천성이 지효, 조실부모, 읍혈3년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정우용	鄭遇鏞		나주 고종	모상이 읍혈3년 부병수년 백방간호 회생, 천거
정우익	鄭遇益	갈 현 葛軒	나주 현종	친병에 축전, 할고, 혈지, 양친상중 예절업수
정우조	鄭吁朝	월 정 月亭	동래 고종	천성지효, 종신 유모(孺慕), 향리 흠탄
정우필	鄭遇弼	암 은 岩隱	나주 철종	천성지효, 부병단지주효, 3년 여묘
정우현	鄭遇鉉	매 곡 梅谷	하동 현종	모병에 축전 구약하니 호랑이가 가져다 주어 완쾌
정우황	鄭遇璜		나주 철종	천성순효, 지체겸양, 6년 여묘, ※도정
정운상	鄭運相		나주 현종	사친이효하여 감찰증직
정원식	鄭原植	죽 현 竹軒	광주 고종	천성순효, 효행탁이, 우애독실
정 위	鄭渭		진주 정종	친병에 혈지수일 연명하니 천거됨
정윤경	鄭允京	해 강 海岡	진주 고종	면암문인, 부병에 절지간호, 성묘지성, 효자비
정윤규	丁潤奎		영성 고종	천성이 순효, 모친안맹 10여년 극진간호봉양
정윤원	鄭允源	근 재 勤齋	진주 고종	연재문인, 친병에 혈지, 상중 애훼유제
정윤진	鄭胤晉	망우당 忘憂堂	진주 효종	전염병중 단신으로 친상장례, 정려 호조참판 증직
정윤찬	鄭潤燦	소 암 素庵	진주 정조	효우독실, 예절업수, 종신행소, 증; 좌승지
정은연	鄭殷衍		나주 고종	지체구양, 절지주혈, 시장표창
정이용	鄭履溶	농 재 農齋	광주 철종	친병작지, 상중여묘, 삭망성묘 종신여행 ※동교
정이원	鄭伊源	망 현 望軒	진주 고종	천성순효, 우애독실, 예절업수
정이철	鄭履喆		광산 정종	효행이 특이하여 천거됨
정이휘	鄭履輝		광주 영조	사친지효, 효행이 탁이하였음
정익채	鄭益采	송 은 松隱	하동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친병혈지연맹 ※참봉
정인겸	鄭仁謙	무위와 無爲窩	진주 영조	중추부사 증직, 상분간호, 6년 시묘
정인문	鄭寅文		동래 철종	부병3년 지성간호, 상중식소, 천거됨
정인봉	鄭寅鳳	만 오 晩悟	동래 고종	천성지효, 지체겸양, 우애독실, 상장진례
정인수	鄭仁壽	지 정 池亭	동래 고종	13세 부친별세, 애훼유제, 예절업수 효자비
정인풍	鄭寅豐		진주 철종	매년신찬봉양, 양친상중에훼진례, 향리감화
정일원	鄭一源	기 산 箕山	진주 고종	품성이 순진, 효성지극, 친병에 열지, 수일연명
정자주	鄭自周		진주 효종	효성이 탁이하여 천거됨
정재몽	鄭在夢	송 현 松軒	하동 정조	부병에 연지, 절지, 상중시묘, 천거되어 교관이됨
정재봉	丁載鳳	일성재 日省齋	영성 순조	모병에 작지, 부병에 득어봉양 회생하니 천거
정재열	鄭再烈		나주 영조	양친병환에 축두기원, 상중읍혈, 천거됨
정재윤	鄭在允	죽 사 竹史	하동 철종	효우독실, 문행으로 당세에 추증 ※참봉
정재호	鄭在鎬	도림재 桃林齋	하동 현종	효우친식, 승습정훈
정정모	鄭正模	악 현 岳軒	동래 고종	상중여묘 3년, 예절업수, 해동삼강록 참조
정정식	鄭正植	만 오 晩悟	광주 고종	천성이 효우, 부모 극진봉양, 종족돈목, 위선지성
정정현	鄭正鉉		진주 고종	가세극빈, 고용봉친, 부병에 형제 혈지(제)
정제봉	鄭濟奉		고종	천성이순효, 상중에훼유제, 천거됨
정제순	鄭濟舜	죽 사 竹史	광주 고종	가훈계승, 효행탁이, 효우독실
정제휴	鄭濟休	기 은 箕隱	광산 고종	지체구양, 상중에훼유제, 6년 여묘, 종신성묘, 천거
정종건	鄭鍾健	장 암 莊菴	진주 현종	부병에 상분, 열지연명, 향리에서 효행
정종눌	鄭鍾訥	경영당 景康堂	진주 현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상중여묘
정종란	鄭鍾蘭	행 국 杏國	진주 현종	가세극빈 양친극진봉양, 학행탁이, 효행비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정종련	鄭宗鍊		나주	철종 효행출천, 모병구육봉친, 6년 여묘, 천거됨
정종록	鄭鍾錄		진주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우애독실, 상중애훼유제
정종면	鄭宗冕	설파 雪坡	나주	고종 양친극진봉양, 부병에 작지, 상중 예절엄수
정종백	鄭鍾白	풍산 楓山	진주	고종 효성근친, 승습정훈, 상중여묘, 식소, 천거됨
정종섭	鄭宗燮	연사 蓮史	진주	고종 간재문인, 효성지극, 상중 예절엄수
정종수	鄭鍾秀	양천 養泉	진주	순조 가훈계승, 친질에 축친원대, 작지연명
정종악	鄭宗岳	모재 慕齋	하동	영조 부병에 축친원대, 여묘호위, 정려와 감찰증직
정종옥	鄭鍾昱		진주	고종 친병에 상분, 혈지하고 6년행소, 이참 증직
전종호	田鐘鎬		담양	고종 친병축단기두, 상분간호혈지, 상장진례, 천거됨
정준	鄭 浚	추원당 追遠堂	광주	선조 본인, 아들, 손자, 현손이 모두 6년 시묘 마을 이름 효동
정중섭	鄭仲燮		진주	고종 사친지성, 상중애훼유제, 종신성묘지성
정즙	鄭 楫	사춘재 四春齋	나주	숙종 효우독실, 부친상중 3년 여묘, 천거되어 포상됨
정즙	鄭 楫		진주	경종 부병에 좌혈지, 모병에 우혈지, 병조좌랑 증직
정지교	鄭志僑	효헌 孝軒	광주	선조 정준의 아들. 효행과 덕망으로 당세에 떨침
정지현	鄭志玄	효리 孝里	광주	선조 정준의 아들 효성지극 6년 시묘
정직	鄭 稷		진주	선조 효행탁이, 월사 이정구의 천으로 별제에 제수되다
정진복	鄭震復		나주	정종 부병에 단지, 모병하고, 6년 시묘 정려와 교관증직
정찬성	丁燦聲	직송 直松	영성	순종 효행탁월, 편모 극진봉양, 갈심성력
정찬영	鄭燦永	덕수정 德秀亭	하동	고종 천성이 지효, 자녀교육, 우애독실
정창열	鄭昌烈	영춘재 迎春齋	진주	고종 이당문인, 부병혈지, 상중애훼, 3년 여묘 ※참봉
정창열	鄭昌烈	월계 月溪	금성	고종 후석문인, 천성지효, 정성불패, 명령순종
정창원	鄭昌源		진주	고종 양친상중 애훼유제, 성묘지성, 종신여행
정채	鄭 埰		나주	경종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정채환	鄭采煥	금은 錦隱	나주	순조 성효근친, 친병에 축친원대 상분혈지
정충모	鄭忠模	지당 池堂	동래	고종 천성지효, 양친극진봉양, 상중애훼유제, 천거
정치	鄭 穉		진주	선조 정유란에 모조모 순절, 부친상에 시묘, 종신식소
정태석	鄭泰錫	모헌 慕軒	하동	현종 모병에 연지, 상분, 혈지 연명하니 천거됨
정태섭	鄭泰燮	석봉 石峰	진주	고종 사친지효, 부병에 작지, 상중애훼유제
정태원	鄭泰元		경주	철종 천성순인, 지체구양 ※동주
정태일	鄭泰一	은정 隱亭	경주	순종 효성근친, 근검치가, 효양부모 지체구양
정태종	鄭泰宗	죽계 竹溪	해주	고종 부병에 축두기원, 상분간호, 절지연명
정택림	鄭宅林		진주	고종 성효근친, 모친상 애훼진례, 업친극진봉양, 천거
정필수	丁弼秀	죽헌 竹軒	영성	현정 친환에 극진간호, 혈지연명, 예절엄수, 종신행소
정필환	鄭弼煥	오헌 梧軒	진주	고종 가훈계승, 부모병에 작지, 상중여묘, 6년식소
정하기	鄭夏基		진주	숙종 천성효우, 친병에 혈지, 상중애훼유제, 복호
정하기	鄭夏基	죽포 竹圃	진주	숙종 친병에 혈지, 상중애훼유제, 성묘지성 ※복호
정하기	鄭夏基	성재 省齋	진주	고종 친병혈지, 양친상중애훼유제, 성묘지성, 복호
정학규	鄭學奎	월은 月隱	진주	고종 지체구양, 상, 장 제례엄수
정한수	鄭漢秀	야은 野隱	동래	영조 효우독실, 사친지효, 예절엄수
정한원	鄭漢源	모헌 慕軒	진주	철종 승습정훈, 정성불패, 상중애훼진례, 위선지성
정한표	鄭漢彪		동래	순조 효행이 탁이하여 가선이 증직되고 정려가 내림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정한현	鄭漢鉉	향정 香亭	나주 고종	성효친식, 지체구양, 정성불폐
정해석	鄭海錫		광주 철종	효행이 탁이하여 향리에서 감탄하니 천거됨
정형기	鄭亨耆		나주 숙종	양친병환에 혈지, 6년 시묘, 정려와 감찰증직
정형성	鄭衡星	청암 淸庵	진주 정조	천성근효, 양친극진봉양, 천거됨
정형원	鄭亨源		진주 고종	천성지효, 어초봉양, 종신여행
정형의	鄭亨義		나주 경종	친병에 혈지, 할고간호, 삼강록
정형천	鄭亨天		나주 경종	친병에 혈지할고, 간호, 시묘, 삼강록
정 호	鄭 琥		나주 경종	친질에 혈지소생, 국휼에 북망호곡, 삼강록
정호례	鄭好禮		진주 선조	정유제란에 부모순직, 적에 포로 3년읍혈 귀환
정호인	鄭好仁		진주 선조	정유제란에 부모순직 읍혈통곡, 왜적 감탄 상례 엄수
정홍규	鄭弘規	운와 雲窩	광주 정조	효행탁이, 증, 동몽교관, 정려
정 화	鄭 華		진주 정종	직첩과 문집을 불로부터 구해내고 순절
정화길	鄭華吉	효재 孝齋	진주 고종	품성지효, 지체구양, 친병단지, 상분, 3년 여묘
정화석	鄭華錫		진주 영조	충효겸진, 문과합격 장령이 됨
정화식	鄭化植	죽헌 竹軒	고종	본성이 순진, 부모 극진봉양, 상중애훼, 읍혈3년
정환기	鄭煥基		진주 현종	가세극빈, 효행이 탁이하고 상중 시묘하니 천거
정환우	鄭桓友	송와 松窩	진주 현종	서암문인, 효우독실, 상중애훼유제
정환철	鄭環哲	석산 惜山	진주 고종	효성근친, 친병수년, 할고주효, 상중조석성묘
정효성	鄭孝成		성주 고종	성효출천, 어초공양, 정성불폐 ※감찰
정희득	鄭希得		진주 선조	임진란에 일본포로로 3년 읍혈(泣血) 귀환
조광록	趙光祿		한양 정종	부병에 활역, 모병에 읍혈득어 간호하니 천거됨
조구명	趙九命	운재 雲齋	한양 효종	양모 질병에 절지소생하니 천거됨
조귀주	趙貴柱		한양 고종	효우출천, 지체구양, 상장진례, 천거됨
조기대	曹基大	벽송 碧松	창령 고종	효사부모, 정성불폐, 친병극진간호, 상중여묘, 의관
조기만	曹基滿	학산 鶴山	창령 고종	부병에 활역간호, 상중에절엄수, 성묘지성
조기창	趙基昌		한양 고종	부질에 상분절지, 모병에 엄동득어, 할고소생, 천거
조기행	趙基行	고산 高山	한양 정조	통훈대부, 효행이 탁이하여 여러번 천거됨
조기형	曹基炯	성재 誠齋	창령 고종	조실부친, 편모지체구양, 제사때 애곡, 종신행소
조기화	趙基和		한양 철종	친병설중 득어간호, 상중식소3년, 증;가선
조대현	曹大鉉	청파 淸波	창령 순종	효우겸진, 정성불폐, 지체겸양
조득환	曹得煥	연파 蓮坡	창령 고종	효심순지, 위선지성, 선세효열 석정건립
조명규	曹命揆	우곡 愚谷	창령 현종	효행탁절, 종족간에 돈목, 천거됨
조명삼	趙命三		옥천 순조	효행이 탁이하여 참봉이 됨
조백섭	趙伯燮	경재 敬齋	한양 영조	효우순독, 설중 득어간호 회생하여 천거
조병귀	趙炳貴		한양 고종	부병에 단지, 상중여묘, 주야읍혈, 종신행소, 천거
조병남	趙炳南	유암 柳庵	한양 순종	성효출천, 정성불폐, 지체구양, 양친상중애훼유제
조병덕	曹秉德		창령 고종	천성근효, 우애독실, 3형제가 함께 살았다 ※통정
조병모	曹秉模	연강 蓮岡	창령 고종	부병상분, 축천기두, 단지연명, 상장제례엄수, 천거
조병천	趙炳天		한양 고종	친병에 설단 축천원대 회생됨
조봉한	趙奉漢		옥천 고종	성효친식, 지체구양, 정성불폐
조상원	趙相元	매곡 梅谷	한양 고종	효행근친, 친병극진간호, 상장진례, 우애독실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조상표	趙祥豹	신암 愼庵	한양 영조	친절에 3회 혈지연명, 종신행소함
조석운	曹錫運		창령 고종	효행이 탁이하여 정려와 통정대부 증직
조석형	趙碩亨		한양 효종	효성출친하여 귀양 중 사모곡을 지어 훈방함
조성창	趙聖昌	묵재 默齋	한양 영조	부병에 절지, 모병에 상분간호, 6년 시묘
조성태	趙誠台		한양 고종	현와문인, 지체겸양, 위선지성, 교자의방
조승무	趙勝武		한양 헌종	충효겸전, 사친지효, 상중여묘 호위 ※교관
조승주	趙承柱		한양 헌종	부병에 구득영약회생, 상장진례, 증;공참
조연규	趙蓮奎		한양 헌종	양친극진봉양, 6년 여묘
조열순	曹說淳		창령 철종	사친극효하여 친절에 할고봉친하니 천거됨
조영규	趙英奎		한양 헌종	상중여묘호위, 동명을 효자동, 증; 호참
조영선	趙英鮮	양파 楊坡	한양 고종	효성친식, 지체겸양, 사중애훼 예절엄수
조영옥	曹永玉		창령 헌종	13세때 부병에 단지, 아들 또한 부에 혈지, 천거
조영주	趙英周	기은 箕隱	한양 고종	자성순후, 사친지효, 우애독실
조용원	趙龍元	고산 高山	한양 고종	효행탁이, 부병축친원대, 상중애훼유제
조용원	趙龍元	매은 梅隱	한양 고종	부모 극진봉양, 상중 예절엄수
조용환	趙容煥		한양 고종	지체구양, 양친상중 애훼유제, 성묘지성
조유창	趙有昌		한양 고종	부병에 단지, 모병에 설리 구양봉친 천거됨
조윤민	趙允敏		한양 숙종	친병에 축친, 혈지, 여묘호위, 참봉이됨
조은주	趙銀柱		한양 고종	3세에 양친병세 13세에 추복여묘6년
조인국	趙仁國	성재 誠齋	한양 경종	성효출친, 부병득어간호, 시묘중호위, 사헌부감찰
조인방	趙寅邦	죽포 竹圃	한양 순조	사친지성, 3년 시묘, 통정대부증직, 삼강록
조인승	曹仁承	묵헌 默軒	창령 철종	천자순후, 효행탁절, 천거됨, 증; 동몽교관
조장주	趙章柱	정재 靜齋	한양 철종	효우문행겸비, 상중여묘호위, 증; 도정, 효행비
조장환	曹章煥	우헌 愚軒	창령 고종	색다른 음식을 구득봉친, 친병단지, 상장진례
조재형	趙齋衡	계은 溪隱	한양 고종	부병에 축친원대, 상중 3년 여묘, 천거됨
조재홍	趙載洪	연당 蓮塘	한양 철종	성효친식, 종신행소, 호학겸비
조정민	趙廷閔		한양 경종	효행이 탁이하여 통훈대부가 됨
조정환	曹程煥	낙당 樂堂	창령 고종	성효출친, 지체구양, 성묘지성, 슬처성감
조종식	趙鍾植		한양 고종	모병 설중득어회생, 부친 상중 애훼골입, 3년 식소
조종식	趙鍾植		한양 고종	부병에 작지주혈, 상중애훼유제 ※참봉
조종일	趙鍾一	남파 南坡	한양 고종	사친지효, 상중애훼유제, 6년행소, ※감찰
조진번	趙晉蕃	월파 月波	한양 헌종	효행출친, 상중6년여묘, 예절엄수
조진봉	趙鎭鳳	유안헌 遺安軒	한양 철종	지체구양, 상중읍혈3년, 종신행소
조진표	趙震豹	만각헌 晩覺軒	한양 영조	부병에 축친득약, 모병에 상분절지 시묘하여 천거
조진하	趙鎭夏	양재 養齋	한양 헌종	천성순독, 부병에 백리 밖에서 구약, 득어봉친 회생
조창환	曹昶煥	청암 靑岩	고종	모병 수년극진간호 혈지, 상중애훼유제
조태항	趙泰恒		한양 숙종	성효출친, 친병에 혈지, 상중여묘, 천거됨
조태항	趙泰恒		한양 숙종	성효출친, 친병에 혈지, 3년 여묘, 천거됨, 증;통정
조필원	趙必元	야은 野隱	한양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효행기적비
조한표	趙漢豹	영모정 永慕亭	한양 영조	양친극진봉양, 6년 여묘, 종신행소, 천거됨
조현호	曹顯鎬	효정 效庭	창녕 순종	효사부모, 지체구양, 친병극진간호, 상중읍혈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조홍팔	曹弘八		창령 영조	효성근친, 양친상중 애혜유제, 천거됨
조화연	趙華年		한양 정조	부병에 할고, 3년 여묘, 증; 감찰
조환운	趙煥允	서산 西山	한양 헌종	천성지효, 상중애혜유제, 성묘지성
조효남	趙孝男	덕운 德雲	한양 고종	12세 때 부친 원한을 혈서 진정 훈방됨
조효원	趙孝元	덕운 德雲	한양 고종	혈서로 부친구원, 옥중 무죄 방면
조희한	曹喜翰	월계 月溪	창령 고종	효우문행겸비, 부병 백방간호, 상중 읍혈여묘, 참봉
주낙섭	朱洛燮	취송 翠松	신안 고종	모병 수년 극진간호, 상중 애혜유제
주영윤	朱榮允		신안 고종	조모극진봉양, 열지, 여묘, 모친상중 애혜진례, 천거
주영조	朱榮朝	애송 愛松	신안 고종	효행탁이, 편모 극진봉양, 교육자
주풍연	朱豐蓮		신안 고종	효행탁이, 조부모 극진봉양, 예절엄수
지돈석	池敦錫		충주 고종	지체구양, 정성불패, 친병혈지, 상장진례
지문한	池聞漢		충주 영조	친질에 작지주효, 상중여묘, 예절엄수, 천거됨
지엄식	池廉錫	송재 松齋	충주 고종	효봉양친, 지체구양, 정성불패, 성묘지성, 슬처성감
지영권	池永權	죽당 竹堂	충주 순종	효심순지, 친병축두, 상장진례, 예절엄수
지용석	池溶錫	청파 淸波	충주 고종	효우독실, 친병 극진간호, 상분읍혈, 천거됨
지지묵	池志默	청연 靑蓮	충주 고종	친병상분 축친원대, 혈지처생, 상중 애혜유제, 천거
지치석	池致錫	죽계 竹溪	충주 고종	천성지효, 정성불패, 양친상중 예절엄수, 천거됨
지태규	池泰奎	묵재 默齋	충주 정조	가훈계승, 효행탁이, 여러번 천거됨
지태언	池泰彦		충주 정조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증;좌윤
지홍식	池洪錫	유정 柳亭	충주 고종	부병에 혈지, 상중애혜유제, 천거됨
진달종	陳達宗	치성재 致性齋	여양 헌종	부병에 단지, 모병에 할고, 6년 여묘 ※전남도지
진만재	陳晩宰		여양 숙종	친병중 관직사직 간호, 상중식소, 천거됨
진사묵	陳士默		여양 순조	모병에 득어간호, 시묘, 아들과 증손자도 효행, 천거
진성섭	陳聖燮	등하 登下	여양 헌종	양모병에 백방구약, 득어봉친, 회생하니 천거
진순종	陳順宗		여양 고종	천성지효, 친병중 호랑이가 개를 가져다 줌, 천거
진준하	陳俊夏	덕은 德隱	여양 고종	부병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해 드림, 상중여묘
진행표	陳行標		여양 헌종	모병에 혈지 10년연명, 천거됨
진현하	陳鉉夏	월파 月波	여양 헌종	모병에 기산구육간호 ※전남도지
진 흠	陳 欽		여양 선조	친질에 할고 간호, 예천
진 흠	陳 欽	금호 錦湖	여양 중종	부병으로 현감 사직 상분단지, 시묘
차길용	車吉用		연안 철종	지체겸양, 양친상 애혜유제, 향리칭송
차인수	車仁洙		연안 고종	성효근친, 양친극진봉양, 상중애혜유제
창덕원	昌德源	야은 野隱	창녕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정성불패, 상장진례
채경희	蔡敬熙	효헌 孝軒	평강 순종	효성탁월, 친병구약 득효, 1일 3성, 향리 칭송
채덕린	蔡德麟		평강 정종	유복자로 성년이 된 후 여묘하니 예조참의 증직
채방진	蔡邦鎭	우당 友堂	평강 영조	가훈계승, 효행탁절
채영희	蔡榮禧		평강 정조	양친상중 6년 여묘, 종신행소, 천거됨
채용건	蔡龍鍵		평강 고종	2세때 모친별세, 성년후 추복여묘 천거됨
천소섭	千小燮		영양 고종	조실부모, 애통극심, 성묘지성 종신행행, 천거
최기홍	崔基鴻	강은 岡隱	경주 고종	천성순진, 양친봉양, 지체구양, 상중6년 예절엄수
최낙계	崔落啓		담진 고종	사친지효, 지체구양, 상장진례, 증; 참의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최달문	崔達文		전주 군조	친병에 작지, 상중여묘, 증; 통정
최대묵	崔大默	영 은 穎 隱	낭주 고종	친병상분, 혈지주호, 빈민구휼, 세칭효행독지가
최대민	崔大玟	영 은 穎 隱	낭주 고종	친병상분, 혈지연명, 빈민구제, 독지가
최덕수	崔德秀		해주 고종	사친지호, 6년 여묘, 성묘지성 종신여행 ※감찰
최덕수	崔德秀	송 포 松 圃	해주 헌종	사친지호, 6년 여묘, 삭망성묘를 종신여행
최덕환	崔德煥	덕 헌 德 軒	경주 고종	사친지호, 상중 애훼유제, 종신행소
최병권	崔炳權		해주 고종	천성극효, 편모지체구양, 정성불폐 ※감찰
최병은	崔炳銀	신 재 愼 齋	해주 고종	사친지성, 상중3년식소, 성묘지성, 천거됨
최병훈	崔炳訓	묵 암 默 庵		고종 성효근친, 축천원대, 도지사표창
최상묵	崔相默		해주 고종	사친 지체겸양, 정성불폐, 상중여묘, 천거됨
최상직	崔尙稷		해주 철종	부병에 축천원대하고 상중여묘하니 천거됨
최상학	崔象鶴		전주 헌종	양친병에 단지연명, 6년 여묘, 증; 가선
최상휴	崔祥休	성 암 誠 庵	수성 고종	효성지극, 지체겸양, 위선지성, 교자의방
최석경	崔錫慶	죽 정 竹 亭	해주 고종	천성순효, 지체구양, 정성불폐
최석령	崔錫靈	애죽당 愛竹堂	해주 고종	효행독실, 지체구양, 정성불폐
최석주	崔錫珠	죽 천 竹 川	해주 고종	가세극빈, 어초봉양, 정성불폐
최석현	崔錫鉉	매 당 梅 堂	수성 고종	천자지호, 상장진례, 3년식소
최석현	崔夕鉉	금 주 錦 洲	수성 고종	친병백방 구약 간호, 축천원대, 상장진례
최성묵	崔聖默		해주 고종	사친지호, 정성불폐, 상중여묘, 천거됨
최여담	崔麗淡		경주 순조	친병중 설중에 뱀과 자라를 구해 간호 회생
최영원	崔榮垣	학 은 鶴 隱	탐진 고종	조실부친, 편모 극진봉양, 상중 애통극심
최우택	崔宇澤	취 정 翠 亭	해주 순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위선지성
최윤발	崔潤發	애애정 愛愛亭	전주 정조	혈지, 여묘, 국상에 망곡, 충효로 정려가 내림
최윤성	崔潤聲	월 당 月 塘	전주 정조	효우독실, 부병시탕상분, 3년 여묘, 천거됨
최윤순	崔潤順	연 암 蓮 菴		고종 연재문인, 효우돈목, 부병열지, 성묘중 호위, 효행비
최윤영	崔潤榮	후 주 後 洲	수성 순종	효성근친, 친병극진간호, 지체구양
최의택	崔義澤	만 송 晩 松	해주 순종	사친지성, 어초봉양, 상중애훼, 3년행소
최익원	崔益遠		해주 철종	친병상분, 축천원대, 설중득어간호, 상중여묘 ※통정
최익원	崔益遠	효우헌 孝友軒	해주 순조	부병 구호중 호랑이 도움으로 의원을 찾아 간호 회생
최익화	崔益華	양 곡 陽 谷	해주 순조	본성이 인자하고 양친극진봉양, 예절엄수
최장규	崔章圭	한 송 閑 松	삭령 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정성불폐, 예절엄수
최정하	崔貞夏	송 암 松 庵	해주 고종	효봉양친, 상중읍혈 3년 ※의관
최종옥	崔宗玉		해주 고종	부병에 좌·우 할고 소생하니 천거됨
최준창	崔준昌		해주 효종	신주(神主)에 불이 붙자 신주를 구하고 운명, 천거
최지식	崔智植	죽 은 竹 隱	전주 고종	효우겸비, 부병 극진간호, 6년 여묘, 예절엄수
최태일	崔泰鎰	백 줄 百 拙	전주 고종	양친병에 상분간호, 6년 행소, 천거됨 문집이 있음
최택건	崔澤見	관 해 觀 海	경주 고종	지체겸양, 친병작지 축천원대 주효 연수(延壽)
최택규	崔澤奎	야 은 野 隱	경주 헌종	천성지호, 친병극진간호, 6년 여묘, 증; 통정
최학진	崔學鎭		낭주 고종	친병상분작지, 상중행소 여묘호위, 천거됨
최학한	崔鶴翰		소원 헌종	효우근친, 친병에 상분, 열지, 3년 여묘, 증; 통정
최한권	崔漢權	삼성재 三省齋	전주 고종	8세때 모병에 상분, 상중 애훼유제, 천거됨



성명	호	본관	왕조	참고사항
최한옥	崔漢郁	월암 月岩	전주 순조	성효근친, 양친 극진봉양, 상중읍혈 3년
최한인	崔漢仁		전주 고종	효봉양친, 정성불패, 상중여묘
최한중	崔漢宗	농포 農圃	전주 고종	모병에 할고, 상중여묘, 위선지성, 동몽교관
최희한	崔喜翰		수원 현종	효행탁이, 3년 여묘, 누착초고, 증; 통정
추병규	秋秉奎	후암 後庵	추계 현종	부병에 축친원대, 활역간호 7일연명
추양호	秋良鎬		추계 고종	성효근친, 친병에 상중단지, 3년 여묘
추현화	秋鉉華	은암 隱庵	추계 철종	성효독실, 친병상분작지, 상중에혜유제, 천거됨
편덕승	片德昇		절강 고종	부병작지, 모병열지, 상장진례, 천거됨
편성우	片晟宇	춘정 春亭	절강 고종	조실부친, 편모봉친, 상중 3년 여묘, 종신행소
편천철	片天哲	금호 錦湖	절강 철종	부병축두원대, 상분열지, 모병윤지, 여묘 ※동몽교관
편풍세	片豐世	남현 覽軒	절강 선조	성효근친, 여묘중호위, 산에 꽃이 희여짐, 절효선생
편풍원	片豐源		절강 선조	한림학사를 사직하고 시묘하니 병조판서 증직
한병리	韓秉釐		청주 현종	효행출친, 양친극진봉양, 상중여묘, 천거됨
한용수	韓龍洙	송파 松坡	청주 고종	지체구양, 부병열지 연명, 천거됨
한장동	韓璋東	송정 松亭	청주 현종	친병상분, 축친, 혈지, 상중에혜유제, 증;이참
한종묵	韓宗默	소암 素庵	청주 순조	친병에 작지, 상중에혜유제, 호참에 천거됨
한형리	韓滢釐		청주 고종	친병축친원대, 상분간호, 상중에혜 3년 여묘, 천거
홍낙건	洪樂乾		풍산 영조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홍낙배	洪洛培		풍산 고종	성효출친, 정성불패, 상장진례, 성묘지성
홍대희	洪大晦	농포 農圃	남양 현종	성품온중, 가훈계승, 상중에혜유제
홍명규	洪明奎	미산 米山	남양 고종	천성지효, 정성불패, 상중 읍혈 3년
홍성모	洪成謨		풍산 현종	친병에 열지, 할고, 예절엄수, 천거됨
홍성모	洪誠模		풍산 고종	천성지효, 어조봉양, 상중에혜유제, 천거됨
홍열주	洪悅周		풍산 고종	유복자로 성년후추복, 모병에 혈지, 천거됨
홍우준	洪祐俊		풍산 고종	지체구양, 친병극진간호, 상중에혜, 3년 여묘
홍유락	洪裕洛	벽계 碧溪	풍산 고종	천성순효, 양친극진봉양 예절엄수 지체겸양
홍익호	洪益浩		풍산 영조	양친상중 6년 여묘, 문집이 있음
홍재식	洪在植	농포 農圃	풍산 고종	사친지효, 지체구양, 상중읍혈, 기절회생, 천거
홍철호	洪撤浩		풍산 현종	조실부친, 회갑후에 추복, 모친상중 읍혈3년 천거
홍학주	洪學周	효암 孝庵	풍산 순조	천자관인, 효우탁이, 증;좌승지 ※삼강록
홍학주	洪學柱		풍산 현종	효행이 탁이하여 통정이 증직됨, 삼강록
황경연	黃景淵		창원 고종	친병 수년간 설리에 득어봉친 ※감찰
황상열	黃尙烈		창원 고종	천성지효, 지체구양, 정성불패, 선대묘비건립
황수창	黃守昌	월송 月松	장수 영조	천성지효, 지체구양, 극진성경, 증; 좌랑, 효행비
황의영	黃義榮	양촌 陽村	장수 고종	효우독행, 덕망가로 각종 효자표창을 받음
황인환	黃寅煥	장은 長隱	창원 고종	효성천식, 지체구양, 정성불패
황종민	黃鍾珉	모와 慕窩	장수 철종	경조봉양, 친병상분 축친원대, 상중읍혈 ※교관
황종진	黃鍾鎭		창원 철종	성효근친 지체구양, 친병혈지, 문학겸비, 천거

2) 효부(孝婦)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경주김씨			임백규	시부모 효양 시부병중 지성 구육봉친회생, 천거됨
경주김씨		남원	양원석	천자순효, 시부모 효양 천거됨
경주김씨	김수희	남원	양형섭	시부병3년, 시모병 4년 설단기두, 불공 등 지성 간호 상장진례
경주김씨	김용태	광산	김병호	경봉군자, 시부모 장병시탕불해, 지체구양, 상중 예절엄수
경주이씨	이병석	김해	김봉진	시부모 지체구양 정성불패
경주이씨	이치만	파평	윤자봉	시부모를 극진봉양하고 시종 예를 다하니 천거됨
경주최씨	최병봉	인동	장석춘	시부모 극진봉양 상부 후 유아교육 종신수절, 천거됨
경주최씨	최택성	광산	김영문	시부모 극진봉양, 상중애혜유제
경주허씨	최성율	김해	김양선	시부모 효양, 경봉군자, 효열겸전 ※삼강목
고령신씨	신기우	남평	문재호	시부병에 축친원대 단지연명, 상중애혜유제
고성김씨	김대진	파평	윤주철	조실상부 시부모 극진봉양, 상중 읍혈 6년
고흥유씨	유대연	광산	김병래	4덕구비, 시부모 효양, 우애독실, 종족돈목, 포상
고흥유씨	유중위	광산	김응수	남편병에 혈지, 시모병 읍혈구양 회생
광산김씨			정오신	효성지극, 상중 읍혈 3년하니 천거됨
광산김씨		나주	정태연	남편 유언을 지켜 시부모 효양, 종신수절, 효열부
광산김씨		선산	김경인	천성순효, 시부모 효양, 지체구양, 향리칭효
광산김씨		영산	신재열	중년 상부 시부모 극진봉양, 예절엄수
광산김씨		죽산	안종옥	천성지효, 시부모 지체구양, 정성불패
광산김씨		천안	천맹중	남편병 열지, 시부병 축친원대, 효열쌍전, 천거됨
광산김씨	김 란	이천	서준학	가세극빈 평생봉사이효, 남편병 지성간호 천거됨
광산김씨	김기팔	함평	노병순	경봉군자, 시부모 효양, 효열겸전
광산김씨	김기현	함평	모동기	규범정숙, 시조모 정성불패, 유양지성
광산김씨	김명선	청송	심수택	조실상부, 시부모 극진봉양, 예절엄수 천거됨
광산김씨	김봉술	함평	노병태	조실상부, 시부모 극진봉양 양자로 가문승계 효열부
광산김씨	김사심	순흥	안향권	시부모 효양, 지체구양, 상장진례, 정려
광산김씨	김성열	영성	정윤규	시모안맹 모서부지, 축친원대 사중애통 극심
광산김씨	김숙현	한양	조병철	규범정숙, 시모 극진봉양 종족향당 함탄
광산김씨	김재복	상산	김상기	시부모 극진봉양, 시부병 극진간호, 효행비
광산김씨	김재순	파평	윤태병	조실상부, 시부모 극진봉양 성성불패 예절엄수, 효열부
광산김씨	김재현	창평	조창환	시모병에 상분축친간호, 상중 읍혈3년
광산김씨	김창연	인동	장갑홍	시부모 극진봉양, 친가 묘소 석물구비
광산김씨	김홍목		정용해	시모병에 축친읍혈하여 득어 간호하니 천거됨
광산노씨	노문해	함평	이계형	시부모 극진봉양, 남편병에 축친원대, 상중 예절 엄수
광산노씨		함평	이한서	시부모 및 양부모 효양 상중 12년 식소 행소
광산이씨	이승민	전주	최한중	시모병중 작지, 남편이 잡혀가니 혈서로 구원함
광산정씨		천안	김봉석	시부모 효양, 남편병 작지, 상장진례
광주이씨	이병근	청송	심판택	규범정숙 시부모 효양, 경봉군자, 효열겸전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광주이씨	이인회	진주	정항영	시부모 상례 업수, 조모 안맹 극진봉양하니 천거됨
금성나씨		광산	김봉석	천성온화, 시부모 효양, 정성불패, 예절업수
금성나씨	나봉환	전주	리선우	시부봉양 극효, 정성불패, 예절업수
금성나씨	나정일	인동	장한식	시모병 7년간 구양 극진 간호하니 회생됨
금성나씨	나태현	하동	정호현	시부병에 축천기원, 100리 밖 약수를 진공하여 회생, 천거됨
금성오씨	오기원	고성	김규진	시부재취 권장 득남, 가문계승
김해김씨			조용근	시모병에 상분간호 절지 소생하니 천거됨
김해김씨		전주	이찬현	시부모효양, 남편병 축천원대, 효열접전
김해김씨	김경옥	전주	이남우	시모중풍 7년 시탕불해 상중읍혈 행소
김해김씨	김기준	평산	신태진	경봉군자, 시부모 효양 시부병 상분열지 상중진례, 천거
김해김씨	김대호	전주	리용엽	시부모 효봉, 주용야적, 극진봉양, 정성불패
김해김씨	김문화	인동	장형식	가세 극빈이나 시부모 병환 극진간호 상중 예절 업수
김해김씨	김문환	성산	이종민	시부 상중애혜유제, 시모지체구양 향리흠복, 천거됨
김해김씨	김봉규	청송	심훈택	시부병 축천연명 시부병 축두기원, 효열접전
김해김씨	김성사	함양	박수진	시부모 효양 정성불패, 향리흠탄, 천거됨
김해김씨	김시현	광산	김용근	효행이 탁이하여 도지사 표창
김해김씨	김영목	나주	김용기	시부모 지체구양, 남편 병 수년 백방구호, 효열쌍전 천거
김해김씨	김영봉	하동	정순황	시부 지체구양, 정성불패, 향리흠탄
김해김씨	김재수	여양	진성섭	시부모 극진봉양, 시모 병 수년극진간호 회생, 군수 표창
김해김씨	김창현	천안	전학열	가세 극빈이나 시모 극진봉양, 상중애혜 유제하니 천거
김해김씨	김형목			조실상부, 시부모 극진 양자로 가문 계승 정려
나주김씨	김용균	해주	오세호	시부모 극진봉양, 정성불패, 예절업수, 효부 표창
나주나씨	나운집	영성	정영의	시모상중 상부하니 시부 극진봉양, 예절업수, 효열부
나주나씨	나정집	나주	정병진	시부병 3년 축천원대 상중 애혜유제, 예절업수
나주나씨	나종연	나주	김갑선	시부효양 시탕4년 와기부지 시노불위, 상장진례, 천거됨
나주오씨		함평	이계옥	정유재란 피난중 시부모를 구원하려다가 교살됨
나주오씨	오기선	함평	이사현	성품정숙, 효행탁이, 예절업수
나주임씨	임종실	전주	리기중	29세 상부 시부 극진봉양, 자녀교육 철저
나주임씨	임종진	광산	김연호	경봉군자, 시부모 장병시탕 불해 시노불위, 상중예절업수
나주정씨		파평	윤치운	조실상부 노시모 극진봉양, 양자로 가문계승 세칭 효열부
나주정씨	정두삼	함평	이운범	남편병 축천원대, 시모효양, 고아양육 효열비
나주정씨	정영진	상산	김복식	시부모 효양 시부모장병 극진간호 설증득어 봉친, 천거
나주정씨	정우봉	행주	기봉연	시부병 수년 출입부지 시노불위 함칭효덕
낙안오씨	오정광	인동	장인순	극진부도, 시부모병 극진간호 상장진례, 천거됨
남원방씨	방학수	김해	김현관	시모안맹, 10여년간 축천 간호하여 눈을 뜨게 함
남평문씨			이행신	조실부모하고 추상(追喪) 6년
남평문씨		진주	강영복	덕성정숙, 시부모 효양, 양친상중읍혈, 예절업수 교자의방, 천거
남평문씨	문이현	금성	나각환	시모병 수년 시탕불해 시노불위 상중애혜유제
남평문씨	문주경	창령	조희한	시모병 상분축천, 상중예절업수 남편상중여모 천거됨
능주구씨	구균모	광산	김관현	시부모 지체구양 정성불패, 천거됨

성 씨	생 부	납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달성배씨	배인식	천안	전기범	시부모 극진봉양
달성배씨	배희재	나주	나인환	시모병환 극진간호, 상중애휼유제
달성서씨	서맹수	인동	장종기	납편전사 시부효양 유아교육 가문계승
담양국씨	국치오	함평	모병관	성행정숙, 시모병 10년 와기부지, 시노불위 향당청효
대구배씨		풍산	홍재식	시부모 장병축천, 상중 애휼진례, 향리함복
대구배씨	배광신	청송	심석규	규범정숙, 경봉군자, 친병극진간호 상장제례업수 효열천거
동래정씨	정순모	김해	김원병	시모 노병중 혈지연명
면성박씨	박기홍	해주	정호석	시부모 효양 납편병 6년 간호 상중 기절회생, 효열비
무안박씨	박동진	금동	나기용	시부모 효양, 주봉야적, 극진봉양, 상중애휼유제, 천거됨
무안박씨	박만진	이천	서태유	경봉군자, 시모병 축천상장진례, 납편상중 식소, 천거됨
무안박씨	박영진	영성	정시규	시모 병환 6년 상분간호, 상중 애휼유제하니 천거됨
무안박씨	박중홍	보성	김기복	시모병 7년 극진간호 상중읍혈 행소, 납편병 혈지
문화유씨		창령	조은환	시부모 효양, 지체구양, 정성불폐
문화유씨	유인명	진주	정병기	시부모 극진봉양, 상중 애휼유제하니 효부표창
밀양박씨			김도환	시부병에 축천기원 희생하니 천거됨
밀양박씨		천안	전병환	시부모 지체구양, 교자의방, 종족돈독, 효행실적비
밀양박씨		충주	지경춘	시부모 지체구양, 시부병중 작지연명
밀양박씨	박경순	청송	심상국	시부 순절 읍혈3년 상중식소 예절업수
밀양박씨	박규상	김해	김홍진	규범정숙, 시부모 효양, 경봉군자, 효열검진
밀양박씨	박기천	영성	정한현	납편병에 축천기원 소생, 시부병 수년 극진간호
밀양박씨	박대숙	함평	이정현	시부병 3년 축천원대 상중 예절업수
밀양박씨	박대순	함평	이정현	가세 극빈이나 시부 중풍 3년 간호 회생, 효행비
밀양박씨	박명오	함평	모대진	시모 노병에 정화수로 축천기두 주효, 천거됨
밀양박씨	박병철	고령	신근우	조실상부, 시부봉양, 자녀교육, 종신행소
밀양박씨	박정숙	인동	장 록	결혼당년부터 시부병환 십년 극진간호
밀양박씨	박준빈	인동	장영식	시모병중 단지주혈 득소 천거됨
밀양박씨	박찬종	김산	김길래	시부병중 설단축천구육봉친, 상부진례 효열쌍전
부안김씨	김학술	나주	정병훈	조실상부, 시부병 3년 축천기원 상중읍혈 애통
상산김씨		김해	김명기	시부모효양, 난리중 시모를 업고 피난하다가 순절
상산김씨	김대형	함평	이윤모	조실상부 고아 양육, 시모안맹지성봉양, 상장제례업수, 천거
상산김씨	김중태	김태	김종명	시모피신중 분사, 효행비
서산정씨	정만구	금성	나경업	시부모효양, 우애독실, 시모병 극진간호, 상중애휼진례
선산김씨		광산	김 홍	조부모 병환 수년 극진간호, 시부모 극진봉양
선산김씨		이천	서봉관	경봉군자 시부모 극진봉양 효열검진 천거됨
선산김씨		함평	이재운	조실상부 효양노모, 고아양육, 종신수절
수원최씨	최관국	함평	이유선	상부후 노시부모 극진봉양, 상분 간호하니 천거됨
수성최씨	최기순	낙안	김상을	시부병 10년 극진간호 희생하니 효부표창
수성최씨	최만휴	청송	심임택	규범정숙, 시부모 지체구양, 시모잔병 상분축두, 효행비
수송최씨	최채한	광산	김인석	납편병에 혈지, 시부모 극진봉양, 효열비
순창임씨	임 집	파평	윤성유	가세극빈이나 시모 극진봉양, 효부상을 사양함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순홍안씨	안석구	나주	정병도	시부모 효양 정성불패, 승봉종사, 향리칭송
신평송씨		죽산	안시영	규범정숙 시부모 지체규양, 상장제례 엄수
양성이씨		죽산	안기홍	자성순효, 시모 극진간호, 위선지성, 근검치가
양성이씨	이기환	전주	리건행	시부모 지체규양 정성불패 천거됨
양성이씨	이양복		김육정	시부모를 극진봉양하여 천거됨
여양진씨		하동	정재업	시부모장병 축천혈지, 상중6년 애휼진례 천거됨
여천서씨	서기수	하동	정봉채	경봉군자, 시부모 효양, 우애독실, 세칭 여사
연안이씨			김상순	시부모 극진봉양, 예절엄수하니 천거됨
영광김씨	김영중	나주	정병옥	효성천식, 시부병 상분 축천기두, 상중읍혈 생소
영동김씨	김일근	해주	최준식	가세극빈이나 시부모 극진봉양 예절엄수 군수표창
영동김씨	김효진			시부모효양, 경봉군자, 상장제례엄수
영성정씨		죽산	안종호	부덕겸비, 시부모 효양, 예절엄수
영성정씨		풍산	홍우현	시부모병 설단기두, 상장진례
영성정씨	정민수	한양	조상윤	천성순후, 시모병 수년 극진간호, 향리합칭
영성정씨	정상호	파평	윤국병	조실상부시부모 극진봉양, 상중 애휼유제하니 천거됨
영양천씨		김해	김용길	시모병 시탕불해, 축천혈지 상중읍혈 종신행소, 천거됨
원주이씨		고령	신정후	시부모병 극진간호 축천원대 우애독실
완산이씨	이 광	순흥	안형국	시부모 효봉 천병 극진간호 상장진례 정여
음성박씨	박기현	나주	정병연	동난중 남편전사, 시부 극진봉양 상중읍혈 3년
의령옥씨	옥영근	광산	정상우	시부 부채 청산, 시모 정병 시노불위, 향리흠탄
이천서씨		나주	나도평	시모 지체규양 정성불패, 상장진례, 천거됨
이천서씨	서계유	진주	정태항	시부모 지체규양, 시모병 축천원대 상중 예절엄수 효행비
이천서씨	서종관	한양	조익원	시부 3년 병환 극진간호, 상중 예절엄수 천거됨
안동장씨		광산	정제한	효성지극, 시부모 지체규양, 향리합칭
안동장씨		함평	이영서	남편병 6년간호, 상부 시부모 장병 극진간호, 양자로 가문계승, 천거
안동장씨	장난수	김해	김제모	시부병 7년 축천원대 혈지 상중애휼유제
안동장씨	장동한	광산	김규봉	성효천식 시부병 상분축천 회생, 향리칭송
안동장씨	장세호	나주	임종인	시부병, 축천기원, 백약무효 상중 예절엄수
안동장씨	장우식	나주	정연미	조실상부 시부모 용적봉양, 6년 시묘, 양자로 가문계승, 천거됨
안동장씨	장지철	나주	나만집	상부애휼, 시부모 효양, 상장진례, 성묘지성, 향리흠탄
안동장씨	장채식	함평	이필현	시부모 극진봉양, 시중 예절엄수
인천이씨			이병춘	조실상부, 시부상중 여묘하니 천거됨
임산소씨			김지철	조실상부, 시모를 효성으로 봉양하니 천거됨
장흥고씨		진주	정 근	시부병에 읍혈 구약득어봉양, 정려가 내림
장택고씨	장제유	진주	정복원	조실상부, 시모 극진봉양, 우애독실
장흥임씨	임유진	광산	정영립	조실상부, 시부병7년 극진간호, 예절엄수
전주리씨			김용덕	시부병에 혈지하니 소생하니 천거됨
전주리씨			박기인	시부모 병중에 절지 상분간호, 상중행소
전주리씨		김해	김익배	모병단지, 시부모 극진 효양, 천거됨
전주리씨		전주	최한권	시모 노병 혈지연명, 향리칭송

성 씨	생 부	납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전주리씨		죽산	안기준	4덕구비, 시부모 지체구양 예절엄수, 향리합칭
전주리씨	이석원	함평	노계탁	시부모병 상분축천, 납편병 할고득효, 정려
전주리씨	이용서	함평	이계삼	조실상부, 시모효양, 고아양육, 종신수절
전주리씨	이용모	김해	김석훈	시부모병 축천 상중읍혈, 납편병 혈지, 효열 천거됨
전주리씨	이이혁	고성	김규진	납편병에 혈지, 시모 지성 봉양, 상중읍혈 애통
전주리씨		인동	장두철	시부상중애휼, 시모안맹 와기부지 지체구양 천거됨
전주리씨	이봉연	광산	김재정	조실상부, 시부모 6년 병환 극진간호, 효열비
전주리씨	이윤대	경주	이항영	시부모에게 39년간 야식을 지성봉양하니 천거됨
제주양씨		천안	전장업	시모병 10년 극진간호, 양친상중 애휼유제, 정려
죽산안씨			이양신	시부모효양, 경봉군자, 종신행소, 효열검천
죽산안씨	안순환	파평	윤상옥	시모병중 적이 침입하였으나 피신하지 않고 간호하니 천거
죽산안씨	안종인	함평	노형수	시모중풍 6년 극진 간호하니 천거됨
진주강씨		광산	정계순	40세상부 시부모 효양, 예절엄수 세칭 열효부인
진주강씨	강연신	광산	김영균	조실상부 유복자 양육 시부모 극진 효양
진주강씨	강영세	함평	이의범	규범정숙, 시부모 효양, 예봉제사, 향리홍복
진주강씨	강재찬	공주	이재양	22세상부, 시부모 극진봉양, 가문계승, 효열비각
진주소씨		상산	김순의	시부모효양, 조실상부, 시부모상장진례, 종신수절
진주정씨		죽산	안기섭	시부모 극진봉양, 시종 예를 다하니 천거됨
진주정씨		천안	전기준	시부모 효양, 납편 극진간호, 종신수절, 효열부
진주정씨	정대운	김해	김도현	시모 노병 수년 시탕불해, 시노불위, 향당칭효
진주정씨	정양삼	파평	윤갑중	효행탁이, 시부 명령 순종, 예절엄수, 정성불페
진주정씨	정종연	상산	김현구	경봉군자, 시부모 효양 상중애휼유제, 천거됨
진주정씨	정종연	함평	이덕범	시부모 극진봉양, 효행이 탁이함
진주정씨	정환영		김영호	효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진주정씨	정환영	광산	김영호	효의가 탁이하여 천거됨
진주정씨	정환집	해주	최장목	시모병환 특성으로 간호하니 회상됨
창령조씨	조상승	광산	김기옥	시부모 효양, 위선지성, 상부후 종신행소, 향리칭송
창령조씨	조인국	함평	노두원	부덕겸비 시모병 10여년 극진간호
창령조씨	조 황	죽산	안기준	시부모 효양, 난리때 시모를 보듬고 있으니 적이 물러남
창령조씨	조희전	이천	서상기	시부모 효양 시부병중 혈지연명 세칭 부부쌍효, 천거됨
천안전씨		여산	송종현	시모병 10년간호, 시노불위 상중애휼, 세칭 부부쌍효
천안전씨		함평	노웅상	규범정숙, 수부모 효양, 우애독실
천안전씨	정종일	밀양	박동규	효행탁이, 정조모 노병 4년 극진간호 일문 감탄
청도김씨	김수일	평강	최민식	성품현숙 시부모 극진봉양 예절엄수, 군수표장
청송심씨		안동	장춘택	시부모효양, 장병시탕불해, 상장진례
청송심씨	심상춘	무안	박병용	납편이 외국에 있을때 시부 효양 상장진례
청송심씨	심의일	해주	정태운	시부모효양 시부병 백방치성구호, 상중애휼 3년행소, 천거
청송심씨	심의찬	광산	김재수	경봉군자, 시모병 와기부지 시노불위 상중진애 천거됨
충주박씨	박원구	파평	윤우병	시부모를 효성으로 극진봉양하고 예절 엄수함
탐진최씨		한양	조필원	시부모 효양, 시모병에 혈지연명, 천거됨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파평윤씨		고성	이윤철	시부모 효양, 상중 6년식소, 남편상중 곡묘, 효열 천거
파평윤씨		함평	노응록	시부모 극진봉양하고 예절 엄수하니 천거됨
파평윤씨	유영진	나주	정우환	시부병 득어 구육 극진간호, 효행비
파평윤씨	윤상순	낙안	오수근	시부모병 극진간호 상중에휼진례 천거됨
파평윤씨	윤상임	함평	노병순	시모병환, 수년, 극진간호, 상중에휼유제
파평윤씨	윤선진		정수홍	시부안맹 축천 기원하여 눈을 뜨게 함, 효열로 천거됨
파평윤씨	윤자아	청송	심충택	시모 장병 극진간호, 남편서거 3년 혈루, 효열쌍전
파평윤씨	윤진성	죽산	안익환	부적심비, 근검치산, 시부모 효양
파평윤씨	윤창진	이천	서경석	시부모 극진봉양, 시부병에 득어 간호 희생하니 천거
파평윤씨	윤치서	천안	전기남	시모병에 축천원대 단지 연명하니 천거됨
파평윤씨	윤치성	경주	이규찬	시부모 극진봉양, 예절엄수, 우애독실
파평윤씨	윤치원	광산	김재환	시부모 효양, 지체겸양, 상중음혈 행소
파평윤씨	윤태문	기계	유인식	시부병 3년 극진간호 희생, 야식 평생봉양, 군수표창
파평윤씨	윤형진	고성	김상진	20세 상부 시모 극진봉양, 종신수절
파평윤씨	윤화원	천안	전기성	시부모 극진봉양, 조실상부 유복자 양육, 향교 천장
평강채씨	채규영	광산	김영희	경봉군자 시부모 효양, 상중3년에휼 행소
평강채씨	채영목	함평	이봉헌	시모병환 20년 극진 간호하고 예절 엄수함
평산신씨	신재연	인동	장길상	시부상중 음혈3년 예휼유제, 효행비
평산신씨	신태호	김해	김영희	시부모 극진봉양, 남편병 극진간호, 효열표창
평택임씨	임홍서	함평	이상서	길쌈으로 시부모 봉양 상중에휼기절 조석성묘 지성
하동정씨	정재희	기계	유경지	30세상부, 시부 극진봉양 상장진례, 종신수절, 효열부
하동정씨	정채인	창평	조기정	조실상부, 시부모 극진효양 우애특성, 효열부
한양조씨	조명호	함평	모평신	조실상부 시부병환 극진간호, 효열각
한양조씨	조현주	천안	전상환	시부 극진봉양 상중 3년 여묘
함평노씨	노병문	밀양	박종용	시모병 3년 극진간호 상중 예휼유제 향리칭송
함평노씨	노이빈	경주	이종철	부덕함비, 시부모 지체구양, 정성불패
함평모씨	모병권	나주	정관면	시모병환 6년, 극진간호 할고봉친 희생하니 효행비
함평이씨			안익환	시부를 극진봉양, 시중 예를 다하니 천거됨
함평이씨		나주	정기태	시모 장병에 축천원대하니 천거됨
함평이씨	이경인	인동	장영택	시부모 극진봉양하고 남편따라 죽으니 정려가 내림
함평이씨	이경현	전주	이임연	시부모효양 39세 상부, 우애독실 효열겸전
함평이씨	이돈길	상산	김선기	시부병에 상분 간호하고, 남편병에 축천기원희생
함평이씨	이돈의	함평	노연인	규범정숙, 시부모 효양 경봉군자, 효열겸전 효열부
함평이씨	이방현	인동	장동열	시부장병 노망수년 극진간호 상중 예절엄수
함평이씨	이병서	선산	김교완	시부모 효양, 시부병 상분축천, 상장진례 3년식소 천거
함평이씨	이석범	광산	정영필	시부모 지체구양, 상장제제 엄수
함평이씨	이세현	김해	김문배	시모병 축천원대, 상중에휼 골입, 순절, 천거됨
함평이씨	이용서	금성	나기옥	시부모 지체구양 상중에휼진례 천거됨
함평이씨	이우찬	의령	남정환	남편병작지, 자결미수, 시부모 효양, 교자의방, 효열겸전
함평이씨	이원중	천안	전수옥	시부모 극진봉양, 자녀교육 철거 위선지성, 천거됨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함평이씨	이유직	기계	유치례	시부모 효양 정성불패, 시모병 축천원대 상장진례
함평이씨	이의석	기계	유재환	시부병6년 상분 열지 상중 애훼유제
함평이씨	이일현	하동	정규채	길쌈과 품팔이로 시모 효양, 상중 애훼유제 천거됨
함평이씨	이일현	죽산	안임환	남편 상중에 시부별세, 예절업수, 효열로 천거됨
함평이씨	이일현	죽산	안임환	조실상부, 시부모 극진봉양, 종신행소, 예절업수, 효열부
해주오씨		김해	김봉해	시부장병 미음유공 득효 ※오륜록
해주최씨		죽산	안기석	남편병 작지, 시부모 효양, 예절업수, 세칭 효열부
해주최씨	최병권	우봉	이종구	친자정숙, 시부효양, 4덕겸비, 천거됨
해주최씨	최성목	파평	윤선병	시부병 7년 설단축천 혈지연명 상부후 종신행소
해주최씨	최순홍	김해	김용배	시부모효양, 경봉군자, 길쌈으로 극진봉양, 향당합칭
행주기씨	기익찬	함평	이돈화	조실상부, 시모병극진간호, 상중애훼3년 여묘, 복호 효열비
화순오씨		함평	노영정	시부모에 득어 봉친하니 천거됨
홍덕장씨	장언풍	죽산	안시량	시부병에 혈지소생, 시모 지성봉양 천거됨
홍덕장씨	장현규	죽산	안기창	시부모효양, 시모병 축천원대, 상중 읍혈, 향리흠탄, 천거



2. 열행(烈行)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강희취씨	최덕규		김상수	열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경주김씨			김지익	남편병에 할고작지 연명하니 천거됨
경주김씨	김재룡	한양	조기철	결혼 10일만에 상부, 남편 유언에 따라 시부모 봉양 종신수절
경주김씨	김효택	광산	노필규	남편병 혈지연명 상증진례 흡혈행소 천거됨
경주이씨		나주	오익수	남편이 배타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음, 예봉제사 고수정절
경주이씨	이규상	청송	심장택	남편병에 혈지 시모봉양 고아양육 가문계승 종신수절
경주이씨	이기운	하동	정무열	남편병 축두원대 혈지연명 향리흠탄 천거됨
경주이씨	이대환	이천	서동수	조실상부 시부모효양 고아양육 함통인원 종신수절
경주이씨	이동좌	동래	정한득	조실상부 형제양육 종신수절 천거됨
경주이씨	이종송	함평	노이계	남편병 축천원대 함원인통 양질입사 가문계승 천거됨
경주최씨	최연개	한양	조방운	상부후 자결미수 고아 양육하니 천거됨
경주최씨	최익선	김해	김성태	남편병 단지주혈 승증3년 여묘 천거됨
경주최씨	최익희	김해	김사범	조실상부 예절업수 자녀교육 가세번창 종신수절
경주최씨	최인환	한양	조종형	상부후 자결미수 고아양육 가문계승
경주최씨	최택성	광산	김재산	효성지극, 경봉군자 상부여묘4년, 열행비
고령신씨	신상휴	광산	노한춘	남편병 축천원대 유아양육 전절종노
고성이씨		함평	노사암	4덕겸비 남편병 축천작지 시부모효양 전절종노
고성이씨	이경화	금성	나덕민	남편병 백방구료 시부모 효양 예봉제사
고성이씨	이윤복	함평	모인기	상부순종미수 고아양육 가문계승 천거됨
고흥유씨		고령	신낙휴	남편병 할고 상부 자결미수 양질입사, 종신수절
고흥유씨	유제일	경주	이승우	20세상부 자결미수 양자교육 종신수절하니 천거됨
고흥유씨	유창호	고령	신동휴	남편병에 할고기두기산, 상부후 양자로 가문계승
광산김씨			김이옥	남편병에 할고기두기산, 상부후 양자로 가문계승
광산김씨			장익상	시모병에 상분혈지, 남편병에 할고연명, 천거됨
광산김씨		경주	회학모	30세상부 시부모양 고아양육 가문계승
광산김씨		광주	정지석	남편병에 축천원대하고 시부모 극진봉양, 종신수절
광산김씨		김해	김홍환	남편병 축두 상분 벽통애곡 전절종노
광산김씨		김해	김응광	남편병 할고 7일연명 상부후 취의 천거됨
광산김씨		김해	김현선	남편병 축천원대 상장진례 종상후 순절 향리흠탄
광산김씨		김해	김맹동	남편병에 할고작지, 상부후 읍혈3년 유아양육, 천거됨
광산김씨		나주	정 홍	정유재란 “죽사동의 3열부”항 참조
광산김씨		신안	주낙원	남편병 축천원대 단지연명 시부모상장진례 효열쌍전
광산김씨		이천	서상표	남편병 축천원대 형제양육 종신수절 향리흠탄 천거됨
광산김씨		인동	장태석	상부후 노모와 유아 때문에 자결미수 유아양육 가문계승
광산김씨		전주	이준화	남편병 작지, 상증애휼유제 유아양육 가문계승 ※오륜록
광산김씨		전주	이강문	남편병 백방구호 설단7년 축천 단지회생 천거됨
광산김씨		파평	윤병교	남편이 독립만세 사건으로 순절, 고아양육 종신행소 수절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광산김씨		함평	이계항	상부에절엄수 효우검비 ※삼강록
광산김씨	김 린	파평	윤 발	정유재란에 남편 순절 소식 듣고 스스로 목메어 죽음, 정려
광산김씨	김 중	파평	윤광도	남편병 축단축천 혈지연명 시부모효양 고아양육 천거
광산김씨	김 준	함평	모낭기	조실상부 시모봉양 고아양육 가문계승
광산김씨	김경오	함평	이돈명	23세 상부 자결미수 고아교육 종신수절, 표창
광산김씨	김광련		정 유	결혼 3년후에 상부한 후 목메어 순절, 천거됨
광산김씨	김군현	인동	장현각	시모 정성불패 남편병 혈지회생 효열검전 천거됨
광산김씨	김기선	창평	조병석	시부모 효양정성불패, 경봉군자, 남편병 혈지 효열탁이 천거
광산김씨	김기수	인동	장현홍	시모병 득약간호, 남편중기 연지 상중 예절엄수, 종신수절
광산김씨	김기운	김해	김영봉	효성지극 남편병에 할고간호 5일연명, 열행비
광산김씨	김기준	나주	정지면	부덕검비, 남편병에 축천구약간호 종상 후 목메어 순절함
광산김씨	김기학	인동	장문상	남편병 수년 지성간호 상장애환 교자의방 행소전절
광산김씨	김기호	함평	이기효	조실상부 고아 때문에 순절번의 교자의방 종신수절
광산김씨	김기홍	여양	진대화	남편병에 열지 3일 연명, 상부 후 상장진례, 문헌보감 참조
광산김씨	김두균	기계	유성준	남편병 단지 상장애환진례 천거됨
광산김씨	김두몽	함평	어병우	남편병에 기두원대혈지, 자결미수, 시부모 봉양 종신수절
광산김씨	김두삼	나주	나기주	우귀전상부, 양질입사, 가문계승, 종신수절, 천거됨, 효열비
광산김씨	김두환	청송	심능일	효성지극 경봉군자 조실상부 예절엄수 종신수절
광산김씨	김명현	김해	김상용	결혼 몇 년 후 남편병 작지 상장애환유제 종신행소 천거
광산김씨	김복현	나주	임종숙	남편병 축천원대 작지회생 향리칭탄 천거됨
광산김씨	김상록	김해	김종철	19세상부, 시모효양 교자의방 가문계승 시모상중여묘 천거
광산김씨	김상열	해주	최병권	남편병에 축두원대 상부후 3일절식 순절함
광산김씨	김상인	함평	이계한	조실상부 순종미수 고아양육 수절종노
광산김씨	김상필	인동	장유식	남편병 축천원대 상장진례 천거됨
광산김씨	김석권	청송	심기삼	규범정숙 조실상부 애환유제 함원인통 종신수절
광산김씨	김성현	해주	최병기	남편병에 작지기두원대, 상부후 형제양육 종신수절, 열행비
광산김씨	김영원	파평	윤상경	남편병 혈지 축천 시부모효양 종신수절 천거됨
광산김씨	김영호	파평	윤상근	남편병에 축천원대 혈지 5일연명 대성문학원 표창
광산김씨	김일현	김해	김규구	남편병 혈지, 고아 때문에 순종번의
광산김씨	김재기	진주	정재원	조실상부 유복자 생남 교자의 방 가문계승 천거됨
광산김씨	김재복		이계한	조실상부 순절미수 시부모효양 고아양육 종신수절
광산김씨	김재삼	함평	노두상	남편병 축천원대 상부상장진례 고아양육 전절종노
광산김씨	김재섭	이천	서재호	부덕검비 남편병 열지주혈 향리칭송
광산김씨	김재영	여양	진성범	남편병 백약무효, 축천원대 할고연명 자결미수 종신수절
광산김씨	김재영	하동	정순대	시부모 남편연속 3상, 7세시숙 극진간호 가문계승
광산김씨	김재황	평강	채규화	시모지체구양 남편병에 할고 단지 향리칭송
광산김씨	김종현	상산	김용구	성효근천 상부후 자결미수 식음전폐하다가 죽음
광산김씨	김종현	진주	정성하	상부 유복으로 자결미수 종노전절 천거됨
광산김씨	김진옥	진주	이신구	남편중기 연지소생, 시부모 극진봉양, 효열비
광산김씨	김찬진	안동	김기중	남편병에 작지, 남편유언에 따라 양자로 가문계승, 천거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광산김씨	김치공	남원	양운지	조실상부 인통함원 시종진례 고수유지 종신수절
광산김씨	김학실	현풍	곽영규	상부 순종미수 유아양육 교자의방 천거됨
광산김씨	김현지		김상준	상부장례 후 목메어 죽으니 천거됨
광산김씨	김홍민	나주	나기만	조실상부 애훼유제 양자로 가문계승 종신수절
광산김씨	김홍연	금성	나기만	28세상부 애훼유제, 양질입사 가문계승 종신수절 ※삼강록
광산김씨	김홍해	양성	이종각	남편병 축천원대, 상부 후 자결미수 고아양육 종신수절
광산노씨		죽산	안천섭	시묘효양 독수전절 교자의방 향당함칭
광산노씨	노석후	광주	정제육	남편병 할고 20세 상부, 시부모 효양양자로 종신수절, 효열각
광산노씨	노중환	나주	정병란	남편병에 열지 간호, 시모 봉양, 유아교육 종신수절 가문 번창
광산송씨	송진복	진주	정문규	남편병중 가세극빈 읍혈 득어 할고 간호 종신수절
광산이씨	이덕성	죽산	안지충	결혼 3일후 남편이 죽으니 삼년상을 마치고 자결함, 천거
광산이씨	이덕성	죽산	안지충	결혼 3일만에 상부 시모위양 대상날에 순절
광산정씨		나주	정 응	정유재단 “죽사동의 3열부”항 참조
광산정씨	정대석	영산	김홍진	조실상부 남편 유언에 따라 시부효양 전절종노
광산정씨	정민	합평	모경기	상부후 자결미수 유아양육 종신수절하니 천거됨
광산정씨	정운연	광산	김치진	조실상부 청상수의 교자의방 종신수절 ※삼강록
광산정씨	정이하	진주	정규섭	조실상부 자결미수 시부모 봉양 고아양육 가문번창
광주이씨	이근춘	경주	김상흠	남편병 열지 상장진례 천거됨
광주이씨	이근춘	경주	김상경	남편병에 축천원대 혈지 시모 극진봉양 효열비각
광주이씨	이복필	합평	모대향	결혼 9일만에 상부 자결미수 시부모 효양 양질입사 천거
광주정씨	정의석	천안	전천환	남편병 축천원대 상중애훼유제 향리칭송 천거됨
금성나씨			이시업	상부후 3년상을 마치고 자결하니 천거됨
금성나씨			모석태	남편병에 축천기원 지성간호 상부후 자결하니 천거됨
금성나씨		낙안	오택규	조실상부 시부모효양 형제양육 종신수절 천거됨
금성나씨		합평	이인현	상부 상장진례 자결미수 ※열행비각
금성나씨		합평	모석공	남편병 시탕 지성간호 축천 상부후 취의 천거됨
금성나씨		합평	이창범	남편병 할고 시부모효양, 효열 쌍전
금성나씨	나관필	합평	이사인	결혼3년 남편병 축천원대 할고연명 천거됨
금성나씨	나기섭	합평	이계철	4덕구비 조실상부 고아양육 가문계승 종신수절
금성나씨	나득홍	달성	배시환	남편병 단지 상중애훼유제 시부모효양 전절종노
금성나씨	나운환	광산	김용태	남편병에 할고간호 자결미수 종상후 순절하니 천거됨
금성나씨	나윤희	합평	이기현	남편병 축천원대 혈지연명 ※열행각
금성나씨	나인덕	나주	정진기	남편병에 할고 극진간호하여 희생하니 천거됨
금성나씨	나정의	경주	정여의	남편병 시탕불해 상분할고 ※삼강록
금성나씨	나태운	김해	김국윤	남편병 축천원대 작지주혈 자결미수 양질입사 전절종노 천거
금성나씨	나학성	합평	이제용	조실상부 상장진례 시부모효양 고아양육 가문계승
금성나씨	나한성	이천	서언유	우귀전 남편병에 단지 상부 호천통곡 양질입사 열행비
금성나씨	나화원	광산	김기운	조실상부 유복자양육 종신수절 천거됨
금성오씨			정석열	상부 후 자결미수타가 집안이 빈틈에 목메어 죽으니 천거
금성오씨		김해	김석필	효성지극, 남편병에 작지 상중여묘, 3년 종신 행소하니 천거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금성오씨	오계한	인동	장현문	남편병 축천원대 시탕불해 상중애훼진례 종신수절 천거
금성오씨	오재우	안동	권영채	16세 결혼 17세상부 시부모 극진봉양 양자로 가문계승
금성오씨	오철환	인동	장현명	결혼 몇 달후 상부하고 종신행소, 열행비
금성정씨	정돈기	고령	신원후	남편 안맹 7년 기두기산 구약 간호하여 눈을 뜨게 함
금성정씨	정원석	광산	김기상	남편병 설중구육 작지연명 천거됨
기계유씨			김석영	상부후 삼우를 지내고 뒤따라 죽으니 천거됨
기계유씨	유국환	나주	정희연	결혼 직후 남편병에 작지 3일연명 양자로 가문계승, 천거
김해김씨		경주	김교봉	시부모효양 조실상부 애훼유제 전절종노 향리칭송
김해김씨		광산	김예현	시부모효양 상부애훼유제 고수정절
김해김씨		광산	노전길	남편병에 열지 상부후 자결미수 상장진례 천거됨
김해김씨		남평	문각현	상부상장진례 남편유언에따라 고아양육 전절종노
김해김씨		밀양	박일용	남편병 할고연명 고아양육 전절종노
김해김씨		반남	박제성	부덕순후 상부후 고아양육 가문계승 종신수절
김해김씨		영양	천용식	시부모효양 경봉군자 상중애훼진례 종상후 순절 천거
김해김씨		인동	장명환	경봉군자 상부 자결미수 고아양육 전절종노
김해김씨		진주	강문희	상부 자결미수 시부모효양 함원인통 종신수절 천거됨
김해김씨		진주	정명화	남편병7년 축두원대 상장진례 양질입사 천거됨
김해김씨		충주	지기석	남편병중 축천 설중독어회생 ※삼강록
김해김씨		평산	신현성	천성순후 조실상부 애훼진례 종신수절 천거됨
김해김씨		함평	노철수	정유재란에 피신중 남편전사 소식 듣고 3모녀 자결, 삼강록
김해김씨		함평	이계옥	조실상부 애훼유제 상장진례 천거됨 ※삼강록
김해김씨		함평	노운탁	규범정숙, 남편병에 단지, 여러번 천거됨
김해김씨		함평	이택서	남편병 축천열지 상중여묘 종신행소
김해김씨		함평	노제순	남편병 열지 상부후 돌을 끓여지고 물에 빠져 자결 천거
김해김씨		해주	최경목	남편병 축단기두원대 작지주효 천거됨
김해김씨		화순	최창길	생남 3일후 남편병 열지 시부병 열지 효열로 천거됨
김해김씨	김경중	창령	조운환	남편병열지 상중애훼유제 향리감복 천거됨
김해김씨	김계한	인동	장현옥	남편병 열지 상부후 기절회생 상장진례 상중여묘 천거
김해김씨	김계현	강릉	유지열	규범정숙 조실상부 애훼유제 3년행소
김해김씨	김광업		김기눌	남편병 2차단지 3년 여묘 양질입사 가세변창 열행비
김해김씨	김구규	파평	윤상건	남편병 수년 축천혈지, 교자의방 가문계승 천거됨
김해김씨	김국태	평산	신성찬	시부모효양 남편병 축천작지 상장진례 천거됨
김해김씨	김권옥	금성	나병환	조실상부 읍혈3년, 종신행소 고수정절
김해김씨	김기모	전주	이동훈	남편병 축천원대 상장진례 교자의방 승습정훈
김해김씨	김낙원	장성	서상규	조실상부 종노전절 ※열행비
김해김씨	김달연	나주	정규영	남편병에 할고 시부봉양 고아양육 가문변창, 천거됨
김해김씨	김도성	함평	이재향	조실상부 남편 유언에 따라 교자의방 종신소복
김해김씨	김도원	함평	이권범	호란때 적의 위협을 배격 죽음으로써 남편명령 순종
김해김씨	김득식	나주	임병목	남편병 열지 상중애훼 고아양육 가문계승 천거됨
김해김씨	김만삼	나주	김윤섭	남편병 축천원대 시탕상분 상부후 소상날 순절 천거됨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김해김씨	김면기	함평	이민만	남편병 상분혈지 상부후 벽통기절
김해김씨	김병두	고성	김기주	남편병 축천 시당불해 혈지 상부 3년후 순종 천거됨
김해김씨	김사현	진주	정종수	남편병 축천원대 상분간호 상부후 시부모 봉양 천거됨
김해김씨	김상진	함평	이계남	조실상부 고아양육 근검방적 위선지성 종신수절
김해김씨	김석구	광산	김재덕	시부모효양 상부후 형제양육 종신수절 천거됨
김해김씨	김선유	남원	양제황	상부읍혈3년, 시부모 방적봉양 독자양육 가문계승
김해김씨	김성학	함평	이복문	병자호란 중 남편전사 소식 듣고 목메어 죽음 열행비
김해김씨	김순기	전주	이상연	22세상부후 유복자양육 가문계승 효열석정
김해김씨	김여중	광산	김수연	정유란 때 남편과 아들 전사소식 듣고 7일 절식 순절 천거
김해김씨	김영서	홍덕	장현권	남편병 상분 축천기도 지성 간호 상부후 종신 수절
김해김씨	김영석	광산	김필주	호우극성 부덕겸비 상부후 읍혈3년 종신행소, 열행비
김해김씨	김영조	풍천	임주호	시부모 효양 남편병 혈지회생 천거됨
김해김씨	김용배	밀양	박경진	남편병 혈지 상부 자결미수 1달후 음독순절 천거됨
김해김씨	김원각	전주	최인현	남편병에 작지, 상부종상후 순절, 천거됨
김해김씨	김원각	전주	최인현	남편병에 작지, 상부후 3년상을 마치고 자결하니 천거
김해김씨	김원집	금성	나치일	시부모효양 남편병 백방구호 축천원대 혈지연명 천거
김해김씨	김윤철	한양	조길형	남편병에 상분간호 상중여묘 종신수절 천거됨
김해김씨	김인학	밀양	박길래	남편병 상분간호 상중여묘 종신수절 천거됨
김해김씨	김일원	전주	리재춘	사변중 남편병사 수시안장 시부모효양 전절종노
김해김씨	김재봉	남평	문동현	효양시부 남편병 단지연명 천거됨
김해김씨	김정원	의령	옥상의	남편병 축두 주용야적 지성 간호 상장진례 천거됨
김해김씨	김종장	나주	정용면	남편병에 할고, 양자로 가문계승, 음독순절 열행비
김해김씨	김종해	나주	정한희	시부모 효양, 경봉군자 효열 천거됨
김해김씨	김중립	하동	정종현	남편병에 작지 23세상부 고아양육 종신수절
김해김씨	김지필	고성	이종화	남편병에 축천원대 열지연명 상장진례 종신수절
김해김씨	김지형	창평	조기홍	결혼 수년후 상부 함원인통 제례엄수 종신수절
김해김씨	김진성	인동	장인상	남편병 축천원대 상부자결미수 고아양육 천거됨
김해김씨	김진옥	광산	김예현	27세상부애훼, 시부모효양, 교자의방, 효열겸전 향리칭송
김해김씨	김진호	함평	이동범	시부모 효양 남편병 혈지연명 효열쌍전 천거됨
김해김씨	김찬유	남평	문승현	남편병에 축천원대 열지연명, 상부후 애훼유제 종신행소
김해김씨	김하순	함평	노연복	남편병백방구호, 상중애훼유제 고아양육 가문계승 천거
김해김씨	김행도	전주	이상연	남편병 할고연명 상장진례 천거됨
김해김씨	김현주	금성	나덕성	규범정숙 조실상부 고수정절 종신소복 천거됨
김해김씨	김현철	기계	유윤식	20세상부, 자결미수 유아교육 종신행소, 표창
김해김씨	김현태	평산	신용희	남편 병중 꿈속에 득약할고간호 천거됨
김해김씨	김희직	풍산	홍승민	상부애훼진례 3년행소 종상 3일후 순절 천거됨
김해김씨	김희재	죽산	안일한	남편병 시당불해 단지주혈 상부후 순종 열행비
나주김씨		홍덕	장현순	성행강직 조실상부 종신수절
나주김씨	김상근	무안	박경화	조실상부, 남편병에 작지 자결미수, 양친봉양 양자로 가문계승
나주김씨	김석환	남원	양연석	남편병 축천원대 시부봉양 유아양육 가문계승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나주김씨	김용백	진주	최병호	결혼후 남편괴질 구약 지성간호 회생 열행비
나주김씨	김중현	금성	나근성	시부모효양, 남편병 축친원대 기두 상중애휼유제 종신수절
나주나씨	나석팔	평산	신석연	남편병에 윤지, 20세에 상부 애휼유제 종신 수절하니 천거
나주나씨	나성민	남평	문기중	남편병 수년 극진간호 축친원대 단지 3일연명
나주나씨	나순집	나주	전방면	규범정숙 상부후 애휼유제 읍혈3년 종신수절
나주나씨	나양숙	전주	리진향	남편 누명 혈서 진정 훈방 상부후 시모 만류 자결미수 천거
나주나씨	나일채	양성	이득성	26세상부, 유아형제양육, 시부모 극진봉양 가문계승
나주나씨	나창균	김해	김태하	조실상부 자결미수 고아양육 전절종노
나주오씨		진주	정달원	남편병 지성간호 양질입사 가문계승, 천거됨
나주오씨	오기선	경주	이문우	남편병에 작지상분 극진간호, 삼강록
나주오씨	오길선	성산	김용철	효성지극 부덕겸비 남편병에 작지 주혈 회생하니 천거
나주오씨	오 엽	광산	정이필	남편병 상분축친 시부봉양 고아양육 함원인통 열행비
나주임씨			문인상	남편병에 할고 극진 간호하니 천거됨
나주임씨		의령	남창희	남편병에 축친원대 작지 주혈 3일연명 효열각
나주임씨	임 한	남원	양운수	남편 전사소식에 자결미수, 유복자 양육 가문계승, 정려
나주임씨	임계춘	나주	김민홍	조실상부 순종미수 고아양육 가문계승 종신수절
나주임씨	임계화	죽산	안임노	열행이 탁이하여 천거됨
나주임씨	임기상	해주	정방인	시부모효양 남편병 5년 백방구료 상중여묘 열행전
나주임씨	임길수	금성	나대성	조실상부 순종미수 시부모 효양 전절종노
나주임씨	임난성	나주	정의면	남편병 백방구료 상장진례 고아양육 가문계승 전절종노
나주임씨	임능묵	김해	김구규	조실상부 50여년 전절종노 시부모 효양 효열로 천거됨
나주임씨	임병관	달성	배세정	시부모 효양 경봉군자 남편병 작지, 상부후 순절 천거
나주임씨	임병이	함평	노용수	남편병에 작지 상부후 자결미수 양자교육성공, 열행비
나주임씨	임사인	의령	남유희	남편병에 설단기원 극진간호 자녀교육 성공 효열각
나주임씨	임성겸	경주	김석경	시부모효양 상부상장진례 근검치가 종신수절
나주임씨	임영의	해주	최감용	남편병 축친혈지 상중애휼유제 향리칭송 천거됨
나주임씨	임의묵	상악	김진홍	남편병 지성간호 상부애휼진례 천거됨
나주임씨	임택규	은진	송규삼	조실상부 3년수묘 고아양육 근검치가 가문번창
나주정씨		파평	윤상봉	상부후 10일간을 굶다가 죽으니 천거됨
나주정씨		파평	윤치만	남편병 축친원대 상부 기절 회생 교자의방 종신수절
나주정씨		파평	윤치운	남편병 축친원대 시모효양 종신수절 효열겸전 천거됨
나주정씨	정규상	고성	이중수	결혼 몇 달후 상부 종상후 새벽에 순절
나주정씨	정기안	영산	신성준	남편병에 축단기원 42일 만에 기절함, 열행비
나주정씨	정기영	함양	박한봉	상부후 순절미수 고아양육 종신수절 천거됨
나주정씨	정석호	인동	강현표	열행탁이, 천거됨
나주정씨	정우상	죽산	안기효	조실상부 애휼유제 근검치가 종신수절
나주정씨	정치흠	함평	이돈구	상부후 남편 유언에 따라 시모봉양 고아양육 함원인통
나주정씨	정흥기	상산	김기복	효성지극, 남편병에 축친원대 할고 간호 3일 연명하니 천거
낙안오씨	오문권	전주	리정훈	시부모 효양 남편병 할고 주효 천거됨
낙안오씨	오용서	남평	문화현	상부 자결미수 종신행소 교자의방 극승종사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낙안오씨	오치일	경주	김 준	남편이 의병장으로 순절 전절피란 국훈 때 음독자결
남양홍씨	홍제식	함평	이석현	남편병수년 축단기두 열지3일연명 상중식소 열행비
남원양씨		나주	임병익	시부효양 남편병 상분작지 상중과애 천거됨
남원양씨	양원길	밀양	박연진	남편병 백일산제 득삼진효 단지할고 3일연명 천거됨
남평문씨			이찬규	상부후 뒤따라 음독자살함, 정려
남평문씨		김해	김석엽	남편병에 상분절단 축천원대 상중애휼유제
남평문씨		함평	이유배	효성지극 경봉군자, 남편병에 함고, 상부직후 자결, 정려
남평문씨	문 경	낙안	오석근	남편병 단지 상중 곡통과애 향리칭송
남평문씨	문병섭	창평	조봉황	남편병 단지할역 상중애휼골입 3년행소 정려
남평문씨	문유진	광산	김대현	남편병 축천원대작지, 유아 두딸 양육, 종신행소 열행비
남평문씨	문주생	함평	이철규	상부후 상장진례 10여일 절직순종 천거됨
남평문씨	문주생	상산	김용택	조실상부 자결미수 고아양육 가문계승 천거됨
낭주최씨	최영수	상산	김용문	남편병 축천원대 혈지 상장진례 양절입사 천거됨
달성배씨	배덕기	광산	김홍순	효성지극, 남편병에 할고간호, 상부후 예절엄수 음혈3년
달성배씨	배상중	남평	문사헌	결혼직후 남편병위급 단지 수일연명 상부후 애휼유제
달성배씨	배언기	창평	조춘환	조실상부 시부모효양 고아양육 전절종노
달성서씨	서인숙	광산	김규득	상부 상장제례엄수 종신수절
담양전씨	전만우	금성	나수억	남편병 할고 상부자결미수 종상후 순절 천거됨
담양전씨	전방진	청송	심의연	남편병에 축천원대, 17세 상부, 유아양육 가문계승, 천거됨
대구배씨	배경록	김해	김제만	남편병 20년 상분 축천 상장진례 천거됨
대구배씨	배광인	파평	윤 황	정유재란에 남편순절, 호천통곡, 딸과 함께 순절, 정려
대구배씨	배규상	경주	정달권	남편병 축천원대 단지연명 ※삼강록
대구배씨	배승기	기계	유익준	남편병에 작지, 남편 제삿날에 목매어 죽으니 천거됨
대구배씨	배정기	밀양	박균창	시부모효양 경봉군자 남편병 지성간호상분 상장진례
대구배씨	배종석	여양	진선국	조실상부 종신수절 천거됨
동래정씨		풍산	홍우정	남편장병 설중구약 상부곡통 과애 종신행소 천거됨
동래정씨	정성조	함평	이기범	결혼직후 상부 기절회생 시부봉양 양절입사
동래정씨	정익조	파평	윤상우	조실상부 자결미수 양자교육 가문계승하니 천거됨
동래정씨	정훈조	금성	나승량	상부 상장진례 우애독실 근검치가 가세변창
면성박씨	박기현	상산	김상진	남편병 혈지 상장진례시부극진봉양 천거됨
면성박씨	박도진			시부병 간호 회생 상부3년 여묘 전절종노 향리감화
면성박씨	박홍진	금성	나준성	남편병 축천기도 상중곡통과애 종신수절
무안박씨		경주	이승우	조실상부 상장진례 시부모효양 종신수절
무안박씨		광산	김사중	갑오동란중 적의 위협을 무릅쓰고 남편을 사경에서 구함, 천거
무안박씨		남원	양재현	조모병 득어봉친 남편병 축두원대 지성간호 회생
무안박씨		남평	문경환	상부후 남편 유언에 따라 형제양육 가문변창 천거됨
무안박씨		전주	리재방	남편병 축천원대 상중 애휼진례, 양절입사 종사보존 천거됨
무안박씨	박기두	파평	윤두병	남편병 축두원대 순종미수 고아양육 전절종노
무안박씨	박기신	금성	나기영	경봉군자 상부자결미수 현제양육 종신행소 천거됨
무안박씨	박기환	금성	나정석	시부모효양 남편병 7개월 지성간호 혈지연명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무안박씨	박덕오	인동	장정물	경봉군자, 남편병에 축원원대 상부후 애훼유제
무안박씨	박덕진	함평	이돈환	시부방적봉친 상부후 교자의방 전절종노
무안박씨	박도전	나주	정남순	남편병에 작지, 상중3년작여묘, 천거됨
무안박씨	박도화	함평	노예숙	조실상부 유아양육 함원인통 종신수절
무안박씨	박수일	파평	윤석진	시부모 지체구양 남편병 지성간호 자결미수
무안박씨	박이연	함평	노연숙	조실상부 시부모효양 고수정절 향당청소
무안박씨	박익진	파평	윤일성	남편병 축원원대절지, 시부모 봉양 유아교육 종신수절 천거됨
무안박씨	박인덕	남평	문재환	조실상부 상장진례 자결미수 형제교육 가문번창
무안박씨	박종후	파평	윤수진	남편병 정화수로 백일기도 회생후 순절
무안박씨	박추진	하동	정극현	조실상부 유아양육 증가계승 가문번창
무안박씨	박 혁	광산	김상중	남편병 축원원대 할고연명 천거됨
무안박씨	박현중	광산	김재희	결혼 몇 년후 남편병 혈지연명 함원인통 양질입사 천거
문화유씨		나주	임화규	남편병 축두혈지 상중애훼 조석곡묘 누착초고, 양질입사
문화유씨		진주	정은규	조실상부 상장제례업수 고아양육 종신수절 천거됨
문화유씨	유상열		나정우	남편병에 열지연명수일 열행전기가 있음
밀양김씨	유영관		김득남	남편순절 소식 듣고 애통하다 굶어죽음, 정려
밀양박씨	김인손		김광업	남편병에 작지주혈 연명하니 천거됨
밀양박씨		경주	정귀조	남편병 작지연명 상장진례 경학원 포상
밀양박씨		고령	신근우	남편징용 유공환향 시부만류 자결미수 효양우독
밀양박씨		김해	김귀현	남편병 3년 지성간호 상중여묘 예절업수
밀양박씨		동래	정진풍	결혼 2년후 남편병 작지연명 애훼유제 전절종노
밀양박씨		의령	남기규	남편병 할고 수명연장 세인감탄
밀양박씨		전주	이병원	남편병 축단기두원대 상중 3년 읍혈 천거됨
밀양박씨		진주	강채수	남편병 축원원대 상장진례 시부모효양 고아양육 천거
밀양박씨		파평	윤 명	상부후 양질입사, 천거됨
밀양박씨	박계진	함평	이장서	두부자와 같이 조실상부하니 양세3열, 기적비
밀양박씨	박규환	광산	김재경	시부모 효양 남편병 지성간호 상부 자결미수 유아양육 전절종노
밀양박씨	박기영	상산	김용우	남편병에 축친기원 구약, 작지 상부후 자결미수
밀양박씨	박노수	파평	윤영식	조실상부 함원인통 가문번창 종신수절
밀양박씨	박민수	함평	모종성	남편병 할고단지 수년연명 향리칭탄
밀양박씨	박민행	제주	양재득	남편병 축원원대, 혈지, 상부후 자결미수 종신수절, 열행비
밀양박씨	박봉구	김해	김등식	시부모효양 남편병 상분열지 고아양육 종신수절
밀양박씨	박사홍	김해	김종수	조실상부 자결미수 유아양육 종신수절
밀양박씨	박상권	함평	이계수	남편병 4년간호 가산 탕진 고용방적으로 고아양육, 종신 수절
밀양박씨	박성열	함평	이문서	시부모효양 경봉군자 상부후 순종 천거됨
밀양박씨	박수현	청주	한장동	남편병에 축원원대 혈지, 예절업수 종신행소, 천거됨
밀양박씨	박승현	김해	김충배	조실상부 유복으로 자결미수 종신수절 천거됨
밀양박씨	박시진	담양	전방엽	상부후 목메어 순절하여 함께 장사지냄 천거됨
밀양박씨	박영래	함평	이방서	조실상부 시부모 봉양 양자로 가문계승 열행비
밀양박씨	박위주	제주	양기묵	남편병 단지연명, 상중여묘 천거됨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밀양박씨	박유호	김해	김동두	남편병 할고주효 상장제례업수 천거됨
밀양박씨	박윤희	담양	국광현	경봉군자, 상부후 자결미수 고아양육 종신수절
밀양박씨	박응룡		김영두	결혼 5개월 남편병 축원원대, 상중 애훼유제 종신 행소 천거
밀양박씨	박응열	김해	김유홍	시부모효양 남편병 축원원대 상장진례 종상후 순종, 정려
밀양박씨	박응용			18세 결혼 직후 상부 시부모 극진봉양 효열 정려
밀양박씨	박정모	경주	김관희	남편병 지성간호 구육열지 향리감복 *삼강오륜록
밀양박씨	박종수	김해	김인영	남편병 축원원대 혈지연명 상중여묘 천거됨
밀양박씨	박필운	여양	진익후	조실상부 자결미수 천거됨
밀양박씨	박학영	금성	나정옥	남편병 3년 구육지성 간호회생
밀양박씨	박현중	상산	김만호	시부모 효양 남편병 열지연명 천거됨
밀양박씨	박희순	함평	이복운	조실상부 여묘, 시부모효양 상중애훼유제 천거됨
밀양박씨	박장규		김예순	남편병 상분 혈지연명 천거됨
반남박씨		이천	서숙원	남편을 호랑이로부터 구해내고 대신 죽음 정려
반남박씨		천안	전기상	시부모 효양 남편병중 뱀을 구해 연명 상중읍혈3년 정려
보성오씨		함평	이계태	상부후 기절 회생 고아양육 성년후 남편 제삿날에 순절
부안김씨		김해	김찬순	시부병 시탕불해 상부 3년 식소 종신행소 *효열각
부안김씨	김관서	인동	장장식	남편병중 눈속에서 화사를 구해 간호 함복열성
삭영최씨	최익문	김해	김한택	남편병 호곡 호랑이가 개를 업어다 주어 간호 회생, 정려
상산김씨			김기찬	시모병구약간호 회생, 남편병에 작지하니 천거됨
상산김씨			이유정	남편에게 단지 할고하고 애훼유제하다가 죽으니 천거
상산김씨		김해	김종일	조실상부 남편유언에 따라 유아양육 가문계승
상산김씨		인동	장건식	남편병 열지 시부모 봉양 함원인통 전절종노
상산김씨		진주	정재열	시부모효양 남편병 축원원대 고아양육 종신수절
상산김씨		천안	전경팔	남편전사 소식 듣고 3년간 예절업수 종상 후 순절 열행비
상산김씨	김기득		정석모	남편 병사 후 장례를 마치고 음독자살 열행비
상산김씨	김낙진	파평	윤홍진	시부모효양, 남편병 축원원대 작지, 상장진례 3년행소 천거
상산김씨	김득기		정석모	남편병사 초빈 한달 후에 장례를 마치고 음독자살 열행전
상산김씨	김복식	진주	정재열	남편병에 축원원대 시부모 봉양 유아양육 종신수절
상산김씨	김봉식	함평	이인현	상부후 상장진례 유아양육 종신행소 천거됨
상산김씨	김일환	김해	김현덕	남편병 축원원대 단지연명 향리합송
상산김씨	김자진	함평	노환경	남편병에 혈지, 시부모 극진봉양 종상 후 목메어 죽음
상산김씨	김제한	광산	김문래	남편병 축원기원 극진간호 회생 *삼강록
상산김씨	김찬봉	전주	이행원	조실상부 벽통실성 시부모효양 종신수절 천거됨
서산유씨	서민식	진주	정인원	조실상부 자결미수 양자양육 가문계승 변창함
서산정씨		해주	최효승	남편병 축원원대 상중애훼유제 전절종노 천거됨
선산김씨		고흥	유용상	남편병 축원원대 시부모 효양 종신수절
선산김씨	김표원		김상추	남편병에 할고열지 간호하니 천거됨
선산김씨	김홍석	상악	김길택	남편병에 축원원대하고 시모병에 열지 소생하니 천거
선산임씨		전주	리강열	남편병 6년 내중윤지 백방구료, 상부3년 여묘
수성최씨		함평	노인기	남편병 축원원대 상장진례 시부모 종상 후 순종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수원최씨	최채한	광산	김인석	상부시모만류 자결미수 시모봉양 함원인통 전절종노
수원백씨		인동	장학열	남편병에 축친원대, 상부후 자결미수 고아교육 가문변창
수원백씨	백일휘	김해	김상진	남편병 축친원대 혈지 연명 3년 여묘 열행비
수원백씨	백학서	인동	장성식	25세 상부자결 미수 유아양육 가문변창
순천박씨		나주	정선중	남편상을 마친날 밤에 돌을 보듬고 열음 속에 들어가 자결
순천박씨	박언침	진주	정경득	정유재란 “8열부”항 참조
순천박씨	박창석	나주	나선중	남편 3년상을 마치고 물에 빠져 자살함, 정려
순흥안씨	안익서	창평	조병모	남편병 혈지연명 상부 유복자 득남 가문계승
신안주씨		함평	노병철	규범정숙 남편병 상분 축친원대 지성간호 ※호남지
신천강씨		파평	윤 해	정난 중 남편을 구하려다가 함께 전사, 정려
신평송씨	송규희	함평	이돈후	남편병에 혈지 3일연명 예절엄수 종신행소하니 천거됨
신평송씨	송용기	함평	이 가	남편이 적봉에 순절소식 듣고 자기 목을 잘라 순절 열행비
신평송씨	송환오	함평	이계성	20세 남편병 단지할고 함원인통 양질입사 천거됨
안동김씨	김기달	상산	김용순	효성지극, 경봉군자, 남편병에 혈지, 양자가문계승, 종신행소
안동장씨	장한기	신평	송병길	남편병 3년 축친원대, 백방구호 상중 애훼진례 전절종노 천거
안산이씨		인동	장윤만	남편병 혈지 상중애훼 골입 고아양육 종노전절
양성이씨			김충배	남편병 10년 극진간호 할고 소생함, 정려
양성이씨		광산	김기용	18세 남편병에 단지 상중애훼 종신수절 향리흠탄
양성이씨		천안	전영담	남편병 단지 상장진례 3년요묘 종상후 순종 ※오륜록
양성이씨	이민구	함평	노병천	조실상부 고아성장 후 순종 천거됨
양성이씨	이병례	청송	심응택	남편병에 축친원대 자결미수 종상후 자결 열행비
양성이씨	이종구	광산	김기용	18세 남편병 작지, 상부 애훼진례 종신행소 천거됨
양천허씨	허 기	남평	문사병	남편병 20년 백방구호 축친기원 상중식소 열행비
언양김씨		죽산	안유환	남편병에 구약간호, 상중애훼유제 3일후 죽으니 천거됨
언양김씨		죽산	안의환	남편병 지성간호 상중애훼유제 3일간 절식 순종
언양김씨		함평	노영열	남편병 축친원대 혈지연명 천거됨
여산송씨		김해	김수성	남편병 축친원대 상중애훼진례 고아양육
여산송씨		반남	박종집	시부병 축친 상부후 자결미수 종신수절 효열검전
여산송씨	송병모	진주	정일원	결혼 몇 년후 상부 자결미수, 고아양육 종신수절
여산송씨	송영선	금성	나증환	시부모 효양 상부 후 고아양육 종사보전 전절종노
여산송씨	송영열	경주	최해봉	남편병에 두차례 할고 간호하여 희생하니 천거됨
여산송씨	송종기	나주	나정각	20세때 남편병에 축친원대 할고 상중3년 여묘
여산송씨	송종진	낙안	오영환	남편병 열지연명 고아양육 전절종노
여산송씨	송지문	광산	김용규	남편병 축친원대 자결미수 양질입사 종신수절 천거됨
여양진씨			김석규	결혼 다음해에 상부, 여묘, 3년상을 마치고 자결함
여양진씨		상산	김달환	상부상장진례 소상때 순종
여양진씨		함평	이돈기	경봉군자 남편병 혈지 상부후 시부모효양 종신수절
여양진씨	진갑범	인동	장복수	남편병 축친원대 상부3년애곡 교자의방
여양진씨	진상묵	인동	장옥윤	남편병 상분축친원대 상중애훼진례 양질입사 천거됨
여양진씨	진상묵	광산	김상필	결혼 몇 년후 상부3년 여묘 천거됨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여양진씨	진성서	낙안	오현광	남편병에 축두원대, 자결미수, 유아교육, 종신수절, 천거됨
여양진씨	진익남		김재손	남편병에 작지하고 상부후 목메어 죽으니 천거됨
여양진씨	진치국	평강	채태병	부덕검비 상부후 읍혈3년 고아교육 가문계승
여양진씨	진희중	나주	정남술	조실상부 자결미수 유복자등 4형제교육 가문번창
여흥민씨	민영태	영성	정상진	남편병에 혈지 자결미수 종상후 제삿날에 자결함
연안차씨	차만순	경주	이종세	규범탁이, 남편병에 작지상분, 상부후 애훼유제 종신행소
연안차씨	차연보	김해	김상중	조실상부 양질입사 승습정훈 종신수절
연안차씨	차연실	김해	김이호	남편병 혈지 할고 상부 3년행소 천거됨
연일정씨	정선직	함양	박윤상	남편병 득어간호, 작지 수일연명하니 천거됨
영광김씨	김시준	진주	정 철	정유재란 “8열부”항 참조
영광김씨	김명수	천안	전기찬	시부병에 혈지 남편병4년 할고 상부후 애훼유제
영광김씨		함평	이한익	남편병에 혈지 상장진례 취의 천거됨
영산김씨		함평	이계석	상부 자결미수 양질입사 종신행소 천거됨
영산김씨	김수근	고성	이상용	규범정숙 남편병 열지연명 천거됨
영산신씨			최재은	상부애훼유제 3년행소 종신수절 향리칭송 천거됨
영산신씨		광산	노태현	조실상부 자결미수, 시부봉양 양질입사, 종신수절 천거
영산신씨		파평	윤사진	시모증기를 연지하고 남편병에 단지하니 천거됨
영산신씨		해주	정태산	남편병 작지연명, 읍혈 3년 종신행소 천거됨
영성정씨		밀양	박학진	효성친식, 상부후자결미수, 고아양육 가문계승 종신수절
영성정씨		죽산	안종술	남편비명서거, 시모효양, 고수정절 근검치가, 4세실적비건립
영성정씨		풍산	홍우현	조실상부, 남편유언에 따라 시부모봉양, 유아양육 전절종노
영성정씨	정군백	이천	서근수	남편병에 축두원대, 시부모 극진봉양 자녀교육 종신수절
영성정씨	정녹현	광산	김재익	조실상부 시부효양 고아양육 가문계승 종신수절
영성정씨	정성범	함평	노병옥	상부후 자결미수, 상중예절엄수 종신행소하니 천거됨
영성정씨	정영문	함평	이유선	남편병 지성간호 눈속에 인삼을 구해 간호 종상후 순절
영성정씨	정용현	청송	심능환	조실상부 순종미수 고아양육 종신수절
영성정씨	정재복	함평	노재호	조실상부 예절엄수 양자양육 가문계승 위선지성
영성정씨	정중범	해주	최맹현	남편병 혈지희생 시부병 상분 상장진례 천거됨
영성정씨	정한교	광산	김영희	남편병 좌,우할고 육회공진 회생 천거됨
영월신씨		기계	유진겸	열행이 특이하고 야사 저술함
영월신씨	신기영	이천	서상문	남편병 축천원대 열지주혈 ※삼강록
영천이씨	이재겸	함평	노병성	남편병 시탕불해 상중애훼진례 3년행소
옥천설씨		나주	정 진	정유재란 “죽사동의 3열부”항 참조
옥천조씨	조대진	진주	정함석	조실상부 자결미수 유아양육 가문계승종신수절
옥천조씨	조성복	절강	편흥기	효열친식 남편병 구과득어 지성간호희생 천거됨
울산김씨	김면휴	나주	장수면	남편병에 할고작지, 기절희생, 시조부종상후 목메어 죽음
의령남씨		고령	신은휴	남편병 시탕불해 상부 자결미수 전절종노 기적비
의령남씨		천안	전윤구	효성지극, 남편병에 축천원대, 상부후 자결미수, 종신수절
의령남씨		풍천	임석호	남편병에 혈지3일연명, 남편종상후 순절, 열행비
의령남씨	남명안	풍천	임현양	남편병 혈지연명 상중애훼유제 종상일순절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의령남씨	남병철	경주	김희옥	상부후 자결미수 시부봉양 고아양육 종신수절
의령옥씨	옥재정	김해	김두호	남편병에 축친원대, 단지 할고3일 연명, 정여
의성김씨	김 진	상산	김중해	남편병 작지 상장진례 상중행소 천거됨
이천서씨			문덕원	상부후 3년 행소하고 시부모 극진봉양, 효열비
이천서씨		광산	노영원	남편병 작지 상장진례 상중행소 천거됨
이천서씨		밀양	박헌식	남편병에 득어 간호 소생 완쾌하니 열행비
이천서씨		선산	김교빈	상부후 자결미수 고아양육 전절종노
이천서씨		파평	윤상식	남편병에 축친원대 단지3일연명 시부모봉양 종신수절
이천서씨	서광술	진주	정재기	남편병 7년간호 시부모효양, 유아교육 가문번창
이천서씨	서귀중	진주	정율원	결혼 몇 년후 상부 자결미수 시모봉양 종신행소
이천서씨	서문옥	함평	이민표	남편병 작지 상부순종미수 양질입사 가문계승 천거됨
이천서씨	서범기	진주	정종혁	효성지극, 남편병 백방구호, 자경미수 유아교육 종신수절
이천서씨	서상진	달성	배종재	남편병 축친원대 상중애휼 종신수절
이천서씨	서의옥	하동	정익현	조실상부 시모봉양 고아양육 종신수절
이천서씨	서재운	전주	리경구	시부모효양 남편병 축친원대 작지소생 천거됨
이천서씨	서치린	기계	유철환	상부 자경미수 종상후 순절 천거됨
인동장씨		기계	유경손	남편상중 여묘, 시부모의 상례를 마치고 절사, 정려
인동장씨		김해	김홍재	남편병 축친원대, 상중애휼유제, 종신수절, 천거됨
인동장씨		나주	정우채	남편병 작지연명 상부 함원인통 시부모 효양 종신수절
인동장씨		밀양	박중화	조실상부 세자녀 양육 종신수절 천거됨
인동장씨		밀양	박태진	남편병단지, 시부병 시탕3년 시모병 구육봉친 합칭효열
인동장씨		진주	정달규	남편병에 열지 연명, 상중애휼유제 종신행소, 수절
인동장씨		진주	정재기	19세 상부 함원인통 전처소생 양육 가문계승 전절종노
인동장씨		천안	전영진	상부 자결미수 시모종상후 양질입사 순종, 정려
인동장씨		하남	정기영	남편병에 작지독소, 제차 양쪽할고 소생 천거됨
인동장씨	장경운	대구	배창기	남편병에 혈지 상부후 자결미수 자녀교육 종신수절
인동장씨	장두진	광주	이병일	남편병 수년 축친원대 득어간호소생함, 열행기족비
인동장씨	장병원	함평	이영서	시부모병 6년간호, 조실상부, 양자로 가문계승, 종신수절
인동장씨	장봉채	함평	모대순	24세상부 애휼유제 고아양육 가문계승
인동장씨	장원길	천안	전영진	조실상부 예절엄수 양질입사 문호번창 종신수절
인동장씨	장원택	전주	리문배	조실상부 애휼유제 고아양육 종신행소 천거됨
인동장씨	장재원	나주	정우풍	효성지극, 경봉군자, 남편병에 할고간호, 상부후자결, 천거됨
인동장씨	장정만	평산	신남균	남편병에 상분간호, 상부후 자결미수, 독자양육 가문 번창
인동장씨	장종학	파평	윤자풍	조실상부, 시부모 극진봉양, 예절엄수, 종신수절하니 천거
인동장씨	장채명	광산	김상기	남편병 3년 축친원대 시부모효양 효열로 천거됨
인동장씨	장치상	밀양	박덕준	효성지극, 경봉군자, 상부후 예절엄수, 종신수절하니 천거
인동장씨	장현옥	청송	심병택	남편병에 설단축친원대 할고혈지 종신행소하니 천거됨
인동장씨	장현준	죽산	안지혜	27세상부 형제양육 함원인통 전절종노 수절
장수황씨		밀양	박동호	상부후 순절 열행비각
장수황씨		진주	강치희	상부후 자결미수 고아양육 전절종노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자수정씨	정기영	함양	박한봉	남편병에 축친원대 자결미수 유아양육 종신수절
장수황씨	황채신	절강	편언구	남편병 단지 상장진례 고수정절 천거됨
장택고씨	고광윤	광산	노병덕	경봉군자, 시부모효양 상부후 고아양육 가문계승 천거
장택고씨	고시홍		정병일	결혼 수년후 남편병에 혈지, 상중 예절엄수하니 천거됨
장흥고씨		상산	김상준	상부 상장진례 장사를 마치고 순종
장흥고씨		함평	노성국	남편병 지성간호 상을 마치고 순절
장흥고씨	고시원	창평	조병열	18세 남편병 열지 자결미수 양절입사 종신수절 천거됨
장흥임씨		장흥	고계동	남편병 축친원대 자결미수 종신수절 ※열행비
장흥임씨	임 복	수성	최기억	남편병 축친원대 상중에휼유제 3년 여묘 천거됨
장흥임씨	임익상	함평	이돈직	남편병을 득어간호, 시모병에 혈지, 종상후 자결, 천거
전주리씨			박기인	남편병에 할고연명하고 종신읍혈함, 정려
전주리씨		남원	양안석	갑오동란 남편회사 시체반장 예절엄수 천거됨
전주리씨		밀양	박병순	조실상부 남편의 유언에 따라 시부모효양 고아양육
전주리씨		인동	장호주	남편병에 할고혈지 간호하니 천거됨
전주리씨		진주	정동만	17세 상부 자결미수 시부모 지체구양 향리함탄 천거됨
전주리씨		한양	조귀홍	남편에게 할고 간호하여 소생하니 천거됨
전주리씨	이계원	광산	김옥규	결혼 1년 만에 상부 예절엄수 근검치가 종신수절 천거됨
전주리씨	이덕항	경주	이은술	효성지극, 남편병에 축친원대 자결미수, 유아교육 종신수절
전주리씨	이문업	청송	심 택	효성지극, 남편병에 축친원대 자결미수, 유아교육 종신수절
전주리씨	이문태	상산	김용준	효성지극, 경봉군자 상부 후 자결미수 고아교육 가문계승
전주리씨	이문향	남원	양복석	남편병 눈 속에 뱀을 구해 간호, 상부후 시부모 보양 양절입사
전주리씨	이병선	남주	최문진	남편병 할고 상부벽통 실성, 종신행소 천거됨
전주리씨	이상찬	상산	김용권	남편병 할고 상부벽통 실성, 종신행소 천거됨
전주리씨	이수연	창평	조병일	남편병 작지연명 천거됨
전주리씨	이승구	낙안	오경근	밤중에 도적이 침입 남편을 구원하고 순절함
전주리씨	이완훈	한양	조정연	남편병 축친원대 열지 상부후 순절 천거됨
전주리씨	이윤표	해주	최경수	남편 호환구출, 천거됨
전주리씨	이윤학	홍성	장명호	남편병 할고작지연명 천거됨
전주리씨	이윤혁	풍천	임상엽	시부모효양 남편병 실단축친 효열로 천거됨
전주리씨	이이인	기계	유범준	남편병 할고 혈지 상부후 순종 천거됨
전주리씨	이전여	광산	김장석	조실상부 시부모 봉양 유아양육 종신수절
전주리씨	이정학	창평	조문승	시부모효양 남편병 축친원대 열행탁이 천거됨
전주리씨	이종안	이천	서기원	남편병 축친원대 유아양육 가문계승 전절종노
전주리씨	이준의	전주	정만휴	결혼 4일에 상부 자결미수, 효성지극 우애독실 종신수절
전주리씨	이철현	김해	김영호	남편병 상분혈지 상중에휼진례 전절종노 정여
전주리씨	이춘연	광산	김제정	20세 남편병 축친원대 유아양육 함원인통 종신수절
전주리씨	이치오	경주	이치호	남편병 백방구호 단지주혈 천거됨
전주이씨		문화	유학수	조실상부 유복으로 자결미수 3년식소 행소 천거됨
전주이씨	이경섭	광산	노동승	남편병에 축친원대 상부후 자결미수 양자로 가문계승
전주이씨	이병선	죽산	안기중	19세상부 근검치가 전절종노 종당함복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전주이씨	이병수	광산	김영해	효성지극, 경봉군자, 남편 극진간호, 상부자결미수 종신수절
전주이씨	이용모	김해	김석훈	시부병 축천기원 남편병에 혈지 소생하니 효열로 천거
전주이씨	이익원	함평	이기서	20세에 상부하여 장례준비 후 자결하니 천거됨
전주이씨	이일관	고성	이윤근	남편병 백방구료 지성간호 3년 여묘
전주이씨	이해길	공주	이영채	조실상부 시부모효양, 2남과 유복자양육, 효열비
전주최씨		전주	리건대	남편병 축천원대 애환 기절 희생 전절종노 천거됨
전주최씨	최기두	금성	나수환	남편병 백방구호 상장진례 미망인자처 종신행소
전주최씨	최대수	나주	임원규	남편병 4년 설단축천, 상부 후 시부봉양 고아양육
전주최씨	최범조	고성	김낙현	조실상부, 시부모상중애휼유제, 3년상을 마치고 자결함
전주최씨	최봉수	이천	서귀봉	조실상부, 시부모효양, 고아양육 가문계승, 종신수절 천거됨
전주편씨	편이상	광산	노봉해	시모병 시탕불해, 남편병 단지연명 효열쌍전
절강편씨	편호익	경주	김각영	규범정숙, 남편병열지, 상부상장진례 고아양육 고수정절
제주양씨			정 문	조례후 남편이 죽으니 자결미수 삭발종신 행소, 천거됨
제주양씨		동래	정인완	시부모효양 상부진애 양절입사후 순종 천거됨
제주양씨		진주	강석희	조실상부 애통망극 고아양육 전절종노
제주양씨		천안	전주중	남편병 축천원대 할고 자결미수 고아양육 가문계승
제주양씨	양여일	전주	리현삼	남편병 백방구호 축천원대 상중애휼유제 천거됨
제주양씨	양의용	광산	정의홍	시부모 효양 예절제사 남편병작지 연명
제주양씨	양찬문	나주	김상호	남편병 축천원대 형제양육 종신수절
죽산안씨		창령	조기주	조실상부 시모봉양 위선지성 전절종노
죽산안씨		함평	모대길	남편병 열지 상중애휼진례 종신수절 천거됨
죽산안씨	안기춘	청송	심기남	시부모효양 경봉군자 상부 후 종상 다음날 밤 순절
죽산안씨	안기홍	나주	정병호	조실상부 종신수절 향리흠탄
죽산안씨	안기환	고성	이상신	효성지극, 경봉군자, 상부후 예절엄수 고아양육 종신수절
죽산안씨	안순거	밀양	박준수	남편병에 축천원대 상중예절엄수 시모봉양 종신수절
죽산안씨	안시영	경주	이종난	결술옥사에 상부 주민(住民)통곡 굶어서 순종
죽산안씨	안중노	나주	정진복	남편병에 혈지하고 장례후 목메어 죽음, 정려
죽산안씨	안지성	함평	이돈윤	남편병 축천원대 상부 함원인통 고아양육 가문계승
죽산안씨	안지창	함평	이계복	조실상부 시부모효양 고수정절 천거됨
죽산안씨	안지환		김강련	남편병에 작지하고 뒤따라 죽으니 천거됨
죽산안씨	안치순	달성	배강섭	효행탁월 남편병 작지연명 상중애휼유제
죽산안씨	안형일	금성	나정규	남편병 지성간호 상중애휼진례 교자의방 종노전절
죽산안씨		영산	신시만	남편병에 작지, 상중 행소3년하니 천거됨
진보이씨	이한필	인동	장용관	남편병 할고 상중애휼유제 천거됨
진주강씨			이교연	조실상부, 고아를 형에게 맡기고 목메어 죽음, 천거됨
진주강씨			이기복	남편병에 축두원대하고 할고간호 희생시키니 천거됨
진주강씨		김해	김석의	남편병에 열지연명 상중3년 여묘
진주강씨		파평	윤창은	상부후 3년상을 마치고 음독 자살하니 천거됨
진주강씨		함평	이자성	시부모효양 남편병 축천원대 상장제례엄수 종신수절
진주강씨		광산	정제우	21세상부 상장진례 함원인동 유아양육 천거됨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진주강씨		김해	김석희	20세남편병 열지 연명 향리흠탄 ※오륜록
진주강씨		광산	김혹현	20세 상부 자결미수, 함원인통, 시부모효양, 종신수절 천거됨
진주강씨		영산	신문준	25세상부 상장진례 종신행소 천거됨
진주강씨		영산	신민준	30세 남편병에 축친원대, 상중에휼유제, 종신행소, 가세 번창
진주강씨	강대승	파평	윤호중	남편병에 축친원대 유복자 생남 남편종상후 순절
진주강씨	강두황	한양	조동귀	남편병 7개월 지성구호 단지상분 축친회생 천거됨
진주강씨	강만한	상산	김정환	남편병 단지 상부후 자결미수 천거됨
진주강씨	강문영	진주	정석원	조실상부 자결미수 고아양육 가문번창하니 천거됨
진주강씨	강성삼	창평	조규환	남편병 축친원대 혈지연명 천거됨
진주강씨	강영길	청송	심근택	남편병 상분 축친 백방구료 지성간호
진주강씨	강주예	합평	이유인	남편병에 백방구호 읍혈실신 상부후 절명하니 천거됨
진주강씨	강최수	해주	최병섭	남편숙병에 백약무효 단지회생 재차단지 완쾌함
진주강씨	강필양	밀양	박시화	남편병 단지 자결미수 담제익일 순종 천거됨
진주소씨	소세무	상산	김순의	규범탁이 남편병에 작지 유복자양육 가문계승, 천거됨
진주정씨			박병진	결혼 몇 달후에 상부하고 종신행소하며 복을 입으니 천거
진주정씨			이겸서	상부후 다음날 밤에 뒤따라 죽으니 천거됨
진주정씨			이성서	조실상부, 시모 종상 후 자결, 천거됨
진주정씨			이형기	정유제란에 적으로부터 남편을 구원함, 정려
진주정씨		순천	박해일	상부유복 여아출생 시모독남 가문계승 종신수절 천거됨
진주정씨		파평	윤상진	남편병 혈지 자결미수 망자 후 물에 빠져 죽음 천거됨
진주정씨		합평	이중현	남편병에 혈지 간호하니 천거됨
진주정씨		합평	이민원	남편병에 열지 3일연명, 시부모 극진봉양, 양자로 가문계승
진주정씨		합평	이유성	조실상부 시부모 양질위탁 후 음독순절 천거됨
진주정씨		합평	이성서	조실상부 시모효양 시모별세 종상후 순절 천거됨
진주정씨	정 종	김해	김도관	시부모 극진봉양, 상부후 종신행소, 자녀교육 가문번창
진주정씨	정계현	김해	김범관	시부모효양 조실상부 유아양육 전절종노 천거됨
진주정씨	정관일	파평	윤중진	남편병 백방구호 설단축친 자결미수 상장진례 천거됨
진주정씨	정규식	합평	박병진	결혼 몇 달후 상부 종신행소 복장 천거됨
진주정씨	정도원	상산	김원식	효성지극 조실상부 자결미수 고아양육 종신수절
진주정씨	정봉원	상산	김지구	결혼 몇 달만에 상부 자결미수 양자양육 종신수절
진주정씨	정상봉		김성한	상부후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죽으니 천거됨
진주정씨	정순옥	인동	장선구	조모효양, 부병백방 간호 상부 애곡부절, 독자 양육 전절종노
진주정씨	정원규	청송	심용택	남편수년병 극진간호, 형제교육 근검치가 가문번창
진주정씨	정인규	합평	이민철	시부모 효양 승순군자 6년 여묘 상부후 전절종노
진주정씨	정일원	합평	이준현	결혼 7일에 상부하고 종신행소, 양자로 가문계승, 천거
진주정씨	정일원	합평	이사현	경봉군자, 상부시모 만류 자결미수, 고아양육 가문계승 천거
진주정씨	정재문		박제원	남편병 백방구료 열지연명 시부모효양 종신수절
진주정씨	정종권		최대현	18세상부 시부모 상장진례 양질입사 가문계승
진주정씨	정종명	청송	심의석	규행천수, 경봉군자 이열사수 향리칭송
진주정씨	정종일	합평	이주범	상부후 자결미수, 시부모 봉양, 유아양육 가문계승하니 천거됨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진주정씨	정종표	수성	최윤순	남편병에 백일기원, 축천기두 회생10년 자녀교육 열행비
진주정씨	정종화	천안	전상양	상부 시모 만류 자결미수 시모봉양 종신수절 천거됨
진주정씨	정주원	나주	정흥면	조실상부 자결미수 읍혈3년 양자로 가문계승 열행비
진주정씨	정필동	남평	문운용	남편병 단지 상부후 매일성묘 종신수절 천거됨
진주정씨	정한두	나주	김연구	시부모, 남편 연속별세, 장례엄수 양자로 가문번창, 천거
진주정씨	정함일			정유재란 “8월부”항 참조
진주정씨	정홍류	함평	이수복	조실상부 자결미수, 고아 교육 근검치산, 가문번창 종신수절
진주정씨	정홍청	천안	전홍관	남편병 축적원대, 혈지3일연명, 시부모 봉양, 고아양육 종신행소
창녕조씨			김광택	남편병에 읍혈기원 득어간호 회생하니 천거됨
창녕조씨			김영필	남편상중 예절엄수 종상후 목메어 죽으니 천거됨
창녕조씨			이계룡	상부후 자결미수 시부극진봉양 종신행소하니 천거됨
창녕조씨			이순서	상부후에 예절엄수하고 소상날에 목메어 죽으니 천거
창령성씨	성달화	광산	김기직	조실상부 순종미수 유아양육 천거됨
창령성씨	성윤진	인동	장두환	남편병3년 지성간호 상장진례 시모효양 효열검전 천거
창령조씨		경주	최병섭	시부모효양 남편병 축천원대 상중과애 고수정절 천거
창령조씨		안동	김양필	상부후 목메어 순종, 열행실적비
창령조씨		인동	장상호	남편병 축천혈지 상부후 형제양육 종신수절, 천거됨
창령조씨		함평	모대석	조실상부 함원인동 시모효양 고아양육 가문계승
창령조씨		함평	노원숙	남편병 축두 조실상부 시부봉양 고아양육 효열검전
창령조씨	조병중	함평	이방현	결혼 수년후 남편병 혈지 자결미수 고아양육 가문계승
창령조씨	조승상		정문원	남편병 축천할고 시부병 설중득어 봉친 효열쌍전 천거
창령조씨	조익승	함평	노원숙	남편병혈지 시부병작지 효열쌍전 향리흠탄 천거됨
창평노씨		진주	정수원	시부모 효양남편병축천 상부함원인동 고아양육 천거됨
천안전씨		광산	노영택	시모효양 경봉군자 상부애휼진례 효열 천거됨
천안전씨		광산	노종인	규범정숙 남편병 축천원대 시부모 상중6년 여묘 천거됨
천안전씨		함평	노경상	남편병혈지, 축천원대 상중식소, 양질입사가문계승, 천거됨
천안전씨	전경서	달성	배시진	규범정숙 남편병 상부 축천기도중 순절
천안전씨	전기철	함평	노호상	규범정숙 상부후 유아양육 함원인동 전절종노
천안전씨	전상규	하동	정복현	남편병중 백방구료 신약을 얻어 회생 상부후 상장진례
천안전씨	전상채	금성	나종환	경봉군자 남편병 축천원대 상중곡통 기절
천안전씨	전상현	선산	김교인	조실상부 자결미수 수절 천거됨
천안전씨	전성국	해주	최병호	효성지극 남편병 수년에 읍혈득어 간호 회생함
천안전씨	전영좌	남평	문철환	효성지극 경봉군자, 남편병 백방구호, 상중읍혈 종신행소, 천거
천안전씨	전필한	함평	노경상	조실상부, 자결미수, 시모봉양, 양자로 가문계승
철원주씨		함평	노병오	조실상부 애휼유제 시모봉양 종신수절 천거됨
청도김씨		영성	정재홍	남편병 혈지 할고 아들과 함께 정려
청도김씨	김계일	함평	이계홍	결혼직후 상부 시모만류 자결미수 양질입사 천거됨
청도김씨	김상도	영성	정재홍	남편병에 할고간호 소생하니 아들과 함께 효열로 천거
청송심씨		이천	서해린	남편병 할고연명 시부모 효양 전절종노
청송심씨		청송	심충실	남편의 순절 소식 듣고, 뒤따라 자결하니 천거됨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청송심씨		함평	이재균	23세 남편병에 상분축친 단지 할고간호 소행하니 천거
청송심씨		함평	노종삼	상부애훼진례 우애독실 종족돈복 근검치가 봉선우독
청송심씨		함평	노봉렬	남편병에 단지하고 종신행소함
청송심씨	심 택	광산	김규철	18세 상부 읍혈 3년에통, 시부모 극진봉양, 종신수절, 삼강록
청송심씨	심갑동	광산	김기선	남편병 축친원대, 상중3년 여묘 종신행소, 삼강록 열행비
청송심씨	심성진	항양	조기수	상부애훼 기절회생 3년 여묘
청송심씨	심예장	광산	김은현	남편병열지주혈 시모봉양 종신수절
청송심씨	심용택	강릉	유재갑	열행탁이 상부 자결미수 유아양육 전절종노
청송심씨	심운상	광산	김재혁	남편병 작지연명, 상부후자결미수, 시부모봉양
청송심씨	심의일	풍산	홍승벽	남편병 축친혈지 상중애훼유제 향리청송 천거됨
청송심씨	심의찬	광산	김재수	시모병 수년 극진간호 상부후 목메어 순절하니 천거됨
청송심씨	심의철	나주	나영현	남편병에 축친원대, 상부후 자결미수 시부봉양 육아양육
청송심씨	심의철	이천	서해기	남편병 수월 지성간호, 혈지, 상중 예절엄수, 종상 후 자결 천거
청송심씨	심종범	함평	이재근	조실상부 남편 유언에 따라 시부 극진봉양
청주한씨		함평	노병현	남편병에 단지 주혈하여 연명하니 천거됨
청주한씨		함평	이민옥	효성지극 경봉군자 상부후 3년 여묘 종신수절
청주한씨	한은하	밀양	박승호	남편병 축친원대 상분시탕 수년 간호 향리청열
청주한씨	한의화	낙안	오영관	남편병 할고단지 상부후 함원인통 종신행소 천거됨
청주한씨	한재풍	밀양	박생문	부덕겸비 상부후 자결미수 자녀교육 종신수절
청주한씨	한종교	해주	최문목	남편병 3년 간호 단지, 상부후 목메어 순절함
청주한씨	한화숙	밀양	박수배	조실상부 개가를 권장하니 목메어 죽으려다 종신수절
조계정씨		나주	나경채	시부모 효양 경봉군자 조실상부 상장제례엄수 천거됨
충주박씨		이천	서윤무	남편병에 할고 작지, 머리를 깎고 종신수절, 정려
충주박씨	박성휴	죽산	안중환	남편 요절후 가문을 계승하니 천거됨
충주박씨	박원용	선산	김신용	11세상부 요절후 가문을 계승하니 천거됨
충주박씨	박춘원	평산	신재귀	남편흉통 약수로 지성구호 소생 천거됨
충주박씨	박호주	파평	윤철병	남편병 단지, 상부애훼유제 시모봉양 전절종노 ※삼강록
충주지씨			최종순	남편병에 상분간호 시모를 극진봉양하니 천거됨
충주지씨		한양	조종현	결혼2년만에 상부 상장진례 전절종노
충주지씨	지맹운	한양	조종현	효성지극 남편병에 혈지 유아교육 가문계승, 효열각
충주지씨	지지묵	능주	구계선	조실상부 남편 유언에 따라 교아양육 고수정절
탐진최씨	최경원	경주	이홍우	남편병수년 축친기원 혈지연명 상부후 애훼유제
탐진최씨	최명환	홍덕	장만규	시부모효양, 경봉군자, 남편병 지성간호, 상부상장진례 천거
탐진최씨	최영선	무안	박판환	남편병에 상분 축친원대, 열지, 교아양육 종신수절 열행비
파평윤씨			정순구	남편병에 혈지 3일연명하고 상부후 자결하니 천거됨
파평윤씨		나주	임석규	조식상부 남편 유언에 따라 교아양육 가문계승 천거됨
파평윤씨		선산	김기동	조실상부 상장진례 봉사이성 교자의방 가문변창
파평윤씨		수원	최병한	조실상부 함원인통 양절입사 종신수절 천거됨
파평윤씨		장흥	고홍중	남편병 작지 상중애훼유제 종신수절 ※열행비
파평윤씨		풍천	임윤재	18세에 상부 자결미수 시부모 봉양 유아양육 종신수절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파평윤씨		함평	노응록	남편병 작지읍혈, 시체를 안고 순절, 천거됨
파평윤씨		함평	노응상	남편병에 단지 연명하고 상부후 목메어 죽으니 천거됨
파평윤씨	윤광제	여양	진상언	남편병 축천원대 혈지주효 상중식소, 고아양육 천거됨
파평윤씨	윤방진	인동	장현후	남편병증 얼음속에서 득어간호 상부통곡 기절회생 여묘 천거됨
파평윤씨	윤상병	김해	김해순	남편병작지 상부애훼진례 종신수절
파평윤씨	윤상일	광주	정제구	생부병할고, 남편병 작지 19세상부 목메어 순절 효열비각
파평윤씨	윤상직	밀양	박문진	남편병 축천원대 작지연명 상중애훼유제 천거됨
파평윤씨	윤상화	김해	김봉현	조실상부 고아양육 종신수절
파평윤씨	윤성서	풍천	임원순	남편병 단지연명 상중애훼유제 천거됨 ※오륜록
파평윤씨	윤양섭	진주	정항세	효성지극 경봉군자 상부후 예절업수 형제교육 성공
파평윤씨	윤자아	청송	심열택	조실상부 자결미수 양자로 가문계승
파평윤씨	윤자중	창령	조기추	남편병 수년 지성간호, 혈지 연명 3년 여묘 양절입사 천거됨
파평윤씨	윤자후	영성	정수현	조실상부, 독자요절, 양자로 가문계승, 종신 수절하니 천거
파평윤씨	윤치국	밀양	박문진	남편병 축천원대 혈지연명 상장진례 천거됨
파평윤씨	윤행진	청송	심의상	남편병 작지읍혈, 시체를 안고 순절, 천거됨
파평윤씨	윤행진	청송	심이지	남편병 할고 함원인통 고아양육 전절종노 천거됨
파평윤씨	윤행부		정복일	정유재란에 불갑산에 피신중 부부함께 전사, 천거됨
파평윤씨	윤행진	함평	노석탁	남편병에 할고 상중3년 여묘, 천거됨
평강채씨	채규용	인동	장방규	남편병에 작지, 시부모종상후 자결함, 효열비
평강채씨	채영실	밀양	박중춘	조실상부 자결미수 고아양육 전절종노
평산신씨		함평	노영윤	남편병 할고 자결미수 시부모양 종신행소 천거됨
평산신씨	신태진	김해	김진식	시부모 효양 상부후 3년식소 행소 천거됨
평산신씨	심필관	전주	리재식	남편병 열지 단지연명 향리흠탄 천거됨
평택임씨	임상선	청송	심수택	남편이 창의하여 순직하니 반장후 애통기절함
평택임씨	임영석	죽산	안봉환	남편병 축천 상부후 시모봉양 양절입사 열행비
풍산홍씨		진주	정기원	남편병 상분 축천원대 작지연명 상장진례 천거됨
풍산홍씨		천안	전상화	남편병에 혈지 할고2회 상부후 자결하니 천거됨
풍산홍씨	홍승일	진주	정기성	상부후 자결미수, 시부모 봉양 고아교육 가문번창
풍산홍씨	홍우영	여산	송준호	남편병 축천원대 상중애훼진례
풍산홍씨	홍의창	나주	나홍좌	남편병 축천원대, 상부후 자결미수, 유아 양육 가문계승, 천거
풍천임씨		광산	노종선	남편병 축두원대 상장진례 근검방적 천거됨
풍천임씨		양성	이향광	조실상부 시부모 지체구양 함원인통 종신수절 천거됨
풍천임씨		함양	박제옥	남편병 할고 시부모 봉양 고아양육 전절종노
풍천임씨	임석호	함양	박제오	남편병 할고연명 상부 상장진례 함원인통 종신수절
풍천임씨	임원서	달성	배정담	남편병 축천원대 상장진례 지성봉사 천거됨
하동정씨		전주	이동기	시부모효양 상부애훼진례 종신행소 교수정절
하동정씨		추계	추현화	남편병 시탕축천 혈지할고 자결미수
하동정씨	전순홍	경주	이성우	남편병에 축천원대 구육 득어 간호5일 회생하니 천거
하동정씨	정명렬	파평	윤자영	열행이 탁이하여 포상이 내림, 삼강록 참조
하동정씨	정순화	나주	정병국	조실상부 시부제혼 득남 가문계승 종신행소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하동정씨	정재풍	함평	이재옥	남편병상분, 축친간호 상부후애혜유제, 종상후 자결하니 천거
하동정씨	정재해	기계	유석준	남편병중 축친 호랑이가 개를 업어다주어 회생 천거
하동정씨	정종남	이천	서계진	조실상부후 친가에 가서 유아양육 가문계승, 열행비
한산이씨	이영근	해주	최성균	승순군자, 남편병 백방구호 축친원대 시부모효양 전절종로 천거
한산이씨	이정재	김해	김진학	남편병3년 백방구호 자결미수 함원인통 양질입사
한양조씨		광산	김기홍	남편병 축친원대 고아양육 종신수절
한양조씨		인동	장현모	효열탁이 ※전남도지
한양조씨		과평	윤자택	조실상부 예절엄수 종신수절
한양조씨		과평	이필서	상부상장 제례엄수 시모봉양 유아양육 종신수절
한양조씨	조각윤	낙안	김두순	효성지극, 남편병 수년 백방구양 간호, 상부후 예절엄수 효열비
한양조씨	조경윤	함평	이돈선	상부후 시모 지성봉양 하다가 음독순절하니 천거됨
한양조씨	조병윤	무안	박영재	효성지극, 남편병백방구호, 고아교육 가문계승, 천거
한양조씨	조봉윤	남원	양종환	규범정숙 남편병에 축친원대 백방구호하여 완쾌됨
한양조씨	조시삼	전주	리두열	부덕겸비, 남편병에 축친원대, 유아양육, 가문계승
한양조씨	조원규	상산	김상조	남편병 단지 상부 자결미수 시모봉양 종신수절 천거됨
한양조씨	조익영	기계	유두준	남편병 열지 상중애혜유제 시부모효양 천거됨
한양조씨	조정창	함평	모대리	규범정숙, 상부후 순종
한양조씨	조치원	함평	이조서	조실상부 자결미수 상장진례 자녀교육 종신수절
한양조씨	조현주	천안	전상환	상중애혜 시부병 혈지 여묘호위 효열로 천거됨
함안이씨		천안	전석환	부덕극비 상중읍혈 애혜유제 열녀각
한양박씨			권재중	남편병에 할고간호 회생시키고 자신이 병사, 천거됨
한양박씨		함평	이세철	조실상부, 시부모 극진봉양 유복자로 가문계승
한양박씨	박귀석	죽산	안덕화	남편병에 혈지 상부후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으니 천거
함양오씨	오세웅	동래	정운길	정유재란 “8열부”항 참조
함평노씨		상산	김윤식	남편병 지성간호 시부효양 유아양육 인통전절
함평노씨		전주	정종담	남편병 축친원대 시부효행 종신수절
함평노씨		함평	이계한	조실상부 유아요절하니 음독자살하여 천거됨
함평노씨		함평	모제신	남편병 백방구료 축친원대 상중3년식소 종신행소 천거
함평노씨	노경숙	청송	심윤택	남편장병 축친원대 시탕불해 지성간호
함평노씨	노계문	영성	정재복	조실상부 시부모 극진봉양 유아교육 가문번창
함평노씨	노길상	광산	김재균	조실상부 시부효양 함원인통 양질입사 종신수절 천거
함평노씨	노동찬	함평	이유성	남편병 축친원대 자결미수 시부모 효양 전절종노 천거
함평노씨	노세탁	함평	이돈현	남편외유증 객사, 유골을 찾아 선산에 반장 천거됨
함평노씨	노소안	광산	김재학	남편병 축친기두 시모봉양 고아양육 가문계승
함평노씨	노수상	풍산	홍승안	상부후 자결미수 유아양육 전절종노
함평노씨	노연근	밀양	박만봉	남편병에 단지, 시부모 효양 종신수절 효열비
함평노씨	노연길	경주	이종진	조실상부 자결미수 시모효양 고아양육 가문계승
함평노씨	노연수	무안	박일상	시부병 지성간호 상부상장진례 고아양육 가문계승
함평노씨	노연태	천안	전기태	효성지극 경봉군자 남편병에 작지주혈 1개월 연명함
함평노씨	노연필	함평	이유지	남편병 시탕불해 상장진례 종신행소 천거됨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함평노씨	노이개	한양	조각운	시부병 혈지 남편병 할고 3년 여묘 상후순절 효열검전
함평노씨	노이규	광산	김기주	남편병 상분작지 상장애혜유제 종신행소 천거됨
함평노씨	노이삼	한양	조만주	승순군자하고, 남편병 할고간호하여 소생함
함평노씨	노이제	인동	장두급	남편장병에 읍혈득어 소생하니 천거됨
함평노씨	노인상	청송	심의정	남편병 단지 할고 상장진례 ※삼강록
함평노씨	노장일	광산	김규삼	남편송사로 투옥되어 설단백일 축천기원 무죄방면
함평노씨	노재학	파평	윤정진	시부모효양 남편병 3년 축천지성 상장진례 종신행소
함평노씨	노정기	광산	김기원	효성지극, 경봉군자, 상부후 애혜유제, 효열비
함평노씨	노치안	광산	김재학	조실상부 자결미수하고 종신행소
함평모씨		죽산	안정석	조실상부 양질입사 40년 전절종노
함평모씨	노낙운	한양	조병섭	남편병 작지 3일연명, 시부모 극진봉양, 종신 수절하니 천거
함평모씨	모경옥	경주	김상주	조실상부 자결미수 시부모양 유아교육 종신행소
함평모씨	모대학	청송	심구택	남편병에 혈지3일연명, 상부후 자결미수 고아양육
함평모씨	모대형	함평	노관상	효성지극, 남편병 수년 백방 구약, 단지연명, 교자의방, 천거
함평모씨	모상하	한양	조은주	남편병에 축천원대하고 상장애혜유제하니 천거됨
함평모씨	모영숙	인동	장우식	상부후 주야통곡, 자결미수 시모봉양 종신행소, 열행비
함평이씨		천안	전광일	우귀전 상부 벽통애곡, 시부모 만류 자결미수, 양질입사 종신행소
함평이씨			송규철	상부후 시부 극진봉양 시부종상후 목메어 죽음, 효열비
함평이씨		광산	노전득	서효정숙 상부애혜유제 봉제이성 종신행소 천거됨
함평이씨		광산	김기진	남편병 백방구호 상부후 시부모 효양 전절종노
함평이씨		광산	노의규	상부후 자결, 천거됨
함평이씨		금성	나기원	시부모효양 경봉군자 상부애혜유제 종신행소
함평이씨		김해		임진란 권봉산에 피란중 항진자결, 이곳을 서기등(瑞氣嶺)이라함
함평이씨		나주	정우근	남편병 축천 상부애혜유제 상을 마치고 순절함, 천거됨
함평이씨		나주	임복규	남편병중 신이 악을 가르켜줌 성묘지성 종신행소
함평이씨		나주	오재인	남편병 축천원대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순절
함평이씨		상산	김인식	조실상부 시부모 효양 전절종노
함평이씨		상산	김용순	남편병 축천원대 상장진례 종신행소 천거됨
함평이씨		인동	장경하	조실상부 자결미수 고아양육 전절종노 천거됨
함평이씨		전주	리계하	남편병 축천원대 상장진례 매일곡묘 향리청탄
함평이씨		죽산	안현신	남편병 단지 시모병 좌단지 효열로 천거됨
함평이씨		천안	정성환	시부모 효양 상부애혜진애 종신행소 전절종노
함평이씨		파평	윤동화	상부후 종신행소, 행소하니 천거됨
함평이씨		파평	윤우연	결혼1년만에 상부 예절엄수, 양자로 가문계승하니 천거
함평이씨		함양	박찬홍	상부자결미수 시부모효양 전절종노
함평이씨	이경인	인동	장영택	경봉군자, 시부모효양 상부예절엄수 열행비
함평이씨	이계동	무안	박영상	남편병 3년 축천원대 희생 열행전
함평이씨	이계순	금성	나을환	조실상부 애혜진례 시부모 효양 고수정절
함평이씨	이계옥	파평	윤지임	조실상부, 양자요절하니 음독자살, 천거됨
함평이씨	이계춘	죽산	안기정	남편병에 작지연명 상부후, 시모 극진봉양 종신행소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함평이씨	이계한	창령	조준환	남편병 축천원대 혈지연명 전절종노 ※삼강록
함평이씨	이계화	천안	전재철	조실상부 상장진례 성묘지성 양질입사 종신수절
함평이씨	이규현	진주	정재해	시부모 지체구양, 시모묘를 파헤치자 분통이 터져 자결, 천거됨
함평이씨	이규현	진주	정용현	남편병 축천원대 교자의방 가문번창 천거됨
함평이씨	이극성			정유재란에 생부 이극성 미혼중인 세 딸이 함께 절사, 정려
함평이씨	이돈춘	풍산	홍상주	조실상부 고수정절 백옥같은 절개라고 향리합칭 천거
함평이씨	이 목	진주	정주일	정유재란 “8열부”항 참조
함평이씨	이 목	진주	정함일	정유재란 “8열부”항 참조
함평이씨	이몽린	진주	정호인	정유재란 “8열부”항 참조
함평이씨	이문숙	밀양	박규현	24세에 상부 사고무친 걸식으로 고아교육 가문계승함
함평이씨	이방서	한양	조정열	남편병 할고 유복자 생남양육 종사계승
함평이씨	이백서	평강	채의봉	남편병혈지, 시부 봉양 고아양육, 함원인통 전절종노 천거됨
함평이씨	이백현	함평	모종표	부덕겸비 조실상부 유복자교육 종신수절, 효열비
함평이씨	이복현	인동	장현무	남편병 작지 함원인통 유아양육 전절종노 천거됨
함평이씨	이사겸	한양	조두석	남편병에 활역 상중식소 종신행소 ※열행록
함평이씨	이상운	광산	김복현	남편병 3년 지성간호 상장진례 시부모효양 효열로 천거
함평이씨	이석민	남평	문득중	상부후 자결미수, 고아양육 가문계승, 남편 죽은달에 죽음
함평이씨	이석범	상산	김연기	남편병 19년만에 회생, 말에서 떨어져 순절, 상장진례 종신행소
함평이씨	이석범	이천	서치은	남편병 축천원대, 혈지연명 상부후 예절엄수 종신수절
함평이씨	이석운	심평	송칠석	상부애휼진례 종상후 목메어 순절 복호 열행비
함평이씨	이성삼	파평	윤경복	조실상부후 3년상을 마치고 자결하니 천거됨
함평이씨	이식범	양성	이종균	남편병혈지 회생 상부순종미수 고아양육 종신수절
함평이씨	이유두		김장환	남편병에 단지 할고간호함, 정려
함평이씨	이유발	나주	정희영	조실상부 자결미수 양자로 가문계승하니 천거됨
함평이씨	이유발	상산	김상정	남편병 단지연명 상중에휼유제 천거됨
함평이씨	이유전	진주	정희득	정유재란 “8열부”항 참조
함평이씨	이익환	나주	임복규	22세상부 독자요절 시부모 효양 양손입사 효열로 천거
함평이씨	이장서	광산	김필현	상부후 함원인통 고아양육 가문계승 전절종노
함평이씨	이정현	파평	윤익성	조실상부 읍혈3년 시부모 극진봉양 양자로 가문계승
함평이씨	이종록	김해	김종익	결혼즉후상부 유복자 양육 가문계승 종신행소
함평이씨	이찬서	김해	김기태	시부효양, 경봉군자 남편병 축천원대 향리합칭 천거됨
함평이씨	이추상	인동	장재식	남편병 작지 임신중 상부 함원인통 전절종노
함평이씨	이춘영	청송	심하지	남편병에 할고간호 소생하여 천수를 다하게 함
함평이씨	이태운	광산	김복현	남편병 축천원대, 시부모효양 우애독실 양자로 수절 효열비
함평이씨	이행서	광산	김재을	조실상부 자결미수 상부3년읍혈 교자의방 가문계승
함평이씨	이홍범	함평	모대옥	남편병 혈지 할고 고아양육 전절종노
해주김씨	김상조	함평	이양현	남편병 축두원대 혈지할고 읍혈3년 양질입사 천거됨
해주오씨	오정구	진주	정종난	성효근친, 남편병에 작지 국을 끓여주어 완쾌, 향리흠복
해주정씨		함평	노우상	부덕겸비 상부애휼유제 종신수절 향리흠탄
해주최씨			김대기	시부모효양 25세 상부읍혈3년 우애독실 고수정절

성 씨	생 부	남편 본관	성 명	참 고 사 항
해주최씨		풍산	홍기주	남편병 축원원대 함원인통 양질입사 종노전절
해주최씨		함양	여위유	남편병 혈지 상중3년 여묘 종상후 순절 천거됨
해주최씨	최길환	김해	김정규	남편병 축원원대 상분간호 고아양육 전절종노
해주최씨	최문양	전주	리계영	남편병 축원원대 3년 여묘 종신행소 천거됨
해주최씨	최복신	절강	편갈혁	시부효양, 남편병 축원원대 작지연명 천거됨
해주최씨	최복신	절강	편중혁	남편병혈지, 상부자결미수 시부효양 고아양육 효열쌍전
해주최씨	최상수	남평	문제용	20세 남편병 열지 상부 시부모효양 효열로 천거됨
해주최씨	최영화	김해	김종서	20세상부 자결미수 고아교육, 종신수절
해주최씨	최익언	홍덕	장현문	규범탁이 상부후 식소3년 종신수절
해주최씨	최익원	홍성	장문현	상부후 유아형제, 종신행소 수절
해주최씨	최재풍	죽산	안기창	조실상부 함원인통 양질입사 종신수절 종당함복
해주최씨	최종우	나주	기달해	조실상부 7일후 목메어 순절하니 정려
행주기씨		동래	정익모	시부모 효양 남편병 축원원대 작지연명 ※삼강록
행주기씨	기봉화	밀양	박정화	남편병 단지 상장진례 종신행소
행주기씨	기익찬	함평	이돈엽	상부자결미수, 시모 극진봉양 향리흠탄 천거됨
현풍곽씨	곽필중	강릉	유병기	남편병 작지연명 상중3년 여묘
홍주송씨	송동인	남평	문치민	25세상부 시부모효양 고아양육 가문계승 전절종노
홍주송씨	송동인	청도	김수찬	조실상부, 남편 유언 따라 시부모 봉양, 고아양육교육 가문변창
화순오씨	오병교	이천	서기철	조실상부 고아양육 가문계승 전절종노
화순오씨	오언상	전주	최 서	상부후 통곡 기절 회생, 유아양육 가문계승, 정려
홍덕장씨		전주	이윤하	남편병 축원원대 시부모 효양 전절종노
홍덕장씨	장세풍	평산	신태혁	남편병 축원원대 상부후 예절업수 자녀교육하니 천거
홍덕장씨	장홍순	수원	백종흠	남편병에 설단 축원기원, 시부모봉양 종신수절 열행비
홍덕장씨			이이숙	남편전사 소식 듣고 애통하다 굶어 죽음
홍덕장씨		전의	이봉환	조실상부 형제양육 종신수절 천거됨
홍덕장씨	장영덕	김해	김병두	생장법가 남편5년 축원원대 고아양육 종신수절
홍덕장씨	장대호	경주	이효우	남편병 축원기원, 상부후 근검치사 고아교육 가문계승
홍덕장씨	장수철	경주	이경우	효성지극, 남편병에 축단기두 혈지3일 연명하니 천거됨



C o n t e n t s

부록1	연표	772
	집필 / 신영호	
부록2	관직해설	805
	집필 / 나영채	



부 록



연 표 (年表)

이 표를 작성하는데 참고한 문헌 및 전거관에 표기한 약어
(전라남도지. 1993. 10권 247~256쪽)

No.	참 고 문 헌	약 어	No.	참 고 문 헌	약 어
1	삼국사기	삼국	19	함평군향교지 · 향지	교지 · 향지
2	고 려 사	고려	20	전남의서원사우 1 · 2	서원
3	세종실록지리지	세종	21	함평군마을유래지	마을
4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증	22	효열행지	효열
5	여지도서	여지	23	국조인물고	인물
6	호구총수	호구	24	한국사 연표	년표
7	대동지지	대동	25	1862년농민항쟁	농민
8	각왕조실록	왕조	26	동아일보	동아
9	비변사등록	비변	27	중외일보	중외
10	해동명신전	해동	28	매일신보	매일
11	지방연혁연구	지방	29	조선일보	조선
12	전라남도지 1, 2, 3	도지	30	시대일보	시대
13	군지 · 군사	군지 · 군사	31	광주일보	광일
14	문화유적총람	총람	32	광주전남현대사	광주
15	문헌비고	문헌	33	국회의원총람	국회
16	함평군문화유적	문화	34	독립운동사	독립
17	내고장전통가꾸기	전통	35	감오농민운동사	감오
18	전남의 향교	향교	36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구석기시대	함평읍 장년리 당하산 아래서 구석기 말 유적 발굴(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07)	추(지도위원회의자료)
신석기시대	함평읍 장년리 당하산 아래서 신석기시대 유적 발굴(목포대학교박물관 1997. 07)	"
청동기시대	나산면 초포리 사촌 돌널무덤 발굴(1987. 02. 국립중앙, 광주박물관)	추(발굴보고서)
	해보면 용산리 백토의 방장동 유적에서 돌널무덤 10기 발굴(목포대학교박물관. 1994. 04. 함평읍대덕리 백곡 마을 앞 묘제공원에 복원)	추(지도위원회 자료)
	장년리 당하산 유적에서 한국식동검 1점 발굴(목포대학교 박물관, 1997. 07)	"
	함평읍 진양리 중랑 유적에서 움집 3기 발굴(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07)	"

추 : 리현석 추가. ()속은 참고서적 . 추(군)는 1999년 간행군사임.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철기시대	용산리	백토 방잔등 유적에서 집터 8기 발굴(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04)	추(지도위원회자료)
	진양리	중량유적에서 집터 10기, 널무덤 2기 발굴(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07.)	"
	장년리	당하산 유적에서 독널 2기 발굴(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07)	"
B.C195~188	진국(辰國)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호남지역에 해당하는 곳)		추(정약용 대한강역고)
9 (백제 온조 27)	원산·금현 두 성이 항복하므로 그 백성을 한산의 북쪽에 옮기니 마한이 드디어 망했다.		추(삼국사기)
168~188 (후한 영제)	한(韓)과 예(濊)가 다함께 융성해 졌다. (*함평지역이 한 즉 마한에 해당함)		추(후한서 동이전)
277~290 (진-진.무제)	함녕 3년(277)과 4년. 태강 원년(280)과 2, 7, 8, 19년(289), 태희 원년(290)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침(*마한이 존속함을 입증함)		추(진서 마한전)
282 (진 무제 3)	신미(新彌) 20여국은 산에 의지하고 바다를 끼고 사는데 모두 사신을 보내 조현한다.(*함평지역이 신미제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추(진서 장화전)
369 (근초고왕 24)	왜가 백제군과 연합하여 고해진(古奚津), 침미다례(沈彌多禮) 등을 쳐 항복 받았다. (*영산강지역에 백제의 정치적 지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봄)		추(일본서기 신공기)
마한.백제시대?	월야면 월계리 석계고분 발굴(1990~1년. 전남대학교박물관)		발굴보고서
마한.백제시대?	월야면 예덕리 신덕고분 발굴(1991년. 광주박물관)		발굴현장 보고서
마한.백제시대?	월야면 예덕리 만가촌고분 발굴(1995년. 전박)		발굴 개략
마한.백제시대?	함평읍	진양리 중량 유적에서 집터 100여기, 도랑을 가진 방형무덤 1기 발굴(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07)	지도위원회의 자료
	신광면	함정리 무송 유적에서 집터 11기 발굴(전남대학교박물관, 1999. 07)	"
	해보면	용산리 백토 방잔등 유적에서 돌방무덤 1기 발굴(목포대학교, 1999. 04. 백곡 마을 앞 묘제공원에 복원)	"
498. 08 (동성왕 20)	탐라를 치기 위해 무진주에 왕이 당도. 탐라가 사죄하므로 중단. (*함평을 비롯한 전남 지역이 백제에 완전 영속된 해로 봄)		추(삼국사기)
백제시대	굴내현(屈乃縣), 다지현(多只縣) 행정 편제		삼국
627~649 (당정관-당정관)	용천사 창건 (근거 자료가 명시되지 않음)		추(옛군지)
663 (신라·문무왕 3)	당(唐)이 군라현(軍那縣)을 설치 대방주(帶方州)의 속현으로 함당이 다지현(多只縣)을 설치 사반주(沙伴州)의 속현으로 함		삼국
712~764 (당 현종조)	행사존사(幸思尊思)가 용천사(龍泉寺) 창건		추(증보사찰사 용천사단청기)
757. 12 (경덕왕 16)	굴내현을 함풍현(咸豐縣), 다지현을 다기현(多岐縣)으로 고침		삼국. 고려
892 (후백제 견훤 1. 신라 진성여왕 6)	후백제의 세력에 영속됨		삼국. 고려
918 (고려 태조 1)	대굴사(大堀寺) 창건 (추정)		군사



연 대	내 용	진 거(典據)
936 (고려 태조 19)	후백제가 망하고 고려의 세력권에 영속됨	삼국. 고려. 지방
940 (고려태조 23)	다기현을 모평현(牟平縣)으로 바꾼	세종. 대동
960 (광종 11)	이언(李彦) 함평이씨 시조 함풍군(咸豐君)으로 봉작	군지
982. 04 (성종 원년)	10세 이상 남자는 모자(저모-著帽)를 쓰게 함	추(고려)
1018 (현종 9)	함풍현, 모평현 무안군 영현에서 영광군 영현으로 바뀜	고려. 대동. 지방
1098. 10 (숙종 3)	영광군 및 관내 군·현의 버가 한 그루가 두 번 열매를 맺었다.	추(고려)
1126 (인종 4)	함평노씨 시조 노목(魯穆) 척준경 난을 평정한 공으로 함풍군에 봉작함 함평정씨 시조 언겸(彦謙. 병부상서 문하시중을 지냄)이 척준경 난 때 모평으로 퇴거 정착함	군지 추(족보)
1127 (인종 4)	함평모씨 시조 모경(牟慶) 척준경 난을 평정한 공으로 모평군을 봉작함. (인종의 부마-駙馬)	추(함평군의 씨족 정착사)
1172 (인종 4)	함풍, 모평현에 감무(監務)를 둠	세종. 군지
1170년대	인동장씨 함평파(參贊公派) 파조인 백림(百林)이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귀향 중 함평 향교에 이르러 산수가 수려함에 정착함	추(군사)
1190년대	함평정씨 3세손 현수(賢守. 호부상서 문하시중을 지냄) 영풍부원군(永豐府院君)으로 봉작 됨	추(족보)
1200년대 초	노목의 증손 관도(貫道) 함평군으로 봉작함	추(씨족 정착사)
1214~1259 (고종조)	함평오씨 시조 잠(岑). 좌명공신에 오르고 함풍군 봉작을 받음	추(함평오씨 족보)
1256. 01 (고종 43)	영광과 함평지역에 몽고군이 침입해 있었다.	추(고려)
1274 (문종 15)	중 고막대사가 고막석교(古幕石橋) 가설	문헌
1275 (충렬왕 1)	각적국사(覺積國師) 용친사 중수	문헌
1274~1308 (충렬왕조)	함평오씨 3세손 사충(思攄) 모평군 봉작 받음 함평정씨 5세손 함(緘. 좌정승을 지냄) 함성군(咸城君)으로 봉작 됨	추(족보)
1280. 04 (충렬왕 6)	전라도에 기근이 들어 군량 2만석을 내어 구제	추(고려)
1287. 3 (충렬왕 13)	전라. 경상도에 기근이 들어 자식을 잡아먹는 자가 있었다.	추(고려)
1290년경	이천서씨 원숙공과 함평 입향조인 희찬(希贊. 시조의 11세손. 기성군-箕城君 봉작 받음)이 충렬왕조의 혼탁에 환멸을 느껴 월야면으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324	함평이씨 5세손 광봉(光逢) 좌명공신에 오르고 함풍부원군(咸豐府院君)을 봉작	추(고려·족보)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충숙왕 11)	반읍	
1363 (공민왕 12)	함평노씨 7세손 신(愼), 김용(金鏞)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함평군 봉작	추(씨족 정착사)
1377. 09 (신우 3)	왜구 함풍, 모평에 침입	추(고려)
1381. 03 (신우 7)	이틀간 큰눈이 내리고 전라도에 기근이 들어 아사자가 많았다.	추(고려)
1391 (공양왕 3)	영풍향(永豊鄕), 다경부곡(多慶部曲), 해제권농방어사(海際勸農防禦使)를 함풍의 감무가 겸임	신증. 대동. 지방
1392 (조선.태조 1)	영광군에 소속되었던 해제현과 임치현(臨淄縣)을 함평현에 편입	세종. 신증. 총람
1399. 03. 13 (정종 1)	전라도에 흉년이 들어 경차관을 내려 보냄	추(왕조실록)
14세기 말	함평향교 건립 (추정)	향교
1400. 08. 21 (정종 2)	전라도에 큰물이지고 바람이 크게 불었다.	추(왕조)
1403. 11. 04 (태종 3)	전라도에 복숭아와 오얏, 오이가 모두 열매를 맺었다.	추(왕조)
1405 (태종 5)	진주정씨 황과의 함평 입향조 함도(咸道)가 장선군 삼서면에서 처가인 월야면 월악리로 이거	추(군사)
1406.6.5(태종 6) 10. 30	군, 현에 사직단(社稷壇)을 세워 제가 시내도록 함 대굴포(大堀浦)의 물이 붉은빛으로 넘쳐흘렀다.	추(왕조)
1407. 12. 02 (태종 7) 12. 30	의정부에서 이름난 절로서 여러 고을의 자복사(資福寺)를 대신 하기를 청했는데 대굴사(大堀寺)가 이에 포함됨 전라도와 경상도에 기근이 들다.	추(왕조)
1408. 12. 24 (태종 8)	전라도절사가 전북 옥구에 있는 전라수영(全羅水營)을 대굴포(大堀浦. 현 학교면 곡창리 대곡)로 옮길 것을 상소하여 논의함	왕조
1409. 01. 18 (태종 9)	함평현(咸豊縣)과 모평현(牟平縣)을 병합 함평에서 “咸”자 모평에서 “牟”자를 따 함평현을 신설함	왕조. 세종. 대동
1412. 02. 01 (태종 12)	전라도에 지진이 났다.	추(왕조)
1413. 10. 15 (태종 13) 11. 11	함평현에 최후 중앙관리인 중 6품 현감을 배치. 향(鄕)과 부곡(部曲)을 혁파하여 영풍향과 다경부곡이 폐쇄됨 각 고을의 향교 노비수를 정했는데 현(縣)은 5호로 함	세종. 신증. 지방 추(왕조)
1417. 05. 03 (태종 17)	각 고을의 노비 수를 다시 정했는데 현은 10호로 함	추(왕조)
1418. 08. 07 (세종 1) 08. 19	대굴포의 물이 06. 27~07. 14까지 바닷물이 들면 피와 같이 붉어져 해괴제를 올렸다. 대굴포의 바닷물이 붉어짐	추(왕조)
1422. 02. 09 02. 25 (세종 4)	영광에서 지진이 일었다. 함평현의 선군(船軍) 최성례(崔成禮) 아내가 한꺼번에 세 아이를 낳으니 명하여 쌀을 내려줌	추(왕조)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427. 12. 11 (세종 9)	함평 사람 사노(私奴) 내은송(內隱松)이 어머니를 구타 상해함에 율에 따라 참형함	추(왕조)
1432. 08. 05 10. 20 (세종 14)	이각(李恪)이 대굴포 전라수영을 옮길 것을 상서함 전라도 도순찰사 정흠지(鄭欽之)의 조사보고에 의해 대굴포 수영을 목포(木浦)로 옮김	왕조
1433. 02. 25 (세종 15)	경상도 비인과 전라도 함평, 무안의 호수가 500호에 차서 교도(敎道)를 두게 함	추(왕조)
1436. 07. 25 (세종 18)	지도목장을 함평현감이 관할함	추(왕조)
1440년경	상산김씨 함평 입향조인 중명(中明)이 나산면 이문리에 이주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1442(세종 24)	관정루(觀政樓) 건립 (현감 김계보-金季甫)	신증. 군사
1443 (세종 25)	임치진(臨淄鎭, 현 해계면 임수리-臨水里) 설치 함평이씨 11세손 공(兢) 기성군(箕城君, 함풍 -咸豐- 별호) 봉작	신증. 군지 추(왕조실록·족보)
1446. 01. 23 (세종 28)	영광군 진하산목장을 함평현감이 관할함	추(왕조)
1450년경	광산김씨 양간공과 함평 입향조 경온(景溫, 시조의 20세손)이 경남 창녕에서 학교면 월산시로 이거 정착함 김해김씨 경과 함평 입향조 맹기(孟理)가 나산면 구산리에 이거 정착함 광주이씨 함평 입향조 암손(岩孫, 삼시중공파조의 현송)이 손불면 죽장리로 이거 하동정씨 함평 입향조 수(穗, 시조의 11세손)가 광주 분토동(현 청옥동)에서 함평읍 자풍리 금곡으로 이거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세종조	함평현 호수 315호(대가족 호수), 인구 1,689정(정은 16세 이상 59세 이하의 남정)	추(세종)
1454. 12. 28 (단종 2)	함평 등에 지진이 일어 담과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 죽어 해괴제를 지냄	추(왕조)
1455 (세조 1)	영과정(潁坡亭)건립. 이안(李岸)이 단종 폐위에 불복하고 낙향하여 건립. 중국의 허부와 소유의 청고지절을 지킬 마음으로 대천을 영수(潁水) 뒷 산을 기산(箕山)이라 부름 해제곶(海際串) 초설. 웅암(甕巖)과 성포(城浦) 2개소에 목장(牧場)을 만들	군사
1456. 12. 25 (세조 2)	함평 등 바다에 연한 읍성의 기병, 보병 수를 적절히 갖추어 방어에 허점이 없도록 하명함	추(왕조)
1458. (세조 4)	함평 독진(獨鎭) 폐지	군사
1450년대 말	과평윤씨 한림공과 입향조 길(古, 시조의 15세손)이 1457년 김종서를 찬양한 제문 사건으로 90세 나이에 제주도로 귀양갔다가 귀양이 풀려 돌아오는 길에 해보면 상곡리에 산수(山水)가 명려함을 보고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1464 (세조 10)	임치진을 임치도진관(臨淄島鎭管)으로 개칭. 종 3품 첨사를 배치하고 검모포(黔毛浦), 법성포(法聖浦), 다경포(多慶浦), 어란포(於蘭浦), 군산포(群山浦), 남도포(南桃浦), 금갑도(金甲島) 만호를 관할함	신증
1466 (세조 12)	함평현의 군기수(軍器數)를 정함. 양각궁 36장, 마전, 통전 각18부, 장창 15자루, 중창 21자루, 환도 36과, 궁현 72개, 철갑 2명, 대, 중, 소쟁 2개, 북, 대소각 2개 등	추(왕조)
1467 (세조 13)	함평이씨 11세손 종생(從生) 이시애(李施愛) 난을 평정한 공으로 함성군(咸城君) 봉작을 받음	추(족보)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469. 10. 23 (예종 1)	무한현 사람 장영기(張永起)가 도당 100여명을 모아 의적이라 자처하며 전라, 경상도를 횡행하며 재물을 탈취하니 도적을 잡는자에게는 3자급 승진 또는 면포 100필의 현상금을 부침	추(왕조)
1470년경	광산노씨(盧氏) 함평 입향조인 성연(咸連, 득관조의 11세손)이 광주시의 우치에서 월야면으로 이거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1470. 02. 09 (성종 1)	함평현의 군정을 916인에서 880인으로 감액	추(왕조)
1471. 03. 08 (성종 2)	도내가 기근이 심한데 특히 함평 등 20고을이 더하여 상납 등을 정지하도록 조치함	추(왕조)
1472. 02. 01 (성종 3)	함평현의 군액을 880인에서 800인으로 감액함	추(왕조)
1474. 05. 20 (성종 5)	전라도 관찰사에게 장영기가 주벌된 후 다시 도둑이 성행하는 것을 막으라고 하명함	추(왕조)
1475	나주정씨 지유공과 함평 입향조인 지아(之雅, 시조의 11세손)가 서울에서 월야면 양정리로 이거	추(씨족 정착사)
1480년경	기계유씨(俞氏) 함평 입향조인 성의(誠意, 군기시사공파조의 4세손)가 아내의 고향인 나산면 석령에 이거 정착 경주이씨 평리공과 함평 입향조인 천수(天壽, 증시조의 21세손)가 나산면 덕림리로 이거함 진주정씨 분파 함평 입향조인 지소(之韶, 기시조의 15세손)가 장흥에서 학교면 금곡리로 이거	추(씨족 정착사)
1489. 03. 15 (성종 20)	경차관 이의(李誼)가 영광, 함평, 무안, 나주 등지에 수적(水賊)이 많음을 상계(上啓)함	추(왕조)
1490. 04. 07 (성종 21)	함평의 죄수 백정 박만산, 김석동, 인순부, 중 김생, 등이 무리를 지어 강도질한 죄로 참부대시함	추(왕조)
1498 (연산군)	선산김씨 함평 입향조인 석규(石圭)가 사헌부 집의를 지내던 중 무오사화에 스승 김종직이 화를 입자 나산면 용두리 선박에 이거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1500년경	금성나씨 청백리공과 함평 입향조인 세장(世章, 시조의 19세손)이 나주시 문평면에서 함평읍 가동리로 이거 정착함 낙안오씨 함평 입향조인 철검(哲儉, 시조의 4세손)이 전북 고산에서 대동면 월송리로 이거함 경주이씨 사직공과 함평 입향조인 문화(文華, 증시조의 24세손)가 나주시 문평면에서 해보면 대각리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503. 05. 14 (연산군 9)	유경손(俞敬孫)의 아내 장씨, 서윤중(徐允中)의 아내 박씨에게 정문(旌門)을 내립 반송정(盤松亭, 김익경-金益卿-은거소) 건립	추(왕조) 군지
1500년대 초	고성김씨 함평 입향조 자경(自卿, 시조의 36세손) 형제가 전북 고창에서 학교면 금송리로 이거 인동장씨 무안파(진가파) 함평 입향조인 부개(傅凱, 세림의 13세손)가 연산조에 엮다면 영흥리로 부처되고 귀양이 풀렸으나 눌러 살았다.	추(씨족 정착사)
1505 (연산군 11)	영산신씨(辛氏) 함평 입향조인 함(諱, 경의 15세손)이 고창현감을 지내다가 연산조 폭정에 환멸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나산면 송암리에 터를 잡아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507. 02. 10 (중종 2)	함평사람 학생 윤만(尹萬)의 처가 100세에 이르자 해마다 쌀 10석을 주게 함 무안박씨 함평 입향조인 언휘(彦徽)가 학교면 복천리 내동에 이거함	추(왕조) 추(씨족 정착사)
1510년경	여양진씨 함평 입향조 중경(仲卿. 시조의 12세손)이 나주에서 대동면 향교리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511. 09. 06 (중종 6)	충재(虫災)를 입은 전라도 백성을 진휼할 계책을 하명함	추(왕조)
1518 (중종 13)	밀양박씨 진사공파 함평 입향조인 석주(석주. 시조의 22세손)가 함평읍 수호리에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519. 03. 03 04. 11 11. 24 (중종 14)	전라도에 지진이 있었음 전라도 광주 등 17고을, 경상도 대구에 우박이 내림 함평에 번개가 치며 우박이 내렸는데 작은 것은 새알만하고 큰 것은 매실만하였고, 장흥 등 34고을에는 눈이 내리며 번개가 쳤음	추(왕조)
1521. 01. 28 (중종 16)	나주, 광주 등 6개 읍에 지진이 있었고 무안 등 8읍에 천둥이 쳤다.	추(왕조)
1520년경	고부이씨 함평 입향조 희삼(希參. 진사공파조의 현손)이 전북 정읍에서 손불면 동암리에 이거	추(씨족 정착사)
1522 (중종 17)	임치도진관 관하에 있던 어란포와 금갑도를 신설된 가리포진영(加里浦鎭營)에 이속하고 지도포(智島浦)만호를 신설 관할함	신증. 문헌. 지방
1525. 04. 25 (중종 20)	함평, 무안, 고부 등 12고을에 우박이 내림	추(왕조)
1527. 05. 29 (중종 22)	8도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두 달이 넘게 비가 오지 않아 사전에 실린 바에 따라 기우제를 지냈으나 효험이 없다. 여지승람에 영광의 모악(현 해보면 광암리소제), 금구의 용지, 무장의 고산이 위험하다 했으니 수령이 지성으로 제를 올리라.”하였다.	추(왕조)
12. 12	함평, 영광, 임피 등 9개 고을에 벼락이 쳤다.	
1530년경	전주리씨 덕천군파 함평 입향조 봉수(鵬壽. 덕천군의 현손)가 서울에서 월야면 정산리에 이거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1531. 05. 17 (중종 26)	1527. 5. 29의 왕명이 다시 내림	추(왕조)
1534 (중종 29)	김해김씨 문경공파 함평 입향조 대기(大器. 탁의 9세손)가 함평읍 옥산리, 광기(匡器)가 함평읍 대덕리에 이거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1535. 05. 01 (중종 30)	전라도 함평 등 9고을, 경기 광주 등 3고을, 충청 홍주 등 8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추(왕조)
1540년대	신죽산안씨 함평 입향조 충달(忠達. 시조의 14세손)이 광주에서 나산면 나산리에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542. 01. 24 (중종 37) 11. 19 12. 26	박근무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죽게한 이능손(李能孫)을 사형함 무안, 영광 등 고을에 지진이 있었음 함평, 무안, 영광 등에 천둥이 쳤음	추(왕조)
1545(명종, 즉위년) 07. 18	사람 2명과 말 1필이 벼락에 맞아 죽음	추(왕조)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546년경	한양조씨 사평공과 함평 입향조인 맹생(孟生. 시조의 9세손)과 계생(季生) 형제가 경암에서 손불면 북성리로 이거	추(씨족 정착사)
1546. 12. 30 (명종 1)	무안, 강진 등에 지진이 있었다.	추(왕조)
1547. 04. 28 (명종 2) 07. 04	전라도 함평등 7고을에 우박이 내림. 경상도 의령에는 모양이 달걀 같은 우박이 내림 전라도에 여역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음	추(왕조)
1557. 04. 03 (명종 12)	함평, 나주, 진도, 영암, 무장 등지에 비바람이 크게 불고 해일이 일어 뚝방이 무너지고 잔물이 들어 버가 모두 말라 죽음	추(왕조)
1559. 06. 08 (명종 14)	현감 신익(申翌)이 젊은 나이에도 현정을 잘 살피고 왜적의 배를 세 번 발견하고 모두 포획한 공으로 한 자급을 올리고 채임할 때 본도의 연해관(沿海官)으로 승직시키기로 함	추(왕조)
1560년경	천안전씨 대제학공과 함평 입향조인 응충(應忠. 파조의 21세손)이 무안에서 함평읍 성남리 초동에 이거 정착함 광산정씨 함평 입향조인 인근(仁謹. 시조의 9세손)이 나주에서 손불면 동암리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563. 11. 05 (명종 18)	함평 등 전라도 18고을에 천둥이 쳤다.	추(왕조)
1564. 윤2. 03 (명종 19)	영광에 지진이 있었다.	추(왕조)
1566. 05. 04 10. 29 (명종 21)	함평, 영광에 지진이 있었다. 함평, 나주 등 전라도 13 고을이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천둥이 쳤다.	추(왕조)
1567년경	고성정씨 함평 입향조인 개청(介淸. 시조의 7세손)이 나주 동강에서 엽다면 엽다리 제동으로 이거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1574. 07. 21 (선조 7)	전라감사 박민헌(朴民獻)이 정개청을 백집사(百執事)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상계 천거함	추(왕조)
1580년대	금성나씨 이조판서공과 함평입향조인 덕원(德元)이 무안군 삼향면에서 학교면 금송리로 이거 정착함 밀성박씨 함평 입향조인 상경(尙敬. 시조의 16세손)이 장성군에서 나산면 신평리로 이거함 이천서씨 강호공과 함평 입향조인 경춘(景春. 중조 인의 10세손)이 무안군 몽탄에서 엽다면 성천리로 이거 정착함 홍성장씨 야우공파조인 이길(以吉)이 나주시에서 신평면 계천리 사천으로 이거 정착함 전주최씨 함평 입향조 제남(梯男. 시조의 14세손)이 전북 금구에서 학교면 금송리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585년경	평산신씨(申氏) 함평 입향조인 반(磐. 시조의 11세손)이 전북 남원에서 대동면 연암리에 이거	추(씨족 정착사)
1687. 07. 29 (선조 20)	정개청이 “임금은 출처의 근본이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경(敬)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고 ‘유념하겠다’는 비답이 내림	추(왕조)
1589. 09. 01 (선조 22) 12. 14	정개청이 “성학(聖學. 임금의 학문)을 힘써야 한다고 하고 끝에 왕자 사부, 대사성, 수령, 장수 등의 인선이 근래 잘 못 되었으니 잘 선출해야 한다.”고 상소하였고 “인근 읍의 수령에 제수하라.”는 비답이 내림 정암수(丁巖壽) 등이 정개청이 정여립과 절친하며 배절의론을 지어 세상을	추(왕조) "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현혹했다는 상소를 올렸으나 불문에 부치기로 조치됨 달성서씨 함평 입향조인 세발(世芳. 시조의 13세손)이 기축옥사 때 서울에서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으로 이거함 배명(裴蒙) 등 정개청 신원 상소	추(씨족 정착사) 추(기축록)
1590. 07. 27 (선조 23)	정개청(鄭介淸) 기축옥사에 무고로 연루되어 유배지 아산보(阿山堡)에서 병사	군사
1590년대	달성배씨 함평 입향조인 위(緯. 중시조의 22세손)가 장흥군 용산면에서 영광면 유천리에 이거	추(씨족 정착사)
	왜군 부산포 침공으로 임진왜란 발발 강귀지(姜貴知) 등 금산전투에 다수 참전 전사	왕조 군지
1592. 04. 13 (선조 25)	남원량씨 함평 입향조인 근(謹. 득관조의 18세손)이 임진란을 피해 경기도 시흥에서 학교면 월호리로 이거 정착 해주최씨 어사 공파의 입향조인 옥성(沃晟)이 전북 무장에서 함평읍 대덕리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추(씨족 정착사)
1593 (선조 26)	진주성 싸움에 정감(鄭憾)등 다수 참전 전사 행주대첩에 채우령(蔡禹齡) 등 다수 참전 전사	군사
1594	홍성장씨 직장공파의 함평 입향조인 호(號)가 나주에서 엽다면 송로리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595 봄 (선조 28)	진사 나덕윤(羅德潤) 정개청 신원 상소	추(기축록)
1597. 01. 17 07. 28 08. 18 09. 03 09. 04 전후 09. 05 전후 09. 11 09. 26 (선조 30)	전의금부도사 나덕명(羅德明) 정개청 신원 상소 함평현감 손경지(孫景祉) 견내량 싸움에서 전사함 남원전투에 김수연(金壽淵) 등 다수 참전 전사. 무안, 함평 의병(李忠實 등 다수) 대굴포(大堀포)에서 왜군과 전투 거의 전사함. 함평향교, 영파정 병화로 소실, 기산성(箕山城) 함락(김전재, 서대근 등 수성군 전몰) 이덕일(李德一) 의병대 고산골 전투에서 대승 영광, 함평군 해보면 왜군 침입 월야면 월악의 8열부 백수면 목방포에서 순절 나주나씨 함평입향조인 덕무(德懋. 기시조의 14세손)가 나주시 향교동에서 영광면 함정리로 이거	서원, 왕조 추(왕조) 군사 " 추(칠실유교) 추(정유피란기) " 추(씨족 정착사)
1598 (선조 31)	조수홍(曹守弘) 정개청 신원 2독소(獨疏)	추(기축록)
1599 07. 20 (선조 32) 08. 01	노경덕(盧憬德) 자비로 향교를 추가로 중건 1597. 9. 26 백수면 목방포에서 포로가 되어 일본아파주(阿波州)로 끌려 갔던 월야면 출신 정경득, 정희득, 정호인, 정호례 등 적장을 감동시켜 풀려나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옴 나덕준(羅德峻) 등 정개청 신원 상소	향교 추(정유피란기) 추(기축록) 추(기축록)
1600년경	남평문씨 함평 입향조인 명희(命羲. 시조의 24세손)가 나산면 삼축리에 이거 정착함 청송심씨 함평 입향조인 안평(安枰. 감찰공파조 연의 현손)이 장성에서 영광면 북흥리에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603 (선조 36)	성균관 유생 최희남(崔熹男) 정개청 신원 상소 안중묵(安重默) 정개청 신원 독소 최홍우(崔弘宇) 등 정개청 신원 상소	서원 추(기축록) "
1605 (선조 38)	선무원종공신록(宣武原從功臣錄) 발간 전계신(全繼信. 함평), 윤옥(尹沃. 해보), 정감(鄭臧. 학교), 이춘란(李春蘭. 나산), 윤형필(尹衡弼. 해보) 등 1등공신으로 책록됨 이우춘(李遇春. 함평), 정충량(鄭忠良. 해보), 강귀지(姜貴知), 서경춘(徐景春. 업다), 정기린(鄭麒麟. 함평), 박이상(朴以祥. 함평), 윤예형(尹豫衡. 해보) 등 2등공신 책록 정민수(鄭民秀. 월야), 정회(鄭繪. 월야), 김익웅(金翼熊. 나산) 등 3등공신 책록	추(선무원종공신록, 해보면 해보리 정씨가 소장)
1606. 10 (선조 39)	오익창(吳益昌) 정개청 신원 상소	추(기축록)
1607. 01 .21 (선조 40) 06. 11	양극린(梁克遴) 등 정개청 신원 상소 최홍우(崔弘宇) 정개청 신원 상소	추(기축록) 추(왕조)
1608 (선조 41)	나덕윤(羅德潤) 정개청 신원 상소 강봉람(姜鳳覽) 등 정개청 신원 상소	추(기축록)
1609. 01. 16 (광해 1)	판관 김우성(金佑成)이 정개청 신원을 상소함 나덕윤(羅德潤) 정개청 신원 상소	추(왕조) 서원
1610년경	광산김씨 문숙공과 함평 입향조 주정(周鼎. 시조의 14세손)이 나주 향교동에서 신광면 백운리에 이거 정착함 한양조씨 덕천공과 함평 입향조인 사경(士景. 시조의 13세손)이 임곡에서 신광면 유천리로 이거	추(씨족 정착사)
1610 (광해 2)	김인우가 정개청 신원을 상소함	추(왕조)
1611 (광해 3)	나덕원(羅德元) 정개청 신원 상소	추(기축록)
1615(광해 7)	전라도에 가뭄이 든 끝에 홍수가 저 수확할 가뭄이 없자 백성들이 많이 고향을 떠남	추(왕조)
1616 (광해 8)	유광열(柳光烈), 강봉람(姜鳳覽), 나원길(羅元吉) 정개청 신원 상소 정개청 신원되고 엄담(淹潭. 현엄다면 엄다리 제동)에 사우(祠宇) 건립 강봉람 드이 정개청 복작 청원 상소	서원. 도지. 군사
1617 (광해 9)	나원길(羅元吉) 등이 정개청 복작 청원 상소	추(기축록)
1618. 05. 13 (광해 10) 06. 03	전라도 진사 이해(李垓) 등이 서궁을 폐할 상소회를 막은 함평 현감 박정원(朴鼎元)을 죄주라고 상소	추(왕조)
1622. 10. 26 (광해 14)	함평 백성들이 쌀 3백석을 나라에 바치며 청렴하고 근신한 전 현감 이홍망(李弘望)을 현감으로 제수해 주기를 청하였다.	추(왕조)
1624 (인조 2) 09. 24	서인 계열의 김장생(金長生)이 정개청 서원은 공론에 맞지 않는다는 상언(上言) 현감 이홍망(李弘望) 청덕비 세움 영광과 장흥에 지진과 뇌성 번개가 쳤다.	서원. 도지. 군사 군사 추(왕조)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625 (인조 3)	정개청 직첩이 환급되고 관작이 내려짐	서원, 도지, 군사
1627 (인조 5)	병자호란에 정대명(鄭大鳴) 등 다수가 참여하여 전공을 세움	군지
	현감 목성선(睦性善) 선정비 세움	군사
	향교 재창(현감 박정청-朴鼎淸-이 현 위치 선택) 시작	향교
1630년경	김해김씨 삼헌과 함평 입향조 세동(世東) 3형제가 영광군 군남면에서 신광면 송사리에 이거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1631 (인조 9)	윤제(尹濟) 등의 발의에 의해 향교 중창 현감 안헌징(安獻徵) 선정비 세움	향교 군사
1636 (인조 14)	영양천씨 함평 입향조인 태진(泰進, 증조 만리의 손자)이 전북에서 업다면 업다리 불암으로 이거	추(씨족 정착사)
1640년경	충주지씨 함평 입향조인 경생(敬生, 시조의 26세손), 해생(海生) 형제가 충북 보은군에서 당시 학교면 학아리로 이거	추(씨족 정착사)
1640년대	수원백씨 함평 입향조인 술(술, 증시조의 23세손)이 장흥에서 손불면 학산리 지호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641. 08. 04 (인조 19)	전라도에 큰 가뭄이 들었다.	추(왕조)
1643. 12. 25 (인조 21)	전라도에 전염병이 크게 성하여 사망자가 1만 여명이었다.	추(왕조)
1645. 12. 14 (인조 23)	흉년으로 금주령을 내렸다.	추(왕조)
1649 (인조 27)	원모사(遠慕祠) 건립, 장백림(張百林, 1123~1204) 배향	서원, 군지
1650년경	함양박씨 함평 입향조인 순검(淳儉, 파조 성건의 8세손) 형제가 강진군 성진면에서 월야면 용암리 은암에 이거 정착함 신평송씨 함평 입향조인 승은(承殷, 시조의 16세손)이 나산면 삼축리에 이거함 나주임씨 정자공과 함평 입향조인 실원(實元, 인조방정 2등공신)이 신광면 북흥리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654.05. 26 (효종 5)	임금이 이조참의 신천익을 불러 호남의 기근과 전염병 상황을 물으니 “거듭 기근이 든 나머지 전염병이 또 크게 번져 온 도가 똑같으나 강진과 해남 등 고을이 더욱 심하다.”고 했다.	추(왕조)
05월 09. 10	군제 개편. 함평은 육군은 나주우영, 수군은 전라우수영에 속함. 기근이 심하여 도신(道臣)이 치계하여 노인직(老人職)을 팔아 곡식을 사들여 진휼할 것을 청하니 윤허함	추(증보문헌비고) 추(왕조)
1655. 02. 23 (효종 6)	함평의 사인(士人) 조경회(趙慶會)가 추쇄(推刷)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상소를 올렸는데 왕이 노하여 국문하여 배후를 조사하라 하였다. 경회는 개국공신 조인옥(趙仁沃)의 후예였다.	추(왕조)
1656. 08. 27 (효종 7)	전라우수사 이익달이 각 고을 전선을 통솔하고 조련을 시키던 중 비바람이 크게 일어 함평, 금성, 영암 등 모두 7고을의 전선이 떠내려가거나 침몰하여 죽은 자가 1천명에 이르렀다.	추(왕조)
1657. 09. 25 (효종 8)	자산서원 1차 훼철(송준길, 민정중 주청) 현감 이만길(李晩吉) 송덕비 세움	서원 군사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658 (효종 9)	정국헌(鄭國憲), 윤선도(尹善道) 자산서원 훼손 부당을 상소	서원
1660년경	천안전씨 관관공과 함평 입향조인 이제(以悌. 시조의 47세손)가 나주에서 월야면 양정리로 이거 창녕조씨(曹氏) 화순과 함평 입향조인 정(挺. 시조의 35세손)이 화순읍 지곡리에서 함평읍 수호리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662 (현종 3)	향교에 보관된 이황(李滉)의 위패를 분실하여 물의를 일으킴	향교
1670년경	암해정씨 함평 입향조 희도(希道. 시조의 33세손)가 무안을 영월리에서 엽다면 성천리로 이거	추(씨족 정착사)
1670년대	수성최씨 함평군 입향조 인장(仁嶂. 중시조 순의 7세손)나주시 다시면에서 나산면 덕립리로 이거	추(씨족 정착사)
1674 (숙종 즉위년)	나적(羅積)의 상소로 자산서원 복설 논의	서원
1675. 04. 03 06. 02 (숙종 1)	안민유(安敏孺) 등이 정개청 서원 복설 상소 장평 김해일(金海一)이 상헌하기를 “송준길의 뜻을 받아서 자산서원의 위판을 불사른 능수목사 이세익(李世翊. 전 무안현감)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윤택하였다. 경주에서 김씨 함평 입향조 한형(翰亨. 문기의 7세손)이 경남 안음에서 월야면 외치리로 이거함	추(기축록) 추(왕조) 추(씨족 정착사)
1676. 04 (숙종 2)	오상옥(吳相玉) 등이 정개청 서원 복설 상소	
1677 (숙종 3)	정개청 서원 2차 복설(우의정 허목-許穆- 주청, 규모 22칸)	서원
1678 04. 03 (숙종 4)	망월루 건립(현감 남필성-南弼星) 서국빈(徐國賓) 등의 사액 청원 상소로 정개청 서원 자선서원(紫山書院)이라 사액하고 지체함 천안전씨 수완과 함평 입향조인 만상(萬祥. 시조의 48세손)이 나주비 문평면에서 손불면 산남리로 이거함	문헌 서원 추(씨족 정착사)
1679 (숙종 5)	정개청 저서 우득록(愚得錄) 3권 왕명으로 목판제작 착수	문헌
1680 (숙종 6)	자산서원 2차 훼손(전라감사 임규-任奎- 장계)	서원 · 도지
1680년대	천안전씨 판서공과 함평 입향조인 경후(景厚. 시조의 48세손)가 전북 태인에서 학교면 고막리로 이거함 경주최씨 함평 입향조인 만희(萬熙. 시조의 25세손)가 영광군 금정에서 손불면 석창리로 이거	추(씨족 정착사)
1681. 06. 30 (숙종 7) 07. 20	팔열부녀정각(八烈婦女旌閣) 건립 (월야면 월악리. 정유재란 때 칠산에서 순절한 열부녀) 함평, 무안, 영광, 강진, 진도, 광주, 순천, 남평, 능주 등의 고을에 황충(송충)의 피해가 심함	문헌 추(왕조)
1682 (숙종 8)	향교 대성전, 협문 보수	향교
1683 (숙종 9)	밀양손씨 함평 입향조 술(述. 시조의 28세손) 나주에서 함평읍에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685 (숙종 11)	용천사 석등 세움, 해시계 제작	군지 · 전통
1689. 04. 13 (숙종 15)	나두하(羅斗夏) 등이 자산서원 3차 복설 상소 자산서원 3차 복설 착수	서원
1690 (숙종 16)	자산서원 동서제, 강당 소실(방화로 보고됨)	서원
1691 (숙종 17)	자산서원 완공, 다시 사액 치제함	서원
1692 (숙종 18)	우득록 목판 제작 완료	서원 · 문헌
1693 (숙종 19)	증산사(龜山祠) 건립, 김덕생(金德生) 배향 (나산면 이문리) 금우사(錦宇祠) 건립, 김수연(金壽淵) 배향 (학교면 금송리)	서원 · 군지
1694 (숙종 20)	이인정(里仁亭) 건립 (나산면 나산리)	군지 · 문헌
1700 (숙종 26)	사산사(射山寺) 건립, 이언(李彦), 이춘수(李春秀), 이공(李兢), 이접(李摺), 이종생(李從生) 배향 (나산면 초포리) 해주최씨 승지공파의 함평 입향조 천두(天斗)가 화순에서 해보면 산내리로 이거함	서원 · 문헌 추(씨족 정착사)
1700년경	남향홍씨 함평 입향조인 여준(汝俊, 파조의 17세손)이 경기도 양주에서 대동면 금산리로 이거	추(씨족 정착사)
1701. 08. 07 (숙종 27)	함평 유생 이인화(李仁華)가 국모를 모해한 흉적을 왕명으로 바로 잡으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시골 선비가 남의 사주를 받고 조정을 능멸한 죄를 들어 변방에 정배하였다.	추(왕조실록)
1702. 05. 26 09. 17 (숙종 28)	현감 이언경(李彦經), 권이진(權以鎭) 비 세움 이만성(李晩成)의 상주로 자산서원 3차 훼손 오정훈(吳鼎勳) 등 자산서원 훼손 부당 상소 (이 상소는 7월 18일에 호남사림 84인이 나주 추선사(推善寺)에 모여 통문을 띄우고 8월 19일에 18읍의 유생 300명이 나주 쌍계사에서 소회를 가져 소장 작성했다.)	군사 서원 · 군사 ”
1703 (숙종 29)	우득록 부록 상하권 1책(一冊) 간행	서원, 군사
1705. 02. 13 (숙종 31)	“고 도사 박정원(朴鼎元)이 함평현감으로 있을 때 인목대비 폐비 상소회를 막았는데 그 기절이 승상할 만하니 포상하여 대간의 직임을 추증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윤희하였다. 기산사(箕山祠, 일명 유애사—遺愛祠) 건립, 현감 박정원 등 배향 (함평읍 기각리 기산)	추(왕조) 서원 · 군사
1709 (숙종 35)	수산사(水山祠) 건립, 임영(林泳) 배향, (함평읍 수호리 수산) 금석당 모유추(金石堂牟有秋) 영정 제작	추(서원) 군사
1712 (숙종 38)	월산사(月山祠) 건립, 이덕일(李德一) 배향 (대동면 향교리)	서원 · 군지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710년대	김녕김씨 대사성공파 함평 입향조 기인(琪仁. 시조의 17세손)이 경남 고령군에서 함평읍 장년리로 이거 정착함 풍천임씨(任氏) 함평 입향조 세열(世烈. 시조의 19세손)이 나주시 금천면에서 손불면 동암리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717. 06. 01 (숙종 43)	함평, 나주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추(왕조)
1720년경	강릉유씨(劉氏) 함평 입향조 후평(后平. 은재공파조의 5세손)이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서 손불면 죽장리로 이거함 공주이씨 함평 입향조 화백(華伯. 공숙공파조의 13세손)이 공주에서 손불면 죽장리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722 (경종 2)	나산사(羅山祠) 건립, 안여해(安汝諧) 배향. (나산면 나산리)	추(나산마을사)
1724 (경종 4)	이인정 이건	군지 · 전통
1726 (영조 2)	자양서원(紫陽書院) 건립, 주자(朱子), 송시열(宋時烈) 배향 (해보면 상곡리)	
1730 (영조 6)	초포사(草浦祠) 건립, 이순화(李舜華), 이유인(李有仁), 이명룡(李命龍) 배향. (나산면 초포리) 선호사(船湖祠) 건립. 김석규(金石圭), 김몽성(金夢成) 등 6인 배향(나산면 용두리 소재)	추(서원)
1731. 06. 04 (영조 7)	함평 사람 점술인 임봉래(林鳳來)가 흑세무민한 죄로 벌을 받았다. 월산사 이건 (호남유림과 태학 유학생들에 의해 이순신을 주벽으로 하고 이덕일 배향)	추(왕조) 서원
1732 (영조 8)	칠실유고(漆室遺稿) 편찬	서원
1734 (영조 10)	향교 양사재(養士齋) 규절(規節) 수립	향교
1737. 09. 27 (영조 13)	함평 유학 김재후(金載厚)가 과거의 규정을 엄중히 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예사 비답이 내림 고양사(高陽祠) 창건. 최금수(崔錦壽) 최경헌(崔景憲)배향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추(왕조) 추(족보)
1740 (영조 16)	전주최씨 충렬문 건립	군지
1740년대	창녕조씨 밀직사공파 함평 입향조인 홍직(弘直)이 담양군 창평면에서 대동면 금곡리로 이거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1750 (영조 26)	백야사(百野祠) 건립, 정도성(鄭導誠) 배향 (월야면 외치리 소재)	추(서원)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752 (영조 28)	자산서원 4차 복설	추(서원)
1755 (영조 31)	합평에 이국인(異國人) 8명 표착	연표
1757 (영조 33)	합평현 7,512호, 인구 남 9,904명, 여 12,072명, 계 21,976명	추(여지도서)
1758 (영조 34)	금석당 영당 건립	군지 · 전통
1759 (영조 35)	이인정 중수	군지 · 전통
1760 (영조 36)	모양사(牟陽祠) 건립, 이유인 배향. (나산면 초포리 소재) 광산김씨 낭장공파 합평 입향조 응명(應鳴. 파조 규의 12세손) 형제가 장성군 삼서면에서 신허면 함정리 무송에 이거 정착함 평강채씨 합평군 입향조 덕린(德麟. 시조의 21세손)이 무안군 망운면에서 신허면 보여리로 이거	추(서원) 추(씨족 정착사)
1760년대	평택임씨(林氏) 합평 입향조 우배(宇培. 충정공파조의 14세손)가 나주에서 학교면 월산리로 이거	추(씨족 정착사)
1762 (영조 38)	자산서원 4차 훼손	서원
1765 (영조 41)	삼근당 정도성 영당 건립 여지도서에 합평현읍지 수록 발간	추(여지도서)
1766 (영조 42)	향교 명륜당 중수	향교
1772 (영조 48)	이인정 이건	군사 · 전통
1774. 08. 07 (영조 50) 08. 09	합평 유생 정홍신(鄭弘臣)이 백성의 고통과 시폐를 열거한 상소를 올렸다. 정홍신의 상소가 말이 거칠고 잡스러우며 조정을 능멸하고 모독했다하며 유배형을 가함	추(왕조)
1778 (정조 2)	오산사(鰲山祠) 건립. 정가신(鄭可臣). 정응(鄭鷹) 등 7위 배향 (월야면 용월리)	서원 · 도지 · 군사
1789 (정조 13)	자산서원 5차 복설 시작 합평현 7,048호, 인구 남 9,756명, 여 12,635명, 계 22,391명	서원 · 군사 추(호구총수)
1790 (정조 14)	육영재(育英齋) 건립. (학교면 복천리) 자산사에 이춘수(李春秀) 등 3인 추배 자산서원 완공	군사 · 전통 서원 "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790년경	청주한씨 함평 입향조인 철이(轍履)가 나주에서 학교면 고막리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791 (정조 15)	자산서원 복설 완료, 제동서원(濟洞書院)이라 부름	추(서원)
1795 (정조 19)	우득록 각판 보각(補刻)	추(서원)
1799 (정조 23) 05. 07	안여해를 주벽으로 하던 나산사에 주벽을 안충달(安忠達)로 하고 안여기(安汝器), 안치택(安致宅)을 추향함 암행어사 유정서 현감 김기헌(金箕憲)이 지난해 재결(災結)을 그다지 받지 못해 민원이 먼저 일어났다고 지적하여 보고함	추(나산마을사) 추(일성록)
1800 (정조 24)	신안주씨 함평 입향조인 계춘(啓春)이 학교면 학교리로 이거함	추(군사)
1800년경	이천서씨 정암공파 함평 입향조인 명택(命宅. 시조의 33세손)이 무안군 몽탄면에서 신광면에 이거함 여산송씨 함평 입향조인 신옥(臣玉. 시조의 22세손)이 나산면 덕림리에 이거함 전주리씨 효령대군파 함평 입향조 진구(鎭求. 효령대군의 15세손)가 나주에서 엄다면 신계리로 이거함 전주리씨 능창대군파 함평 입향조 무림군 당(茂林君塘. 능창대군 5세손)이 해남에서 학교면 월호리에 정착함 절강편씨 함평 입향조인 운태(雲泰. 갈송의 9세손)가 나주시 동강면에서 나산면 구산리로 이거	추(씨족 정착사)
1801 (순조 1)	지산사(芝山祠) 건립, 정득량(鄭得良), 정충량(鄭忠良), 정대명(鄭大鳴) 배향. (해보면 해보리)	추(군사)
1804 (순조 4)	월호사(月湖祠) 건립, 정경득(鄭慶得), 정희득(鄭希得), 배향. (월야면 월야리)	추(군사)
1806 (순조 6)	성산사(城山祠) 창건, 윤영상(尹榮商) 윤형필(尹衡弼)배향. (해보면 용산리)	추(족보)
1807 (순조 7)	관덕정(觀德亭) 중수 (권재우 등) 객수(客舍) 기산관(箕山館) 건립 (함평읍 함평리)	군사 · 문헌
1808. 06. 17 (순조 8)	저너 현감 이영식(李英植)이 객사를 재건하고 관청을 수리한다고 관호(官戶)에 나락 각 3말(1,050석), 보리 각 5말(1,900석)을 분배한 일과 환곡을 허부로 작성한 일을 암행어사가 적발하여 보고하다.	추(일성록)
1812 (순조 12)	송은정(松隱亭) 건립. 정광렬(鄭光烈) 세움. (엄다면 송로리)	군사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813. 04. 13 (순조 13)	함평현감 이경삼(李敬參)이 민을 사랑하고 향리를 엄히 단속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추(일성록)
1816 (순조 16) 06. 10	향교 화재로 대성전 일부와 명륜당 소실, 대성전 복구 함평현감 구재환(具載桓)이 활리가 재결을 흠쳐가는 것을 엄히 단속하고 있다. 전 현감 이완식(李完植)이 이잔 봄 진휼할 때 기민 39,806구(口) 내에 16,008구를 허락하여 진수에 들어간 나락과 보리 4,938석과 쌀 576석 내에 실제 쓴 것은 나락과 보리가 1,535석 쌀이 170석에 지나지 않다. -암행어사 조만영 보고-	향교 추(일성록)
1822. 07. 09 (순조 22)	함평현감 권복(權馥)이 종련(綜鍊)의 재주와 문치의 치적이 많으며 청렴하다는 칭송을 받고 있다. -암행어사 권돈인 보고-	추(일성록)
1826 (순조 26)	향교 명륜당 중건 월계사(月溪祠) 건립. 진흙(陳欽) 등 4위 배향 (해보면 대각리)	향교 군사
1831. 04 (순조 31)	자산서원(제동서원-濟洞書院) 중수	추(서원)
1842. 08. 17 (헌종 8)	함평현감 유숙(柳淑)이 부노(父老)에게 쌀과 고기를 내려 우대하고 혼례와 자례에 전포(錢布)를 두루 분급하였다. 전 현감 심동규(沈東奎)는 경자년에 이전(移轉)한 쌀값 1천냥을 대동세로 바치던 콩값으로 상납하고 이것을 환곡으로 분급하여 이로 인해 기한을 넘겨 민원을 일으켰다 -암행어사 조구하 보고-	추(일성록)
1847 (헌종 13) 11. 26	송암사(松巖祠) 건립. 신극례(辛克禮), 신극경(辛克敬), 신표돈(辛孝敦) 배향. (나산면 송암리) 전전 현감 유진익(柳進翼)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에게 정사를 맡겨 세미 값을 추후에 더하기도 하고 포흠전을 거두는데 중간에 없어졌는데도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암행어사 유치승 보고-	추(군사) 추(일성록)
1850년경	한산이씨 함평 입향조 임직(荏植. 추옹공파조의 6세손)이 무안군 망운면에서 나산면 용두리 선박으로 이거함 장수황씨 함평 입향조 상묵(相默)이 나주에서 대동면 백호리로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853 (철종 4)	현감 김상직(金相稷) 비 세움	군사
1854. 07. 03 (철종 5)	전 현감 이진면(李鎭冕)이 정령을 오로지 향리와 향임의 말만 들으면서 영위하는 바는 외물을 받을 따름으로 바뀐지 3년이 지났어도 쌓인 비방이 가득 퍼져 있다 -암행어사 박인하 보고-	추(일성록)
1856. 02 (철종 7)	자산서원 중수	추(서원)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857. 12. 21 (철종 8)	함평현감 정재용(鄭在容)이 관아 문에 복을 달아 백성이 서슴없이 이를 치도록 하였고 향약을 이끌어 완고한 풍속을 감화함 전전 현감 홍선용(洪選容)은 영각(鈴閣, 동헌)을 시정처럼 만들어 향임 향직을 팔았는데 좌수 300냥, 이방 1천냥, 호장, 도화색 150냥인데 병진년에는 200냥을 받았으니 편출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 암행어사 성이호 보고 -	추(일성록)
1862. 04. 중순 04. 16 (철종 13)	함평농민 수 백명 서울 남산에서 햇불 시위 3천 여명이 참가하여 함평농민봉기, 주동자 정한순(鄭翰淳, 나산면 출신) 동헌 습격. 현감 김명규(金命奎)를 집동우리데 태워 군계 밖으로 추방. 향교에 본부를 두고 읍권 장악 자체 치안. 전라도사 함병봉기를 청병소란(稱兵召亂)이라 보고함	추(용호한목) 왕조 · 농민 · 비변사 · 군사 (왕조실록 4. 21)
04. 22	비변사에서 "진주와 익산의 변란이 달마다 발생하였는데 함평의 일에 이르러 극도에 달했다."고 왕에게 보고	추(왕조)
05. 25	무안현감 정순조를 함평 겸임 현감으로 발령. 의금부 현감 권명규를 압송하기 위해 파견 나옴. 신임 현감 김기순 임명. 왕이 선무사 조구하(趙龜夏)를 불러 함평, 익산 두 고을에 내려가 장리(長吏)의 잘못이 컸었다는 나의 뜻을 알리라고 함	농민 · 비변사 추(왕조)
05. 29	안핵사 이정현(李正鉉) 우영장과 함께 함평작	추(용호 · 왕조)
06. 04	주동자 정한순 안핵사에게 십조양진(十條仰陳)을 제시하고 자수함. 안핵사 반핵(盤覈)하는 일로 치계함 비변사에서 정한순, 이방헌, 김기용, 김백환, 진경필, 홍일권 6명을 효수하고 관련자 22명을 유배함과 동시 현감 권명규를 찬배할 것을 상주하여 윤허 받음	추(용호 · 왕조) 추(용호 · 왕조)
1867 06. 05 (고종 4)	포군(砲軍) 50명 설치 전 현감 윤종의(尹宗儀)가 임장들의 사례에 맞지 않는 주구를 통렬히 금지하고 면회에서 명목이 없이 쓰는 남비(濫費)를 태감(太減)하였다. - 암행어사 윤자승 보고 -	군사 추(일성록)
1868 (고종 5)	서원 철폐령으로 유애사, 수산사, 증산사, 월산사, 임천사, 나산사, 월호사, 초포사, 성산사, 지산사, 선호사, 매곡사, 고양사, 송암사, 화철. 철폐령 이전 자진철폐절 사유 자산서원, 모양사, 매당사, 분충사, 달덕사, 분매사, 월계사, 동암사, 화진사, 양림사, 효동사, 산정사 등 함평현감 홍병위(洪秉璣)는 부임 50여일 만에 9천냥에 달하는 포흔한 것을 회수하였고, 3천병의 조종, 2천근의 화약을 새로 저축하였다. 전 현감 김낙균(金樂均)이 군포를 균등히 분배하여 원성이 없었고 향리를 준엄히 다스렸다. -암행어사 이돈상-	서원 · 군지 · 도지 추(일성록)
1870 (고종 7)	상곡사(上谷祠) 건립, 정현보(鄭賢補) 배향. (학교면 죽정리) 진주정씨 충효문 건립. 충신 정현보. 효자 정윤진(鄭胤晉), 정인겸(鄭仁謙). (학교면 죽정리)	서원 · 군사 군사
1871 (고종 8)	함평현읍지 발간	추(함평현읍지)
1873 (고종 10)	증산사(甞山祠) 복설	추(서원) · 군사
1876 (고종 13)	김해김씨 사군과 함평 입향조 영태(齡泰, 식의 9세손)가 손불면 죽장리에 이거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1880 (고종 17)	안동권씨 함평 입향조 양삼(良三)이 나주에서 대동면 향교리로 이거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882 (고종 19)	사매사(四梅祠) 건립, 윤삼거(尹三舉) 배향. (해보면 용산리)	추(군사)
1884 (고종 21)	송계사(松溪祠) 건립, 노극창(盧克昌) 배향. (나산면 송암리)	추(군사)
1888 (고종 25)	능성구씨 함평 입향조 교석(敎錫)이 나주시 다시면에서 학교면 학교리 영화촌에 이거 정착함	추(씨족 정착사)
1893 (고종 30)	현풍곽씨 참판공과 함평 입향조 호섭(鎬涉, 시조의 27세손) 3형제 나산면 월봉리에 이거함	추(씨족 정착사)
1890년대 초	기독교 유서백 선교사가 대동면 용성리에 교회를 설립하고 포교	추(군사)
1894. 04. 16 12. (고종 31)	동학농민군 함평 입성. 대접주 이화진(李化辰) 담양국씨 함평 입향조 문권(文權)이 동학군 참형 현장에서 구사일생하여 영광군 법성면 세미내(三尾川)에서 신광면 송사리로 잠적 이거함	구지·동학 추(족보, 동학)
1895. 05. 25 (고종 32) 09. 05	전국이 23부제(府制)로 개편되면서 함평군(咸平郡)이 됨 (칙령 제 98호) 면, 결, 호(面結戶)의 수 다수에 따라 2등군이 됨(칙령 164호) 함평현읍지 발간	마을유래· 군사 ” 추(현읍지)
1896 (고종 33)	13도제 실시와 함께 전남의 2등군이 됨	마을유래
1897 (고종 34)	행정구역 개편으로 14개면 관할. (평릉, 동현내, 식지, 갈동, 월악, 해보, 대야, 서현내, 영풍, 대동, 신광, 손불, 다경, 해제면)	마을유래
1899 (고종 36)	함평현읍지 발간	추(현읍지)
1902 (고종 39)	정경득 저 만사록(萬死錄) 발간	추(만사록)
1905. 05. 27 (고종 42)	함평임시우편소 개업	추(군사)
1906. 01 09. 24 (고종 43)	사립 함평지남학교 설립 나주부 관할 이었던 대화(大化), 장본(獐本), 여황(餘皇), 적양(赤良), 오산면(烏山面)을 편입하고 해제, 다경면을 무안군에 이속하였으며 동현내와 서현내면을 합해 기성면(箕城面)을 신설 16개면을 관할함 (칙령 49호) 함평군지 발간	추(군사) 마을유래· 군사 ” 추(함평군지)
1907 (순종 1)	함평우체국 개국, 함평읍 함평리	군사
1908 (순종 2)	순검청(巡檢廳) 설치 경찰업무 취급. 함평읍 기각리 나각(羅珌) 저 송파록(松坡錄) 발간	군사 추(송파록)
1910. 05. 10 08. 29 09. 10 ?	기각리의 순검청을 폐지하고 함평경찰서 설치 학교면 학교리에 경찰관 주재소 설치 일제강점기로 들어섬 면에 면장을 두되 관입관 대우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면장이라는 지위를 둠 함평금융조합 개업	군사 추(군사) ” 추(지방행정구역 발전사) 추(도지)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911. 11. 03	함평초등학교 개교. (함평읍 함평리. 함평공립보통학교)	군사
1913. 05. 15 07. 01	목포-학교간 철도 개통 학교-나주간 철도 개통	추(군사)
1914. 01. 01 03. 01 04. 01	조선운송주식회사 학교출장소 개업 장본, 여황, 적양, 3개면을 나주에, 오산면을 광산군에, 대화면을 장성군에 이속하고 무안군의 진례, 좌촌, 금동면을 합해 학교면과 신로, 엄다산면을 합해 엄다면을 신설 편입하였으며 월악, 갈동, 대야면을 합해 월야면을 편성 10개편을 관할함 이제(里制)를 실시함	추(군사) 마을유래 추(행정)
1917. 01. 26 08. 02	나산우편소 사설국 영업개시 함평등기소 개설	추(군사) 군사
1918	손불, 신광, 월야, 해보면에 경찰관 주재소 설치	군사
1919 07. 01 04. 17 04. 08	엄다면 경찰관 주재소 설치 조선 전매령 시행과 동시 목포관연초매팔(賣捌)주식회사 함평 영업소 개설 3월 15일 고종 인산에 참여하였다가 파고다 공원에서 3·1 만세운동에 가담했던 이인행, 정기연이 귀향하여 조사현, 모순기, 김준기 등과 함평에서 4월 26일에 만세를 부르기로 협의하고 진행하던 중 4월 17일 일경에 발각되어 성사하지 못했다. 김기택, 이윤상, 장효남, 정재남 등이 주도한 4월 8일의 문장 만세 시위는 성공하였다. 충의사(忠毅祠) 건립. 김문기(金文起), 김태원(金泰元) 등 6위 배향. 나산면 덕림리 소재 단양우씨(禹氏) 함평 입향조인 경구(璟求. 탁의 18세손)가 추적하는 일경의 눈을 피해 신광면 송사리에 이거 숨어삼	군사 " 군사 군사 추(군사) 추(씨족 정착사)
1920. 02. 19 09. 13	학교우편소 영업 개시 나산초등학교 개교. 나산면 나산리	추(군사) 군사
1921. 10. 25	엄다면 경찰관 주재소 폐지 학교면 경찰관 주재소와 병합 노동회관 건립 기금 조성을 이유로 조사현, 서을남, 김폰바우, 장백선, 서상국, 이광, 최강운, 신현기, 모영기, 이갑원, 김준부, 장정현, 김준택이 주동이 되어 농악대 조직 신광초등학교 개교, 신광면 월암리 182	군사 군사 군사
1923. 06. 20 08. 21 11. 01 10. 01 11. 15	함평군지주총회, 함평군농회로 명칭 개칭 경찰관과 충돌하여 함평군노동회원 15명 수감 학다리중앙초등학교, 학교면 죽정리 921 서상현 외 2인이 함평공립보통학교에서 부녀야학 강습소 개강 (감, 을반 60여명) 김동훈(신광면 유천리), 김인선(함평읍 장년리), 김봉규(함평읍 장년리) 3명의 지주가 소작료를 공평하고 3~4할의 소작료를 받아 주민이 칭송	추(동아) 군사·조선 군사 추(동아) 추(동아)
1924. 02. 23 10. 24 11. 25 11.	동척 전답에서 1년 6천석을 증수해 가는데 작년 가을 1할 이상을 올려 강증하고 소작인에게 노동을 시킴. 옥토는 일본인 박토는 조선인에게 분할함 군민 거의가 푸성귀, 보리국, 나무뿌리를 먹고 사는 형편. 쌀 1말 4원 20전에서 하루 사이 4원 80전으로 올랐는데 없어서 사 먹을 수 없음 대동면 경찰관 출장소 설치 함평의 약덕 지주 소작료를 전년에 비해 3할 이상 크게 올림 고흥류씨(柳氏) 함평 입향조인 상봉(相鳳. 시조의 24세손)이 나산면 월봉리에 이거함 함평군지 발간. 가호 12,897호. 인구 남 35,748명, 여 33,510명, 계 69,258명	추(동아) 추(동아) 동아 추(씨족정착사) 추(군지)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925. 01. 18	신광면 유지 발기로 월암리 김치삼 집에 400여명이 모여 신광농민회를 조직함	추(조선)
	용천사 주지 정응상 노동자를 위한 노동야학을 설립하고 강사 송문왕을 초빙 개강	추(동아)
	대동면 경찰관 출장소 주재소로 승격	추(조선)
	학교역과 함평간 6.8km 궤도(軌道)를 부설	군사
	함평 영광간 버스 운행	"
	동아일보 함평지국 주최로 호남정구대회 열림	추(군사)
04. 15	함평 사상동맹회 창립	조선
10. 20	월야초등학교 개교, 월야면 월야리 471068	군사
11. 15	산업 시찰단을 모집하여 다녀온 일로 함평군수를 규탄 함평군민대회 준비	시대
11. 25	보안법 위반이라고 군수 사건 군민대회 금지	동아
11. 29	함평군수 사건 도지사에게 공개장 보냄	시대
1926. 01. 23	함평노동위원회 개최	추(동아)
04. 26	함평농민조합연합회를 창립하고 메이데이 기념을 결정함	조선
05. 25	청년회 운영 남명학원(南明學院) 후원회 조직	조선
06. 03	학교역과 기각리 간 궤도 노선 허가	시대
06. 20	대동청년회(大洞靑年會) 발기	"
07. 27	대동농민조합 창립	"
08. 24	식지농민조합 창립 준비	추(동아)
08. 28	평릉농민조합을 창립	"
09. 06	해보농민조합을 창립	"
09. 25	업다초등학교 개교, 업다면 업다리 811	군사
1927. 04. 25	손불초등학교 개교. 손불면 대전리 236-8.	군사
05. 28	신간회함평지회 설립	추(동아)
11. 25	각 방으로 나누어진 청년단체를 해체하고 함평청년동맹 창립	"
1928. 09. 27	농민진흥회를 해체하고 농민조합을 설립	추(동아)
12. 14	함평신간회지회(新幹會支會) 간사회 개최	동아
1929. 01. 30	전재산 차압하자 신광 이봉우 음독자살(심각한 농촌 생활탄)	동아
	관신약방(廣信藥房) 개업	군사
09. 25	함평중학교 개교. 함평읍 내교리 518	"
10. 13	함평지주회 한해가 극심하여 면세지 소작료 면제, 면세지 외 감하거나 면제키로 결의	추(동아)
12. 12	함평농업학교에서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여 시위를 하려다가 발각되어 4명 구속됨	도지
	오산사(鰲山祠) 복설	추(군사·서원)
1930. 03. 05	함평동척이 수확 없는 논에 소작료를 안낸다고 소작권을 이동해 무리를 일으킴	중외
03. 10	함평 격문(檄文) 사건 이현일, 이상명, 이열, 김재천 김사국송치	중외
03. 28	함평 격문사건 2차로 권중환, 황창규, 이천범, 3차로 이삼희(광주고보), 장희○(함평공보), 이재연(농삼공보)을 또 송치	중외·조선
04. 18	함평 격문사건 공판 개정, 김성호, 김명진, 김영수, 이의형 변호사가 자진 변호	조선·중외
04. 21	함평 격문 사건 전원에게 금고 구형	조선
07. 24	함평 격문 사건 구형대로 연도. 1명 집행유예	"
09. 05	해보초등학교 개교, 해보면 금덕리 477	군사
09 상순	함평군지 발간, 가호수 14,157호(조선인 13,889호, 일인 260호, 외국인 8호), 인구수 77,464명(조선인 76,362명, 일본인 1,082명, 외국인 20명)	추(군지)
10. 22	풍년이 들었으나 소작료 과징으로 살길이 없어 일본 대관 등지로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음	추(조선)
1931. 03. 29	춘궁기에 호세와 지세를 미납한 200가호에 재산차압을 함	추(조선)
07. 02	경찰관 명령으로 나산면 진명야학원 폐쇄	동아
07. 19	호세를 내지 못한 가호가 2천 수백호 되는데 신광면에도 방문에 차압봉인을 하여 비난 받음	추(동아)
07. 16	함평읍 신곡제사공장 여직원 30명 동맹파업 단행. (김윤삼 감독이 여직원을 구타한	추(동아)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1. 27	것이 원인) 7할의 소작료를 줄 수 없다고 엄다면 소작농민 동척에 결속 항쟁. 실수확 6할 3푼	동아
1932 03. 25 04. 07 06. 01 07. 14 08. 13 11. 02	전주지방전매국 목포출장소 함평관매소로 개칭 수재와 풍제로 농사를 실패하고 빚에 줄리던 평릉, 식지면의농가 10호가 야반도주 학교, 엄다면 가마니 생산자 200여명이 지정 매매제를 입찰관매 제대로 바꿀 것을 진정함 대동초등학교 개교, 대동면 용성리 689 함평 순소작농 8,600호로 전 농가 호수의 8할에 해당 군내 호세 미납 가호 3,000여호 평릉(平陵), 식지면(食知面)을 합해 나산면(羅山面)을 신설 9개면 관할	군사 추(동아) 추(동아) 군사 동아 추(동아) 군사·동아
1933. 06. 10 12. 14	월야북초등학교 개교, 월야면 용암리 85-5 전 수확량을 소작료로 납부해도 부족분이 610여석, 월야면 정산리 44인의 동척소작료 납부 현황, 그 중 2인은 야반도주.	동아
1934. 03. 19 04. 15	철성초등학교 개교, 대동면 금곡리 389-5 이문초등학교 개교, 나산면 이문리 881	군사
1935. 04. 09 08. 16	학교, 엄다 한해인 1,106명이 지용화를 대표로 연명하여 구제 요청 진정서 총독부에 올림 한해지(旱害地) 2부(府) 2군(郡) 손해액 1,000만원 돌파, 함평군은 8할 7푼의 대감수, 상상 이상의 전답 대피해 표산사(杓山祠) 창건, 정분(鄭玢), 정감(鄭臧) 배향, (학교면 마산리)	추(동아) 동아 추(군사)
1936. 04. 01 11. 03	성남초등학교 개교, 함평읍 성남리 214 함평, 대동면의 20여명 소작인이 쟁의조정(爭議調停)을 신립(申立)함 사산사(射山祠) 복설	군사 동아, 조선 추(군사, 서원)
1937. 04. 01	백년 사립학원 설립(함평서초). 함평읍 장년리	군사
1938. 07. 01	삼화석물 공장 설치, 학교면 학교리 금송간이학교 개교 (학교남초), 학교면 금송리	군사 "
1939. 06. 01 10. 03	신광서초등학교 개교, 신광면 동정리 소작쟁의 적극 방지와 한해인 구제를 협의(함평군 지주 좌담회 개최)	추(군사) 동아
1940. 04. 01	해보서초등학교 개교, 해보면 대각리 538	군사
1941. 06. 16 11. 23	월송초등학교 개교. 대동면 월송리 424 함평수리조합 설립인가	군사
1942. 05. 12	손불서초등학교 개교, 손불면 월천리 1026	
1943. 03. 03	백제의원 개업	군사
1944	광생당(廣生堂)약방 개업 천주교 함평공소 봉헌 미사(1945년 본당 승격)	군사 추(군사)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945. 08. 15 09. 09. 01 10월말 12. 05	조국 광복 건국준비위원회 조직(위원장 이재혁)과 산하 치안대 조직. 후 보안대로 개칭 치안 담당 함평어업조합 설립 향교초등학교 개교. 대동면 향교리 함평인민위원회 조직. 위원장 이재혁 학다리중학교 개교. 학교면 사거리 467	군사 " 군사 " " "
1946. 02. 13 06. 04 07. 01	함평경찰서 설치 각 면의 주재소를 지서로 개칭(엄다면은 제외), 주포경찰관출장소 설치. 함평읍 석성리 학교면과 분리 엄다 지서 설치. 엄다면 학야리 학다리초등학교 개교. 학교면 학교리 585 목포전매지청 함평전매서로 개칭 옥천주조장 개업. 함평읍 기각리(탁주 생산) 한국민주당 함평지구당 창립. 위원장 신현기(申鉉麒) 한국독립당 함평지구당 창립. 위원장 이문겸(李文兼)	군사
1947. 04. 01	덕천사(德川祠) 창선. 모순(牟恂), 모유추(牟有秋) 배향. (신광면 삼덕리) 제 1회 호남축구대회 함평초등학교 교정에서 열림 윤제(尹濟), 윤정우(尹挺宇) 저 교재집(喬梓集) 발간	추(서원) 추(군사) 추(교재집)
1948	제 1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이성우(李成佑) 당선	군사
1949	함평군 산립조합 발족 (함평읍 함평리)	
1950. 05. 30 07. 23 10. 19 10. 19 10. 21	제 2대 국회의원 선거, 민국당 서상국(徐相國)당선 북한공산군 함평 점령 공산군의 의해 함평군청(옛 동헌), 금융조합, 경찰서, 천주교회 방화 소실 한국군경 함평 수복 백야사(百野祠) 복설	군사 " 추(군사) 추(문헌자료집) 추(군사) "
1951. 02. 20 09. 01 09. 25	모악산, 불갑산 공비소탕작전 완료 학다리 고등학교 개교, 학교면 사거리 함평농업고등학교 개교, 함평읍 내교리 518	추(군사) 군사 "
1952. 30. 26 05. 10 06. 04 06. 15 09. 14	김연범 제 15회 헬싱키 올림픽대회 마라톤 출전 1대 도의원선거, 1지구 이갑수, 2지구 윤인식 당선 함평교육구청 설치 재단법인 삼애원(三愛院) 설립, 함평읍 내교리 자유당 함평군당 창립, 위원장 한규홍(韓圭興) 광인고등공민학교 개교, 함평읍 함평리 63	추(군사) " 군사 " " "
1953. 10. 22 08. 05 04. 15	재단법인 성애원(聖愛院) 설립. 함평읍 함평리 재단법인 시온원 설립. 학교면 학교리 453-5 대륙공업사 개업(탈곡기 생산). 함평읍 기각리 함평동중학교(후 월야중학교)개교. 월야면 월야리	군사
1954. 05. 20 12. 07	문장정미소 설치. 해보면 문장리 제 3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김의택(金義澤) 당선 재단법인 자광원(自光院) 설립. 함평읍 기각리 977	군사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955. 02. 01 04. 25 10. 05	여호와의 증인 함평집단 설립인준 함평경찰서 준공, 함평읍 함평리 120 함평여자중학교 개교, 함평읍 기각리	추(군사) 군사 "
1956. 05. 01 08. 13 10. 01 11. 09	함평군농업은행 발족 2대도의원선거. 1지구 장권표, 2지구 윤인식 당선 월야우체국 개국(월야면 월야리 69-3) 엄다남초등학교 개교. 엄다면 영흥리 888-7 민주당 함평군당 발당. 위원장 김의택	추(군사) 군사 추(군사) 군사 "
1957. 06. 11 11. 23	수하리농업협동조합 업무 개시, 나산면 수하리 학다리동중등학교 개교. 학교면 복천리 425 수벽사(修關祠) 창건. 윤관(尹權) 배향. (해보면 상곡리) 함평군농업협동조합 업무개시. 함평읍 기각리	군사 " " 추(군사)
1958 05. 02	함평농기구공장 개업(우마차, 쟁기 생산) 함평읍 기각리 함평직물공장(면직물 생산) 개업, 함평읍 내교리 제 4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김의택 당선 원모사(遠慕祠) 복설	군사 군사 " 추(군사)
1960. 07. 20 07. 29 08. 12. 12 12. 20 12. 29	재건국민운동 함평군위원회 발족 함성철공소 개업(탈곡기 생산), 함평읍 내교리 문장도정공장 건립. 해보면 문장리 함평통일교회 설립(개척자 김천일) 제 5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김의택 당선. 1대 참의원선거 신민당 함평군당 창당. 위원장 김의택 김연범 제17회 로마올림픽대회 마라톤 출전 3대 도의원 선거. 1지구 김봉수. 2지구 정동운 당선 함평궤도회사 폐업 1대 도지사 선서. 민영남 당선	군사 " " 추(군사) 군사 " 추(군사) " " "
1961. 01. 01 08. 15 02. 28 12. 13 12. 15	군정 기구 개편, 공보실, 재무, 건설과 설치 함평군농업협동조합 발족 함평여객주식회사 설립 민주공화당 함평군당 창당. 위원장 정현조 화물회사 제일화물(학교면 사거리) 영업 개시 손불우체국 개국(손불면 대전리 223)	군사 추(군사) 군사 " 추(군사) "
1962. 01. 20 10	함평수리조합 함평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변경 함평보건소 개소 함동(咸東)도정공장 개업. 해보면 금덕리 652 청학도정공장 개업. 함평읍 석성리 김연범 마라톤 한국신기록 수립 (2시간 23분 56초)	추(군사) 군사 " " 추(군사)
1963. 01. 01 03. 15 05. 31 11. 26 10. 10	함평면 함평읍으로 승격. 1읍 8개면 관할 재건반 설치조례 제정으로 반이 법적 확립. 법정리수 104. 행정리수 147. 자연마을 449. 반 534 나산서초등학교 개교. 나산면 구산리58-1 함평연탄공장 준공. 함평읍 함평리 신광우체국 영업 개시(신광면 월암리 255-3) 제 6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공화당 정현조 당선 손불동초등학교 개교. 손불면 죽암리 709	군사 " " " 추(군사) 군사 "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964. 04. 01 04. 02 05. 04 09. 11. 25 12. 15	한글초등학교 개교. 대동면 서호리 243 합평북초등학교 개교. 함평읍 대덕리 913 합평군번영회 발기인총회 개최 대건(大建)고등공민학교 설립. 학교면 석정리 김연범 제 18회 동경올림픽대회 마라톤 출전 엄다우체국 개국 (엄다면 엄다리 760-18) 문장우체국 개국 (해보면 문장리 794-8)	군사 " " " 추(군사) " "
1965	합평읍사무소를 기각리 907번지로 옮겨 지음 엄다주조장 개업(탁주 생산). 엄다면 엄다리 합평군 인구 최고 성장년. 가호수 22,716호(농가 19,032호. 비농가 3,684호), 인구수 남 71,472명. 여 70,373명. 계 141,845명	군사
1967. 03. 07 06. 08 04. 06 11. 04	합평서중학교(손불중학교) 개교. 손불면 대전리 완초공예센타 준공(완초 가공과 기술교육 목적) 해보면 문장리 백야 완초협업장 개장. 월야면 외치리 제 7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공화당 윤인식(尹仁植)당선 영광군과 합하여 신민당 지구당 창당. 위원장 조영규(曹泳圭) 엄다제건고등공민학교 개교. 엄다면 엄다리 나산동초등학교 개교. 나산면 송암리 750	군사
1968. 01. 14 07. 23 09. 01 11. 05 12. 20 12. 31	합평여자상업고등학교(후에 합평여자고등학교로 개명)개교. 함평읍 기각리 대광초등학교 개교. 대동면 금산리 산 28 손불남초등학교 개교. 손불면 산남리 2425-6 기산초등학교 개교. 함평읍 기각리 742 주포우체분국 영업 개시 우체국 신축. 함평읍 함평리 116 용수완초협업장 개장. 나산면 용두리 창서완초협업장 개장 해보면 대창리 대동주조장 개업 (탁주생산). 대동면 향교리 학교주조장 개업 (탁주생산). 학교면 학교리	군사
1969. 03. 01 08. 16	기산연탄공장 준공. 함평읍 기각리 영광군과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 나산북초등학교 개교. 나산면 초포리 373-1 엄다단위농업협동조합설립	군사 " " 추(군사)
1970. 03. 01 03. 01 03. 01 03. 01 07. 21	나산중학교 개교. 나산면 삼축리 신광북초등학교 개교. 신광면 함정리 160-2 손불남초등학교 개교. 손불면 산남리 2425-1 영창초등학교 개교. 학교면 사거리 183 합평읍단위농업협동조합 창립 해강사(海岡祠) 창건. 정윤경(鄭允京) 배향. (학교면 죽정리)	군사 " " " 추(군사) 추(서원)
1971. 03. 01 03. 09 03. 10 05. 25 10. 11	해보중앙초등학교 개교. 해보면 상곡리 148 신광중학교 개교. 월암리 231-1 해보중학교 개교. 해보면 용산리 938-1 제 8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공화당 윤인식 당선 해보단위농업협동조합 설립	군사 " " " 추(군사)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972. 04. 26 10. 01 10. 11 10. 31	손불면단위농업협동조합 창립 신광면단위조합 업무개시 문장신용협동조합 법인 창립총회 대동단위농업협동조합 발족 월야단위농업협동조합 발족	추(군사)
1973. 01. 01 02. 27 03. 06 04. 23 07. 01 09. 30	학교면 단위농업협동조합 업무개시 제 9대 국회의원 선거(영광, 장선, 함평군에서 2명 선출), 윤인식, 이진연(李震淵) 당선 월야중합고등학교 개교. 월야면 월야리 627-5 함평군축산협동조합 설립 학교면 상옥, 금곡, 백호, 월송리 대동면에 편입(대통령령 제 6542호) 나산단위농업협동조합 업무개시	군사 " " 추(군사) 군사 추(군사)
1974. 07. 19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추(군사)
1975. 03. 20	월야남초등학교 개교. 월야면 양정리 327	군사
1976. 03. 01 03. 11	신성분교 개교. 학교면 고막리 17-6 광동초등학교 개교. 월야면 계림리 581-3	군사
1977. 03. 19 08. 10 12. 22	함평농지개량조합→영산강농지개량조합 함평지소로명칭 변경 종자공급소 함평지소 개소 (해보면 금덕리 346-7) 함평공원 새로꾸미기 준공 원불교 함평교당 봉불식	추(군사) " " "
1978. 04. 02 12. 12	전라남도농업통계사무소 함평출장소 개소 제 10대 국회의원 선거. 김재식(金在植). 이진연 당선	추(군사) 군사
1979. 01. 23 03. 03 03. 18 10. 05	군기, 군목(은행나무), 군화(백일홍), 군조(비둘기), 군민의 노래, 군민의날(10.05), 군민헌장을 제정함 석성초등학교 개교. 함평읍 석성리 200-14 함평신용협동조합 업무개시 제 1회 함평군민의날 행사 거행	추(군사) 군사 추(군사) "
1980 12	장산교(신광면 계천리 소재) 확장 신설 사천교(신광면 월암리 소재) 확장 신설 학교면 월산리 해양무선표시소 LORAN-C 전파발사	추(군사) " "
1981. 01. 01 03. 25 12. 04	함평군농업협동조합 농업중앙회 함평군지부로 개칭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조기상(曹淇相), 이원형(李元衡) 당선 함평양로원 개설 (함평읍 함평리 구 성애원)	추(군사) 군사 추(군사)
1982. 01. 01 05. 14 07. 06	한국전기통신공사 함평사업소 발족 함평군민복지회관 준공 함평상수도 기산봉 정수시설 준공 노경선 레슬링세계선수권대회(미국)에서 금메달 아시아게임에서 최은숙 씨아슬 도로경기 금메달 대동면 서호리, 분매(分梅), 호암(虎岩), 호정(虎丁) 일부, 서변(西邊), 동호(東湖) 일부, 연암리의 수현(水峴), 수암(水岩) 마을이 대동댐 축조로 수몰됨	추(군사) " " " " 군사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983	삼일사(三一祠) 창건, 김두삼(金斗三), 김규일(金圭驥) 배향. (손불면 죽장리) 선호사(船湖祠) 복설 고막교 확장 신설	군사 추(군사) "
1984	LA올림픽 레슬링에서 김원기 금메달 LA올림픽 하키에서 강숙 은메달 국제창가협회 한국불교회 함평전도 (엄다면)	추(군사)
1985. 03. 01 03. 01 03. 01 02. 12	함평고등학교 개교, 함평읍 진양리 산 13 나산고등학교 개교, 나산면 삼축리 1184 영화학교 개교, 함평읍 진양리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 조기상, 이진연 당선	도지 · 군사
1986	레슬링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김종신 금메달	추(군사)
1987. 01. 01 08. 10 11. 01 12. 14	함평읍 성남리 일부와 학교면 사거리 일부가 엄다면에 편입됨 유한회사 함평교통 영업 개시 월호사(月湖祠) 복설 함평의료보험조합 개소 학교농공단지 준공	도지 추(군사) " " "
1988. 03. 01 04. 26 10	신광북초등학교 폐교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영광, 함평군에서 1명 선출), 서경원(徐敬元) 당선 서울올림픽에서 이계행 태권도 금메달 서울올림픽에서 김영남 레슬링 금메달 서울올림픽에서 조정선 레슬링 동메달 서울올림픽에서 이기순 핸드볼 금메달	추(군사) 도지 · 국회 추(군사) " " "
1989. 01. 27	함평군모자보호시설 설립(함평읍 기각리 구 자광원)	추(군사)
1990. 11. 09	제 13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수인 당선 구밀교 확장 신설	추(군사)
1991. 03. 26 03. 26 04. 14 04. 15 06. 20	제 1대 군의원선거. 당선자 김봉학(함평), 이기노(손불), 이용현(신광), 정성화(학교), 윤 표(엄다), 김영관(대동), 김경호(나산), 윤여은(해보) 이록범(월야) 당선 함평군교육청 전라남도함평군교육청으로 명칭변경 군정자문위원회 해체 1대 함평군의회 개회. 의장 김봉학. 부의장 윤여은 도의원선거. 1지구 이연행, 2지구 정원강 당선	추(군사)
1992. 01. 22 02. 25 03. 24 03. 01 03. 01	함평농공단지 준공 광주은행 함평지점 개점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 김인곤(金仁坤) 당선 엄다남초등학교 폐교 한골초등학교 폐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김종신 은메달	추(군사) " 광주 추(군사) " "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993. 01. 03. 01 04. 15 09. 10 11. 29	학교상수도 월산정수장 시설준공 월송초등학교 폐교 2대 함평군의회 개최. 의장 윤여은. 부의장 정성화 월야면 1대 군의원 보궐선거. 정윤철 당선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제정 공고	추(군사)
1994. 04. 23 03. 01 03. 01 03. 01	두산사(斗山祠) 창건. 박봉혁(朴峯赫) 배향. (나선면 삼촉리) 손불동초등학교를 손불초등학교 용암분교로 격하함 학다리동초등학교 폐교 해보서초등학교 폐교 영수교 2차 확장 신설	추(군사)
1995. 03. 01 03. 01 03. 01 03. 01 04. 28 06. 27 06. 27 06. 27 06. 27 07. 01 07. 14	신광서초등학교 폐교 나산동초등학교 폐교 나산서초등학교 폐교 나산북초등학교 폐교 3대 함평군의회 개최. 의장 김영관. 부의장 정성화 도지사선거. 허경만 당선 도의원선거. 1지구 조성택. 2지구 정남혁 당선 1대 군수선거. 정원강 당선 2대 군의원선거. 당선자. 노금노(함평). 임인택(손불). 이진섭(신광). 이만근(학교). 윤 표(엄다). 정봉곤(대동). 안종래(나산). 이재화(해보). 서수정(월야) 1대 민선군수 정원강 취임 4대 함평군의회 개최. 의장 윤표. 부의장 임인택 동강대교(학교면 곡창리-나주시 동강면) 신설 준공 대창교(해보면 대창리 소재) 2차 확장 신설 엄다상수도 확장공사 준공	추(군사)
1996. 02. 06 03. 01 03. 01 03. 01 03. 01 04. 11	10월 5일 군민의날을 4월 15일로 개정 철성초등학교 폐교 이문초등학교 폐교 월야남초등학교 폐교 광동초등학교 폐교 15대 국회의원 선거. 김인곤 당선 학야교 2차 확장 신설 함평교(咸平橋) 3차 확장 신설	추(군사)
1997. 01. 14 03. 01 03. 01 03. 01 10. 04 10. 14 12. 26	5대 함평군의회 개최. 의장 정봉곤. 부의장 서수정 함평북초등학교 폐교 학교남초등학교를 학다리초등학교 금송분교로 격하 해보중앙초등학교 폐교 나산상수도 확장공사 준공 경남 남해군과 함평군 남해군에서 자매 결연식 신광농업협동조합 함평농업협동조합과 합병	추(군사)
1998. 06. 04 06. 04 06. 04 06. 04 07. 01 07. 16	도지사 선거. 허경만 당선. 2대 군수 선거. 이석형 당선 도의원 선거. 1지구 김녕호. 2지구 박래옥(朴來玉) 당선 3대 군의원 선거. 당선자. 이남경(함평). 임인택(손불). 모상영(신광). 정성화(학교). 이부현(엄다). 이경연(대동). 나병기(나산). 윤종형(해보). 정현웅(월야) 2대 민선군수 이석형 취임 6대 함평군의회 개최. 의장 나병기. 부의장 이남경	추(군사)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1999. 05. 05 05. 05. 08 05. 10 06. 18 07. 10 08. 25 09. 01 09. 17 09. 20 10. 26	1회 함평 나비대축제 (05. 05 ~ 05. 09) 주포진입 해안도로 2.6km 준공 환경농업 심포지움 엄다면 남도노동요 상징물 건립 함평군-광주교육대 자매결연 돌머리 갯벌 생태 체험학습장 운영(07. 10 ~ 08. 22) 모평헌터 제막식 석성초등학교 폐교 1회 솟대·장승·허수아비 한마당 (09. 17 ~ 09. 19) 함평노인복지회관 준공 고대문화 심포지움	
2000. 01. 01 2000. 02 2000. 02. 07 2000. 03. 01 2000. 2000. 2000. 2000. 03 2000. 04. 13 2000. 05. 05 2000. 05 2000. 06. 01 2000. 06 2000. 06 2000. 06 2000. 06 2000. 07 2000. 07. 01 2000. 11. 2000. 12. 18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로 출범,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지부 함평지소 개소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점 함평출장소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 함평지점(IV)으로 개편 새마을 홈페이지 개통(도메인 : www.saemaul.or.kr) 학다리초등학교 금송분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폐합 함평군임업협동조합, 함평군산림조합으로 개편 엄다면 학야리 392-1번지 환경기초시설(하수,가축분뇨,분뇨) 완공 함평읍 장년리 산 59-2번지 환경관리센터(매립장) 완공 전남야구장 준공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낙연 당선 제2회 나비대축제 함평천 수변공원 개최(5. 5-5. 9) 함평읍 수호리 함평-고시간 농어촌도로 0.58km 준공 파출소 통폐합으로 주포파출소 주포분소로 개칭 함평읍 석성리 덕흥~성덕 농어촌도로 1.15km 준공 신광면 월암리 가야~매월 농어촌도로 1.04km 준공 신광면 계천리 계월~석계 농어촌도로 1.51km 준공 해보면 대각리 군도2호선 확포장 1.43km 준공 손불면 군도9호선 확포장 1.78km 준공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함평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지사로 변경 함평군여성자원봉사회 창립 학교역 건널목 무인1종화 완료	
2001. 01 2001. 02 2001. 04 2001. 04 2001. 04. 16 2001. 05 2001. 06 2001. 07. 31 2001. 09. 20 2001. 09 .27 " 2001. 10 2001. 11. 16 2001. 12. 05	엄다면 엄다리 성산-송암간 농어촌도로 1.17km 준공 손불면 월천리 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0.82km 준공 나산면 삼축리 하축-월평간 농어촌도로 0.74km 준공 월야면 용암리 장교~송정간 농어촌도로 1.71km 준공 (사)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전남도지부 함평군지회 설립 제3회 나비대축제 함평천 수변공원 개최(5. 5-5.13) 대동면 연암리 군도2호선 도로 확포장 2.14km 준공 1968년 12월. 20일 개국되었던 주포우체국 폐국 월야새마을금고 금융결재원 가입 함평읍 진양리 화동고분 2기 전남 문화재자료 230호 지정 함평읍 대덕리 고양고분 2기 전남 문화재자료 231호 지정 함평읍 대덕리 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1.4km 준공 함평농협 대형 하나로마트 개점 학교역 신 역사 이전 및 영업개시, 함평역으로 이전과 동시 개칭. 새마을호 왕복 3개 열차 정차(학교면 학교리 492-1번지)	
2002. 01. 01 2002. 02 2002. 03. 01 2002. 03. 28 2002. 04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지부 분할(나주, 담양, 장성, 함평)해 함평지사로 분리 승격 실내야구연습장 준공 성남초등학교 함평초등학교로 통폐합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시범노인학교, 전라남도교육위원회 함평노인대학으로 승격 공설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준공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2002. 04. 06 ~ 05. 15	자연생태공원 「산림욕장」 「무궁화동산」 「우리꽃 생태학습장」 준공	
2002. 05	제4회 나비대축제 함평천 수변공원 개최(5. 5-5.12)	
2002. 05	학교면 복천리 군도5호선 도로 확포장 0.8km 준공	
2002. 05	학교면 석정리 군도5호선 도로 확포장 0.86km 준공	
2002. 05	함평읍 장년리 백련~하동간 농어촌도로 1.05km 준공	
2002. 06. 13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도지사 박태영 함평군수 이석형 광역의원 1선거구 김성호, 2선거구 박래옥 기초의원 김청수(함평) 백맹조(손불) 모상영(신광) 이백주(학교) 김만환(엄다) 조용무(대동) 노화섭(나산) 정승근(해보) 정현웅(월야)	
2002. 06	농어촌열린문화마당(함평군보건소 옆) 준공	
2002. 06	함평읍 수호리 군도14호선 도로 확포장 1.64km 준공	
2002. 06	손불면 복성리 비천~차경간 농어촌도로 1.58km 준공	
2002. 06	월야면 용정리 내세~덕령간 농어촌도로 1.26km 준공	
2002.	함평읍 기각리 569번지에 상수도 정수장 설치	
2003. 02. 28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신성분교장 재학생 1명 졸업과 동시 폐교	
2003. 03. 01	엄다중학교 학다리중학교로 통폐합	
2003. 03. 05	함평신협 학교지소 폐쇄	
2003. 03. 07	나르다예술단 설립	
2003. 03. 14	학교면 고막천석교 보물 1372호 승격	
2003. 04. 22	자연생태공원 「자연생태과학관」 등록 (과학기술부 제09호)	
2003. 04	학교면 복천리 군도5호선 도로 확포장 1.15km 준공	
2003. 04	함평읍 수호리 송정~성남간 농어촌도로 0.4km 준공	
2003. 04	손불면 석창리 백옥~교촌 농어촌도로 0.84km 준공	
2003. 04	나산면 신평리 송암~도장골간 농어촌도로 1.78km 준공	
2003. 04	학교면 월산리 토교~회초간 농어촌도로 0.86km 준공	
2003. 05. 22	제5회 나비대축제 함평천 수변공원 개최 및 예비 우수축제 지정(5.3-5.11)	
2003. 06	자광모자원, 종교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와 자매결연	
2003. 06	신광면 동정리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 0.17km 준공	
2003. 06. 30	일강 김철선생기념관 준공	
2003. 07	함평 구 학다리역 급수탑 등록문화재 63호 지정	
2003. 08.26	엄다면 신계리 군도14호선 도로 확포장 0.76km 준공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및 함평군법원 현 위치로 이전(함평읍 기각리 987-3, 대지 2,196㎡)	
2003. 08. 01	지역경찰제 실시에 따라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합(중앙지구대, 남부지구대, 동삼지구대)	
2003. 08. 01	전남함평자활후견기관 설립	
2003. 10. 24	함평역 자동폐색시 변경(CTC취급)	
2003. 12.	함평문화원 주관으로 문화유산해설가 배출(31명)	
2004. 01	함평 문화의 집 조성	
2004. 02. 13	함평읍 이재혁 가옥 전남 문화재자료 250호 지정	
"	나산면 이진풍 가옥 전남 문화재자료 251호 지정	
2004. 02. 19	함평신협 법인 등기부 등본에 학교지소 폐쇄등기	
2004. 03. 01	함평서초등학교(장년분교장) 함평초등학교로 통폐합	
2004. 04. 01	함평역 KTX 운행영업개시(통과)	
2004. 04. 07	푸른함평지킴이 창립	
2004. 04. 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낙연의원 당선	
2004.	엄다면 엄다리 군도1호선 확포장 1.20km 준공	
2004.	엄다면 신계리 군도14호선 확포장 0.60km 준공	
2004.	대동면 상옥리 군도5호선 확포장 0.70km 준공	
2004.	해보면 산내리 군도13호선 확포장 0..20km 준공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2004. 2004. 2004. 2004. 2004. 05	신광면 백운리 신기~백오간 농어촌도로 1.00km 준공 나산면 삼축리 국도24~월봉간 농어촌도로 1.20km 준공 손불면 석창리 백옥~교촌간 농어촌도로 1.00km 준공 월야면 영월리 내세~덕령간 농어촌도로 1.20km 준공 제6회 나비대축제 함평천수변공원 개최 예비 우수축제 지정 (5. 1-5. 9)	
2004. 06. 05 2004. 07 2004. 08. 2004. 11 2004. 12. 28 2004. 12. 31 " 2004. 12.30 ~2005.01.14	도지사 박태영 사망으로 보궐선거 박준영 당선 함평예술창작스튜디오(나비고을예술인촌) 조성 함평난연협회 창립 2004대한민국 국향대전 함평천수변공원 개최(11. 2-11. 7) 자광모자원, 농업협동조합과 자매결연 함평천주교회 등록문화재 117호 지정 학교면 월호리 282번지 가옥 및 창고 등록문화재 118호 지정 자연생태공원 「호반도로개설공사」 「청소년야영장」 준공	
2005. 01. 31 2005. 02. 25 2005. 03. 01 2005. 03. 2005. 03 2005. 04 2005. 05 2005. 05. 04 2005. 05. 09 2005. 05. 27 2005. 07 2005. 07 2005. 07 2005. 07 2005. 08. 11 2005. 09. 01 2005. 10 2005. 12.	자연생태공원 「곤충생태관 조성사업」 준공 월야새마을금고 함평군민 새마을금고 합병, 함평천지새마을금고로 명칭변경 손불동초등학교 손불초등학교로 통폐합 2005 제1회 대한민국난명품대전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함평군지회 창립 제7회 나비대축제 함평천수변공원 개최 우수축제 지정(04. 30- 05. 11) 해보면 금덕리 하귀~만년간 농어촌도로 1.06km 준공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해상무선표지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와 광주해상무선표지소로 소속변경 자광모자원, 2005테마기획사업 「3주제-생활시설이동권확보차량지원」 선정 자광모자원, 전라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선정 함평읍 진양리 백년~하동간 농어촌도로 1.40km 준공 엄다면 삼정리 송촌~영화정간 농어촌도로 1.16km 준공 나산면 월봉리 월봉~화정간 농어촌도로 1.11km 준공 월야면 양정리 석보~내세간 농어촌도로 1.12km 준공 나주소방서 함평파출소에서 영광소방서 함평파출소로 관할구역 조정 함평농협 장례식장 개장 2005대한민국 국향대전 함평천수변공원 개최(10.28 - 11.13) 전라남도 여성회관 주관으로 문화유산해설가 배출(21명)	
2006. 2006. 01. 01 2006. 01. 03 2006. 02. 08 2006. 02. 23 2006. 02 2006. 02 2006. 03. 13 2006. 03. 31 2006. 04 2006. 04. 20 2006. 05. 01 2006. 05. 31	함평군골프협회 창설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로 기능 및 명칭 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해상무선표지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광주해상무선표지소로 직제개편 해보농협, 나산농협을 나비골농협으로 합병 전남함평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함평집수리 설립승인 손불면 월천리 월산~차정간 농어촌도로 1.20km 준공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해안간 농어촌도로 0.50km 준공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함평캠퍼스 개강 학교농협, 엄다농협을 천지농협으로 합병 제8회 나비대축제 함평천 수변공원 개최 우수축제 지정(4.29-5.8) 지역경찰관서 개편으로 중앙지구대 소속 손불치안센터를 손불파출소로 전환 농협중앙회 손불, 나산, 학교 RPC를 함평군통합 RPC로 출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도지사 박준영 함평군수 이석형 광역의원 1선거구 김성호, 2선거구 나병기 기초의원 가선거구 김백용 이윤행 이동윤 나선거구 김국도 정현철 조용무 비례대표 김영중 윤앵랑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2006. 07. 03 2006. 07. 31 2006. 07 2006. 09 2006. 09 2006. 09 2006. 09 2006. 09 2006. 09 2006. 09 2006. 09 2006. 09 2006. 09 2006. 09. 18 2006. 10. 2006. 10 2006. 10 2006. 10 2006. 10 2006. 11. 03 2006. 12. 08	자연생태공원 개원(대동면 운교리 500-1 일원, 부지 410,465㎡) 나비골농협, 대동농협을 나비골농협으로 합병 영산강 호반 군도5호선 도로 확포장 2.64km 준공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 함평지점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남사업본부 함평지점(IV) 나산면 이문리에 생활유물전시관 준공 손불면 대전리 군도16호선 도로 확포장 0.63km 준공 학교면 죽정리 군도3호선 도로 확포장 0.60km 준공 엄다면 영흥리 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1.40km 준공 함평읍 진양리 백년~하동간 농어촌도로 0.51km 준공 손불면 학산리 소동~신기간 농어촌도로 1.2km 준공 신광면 동정리 신려~송계간 농어촌도로 0.72km 준공 학교면 마산리 청수원~내동간 농어촌도로 0.51km 준공 함평문화동호회 설립 함평군과 동진대 문화관광 인력양성사업단 주관으로 문화유산해설가 배출(33명) 김광옥 임혜숙 교사 부부 사재로 잠원미술관 개관(해보면 산내리 소재) 대동면 용성리 용연~정장간 농어촌도로 1.47km 준공 해보면 산내리 잠원미술관 개관 2006대한민국 국향대전 자연생태공원 개최(10.27-11.12)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출장소로 변경 월야새마을금고 내국환거래 체결	
2007. 01. 2007. 03 2007. 03~04 2007. 05. 03 2007. 05 2007. 05 2007. 05 2007. 05 2007. 05 2007. 05 2007. 07. 01 2007. 07. 01 2007. 07. 01 2007. 10 2007. 11 2007. 11. 2007. 11. 30 2007. 12. 19 2007. 12	함평군글로벌추임새운동지도자협의회 지도자 교육 실시 함평읍 수호리 정양~함평천간 농어촌도로 0.49km 준공 전남함평자활후견기관,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생활지원기관지정 생활유물전시관 개관(나산면 이문리 884-3 면적, 764.48㎡) 제9회 함평여중 뒤편 개축 및 우수축제 지정(5. 3-5. 8) 신광면 송사리 군도16호선 도로 확포장 0.9km 준공 월야면 월계리 군도7호선 도로 확포장 0.58km 준공 함평읍 석성리 가동~덕홍간 농어촌도로 1.64km 준공 손불면 학산리 소동~신기간 농어촌도로 1.64km 준공 해보면 금덕리 금곡~구계간 농어촌도로 1.12km 준공 농협중앙회와 축협 합병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명칭변경 전남함평자활후견기관, 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로 개칭 2007대한민국 국향대전 자연생태공원 개최(10.28-11.18) 함평읍 수호리 군도14호선 도로 확포장 0.16km 준공 종자보급소 함평지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으로 개칭(농수산식품부) 함평예술인연합회창립 제 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당선 함평군립도서관 준공	
2008. 01. 01 2008. 01 2008. 03. 01 2008. 03. 05 2008. 03. 18 2008. 04. 04 2008. 04. 09 2008. 04. 18 2008. 05 2008. 06. 12 2008. 06 2008. 06	함평나르다예술단 인가 영산강 호반 군도5호선 도로 확포장 7.2km 준공 대동향교초등학교 대신분교장 폐교 지역경찰관서 개편으로 남부지구대(학교, 엄다, 대동)를 남부파출소로 전환, 대동은 중앙지구대 관할구역으로 편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해상무선표지소, 국토해양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광주해상무선표지소로 직제 개편 해보면 금덕리 135번지에 문장 3·1만세 기념탑 건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낙연의원 당선 함평엑스포공원 개관(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52-1, 면적 734,682㎡) 제10회 나비대축제 함평천 생태공원 개최. 최우수축제 지정(5.3-5.11) (사)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전남도지부 함평군지회법인 허가 손불면 죽암리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 0.99km 준공 신광면 월암리 가야~매월촌간 농어촌도로 0.76km 준공	



연 대	내 용	전 거(典據)
2008. 06	엄다면 영흥리 용호동~사포간 농어촌도로 1.50km 준공	
2008. 08	해보 나비골 작은도서관 조성	
2008. 09. 01	학다리초등학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폐합	
2008. 10. 20	갯벌미술관 사립미술관 전남 제10호 등록(함평읍 석성리 200-19 구 함평석성초등학교, 연면적 1,000㎡)	
2008. 10	2008대한민국 국향대전 자연생태공원 개최(10.29-11.23)	
2008. 10	영산강 호반 군도5호선 도로 확포장 7.3km 준공	
2008. 11	영산강 호반 군도5호선 도로 확포장 7.3km 준공	
2008. 12. 01	학교우체국, 학교면 학교리 478번지에서 사거리 621-4로 이전	
2008. 12. 26	성애양로원 함평성애 전문요양센터 개원 (설립자 : 모종한)	
2008. 12. 29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2008.	해보면 용산리 1146-13번지 해보하수처리장 완공	
2009	함평읍 함평리 12-1번지에 상수도 배수지 증설	
2009. 03. 01	전라남도농업통계사무소 함평출장소 광주시방통계청으로 통합	
2009. 03. 16	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 도우누리 노인복지센터 설립(방문요양, 방문목욕)	
2009. 03. 19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부 함평군지회 명칭변경	
2009. 04	청수원 노인복지시설 진입로 확포장 0.12km 준공	
2009. 04	제11회 나비대축제 엑스포공원 개최, 최우수축제로 지정(4.24-5.10)	
2009. 05	함평읍 옥산리 용촌 진입로 확포장 0.43km 준공	
2009. 05. 22	월야 기산미술관 개관(월야면 월야리 1240 월야초등학교 내)	
2009. 06. 22	(사)함평생태관광협회 전라남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허가	
2009. 08	월야면 용정리 북룡~송정간 농어촌도로 0.98km 준공	
2009. 09	엄다면 송로리 농어촌도로 0.49km 준공	
2009. 10	해보면 대창리 해보 101호선(창서) 농어촌도로 0.28km 준공	
2009. 11	나산면 구산리 진입로 확포장 0.3km 준공	
2009. 12	함평읍 옥산리 가동~환경센터간 농어촌도로 0.52km 준공	
2010. 04	제12회 나비대축제 엑스포공원 개최, 최우수축제로 지정(4.24-5. 9)	
2010. 05	월야 작은도서관 조성	
2010. 07	함평군립나비미술관 준공	
2010. 06. 02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도지사 박준영 교육감 장만채 교육의원 나승욱 함평군수 안병호 광역의원 1선거구 박동주, 2선거구 노종석 기초의원 가선거구 이화동 임용수 정철희 나선거구 이재영 양규모 정수길 비례대표 최옥정	

관직 해설

- **가감역관(假監役官)** : 조선 때 토목(土木) · 영선(榮繕)을 담당하던 종9품의 임시관직
- **가덕대부(嘉德大夫)** : 조선의 종1품의 종친(宗親)에게 주던 관계(官階)
-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의 관계(官階). 종2품으로 문 · 무관 · 종친이 받음.
- **가의대부(嘉義大夫)** : 조선의 관계(官階). 종2품으로 처음에는 가정대부(嘉靖大夫)였다.
- **가인의(假引儀)**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에서 임시로 채용하던 종9품직.
- **감관(監官)** : 조선 때 각 관아(官衙) · 궁방(宮房)에서 금전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리.
- **감군(監軍)** : 조선의 군직(軍職)으로 군인들의 순찰을 감독하던 임시 벼슬.
- **감독(監督)** : 조선 말기에 궁내부(宮內府)에 소속된 칙임관(勅任官)
- **감목관(監牧官)** : 조선의 외관직(外官職). 지방의 목장(牧場) 일을 맡아 보았다.
- **감무(監務)** : 고려 때 현령을 둘 수 없는 작은 현(縣)의 감독관
- **감사(監司)** : 관찰사(觀察使)의 별칭으로 각 도(道)의 우두머리인 종2품
- **감사(監史)** : 고려 때 소부시(小府侍) · 군기시(軍器侍)의 관원
- **감사(監事)** : 조선의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1품의 관직.
- **감서(監書)** : 조선의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관리
- **감수국사(監修國史)** : 고려 춘추관(春秋館)의 최고 관직으로 시중(侍中 : 정1품)이 겸임
- **감역관(監役官)** : 조선 때 종9품의 벼슬로 건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 **감진어사(監賑御史)** : 조선 때 지방에 파견된 어사.
- **감찰(監察)** :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관직.
- **감창사(監倉使)** : 고려 때 창고를 감찰하던 관직
-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 춘추관 감사. 조선 때 춘추관의 정1품 관직.
- **감후(監候)** : 고려 때 서운관(書雲觀)에게 기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정9품직.
- **건공장군(建功將軍)** : 조선의 종3품 무관에게 주는 품계(品階)
- **건신대위(健信隊尉)** : 조선 때 무관에게 주는 정6품의 품계(品階)
- **건충대위(建忠隊尉)** : 조선의 정5품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 **검관(檢官)** : 조선의 형조 소속으로 시체를 검사하던 관리.
- **검교사(檢校使)** : 신라 때 중앙관부의 장관(長官)인 영(令).
- **검독(檢督)** : 조선의 지방관직으로 지금의 면장 또는 읍장에 해당하는 관직.
- **검률(檢律)** : 조선 때 형조에 소속된 종9품의 벼슬.
- **검상(檢詳)**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의 정5품 벼슬.
- **검서관(檢書官)** : 조선 때 서자 출신의 학자를 대우하기 위하여 규장각(奎章閣)에 두었던 관직.
- **검약(檢藥)** : 고려 때 전의시(典醫侍)에 속한 정9품관.
- **검열(檢閱)** : 고려 때 예문관(藝文官) · 춘



- 추관(春秋館)의 정8품에서 정9품의 벼슬.
조선 때 예문관의 정9품 벼슬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맡았다.
- **검토폰(檢討官)** :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에서 강독·논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6품 관직.
 - **견마배(牽馬陪)** : 조선 때 사복시(司僕侍)에 속한 종7품의 잡직.
 - **겸교리(兼校理)** : 조선 때 도서관(校書館)이 소속된 종5품 관직.
 - **겸교수(兼敎授)** : 조선 때 충훈부(忠勳府)에 속한 종5품 관직.
 - **겸보덕(兼輔德)**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3품 관직.
 - **겸사복장(兼司僕將)** : 조선 무관의 관직으로 종2품이었으나 뒤에 정3품이 되었다.
 - **겸인의(兼引儀)** : 조선 때 의식을 행할 때에 식순(式順)을 읽던 종9품직.
 - **겸필선(兼弼善)** : 조선 초기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를 교육한 정4품 관직.
 - **경력(經歷)** : 고려 때 4~5품 관리. 조선 때 종4품의 관리.
 - **경력교수(經歷敎授)** : 고려 때 교육기간인 국자감(國子監)에 속했던 관직.
 - **경학박사(經學博士)** : 고려 때 지방관민의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해 둔 교수직.
 - **계공랑(啓功郎)** : 조선 때 종7품의 속하는 문관 관계(官階)
 - **계사(計士)** : 조선 때 호조에 속한 종8품의 관직. 처음에는 산원(算員)이라고 했다.
 - **계사랑(啓仕郎)** : 조선 때 동반(東班 : 무관)의 관계(官階)로 정9품.
 - **계의관(計議官)** : 고려 때 광정원(光政院)소속의 정7품 관직.
 - **고공원의랑(考功員外郎)** : 고려 때 고공사

(考功司)의 관직으로 정6품의 벼슬

- **공사관(公事官)** : 조선 때 비변사의 낭청(郎廳)에 속했다가 뒤에 의정부에 두었던 종6품의 품계.
- **공수정(公須正)** : 고려 때 지방 관청의 재무를 관할하던 지방관직.
- **공작(公作)** : 조선 때 종9품의 잡직(雜職).
- **공제(工製)** : 조선 때 종7품의 벼슬로 상의원(尙衣院)에 4명, 군기시(軍器侍)에 5명이 있었다.
- **과의교위(果毅校尉)** : 조선 때 정5품의 무관계(武官階).
-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 고려 때 정3품의 무산계(武散階).
- **관리사(管理使)** : 조선 때 개성유수(開城留守)가 겸임하던 종2품의 관직.
- **관성장(管城將)** : 조선 때 북한산성을 관리·수호(守護)하던 정3품직.
- **관찰사(觀察使)** : 조선 때 지방장관으로 종2품이며 지금의 도지사와 같다.
- **광덕대부(光德大夫)** : 조선의 품계(品階)로 의빈부(儀賓府)에 속했던 1품 관계
- **광록대부(光祿大夫)** :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의 관계로 정2품의 상(上)
- **광성대부(光成大夫)** : 조선 때 정4품의 관계.
- **광정대부(匡靖大夫)** : 고려 때 문산계의 종2품 관계
- **교감(校勘)** : 고려 비서성(秘書省)의 종9품관. 조선 승문원(承文院)의 종4품관.
- **교검(校檢)** : 조선 때 승문원(承文院)의 정6품 관리.
- **교리(敎理)** : 조선의 관직으로 홍문관(弘文館)과 승문원(承文院)의 종5품 벼슬.
- **교서관창준(校書館唱準)** : 조선 때 도서관(校書館)에 예속된 종9품 체아직(遞兒職).

- **교서랑(敎書郎)**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에 속한 정9품 관리.
- **교수(敎授)** : 조선 때 부(府)와 목(牧)에서 유생들을 가르치는 중6품 관리.
- **국별장(局別將)** : 조선 때 훈련도감에 소속된 정3품의 무관직.
- **국자박사(國子博士)**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 속해 있던 정7품의 관직.
- **군공(郡公)** : 고려 때 5등작(五等爵)의 하나로 중2품직.
- **군수(郡守)** : 조선 때 각 군(郡)의 우두머리로 중4품의 지방 관직.
- **궁문랑(宮門郎)** : 고려 때 동궁(東宮)에 두었던 중6품의 관직.
- **권독(勸讀)** : 조선 때 세손(世孫)에게 학문을 가르치던 직책으로 중5품 관리.
- **극편수관(克編修官)** : 고려 때 춘추관(春秋館)에 있던 3품관 이하의 관직.
- **근임랑(謹任郎)** : 조선 때 직접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무(雜務)에 종사하던 중6품의 벼슬.
- **근절랑(謹節郎)** : 조선 때 동반종친(東班宗親)의 품계로 중5품 관직.
- **금군별장(禁軍別將)** : 조선 때 용호영(龍虎營)의 주장(主將)으로 중2품 무반의 관직.
- **금군장(禁軍將)** : 조선 때 용호영(龍虎營)에 속했던 무관직으로 정3품 당상관.
- **금위대장(禁衛大將)** : 조선 때 금위영의 주장(主將)으로 중2품 무신관직.
-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의 하나로 중2품의 품계.
- **금자승록대부(金紫崇祿大夫)** : 고려 문산계(文散階)의 하나로 중1품관.
-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 : 고려 문산계(文散階)의 하나로 중1품의 품계.
- **급사중(給事中)**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소속된 중4품 벼슬.
- **기거랑(起居郎)**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광직으로 중5품 벼슬.
- **기거사인(起居舍人)**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관직으로 중5품. 후에 정5품.
- **기거주(起居注)**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관직으로 중5품. 후에 정5품이 되었다.
- **기사관(記事官)** : 조선 때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6품에서 9품직이었다.
- **기사장(騎士將)** : 조선 때 금위영(禁衛營)에 소속된 정3품의 무관.
- **기주관(記注官)** : 조선 때 춘추관에 두었던 정5품의 관원.
- **남영사(南營使)** : 조선말에 친군영(親軍營)의 으뜸 벼슬.
- **낭관(郎官)** : 조선의 6품관(六品官).
- **낭사(郎舍)** : 고려 문하성(門下省) 소속으로 간관(諫官)들의 총칭.
- **낭장(郎將)** : 고려 때 정6품의 무관직(武官職).
- **낭중(郎中)** : 신라 때 관직으로 사지(舍知 : 13등급)에서 내마(柰麻 : 11등급)까지 역임. 고려 때는 6부(六部)에 소속된 정5품 벼슬.
- **낭청(郎廳)** : 조선 때 비변사(備邊司)에 속한 중6품의 관직.
- **내금위장(內禁衛將)** : 조선 때 임금의 호위와 대궐의 숙직을 맡아보는 금군청(禁軍廳)의 내금위를 통솔하는 중2품직.
- **내급사(內給事)** : 고려 때 전중성(殿中省)에 소속된 중6품의 관직.
- **내사사인(內史舍人)** : 고려 때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 소속의 중4품 벼슬.
-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정2품 벼슬.
- **내시(內侍)** : 고려 때 재주와 용모가 뛰어



- 난 세족자제(世族子弟)들을 임명하여 숙위(宿衛) 및 근시(近侍)의 일을 맡던 관원. 조선 때 환관의 별칭.
- **내직랑(內直郎)** : 고려 때 동궁(東宮 : 세자의 거처)에 소속된 종6품 벼슬.
 - **녕원장군(寧遠將軍)** : 고려 때 정5품의 무산계(武散階 : 무신들의 품계)
 - **녹사(綠事)** : 고려 때 정8품의 무관 벼슬. 조선 때 각 관아에 속한 하급이속(吏屬)
 - **단련판관(團練判官)** : 조선 때 각 지방의 진(鎭)에서 병사를 통솔하는 임무를 맡아보던 부관직.
 -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조선 때 관계(官階)의 최고관으로 정1품의 종친(宗親) · 의빈(儀賓) · 문무관(文武官)에서 주던 벼슬
 - **대군사부(大郡師傅)** : 조선 때 대군을 가르치던 종9품 임시 관직.
 -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조선 때 대도호부를 다스리던 정3품관.
 - **대사간(大事干)** : 조선 때 사간원(司諫院)의 최고직이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임금에게 충간(忠諫)하는 일을 맡은 정3품 관리.
 - **대사성(大司成)** : 조선 성균관의 최고관. 유학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정3품 관리.
 - **대사헌(大司憲)** :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의 장관으로 정2품 관리.
 - **대장(大將)** : 조선 때 정2품 무관직이며, 호위청(扈衛廳)에만 정1품 관을 두었다.
 - **대장(臺長)** :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 : 정4품)과 지평(持平 : 정5품)을 가리키는 말.
 - **대장군(大將軍)** : 신라 무관직의 으뜸. 고려 때 종3품의 무관직.
 - **대정(隊正)** : 고려 때 무관의 벼슬, 최하위

군관으로 종9품.

- **대제학(大提學)** :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 · 예문관(藝文館)에 둔 정2품 관직.
- **대학박사(大學博士)** : 고려 때 국자감을 설치하고 두었던 종7품의 품계.
- **대호군(大護軍)** : 고려 무관직으로 종3품. 조선의 무관직이며 종3품의 벼슬.
- **도사(都事)** : 고려 때 종7품의 관직. 조선 때 관리의 감찰 · 규탄을 맡은 종5품관.
- **도선(導善)** : 조선 때 종학(宗學)에 소속된 정4품 벼슬.
- **도순문사(都巡問使)** : 고려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주(州) · 부(府)의 장관을 겸하였다.
- **도순찰사(都巡察使)** : 조선 군관직. 정2품 또는 종2품의 광찰사가 겸임한 임시직.
- **도승(渡丞)** : 조선 때 나루터를 관리하던 종9품직.
- **도승지(都承旨)** :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 **도원수(都元帥)** : 고려 · 조선 때 전시에 군대를 통괄하던 임시 무관직.
- **도정(都正)** : 조선의 관직. 종친부(宗親府) · 돈녕부(敦寧府)에서 종친사무를 담당하던 정3품.
- **도제조(都提調)** : 조선 때 각 관청의 정1품 벼슬.
- **도첨의령(都僉義令)**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으뜸 벼슬.
- **도청(都廳)** : 조선 때 준천사(濬川司)에 속한 정3품 당상관(堂上官).
- **도체찰사(都體察使)** : 조선 때 관직, 전시에 영의정(領議政)이 겸임하는 최고 군직.
- **도총관(都總管)** :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의 우두머리로 정2품 관.
- **돈신대부(敦信大夫)** : 조선 때 종3품의 품

- 계를 가진 문관 벼슬로 의빈(儀賓)에게 줌.
- **돈용교위(敦勇校尉)** : 조선 무관의 관계로 정6품.
- **돈의도위(敦義徒尉)** : 조선 때 무관의 토관계(土官階)로 정7품.
- **동부승지(同副承旨)** :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된 정3품 관직.
-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중2품의 벼슬.
-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 조선 때 돈녕부(敦寧府)에 속한 중2품의 벼슬.
- **동지사(同知事)** : 조선 때 정2품 관직으로 이들의 직함은 소속관청명 위에 동지(同知)를 쓰고 관청명 밑에 사(事)를 사용하였다.
- **동지삼군부사(同知三軍府事)** : 조선 때 삼군부에 속한 중2품 벼슬. 대장(大將)이 겸임.
-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 조선 때 성균관에 속한 중2품 벼슬.
- **동지원사(同知院事)**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중2품 벼슬.
-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 조선 때 의금부에 속한 중2품 벼슬.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조선 때 중추부에 속한 중2품 벼슬.
-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 조선 때 춘추관에 속한 중2품 벼슬.
-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 조선 때 절도사(節度使)에 딸린 중2품의 무관직.
- **만호(萬戶)** : 고려 · 이조 때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정4품 무관직.
- **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教授)** : 조선 때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된 중6품 벼슬.
-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 조선 때 관상감에 소속된 관리로 점복(占卜)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정9품직.
- **명덕대부(明德大夫)** : 조선의 관계로 승덕대부(崇德大夫)를 개칭한 것.
- **명률(明律)** : 조선 때 형조에 소속된 중7품의 벼슬.
- **명선대부(明善大夫)** : 조선 초기 의빈(儀賓)에게 주던 중3품의 관계.
- **명위장군(明威將軍)** : 고려 때 중4품의 무산계(武散階).
- **목사(牧使)** : 조선 때 각 목(牧)의 으뜸 벼슬로 정3품 관직.
- **무공랑(務功郎)** : 조선 때 정7품의 문반관계로 중친 및 의빈(儀賓)에게 주었다.
- **문림랑(文林郎)** :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의 중9품상(上).
- **문사(文師)** : 고려 때 유수관(留守官)이나 대도호부(大都護府)에 속한 9품직.
- **문사알(文司諫)** :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에 속해있던 정6품 잡직.
- **문하녹사(門下錄事)** : 고려 때 문하성(門下省) 소속의 중7품의 관직.
- **문하사인(門下舍人)** : 고려 때 문하부(門下部) 소속의 중4품의 관직.
-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 고려 때 문하부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
- **문하시중(門下侍中)** : 고려 때 문하성의 최고 관리로 중1품 관직.
-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 : 고려 때 문하부의 관직으로 문하시중을 고쳐 부른 것.
- **문하주서(門下注書)** : 고려 때 문하부의 중7품 관직으로 첨의주서(僉議注書)라고도 한다.
-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 고려 때 문하부의 정2품 벼설이며 찬성사(贊成事)라 한다.
- **문하평리(門下評理)** : 고려 때 문하부(門下部) 소속의 중2품 관직.
- **밀직판원사(密直判院使)** :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종2품 관직.

- **밀직우녀사(密直院使)** : 밀직지원사(密直知院司) · 밀직사의 종2품 관직.
- **밀직부사(密直副使)** :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정3품 관직.
- **방어사(防禦使)** : 조선 때 지방 관직으로 각 도(道)의 요지를 방어하는 병권(兵權)을 가진 종2품 벼슬.
- **배용교위(陪戎校尉)** : 고려 때 정9품의 무관.
- **백호(百戶)** : 고려 · 조선조 때 5 · 6품의 무관직으로 청백하고 무예에 능한 관원.
-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 고려의 정1품 품계, 벽상공신(壁上功臣)의 무관.
- **별감(別監)** : 조선 때 액정서에 소속된 관직.
- **별검(別檢)** : 조선 때 사포서(司圃署) · 빙고(氷庫)에 소속된 정8품 및 종8품 관직.
- **별장(別將)** : 고려 때 정7품의 무관직. 조선 때 각영에 소속된 종2품의 무관직.
- **별제(別提)** : 조선 때 6품의 관리로 6조(六曹)에 속해 있었다.
- **별좌(別坐)** : 조선 때 정5품 또는 종5품의 관리.
- **별효장(別驍將)** : 조선 때 수원(水原) 총리영(總理營) 소속의 정3품 군인.
- **별후부천총(別後部千總)** : 조선 때 어영청(御營廳)에 소속된 정3품의 군인.
- **병마사(兵馬使)** : 고려 때 동 · 북 양계(兩界)의 군권을 지휘하는 정3품 벼슬.
-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 : 조선 때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의 군인.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조선 때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의 군인.
-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 조선 때 각 읍

(邑)의 수령(守令)이 겸임하는 군사직.

- **병부상서(兵部尙書)** : 고려 병부(兵部)의 장관. 지금의 국방부 장관과 같다.
- **병절교위(秉節校尉)** : 조선 때의 종6품에 속하는 무관의 관계(官階).
- **병조판서(兵曹判書)** : 조선 때 병조(兵曹)의 장관으로 정2품. 지금의 국방부장관.
- **병직랑(秉直郎)** : 조선 때 종친(宗親)에게 주던 정5품 동반관계(東班官階).
- **보공장군(保功將軍)** : 조선 때 무관의 관계(官階)로 종3품.
-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조선 때 정1품의 품계를 가진 양반(양반 : 동반 · 서반)에게 주던 칭호.
- **보덕(輔德)** : 조선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게 세자를 가르치던 종3품 벼슬.
- **보신대부(保信大夫)** : 조선 초기에 종친에게 주던 종3품의 관계(官階).
- **봉렬대부(奉烈大夫)** : 조선 때의 정4품 관계(官階).
- **봉사(奉事)** : 조선의 종8품 관직.
- **봉상대부(奉常大夫)** : 조선 때의 정4품 관계(官階).
- **봉상시정(奉床侍正)** : 조선 때 봉상시 소속의 정3품 관원.
- **봉선대부(奉善大夫)** : 고려의 종4품 문산계(文散階).
- **봉성대부(奉成大夫)** : 조선의 종4품 관계로 종친에게만 주었다.
- **봉순대부(奉順大夫)** : 고려 · 조선 때 정3품의 문관품계(文官品階).
- **봉어(奉御)** : 고려 때 각 관청 소속의 정6품 관직.
- **봉의랑(奉議郎)** : 조선 때 종5품의 문관 관계(官階).
- **봉익대부(奉翼大夫)** : 고려 때 종2품의 문

- 산계(文散階) · 영록대부(榮祿大夫).
- 봉정대부(奉正大夫) : 조선 때 종4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官階).
 - 봉직랑(奉直郎) : 조선 때 종5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官階).
 - 봉헌대부(奉憲大夫) : 조선 때 정2품으로 의빈(儀賓)에게 준 품계(품계).
 - 부사(府使) : 고려 및 조선 때 지방 관직으로 각 부(府)의 수령을 가르킨다.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정3품) · 도호부사(都護府使 : 종3품)를 말함.
 - 부사(副詞) : 고려 때 사(使)의 다음가는 관직으로 5~6품이었다.
 - 부사과(副司果) : 조선의 5위(五位)에 속한 무관직(武官職)으로 종6품의 벼슬.
 - 부사맹(副司猛) : 조선의 5위(五位)에 속한 무관직(武官職)으로 종8품의 벼슬.
 - 부사소(副司掃) :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9품의 잡직
 - 부사안(副司案) :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7품의 잡직
 - 부사약(副司鑰) :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6품의 잡직
 - 부사용(副司勇) : 조선의 5위(五位)에 속한 종9품의 무관직(武官職).
 - 부사정(副司正) : 조선의 5위(五位)에 속한 종7품의 무관직(武官職).
 - 부사직(副司直) : 조선의 5위(五位)에 속한 종5품의 무관직(武官職)
 - 부사포(副司舖) : 조선의 5위(五位)에 속한 종5품의 무관직(武官職).
 - 부수(副守) : 조선의 종친부(宗親府)에서 종실과 종친에 관한 일을 보던 종4품의 관직.
 - 부수관(副修撰) : 조선의 홍문관(弘文館)에서 내외(內外)의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에

- 관한 일을 맡아본 종6품의 벼슬.
- 부승지(副承旨) : 고려 때 광정원(光政院) 소속의 종6품, 밀직사로 고친 후 정3품이 됨.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관직. 지금의 비서실 차장급.
 - 부신금(副慎衾) : 조선 때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종8품 잡직(雜職).
 - 부신수(副慎獸) : 조선 때 궁중의 정원을 관리하던 종9품의 잡직.
 - 부위(副尉) : 조선 때 의빈부(儀賓府)에 속한 정3품의 관직이며 한말의 무관.
 - 부윤(府尹) : 조선 때 정2품 지방 관직으로 부(府)의 우두머리.
 - 부응교(副應敎) : 조선 때 홍문관에서 경서와 사적(史籍)을 관리하던 종4품 관직.
 - 부장(部將) : 조선 때 무관직으로 5위(五位)에 속한 종6품의 벼슬.
 - 부장(副將) : 조선말의 무관계급, 정2품이었으며 상장(上將) 밑의 관직.
 - 부전수(副典需) : 조선 때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종6품의 관직.
 - 부전악(副典樂)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본 종 6품 관직.
 - 부전율(副典律)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본 종 7품 관직.
 - 부전음(副典音)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본 종 8품 관직.
 - 부정(副正) : 고려 때 각 관청 소속의 종4품 관직. 조선 때 각 관청의 종3품관.
 - 부정자(副正字) : 고려와 조선 때 교서관(校書館)과 승문원(承文院)의 종9품 관직.
 - 부제조(副堤調) : 조선 때 각 기관에 소속된 정3품 관직(官職).
 - 부제학(副題學) :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의 정3품 관직. 제학(提學)의 다음 벼슬.



- **부직장(副直長)** : 고려 때 정8품 관직. 조선 때 상서원(尙瑞院) 소속의 정8품 관직.
- **부창정(副倉正)** : 고려 때 각 군현(郡縣)에 소속된 지방 관직.
- **부첨사(副詹事)** : 조선 말의 관직으로 왕태자궁(王太子宮)의 주임관(奏任官) 벼슬.
- **부총관(副總管)** : 조선 때 5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2품의 부관직.
- **부총제사(副總制使)** : 고려 말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에 속한 관직.
- **부호군(副護軍)** : 조선의 5위(五位)에 속했던 종4품의 무관.
- **부호장(副戶長)** : 고려 때 호장(戶長) 아래 관직이며 대등(大等)을 개칭한 이름.
- **북평사(北評事)** : 조선 때 함경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보좌관으로 정6품관.
- **분순부위(奮順副尉)** : 조선 때 무관의 관계(官階)로 종7품이었다.
- **분용도위(奮勇徒尉)** : 조선 때 서반(西班牙)의 토관직으로 정8품.
- **비서감(秘書監)**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 소속의 종3품 관직.
- **비서관(秘書官)** : 관청의 장관(長官)에 직속되어 기밀서무를 맡아보던 관리.
- **비서랑(秘書郎)**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에 소속된 정6품 관직.
- **비서승(秘書丞)**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에 소속된 정6품 관직.
- **빈객(賓客)**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되어 세자에게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가르치던 정2품의 관직.
- **사(師)** : 조선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에게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가르치던 정1품관으로 영의정이 겸임하였다.
- **사간(司諫)** : 조선 때 사간원(司諫院) 소속으로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논박(論駁)

하는 일을 한 종3품의 관직.

- **사경(司經)** :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정7품 벼슬.
- **사과(司果)** :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6품의 무관직.
- **사공(司空)** : 고려 때 삼공(三空)의 하나로 정1품 벼슬.
- **사도(司徒)** : 고려 때 삼공(三空)의 하나로 정1품 벼슬.
- **사맹(司猛)** : 조선 때 오위(五位)에 속한 정8품 무관직.
- **사사(司事)**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종2품 벼슬.
- **사서(司書)**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의 정6품 관직.
- **사성(司成)** : 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종3품 관리.
- **사안(司案)** :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에 예속된 정7품관.
- **사알(司謁)** :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되어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던 정6품 잡직.
- **사약(司鑰)** : 조선 때 액정서에 예속된 정6품관.
- **사업(司業)** : 조선 때 성균관에서 유학 강의를 맡아 보던 정4품의 벼슬.
- **사예(司藝)** : 조선 때 성균관 소속의 정4품 벼슬.
- **사용(司勇)** :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9품 무관직.
- **사의(司議)** : 조선 때 장례원(掌隸院)에서 노예에 관한 일을 보던 정5품의 벼슬.
- **사의대부(司議大夫)**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으로 정4품 관직.
- **사의랑(司議郎)** : 고려 때 동궁(東宮)에 있던 정6품관.

- **사인(舍人)** : 신라 때 사지(舍知 : 13등급)에서 대사(大舍 : 12등급)를 총칭하는 말.
- **사자(使者)** : 부여와 고구려의 관직으로 정 3품에서 정 5품까지 다양했다.
- **사정(司正)** : 조선의 오위(五位)에 속한 정 7품의 무관직.
- **사지(司紙)** : 조선 때 조지서(造紙署)에서 종이 제조에 관한 일을 맡은 종 6품.
- **사직(司直)** : 조선의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 5품의 무관직.
- **사평(司評)** : 조선 때 장례원(掌隸院)에 소속된 정 6품 관직.
- **사포(司圃)** : 조선 때 사포서(司圃署)의 정 6품으로 궁중의 채소·원예를 관리.
- **사포(司鋪)** :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 소속의 정 8품 관직.
- **산사(算士)** : 조선 때 호조(戶曹)·산학청(算學廳)의 종 7품 관이며, 지금의 계리사.
- **산원(散員)** : 고려와 조선 초기의 군관의 계급으로 정 8품 관직.
- **산학교수(算學敎授)** : 조선 때 호조(戶曹)에 소속되어 회계(會計)를 담당한 종 6품.
- **산학박사(算學博士)** : 신라 때 산술(算術)을 가르치던 교수이며, 고려 때 종 9품으로 국자감(國子監)에서 산술을 가르치던 교수.
- **삼공(三公)** : 고려 때 사마(司馬)·사도(司徒)·사공(司空)의 총칭으로 정 1품. 조선 때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총칭으로 정 1품 벼슬.
-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 조선의 해군 총사령관.
- **삼도육군통어사(三道陸軍統禦使)** : 조선 말기의 무관직으로 육군 통수관.
- **삼사(三師)** : 고려의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말하며 임금의 고문 또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으로 정 1품이었다.
- **삼사사(三司使)** : 고려 때 삼사(三司)에 속한 정 3품 벼슬.
- **상경(上卿)** : 정 1품과 종 1품의 판서(判書)를 가리키는 통칭.
- **상경(尙更)** : 조선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임금의 시중을 들던 정 9품 벼슬.
- **상다(尙茶)**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 3품으로 임금의 시중을 들었다.
- **상당(上堂)** : 신라 때 내마(奈麻 : 11등급)에서 아찬(阿飡 : 16등급)에 해당하는 벼슬.
- **상대등(上大等)** : 신라 때의 최고관직으로 모든 정사를 총괄했다.
- **상례(相禮)**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에 소속된 종 3품 관리.
- **상만호(上萬戶)** : 고려 때 군직(軍職)으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다음의 벼슬.
- **상문(尙門)**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종 8품의 벼슬.
- **상서(尙書)** : 고려 때 6부에 두었던 정 3품 관직으로 판서·전서 등으로 변경되었다.
- **상서령(尙書令)** :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의 우두머리로 종 1품 벼슬.
- **상서좌우승(尙書左右丞)** : 고려 때 종 3품 관직으로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속하였다.
- **상선(尙膳)** : 조선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종 2품 벼슬로 궁중식사의 일을 맡았다.
- **상세(尙洗)** : 조선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 6품 벼슬로 주방일을 담당하였다.
- **상시(常侍)** : 고려 때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를 통틀어 산기상시(散騎常侍)라 하고 약칭 상시라 했다.
- **상약(尙藥)**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의 종 3품 관직이며, 궁중의 약에 관한 일을 보았다.



- **상원(尙苑)**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의 종3품 관직.
- **상원수(上元帥)** : 고려 때 무고나직으로 출정하는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
- **상위사자(上位使者)** : 고구려의 관직으로 정6품 관직에 해당한다.
- **상장군(上將軍)** : 신라 때 대장군(大將軍) 밑의 무관직, 고려 때와 조선 초기의 정3품 무관직.
- **상좌평(上佐平)** : 백제의 16관 등급 중 좌평의 우두머리.
- **상주국(上柱國)** : 고려 때 정2품의 훈계(勳階)
- **상호(尙帖)**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의 소속된 정5품 관직.
- **상호군(上護軍)** : 고려의 무관직. 조선 때 5위(五位)에 속한 정3품 무관직.
- **상궤(尙毀)**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7품관.
- **서윤(庶尹)** : 조선 때 한성부(漢城府)·평양부(平壤府) 소속의 종4품 벼슬.
- **서장관(書狀官)** : 조선 때 관직으로 연행사(燕行使)의 일행인 기록관.
- **서학박사(書學博士)**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서 글씨를 가르치던 종9품의 관직.
- **선략장군(宣略將軍)** : 조선 때 종4품의 무관계로 경력·첨정(僉正)·부호군 등이 되었다.
- **선무사(宣撫使)** : 조선 때 재해나 병란이 일어났을 때 지방에 파견된 관리.
- **선부(膳夫)** : 조선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 **선용부위(宣勇副尉)** : 조선 때 무관의 종7품 잡직계(雜職階)
- **선위사(宣慰使)** : 조선 때 사신을 영접하는 임시관직, 3품 이상의 당상관을 임명.
- **선위장군(宣威將軍)** : 고려 때 종4품 무관의 관계(官階)
- **선의랑(善議郎)** : 고려 때 종7품 문관의 관계(官階)
- **선전관(宣傳官)** : 조선 때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소속된 정3품에서 종9품의 관리.
- **선절교위(宣折校尉)** : 고려 때 정8품의 무산계(武散階).
- **선절부위(宣折副尉)** : 고려 때 정8품의 무산계(武散階)
- **선직랑(宣職郎)** : 조선 때 동반(東班)의 정6품 토관직(土官職)
- **선화(宣畵)** : 조선의 도화서(圖畵署)에 소속되어 그림을 담당하던 종6품 관직.
- **선회(善繪)** : 조선의 도화서(圖畵署)에 소속되어 그림을 담당하던 종7품 관직.
- **선휘대부(宣徽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과 문관(文官)에게 주던 정4품 관계.
- **설경(說經)** : 조선 때 경연(經筵)에 속한 정8품 벼슬.
- **성록대부(成祿大夫)** : 조선 때 의빈(儀賓)에게 주던 정1품의 관계.
- **세마(洗馬)** : 고려 때 동궁(東宮)에 속한 종5품 관직이며, 조선 때 정9품의 잡직.
- **세자부(世子傅)** : 고려 때 세자의 스승.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 속한 종1품 관직.
- **세자사(世子師)** : 고려 때 세자의 스승.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 속한 종1품 관직.
- **소감(少監)** : 신라 때 무관직, 고려 때 4~5품 관직, 조선 때 종4품 벼슬.
- **소경(少卿)** : 고려 때 종4품 벼슬. 조선 때 4품 벼슬.
- **소덕대부(昭德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과 문관(文官)에게 준 종1품 관계.
- **소윤(少尹)** : 신라의 지방관직, 고려 때 종4품 벼슬. 조선 때 한성부(漢城府)·개성

- 부(開城府) 소속의 정4품 관직.
- **소의대부(昭義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에게 주던 종2품 벼슬.
 - **소첨사(小詹事)** : 고려 때 첨사부(詹事府)의 종3품 관직, 첨사(詹事) 다음가는 벼슬.
 - **수국사(修國史)** : 고려 때 감수국사(監修國史) 다음으로 2품 이상이 겸임한 사관이 다.
 -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 : 조선 때 수군(水軍)을 통솔한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조선 때 수군(水軍)을 통제하기 위하여 둔 정3품 무관직.
 -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 조선 때 진(鎭)의 수군을 지휘한 종3품의 무관직.
 -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대신(大臣).
 - **수봉관(守奉官)** : 조선 때 원소(園所)의 수호를 맡아보던 종9품직.
 - **수어사(守禦使)** : 조선의 수어청(守禦廳) 장관, 광주유수(廣州留守)가 겸임한 정2품 벼슬.
 - **수의도위(守義徒尉)** : 조선 때 종7품의 토관계(土官階)로 문관직.
 - **수의부위(守義副尉)** : 조선 때 종8품의 무관에게 주는 관계(官階).
 - **수임교위(修任校尉)** : 조선 때 문반의 정6품에 속하는 잡직계(雜職階).
 - **수직랑(修職郎)** : 고려 때 7품의 문산계(文散階).
 - **수찬(修撰)** : 고려 때 예문관(藝文官)에 속한 사관(史官)으로서 정2품의 관직이었는데 후에 정8품이 되었다.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의 정6품.
 - **수찬관(修撰官)**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 소속, 3품 이하가 겸직한 사관(史官). 조선 때 춘추관(春秋館)의 정3품 관직으로 부제학(副提學)을 겸임.
 - **순무사(巡撫使)** : 고려 때 안무사(按撫使)를 개칭한 것으로 지방관을 감찰하는 관직.
 - **순위관(巡衛官)** : 고려 때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에 소속된 참서관 밑의 벼슬.
 - **승덕대부(崇德大夫)** : 고려 때 의빈(儀賓)에게 주던 종1품의 관계(官階).
 - **승록대부(崇祿大夫)** : 고려와 조선 때 종1품의 문산계, 공민왕 때는 정2품.
 - **승정대부(崇政大夫)** : 조선 때 문관(文官)에게 주던 종1품의 관계(官階).
 - **승헌대부(崇憲大夫)** :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정2품 관계, 후에 문관에게도 주었다.
 - **승(丞)** : 고려 때와 조선 때 각 관청에 소속된 정5품~정9품의 관원.
 - **승무랑(承務郎)** : 조선 때 종7품의 잡직관직(雜職 官職).
 - **승봉랑(承奉郎)** : 고려 때 종8품의 문산계(文散階).
 - **승사랑(承仕郎)** : 조선 때 종8품의 문산계(文散階).
 - **승선(承宣)** : 고려 때 왕명의 출납을 맡아본 정3품 관직이다. 승지(承旨)·대언(代言).
 - **승의랑(承議郎)** : 조선 때 정6품의 문관계(文官階).
 - **승의부위(承義副尉)** : 조선 때 정8품 무관(武官)의 관계.
 -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 : 조선의 선전관청에 소속돼 왕의 명령을 전달하던 무관.
 - **승지(承旨)**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이다.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로 정3품.
 - **승후관(承候官)** : 왕의 기거와 안부를 묻던



관직.

- **승훈랑(承訓郎)** : 조선 때 정6품 관직으로 종친과 의빈(儀賓)에게 주던 관계.
- **시강관(侍講官)** :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에 속해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던 정4품.
- **시독관(侍讀官)** :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에 속해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던 정5품.
- **시독사(侍讀事)** : 고려 때 동궁(東宮 : 세자궁)에 소속된 관직.
- **시랑(侍郎)** : 신라 때 각 부의 차관(次官)이며, 내마(奈麻 : 11등급)에서 아찬(阿飡 : 6등급)까지 해당하는 벼슬, 고려 때 각 부의 정4품 관리.
- **시사랑(試仕郎)** : 조선 때 정7품으로 동반(東班 : 문관)의 토관직(土官職).
- **시어사(侍御史)**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 소속의 종5품 관직.
- **시중(侍中)** : 신라 때 집사성(執事省)의 최고벼슬로 대아찬(大阿飡 : 5등급)에서 이찬(伊飡 : 2등급)까지이며, 조선 때 수상(首相)으로 종1품.
- **신과(愼果)** : 조선 때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종7품 벼슬.
- **악사(樂師)**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 소속된 정6품직.
- **안렴사(按廉使)** : 고려의 지방장관으로 절도사·안찰사로도 불린다. 지금의 도지사.
- **안무사(按撫使)** : 고려·조선 때 지방에 파견되어 수령을 감찰하는 임시 외관직.
- **약장랑(藥藏郎)** : 고려 때 동궁(東宮 : 세자가 사는 곳)에 속한 정6품의 관직.
- **어모교위(禦侮校尉)** : 고려 때 종8품의 상(上)인 무관 품계(武官品階).
- **어모장군(禦侮將軍)** : 조선 때 정3품의 무관 품계(武官品階).
- **어사(御史)** : 고려 때 각 조(曹)의 장관,

또한 수서원(修書院)의 장(長).

- **어사대부(御史大夫)** : 고려 때 정3품으로 어사대(御史臺)의 장관. 조선 때 대사헌에 해당.
- **어사잡단(御史雜端)**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에 속한 종5품 벼슬.
- **어사중승(御史中丞)**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에 속한 종4품 벼슬.
- **어영대장(御營大將)** : 조선 때 어영청(御營廳)의 으뜸가는 벼슬로 종2품 무관직.
- **어영장관(御營將官)** : 조선 때 어영청(御營廳)의 장관(將官)으로 종4품 무관직.
- **역학(譯學)** : 조선 때 종9품으로 번역(翻譯)·통역(通譯)을 맡은 관리.
- **염문사(廉問使)** : 고려 때 지방관리의 재판행정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한 2품 관직.
- **영(令)** : 신라 각 부의 장관. 고려 때 3품~9품 관직. 조선 때 종5품 관직.
- **영관상감사(領館象監事)** : 조선 때 관상감(觀象監)의 으뜸 벼슬.
- **영도첨의(領都僉議)** : 고려 때 수상(首相)급의 관직. 영도첨의부사의 약칭.
-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 조선 때 영돈령·돈령부(敦寧府)의 장으로 정1품 관직.
- **영록대부(榮祿大夫)** : 고려 때 종2품의 문산계(文散階)
- **영사(領事)** : 고려 때 삼사(삼사)·춘추관(春秋館)의 장(長). 조선 때 홍문관·예문관·경연청·춘추관·관상감·돈령부의 장(長)
- **영사복시사(領司僕侍事)** : 고려 때 종2품으로 사복시(司僕侍)의 으뜸 벼슬.
- **영선공사사(領繕工司事)** : 고려 때 선공사(繕工司)의 장(長)으로 종2품 관직.
- **영원장군(寧遠將軍)** : 고려 때 무산계(武散階)로 정5품 하(下).

- **영의정(領議政)** : 조선 때 최고의 중앙관청인 의정부(議政府)의 최고 관직으로 정1품이며,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감독하였다.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다.
-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 고려와 조선 때 춘추관의 으뜸벼슬로 영의정이 겸하였다.
- **영홍문관사(領弘文館事)** : 조선 때 홍문관의 으뜸벼슬로 정1품 관직.
- **예의판서(禮儀判書)** : 고려 때 예의사(禮儀司)의 으뜸벼슬로 정3품의 벼슬.
- **오위장(五衛將)** : 조선 때 오위(五位)의 으뜸가는 종2품 벼슬. 후에 정3품.
- **요무교위(耀武校尉)** : 고려 때 정6품의 무산계(武散階).
- **요무부위(耀武副尉)** : 고려 때 정6품의 무산계(武散階).
- **요무장군(耀武將軍)** : 고려 때 정6품의 무산계(武散階).
- **우대언(右代言)**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정3품 관직,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3품 벼슬.
- **우보궐(右補闕)**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소속의 정6품 벼슬.
- **우복야(右僕射)**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소속되어 상서령(尙書令) 다음가는 정2품 관직, 조선 초기 삼사(三司)에 소속된 정2품 관직.
- **우부대신(右副代信)**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조선 때 승정원에 소속된 정3품.
- **우부빈객(右副賓客)**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종2품 벼슬.
- **우부수(右副率)**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속한 정7품 무관직.
- **우부승선(右副承宣)**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으로 정3품이었다가 후에 종6품으로 되었다. 조선 말 승선원(承宣院) 소속의 관직.
- **우부승지(右副承旨)** : 조선 초기 중추원의 정3품 벼슬이며, 후에 승정원의 정3품.
- **우부승직(右副承直)** :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에 속한 종6품의 관직.
- **우빈객(右賓客)**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정2품의 관직.
- **우사(右使)** : 고려·조선 때 삼사(三司)에 속한 정2품 벼슬. 우복야를 고친 이름.
- **우사간(右司諫)**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소속되어 간쟁을 맡아본 정6품 벼슬이었으나, 후에 우헌납(右獻納)으로 고치면서 정5품으로 하였다가 다시 종5품으로 바꿨다.
- **우사낭중(右司郎中)**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소속된 정5품 벼슬.
- **우사어(右司御)**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종5품 무관(武官) 벼슬.
- **우사원외랑(右司員外郎)**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속한 정6품 벼슬.
-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 고려 때 내사문하성에 속해 있던 정3품 관직.
- **우상시(右常侍)**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소속의 정3품 벼슬.
- **우승(右丞)** : 고려 때 상서도성의 종3품 벼슬. 조선초 삼사(三司)의 종3품.
- **우승직(右承直)** :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에 속한 종5품의 벼슬.
- **우시금(右侍禁)**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 소속의 정8품 벼슬.
- **우시직(右侍直)**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8품 관직.
- **우윤(右尹)** : 조선 때 한성부(漢城府 : 서울시청)에 소속된 정8품 관직.
- **우의정(右議政)** : 조선 때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정1품 벼슬로 백



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괄하며 여러 관직을 겸임.

- **우익위(右翊衛)**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5품 무관(武官) 벼슬.
- **우익찬(右翊贊)**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6품 무관(武官) 벼슬.
- **우찬성(右贊成)** : 조선 때 의정부에 속한 삼의정 다음 가는 벼슬로 종1품 관직.
- **우참찬(右參贊)**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 소속의 정2품의 벼슬.
- **우첨사(右詹事)** : 고려 때 왕비부(王妃府)에 예속된 관직.
- **운위대장군(雲麾大將軍)** : 고려 때 정3품의 무산계(武散階)
- **원보(元輔)** :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 **원사(院史)**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종2품 벼슬.
- **원상(院相)** : 조선 때 어린 임금의 보좌하며 정사를 다스리던 관직.
- **원의랑(員外郎)** : 고려 때 각 기관의 정6품 관직(官職)
- **위(尉)** : 고려 때 정9품의 무관직(武官職)
- **위수(尉率)** : 고려 때 춘방원(春坊院)에 소속된 좌·우위수로 정5품 무관,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좌·우위수로 종6품 벼슬.
- **유격장군(遊擊將軍)** : 고려 때 종5품의 무산계(武散階)
- **유기장군(遊騎將軍)** : 고려 때 종5품의 무산계(武散階)
- **유덕대부(綏德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에게 주었던 종1품계(品階)
- **율학교수(律學教授)** : 조선의 형조(刑曹)·율학청(律學廳)에서 법률을 연구한 종6품 관직.
- **율학박사(律學博士)** : 고려 때 상서형부(尙

書刑部)와 국자감(國子監)에 소속된 종8품 직.

- **율학훈도(律學訓導)** : 조선 때 형조(刑曹)·율학청(律學廳)에 소속된 정9품 관직.
- **응교(應敎)** : 고려 때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 속한 정5품 관직.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속한 정4품 벼슬.
- **의덕대부(宜德大夫)** : 조선 때 문관과 종친에게 주는 종1품의 관계(官階).
- **의동삼사(儀同三司)** : 고려 때 정1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 **이마(理馬)** : 조선 때 사복시(司僕侍)에 소속되어 임금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직. 품계는 6품이 1명, 8품이 2명, 9품이 1명이었으며 모두체아직(遞兒職)이다.
- **이방(吏房)** :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지방관청에 있었던 육방(六房)의 하나.
- **이사(貳師)**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종1품 관직.
- **익례(翊禮)**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에 소속되어 의식(儀式) 일을 맡아본 종3품직.
- **익선(翊善)** : 고려 때 정5품 관직, 조선 때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한 종3품직.
- **익찬(翊贊)**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되어 세자를 호위한정6품 무관직.
- **익휘부위(翊麾副尉)** : 고려 때 종7품의 무산계(武散階).
- **인의(引儀)**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 소속의 종6품 벼슬.
- **인진부사(引進副使)** : 고려 때 각문(閣門)에 소속된 종5품의 관직.
- **인진사(引進使)** : 고려 때 각문에 소속된 정5품 관직(官職).
- **자덕대부(資德大夫)** : 고려 때 종2품 하

- (下)의 문산계(文散階).
- **자신대부(資信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과 문관(文官)에게 주던 종3품의 관계.
 - **자의(諮議)** : 고려 때 정6품의 관직. 조선 초 삼사(三司)에 속한 정4품의 벼슬.
 - **자의대부(資義大夫)** : 조선 때 의빈(儀賓)과 문관(文官)에게 주던 종2품 관계.
 - **자헌대부(資憲大夫)** : 조선 때 초기에는 문·무관, 말기에는 종친·의빈에게 주던 정2품계.
 - **잡직(雜職)** : 조선 때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무(雜務)에만 종사하던 관직.
 - **장교(將校)** : 조선 때 각 군영(軍營)에 속했던 군관(軍官).
 - **장군(將軍)** : 신라 때 시위부(侍衛府)의 으뜸벼슬. 고려 때 정4품의 무관직이며, 조선 때는 종4품의 무관직(武官職).
 - **장령(掌令)** : 고려 때 사헌부(司憲府)·감찰사(監察司)의 종4품 관직.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의 종4품 관직(官職).
 - **장무장군(將武將軍)** : 고려 때 정4품 하(下)의 무산계(武散階).
 - **장봉(掌縫)** : 조선 때 세자궁(世子宮)에서 재봉(裁縫)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8품의 궁인직(宮人職).
 - **장사(長史)** : 고려 때 종6품의 무관(武官) 벼슬.
 - **장사랑(將士郎)** : 고려와 조선 때 종9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 **장서(掌書)** : 조선 때 세자궁(世子宮)에서 서책(書冊)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8품의 궁인직(宮人職).
 - **장식(掌食)** : 조선 때 세자궁에서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9품의 궁인직.
 - **장원(掌苑)** : 조선 때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정6품의 벼슬.

- **장의(掌醫)** : 조선 때 세자궁에서 의약을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9품의 궁인직.
- **장장(掌藏)** : 조선 때 세자궁에서 장물(藏物)을 취급하던 종9품의 궁인직.
- **장정(掌正)** : 조선 때 세자궁에 소속된 종7품의 궁인직.
- **장찬(掌饌)** : 조선 때 세자궁에 소속된 종7품의 궁인직.
- **재부(宰夫)** : 조선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종6품의 잡직(雜職).
- **저작(著作)** : 조선 때 정8품의 관직(官職).
- **적공교위(迪功校尉)** : 조선 때 무관(武官)의 잡직(雜職)으로 종6품의 벼슬.
- **적순부위(迪順副尉)** : 조선 때 무관(武官)의 정7품 관계(官階).
- **전경(典經)** : 조선 때 경연(經筵)을 맡아보던 정9품직.
- **전곡(典穀)** : 조선 때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정8품의 품계.
- **전근랑(展勤郎)** : 조선 때 종9품 문관(文官) 계통의 잡직(雜職).
- **전력부위(展力副尉)** : 조선 때 종9품 무관(武官) 계통의 잡직(雜職).
- **전부(典簿)** : 조선 때 종친부(宗親府)에 속한 정5품의 관직(官職).
- **전빈(典賓)** : 조선 때 궁중에서 접대·영빈 등의 일을 맡아보던 정7품의 궁인직.
- **전선(典膳)** : 조선 때 내명부(內命婦)에 소속된 정7품의 궁인직.
- **전성(典聲)**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 소속된 정9품직.
- **전수(典需)** : 조선 때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정5품의 관직(官職).
- **전악(典樂)**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 속한 정6품의 잡직(雜職).
- **전율(典律)**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 속



- 한 정7품의 잡직(官職).
- **전적(典籍)** : 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에 속한 정6품의 관직(官職).
 - **전첨(典籤)** : 조선 때 종친부(宗親府)에 속한 정4품의 관직(官職).
 - **전한(典翰)** :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에 속한 정3품의 관직(官職).
 - **전화(典貨)** : 조선 때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정9품의 관직(官職).
 - **전회(典會)** : 조선 때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정7품의 관직(官職).
 - **절도사(節度使)** : 고려 때 지방장관, 뒤에 안무사(按撫使)라 했다. 조선 때 지봉 군권(軍權)에 총 책임자였던 무관직으로 2품관.
 - **절제도위(節制都尉)** : 조선 때 절도사에 속한 종6품의 무관직.
 - **절제사(節制使)** : 고려 때 원수(元帥)를 개칭한 이름으로 각주(州)·부(府)의 장관직, 조선 때 ● 각 지방에 두었던 정3품의 무관직.
 - **절충장군(折衝將軍)** : 조선 때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무반관계(武班官階).
 - **정당문학(政堂文學)** : 고려와 조선 초기의 종2품 관직. 고려 때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 소속이며, 조선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이었다.
 - **정덕대부(靖德大夫)** : 조선 때 의빈(儀賓)에게 주었던 종1품 관계(官階)
 - **정랑(正郎)** : 고려와 조선 때 6조(曹) 소속의 정5품 벼슬.
 - **정략장군(定略將軍)** : 조선 때 종4품의 무반관계(武班官階).
 - **정봉대부(正奉大夫)** : 고려 때 종2품의 문산계(文散階)
 - **정순대부(正順大夫)** : 고려 때 종3품의 문관계, 조선 때 의빈의 정3품 벼슬.
 - **정언(正言)**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속한 종6품의 관직, 뒤에 정6품이 되었다. 조선 때 사간원(司諫院)에 속했던 정6품의 벼슬.
 - **정윤(正尹)** : 고려 때 종친에게 종2품. 훈신(勳臣)에게 정3품으로 내리던 봉작(封爵).
 - **정원장군(定原將軍)** : 고려 때 정5품의 무산계(武散階)
 - **정의대부(正義大夫)** : 조선 때 정4품의 문관품계(文官品階)
 - **정자(正字)** :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에 예속된 정9품직.
 - **정조(正朝)** : 고려 때 향직(鄉職) 7품 벼슬.
 - **정헌대부(正憲大夫)** : 조선 때 정2품의 무관 품계로 후에 종친·의빈의 품계와 병용.
 - **제거(提舉)** : 고려 때 관직. 조선 때 사옹원(司饔院)의 3품 벼슬.
 - **제검(提檢)** : 조선 때 사옹원·예빈시(禮賓侍) 등에 소속된 4품 벼슬.
 - **제조(提調)** : 조선 때 관직으로 도제조는 정1품, 부제조는 정3품.
 - **제학(提學)** : 고려 때 정3품 벼슬로 대제학 다음, 조선 때 종1품 또는 종2품 벼슬.
 - **조교(調教)** : 신라 때 국학박사(國學博士) 다음가는 벼슬. 고려 때 태의감·국학에 속한 벼슬.
 - **조기(調驥)** : 조선 때 사복시(司僕侍)에 소속된 종7품의 잡직(雜職).
 - **조봉대부(朝奉大夫)** : 조선 때 종4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
 - **조봉랑(朝奉郎)** : 고려 때 종5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

- 조부(調夫) : 조선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종8품의 잡직(雜職).
- 조산대부(朝散大夫) : 고려 때 4품 또는 5품의 문관품계. 조선 때 종4품 문관품계.
- 조산랑(朝散郎) : 고려 때 종7품 하(下)의 문관품계(文官品階).
- 조열대부(朝列大夫) : 고려 때 종4품 하(下)의 문관품계(文官品階).
- 조의대부(朝議大夫) : 고려 때 종5품 상(上)의 문관품계(文官品階).
- 조의랑(朝議郎) : 고려 때 종6품 상(上)의 문관품계(문관품계).
- 조전원수(助戰元帥) : 고려 말기의 무관직. 부원수 · 상원수를 돕는 구실을 담당.
- 조청대부(朝請大夫) : 고려 때 정5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
- 조청랑(朝靑郎) : 고려 때 정7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
- 조현대부(朝顯大夫) : 고려 때 문반품계(文班品階).
- 종사(宗司) : 조선 때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에 속해있던 종7품 품계.
- 종사관(從事官) : 조선 때 각 군영(軍營) · 포도청(捕盜廳)에 소속된 종6품직.
- 종사랑(從士郎) : 고려 때 7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
- 종순랑(從順郎) : 조선 때 정6품의 문반품계이며, 종친의 위계(位階).
- 종정경(宗正卿) : 조선 말의 종친부(宗親府) 소속으로 종2품 이상의 벼슬.
-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 고려 때 정4품의 관직위계(官職位階). 조선 때 정3품.
- 좌대언(左代言)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된 정3품의 벼슬.
- 좌랑(佐郎) : 고려와 조선 때 6조(六曹)에 소속된 정5품 벼슬.
- 좌반전직(左班殿直)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의 남반(南班)에 예속된 종8품관.
- 좌보궐(左補闕) : 고려 때 시대에 따라 정5품에서 정6품의 벼슬.
- 좌복야(左僕射) : 신라 때 관직.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 소속의 정2품 벼슬로 상서령(尙書令) 다음의 관직. 조선 초기 삼사(三司)에 속했던 정2품.
- 좌부대언(左副代言)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 좌부빈객(左副賓客)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했던 종2품 벼슬.
- 좌부수(左副率) : 조선 때 세자익위사에 소속되어 왕세자를 호위하던 정7품 무관직.
- 좌부승선(左富承宣) : 고려 때 정3품 벼슬. 조선 말 승선원(承宣院) 소속의 관직.
- 좌부승직(左富承直) :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에 속한 정6품 벼슬.
- 좌빈객(左賓客)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왕세자를 가르쳤던 정2품관.
- 좌사간(左司諫)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에 소속된 관직. 뒤에 좌헌납(左獻納)으로 개칭.
- 좌사낭부(左司郎部)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예속된 정2품직.
- 좌사낭중(左司郎中)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예속된 정5품직 벼슬.
- 좌사어(左司禦)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종5품 무관 벼슬.
-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 고려와 조선 초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간관(諫官).
- 좌상시(左常侍)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소속의 정3품 벼슬.
- 좌습유(左拾遺) : 고려 때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 소속의 정3품 벼슬.



- **좌승(佐丞)** : 조선 초기의 삼사(三司)의 중3품 벼슬.
- **좌승선(佐丞宣)** : 조선 말기의 승선원(承宣院) 소속의 관직(官職).
- **좌승지(左承旨)** :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3품 벼슬. 지금의 대통령 비서.
- **좌승직(佐丞直)** : 고려 때 정5품으로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관직(官職).
- **좌시금(左侍禁)**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 소속의 정8품 벼슬.
- **좌시직(左侍直)**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8품 무관(武官).
- **좌위수(左衛率)** : 고려 때 춘방원(春坊院) 소속의 정5품 무관직. 조선 때 중6품.
- **좌유선(左諭善)** : 조선 때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서 왕세손을 가르치던 중2·3품 벼슬.
- **좌윤(佐尹)** : 고려 삼사(三司) 소속의 중3품. 조선 한성부(漢城府)의 중2품 벼슬.
- **좌윤(佐尹)** : 고려 때 향직(鄉職)으로 6품 벼슬.
- **좌의정(左議政)**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 소속의 정1품 벼슬로 우의정의 상(上), 영의정의 아래이고 좌규(左揆)·좌상(左相)·좌정승·좌참찬(左參贊)이라는 별칭이 있다.
- **좌익위(左翊衛)**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소속의 정5품 벼슬.
- **좌익찬(左翼贊)**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소속의 정6품 벼슬.
- **좌종사(左從史)** : 조선 때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에 속하여 세자를 호위하던 중6품 직.
- **좌찬독(左贊讀)** : 조선 때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한 중6품의 무관벼슬.
- **좌찬선대부(左贊善大夫)** : 고려 때 동궁(東宮 : 세자가 사는 곳)에 소속된 정5품 벼슬.

슬.

- **좌찬성(左贊成)**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중1품 벼슬로 백관을 통솔하고 일반 정사의 처리, 국토계획(國土計劃) 외교를 맡아 보았다.
- **좌참찬(左參贊)**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정2품 관직(官職).
- **좌참사(左詹事)** : 고려 때 참사부(詹事府)에 소속된 벼슬.
- **좌통례(左通禮)**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의 으뜸벼슬로 정3품 벼슬.
- **좌주(祭酒)** : 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에서 제향(祭享)을 담당한 정3품 벼슬.
- **주부(主簿)** : 고구려 때 중2품 상당의 벼슬. 신라 때 내마(柰麻 : 11등급)에서 사지(舍知 : 13등급)의 관직. 조선 때 각 기관에 두었던 중6품. 고려 때 각 기관에 두었던 6품관에서 8품까지의 관직(官職).
- **주사(主事)** : 신라와 고려 때의 관직. 조선 때 정7품 관직.
- **주서(注書)** : 고려 때 정7품의 관직. 조선 때 문하부와 승정원 소속의 정7품.
- **중대부(中大夫)** : 고려 때 중4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 **중랑장(中郎將)** : 고려와 조선 초 각 영(領)에 소속된 정5품의 무관직(武官職).
- **중무장군(中武將軍)** : 고려 때 정4품 상(上)의 무산계(武散階).
- **중봉대부(中奉大夫)** : 고려 때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를 고친 정3품 문산계.
- **중부(重副)** : 고려 때 대제상(大帝相)의 다음 가던 벼슬.
- **중사인(中舍人)** : 고려 때 정5품으로 동궁의 속관관직(屬官官職).
- **중산대부(中散大夫)** : 고려 때 정5품 상

- (上)의 문산계(文散階).
- **중서령(中書令)**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정1품 관직(官職)
 - **중서사인(中書舍人)**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소속의 종4품 벼슬.
 -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 고려 때 중서성(中書省)의 정2품 관직(官職)
 - **중정대부(中正大夫)** : 고려 때 정3품의 문산계(文散階).
 - **중직대부(中直大夫)** : 조선 때 종3품으로 문반(文班)의 관계(官階)
 - **중현대부(中顯大夫)** : 고려 때 정3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 **중호(中護)**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에 예속된 정2품 품계.
 - **중훈대부(中訓大夫)** : 조선 때 종3품의 문산계.
 - **지구관(知穀官)** : 조선 때 훈련도감에 소속된 무관직.
 - **지도(志道)** : 조선 때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된 종9품직.
 - **지부사(知府事)** : 고려 때 6부(六部)에 소속된 종3품 관직.
 - **지사(知事)** : 고려 때 각 도(道)의 도통사에 딸린 5품에서 6품의 벼슬이며, 또한 각 관청의 2품에서 5품의 벼슬. 조선 때 정2품에서 종3품.
 - **지성사(知省事)** :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 소속의 종2품 관직.
 - **지원사(知院使)**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종2품 벼슬.
 - **지제고(知制誥)** : 고려 때 조서(詔書)·교서(敎書)등을 지어 왕에게 알리던 관직.
 - **지제교(知制敎)** : 조선 때 왕에게 교서(敎書) 등을 기록하여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부제학(副提學 : 정3품) 이하 부수찬(副修撰 : 종6품)까지가 겸임.
 - **지주사(知奏事)**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정3품 벼슬.
 - **지평(持平)** : 고려 때 정5품 관직.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에 소속된 정5품 관직.
 - **지후(祗侯)** : 고려 때 정7품 벼슬.
 - **직각(直閣)** : 조선 때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정3품에서 종6품까지의 관직.
 - **직강(直講)** : 조선 때 성균관(成均館) 소속의 정5품 관직(官職).
 - **직무랑(直務郎)** : 조선 때 동반(東班) 계통의 종8품으로 토관직(土官職) 관계.
 - **직문하(直門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에 소속된 종3품 벼슬.
 - **직사백(直詞伯)** : 고려 때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소속의 정4품 벼슬.
 - **직장(直長)** : 고려 때 6품에서 9품까지의 관직. 조선 때 종7품 관직.
 - **직제학(直提學)** : 고려 때 정4품 관직. 조선 때 집현전(集賢殿)의 종3품관, 홍문관·예문관의 정3품 관직, 규장각의 종2품에서 정3품관.
 - **직학(直學)**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 둔 종9품 관직.
 - **직학사(直學士)**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정3품 관직(官職).
 -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 고려 때 종2품의 무산계(武散階).
 - **진덕박사(進德博士)** : 고려 때 성균관(成均館)의 종 8품 관직.
 - **진무(振撫)** : 고려 때 도통사(都統使) 소속의 종2품과 정3품이 있었다.
 - **진무부위(進武副尉)** : 고려 때 종6품 하(下)의 무산계(무산계).
 - **진무사(鎭撫使)** : 조선 때 진무영(振撫營)의 으뜸벼슬로 강화유수가 겸직하였다.



- **진선(進善)**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정4품 관직(官職)
- **진어사(鎭禦使)** : 조선말에 춘천부(春川府)의 진어영에 소속된 으뜸 벼슬.
- **진영장(鎭營將)** : 조선 때 각 지방군대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진영의 장관으로 정3품직.
- **진용교위(鎭勇校尉)** : 조선 때 정6품의 무관(武官) 관계.
- **진위교위(振威校尉)** : 고려 때 종6품의 상(上)의 무관관계.
- **진위장군(振威將軍)** : 조선 때 정4품의 무관(武官)관계.
- **진장(鎭將)** : 고려 각 진(鎭)에 배치된 으뜸벼슬로 7품 이상 관원 중에서 임명됨.
- **질정관(質正官)** : 조선 때 글의 음운(音韻), 기타 사물의 의심점을 중국에 질문하여 알아오는 일을 맡았던 임시 관직.
- **집사(執事)** : 고려 때 말단 관리.
- **집순랑(執順郎)** : 고려 때 정6품의 종친(宗親)에게 주던 관계(官階).
- **집의(執義)** : 고려 때 사헌부(司憲府)의 3품관. 조선 때 사헌부의 종3품관.
- **집주(執奏)** :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 소속의 관직.
- **징사랑(徵事郎)** : 고려 때 정6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 **찬독(贊讀)** : 조선 때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한 종6품 관직.
- **찬선(贊善)**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종3품 관직.
- **찬선대부(贊善大夫)** : 고려 때 동궁(東宮 : 세자 궁)에 소속된 정5품 관직.
- **찬성(贊成)** : 조선 때 최고기관인 의정부(議政府)의 종1품 관직(官職).
- **찬성사(贊成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정2품 관직(官職).

- **찬위(贊尉)** : 조선 때 친왕부(親王府)에 소속된 주임관(주임관)의 벼슬.
- **찬의(贊儀)**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 소속의 정5품 벼슬.
- **찬정(贊政)** : 조선 말에 의정부에 소속된 칙임관(勅任官) 벼슬.
- **찰방(察訪)** : 조선 때 종4품 관직으로 각 역(驛)에 소속된 벼슬.
- **참교(參校)** : 조선 때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종3품관. 조선 말 무관직의 하나.
- **참군(參軍)** : 조선 때 한성부(漢城府) · 훈련원(訓練院)의 정7품 관직.
- **참리(參理)** : 고려 때의 관직으로 참지정사(參知政事 : 종2품)를 바꾼 이름.
- **참리관(參理官)** : 조선말에 외국어의 통역 · 번역을 담당하던 궁내부(宮內府) 예식원(禮式院)의 벼슬.
- **참봉(參奉)** : 조선 때 각 관청에 소속된 종9품 벼슬.
- **참의(參議)** : 조선 때 6조(六曹)에 소속된 정3품 벼슬.
- **참지(參知)** : 조선 때 병조(兵曹)에 소속된 정3품 벼슬.
-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에 소속된 종2품 관직(官職).
- **참지정사(參知政事)** : 고려 때 중성(中性) 문하성의 종2품 벼슬.
- **참찬(參贊)** : 조선 때 최고기관인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정2품 관직.
- **참찬관(參贊官)** : 조선 때 경연(經筵)에 속한 정3품의 관직(官職).
- **참판(參判)** : 조선 때 육조(六曹)에 속했던 종2품 벼슬로 지금의 차관(次官).
- **창선대부(彰善大夫)** : 조선 때 정3품의 당하관(堂下官)의 종친(宗親) 관계(官階).

- **창신교위(彰信校尉)** : 조선 때 종5품의 문관(文官) 관계.
-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 조선 때 관상감(觀象監)소속의 종6품 벼슬.
-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 조선 때 관상감(觀象監)소속의 종9품 벼슬.
- **천호(千戶)** : 고려 때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 후에 의금부)에 소속된 관리.
- **첨사(僉使)** : 조선 때 각 진영(鎭營)에 속한 3품의 무관직(무관직).
- **첨사(詹事)** : 고려 때 동궁(東宮 : 세자궁)의 종3품 벼슬.
- **첨서원사(僉書院使)**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정3품 벼슬.
- **첨위(僉尉)** : 조선 때 의빈부(儀賓府)에 소속된 3품의 관직.
- **첨절제사(僉節制使)** : 첨사(첨사)의 원래 관직(官職).
- **첨정(僉正)** : 조선 때 각 부서에 속한 종4품 관직.
- **첨지사(僉知事)** : 조선 때 중추원(中樞院)에 소속된 정3품 당상관(堂上官).
- **체찰사(體察使)** : 조선 때 지방에 파견되어 일반군무를 총괄하는 군인직.
- **초관(剿官)** : 조선 때 종9품의 무관직(武官職).
- **총랑(摠郎)** : 조선 때 정4품 관직.
- **총제사(摠制使)** : 고려위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의 관직. 재신(宰臣) 이상이 맡음.
- **총판(總辦)** : 조선말에 통신원(通信院)의 장관인 칙임관(勅任官) 벼슬.
- **충의교위(忠毅校尉)** : 조선 때 정5품의 무관관계(武官官階).
- **측후관(測候官)** : 조선 때 관상감(觀象監)의 임시 벼슬.
- **치과교위(致果校尉)** : 고려 때 정7품 상(上)의 무산계(武散階).
- **치과부위(致果副尉)** : 고려 때 정7품 하(下)의 무산계(武散階).
- **치력부위(致力副尉)** : 조선 때 정9품의 잡직관계(雜職官階).
- **태보(太保)** : 고려 때 삼사(三司)에 속한 정1품 관직(官職).
- **태부(太傅)** : 고려 때 삼사(三司)에 속한 정1품 관직(官職).
- **태사(太師)** : 고려 때 삼사(三司)에 속한 정1품 관직(官職).
- **태수(太守)** : 신라 때 각 군(郡)의 으뜸벼슬로 중아찬(重阿飡)에서 사지(舍知)까지가 많음.
- **통덕랑(通德郎)** : 조선 때 정5품 동반(東班 : 문반)
- **통사(通事)** :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에 속한 9품 벼슬로 문하부(門下府)에 속한 이속(吏屬), 조선 때 통역관(通譯官).
- **통사(通詞)** : 조선 때 사역원(司譯院)에 속하여 통역에 종사하였다.
- **통사랑(通士郎)** : 고려 때 9품의 문관관계(文官官階). 조선 때 정8품의 문관관계.
- **통선랑(通善郎)** : 조선 때 정5품의 동반관계(東班官階)
- **통역관(通譯官)** : 조선 말에 대한의원(大韓醫院)과 궁내부(宮內府)에 두었던 주임(奏任) 벼슬.
- **통의대부(通議大夫)** : 고려 때 시대에 따라 정3품에서 정4품까지의 문산계(文散階).
- **통의랑(通議郎)** : 조선 때 동반(東班)의 정5품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 **통정대부(通政大夫)** : 조선 때 문관(文官) · 종친(宗親) · 의빈(儀賓)의 정3품 관계.
- **통제사(統制使)** : 조선 때 3도(경남 · 전라



- 충청)의 수군(水軍)을 통솔하던 관직.
- 통직랑(通直郎) : 고려 때 시대에 따라 정 5품에서 6품 하(下)까지의 문관관계.
- 통헌대부(通憲大夫) : 고려 때 종2품의 문산계, 조선 때 정2품의 의빈관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 조선 때 문관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관계(官階).
- 특진관(特進官) : 조선 때 경연(經筵)에 참진(參進)하는 직무를 맡았던 관직.
-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 :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 정1품 상(上).
- 판관(判官) : 신라 때의 벼슬, 고려 때 5품에서 9품까지의 벼슬. 고려 및 조선 때 6품 이상의 지방관직, 조선 때 5품의 중앙관직.
- 판교(判校) : 조선 때 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에 속한 정3품 벼슬.
- 판사(判事) : 고려 때 각 6부(六部)의 장으로 종1품관. 각 관청의 정3품.
- 판서(判書) : 고려 때 각 관청 및 6조(六曹)의 으뜸벼슬로 정3품관. 조선 때 6조(六曹)의 으뜸벼슬로 정2품 관직. 지금의 장관.
- 판윤(判尹) : 조선 때 한성부(漢城府)의 으뜸벼슬로 정2품 관직(官職).
- 판원사(判院事)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정2품 관직(官職).
- 판전교시사(判典校侍事) : 고려 때 전교시(典校侍)의 으뜸벼슬로 정3품 관직(官職).
- 평사(評事) : 신라 때 관직, 조선 때 정6품의 외직무관(外職武官)
- 평장사(平章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정2품 벼슬. 내사시랑평장사.
- 평장정사(平章政事)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소속의 정2품 벼슬.
- 포도대장(捕盜大將) : 조선 때 포도청(捕盜

- 廳)에서의 으뜸가는 정2품 무관직.
-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 고려 때 종1품의 무산계(武散階).
- 필선(弼善)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의 정4품 벼슬.
- 학록(學錄)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의 정9품 관직. 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의 정9품 관직.
- 학사(學士) : 신라 때 직관. 고려 때 종2품에서 정4품까지의 벼슬. 조선 초기의 중추원(中樞院)에 소속된 종2품 벼슬.
- 학사승지(學士承旨)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 소속의 정2품에서 정3품 관직.
- 학유(學諭)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의 종9품 관직. 조선 때 성균관의 종8품 관직.
- 학정(學正)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의 종9품 관직. 조선 때 성균관의 종8품 관직.
- 한림학사(翰林學士)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 소속의 정4품 관직(官職).
-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 조선 때 한성부의 으뜸벼슬로 정2품. 지금의 서울시장.
- 해운판관(海運判官) : 조선 때 전함사(典艦司)에 소속되어 조운(漕運)을 담당한 관직.
- 헌납(獻納) : 고려 때 문하부 소속의 5품 벼슬. 조선 때 사간원(司諫院)의 정5품 벼슬.
- 현감(縣監) : 고려와 조선 초의 지방장관으로 고려 때는 7품, 조선에서는 종6품직.
- 현령(縣令) : 조선 때 각 현(縣)의 으뜸벼슬로 종5품의 지방관직(地方官職).
- 현록대부(縣祿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에게 주는 정1품 벼슬.
- 형방(刑房) :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지방관청에 두었던 육방(六房)의 하나.
- 호군(護軍) : 조선 때 오위(五位)에 속한 정4품 무관직(武官職).

- 호방(戶房) : 조선 때 승정원 · 지방관청에 두었던 육방의 하나.
- 호위대장(扈衛大將) : 조선 때 정1품 무관직.
- 호조참판(戶曹參判) : 조선 때 종2품 관직.
- 호조판서(戶曹判書) : 조선 때 호조의 으뜸 벼슬로 정2품 관직.
- 회사(會士) : 조선 때 호조(戶曹) · 산학청(算學廳) 소속의 종9품 벼슬.
- 효임랑(效任郎) : 조선 때 각 관아에 소속된 종6품의 잡직(雜職).
- 훈도(訓導) : 조선 때 전의감(典醫監) · 관상감(觀象監) · 사역원(司譯院) 및 5백호 이상의 고을에 두었던 종9품직.
- 흥록대부(興祿大夫) : 고려 때 정2품 문관 품계.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정1품 품계.
- 희공랑(熙功郎) : 조선 때 동반(東班) 토관직(土官職)으로 정7품 벼슬.

- 함평군사편찬위원회 -

자문위원	양규모(梁奎模)	함평군의회 의장
	김치중(金致仲)	함평경찰서장
	노양섭(盧良燮)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남(金泰男)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
	정병규(丁炳奎)	대한노인회 함평군지부장
	이진행(李辰行)	함평문화원장
	김규채(金圭彩)	함평향교 전교
위 원 장	안병호(安柄鎬)	함평군수
부위원장	정현철(鄭鉉喆)	함평군의회 의장
상임위원	박광웅(朴光雄)	전라남도함평교육청행정자문위원장,
위 원	고송주(高松柱)	(사)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장
“	고일식(高逸錫)	(사)한국효도회함평군지회장
“	김영택(金泳澤)	전 동아일보 기획위원
“	김창훈(金昌勳)	함평군민신문 대표
“	나홍채(羅紅塚)	전 기획예산실장
“	신영호(申英儔)	목포대학교 대학원
“	이명재(李明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이명헌(李明憲)	전라남도농업박물관 학예연구사
“	이이행(李以行)	시인
“	정경성(鄭敬星)	전라남도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	최권진(崔權鎭)	시인, 함평문화원 사무국장
“	최재원(崔宰源)	함평군예술인연합회장
간 사	김광운(金光雲)	문화관광체육과장
“	노덕균(盧德均)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담당
“	이가의(李佳依)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주무관
“	김규준(金圭準)	기획감사실장
윤문·교정위원	김항국(金恒局)	진도지산서초등학교장
감수 위원	이명재(李明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이홍길(李洪吉)	전 전남대학교 교수
“	윤형숙(尹炯淑)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	김희태(金熹台)	전라남도문화재전문위원
“	이진행(李辰行)	함평문화원장

- 자료조사위원 -

함평읍	지방행정직7급	김의배	손불면	지방기능직8급	박종남
신광면	지방농업직6급	조기영	학교면	지방행정직6급	정하수
엄다면	지방행정직7급	정동안	대동면	지방행정직7급	서선열
나산면	지방시설직7급	조균철	해보면	지방기능직8급	김광현
월야면	지방기능직8급	정진오			

- 편찬일지 -

- 2008. 03. 14 함평군보 등 발간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편년체로 발행기로 함
- 2008. 10. 09 편찬위원 위촉 및 함평군사 변천사를 중심으로 한 편찬계획에 의거 기존 군사의 수록 항목에 따라 편찬위원별 편집항목을 배분하여 1·2·3·4권으로 나눠 발행하기로 함
편찬위원장 함평군수 이석형(李錫炯)
- 2008. 10~12 기존 군사 분석 검토
- 2009. 01~04 군사편찬 과정별 분석 현장조사
- 2009. 01~08 군사편찬 자료수집 의뢰에 따른 자료수집
- 2009. 01~10 변천사에 따른 사진촬영
- 2010. 01~04 군사편찬위원별 원고작성 자료부족으로 1차 사업 변경
- 2010. 07. 01 함평군사편찬위원장에 민선 제5기 함평군수 안병호(安柄鎬)
- 2010. 05~08 군사편찬위원별 원고작성 자료부족으로 2차 사업 변경
- 2010. 01~08 각 장별 원고 내용 편집
- 2010. 03~08 함평군사 편집원고 윤문·교정
- 2010. 09~10 군사편찬 사업시행 절차에 따른 3차 사업 변경
- 2010. 09~09 원고 주민 열람
- 2010. 09~10 1·2·3·4권 원고 분량 조정
- 2010. 09~10 감수위원 감수
- 2010. 11~12 군사편찬 사업시행 절차에 따른 4차 사업 변경
- 2010. 10~12 인쇄 및 제본